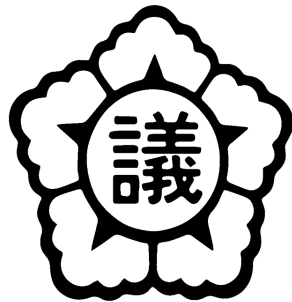


2019年度

議會會議錄



莞島郡議會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하나.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하나.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하나. 완도군의회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제8대 완도군의회

■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정수	가 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나 선거구 (금일읍, 고금면, 금당면, 생일면)	다 선거구 (군외면, 신지면, 약산면, 청산면)	비례 대표
9명	박재선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조인호 김양훈	허궁희 김재홍	우성자

■ 제8대 의장단 구성 현황

구분	의장	부의장	재임기간	비고
전반기	조인호	허궁희	'18. 7. 2. ~ '20. 7. 1.	

■ 제8대 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의회운영 위원장	행정자치 위원장	산업건설 위원장	위원
전반기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목 차

I . 제26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9
개회식	11
제1차 본회의회의록	13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7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9
II . 제26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3
개회식	25
제1차 본회의회의록	26
제2차 본회의회의록	62
제3차 본회의회의록	107
제4차 본회의회의록	173
제5차 본회의회의록	197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0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08
III . 제26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217
개회식	219
제1차 본회의회의록	220
제2차 본회의회의록	225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23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238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25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26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320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388
IV . 제26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433
개회식	435
제1차 본회의회의록	436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42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446

V. 제270회 완도군의회 (1차 정례회) 453

개회식	455
제1차 본회의회의록	456
제2차 본회의회의록	45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46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47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487

VI. 제2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493

개회식	495
제1차 본회의회의록	496
제2차 본회의회의록	538
제3차 본회의회의록	578
제4차 본회의회의록	606
제5차 본회의회의록	646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65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54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58

VII. 제2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665

개회식	667
제1차 본회의회의록	668
제2차 본회의회의록	672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679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681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68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691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749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810

VIII. 제27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815

개회식	817
제1차 본회의회의록	818
제2차 본회의회의록	821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825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839

IX. 제27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843

개회식	845
제1차 본회의회의록	846
제2차 본회의회의록	897
제3차 본회의회의록	970
제4차 본회의회의록	1021
제5차 본회의회의록	1058
제6차 본회의회의록	1097
제7차 본회의회의록	1154
제8차 본회의회의록	1184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193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10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226

X. 제275회 완도군의회 (2차 정례회) 1231

개회식	1233
제1차 본회의회의록	1235
제2차 본회의회의록	1240
제3차 본회의회의록	1243
제4차 본회의회의록	1259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1264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267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29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23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46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382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17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44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46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554
제1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615
제2차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652

XI. 제27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 1679

개회식	1681
제1차 본회의회의록	1682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1686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1696

제26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1월 08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6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 회 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존경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정석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찬 황금돼지띠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뭉개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지역발전과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 우리 군민들 또한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최근 다양한 행정수요의 시대적 변화 속에 완도 변환소 건설사업, 신지면, 고금면 기업형 돈사 건립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문제들로 군민간의 불신과 분열, 지역갈등 등으로 군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민은 물론 향우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각종 현안문제들을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100년 미래사업을 책임질 미래 성장의 핵심사업인 만큼 공직자는 물론 군민이 하나 되어 차근차근 준비해서 잘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의 열망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군의 힘찬 미래를 약속하게 될 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2019년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올해 군에서 신성장 치유산업 적극 육성,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 지속가능한 경제 실현 등 촘촘하고 든든한 그물망 복지실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관광도시 건설,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환경 및 정비여건 개선 등을 위한 SOC 등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이라는 규정 아래, 세계 속에 완도로 도약하기 위한 군정 운영계획을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군정의 청사진들이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언제나 관심을 갖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보다 나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가 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금년에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군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5만여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올 한 해 염원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이양일

이상으로 제26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합니다.

(10시08분 폐식)

제26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1월 0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10시0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일 우성자 의회운영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 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조례안과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동의안을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월 8일부터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3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39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기준에 따라 2019년 인상된 월정수당의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월정수당 152만 4,830원에서 2019년도에는 19% 인상된 181만 5,00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월정수당금액 산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3항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재난피해자에서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과 안 제5호 안에서는 사회재난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 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정명성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인환옥
관광정책과장	정인호
농업축산과장	박기제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이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미정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1월 0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우성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9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

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도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해서 완도군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지급기준에 따라 2019년도 월정수당 및 여비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 월정수당 152만 4,830원에서 올해는 29만 170원이 인상된 181만 5,000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각각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을 적용하여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인 국내 및 국외 여비기준은 조례안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원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원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따라 2019년 의정수당 및 여비의 연간 지급기준 인상률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개정된 사항으로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0호 원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90호 원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우성자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흥비

제266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1월 08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

시고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재난피해자에서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과 그 기준을 안 제4조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5호에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예,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의 위임사무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05호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5호 완

도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위탁계획 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저희 국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의 전문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슬레이트처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완도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근거는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환경부 제2차 생명관리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내용 및 범위는 완도군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매년 위탁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합니다. 이와 같은 위탁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군민건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매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처리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9년, 금년 우리 군에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슬레이트처리 104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1동 등 총 125동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6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1,300만 원입니다. 슬레이트 1동당 지원액은 최대 336만 원이고 올해부터 지원하는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동당 최대 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06호 완도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박 인 철		
의 원	박 재 선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2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8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2분 폐식)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 기획예산담당관

○ 복지행정국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2월 7일 우성자 의회운영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2월 12일부터 2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7호와 2408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

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408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청취는 군정의 전반적인 흐름과 추진방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 업무의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이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은 미래완도, 성장, 복지, 감동, 청정완도 등 5개 분야 52건으로 현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3연속 받아 공약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상황 보고회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군민이 직접 공약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항 이행점검 및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응모하는 등 민선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진입 추진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국정 및 도·군정의 능률성,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18년도 실적평가와 더불어 완전 연계지표에 한하여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바로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신규 합동평가시스템을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 평가결과, 도내 19위에 머무른 다소 미흡한 평가 순위에 대응하기 위해 네 차례 자체 보고회, 영상회의 및 우수 사례를 제출하는 등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2019년도 합동평가에 대한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위권 진입을 위한 실적관리와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의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에는 35건 385억 원이 확정되어 현재 사업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을 1월 24일 수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우리 군 현안 공모사업을 집중 발굴·대응하도록 하고 추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에 꼭 필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모사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공모사업이 누락되지 않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소통·기획 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 추진입니다. 2019년도가 해양치유산업 추진 원년인 만큼 활기찬 군정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축제 및 특산품 등을 중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현황으로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115개사를 비롯하여 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3개의 우리 군 대표 SNS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정 주요시책과 관광·특산품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해 왔으며 군 대표 SNS를 통해 다양한 군정 소식 등을 실시간 노출하여 손쉽게 군정을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등 주요 역점시책과 관광, 축제, 특산물 등에 대한 월별, 시기별, 단계별 기획보도와 SNS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우리 군 출입기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영방향은 해양치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성예산 및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방향에 따라 편성된 금년도 예산규모

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7%가 증가된 4,509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115억 9,300만 원, 특별회계 393억 6,200만 원으로 우리 군 재정자주도는 58.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1,748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지침에 의거 일자리, 생활SOC 등 신규 발굴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 중 조기 편성하여 3월 중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0년도 예산은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8월부터 편성하고 12월 21일까지 의회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 중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공분야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읍면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신규 국고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금까지 국고 현안사업 40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전라남도 각 사업부서에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고건의사업이 확정되는 4월 초까지 전라남도 우선순위에 우리 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

한 활용하여 내년도 국고건의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국고확보 추진일정 및 우리 군 대응 전략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 등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재정 신속집행으로 이월,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액은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3,158억 9,800만 원으로 상반기 목표액은 대상액의 65%인 2,063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재정집행상황을 내부 행정망에 매일 공개하고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하여 상반기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난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인 6.8점으로 2017년 청렴도에 비해 2.56점이 하락하였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으로 7.08점이며, 외부청렴도 또한 4등급으로 7.27점입니다. 청렴도 감점요인으로는 내부 부패사건이 발생하여 1건 0.45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회계·계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렴실천 청내방송, 청렴 옴브즈만 워크숍 개최, 부패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공사 계약 시 업체관계자들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SNS를 이용한 부패 비리 척결 청렴문화 확산 홍보 실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실시,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요소로 나타났던 재세정업무, 내부청렴도에서는 인사업무 분야를 중점으로 청렴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9년도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불법 비리와 소극적이고 무사안일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직속기관 1곳과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와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86건, 주의 211건 등 297건의 행정상 조치와 30억 7,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으며, 106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직속기관 2개소, 읍면 6개소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전 부서 각종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피서철 각종 민원 처리 및 피서지 관리 실태 점검 등 공직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연휴를 비롯해 수시 공직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9년 우리 군 자체감사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일상감사는 추정가격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심사는 1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461건 691억 7,900만 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약심사제도가 정착되고 전문성이 확보되어 계약심사 원가절감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심사를 통해 원가절감은 물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만 좀 있고 어떻게 건전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19년도 건전재정 운영계획은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조화로 효율성 있고…… 효율성 있는 건전한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방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상경비라든지 선심성, 전시성사업을 폐지하고 과잉투자가 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다음부터 보고서를 만들 때요. 좀 더 저화들이 알아먹기 좋게 자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예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일 큰 군 살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분석을 보면 예산이 4,575억 중에서 이월금이 21%, 967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10.8% 492억 원이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를 담당관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뭐 절약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4년부터 '1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등이 486억에서 491억까지, 이렇게 많이 잉여금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 이상적인 상태는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일치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잉여금 및 이월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월금 및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분석결과를 보면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전혀 없게 보이거든요.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면 재정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보고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 예산편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심도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소……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고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잘…… 계속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들이 직접 예산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분들한테도 예산에 대해서 역량교육도 많이 해주시면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많이 해주시고,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예산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말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잘 알겠습니다.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이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볼 때 그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군비 부담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과도하게 군비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군비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서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담당관님의 보고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 관련 업무가 담당관님…… 담당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완도군의회에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으로 4박 5일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죠. 현장방문을 한 후로 의원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접목할 과제를 발굴하였고, 그에 대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저희가 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고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정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군누이 어항 모델도 있고요. 또 마리나항 건설, 해조류박물관 건립, 또 유람선 운영, 케이בל카 설치, 군민재난대비교육장시설, 수산시장 기생화, 또 광어초밥전문점 운영, 완도자연그대로작관장 운영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제시를 했었는데, 그 뒤로 혹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한 바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벤치마킹 결과 접목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좀 더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 업무를 홍보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임시회가 끝나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감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알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1월부터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 사전컨설팅 제도 시행에 대해서 알렸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리고 실질적으로 추진한 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제가 느끼기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신분상 불이익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의 견해도 마찬가지로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다 보면 관련법 저촉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로 사전컨설팅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적극 홍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 브랜드 관련 분야는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 분야, 브랜드 분야가…… 잠깐만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중요한 것인데, 해마다 업무보고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CI 개발인 공동브랜드 관리가…… 2019년도에는 CI 개발계획이 없고 그래서요. 일반사무로 해서 관리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안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 박인철 의원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한 번 봐주시시오. 저게 무슨 사진인지 알겠죠? (예)

다음 장 하나를 더 올려보세요. 그 앞에 장, 진도 김 나온 것.

이 사진들은 중앙일보가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내용입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천년의 빛 영광, 진도에서는 김, 화순은 생물의 약사업, 고흥 유자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산업정책연구원이 2019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을 발표했는데 지자체 중에는 고흥군의 귀농·귀촌 정책, 평창군의 테마관광도시, 경북 칠곡군의 문화교육도시 등 3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현재 브랜드 개발은 158건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브랜드 슬로건인 건강의 섬 완도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지금 홍보를 잘해서 여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

○ 박인철 의원

예, 맞아요. 우리 군은 민선6기에 들어서 2016년도에 담당관님……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2017년에는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이 의미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된 생식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 어민들이라든지 농어민들이 저희들 포장재에다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이렇게 사용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 대표브랜드가 됩니까. 건강의 섬 완도입니까, 아니면 청정바다수도 완도입니까, 아니면 완도자연그대로입니까? 우리 군을 대표하는 것, 딱 내놓으라고 하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건강의 섬 완도가 대표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대표상표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완도자연그대로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완도자연그대로는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을 대표한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들에서 이런

상호를, 상표를 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브랜드슬로건이 109건, 공동브랜드가 47건, 웰빙식품이 24건, (청취불능) 브랜드 33건, 대한민국 청정바다 30건, 자연그대로가 25건, 기타 10건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내놓으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한번 조사 해봤습니까, 종합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직 그것은……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이 여차하면 용역, 용역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을……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소비 시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그런 것 한번쯤 뭐 해본 것 있습니까, 용역 이런 것?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 활용실태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이런 것을 자꾸 이야기한 것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그 뭐야, 데이비드 오길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한 제품의 속성, 이름, 포장, 가격, 역사, 그리고 광고방식을 포괄하는 무형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스티븐킹은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인데 반해, 브랜드는 소비자에 의해서 구매되는 것이 (청취불능) 제품의 경쟁회사가 복제

할 수 있지만 우리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요, 청렴도 항상 종합대책.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 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 도내에서는 몇 위입니까,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9위.

○ 박인철 의원

21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21위로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청렴도 측정결과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사 관리, 감독 분야 청렴도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및 제세정 분야에서 담당자들의 업무미숙과 불친절 등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부분이 있고요. 내부청렴도는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과 부패사건 발생요인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 보면, 지난 청렴도를 보면 내부청렴도는 인사분야에서 2016년, 2017년도에는 10점 만점인데 2018년도에는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7.7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내부청렴도의 인사 분야 점수가 떨어진 이유를 제가 추측해 보건대 2016년도, 2017년도 인사는 그래도 예측 가능한 인사였고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불만이 있었지만 대부분 수긍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공무원들의 청렴도 측정 시에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인사분야가 청렴하지 않아서 이런 점수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전보승진 및 전보인사 인원이 좀 많았고요. 잦은 자리이동과 그로 인한 소외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인사 부분과 직원들의 애사심. 즉, 내가 다니는 공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다 덮으려고 합니다. 담당관님, 상시 감사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상시 감사하는데 5급 사무관이면 우리 군의 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근무 중에 술을 먹고, 또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출근을 안 하고, 무슨 일이 터지면 연가를 내버리고, 압니까, 모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아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공무원의 꽃이고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할 5급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업무 중에 술을 먹어버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일과 이후에 술을 먹는 것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무슨 일이 있으면 출근을 못해 가지고…… 최소한 책임자라면 다른 직원들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데, 출근을 못해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연가를 내버리고, 이것이 완도군의 실정이에요. 이런데 무슨 청렴도가 올라가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 부분은 공직감찰을 더 강화해서요. 그

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직원들이 낮에 민원처리한다고 해가지고 노름방에 앉아있고……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위계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전부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봐야 돼요.

물론 민원, 좋습니다. 민원인을 만나서 술을 한 잔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어디 근무 중에 나가서 술을 먹고…… 잘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술 먹고 이런 형태예요, 우리 군이. 이런 것부터 바로 잡지 않으면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우리 청렴도도 금방 담당관님이 말했듯이 공사 그런 데에서는 거의 없어요, 뭘 일들이.

담당관님, 여기 감사에 보니까 1년에 8개를 한다고 하는데, 상시 감사가 있고 그러는데요. 수시 감사하십시오, 암행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상벌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시거나 그런 동향이 있으면 철저히 나가서 적발하도록 하겠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나도 듣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못 듣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집행부 쪽에서는…… 나도 듣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상시, 수시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박인철 의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꽃 아닙니까. 꽃들이 잘 피어야 밑에서 잘할 것 아닙니까. 위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밑에서는…… 직원들은 누구를 보고 업무를 배우고, 누구를 보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이 관계만큼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담당관님, 이것 하나라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예산분야에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확실히 업무 (청취불능) 되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도 없게끔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를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 - 자치행정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등 13건입니다.

먼저,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에게 기대치는 민간서비스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공직자의 친절 수준은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친절교육 및 자가진단 생활화로 공무원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및 특별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공직자 친절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군청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상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읍을 비롯한 읍면에도 민원도우미를 배

치할 계획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민원안내도우미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군청을 찾아오신 민원인을 적극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객 소리함을 설치·운영하여 군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공직자의 친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여 친절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문화 정착 및 상생발전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노동조합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으며, 지난 1월에는 공공연대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2월 중에 공무원노동조합과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합동 워크숍 및 근무환경 개선 위원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9월 중에는 완도군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갈등해소를 통해서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건의사항 중 추진 중인 97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에 밀접한 건의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한 2019년 군민행복 정책토크에서 접수된 건의사항 100건에 대해서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산분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문화 가정, 다동이 가정, 청년, 여성, 귀농·귀어인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현장중심 이동군수실을 수시로 운영하여 군민들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입니다.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의 역량 및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행정기구는 2국 1단 1담당관실 15과 체제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정원은 695명, 현원은 658명으로 결원은 37명입니다. 현재 결원된 인력과 앞으로 퇴직, 전출 등으로 결원될 일부 직렬에 대비하여 총 72명을 전라남도 충원계획에 신청하였으며, 6월에 2019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서 8월 말 충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사고충 상담을 위한 읍면순회 및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 등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으며, 능력과 성과중심을 바탕으로 한 조직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 배치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무원 교육훈련 및 사이버학습입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력 및 자기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군정발전 및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사이버학습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전화외국어 학습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총 503명이 교육훈련기관 교육을 수료했으며 우리 군 자체교육은 2,13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19년 추진계획입니다. 사이버, 전화외국어, 독서상시학습 등은 올해와 같이 운영하겠으며, 2년마다 한 번씩 운영되는 공무원 힐링캠프를 5월부터 9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간부공무원들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으로 우수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면학분위기 조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8개 장학사업에 14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사업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장학사업의 방향을 현실에 맞게 새롭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학사업은 명문대 진학 학생 등록금 지원 외 18개 사업 21억 2,500만 원으로, 2월 중에 용역결과를 예비비에 반영하여 '19년 장학사업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5월부터 6월까

지 2018년 장학사업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2020년 장학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각급 학교는 물론이고 기관·사회단체 및 읍면 이장들에게 상·하반기 장학회 소식지 발송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장보고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장학사업 현황은 8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으로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이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외 4개사업 8억 9,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4개 사업에 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월부터 4월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을 완료하고 사업추진과 점검을 통해서 내년 2월까지 사업정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우회 및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입니다. 완도군향우회는 재경향우회를 비롯하여 6개 향우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하고 있는 단체는 국외 6개 도시 등 29개 단체입니다. 매년 지역별 향우회 신년회라든가 정기총회 및 한마음축제에 참석하고 고향방문 행사를 추진하여 출향인으로서의 일체감과 자긍심을 심어 왔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 후 전복판축행사를 진행하여 판매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통절감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작년 1월 31일에는 베트남 트어티엔후에성과 자매결연을 체결, 해외시장 개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 및 향우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완도군의 주요 축제를 홍보하고 전복, 매생이 등 완도 수산물의 판촉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열세 분과도 글로벌 시장 개척과 문화교류를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 미역 북녘보내기운동입니다. 김, 미역 북녘보내기 운동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김, 미역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지난 2월에 발족한 김, 미역 북녘보내기 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2억 8,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완도군에서는 물류운송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모금하여 3억 원이 조성이 되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의회와 협의하여 3월 중에 김, 미역 및 생필품을 북한에 전달하고 5월에 방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적극 대응입니다. 우리 군을 당사자로 제기된 각종 국가·행정·민사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에 28건의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완료된 소송은 승소 4건, 일부승소 2건, 소 취하 1건 등 총 7건입니다. 행정심판은 13건을 수행하였으며 각하 등 승소 7건, 일부승소 1건, 소 취하 1건, 패소 1건 등 총 10건이 종료하였으며,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 소송 4건이 추가 접수되어 25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심판은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하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지속추진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규제혁신을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규제 지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전라남도 22개 시군 규제혁신 추진 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고령화 대비 작업 능력 향상과 안전조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냉장망 관리선 규모를 8톤에서 10톤 미만으로 사용제한 통수 상향 조정 등 네거티브 규제 1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참여기준 규제완화 등 테마별 규제 8건과 국유지 소재 지자체에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유지 내에 영구시설물 축조 관리 권한 일부 지자체 위임 등 지방분권 규제 2건을 발굴하고 면세유류카드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 중기청 규제 13건과 총 41건 발굴을 건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 및 관련부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군민 불편 해소와 주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감염병이나 재난·재해 발생 시 사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군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 6,900만 원 지원신청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본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 1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읍면별로 마을이장단 사업설명회를 2월 중에 개최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통신 인프라 확충 및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군민을 위한 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정보화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주요 시설 35개소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총 57개소에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된 컴퓨터 33대 교체와 놓여준 PC 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 계층에게 컴퓨터 50대를 직접 방문하여 설치하였으며, 쾌적한 거리미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3개 구역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통해 8,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거두는 등 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과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 주민정보이용시설의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놓여준 PC 보내기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서 최적의 정보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와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 마을관계자 회의를 상·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주민들의 열정과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복지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친절공무원…… 이장단

들한테 지금도 엽서를 보내고 계신가요? (예)

보내고 있을 때 너무…… 제가 이장을 해보면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못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미리 보내주시고요. 그때 엽서를 보내놓고 궁금하잖아요, 이달에 누가 친절공무원이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지만 문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에다가 전달해 주면 이장회의 때 그것을 알려주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됐다고 한다든지 궁금한 그런 내용을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군청에 다녀가신 분들이 완도에 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불친절하다고, 외부사람들이. 육지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원을 찾아왔는데 그 직원이 없었다고 그랬을 때는 반드시 다음에 전화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완도는 전화 온 사실이 없다고 그래요, 전화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못 만나고 가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5페이지,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어째서 그렇게 충원이 안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음, 일단 도에다가 채용의뢰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만큼 인원이 부족하니까 올해는 이만큼 채용을 해달라고, 각 직렬별로 숫자를 올리면 그 숫자를 뽑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해서, 도에서 일괄시험을 보는데요. 일부 직렬은 과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충원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특정 직렬에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충원이 되도 전보제한이 풀리게 되면 연고지로 진출하는 공무원들이 많고, 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늘어나고 있고, 또 질병이라든가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충원을…… 그때 당시 그 숫자에 맞춰서 충원이 되도 다시 또 6개월 정도 되면 결원숫자가 많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37명 부족인데, 78명인가요, 그 2배 이상 충원을 요청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놓고 필요할 때 임용

하는 그런 방법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2배나 많은 숫자를 충원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우성자 의원

조금이라도 빨리 인원을 충원해 가지고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에 너무 과도한 일을…… 생각해 봤고요. 또 기피 근무지가 있잖아요. 가기 싫은 곳, 이런 데, 그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줘 가지고 서로 균형이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난방송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16쪽에.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음,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1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산을 확보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2개년도에 걸쳐서 구축하기로 지금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읍면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올해 입찰을 해가지고 돈은 이렇게…… 일은 전체 올해하고 돈은 2년에 나누어서 갖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총괄 입찰, 총액 입찰해 가지고……

○ 우성자 의원

일을 전체적으로 올해 다 해달라고 하고 금액은 2년에 나눠서 갖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들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2개년에 걸쳐서 하고……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또 하다 보면 육지부터 하면

섬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또 섬에서 하다 보면 육지에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요, 일을 올해 전체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하고 금액은 나눠서, 정 안 되면 나눠서 하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금액은 어차피 2개년도에 걸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그 11페이지, 사랑의 김, 미역 보내기가 있잖아요. 김, 미역 보내기, 그것은 그러면 2,000만 원인데, 상당히 보면…… 이대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또 할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뭐 추후계획은 없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수시로 이렇게 변화가 많기 때문에 또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없고요? (예)

우리 생각에는 지금 같으면 계속 교류협력을 위해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015년도에 보면 김, 미역 보내기 운동이 정부에서 미역수매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2005년도입니까?

○ 우성자 의원

예, 혹시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수매자금을 받아다가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그 품종을 김, 미역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매생이나 톳 등 여러 가지 해조류를 같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 수매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대 초

까지는 김, 미역도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양식으로 생산량이 조절되는 품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수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해수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오징어,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갈치, 조기 이렇게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정부 수매를 하지, 양식으로 해서 생산이…… 뭘니까, 수급조절이 가능한 그런 양식품목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김, 미역도 수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부 수매방침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우성자 의원

확실히 확인해 보내고 만약에 그런 자금이 있다면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와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있다면 그렇게……

○ 우성자 의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12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있죠.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5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지면 돈사 건축 취소 청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신지. 신지 돈사 그것 지금……

○ 김재홍 의원

취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만약에 앞으로 취소가 된다면요?

○ 김재홍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우리 군이 진다면?

○ 김재홍 의원

불허처분. 예를 들어서 처분했을 때, 취소가 됐을 때 우리 군 행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지금 신지 말씀하시죠?

○ 김재홍 의원

예, 신지 돈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데 신지는 불허가처분을…… 당초에 불허가처분을 했던 곳입니다, 저희들이.

○ 김재홍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진행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데 당사자가 그것 취소를…… 불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해 온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그쪽에서 이긴다고 그것은 뭐……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정 부당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에 안 맞다. 여러 가지로 다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항소할 수밖에 없죠.

○ 김재홍 의원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사소송에 보면 노화하고 금일 하수관계 간접청구에서 1심에서 패소를 했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2심을 진행 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 그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의원한테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적극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인데요. 지금 시공사에서…… 뭘니까, 주장하는 바가 우리 군이 하수처리장 공사를 이렇게 이팔로 해가지고 어업권 피해보상이 지연됐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간접비를 청구한 그런 소송인데.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홍보청구액이 금일, 노화, 구도 전까지 간접비가 3개가 있는데 총 합치면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대법원에 항소…… 전원합의체 판결결과 우리 군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장한 것처럼 차수별계약이 인정되어 가지고 2심에서는 승소한 바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가 우리 군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유리하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방금 35억이면 아주 엄청난 금액……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군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차수계약이 인정되고 대법원 판결대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많아야 한 2억 6,800 정도, 한 3억 정도는 예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재홍 의원

최대한 2심에서 승소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14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고금면 돈사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처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이 건은 아까 신지 건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 허가처분을 했다가 허가처분을 취소했던 경우인데요, 고금. 그래서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이후로 작년 10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로, 또 12월인가 바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은 일단 행정심판을 먼저 한다고 보고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전라남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지사가 위원장이고 각 계 전문가들, 교수들, 도청 실국장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접 제가 법무담당관실을 우리 법무팀장하고 방문해서 우리 군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 드렸습니다. 드렸고, 이것은 도저히…… 불허가처분이 취소된다면 우리 군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이런 것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 주민들도 수용하지 못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우리 군 불허가처분이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또 그 이후로 새로 오신 정성호 부군수님이 법무담당관실을 다시 방문해서 다시 재차…… 바뀐 법무담당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제가 군수님을 수행해서 행정부지사님을 직접 뵈러 갔습니다. 작년…… 아, 지금 2월이니까 작년 12월이죠. 가서 행정부지사님을 직접 뵈고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그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에 많이…… 판결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광주에 있는 변호사한테……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제가 법무팀장하고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우리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이야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김재홍 의원

하여튼 설명도 잘하셨고 본의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청정바다수도의 이미지를 버리지 않게끔 적극 대응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현장소통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군수실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다양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읍면 9월 14일부터…… 아니,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해양치유산업 등 군민과의 대화를 하셨네요, 그 성과가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성과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지만 12개 읍면을 군수님께서 이동군수실 정책토의를 하시면서요, 연 초에 각 읍면을 방문하신 주민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겸해서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당위성, 또는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 이런 것을 강조하였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12개 읍면 1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할 것은 하고, 통보했고, 앞으로 시간이 걸리는 것,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준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소안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참석했던 인원하고 올해 참석했던 인원이……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군수님하고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에서 대상을 선정할 때 군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선정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물이 짜여 있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군수님…… 이동군수실 운영이라든가 읍면 방문 시에 누구누구를 초청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습니다. 대개 그 지역의 기관단체장들 그리고 이장님들, 또 필요하면 노인회장님들, 그다음에 부녀회장님들, 청년회장님들, 각 마을에, 이런 분들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그런 직이나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주민들을 초청하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해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음부터는 특정인들 꼭 그런 분들이 아닌,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군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실제로 군수님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또 평소에 관 출입을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초청…… 군수님이 가실 때 초청한 것은 읍면장들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읍면에 가면 100여명 넘게 이렇게 모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읍면에 가면 40~50명이 모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누구를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 동원이라기보다는 초청하는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면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참석하는 주민들을 그런 분들로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대상을 어느 정도 업종별로랄까, 품목별로랄까. 그런 부분들도 약간 끼워줘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청취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 분야입니다. 지금 내 고장 인재육성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 백년대계라면 인재육성은 영원히 갖춰야 될 우리 군의 숙제가 아닙니까? (예)

지금 장학기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행복기금

때문에 다 돌려 가지고 요즘 군비를 많이 투입하고 있죠. 군비를 많이 출연해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군비 출연금도 있고 기금 모금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행복복지재단하고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양분되다 보니까 모금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근래에 제가 들은 소리는요, 행복기금을 전달하면, 300만 원을 전달하면 3,0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대요. 각 지역 면단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국장님이 그런 사항들도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지금 완도수고에 지원된 금액이 1억 9,600 있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작년에 1억 9,600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실적하고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까지 완도수산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됐었는데요,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정해서 6개년도 지원을 보면, 지원액을 보면 15억 4,200만 원이 됩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교류학습이라든가 해수양식장 개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원어민 일대일 전공화상실 영어, 그다음에 진로취업캠프, 산업체 체험학습, 또 글로벌 해외 체험학습, 글로벌 영어캠프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꼭 이런 지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학교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2016년도의 성과는 원양어선 및 상선에 승선하신 그런 합격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모양이죠. 한 26명이 되는데, 해군 부사관 합격자가 4명, 해양수산연구보존이 3명, 그다음에 식품 관련 대기업이라든가 완도지

역 우수업체 취업자가 20명, 그다음에 전남 지방 수산직 9급 공무원 합격자가 4명,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명, 그 다음에 해외취업 합격자가 4명 뭐 이런 식으로 공무원…… 이런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이스터고를 지정한 후에 예산부족에 따른 지자체 지원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전액……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장학사업을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장학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제가 이 얘기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사업입니다. 내 고장, 우리 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스터고로 전환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모집하죠, 마이스터고로? (예)

그 부분에 내 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이 타 시군에 있는 학생들에게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살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의 장학사업이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데, 씹씹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에 완도를 위해서 좋은 인재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간접적인 혜택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혜택은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 이범성 의원

아니, 뭐 간접적이라든지 금액이 꽤 많이 나가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인사 운영계획입니다. 이전에 민선

6~7기 들어서 2번의 조직개편이 있었죠? (예)

금년에도 혹시…… 조직개편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데 작년에 대구모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할 조직개편은 원포인트라고 할까요. 일부분 조직개편 후에 조금 손을 대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읍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특히 고금면 쪽입니다. 농수산계가 다른 면에 비해서 인구수나 통계자료를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제일 많습니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직원 한 분이 출장을 가버리면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안 되니까 이틀, 3일을 걸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옵니다. 너무 민원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주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원활하게 민원처리하기 위해서는 고금면의 농수산계팀을 분리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읍면에 농·수산팀으로요. 고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 김양훈 의원

농·수산팀으로 따로 나뉘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해주면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12개 읍면별로 보길 같은 경우는 유적관리팀을 신설해서 지금 5개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청산은 경관관리팀, 고금 같으면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수산팀으로 분리해서…… 그런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고려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사라졌던 TF팀이 조직개편 이후에 지난 1월 인사에도 다시 운영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TF팀은 수영장 개장 때문에 정식팀을 만들지는 않고 수영장 (청취불능) 개장 준비를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응급구조요원부터 시작해서 수영강사, 또 보일러, 전기, 청정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이 한 12~13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기존 체육시설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체육시설팀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업무가 있는데 수영장까지…… 개장 전에 할 일들을 그쪽 팀에다가 맡기는 것은 너무 무리다. 이렇게 판단해서요. 이번에 팀장급 1명을 관리하는…… 그 TF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 수영장 때문에 팀이 새로…… TF팀이 생겼다는 것이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른 것은 없고요.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5페이지에 인사문제입니다. 상반기 인사와 관련하여 지역 내에 많은 여론이 형성되었고 공무원 또한 불만이 많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인사숙성상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불만을 가지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다만 이번 인사만큼 잡음이 많은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들은 바로는 사무관 인사에서 6개월이 채 안 된 상황에서 잦은 인사를 했다는 이 사항하고, 또 예상보다 큰 폭이었다는 그런 부분들로 제가 들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정확히 알고 있구먼요.

지방공무원법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잘못된 부분, 우리 인사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볼까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항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제2항에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직개편,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렬 불부합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직렬 불부합 문제는…… 그렇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 인원이 채워져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직렬별로 그 직렬 직원들이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그 직렬에 부합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8급, 7급, 6급 이렇게 승진하면서 직렬 불부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원들의 승진에 맞추어서 직렬에 맞게끔 배치하려고 하게 되면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직렬 불부합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그러면 승진을 안 시키고 계속 그 직위에 놔둬야 되냐, 팀장이라는 직위를 주지 않고, 그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승진을 하면 팀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해서 보직을 주는데 그렇게 되면 갈 자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렬에 대한 팀장을

위해 팀을 또 만들고,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 문제는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인사파트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비록 직렬 불부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팀장 정도로 승진할 정도면 그와 유사한 직위에 전보해도 업무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곤 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직렬 불부합 문제가 오늘 내일, 그저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은 좀 해봤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인사 안을 짤 때는 물론 그 직렬에 맞게끔 최대한 직원이, 그 팀장이 갈 수 있는 그런 보직으로써 보호를 합니다. 그러나 인원이 남을 때는 할 수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보건의료원에는 그러면 그런 직렬이 없어서 전부 행정직들이 가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이제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 박인철 의원

특수직렬이죠? (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어찌 됐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을 떠나서 전문…… 누구보다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 그것은 차차하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를 보면 필수보직과 전보, 전출 제한을 보면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에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필수보직 기간도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금방 직렬 불부합,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보직관리나 전보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 전보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여기 법

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 인사가 맞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경우도 조직개편이나 기구정원 조정이나 기구 개편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죠.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예외규정이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좋습니다, 100분의 10……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을 우리 군 인사는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좀 봐봅시다.

(자료를 들며)

6급부터 9급까지는 봐봅시다. 사무관부터 국·단장들을 봐봅시다. 이것이 국·단장 근무경력인데, 세상에 한 과를 책임질 과장들이 6개월짜리, 7개월짜리, 9개월짜리, 1년이 안 넘어요. 이것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우리가 밑에 6급, 7급, 8급, 9급은 직렬 불부합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치고, 복수직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과장을 한번 봐봅시다. 최고 많이 한 근무가 2004년 이후…… 2002년 뒤 몇 개월 있고 그러는데, 거의 1년, 9개월, 7개월,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 30명의 인사카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인사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한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공로연수라든가 정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만 한

사람을 바로 충원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국장님, 공로연수도 좋고 뭐 병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올 상반기에 인사를 하면 7월 달에 어떤 분이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인사파트에서.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도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요인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고…… 내가 너무 방대하게 600 몇 십 명 정원은 다 못 보니까 사무관들 37명을 봐봤어요, 국·단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37명을.

(자료를 들며)

인사부서에서 이런 인사카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을 보면 참 얼척이 없어요. 5개월짜리 인사가 어디에 있고 6개월짜리 인사가 어디 있고, 거의 1년이 넘어가는 인사가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안봉일 과장님, 그다음에 허정수 국장님, 저기 서현종 국장님, 신영균 단장님하고 저 밑에 보면 고금면장을 하고 있는 정인호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석우, 이성용 이런 분들만 1년 몇 개월 되고, 나머지들은 거의 1년 미만짜리 인사를 하고 있다고, 사무관 인사를. 우리 군에서 2004년부터 지금 2019년까지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단니까요. 이런 인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실과장들이 밑에 직원들 업무를 다 꿰차가고 할 것입니까. 가면 업무가 다 바뀌지는데, 과가 바뀌지면,

국장님, 그래서 인사를 하면 항상 문제가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법령은 준수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사카드를 이렇게 보면 1년짜리, 1년짜리, 9개월짜리, 7개월짜리.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저도……

○ 박인철 의원

이번 인사만 가지고 제가 그런지 알고 봐봤어요. 이번 인사만이 아니고 2014년 7월부터 인사 기록을 뽑아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이 말이예요, 이런 결과물이. 지금 사무관 4년차, 5년차들이 네 군데, 다섯 군데까지 이렇게 걸쳐간다는 이 말이예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되는 인사요인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그러면 빠진 자리 한 자리만 충원하는 식으로 하면 6개월이 아니라 2년, 3년도 한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이 있어지고……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6개월 만에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 때문에 지적을 자주 하시는데, 조직관리 또는 이런 차원에서……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원칙만 지킬 수 없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법은 지키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2019년도 상반기 인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반기 인사가 불가피하게, 국장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뭐 5개월 인사, 6개월 인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전부터 민선6기, 2014년 7월 1일부터 민선6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내가 하도 그래서 봐봤다니까요. 전체를 뽑아보니까 그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넘어간 분이 몇 안돼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참…… 제가 자주 변명해 봐야 이야기만 길어지는데 이것은 2014년 7월 이후가 아니라 그전에 인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가피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박인철 의원

불가피한 그런 측면도 좋지만……

그래도 과장님들이 한 과를 책임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직기간을 인정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도출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6개월짜리, 7개월 인사 이런 분들이 그 과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과에 전출되고, 전출되고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진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군의 특성이라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의한 예측 가능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직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의 분위기도 조성되고, 그래서 다음 인사부터는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은 조직개편의 문제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국을 신설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2개의 국과 1개의 단이 구성되면서 6개과 내지는 3개 과를 통할하는 국·단장 제도가 되면서 지적하신대로 의사결정이 빠르지 않고 결재라인이 너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국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부군수 한 사람이 업무를 추진…… 처리해야 됐던 그런 업무량이 국·단장들한테 분산되면서, 전결권이 위임되면서 부군수의 역할이……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국·단장들이 실과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것과 함께, 국·단장은 4급으로 보임하면서 5급, 6급 때 쌓았던 그런 경력이라든가 업무 노하우를 국·단장으로 배치해서 그 실과를 통솔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실과장들과 같이 세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럼요.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 시 보건의료원, 체육사업소, 그다음에 신설하고, 또 다른 실과를 통폐합하고 이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

을 했고 또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 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19년 7월에 인사할 때는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할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할 것입니다, 할 것으로 예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 보고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밝힌다기보다는 아직 2월이니까 7월 중 되면…… 5~6월쯤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당연히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에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항도 중요하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18년도에 질문답변, 의원들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통괄적으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의원님들이 질문답변 시, 행정사무감사 시 이야기했던 것들이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자치행정과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보면 의원들…… 여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딱 3번뿐입니다. 두 차례 업무보고하고 질문답변하고, 그런데 업무보고 시에나 질문답변 시에나, 8대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7대에서 내가 봐봐도 잠깐 그 시기만 지나면 의원들이 하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전혀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한 축입니다. 완도군을 이뤄가는, 행정과 한 축인데, 한 축이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서에서는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직개편 이 문제도…… 물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져 있으면 의원들한테 구두라도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도 많고, 또 그런 기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의회하고 전무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실과, 어느 국, 어느 단…… 어느 과가 아니고 그

런 것들이 전무하다는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부분은 주요 업무…… 군정 주요 업무 보고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했던 사항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 업무보고서는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군수님께 연초에, 1월에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실과에 공문을 내서 전부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어떤 실과장들이 보고할 부분, 안 할 부분을 걸러서 군수님께 확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죠. 그다음에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책을 그대로 갖다가 보고할 것이냐고 그래서 실과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내부적인 보고,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드린 것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넣을 것은 넣고 다시 추가할 것은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외부에까지 굳이 이런 사항까지 보고를……

○ 박인철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왜 군수한테 하는 업무보고하고…… 우리도 군민이 뽑아낸, 군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군수도 군민의 대표로 뽑았는데, 업무는 동일시 되어야지. 나 그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군수한테 보고한 것이 있고, 업무보고서가,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틀려야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제가……

○ 박인철 의원

군수가 아는 업무는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바퀴가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계장을 통해서 군수한테 드리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다길래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기획계장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또 의원님들한테 숨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의회 업무보고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내부적인 사항들이고, 의원님들한테는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공포를 못할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우리 군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감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의 최고 화두인 돈사, 변환소, 풍력 이런 문제들이 거의 밀실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문제로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 오픈시키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의원들한테 감춰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행정에서 하는 행위가 주민들한테 감춰야 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오픈을 시켜야지, 뭐든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오픈시켜야 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감추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계장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군수한테 드리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무엇이 다른가. 뽑아서 드러라, 제목만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의원님께 전달된 것으로……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이

야기…… 말씀을하시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반론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군수가 하는 행위도 중요하고 의원들이 하는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두 바퀴가.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따로 따로 돌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동일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의회하고…… 우리가 `18년도에 했던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의회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 14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자립능력 배양 및 재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4,647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1~2급 중증장애인은 854명, 3에서 6급 경증장애인은 3,796명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와 단체로는 장애인총연합회 완도군지부가 있으며, 이 시설과 단체에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9개 사업에 4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 점검으로 보조사업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장애인 참여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지원으로 그들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예우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11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1억 7,160만 원을 지원하고 소안항일운동기념관 보수공사 및 영상물 제작, 충훈탑 보수 등 보훈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과 호국보훈 기념행사 4,600만 원을 지원하여 보훈단체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3.15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3월 15일 완도읍에서 저희들이 3.15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미망인수당 신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에 최정욱 의원님 발의로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해 작년 11월부터 사전 신청과 접수를 통해서 116명이 신청했습니다. 보훈청에 자격확인을 의뢰한 결과 92명에 대하여 금년 1월 18일 첫 지급하였습니다. 명예보훈수당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안,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우리 군 항일운동의 4대 성지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약산지역 유공자 후손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기념공원조성 건립 여론이 바등해서 2014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약산항일운동기념사업회에 균유지 사용 승인 후 토목과 조정, 전기공사 수행자를 계약 체결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조형공사까지 마무리해서 금년 4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2종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 조사, 생활실태를 통하여 보장결정을 일원화하고, 매월 정기 확인 조사·점검으로 복지 재정 효율화 및 수혜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 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2만 6,820명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재산·소득 등 변동사항을 정비·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통해서 소득재산 정보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부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 곤란 주민에게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가구원수, 각 거주형태, 부담수준 등을 감안하여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에 따라 주택 개·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29세대 7억 6,0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지난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 경보수 58개소, 중보수 34개소, 대보수 53개소 등 총 146세대 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많은 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이용, 완도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설립된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기본자산 50억 원과 사무국 직원 2명, 이사회 등 15명의 조직으로 2015년 10월 2일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금 19억 9,300만 원, 출연금 50억 등 69억 9,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사업실적으로는 위기가정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 배분사업 7,247세대에 6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정기탁과 후원물품을 1만 2,900세대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의료비 지원과 보행보조기 등 17개 배분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갈수록 모금이 저조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기업, 단체, 직장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 기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적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한질병 및 부상,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생계, 주거, 의료, 해산,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가 해당합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생계 지원 73건, 의료지원 142건 등 총 232건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에 해당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를 연계하여 신청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 위기가구 지속 발굴로 다각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빈곤 상태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읍면에서는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5명이 참여하여 환경정비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위탁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7개사업에 53명이 참여하여 기능습득 등 자활능력 배양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에 힘쓰겠으며 자활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지도·점검 및 보조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 5,73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0.57%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 등 행복한 노인복지를 실현하고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박인철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를 개정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하고, 지원매수 또한 연 20매에서 24매로 늘리는 등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로의 달 행사 추진과 각종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9개소 등 총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의료복지시설과 주거복지시설에 295명이 입소해 있으며, 827명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해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7,1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군 합동으로 지도, 점검과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국가 책임제에 따른 고금요양원 치매전담실이 올해 2월 개원,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안전점검 등을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등록 경로당은 경로복지센터 53개소를 포함한 총 304개소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 개보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에 30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222개소에 여가지도사 22명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개보수사업 등 1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외면 삼두리 일원에 분묘 1,869기인 공설 묘지와 봉안담 1,508기, 수목장 660제곱미터, 잔디장 192제곱미터, 관리소, 주차장 등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완도군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는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 되어서 지금 사용중지 상태이며, 추모공원 봉안담 등의 이용기간이 15년으로 3회까지 연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부터는 완도군 산림조합과 장사시설관리 위탁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서 체계적인 추모공원 및 공설묘지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은 금년 4월 개원 예정으로 우리 군민들의 장례 편의와 수요를 충족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관리입니다. 도서지역 어르신들의 위생여건을 개선하고, 목욕서비스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서 읍면 농어촌 증진센터 8개소에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주 2 내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증진센터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해서…… 추진했고 앞으로도 운영실태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완도 노인인구가 약 1만 5,700명, 약 한 30% 차지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경로당 활성화, 다양한 프로그램, 물품 지원 등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국적으로 경로당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최근 노화읍 경로당 화재 방화로 2명이 사망을 하셨죠? (예)

이번…… 국장님, 방화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의원

앞으로 이것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것이 어떤 전기누전이나 실수로 일어나는 화재가 아니었고 개인의 어떤 충동에 의해서 빚어진 방화사건이었는데, 미처 예방할 틈도 없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또는 노인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본의원은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CCTV를 타 군은 이렇게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304개의 경로…… 복지센터나 경로당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소당 한 7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억 1,000

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타 군에 해놓고 나서 몇 가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회관에 농약이나…… 어떤 그런 사건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불안감. 그리고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불안감이 안정화되었고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CCTV 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추경이라도 세워서 차근차근 이것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아까 말했듯이 노인인구가 30%를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매를…… 이·미용권 2개를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예)

그런데 그것이 목욕권으로 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미용권으로 되다 보니까 참 호응이 좋아서…… 한 달에 한 3회 정도로 늘려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목욕만 했을 때는 많이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용이나 이발까지 하니까 어르신들이 아주 사용을 잘하신다고 그래서요. 한 4장으로라도 늘려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보시고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제가 그 군정질문 때 외탄섬…… 점심,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열악한…… 뭘 배도 한 2번 타고 나와야 되고, 제가 섬에 많이 가보는 편인데 육지에 나오려면 배를 타고 뭐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주로 노인들만 많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한 44개소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외탄섬이요?

○ 이범성 의원

군정질의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시행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자 하는데요. 생활여건들이 열악하고 노인들이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점심이나 또 새참이나 그런…… 낮에는 사무실이나 또 노인복지, 그런 관련된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밥을 해먹고 그런 부분인데, 그때 내가 군정질의 때 한 50%라도 부식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그것이 외탄섬만 해당되는데 기본적인 지원은 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 체도섬하고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외탄섬 경로당시설 그런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1개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이범성 의원

아, 그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21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쌀 지원이라든가 냉난방비, 이런 것들이 똑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부식비를 한 50% 지원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데.

○ 이범성 의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여객선이 자주…… 뭐 하루에 5~6번씩 있고 있는 그런 데는 자주 무엇도 사먹을 수도 있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식 부분들이 전혀 가서…… 먹는 데를 보니까 배추나물이나 그런 것 좀 해놓고 먹고 있는데 참 안쓰러워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특히 외딴섬 같은 데는 더욱더 소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외규정으로 뒤야 될 사항인가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어려움을 좀 달래주는, 외딴섬의 어려움을 달래주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요,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금 조성이 정말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텐데, 이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마을 단위에서 군수님이나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장학기금이나 또 행복재단기금을 이렇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기업체나 출향했던 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

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군에서 생각해서…… 좀 그분들한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갈수록 모금활동이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모금이 잘 됐었는데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래도 아무래도 좀 기업체나 잘 살고 계시는 출향인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자주 접촉도 하고 해서 모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선 의원

보면 우리 지역 기업체들도요, 1년이면 매출이 10억이고 얼마고,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관내 우리……

○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조성이 좀…… 다분화가 될 수 있게 해주고 체계적인 기금 조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행복재단기금 모금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우리 행정에서는 모금활동에 한계도 있고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러 이렇게 모금활동을 하러 다니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이에요. 재단을 별도로 설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에서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공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지행복복지재단에 기금이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체계적인 것은 기금 조성 계획을 잘 잡고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추진 등 9건입니다.

완도군 자원봉사센터 현황은 37개 단체에 4,752명입니다. 자원봉사업무 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장보고수산물축제 자원봉사와 외판점 종합자원봉사단 및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보고수산물축제 자원봉사를 실제 인원 187명, 연인원 484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으며 외판점 종합자원봉사에는 5개도서, 303세대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이동 목욕봉사를 32회 추진하여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지원에 25회 920명이 자원봉사를 하였고,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에는 15개 학교 1,572명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외판점 자원봉사단 운영 및 도서지역 이동목욕봉사를 연중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도 연중 실시하려고 합니다. 명절·문화·체육행사 자원봉사 및 단체별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연중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미용과 경로당, 말반찬 만들기, 독거노인 말벗 되어 주기, 빨래 봉사, 차 봉사, 군행사 봉사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장체험 및 선진지를 견학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사업내용으로는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는 7개 단체에 1,200여명이 있고 읍·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개 단체에 300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서는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여성취업·창업 프로그램으로는 여성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과목을 3월부터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과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개최, 그리고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를 12개 마을에 지원하였고, 여성지도자 리더십 및 리더십 워크숍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직거래장터를 천안시 홍타령축제기간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와..... 상사업비 지원과 3월에는 여성 취·창업 훈련 및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1월에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워크숍 및 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사단법인 행복한집터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년 총예산은 9억 4,300만 원이고,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4명입니다. 사업내용은 다양한 가족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맞춤형사업 등 외 41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현황입니다. 총 인원수는 366명이고 읍면별 결혼이민자 현황으로 완도읍이 107명으로 많고 노화, 신지, 금일 순으로 많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5명이고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입니다. 올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군 사업비가 6,4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다문화센터 사업비는 10개 사업에 약 9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2018년 11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19년 1월에 위탁기관 운영평가를 위한 완도군 위탁기관 운영진단 평가용역을 계약하여 운영진단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진단 평가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위탁계약을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켜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개 사업에 6억 9,864만 9,000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청소년 운영사업은 6억 8,000원의 사업비로 1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만 7,244명의 청소년 참여와 4,800명을 상담하고 보호 캠페인 등은 42회 300여명이 참여하여서 캠페인 등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사업비가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청소년 놀이시설 추가 설치 및 확대지원 대책을 마련해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만 18세 이하 아동은 7,04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67%입니다.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26억 9,200만 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동복지사업 5종을 추진하였으며 수혜아동은 2,372명입니다. 금년에는 아동수당 확대 지원 외에도 장난감도서관 활성화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성을 위한 복합 문화센터 건립을 공모 추진하고, 일반가정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보육시설은 2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완도읍은 1개소 휴원 중인 상태로 지금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8개 사업에 105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보육사업 7개 사업을 추진 102억 7,567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와 보육실 공기 청정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적기 지급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 점검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부터 군비 100%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완도를 위한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에 집중하여 청년, 귀농·어촌인,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 간 정책 연계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만 1,477명으로 이중 19에서 49세의 청년인구는 30%,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연도별 우리 군 인구수는 6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5만 명대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구수 대비, 작년에는 632명이 감소했습니다. 증감 요인별 현황을 보면 출생·사망지수의 차이가 2000년에는 88명, 2010년에는 131명, 2018년에는 330명입니다. 이것은 자연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입·전출지수의 차이를 보면 2000년에 1,735명, 2010년에 287명, 2018년에 331명이 감소해서 사회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폭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간에 비하여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연요인과 사회요인별 인구의 감소폭이 모두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군청 TF팀과 민간협의체를 운영해서 5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다동이 가족 40명을 초청해서 행복육아 공감토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알쓸인정이라는 책자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SNS를 개설해 운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및 민간협의체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군민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이며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남도 내 완도군을 포함한 3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지금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지역 활력의 중심인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체감형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정보 교류 및 청년활동 협업 체계를 통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정의한 청년범주인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 대상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청년들이 움직이는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 지원사업인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 29명 신청자 중에 12명 선정 지원하였고, 전라남도 제3기 청년의 목소리 위원 5명 선정되

었습니다. 또한 광주시와 순천시 등 타지역 인구 정책 및 청년센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후에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호남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한 청년통계개발과 청년 설문조사, 청년 대상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인 청년센터 조성 공모사업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청년들의 제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청년을 위한 정책 실현과 청년센터와 같은 커뮤니티 공간 마련으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12개 읍면 저소득층 대상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 176세대 261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교육·보건·복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서비스 등 4개 분야에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2억 5,7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군비 1억 1,900만 원 등 3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교통이 불편하여 참여하기가 어려운 아동들에게 차등 없이 동일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드림스타트사업 홍보 및 후원대상자 적극 발굴 및 연계를 통하여 드림스타트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이 업무보고의 한 과제로 자리하게 되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중추적인 인력이 청년들입니다.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을 선도하고 살아 숨 쉬는 활기찬 완도가 되기를 기원하

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년들의 평등 관점에서 일자리, 디지털화의 완전, 지역균형정책을 위해 정부와 함께 소통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을 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내용을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도 2030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그게 고용노동부……

○ 박인철 의원

예, 금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제활동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 박인철 의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거기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프로젝트 기획단이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 관계로 정책을 수립한……

○ 박인철 의원

지원금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은 여성아동과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청년 지원금, 일자리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인철 의원

경제교통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경제교통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여성아동과에서 갑자기 청년정책 한 쪽 지가 올라와 있으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기본적인 총괄정책은 여성아동과에서 하는데 일자리라든가 청년 지원자금 같은 것,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5쪽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추진 영역을 한다고 했는데 영역을 발주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게 지금……

○ 박인철 의원

이 사업이 생긴 이후로 계속 여기에서, 이 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그동안 우리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이번에 여성아동과가 생기면서…… 뭐야, `19년도 본예산에 영역을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그것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1월 7일자로 영역개발 체계를 하고 착수하고…… 착수를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왕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까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지원해줄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야 할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부담이 뭐 A형이면 15%, B형이면 25%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혀 뭐…… 군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 개념이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봄 시간도 현재 300시간으로 예상하는데 700시간 정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만 3개월에서 24개월…… 월 200시간이고 그런데요, 이런 시간도 확대해 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유아보육사업에서 보면 12개 읍면 중에 다 있는데 생일하고 군외만 없다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이.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기도 국장님, 생일도 영유아가 있을 것이고 보육아가 있을 것이고 군외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외도 한 군데 있었다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생일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 행정이 손을 뻗어 가지고요, 어떻습니까, 군외나 생일 같은 데에도…… 인구정책하고도 같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을 많이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바……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이 있고 농림축산식품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집에 미설치된 생일면과 군외면에 대해서는 토지 확보가 우선 필요하고요.

일단 생일도도 보니까 아동수가 본도에는 31명이 있고 덕우도는 2명 있습니다. 본도에 30명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어촌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일곱…… 명이 있고 양육수당을 받는 사람이 12명, 육아학비를 지원 받는 사람이 10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원한다고 그러면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 확보와 더불어서 2~3년 내에…… 뭐 2~3년 내라고 딱히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마는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공감대라고 하는데 보니까 공감대는 벌써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한 시설이니까…… 부지향목도 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확보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부서도…… 여러 가지로 세무회계 과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데,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시설을 갖춰 가지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런 관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빨리 좀 이런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래서 꼭 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유후 공간, 예를 들어서 그런 건축물…… 그런 곳을 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그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만 6세 어린이 대상 누구한테든지 아동수당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아동수당.

○ 우성자 의원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9월부터는 만 7세까지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 군에 7세 미만 아동들이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1인당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28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침에 의하면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향사랑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한 50%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조례를 정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그런데 의원님의 제안대로 그중에 50%인 5만 원 정도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고향에서 쓸 수 있게끔 의무적으로 50%…… 그렇게 하지는 말씀이신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지금 고향사랑상품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것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먼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 후에는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결과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역상품권을 만들어 놓고.

○ 우성자 의원

또 한 가지요, 여성회장 상사업비가 1,000만 원이면 1년에 우리가 쓰기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대부분 회관을 고친다거나 물건을 산다든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격년제로 하더라도 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주면 어떨까. 그러면 사업 1건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번에 원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몇 분 찾아 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카드로 전부 정산하고 서류를 정산해야 될 경우, 참 자기들이 업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업무를 도와줄 간사 한 명을 주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답변도 못 드리고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도 알아봤더니 간사를 두는 군은 아직 없다고 그러네요. 그 대신에 군이나 시에서 업무를 많이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본 바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루 정도…… 못하면 반나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군에서 좀 많이 쓰게 도와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시고 여성단체가…… 또 여성들이 사실은 어렵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많이 생각하셔서 신경써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여성아동과장과 주무팀장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하여 간단 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에 공동육아나눔터. 그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공동육아나눔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지금 전국에 113개소가 있는데 우리

군은 없네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18년도에 113개소, `19년도에는 218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여가부에서 올 업무계획에 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주무부서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아까 박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공동육아나눔터를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어차피 받을 것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사실 이게 타 군이나 강진 같은 데도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예, 어떻게 강진이 하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했을까 싶어서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아동과장 서길수를 보며)

무슨 사연이 있는가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좌석에서)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지금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복합 커뮤니티센터 정부 공모사업을 금주 중에 도를 통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전체 국비는 30억에서 50억 규모고, 전체 60억에서 100억 이내 규모에, 공통 커뮤니티센터 안에 다양한 기능의 공동육아 다문화가정까지 포함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맞벌이 부부. 즉 어떤 주부와 선생이 같이 육아를…… 가르치면서, 또는 내가 어디 일을 갔을 때 다른 주부가 아이를 같이 돌보면서 가르치고 이런…… 보니까 참 좋은 제도여서요. 타군들은 이것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강진 같은 데도 하는데 왜 우리 군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국장 제도가 생겼으면 이런 것 관심 있게 좀 챙겨보십시오. 적어도 국장 제도가 없으면 그렇다고 하지만 국장 제도가 생겼으니깐 한 번 더 세밀하…… 이런 것이 타군과 뒤쳐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 최정욱 의원

또한 직장과 육아 때문에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 공직자들도 이런 것 때문에 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심 좀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민원봉사과
 - 세무회계과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치유산업과
 - 수산경영과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세 시대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맞춤형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12개 행복학습센터 연계망을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남평생교육원 주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400만 원을 지원 받았습

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 사례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1년 동안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166개 강좌 운영을 통해 4,817명의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과 전남평생교육원 주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평생학습대상 특별상과 전남평생교육진흥원 주관 평생교육사례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돌봄지원강좌, 성인문해교육, 운전면허 현지 취득 지원사업, 직업훈련교육 운영 등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 빙그레시네마 활성화입니다. 2017년 9월 개관 이래 첫째 1만 8,000여명, 2018년 6만 9,000여명, 총 누적관람객 8만 7,500여명이 다녀가는 등 군민들의 문화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시네마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광고 설비를 구축하고 올해 9월 개관 2주년 기념 이벤트 기획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보고 한상 어워드 추진입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상기업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장보고 한상 어워드는 지금까지 제3회에 거쳐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그동안 수상자와 가족을 완도에 초청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대상수상자의 성공담과 더불어 특별강연 등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도 제4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완도수산물 수출 및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입니다. 장보고대사의 개척정신을 기리고 미래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정보센터를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한상 수상자들의 구체적 성공스토리 전시 및 인재교육과 체험명소로 기획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 및 교육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으로 전시용 영상관 건립, 관왕묘 재건, 이순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개발에 선정되어 4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2018년 12월에 관왕묘 재건 위치변경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완료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시영상관 건립, 관왕묘 정전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면 덕동리 일원에 삼도수군 통제영 재건과 봉수대·옛활터 복원, 해남도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고금 덕동리 일원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에 해남도 일원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20년 신규사업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올 3월까지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과 투자심사를 마친 후 4월에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2단계 확대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도 가리포진 자원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가리포진성과 남문 재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2월에 가리포진 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8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문화재청과 2019년 1월, 전라남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에 서문과 남벽 구간에 대해 1차 정밀 발굴을 시작하고 3월에는 투자 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를 거쳐 4월에는 2020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신청하고, 5월에는 남문 일원 2차 정밀발굴을 실시하여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완도 법화사지 3차 정밀발굴사업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장보고대사가 창건하여 고려시대까지 유지되었던 완도 법화사지를 발굴하여, 향후 법화사 재건 시 중요한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차 정밀발굴을 통해 통일신라시대기와,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이 출토되어 청해진유적과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2019년 4월부

터 9월까지 잔여면적인 1,600제곱미터를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3차 정밀발굴을 추진하고, 3차 발굴 이후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법화사지 보존 및 재건, 국가사적으로 지정 요청하여 완도의 역사문화자원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체육공원 내에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135제곱미터의 규모로 2017년부터 2020년 말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주요 시설은 1층은 체육관, 2층은 관람석 1,289석으로 배구코트 3면이 설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체결 후에 12월 중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 지방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차 신청 후 도 계약심사를 거쳐 4월 중 계약의뢰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를 유치, 추진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선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역도훈련장, 족구장, 동부권 테니스장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올 사업비 14억 1,400만 원으로 야구장 주변 포장 및 외야 조명 시설, 읍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보길 체육공원 부지조성, 완도테니스장 아크릴 포장사업을 실시설계 완료 후에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체육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금일읍과 금당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생일면은 야외 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월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경기관람석 개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람석을 총사업비 15억 6,000만 원을 들여 관람석 3,000석, 사무실 6개소, 외벽 디자인 등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9월, 군특회계 가내 시 통보로 12월 경기 관람석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 공사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올 2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총 사업비 1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탄성포장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서 11월 건설폐기물 및 가연폐기물 철거를 했고, 2019년 1월에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육상연맹의 아스콘 포설 확인을 거친 후에 2월 말 탄성포장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야구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완도야구장 내에 총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외야 인조잔디 7,068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공공체육시설개보수 사업에 확정되어서 올해 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공사계약심사를 거쳐 7월에 완료한 후에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 전지훈련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사계절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해산물 등 청정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계 전지훈련 팀 유치로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축구 20개팀, 야구 5개팀, 역도 5개팀, 테니스 15개팀, 농구 5개팀 등 총 5개 종목에 50개팀 890여명의 선수단과 학부모 등 420명이 우리 군을 찾아와 전지훈련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지훈련 팀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지 투어 및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홍보하여 전지훈련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입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연계한 우수선수 영입 및 육성을 통하여 군 체육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역도선수단 재임용 및 신규 임용에 따라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실업역도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 은 4개, 동 2개를 획득했으며, 4월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4개, 10월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하여 금 1개, 은 3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역도실업팀 훈련장 완공으로 최적의 훈련장에서 2019년 각종 대회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역도실업팀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 브랜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국시니어배구 대회 등 7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3월부터 체육대회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대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한 수영장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고 다양한 수영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월 말 개장을 앞둔 완도수영장은 25m 6레인과 초등생풀장, 탈의실, 샤워장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20명, 월 평균 3,1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으로 초급, 중급…… 중급반, 특별반 등 수영강습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12월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말까지 준공식과 더불어 군민에게 개방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영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나 행사 시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완도읍 군내리 363-78번지 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월에 주차장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수영장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시설을 추가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완도수영장 준공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하고 맑은 수영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자료 확충 및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자료 확충으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정보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하루 평균 200명, 총 5만 6,321여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3만 4,579여권의 장서를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총 소장 장서는 21만 901권으로 군민 1인당 4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 7월부터 야간자료실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학생,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있습니다. 야간자료실 개관시간 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청년 인력을 채용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가 선용에 도움을 주는 등 도서관 이용자 수가 확대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와 향토

자료, 독서치료, 자녀교육 등 특화 주제와 관련하여 집중 장서확충과 주제별 특화 도서코너를 운영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저녁 6시까지만 운영하던 자료실을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 독서문화와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마을 유희공간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마을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마을 유희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작은도서관은 `14년도에 신지햇살도서관, `16년 소안사립학교 작은도서관, 금당섬마을 작은도서관, `17년 생일 열린꿈터 작은도서관, `18년 약산진달래, 노화곶도행복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6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신지햇살 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자 선진지 견학 및 관리자 교육 등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밀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작은도서관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없는 군외, 고금 및 완도읍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을 통해 연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 고대대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병들의 인성함양과 책 읽는 병영문화 만들기 위한 병영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마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생활서비스 기반 강화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하여 도서관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군민 친화적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10월에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생활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문화생활분야에서 금일, 노화공공도서관이 최종 선정되어 총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건립된 지 20년이 지난 금일·노화 공공도서관을 활용도가 저하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도서관을 북카페형 공간조성 등 주민문화 향유를 위

한 개방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금일·노화공공도서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월부터 계약심사와 공사 발주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금일·노화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상어워드 추진분야에 대해서요. 수상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13번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일단 수상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 투어를 실시하고 있고, 초청해서, 또 그분들과 계속해서 우리 군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들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대상수상자 한 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성공담을 듣고, 또 우리 군과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협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례로 작년에 대상수상자이신 박종범 회장님이라는 분께서는 우리 군 특산…… 하여튼 우리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함께 수상한 여섯 분들과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완도소식지라든가 군정홍보를 그분들에게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혹시 성과가 있는 것은 없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아직까지 이렇게 가시화된 성과는 없다고

하지만 그분들과 계속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저희들이 그분들…… 활용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군의 특산품이라든가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청취불능) 민주평통 회의가 거기에서 열리는데 군수님을 그분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가서 그런 분들과 접촉하고 또 이렇게 연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군이 어떤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그분께서 군수님을 직접 초청해서 군수님이 거기에 가실 예정입니다.

○ 우성자 의원

해외시장 개척업무를 담당…… 수산경영과에서도 이런 분들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한상어워드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기업이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분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실과와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앞으로 그분들을 잘 관리해 가지고 특산품 이런 판매가 잘되게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도지, 적거지 (청취불능)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지, 적도지라고 저희 마을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 그런데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적도지라고 말만 했지, 아무것도…… 초가집 하나 달랑 있거든요. 그 주위를 좀 제가 두어 번 해봤었습니다마는 그 주위를 좀…… 집을 살 수 있는 집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집이 두 가구가 있는데 그 가구를 좀 매매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와서 거기를 구경한다고 해도 주차할 곳도 없고, 또 달랑 초가집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지, 한번 답사해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이도지, 적거지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가지붕만 얹어 놓고 별다른 관람거리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군을 설군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문화재로써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문제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보고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서 이도지, 적거지가 우리 군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불만한, 또 구경할 만한 그런 장소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다음에 이 충무공 유적지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제사를 모실 때마다, 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사를 모실 때마다 그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뭐야, 이름이 참 어려워요. (청취불능) 이렇게 해 가지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청취불능)

○ 우성자 의원

그분들이, 참여하는 그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고 참 이렇게 해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에다가 나는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립해 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같이 시설할 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도…… 학생들도 와서 배우고 관광객들도 한 번 옷을 입고 체험해 보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씨 종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볼 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내가 종친이라고 해도 썩 마음에 들지 않게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해 가지고 누구든지 제사를 어른이 되어 가지고도 지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이 연구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이순신 진란장군 선양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는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나 신우철 정부에서도 언급을 많이 한 관심이 있는 동부권 관광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전 군정질문 때 300억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190억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처음에는 300억 계획……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복원하고 선양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많다.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뭘니까,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액수를 200억 이하로 다운시켜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비를 다운시켜서 일단 할 것…… 기본적으로 할 것 정도만 하자. 그래서 일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300억에서 190억으로 다운시켰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때 당시 이전 질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저히 국비는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도비, 군비 150억씩 해서 30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추진했던 것인데 바뀌니까…… 저도 지역에다가 “300억 정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190억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과에다가, 그랬더니 중앙 투자심사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그 당시는 국비를 도저히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190억으로 이것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잘되면 좋겠는데.

지금 군특 50%라고 그랬는데, 군특은 뭐 전남도와 협의가 잘된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1차로, 모당도 이층 무공 기념공원사업을 1차로 완성하고요, 2차적인 사업으로 이순신,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하자고 우리 군이 2개의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1차 사업을 완성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산확보를 잘해주서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제일로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진행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좀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군정 질의 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쪽…… 역사적, 학술세미나 이것을 한번 개최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문제는 2018년 9월에, 작년 9월에 장보고 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양훈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그때 세미나가 고급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이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었는데요, 거기에는 순천 해양대 뭐 이순신연구소장이라든가 한서대학교 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이수경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장, 그다음에 중국 진린문화연구회 진 씨 종친회장과 (청취불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150여 분이 참석을 했고 또 토론까지 거쳤는데.

일단 거기……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면 계속 해서 그와 관련된 학자라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학술적인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사업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때 군정 질의답변서에 보면 올 10월경에 한번 하겠다고 보고가 됐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역사를 알리는데 이렇게 학술세미나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연구회가 됐든 추진을 해서 멀리 알리고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지금 아까 예산, 그쪽 문제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정책과, 또 체육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게 할 것입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도 세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좌우충돌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한 군데로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100세 시대 건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역 체육시설 확대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연초에 중앙정부의 업무계획들이 전부 발표가 되면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자기 과와 연관되는 사업들을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전부 자료를 입수해서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양훈 의원

거기 내용에 보면 뭐 개소당 30억, 이렇게 1차 군체육센터 이렇게 있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0억짜리.

○ 김양훈 의원

10억짜리가 있고 80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빨리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읍면에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 한 군데라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고금면에 보면 인구 50대 이하가 한 56%됩니다. 그리고 군민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엄청 공간도 부족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고금면에 스포츠테마파크를 하나 조성해서요, 겨울에는 전지훈련 유치도 하고…… 이렇게 크게 종합운동장 식으로 해서 전지훈련도 유치하고 또 경제적으로 지역에 보탬도 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나 신청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완도가 그렇습니다. 각 섬으로 이루어진 읍면별로 체육시설 공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길도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군에서 부지매입을 했고 도에서 균특…… 아니,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와서 부지 조성과 더불어서 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읍면마다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일부 보조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그 계획을 검토해서…… 특히 고금 같은 곳은 젊은이들도 많고 운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차적으로 읍면별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고금면 같은 경우는 부지가 4,700……한 5,000평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하고 접근성도 참 좋고요.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전지훈련도 완도에서 부족하면 고금도로 분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동부권…… 군이 명칭을 붙이자면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이라 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고금, 신지, 약산, 금일, 금당, 생일까지…… 지금 여러 종합개발계획을 구성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페이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부모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자기개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이 책을 보면서 서로 자기 시간을 개발하고, 그런 공간으로 많이 변해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도 같은 데를 보면 여기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개포리 같은 경우에서 여기에 오려면 보통 20분에서 30분 이렇게 걸린다고 말들을 합니다. 걸어서, 차로도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접근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포리에 하나 적어도…… 그런 데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마

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 가지고 왜 그것이 빠졌나 좀 궁금해서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잠정적으로 주무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공간을 쉽게 못 찾아서 실행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는 군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체육시설팀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스탠드 개보수 공사가 끝나고 또 실내체육관 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사무실 공간은 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대로 개포리 쪽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앞으로 작은 도서관이지만 그 쪽에도 만들 필요가 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지금 그런 생각은 갖고 있네요? (예)

저도 그게 참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도 연결되고 또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 지방이라는 것이 문화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자주 개발해서 부족하지 않게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그것 역시나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좀 늦더라도……

○ 최정욱 의원

예, 잊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22페이지, 동계전지훈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의원이 동계훈련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족은 하고 있으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완도 전지훈련을 하고 싶으나 경기장이 약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완도에 와도 시간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실내훈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상악화나 이런 때에는 굉장히 불편을 느낄 수도 있고…… 넷째는 (청취불능)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훈련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보니까 완도읍 쪽에 종합체육관을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 읍면, 가까운 읍면에도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분포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완도읍에만 동계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지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완도읍에다가 계속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인근 읍면들, 고금, 신지, 뫼 군외. 그런 데에 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전지훈련장이 분포…… 분산되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또 한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할게요. 현재 보면 초등학교 내에 수영장 있죠? (예)

이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규격을 맞추면 25M가 아니고 50M.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50M.

○ 김재홍 의원

전국체전, 여기를 보니까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분을 규격화해 놓으면 전국체전이 됐든…… 완도라고 해서 전국체전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작년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한 860명이 전지훈련을 하고, 가족단위로 해서 하고 가셨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가족까지 합치면 한 1,300명 정도.

○ 김재홍 의원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완도군의 군 발전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복하고 광어. 이 협회에 좀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동계훈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동계훈련팀이 겨울철에 내려와서 우리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올해 1,300명 정도가 평균 12일 정도 처리했다고 예산을 잡고, 그게 통계청에서 단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하루 관광객 또는 방문객이 방문했을 때 그 지역마다 얼마 돈을 쓰는가에 대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하루에 12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래서 1,300명 곱하기 12만 원 곱하기…… 평균 12일 하나까 16억 원이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한 3월부터 11월 정도까지 관광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역이 부족하나마, 그나마 좀 하는데, 겨울철에는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계훈련팀이 지역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그런데 예산들을 지역…… 동계훈련 유치 예산들을 봐보면 극히 미미하거든요. 그분들이 완도에 와서 미치는 영향은 큰데, 예산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2,4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내일 모레 추경을 한다고 하나까 추경이라도 더 잡아 가지고 더 많은 팀들이 와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해남만 봐도…… 전 자주 갑니다. 저쪽 동계훈련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해남에 반절 정도도 안 되는 그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남이 우리보다는 여건이 더 좋습니다마는 다른 여건들이 부족하나마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동계훈련팀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추경에 예산을 더 잡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저로서는 더욱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고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나마 겨울철에 지역 상가를 살리는 것이 동계훈련팀들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천후실내테니스장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실내테니스장은 제가 그…… 전지훈련을 10년 넘게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안성시청의 감독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서 안성시를 가봤습니다. 그런

데 거기는 실내코트가 365일 일기에 관계없이 전천후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참 좋다, 부럽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성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서너 곳의 실내테니스장을 둘러봤는데…… 지금 테니스코트가 12면이 있는데 정구장까지 해서요, 저기를 돔으로 만들면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저 상태에서 돔 형태로 실내테니스장을 만들기에는 좀 어렵다. 뭔가 배치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면…… 저기가 아닌 다른 장소를 실내테니스장으로 만들 수는 없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실내코트로 바꾼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테니스…… 안성시청 감독도 만나보고 그 당시 고등학교 팀들, 여타 다른 팀의 감독들을 만나 봐도…… 저기가 6면이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한 쪽에 6면씩.

○ 박인철 의원

한 쪽에, 정구장 빼고요. (예)

그래서 6면을 다 안 하고 3면만 전천후로 해 줘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면을 다하면 뭐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한 19억 정도, 그리고 균특이나 아니면 국비 정도 받아와 가지고 우리 지방비를 좀 투입하면 되지 않은가 해서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 국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전천후테니스장이 완성되도록 힘을 써주시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동계훈련을 보면 테니스 팀들이 많이 오거든요, 축구도 오고 그러지만, 이 팀들은 매년 여기에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팀들이 다른 훈련장으로 안 가게끔 해서요, 꼭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 게이트볼장…… 좋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하나 짓는데 6억이나 7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순군비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특이나 국비를 좀 받

아와서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순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라도,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추경에 설계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데, 체육인교류센터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중도리 일원 부지까지 다 확보해 가지고 금방 될 것처럼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가…… 이번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일부러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표하기가 뭐해서 그랬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할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체육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간에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쪽 경상도 쪽에 진주인가에 체육인 (청취불능) 센터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인교육훈련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고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회에서는 “아니다,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그쪽 체육인훈련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 안 돼서 이번 업무보고에 뺐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더 빠져 있던데, 최경주 골프테마,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 군정질문 때 제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 부분이 있는데, 장소 문제가 확정이 안 됐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거쳐

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표될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무리가 없다 싶을 때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18년도 11월에 기본계획용역까지 짚 마쳤는데, 의회에다가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고, 계속 가닥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정보공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2018년 말 전부, 부분, 비공개를 포함하여 1,5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군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정보, 군민 안전에 관한 정보, 재정에

에 관한 정보 등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된 청구 건에 대해서는 사전정보공개 대상으로 지정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권 발급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과 학생 등 근무시간대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여권 발급 편의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여권 발급과 수령 등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리 군 여권 발급 신청도 2016년 1,943건, 2017년 2,349건, 2018년 2,59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지금까지 화요일 야간발급도 공휴일을 제외하고 13주를 운영한 결과, 총 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라인과 SNS, 오프라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군민들이 야간시간을 이용, 편하게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추진입니다. 완도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완도군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전입자 선택에 따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도군 전입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완도군 홍보 및 군민 중심의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2인 이상으로 공동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법이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분할등기할 수 있는 특례법으로 201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신청된 52필지를 분할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 제약으로 분할이 어려운 토지를 특례법 기간 내에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유·무인 도서중 위치가 다르게 등록된 도서를 찾아서 최신 측량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도서의 위치 정정과 필지별 경계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월 전라남도 업무처리 절차 시달회의 참석부터 대상 지역 선정 및 계획수립, 공부정리까지 일련의 업

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 도서 위치가 바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을 대상지 선정 후에 올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추진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환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시설물 정비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시설물 2만 7,336건에 대하여 일제조사와 신규설치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하였고, 건물신축 전입자에게 도로명주소 명함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 고도화된 주소정보 관리체계 마련으로 도로명주소가 우리집 주소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전산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중복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년부터 '18년까지 완도읍, 노회읍, 지하시설물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4월에는 완도군 공간정보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공간정보 보안에 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 시행 시에 반드시 자료 제공 및 사업 준공 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주지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4개 지구 1,183필지, 104만 6,000평방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한 덕동1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완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습니다. 2017년 세동1지구, 2018년 대야2지구는 경계예정 확정 통지 후 의견을 제출 받고 있는 중입니다. 2019년 장용3지구는 실시계획 및 주민설명회 완료 후 지구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반영한

정미한 변경 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 후 2월에 전남도청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개별토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국세, 지방세 등 각종 과세기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비는 1억 7,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1만 8,67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조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돈사, 태양광 등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집단민원을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대처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갈등을 해소함은 물론,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인허가에 대해서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기준 총 393건의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으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돈사신축 관련해서는 고금 도남 외 5개소에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고금 도남 건축 허가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를 취소하였으며 신지 동고 신청 건은 해양오염 우려에 따른 입지조건 부적합,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부적합으로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신지 대곡 지역에 신청된 4건은 현재 도시계획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 중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환경 및 경관훼손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와 관련해서는 총 40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26건을 허가처리하고 14건을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기허가 지역은 허가조건 및 사업계획에 의한 시공여부 확인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총 7건에 대하여 공사 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돈사 신축관련 허가취소와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 제기에 대하여 관련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관련법령과 판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대비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전 검토를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돈사 신축 관련 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허가 관련 기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동시처리입니다.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를 1회 방문으로 동시 처리하여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선등록 현황은 1톤 미만이 1,976척, 1톤 이상이 6,377척으로 총 8,353척입니다. 연안, 구획어업 허가 현황으로 2018년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추진하는 어업 허가 갱신 기간으로 1개월 간 총 1,325건 중 1,312건의 연안 및 구획어업 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허가 종류별 조업기간 및 구역을 준수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부지는 완도읍 군내리 43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362억 원, 사업규모는 아파트 4개동이 되겠습니다. 영구임대 90세대, 국민임대 320세대 총 410세대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말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2015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4일 착공 신고 후에 2018년 12월 14일 입주자 모집을 통해 총 410세대 중 자격 미달 및 포기자로 인한 미계약건은 94세대입니다. 올해 3월 미분양 94세대에 대해서 재공고할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4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본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완료되어 분양까지 마무리되면 저소득층 및 전입자 등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제공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 및 완도읍 구도심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298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50동, 군비 5,000만 원으로 1동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실적으로는 45동 신청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라 4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2월 말까지 대상자 모집 및 선정을 통해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물량을 매년 확대해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어민

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가지고 혹시 읍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이요, 마을에 흥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이장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사는 분들은 되지만 객지에 사는 사람들은 연락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장이 그것을 신경써가지고 빈집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고쳐서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를 잘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빈집 한 동을 철거하려면 1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해보면 1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려워서요. 정말 완전히 철거를 하고 싶어도 돈을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 예산이 관계된 문제이지만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여기와는 상관없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행한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네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 하고 많이 물어보고 또 땅이 정리가 잘 안 돼서 고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앙

부처에 건의해서 가지고 특별조치법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비단 우리 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결정될 일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 군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주무부서에서 계속 그런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약산 한옥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약산 한옥마을의 분양 현황하고 건축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약산 구암리에 진행 중인 한옥마을사업은 31필지를 조성해서 현재 23필지가 분양되고…… 완공이 16동, 공사 중이 1동, 인허가 준비가 6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미분양이 된 필지는 한 8필지 정도 되죠? (예)

왜 미분양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기가…… 그 필지들은 아무래도 전망이라든가 좋은 집 자리는 전부 나가고, 그런 자리보다 못해서 분양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한옥마을에 가가지고 저기에 입주하신 분들하고 한 2~3시간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일부터 찾아가서 무슨 어려운 점이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로 생기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약산 담수호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장에 와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경관을 보러 왔는데 태양광이 설치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양광이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못 오게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몇 분들이 태양광…… 주민들이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는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약산 담수호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몇 분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장에 와보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경관을 보러 왔는데 태양광이 설치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오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태양광이 들어서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못 오게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몇 분들이 태양광…… 주민들이 유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알고 있었고 2017년도 농어촌공사 강진지사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철회했다고 그러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최근에 제가 갔다 온 것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엄청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 안 되면, 태양광이 들어서게 되면 완도군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겠다, 반환소송까지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 대다수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런 조치가 다 취하됐다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부지가 좀 적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지가. 한 필지를 가지고는 집을 한 채 올리면 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두 필지를 줘야 되는데 군에서 두 필지를 잘 안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안 되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들어서 집을 짓고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

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보셔 가지고 빨리 분양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위험 지구였던 경도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철거를 했죠. 철거 이후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철거는 완전히 완료되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철거하는 데까지는 민원봉사과가 주관하는 과고, 철거 이후에 소공원을 꾸민다든지 뭐 다른 홍보 장소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부과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원관리 및 세수누락 방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적극

적인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선진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세목별 지방세 신고 및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0억 5,000만 원 증가된 299억 7,000만 원입니다. 그 중 도세는 141억 3,000만 원, 군세는 158억 3,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월별 지방세 부과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정기·수시분 지방세 부과 시에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조사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시장에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수 1만 8,353호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3월 13일까지 완료하고 4월 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6월 26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상반기에 준하여 검증·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1월 27일까지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대비 대책 추진입니다. 기존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 신고하던 것을 2020년부터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기로 됨에 따라 안정적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인력 확보 지침에 따라 인사부서에 기준인건비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 지방소득세 신고 및 부과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와 출장소를 방문하여 신고접수, 검증, 사후관리 등의 업무노하우를 전수받고 벤치마킹하였으며 연중 업무관련 전문교육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방소득세 자진신고 이후에 적정성 검증 및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세수누락 발생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상담을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담당인력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증

원하고 담당인력의 업무 전문성 또한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계약·회계업무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외적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사·용역·물품 3개 분야에 1,588건 946억 9,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계약업무 통합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농업기술센터 외 2개부서의 입찰 및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164건 46억 9,300만 원을 통합계약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업무, 예산집행의 적법한 결산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따른 공정한 계약 및 회계처리와 회계업무 시스템 안정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추진입니다. 2018년 지방세 342억 원을 부과하여 325억 원을 징수하였으나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억 원 증가되어 징수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감소된 94.8%로 결산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고질체납자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4,288건, 예금 등 채권압류 31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510건 등 총 4,829건에 10억 4,000만 원을 체납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합동단속반 운영과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적극 실시하고 체납차량을 압류하여 고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소유 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한 공매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매년 증가 추세이나 사업폐업과 부도 등으로 타 세목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부과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중대한 손실이나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검토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및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2018년 지방세외수입 204억 원을 부과하여 1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로 전년대비 0.7%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두 차례 설정, 운영하여 체납 자료를 재정비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세

외수입 징수율을 올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개선 효과로 채권관련 체납액 감소에 따른 2020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9억 2,700만 원, 사망자 등의 체납정리에 따른 인센티브 2,400만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된 청사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행정재산 477동과 일반재산 19동입니다. 2018년 12월 직원관사 신축공사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3월까지 군청 앞 광장 조성 설계와 필요 부지를 매입하고 6월까지 군청사 내진보강 공법선정과 설계를 진행하면서 6월에는 보길면사무소, 생일면사무소 직원관사 신축공사는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보길면사무소는 2018년 5월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서 신축이 필요합니다. 면사무소 신축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군민들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에 기존 면사무소를 복지회관으로 이전하고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취득 및 처분 내역을 체계화하고, 개발·활용 위주로 재산을 운영하여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재산 현황은 도·군유재산이 총 3만 4,700건에 면적은 2,227만 9,000제곱미터, 재산가액은 2,966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누락재산 등재 25건, 유류재산 대부계약 310건을 체결하여 4,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지 23건에 대해서는 3억 3,400만 원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그 실태조사 후속조치에 따라 변상금 부과 및 누락필지 등록 등을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수급관리 추진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유지·보존함으로써 수급관리의 운영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행정 생산성을 높이고

자 합니다. 2018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하여 3만 6,901개 337억 2,200만 원의 재물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폐기된 183개 2억 2,300만 원의 재물을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2019년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행정차량 3대 1억 원, 전자복사기 등 5종의 정수물품을 교체 구입하고, 전 부서와 읍면의 노후 비정수물품을 수시로 조사하여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물품 구매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물품 수급관리 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잠깐만 제가……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총 예산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 계상을 안 했고요. 우선 설계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하면서 총 예산이 그때 확정되면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재원은 순수 군비로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청사는 보길면의 경우에는 관광객이 엄

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선도 유적지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는 건물 디자인을 권하고 싶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디자인이요?

○ 박재선 의원

아이들의 돌봄 확대도 하고 아동복지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따라서 아이들의, 돌봄 학생들의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배치도 같이 하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설계 시에…… 그것도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면사무소 건물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본의원이 얘기했던, 주문했던 이런 얘기들은 꼭 같이 설계하실 때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공공주차장 준공이 됐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공영주차장. 군청……

○ 박인철 의원

예, 우리가 지금…… 19년도 예산안에 군청 앞 광장 조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설계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만차되어 가고…… 우리가 광장을 조성한다는 데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만차가 안 되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제가 확인을…… 매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있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공영주차장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만차가 됩니다. 그 야외주차장보다는 전부 직원들이 공영주차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햇빛이나 비가림이 되기 때문에 차량을 유지, 보존 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거기를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만차가 됩니다. 대신 그전에 사용했던 군청 뒤편에 1, 2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거기에 차가 못 잡니다. 거기에 주차했던 차들을 이쪽으로 많이 빼는 것 같고.

대신 민원실 앞에 주차장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민원인 전용으로 주차를…… 민원인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 차는 주차되어 있지 않고 있고, 군청 앞 주차장도 앞으로 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완공되고 나서.

그런데 계속 광장을 조성한다고 하는 데가 지금도 계속…… 오늘도 보면 다 차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연구하시고, 또 지금부터라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부터 저기에 대해 계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래서…… 보통 저것이 40면에서 50면인데, 주차면이. 저 관계를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금방 보길면 뭐 했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금후 추진계획하고 답변이 틀려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면 7월에 계약 체결이라고 해가지고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것 지금 추경에 예산……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지금 회계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공사를 계약하면 제가 알기로는 옛날 김종식 전임군수님 계실 때는 경리파트에서 모든 자료가 되어야 마지막 잔금을 계산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완도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대금결제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꼼꼼히 저번처럼 다 결제가 되면 마지막 잔금이라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것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그 관계도 챙겨보시고요.

이상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치유산업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기해년 새해 첫 보고에 존경하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 사업단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완도는 해양치유 의료, 관광,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나아갈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완도가 나아갈 미래이고 비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일입니다. 저희 사업단은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그리고 우리 완도군민들의 사랑을 믿고 함께 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인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기반 연구 개발사업 추진 등 1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해양치유자원 실용화기반 연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치유자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자원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고려대 해양치유연구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가 3차 년도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전년도 6월부터 9월까지 해조류 식단, 팩, 해수찜, 머드팩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우리 군에서 3회 실시하였고, 국회에서 해양치유산업 정책포럼과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해양치유법 입법 발의를 완료하여 현재 농해수위에 법률안이 상정되어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4월 중 해양치유법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1차 년도 기초연구, 2차 년도 실용화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3차 년도에는 실용화 매뉴얼 작성과 주민 건강증진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획 홍보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로 범군민 추진의지 결집과 우리 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알려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 및 각종 행사와 교육,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 그리고 작년 12월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6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2개 읍면 정책토의를 통해 군수님께서 현 경제 실태와 완도군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마리로서 해양치유산업을 세밀 있게 전달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습니다. 2월 8일 석회를 통해 전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켰으며, 추후 대내외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남도와의 협의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 중심지가 완도임을 부각시키고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 교육, 언론,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웹툰 종이 만화를 제작 배포하고, SNS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 3월 중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비치바스켓을 설치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

고 버스와 활어차 맵핑 광고, 빙그레시네마 스크린 광고, 차량 내비게이션 홍보멘트, 주요 도로변 현수막 광고를 전개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국내외 협력추진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우수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노르딕워킹 인터내셔널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 등 해외기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월 중 4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 위촉과 회의 개최로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월에는 전라남도도와 완도군, 그리고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남개발공사, 보건환경연구원, 완도수목원 등 협력기관의 기술자문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대비해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독일 노르드나이스 등 해외기관과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내 특성화고 및 교육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마련 등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건립예정지는 신지명사십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개발행위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해양치유시설에 따른 법적 개발제한이나 규제가 없는 곳입니다. 실시설계비는 건축공사비 320억 원 대비 20억 원이 소요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로 금년 9월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2018년 12월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비 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시작으로 2월 중 국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면 설계용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해양치유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 연구용역입니다. 본용역은 해양치유단지 조성과 공공병원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말까지입니다. 용역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금년 5월 중에 용역결과가 마무리되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해양치유센터와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건립 예정지가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시설지구 내 주차장 용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광지 전체면적 67만 7,023제곱미터 중 해양치유센터와 전문병원 건립에 필요한 5만 4,807제곱미터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1억 원의 용역비로 추진하며,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7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신지 해양치유단지 염지하수 부존성 조사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해양치유요법에 적합한 염지하수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지난 1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적합한 장소 선정을 위해 물리탐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염지하수를 개발한 국내 사례조사와 상품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6월말까지 염지하수 개발을 완료하고 그 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해양치유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 유치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인근 도서지역에 휴양·레저 중심의 해양치유 배후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며 투자유치 목표액은 7,000억 원입니다. 투자 개발 대상지로는 고려대학교 수련원, 조선대 해양생물 연구교육센터를 기능 전환하여 민간해양치유 전문병원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완도읍과 신지면을 거점으로 금일, 청산, 노화권역의 섬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시설 및 휴양·레저 시설을 유치하여 클러스터화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의 시너지효과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의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해 신지면 대곡리 울물 부근에 해양바이오연구소 및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 계획입니다. 범군민 민간투자유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며, 완도군 향우기업 및 전남개발공사 인적네트워크를 공유하여 1,000명의 민간투자자를 확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추진, 투자유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추진입니다. 박람회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24일간 완도항 해변공원과 신지 명사십리 일원에서 개최하며, 64만 명의 입장객을 목표로 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도와 완도군이 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서와 신청서가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 말에 기획재정부 내 자체 심사위원회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3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7월에는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결정이 나게 됩니다. 국제행사 승인이 결정되면 박람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해조류센터는 지상 4층에 전시실, 사무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해 3만 5,357명이 센터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봄, 가을에 꽃을 식재하여 오दन 옥상정원을 물을 소재로 한 캐스케이드 시설물로 교체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월에는 해조류센터 광장 내 어르신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바둑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어르신들이 주재관 주변 테크시설에서 장기를 많이 두는데 광장 내 활용가치가 떨어진 잔디 공원을 주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해양치유갤러리는 2019년부터는 관내 학교, 단체, 읍면에 전시작품을 기증받아 분기별로 작품을 교체하는 등 해조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사 양성 추진입니다. 해양기후,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소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해변요가, 노르딕워킹, 명상 등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과 해수찜, 모래찜질, 꽃차 등 해양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도사 양성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7월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11회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노르딕워킹 초급 지도사 19명을 양성하여 해안누리길 걷기축제와 연계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8월까지 노르딕워킹 전문코스를 개발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신지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체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씩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초급지도사를 양성하고, 3월부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연중 확대하였으며, 명사십리 개장 전 지도강사 및 종사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장 후 기후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모래찜질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10월에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하기 위한 완도스테이를 개발하여 우리 지역 특화프로그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생물 연구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해양생물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바이오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개년 사업인 저할용 패류를 이용한 수출지향형 제품 개발로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완도산 김을 이용한 장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비로 7,000만 원, 김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해조류 로컬음료 개발비로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 및 인건비 출연금으로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김 추출 기능성 물질인 면역증진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을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개발한 전복김국 등 3종 김 제품과 알긴그레이트 2종 음료에 대해 기술이전 기업 및 유통 판매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이 사장되지 않고 시장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한 대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조사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일정을 보면 타당성조사가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데 그때 현지방문이 4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최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 BC 1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BC.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BC 1……

○ 박인철 의원

1 이하로 나오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경제성 분석이 BC 1 이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 박인철 의원

대응책은 있습니까. BC 1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에 대해 군에서 갖고 있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논리도 잘 개발하고 그때 그 현지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최대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전 소요예산이 100억에서 국비 30억이었는데 이번에 국비 20억으로 10억이 다운되었네요. 이전에는 국비 30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전 해조류 때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2017년도를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예.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때도 아마 21억을 받은 것으로……

○ 박인철 의원

그렇습니까? (예)

사업비는 똑같이 총…… 이전이나 지금이나 100억인데, 여기에 보면 수익사업이 40억이네요. `17년도에 비해 한 10억이 증가되었는데 어느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수익사업 40억에 대한 조달계획은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하고 또 부스임대, 그다음에 기타 뭐 이장사업……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입장료…… 뭐 35억하고 시장사업 680만 원 정도, 기부금 뭐 2억 5,700, 부스임대가 6,300만 원, 기타 3,000 이래 가지고 40억 정도 되는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세워야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자료에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입장권 수입으로 해서 31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스임대가 4억 원, 기타 이장사업해서 5억 정도로 해서 30억…… 40억 수익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입장권 판매가 35억, 시장사업이 680만 원, 기부금이 2억 5,700만 원, 부스임대가 6,300만 원, 기타 3,10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치고요. 하여튼 이것 차질 없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시 매몰비용이 최우선 검토항목으로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세 가지 정도 중점을 두고 박람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람회 주제에 걸맞는 핵심콘텐츠를 구성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체험콘텐츠를 구성해서 사후에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박람회 종료 후에 상시 전시관을 건립, 구성해서 전시물을 재 활용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해조류박람회를 두 번 치르고 지금 세 번째 치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박람회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딱 해조류박람회 건립…… 건물 하나 지금, 2014년도에 했을 때 저 건물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도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1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재활용전시물은 5~6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추진될 때에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대외경비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때에도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 국정질문 때도 제안

을 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나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수부에게 주관해서 운영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마 건의는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해수부나 도 답변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 좀 별도로 해주고요.

정부 주도 박람회 등록 엑스포가 있고 인정 엑스포가 있습니다. 여수에서 개최되었던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였거든요. 과연 해조류박람회가 등록 엑스포나 인정 엑스포로 추진될 수 있는 규모대상인지 잘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담과가 신설되어 있으니까 장래적으로 이런 용역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조류박람회의 성공의 열쇠는 군민 및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필드에 있는 어업인들도 좌충우돌 관심도 없고 모르고요. 대외정책연구원 용역 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방법 강구한 것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돈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는 100억이라고 했는데 2017년도를 보니까 170억 이상 들어갔거든요. 각 실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한 1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소

요해 가지고 3주, 4주에서 거의 그냥 매몰되어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페이지, 해양치유 실용화기반 연구개발이요, 51억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선도지자체 4개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추진실적 중에 우리 군의 경우 3회 임상실험을 하였다고 하는데 임상실험원료는 무엇이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어느 기관의 목적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원료는 해조류하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어떤 해조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수, 그다음에 해수탕과 머드팩을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대상은 당시 500명으로 했고요. 기관은, 해조류는 전남대에서 운영했고, 해수하고 해수탕, 머드팩은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했습니다. 연구내용은 첫 번째,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만성골반통 환자의 해수치료 효과. 세 번째, 무릎 고관절염 환자에게 해수탕과 머드팩 치료효과.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세 가지 임상실험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상실험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미역귀는 후코스라는 물질을 추출한 후 위장 개선을 위하여 전북대 임상센터에서 한 것처럼 환자를 뭐 20명했다, 50명했다. 그래서 어떤 임상효과가 났다, 이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임상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 3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현지에서 진행 중입니까, 이 임상실험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수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용역인데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수부에서 4개 선도지자체가 된 데 대해서 해가지고 용역을 한 그것이지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3회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따로…… 해수부에서 한 것하고 따로 해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해수부 주관 용역입니다.

○ 박인철 의원

4페이지요. 단장님, 해양치유센터 건립기본 및 실시설계분야인데, 전체 사업비는 320억…… 20억이고, 20억을 가지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애당초 군수님도 그랬고 10억 국비에다가 5억 도비에다가 5억 군비 해가지고 20억 실시설계비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당초에. 그래서 `18년도에 쪽지예산으로 빼서 국비 5억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어디에서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전부 1회 추경에 순군비로 넣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체는 순군비가 아니고요. 5억은 도와고 협의가 거의 끝났고요. 군비로는 10억만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일 모레 예산부서에서는 추경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5억이 추경 전에 내려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의 협의가 완료…… 끝났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협의만 끝나면 뭐합니까. 돈이 내려와야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공문 처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보니까, 언뜻 보니까 건축공사가 100억, 인테리어 공사가 30억, 토목이 20억, 기계설비 58억, 전기설비 36억, 통신설비공사라고 해가지고 19억, 소방설비 13억, 조경 9억 8,000 이렇게 해가지고 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20억은 어찌됐든 설계비를 해놓고 설계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용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공사…… 지금 3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실시설계비도 국비를 5억밖에 반영하지 못했는데, 공사금액이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가 한번…… 단장님,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사업비 확보계획에 보면 2020년하고 `21년도에 2개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020년도에 80억, 2021년도에 75억, 그 다음에 도비가 2020년도에 35억, 2021년도에 30억, 그래서 우리 군비는 40억씩만 연도마다 부담되고 있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서 건립사업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아니, 계획은 좋은데요. 우리가 이것을 중앙부처에다가 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방안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국비 확보는 해양치유 그 법률안이 내년 상반기에 공포되면 그것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확보하는 데는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12페이지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지도자 양성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 양성은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적근거를 가진 어떤 지도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 만약에 해양치유,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완도군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완도군에서 그냥 하는 그런 것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지도사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법적근거는 없고 사설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도자를 양성하지 않으면 계속 외부기관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이 있고, 여기에 따라 자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자체 일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지도사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그러는데, 허가가 나지 않은 학원에서 자격증을 쥐가지고 계속 그런 사고들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치유 입법이 위의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 자연적으로 됩니까. 지금 황교환 의원 외 16인이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를 해냈는데, 이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것까지 다 부칙이나 규칙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치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사는 해양치유지도사, 이것이고요. 방금 해양치유기후프로그램지도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되는…… 법적으로 근거 있게 되냐는 이 말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기후프로그램지도사는 법적근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법적자격증 없이도 우리 군에서 몇 주간 교육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해양치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환자들을……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을 교육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치유센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양센터 내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양치유지도사가 이렇게 전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 추진배경에는 해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해나서, 우리가 치유센터가 생기면 해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이것 법적 근거를 갖게 노력하시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국회에 발의 중에 있는 해양치유 입법 관련,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진행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 정부 관련 부처에 협의 중에 있고요. 금년 상반기 내로는 아마 공포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한 3월 중에…… 법을 통과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공포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해양치유산업이 돛단배의 돛을 달고 가듯이 돛을 달고 갑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서 시설을 건립하는데 예산을 갖고 오기도 힘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5페이지, 관광지 조성변경 수리분야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6페이지입니까?

○ 박인철 의원

5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및 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6개월에 할 수 있습니까? 너무 조금하게 잡아놨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것은 변경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서 환경평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하고 타 법적…… 이런 것 전혀 안 받고 합니까? 그런 것을 받으면 최소한 1년 걸리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면적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절차가 그렇게 때문에……

○ 박인철 의원

환경영향 평가를 안 받습니까? (예)
그러면 이 면적이 주차장 부지,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일부분만 한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주차장만…… 더 넘어서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차장에서 해변 쪽으로 좀 더 이렇게 들어오면 그쪽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주차장 앞에는 들어오면 바로 다 해변인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여기는 모래하고 근접한데.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단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기 전에 우리 먹거리라고 했는데, 장래 완도의 먹거리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구호로서만 끝나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또 인구감소, 이런 말도 나오는데. 객지인들이 들어올 수…… 주민 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얘기를 박인철 의원님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군의원이지만 해양치유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앉았을 때 뭘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뭘 어떻게 해서 성공할 것이며, 어떤 것을 치료하는 것이며, 치유와 치료와 다른 점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정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번에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언제 했을까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개별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보면 몇 가지…… 최미경 소장이 강사로서 첫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성공여부를 몇 가지 정리해 놔더라고요. 거기 마지막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창의적이면서 군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과연 우리 직원들이 자세가 갖춰져 있을까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은 좀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2월 8일에 전 직원 (청취불능) 통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거든요. 의원인 저도 설명을 못하는데, 그렇죠? 이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우리들이 먼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주민들한테. 자, 이런 것이 옴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좋고, 어떻게 해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유치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들이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죠. 첫째로 그런 것은 없이 계속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홍보만 하지, 그냥 구호로만 듣고 있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의원들도 역시나 앉아서 이야기를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좀 먼저 해서요, 우리 군민들에게 하나 되어서 설명이 돼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다음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전북주식회사 운영 등 17건입니다.

1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2009

년 4월에 설립된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총 직원 수 48명과 자본금 89억 1,700만 원, 발행주식 177만 9,000주, 주주 수는 1,222명으로 이중 우리 군은 총 발행주식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 활전복과 가공전복의 수출실적은 116억 5,600만 원이며, 도매 및 유통은 34억 3,000만 원, 홈쇼핑을 통한 판매실적은 150억 3,100만 원 등 총 64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안전 상정을 위한 이사회를 어제 2월 12일 개최하여 현 대표이사 임기만료에 따른 공모방안과 완도군의 지도,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정관개정을 협의하였으며, 3월 정기 주주총회 시 안전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는 기존 활전복 중심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 시장 공략으로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대비하여 소비패턴 분석으로 혼밥족을 겨냥한 간편식 개발과 홈쇼핑 활용 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내수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출하시기가 집중되는 4월을 대비하여 기업과 기업간 영업 강화, 대형마트 납품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전복 수출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물류시설 부족에 따라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5억 원의 사업비로 완도항 배후부지 내에 수조시설, 냉동·냉장시설과 가공시설을 위한 급속동결실, 제품홍보실 및 부대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또한 냉동전복 수출시장 확대 및 개척을 위해 급속동결장치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 8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쳐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2일까지 실시설계내역서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심사완료 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수산물을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사업 등 총 10종에 90개소, 사업비는 119억 2,8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개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해양수산물사업 모집·공고하였으며 2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순기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둔화된 시점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산물 수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수출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수산 전문 바이어를 발굴하여 수출판로를 구축하고 수출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수출량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바다 수도 완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홍콩과 베트남, 미국에 2회 파견하여 수출상담회를 3회 개최하고, 10건에 2,100만 불의 수출계약과 함께 850만 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으며, MOU는 총 12건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 중 미주, 중화권 등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를 공모중에 있으며 기존에 참여하였던 업체 이외에 신제품 개발 업체 및 신규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3월부터 10월 중 수출상담회, 프로모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완도 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전복, 광어, 해조류, 수산 가공품 등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작년 대비 소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는 작년보다 발 빠르게 특산물 판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가격 안정화 및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전북데이행사, 전북 직거래장터 운영 및 전복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활전복 4,300톤을 판매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매생이 생산량이 증가함으로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매생이 생산어민을 돕기 위한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매생이 소비촉진 판촉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 20만 켤피 판매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TV 광고,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방송 노출을

통해 완도 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LED 광고물 설치를 통해 완도 수산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별 수산물 판매량을 분석하여 소비부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판촉 이벤트 행사 및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완도군 이숍 온라인 마케팅 추진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하여 완도군 농수특산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완도군은 인터넷으로 농수특산물 마케팅 홍보 지원을 위해 완도군이숍 및 오픈마켓 판로지원을 200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이숍 입점업체는 제일물산 외 48개 업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작년에 2억 3,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완도군 이숍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또한, 계절별, 시기별로 제철특산물 특별 판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완도군 이숍 입점업체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진 촬영, 상품상세설명서 제작 등 마케팅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완도군 이숍 브랜드 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우리 군 농수특산물의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조류양식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쟁력 우위품종인 김, 다시마 어장을 확대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역환경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해조류 ASC-MSC 인증 전용단지 개발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식기반 구축과 생산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부표 보급 지원사업 등 4종의 사업에 21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해조류종자 공급사업 및 감태, 곰피 시범양식, 소안김 우량종자 개발사업에 8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관내 8개소에 수온 및 산소 이온농도를 측정하여 매일 어업인에게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조류 ASC-MSC 인증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출 및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를 위하여 150헥타르의 해조류양식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군비로 추진하였던 양식 환경특성조사를 국비사업으로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금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첫째, 해조류 작황이 좋을시 생산 과다로 인한 가격하락 및 소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결건조 및 저온저장시설 확충,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을 통한 시스템 구축, 품목별 생산자연합회 구성, 계약재배 등을 통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해조류에 대한 식품 안전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 규명과 다시마, 톳, 멸치 등의 비위생적 건조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해조류 양식기술 대응 및 우량품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해조류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 개발 및 우량품종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 인근 해역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면허, 허가를 받은 어업인 및 단체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1%에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총 83명의 어업인에게 214억 원을 배정하여 63명이 사업완료 후 용자를 실행하였고, 37명은 금년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중 사업비가 배정되면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지침에 따라 해조류 및 육상양식시설에 우선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속가능한 전복양식산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복 양식 현황은 2,673어가 3,093헥타르이며, 전국 시설의 73%인 73만 칸을 시설하여 전국 생산량 70%인 1만 4,068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복의 수출동향은 2018년 총 2,388톤 중 활전복은 2,173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복 출하 시 크기별로 8마리 이하 3.1%, 9 내지 11마리 12.9%, 12~20마리 48.5%, 21마리 이상이 35.5%를 점유하고 있으며 평균단가는 12월 기준 3만 4,0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형성되었으며, 연중 출하량은 2월, 10월이 가장 낮고 적조 또는 고수온을 대비하여

7~8월 출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복소비 촉진을 위해 2017년 12월 완도 여객터미널에 전복 상징물을 설치하였고,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축산물 선물가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소비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전복판매운동 추진으로 8 내지 13미 전복 1,700톤을 판매하여 이를 통해 4월에서 6월 전복출하 정체해소 및 소비 대중화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위해 이동군수실을 7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고수온기를 대비하여 집중 모니터링, 전복 가두리 차광막 설치 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아시아 최초로 전복양식 14개 어가가 ASC 인증을 받았고, 주식회사 취영루의 전복만두를 출시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전복산업 육성을 위해 태풍, 고수온, 적조, 폭우, 이상 수괴의 5대 리스크를 대비하여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생산 분야입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적정 생산량은 1만 125톤으로 과잉생산 방지 및 고품질 전복생산을 위해서 전복가두리 한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복산업 영역별 생산원가 분석 후 가격 안정화 방안을 위해 남해수산연구소와 합동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사육관리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월별 사육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하고 어업현장 이동군수실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작 및 생산력이 저하된 어장에 타 품종 대체 개발을 위해 참조기, 가리비 등에 사업비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역별 단체조직과의 상생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2021년까지 우리 군 전체 어장의 10%에 대해서 ASC 인증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비분야입니다. 먼저 냉동 및 순살 전복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활 전복 위주의 유통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용 물류센터를 건립해서 해외시장 개척은 물론, 군납, 학교 급식 등 대형 전복 소비처를 발굴하고 전복만두, 전복 냉동 밥 등 전복상품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확대 및 시기별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집중출하 전 소비촉진을 위한 공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촌계, 수산업경영인, 전복협회 등 생산자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근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전복산업 위기극복 중·장단기 용역을 추진하여 우리 군 전복산업 위기에 대처하겠습니다. 생산자 출하 점유율은 12~20미 크기의 전복이 높은 반면에 소비 및 유통에서는 25~30미 크기의 전복의 선호도가 높아, 이를 위한 25~30미 크기의 전복은 가격을 인상하고, 12~20미 크기의 전복은 수출주력전복으로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전복산업 영역별 이해관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전복 생산자협회 조직 재편 권고 및 완도군전복산업발전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전복가두리 불법양식 시설물 처리를 위해 어촌계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미이행 시 강제철거 및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어류 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완도 명품광어 브랜드화를 지속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광어양식은 191어가에서 120헥타 규모이고, 연간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KMI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생산량의 32%를 우리 군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가격은 kg당 제주산 광어 대비 평균 2,000 원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2018년에는 2,47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에 히트펌프, 인버터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에 84억 8,200만 원을, 명품광어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백신 등 5종 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넙치수출 장려금에 6,000만 원 지원하였고 품종의 다양화를 위해 유망양식품종 조기류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종 사업에 136억 9,600만 원 사업으로 어류양식산업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으며, 2020년까지 광어 양식어장 15개소 이상이 ASC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료저장시설 확대 및 대규모 보관시설을 건립하고, 소비확대를 위한 선어회 등 상품개발을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어업현장 이동군수실을 통해 어류 사육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문제점 대책으로는 완도산 명품광어 경쟁력 지속을 위해 수질개선, 우량종자 생산, 식품 안정성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신공급사업 효능 증진을 위해 백신접종 후 항

체생성 확인체제를 구축하여 완도명품광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u-IT 기술을 활용한 첨단 양식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ASC 인증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ASC 인증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인식시켜 우리 군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해외 수출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 양식장의 10%를 ASC 인증등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7월 아시아 최초로 전복양식 14개 어가를 ASC 인증 확정하였으며, 8월에는 책임 있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11월 청산바다 환경연구소와 ASC 인증 확대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1월 해조류 ASC-MSC 인증 희망어가 수요조사를 통해 101어가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월 ASC-MSC 인증확대를 위한 심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증 희망해역 해양환경 및 퇴적물 조사 방향 논의, 해조류 ASC-MSC 인증 양식장 심사기준 및 조사가이드라인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ASC와 ASC-MSC 어가별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3월에는 인증 희망해역 해양환경 및 퇴적물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11월 ASC 인증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는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풍, 적조 등 수산피해는 매년 발생되고 있으나 원상회복의 한계가 있으므로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추진으로 재해발생 시 손실보상으로 경영악화를 최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등 총 28종으로 우리 군은 19종이 대상 품목으로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이며, 보험료 지원금은 총 금액의 50%가 국비, 잔여 50%중 30%가 지방비 재원으로 편성되어 지방비 지원은 총 36억 원입니다. 작년 12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을 국비 50%에서 60%로, 지방비 지원 한도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양식환경 및 구조를 감안, 보험할증제도 개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권역 세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해 수협중앙회 호남지역본부와 순회 가입 홍보계획이 있으며,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

하고 홍보 현수막을 제작, 각 읍면에 배부토록 하여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연안어장조사 및 어장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어장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감소 추세에 있고 면허와 실제 시설 간 괴리발생으로 어업면허의 당초 취지인 계획생산 차질 및 무질서가 장기 지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생산, 품질향상,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김양식 면허지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어장배치 실태, 시설자, 양식품종, 시설방법, 시설규모 등을 조사한 후, 어촌계간의 협의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어장 시설물도 정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구획어업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획어업의 실질소득 감소로 영세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획어업 재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며,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금년 2월에 희망수요자를 파악한 후 해역 실태조사, 어촌계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 10월에 구획어업허가 이설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어선의 감척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낭장망 등을 대상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4척에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입니다. 금년 2월 중 사업자모집 및 선정 후 실선확인, 감정평가 의뢰, 해체처리 및 폐업지원금 지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어업 경영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그리고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3개 사업으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600만 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4억 9,700만 원,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

에 6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2월 중 사업자 모집 선정 후 조기 추진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선어업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3억 1,700만 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는 4,200만 원, 그리고 어업인 안전보험료지원 사업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구별 수협,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입홍보 독려로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단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 1페이지요, 전복주식회사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복주식회사 여론의 중심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변론하고요, 본의원은 대주주이자 지도,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는 완도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단장님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동의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작년 군정질문 시 본의원이 주식회사의 방향을 물어봤을 때 공익적 측면을 우선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해 변함없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변함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좋습니다.

전북주식회사는 공익적 측면을 우선으로 운영한다고 하여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적 있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되 지도, 감독 강화를 위하여 정관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개정 되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3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개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어제 이사회를 개최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어제 이사회에서 이사 수를, 이사는 1인에서…… 1인 이상 3인 이내로 하고 4인 이상은 5인에서 7인 이내로 한다는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매 분기별 경영현황 및 그 실적을 완도군수 및 군의회에 보고한다.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을 개정하려고 전부 이사회 의결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때 군정질문 때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정관에 반영시켰죠, 그러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런 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많이 시켰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사회에서 했다는 것은 주주총회만 거치면 되잖아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3월 중에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사회잖아요.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형식상 다 갖춰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주주총회는 대주주인 군이니까 다 가능한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해야죠, 그것 개정한다고 그때 약속한 것인데. 이제야 이런 것이 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그 조례에 대해서 한번 했던 것도 있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그 조례 개정을 당초에는 검토했었는데 현행 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해서 처리해도 관계없었습니다. 조례는 개정하지 않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더 추이를 보고, 추이를 보고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죠. 전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봐서 해야 되지. 우선 이렇게 가되, 해야 될 부분이 되겠다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

성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시기 시작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서가 제출되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작년 12월 12일에 사업예산서를 전복회사로, 완도전복주식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반아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계획서 자체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보완작업 중에 있고, 3월 15일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출이 안 되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는 안 되었지만 3월 15일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게요,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때도 군정질의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말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얻은 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군정질의 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적어도 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뭔가 과장들이 할 때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은가요. 뭔가 이런 사업추진을 할 때 이런 중요한 사항도 군정질의 때 질문을 드려서 이런 것도 했으면…… 과장은 그렇다고 해도 국·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이런 것 하나는 챙겨야 맞잖아요, 서로 다짐을 받고 약속을 했으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사업계획서는 일단 받았었는데, 거기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최정욱 의원

저도 봤어요. 그것은 뭐, 이 사업계획서가……

그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라고 말한다는 하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말하자면, 그렇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단장, 국장, 이런 제도가 생겼다면 무언가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 최정욱 의원

뭐 하나를 하더라도, 챙기더라도 국장이나 단장 제도가 생겼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예전에는 군수, 아니면 부군수가 바빠서 못 챙겨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단장 제도가 있으면 이런 것 하나쯤은 그때그때 챙겨서 해야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근거가 되어야 성과평가도 하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지도감독도 하게 되고, 무엇을 가지고 하겠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고, 이것을 12월 말에 끝내라고 그렇게 몇 번 다짐을 받았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제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다미는 다짐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꼭 차질 없이…… 3월 15일이라고 했죠? (예)

그전에 모두 완벽하게 끝내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이것이 어떻게 됐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3월 주중이 끝나면 의회에서 별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때 한번 주식회사 방향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이렇게 챙길 때 그런 것을 빠짐없이 충분하게 가지고 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요, 불법양식을…… 16페이지입니다. 불법양식가두리, 그 시설물을 처리하는 것. 불법단속을 한다고, 사법처리하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 어떤 의지는 있는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지금 한 줄 비우기 가두리 운동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이 실현가능한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은 어민들도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 최정욱 의원

그런데요, 그것 인정은 하되 절대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한 줄 비우기에 동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 뺏으면, 며칠 안 있으면 도로 거기에 들어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할 방법도 없고, 그것은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고, 지금 우리 면허지 내와 불법과의 차이가 꽤 되죠. 예를 들어서 면허지에 100줄이라고 하면 불법면허가 한 70칸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불법 처리양식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면 한 줄 비우기보다 훨씬…… 이것은 엄청난 양이 줄죠,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보고 형식상 이런 것만 넣을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무엇을 하려면,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업무보고식으로 이런 것을 넣으면 뭐해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 단속도.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불법양식 철거를, 이것을 독려하려고 한다고 하면 차라리 어민들에게 한 1년 정도 유예를 주고, 1년간 이동군수실을 다니면서 다른 한 줄 비우기,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1년 후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불법처리, 이것을 시설하느니

그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알려서 어민들에게 1년 후 어떤 피해가 안 오게끔 그렇게 해놓고 불법양식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북산업의 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생산량 증가라고 하든지 조류소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 줄 비우기는 조류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전북 폐사가 많이 나오니까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을 비운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전북이…… 가격 안정화가 일식이 돼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의지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다고 불법처리 장소를…… 불법양식을 단속하겠다고 이 업무보고에 들어 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해도…… 한다면 여러 가지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식으로만 이렇게 올려놓고 의지 없이 그냥 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불법양식, 이것도 단속한다는 근거도 어떻게 정확한 세부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다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원래 불법양식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뉴얼이 있습니다. 개보도 하고 행정대집행도 하고

○ 최정욱 의원

아, 개보야 옛날부터 해온 것이지. 오늘 하루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려면 의지 있게 뭔가를 해야 맞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지표명을 업무계획보고서에도 그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

시하잖아요, 하려면…… 어민들한테 느닷없이 하면 되겠어요, 1년이면 1년 유예를 주고…… 이것 어차피 우리 군에서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디 해양경찰이나 이런 것을 단속…… 전남도에나 의뢰해서 같이 단속할 것 아니에요, 하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어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맞죠, 이동군수실을 할 때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기간을 딱 정해주고 앞으로 1년이면 1년, 그리고 이동군수실을 다니면서 “이러니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도나 해경에서 단속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오니까 그때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유예를 주고, 그런 다음에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의지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내가 봐서 조류소통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고, 전복양도 해결될 것이고, 그러니까 적은 수량을 가지고도 수익을 똑같이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잘 하면, 그런 여러 가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들을 때 어느 정도 실적이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물수매 구입자금이라고 예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200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이번에는 그게 빠져있네요, 왜 뺐을까요? 사실 지금 전복이 어느 때에, 어느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계획이 오히려 더 추가 돼서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200억도 저는 작다고, 더 늘려서 어떤 계획을 짜보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 업무보고에 이것이 빠져 있거든요, 그 내용은 왜 빠졌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단장님이 모르시네, 그러면 그것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AT한테 건의했던……

(방청석에서 “건의를 했는데.” 하는 직원 있음)

예, 건의를 했는데 아직 확실하게 답변이 안 온 것 같아서…… 불확실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단장님, 이것도 꾸준히 추진을 하십시오, 해서 이런 준비를 하나하나……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 나가야 어떤 급한 상황이 터졌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로 완도전복을…… 주권을 사고팔고 하는 매매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소문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런데 주식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 3% 미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몇 %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3%,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많이 매입을 했던데, 이것 뭐 법적으로는 문제없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단장님의 말씀처럼 3%라면 주당 얼마

씩 매입하는지는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남산면 쪽에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동부권 쪽에서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주주를…… 매입할 때 마을에서 마을공동자금으로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요, 내가 알기로는 매입단가가 40%에서…… 40% 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더라도 경영권 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경영권 확보 그런 것을 떠나서…… 전 북주식회사에 투자했던 어민들이 마을단위에서 왜 이것을, 주를 팔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집중 인터뷰를 하는 방송에 나와서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단장님, 이 방송을 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방송은 못 봤고요,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내용은 들었죠,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전복사업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방송에 나와서 민영화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주식회사 민영화 부분은 매우 민감한데 대주주인 완도군과 이런 것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저희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어떤 조치를 이 대표이사에게 했습니까? 일부에서는 금방…… 물론 주주권 방어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주가 몇 %나 됩니까, 전복주식회사 주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33%.

○ 박인철 의원

33%죠, 그러면 주를 매입하는 분들이 그러면 나머지 50%…… 50.1%만 돼도 그러면 민영화가 되는 것이지, 뭐 민영화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적극적으로 주를 사서 50.1%만 돼도 운영권은 그분한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논리는 좀 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뭐 상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50.1%면 대주주가 주권을 행사하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협의…… 대주주인 우리 군과 사전협의도 없이 공신력 있는 방송에 나와서 대표회사가 민영화를 운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영화…… 주식회사 사장은 민영화를 얘기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권을, 주를 매매하고 있고,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복주식회사에 대한 여론도 안 좋고 유언비어가 난무한 상태인데, 어떻게 뭐 답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복주식회사 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주식회사는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이 주식회사가 있는 기본 설립취지죠, 그런데 지금 그 취지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말입니

다. 그러니까 여기를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요. 만약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듣고 있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 그런 조치는 안 취했죠? (예)

그래서 단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주주인 우리 군과 의회, 또 2대 주주인 수협과 그리고 회사 관계자. 또 어민들, 이 주를 출자했던 어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편견 없는 논쟁을 통하여 완도전북회사의 운영 및 방향을 이제…… 이 시기에서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 전북주식회사 운영은 공익적 가치 추구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정관을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대표이사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북주식회사는 항상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여론의 대상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완도전북주식에 대한 운영방향을 확실히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3월 주총에서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되어 가지고 주총에…… 어떻게 주총을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회 문구…… 어제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어제 이사회를 했으면……

수산경영과 제1장에 전북주식회사가 있으니까,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한 번씩 의원들한테 이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을 한번쯤 쫓으면 우리도 보고, 또

다른 의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대안도 제시하고 그럴 것인데. 어제 말만 이사회가 열렸다고 들었지. 그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3월 주주총회에 어떤 안건을 올릴 것인가, 전혀 백지상태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의회 본회의장이 열릴 때마다 전북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전북주식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의회에서 다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북주식회사한테 단 1원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군과, 주주들과, 의회와, 전문가 집단들을 모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의원님의 생각대로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주총회는 3월 29일로 어제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된 안건은, 어제 8건이 의결되었고요. 보고 안건은 2건입니다. 별도로 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 뭐 대표이사만 바뀌진다고 해가지고 전북주식회사가 올바르게 가고, 이 현임 대표이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못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전북주식회사가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전북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애당초 전북주식회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수산물 가공유통사업 분야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사업이 개소당 10억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이 신규투자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곳에 중복지원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로 물김 공장할 때 한 20억 정도 드는데, 1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10억은 자부담을 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20억짜리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투자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신규투자가 되고 기존에 운영……

○ 김양훈 의원

지원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기존에 10억 지원입니다. 자부담 10억 해서……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이것 중복사업이 아닙니까. 김 공장에다가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그런데 김 공장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설비가 20억이고, 그중에서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품목은 거의 다 김 공장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산지가공시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꼭 김 공장이 아니고,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다른 품목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주로 김 가공공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인호

과장님이 답변 한 번 하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산지 가공시설사업은 주로 신규사업이고요, 개소당 10억 규모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김 가공공장이 한 50%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해조류, 전복 가공이 한 50%로 차지할 정도로 신청이 좋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시장 개선사업은 어떤 시장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사업개요 제일 밑에 수산시장 개선사업.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이것은 저기 수협공판장, 그 시설을 개선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 김양훈 의원

아, 수협공판장이요, 이런 것은 수협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 수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환경시설, 화장실 개보수, 이런 쪽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수산시장 개선사업도 주로 수협위판장 같은 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협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아니, 저희들이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1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를 꼭 군에서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수협공판장 같은 데는 수협에서 어떻게 보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까?

○ 의장 조인호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주세요. 수협의 이익 창출인가, 아닌가, 보조사업인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서있으면 뭐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수협에서 전체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열악한 수협시장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한테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협에다가 그냥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조사업식으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단장님, 우리 군 수산물 가공유통사업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은 원료는 풍부하나 일일 고부가가치 상품화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통가공사업을 RND를 확대하고 제품을 브랜드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목표가 1,000억 원.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 잘 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 군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라든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도 최근에 75억 원 규모로 해서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또 매년 가공사업에 12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 들어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서 해외시장을 더 개척하고 있고, 나름대로 유통가공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완도군은 어떻게 보면 수산군이 아닙니까. 현지에서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여건이 제일 좋고 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바로 현지에서 가공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런데 보통 보면 사업주나 이렇게 경영자들이 완도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 접근성이 낮고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 SOC,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데를 빨리 좀…… 발 빠르게 대응해서 생물관업단지도 그렇고 농공단지에도 아직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를 빨리 유치해서 우리 군이 수산가공이나 유통하는데 어민들이 도움을 받고 소득을 창출하는데 큰 이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방 김양훈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산시장 개선사업.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군비사업입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입니까,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 보니까 국비…… 5 대 5구면요, 군하고,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국도비사업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미처 못 본 사업도 있는데,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17년도에도 예산을 할 때 협동조합에다가는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우리 순군비가 투입이 안 되게, 안 되게끔 예산을 짜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 잘 못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못 본 것은 저희 잘못인데, 순국비사업, 군비…… 국비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 재원으로 해가지고 5 대 5라고 해놔는데, 10억에 60억을 지원하고 뭐 4억, 6억을 지원하고, 4억을 수협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나면 지금 우리 수산경영과에서 미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에도 자담 30%…… 군비 30%에 자담 70%입니다. 그러면 미끼사업을 해주면 그분들이 고기를 잡아서 수협에 위판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까지 수협에서 몇 %를 댔는데 이번에는 돈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좀 까다롭다고 해가지고 전혀 수협에서도 이 매칭사업에 안 뛰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금 지원을…… 군비, 순군비 3억이 가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다가…… 흑자경영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잘은 몰라도 연말이 되면 보너스도 엄청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우리 군에서 발굴했는가 아니면 해수부에서 밀어내기 했는가 아니면 수협에서 따와서 우리 군에 이 예산을 계상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단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못 본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완도군으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 박인철 의원

해수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라고 하고 내려왔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전남도를 거쳐 가지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군비 3억이나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그냥 국도비…… 도에서 했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3억이라고 하면 3억만 해가지고 나머지 자부담 7억은 수협에서 하라고 하지. 뭐 이런 매칭사업이어서 그런 것입니까, 5 대 5?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우리 군비, 순군비를 넣어 가지고 해주는데, 그러면 수협에서는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과 매칭을 해가지고 미끼사업을 하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까마는……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18년도 얼마 수협에서…… 어선어업협회에다가 미끼사업을 하는 데에 돈을 투자했습니까?

(방청석에서 “ 총 사업비 10%……” 하는 직원 있음)

예? 얼마요?

(방청석에서 “ 총 사업비 10%, 1,650만 원이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도 `19년도에는 안 했죠?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직원 있음)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는 바가지로 퍼주고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흑자경영이 된다고 다 연말이 되면 돈 잔치하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은 국비를 반납해도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필요 없다고.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민들이 있어야 수협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라고 하니까 당신들도 위판을 하면 위판물을 올리니까 좀만…… 돈도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투자하라고 해도, 그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해도 그것도 `19년도에 안 하고 빼버렸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나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뭘니까, 군외면에 활어위판장도 우리 군 안전건설과에서 돈을 대가지고 다 수매해 줬는데 그것도 거의 하다 말다하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당인리 물김 위판장 우리 군에서 전부 지원해 줬는데 거기도 자기들이 곳감만 따먹고 어민들이나 군에 대해서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이런 실정인데 여기에다가 다

시 또 우리 군비 3억까지 투자해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이것 좀 담당과장님, 이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더라도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런 것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면 어때요. 이자를 좀 물고 국비를 반납하십시오, 이런 것은. 수협의 행태를 보십시오. 단돈 1,850만 원도 어민들을 위해서, 그것도 자기들한테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군과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까지 해도……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단장님, 과장님. 이 예산만큼은…… 지금 이것 아직 공모 안 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번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1월 31일까지 전체 사업신청을……)

○ 박인철 의원

신청은 받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십시오. 해를 넘겨서라도,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단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양식수협…… 아니, 양식재해보험 이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20쪽.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바뀐 것……

○ 허궁희 의원

아니,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100%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그런데 이 제도가 우리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도하고 좀 달라서, 무슨 방법이…… 우리들은 20%의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이 보험료 지원부분에서는 여기에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26억 6,800만 원은 순보조금만 명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이외에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내용만 본다면 자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어민들이 20%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100%가 되어 버리니까…… 26억 6,800만 원에 대한 자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요, 추가되어야 될 어종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기류. 조기를 이상…… 여러 가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이 다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마는 특히나 몇 년간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었던 광어양식마저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를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못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런 자료들이 언제 적 자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신경을 써서 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이 자료를 보면 아주 호황기 자료예요, 사실은. 2kg짜리가 지금은 1만 원 초반대로 알고 있고, 제주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위기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것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대처방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광어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량이 감소되고, 또 광어가 국민हित감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런 선호도가 낮아지지 않았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언론홍보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명품광어브랜드,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광어의 ASC 인증,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선어의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면 가까운 제주에서는 500톤을 수매하고 있어요, 우리 완도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그래 가지고 200톤

은 광어어묵을 만들고 300톤은 비료화해서 소비를 좀 시켜주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도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서…… 알고 계시는지, 어쩐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어양식협회에서도 전복이 어려울 때 전복 팔아주기 운동에도 동참을 했고, 매생이 팔아주기에도 동참을 했고, 뭐 호황기에 상당히 역할들을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정작 광어가 이렇게 가격이 하락되니까 우리 군에서 소홀히 대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서 어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복, 광어산업의 위기대책을 위해서 지금 제 사무실에다가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왜 그러냐면 엇그제 광어양식협회가 이렇게…… 뭐냐,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출범식도 갖고 상당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하기도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이나 실과 과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아마 좋은 그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지요, 해조류양식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를 봐주십시오. 업무보고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 최고로 문제가 됐던 것이 매생이하고 미역, 이 두 가지 품목은 아예 (청취불능) 없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매생이 관련해서는, 매생이는 특산물 유통판매
가 중요하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면 같이 포
함……

○ 김재홍 의원

판촉행사…… 21만 재기 한 것을 들었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거기에다가 포함시켜서 언급을 했고요. 미
역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
문에 그것에 대해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하지만.

○ 김재홍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매생이가 한재기당 얼
마씩 하던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은……

○ 김재홍 의원

최근에는 300원, 40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아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이 품질에 따라 다르더군요. A급은
1,000원 이상으로 저희들이 들었고요. 지금 500
원 이하 이런 것은……

○ 김재홍 의원

그것이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안 되
죠. 어떻게 뭐 다른 대책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월에, 작년 1월에 공
직자 매생이 팔아주기 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생산자들도 상당히 좋은 혹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대
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개설하고, 판매
를 개설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언론홍보를 통해서
집중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대충 파악해 본 결과, 하루 소비량이 한 15만
재기 됩니다. 그중에 8만 재기는 서울 등지, 노

량진이나 가락동시장으로 들어가고, 7만 재기는
일반 재래시장으로 들어가는데, 900만 재기에서
3,100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
면 과잉생산이 되어 가지고 4,000톤 정도가 생
산돼서 가격이 하락된 실정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할게요. 첫째,
보면 매생이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
남권에서는 완도군, 장흥군, 강진군. 일부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협의를 부쳐서 시설물을 중심
으로 해서 시설물을 줄이는 방안. 3분의 1로 줄
인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00원 선을 유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째
는 고흥군 등에 보면 장흥 어업인들이 불법으로
매생이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단장님,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런 시설량도 억제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다른…… 군청 질의 때도 얘기를 하
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규격화는 되어 있는가
요, 매생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못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리고 셋째는 매생이는 동결품목으로 경쟁력
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기관 가공업
체에 협의를 해서 동결건조시스템을 구축, 저장
하여 확충하고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
니다. 단장님, 아시겠죠? (예)

내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
게 준비를 해주시고 불법어장을 근절시켜서 축소
한다고 그러면 매생이 가격이 안정되지 않겠느
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
겠습니다)

그리고 미역가격입니다. 미역산업도 굉장히 어

렵죠? (예)

예상 생산량을 전망하고 있는데 얼마쯤 전망하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침에 읍면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시설은 17만 1,285줄이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은 25만 6,92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 김재홍 의원

관내 가공업체 가능량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가공……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1만 톤 이상 되지 않겠느냐……

○ 김재홍 의원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 13만 톤 정도 되고요, 가공업체 가공량은 9,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0톤 정도는 팔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에 폐기하거나 전복먹이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결론은 그렇게 나옵니다. 단장님,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무엇보다도 과잉생산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이라든지 ASC 인증을 해서요, 전형특구를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단위면적당 생산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미역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불법어장지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정비해 가지고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맑은물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 등 18건입니다.

1페이지, 한국수산벤처대학 운영입니다. 한국수산벤처대학은 2007년부터 완도군과 조선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을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산전문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87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매년 3월에 개강하여 다음 연도 2월까지 실무이론, 국내외 현장 학습 등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벤처 과정 50명, 경영자 과정 45명 총 95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며, 학사 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기반이 열악한 취약 어촌지역 지원을 통해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 8,600만 원으로 대상 지역은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과, 8km 미만이지만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며 연륙교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 지역입니다. 대상 어가는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와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입니다. 지난해 10개 읍면 97개 어촌계 3,251어가에 대해 1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마을공동기금 이행점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 중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지닌 섬 지역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LPG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생필품 물류비를 금일을 충도리 등 4개 읍면 6개 마을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LPG 운송비는 완도, 신지, 고금, 약산을 제외한 도서지역 8개 읍면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필품은 농협하나로마트, LPG는 각 읍면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어업인이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할 경우 어업인이 영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일 임금은 10만 원으로 이중 8만 원만 가구당 30일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읍면 이장, 어촌계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촌정주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비 1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인양기 11개소, 부잔교 6개소, 간이접안장 5개소, 어업인 안전쉼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았으며, 현지조사 후 3월 중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및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되어 어업인들이 편리하게 동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도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산생물의 생태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군외면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모패단지 조성용 꼬막 살포, 해삼종자 방류, 그리고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를 살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어장환경 변화와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연안해역에 정착성 어패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해삼 6개소에 26만 7,000마리, 꼬막 6개소에 120만 마리, 붉은솜뱅이 2개소에 9만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4월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어가 및 청년어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귀어를 희망하는 도서민에게 정착장려금 등 총 7종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조기어촌 정착으로 안정적 어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귀어가 정착 및 청년어업인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전복패각자원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음성적으로 버려지는 전복패각을 모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고자 노화읍 일원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작년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너지연구원

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 의뢰하고 금년 1월에 어촌계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까지 사업장 위치를 선정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복과각 발생에 따른 읍면 어촌계 수거협조체계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시행 전, 읍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거체계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 페어구·어망 65톤, 페스티로폼 2,390루베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20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감용기차량 2대를 추가 구입 제작하여, 권역별로 감용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4명의 인력 충원과 3월 중 더블캡차량 2대, 이동식 소각기 1대, 절단기 2대, 흡입기 2대 등 총 4억 원의 장비를 구입, 운영하겠으며, 이로 생산되는 잉곳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을 위하여 3억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저퇴적물의 인양, 경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완도 석장, 소안 월항 2개지구 421헥타르의 어장을 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사업지구 선정 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여 4월 중 전자입찰에 의해 사업시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입니다. 바다에 버려질 미역, 다시마등 해조류부산물을 사전 수매하여 전복먹이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3종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으로 386어가에 250톤, 다시마꼬리 수매 289어가 76톤을 전복먹이로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미역줄기는 17농가에 636톤을 수거하여

친환경농업단지에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 사업자 선정 후 사업집행 지침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적조방제장비 조기 확보로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공방제장비 보유현황은 방제선 1척, 전해수 황토살포기 1대, 중형 황토살포기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황토는 총 2만 4,394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적조현황 조치 매뉴얼을 작성 시달하고, 적조구제 물질구입 및 적조방제 장비를 점검하는 등 적조발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서민 해상교통 운임 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서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서 간 17개 항로를 이용하는 도서민 및 체도권 주민에게 여객선 운임은 20%, 도서민 차량 운임은 20%에서 50%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완도항을 이용하는 청산·생일 도서차량에 대하여 자동화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9억 4,400만 원, 체도권주민 여객선운임 1억 2,000만 원, 도서민 차량운임 6억 7,000만 원, 차량 자동화물비 4,900만 원 등, 총 17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매월 여객선사전산매표소시스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망자 및 전출자를 수시로 조사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지 명사십리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훼손된 해변을 복원하여 명품해변휴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59억 원의 사업비로 지오투브, 양빈, 모래 포집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16년 6월부터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9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나 해수부에서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금년 1월 해양조사 사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금일읍, 금당면 주민들의 열악한 해상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흥 낙동지역과 함께 여객선 접안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완도군과 고흥군이 연계 협력하여 공동추진하게 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 중 완도군은 10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10월 동송항 물양장 조성, 충도항 접안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고 12월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용역도 발주하여 조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송항 대합실 신축사업도 2월 중 설계 발주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보호 가치가 높은 금당 소화도 주변의 연산호 군락지와 청산도 주변 해역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당면 소화도 지역은 2012년 11월 30일, 청산면 주변 해역은 2013년 11월 29일 해양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청산면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과 탐방로 안전시설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8억 4,600만 원을, 그리고 금당 소화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신축과 다목적 인양기, 부잔교시설, 어선 간이접안장 및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7억 5,900만 원, 총 16억 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청산, 금당 해양보호구역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금당 소화도 주변 해역관리기 본계획 재수립 시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건의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국가중요어업유산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적 어업유산을 보전 관리하여 후대에 전승하고 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5호로 지정 받은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어업 추진현황은 사업 대상지로는 고금면 청룡리 외 5개 마을 358헥타르에 2020년까지 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완도 전통지주식 김 양식어업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용역과

전통지주식 김 어구 제작 등 자원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5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된 여름철 고수온에 의한 수산 피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부터 계속해서 고수온에 전복 등 피해가 발생하여 1,000억 이상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계획서에는 빠져 있네요. 단장님, 이것은 해양정책과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단장님의 의견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중요한 업무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을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군수님의 자료를 봤더니 거기에도 빠져 있던데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셨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적조업무는 2016년도 이후에 새로 부각된 업무입니다. 신설업무라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적조업무에 포함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 고수온을 적조로 같이 보나요, 단장님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같이 보지는 않지만 최근에 신설된 업무라서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최근에 신설되었다고……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신설된 것이잖아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것은 같이 업무보고에…… 이런 중요한 것을 따로 넣어서 해야 맞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는……

○ 최정욱 의원

힘들어서 뻔 것인가요, 아니면 심각성을 몰라서 누락시킨 것인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뻔다고 보기보다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단일 업무로 이렇게 보지 않고 적조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단일 업무로 분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는 그랬을 때 어업에 손실이……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름철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선 고수온이나 적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먹이조절이 필요할 때는 중점 어장관리 요령에 대해서 지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해양정보관측 등으로 해서, 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그 결과를 어가에 문자로 발송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광막이라든지 은박지, 이런 공급사업도 지원하고요. 또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또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하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하여튼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범성 의원이 군정 질문 시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첫째, 4년 동안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그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간담회 개최는 아직 안 했고요. 그런데 적조가 보통 7~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5월 중에 남해수산연구소하고 전남도 이렇게 해서, 또 어업인들로 해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을 안 하셨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금년 5월 중에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맞는 것 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둘째는 피해의심 해역에 어업인들이 가을에 5에서 8cm 중간 패를 입식한 후 다음에 적조나 고수온 출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보통 치패는 저희들이 3cm 이하로 생각하고요. 중간치를 8cm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좀 단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쉽게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업인 단체하고 상의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정욱 의원

어려운 것을 해내야죠. 이것이 적조 때문에 5

에서 8cm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간패를,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렇잖아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지만 그 중간패를 넣어서…… 양식 기간이 7~8월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과연 수익률이 나올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생산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셋째, 조류소통을 위한 시설 축소, 입식량 조절, 업종 변경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 하라고 하였는데, 실적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시설 축소가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불법시설 물을 단속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두리 한 줄 비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어업인들과 간담회도 최근 5회 개최했고, 그다음에 읍면 회의도 개최했고, 또 홍보 물도 많이 게첩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범 어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입식량 조절,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수님이 현장…… 이동 군수실을 통해 계속 강조한 사항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회의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입식량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제도 말씀하신다는 우리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전복면허를 우리 완도군 말고 타군에도 이렇게 신규로 내주나요? 신규면허를 내주냐고요, 지금 타군도, 아니면 정제되어 있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지금 신규면허는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동결됐죠? (예)

지금 전복을 키우는 군이 몇 개 군인지 알고 계시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렇다면 전복은…… 수산부에서 신규면허가 정지됐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은 안 늘어 가지고 있는데, 어제도 말했듯이 전복을 하고 있는 근해 완도, 신안이나 해남, 진도, 이런 데 몇 개의 군이거든요,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불법…… 이것 어차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법정리를,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말로만 꼭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해 가지고요, 꼭 이것을 같은…… 우리 군만 아니라 4개 군이면 4개 군이 같이 해서, 도와 해경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이것 입식이나 이런 것…… 시설량 조절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한 줄 비우기는 어민들이 했다가 며칠 안 있으면 도로 넣어버려요, 그것은 절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 생각은 맞다 합니까는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아요, 된다고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거기에서 현지에서 살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신다는 우리 몇 개 군과 같이 토의를 해 가지고, 우선 전복면허가…… 이미 신규면허가 중지되었으면 이것, 그것만 잘해도 여러 가지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꼭 말로, 구어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미리 피해가 가지 않게…… 미리 1년 유예를 준다는가 해서 꼭 그렇게…… 어민들도 미리 알고 그것을 알고 대처를 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읍면 순회를 하고 다닐 때 그런 것을 설명해서 어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기회도 주고, 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먼저 해주고 나서 그런 불법단속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꼭 그것을 해주시고,

또 다시 금년에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해당 어업인 및 전문가들

과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은 금년에 해양수산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양공간에 대해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도 4월 28일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이 대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느 정도면 뭘 어느 정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이게 작년에 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한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해양공간계획법은 육상으로 따지자면 토지이용 계획법과 유사합니다. 이미 유럽 같은 나라들은 법제를 이미 제정해서 하고 있고,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의 특성, 해양의 이용, 개발 수용 등을 감안하여 용도 구역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전남 (청취불능) 올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해양관광단지 개발, 항만 어항 개발, 해양자원 이용 및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계획에 반영하여 이용 및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니 해양공간계획법을 (청취불능) 인지해서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이요. 신규사업 이니까 홍보를 잘해서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고, 질병, 임신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까지도 해당이 됩니까. 사고, 질병, 교육, 임신. 교육을 받는데도 해당이 되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교육은……

○ 우성자 의원

교육이라고 있던데. 사고, 질병, 교육.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교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아, 그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 우성자 의원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홍보를 빨리해서 가지고 미리미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7페이지,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삼도 방류하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 우성자 의원

방류 어획물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어획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 서해수산업연구소의 전문가에 의하면 어린 해삼 종자를 방류하면 90% 이상이 고기 먹이가 된다는지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 분석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종자 방류 효과 조사는 전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해보니까 이게 그…… 증식 성과가 3.2배 정도 더 있다. 이렇게 통계수치를 보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나중에 방류할 때는 하고 어획은 아직……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어획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진 한 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에 축제식 해삼양식장입니다. 저것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에도 저런 양식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도 바닷가 또는 바닷가 인근에 부지가 있다면…… 저런 양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존율을 확인해서 가지고 어획물이 얼마나 되는지 가구를 파악해서서요. 방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의 어획물이 있다는 곳을 잘 못 봤거든요. 고금에도 그때 방류했지만 수확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재래식 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주식 김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으로 문제는 어떻게 관리와 보존을 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선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시관이나 홍보관, 체험관, 이런 것 건립을 검토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지주식 김 브랜드화를 위해서 상품포장 패키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상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과제에 특별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하셨습니다. 지주식 김의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를 개발해야 되겠고요. 또 가공식 부루식 김하고 혼합하지 않도록,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지주식 김이 부족할 경우 부루식 김을 사다가 같이 뜨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주식 김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체계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용역에 꼭 포함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현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학리 지주식 김을 현재 xxx 씨 같은 분은 네이버에다가 해가지고 1만 5,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작년에는 8,000원인데 올해에는 1만 원씩 받고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내가 김을 해가지고 올해 잘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 다른 데에서 김을 사다가 완도박스에 담아서 팝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사온 데도 봤고요. 이런 경우에 과연 그 지주식 김이 얼마나 다른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말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마는 그분들이 김을 팔 때 한꺼번에 xxx 씨하고 같은 그런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셔야만 되

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못합니다. 그런 네이버 관리도 못할뿐더러 또 그런 홍보비 같은 것도 자기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서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같은 고생을 하니깐요, 같은 소득을 올리면서 더 많은 현금으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관리 좀, 정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용역과제에 참고해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용역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하여튼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견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로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또 수산군이 아니겠습니까, 수산군이고, 또 바다를 깨끗이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뭐 365기동대 운영하고 페스티로폼, 폐어구 이렇게 수거처리를 한다고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감용기를 활용해서 페스티로폼을 재활용, 그 자원화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 해양환경관리팀 4명이 지금 운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책이 잘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감용기를 추가로 더 2대를 구입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계획하신 대로 추진 좀 잘 해주시고요.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오염원에 대해서는 꼭 바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상에서도 많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에서 내려온 오염수는 생활폐수 쪽에서도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곳이라고는 지정하지 않았습니까라는 노루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전부가 생활폐수에서 나와 가지고 석화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수도, 육상 오염수도 이렇게 계획을 잘 추진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바다수도 선포식을 언제 했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2015년 5월 1일……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다 되어 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 선포식 이후로 저희들 피부로 와 닿게 달라진 성과가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성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선포식을 할 때 국가수도는 서울, 그다음에 행정수도는 세종, 청정바다수도는 완도로 선포한 이후에 우리 군 수산물 판매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올랐었고, 또 외국 바이어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서 수출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뭐 여러 가지…… 선포식 이후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본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다에다가 어민들 자체적으로…… 삶의 터전이고, 재산이고, 유산인데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쓰레기를 방류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해양쓰레기 발생률이 많이 이렇게…… 처리하고 감용기로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더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좀…… 처리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하나 제가 제시를 하자고 그러면, 거의 다 양식어업인들이 부표가 플라스틱 아니면 스티로폼입니다. 그런 문제를 친환경적인 어구로 바뀌어서, 지원해 주더라도 친환경적인 어구로 바꾸게 되면 쓰레기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쪽 부분도 검토를 해서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내호, 만덕호 담수 방류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만덕호 담수방류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먼저 본건은 지난해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들 처리가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때 방류 시 했던 비주기라든가, DO 측정이 라든가, 염도라든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 모니터링 해보신 것은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군 자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지금 남해수산연구소에서 2개월에 한 번씩 수질 변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결과나 통계, 어떻게 나온 것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통계 수치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6등급이 나옵니다, 6등급. 6등급이 나오면 아주 나쁨으로 이렇게 나오는 수치거든요. 이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담수가 민물 아닙니까.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방류를 못하게끔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방류를 하더라고요.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라남도, 또 해남, 인근 지역이 다 연관됩니다. 강진, 완도 이렇게 4개 단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염이 덜 되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류 시에 어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이 산란지가 아닙니까, 수산물의 산란지인데, 패류는, 조개 종류는 전부 다 입이 벌어지고 예정보다 거의 80% 정도 수확률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방류할 때 그 방류에서 나오는 갈대쓰레기, 그것이 전부 다 완도 쪽 군외, 고금, 하다못해 청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가져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5쪽예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와 어선간이전 압장시설이…… 어떻습니까,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부족합니까, 예산을 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아, 그렇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요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허궁희 의원

우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번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어촌계에서 많이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하여튼 준비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 2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다 마무리를 했는데, 해수부에서 주변 환경 역학조사를 좀 더 해주라.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한 것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에는 어렵고, 3차에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도록 해수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3차로 반영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기로 어저께…… 그 제인가 어제 담당과장이 해수부에 방문해서……

○ 허궁희 의원

예, 하여튼 적극 검토해서 지역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려고 합니다, 적조 대비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지금 적조 대비를 보면 황토 외에는 아무런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황토만 준비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적조로, 주로 대응은 황토도 이렇게 살포를 해왔고요. 그래서 해상은 황토를 위주로 하고 육상에 대해서는 뭐 머드스톤이라든지 별도로 적조 대비를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액화산소라든지 장비 지원 공급사업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금년에는 액화산소사업…… 그 뭘니까, 공급사업이 없는 것 같던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액화산소 공급도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아,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고수온 대비하고 같이 해서, 적조와 대비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리고 전복장에는 황토를 뿌리면 전복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래서 전복 주위에 황토를 살포할 때는 지역어업인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어느 선에서 살포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받고 살포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았느냐는 이 얘기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육상에는 거의 저희들이 황토를 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액화산소라든지, 적조가 오면 치술을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해상 부분에 대해서만 황토 살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전복가두리들이 밀집적으로 이렇게 있는 데에다가 황토를 뿌리게 되면 전복에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어에는 이렇게 좀 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복에는 피해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더 이렇게…… 전복에 피해도 적고, 또 적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찾아봐야 되지 않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런 방법…… 별도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들은 수류 방제를 해가지고 어선을 동원해서 보통 3시, 4시가 되면 적조가 이렇게 딱 피워 오르니까 그때는 어선을 임차해서 수류 방제하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제 생각에는, 저도 그전에 가두리를 해볼 때 경험…… 보니까 그 브로와 시설이 있잖아요. 브로와 시설만 잘 해놔도 피해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배들이, 큰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형발전기 몇 대만 가지면 브로와는 많이 돌릴 수가 있어요. 그 큰 배에다가 싣고 나가면 사람이 없어도 돼요. 시동만 해놓고 돌려놓으면 이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기름만 있으면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적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시든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해상 브로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해서 금년에…… 우리가 작년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앞으로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런 준비를 잘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책자에는 없습니다. 해외시장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있는, 홍콩에서 열리는 푸드 엑스포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홍콩 식품 박람회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 엑스포가 다수 업체들이 참가하는 품격 높은 엑스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거기에 저희들이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언제…… 그때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완도수산물 판로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로들을 개척해서…… 또 행정하고 또 의회도 그렇고 업체도 같이 완도수산물 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많이 세워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에 조직개편하면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수산전문분야를 두자. 우리가 과를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수산전문과는 지금 현재 해양정책과하고……

○ 박재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단으로 만들 때 그랬었는데. 지금 분야만 나뉘어서 이렇게 했을 뿐인데 “수산분야를 전문으로 우리가 두자.” 라고 의원님들끼리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분야가 다르니까 수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만들자고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한테 여쭙본 것입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단장님, 혹시 베트남 계절근로에 대해서 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베트남…… 저희들이 트어티엔후에성하고 그때 근로자 협정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MOU를 체결했죠? (예)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당시 부군수님하고 담당팀장님하고 베트남 출장을 갔다 와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어요. 하고 있다.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답변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올 3월 31일까지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불법근로자들을…… 지나면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대책은,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지금 완도읍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불법근로자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고, 또 일용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자치행정과에도 없고 정책과에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 손을 놓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해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로 우리 완도군에 1명이라도 들어온 분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 박인철 의원

담당과장님도 좋고 계장님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베트남 계절근로에 대해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양응열입니다.

이 부분은 해외연수 이후에 갔다 와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갔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시마철에 근로자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절근로라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인근 해남, 이런 데는 농업을 많이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절근로로 해가지고, 제가 해남군에도 알아보니까 계절근로로 해가지고 30명이 들어와 있더군요. 그러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부군수님까지 같이 출장을 가가지고 베트남……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MOU까지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한 번쯤은 간담회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의원들한테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전년도 질문답변에 자치행정과에다가 분명히 법무부에다가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고, 또 체결했던 해양정책과에서도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1년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실과에서 좀…… 군수님 지시사항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또 이야기합니다.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새겨들으시고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로 답변을 못하니까 서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버스는 준공영제죠? (예)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라는 말 들어 봤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1일…… 보통 2회 왕복으로 낙도섬에 가야 되는데, 1일 1회만 가는 항로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로들을 해양수산부에서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적자 노선을 지원한다고 그러고, 지금 해양수산부 공문에 떠있는데, 단장님이 깊이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어제 해수부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준공영제, 그 부분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도에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집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서다 보니까 각종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다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요,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2월 11일부터 2월 25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사업에 대해서 참여자들을 추가 모집한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완도항에서 1일 1회밖에 안 다니는 항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거의 우리가…… 종전에 있던 보조항로라고 그러는데 섬사랑……

○ 박인철 의원

예, 섬사랑으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거의 1일 1회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현직 전남도지사인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의원 시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넙도나 모서리 같은 데에서 1일 2회 왕복을 꼭 해주라고 해서요, 그때 해수부에서 유류값을 지원 받아 가지고 1일 2회 왕복을 하다가 또 슬그머니 1일 1회 왕복으로 내려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섬에 사는 분들이 1일 생활권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선사에다가, 섬사랑을 운영하는 선사에다가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지금 우리가 자동화물비라고 해가지고 도감사에 걸린 것이 있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 상황.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당초 도에서 감사처분으로 6,400 정도 회수하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밀계산을 해 가지고 현재 확정금액을, 환수대상을 2,100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튼 회수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애당초 도 감사에서는 1만 519건으로 해가지고 6,454만 7,000원…… 54만 원이 됐는데, 지금 환수대상이 되어 가지고 다시 2,139만 6,000원이 됐는데, 행정차량 공무수행 288건, 번호 오인 차량 2,938건, 확인 오류 3,739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제외한 것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을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돈 지급은 경제산업과에서 하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돈도 정책과에서 지급합니까? (예)

지금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직원은 경제산업과 교통계에 있는 송윤희 직원이 뭐했습니까? (자료를 들며)

이 사항을 발견한 것을, 적발한 것. 도에서 적발해 가지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거기에서 데이터는 관리하고요, 실사는 저희들이 전부 다시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그러면 사업자하고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조만간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내가 출장복명서도 봐보니까요, 1월 9일 해양자원팀장 담당자 해궁횃집, 2018년 11월 27일 해궁횃집, 뭇 출장을 해궁횃집에 가서 합니까, 일하는 것을, 사무실도 있고 여기 담당회사 사무실도 있고 그럴 것인데, 뭇 간담회합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것을 출장복명서라고 이

렇게 내놓고 있어요, 출장결과보고서를, 해궁횃집은 횃집이죠, 이것이 출장결과보고서예요, 이런 것이, 횃집에서 무슨 간담회를 합니까, 좌담회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 도 감사가 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결과해 가지고 이천 몇 백만 원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업체한테 가서…… 공문 안 나갔죠, 아직까지도, 업체한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게 양이 상당히…… 1만 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고요, 지금 최종금액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겠다는……

○ 박인철 의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수처분…… 도에서 회수처분이라고 나왔는데, 1차에 6,474만 6,000원이라고 회수처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횡령입니다. 그리고 형사고발, 이런 것은 했습니다. 이것은 뭇 회수만 해버리면 됩니까. 아니면 민사상 말고 형사상, 뭇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장님, 횡령이라고 봐도 되죠, 이런 것은 뭇 서류 착오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까. 이번에…… 전년도 도 감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런데 발견이 안 됐으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 해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면 횡령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요, 회수를 하고, 나머지는 형사상이라든지 법률적인 조치는 별도로……

○ 박인철 의원

뭇 취할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법률적으로? 그냥 회수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법적으로 뭐할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는 행정 조치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행정 조치만요. 그러면 다른 것도, 유사한 이런 것도 나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냥 그때 목이 실수로 잘못됐다, 그런 식으로, 형사고발할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그런 계획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현재 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뭐 어디 돈이 들어가고, 이자를 그동안 해가지고 이자만…… 법정이지만 해가지고 환수하면 됩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이것이 당초…… 최초 적발기관이 도였고, 도에서 조치사항으로 일단 회수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아, 도에서야 그러겠죠. 잘못 나갔으니까, 도 감사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환수 조치하고, 또 애당초 6,400만 원에서 일련의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나머지 감면하고 2,100만 원만 환수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도에서야 이렇게 완도군에다가 공문만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도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이게 2014년도부터 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이 누적액이요?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하는 직원 있음)

예,

(방청석에서 "그게 저희들이 자동화물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매월 금액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원인을 파악했더니 아까 번호가 없는 차량들,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에서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6,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청취불능) 약간 다툼이 있는 부분들이 뭐냐고 그러면 저희들 지침상과 해석상에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했던 것이 도서민 지원 차량이고 스티커,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데, 그 부분은 지금도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건으로 놔두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시안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조치를 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14년 이후에, 도 감사 이후에 그러면 그 차량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다가 이것을 송윤희 주무관 혼자하기 어려우니까 전체 직원이 풀로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사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정정했다는 내용을……"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것 말씀히, 깔끔히 정리하시고요,

금방 답변하신 양응열 과장님도 계시지만 출장보고서는 전체…… 해양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 모두 해당됩니다. 출장보고서,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좀 더 예의 있게 하십시오. 내가 저번에 이야기…… 돈사 문제로 해가지고 고금면 직원이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출장보고서도 봤더니만 업자…… 돈을 하는 업자 위주의 출장보고서를 적어놨어요, 이 출장보고서도 복무 아닙니까. 복무를 하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출장보고서에다가 횡집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것이 출장인지 술판인지 누가 구분합니까. 이것은 군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하고, 행정차량 공무수행도 있는데, 행정차량도 공무수행을 할 때는 출장을 내 가지고 다 거기에 비용이 첨부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뭐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288건이라고 해가지고 178만 8,500원이 제외됐는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행정차량이면 행정…… 누가 나갔을 때는 출장복명서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비가 나오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지급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은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중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교통과, 관광정책과, 농업축산과, 환경산업과,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등 6개 부서로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노후된 시장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 등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상가 1동과 막구조물,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19개소를 입점목표로 추진하여 상가 28개소, 노점 84개소, 대장간 1개소 등 113개소가 입점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여 일부 상가 및 노점이 운영 중에 있으며, 선진시장 현장 견학과 5일시장 상인대학을 운영하여 입점자 친절 마인드 향상과 의식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2월 14일까지 입점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중 현대화사업 개장식을 가질 계획이며,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하는 한편, 우리 지역 문화예술 공연팀을 활용해서 상설문화 공연과 이벤트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새롭고 활기찬 5일시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완도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5일시장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완도 읍사무소 인근 주차장 부지를 활용, 국비 등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2층 3단 규모의 10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7년과 2018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1~2차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입니다. 본사업은 완도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외지 선단을 완도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완도항을 이용하는 조업선단에 대하여 식수는 한 차량에 2만 5,000원, 얼음은 1각에 3,000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식수 4,800만 원, 얼음 1억 2,000만 원 등 1억 6,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난해 5,626척이 입항하여 1,42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업선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물론, 2월 중 부산 등을 방문 조업선단 확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공단지 분양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현황으로 1998년에 조성된 완도 죽청 농공단지에는 현재 120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2017년에 조성된 해양생물특화단지 등 분양률 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 실적을 보면 지원시설 6필지는 전제 분양이 완료되었고, 산업시설은 18필지 중에서 12필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1개 업체는 입주하여 가동 중이고 3개 업체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우·오수관 CCTV 조사 및 준설공사를 비롯하며 노후 가로등 교체, 보도블럭 오염 차단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미분양 잔여 필지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성 20년이 지난 완도 죽청 농공단지의 경우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와 사유 시설물의 파손, 노상 적치물의 방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

인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 구성 및 운영입니다. 한전의 완도-제주간 변환소와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7일 우리 군과 의회, 주민, 한전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부사장을 비롯하여 한전 중부건설 본부와 국회 산자위 의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중단과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범대위 구성을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지난 1월 31일에 구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범군민대책위를 구성, 운영을 해서 변환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산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군민의 뜻을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완도해상풍력 등 3개 시행사로, 발전용량은 1,15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완도를 망석리 앞 해상의 완도해상풍력과 금일읍 남쪽 해상의 완도금일해상풍력 1단계 200메가와트 발전사업은 산자부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사별 사업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민수용성 확보와 지역 사회 기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재생에너지 육성 및 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는 시설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36건이 접수되어 28건은 허가하고 84건은 불허가 처분한 바 있으며 24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 63가구에 대해 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도서낙도 자기발전시설 유지 관리비 지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에너지 사용과 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과 경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개발행위 등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고효율 LED 전등 설치를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16개 마을 7,000여 세대와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국비 등 329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인 금년에는 사업비 118억 4,400만 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고, 2월 8일 위탁수행기관인 한국 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완도읍 주민과 요식 및 숙박협회,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관내 LPG용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비 절감을 위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하고 기존 LPG용기 판매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사업배제마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가스사용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016년 금당 울포마을, 지난해 청산 모서마을에 이어 금년에는 소안 횡간마을 등 4개 마을에 대하여 국비 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안전한 가스사용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가스 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 등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사업에 13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청년 및 중장년층, 고령자, 장애인 등 20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사업 등 9개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79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4050세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를 위한 기업과 취업자에게 희망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청년 마을로, 내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등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주민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5인 이상 마을공동체에서 지역 소득사업, 전통문화 전승, 그리고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공모 신청하면 단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도리 부녀회의 더불어 함께하는 전통메주 만들기사업 외 4개 사업을 선정해서 7,07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는 금년에 신청한 4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3개 사업 6,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제1회 완도군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충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및 환승시스템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항 구간에 적용하여 시행 중에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우리 군 농어촌버스 전 구간에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단일요금제 구간 확대 적용과 더불어 이용요금을 일반 1,300원을 1,000원으로 중고생은 1,000원에서 800원, 초등생은 6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17년 11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라 완도읍에서 약산 당목항 구간 1개 노선만 단일요금제를 적용했고, 현재 1일 25회 왕복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구간 단일요금제 시행은 2월 중 운수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되, 손실보상금 산정은 3월 중에 용역을 실시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일요금제 시행 후, 효율적인 노선 체계와 교통 편의를 위해 단일요금제와 연계된 환승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100원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3월, 5개 읍면 8개 마을로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7개 읍면 13개 마을 1,04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1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군에서 지원하며 마을 인구수에 따라 60대에서 최고 135매를 매월 배부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는 3만 4,768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행마을 추가 신청에 따른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소외 지역이 없도록 확대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교통표지판과 반사경, 버스승강장, 노후 경보등 교체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533개소에 8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와 조명등 설치, 교통신호등과 반사경, 그리고 경관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영주차장 조성, 그리고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신축, 도로 노면 표시 도색 등 교통 소통 및 군민의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중요한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금융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 개인 신용 평가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등급제와 점수제로…… 자영업자들은 이 내용을 빨리 접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올해부터는, 국민은행, 농협, 신한, 하나은행 같은 데

에서 1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전면은행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완도의 자영업자들이 담보물건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서비스…… 행정서비스가 뭐예요.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게 해주고,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등급제나 점수제를 하면 개인 신용 등급이 상당히 상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도…… 점수와 등급제를 이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 홍보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잘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또 내년이나 올해 사업할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이런 것을 잘해야 자영업자들에게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완도항 유치로 완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아시죠? (예)

자료에 의하면 약 1,450국에 가까운 파급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개수는 완도군 해조류 생산액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참고 생산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큰 것을……

금년도에도 (청취불능) 얼음을 공급하고 조합선단 입항, 확대를 위하여 협의한다는 계획이 있죠? 지금 한다고 되어 있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연근해조업선단 유치와 관련하여 보안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에서 통발어선이라든가, 이런 연근해선단이 우리 군에 요구한 것은 “항 접안시설이 좀 협소하다.”, 그리고 “냉동, 냉장 저장시설이 부족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보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본의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첫째로 고등어선단의 경우 저장시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완도군이나 수협이 주체가 되어서 대형 급냉저장시설이 필요하고요. 둘째는 완도항의 위치가 동지나해 등 조업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접안장, 선별장 및 유류 공급시설 등 부대시설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뭐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부족한 항 접안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 항만기본계획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요. 이런 접안시설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 또 해양생물특화단지에 있는 4개 업체가 고등어 가공 냉동·냉장 저장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대형 저장시설을 내년도에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군특 예산을 확보하여 군이 직접 시설하고 운영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관계기관에 위탁 관리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물양장 대형 냉동시설은 우리가 직접 갖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만 지어 놓으면 이것은 위탁도 가능하고 누가 맡겨서 해도 되고, 뭐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경영해서 돈을,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지어만 놓으면 운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직접 해도 되고, 아니면 위탁을 줘도 되고. 그러니까 군특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가져올 필요도 있잖아요. 이것 좀 신경을 쓰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해양생물특화단지에 입주한 4개 업체가 냉동·냉장 저장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보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그 물양장 및 선별장 부대시설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보고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지면 강둑과 신지 물하태를 연결하는 물양장 및 돌제부두를 반영하고자 하니, 그곳에 전용부두를 만들고 부대시설을 갖추었을 시 경쟁력이 있는 항만으로 될 것으로 본의원도 판단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분양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를 묻겠습니다. 분양률이 현재 한 67% 가까이 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67%입니다.

○ 최정욱 의원

분양된 업종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등어 가공 냉동·냉장하고 수산물 가공, 그리고 도매,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특화단지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니까, 조성한 내용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지역의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지역개발 잠재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미래전략 사업 유치를 통해서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생물자원 첨단기술을 분석,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해양…… 창출하는 사업이 해양생물산업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산업을 특화하기 위해 단지를 우리가 조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분양업종 중 해양생물특화단지 조성 배경과 일치된 업종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고등어 부분하고 미역, 또 수산가공 이런 업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산물 가공도 있죠, 거기예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하나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수산물을 가공하면…… 사실 해수라인이 시설된 것은 없죠, 거기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당초 해양생물특화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는 수산 가공 이 부분은 계획에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라인도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부분이었던거거든요. 그런데 수산 가공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산 가공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수라인이라든지 필요한……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 최정욱 의원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저런 단지를 조성할 때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완도가 4면이 바다고 수산물 가공이 주업종이에요, 내가

거기에서도 해봤지만, 우리가 어떤 수산물, 해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하더라도 하다보면 우연히 수산물에 필요한, 해수라인이 필요한 물을 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때가 와요, 이런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 그랬을 때 농공단지나 특화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런 것이 잘 갖추어졌을 때 활성화가 잘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지. 해수라인을 써야 되는데도 없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해수라인이 필요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어떻게 국한되어 있다면, 그 업체가 예를 들어 잘못돼서 그 업을 안 한다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겠어요. 아니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최근에…… 엇그저께 도에다가 해수인라인 시설을 해달라고 했고 20억을 건의했습니다. 군특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해수 라인을 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이전에 지사님하고 농공단지 입주자 대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참여했던 분한테 건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도에서 공문 지시가 와 가지고 저희가 인수라인 사업들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특화단지뿐만 아니고요, 기존에 업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업체들도 해수라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산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도포기를 많이 해요, 그 라인이 없다 보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무튼 그것이 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노력할 것이 아니고, 저것은 적어도 우리 최고의 기반조성이거든요. 저것은 농공단지

에 왜 필요한가, 그랬을 때 공장 업체들…… 한쪽에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으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용가치가 되게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맞죠. 제일 먼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다는 얘데요. 그러면 전에는 안 되었던더라도 이번에 새로 해양특화단지를 조성했으면 그런 것을 해야 맞죠. 그러니까 꼭 이것은 노력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꼭 기반, 이것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습니다. 변환소 문제에 대해서요. 변환소 범대책위가 구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경비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것이나,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게 하다 보면 적어도 투명하게…… 토의하고 의논하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조사할 것도 있다면 해야 되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렇게 하다보면 경비가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범대책위를 꾸리려고 하면 그런 준비도 미리 행정에서 준비해야죠. 하고 나서 이런 것이 되니, 안 되니 할 것이 아니고, 그것 준비 좀 미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버스 단일요금으로 해서요, 동부권 주민들이 완도상권을 많이 이용하셨죠? (예)

그런데 1월 1일부터 강진에서 1,000원으로 인하해 가지고 전부 강진장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2월이나 3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하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업체들하고…… 57개의 운수업체들이 있는데 운수업체들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2월 중에…… 2월 말경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하루 속히 인하해 가지고 다시 완도상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완도군 주차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15조에 보면 모든 건축 허가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16조에 보면 부설주차장은 인근 설치가 가능

하며, 17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시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2월에 보니까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조항을 조례에 개정하여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부분은 저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좋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게재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조례로 운영하다 보니 일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이 부분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면제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의무 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작년도 2월에 개정한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군에서는 항상 지금도 계속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렇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요,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시설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군 교통사항을 감안해서 건축시설에 따른 건물 내용에 주차장이 반드시…… 제가 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 주차장도 더욱 필요하고요, 또 주차장 조례에서 삭제된 17조에서도 좀 더 세분화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설치비용에 따른 납부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도심 중앙 부분에, 교통 혼잡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외곽지역에 설치하다 보면 이용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국장님의 최정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오전 답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양생물단지를 조성할 때 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 등으로, 그래서 7대 의회에서든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수 문제에…… 그래서 해양생물단지의 업종 코드를 보면 해수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분양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앞 쪽에 보면 고등어 선별장도 있고 그러던데, 갑자기 해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우리가 애당초 분양기를 선정할 때 해수라인을 뽑으려고 하는 공사 금액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죠, 해양생물단지 공사 금액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30……

○ 박인철 의원

그다음에 거기 해수를 뽑으려고, 유입을 하려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러면 분양단가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분양단가가 올라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또 애당초 이 해양생물단지를 분양할 때 코드 변경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분양이 육십몇 %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처음에 땅값, 분양가를 산정할 때요, 그 당시 부군수실에서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코드 변경은 없다고 했고 또 120% 이렇게 분양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작년부터 분양을 했는데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기간수로 봐서, 그런데 저기애다가 해수 유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조성계획상 보면 박 의원님의 말씀처럼 수산 가공공장은 없습니다, 빠졌는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분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정욱 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고……

○ 박인철 의원

그 공장이 고등어 선별공장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산 가공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떤 가공공장이 들어왔습니까? 거기를 보면 전복 기자재를 파는 업체가 하나 들어와 있고 멸치 가공업체가 하나는 들어와 있고, 하나는 건어물을 하는 데가 들어와 있고, 한 군데는 고등어 선별장이 들어와 있던데,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공사한 것은 못 봤는데,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방청석에서 " xxx 씨라고 미역가공을 하시는 분이 추진을 하고요."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왜 그러면 코드도 없는 것이 분양이 됐는가, 거기부터 설명을 하십시오. 뭐 고시를 따로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 그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해수가 애당초 없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해수 유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방청석에서 " 해수 유입까지 본인이…… 해수를 대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규모로 쓰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해수관을 이번에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업종이…… 해수가 많이 필요한 업종도 그 업체가 아니었는데 일정 부분 자기 업체 내부에서 소규모로 쓰는, 해수가 필요한 양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우리 애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죽청 농공단지, 가용리 농공단지도 해수 유입은 없어요. 개인들이 다 알아서 사용하고 있지. 그런데 애당초 해양생물단지는 해수 유입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개발되었고, 분양되었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오전에 최정욱 의원과의 질문답변 시에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이것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도비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 군비까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애당초 목적대로 가야 되지. 뭐 한두 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군비를…… 이것 뭐 한두 푼 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목적대로, 코드대로 분양이 되어야지. 애당초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그것을 다 알고 분양을 받은 것 아닙니까, 분양할 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러니까 분양할 때 그런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처음에…… 안 맞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 서로 땅을 분양받으려고 그랬는데 코드가 안

맞아서 분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땅을 분양하면서 착오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 공동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에 우리 군비가 절대 투입되어는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애당초 땅을 조성한 목적대로, 그 목적대로 가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죠? (예) 국장님, 오늘 아침 뉴스 봤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뉴스는 못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교통과의 주업무가 경제하고 교통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의 주요 경제활동 인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무슨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우리 군은 경제 주체가 농어업인, 그리고 자영업인,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주요 경제가 어업, 농업, 관광업, 소상공업이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역 경제의 이득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업무보고에, 경제교통과에서는 21페

이지 업무보고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이라는 글자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나면 제가 2018년도 질문답변 시에도 군수님이 이동군수실이나 여타 우리 군행정에서 어업하고 농업, 뭐 관광 쪽에는 좀 신경을 쓰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의회 업무보고입니다마는 군수 업무보고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의회는 뺐습니까, 아니면 군수 업무보고에도 빠져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일단 군의회 업무보고 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빠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그러면 본의원이 질문답변 시에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다음부터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좀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빠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했습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경제적인 혜택이나 무엇을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온 것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매년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그 출연금을 통해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할 것은 금융권 대출 이자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완도사랑상품권을 앞으로 발행해서 우리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시내 출퇴근 시나 밤에 다녀보면 알 것입니다. 중앙시장 그 뒷골목을 한번 봤죠, 텅

텅 비어있는 것? (예)

그래서 최소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책이 기본적으로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제시한 것 알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영양군의 환경개선특례보증제도 상품권 운영, 경기도 생애단계별 대책,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진주시, 양산시 공무원 월 2회 이상 관내식당 이용, 보령시, 양산시 특례보증 이자보증 지원사업, 제주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역상품권으로 사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2개 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 박인철 의원

복지포인트에서 상품권 2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있고, 그전부터 해왔고, 제가 질문한 이후에 어떠한 것을,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완도사랑상품권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금융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카드수수료 개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 자영업자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등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정

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대상자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하고,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50개 사업체에서 한 4억여 정도 고용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쭉 하고 있습니까? (예)

국장님,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으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그런 세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제가 한번 그것을 봐보니까 기존에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0세 이상만 근로장려금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30세 미만도……

○ 박인철 의원

그것은 받게 됐죠, 그 법은 폐지되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소득도 소득분이 여러 가지가…… 1,3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홀벌이도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맞벌이도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재산도 1억 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상향되고, 지급 인상도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되고, 홀벌이도 200에서 260만 원, 맞벌이도 250에서 300만 원으로 다 상향됐죠? (예)

변경된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계획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던 전남신용보증기금, 이런 것은 기 우리가 출연해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 말고 뭐 하실 것 있습니까, 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케팅, 노무, 세무 등 이런 부분 컨설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말한 이자 추가 지원, 또 상품권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식당하시는 분들,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 슈퍼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농민이나 어민들이 받는 혜택을 우리 자영업자도 같이 받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작년 연말에도 가까운 인근 해남은 자영업, 소상공인으로 해가지고 이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3%를 해주죠? (예)

저도 이번에 조례를 해가지고 넘겼습시다마는 본청에다가…… 예산이 들어가서 심의를 해야 되니까 넘겨놨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로페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결제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에서 3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안을 내놓고 있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도입을 하고, 정부에서도 조기 도입을 위해 여러 가지로 힘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일단 시행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고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농어업인들을 제외한 자영업자들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경제교통과를 관할하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요, 해상풍력 발전, 작년도 질문답변 시 부군수에게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고, 그때 주문사항을 이야기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때 당시에 부군수에게 질문했던 풍력발전 조성, 뭐 수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개 시행사가 조성예정발전단지 면적이 1만 6,900헥타르……

○ 박인철 의원

1만 8,000헥타르 정도 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만 6,900헥타르 정도……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그 풍력단지가 들어서서 수면에 대한 어업적 가치 평가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19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용역비는 없고, 그래서 다른 어떤 연구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담당과에서도 아무 말도 없고, 뭐 이번 추경에는 이런 정도의 예산을 잡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추경에는 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알아보니 각 시행사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 당시 부군수한테 그 시행사에서 하는 것은 믿지 말고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

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들어섬으로써 어업에 미치는 영향, 조류하고 수온이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평가해 보자고 했는데, 어업적 가치를 평가해 보자고 했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는 이 말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름니다마는 서부발전하고 코오롱에서 올해 9월에 해상풍력수산업 공존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하는데, 그때 어업적 가치를 한번 자기들이 평가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 가지고……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그때도 부군수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남동발전이나 서부발전이나 시행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방법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최소한 완도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징인이 아닙니까, 특징회사. 그렇게 할 때는 어업적 가치를 한번 평가해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예)

해상풍력을 하고자 왔으면 공유수면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관리청은 완도군수입니다. 그때 제가 질문답변을 할 때 신안하고 몇 군, 부산 기장 같은 데는 군수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 군은 뭐 행정에서 그냥 원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일 쪽 해상풍력은 세무회계과 업무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무회계과에서 하다가 세무회계과장이 퇴직하시니까 경제산업과 에너지팀으로 갑자기 슬그머니 옮겨

났다는 말입니다.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또 질문 시 부군수님한테 그러면 앞으로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연계계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민들한테 다 알려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이 이야기가 술술 나오죠. 이 감당을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변환소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봐보면, 주민들한테 처음부터 알리지 않아 가지고 생긴 불신의 폭이 너무 커져 버린 것 아닙니까. 군 집행부에서 하는 모두 것을 불신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질문 시에도 이 관제만큼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부터 끝까지 주민들의 수용성을 갖추고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엇그저께 변환소범대위에서도 말은 스톱을 시켰습니다마는 벌써 풍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쪽……

○ 박인철 의원

그 해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력은, 왜냐하면 연계계통이 있으니 거의 그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완도군 전체의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동부권부터 완도읍까지 해가지고 남산면을 제외한……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일단 금일 쪽은 시행사에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서너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금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금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도읍까지. 그 중간에 있는 생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산, 고금, 신지, 이것이 다 연계된다는 이 말입니다. 해저로 오든 육지로 오든 간에 다 연계가…… 이것 변환소가 있어야 전기를 보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공론화의 장에 올리십시오, 이것도.

별써 업무보고에 보면 망석리 해상은 허가가 났고, 금일 남동, 남쪽에 1차분 허가가 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수용성도 하나도 안 따지고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쪽 관할 지역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설득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다른 것, 변환소 문제는 그렇더라도 해상풍력만큼은 너무 우리 군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부분은 앞으로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금일 해상풍력만큼은 우리 군에서 준비가 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군수님까지 해가지고 담당과도 틀리게 업무부서도 아닌 곳에 가서…… 너무 우리 군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제주도로 견학을 갔다 오고, 그 탐들하고, 마지막 결정권자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갈등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될 결정권자가 이 사업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군수님이 제주도를 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박인철 의원

아따, 왜 그래요. 참말로…… 군수 출장복명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2번인가 3번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금일에 가셔도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왜 군수가 거기에 가서…… 해상풍력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군수가 뭐하는데 거기 사업설명회를 갑니까. 그런 데에 가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고 마지막 결정권자예요, 군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감안해서 변환소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요. 해상풍력 담당 업무를 맡은 국장님이니까 세심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돌다리를 두드린다고 생각하시고 해나가십

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9쪽에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주로 보고서가 사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림법이 바뀐 사실은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작년 12월 4일자요.

그러면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알려 주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알고 무슨 심의를 한다든지 할 때 활용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것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바뀐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개정된 내용이 산지전용을 할 때 당초에는 산림으로 원상복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태양광 평균경사도를 20도에서 15도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기존에는 전액 면제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전액 부과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보니까 심의를 들어가도 이런 내용을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 부분은 작년 11월 4일에 개정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덜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허궁희 의원

그렇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한테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정보를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 금년 겨울에 처음으로 버스정류장에 겨울나기 그 바람막이 효능에 대해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민들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아주 군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보완할 점이 있죠. 왜냐하면 남쪽을 향한 정류장들은 괜찮은데, 북쪽으로 향해 있는 것들은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주문한다면 겨울은 그리 저력 지나갑시다라는 여름에는 또 폭염이 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서…… 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리느냐면 제일 어려운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관심을 군에서도 가져줘야 됩니다. 큰 예산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 종합개발계획 등 20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본계획은 관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우리 군의 개발여건 및 관광수급 분석,

관광개발 구상, 관광진흥 및 마케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완도군의 관광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관광종합개발이 되기 위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에 걸친 중간보고회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추진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우리 군의 우수한 역사적 자원인 장보고 대사와 청정바다 완도의 수산물을 결합한 축제로, 금년에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7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에 이어 지난 2월 1일, 축제 대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행사의 착수보고회를 통해 축제추진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중간보고회와 부서별 세부추진프로그램 보고회를 통해서 미비점을 보완한 후 4월까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축제 지원입니다. 읍면축제는 지역주민과 출향인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주민 화합의 장으로써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소안 향일운동 문화축제 등 4개 읍면축제가 개최되어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8개 읍면에서 축제가 개최될 계획으로 인구수에 따라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9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추진입니다. 청정바다 완도의 수산물과 완도수목원의 가을숲을 활용하여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부각시키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국화 전시, 가을숲속음악회, 특산물 판매관 등을 운영하여 4만 6,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28여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 마련과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보다 발전적인

가을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 토요일싱싱콘서트 추진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토요일싱싱콘서트는 다양한 문화공연과 먹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싱싱콘서트를 운영하였으며 방문객은 8,910명으로 1회 평균 68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 5월부터 토요일싱싱콘서트를 운영할 계획으로 대행사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관광지 개발 관리입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우리 군의 관광지는 신지 명사십리지구와 해신장보고지구 2개소로써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개 관광지구에 대해 각종 편의시설 등 공공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신지 명사십리지구는 도로 포장공사와 주차장 시설 1개소를 완료하였고, 해신 장보고지구는 해안길 황토포장과 화장실을 신축하였습니다. 금년에 신지 명사십리지구는 5억 원의 사업비로 2주차장 인근 숙박시설지구 도로 확포장과 1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해신 장보고지구는 도로 및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황토 포장, 그늘막 설치 등을 실시하여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외 수목원~천동골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나라 유일의 난대림 수목원과 청정하천 천동골을 생태 녹색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17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탐방로와 조망대, 공방 체험장, 물놀이장, 주차장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목원 입구 진입도로와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수변누각 및 탐방로시설을 추진하는 등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변누각 설치공사는 저수지 물이 빠진 상태에서 기초를 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목공예 공방과 경관조명을 시설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

업입니다. 소안 이목 해수 담수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갈대 군락지와 철새도래지, 자연습지 등 다양한 생태환경이 서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 해양생태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5억 원을 투입, 탐방로와 조망대, 주차장, 포토존 등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억 원의 사업비로 해상전망데크시설과 탐방로 주차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달목공원을 정비하고 해상포토존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노화 갈곶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으로 전복 생산 및 체험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전복역사관과 전복푸드체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해상 전복체험장, 개매기체험로, 치유의 숲 등을 21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역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지역개발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산도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산면 신흥리 해수욕장 배후 부지인 갈대습지를 슬로길과 연계하는 휴양형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9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습지 탐방데크와 생태길 경관개선, 슬로생태공원 정보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하되, 금년에는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부터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해수욕장의 낡고 노후된 편의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사계절 찾는 깨끗한 해양레저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구 보수, 갈대습지 조성 등 유수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중앙진입로 정비사업, 화장실 및 샤워장 개축사업, 안내판 및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착공된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해

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명품해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9억 원의 사업비로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깨끗하고 특색 있는 명품해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부지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캠핑장 조성, 해변숲 복원,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중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여 해수욕장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완도군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 군 해수욕장은 총 11개소가 있으며,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인 7월 초 개장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51만여 명으로 폭염 등으로 전년 대비 74%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막구조사가 철거 및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해수욕장 내 편의 시설 정비, 안전요원 채용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입니다. 블루플래그는 환경교육재단에서 친환경 해수욕장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국내 최초 블루플래그 인증을 취득하고자 2017년에 사전승인 절차인 파일럿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4월경 국제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루플래그 해수욕장을 집중 홍보하여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군은 2015년 소안도, 2016년 생일도에 이어 2018년 여서도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섬별 5년간 40억 원의 사업비로 주민소득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안도는 노랑무궁화 육묘장 조성,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둘레길 개설을 비롯하여 19실 규모의 미라펜션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통하여 연간 2,600여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일도는 6.4km의 섬길을 개

설하고 9일의 금곡 펜션과 4일의 용출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였습니다. 여서도는 지난해가 사업 시작 최초 년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소안도는 현재 추진 중인 풍경카페와 특산물 판매장을 조기에 완료해 마을소득 창출에 기여토록 하고, 신규사업으로 풍경길 및 무궁화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일도는 생일케익 상징조형물 설치와 금곡 해수욕장 정비, 소재지권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서도는 희망자에 한해 민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마을회관 및 대합실 리모델링, 돌담 테마길 등 경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을 통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섬을 주민주도형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바쁜 일상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추진입니다. 올해 11회째를 맞는 슬로걷기축제는 지난해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8만 3,000여명이 방문하였고, 2019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 대표 걷기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는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31일간 청산면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청산완보, 나비야 청산가자 등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주중보다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주말에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알찬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으며,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기본계획보고회와 축제추진상황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3월부터 축제 홍보에 나서는 등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완도섬 여행등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섬 단위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모바일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완도관광을 재미있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으로 사업비는 7억 3,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스탬프투어 및 여행정보 웹을 개발하였고, 완도섬 여행등대 관광상품을 선정하여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도섬 사진전을 개최하고, 개발된 관광상품에 대하여 홍보 이벤트와 팸투어 실시, 완도섬 여행 기자상 등을 준비하여 섬 여행상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역브랜드 향상을 위한 영상미디어 홍보입니다.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해양, 관광자원의 특성을 영상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전국 방송과 지역 방송, 종편, 케이블 등 87개 교양, 정보 프로그램을 유치해 특산물 생산 및 출하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를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8일에는 설 명절 전복 판매 촉진을 위해 우리 완도에서 KBS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을 현지에 생방송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시기별 특산물 홍보를 위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슬로걷기축제 CF 및 SNS 영상 제작 홍보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의 해양, 관광자원을 홍보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완도의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은 730개소의 일반 음식점을 비롯하여 모범음식점 32개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4개소, 남도음식명가 3개소, 대물림항토음식점 2개소를 지정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모범음식점 등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전복음식시식회 등을 통한 지역특산물 식단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전복거리를 중심으로 위생개선 컨설팅을 실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상차림 운동, 지역관광안내도를 이용한 테이블 세팅지 제작, 읍면별 특색 있는 찬기 지원을 통하여 완도만의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및 관리강화입니다. 본사업은 식품·공중위생업소 1,764개소 대한 지도 관리를 통해서 영업 질서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식품·공중 위생업소 영업신고 수리와 위생업소 지도 단속,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하고,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위생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생업소의 친절, 청결 서비스를 위하여 수시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관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생업소의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가고 싶은 섬이 지정되어서 5년간 40억씩 투자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안은 올해 마무리가 되고, 생일은 `20년도, 여서도는 `22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개소에 5년간 40억씩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여기에 유입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안도와 생일도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 섬길이 개설되고, 또 섬 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 펜션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런 숙박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갖추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관광코스..... 묶고 갈 수 있는 기반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안하고 생일은, 저희들이 관광통계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관광객이 많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소안하고 생일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 김양훈 의원

저는 사업비를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 한 군데로 모아 가지고 킬러콘텐츠를 만들어서요,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와서 뭔가 하나 추억 거리를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안의 경우는 항일운동의 성지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태극기 달기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가서 보면 태극기들이..... 낡은 태극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생일도 같은 경우에는 섬길 개설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킬러콘텐츠로 할 수 있게 개발을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군정 질문 때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접근성 확보입니다. 관광지라고 그러면 접근성이 제일 필요하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모든 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즐기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서도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진짜 가기 힘든 정도의 섬입니다. 생일면 같은 경우는 야간운항 여객선을 한 번 더 증축해서 띄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객선 운항 관계는 저희 과에서도 협조가 되겠지만 부서가 해양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아니겠습니까, 접근성으로, 잘 협의해서 야간운행이라든지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충분히 생일도를 볼 수 있고, 또 늦게라도 들어가서 1박 2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적용해 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서도 같은 경우는요, 청산도항에서 1일 한 2회 정도 갈 수 있게끔 별도의 보조항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하고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접근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서도와 청산의 관광 콘셉트를 같이 잡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또 환경산림과는 여서도의 쓰레기 문제,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생활 공급 문제, 또 해양정책과에서는 여서도 그 여객선 문제. 제가 봤을 때도 청산도에서 여서도로 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또 항만청장님도 완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용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좀…… 이용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많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김양훈 의원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는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가 없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방향 설정이 안 되어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아직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진행 중이요. 그러면 언제쯤이나 나올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마 조만간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오게 되면 바로 한번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완도 해상케이블카가 해상…… 1.4km, 전체적으로 한 3.2km가 되다 보니까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망, 이런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1,000억 가까이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안 끝났습니다만은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달려들지는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목포라든가 해남 울돌목 케이블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00억, 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완도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바다가 깊어 가지고 다리를 세우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민간투자자가 그렇게 쉽게 뛰어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좋게 결론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하나가 국립공원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되더라도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 김양훈 의원

아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투자자들

도 버겁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알아봐 가지고 완도군에 도움이 된다고, 관광지로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보고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연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문화관광축제하고 전 세계 우리나라 우수 관광지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2019년, 2020년 한국 관광 100선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를…… 사진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인이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으로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근 강진 가우도하고 해남 미항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완도군은 전혀, 한 곳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완도군에 관광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도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이 관광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장보고유적지라든지 슬로시티 청산도, 또 보길도, 완도수목원, 신지 명사십리, 아주 유명한 가고 싶은 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광자원이 상당히 풍부한데요. 아쉽게도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정이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에는 청산도와 보길도가 됐었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청산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020년, 2021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2019년도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41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인근 진도 바닷길축제라든가, 강진 청자축제, 장흥 물축제, 이런 곳이 다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도 우리 군은 참……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왔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문화관광부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청산 슬로걷기축제가 그래도 2019년 전라남도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1,000만 원 정도 상금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부분을 보면 완도가 관광자원이 타 시군 보다는 부족한 것은 아닌데. 가끔 민선6기 때부터 관광객 500만 시대로 넣는다고 목표로 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신경을 잘 쓰서 가지고 이렇게 100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국장님. 저는 노화 테마촌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건강테마촌?

○ 박재선 의원

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 노화 테마촌 부지가 면적이 26만 2,000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2018년 11

월 22일에, 그 날짜로 2025년 완도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면적 8만 5,000제곱미터만 남기고 17만 7,000제곱미터가 해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간략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됐으나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 민간투자자가 없어서 사실상 2단계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제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해제된 구간 중 군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총 13필지…… 17만 7,000제곱미터가 해제되었는데 그중에서 군유지는 10필지 15만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약 4만 5,000평 정도가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앞으로 군유지는 어떻게…… 뭐 향후에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직까지 그것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이 부분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동안 행정재산으로 인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일 반재산으로, 재산관리부서로 앞으로 이것도 변경이 되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아까 사진을 보셨듯이 국장님, 현장에 보면 그 둘레에는 전부 태양광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저도……

○ 박재선 의원

경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태양광 업체들도 군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태양광을 해본다는 얘기도 들리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은 옆이 이격 거리도 맞지 않고 그전에, 해제되기 전에 개발행위 관련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이격 거리도 안 맞고, 안 될 지역입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국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정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컨설팅 용역을 추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많은 땅을 성토해서 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지역주민들과 잘 수렴해서 꼭 그 활용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건강테마촌 부지 중 민자투자 유치계획인 워터랜드 부지도 사실 민자 유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맞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리고 전북웰빙센터…… 방안도 그렇고 민자투자 유치가 불가능한 워터랜드 부지도 그렇고, 금번 해제된 부지를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국장님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주민의견도 좀 듣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사실상 노화 테마촌은 조성사업을 실패한 사업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민자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사업이 그렇습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균유지를 잘 활용하고, 또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만회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향후 앞으로 10년을 보고, 또 20년을 보고 앞을 내다보면서 계획 수립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페이지, 완도 장보고축제 수산물 분야입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위원회 구성은 장보고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떤가요, 지금 22회째인데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장보고수산물축제위원회 구성은 장보고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완도군 지역축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어때요, 지역축제 22회째인데 어떤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장보고라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을 소재로 해서 해오다가 수산물을 플러스했는데…… 인물축제로 한다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년 축제가 크게 달라지는 것 없이 추진되는 부분도 없이 남아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주민들은 사실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사실 '22회째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25명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은 장보고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양경찰청장 또한 장보고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 완도군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참여하여 축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글쎄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보고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명인사를…… 김성

훈 장관 같은 그런 분을 축제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장보고축제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보통 문화위원장이 맡아서 했었고, 조례가 2016년도에 개정되고 나서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저명…… 장보고에 대해서 학식이 있거나 또 축제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기관·사회단체장들로 위촉해서 하는데, 대부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합니다. 위원 중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축제추진개최 위원 중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서 누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해서 이것을 건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서로 토의하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가 위원으로 끌어들이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 분을 군에서 위원장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들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요.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 역할을 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청장남한테 그런 제안을.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는 우리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그때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위원들이 협의해서 할 사항이지……

○ 최정욱 의원

아니,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이죠. 위원장은 현재 되어 있으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은 명예위원장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할 수도 있고.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 번 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요, 지역특산물 반찬 세종 상차림 운동 전개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우리들이 밖에서 느낄 때는 전혀 잘되고 있는지 어떤지…… 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겠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을 관련부서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물, 이런 것을 세종에 알려라.” 라고 이런 부분을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면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왜 김 같은 것은 안 내놓느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직접 이용하는 군민들이 주문하면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그분들도 내놓지, 우리가 좀 촉구를 하고 해야지. 계속 우리가 관심 없이 가버리면 그분들도 별……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마다 이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물을 올리도록 주문……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잘 안 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잘 안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올라오기는 올라와 있는데 이 밥상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제가 한번 제안을, 제 개인적인 제안이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완도군의 정말 큰 사업이죠,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것이. 이 치유

산업이…… 저도 공부 좀 해봤습니다마는 치료와 치유가…… 치료는 외과적인 수술에 의해서 고치는 것, 약물 투여나 해서 하는 것이 치료고, 치유는 자연 그대로의 어떤 치료 방법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치료 방법으로 해왔다면 2021년에는 해양치유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완도 군에서 선도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것이 해양치유 산업이죠? (예)

그런데 사실 그런 것에 맞춰서 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음식이 최고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것, 해양치유산업에서 전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저도…… 그렇죠, 우리 군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도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특색 있는 음식을 내놓자.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특색이 보통 평균화된 것이지. 뭐가 우리가 치유라면 그래도 건강 쪽에…… 치유가 뭐겠습니까, 몸 건강 쪽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맞는 음식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해초류가 미역과 톳 같은 것, 미역 같으면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6만 원짜리가 한 박스에 15만 원까지 뛰었어요, 한 달 만에. 그것이 왜 그랬겠어요, 방사선 유출로 인해서. 그것이 미역을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예방이 된다고 해가지고 미역이 파동이 난 것입니다. 톳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항암효과가 좋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미역 하나로 반찬을 하더라도…… 또 미역을 그냥 일반조미료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하나요, 천연 조미료를 써서 미역 하나를 무치더라도 그런 반찬. 그래서 이 미역을 먹으면 어디어디에 좋고, 이런 것, 또 농산물 쪽을 보면 황칠이나 비파나 이런 것도 반찬 종류를 만든다면 어떤…… 뭐가 효소나 또 어떤 소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반찬을 담을 때 그런 소스를 첨가해 가지고요, 이런 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어떻게 좋고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이런 음식 하나를 개발하더라도, 한 가지를 하더라도 치유에 맞는 음식을 개발해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야 외지에서 오면…… “아, 완도에 가면 이러이러한 반찬이 있고 밥상이 있더라. 이것은 건강 어디에 좋고, 이렇다더라. 이런 밥상이 있더라.” 라고 객지에서 이런 것을 찾아서 자꾸 내려오게 해야지. 해양치유를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군인가 하죠? (예)

우리가 그중에서 접근성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우리는 차별화되어야 되고, 선도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빨리…… 음식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9페이지요, 소안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요, 소안 이목 담수호에 35억을 투입하여 체험형 생태공원 및 휴양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탐방로, 조망대, 주요 내용은 탐방로 조망대 포토존 생태체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주요 업무 실적보고에는 `17년에서 `19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는 `17년에서 `21년까지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저것이 문체부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교부가 좀 늦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변경……

○ 박인철 의원

예산이 안 되어서 늘리는 것입니까? (예)
예산이 35억이 더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것은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사업내용 중에 생태체험장이 있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이목 담수호가 철새 고니 도래지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관찰할…… 그런 고니 조형물 포토존을 설치하고 또 달목공원을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도 소안도에 가면 해양생태공원…… 지나가는 곳이 소안도 길목이죠? (예)

조망대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멍 때린다고 합니까. 조망대에서 멍 때리는 것밖에 없지. 볼 것이…… 금방 철새 도래지라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갈대가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 주위 환경을 보면 여기에다가 과연 35억을 넣어 가지고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해양생태공원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담수호라고 하는데, 소안항구에서 소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저것이 탐방로하고 저기에 저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뭐 균특에다가 균비 40% 해가지고 35억을 넣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35억을 다른 데에다가…… 소안도에도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좋은 곳이 많은데 그런 데에다가 사업 선정을 했으면 35억이 350억의 값어치를 낼 것인데. 35억이 3억 5,000의 값어치도 못 내고 있는 저런

실정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뭐냐면 전복 가두리하고 지주식 김, 그 다음에 김발하고 미역시설, 죽방렴 시설입니다. 이런 것은 담수호를 해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그 안에다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 부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뭐 포토존으로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저것이 포토존이 되는가. 누구나 가서 보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변 환경이 흉물스럽습니다. 경관 조성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앞으로 35억 말고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35억으로 마무리하면서 데크시설만 하고 탐방로…… 데크시설만 하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뭐 '19년도에 생태공원 포토존하고 2020년도에는 안내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 5억…… 3억 3,000을 들여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포토존을……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할 것인가. 또 소안도에 들어가는 초입인데, 어떻게 보면 소안도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좀 안타깝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충분히 박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것이 다…… 기본계획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변화가 가능하면 보완해서 생태공원으로서의 그런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봐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균특 60%인데, 애당초 목적 사업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여기에다가, 담수호에다가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냥……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올린 것……

○ 박인철 의원

올린 것입니까.

그래서 물론 이런 예산들을 가져오는 것도 고생했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외의 것을 한번 할게요.

관광정책과에 4개의 팀이 있죠? (예)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이번에 `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꼭지가 20가지인데 관광시설팀 꼭지가 10가지입니다. 너무 업무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광시설만 해도 벽찰 것인데, 해수욕장까지 전부 다 이 팀에 다 몰아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업무가 한 팀에 과다하다. 만약 올 7월에 조직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예전처럼 수영장, 해수욕장……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관리팀이 있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따로 해수욕장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경석 팀장하고 유주현 주무관이 하는 일이 몇 가지나…… 넘기다 보니까 6~7가지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너무나 많은 업무를, 과다한 업무를 줬다. 그리고 예산도 많은데…… 그래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것을 국장님이 꼭 새겼다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조직개편하기 전까지는 해수욕장관리팀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완도에 산재해 있는 것이 해수욕장인데, 이 업무가 너무 중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과다한 업무예요. 이 팀이, 이것을 기억해 놔다가 다음 7월에 할 때는 분리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 지원 등 총 18건입니다.

먼저 1쪽, 경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계작물의 경우 완도읍 소가용리 등 3개 지구에 16.8헥타르가 계획되어 있고 하계작물은 청산 당락지구와 보길부용지구에 6.5헥타르를 재배할 계획으로, 지원 기준은 경관작물은 제곱미터당 170원, 준경관은 100원, 그리고 경관보전활동비로 15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동·하계 경관작물 사업비로 3,7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 경관작물에 대해서는 3월까지 유기질비료 공급과 보식작업을 실시하고 5월에 파종실태 이행점검을 통해 경관보전직불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에는 하계 경관작물을 파종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귀농 정착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256세대 394명이 귀농하여 주택수리비 24세대 세대당 500만 원씩 1억 2,000만 원과 정착장려금 124세대 세대당 300만 원씩 3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주택수리비 3세대 1,500만 원, 정착장려금 30세대 9,000만 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정착장려금으로 8세대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등 귀농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장기 저리 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경우 1억 원, 단체의 경우는 2억 원 이내, 그리고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종합자금, 농어촌 구조개선, 산림사업 종합자금에 대해 최대 2%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농업인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진흥기금은 31농·어가에 22억 8,000여만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이자 차액지원은 762농·어가에 5,1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도서지역 농업인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아이돌봄센터 운영비와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는 보육시설이 없는 금당, 노화넙도 등 2개소에 2,260만 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학자금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또는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 조카를 둔 농어업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230명을 대상으로 2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노화 넙도 어린이집과 금당 예꼬 어린이집 등 2개소에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농어업인 자녀 185명에게 1억 6,000여만 원의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단위로 단지화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유기농과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농가에 대해서는 인증단계에 따라 헥타르당 70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5개 친환경농업단지에 사업비 6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854헥타르가 인증을 받았으며, 금년에는 928헥타르 인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사업 신청과

단지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친환경비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단가는 토양개량제는 전액 보조로 공급하고, 유기질 비료는 포대당 1,600원에서 2,200원까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년도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농가 신청을 받은 결과 1만 6,542톤이 신청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청물량에 대해서 농가별 사업물량을 확정하고 지역 농협과 공급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입니다. 본사업은 쌀 생산 농가 및 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의 소득보전과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밭작물 재배농가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별 지원대상과 지급단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금 등 4개 사업에 3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말까지 농가별 신청을 받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10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 말 이전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서 70만 원 이상 농기계를 구입 시 최대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50%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1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운기, 관리기 등 266대, 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적기에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과수, 채소 등 2헥타르 미만 소규모 생산농가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5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기준은 1동당 600만 원으로 50%를 보조하며,

총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172동 9억 4,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세농가들의 비용부담 해소와 소득 증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여 친환경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8개교를 대상으로 7억 5,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88개교에 보조 7억 4,200만 원 등 총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심의회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업체선정 시 관내 농가와 계약이 다수 체결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전국적인 아로니아 가격 폭락으로 원물 소비에 어려움이 있어 완도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로니아를 활용한 가공상품은 자연그대로 아로니아 주스와 젤리 제품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아로니아 영농조합법인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상반기 중에 시제품 생산 및 시음회를 개최하는 등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약산 희망 흑염소 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약산 흑염소의 통합적 운영과 홍보를 위해 생산자와 단체, 가공업체가 참여하는 공동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자담 포함 총 3억 원으로 강진완도축협과 약산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이 보조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진지 벤치마킹 등 주민역량 강화와 흑염소시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 1월 28일 흑염소 스토리텔링 조사와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가공상품 시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통하여 수정 보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3월부터 약산 흑염소와 연계

한 체험관광프로그램 추진과 개발상품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유자 유통가공시설 건립계획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 유자 유통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농산물 유통가공 활성화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자 유통가공시설은 고금면 농상리 일원 3,000평의 부지에 750평 규모의 유자 가공공장 및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국고 지원건의와 농식품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산물벼 건조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관내 산물벼 건조시설이 노후되어 벼 건조·저장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미질 향상 및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고금면에 설치된 산물벼 건조시설을 현대화하고 저온창고를 개보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식량산업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이 있어 현재 우리 군은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완도자연그대로 축산 활성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축산 경쟁력 강화로 양축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차 산업 네트워크 구축 공모사업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약산 흑염소 유통활성화 간담회 개최와 가을빛 여행축제 기간 중 완도자연그대로 한우판매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도자연그대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사업 대상자를 모집, 확정하고 유통구조 활성화 공모사업도 신청 하겠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을 3월 착공, 6월 완공토록 하고 슬로걷기축제, 장보고수산물 축제, 가을빛 여행축제 기간 중 판매장 운영과 판촉행사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

다음은 16쪽,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1억 1,000여만 원으로 930헥타르에 조사료 작물을 파종, 수확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한 후 농가까지 운송하는 단거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 관련 지침 및 세부 추진요령을 통보하였고, 현재 동계 조사료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GPS 장비를 활용하여 파종면적에 대한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동계 조사료 파종 면적을 확정하고 7월까지 보조금 집행 및 하계 조사료 재배면적 파종과 계약 신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인체감염 예방 및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축방역상황실 및 거점 소독시설 운영, 제17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가축방역 읍면 농가순회교육을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차단방역에 주력하는 한편, 3월에는 제18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춘계 가축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에는 제19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비롯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관련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를 통한 민원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실현 및 군민의 동물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임시 보호센터는 현재 신지면 송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2013년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 유기견 61두를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기동물 위탁비와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5년에 제정하였으며, 134두의 유기견을 포획 또는 구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 중 완도군 유기동물임시 보호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축산과 유기동물구조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유기견 구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우리 군의 경우 성수기

나 행락철에, 특히 피서철에 유기 동물이 집중 발생하고 있으나 현 임시 보호센터 규모가 협소하여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2페이지에 귀농, 귀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와 여성아동과, 해양정책과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 귀어정책,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맞습니다.

○ 우성자 의원

어떤 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인구정책상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년도 군정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농, 귀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군 여건상 바로 와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귀촌을 먼저 해 가지고 파악한 뒤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귀농인 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인사말도 하고 의견을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귀농, 귀어를 통합한다는 것이 귀촌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는데, 통합관리…… 빠른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아직 그런 것은 없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런 부분도 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귀촌 인구 늘리기와 관련하여 고흥군의 사례를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고흥군에서는 인구정책과 안에다가 귀촌업무 담당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고흥군의 사례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내 사랑 고흥 기금 설치 운영 및 조례를 만들어서 귀향하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현재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귀향 청년에게 정착금 1,000만 원을 비롯해서 빈집 수리비 1,000만 원, 주택화재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고요, 대상은 만 19세부터 49세의 고흥 출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면 정착금과 빈집 수리비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면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귀농한 청년에게 3억 원까지 용자를 해주고 집을 새로 사면 7,500만 원까지 빌려주고요, 다시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00만 원 한도 2년간 이자 1%를 지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고흥이나 우리나라 서로 비슷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어촌, 농촌 해가지고, 인구정책과 인구정책 일자리, 출산장려, 귀촌 지원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를 현실에 맞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

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귀농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행정에서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고흥은 효율적으로…… 고흥도 최근에 인구 소멸 위기,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고흥이…… 아마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구 고령화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 고흥이고, 전남도에서 봤을 때도 인구 감소가 제일 심한 데가 고흥입니다. 이런 시스템, 인구정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여러 가지 귀촌, 출산, 일자리, 인구정책, 이런 쪽으로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뭐 상당히 인구가 작년에 600여명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요, 고흥에서 여러 가지 인구 시책을, 귀농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 우성자 의원

벤치마킹을 하셔서 가지고 효율적인 귀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을 통합해서, 어촌이나 농업이나 어업이나 같이 통합해 가지고 귀농, 귀촌인들한테 좀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끔 작년에 해달라고 자주 부탁했는데, 이 분들이 농업은 따로, 어업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금 청학리에 있는 귀농의 집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에 풀이 많이 있죠. 그리고 문을 열면 문이 항상 안 잠가져 있습니다. 작년에 가 봐도 안 잠가져 있고 올해 가 봐도 안 잠가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진을 더 올려주십시오.

저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저렇게 너부러져 있고, 마루에 있는…… 지금 마루는 사진이 제대로 안 찍어졌습니다마는 마루에 있는 물건이…… 또 작년에 있는 물건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가봤을 때 귀농의 집은

정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2대, 에어컨 2대. 안에 다 도배하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수리하실 것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한옥으로 지어진 그런 귀농인의 집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관에 (청취불능)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부식 방지를 위해서 오일 스테인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 우성자 의원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한옥 건물이 썩는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놔두고, 도대체가…… 활용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데 건물만 세워놓으면 뭐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무튼 작업을 잘 진행해서, 청소도 깨끗이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청소가 문제가 아니고 열쇠로 안 잠가져 있니까요, 아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저도 한번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제가 작년도도 가보고 한 서너 번 가봤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마루에는 인근 자재들, 그런 것들이 2년, 3년째 그대로 있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관리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점검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럼 관리인이 있으면, 혹시 그것을 빌려주면 한번이라도…… 뭐야, 한 달에 15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빌려주면, 한번이라도 그것을 얼마나 받았는지 정산이라든지 해봤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을 아직 제가 파악 못 해봤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이 없으면 차라리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말 예산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이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압니다. 누가 살아본 사실도 없는 것 같고요. 그것도 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13쪽에 유자 유통가공시설에 대해서, 유자 유통이 항상 매년 판로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자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 유자가 고품으로 전부 가버립니다, 따가지고, 그래서 고품 유자로 둔갑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한우협회 조사료 보관 창고 건립에 대해서 작년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한우 60%를 고급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우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조사료 보급은 필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축산농가에서 강진까지 가서 공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사료 창고는 축협 일도 아니고 농협 일도 아닙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우품질 향상과 축산농가의 소득 경쟁을 위해서 꼭 이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현재 창고가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해보시고요. 이것이 축협, 농협이 아니고 축산 농가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파악해 보셔서 이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물복지 및 동물 보호정책이 보고서에 있는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 예방대책은 없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환경산림과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환경산림과요.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른 봐서는, 뒷면에 보니까 18페이지에 동물 보호정책이 있는데 야생멧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농작물에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금년에 농가에서 멧돼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면 완도군 행정에 현장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의하면, 멧돼지 등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포획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멧돼지 관련해서는……

○ 김재홍 의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 조항에 보면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담이 20%인데 자담 20%를 농가에서 하게 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우려되고요. 지금 봤을 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자담을 차라리 군비로 지원해 주면 농가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농가 부담 자부담 20%,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국장님. 9쪽예요, 농산물 소형저장창고에 관해서 작년에는 172동이 보급됐는가요? (예)
그런데 왜 올해는 절반으로…… 신청량이 줄

은 것입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신청량은 많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한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의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급하겠단.
그러면 금년에 신청량은 얼마나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한번 다른 팀장……

○ 허궁희 의원

예, 답변하세요.

○ 의장 조인호

마이크를 들고 하세요.
(방청석에서 " 85동 정도 읍면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허궁희 의원

85동이면 전체 공급이 된다고요. 신청량이 얼마냐고요, 신청. 전체, 우리 군에 신청된 양.

(방청석에서 " 지금 가수요로 봐서는 한 90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90동이요, 그러면 거의 보급되겠네요?

(방청석에서 " 그런데 하다 보면 중간에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필요하면 요구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왜 그것을 묻느냐면 작년 절반 수준이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신청량이 적어서인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창고이기 때문에 자금을 확보해서 공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들어봤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금 (청취불능) 찾아가는 PLS……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인데 이것을 PLS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합동…… 읍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꼭 홍보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15쪽과 16쪽 총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민선6기 우리 군에 농축산브랜드가 완도자연그대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브랜드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자체별로 브랜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태입니다. “우리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어떻게 보면 참 누구나 손쉽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브랜드다.”, “좋은 네이밍으로 지었다.” 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감, 유자, 감귤, 비파, 이런 쪽에 전부 상표가 붙여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완도자연그대로로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것을 제외한 우리 도시 소비자들한테 완도 농축산하면 자연그대로라는 것…… 나름대로 인정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완도자연그대로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자연그대로 네이밍을 통해서, 상표를 통해서 이런 우리…… 아까 말한 유자라든가 감귤, 비파, 이런 쪽으로 많이……

○ 박인철 의원

아니, 국장님. 유자는 금방 우성자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극히…… 그 유자청 가공식품은 관내 수공업업을 빼고는 다 고품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도 유자를 가공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완도 자연그대로 너무나 좋은 브랜드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관리를 못했다는 거, 상품 개발을 못했다는 거 이런 것입니다. 국장님, 자연그대로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매뉴얼 관리를 잘해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방지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좋은 상품들이, 친환경이라든가 인증을 받은 상품들이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체계적인 매뉴얼입니다.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완도 대표브랜드인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생산 및 가공 유통에 따른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신우철 군수님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 아

주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어디 행사에나 농업축산에…… 어제 보니까 한 우자연그대로 한우라고 해가지고 업무협약을 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지만 했더군요. 자연그대로를 외치고 있는데…… 실무팀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질문답변이나 업무보고 때 해마다…… 자연그대로 있는 그대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다 가설 수 있는 말이고, 브랜드만 해놓고 브랜드를 따라가는 제품은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입이 아프도록 이 제품을 만들어 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로니아 이야기하고 뒤에 저기…… 농축산활성화에서 보면 뭐 완도의 축제인 가을축제, 뭐 슬로걷기축제, 이것이 자연그대로냐는 이 말이에요. 현주소냐는 이 말이에요. 이 상품을 가까운 장흥이나 이런 데를 한번 봐보십시오, 한우. 그리고 한우가 자연그대로 축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지. 이 수만 과장이 농업축산과장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수송아지, 1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완도만의 한우브랜드를 갖자. 그런 것에 같이 해갔으면, 발을 맞추어 갔으면 이 자연그대로 브랜드 그대로…… 자연그대로의 값어치를 올리고, 어디 도시에서도 우리 완도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상품 판로도 되고,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인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체계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국장님, 11페이지. 이것을 전년도 본예산할 때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던 것인데, 아로니아 주스와 젤리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의 아로니아 생산농가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로니아 생산농가가……

○ 박인철 의원

32농가 8헥타르에 대략 1년에 한 100톤 정도 수확을 합니다. 그 정도 양을 가지고 가공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진짜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나와서 되는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앞으로도 이 아로니아 재배농가라든가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

○ 박인철 의원

아니, 국장님. 아로니아가 지금 전국적으로 포화상태여서 방송에서도 아로니아 나무를 다…… 옛날에 유자나무를 캐듯이…… 또 땀니까, 다른 나무를 정부에서 건의해 가지고 캐듯이 아로니아 나무를 다 캐내고 있는데 어떻게 생산량이 확대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이번에 생산 판로가 안 되는 것은…… 원물은 좀 사준다든가, 농가에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32농가 8헥타르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용역 발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아로니아 주스를 만들고 아로니아 젤리를 만들고, 언제 용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생산은 누가할 것입니까, 이 연구용역을 한다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기에서 신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 신제품 생산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용역사에서 일단 내놓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산업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아로니아 주스나 젤리 개발이 아니고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제품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로니아 주스나 이런 것 다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면 4억도 아니고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자는 이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단 이 부분은 아로니아 생산자협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 박인철 의원

생산자협회에서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도출해 내야지. 그 4,000만 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 용역을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을 줄 것입니까.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군외면에 방울 토마토하고 포도농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재홍 의원님이 계셔도…… 방울토마토 생산농가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울토마토와 포도의 경우에는 우리 군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해풍이 방울토마토에 미치는 (청취불능) 했는데요. 풍부한 해풍이 과일의 당도, 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방울 토마토라든가 포도, 이런 부분은 해풍을 통해서 맛과 당도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완도자연그대로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방울토마토나 포도 같은 것은 우리 군이 재배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군외면에서 방울토마토를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재배농가가 많지 않다구면요. 이런 것부터 완도자연그대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방울토마토의 경우 재배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소비자들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물류비가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생산 농가도 적고 소량으로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첫째가 면세유입니다. 면세유. 면세유가 경유에서 국가 정책에 의해 등유로 변경됨에 따라 유류대금이 과다로 책정되겠으며, 적정 하우스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하고요.

둘째, 포장재입니다. 포장재, 필름, 물류비 등 보조금이 (청취불능)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절차가 엄청 까다롭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직접 재배농가들한테 가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이 규제개혁인가,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물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용달차 도장을 받아와라, 기사 도장을 받아와라.”, “인감을 떼 와라.” 라고 이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농가들이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업무부서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봐보고요.

셋째, 무농약 시 판로 개척이 어려워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안 하면 완도자연그대로하고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행정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가를 맞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또 브랜드 활용과 마케팅을 위한 교육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현장을 방문한 농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군에서는 전혀…… 농가들의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현장…… 이동군수실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이 재값을 받고 농민들도 잘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메아리입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업무부서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꼭 좀 챙겨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내면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값에 팔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몇 년 뵈었습니다. 마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가봤습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도 가보고, 우리 군에서 올라온 방울토마토가 타 시군에서 재배된 것보다 비싸게 팔립니다. 비싸게 팔리는데, 여러 가지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데도 물류비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합니다.

사진 한 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지만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완도자연그대로를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데 제가 첫 질문답변을 할 때도 기획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뭐냐고 그랬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도자연그대로 가야 되는데 건강의 섬 방울토마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 박스입니다. 박스 질은 좋습니다. 그것은 둘째치고요. 국장님, 서울 방울토마토 포장지…… 국장님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고 저 시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브랜드 건강의 섬 완도를 앞으로 개선해서 저것을 제외하고, 또 완도자연그대로 상표도 보완하고, 아무튼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포장재……

○ 박인철 의원

우리가 낭장멸치를 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CI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저런 포장재 하나도 고급스러우면서 산뜻하게 개발해서 해주세요. 요즘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사는데 포장재가 많이 앞서죠. 포장재 보고도 많이 사죠, 안에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국장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로만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농축산업에,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맞게 적용기준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 포장재 저런 것. 저런 것에 신경을 써서 진짜 농민들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군 행정이 참 잘한다.”, “완도자연그대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다가 내놓을 수도 있고 좋은 값을 받고 잘 팔리더라.” 라고 이런 말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의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환경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등 총 20 건입니다.

먼저 1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입니다. 본사업은 청산, 보길, 소안과 정도리 구계등, 수목원 등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예비신청서 작성 중간보고회와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MAB 자문위원장 등 전문가 그룹을 초청, 국제학술회의와 찾아가는 주요 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예비신청서를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하고, 본신청서 작성 및 보완 작업을 거친 후 내년 6월에 본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7월경 MAB 국제조정이사회 심의 후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유산으로서 세계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자산을 발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키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로 최종 선정 발표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 12월 기초학술조사용역 중간보고회 및 지난해 5월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으며, 금년에는 전략방안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지속적 접촉을 통해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2021년 초까지 잠정목록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시 생물권보전지역과 더불어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고 문화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쪽, 기후 변화 적응대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신기후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해양수산, 재난·재해, 건강부문 등 총 8개 부문 32개 세부사업을 11개 부서 18개 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후 변화대책위원회 회의와 적응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철, 겨울철 기상전망 분석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야별 주요 성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검토에 이어 대응 방안 TF 회의 그리고 4월 최종안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겨울철 기상전망자료를 분석하여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에너지 감축 및 탄소배출 저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전기차 22대,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7,1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17대, 충전기 13기를 신규 보급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누적 보급량은 전기차 26대, 충전기 18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2월 중 전기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와 관용 전기차 구매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급속충전기 설치후보지를 선정, 한국환경공단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도서지역은 후순위로 예산에 미반영되고 있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선순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폐차보조금 지급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9대에 대해 조기폐차보조금 7,9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량은 100대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 5월경 폐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오염행위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등 6개 분야 4,89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27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10건에 1,600만 원, 고발 2건, 사용중지 1건, 유류 판매금지 1건, 시정조치 25건 등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 종합계획에 의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정기·수시 지도 점검 실시와 취약시기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폐기물 배출업소는 건설폐기물 배출업소 593개소를 비롯하여 배출사업장 1,053개소, 처리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1,053건을 발급하고 배출업소 183개소, 처리업소 17개소 등 200개소의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5개소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위해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비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1,280만 원의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104동, 취약계층 지붕 개량 21동 등 125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127동을 처리 지원하였고, 최근 4년간 411동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도서지역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설을 국고 지원을 받아 최신시설로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화읍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지난해부터 금년 12월까지 20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350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와 소각동을 기존부지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소각로 제작설치 조달계약과 동년 12월, 소각동 설치공사 실시설계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6일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 금년 12월 말 사용이 종료되는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와 소각시설 기술진단을 각각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화읍 설치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2020년 국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민간투자방식으로 2011년 4월에 건설하여 최신 시설에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자원재활용 등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29억 원으로 건설된 자원관리센터는 주식회사 아라연환경에서 2026년까지 15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일 25톤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음식물과 슬러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에 대한 사용료는 2006년 3월을 기준년도로 정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1월에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총 처리량은 1만 538톤이며, 39억 1,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1일 5톤을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설비의 잦은 고장에 따라 1일 8톤 처리가 가능한 설비로 증설할 계획으로 3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5년 고금 소각장 폐쇄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고금, 약산면 쓰레기가 연간 500톤이 추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반입량 증가에 따라 소각로 가동 일수를 연간 300일에서 330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약산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종료 시까지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며 연간 반입물량 초과 시에는 민간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공원, 관광지, 터미널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81개소와 관공서, 학교, 주유소 등 개방형 화장실 156개소 등 총 237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관리의 주체는 화장실의 설치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여성 이용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관내 15개소의 여성 공중화장실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구입하여 수시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해양치유산업 연계형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아름다운 다도해 경관과 난대 숲이 접목된 해안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약산면 해동리 당목항 일원 60헥타르에 사업비 54억 원을 투자하여 치유센터, 치유 프로그램장, 치유의 숲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유프로그램 개발용역과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전라남도산림자문위원회 의견 반영과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6월 전라남도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과 계약심사가 완료돼, 12월에 건축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1차년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2차년도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자원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의 비교우위 지역자원인 황칠과 동백의 우수성을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리적표시를 통한 배타적 지배권 확보와 휴양과 치유 등 산림복지와 연계하여 소득과 관광자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읍 가용리 산 214-1번지 일원의 군유림 27헥타르에 황칠 7만 7,000본을 심어 황칠 특화조림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특허청에 완도황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가용리 편백숲 일원 10헥타르를 완도 황칠 친환경인증사업으로 추진하고, 특허청에 완도동백 고요산혈증 치료용 조성물 특허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완도황칠 안전성 용역을 착수하고,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조례안 제정과 함께, 6월에는 완도동백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사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본사업은 취약계층과 청·장년층 등 구직자를 산림분야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림사업

전문노동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림사업 8개 분야에 총 7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9개 분야에 총 80명의 일자리를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술교육훈련을 통하여 임업 전문노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유역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상왕산 속송봉 권역의 산림유역을 정비하여 산림재해방지와 더불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외면 불목리 산 163번지 원불교수련원 일원에 사업비 11억 3,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계류보전, 물놀이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산림청을 방문,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사방협회 타당성조사와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교수, 산림기술사 등 산림전문가를 통해 현장자문과 심의를 받아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3월에 착공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난대수종 및 특용수 조림을 통하여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을 집중 조림하여 산림자원의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순환림 등 총 6개 사업 분야에 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로 62헥타르 면적에 황칠, 동백, 편백 등 약 12만 본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산림 소유자로부터 조림 신청을 받고 대상지 조사 후, 12월에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라 조림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2월 중 착공하여 3월 말까지 조림을 완료하여 활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속적인 산림자원 관리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785헥타르의 면적에 12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1차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인 완도읍 대야리, 고금면 봉명리, 약산면 해동리 등 190헥타르 면적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월 중 1차 숲 가꾸기 사업을 착공하는 등 단계별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

은 지역 자생수종을 활용한 차별화된 가로수를 식재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군외면 완동IC 일원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 고금면 장보고대교 일원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천년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가로수 조성사업 대상지 조사를 통해 사전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 중 전문가 기술자문을 득한 후, 도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4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오래전부터 조화롭게 형성된 섬자리 숲길과 임도시설을 중심으로 완도의 독특한 해양·산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트레킹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이며, 18억여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전 읍면 트레킹코스 최적지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2020년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도 고유의 섬자리 트레킹코스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초개산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초개산과 상왕산 구간 단절된 등산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교량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량 철골구조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본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공정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완공 후 서망산, 상왕산, 완도수목원을 경유하는 주등산 코스로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분노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등 총 11건입니다.

먼저 분노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입니다. 완도군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분뇨와 농공단지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환경 보전과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된 분노처리장 악취포집 설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비 포함 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악취포집설비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노처리장 협잡물처리를 구매 설치하여 분노처리장 악취차단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해수 유입으로 폐수처리시설 설비가 부식되어 고장이 잦고 기계 수명이 단축되어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부과액 48억 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46억 4,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19%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 독려 및 독촉을 7회 실시하였고, 1억 6,000여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상하수도 재정 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도 시설 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본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기존

상수원 제방을 3미터 승상하여 저수량 15만 6,000톤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노후관로 12.9Km를 교체하고 해저관로 552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억 원입니다. 제방승상 등 현재 공정률은 86%입니다. 금년에는 사업 마지막 단계로 연락교 시공 등을 추진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산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상습 가뭄 등 식수난이 심각한 도서낙도지역에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해저관로 및 담수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식수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일 충도리 외 19개 도서에 총 사업비는 222억 8,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작년 5월 가뭄 상습 도서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식수원 개발 사업비를 환경부에 건의 확보하였으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길 부항천 지하수 저류조 사업입니다. 제한급수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노화·보길권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부항천에 흐르는 하천수를 지하저류조에 저장하여 생활용수 3,000톤을 확보,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수 저류조 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건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2월 강원도 속초시로 해당 주민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사업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월 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저류조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는 점으로 사전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등 식수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과 11개 읍면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 41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1일 평균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계펌프장 및 유량조정조 보강공사, 시설 및 악취 기술진단, 정밀점검을 완료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 18억 원 환경부 건의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장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16개소 처리장의 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노화처리장 급속여과장치, 신지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완도읍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에 따른 유지 관리비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CCTV와 연막조사 등을 실시하여 불명수 유입 저감대책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마을단위처리장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본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급증 또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완도군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3년간 완도읍 가용리 1, 2지구에 우수관로 신설 및 교체 10.58km, 도로변 빗물받이 490개소를 정비하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급화상사 일대 해수역류 침수지역 예방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년 11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작년 12월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시가지 내 주거 밀집 지역으로 차량통행 및 주거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도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읍 군내리 일원의 하수관로에 대하여 정밀조사 결과,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로 굴착 교체 700M, 비굴착 보수 2,600M를 정비하고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3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어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협의, 전남도 설계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작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이 시가지 내 주거 밀집지역으로 차량통행 및 주거생활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가시설공법 적용,

공사구간별 실시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평면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산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면 소재지 생활하수 및 오수를 차집 처리하여 인근 해역수질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청산면 도청, 도락, 읍리, 당리 4개 마을에 33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13.5km를 정비하며, 총 사업비는 98억 1,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관로 9.1km, 맨홀 203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은 8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2월경 읍리~당리 구간 아스콘 포장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배수설비 시공을 마무리한 후, 하수처리장 시운전을 거쳐 금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내 시설용량 1일 500톤 미만의 공공하수도를 시설하고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인근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일 사동리와 약산 당목 2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일 사동은 2017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처리장과 관로시설을 완료하고 처리장 시운전을 실시 하는 등 금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약산 당목은 2018년 4월 공사에 착공하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관로시설을 완료 하는 등 2020년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규모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로는 금당 가학, 생일 서성, 고금 가교, 교성, 보길 정동, 정자지구입니다. 지금까지 금당 가학지구는 금년 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생일 서성 지구는 1차 공법선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2018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보길 정동지구는 2018년 11월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 금당 가학지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생일 서성지구 에 대한 공법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금 가교지구는 처리장 부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보길 정동지구는 금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들이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

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적인 분노 처리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018년도 군정 질문 시 여객선 및 읍면지역 분노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했었고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전혀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도 없고, 작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에는 위생적인 분노 처리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보고서가 없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작년도에는 환경산림과 업무 소관이었고요. 우리 맑은사업소로 업무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분노처리장 운영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 읍면들이 바다하고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바다가 오염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해양생태계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분노가 해상으로 유입된다면 심각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뭐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선박해상 운행에서 발생하는 분노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다양해서 여객선 분노 무단방류는 해상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경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객선 선박관리는 목포항만청 소관이어서 사실 업무가 좀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환경산림과에 지도단속업무가 있고요. 저희들은 분노처

리장 운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관련 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단속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해당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읍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주택의 분뇨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선박이 안 다니는 도서가 고마도 외 10개 도서로 파악했고요, 그런 지역은 자체 거름용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선박을, 도선을 임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요, 관광지에도 사실은 정화조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우리 지역 관광지를 순회하십시오,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 꼭 관광지부터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관광객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다른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관광지나 이런 데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각 마을에 소규모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1년에 1개소씩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220개 마을인데 41개소밖에 안 뒀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사업비를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조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 허궁희 의원

한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관광지에서만끔은 그런 불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9페이지에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대하여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1월에 착공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방법과 만조 시 무슨 공법으로 바닷물을 처리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이 사업은 강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고 만수기가 겹칠 때 주택지가 침수됐을 경우에는 침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이 사업의 본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수가 역류했을 때 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에 건의할 때, 사업재원 협의를 할 때 본사업의 취지하고 다르지만 해수 역류로 인해서 침수된 것도 침수 예방사업의 일환이다. 그래서 박람회 주제관부터 해서 제1부두까지 배수로가 총 8개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지금 금화상사 일대 그 쪽이 항상 대조기 때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가 원인이 물양장 쪽 바깥쪽에 있는 배수관문이 너무 일자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경사를 뒤야 되는데 일자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게 되면 출렁출렁해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선박이 접안할 때 부딪쳐서 변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원인은 배수관문이 기능을 못해서 역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수관문을 싹 교체할 것입니다, 경사를 두게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6번 도구 박스가 큰 것이 2.2M, 1.5M 큰 박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주로 유입하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요, 해수…… 배수관문은 배수관문이지만 안쪽에다가 가동 버너를 설치해 가지고요. 센서로 인해서 만약 배수관문이 고장이라든가 뭐가 걸렸을 때 2단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만조시에 물이 들어오는데…… 물론 배수관문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문제점도 있고, 배수관문이…… 밖에서도 물이 많이 유입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렇습니다, 그쪽이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 박인철 의원

예, 그것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저수지 뭐 누수를 방지하듯이 그라운당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냐하면 강물에서 들어오는 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만조가 아니더라도 물이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완도읍도 그렇고 노화 매립지, 소안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해수가 상당히 많이 역류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에서 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지금 조사를 해보면 최근 25년까지 해수면이 이상기후로 인해서 7cm가 올라갔습니다, 수위가. 매년 3mm가 올라갑니다, 앞으로……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금방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이런 것은 우리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기존 방파제들도 다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하실 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가지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를 다시 받아왔는데 다음에 다시 또 국비를 줄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런 목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이 준공기간이 2021년 12월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걱정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2021년에 완도에서 국제조류박람회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10페이지, 위치도를 보니까 개포리하고 가용리 전 구간인데, 그 해조류박람회 시기에 이 도로가 이렇게 굴착되어 있으면 전부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박람회 시기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도면상으로는 전체 매립지가 표시됐는데 주사업 위치는 무등아파트 일대 그쪽 블록입니다, 그쪽 블록이고, 그 외에 지역은 사업하고 크게 지장이 없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박인철 의원

시장통에서부터 하죠, 5일시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사업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니요, 시장…… 구수협, 구수협 쪽.

○ 박인철 의원

구수협에서…… 아니, 전임소장은 5일시장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간다고 이전 질문답변 시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 시기를 잘 조정해서 2021년 해조류박람회가 열리면 겹치지 않게끔 사업 조정을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입니다. 완도읍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작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4월에 착공해서 8개월이 됐는데, 소장님은 20%라고 했는데 제 판단으로는 12%밖에 안 됩니다, 12% 정도밖에. 그래서 공정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또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발주하면 바로 이렇

게 준비가 돼서 투자를……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준비 기간이 한두 달은 걸리는 것 같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나면 주도 앞에 굴착을 해서 현재 임시포장이 되어 있는데, 잠깐 공사를 하다가 만조시에 걸려 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질문답변 시에 이야기를 하니까 부랴부랴 임시포장을 했는데,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공정 지연에 따른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수립했는지도 물어봤는데, 그때도 포장도 안 하고 있다가 물어보니까 담당계에서, 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임시포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시내를 다녀보면 그때 거기 중앙시장 앞에, 주도 앞에 잠깐 공사를 하더니만…… 다른 데에서는 공사하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남중학교 밑에 비굴착사업으로 해가지고 장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올해 말까지입니다, 10월까지입니다.

○ 박인철 의원

10월까지 준공이죠? (예)

이렇게 하면 공정대로 갑니까, 안 그러면 공기 연장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빨리 추진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공기 연장은, 만약에 연장되면 시공사 귀책 사유로 가죠.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아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절대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저번에…… 아까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수협 앞에 신호등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다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3월이 지나고 성수기 때가 되면 거기 도로가 엉망이 될 것인데, 공사까지…… 이 공사도 4월 정도 되면 청산 슬로시티부터 해가지고 장보고축제까지 해가지고 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이 그대로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길 부항천이요, 문제점이라고 해놨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은 저류조를 만들면 그 부항천에 물이 안 흐른다고 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어떠한 그런 것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관정을…… 땅을 파가지고 강제로 펌핑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주변에 지하수가 마른다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항천에 흐르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 하나는 저희는 강제 펌핑은 안 하고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저희들이 유역 조사를 기본설계를 하면서 했는데, 물이 흘러드는 데가 세 블록으로 나뉘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지역하고 물이…… 그 밑에 지역은 별도 유역에서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금……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보길 부항리 사람들이 천에…… 천인데 이렇게 저류조를 만들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지하저류조를 만드는데 그 위에 동네가 또 있죠, 부용리라는 동네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부용리, 부항리가 마을 하수도를 해주라. 왜냐하면 이 마을 하수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저류조가 이렇게 되면 각 가정에서 쓰

는 오폐수가…… 물론 정화조를 통과하겠지만 여기로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그 대처는 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경제성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서 두 말이 너무 이격이 멀어가지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둘이 합쳐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환경부에서는 50톤 미만…… 50톤 이상이 되려면 100가구에 20명이 살아야 되는데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지금 현시점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방향을 바꿔서 50톤 이하로 지원했을 때 1순위로 하겠다고 그렇게……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 보길 부항천 저류조가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뭄 때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 부용리하고 부항리 주민들의 삶에 불편함이 가지 않도록, 마을도 공공하수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위에 천을 흘려서…… 흘려내려 가는데 그것 지하저류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둔다고 하니까…… 물론 다 정화되어서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폐수가 흘러간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폐수가 하천으로,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연구해서 마을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소장님, 이번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도와 물환경보전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 있죠? (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신문보도에 나온 대로 3건이 처분됐는데요, 하나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2018년 6월에 했는데, 그 내용은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농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바닷물을, 염분을 쓰는 회사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불합격돼서 지적됐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염 증명신청서라고 해가지고 건의……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염분 관계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이것은 해결이 됐고요.

○ 박인철 의원

이것 생태독성이 1.3으로 나와 가지고 1위인데, 0.3이 더 초과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의뢰해서 이것은 적합하다, 앞으로 3년 간 이 염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됐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신지 하수처리장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신지 하수처리장은 분리막이라고 해가지고 미세한 막을 통해서 이렇게 오염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막을 교체해야 되는데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막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되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완도 하수처리장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완도 하수처리장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닷물이 많이 유입돼서 미생물이 죽습니다. 죽게 되면 바로 환경부에 띄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른 어떤…… 거기에서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수하고 그러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누수가……

○ 박인철 의원

오버되어서 맨홀로 들어오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렇게 해서 어떤……

○ 박인철 의원

아니, 라인아…… 저도 농공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라인들이 다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농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아니, 이 해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완도읍에 있는 것이 전부 다 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개선했어 가지고 신지 다리 밑에 거기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수가 유입된다고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래서 불명수, 그게 제일 문제인데. 작년에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통하는 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수를 우리 관에다가 (청취불능) 또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또 해수면이 올라와서 도로에 침수됐을 때 들어가는 부분, 그런……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은 생활오폐수하고 빗물하고는 다 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데 오수…… 맨홀로 다 유입되어 버렸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이것이 그래서 되는 것입니까? (예)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번에

질문답변 시 해저관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임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구적으로 가뭄 시에 지하저류조도 좋지만 영구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해저관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 있습니까? 군외면에서부터 노화, 보길도, 앞으로 차후 기후 변화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소안도, 횡간도, 념도, 남산면 전체를 아우르는 해저관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여 맑은물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봐본 적이 있냐는 이 말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다른 도서는 저수지가 다 있어 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노화, 보길 쪽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땅끝 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탐진댐이 들어와 가지고 노화, 보길뿐만 아니라 기타 관로에 있는 군외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흑일도, 백일도로 시작해 가지고 노화 념도, 소안 횡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자고 했는데, 그리고 도에서도 광양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관심 있게 봐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청취불능) 심사관들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방금 얘기하신 데를 보니까 10개 마을에 철부선이 안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현재 그렇게……

○ 김재홍 의원

어느, 어느 마을이……

○ 수도경영팀장 박상신

(좌석에서) 수도경영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1월까지 도서낙도에 대해서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곳이 총 11개 도서로 고급하고 사후도, 금일 같은 데는 석도, 구도. 그래서 11개 도서가 여객선이 안 다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 수도경영팀장 박상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철부선이 안 들어가게 되면 아까 소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분노를 처리하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발에다가 이렇게 뿌린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군외 지역에서 고마도, 사후도, 동아도, 이런 데에는 철부선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여객…… 철부선을 이렇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사무부장 조직개편이 되어서 이제 업무를 맡았고요. 그것을 조사했는데 현재 개인부담이 한 8만 원 정도, 여객선이 안 다니는 데는 그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 관계도 있고, 철부선이 다니는 데도 도선비를 포함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을 따져 봐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섬에서 사는 것도 참 서러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지금 넓도 서리에 담수화시설이 되어 있

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물이, 지하수가 없어 가지고 물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는데, 이번 구정 전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고향에 내려오는 것을 거부하시더라고요. 왜 거부하셨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향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못 먹게 하니까…… 쓸 물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래서 해수담수화가 완도에 13개 (청취불능) 있는데요. 서넛도가 최초로 되어서 2010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만 기계도 노후가 많이 되고, 그런 데를 보수해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지하수 온수 자체가…… 3번, 4번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실패하고, 바닷가 쪽에 할 수 없이 염분이 섞인 것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10을 올리면, 100을 올리면 70으로 나오고 그래서…… 거기는 다른 취수원이,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수담수화사업으로 가야 되고요. 관로 역시도 노후가 되고 관정도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넓도 내리에서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지하수댐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넓도 내리 저수지 물을 예전에는 공장을 돌려 가지고 좀 물량이 달렸다고 하지만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같이, 서리 사람들과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 박재선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박인철 의원님께서 해저관로를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님도 그랬고 그 얘기가 오고 갔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보길 저수…… 상수도 물을 쓰고 있죠, 맡겨 가지고? (예)

그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해저관로가 통과되면요,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을 안 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것은 아닙니다.

○ 박재선 의원

아니, 해저관로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 탐진강댐의 물을 먹게 되면 그쪽에다가 돈을 줘야 되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세를……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온수 대는 탐진댐으로 갑니다.

○ 박재선 의원

지금도 현재…… 간다고요? (예)

아니, 물을 먹지도 않고 있는데 그것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앞으로 먹었을…… 지금 우리 먹고 있는……

○ 박재선 의원

아니, 앞으로 해저관로가 났을 경우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댐 그쪽 물살이기 때문에 온수 대는 줘야 됩니다. 올해는 아니구요.

○ 박재선 의원

아니, 당연히 주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주다 보니까, 완도군에서…… 우리 자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완도군에서는 해저관로가 들어와야 우리 어민들은, 우리 도서지역 사람들은…… 사실은 (청취불능) 같은 돈을 주고요, 그런데 현재 완도자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대하

는 것 아닙니까.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박인철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해저관로에 대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해저관로 관계는 국비를 어차피 따라 되기 때문이에요. 하수도 및 기본계획상에 환경부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꼭 좀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도하고 문제도…… 많이 오고 가고 했는데, 군에서만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계속 오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0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군정 주요 업무보고·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

- 지역개발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지역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5년 우리 군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확정된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관광자원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 잠재력을 높이고자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다도해일출공원 확대 조성 50억 원, 다목적 주차장 조성 60억 원, 가리포 해안 노을길 조성 40억 원이며, 오는 2027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은 지난해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6억 원으로 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도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완도읍 게이트볼장으로 사용 중인 완도읍 군내리 782-13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다목적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지소유자와 협의한 결과, 예산상의 문제로 2019년과 2020년 2개년에 걸쳐 매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60억 원 중 국비예산 배정이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금년에 2억 5,000만 원만 배정되어 계획기간 내 토지 매입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올해 국토부와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군 지역활성화사업 범위 내 예산조정을 통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잔여 토지는 내년 정부예산 반영 노력을 통해서 완전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시가지 내 도심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 노후 주거지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완도읍 향동리, 중앙리, 주도리, 서성리를 대상으로 주거지원형과 일반근린형으로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향동지구를 주거지원형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 미선정된 바 있으며, 다행히 지난 12월 도시재생 소규모사업 공모에 향동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억 7,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향동지구

는 올해 6월 주거 지원형으로 중앙, 주도, 서성지구는 내년 3월 일반근린형으로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토부의 도시재생공모사업 신청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용역예산 2억 원이 필요하나 금년 본예산에 1억 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1억 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쪽, 종합운동장 옆 고물상 매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지역인 주거지역 내에 운영 중인 고물상을 매입하여 도시계획도로 및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은 군내리 1123번지 외 1필지 2,717제곱미터로 감정가는 1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015년부터 고물상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감정평가금액 및 폐업보상, 양도소득세 군 부담 문제 등으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물상 매입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해 9월 소유자의 요구사항인 잔여지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부지 175제곱미터를 포기하는 대신 자연녹지지역인 운동장 시설부지에서 동 면적만큼 제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고물상 부지매입비 13억 2,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한 도시계획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 향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완도, 금일, 노화 등 3개 읍과 군외면으로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보도블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업체 선정 및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완도읍 군내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완도읍 군내2지구는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성

내리와 남성리, 당산리 일원을 재정비하여 도시 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국비 등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 1.18km, 주차장 3개소 49면, 소공원 1개소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시작하여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공정률은 80%로 현재 추진 중인 당산, 성내 2개 마을 2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읍면 소재지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기초생활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금일읍, 군외면, 고금면 등 3개소가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일읍은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하여 해안도로 개설, 다목적센터 건립, 수변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난 2014년 사업 확정 이후 기본계획과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 7월부터 다목적센터 조성사업 외 4건의 사업을 착공하였고, 금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사업비 51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군외면은 커뮤니티센터 건립, 해변쉼터 조성, 마을수목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7월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현재 세부설계가 마무리단계로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금면은 총 사업비 59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심지 보행로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11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세부설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여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경관 개선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경관, 옥외광고물, 간판 개선 등 총 7건의 공모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 조성과 지역발전 기반을 확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사업은 용암리 비석거리를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이용한 시설 사업을 통해 주민 생활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간판

개선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공모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세부사업계획을 마련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남다운 우수경관마을 육성 사업과 좋은 경관 만들기 경관 개선사업은 빙그레공원 비탈면 경관 개선과 벽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 밖에 전라남도 주관 옥외광고물 문화 개선사업과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도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발굴 추진하는 등 공모사업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명품공원 관리입니다. 도심 속 생활 SOC인 다도해일출공원, 해변공원, 빙그레공원 등을 자연 친화적 공원으로 유지·관리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원 현황과 관리 실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공원 내 시설물 이용객 현황 중 완도타위는 지난해 21만 5,000여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7년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와 6개월간 제주카훼리 운항 중단 등이 주감소 요인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은 14%로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노레일과 쥘라인시설이 공원의 정적인 느낌에 역동적인 재미를 더함으로써 명품공원으로써의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도해일출공원 데크 교체와 중앙광장길 칼라 투스콘 공사 외 2개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공원 수목관리와 경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관리입니다.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의 경관 개선 활동과 불법 유동 광고물 설치 방지 등을 통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51개소이며,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6개소, 옥외광고물 인허가는 지금까지 총 4,99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 꾸며 나가는 경관 개선을 위해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건의사항이었던 현수막 게시대 7개소 신설과 행정홍보용 선전탑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위해 2억 7,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유지관리와 함께 불법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소안간 연도교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6월 노화~구도간 연도교 건설사업이 완공된 이후 실질적 연도사업 효과 거양을 위해 구도~소안간 연도교 사업추진이 시급한 실정으로 본사업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도와 소안을 잇는 연도교사업은 해상교량 1,350미터, 접속도로 718미터 등 총 연장 2,068미터로 사업비는 87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도사업의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건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그 결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조건부 승인으로 연도교사업비 35억 원과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시 지역여건상 예타 통과 결과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타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논리개발은 물론, 기재부의 예타 금액 상향 조정, 정책기조 변경, 동향 주시 등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예산 확보활동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그동안 제1~2, 3차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개년간 1,1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4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7개 읍면, 9개 도서에, 60억 원의 사업비로 21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지난 1월부터 현지 측량을 거쳐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4차 계획에 제외된 신지, 고금, 약산면은 순군비를 대체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추진할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91건 26억 2,000만 원, 기초생활 정비사업 67건 13억 6,500만 원, 주민소득기반 정비사업 40건 20억 1,000만 원,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 40건에 25억 원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민원 처리사업 합동설계단을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창고 신축 및 개보수사업은 2월에 사업대상을 확정 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지방어항은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 현재 10개항이 완료되었고 개발 진행항이 3개소, 미개발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개발 진행항은 청산 모서, 생일 서성, 덕우항 등 3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187억 2,600만 원으로 오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생일 서성항과 덕우항은 공사가 착공되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항내 어업권 면허지 이전관계로 공사가 지연된 청산 모서항은 2월 중 계약을 완료하고 3월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될 덕우항과 모서항은 전라남도과 기본계획 및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거쳐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보길권역, 약산권역 개발사업과 금일, 완도, 신지, 청산 등 마을 특화개발사업 등 총 6개소 264억 원입니다. 금일 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지난해 사업인 보길권역 개발사업과 완도 망석마을 특화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약산권역 거점개발사업과 신지 동고마을, 청산 진산마을 특화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08억 9,200만 원 규모로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020년 신규 공모사업은 금일 충동권역 거점개발사업과 금일 월송, 군외 삼두, 고금 상정, 소안 맹선 등 마을 특화개발사업 4개소 등, 총 5개소에 180억 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촌 뉴딜 300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기항

지, 어항, 항포구 및 배후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를 선정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노화 내리 솔지항과 금당 가학항이 선정되어, 향후 2년간 총 사업비 104억 2,000만 원 규모로 여객선 기항지 정비, 선착장, 방파제 보강 및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오는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7월까지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의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한 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현재 읍면별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를 통해 적합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다 많은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난해 8월 착수해 2020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완도항 기능보강 및 물류공간 확장을 위해 완도 관광호텔에서 해경부두까지 1.5km 구간 임항도로 개설과 신지 강둑 물양장 및 돌제부두시설을 항만기본 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계획 중인 완도항 개발사업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전남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용역팀이 현장 방문 시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3월 중 해수부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건의하는 등 본사업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요, 지방어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안항은요, 겨울철에 김 위판장을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증가로, 김 양식 증가로 인해서 장소가 아주 협소하고 또 어민들의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를 보면요, 해남, 진도 김 양식 어선들이 아주 편리하게 입항하고 또 동시에 김을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정온 수역이…… 물양장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안면 미라항은…… 사진을 보십시오. 미라항은 정온 수역이나 물양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보면 공유수면 매립 허가절차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또 공유수면 매립용역,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그리고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항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도소방서 신축 추진 등 총 19건입니다.

먼저 1쪽, 완도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소방 수요 증대에 따른 재난대응소방안전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재난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완도소방서 신설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 위치는 완도를 죽청리 경찰서 사거리 인근이며, 대지면적 1만 6,000제곱미터, 연면적 5,400제곱미터, 지상 3층 건물로 건물 신축비 50억 원, 토지매입비 10억 원, 진

입로 개설과 부지 조성 13억 원 등 총 7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신축부지 18필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및 부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소방서 군계획시설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기능이 상실된 구거가 부지를 통과하고 있어 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 완료 시점인 5월에 진입로 개설 및 부지 조성을 착공하고 10월에 소방서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방서 부지 평탄화 공사에 필요한 성토용토사가 약 5만루베가 필요하나 인근 가용리 산 214-2번지를 토석채취장으로 지정해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정에 민방위대 육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각종 재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정에 민방위대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자를 대상으로, 134세대 2,809명의 민방위대를 편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안전보험 확대 추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존 11개 보장내용에 강력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 등 2개 보장내용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군에서 부담하는 보험금은 총 1억 7,400만 원으로 군민 1인당 3,38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과 군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군민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6명의 익사 사망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군민안전보험 갱신 시 강력 범죄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분야를 추가하여 보장범위 확대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완도군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과 신

속한 상황 대처로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 13억 원을 투자하여 민원동 3층에 완도군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9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 1명, 관제요원 24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를 비롯해서 농어촌마을, 도민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다목적 CCTV 설치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신규설치 및 영상저장장치 증설, 화질개선 및 수리, 영상압축 소프트웨어 및 서버를 증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 공모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에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에 걸쳐 노화읍 구석리, 동천리 일원 87헥타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천구간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35km 정비에 이어서 구석구간 배수로 1km를 정비 중으로,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석구간 배수장과 배수문, 배수로를 정비하여 2020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외 신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의 수원공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영농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군외면 신학, 대문, 갈문지구에 양수장, 용수로, 송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세부설계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설계 완료 시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고금 가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외 신학지구와 동일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저수지 독 높이기와 양수장, 용수로, 송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1월 착공, 2021년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화 구목 취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취약지구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위생·기반시설 등 10개 분야에 총 17억 3,8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고시를 거쳐 2018년 12월부터 다목적화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 마을기반 시설과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을 조기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발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 발기반 정비대상 지구는 총 107개소에 2,790헥타르입니다. 지금까지 59개 지구 1,881헥타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면적대비 정비율은 67.4%입니다. 앞으로 완도 가용, 노화고막 2개 지구에 29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군외면을 사업 대상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86억 원의 사업비로 4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7억 2,300만 원의 사업비로 2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후 및 파손되어 기능이 저하된 농업용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 편의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노화 구목제는 시행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8월 착공하여 202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고금 교성제는 지난해 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목 저수지 내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이 감소됨에 따라 우기 이전에 저수지 준설을 추진하여 담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 중 1단계 광주~강진 구간과 연계하여 미추진 강진~해남 2단계 구간에 대하여 조

기 착공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총 연장 88.6km로 현재 공사 중인 1단계 사업은 올해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2단계 구간인 완도~강진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 검토노선으로 분류되어 있어 중점 추진 노선으로 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 제2차 5개년 계획 수립이 예상됨에 따라 장보고대교 개통과 해양치유산업 추진 등 달라진 여건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논리 개발을 통해서 중점추진 노선 반영은 물론, 1단계공사 준공 전 2단계 사업 착공 및 2024년 동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금일~약산간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남해안 해안관광도로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완도-고흥간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완도 고금에서 고흥 고금도를 잇는 총 연장 42.4km 중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금일~약산간 연륙교를 1단계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은 많지만, 여타 면제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했던 Two-Track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이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국도 27호선 기점을 변경하여 지방도 830호선이 국도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월부터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5월경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국도기점 변경을 위하여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부의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남-제주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0년도 국토부에서 목포~해남~보길~추자도를 경유하여 제주까지 이르는 고속철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정치권 등에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미흡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올 연말부터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남도에서는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길도만 단순 경유하고 정착하지 않는 노선안을 완도를 경유하는 변경안으로 정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타당성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용역은 2월에 착수하여 약 1년간 추진하겠으며, 추진 기간 중에 전남도와 관련 기관 등 협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커브, 급경사지 등 기하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도 77호선은 완도 석장지구 외 5개소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 13호선 신지 독계령 개선공사는 당초 21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에는 고금 상정지구를 비롯한 완도 화개지구, 군외 신학교차로 개선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며, 신지 회전교차로는 항구대책사업으로 올해 추정설계 후 국토부에 건의하여 2020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830호선 고금 도남~119센터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올해 착공하고, 약산 천동 회전교차로 개선 및 고금 세동저수지 인근 개선공사 또한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도로 선형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도로를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협소한 도로의 확·포장 5건을 비롯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한 지구의 선형개선 및 아스콘 덧씌우기 19건을 완료하였고, 각 읍면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월 중 공사발주를 진행하여 상반기 중 65% 이상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소안 비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해안가 저지대인 소안면 비서리 비자리 매립지역의 상습 침수 구역에 해수 범람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 펌프장과 우수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와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배수펌프장, 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앞으로 금년 3월에 기계시설을 설치하여 4월 말에 시험가동을 실시한 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군외 대문 용계지구 자연재해 위험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외면 대문리 일원 해안선 및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전라남도 설계심의 거쳐 4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집중호우 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단면 확장 및 호안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라남도 설계심의 완료 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고금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도로 굴곡이 너무 심하고 또 녹연이, 도로에 녹연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데는 10cm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선형사업이 상정리에서부터 대곡리까지 진행되는데, 진행되면 사업추진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의원님의 말씀처럼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고금도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 가

지고 굉장히 위험이 상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국도 13호선은 정부에서 이렇게 위험도로를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또 (청취불능) 승격되는 바람에 굉장히 현재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도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지방도 부분은 상당히 좀……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그 위험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금도 전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빨리 정비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현재 77호선도 상당히…… 전부터 위험국도 아닙니까. 그것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도와 협의를 잘해 주시고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인근 강진의 경우를 보니까 군동에서 마량까지 18.5km 전 구간에 대해서 49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선형사업을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고금면도 77호선 국도 전체…… 고금면 전 구간을 좀 선형사업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금일…… 약산, 금일 연도교가 되면 그쪽 부분도 분명히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아무튼 장보고대교 개통…… 그리고 강진도 마량까지 그렇게 선형 개량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맞춰 가지고요, 우리 지역만 선형 개량이 안 되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도로 선형사업은 대교 연륙교가 되기 전에 이미 됐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좀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큰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서요, 관광객들이나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를중)

(10시5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현장중심 고객중심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술의 수요에 부응하고 신 소득작목 발굴 육성 및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 16개 사업 46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도공무원 현장컨설팅 역량 강화,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 등 33개 과 정, 38명의 직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19개 시범사업 55개소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도직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현장실습,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농업신기술 도입과 현장문제 해결 등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정완도 해양치유농업 꽃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깨끗한 청정지역의 장점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꽃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9월 꽃차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한방꽃차 소믈리에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해양치유산업 프로그램 참

가, 꽃차 시음회 운영과 꽃차산업 기초조사를 위한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도권에 식용장미 0.4헥타르와 슬로시티 청산도에 식용꽃 1헥타르의 생산시범 단지를 추진 꽃차산업의 기반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겠으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벤치마킹 등 꽃차 가공생산을 위한 인재를 양성해 가겠습니다. 특히 장보고수산물축제, 해양치유산업 프로그램에 참여, 수시로 꽃차 시음회를 운영,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현장기술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맞춰 새기술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제7기 농업인대학 운영 등 새로운 기술수요 중심으로 품목 및 분야별로 총 145회 3,7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제8기 농업인대학 버섯반을 비롯한 품목별 6개 과정과 읍면과 협업하여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포함한 7개 수시과정을 편성, 새로운 기술수요에 맞는 교육사업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농업 대비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에 앞장서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 58개회 1,325명으로 전국대회 참가, 연찬회 및 발표회, 농·특산물 판촉, 봉사활동, 농업인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 및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며, 미래농업 대비 선도실천을 위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후계농업인 인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핵심단체로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지도력 배양을 향상시켜 가겠으며, 6차산업과 연계하여 소득 향상에 주력, 농업에 대한 희망을 갖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전문 여성 농업인 육성입니다. 잠재능력 발굴과 생활환경 개선, 노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농촌여성의 권익 신장과 자질함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및 농촌노인 소형 운반기 보급사업 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쌀 애용하기, 여성농업인 문화함양 교육, 봉사활동 등 자질함양과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농촌생활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는 정보지 제공 및 노인정 중식봉사, 독거노인 이불세탁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으며, 농촌여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문화함양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 대표음식을 개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에 이어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와 미질 향상 및 판로의 다양화로 완도식량작물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재배를 위하여 식부계획 대비 93% 이상 보급종을 공급과 발작물 안정생산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우량품종 8.6톤을 공급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기상재해 최소화와 완도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조생종 벼 105헥타르와 미품벼 생산단지 190헥타르를 육성하였으며,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지도로 농업인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우리 군에 적합한 고품질 벼 우량종을 확대 보급하겠으며, 최고품질 쌀 미품벼 생산단지 200헥타르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조생종 벼 재배 면적 확대, 우량품종 고품질 브랜드 쌀 계약단지 100헥타르를 신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능성 컬러보리 특화 단지 100헥타르를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발작물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기술지도입니다. 병해충 발생에 대한 정확한 예찰과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월동해충 예찰 및 관찰포 8개소를 운영하여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온탕소득 및 석회유황을 활용한 친환경 범씨소득 연시회 개최, 순회예찰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 농가 맞춤형 현장진단과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병해충 순회 예찰반을 편성 주요 시기별, 작물별, 현장 예찰을 강화하여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방제 기간을 설정 적기에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 기술지원 및 양분

관리 컨설팅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및 영농기술 보급과 첨단장비를 활용한 토양의 정밀검정으로 적정 시비 관리에 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81회 2,9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EM액비 30톤을 농업인에게 무상 공급과 친환경 인증, 농업정책 지원 및 토양 환경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정 3,400여점, 시비처방서 2,000여부를 발부하는 등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토양의 정밀검정을 통한 시비관리로 청정바다수도 이미지에 걸맞게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자연재해 피해예방을 위한 간척지 염농도 조사, 발토양 수분 조사 등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별 토양 양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소득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농가 경영 개선 및 신선하고 신뢰받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산물의 안정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탄산가스발생기 외 3개 사업 10개소에 신기술을 도입, 시범 추진하여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스템 구축, 시설원에 기능성 다겹보온커튼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채소 생산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고소득 과수 재배기술 정립 및 6차산업화로 농가소득의 다변화를 위하여 참다래 안정 착과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꽃가루은행 운영과 유자 경쟁력 강화 기술 지원으로 가공상품 다양화와 생육상황 조사를 통한 겨울철 동해 후 수세 회복을 위한 현장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완도대표 소득작목의 6차산업화,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실증시범 등 4개 사업 14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과수품질 향상 및 안정생산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완도자연그대로 과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특화, 틈새작목 육성입니다. 비파 등 가공상품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및 틈새 소득작목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파 소규모 가공 기자재 지원,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개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7개소에 추진하여 소규모 비파 가공 기반시설 조성 및 감귤 안정생산 및 품질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과수 방조망 설치, 감귤 시설재배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비파 가공상품 판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비파 소비층을 확보하고, 새로운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진단, 처방 등 종합컨설팅으로 농가경영 개선 및 ICT 융복합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 자동화, 생력화기술 보급 확대를 통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e-비즈니스 리더 양성교육,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확대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신규 농업인 및 일반 농업인에게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및 현장기술 지원과 축산분야 빅데이터 활용 한우관리시스템, 농식품부산물 활용, 흑염소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업시험포장 운영 및 꽃묘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입 가능한 신규품목 시험 재배를 위한 시설로 유리온실 및 하우스시설 13동 7,500평방미터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레드베이버리 외 4종 50주를 시험 재배 육성 중에 있으며, 조식배양 우량씨감자 13만 2,000여주를 생산하여 작목반 및 희망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국도변 및 읍면 주요 관광지에 보급할 꽃묘 5종 30만 본을 생산 관리하여 아름다운 완도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완도국화전시회입니다.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와 연계한 국화전시회를 완도타워와 주요 거점 지점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전년에는 조형국, 분재국 등 1만 8,000본을 전시하여 우리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의회에서도 확대 운영하라는 정책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화 전시량 확대 및 새로운 국화 조형물 개발을 통해 완도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성공적인 국화전시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 수리입니다. 농민들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순회 수리는 도서지역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은 관리기 등 28종 147대를 보유하고 임대료는 기계 구입비의 0.5%를 적용하여 임대 하고 있으며, 전년 임대실적은 299대로 임대료 710만 원 정도로 `17년 대비 180%로 신지-고금을 잇는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순회 수리 또한 43개 마을을 방문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는 꾸준히 보완, 구입하여 확보하겠으며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직접 임대사업장으로 임대농기계를 가지러 오고 있습니다라는 고령화 농민들의 배달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 차량은 물론, 장비 운영 및 정비, 행정업무 추진 가능한 전문인력 충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및 축산기술 지도 분야입니다. 지금 이번에 스마트팜 축산 실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2개소로 하셨습니다. 그 시범사업 2개소에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한우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통한 소 개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라는 실천한 농가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특히나 발정시기를 제 때 관찰할 수 있어서 수태율을 높였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 곳이 어디어디인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신청 농가를…… 신청을 접수해서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이달 말경에 산업…… 심의회를 거쳐서……

○ 이범성 의원

아, 이것을 할 계획이라는 이것이지요.

그러면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4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런 체계화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축산농가도 앞으로 살아나가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스마트팜 축산기술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산, 가공, 유통 단계 부분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접목해서 지능화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체계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농업분야 부분도 생각해볼 시대가 안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시설하우스에도 접목하고자 하는데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농가 자부담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7 대 3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도 7 대 3이면 솔직히 100% 다 해주라고 그러겠죠, 어떤 농가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잘 홍보하다 보면…… 지금 고령화된 농어촌의 실정에 대해 뻔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들에 뭔가 요즘에는…… 이런 기술적인 여건들을 접목해 가지고 우리 핸드폰으로도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15페이지요, 농기계 취지가…… 소농가들에게 기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농사를 지으라고 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방은 다 나이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임대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으로 이것을 해냈는데 인원 보충이…… 내가 거기도 가서 이야기를 했고 지도소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해 주고 나면 오지 같은 데를 수리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동수리하기도 어렵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는가요? 제가 그때 인원 보충을 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행정부서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절충을 언제까지 합니까, 그때가 언제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은 별도로 끝나면……

○ 최정욱 의원

행정부서에서 안 들어주나요, 소장님이 안 하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도…… 행정에서 총원 인력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우선적으로 인력이 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어 가면서 뭔가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먼저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도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소장님, 이것 좀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없게 해야죠,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맞죠, 무슨 불편이 있기 전에, 그랬으면 행정이 안 해주면…… 왜 행정이 안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
다마는 그런 것도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꼭 그런 문제점을 챙겨서 빨리 그런 것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농촌지도소에서도 음식 개발을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음식 개발을 어떤 식으로 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은 음식연구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단체가,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음식이라든가, 어떤 그것을 대외적으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전남도 내에 있는 음식연구회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새로운 음식들을, 어떻게 지역에 맞는 그런 음식들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그런……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음식 개발은 수도 없이 각 지역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간단히 말하자면 사찰 같은 데에서도 음식 개발을 많이 하고, 타 지역도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지역음식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쪽에 음식 개발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해서 뭐 특별하게 실적을 올린 것도 없고 또 느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해양치유에 맞게 음식 개발 생각을 갖고 있다, 잠깐 설명이 그런 것 같던

데요, 이전에 서국장님 할 때 저의 음식에 한 설명 들으셨죠? 여기 없었나요, 음식개발에 대해서 관광정책과 질의할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 있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있었죠, 그때 들으셨죠? 여기에서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요. 그것은 다음에 설명을 더 하기로 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음식 개발을…… 우리 치유산업에 대한 건강식품 음식을 하면 어떤가요. 인원 같은 것이 부족하고 지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은 거기까지 그렇게…… 맞습니다, 의원님의 얘기가 맞습니다마는 인력도 인력이고 또 예산도 아직……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 저기서 음식. 뭐 이과, 저과에서 하지만 이것이 뭔가 특별하게 가락도 안 나와 있고, 뭔가 구심점도 없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일원화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거기에 있는 지원을 전적으로 그쪽에 다 옮겨서요.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는데 어떤가요, 소장님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관광정책과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 최정욱 의원

정책과하고 해양치유과하고 같이 해서 이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어떻게 중점적으로 지원을…… 같이 한 군데에서 써야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것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실과하고 의논해 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소안도 밀감을 제가 이번에 한 번 먹어봤는데 그것을 지도소에서 새로운 것을 해서 관광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민이 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기존에 한두 농가에서 재배해 오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묘목 보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기술 지원해 가지고 확대 재배를……

○ 최정욱 의원

그것 먹어 보니까 참 당도도 좋고 그러던데, 문제는 껍질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던데, 그런 것 개발을…… 지도소에서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작목반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연계를 해가지고요, 금년부터는 특히나 친환경 쪽으로 재배 되도록.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발굴해 가지고 최대한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노력을……

○ 최정욱 의원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꾸준히 연구개발해 가지고 농민들과 같이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해본 것입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국화꽃을 전시할 때마다 하고 그러는데, 이 국화꽃을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한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작품국…… 조형국이라든가 일부…… 작년에 바닥에 깔았던 그런 화분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 동그란 화분에 있는 그런 것들은 조달구입으로 해서 외부에서 유입을 해가지고……

○ 최정욱 의원

완도에서 안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장소도 협소하고 또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 최정욱 의원

그것을 농가에 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산하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다른 지역, 영암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화훼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청취불능) 하고 이렇게 통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화훼, 어떤 작목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의 농가들한테 생산하게끔 한다면 재배 화훼…… 어떤 작목반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해야 됩니다.

○ 최정욱 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꾸준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봐서도 참 좋은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농가의 소득이 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 농가들이 이런 것을 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그런데 외부에서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지도소에서 이런 것을 잘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농가하고 해서 길러서 우리가 직접 계약 재배도 하고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농가도 소득을 창출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11건으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확충·보강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사

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화보건지소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했고 보건의료원 신관을 장애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6개소에 대하여 방수공사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실시하여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공사, 보건의료원 구관과 생일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들이 일정대로 하자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의료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완도대성병원, 보건지소 5개소와 17개의 보건진료소에 ICT를 활용한 원격진료, 즉 화상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원격진료영상장비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료가 가능한 완도대성병원을 원격협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신규공중보건의사 15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간 207건의 원격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취약지인 금일 충도 등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 속도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무의도서 순회진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1만 4,000여 건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9개 무의도서 주민들에게 의과, 치과, 한방과 순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강위험요인이 높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특별관리 대상자 571명에게 폭염, 한파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담당자 사례관리 집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가 없는 9개의 무의도서에 대하여 주기적인 순회 진료를 실시하여 무의도서 주민의 의료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완도군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무료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9,825명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52명의 암환자에게 4,72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성콩팥기능상실 환자 등 22명에게 4,96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국가 암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문 발송과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출장검진 기관과 간담회 등 수검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암환자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건의료원 내에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마련하여 지난해 12월 10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150명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재활치료실을 활성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등 장애인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과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완도대성병원 앞 가용리 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780㎡ 2층 규모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하여 2018년 2월 27일에 개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층에는 체력단련실과

체력측정실, 건강상담실, 2층에는 프로그램실, 영양교육 실습실 및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평균 89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민맞춤형프로그램인 갱년기교실, 여름밤 운동교실 등 20개 프로그램에 6,722명이 참여하였고, 대사증후군 검사 1,856명, 경로당건강교실 2만 4,760명, 건강생활실천교육 2만 2,638명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용주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대사증후군 발견검사 및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지역주민 건강조사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건강교실 운영과 비만환자 다이어트 교실, 여름밤 운동교실, 갱년기 극복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환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4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2,648회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7,453건, 지역주민 금연교육 1만 2,610명, 초중고 흡연예방교육 6,263명 및 금연구역 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흡연자 금연관리서비스를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금연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 및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비 및 양육비 지원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출산장려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출산장려양육비 지원은 일시금 297명 4억 6,200만 원, 분할금으로 286명 7억 2,100만 원, 돌맞이 축하금 57명 2,850만 원 지원 등 총 1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신부·영유아 의료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4명 5,4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90건 7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 지원 105명 4,9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32명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신부, 영유아 625명에게 9,000만원의 영양식품을 지원하여 임신부,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출산장려양육비 지원과 출산전 준비금, 출산축하용품, 돌맞이 축하금 등을 연중 지원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와 양육하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3호점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출산을 증가와 산모, 신생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도대성병원 내 730㎡ 2층 규모로 산모실 10실, 신생아실 1실, 수유실 등 사업비 총 16억 9,300만원으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8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5월 준공하여 개소식과 함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병의원·약국 및 응급의료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진료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의료 행위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병·의원 4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98개소에 대해 2회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응급헬기착륙장을 이용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60명을 후송하여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불법의료 근절을 위해 문제업소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위급한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처치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12개 읍면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예방접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병원체에 대한 방어능력을 형성시켜 감염병을 사

전에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영유아, 노인,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7종 등 7억 7,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 3,900여명과 성인 1만 5,000여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독감 예방접종은 민간병·의원에 위탁하여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영유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임신예방 접종 및 유료접종을 시기에 맞춰서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향상을 위하여 민간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군민 진료서비스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에게 쾌적한 진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 4개 과 6개실에 공중보건조사 8명을 배치하였고 12개소의 보건지소에 37명의 공중보건조사가 배치되어 일반과 12개소, 한의과 11개소, 치과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1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총 8만 7,3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진료 수입은 총 15억 7,400만원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4월 중 신규공중보건조사 배치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원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연중 민원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6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민들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만 5,400여명에게 구강 관리 및 칫솔질 실천교육과 금요일은 칫솔을 바꿔주는 날로 운영하여 1만 3,900여명에게 무료 구강검진, 불소 도포, 칫솔질 교육 등 체계적인 구강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70명에게 구강검진, 스케일링 및 불소 도포를 실시하였습니다. 완도중앙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학생 673명의 구강 관리를 주

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범군민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 구강질환 무료진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구강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본사업은 기후온난화와 해외에서 유입된 신종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감시체계와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집단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도 우리 군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읍면에 질병 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만 5,170여개의 진드기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법정감염병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간담회 개최 및 보건지소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위기대응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 등을 감안하여 감염병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진드기매개감염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맞춤형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본사업은 기후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기 등 불쾌해충에 대해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방역취약지역 현장실태조사 65개소, 방제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모기성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기후변화 대비 위생해충퇴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동절기 모기유충 퇴치사업과 하절기 취약지 집중 방역소독 등을 통하여 모기매개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본사업은 결핵환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완치율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홍보로 결핵을 예방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읍면 65세 이상 어르신 3,300여명에게 결핵전수검사를…… 검진을 실시하고 고등학교 학생 758명을 대상으로 엑스선 검진을 실시하였습니

다. 집단시설 26개소 110명에 대하여 잠복결핵 검진을 하는 등 찾아가는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완도읍 등 3개 읍면에 대해 노인결핵전수검진을 추진하고 학교 이동엑스선 검진 등을 실시하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결핵발병률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본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8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비 10억 3,000만 원, 규모 308㎡, 2층 필로티 구조로 보건의료원 주차장 내의 부지에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금년 4월 공사를 준공하여 5월 개소식과 함께 치매 예방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치매안심센터 공사로 인해 내원 주민들의 주차에 다소 불편이 있었으나, 별도의 주차장 확보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치매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가족쉼터 지원,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 어르신 630명에 대해 인지기강화교실을 운영하였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인식 개선교육을 50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5,549명을 선별검진하고 치매치료관리비 2,067건, 8,48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맞춰 치매 예방 및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치매안심마을 선정 및 치매선도단체를 지정하여 치매극복환경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사회복지 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의 정신장애인은 약 3,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11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등 전담인력 6명이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읍면 순회 희망상담실을 운영하여 522명을 상담하였으며 완도, 금일, 노화 3개권역 재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100회 운영하였습니다. 학생, 어르신, 갭년기 여성 등 2,578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65세 인구가 30%가 넘는 초고령지역인 완도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및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신 질환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건의료원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페이지요, 국가암관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작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5대 암과 관련된 지역 의료통계입니다.

원장님, 혹시 이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청취불능) 오래 돼서 기억이……

○ 우성자 의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수 및 환자수와 암 발생률을 분석해서 올려놓은 것인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위암의 경우는 보성, 강진, 곡성군이 많고 간암의 경우는 신안, 진도, 고흥, 완도고, 또 폐암의 경우 신안, 진도, 강진군이, 또 대장암의 경우는 보성, 함평, 고흥군이, 유방암의 경우는 목

포, 곡성, 구례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은 (청취불능) 제외하고…… 군 단위에서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간암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도군에 간암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바다에서 일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술을 많이 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암이 많은 이유?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술입니다.

(장내 웃음)

○ 우성자 의원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완도에서 간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암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 무엇을 조심하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생활을 하라고 자료로 해가지고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많이 어렵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그게 사실은 통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여기는 오히려 위암 내지 대장암이 높습니다, 사실은.

○ 우성자 의원

그래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 발병 사망률 1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통계라는 것이 참……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꼭 통계…… 내지 말고요. 우리 완도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려면 간암은 무엇 무엇을 조심하고 위암은 어떻게 조심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죠, 이렇게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렇게 좀 해가지고 각 읍면 이장단 회의 때 한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홍보해서 암에 많이 걸리지 않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스럽지만 암을 줄이기 위해서 원장님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좀 쫓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밥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9페이지, 건강생활센터 운영분야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설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나름대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성과를 거양하는 것 같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해보면 1층에서는 체력단련실, 남녀노소 없이 운동을 하고 있고, 2층에서는 젊은 여자들의 요가, 댄스 등을 할기 있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의원이 거기를 들렀을 때 체력단련실은 너무 협소한 것 같고요. 행정실은 거기 직원들이랄까, 여러 가지……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넓어가지고요. 처음 설계 때 앞으로 더 인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실제로 좀 부족합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야간에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야간까지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이…… 제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참 저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섬으로써 젊은 사람 아니면 노인 분들, 저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처방사랄까, 영양사랄까. 그런 부분들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완도지역민들의 삶이 향상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원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채워주고, 또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나 다 와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100세 시대에 걸맞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점심시간이므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장보고기념관 운영입니다. 해상왕 장보고대사의 해양 개척정신을 고취시켜 역사와 문화의식을 함양하는데 산 교육장인 장보고기념관은 2008년 2월 개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 35기를 운영하여 참가자 1,938명이 수료하였으며, 지난해 장보고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은 8만 1,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기념관 등 상호 홍보 협력 강화를 통한 관람객 유치와 해양경찰교육원 및

완도군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장보고 대사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유적 관리입니다. 1984년 9월 1일 장보고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사적 제308호로 지정된 완도 청해진유적을 관리, 문화재를 보존하고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풀베기 및 수목 정비작업을 상·하반기 실시하였고, 국도비 6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유적에 대한 부식된 기둥 교체 및 단청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유적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유적지 내 풀베기 및 수목 정비사업으로 국도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확보된 국도비 사업으로 유적지 내 풀베기 및 수목 정비작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해진유적지가 장보고대사의 해상활동 근거지로 통일신라시대 대표유적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해양생태전시관 운영입니다. 해양생태에 대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산업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상 2층 건물로 지난해 8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018년 8월부터 2만 3,544명이 관람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희공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선진전시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전시관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해진유적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청해진유적지 및 주요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 있는 문화 유적지의 위상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청해진유적지 등의 시설물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보고기념관 및 진입로 노후 데크 철거 및 재설치 공사와 기념관 옥상 방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청해진유적지 장도 목교 정기 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질 높은 휴식공간 조성과 더불어 관광객의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해진 달빛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청해진유적 달빛거리 조성사업비 3억 원은 '19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4월 착공,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해진유적지 장도 목교 보수, 보강공사는 국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월에 착공하여 8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명소화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을 테마놀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에게 놀이, 교육, 휴식 등 다양한 체험의 장소로 놀이시설 8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안전처 우수 놀이시설로 지정되었으며, 장보고동상 VR존 구축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망대 망원경 설치 및 햇빛차단을 위한 그늘막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보고대사의 일대기와 역사적 사실을 가상공간으로 VR게임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말을 타며 활을 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장보고동상 VR존 설치공사는 '19년 1회 추경예산에 3억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 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공원 친환경 조성기반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6월 말까지 활용할,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 친환경 조성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19년 1회 추경예산 및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입니다. 어민들의 생활도구 등 어촌자원 전시물의 전시로 완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류박제 등 3,390점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시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 관현악 공연을 매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촌민속전시관 관람객은 1만 4,39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통 관현악 공연과 국악기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장보고……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틀립니다. 장보고사업소장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부군수 정석호를 보며)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마지막 끝나는 마당에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군이 어떤 군입니까?

마이크를 잡으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수산전문군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전문군이죠.

오늘 아침에서야 봤는데 지금 우리 군에 수산…… 선박직 말고 수산직렬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에?

○ 부군수 정석호

수산직렬이…… 정원이 35명인데 현재는 31명입니다.

○ 박인철 의원

수산직렬이…… 지금 과가 2개고 계가 9개인데 직원은 31명밖에 안 되죠?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신안군은 과가 2개고 계가 7개인데 5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은 수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을 보며)

저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산군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수산전문 직렬은 31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올해 6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부군수님, 보니까 14시부터 16시까지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 1명을 어디 도에 파견합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파견하는 직원의 직렬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정석호

수산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 주라고 할 때 그 공문이 왔죠?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업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외지 조업선단 유치 및 완도항 관련 업무…… 현안업무 추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외지 조업선단 유치는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완도항 관련 기본 4차 항만계획은 도서개발과에서 하는데, 왜 없는 수산직렬을 거기에다가 파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구나 없는…… 완도군이 수산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완도 생일면, 보길면, 금당면, 약산면은 수산직렬이 1명도 없습니다. 지금 완도읍도 수산팀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이런 실정에, 직원을 보충해도 부족한 판에 맞지도 않는 외지 조업선단, 이것 우리 지역경제……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완도항 관련사업은 도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왜 수산직렬을 여기에다가 보내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딱히 어떤 직렬을 보내야 된다, 그런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수산직렬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파견된 것에 대해서……

○ 박인철 의원

예? 뭐라고요?

○ 부군수 정석호

어떤 직렬을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제가 그것을…… 지방공무원을 파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파견 요청한…… 요청한 직원의 직렬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파견할 때 아마 수산직렬이 가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합당할 것 같아서……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이것은 지금 될까 말까 하고, 저번에 해수부에서도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이번에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던데, 한번 다시 해보고, 자, 그것하고.

외지 조업선단 유치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에서 파견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수산직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읍면에서는 아우성인데, 그런 데에다가 1명을 더 충원은 못해 줄망정 도에다가 이렇게 파견하는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없는 직렬을 빼가지고 직렬을 보충해도 부족할 판에.

○ 부군수 정석호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직렬별로 봐도 전부 거의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허정수 국장님한테 직렬 불부합 이야기도 하고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수산군이라고 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산업부가 마비된 상태로 가고 있는데, 더구나 수산직렬을 빼가지고 도에다가 이렇게…… 뭐 도에서 파견하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파견해야 됩니까?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도가 상부(청취불능)입니까? 우리 완도 군도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도도 도 자치를 하고.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파견을 통해서 우리 군의 계획을 반영할 수도 있고.

○ 박인철 의원

지금 완도항만에다가 우리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 완도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완도항만…… 도 완도항만과가 제대로 업무를 하

는지 아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해양항만과에서, 도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희들이 파견하는 것은 크게 우리 군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지금 당장 일선에서 수산직렬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군수님, 이번에 보니까 부담해서 가지고 각 읍면을 다 다니더구먼요. 현장에 다니더구먼. 현장에서 그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 수산 민원을 하나 처리하려고 하면 2~3일 씩 일을 접고 그런 실정인데. 물론 다른 타 직렬들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우리 군은 수산군이라고 앞세우면서 과도 두 과로 늘려놓고 팀도 9팀이나 있고, 또 각 읍면에 전부 우리 군도 수산하고…… 완도읍도 수산하고 뭐야, 직접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수산직렬로 뽑아서 도에다가 파견을 시켰는가. 그리고 또 공문에도 보니까 꼭 수산직렬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조업선단을 유치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까. 그냥 직원 1명…… 내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합니까. 도에서 지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도서개발과장님…… 아니, 지역경제과장님 있으십니까? 교통과장님?

도에서 우리 항만…… 출장에서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런 공문 하나 가지고 없는 직렬을 뽑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아우성인데, 민원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우성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정석호

금년 상반기에 시험이 있으니까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아니, 상반기에 6명을 한다고 해도 합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그 분들이 하면 10월에서 11월 말에 현장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6월에 임용고시를 본다고 해도, 앞으로 이런 파견을 하지 마십시오, 부군수님.

○ 부군수 정석호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 출석의원(8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조인호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5.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6.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
8. 완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5.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6.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7.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완도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9건과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완도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

항을 규정하였고,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통하여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이 현행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안 제19조 제6항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남권 광역화장장 연계사업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 점검 및 피해마을 지원관련 재원 분담을 확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프로세스를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6.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7.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외 5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우리 군 주민 및 관광객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운영손실 지원액을 완도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으로 부담하도록 하였고, 야간운항에 의하여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이 발생한 여객사업자에게 운영 지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주의 의무와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

으나 조례안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객선 운임 지원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기존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70세 이상 노인에게 100%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2조 정의에 주민이라는 용어를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내 기능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완도군의 기능 발전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 최고장인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였고 관내 기능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산업시찰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1조 목적에 내용을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을 현행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재난현장을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대응관계에 대한 사항에 통합지원본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1조의 목적 내용은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 지정, 지정 해제와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수산자원 보호, 건전한 낚시문

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 불편 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본조례 1조 목적의 내용에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농업기술센터 교육 및 훈련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맞는 전문기관 위탁사업 필요가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야간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6항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된 7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통해 군정의 흐름과 추진방향을 파악하는 등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우리 군의회의 금년도 의정활동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금년도에 계획한 군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간 중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13시59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309호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등학생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험안전교육인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생존수

영교육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수영장이 개장함으로써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교육지원법 제17조의 5에 의거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초등학교 전체로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배우게 한다는…… 배운다는 이 말입니까?

○ 박인철 위원

예, 맞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단체로 해야 되겠네요?

○ 박인철 위원

그렇죠.

○ 전문위원 추교훈

계획 수립을 해서……

○ 우성자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완도군 관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2개 읍면입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또 있으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09호 완도군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향토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을 통하여 우리 군 향토문화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제10조에는…… 3조에서 제10조에는 향토유산보호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의안번호 제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향토문화의 발전과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0호 완도군 향토유적지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1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한 건의 조례부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 12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항인……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내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제19조 제1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 및 모자 보호시간을 사용조건을 명시한 제19조 제1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사항인 장기재직 휴가일수 상향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는 5일에서 10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고 3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20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쪽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표준안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1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를 분담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부터 완도, 해남, 진도 3개의 군이 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하여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피해마를 지원 관련 재원분담액을 확보하여 향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화장장 설치를 위하여 최초 부지 선정 공모 시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고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된 해남군 황산면 원호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과 장의차량이 통행하는 길목에 위치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마산면 호교마을에 대한 지원관련 재원이 26억 원으로 분담금 협의에 따른 완도군의 분담액 25%인 6억 5,000만 원을 분담하고자 합니다. 재원분담을 위한 근거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 업무협약서 제2조 및 제4조입니다. 우리 군 총 26억 원 중에 해남군이 절반인 26억 중에 13억을 분담하고 완도와 진도가 25%인…… 25%씩 6억 5,000만 원씩 금년부터 4년간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를 분담금 지원계획 군의회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을 가질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국장님,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오네요. 처음부터 이런 것이 전혀 없던 것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데 해남군에서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조인호 의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 거론되고…… 그런 사항이었는데 주민복지과장할 때도 그렇게 의회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완도군에서 분담을 하지 않게끔 그런 노력을 해달라.”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

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황산면 4개 마을과 아까 마산면 2개 마을, 장의치량이 지나가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등에서 요즘 보시다시피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피해만 입을 수 있냐. 그리고 해남 군 시설이면 모르지만 완도, 진도 3개 군이 사용을 하는데 같이 분담해서 우리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에 할 수 없이 이런 협의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도, 진도, 해남 3개 군의 주민복지과장들, 부군수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광역화장장 건립 준공 자체가 늦어진다.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이 26억에 대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기로 하고요, 그것을 해남군이 50% 분담하고 완도, 진도가 25%씩 분담해서 화장장 건립을 완료시키자고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런 배경설명을 드리면서,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완도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더라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안 했겠느냐. 역지사지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또 금전적으로도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저화들이 계산을 해보니까요, 현재 화장장이 없는 우리 군민들이 매장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가고 있는데, 목포를…… 목포화장장을 이용했을 경우 인구당 5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면 7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화장물을 보니까 60%대입니다. 우리 완도군은, 완도군에서 284명이 했는데 55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5,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화장장려금을 20만 원씩 군에서 지급해 줬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앞으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20만 원 이것,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7만 원에 화장할 경우에 1,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수준인 284명이 화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차액이 1억 3,600입니다. 간략하게 계산해서 단순히 빼더라도, 그러면 화장물이 앞으로 지금 60%에서 70%, 80%로 올라가게 되면 이 액수의 차액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억 5,000을 분담하

는 것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피해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남, 완도, 진도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결과를 가지고 3개의 군수가 협약을…… 완전한 협약을 작성해서 화장장을 개장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분납액을 (청취불능) 거쳐서 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2,5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올리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으니까 뭐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만에 하나 광역화장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3개 군이. 여기에서 우스운 이야기지만 잉여금이 생기면…… 우리가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봉안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3개 군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도 협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 이야기 한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예,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일전에 4억 600만 원을 투자할 때, 건립할 때 투자비용이 있거든요, 3개 시군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그 부담 비율이 50% 해남군, 25% 완도군, 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 시군이 되어 있고요.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1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8호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 피해마을 분담금 지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7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2월 15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
4.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2.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3.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4.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발의의원인인 조인호 의장님께서 전남시군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차 출장 중이므로 김양훈

위원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청취불능) 여객선 등이 도서민과 도서를 찾는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손실을 지원하고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도서지역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운영손실부담 주체와 그 재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운영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와 9조에는 여객운송사업자의 주요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특별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명절, 관광,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폭등하는 기간에는 특별운영 기간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주민,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완도군 주민 및 해

상…… 아니, 완도군 주민 및 관광객들의 해상교통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이 야간에 운항하는 경우 그 운영 손실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2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3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체도권 주민에 한정하여 여객선 운임 등 일부 지원했던 것을 전체 주민들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우

리 군 관내 해상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기존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 운임 등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의 용어 중 체도권 주민으로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복지완도 실현과 고령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3조 제3항에는 70세 이상 노인은 100% 지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유법 26조 규정에 의거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100%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해운법, 노인법,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주민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해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70세 이상은 좋고요. 그 조례안에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학생들도 같이 좀 해서요, 우리 지역에 보면..... 도서지역의 주민들이 완도읍 체도권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편도 그렇고, 또 아이들한테까지 이렇게 계속 운임을 받고 하니까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만 몇 세까지로 정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어린아동들은 안 받죠, 아동들은?

○ 박재선 위원

아니, 받습니다.

○ 박인철 위원

취학 전도 받습니까, 취학 전 아동도?

○ 박재선 위원

받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아니, 영유아는 안 받고.....

○ 박재선 위원

아니, 영유아는 안 받고.

왜 그러냐면 완도군에 빙그레시네마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육지로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군이 그럴 필요 없이 완도에 와서..... 이렇게 무료로 해줄 수 있다면, 초등학교들까지라도 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와서..... 여기 읍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문의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박재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협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

철 위원님이 발의한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것으로 포함을 하고요. 이후로 집행부의 예산 수급 상황이라든가 예산을 봐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기준에 70세부터는 완전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다 이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예, 섬 주민들은 받고 있어요. 100%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 박재선 위원

20%, 30%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3호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3호 완도군 체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4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기능인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는 관내 기능인 중 우수한 사람을 완도군 최고 장인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장인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1항에는 최고 장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최고 장인의 추천권자로는 군수, 관내 기업체장, 관내 업종별 협회의 장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장인증서를 수여하고 장려금 100만 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기능장려법에서 위임된 위임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목적 중 “기능인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라는 문구를 삭제

한 후, 목적을 “이 조례는 완도군의 기능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능인을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14호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41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서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할 수 있는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7조에서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운영, 실무반 편성,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9조에는 업무협약과 파견, 현장대응반장, 현장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 11조에는 재난현장 상황 전파 및 재난지역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 14조에는 재난현장 자원동원 및 출동 지원요청, 재난현장상황 정보 공유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5조에서 16조에는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20조에는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홍보, 재난현장 통합대응, 통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 23조에는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6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1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조례이므로 자치조례가 아닌 위임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위임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5호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수산자원의 보호,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를 정하며, 안 제6조에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동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6호 완도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낚시관련육성법 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위임 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상위

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컨설팅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 따라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6호 완도군 낙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1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53페이지, 의안번호 제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및 훈련사업에 따른 농업인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 등 수요량 증가에 맞는 전문기관의 위탁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규정안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교육 및 훈련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과 면허증 취득과정, 워크숍 등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5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민의 전문자격증, 면허증 취득 등 수요량 증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사업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농촌진흥법 제16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된 위임 조례입니다.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17호 완도군 농업인,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7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19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10시00분 개의)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6. 읍면 사업장 확인서 제출 요구의 건
7.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9년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6. 읍면 사업장 확인서 제출 요구의 건
7.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2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9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및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과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15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6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9일부터 3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0호의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280억4,27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900억 4,813만 3,000원으로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13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및 서민생활 안정 등 시급하면서도 군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100억 4,81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의 증가로 3억 1,66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9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액 중 본예산 미반영분과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가 195억 6,88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14억 3,245만 4,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1억 3,66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92억 1,702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8억 4,632만 7,000원, 교육비 3억 9,600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비 102억 7,154만 4,000원, 환경보호비 48억 6,145만 5,000원, 사회복지비 30억 8,432만 6,000원, 보건비 4억 8,017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비 325억 8,043만 8,000원, 산업중소기업비 18억 4,523만 4,000원, 수송 및 교통비 40억 4,33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99억 1,125만 1,000원, 기타 20억 7,137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21억 5,700만 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26억 3,931만 2,000원, 물건비 52억 617만 8,000원, 경상이전비 152억 4,293만 8,000원, 자본지출비 951억 2,705만 6,000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514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3억 6,602만 1,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2,762억 9,30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1억 2,02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2,206억 8,559만 1,000원으로 303억 7,3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91억 5,716만 1,000원으로 81억 4,8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4억 5,033만 5,000원으로 2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455개 사업에 387억 13만 1,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주요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6,7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 편성 시 내부유보금 등 13억 8,6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인건비 조정으로 2,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813억 9,208만 8,000원에서 451억 606만 7,000원이 증액되어 3,264억 9,815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42억 9,4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되어 145억 9,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

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40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 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40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19년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6.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41호와 의안번호 제24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441호 2019년도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안번호 제2442호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6개 읍면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준공된 사업장과 추진 중인 사업장의 건설사공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사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6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사업장을 확인, 점검한다는 것이며 기간 동안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집행부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4일까지 발주된 해당 읍면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 융자사업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

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및 완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박인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동삼, 박신희, 민재관, 손연지 이상 네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김동삼, 박신희, 임채관, 손연지 이상 네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각 상임위 안건 심

사 등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우성자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6.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7.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
10.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15.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18.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5.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우성자 의원 발의)
6.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허궁희 의원 발의)
7.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8.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9.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10.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5.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16.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홍 의원 발의)
17.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18.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2. 휴회의 건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2건, 동의안 2건, 변경안 1건, 휴회의 안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 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건에 92억 3,653만 8,000원이며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 8,400만 4,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83억 5,354만 9,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3,02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6,876만 7,000원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억 2,661만 2,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총괄입니다. 출연금 총 규모는 7건에 234억 7,190만 원이며 2019년도 출연규모는 32억 1,55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용별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 원,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24억 2,6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50만 원,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7,950만 원, 전남신용보증재단 1억 7,700만 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1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3억 7,500만 원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280억 4,27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4,900억 4,813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9억 9,46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증감액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기능별예산의 증감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3,290만 원, 교육분야에서 1억 5,264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6억 원, 사회복지분야에서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1,9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8억 3,493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6억 6,900만 원, 경상이전비에서 1억 5,264만 원, 자본지출비에서 1,329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중점으로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예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도 심도 있게 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심사과정에서도 출된 시정, 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사업계획 수립,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나, 2019년도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완도군 농수축산업 총 조사 결과 분석 등 다수의 예산들이 경정 삭감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예산은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조례 제정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훈련용품 구입비로 추가예산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또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

는데도 도비가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미흡하였다고 보입니다. 이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기금이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계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속기간 5년 동안 사용이 전혀 없는데도 계속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금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속 또는 폐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시정,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군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곽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소기의 목적으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신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박인철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

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겸직 금지에 대한 신고 규정과 윤리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3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5.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6.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7.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8.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9.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10.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11.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3.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어제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 시기와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술비 지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완도군 관내 공공시설물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사용되는 비용을 준공식, 준공판 등에 명기하는 등 건립비용의 공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준공식 등에 공개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미혼모, 미혼부 등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조례안의 특성상 개인 사생활과 밀접한 사항인 만큼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역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완도군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 위험장소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에 관련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 제5조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이에 따른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완도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중인 완도수영장 체육시설 공사기간 동안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미세먼지, 소음 등 애로 불편사항을 위로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수영장 이용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수영장 이용 시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고 개인사물함 대여료를 3,000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1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완도 죽청 농공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교환, 보길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청산 산흥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도시계획시설 내 고물상 매입, 노화 산양진항 주민대합실 재건축을 위한 부지매입, 해양치유센터 및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토지취득 15필지에 1만 5,041평방미터, 건물 4동 5,970평방미터 취득에서 토지취득 102필지에 24만 54평방미터, 건물 20동 8,497평방미터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13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

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미

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빈집 정비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15.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16.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홍 의원 발의)
17.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18.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9.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10시2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만 사용을 하고 브랜드의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 1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11조의 2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완도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해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완도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 건설계획 및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 목적을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와 내용상에 문제

점은 없으나 안 제1조 목적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고, 용자금 한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제9조 제1항에 “용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 원 이내로 한다.”를 5,000만 원 이내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위원회 기능이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발전위원회”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완도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안 4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관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권면금액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3조까지는 상품권 구입 및 할인,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항의 내용 중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를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관광시설에도 상품권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문화시설”을 “문화관광시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7호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읍 죽청리 482번지 일

원에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본안건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완도군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및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본안건에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 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고금면, 소안면, 생일면 14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총 8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8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18항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사일정 제19항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으

로,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휴회의 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민 생활현장방문 의정활동을 위하여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은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우성자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인호 의원 발의)

(17시5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성자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금일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예,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법규와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기존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법규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그 내용과 성격이 유사한 조례를 하나로 조례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기존 완도군의회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변경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맞게

윤리심사 기준에 따른 사항을 안 제7조와 제2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겸직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신고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상위법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법령에 의거 개정한 사항으로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박인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2호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인철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우성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조인호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3.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4. 완도군 미혼모, 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8.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우성자 의원 발의)
3.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허궁희 의원 발의)
4.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5.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6.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8.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56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4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과 작성 방법, 관련된 내용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고,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했으며,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의 비용추계서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을 안 제6조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거 제정사항으로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23호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여성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인인 여성자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김양훈 위원님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는 난임으로 고통 받는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시술비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계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4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에

관한 건립비용 공개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준공식,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등을 준공식에 기록해야 할 내용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 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5호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5.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 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미혼모”, “미혼부”, “미혼모·부 자녀 “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대상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에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거주하는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거 제정한 사항으로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관내 청년들이 청년정책의 파트너로서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살고 싶은 완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안으로, 청년발전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한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청년정책 개발에 활용하고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라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326호 완도군 미혼모, 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6호 완도군 미혼모, 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7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

(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경관을 훼손하고, 범죄 장소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빈집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제정한 사항으로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범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정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8호 완도군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최정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는 “인구정책”, “인구교육”에 대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리 군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완도군 인구정책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제정사항으로 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정욱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9호 완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1

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3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할 안건은 조례 개정 안건과 동의안건,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1항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사공함에 있어 소음, 진동으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완도수영장 공사기간 동안 소음 등으로……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애로, 불편사항을 위로하고 2017년 5월 (청취불능) 청소년기자단과의 인터뷰 시에 불편을 겪은 학생들이 인센티브 부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수영장 이용 시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비목을 신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일시납 감면에 따른 중복감면을 성인에 한해서 감면한다.” 라고 명확히 정했으며, 개인 사물함 대여를 위해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쪽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수영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규정 등을 추가 신설하

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의안번호 2431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지원센터를 완도군 사무민간의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완도읍 개포로 34-7에 위치한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입니다. 1층에는 한국어교실, 3층에는 상담실, 사무실, 모래놀이치료실, 4층에는 언어치료실 및 교육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 교육과 가족상담, 방학돌봄, 가족봉사단 운영, 아이돌봄사업과 한국어 교육, 방문 교육, 가족 인권상담사, 통번역 서비스, 산모 도우미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다음 주 중에 공고를 해서 공개 모집한 후에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센터 운영에 관하여 건강가정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련법과 관계규정에 따라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사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다문화 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관련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의안번호 2421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에 대한 안건들을 취득내역과 교환내역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 내역으로는 기존 19건에 면적 12만 1,011제곱미터, 금액 68억…… 68억 1,200만 원에서 105건, 면적은 11만 9,043제곱미터 금액은 129억 5,000만 원 증가하여 총 취득재산은 124건에 면적 24만 54제곱미터, 금액은 197억 6,200만 원입니다. 교환내역은 교환 취득 5건에 면적 5,952제곱미터, 금액은 4,400만 원이며 교환 처분은 2건에 면적 3,771제곱미터, 금액은 2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2쪽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와 소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다음 세무회계과 소관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경제교통과 소관 완도 죽청 농공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교환과 보길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관광정책과 소관 청산 신흥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지역개발과 소관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도시계획시설의 고물상 매입, 노화 산양진항 주민대합실 재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 그리고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해양치유센터 및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총 9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소관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2건입니다.

현재 노화, 보길 지역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보길면에 정원 16명의 로템의 집 1개소가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시설이 부족, 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는 군수님의 정책토크와 의회 순회 방문 시 노화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으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에 계속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군 차원에서 향후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 부지를 사전에 매입, 확보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부지는 노화읍 구석리 925번지에 위치한 (구)노화동초등학교로 토지 1필지에 2만 8,742제곱미터 평방미터와 12동 2,188제곱평방미터이며, 소요 예산은 교육청의 감정평가 미실시로 현재 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면 약 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토지는 2억 1,600만 원, 건물은 2억 8,400만 원이 시가표준액입니다. 교육청 문의 결과 현재 일반인의 매입 문의가 많아 여섯 분 정도가 공개 입찰할 예정입니다. 공개 입찰할 예정이며, 1회 추경예산에 부지 매입 예산을 편성하여 입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세무회계과장 조광웅입니다. 5페이지,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목적은 군청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 및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

업내용은 완도 군내리 722번지 외 3필지로서 토지면적은 총 1,133제곱미터이며 건물은 4동으로 339제곱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1,300만 원으로…… 5억 1,300만 원으로 토지 3억 1,100만 원, 건물 2억 200만 원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감정평가를 토대로 소유주와 합의하여 매각할 예정입니다. 지금 소유주들은 팔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고 건물 철거와 부지 조성비도 2회 추경에 조성해서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완도 죽청 농공단지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 교환입니다. 완도 죽청 농공단지 구역을 확대하여 고등어 가공 및 선별장과 전복, 해조류, 가공공장 시설을 위하여 군유지와 사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죽청리 943-1번지 일원에 2021년 6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고등어 선별, 가공, 냉동, 냉장 및 제빙공장을 1만 5,860평방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건물 2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 소유 2필지 3,771.2평방미터와 업체소유 부지 5필지 5,992평방미터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토지 교환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투자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환매권 행사 조건부로 교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방금 배부해 드린 별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완도종합수산물 가공단지 인근 죽청리 부지에 고등어 및 선어 선별 가공, 냉장, 급냉시설에 대하여

400억 원의 투자를 완도군에 제안하였습니다. 3월에 완도군과 완도종합수산은 군 소유 부지와 민간 소유 부지를 상호 교환하여 농공단지 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4월에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종합수산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완도종합수산에서 자체 사업비로 농공단지 지정, 설립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 군비(청취불능) 기관 부서에 농공단지 지정,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군에서는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변경 추진절차에 의하면 지정, 변경, 승인 및 고시 후에는 경관 심의, 부지 교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득하고 사업을 착공하여야 합니다. 완도종합수산에서는 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 및 고시 후 지정, 변경 추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나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 농공단지 지정, 승인, 고시 사항은 자동으로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업체에서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 의향은 없었으며, 금년 1월 완도종합수산에서 2014년 중단되었던 고등어공장 사업에 대하여 재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군 소유 부지와 민간 소유 부지에 대해 상호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 죽청 농공단지 투자 유치에 위한 부지 교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같이 연속으로 해주십시오, 보길면까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음은 9페이지, 보길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보길을 찾는 관광객 중 (청취불능)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산객과 보길 (청취불능)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 시와 등산객이 몰리는 시기에는 차량을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도로변에 주차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부항리 산 4-12번지 외 6필지로 총 1,973평방미터이며 토지 소유자는 전라남도 교육청입니다. 위치는 현황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길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

지 매입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농공단지 부지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고등어공장의 예전 부지를 농공단지로 편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녹지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하고 개인 토지를 서로 맞교환해 가지고 농공단지 부지를 좀 확장시켜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여기 농공단지를 개발하면..... 녹지공원으로, 녹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녹지를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을 맞교환해 가지고 그 부분도 녹지로 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교환한다면 어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도면..... 본보고서에 좌측 편, 그 회색 부분이 희미합니다마는 좌측 편 부분..... 지적도로 여기에서 보시면 좌측 편, 이쪽 부분이 교환할 곳입니다. 426-6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

○ 박인철 위원

여기 가로로 된 데 여기를 교환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위원님이 보시는 부분은..... 별지보고서로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교환할 부

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고…… 이것을 우리가 가져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틀려버리잖아요. 쓸 수 있는 한도나 이런 것이 다 틀려지는데.

여기 업체가 옛날에 농공단지에 투자했다가 공사를 하다만 업체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하려고 계획을 2014년도부터 잡고 추진해 오다가, 추진만 해오다가 중단된 사항이고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땅 교환도 보니까 쓸 수 있는 땅, 앞으로 쓸 수 있는 땅하고 아닌 땅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 농공단지로 우리가 조성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 토목은 해줄 것입니까, SOC사업이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그 부지에는 본인들이 조성해 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로 편입만 시켜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가는 차이가 있는데 그 부족분은 현금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그 현금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한눈으로 봐도 땅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기 업체에서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저희들이 환매권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환수 조치하면 됩니다.

○ 박인철 위원

환수 조치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에 따른 패널티가 있습니까? 우리가 땅을 팔아서 몇 %의 것을 자기들이 우리 군에다가 더 낸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부지를 갖고 있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 여기다가 그분들이 150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투자를 안 했을 때는, 땅만 바꿔치기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우리 과에서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조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하여튼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다시 한번 동의를 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우리 과 소관 11 페이지, 청산 신흥 슬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산 신흥리 자연 갈대 식재를 활용한 생태공원 조성으로 슬로길과 연계,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소재지는 청산면 신흥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생태공원정보센터 1동, 습지탐방 데크 1.5km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균특예산으로 15억 3,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관리계획 반영 내역은 부지를 매입, 취득하는 것이며 생태공원 정보센터 조성부지 6필지, 그리고 습지탐방 데크 부지

63필지, 총 64필지 4만 9,144평방미터입니다. 소요 예산은 금번 추경에 약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위원장님, 나 한 마디만 하고 갑시다. 의사과에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동의안이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 동의안이 거의 예산 통과를 다 해놓고 올라왔구먼요. 왜 이렇게 업무들이 거꾸로 갑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것이예요? 여성아동과만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조금 전에 예산 1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통과했던 것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되어 가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하루 이틀 늦추더라도 원칙대로 해나갑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의회사무과장을 보며)

과장님, 아셨죠?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좌석에서) 예.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

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국토부 지역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60억 원의 국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대상 토지는 완도우체국 앞에 쓰고 있는 주차장과 노인게이트볼장, 청해시장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액은 총 약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고물상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고물상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감정평가 금액은 약 1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고물상을 매입해서 향후 우리 군의 다른 시설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화 산양진항 주민배합실 재건축을 위한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양진항 대합실이 기획재정부 땅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대합실을 재건축하려면 우리 군유지로 바뀌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기획재정부 땅을 좀 사서 군유지로 바꿔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 한 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저 한 가지……

과장님, 완도읍민의 숙원사업인데요, 여기가. 마냥 국비를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받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으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현재 국토부……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지금 저도 봐니까 다목적 주차장사업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는 주차장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향후 이 사업계획이 끝나고 나면 2027년까지 계획인데, 그 방법을

한 번 위원님께서 고민하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해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구시가지…… 도서개발과에서 하는 구시가지 활성화사업에 여기가 포함이 되는데 이 노른자에 다가…… 물론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만 여기가 개발되어야 만이 완도 구시가지가 개발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7년까지 조성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30년, 2040년이 다 되어봐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통상 5년에서 10년 이런 것……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 이 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확보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민들의 삶에 어떤…… 그리고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불 꺼진 창을 만들어 놔버리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위원님이 고민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 국토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향후 이 계획의 용도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우리 군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핵심지역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국비를 못 받아오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 1년의 순군비를 봐보면 충분히 한 60억, 50억 정도는 순군비를 군수님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가 보니까 예산을 봐보면 우리가 벌써 1회…… 본예산에 4,500억, 1회 추경에 770억, 2회 추경에 금방 한다고 하는데, 순군비 예산을 보면 충분히 한 50~60억은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 지역을 위해서는 굳이 국비…… 물론 국비를 받아오면…… 여기를 개발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순군비로 해가지

고…… 그런 쪽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3필지 중에 일부라도 그렇게 한번……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3필지가 청해시장까지 같이 들어가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완도읍의 노른자 땅입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놔놓는 것 보다는 그냥 우리 순군비를 투자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고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처음에 지역 활성화사업을 승인받을 때 이런 내용들은 이미 승인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을…… 일단 먼저 저희들이 올 하반기 정도에 국토부에 찾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용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먼저 파악을 좀 해보고 그것이 정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국비를 포기하고 군비를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 박인철 위원

국비 60억이 가내시가 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 박인철 위원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

그래도…… 물론 60억이라는 돈이 참 아깝습니다마는 개발을 못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시중에는 금방…… 저번에 군수님이 밖에 분들과 만났을 때 이것을 뭐 사가지고 어떠한 주차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렵……
그래서 한번……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까운 시설에다가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국토부하고 협의하다가 뭐 도저히 주차장으로밖에 쓸 수 없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반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뭐 다른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및 해양공공병원 건립을 위해서 기재부 소유인 신지면 신리 153-20번지와 153-8번지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본필지는 3만 3,683평방미터이며 약 1만 189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라는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47억 원을 예상하고 자산관리공사와 분할 납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0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1호 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21호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재선	허공희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우성자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조인호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홍 의원 발의)
2.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4.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17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홍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본조례안의 발의의원인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나 회의진행 관계로 허궁희 위원님께서 대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완도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의 1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기준과 전문판매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4호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시 기능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표준안에 따라서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2호 완도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의안번호 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규정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 완도군 소상공인지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하였고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입니다.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자구를 수정하고, 제13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지원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소상공인발전위원회”로 수정한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인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33호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김양훈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의안번호 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 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3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35호 완도군 지방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의안번호 243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437호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36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권면…… 금액 및 유효기간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7조에서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제11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준수사항, 환전 대행, 단체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서는 상품권 구매 및 할인수수료, 상품권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19조에서는 회계자금 및 담당공무원 지정,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청취불능) 구매 반환, 유통질서 확립,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7쪽부터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3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제2조 1항 완도사랑상품권 용어의 정의 중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을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를 “완도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제5조 제1항 2호 중 문화시설을 관광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시설로 수정함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검토와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규정에 의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검토하여야 하나 집행부에서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지 않아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안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전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의안번호 2437호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유입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482번지 일원에 완도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하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3개소의 119 안내센터가 운영 중이나 모두 해남소방서 관할지역으로 긴급 상황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대응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소방서를 유치하여 화재와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을 통하여 완도소방서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하고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참조)

·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도로, 공공청사)결정(변경)(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위원장 김재홍

예, 용역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이렇게 되면 용역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올 안에는 어떻게 착공에 들어갑니까?

(방청석에서 “예, 전남도에서 4월에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실시설계 발주를 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산에 사업비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는 직원 있음

전남도가 4월에 추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그러면 바로 발주가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행정절차
가 끝나게 되면 연말에는 발주되지 않겠냐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동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했습
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다음은 의안번호 2438호 지역개발과에서
저희 국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유입니다. 완도군 도시지역일원에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완도군의회의 의
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유입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우리 (청취불능) 지역 자산을 조사, 발굴하고 도
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
전략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계획
으로써 완도군 도시지역의 쇠퇴 정도를 진단, 분
석을 통하여 성장 잠재력을 도출하여 도시재생활
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주민공동체 활
성화로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재생을 통한 활
력 있는 완도군 도시재생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수
립안의 의견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 도시
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 기반시
설의 설치, 정비에 관한 계획, 재원 조달 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등 완도군 도시재생활성화계
획수립안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수립안에 대해서

는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용역사 설명)

(참조)

· 완도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위원장 김재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앞으로 이 계획은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
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46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
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46호 완도사랑상
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7호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찬성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7호 완도 소방서 건립을 위한 완도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한 찬성의 건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8호 완도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 건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부의한 의안번호 제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적근거로 수도법 제47조, 55조, 완도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22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 완도군 의회의……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완도 다량도 외 13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매월 2회 이상 기술자 2인이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하고 기본 소모품 및 약품 교체비용, 법정수질검사 관련 시료 채취 분기별 1회 이상, 상수도 급수 관련 문제 발생 시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법은 기

술제안서 평가로 위탁업체를 선정한 후,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및 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를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장님, 소안면과 구도간 연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 다리에다가 뭐 연결해 놓은 것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공사할 때 300mm 상수도관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구도는 관리사무소를 앞으로 얹었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동의안

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39호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재홍	허궁희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우성자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19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무회계과
 - 기획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이범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정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생활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및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생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만 조례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계획입니다. `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6억 7,487만 원, 보조금이 1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92억 3,653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9,864만 2,000원, 기타수입이 810만 원으로 총 112억 6,315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조수입이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가 3억 원, 예치금이 109억 6,315만 원으로 총 112억 6,315만 원이며, 당초 계획 대비 재난관리기금에서 비용자성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2억 3,653만 8,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은 수입이 20억 2,661만 2,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수입이 지출보다 17억 2,661만 2,000원이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9억 6,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보고 설명을 마치고, 기금별 세부 운영계획은 기금운영부서에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금을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그중에서 보면 식품기금이나 생활폐기물, 옥외광고. 이쪽은 최근 5년간 전혀 사용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뭐 할 일이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그 실적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옥외광고 정비기금 등은 전입금이 소액이라서……

○ 김양훈 위원

최근 5년간 기금만 형성해 가지고 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의미 있는 사업 같으면, 기금 같으면 차라리 분석해 가지고 폐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법적으로 기금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폐지는 어렵고요. 기금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우리가 존속기한은 5년인데 5년 동안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아무리 법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할 일이 없는데, 계속 0원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래서 나중에는…… 앞으로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좀 잘 판단해 가지고 필요 없는 기금 같으면 삭제하고 새로운…… 내가 봐서는 기금 조성할 다른 사업부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의미 없는 기금들은 좀…… 하고, 새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통합관리기금 운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기획담당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5,988만 원이 증액된 7억 2,864만 7,000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정기 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재난홍보물 제작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7,864만 7,000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와 같은 1억 5,487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6억 6,876만 7,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자수입도 501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마는 이월에 따라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7,864만 7,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용자성 사업비 1억 원과 전라남도 보조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총 2억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7억 2,864만 7,000원과 같습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하여 세운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과 16쪽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이며 전입금 13억 5,026만 7,000원, 보조금 10억 400만 원, 이자수입 2억 8,124만 4,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7억 2,593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집행액은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비용자성 사업비 18억 9,731만 3,000원이고 잔액은 8억 2,861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19년도 말 예치금은 2018년도 말 6억 6,876만 7,000원에서 1억 5,487만 원이 증가된 8억 2,36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계속해서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원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장학사업 추진 및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도서 고등학교 조식비 지원사업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하여 총 2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라남도 도서지역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완도군이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하여 도서지역 고등학교 조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금일고, 노화고, 고금고, 약산고등학교 학생 89명에게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식 기준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4개 시군 도서 고교에 한하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니, 본예산에 출연금이 23억이나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4,100만 원을 갖고 가서 하지, 또 추경에 그것을 한다고 여기에 넣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이후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23억을 할 때는 올해 쓸 것하고 또 장보고장학회에다가 예치할 것까지 다 넣은 것 아닙니까. 23억을 넣을 때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본예산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라……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이후에 발생이 됐는데, 본예산할 때 장보고장학금 이것 23억도 통과를 안 시키려다가 시켜서 나갔는데, 그때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4,100만 원을 거기에서 갖다가 써야지, 필요할 때마다 우리 순군비 예산을 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그 23억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해가지고……

○ 박인철 위원

아니, 이사회 의결을 했는데 이사회 의결한 것이고 여기 이 예산 통과하는 것은 별개잖아요, 그것은 장보고장학회 이사회지, 우리 의회에 와서 통과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위원님, 그것은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3억이 전부 다 들어가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교육청하고 이미 사업계획이…… 장학사업의 모든 계획들이 다……

○ 박인철 위원

장학사업을 한다고 언제 23억 8,500만 원이 통과되어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의회에 보고해 준 것 있어요? 이 23억 8,500만 원이 어디어디에 올해 쓰인다고 본예산 통과된 뒤로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해 준 것 없죠?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산 설명할 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구요.

○ 박인철 위원

무슨 예산 설명을 해줘.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산 그……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적립된 것은 어디에다가 써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24억씩, 25억씩 본예산에서, 순군비에서 장보고장학회로 줘야 돼요. 200억을 돌파할 때까지? 그러면 그 200억은 언제 돌파해요. 예치금을 하나도 예치를 못한다고 하면?

출연금에서 1년에 이렇게……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하면 24억 정도가 가는데, 그러면 24억에서 하나도 예치는 안 되고 전부 1년마다 쓰는 비용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24억을 다 어디에다가 써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매년 4억씩 예치를 하고 있고요. 150억이…… 지금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155억까지 모금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매년 적립액으로 4억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완도 명문학교 만들기, 수산 마이스터고 이런 데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일정 부분 나가야 돼요. 여기에서? 교육청 무지개학교, 이것도 안 된다고 할 때 다른 시군도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군도 했다고……

이런 것을 그러면 한번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사업…… 이용해 가지고 이것 한번이라도 교육청에서 받아봤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쓴다고? 용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2억을 주는데…… 신영균이 과장할 때,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부터 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줄 때 주고 나서 그 돈을 어디다가 교육청에서 썼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봤냐고요. 그 밑으로도 지역교육사업 지역을 통괄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또 1억 5,600인가 주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주는 것 빼고.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교육청으로……

○ 박인철 위원

교육청으로 돈을 줬어도 우리가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 군에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구분해 가지고 다음 연도에 필요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맞습니다.

1억 5,000이 통으로 나간 것은 매년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께 방과후학습이라든가 체험학습들을 받아서……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지 않고요. 다른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일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산을 받아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봤냐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한번이라도 보고해 줬냐고. 아니, 장보고장학금에서…… 그 재단에서만 하고 그냥 끝내버린 것 아니에요.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주고, 왜 이런 돈이 필요한가.

물론 교육비…… 섬의 고등학교 조식사업 뭐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장보고장학기금을 가지고 활용해야 돼. 꼭 필요하다면 전부 다 예산에다가, 본예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이나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 본예산할 때도 장보고장학재단을 다시 한 번 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이 진즉 끝났더구먼,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리고 방금 조식비 부분은 오늘 우성자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우성자 위원님이 강력하게 건의하신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다니까요. 좋은데, 기본 장

보고장학금 거기에서 가지고 가야지.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 예산에서 그것을 떼어주라, 떼어주라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보고장학금을 만든 것이 뭘니까. 그런 데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150억에서 200억으로 올려놓고 200억을 채울 때까지는 하나도 안 쓰고, 지금 장보고장학금 뭘 행복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 같은데. 기금도 얼마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사업할 때마다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그러면 우리 순군비로 갖다 집어넣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행복기금이 150억이 넘어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200억을 맞춰가야지. 돈은, 모아진 돈은 하나도 안 건들고.

올해도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서 23억 5,0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15억씩 하다가, 예산이 끊겼다가 다시 200억으로 늘리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예산이 23억이나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올해 본예산에도.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155억이 현재 모아졌습니다는 200억까지 확대 조성됐을 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억이 될 때까지 안 건든다고 가정해 놓고 나니까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에서 주라는 것 아닙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 기본 재산으로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원금은 손실이 없도록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은 항상 200억이 기본 재산으로 되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수입과……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00억이 안 차면 나머지 장보고사업은 이자 수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안 나오면 해마다 우리 본예산에서 순군비로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것입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원금은 어떻게 가져다가 쓸 수는 없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탁금……

○ 박인철 위원

1년 이자수입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져서 한 2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세우면, 이 정도 액수로 안 세우면 24억이 되니까 25억으로 안 세우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지금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장학사업하기가……

○ 박인철 위원

우리 지방 재정이 얼마예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지금 자체 재원이 350억 정도.

○ 박인철 위원

아니, 자체 재원이 350억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냐고. 엉망진창인 데에서 200억 목표로 해놓고, 뭘 장보고장학회에서 200억을 목표로 해놓고, 그리고 200억이 찰 때까지는 한 푼도 못 건들고, 그 이자수입 얼마, 이윤도 떨어져 가지고 이자수입도 얼마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순군비에서 25억 정도는 해마다 풀어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결론이 나구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모금액도 거의 뭉야, 행복기금으로 가버리니까 장보고장학금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장보고장학금 이사장 재단으로 해서 장보고장학금부터…… 뭉야, 이사회에서 장보고장학모금하기 위해서 어디 모금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우리 예산을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꼭 할 사업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이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긴급적 군비 부담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19호 2019년도 기금운용 및 출연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생활 SOC 등 신규 발굴사업들을 우선 지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 수입은 세외수입이 3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가 `19년도 교부결정액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173억 4,6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본예산 미반영액 22억 원,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2,300만 원 등 지방교부세로 195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0억 원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된 214억 3,200만 원을 반영하여 보전수입은 총 운영수입 총 반영액은 440억 100만 원입니다. 또한 `18년도 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41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770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과다 전출된 13억 9,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 규모는 본예산 4,509억 원 대비 770억 원이 증가한 5,280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5%, 재정자주도는 53.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2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900억 4,800만 원, 784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79억 9,500만 원으로 13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732억 3,000만 원으로 214억 3,2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군비 부담금은 767억 5,200만 원으로 176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37억 9,2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42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반환금 428억 8,400만 원을 제외한 355억 7,1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액은 총 556억 9,2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자체 심사한 결과, 보조금 및 용역과

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64%인 35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본급 및 초과근무 수당 단가 인상분을 적용하고 국비 보조 공무직에 대해 우리 군 공무직과 동일하게 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 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총 18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책 수행을 위한 직무 수행경비 증액분 1억 1,400만 원과 의사, 진료활동 장려 및 연말 부서 및 읍면 포상을 위한 시상금 등 포상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비 4,200만 원, 관내 고교 기숙사생 조식비 지원을 위한 장보고장학회 출연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회계별 추가 전출금 13억 6,000만 원과 본예산 의회 의결 시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21억 5,700만 원은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6억 원으로 편성되었던 21억 만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 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0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은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6,600만 원, 행사축제경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61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22억 4,800만 원, 여비 4,100만 원, 일반보상금 9억 7,400만 원 등 총 60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완도사랑상품권 발행, 노인목욕비 추가 지원, 본예산에 50%만 반영된 맞춤형 복지예산 추가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은 지양하여 연례에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 확보, 토지 매입 사전 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248억 3,100만 원, 민간자본이

전 17억 9,5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6억 1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3,500만 원 등 총 30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예, 잠깐만……

저기 43쪽이요, 상단에. 본예산 대비 거의 94%, 연구개발비가 17억이나 증액됐는데, 주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거의 100% 증액이 됐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 대비 용역비가 5억 정도 되고요, 일반 학술용역비가 6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해야 될 기술용역비가 6억 편성되어서 총 17억이 용역비로, 연구개발비로 편성됐는데 이중에서 6억은 시설비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 잘못되어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술용역비가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6억을 빼도 이렇게 1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거의 보면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심사에 가서도 보니까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 예산들을 보니까, 용역심사에 안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주요……

○ 박인철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 불용이 났다고 해가지고도 오고, 보니까 가로로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심사가 아니라고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70억이 이렇게 났던데, 이것도 거의 100% 본예산 대비 증액됐던데, 이것은 뭐…… 우리가 이번에 땅을 이렇게 많이 삽니까, 우리 군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이라든지, 거의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 뭐 조건불리제 34억 원, 그다음 살처분 보상금 8억 원.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른 (청취불능) 포상금이라든지 물품……

○ 박인철 위원

살처분 같은 것, 이번에 그러면 고금도에 브루셀라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국도비.

○ 박인철 위원

잘 알았고.

그리고 44쪽에 보험금 한 30억이…… 이렇게 해가지고 증감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146%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보험금인데 어떤 종류의 보험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8억 원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 본예산에 안 잡아놔서 추경에 잡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서 뭐한 것입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국도비가 확정돼서……

○ 박인철 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 주무관 이인석

예, 추가로 그런 것도 있고.

○ 박인철 위원

아니, 너무 갑자기 150% 정도가…… 본예산에 안 잡고 이렇게 났는가.

그리고 45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96억이 증가됐는데, 96억 정도 편성됐던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한 4억 원 정도,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가 4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촌 뉴딜사업 친환경에너지……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안 내려왔다가 지금…… 이것도 국도비입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어촌뉴딜은 새로 이번에……

○ 박인철 위원

그니까요, 두 군데 되는 것.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나머지는 증액분.

○ 박인철 위원

아, 국도비는 증액……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예, 확정됐고.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131쪽을 보면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국도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보조인데 고용노동부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정정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정정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자금용자 특별회계하고 간척지 농지 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보면 1,000만 원, 전부 다 1,000만 원짜리고 고유 목적하고는 거의 뭐 제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서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택자금 특별회계는 법률상 의무 회계사항이라서 폐지가 불가하고요. 간척지구 농지기금은 2019년 올해 내외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주택자금 용자 45년간 해가지고 한 8억 원 미화수금이 있죠? (예)
그것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민봉사과에서 보고드릴 때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전수입 내부거래에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99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입니까, 어떤 예산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일부 작년…… 저희가 예비비로 3회 추경에 예비비로 남았는데……

○ 박인철 위원

예비비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정기추경에 남은 금액 99억 중에서 예비비로 작년에 사용한 금액이 있어서, 약 74억 원 정도 있고.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해보면 알 것인데.

아니, 왜 이 말을 하나면요. 각 부서에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왜 이 말을 하나면 예산제에다가 예산을 주라고 난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의회에 와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잡아주라고 예산제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 결산검사를 해버리면 불용액이 200~300억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이 말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국비 잔액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공사를 하다가……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이번에 추경 잡은 데도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이 이야기했지만 각 실과에서는, 읍면에서는 500억 이상 해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뭐하냐는 말이에요. 연말, 연도 폐쇄될 때 보면 불용액이 한 200~300억씩 나와 버리고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라고 명시이

월을 보면 이유가 하나같아요, 각 실과부서마다 집행 잔액의 이유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주라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번에도 4월에 결산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어느 부서나…… 내가 저번 7대 때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불용액에 대한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가 틀린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더 이상 일을 안 해버리면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나와 버렸다는 것은…… 또 회계결산하면 또 나오니까, 잉여금이? 작년도, '18년도 잉여금이?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이것이 다 결산한 것인데, 거의 여기에서 뭐……

○ 박인철 위원

이 정도입니까, 더 나오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이 정도.

○ 박인철 위원

이 정도로요?

하여튼 우리 예산계에서도 고생하시는데요. 이런 것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많은 액수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뭘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던데, 해년마다 이렇게 잉여금들이 많이 남아 버리니까……

이상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잠깐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박인철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을 수록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 있게, 계획성 있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낙찰 차액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인건비도 예산을 해서 수치상으로 세워놓고 보니까 1년…… 마지막 집행해 놓고 보면 좀 남

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해마다 보면 300 내지 400억씩 1회 추경을 할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재원을 같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을 안 해서, 등한시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일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통째로 빠져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그 이유가 전부 민원하고……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는 장구해 가지고 잡을 것인데, 보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러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느…… 물론 사업부서가 많습니까마는 자치행정과도 저번에 제가 봐보니까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아주 엄청 주라고 하더니만 남은 예산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는 이 말이에요, 내가 2016년도에인가 결산검사를 봐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 때라든지 그런 때에 정리를 잘 좀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산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요, 예산 집행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웅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280억 4,27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0억 8,70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900억 4,813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19.06%인 784억 5,4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79억 9,466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47%인 13억 6,75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2억 9,027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3억 1,66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인 지역개발과 화흥포 여객대합실 위탁수용료가 1,584만 5,000원,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수입이 696만 원, 이자수입인 세무회계과 저축성 이자수입이 2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인 경제교통과 2018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수입금이 1,3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95억 6,886만 5,000원이 증가한 2,289억 9,61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

관 보통교부세 173억 4,636만 5,000원, 특별교부세인 2019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 1,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억, 소방안전교부세인 안전건설과 지방하천 유지관리 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30억 원이 증가한 65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14억 3,245만 4,000원이 증가한 1,732억 2,999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0억 6,961만 5,000원이 증가한 1,515억 1,3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50억 1,590만 9,000원이 증가한 382억 9,7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기금은 18억 991만 5,000원이 증가한 47억 8,42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43억 6,283만 9,000원이 증가한 217억 1,65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4페이지부터 1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세무회계과 순세계영여금 341억 3,067만 8,000원이 증가한 541억 3,66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은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완도군 청사 전면 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완도 군 내리 650-1번지입니다. 군청…… 군의회 옆 부지입니다. 규모는 490평 규모로 사업비는 군청 본관동 전면입니다. 규모는 490평으로 6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용은 캐노피사업과 공원화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을 보면 사업이 1억 5,000. 기존 캐노피를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화사업은 공원화 조성 및 폐기물 처리가 4억 5,000입니다. 캐노피를 철거할, 철거하려고 사유를…… 버스가 군청 앞으로 해서 지나가는데 공원화사업을 하면 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스가 지나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를 철거하고요. 좀 높이를 조정하고 밝은 색깔의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군청 전체 주변이 282면입니다. 전면 31면, 우측 9면해서 공영주차장까지 102면, 그래서 282면입니다. 공영주차장 102면을 조성하면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현 주차 수를 전부 충족할 수는 없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군의회 옆에 완도읍 군내리 722번지 3필지 343평입니다. 주차면은 100면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세무회계과에서는 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 후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경제교통과에서는 2020년 군특사업으로 30억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52억 6,261만 7,000원으로 49억 9,7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1,078만 1,000원이 감됐고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부군수 관사 유지보수비

500, 경비용역 500, 청해관 분리수거 구입 500, 공공요금, 전기요금 3,200, 통신요금 3,600.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군의회 사무실 가감기 교체 1,000만 원, 군청 자동문 설치 1,000만 원, 군청 앞 광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 페이지 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240쪽입니다. 군청사 전면 도시공원화 사업 6억 원, 금당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2,000만 원, 금일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만 원, 금당면사무소 도장 및 방수공사 2,000만 원,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안내데스크 제작 40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가전제품 구입 1,050만 원, 고금면 총무사 집기 구입 400만 원, 자치행정과 대회의실 접이식의자 구입 500만 원, 다음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소안고등학교 매입비 13억,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 5억 원, 군건물 리모델링 공사 4,000만 원, 문화원 2,000만 원, 군민회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사 관리에서 시설비, 완도읍 직원관사 소규모 보수공사 1,000만 원.

241쪽입니다. 금일읍 지봉관사 개보수 1,500만 원, 노회읍 직원관사 개보수 4,000만 원, 금당면 면장관사 보수공사 1,000만 원, 보길면 관사 개보수공사 1,000만 원,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직원 관사 노후집기 교체 900만 원, 다음은 행정선 관리입니다. 시설비, 행정선 충전기 배정판 교체 400만 원, 다음은 행정차량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정차량 보험료 지급 500만 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 운영 차량 신규 구입 2,200만 원, 다음은 계약 및 복식부기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용역 500만 원,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는 인력경비와 기본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일읍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조성공사에 있어서요, 그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면사무소 주변입니다. 읍사무소, 그 관사하고 또 화장실하고 그런 데를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요, 읍장관사를 기존에 쓰던 농어촌기술 센터소장 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읍장관사는 그런 데로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아, 그러면 용도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원인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3억 8,000이 되어서 그래서 여쭙본 것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주차장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든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볼게요, 241쪽이요, 해양치유산업과 프로그램 운영 차량 신규구입이라고 했는데 용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해양치유산업과가 타워…… 좀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러면 해수욕장을 자주 다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번에…… 하나 여쭙볼게요, 다른 용도로요. 각 읍면 차량 다 보류됐죠, 행정차량?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노후가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 조건을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5년 이상 지나고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또 킬로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 박재선 위원

그러면 10년이 넘고 19만 킬로, 20만 킬로 가까이 뛰었는데도 안 바꿔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차가 오래되서 운행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리고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에 대해서요, 이 돈이면 가능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한번 그때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시설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봐서…… 동초등학교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감정평가 금액을 봐보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꼭 군에서 매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청사관리비에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문서고 하고 청해관이 어디예요. 239페이지, 돈은 300만 원이 안 되는데 문서고하고 청해관 경비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부지를 교체했습니다. 경찰서 관사, 민원동 옆에. 거기를 문서고로 사용하거든요, 문서고가 부족해서. 문서가 폐기용도로 된 것을 거기에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해야 돼서 거기 경비를 강화시켰습니다.

○ 박인철 위원

청해관은 어디예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청해관은 지금 새로…… 망석리 관사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이것 저번에 본예산할 때 1년치를 다 쫓다고 하더구면, 갑자기 3,200만 원, 3,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 그만큼 전기를 더 써요, 아니면 요금도, 통신요금도 그만큼 더 써요? 아니면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다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부족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 박인철 위원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어 가지고, 조기집행 때문에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다 잡았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완도군청 전면 공원화사업이요, 이것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전체 군

비가 들어갔는데, 옛날에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올라올 때도 1억이 더 붙어있었는데, 그것은 가만히 빠져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을 본 예산에 하고 나서 지금 4개월, 5개월 쯤 접어들다마는 내가 아침마다 의회에 출근할 때 청사…… 공공주차장이 준공되고 나서 저 앞을 봐 본다는 말입니다. 앞이 어떤가, 주차 수요가 어떤가. 그런데 항상 만차예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군청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지금 직원들을 못 대게 하거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저기가 항상 만차인데 민원실 말고 본관 앞 저기를 공원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주차면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래서 의회 옆에 거기를……

○ 박인철 위원

아니, 공유재산계획 반영도 안 됐잖아요, 이것을 반영하고 나서 그것을 먼저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고 나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불을 보듯, 민원인들의 원성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 먼저 공원화해 버리고……

그 당시에 용역비를 줄 때도 뭘니까,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플러스해 가지고 이 공원을 만든다고 분명히 내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군비 1억을 들여가지고 앞에 캐노피도, 아무 이상도 없는 캐노피도 철거한다고 그러고, 그때 환경산림과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과 두 과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공원화…… 명품도시 공원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플러스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순군비만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물론 인사 있기 전에 문제인데, 과장님하고 팀장님 인사 있기 전 문제인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을 갖고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부지매입비는 올라와 있으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이 옆의 부

지를 확보하고 이 공원 조성을,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나서 하는 것이? 이렇게 급하게, 막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용역비를 주라고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하듯이, 기억을…… 환경산림과인가 도서관개발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 도시 재생해 가지고 뭐야, 명품공원해 가지고 국비까지 플러스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주차장을 이전에 102면을 조성했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한 60대를…… 세보니까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옆까지 직원들도 주차를 하고, 도로변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앞을 민원인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항상 만차가 되는 것이…… 여기 뿌리건축사나 이런 데를 봐보니까 2대씩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봐보거든요. 몇 번 거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대고 어떤 사람들이 내리고 그러는가. 그런데 그런 주변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그러니까 일을 보러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차를 못 대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뒤쪽으로 대고 그러는데.

○ 박인철 위원

저도 과장님, 물론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을 준공하고 제가 한번 봐봤어요. 여기가 만차가 됐을 때 공영주차장은 어떤가, 공영주차장도 거의 만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비었든, 안 비었든 간에 여기를 봐보니까 내가…… 일부러 거기에만, 거기를 가기 싫어서 여기에 주차하는가 해서 한번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거의 만차입니다. 거기도,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봤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후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100면

을 만들고 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시급한, 막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뭐 급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번에 용역비…… 설계를 한다고 설계비를 할 때 국비까지 해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도시숲 조성인가 명품숲 조성인가 내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여기를.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저희들이 여기 옆에 공영주차장을 빨리 조성하고, 또 만약에 주차면이 부족하면 직원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혼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차를 타고, 퇴근 때 타고, 또 다른 약속이 있으면 하루 종일 세워놨다가 그 다음 날까지 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를 하고 차를 안타고 오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한 10분이나 20분 빨리 걸어 오면 되는데. 그런 운동을 좀 하고 해서 앞에 주차장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군청 앞에 공원도 없고…… 나무도 좀 몇있는 것을 심고 그러면 군청을 찾을 때 안정감도 들고 포근함도 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에 올 때 보면 참 메마른 인상이 들고 군청이 좀 그런다는 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일단 기존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다른 것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했다고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일론 의회간담회가 있을 때 올리고, 부지매입비도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하고 나서, 의회에다가 하고 나서 넣어놔야 됐는데 없고, 이것도 경제교통과에서 국비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3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 될지, 채택이 될지 안 될지도 어떨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계획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이 다 완성됐을 때 여기에다가 과장님의 말씀처럼 공원을 조성하

는 것이 낫지 않냐.

물론 우선 거기에 두 필지가 있는 것은 매입을 하시고 매입비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그랬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보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저는 240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안고등학교, 노화동초등학교 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활용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노화 쪽에는…… 아니, 소안 쪽은 소안에 들어가는, 면사무소에 가는 입구 쪽이 고등학교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선 주차장 조성을 개인이 사서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없애는, 읍면사무소 앞에…… 그리고 거기 소안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의 사무실하고, 또 게이트 불량하고 그런 계획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노화동초등학교는 지금 주민들이 요양병원을…… 요양원을 해주라고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지금 당장은 뭐 그런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요양원을 좀 신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또 다른 일반주민들이나 사업자가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를 사용해 버리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요.

○ 김양훈 위원

앞을 보고 그냥 매입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를 안 하고 이 13억, 5억을 올린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만 가겠다 싶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저희들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예산서에 올리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교육청에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얼마 정도 나올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전에 제가 교육청 담당계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감정평가는 같이 3월 말경에 의뢰를 한다고 그래서 5월까지 매입 추진을 완료한다고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단가가 더, 매입비가 높아진다고 그러면요. 2차 추경이 있다면 또 올리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이제 매입하게 되면 그래야죠.

○ 김양훈 위원

만약에 적어지면요, 절감해야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적어지면……

○ 김양훈 위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얼마 가겠다고 대충 짚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와서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

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96억 3,637만 원이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19억 7,960만 7,000원이 감액된 76억 5,6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157쪽입니다. 포상금,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예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운영 연구용역비, 완도군 권역별 내적 성장 요인과 지역 잠재력을 중앙 및 도 정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완도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 용역비 2,000만 원과 완도군 홍보동영상 기존 자료에 문화, 인물을 추가하는 홍보동영상 수정 제작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외평가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지역발전 투자사업 시범사업 응모 기초자료 조사와 2019 군정홍보책자 제작 각각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이미지 및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 청정바다 수도 완도 연중 홍보 캠페인 홍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군정 취재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정 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렴 및 반부패 관리 사무관리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읍면 순회 공직자 청렴 교육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관리 연구용역비,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용역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금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7페이지예요, 청정바다수도 완도 연중캠페인 홍보요, 그것 누구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수도권에 있는, 완도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완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수도권에 있는 우리……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것은 바다환경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완도군 전체적인 홍보사항입니다.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울에 있는 대도시 전광판에다가 1년 내내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게 해양정책과에서도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양정책과는 청정바다수도, 바다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서별로……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또 정책과에서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하죠.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겹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입니다. 완도군 전체적인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완도를 알리고……

○ 박재선 위원

전국적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습니다. 전국적입니다.

○ 박재선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게 지금 연중 3월부터 시작해서 4월부터 아 마……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12월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157페이지를 보면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비라고 있죠? (예)

이것이 아까 잠깐 국가…… 도나 거기 시책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현재 동서…… 완도 체도권, 그다음에 동부권, 서남부권 이렇게 해서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완도군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새로운…… 그 뭘니까, 시책을 발굴하고, 또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종합계획이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죠,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발굴해 보고, 종합계획이 10년 단위로 결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종합개발이 수립됐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연구용역을 실시해볼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을 어느 정도로 기간을 두고 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사실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연구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최소한의 용역이…… 우리가 보면 보통 기본이 1,000, 2,000인데, 적어도 종합계획에 안 되면 완도의 특성에 맞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권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발굴해 볼까……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그게 2,000을 가지고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기왕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죠, 내가 봐서

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도에 `21년도에…… 아니, `20년도에 완도군 종합개발계획 별도 용역이 착수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발굴된 연구용역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대규모로 용역에 다시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 정도로 용역 같으면 우리 직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하게 되면 직원들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중앙정부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먼저…… 더 잘 알잖아요, 완도에 관해서. 종합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도 잘 알 것이며, 또 평소 생각하고 있던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먼저 참조해 가지고 그런 것을 토대로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것에 착안해서요. 용역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 기본적인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해서요. 원래 전문가라고 그러면 직원들이라고 보거든요. 직원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더 잘 파악하고 더 잘할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이 있어야 만이 위 정부에 올리겠죠. 그러기 전에는 직원들한테 먼저 제안을 받아보고 아이디어도 창출해 보고, 그런 데를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 뭐든지 보면 우리가 용역, 용역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보면 우선 직원들이 할 것도 보면 용역, 뭐든지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깊이 판단을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일반적인 사항들은 직원들이 할 수 있겠지만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부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사업도 용역을 해서 좋은 사업들이 중앙부처에 제시가 되면 공모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용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이 돈은, 이 예산은 너무 적다는 얘기고, 내가 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158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신규현안 공모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모사업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실사를 하는데 일정한 시기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불시에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모집합니다. 그런 데에 응모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다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실에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놔다가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 요구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각 부서사업을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6,000만 원 세워놓은 것은…… 이미 진행된 공모사업 용역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000만 원 중에서 `19년도 노화 소당 도청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서 수립 용역으로 1,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해양치유산업과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에 따른 해양치유포럼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 김양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것을 한번 갖다 주십시오, 그런 용역 내역서를요, (예)

그러면 이번에 4,000만 원 2건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놓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용역비로 확보를 하는데, 그 외에 불시에 부정기적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실에다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직은 뭐 어떤 것……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나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보통 용역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한 2~3개 정도는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해서 4,000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다.

○ 김양훈 위원

방금도 그런 말씀을, 옆에서 최정욱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2016년, 2017년, 2018년 용역 내역을 한번 봐봤어요. 용역비가 거의 한 30억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많은 용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고, 진짜 못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를 보니까 거의 30억 가깝게 용역비 증가가……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158페이지요, 그 CI 개발비,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브랜드 개발 수요가 없어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통과된 지가 4개월이 됐는데 그런 예측도……

그러면 그 밑에 또 그렇게 용역, 용역하지 마라고…… 완도군 대표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이 2,000만 원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수요가 없어서, 계획이 없어서 감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CI 같은 이런 것은 돈을 많이 하게끔 되면 돈을 더 넣어 가지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당시에 우리가 CI가 다 개발됐으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고 하나씩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4,700 이렇게 되고, 밑에도 2,000만 원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브랜드……

○ 박인철 위원

정기 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 버리면 어디…… 어느 실과나 용역비나 이런 것을 브랜드라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맞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금방 이 용역심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권역별…… 어디, 무엇을 하겠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2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번에 담당관님, 완도신문을 봤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한 1억 2,000짜리 관광용역도 보니까 중간보고회할 때 한번 살짝 의회에 와서 보고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1억 2,000을 가지고도 용역 같은 용역도 안 해놓고 그냥 짜깁기 용역을 내와 가지고 그렇게 신문에서도 맞고 그러던데, 2,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권역별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것인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왜 이렇게 본예산을 할 때 이것이 꼭 굳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기추경에 이것이 삭감됐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예산은 268억 2,098만 2,000원으로 금번 1회 추경에 10억 6,514만 9,000원이 증액하여 총 예산안 규모는 278억 8,6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범도민 분권운동 추진 4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3.1운동 기념행사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완도군 공인신조 제작비용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교육을 위한 고객만족 cs연극 600만 원과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관련해서 164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복지카드 사용료 지원을 위해 6억 4,04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종합건강검진비 포상금으로 1억 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위탁 교육비 2,500만 원과 165페이지, 약산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페이지 문서뷰어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2,300만 원과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구매 5,314만 원, 읍면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재난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변경과 목변경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시군 포상금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진흥 운영 출연금으로 관내 도서지역 4개 고등학교 식비 지원사업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지킴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5,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됨에 따라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비비사업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보조율이 당초 50%에서 30%로 변경되어서 1,155만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역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이요, 재료비에 미세먼지 지킴이 초·중 학교 무상급식 수산물 식품비 지원사업 그 부분 1억 5,000.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어떤 것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해조류는 여러 가지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마는 성분 내에 알긴산이라는 다당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 간에 들어가면 거기에 흡착물 성분이 있어 가지고 각종 오염물을 이렇게 같이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해조류를 학교급식에 줬을 때 학생들이 이 해조류를 잘 먹을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농공단지라든지 기존 제조업체를 보니까 가공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은 해조류, 원조를 이렇게 좀 하고…… 간식류, 이런 부분들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직 어린아들한테는 해산물이나 해조류를 주면 안 먹고 많이 버리는 경향이 참 많거든요. 이것이 잘 가공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수산물 이렇게 해서 아마 인증되어야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인증이 받아졌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고요. 관내에 제공된 해조류가 상품의 질이 저하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협이나 이렇게 교육기관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현재 생산하는 어민들하고 바로 직영하는 그런 체제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검토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급식소 이쪽은 친환경 자체에 응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넣게 물건을…… 이것도 확인 안 해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것은……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교류협력팀장 우홍창입니다.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자재 급식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무상급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식재료 자체비…… 그 재료비를 공급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별개입니다.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자체비는 별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게 무상급식이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먹는 것은?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친환경급식자재라고 해서 친환경급식으로만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일정비율을 하라고 해서 그 비율로 하고 있고요. 무상급식으로 해서 국, 반찬을 포함해서 일반반찬들 모든 것이 친환경자재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급식을…… 이렇게 수산물 식품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뭐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직 구체적인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약을 하면서 수협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

는, 그런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납품할 데가 수협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제 농공단지협의체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은 잘 검토해 보시고요. 학생들이 먹기 좋게 해조류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상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가서 보면, 저도 예전에 운영위원장 이쪽을 해보면서 학교에 가보면 맛있는 것은 전혀 안 먹습니다. 다 버리고 쓰레기로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제품 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할 부분인데 여성아동과하고 이것이 겹쳤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여성아동과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는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업무 소관이 다릅니다. 담당.

○ 김양훈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164쪽이요. 다 삭감예산이 통계행정, 인건비하고 연구용역비. 이것을 올해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왜 자치행정과에 세우냐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세워놨는데,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이 예산을 세워줄 때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이 예산이 왜 지금 자치행정과에 들어와야 되는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자치행정과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총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 지표조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냥 뭐…… 삭감이유가 있어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초에 저희들이 통계 관련해 가지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실시하려고 했는데 하반기부터 내년 `20년 통계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농림어업 총조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통계청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군에서 하나고 하나냐 전남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한테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예산서를 펼쳐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주라고 할 때는 엄청나게 해가지고, 보니까 자치행정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삭감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삭감조서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울 때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69페이지, 이 미세먼지는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감 대응조치를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도에서는 해조류가 마침 미세먼지에 탁월한 효능도 있고 그래서 해조류 소비 촉진,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군수님이 직원들…… 조례에서도 이야기하고 간부들 원로회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축사에서 이야기하고, 원도

군에는 미세먼지가 없고 무슨 풍인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불어와 가지고 완도에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러던데, 그동안 완도의 미세먼지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지역보다 완도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좀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지역도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보팔할 때…… 주민들이 놀립니다. 그런 것들 하찮은…… 지금 간부회의에서 말이 나오면 전혀 주민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그런데 완도는 미세먼지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기상에서는 다 미세먼지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함부로 이야기하기 뭐한데.

(집행부 좌석을 보며)

예산제에다가 물어볼게요, 이 미세먼지 이런 것 전남도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극 활용해 가지고 미세먼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순군비로 이렇게 해냈죠,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공문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공문에 예비비나 재난관리비로 사용하라고 내려와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3월 8일자로 내려 보냈구먼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산이 이미 1회 추경 편성 후, 마친 후에 공문이 내려와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도에서? 공문만 내려 보낸 것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각 지자체별로……

○ 박인철 위원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164쪽예요, 무인멀티콥터, 뭐 드론 이야기입니다. 교육비가 2,500 있는데 열 분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예)

어떤 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설명 좀……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이 부분은 완도에 드론교육센터가 들어와 있어서 앞으로 드론산업이 시장 규모도 커지고, 또 굉장히 행정적으로 활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드론 활용도는 앞으로 수산양식장에…… 뭐 모니터링하고 적조 감시나 산불, 이런 부분에 굉장히 활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홍보, 관광, 지적, 산림, 농사, 수산 이쪽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공무원에 한해서요? (예)

일반인들은……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일반인들은 아닙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추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756억 4,149만 2,000원에서 14억 8,316만 6,000원이 증액된 771억 2,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0억 3,239만 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0억 9,226만 8,000원입니다.

171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호국보훈 기념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누락되었던 재향군인회 감장 담기주기 행사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박창근상사 추모제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보훈청에서 행사……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삭감돼서 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쪽, 장애인복지 지원 시설비 완도군 장애인총연합회 2층 계단 (청취불능) 도색 등 개보수사업비로 2,000만 원.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1층 입구 옆 공간 프로그램실 증축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비 지원 8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지원, 사무관리비에……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520만 5,000원, 기타보상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0명 운영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시설비로 국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1,200만 원. 부랑인 보호,

사무관리비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 550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도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을 위한 임시 인력 1명 한 달 인건비 190만 원. 사무관리비, 도비보조사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비용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아래에 정부양곡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국비 100%인 신규사업으로 정부양곡업무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사무관리비, 민선7기 도지사 신규 공약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 불편사항 신속해결을 위한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1,012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앞장에 102쪽, 시설비, 도비 신규보조사업인 우리 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에 따른 비용 2,4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기말수당 외 4건에 대해서 1,284만 3,000원을, 4대 관리사업 운영 민간자본사업보조, 사례관리대상자 집수리 사업 대상자가 추가 발생하여 당초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아래 부분, 노인복지사업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0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처우개선 교통비로 월 당초 3,528만 원에서 880만 원이 증액된 4,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원 및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제13회 대한노인회 게이트볼대회 및 제21회 민속경연대회 비용으로 당초 3,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4,200만 원이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군 읍면 경연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읍면이 시행하는 해이므로 대한노인회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당초 7,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0만 원을, 종합복지회관 지원 및 관리 시설비로 종합복지회관 증축에 따른, 작년에 매입하지 못한 합평식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부지 추가 매입비용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의료기기 지원으로 당초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 도비 신규보조사업인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보조사업인 소안면 서중리, 보길면 경로당 보수 2,000만 원씩 4,000만 원, 청산면 경로당 리모델링 2,000만 원, 금일읍 노인분회, 신지면 노인분회 태양광 설치 2,500만 원, 금당면 노인분회 환경개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모지추모공원 운영 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 서남권 광역화장장 기금조성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 2억 5,000만 원, 시설비, 청산면 장례식장 냉동고 교체,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등 개보수공사 4,000만 원, 추모공원 관리사무소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공영장례식장 사회보장적수혜금, 도비 신규사업으로 (청취불능) 차상위계층 무연고자 사망 시 공영장례 지원금 3,806만 7,000원을 노인건강증진사업 시설비로 약산면 공중목욕장 및 개보수사업비 공업용 보일러 교체 4,000만 원, 생일면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비 보일러 교체 및 찜질방 전기히터 교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쪽, 노인 목욕비 지원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목욕권이 이·미용까지 사용처가 확대되어 지원매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목욕권 제작비용 1,100만 원이 증액된 3,120만 원을, 노인 목욕비 지원금액은 당초 4억 4,000만 원에서 3억 16만 원이 증액된 7억 4,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군비 부담금이 당초 3억 9,000원에서 2,442만 원이 증액된 8억 9,7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일반운영무기계약직 보수,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명절휴가비 등 4건에 대하여 2,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에

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184쪽이요. 민간자본이전, 이것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까. 4건, 1억 500만 원?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은 도의원 포괄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전남도 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의원 포괄사업비…… 예, 그 목적으로 온 특별조정교부금이 맞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목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고……

○ 박인철 위원

전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6조 6항 규정에 의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1억 500에 대해서. 이것은 누차 이런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되는데 또 이번에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원래 국가나 시도에서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 전액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성립전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 6항에 의해서 민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꾸 이렇게 내려 보내주고요. 저희들은 민자사업을 공모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런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도의원 사업이라..... 그래서 성립전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은 성립전으로 사용했지만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집행할 수가 없어서.....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애당초 예산서에 올리와서는 안 될 목이죠, 이 목이?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원래 조례에 따라.....

○ 박인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게 지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뭘니까, 예산할 때마다 올라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그전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 통과되어 가지고..... 이것이 뭘니까, 소안면 서중리, 보길면 경로당, 여기 청산면 경로당, 금일 이렇게..... 금당면에 가면 거기 지역구로 있는 의원들은..... 왜 도의원들은 되는데, 도의원들의 이름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왜 군의원들은 안 하냐고 욕을 군의원들이 얻어먹어요. 이것이 뭐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도에다가, 도 예산실에다가도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내리지 말라고.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전에 전임팀장이 있을 때 예산 부서에, 도에 수차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아니, 도 자기들은 안 세우고 우리 군에다가 밀어버린 것 아니에요. “너희 알아서 해라.” 라고 그러고, 이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어떤 도 의원들이 내려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시설비로 들어가도 되죠? 예산을 뇌놔다가 자기들이 성립전으로 쓰든 어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반납하면 본인들도..... 목이 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목변경해 가지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 주무관 이인석

사업내역을 변경해서 쓰면 될 것으로.....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금 청소년상담 운영사업비가 내시가 늦게 된 바람에, 인건비가 늦게 된 바람에 운영비를 1회 추경 때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2,125만 2,000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문화의 집 리모델링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노화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밑에 기타보상금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복지회관 내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개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에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특수 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국, 도, 군비를 합쳐서 2,1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국, 도, 군비를 합쳐서 7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해어린이 문화체험 및 어울림한마당에 1,500만 원을 처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및 선반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와고 군비를 합쳐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재 교구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성자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제안한 사업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통번역서비스 중국과 베트남 통번역사업에 9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이게 자부담이 약 9,000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전액 국비보조로 추진하기 위해서 3억 5,4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대상자가 55명이었는데, 여기에는 급식 영양사 인력이 추가로 저희들이 조사한바 나타나서 약

67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상단 부분 재료비, 미세먼지 해조류 보급사업. 이 부분은 지금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이어서 편성해서 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비에 우리어린이집 이용…… 고금에 있는 군립어린이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개선공사사업비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행사운영비로 자원봉사단체 현장체험 및 워크숍에 1,000만 원을 증 편성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절반인 1,0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2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19년 제1회 추경편성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206페이지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국도비사업도 2억이 9,000…… 거의 3억이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을 어떤 사업은 민간을 하고, 어떤 사업은 공기관으로 해서 경상적 위탁사업이라고 하는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이돌보미…… 지금 사회복지 법정보조금 2억 9,600만 원을 공기관 민간위탁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이고요, 국도, 국비에 대해서는, 신규로 3억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생일면이나 노화, 소안, 보길의 젊은 사람들 부부가 같이 바다로 일하러 갔을 때 아이돌보미에 맡기면 자부담이 약 9,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노화, 소안, 보길이라든가 생일, 금일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돌보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자부담을 전체 군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착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3억 5,000이나 들어가면 다 해결되니까? 그리고 종사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이 사업이 확대됐을 때 인력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생일면 쪽하고 노화, 보길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읍면사무소하고 추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은 추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아이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은 다 모집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기인력이 확보가 되었고요. 추가 인력이…… 한 10명 이내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순조롭게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산이 3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잘 투자…… 거기 현장 적재적소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까. 사회복지사업, 드림스타트 학습지 지원사업 및 학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다 삭감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3,600만 원.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저희들이 자체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 기술적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돌렸습니다. 밑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에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0만 원을 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목변경했다는 이 말이죠? (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산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일반보조금, 경상보조나 민간…… 사회보장적보조금,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가 자치단체 총예산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에 오버되면……

○ 박인철 위원

그것이 넘어서서 패널티를 먹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목변경……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목변경을 했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208페이지요. 아까 그 재료비, 미세먼지 측정 어린이집…… 그것 삭감에 들어간다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우리가 읍면에…… 차상위계층 초등학생들 만 12세 이하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드림스타트팀이 읍면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당초에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양훈 위원, 고개를 끄덕임)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여성이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민원봉사과장 배정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본예산 13억 6,440만 1,000원에서 3억 2,385만 7,000원이 증액된 16억 8,8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운영입니다. 인건비, 민원실 창구근무자 18명의 근무복을 동절기와 하절기에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창구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소모품비입니다마는 특수필름 구입비 330만 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민원 안내서 제작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민원사무실 환경정비 물품구입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무인발급기가 사무실 내에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시간 외하고 주말 때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사무실 밖으로 이설하고 재배치하고자 종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을 시설비로 2,000만 원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지적업무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서지역의 정위치 및 경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박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잘못된, 등록된 섬이 있습니다. 33주인데요.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도서의 정위치, 경계정정측량비 수수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2016년도에 착수했던, 그리고 2018년도에 완공했던 고금 덕동지역에 면적이 이렇게 감소하면서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총 62건 중에서 20건을 지급하고 잔여분에서는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조정금 지급 1,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축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매년 바다…… 도로명시설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명판과 (청취불능) 새로 설

치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 2,000만 원, 그리고 신지, 고금 그리고 노화, 소안 연도 개설과 그리고 약산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군외면과 소안면에서 13개 마을에서 마을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개설 및 노화 명칭 도로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신규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특교세로서 저희들이 2019년도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비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주택건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그리고 검증 확인이 안 되어서 업무대행 수수료 1,705만 9,000원을 기타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약산 한옥마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한옥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1,3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보급 및 보존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한옥보전 및 건립사업비, 한옥마을을 건축하는데 한 동당 3,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는 도비 15%, 아니, 43%, 그리고 군비 57% 이렇게 각각 지원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기타보조금, 2017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218쪽에 보면 도서 정위치 및 경계정정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어떤 얘기냐면 저희 지역의 도서가…… 종전에는 측량을 손으로, 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GPS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습니다. 정정입니다. 위치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산상리 같은 데는 육지하고 어떤 지역이 바다

로 이렇게 육지 측량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측량이 안되어서 수수료…… 대행수수료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다 쪽에 있는 땅이 어디로 어떻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도서의 정위치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정위치로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예, 그 수수료에 따른 대행수수료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바다에 있는 땅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반대쪽은…… 즉, 말해서 공유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공고상으로……

○ 허궁희 위원

공고상으로만 바로 잡고 실제로 그러면 소유자들한테는 그런…… 반환이나 이런 것은 바로 잡지 못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실제상하고 공고상하고 괴리는 있지만, 공고상 정리하면 그 땅은 준치하기 때문에.

○ 허궁희 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왜……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완도 섬지역 대다수가……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33개소가……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자세히 묻느냐면 저희 있는 곳이 바로…… 서쪽은 임야가 바로 공유지로 되어 있어요, 육지로, 그리고 동쪽은 바다 쪽 30M

까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면, 제 말은 어딘가는 예를 들어서 그 땅이 다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국유지는 팔아먹었어요, 국가에서 개인한테로, 그런데 그 땅이 어디로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 분야는 현장을 측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측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

○ 허궁희 위원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담당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도서 정위치사업은 섬들의 형태라든지 어떤 모양 자체가 실제 생김새하고 공고상 등록된 위치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바로 잡고요, 그다음에 그 섬 내에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경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유자 동의하에서 위치도 정확하게 잡고…… 그럴 계획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제가 묻는 부분은 바닷속에 들어 있는 땅이 어딘가로 나와야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런 경우는 꼭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갔으면 반대편에서는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이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땅은 무효화를 하고 반대쪽에 있던 땅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였으면 국유지를 사유지로 이미 전환되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는 이 말이지요.

(방청석에서 “(청취불능) 해가지고 줄어든 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늘리고, 또 신규 등록해야 될 부분은 신규 등록하고, 일단은 측량을 해봐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인별로 이렇게……

(방청석에서 “예,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동의를 받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되거나 확대가 됐을 때 그런 부분도 그러면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해주나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직권으로 정리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왔습니까?

(방청석에서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내년까지 2개년……

○ 허궁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을 상세하게 이렇게…… 주위에 해당 되신 분들에게 아마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218쪽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뭔가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로가…… 완도가 한 2,794개 정도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명판도 있고요. 도로를 보면 명판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청해진남로라는 이런 명판이 있습니다. 표시된 전주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또 사람들이 때문에 임의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취불능) 새로이 조사해서, 전수조사해서 교체해 줘야 되고 신설해 줘야 되고,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있는가요?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집행부 좌석을 보며)

담당……

(방청석에서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 업무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된 업무거든요.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시작된 업무인데 저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또 기초번호판.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을 작년에는 저희 군 자체 인력으로 담당자들이 직접 나가서 실제로 조사해서, 사진을 찍어서 시스템에 올렸는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조사해서 하는 그 시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시설물이 많고 인력은 한정되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물 조사에 따른 품색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2,000만 원을 가지고는 전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명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셈을 해야 되는데.” 하는 직원 있음)

○ 김재홍 위원

조달청예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예, 그 셈법에 의해 가지고는,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그런 업체하고 저희들이 저희 관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 김재홍 위원

조사하는데 인력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데는…… 일개 개인업자에게 맡길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그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물품을 저희들이 구매 요청하게 되면 그 쪽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까지 이렇게 싹 일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설치에서 5,000만 원이 다시 되어 있죠. 여기 산출근거는 마찬가지로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예, 어떤 것이냐면……

○ 김재홍 위원

같은 것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지금 신지…… 고금대교, 장보고대교, 그다음에 노화, 소안…… 소안1대교, 그리고 연도교가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새롭게 도로번호가 부여됩니다, 새롭게요. 그리고 나서 약산 같은 데는 우회도로가 개설된 사항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도로는 도로명에 의해서 새롭게 도로명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도로명칭과 더불어서 각종 시설들에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 김재홍 위원

이것 본예산에 안 들어갔던가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외면하고 소안 같은 데는 마을이 종전에 서로 틀려서 찾기 어려운데, 그것을 변경했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또 거기 신지하고 소안하고 군외를 변경했고,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된 도로나 된 지역…… 그런 지역에서 소요된 명판도로, 이런 시설입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19페이지요, 시설비. 한옥마을커뮤니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을회관입니까, 뭘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이, 약산

마을이 2014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31필지를 분양했는데요. 그중에 18동이 입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들 대부분이…… 군외면은 어떤 형태냐면 농어촌, 즉 말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사람들이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약산 같은 데는 전원주택입니다. 도시사람들이 이주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근 마을에 구암마을이라고……

○ 박인철 위원

됐고요.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 마을이 18개…… 옆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라고 안 하고 커뮤니티센터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으면 우리화가 되어야 되지, 그 사람들 따로 떼어 놓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어줄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봐가지고? 마을회관들이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아니요, 그 구암마을하고 서로 간에……

○ 박인철 위원

아, 그것은 거기에서…… 우리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딱 그것이에요, 이것이.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래서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서로 간에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사를 들어왔으면 뭐 귀어를 했든 귀농을 했든,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과 어울려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기들 동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약산면에 보면 그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그러던데, 기존 마을에 소속이 안 되고 한옥마을을, 자기들끼리 마을 하나를 만들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말

이죠.

그리고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례에 의해서, 그 마을에서 돈을…… 땅을 사고 해야 만이 건물을 지어주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땅까지 다 해가지고 지어준다는 말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땅은 기획보가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군 땅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뮤니티센터 뭐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을 올립니까. 그 사람들이 기존 마을에 편입이 되어야지. 마을 따로,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기정예산액 150억 2,999만 2,000원 대비 91억 9,000여만 원이 증액된 242억 2,000여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관련 민간위탁교육비, 완도군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4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80~90세대 소규모강좌 운영 1,042만 원이 늘어난 1,452만 원. 그리고 강사수당 1,806만 원이 늘어난 1,622만 원.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 행사운영비,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2,0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문화 전승사업 지원. 그리고 그 아래 문화예술 진흥사업,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목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중간 아래 지점에 시설비, 디지털 광고 시스템 구축 2,000만 원.

225페이지, 장보고 창작판소리공연 2,000만 원은 그 아래에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완도 법화사지 사적 지정과 활용방안 학술대회 개최 3,000만 원. 연구용역비, 고금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1,000만 원, 고산 윤선도 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하단, 윤선도 유적지 주차장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226페이지에 상단, 고금 송유사 보수공사 2,000만 원. 시설비, 보길 윤선도원림 진입로 진입로 부지매입 3,000만 원. 윤선도원림 관광정보센터 소방시설 교체공사 2,000만 원. 아래 국도비보조사업에 두 번째, 동천석실 보수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 하단 부분. 제일 아래쪽에 완도 향교 명륜당 긴급보수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여기에 들어있는 시설비가…… 앞쪽에 있는, 227페이지에 있는 안내판에 들어있는 부기들을 전부 감 처리하고, 세부사업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229페이지, 상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390만 원. 중간에서 기타 보상비로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보유자, 보존회, 장학생 1,800만 원. 조선장 보유자, 장학생 1,200만 원.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230페이지, 연구용역비 군관리계획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6억 원. 행사실비보상금, 서울 강서구청 체육회 완도 (청취불능) 참가자 실비보상 960만 원. 그 아래쪽에 전국비치발리볼대회, 전국대회 2,000만 원. 그 아래 전국시니어배구대회, 전국대회 4,000만 원. 제일 아래쪽 하단,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27억 6,000만 원.

다음 페이지, 231페이지. 금일 동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시설공사 6,134만 4,000원. 궁도장 주차장 조성공사 4억 2,000. 소안 가학리에 있는 테니스장, 테니스 시설공사 2,000만 원. 아래쪽에 훈련용품…… 군 취업 우수선수 지원 관련

훈련용품 구입 1,400만 원. 그 아래쪽 공공운영비, 역도장 사무실 관리비 500만 원. 아래쪽,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역도 실업팀 선수 급여 960만 원이 늘어난 1억 4,400만 원. 역도실업팀 4대 보험료 1,805만 1,000원이 늘어난 3,665만 2,000원. 역도실업팀 선수 퇴직금 800만 원이 늘어난 6,300만 원. 세계 주니어 역도 피지대회 참가 750만 원이 늘어난 750만 원. 새로 신규계상입니다.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 3,7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제일 위에 공설운동장 주변 고물상 철거 4억. 아래 군외 근린생활형 군민체육센터 건립 19억 원 중에 국비 10억 원, 군비 9억은 나중에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놓여진 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 8억. 오른쪽 233페이지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사업 351만 원이 늘어난 2,480만 1,000원. 제일 하단부분, 체육시설물 안내표지판 제작 400만 원.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체육시설물 화장실 비데 임차료 360만 원. 약산 여동리 어린이놀이터 설치 3,000만 원이 늘어난 5,000만 원. 정구장 정구연습기 구입 300만 원. 수영장 관리, 중간부분, 수영장 실내 표찰 제작 800만 원. 아래쪽에 시설비, 수영장 주변시설 정비 5,000만 원. 아래쪽 하단, 어린이놀이터시설 보수 2,500만 원. 읍면 야외 운동기구 보수 5,000만 원.

그다음 235페이지에 상단부분, 읍면 체육시설 설치 3,500만 원. 생일면 유서리 어린이놀이터 시설 설치 5,000만 원. 중간지점 도서관 운영, 도서관실방지 라벨 제작 구입 800만 원이 늘어난 1,200만 원. 시설비, 금일 공공도서관 외벽 페인트공사 2,000만 원. 중간지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600여만 원이 늘어난 7,260만 5,000원. 아래쪽에 노화넙도 행복작은도서관 담장 및 방지턱 1,0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 시설비 완도문화원 활동공간 확충 5,000만 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요. 법화사지 사적 지정과 활용방안 학술대회해 가지고 3,000만 원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법화사지 사적 지정에 따른 문헌적 근거는 확보되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이 1차하고 2차까지 발굴이 끝났고요. 3차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발굴이 5월 중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 통일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창건한 법화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청취불능)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로, 지금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법화사도 복원하기 위한 그런 사전학술대회 용역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2차는 끝났고 3차가 끝난다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3차는 9월에. 그것이 끝나면 10월 중이나 11월 중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관계된 분들, 교수나 관계된 분들 용역을 해서요. 이런 학술대회를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법화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복원해야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에 3차가 끝나면 학술대회를 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인가요, 학술대회? (예)

그러면 3월…… 9월에 3차까지 싹 끝난다고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차까지 끝났는데 지금 3차 발굴을 시작하는

데요, 지금 현재 발굴된 유물들이 통일…… 그전에 최초에는 고려시대 유물들이 좀 나오다가 안 나와서 뒀었는데, 그 후로 정밀발굴을 통해서 통일신라시대 때 기와편하고 도자기편, 이런 유물 같은 것들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통일신라시대 때 장보고가 창건한 법화사로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받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통일신라시대 때 발굴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발굴이 됐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발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증거가 다 됐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됐네요, 발굴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나머지 3차 발굴만 남았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만 9월에 끝나면 관광효과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토대로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 224페이지요, 방금 대중가요콘서트 행사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5억 500으로 되어 있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것이…… 요즘은 예산작업을 전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산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삭감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삭감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늦게 발견되어서……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재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어차피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안 하고 원상회복해서…… 그런 방법

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은 하여튼 집행부의 에러가 좀 있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전산상의 오류라는 이야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런 경우 전산 수치에 우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전산 수치에 잘못된 이런 돈이 어떻게 오가게 되나요?

(집행부 좌석을 보며)

우리 예산실, 어떤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입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보니까 조금 에러가 생긴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본 예산에 5,000만 원의 돈이 빠져서 이미 예산에 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산 오류로 인해서 5,000이 이렇게 실수로 되어서 해버렸어. 그러면 이 돈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이 돈은 그 목에 5억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중가요가 1억 5,000, 뭐 뮤지컬이 얼마, 그리고 뭐 연구결과, 이런 식으로 한 목 안에, 세부 전산목 안에 돈 5억 500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감액을 안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전산에 이것저것 입력해서 예산서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겨서 이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우리한테 얼마 돈이 있어 가지고 이 추경에 맞춰서 지금 이 돈을, 예산을 짤 것 아니에요. 5,000만 원이 빠져 버렸어. 지금 추경에는 돈 5,000만 원이 없다는 얘기에요, 결론은, 이것, 이런 경우는 다시 세우려고 해도

다음 추경밖에 안 되나요? 그런 경우겠네,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의결되면 다음 추경에 저희 부서에서는 다시 편성요구를 해서 다시 세울 것이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하시면서 이 부분 삭감으로 들어온 부분을 삭감 처리하지 않고, 감 처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원상회복해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도 가능한가요. 돈이…… 돈의 근거가, 저는 지금 돈의 근거를 물어보는 것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돈의 근거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하면, 이 부분이 다시 되살아나면 5,000만원이 삭감되는…… 이게 다시 어떻게 보면, 증액 되어 버리면 (청취불능) 되어 버리니까 삭감조서 상에…… 그런 형식이죠, 이 자리에서 되살린다고 하면.

○ 최정욱 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요. 본예산에 우리가 5억 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본예산에 그 돈을 청구…… 예산이 4,000얼마 몇 백억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통과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5,000만 원이 갑자기 전산 오류로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출처가 어떻게 되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산 오류로 빠진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감액이 된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5억 500중에 5,000만 원어치의 사업을 덜 하는 것이죠. 공연을 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차피 다음 추경에 다시 요구해서 편성해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이 자체로 감되면 저희들은 5억 500중에 5,000만 원이 부족한 뭐 4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디 공중으로 증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 돈이 감액되면 완도군 세입

과 세출, 이 총액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어디 증발되는 돈은 아닙니다.

○ 최정욱 위원

내가 착각했네, 감액이 되어서 그 돈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깎으려고 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가지고 질 높은 공연, 또 공연 횟수를 늘리겠다고 해서 확정된 돈을 저희들이 일부러 감 요구하거나 이랬을 리는 만무하고요, 어차피 이것은 추경에 또 다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원상회복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이 부분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전산 오류라는 얘기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좀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25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 건립배경이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옛날에는…… 청산도를 요즘 많이 가죠. 그리고 옛날에는 윤선도 유적지를 많이 갔고, 지금도 물론 많이 옵니다. 매년 입장료 수입이 한 1억 가까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많이 온다고 보죠, 평

균적으로 9,500에서 1억 정도 입장료 수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관광객이 덜하기는 덜합니다. 그래서 고산 윤선도 선생을 관광지로…… 보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많이 잊혀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산 수련원을 윤선도 유적지 인근에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련활동도 하면서 고산 선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익히고, 또 고산 선생을 알리기 위한 그런 수련원을 만들어 보자, 그런 수련원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수련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또 어떻게 복원을…… 아, 복원이라든가. 수련원을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크게 이렇게…… 규모가 크겠네요, 어느 정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또 문화재청하고 또 관련부처,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부처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규모를, 저희들이 그림을 크게 그린다 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는 쉽게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규모가 어느 정도 선인지, 이런 계획수립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수련원을 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수련원에 학생들도 많이 유치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뭐 크게 효과가 있겠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재 젊은 청소년들이…… 문화유적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추세가. 그리고 계속 전통문화나 유적이거나 뭐 이런 데 전승하고 또 후대에 알려지고 이런 것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면 문화유적지에 그런 부분들 활성화도 시킬 겸 수련원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실상적으로 역사에 크게 관심이 많이 없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접근성도 이렇게 멀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교통부터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련원을 짓게 된다고 그러면 그 소요 예산도 많을 텐데 전부다 군비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죠, 국도비를 따와야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기에는 윤선도 수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련원이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학생들 위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문화체육파트 일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보면 저쪽 관광파트에서 수련원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유치하고 수학여행이라고 그러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문화재 청장님을 서울에서 뵈고 왔습니다. 보길도에서 살고 계시는 xxx 교수님하고 그분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몇 주 전부터 약속을 해놓고 그 청장님을 경복궁 고궁박물관에서 오후 2시에 직접 뵈고 왔는데, 보길면장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든 계획서를 가지고…… 보길면에서 우리한테 의뢰해 가지고 기본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수련원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문화재청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길도 고산 문화…… 뭐든가, 아무튼 수련원이라는 용어는 빼고 기념관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

화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xxx 교수님의 지원을 얻어서요. 그래서 청장님의 답변이 지금 대전에 문화재청이 있는데…… 서울에 또 고궁박물관 안에 문화재청장실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 대전에 있는 청사에 출근하면 주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가 청장님한테 직접 왔어요. 담당과장한테 그 자료가…… 자료를 드렸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담당과장하고 부장하고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문자 답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수련원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보길도의 부지가 부용리 저수지에 올라가는 쪽에 하천 오른쪽에 보면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길면에서는 거기다가 지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참 위치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길도를 찾는 관광객들, 뭐 학생들, 또는 학자들,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할 것이고, 세미나실도 마련할 것이고, 또 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거기다가 집어넣기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장도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국비 확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용역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꼭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제가 보기에 군비를 가지고는 힘든 사업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군비로 할 생각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고.

그리고 234쪽, 시설비를 한번…… 수영장 주변정비라고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 이전 주 13일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건물 90억짜리 다목적실내체육관…… 학교체육관하고 같이 준공이 됐는데, 건물만 준공되어 있지, 우리가 지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자체 그 내부를 치장하고 손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건물만 덩그러니 준공되어서요.

안에서 수영하고 나가기 전에 체온이…… 물 수온을 29.5도로 맞춥니다. 물을. 그러면 운동하다 보면, 열도 나고 하면 체온이 36.5도이니까 이렇게 맞춰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찬물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몸 체온이 유지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수영장 한 편에 체온유지실이 나 뭐 이런 것도 좀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소소하게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쓰려고 5,0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 안에다가 휴게공간을 만든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수영장…… 그런 곳에도 쓰고요. 나중에 수영장 주변, 뭐 이런 주차장……

○ 김양훈 위원

아니요, 그 수영장 주변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사업비는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운동장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 내에 각종 소소한, 정비할……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그 안에다가 휴게공간을 놓고 수영하고 나서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주변시설 정비라고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바깥이 다 운동장인데 거기다가 무슨 공원식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부기를 조정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물었던 대목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궁금한 내용이에요. 수영장장을 하면 체온유지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설계에?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설계에…… 안 들어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검토할 때 무엇을 검토했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이…… 다른 시군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요, 저희들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완도는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대목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은 어디에선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용역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나는 왜 용역부터 잘못됐느냐면 용역이 제대로 됐으면 그런 필수조건이 빠질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따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좀 참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돼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영장 총 사업비가 70억이었습니다. 국비 30억하고 전라남도교육청 20억하고 군비 20

억하고 해서 70억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억이 추가로 늘어나서, 군비가 20억인데 40억으로…… 그래서 전체가 7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넣고 저것 넣고 하느냐에 따라서 100억도 넘을 수 있고 120억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요.

다른 타 시군을 보면 그것까지 설치해서 준공한 시군이 있고요, 인근 시군을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시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 없이 준공되었다가 최근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다른 시군들…… 지금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그런 시군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 사업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을 갖춰 가지고 준공식이 됐어야지. 어떻게 그런 시설도 덜 갖춰 가지고 준공식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는 참 이렇게 밖으로 이야기를 못할 일이에요, 창피해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타 지역을 가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도, 관계자분들도 다 타 시군을 가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정도는 보고 왔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준공식을 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 이것을 지금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 허궁희 위원

검토를 자세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00……

○ 박인철 위원

24페이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4페이지요.

○ 박인철 위원

섬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섬 전통문화 발굴 심포지엄, 이것이요. 이것은 보길도하고 소안도, 그리고 당사도 그쪽 일원에 전통지역문화재 콘텐츠를 발굴해 보자. 그리고 지금 당사도 등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일대의 섬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관광자원화를 해보자. 향후 우리 관광자원개발사업비에서 이런 부분들의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쪽 일대에 섬 문화 자체를 연구해서 예산을 따오기 위한 그런 사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심포지엄인데 왜 갑자기 용역이 나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그 심포지엄인데……

○ 박인철 위원

보길도, 소안도, 당사도라고 했는데 기존에 거기에 전통문화가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심포지엄을 하면……

○ 박인철 위원

발굴할 정도로 해가지고 심포지엄을 할 정도의 어디 뭐가 있냐고.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심포지엄을 하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런 부분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런 용역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어떤 전문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용역입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떤 전문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를 들어서 도서 관련, 섬 관련해 가지고 대학에 많은 전문교수들이나……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있지도 않은 것을, 원주민들도 모르는 것을 대학교수들이 만들어 낸다는 것……

됐고요. 226페이지, 제일 위쪽. 고급 승유자가 문화재예요, 아니면 일반 절이예요? 이것 문화재라서 지원해 주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고급 승유사는 완도군 향토유적 1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지정문화재입니다.

○ 박인철 위원

군지정문화재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됐고요.

23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군관리 계획 최경주골프아카데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변경결정용역비 6억인데 이 근거를 한번 대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위원님들, 테이블에 A3 보충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주골프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완도 중도리 쪽하고 고급 상정리 쪽 두 군데로 압축되었는데. 선호하는 최적의 위치는 완도 중도리 쪽이…… 최경주 선수가 (칭취불능) 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투자하고 개발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지

역이고 공원 구역인데다가 해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 고금 상정리 쪽으로 한번 위치를 변경하고 최종 11월 3일에 최정주 군수가 완도에 와서 그 관련 용역을 해놓은 내용들의 설명을 청취했고요. 그리고 현까지 저희들이 안내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위치를 고금 상정리 쪽으로 선정했고요.

그리고 설명 드린 내용의 종합적인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한 44만 2,000평 정도 됩니다. 146만 2,000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골프장 8홀하고 골프 아카데미를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그런 규모는 약 57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정리 쪽에 부지가 501필지……

○ 박인철 위원

그런 자세한 사항은 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리고 용도가……

○ 박인철 위원

됐고…… 잠깐만요, 그런 것은 됐고.

자꾸 이런 안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관리계획을, 왜 우리 군에서 관리계획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자가 누구예요? 우리 군이예요, 아니면 최정주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민간투자사업자가 골프장을 조성 개발해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군관리계획을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제일 뒷장을 보시면 저희들이 5단계로 구분해서 군관리계획변경 1~2단계 이 부분은 군이 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 박인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알았고.

이런 것은 사업자가 해오면 우리 군수…… 시

행자가 가지고 오면 군수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행자한테 통보해 주고. 만약 군수가 한다면 최종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업을…… 물론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500억이 투자될지 뭐 얼마가 투자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가 군비를 6억을 넣어 가지고 오는 사업자를 위해서……

물론 최정주골프아카데미가 들어오면 좋겠죠. 이것이 지금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부터, 정명성 과장부터 해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왔는데, 이번에 용역보고회를 할 때 이 용역은 또 이전에 빠져 있었던데, 보니까 빠진 이유가 불용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빠져 있었던데, 이것도 절차상 안 맞고, 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군관리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한 적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가 해오고, 나머지 SOC사업은 우리가 해준단가. 그런 편의사업은 우리가 해준다고 해야 맞지. 군관리계획 변경부터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자체가 이 부분을 일정 부분하고 또 민간이 이것을 일정 부분해라. 이렇게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민간투자자가 전체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 법에 이것은 너가 해라, 이것은 너가 해라. 이렇게 나뉘진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군에서 6억 원을 투자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웬만한 데는…… 물론 골프장이 없는 데도 많습니까마는 (청취불능) 있고 그렇습니까마는 570억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고금 쪽하고 신지 쪽하고……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할 때 해양치유는 빼십시오. 우리 군에서 해양치유하고 뭐하고 어떤 두 가지를 빼버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위성만, 왜 우리 군에서 6억이라는 돈을 들

여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우리가 변경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가지고 군관리계획을 신청해 가지고 댔다고 하는데 만약 최경주라는 사람이…… 뭐야, 이 골프장을 안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전에 서면으로……

○ 박인철 위원

사전에, MOU 그런 것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장치를 하고 해야죠.

○ 박인철 위원

사전에 이것 안 하고…… 최경주가 6억을 물어내는 것으로 할래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있을 때부터 추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공개된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이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 질문답변 때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아,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도 있는데……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토의가 끝나게 되면 이 자료 자체도 의원님들께서는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인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왜 이것을 군에서 관리계획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냐는 이런 문제인데, 문제는 사업자의 의지와 토지 매입비라고 봅니다. 일단 그 광활한…… 뭐 크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7~8홀 정도가 들어가니까, 뒷장의 조감도를 보시다시피 그 쪽 산을 거의 다 차지하는데요. 이것이 국유지도 아니고 군유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두 사람이 사는 땅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개인이 이것을…… 먼저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되지 않으리라는 그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군에서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사전절차를 우리 군에서 이 정도로 해주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뭐 어떤 특정기업, 특정인한테 우리가 군에서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군비 6억이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데에…… 그 이후에 골프테마파크를 완성하는 데에 드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원활하게 빨리 진행되지 않겠냐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문제는 하여튼 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입하는 과정도 부동산업자라든가 개인들한테 이런 정보들이 흘러 들어가면 알게 모르게 산매가 이루어지고 또 우선 투기하고 그러리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기존 골프장사업을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어떻게 땅을 사야 되는가, 주민들의 반발 없이…… 또 높은 가격이 아닌 적절한 가격에 사야 되는가, 이런 것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전을 수행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이 정도까지는, 관리계획변경까지는 해가면서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다가 금방 과장님이 500억이라고 하는데…… 아니, 해양치유 방금 이야기했던 해양치유 조선대학교 있는 곳 거기에다가…… 뭘니까, 호텔을 짓는다고 군관리계획 변경에 집어넣어 주라고 해도 군에서 안 집어 넣어줘요. 500이 아니라 1,000 몇 억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런 사업자들도 있는데, 아니, 여기가 군이 맞는다고 하면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돈 6억이 문제가 아니고, 뭐 최경주만 앞에 세워버리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아까 국장

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고 질문답변 시에도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보류되어 있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갑자기 1회 추경에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6억이 올라와 버리니까.

아니, 지금 이것은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을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그때만 해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적어도 3개의 후보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2개의 후보지는 도저히 우리가 가격 면이나 토지매입 면에서나 관리계획을…… 다른 해상국립공원지구에 묶여 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지로 적당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적당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짚어봅시다.

그리고 이것도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이 아니고, 목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제……

○ 박인철 위원

나중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축조심사 때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강서구청 체육회 완도방문 참가자, 액수는 900만 원입니다마는 이런 실비보상도 세워야 돼요? 도대체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우리 동계훈련전지 이렇게 하면 그쪽 동계훈련을 유치하는 데에는 큰 예산도 없으면서…… 아니, 강서구청 체육회가 오나, 빠지나

그것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 그것 실비보상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제…… 4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거쳐서……

○ 박인철 위원

뭐 또 슬로시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서울 강서구청 체육발전협의회에서 완도군을 옵니다. 그분들, 체육회 회장님이 완도군 수님처럼 강서구청장이 회장인데요. 군수님과 강서구청하고 향후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협력을 해서 우리가…… 동계훈련이나 이럴 때 완도로 오고 서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4월 26일에 일정이 잡혔는데요. 당초에 이것도 일정이 잡힌 이유가 강서구청 체육발전협의회 회원 안에 두 분이 보길 분하고 금일 분이……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아요. 우리 완도군과…… 아니, 그런 것은 다 좋다는 이 말입니다. 과정도 좋고, 온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사실비까지, 인건비까지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40인으로 해가지고 12만 원씩.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 박인철 위원

12만 원씩.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행사실비로 세웠는데 그분들이 완도로 오면 팸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완도 보길도나 이쪽 전복양식장이나 이런 데 팸투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경비를 행사실비라는 목에다가 세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도 돈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자

비를 들여가지고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런 비용까지 대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나중에 차차 따지기로 하고요.

231페이지, 시설비. 금일 동송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좋습니다. 궁도장 주차장, 이것 4억 2,000. 이것 조성을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거기 궁도장에다가 4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그리고 보니까 보건의료원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지으면서 보건의료원과 궁도장 그 담 밑에 1억 5,000으로 할 때 주차장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거기 1년에 4억 2,000이나 주차장을 해가지고, 궁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거기 당초 본예산에 보건의료원에서 전체 한 2,100평 정도 됩니다. 궁도장 뜰이. 그런데 2,100평 정도 되는데 한 700여 평에다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의료원에서 2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궁도협회에서 어차피 거기만, 700여 평만 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부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그 궁도장 앞뜰에 있는 전체 면적이 한 2,100평 정도 되니까 거기에 있는 인조잔디가 공설운동장에 조성되어 있던 인조잔디를 철거해서 거기에 깔아놓은,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아니, 폐기물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조성 과정들은 잘 아니까요. 이 궁도장도…… 물론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군청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예산할 때마다 궁도장 예산이 올라와요. 이것을 몰라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체 면적에 4억 2,000이나 들여가지고 1년에 몇 번 쓴다고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잔디블록으로 해서요. 평상시에는 활도 쏘면서 주차할 수 있는 천연 친환경적으로……

○ 박인철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축제나 여타 큰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 박인철 위원

축조심사 때하기로 하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 박인철 위원

내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곳입니다. 거기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축조심사 때하기로 하고.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훈련용품 구입 1,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군에 이윤리 선수라고 장애인 사격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우리 군에서 매년 조금씩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선수의 훈련용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완도군 체육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를 해 뒀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못했는데요,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면 그 조례를 다음 임시회 때……

○ 박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11월에…… 올해 본예산이 통과됐죠. 그러면 그때부터 했으면 벌써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돼요.

그리고 이윤리 선수한테…… 지금 이윤리 선수는 완도군 소속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전혀 근거 없이 예산들을 몇 년 동안 줬습니다. 기본급 2,800만 원, 훈련수당이 다 나갔어

요. 그러면 경기력 향상 수당, 체력단련비, 명절 휴가비, 전지훈련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나갔어요. 한 4,000 몇 백만 원이, 거의 5,000만 원의 돈이…… 전혀 근거 없이 나갔다는 이 말이에요, 근거 없는 돈들이. 이런 것이 왜 감사에 안 걸리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감사원들이 무슨 감사원 감사냐, 도 감사나 행안부 감사들이 뭐하는 것인지. 이것 전혀 근거 없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근거가 아직까지 안 만들어졌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빨리 세워졌으면 진즉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이런 돈들이 어떤 근거로…… 우리 예산계에도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가. 나중에 하고요.

나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 경비 등록비가…… 출전 경비 750만 원인데 등록비가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가 금년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전 경비는 선수 감독하고…… 출전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등록비는,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역도연맹에 등록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3,000만 원.

○ 박인철 위원

아니, 선수가 운동에 출전하는데 무슨 등록비가……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하다고 해서 3,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3,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돼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른 국내 대회가 아니고 해외도 아닌데 북한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관련된 대한체육회 역도연맹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은 나중에 축조심사를 할 때 왜 3,000만 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사업을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약 137억 원이 늘어서 전체 예산은 약 4,81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 도시계획정비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전략 및 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완도군 도시계획시설 편입 부지매입비에 13억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에 2억 5,000만 원, 완도읍 중앙길 쉼터조성 및 경관개선공사에 1억 2,800만 원, 완도읍 진아리채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완도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4,214만 원,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마을 조성 실시설계비에 5,100만 원.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으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군 추진 의지를 나타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화읍 도청리 마을 담장 벽화 조성 사업 1,000만 원은 지난도 경관행정평가에 시상금을 받은 금액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군립도서관 주변 경관조명공사에 2,000만 원, 빙그레 그린폴 조성사업도 이번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2억 원의 사업비로 빙그레공원 (청취불능) 개설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부족해서 자체사업 1억을 포함해서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근로자 인부임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업자가 해제승인 요청이 있어서 밑에 부분 민간위탁사업비 2억 5,000을 삭감하고 이것을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300만 원, 완도타워 전망층 냉난방기 설치용 스키야차량 임차료 500만 원, 완도타워 1층 바닥 관광지도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에 5,000만 원, 완도타워 1, 2층 냉난방기 교체에 1억 원, 다도해일출공원 중앙광장길 쿨링포그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지원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시설비,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과 그 밑에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에 국비가 15억 원을,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것이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시급해서 그래서 이 두 사업비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도해일출공원 확대조성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저희들이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재생사업에 약 3억…… 국비를 1억 7,000만 원 확보해서 군비 매칭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동지구에 주민사랑방 겸 카페를 조성하고 약 7,920제곱미터의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또 기타보상금,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사업으로 소규모어항 신규등록 측량수수료로 3,000만 원, 완도 대신 아스콘 포장 1억, 완도 장좌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완도 대야2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2,000, 완도 죽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2,000, 금일 소량도 배수로 정비 2,000, 금일 척치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2,000, 금일 갑목 주민센터 조성 2,000, 노화 산양진항 대합실 부지매입 3억, 노화 마삭도 선착장 연장 1억 5,000, 노화 미라 마을안길 정비에 8,000, 노화 마안도 접안장 정비에 1억 3,000, 노화 이목 공공주차장 확포장 2,000, 노화 이목 호안도로 안전시설 2,000, 노화 삼마 호안도로 2,000, 군외 흑일 마을안길 포장 2,000, 군외 황진 해수저장 시설 설치 2,0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지 동고항 파도막이 시설 1억, 신지 삼마 도교형 부잔교 설치에 2,000, 고금 덕동 호안도로 보수 2,000, 고금 충무 선착장 연장 1억 7,000, 고금 가교항 물양장 정비에 2,000, 고금 충무사 진입도로 확포장 8,000, 약산 죽선 선착장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2,000, 약산 화가 방파제 시설 1억 3,000, 약산 가래 마을안길 정비에 8,000, 약산 해동 호안도로 시설 1억 7,000, 청산 도락 마을진입로 정비에 2,000, 청산 복지회관 개보수 5,000, 청산 권덕 방파제 TTP 시설 1억 5,000, 소안 북암 마을안길 정비에 2,000, 소안 소진 주민센터 주변 정비에 2,000, 소안 맹선 호안도로 정비 2,000, 금당 삼산 마을안길 포장 2,000, 보길 여항 물양장 정비 9,000, 보길 통리 물양장 어민센터 설치 기존 사업비 2,000을 삭감하고 보길 부항 전복선별장 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길 예측 접안시설 2,000, 생일 금곡 물양장 정비에 2,000, 생일 용출 선착장 보강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공동창고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25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었습니다만은 수요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매입비에 13억을 삭감해서 4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에 3억 7,000,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에 4억 2,000, 마을회관 비품지원에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완도 성내 용벽시설을 삭감하고 완도 도암 세천 준설사업으로 2,000만 원을, 완도 장좌 마을안길 아스콘포장을 삭감하고 장좌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완도 향동 마을안길 도로확포장을 삭감하고 대야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망남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사업을 삭감하고 대신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 신기 선착장 계단 설치에 2,000, 완도 노두 마을배수로 정비에 2,000, 완도 서성 마을주차장 정비에 2,000, 완도 정도 마을안길 포장 2,000, 완도 대야 주민휴게쉼터 정비에 2,000, 완도 죽청 배수로 정비에 2,000, 금일 신평 물양장 보강 2,000, 금일 구동 호안도로 정비에 2,000, 노화 석중 마을안길 방호벽 설치에 2,000, 노화 염등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노화 잘포 선착장 연장 2,000, 군외 갈문 공동작업장 포장에 2,000.

다음 장입니다. 군외 대문 마을안길 용벽 설치에 2,000, 군외 신흥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2,000, 신지 내정 마을안길 포장 2,000, 고금 가교 마을안길 정비에 2,000, 고금 농상 물양장 정비에 2,000, 고금 용초항 항내 준설에 2,000, 고금 화룡 물양장 정비 2,000, 고금 백운동 진입도로 정비에 2,000, 고금 상정 마을안길 정비에 2,000, 고금 칠안항 항내 준설에 2,000, 약산 관산 배수로 정비에 2,000, 약산 관서 주민쉼터 설치에 2,000, 약산 어두 선착장 보수에 2,000, 약산 어두 물양장 정비에 2,000, 청산 동촌 배수로 정비에 2,000, 청산 도청 배수로 정비에 2,000, 소안 맹선 마을쉼터 설치에 2,000, 금당 차우 선박접안장 시설 2,000, 보길 중리 배수로 정비에 2,000, 보길 부향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생일 금곡 선착장 보강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충도 도로개설사업에 2,000, 금일 일정 용벽 설치에 2,000, 노화 건강테마촌 조경에 2,000, 고금 화룡 호안도로 개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안 가학 해안가 용벽시설에 2,000, 소안 비자 안길포장에 2,000, 소안 원항 우회도로 포장에 2,000, 금당 신흥 호안도로 개설 2,000, 보길 새연정 주변정비 2,000, 보길 중리 안길포장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완도 정도 마을청년회

관 보수 2,000, 금일 월송 여성복지회관 수리에 2,000, 노화 내리 마안도 창고 신축에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재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횡간 호안도로 시설사업 2,000, 보길 구도 쉼터 설치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 섬 큰기쁨사업입니다. 작년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불용해서 올해 군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10인 이하 도서에 대해서 생필품 지원, 봉사활동, 비품 지원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일 일정 물양장 설치사업에 2,500만 원, 노화 미라 경사물양장 확장에 2,000, 노화 잘포 어업인쉼터 정비 2,000, 신지 양지 선착장 확포장 2,000, 약산 구성 선착장 계단 설치 2,000, 보길 통리 선착장 확포장 2,000, 생일 금곡 물양장 2,000,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화 삼마 선창진입로 방호벽 설치에 2,000, 약산 구성 방파제 보강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솔릭 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청취불능) 관계로 불용처리하고 올해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우도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1억 5,534만 원, 금일 장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금일 원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금일 다량도 선착장 재해복구 4,000, 노화 내리 호안도로 재해복구 4,389만 4,000원, 약산 사동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지 내동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2억 3,523만 4,000원, 소안 서중 호안도로 재해복구사업에 6,000만 원, 소안 북항 방파제 재해복구사업에 3,786만 4,000원, 신지 양지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3억 974만 6,000원, 보길 선창 호안도로 재해복구사업에 4억 700만 원, 보길 예작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6억 3,700만 원, 보길 통리 선착장 재해복구사업에 10억 6,59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신지 동고 동두머리 선착장 재해복구사업비에 2억, 생일 덕우 물양장 재해복구사업에 2억 5,000, 생일 굴전 방파제 재해복구사업비에 1억 5,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설명회 자료 제작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을…… 내년도에 약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각각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께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 내동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확장공사에 1억 원을, 약산 장용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9,900만 원, 약산 화가 물양장 포장공사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시설사업,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일 동백 지방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4억 6,000만 원, 금일 화전 지방어항 퇴적토 준설사업에 4억 원, 군외 원동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단위정책 세부사업 편성에 따라서 기존에 편성했던 공모 예비계획 수립 1억 원과 기존에 사업비 5억 4,600을 삭감하고 다음 장에 재편성토록 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4,800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했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좀 착오가 있어서 같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 시설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로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40억 원을 목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내년에 준비할 예비비 수립 용역을 내년에 한 6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1억 2,000만 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촌뉴딜사업비 1억 7,600만 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매칭해서 3,520만 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솔지항이…… 올해 공모된 사업은 약 5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배정된 17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항항은 올해 50…… 전체 예산은 5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배정된 예산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17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 전략. 이것 다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1억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1억인데요. 이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는데, 작년까지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만 수립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그 지침이 바뀌면서 “우선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에 준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1억이 더 늘어났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쭉 밑에, 그 밑에 또 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완도군 경관관리 재정비하고 공공디자인……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4월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10월 완공할 용역인데 이것이 완도군 경관계획은 총 1억 4,000.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은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가 편성됐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실수로 이월 시기를 놓쳐 가지고 불용처리하고 부득이하게 1회 추경 때 그 불용처리한 만큼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이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뒷장에 시설비요, 이게 뭐니까? 웃음을 새기는 안전한 비석마을이라고 했는데, 5,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취지의 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게 올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행복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고, 이게 국비 70%, 군비 30% 사업인데요. 이게 용암리 마을을 10억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도입해서 공간을 재창조하는 그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군의 추진의지가 얼마나 있냐. 있으면 실시설계비로 반영해 놓으라고 그래서 추경에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일단 그런 것은 좋은데, 비석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도대체 뭐가 그래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용암리를……

○ 박인철 위원

비석거리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비석거리입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았구요.

그 밑에 민간위탁에서 5,000만 원, 그러면 3개월도 안 됐는데 5,000만 원을 썼다는 이 말입니까? 3억에서 2억 5,000을 삭감하고 5,000만

원을 우리가 썼는데. 그러면 저번에 보고할 때 3개월도 안 됐는데 2개월 만에 5,000만 원을 민간위탁자가 썼다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해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아직 해지 승인은 안 되고, 아마 3월까지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지금 5,000만 원을 남겨놓고 4월부터는 민간위탁비를 삭감해서 추진하겠다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민간위탁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한다는 이 말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 박인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전망층…… 저희들이 유리공사를…… 유리를 설치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관광객들이 밖을 내다보는데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밖의 유리를 전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망층에.

○ 박인철 위원

알겠는데, 잘 하십시오. 기존 것을 해가지고 뜯어내면 나중에 누수나 이런 것 문제가 복잡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319페이지 끝 부분에 시설비, 이것 어디에다가 다목적주차장을 한다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 활성화사업으로 150억 원이 확정된 사업인데요, 다목적주차장은 현재 청해시장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앞에 주차장…… 제일사 옆에 주차장 공간하고 노인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는 그 세 필지가 됩니다. 이 세 필지의 소유자가 제일교포 출신이신 xxx 씨 그 분 땅인데, 우선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우선 토지소유자가 협의하기를 청해시장을 먼저 사 달라고 그 소유자의 요구가. 그래서 23억 정도가 들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2억 5,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해줘 가지고 땅을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국토부에서 같은 목니까 다도해 15억을 차라리 이 돈으로 쓰겠다고 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선 청해시장부터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사면 이 목대로 주차장 조성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다목적주차장 목적으로는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박인철 위원

몇 년 정도 기간……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활성화사업은 2027년에 끝날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주차장으로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원칙대로는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 관계자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 협의를 안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1층 정도는 주차장으로 쓰고 2~3층은 필요성에 따라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주차장은 조성이 안 됐

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겠다는 이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대로 들어와 버리면…… 저기가 어떻게 보면 구시가지 활성화사업의 최고 중추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면서 주차장이라고 딱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 나머지 용도로는 전혀 쓸 수 없게끔, 모든 국비사업들이 목대로 쓰라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내 지역구입니다마는 소규모 시설비 사업에 왜 갑자기 노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이에요? 내 지역구라 좋기는 좋은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은……

○ 박인철 위원

저번에는 금일인가. 아니, 고금도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금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은……

○ 박인철 위원

같이 해야 되는데, 12개 읍면을 고루해야 되고.

또 내가 봐보니까 우리가 도서개발비가 투입되지 않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원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여기에 우리 순군비가 좀 투자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도서개발비가 들어가니까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는데, 그런 데에 아주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또 그 뒤쪽에 보면 고금도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325쪽, 이것은 잘못됐죠. 민간사업보조, 이것은 세워서는 안 될 예산들을 세웠죠. 3개 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예산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요.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조금 우리가 눈감아주는 식으로 해서 편성해 줬는데. 올해는 민간자본보조가 좀 방침이 정확하게 세워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예산계 쪽으로 협의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 버리면 우리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군의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예산계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막은 지가 3년차 되어 가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요. 우리들이 지역에 가면 왜 도의원들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는데 군의원은 안 되는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것은 좀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아까 그 317쪽이요, 아까 연구용역비 말씀하신 것 경관하고 디자인…… 이것 똑같은 품목 아닙니까. 한꺼번에 같이 할 수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가지고요. 법에서 하계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 묶기는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328쪽, 육지 소규모어항 금일하고…… 금일 동백리, 화전리 것이요, 지방어항. 그것 세

부사업 부기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어항 쪽으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저기 육지 소규모어항이 아니고?

○ 김양훈 위원

예, 지방어항인데 위로 올려놔서요. 이것 다시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325쪽이요. 작은섬 큰기쁨사업에 6,5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작년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0인 이하의 도서에 대해서 봉사활동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딴섬 10인 이하의 도서의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자원 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마을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인 이하의 외딴섬들을 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선정은 되어 있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직…… 어차피 그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서는.

○ 허궁희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5억 4,004만 8,000원이 증가된 317억 8,246만 2,000원입니다.

335쪽입니다. 지역방위 운영 일반운영비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4,65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19 나르미션 운항 지원금 1,500만 원, 시설비로 노화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에 2억 5,000만 원, 민방위급수시설 비상발전기시설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통합방위용 드론 구입 500만 원.

336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로 노화 등산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에 1억 1,300만 원.

33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로 완도 화개 중형관정 시설공사 2,000만 원, 완도 죽청리 용수로 정비공사에 1억 9,500만 원, 당초 1억에서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외 남선 가뭄대비 농업용수 시설공사 2,000만 원, 군외 황진 농촌용수 개발사업 2,000만 원, 군외 삼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2,000만 원, 고금 봉명 중형관정 시설공사 2,000만 원, 보길통리 방조제 준설공사 5,000만 원, 농업기반정비, 발기반정비 시설비로 2019년 발기반정비사업에 3억 3,230만 원.

338쪽입니다.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

로 완도 화개 농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죽청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금일 구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금일 장청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노화 소당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풍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신상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동천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가교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고금 향동 농로 개설공사 2,000만 원, 고금 봉성 농로 확포장공사 1,000만 원, 약산 우두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청산 권덕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소안 비동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생일 유촌 농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완도 화개 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 대구미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도암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화흥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대신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339쪽입니다. 완도 죽청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 중도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일 신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노화 구목 농배수로 시설공사 2,000만 원, 노화 대방 농배수로 시설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흥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삼두 농업용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금당 육동 농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보길 부항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농업기반 시설정비, 도비 보조 시설비입니다. 2018년도 말 배정으로 불용처리된 사업비 군외면 용계리 농업기반정비 2,000만 원, 청산면 구장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완도읍 장좌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예산 성립전사업으로 노화 충도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군외 망축리 농로 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동고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고금 상정리 농로 확포장 2,000만 원, 고금 가교리 농로 포장 2,000만 원, 약산 장용리 농로 포장 2,000만 원.

340쪽입니다. 청산 지리 마을회관 옆 농로포장 2,000만 원, 청산 부흥리 경로당 옆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상서리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권덕리 농배수로 공사 2,000만 원, 청산 양지리 농로포장 2,000만 원, 소안 동진리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소안 가

학리 배수로 덮개 및 포장사업 2,000만 원. 보길 정자리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노화 구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원.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시설비로 공익사업 편입 미불용지 보상 2,000만 원. 군외 삼두리입니다. 가로 등 전기설비 안전진단,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341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서남해안권 해안관광도로 공동대응연구용역 부담금 2,000만 원. 전라남도 주관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행사 부담금 2,000만 원.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로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4,000만 원. 국도 13호선 가로 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2,000만 원. 국도 77호선 가로 등 태풍 피해복구공사 2,000만 원. 완도 농도 203호선 정도 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금일 군도 18호선 신평~월송간 선형 개선공사 실시시설계용역 3,000만 원. 노화 농도 101호선 충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시설계용역 2,000만 원. 신지 농도 202호선 신상리 도로 확포장공사 2,0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 재해복구공사 2억 7,9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 태풍 콘레이 피해복구공사 1억 2,000만 원. 고금 군도 7호선 석치~봉성간 아스콘 덧씌우기 1억 5,000만 원. 약산 농도 101호선 넓고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억 원. 청산 농도 202호선 교량 확장사업 실시시설계용역 3,000만 원. 소안 군도 1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3억 9,712만 원. 소안 농도 101호선 압거 교체공사 7,000만 원. 소안 군도 11호 동신 배수로 정비 2,000만 원.

342쪽입니다. 소안 농로 201호선 이목 도로 정비에 2,000만 원. 소안 도로변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보길 농도 201호선 부항~부용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2,000만 원. 보길 군도 13호선 부항지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9,8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완도군 제설창고 신축 토목 및 건축공사에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로 6억 3,000만 원. 8개소입니다.

343쪽입니다. 소하천 관리 시설비로 노화읍 냇도 내리 하천 보수공사 2,000만 원. 청산면 구장리 하천정비 2,000만 원. 군외 당인세천 정비사업 3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950만

원. 완도 도암 하천 준설공사 2,000만 원. 금일 감목 우수저류지 준설공사 2,000만 원. 군외 영흥리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신지 양천리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 원. 고금 신장 하천 정비공사 1,000만 원. 약산 해동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약산 여동 세천 정비공사 2,000만 원. 청산 도청 소하천 복개공사 2,000만 원. 보길 정자리 하천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생일 서성리 소하천 정비사업에 2,000만 원.

344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일반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군내버스 외부광고에 398만 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708만 원.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자산 취득비로 제트스키 구입 및 스쿠버다이빙 전용 컴퓨터 구입에 4,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로 지능형 CCTV 설치비에 2,000만 원. 사물인식 카메라 교체 12개소에 1,000만 원. 완도를 중앙시장 화재감지 CCTV 설치에 600만 원. 군외 남선리 다목적 CCTV 설치 1,000만 원. 신지 신리 CCTV 설치에 800만 원. 소안면 CCTV 설치 지원에 2,000만 원.

345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설비로 12억 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재난상황실 면진테이블 보강사업에 3,000만 원. 재해예경보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음성정보시스템 정비사업에 1,000만 원. 지진가속 계측기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원격자동 강우량 보수사업에 960만 원. 원격자동 강우량 프로그램 정비에 750만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로 완도 가용리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1,000만 원.

마지막으로 346쪽입니다. 약산 어두 재해위험 옹벽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장항리 재해위험 정비공사 1억 원. 생일 유서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2,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335페이지요. 기타보상금 119 나르미선 운항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1,500만 원이면 됩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나르미요?

○ 박인철 위원

예, 기타보상금 밑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우선 한번 써보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연륙, 연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내가 이것은 김양훈 위원이 조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지금 홍보가 미진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하시고,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34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완도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3,000 해가지고 합이 7,000인데. 이것은 내가 자세하…… 과장님이 이것 한번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다 중추적인 역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행위는 아닙니다. 이 행위는. 그런데 우리가 행위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지역이 쑥대밭이 되고, 그 행위를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행위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한 행위가 아니고 최영신 팀장이 한 행위도 아니고 뭐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들어가고, 또 예산만 들어가면 좋은데 이런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역에서 안 해야될 행동들을 업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과장님 밑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철저히 관리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342페이지,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제설창고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준식 과장 있을 때 운동장 옆에다가 막 방치해 놔서 제설창고를 지어 가지고 녹슬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야 이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런데 이 위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도암리 저수지 그전에 골프연습장, 그것이 땅이 육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지목 변경을 해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돌려놨습니다. 그것이 한 300평 정도 나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창고사업에 좀 예산이 과다한 편도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땅은 안사고 창고만 짓는데 하는 것이니까 자산들이 방치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344쪽이요. 자산취득비, 제트스키 구입하고 다이빙 전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익명사고 발생 시 춘각을 다투는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트스키 이것이 있어야 만이 재빨리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구조대애다가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구조대에서 요청해서 해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제트스키가 없는가요, 좀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그것은 개인용이고요,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제트스키를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아니면 응급사고 거의 수영장…… 아니, 해수욕장 이쪽에서만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바다에서는 못 쓸 것 아니에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아주 큰 바다는 못가지만 연안에서 익사사고 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되면…… 그래도 상황 (청취불능)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로 판단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김양훈 위원

스쿠버 다이빙 컴퓨터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 제트스키 상황실에서 쓰고요, 현장에서……

○ 김양훈 위원

이것 그 수중 컴퓨터를 가지고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물속에?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무슨 용도로 쓰려고요?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이것은 인명구조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전부 다 구조대에서 요청해서 이 두 개를 올

려놓은 것입니까?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을 구조대에서 가지고 이렇게 다른 현장에 가서 물속에서 사진을 찍고, 누가 와서 일해 달라고 그러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자기들 이익사업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범성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우성자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산업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농업축산과
- 의회사무과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이범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어제에 이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 8,818만 5,000원이 증가된 15억 7,114만 9,000원입니다. 기념관 주변시설 관리 및 정비에 청해진 달빛거리 조성사업 설치공사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소장님. 425페이지, 청해진 달빛거리 조성사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장보고기념관 앞 해변도로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의 아름다운 풍경과 해변 휴식공간으로, 야간에 연인들이 즐겨 찾아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낭만거리를 만들어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예전에 용역을 했던건가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용역을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이 달빛거리면 저녁을 말하는 것이죠? (예)

효과가 있을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채택된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거기에 사람들이 야간에 많이 왕래를 해요, 지금?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달빛거리를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 거리를 조성하면 사람이 올 것이다? (예)

지금은 오지 않는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저녁에는 별로 오지 않아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봐도 저녁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아는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여름에는 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확실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경만 이렇게 불빛…… 달빛거리를 이렇게 빛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주변에 또 다른 이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달빛거리뿐만 아니라 달을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지금 가서 보면 그 옆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들이 좀 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사진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어서 많이 안 올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시설을 따로 할 것인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따로 할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시설을 어디에……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방금 나눠드렸던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달을 이렇게 하면 연인들이끼리…… 연인들이하고 이렇게 (칭취불능) 전부 다해서 포토존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광코스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데에 뭐 조형물이나 많이 넣어가고 한다는 얘기죠? (예)

이 예산을 가지고 하겠어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글쎄요. 제가, 저희들이…… 예산이 약간 더 삭감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단계별로, 올해는 어느 쪽까지 하고…… 다음에 연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빛만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도 많이 조성해 가지고요,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폭넓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 용역이 다 끝난 거예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끝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언제 끝났어요? 여기에는 용역 완료가 `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19년인데…… 이 용역비는 언제 잡아진 거예요, 본예산에도 이 용역비가 없던데?

(방청석에서 “작년 예산이었는데요, 11월에 완료되어 가지고 이월시켰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8년 12월이라고 해야지, `19년 12월이라고 해놨으니까, 여기에 지금……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아, 죄송합니다.

○ 박인철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이라는 그 말이죠?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할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으로 317만 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으로 세무, 노무,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으로 5,000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세탁기 구입으로 코인 세탁기 400만 원 4대 1,6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365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로 노화읍 전통시장 전기시설 개보수공사로 2,000만 원, 완도 5일시장 전기설비 증설공사에 2,000만 원, 완도 5일시장 바닥 데크시설공사에 2,000만 원, 중앙시장 비가림 환풍구 가림막 시설공사에 2,2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완도 5일시장 상인교육장 집기비품 구입에 책상 및 의자 100개해서 500만 원, 냉난방기 320만 원입니다. 인건비로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인부임 7명 외 6개월 해서 9,64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완도사랑상품권 및 봉투 제작에 2,625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수수료에 40억의 2%인 8,0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인센티브제도 운영비에 40억의 10%인 4억,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홍보비로 2,022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완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완도사랑상품권 전산시스템 설치비용 2,0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

은행 서버프로그램 구입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 2018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2,510만 원의 100분의 80인 2,008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는 보조사업으로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252페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홍보로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용환경 조성사업으로 군민 참여 토론회 개최 수송비 480만 원,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공론화 추진 광고료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서낙도 자가발전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풍력발전기 교체 1,500만 원, 태양모듈 교체 1,500만 원, 인버터 및 전력제어설비 유지보수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151개해서 906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2,160만 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차량관리에 사무관리비, 택시자율감차감평기수수료 1,47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 3억, 택시외부 완도관광 홍보 광고료 지급 2,388만 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 피복 지원 500만 원, 시설비로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설치 1억 9,98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교통안전용품 구입비 700만 원, 시설비에 정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000만 원, 교통신호등 신호기 및 지주 신설이 300만 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3,400만 원인데 4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정보알리미시스템 800만 원입니다.

25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4,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버스형) 운영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형교통모델(버스형) 버스구입비 지원 8,000만 원에 3대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247쪽이요.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자금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간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될까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6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위탁사업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대상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기대는 어떻게…… 큼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전년도에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한번 했는데 참여했던 분이 기고문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세무나 노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받을 만했다, 좋았다.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지금 파악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전체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소상공인에 가입되어 있는 수는…… 70여명 가입되어 있다고만 이장님과 통화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마 가입도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거기에 가입되었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만 한정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파악을 잘해서 소외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47페이지요, 이차보전금. 우리가 2019년도에 3억 9,600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3,000만 원 한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남신용보증기금으로 3,000을 받는 분들도 있고 5,000을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 5,000을 받는 분들은 3,000만 원만 해주고 2,000만 원은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대출한도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5,000만 원 이내이지만 거의 대부분이 3,0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개중에는 5,0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 완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에 대한 다른 뭐는 없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소상공인

○ 박인철 위원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들어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자 지원은 우리가 전남신용보증기금에서만 대출을 받은 그분들한테만 하는 것이지, 뭐 제2금융 농협이나 수협 이런 데와는 관계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농·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전남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지원이 되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어업인 외에는…… 소상공인 내에 도·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 광고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업은 어렵……

○ 박인철 위원

해야 농식부에서, 전남 농식부에서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서 지원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농식부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1년에 3억 9,000 정도 되면 4억 돈인데, 이것이면 정리가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럴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대출하신 분들을 보면 한 310여명 정도 됐고 2017년도에 한 290명 정도 됐는데요. 전년도 기준에 맞춰서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되고, 예산이 끝나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4월부터 시행할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소급을 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전 대출 이자 지원이 1억 9,800이고 신규대출 이자 지원이 1억 9,800이기 때문에 소급……

○ 박인철 위원

소급 적용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잘 실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아니, 완도 5일시장을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또 전기 증설이 되고, 또 바닥 데크, 이것은 무슨 공사를 말씀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전기 증설은 30억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가에다가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3kg에서 4kg 이렇게 저용량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입점해 가지고 이분들이 전력을 쓰다 보니 전력 용량이 좀 작다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5kg로 (청취불능)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11kg에서 14kg까지 증액해 주라는 이런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데크는 국밥집 앞에 개별적으로 데크를 시설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 건물에 너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군에서 일괄적으로 말끔하게 해줄 테니 그 위에 놓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라.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데크시설은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데크시설…… 예, 설치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했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를 가서 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안 되어 있는데…… 기존에 개인들이 하는 데크가 있고, 또 요 근래 보니까 데크공사를 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심의 중인데 해버렸더라는 이 말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시설비 부분에 약간……

○ 박인철 위원

예,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5일…… 과장님, 5일시장에 가봤죠? (예)

밖에 시설을 한 곳하고 안 한 곳하고 똑같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는데 저기 땀니까, 하나마트에서부터 장터까지 통과하는데 평상시에 2분이면 통과할 것을 거의 10분 걸려 가지고 통과했거든요. 또 5일장 안이 텅 비어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 보면.

우리가 5일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대학교수입니까, 양방향 교통이 다 통용되고 또 보도블록 밑에 길도, 읍사무소 뒷길도 다 한 쪽 통행되게끔 한다고 했는데요. 전혀 돈을…… 우리가 3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 대비 전혀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우성이예요. 왜냐하면 밖에 있을 때는 물건들이 제때 잘 팔렸는데 지금은 물건을…… 안에 손님들이 안 들어오니까 물건을 못 팔고 간다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 지역 촌로들이예요. 우리 지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예요. 들에서 해가지고 옛날에는 밖에서 잘 팔았는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읍사무소하고 잘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이 채워지고 밖으로 나오게끔 해야지. 돈을 3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아주 신건물로 해놨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고 밖에 있으면 그것은 안 맞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상품권이요. 아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무슨 인부임이 이렇게…… 1억 돈이

나 인부임이 들어가 버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읍면까지 전체 합쳐서 각 가게마다 할 수 있는 데를 방문해서, 신청을 접수 받아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좋은 것입니다마는 돈이 완도 사랑상품권을 만드는데 거의 6억, 얼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5억 2,600만 원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인부임까지 하고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5억 2,600만 원이고 인건비는 또 따로 있고, 기타보상금도 따로 있어 버리는구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산취득비도 이렇게 많이 있어 버리니까.

이것 이렇게 되면 한번 사후평가를 해봤습니까. 이것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완도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완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고, 이 상품권이 활성화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담당팀장이 군산을 한번 방문하고, 군산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해보려고 한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군산 같은 곳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상품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서 하고 있으니까 잘 접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과장님. 250페이지에서 제가 하나 여쭙볼 게요.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요. 그 사업 내용이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작년도에 선정됐는데 보조금 교부가 금년 11월 21일 경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도비 보조로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확보된 것이고, 사업은 이엠사랑에서 해초(청취불능)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 대상자는 따로 정해졌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이엠사랑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군비, 자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요. 80%를 한 것은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자담을 제외하고 한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54쪽, 시설비를 한번 봐주십시오.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지금 단일요금제를 시행해서 전 노선을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예를 들어서 요금 같은 경우에 가교리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완도를 오려면 고금터미널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래서 내려 가지고 다시 완도버스를 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환승시스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번에 1,000원만 내고 그냥 완도로 오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중간에 다른 버스표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런 시스템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방 예를 든 것같이 가교리에서 석치를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또 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안 내요.

○ 김양훈 위원

안 내고 그냥 환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깐. 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교통카드, 교통카드로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환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줍니까, 군민들한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제 발급을 해가지고 교부해 줘야 맞겠죠.

○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요? 군민들한테 다? (예)

그러면 그 카드를 발급하면 만드는 예산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지금도 버스카드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버스카드를 어디에서 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사서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예다가 돈만 넣어놓으면 그 한도 내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시스템이 안 되어서요. 저기에서 한번 1,000원을 내고 갈아타면 또 1,000원을 내고 타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 시스템이 되면 한번만 끊고 그 다음에 타면 저기에서 돈이 안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교통카드가, 완도 교통카드가 따로 있어요?

(방청석에서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전부 쓸 수 있는 그런 카드……” 하는 직원 있음)

농촌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어디에서 구입을 어떻게 하는지 다 홍보됐어요? 안 됐잖아요.

(방청석에서 “지금 완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완도에서나 하고 있지. 섬 단위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먼 단위에서는 어르신들이 전혀 모른다는 얘기에요.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아직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홍보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홍보 좀 잘 해주시고, 그 카드를 전혀 잘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환승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1,000원을 내고 저기에서 또 1,000원을 냅니다. 카드 그것 전혀 모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잘 발급되어 가지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소상공인 247페이지요. 야까 설명에서 잠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소상공인 이자 지원을 3%씩 해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야까 기준을 들어보니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만 한정을 두었다는데, 그렇다면 소상공인 전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예다가 출연금 1억 7,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 소상공인 지원을…… 이번이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다 보면 다른 소상공인들도 아마 민원을 저희들한테 할 수도 있어요. 했을 때 뭐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만 받는 사람들은 되고 일반…… 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지역금융에서 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우리 어찌됐든 취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도움을 주려고 이런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그랬는데 어느 형평성에서 보면 그 사람은, 그쪽은 (청취불능) 받는 사람만 해당되고 이쪽 지역금융권을 사용하는 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거기 소상공인들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이자율이 좀 낮아서 일반금융권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신용 그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이자보전이라는 것이 지역금융하고 소상공인…… 오히려 전남신용보증재단 그쪽 이자가 더 쌀 거예요. 보증재단에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 이자가 싼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을 다 해주는데, 3%나…… 지역금융은 오히려 이자가 거기보다 더 비싸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못 본다

는 얘기에요. 이런 것 참고를 잘 해야지. 우리가 완도지역의 소상공인 전체를 두고 이 사업을 계획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형편에 맞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도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정옥 위원

검토해서 해야지. 이게 당장 처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장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이자도 비싸지, 지원도 못 받지. 어떻게 보면 이 취지와 전혀 안 맞죠, 그렇죠? 이것 생각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 포상금 내용에 대해서요. 상품권 부정유통 포상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신고를 하게 되면 한 사람한테 10만 원 이내에서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더라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최정옥 위원

일반인들이 유통 신고한 것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정유통이 되거나 그러면 일반인들이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5만 원,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요, 우리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 잔액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17년도에 6개 읍면에 전도를 해가지고 집행하라고 해서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교부를 해줬는데요. 재료비는 다 소진을 하고 일 참여율이 적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인건비 반납금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최정옥 위원

이것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일을 그냥..... 공공근로사업이 6개 읍면을 해주고 공공근로사업이 안 되는 나머지 읍면에 일자리 공동체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거나 참여율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최정옥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써서 일자리..... 좀 뭐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지. 이런 것을 반납하면 안 되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136억 3,125만 8,000원에서 12억 1,960만 1,000원이 증액된 148억 5,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 운영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레집 제작 45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 문화관광해설가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설가 및 해설사는 53명입니다. 관광상품프로그램 개발,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은 부기정정했습니다. 시군역량강화(완도섬여행등대) 기타보상금, 섬 여행등대 추진단 활동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

사무관리비에 슬로건기축제 11주년 기념책자 제작 1,000만 원, 시설비, 범바위 정비사업 토지 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7월지 2만 8,000평인데 총 2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길 편의시설 설치사업 2,000만 원, 그리고 청산도 슬로건기축제 사무관리비, 청산도 슬로시티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청산도 슬로건기축제 홍보 1,000만 원, 시설비, 청산도 슬로건기축제 소형 포토존 제작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장보고수산물축제 사무관리비입니다. 263쪽입니다. 맨 윗줄 각종 행사 운영에 따른 의상 및 소품 구입 1,200만 원, 방송영상산업 유치 및 육성, 사무관리비 KBS 다큐공감(해조류) 제작 지원 4,000만 원, KBS 해양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7,000만 원, JTBC, 거기에 JTBS 라고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JTBC 연예인들 요리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제작 지원 7,000만 원, KNN(경남방송) 수산물 특집(전복, 광어) 판촉 제작 지원 1,000만 원, MBN 천기누설(완도 전복) 제작 지원 3,000만 원, 채널A 몸짱 제작 지원 4,000만 원, tvN 톱스타 유백이 드라마 세트장 토지사용료 5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tvN 톱스타 유백이 드라마 촬영 세트장 복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청률 12%였던 유백이 드라마 세트장은 금년도 7월 슬로시티 관광객 유치를 위해 6월까지 존치시키는 토지사용료이며, 여름 태풍 전에 철거 복구를 위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리 시설비, 노화 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진입 호안도로 확포장공사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화 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용역은 전복웰빙센터 건축물이 장기 방치되고 또 미개발된 2단계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됨에 따라서 장기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노안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진입 호안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로 폭이 좁아서, 그리고 바닷물이 만조 시 잠겨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장 264쪽입니다. 약산면 홍보 전광판 교체공사 2,000만 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억 원, 주요 관광지 화장실 보수사업비 700만 원, 보길 부항리에서 부용리 데크 시설 보수공사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참고로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63필지 2만 평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보길 부항리에서 부용리 데크시설 보수공사는 보길대교 앞에서 부용리 낙서재까지 3km에 대한 데크가 파손되고 노후된 곳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섬 세부사업, 여서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와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군외 수목원-천동골은 보조사업으로 편성목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해수욕장 데크 및 음수대 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마는 그곳에서 부족한 보길 중리, 통리, 소안 미라, 신지 동고 해수욕장 편의정비 시설 사업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해수욕장 안전장비 및 시설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오리발 등 안전장비 구입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해수욕장 인명구조보트 등 안전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시설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매 3년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사업비입니다. 완도군의 지정 해수욕장 10개소에 대한 해당 지역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입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비 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 추경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그 제작 지원. 이번에 3억 1,500이나 증액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물론 타 시군보다 약간 높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완도 특산물, 요즘에 솔직히 별로 이렇게 판촉이 어려운 그런 전복, 광어, 해조류.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에 따라서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위에 보면 KBS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본예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수산물 특집다큐멘터리 제작 7,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된 예산 같은데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S로 제작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본예산에 보면 수산물 특집다큐멘터리라고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 예산 같아요. 이런 것은 삭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해조류밥상, 바로 밑에 냉장고를 부탁해. 저희들 뭐 해조류밥상이 따로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그 지역특산품을 소재로 해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이것은 시청자들이 특별히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상품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보는 그런……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완도 자체에서 해조류 밥상은 아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먼저 구상해서 테마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뭐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조류밥상, 해조류를 줄 테니까 해봐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거기가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냉장고를 부탁해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 계획으로 해조류밥상을 이렇게…… 주제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기타 전복이나 광어특산품을 함께 추가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는데 정확하게 해조류 밥상이라는 것이 완도에도 없고, 뭐 세프가 만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테마를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제작 지원만 해줘 가지고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이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해조류밥상에 대한 전문적인 뭐 밥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테마를 잘 설정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테마 설정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 천기누설 완도 전복 그것은 '18년도에도 이것을 제작했었죠? 거기에서 효과가 있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수치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완도특산품이 TV에 이렇게 많이 노출될 경우에 그만큼 관광객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 유치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보면 완도 광고비나 홍보비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솔직히 많습다. 많으면서도 이렇게 큰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의 홍보 효과라든가 광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효과들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나 홍보를 할 때는 정확한 테마를 좀 설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딱 사람들에 인식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광고비만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되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것도 테마를 잘 설정해 가지고 딱 머릿속에 광고 하나가 머릿속에 남을 정도로 그래서 완도라고 하면 해조류, 수산물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해조류, 해조류 해도 솔직히…… 도시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 먹을 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맛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 개발 쪽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제작하는데 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 개발 쪽도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 263쪽 시설비요, 노화 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려고 용역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웰빙센터가 전복웰빙센터가 방치되어 가지고 사실…… 뭐 탁구라든가 또 사물놀이라든지, 각자 주민들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된 2단계 부지는 거의 개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방치는 아니지만 해상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거기 지역주민들을 위한 종합운동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 김양훈 위원

저도 노화를 한번 가봤었어요. 가봤는데 거의 방치 상태죠. 그리고 마을단위 동호회라든가 몇 군데들만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 넓은 땅이.

제 생각에는 이것은 활성화 이렇게…… 기본 계획보다는 공모사업을 차라리 하십시오. 공모사업을 해서 크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신청해서 활용도 있게 쓰는 것이…… 이것 활성화 방안보다는 그 쪽이 더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일단 공모사업을 이렇게…… 저희들이 노화 건강테마촌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라는 것을 이전에 거쳐 가지고요. 이것을 사실 솔직히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다시 좀 더 연구해서 정말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용역을 해서 알아보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넣어봤자 거의 보면 똑같은 수치더라고요. 선생님들, 뭐 교수들이나 어디 학교에나 하면…… 글씨 몇 자를 써가지고 오는 것 다 똑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의 다 비슷비슷한 용역들인데 굳이 여기에 용역을 할 것이 있느냐.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해서, 그러면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262쪽이요, 섬 여행등대 뒤편 추진단 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부터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7억 3,00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이…… 원래 눈에 띄지 않게 추진되어 왔는데요, 이것이 내년까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완도관광 스탬프 투어라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것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누구든지 전국에서 스탬프투어에 등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완도에 오면 자동적으로 어디에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점이 찍어지고,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이렇게 완도를 방문하게 되면 상품을 준 다든가, 이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완도투어패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지금 현재 9,900원으로 완도투어패스 1장을 구입하면 완도에 있는 유료입장, 그러니까 완도타워 그다음에 완도장보고기념관, 또 해신세트장, (청취불능) 이런 6개소를 9,900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에 보면 아까 추진단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완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사진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이런 분들을 추진단으로 해서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SNS 이런 종합적인 완도투어패스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완도로 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그 홍보가 그렇게 잘 되어 있는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많이 안 됐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지지부진했는데……

사실 완도투어패스는 아까 말씀드린 9,900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1월부터 막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 막 시작했는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구입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요, 이게 2016년도부터 시작했다면 최고 성과를 거둬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몇 년 됐습니까, 벌써 3년차면…… 3, 4년차면 뭔가 효과가 확실히 나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홍보나…… 우리 위원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홍보방식이 아닌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섬 여행등대 추진, 이 사업은 지금도 2018년 사업비가 있고요,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내용은 홍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을 추진해 가려면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제가 더 많은 홍보도 하고……

○ 허궁희 위원

그리고 264쪽이요,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 사업 토지보상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돈이 예산으로 올라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생태공원 사업개요나 필요성, 규모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산 신흥리 동부하천 주변에 자연갈대습지가 한 2만여 평 있습니다. 거기에 완도군유지도 2필지 정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개인사유지가 63필지입니다. 청산은 주로 서부 쪽으로 개발되어서 슬로걷기축제라든가 슬로시티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청산 동부권 주민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고 그쪽에서도 좀 개발해 달라고 그래서요. 동부 쪽에 이 사업비가 19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자연생태탐방로 습지에 대한 탐방로를 하고, 그다음에 생태공원센터 등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도 관광객을 유인해서 슬로걷기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이것이 토지 매입이나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가서 토지 매입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 지역민들이야 지역 발전을 한다고 하니까 협조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지역 요소요소마다 외부인들이 많이 땅을 매입해 봤더라고요. 이 분들이 쉽게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벌써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요, 그분들이 땅을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청산도 분들이 아닌 경우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토지 승낙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264쪽이요. 보길 부항리~부용리 데크시설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라고 올라왔는데 그 내용 자세히

설명 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그 노화에서 노화 쪽…… 보길 쪽으로 다리에 들어와 가지고 보길대교, 거기에서 운전도 유적지, 낙서재까지 가는 오른쪽에 보면 계속 이렇게 길옆에 데크가 한 7년 전에 제가 알기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일부 부러지고, 지나가면서도 상당히 흉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동이 약간 좀 기울고…… 그것 3km를 저희들이 전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가 되고 파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혹시 그런 데는 데크시설이 아니라 일반도로나 경관 조성을 해서 이렇게 데크시설을 안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도로가 실제 가서 보면 좁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에다가 해놨습니다. 그 이상 공간이 없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데크시설을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설할 때는 좋은데 큰돈을 들여서 해놓고 나면 보수나 유지비들이 많이 들어가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살릴 수 있으면 살려가면서 그 도로를 이렇게 개척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의 대안은 없는지, 꼭 앞으로 데크시설만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는 위원님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크가 너무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수를 하고 2~3년이나 5년 정도 더 써보고 그때 최종적으로 더 이상 못쓰게 될 때는

그런 방안을 처리한다든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관광계통에 계실 때 그런 계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장보고수산물축제 돈은 1,200만 원밖에 아닌데, 왜 이것이…… 축제 안에 이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올려놨어요. 의상 및 소모품 구입, 이것은 축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액수는 1,200만 원밖에 아닌데 이유가 있어요? 장보고축제도 잔액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잔액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장보고축제가 사실 7억 8,500인데, 거기에서 읍면 체육대회가 2억 8,000이 들어가 버리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노젓기 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여행사에 한 3억 8,000 정도가……

○ 박인철 위원

이것 뭐 노젓기나 장보고축제 별도로 예산이 5,000만 원인가 잡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도 별도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나서 장보고축제가 잡혀져 있는데. 아니, 갑자기 해년마다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1,200만 원이 올라와서 물어본 말이고요.

청산 신흥 생태공원 토지 보상비입니까? 토지 매입비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토지 매입비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보상비로 해놨으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 보상비입니다.

○ 박인철 위원

무슨 토지를 보상한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가 신흥리 앞바다…… 바다, 거기를 보면 거의 별논 이어 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갯바닥에다가 무슨 옛날에 갈대를 심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못 짓고 그래서…… 뭐야, 갈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무슨 토지 보상비를 준다는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60필지 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 박인철 위원

아, 보상비요. 매입비가 아니라 우리가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매입비라고…… 제가 정리를 잘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드린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매입이죠.

263페이지에 노화 건강테마촌, 여기는 놔놓고, 그 밑에 갈꽃섬, 여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예요. 내가 지꾸 물어보는데 처음에 위치를 잡을 때……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잡았어요. 계속 예산이 들어갑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처음부터 가장 좋은 부지에 또 여건이 되는 곳에 사실 사업을 먼저 추진했어야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이 정확히……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지금 내가 봐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맑은물사업소까지 여기에 들어가고 이런 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라인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없는데…… 애당초 자리를 왜 여기에다가 잡았었는가, 이런 부차적으로 돈들이 들어가

개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계장님,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요. 아니면 또 들어가요, 여기예? 자꾸 예산할 때마다 올라오니까 그래. 이전에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방청석에서 “이것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하고 최종적으로 지역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직원 있음)

아니, 하는 것은 맞는데 애당초 자리 선정을 할 때 이런 것을 미처 안 봤는가. 처음에 그 건물 지을 때 동부초등학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버린 것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15억인가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미처…… 위치를 잡을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잡았는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상하수도 문제 이런 것들도……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들…… 현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해놓으면 마을주민들이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에 건강테마촌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전혀 쓸모없는……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소안 수협 건은 어떻게 됐어요, 정리는?

(방청석에서 “진입도로는……” 하는 직원 있음)

3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엇그저께 소안…… 노화에 가봤더니만 전혀 뭐를 안 하고 있던데.

(방청석에서 “현재 그 돈을 (청취불능) 여유 있게 기간도 켜고요, 수협에다가 임대 사용하느……”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3월까지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방청석에서 “예,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본예산 186억 112만 3,000원이며 이번 1회 추경 시 50억 3,70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36억 3,915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 요구한 명사갯길 및 주요 등산로 이정표 설치 1,500만 원.

다음은 304쪽입니다. 대형경유자동차 버스 덤프 대형트럭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3,000만 원.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라돈측정기 구입비 520만 원.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증액분 330만 원을 반영한 총 1,650만 원.

다음은 305쪽입니다. 노화읍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운반처리 수수료 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설비에 청산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설치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 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정비 증액분 3,000만 원 반영 총 6,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진기 지정폐기물 처리비 1,935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자

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장비 구입비 증액분 9,000만 원을 반영, 총 1억 4,0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에 음식물처리기 증설 교체 공사비 14억 9,46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기 증설 교체공사 54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유지관리 사용료 하반기 지급분 19억 2,000만 원을 반영, 총 39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무기계약 직근로자 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구입비 증액분 160만 원 반영, 총 430만 원.

다음은 30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수수료 5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구입 증액분 6,646만 원을 반영, 총 9,899만 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증액분 288만 원을 반영한 1,62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시설비에 군외 고마도 비위생 매립장 정비공사 5,000만 원. 노화 넓도 서리 비위생 매립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1,410만 5,000원. 생활폐기물 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서 비위생 매립장 방치쓰레기 처리비 3,99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420만 원.

다음은 30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이동화장실 컴퓨터사 구매 설치비 3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주요 관광지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금일읍 화장실 개보수사업 2,000만 원. 금당 가학리 공중화장실 설치 7,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민간 개방형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2,000만 원.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지원, 시설비에 특별교부세인 완도군 환경미화원 휴게실 리모델링에 3,000만 원. 약산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2,000만 원.

다음은 308쪽입니다. 308쪽은 국도비 변경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임업인 육성, 행사 운영비에서 완도향철공예품전시회 추진 2,0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신문 보급, 사무관리비에 임업신문 보급 208만 8,000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숲길체험지도사 인부임 2,029만 5,000원. 가로경관 조성 무기계약근로

자 보수에 공무원 상여금 및 수당 5,270만 9000원. 가로경관 조성 사무관리비에서 나무은행 포지 임대비 828만 9,000원.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증액분 1,100만 원을 반영, 총 2,300만 원.

다음은 310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공공운영비에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유지관리 2,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재료비에서 편백 숲, 완도타워 꽃무릇군락지 꽃묘 구입비 2,0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 완도 화흥포항 가로수 정비사업 2,000만 원. 노화 방죽 십터 조성사업 3,000만 원. 약산 삼문산 숲가꾸기사업 2,000만 원. 약산 지방도 830호선 가로수 조성사업 2,000만 원. 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서 청산 해뜨는마을 명품공원 조성사업 5,000만 원. 소안 향일문화공원 식재사업 2,000만 원. 산불 예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지역 산불진화차량 구입 건입니다. 당초 1톤 차량에서 2.5톤 차량으로 변경 시 발생한 증액분 3,750만 원을 반영, 총 1억 8,750만 원.

다음은 311쪽입니다.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 증액분 500만 원을 반영, 총 1,475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시설비에서 금일 망산 등산로 정비 2,000만 원. 노화 등산로 정비에 1,000만 원.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 1억 2,000만 원. 군외 황진리 임도 개설사업 5,000만 원. 고금 덕암산 공원조성 부지매입 2,000만 원. 청산면 상서리 남산 둘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금당 울포리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보길면 정자리 북바위 둘레길 등산로 정비에 2,000만 원. 생일 학서암구간 임도 확포장사업 6,000만 원.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서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증액분 2,000만 원을 반영, 총 4,00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에 상 황산 임도시설 정비 2,000만 원.

다음은 312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일 반 병해충 방제시설비에 해안가 종합방제 1억 원.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에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375만 1,000원.

다음은 313쪽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연구용역비에 분신청서 작성 용역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예요, 청산 해뜨는마을 명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장소라든가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진산리갯돌밭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수목 식재, 정자, 데크, 소나무 보호시설 안내판.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있을까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니까요.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 박재선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또 311페이지예요.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도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차후가 문제예요. 설치할 때는 좋아요. 그리고 보면 계속 과마다 보수공사라고 해가지고 계속 많이 들어오거든요. 설치하실 때 뭐 다른 방도는 없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 부분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했던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수하지 않고 관리가 잘 되도록 설계부터 시공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노후가…… 몇

년 지나면 보기도 싫고 또 많이…… 피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녹이 슬고 보기 싫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강고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수명이 오래된 것으로……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목재로 해서, 피스 같은 그런 문제를 세밀한 부분까지 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산…… 305페이지요. 305페이지, 청산 폐기물처리장 매립시설 설치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예)

그 사업내용이나 규모 같은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매립시설이 다 가득 찹니다. 규모 같은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하십시오. 자세히 아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죠.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산 이번에…… 인사 관련을 하고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청산 소각 잔재물을 매립시키는 매립장인데요. 매립장 상태가 가서 보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청취불능) 사실 이것이 국고 보조를 받으려면 벌써 신청을……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요. 급하게 올해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를……”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늦었다는 얘기죠. 그동안 대비를 미리 미리해서 좀 국고도 이렇게 확보하고 했어야 원활하게 사업이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방청석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09쪽이요, 완도 황칠공예품전시회 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어서요. 그것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전시하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

○ 산림녹지팀장 박은재

(좌석에서) 산림녹지팀장 박은재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시회 주제를 만년의 신비 완도황칠 공예품전시회로 정했습니다. 4월 3일부터 4월 9일, 일주일 간 서울 인사동에 있는 국립미술회관에서 배철지 작가 분 외 일곱 분이 참여해서 전시작품 30점을 이렇게 전시할 계획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래요, 저희들이 눈으로는 못 봐서요, 전시할 황칠공예품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종류 같은 경우는 비너리든지 서예, 도자기, (청취불능), 불화, 불상, 보석함 정도가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기존에 저희들이 그…… 도료 그 분을 채취해 가지고요, 배철지 작가 그쪽에서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해서 이번

에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앞으로 그런 전시회를 하고 나서 효과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있겠다는 예측은 해보셨나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금 현재 황칠 그 부분이 건강기능성 식품(청취불능) 일반공예품에도 고가로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효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런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정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13페이지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추진위원회. 그것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설명 좀 해주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전 달에 기본계획보고가 끝났고요, 두 번째 본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는 보완되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조치하고 있고요, 예비신청서는 보고회가 끝났고 본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가 생물권보전지역이면…… 완도 내에 어디 어디 몇 군데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특수구역으로 해서 보길도 윤선도림, 수목원, 청산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구들장논으로 해서 약 네 가지 정도가 핵심구역으로…… 그쪽 등재를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네 군데 지금……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핵심구역이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보통 이것을 신청하면…… 할 때 용역을 한다는 얘지요, 신청하기 위해서 등재 지정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대응방법이 전문적인…… 그 박사나 협회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를 선정하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것인가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아니요, 유네스코 본사에서 합니다.

○ 최정욱 위원

본사에서요? 아니, 그 지정 네 군데를 우리가 처음에 할 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용역을 통해서 합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완도군 전 지역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한 것은 핵심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이런 지역은 핵심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또 전이지역, 완충지역, 이런 부분은 완도군 전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1차 용역을 했다는 얘기네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예비신청 용역은 끝났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네요, 이것이?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본신청서 등재를 위한……

○ 최정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추경예산서 세출예산서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158억 8,811만 원으로 1차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5억 8,000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6,8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해조류양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양식사료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의 절대 부족 및 전북산업연합회의 요청으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정 내시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당초 본예산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공단 측의 사정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시설비로 목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은 금년 6월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

됨에 따라 1억 9,790만 원 중 국비 9,89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 도비 2,968만 5,000원, 군비 6,926만 5,000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섬주민 생활품 물류비 지원사업에서 감하여 기정 편성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시설비, 노화읍 미라리 로드선창시설사업은 로드선창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 상존 및 어선에 대응하고 승하선에 어려움이 있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편익시설 시설비, 약산면 해동리 어구보관창고시설은 전년도 화재로 손실된 어구보관창고 재건을 위해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시설비, 소안면 북암리 부잔교 외 6개소는 (청취불능) 피해로 국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9,0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로 김양식 무기산 폐기사업은 해경에 추가 (청취불능) 폐기를 위해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청정해역보전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3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비 21억 4,820만 8,000원으로 먼저 `26년도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국비 3억 7,000만 원 중 적조 미발생으로 목변경하여 1억 2,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비 집행잔액 2억 4,150만 원, `16년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는 국비 11억 9,500만 원 중 3억 1,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 모집했습니다마는 사업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8억 8,321만 8,000원, `17년도 유해생물구제사업비는 국비 2억 5,000만 원 중 목변경하여 1억 4,86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30만 6,000원, `17년 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국비 10억 4,500만 원 중 1억 6,031만 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대상자가 없어 집행잔액 8억 8,468만 5,000원을 반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 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3쪽이요, 방금 약산 해동리 어구보관창고시설물이라고 했는데, 방금 화재라고 그랬나요? (예)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작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그때 당시 (청취불능) 전부 했거든요. 타버려 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 김재홍 위원

그 열독이 집약적으로 같이 모여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청취불능) 도로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어떤 식으로 화재가 났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때 수사했는데 원인 미상으로 해가지고……

○ 김재홍 위원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많았을 것 아니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에요, 하우스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이 아니라 3,400 정도, 그런 정도의 예산입니다.

○ 김재홍 위원

370 정도 들어간다고요? (예)

이것 관리 소홀 아니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때 당시에……

○ 김재홍 위원

화재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수사를 했었죠. 수사를 했는데 원인 미상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약간…… 뭐죠, 양식시설 자재가 일부 들어있기는 있었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마는……

○ 김재홍 위원

주로, 구체적으로…… 양식 그 어구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주로 내용물은 무엇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주로 부자나 로프, 이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노상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좀 보기 흉하니까요. 그것을 어구보관창고 안에 일정하게 개인별로 정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면서 다시 재시설한다는 얘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관리 소홀이라기보다 원인 미상이죠, 화재발생이. 그래서……

○ 김재홍 위원

어떻게 하든지 원인은 화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는 본인들이 물론 해야 되겠죠.

○ 김재홍 위원

그런데 이 관리를 잘못해 놓고 다시 시설을 해주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이 말이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그 화재가 원인 미상이라서 관리 소홀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 김재홍 위원

원인 미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화재가 원

인이고 재구상해 주라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때 화재가 원인 미상이 되어서…… 주위에 아이들이 놀다가 불을 냈다든지 이런 것으로 추정은 했지만…… 원인이 뭐죠, 관리 소홀이라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집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하다가 뭐……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줄 것이냐는 얘기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관리 소홀……

○ 김재홍 위원

자꾸 이렇게 뭐로 해가지고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화재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화재가 나면 또 해줄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 소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배제를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 소홀이라기보다는 원인 미상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작업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한 번쯤은 경고 조치를 한 다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다시 와서 행정예다가 “이것을 또 다시 지어주시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사를 해서 본인들 관리 소홀로 나왔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요. 관리 소홀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올린 내용입니다.

○ 김재홍 위원

잘 참고하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353쪽예요. 시설비를 보십시오. 노화
음 미라리 부잔교시설이요. 이것 국비도 아니고
순군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로드선창이라고 그래서 부잔교, 그런 지
원사업은 아니고 말하자면 바다 가운데로 길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오르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시설한지가 한 15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 김양훈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잔교…… 옆에 부잔교시설
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부잔교 그러면 거의 국비
가 아닙니까? (예)

국비를 순군비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 로드선창…… 부잔교사업은 1억으로 해
가지고 도교하고 해서 피해감정을 해가지고 이러
게……

○ 김양훈 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 것이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 김양훈 위원

만약에 다른 데에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순

군비로 부잔교, 로드선창이 있다고 그래서……
순군비로 다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 부분은……

○ 김양훈 위원

아니,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부잔교…… 어
떻게 보면 부잔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각
마을 어촌계마다 부잔교를 다 해주라고 아우성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국비가 아니라 순군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른 데에서 이런 것을 보고 또 순군비로 해주라고
했을 때 다 해줄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 부분은 신설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
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 때 만들었거든요. 만
들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일부 지
원해 달라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
되는 비용은 우리 마을에서 부담해서 철거하고
다시 재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신설로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로드선창이 아니
다.

○ 김양훈 위원

로드선창이 아니고 부잔교로 봐야 되지 않겠
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말하면 간이접안장,
그런 개념인데 부잔교와 약간 성격이 다른 개념
이라서……

○ 김양훈 위원

아니, 부잔교와 성격이 다른 개념이 어디에 있
습니까. 부잔교시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이라는 얘기입니까.
뭐 배를 안 대고 걸어 다니는 통로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걸어도 다니고요. 또 배도 접안시키고 그런 시
설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부잔교라고 봐야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겸해서 하는 로드선장.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괄호에 부잔교로 연계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보서는 순군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뻔히 아는데 다 해달라고, 순군비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시설물…… 어떤 신설이면 저희들이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고 그래서……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부잔교를 했던 동네들은, 어촌계들은 해주라고 하면 순군비로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다 해줘야 되죠. 기존에 있었다고 그래 가지고 순군비로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기존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은 별로 규모 있게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우리 군에.

○ 김양훈 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가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완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주라고 했는데 못해준다. 군비로 못한다, 순군비를 갖고는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보니까 순군비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반절

정도는 자기들이 추가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반 정도 매칭사업입니까, 동네하고, 3억짜리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한 3억짜리……

○ 김양훈 위원

확실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3억 정도 들어갑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왜 부기예다가 안 써놓습니까.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여기예다가…… 시설비로 해서 자부담을 여기예다가 포함시키기 어려워서, 부잔교 같으면 5 대 5로 쓰는데……

○ 김양훈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산책인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5 대 5 매칭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눈 먼 허수아비도 아니고, 안 그래요? 예산서를 올리면서 매칭사업이라고,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그것도 안 올렸다고 하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그 부분은 다른 개념인데, 1억 5,000만 원어치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더 시설하겠다는 이런……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칭사업이면, 5 대 5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이라고 써놓고 자부담을 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딱하니 1억 5,000밖에 아닌데 여기에서 5 대 5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김양훈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계에 물어보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시설비가 매칭사업이 돼요?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방청석에서 “아니……” 하는 직원 있음)

시설비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것 시설비니까 소유가 군이 되어야 돼. 여기 목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시설에. 시설비 매칭사업비…… 민간자본보전도 아니고 시설비에 매칭사업이 어디에 있냐고.

예산계, 대답 한 번 해보십시오. 그런 사업 있소?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시설비 매칭사업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니, 시설비니까 이 소유가…… 부잔교가 군으로 되어야지. 미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니까……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여기에서 매칭사업이 나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매칭사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아, 금방 김양훈 위원한테 5 대 5 매칭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것 목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매칭사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마을에서 추가로 시설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 김양훈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이것은 하시고요.

35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거기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적조 관련…… 아니, 고수온과 관련된 선박 임차료라든

지 액화산소 지원비,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즉 위탁사업인데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공기관 등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조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해수수협이요? (예)

어류양식수협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서 위탁해 가지고 고수온 대비를 다 할 수 있을까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어차피 액산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그쪽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라서……

○ 김양훈 위원

이것이 지금 육상입니까, 아니면 가두리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육상을…… 어류양식을 주 타깃으로 하고요. 필요하면 전복양식이나 해상에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양쪽에다가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가두리 같은 경우에 어류양식수협에서 액산을 한다고 했는데 바닷가 쪽은 거의 안 가거든요. 양식수협에서는 못합니다. 그쪽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위탁 이렇게 맡길 때는 잘 검토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이나 이쪽에 보면 가두리 쪽에 고수온 피해가 5년 들어서 계속 났었죠? (예)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은 있어요? 위탁을 맡겨 버리면 그쪽 어류양식수협에서 가두리 쪽은 잘

신경을 안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다 쪽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복과 관련된?

○ 김양훈 위원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복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남해수산연구소 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일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차광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요. 아까 일부 이야기했던 어업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액산 공급사업도 일부 추가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한 5~6월경에 저희들이 연구소와 관련해서, 고수온과 적조 관련 대응을 해서 총괄적인 어업인 순회교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고수온 피해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차광막 1억, 환경개선품질 1억 2,000 이렇게 해가지고 고수온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되겠어요. 대책이 어렵습니다. 이것. 그래 가지고 뭐 폐사가 난다든가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처리,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아닙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잘 세워가지고 해주시고요. 진짜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이요,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8억 8,400 전부 다 이렇게 반환금이 됐네요? (예)

사업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이 기존 가두리를 철거해야 되거든요. 기존 가두리를 철거하고 다시 재시설할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업인들에게 별로 호응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몇 차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그것 매년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한다고 그러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 초에 반납해 버리십시오, 사업자가 없으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사업비가 `16년, `17년에 오고 그 뒤로는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17년도 것을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사업은 저희들이 `18년부터는 하지 않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예)

사업자가 없으면 정확히 하시고, 또 있으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지원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집행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51페이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갑자기 해조류부산물이라고 해가지고 1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년도에 이 사업비를 했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전북 생산자협회 이쪽에서……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전북생산자협회에서 창고를 지어줬죠? (예)

그러면 그 창고가 안 차게끔 매년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창고가 뭐……

○ 박인철 위원

우리가 균특사업까지 하면 얼추 이 사업이 한 4억인가 되어 버리는데, 1억 5,000이 플러스되면.

우리가 창고…… 냉동창고를 지어주고, 그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해조류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해조류 어가들한테미, 해조류 미역 같은 것이 안 팔려서 개판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에 차라리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냉동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또 1억을 올린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개념은 아니고, 명칭 부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마는 해조류부산물입니다마는 부산물 위주로 하되,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미역줄기나 귀, 이런 부분들을 좀 수거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예산 추경할 때 미역 원초 값이 너무 엉망이어 가지고 급하게 예산 1억을 세워 가지고 원초를 사지 않았습니까, 미역 원초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게끔 해야지.

아니, 전복협회가 뭐하는 협회입니까. 왜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돈을 쥐가지고 이런 부산물을 사게 합니까. 필요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해년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미역 구매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줄기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전년도에 준해서 그 예산으로 부기를 하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 박인철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우리가 미역 값이 하도 안 좋으니까 급하게 추경에 1억을 세워 가지고 미역

을 사줬다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미역 값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부기가 잘못됐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 금일수협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그때 정산을 안 받았는데 내가 받으라고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세입으로 잡습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이 분들 전복협회에서 생산자들한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공짜로 안 주고, 그러면 냉동비 빼고 인건비 빼고…… 나머지들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잡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 올라온 것 봐보십시오. 세입에는 없던데, 뭐 얼마 올라와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을 받아서…… 받았는데 아마 세입조치는…… 죄송합니다. 이것 세입 조치…… 저희들이 최근에는……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없던 것 같은데 무슨 세입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방청석에서 “세입은 세입세출로……” 하는 직원 있음)

우리 세입예산서에는 안 보이던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이것을 최근에 우리가 정산을 받아서 세입세출로 잡았는데 금년 1차 추경 때는 아마 세입으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2차 때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얼마나 그러면 들어왔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전복협회에서 한 4,000만 원이고요, 수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수협에다가 1년에 얼마 줍니까, 부산 물하고 다시마하고 해가지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6억 정도…… 4억 5,000 정도, 5억 이쪽 저쪽……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나갈 것입니까?

아니, 다시마는 다시마꼬리를 수거함으로써 다시마 원초 값이 올라가니까 하는데, 왜 우리가 전복협회에다가 해년마다 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산경영과에서는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닌데 전복선별기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자조금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5 대 5인데, 거기에서 또 돈을 얼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것은 뭐 그렇게 하고요, 부잔교, 김양훈 위원님이 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각 어촌계마다 부잔교로 난리인데, 노화 미라리는 별 것어서 이렇게 1억 5,000이나 순군비를 넣어줍니까. 지금 각 어촌계마다 부잔교가 짧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난리고 난리굿인데…… 왜 여기는 돈을 시설비로 해가지고…… 이 시설비로 나가면 이 소유가…… 과장님, 어디 것인지 알죠? (예)

우리 군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할 것입니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55페이지에 목변경이라고 했는데, 재료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변경한 것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도 이제 어류양식에……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어류양식에 주려고 그런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차피 적조 대비사업이라서요, 예산부기를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떤 개선물질입니까,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종전에 어스텍을 공급했는데, 이 부분은 어업인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요, 어떤 물질이 좋은지 한번 논의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어류양식에다가…… 양식수협에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수산경영과인데 백신도 잘못되어 가지고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가 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런 데에서 자본적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일 앞장에 갯녹음 현상이요, 바다수온, 이것도 자본적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근에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일단 목변경을 시설비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쪽 몇 군데에다가 알아봤더니 이런 데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서요, 사업자만 선정되면 입찰을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목변경이라고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에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인센가 된 다음에 이것이 요구되어서요. 아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갯녹음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조성사업인지 갯녹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청취불능) 곰파……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연안어장들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다. 그래서 해중림을 연안어장에, 마을에서 수심이 얇은 데에 해중림을 조성하자고 그래서요. 단년생인 (청취불능) 곰파를 이런 부착성 있는 이런 돌이나 아니면 별도로 제작한 벽돌 같은 데에, 이런 데에다가 부착해서 마을어장, 연안어장에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세요. 하나의 종묘를 부착해서 그것을 뿌린다는 얘기인가요, 돌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돌에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마을어장에다가 돌하고 같이 이렇게 놓는……

○ 최정욱 위원

그것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몇 개소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개소당 1,000만 원씩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 제작한 이런 부분들이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 최정욱 위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동네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 정도면 규모로 하냐요, 여기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했는데요. 한 1,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실시를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서 했다고 하면, 효과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효과는 기후변화에…… 그래서 제가 해중림을 조성해서요. 우리가 백화현상이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해서 어류산란장도 만들고 폐류나 이런 부분들 먹이공급도 되고……

○ 최정욱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어떠냐고, 해봤을 것 아니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직……

○ 최정욱 위원

처음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 처음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어떤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과장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확신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는 연안어장에 이런 부분에도…… 마을어장에도 필요하다. 큰 어떤 수심이 깊은 곳은 자원공단에서 몇 십억씩 투입해 가지고 (청취불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을어장 연안어장, 이런

부분에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고수온 때문에 황폐화된다고 보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기후변화죠.

○ 최정욱 위원

기후변화? (예)

기후변화에 이렇게 했을 때 되겠는가, 어느 정도 과장님의 판단이 서야 맞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차피 이것은 (청취불능) 단년생입니다마는 곰피는 단년생이기 때문에 수온에도 강하고요. 20도 이상에도 녹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어초…… 예전에 사업을 많이 했었죠? (예)

바다 어초에 대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질타. 이런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신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인공어초, 어류양식. 그 부분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후평가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류 증산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있어서 (청취불능) 수거 조치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이런 데에 가서 보면 어류산란장 공급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업비를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투입하고요.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뭐 그것이어도…… 뭐를 하면 문제점이 없게끔, 어떻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지. 사후관리가 안 되어 버리면 안 되지. 또 해서 뭔가 문

제점이 있으면 바로 발굴을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잘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총 추경예산액 편성액은 43억 8,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 기획관리, 사무관리비에 해양치유 산업 바로알기 웹툰 당선자 책자 제작에 1,000만 원.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 대외 홍보물 제작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양치유산업 원년 선포식 개최하는데 2,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국제세미나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국외 기관 초청여비로 750만 원.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 상표 등록 출연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시설 조성에서 시설비로 해양치유단지 토지매입비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치유센터 건립 예산으로 국비 5억, 도비 2억, 군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분야에 연구용역비로 완도군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인건비 5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물품구입비로 총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기후치유 체험 코스별 환경조성 물품 제작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지면 숙박시설 주민 역량 강화 강사 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르딕워킹 맞춤형 코스 안내판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조류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로 해조류센터 특산물 홍보관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63페이지입니다. 박람회 기획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21 원도국제해조류박람회 안내 리플렛 제작 3개 국어버전으로 제작하는데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 원도국제해조류박람회 홍보물품 구입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2쪽에요, 연구용역비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2억이면 너무 많은 액수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타 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요. 문경시, 그리고 보령시 같은 저희와 같은 용역을 추진했는데 거의 2억 가까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거기는 섬이 아니고 육지 지역이지만, 육지이면서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민간유치 기본계획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신지 쪽이나 이렇게 다른 섬지역도 있지만 거의 신지 쪽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신지 해양치유단지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금일 권역, 남산면 권역, 청산 권역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구축되면 그쪽 지역에 민간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용역 수업을 하게 되면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 것이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직접 발로 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술내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액수가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위원님의 뜻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번 용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엔지니어 업체까지 참여를 시키고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61쪽이요, 행사운영비. 해양치유 원년 선포식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해양치유산업을 올해 첫 시작하는 해로 선정해 가지고 대외적인 그런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포식이라는 이벤트를 추진해서요. 대외적으로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 행사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떤 것을 가지고 원년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해양치유산업을 한다는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그런 과정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요.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이벤트일 뿐이죠. 우리가 뭘 내세워 가지고 해양치유 원년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업초기인데 행사, 이것은 안 맞는 말이고, 국제세미나를 하는데 이 세미나를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제주에서 4월에…… 그때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마는 (청취불능) 조류학회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하는 교수나 기업인들, 또 관계되는 분들 한 40명이 완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에 이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 박인철 위원

저기…… 해양치유산업 첫 국제세미나 같은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하는 것인가. 밑에 물론 국외기관 초청여비도 있기는 있는데 750만 원인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세미나를 할 것인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청취불능)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것 좀 그렇고요. 뒷장에 시설비, 건립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

정확하게 몇 분의 몇입니까. 이것 내가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설계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설계비 본예산 대비 이것이 몇 %나 차지합니까, 설계비가? 이것이 17억이면 어느 정도…… 어느 액수의 설계비가 나온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6%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비를 17억으로 잡고 있는데 300억을…… 본예산에 300억을, 320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300억 대비 6% 해가지고 17억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8억 정도 나오는데.

○ 박인철 위원

애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규모가 작아지는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작아지는 규모는 아닙니다. 예산 확보가…… 당초 해수부에서는 400억 이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 박인철 위원

이것 지금 예타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뭘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전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심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이…… 올해부터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 박인철 위원

심사에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겨우 쪽지예산으로 국비 5억도 뒀었는데, 나머지 이렇게 설계……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에

나……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를 한다는 이 말이죠. 설계가 한 1년 걸립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1년까지는 좀 더 앞당겨서 할 계획이거든요.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최소한 300억이 넘어가는 설계면 이것저것 따져 봐도 통상 1년이 더 걸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영장이…… 신우철 군수님이 2014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때 1회 추경 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끝났거든요. 애당초 70억 사업에서 20억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90억 사업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요. 이 부지 매입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돈이면 부지 매입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저희들이 총…… 치유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병원을 건립할 부지가 총해서 한 만 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치유센터에 필요한 각종…… 치유센터를 건립하는데 필요한 (청취불능) 기관 628평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병원을 유치할 그 기획재정부의 땅이 9,56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자산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하기를 분할 납부를 좀…… 우리 예산 여력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협의한 상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17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며) 그림대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 그림대로?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그 그림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해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만, 우리가 47억 정도만 부지매입을 하면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보니까 민자유치 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하는 땅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먼저 사서 그분들한테 되팔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사서 뭐하는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미리 매입을 하고 있고요.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부지는 다시 민자유치하는 데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47억 안에 민자유치까지 다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니, 47억은 저희들 공공투자입니다. 치유센터하고 공공병원하고.

○ 박인철 위원

이것 관리계획 변경은 다 끝났습니까, 지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밑에…… 이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면 민간투자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니가 하는 말이에요. 땅도 없는 데 누가, 어디에서 민자가 들어올 것이며 땅을 짚고 헤엄치기식인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아까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지금 신지 거점지역도 있겠습니까라는 금일 권역이라든가 저기 남산면 권역, 청산 권역 이쪽에도 투자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인을 끌어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 신지 쪽도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남산면이 나와 버리고 동부권이 나오면 거기 해양치유 뭐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를 가지고? 뭐 우리가 기본 SOC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뭐 병원이나 치유센터…… 우리 공공치유센터가 지어져야만, 그것이 활성화되어야만…… 민간사업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뭐 막무가내 땅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야 산다고 하지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제의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투자…… 민간인 투자유치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금일 섭도를 한 10여 년 전에 14억 평을 몽땅 다 매입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치유산업이 완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민망한 것이 그동안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내용을 자료도 없고 그래 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종합적인 설명 자료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 어려운 사업인데…… 땅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그나마 뭐할 것인데.

아니, 과장님도 저기 프랑스를 갔다 오고 또 엇그저께 국내연수를 하면서 제주도 한라병원 거기를 갔다 왔는데, 막연해요, 보면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병원과 호텔을 접목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 봐보십시오, 폴장에 한 번 들어가는데도 십 몇 만 원씩 내면 감히 우리가…… 다만 사십 몇 분을 하는데 십 얼마씩 내는데…… 과연 완도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되는 것인가. 관광객이나 아니면 병원, 이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프랑스에 갔을 때도, 노르망디에 갔을 때도 뭐 안 했습니까. 뭐 특화된 병원 아닙니까, 그냥 해양치유가 아니고, 우리는 해양치유를 보러 갔는데 해양치유가 아니고 그냥 특화된 재활 병원 안에 해양치유를 약간 접목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뿐인데, 그래서 어려운 과업을 맡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61페이지요, 치유산업 주민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됩니까마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계획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그동안 과거 신설되기 전에 해양치유산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팸플릿을 만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 대외행사라든가 그동안 주민들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많이 배부해 가지고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제작할 생각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금방 박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게 과연 성공되는지,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홍보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그냥 막연하게 해양치유산업을 하나 보다, 이정도로만 알고 있지, 어떻게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대답을 잘 못하거든요. 뭘 위해서 어떻게 성공할지, 뭐 어떻게 할지, 우리도 지금 대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 홍보자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나가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과연…… 즉, 말해서 결정적인 포인트라도 있다든지 해양치유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도 엇그저께 갔지만, 잠깐 견학을 갔지만 저도 거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호텔을 위해서 국제관광객이나 그런 치유…… 잠깐 치유산업의 일부분을 접목해서 호텔업으로 가

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지. 그것이 어떤 해양치유프로그램에 접목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호텔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질문을 하니 까 자기들도 인정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것을 보면 내가 봐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서 저 해양치유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나도 답을 못해요, 누가 물어보면, 그런데 과연 주민들한테 뭐를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할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적어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때 전문…… 어딘가요, 제작자들인가요? 그 프로그램, 아무튼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해도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서 질문 자체가 어려워서 안 했지만, 진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나도 위원이지만 내가 창피하다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치유산업이면 요양 병원이나.”, 아니면 “여기를 뭐 하러 오느냐?”, “어떻게 여기에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안 된다고, 정리가 안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군에서, 우리 과에서 적어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용역 같은 것도 지금 되어 있지만 무엇을 용역할지, 2역을 해놓고…… 적어도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신지에 민간투자유치를 보면 뭘 투자유치를 하고 어느 지역의 땅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거점 개발을 그쪽에다가 해놓고 여기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다, 이것은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이 용역이 그 용역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래서 해양치유산업이라는 것이 의료와 관광, 이런 것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시설이라든가, 또 관광시설, 또 문화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투자……

○ 최정욱 위원

그런 큰 그림은 누구나 큰 그림을 다 그리죠, 그렇게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뭘 어떻게

해서 못하느냐, 이 용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지만 일관된 것이 아니고 어디 금일, 또 어디 다른 지역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거기에 뭘 두고 어떤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러니까 하나의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투자…… 저희들이 투자를 예정하는, 그런 예정된 여건이나 토지현황이라든가 또 그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또 잠재적인 가치,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자료를 구축해 가지고 만약에 투자자들이 나타났을 때 당당하게 설명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갖기 위해서 용역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그러면 말하면…… 신지 같으면 거기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다, 아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본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미리서 투자자에게 예시를 주면서 이런 자리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적정하겠다는 이런 것을 먼저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 최정욱 위원

그 용역을 하는데 2억이나 필요한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한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이 클러스터화가 되면 금일 권역이나 남산면 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큰 면적을, 저희들이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잖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옥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맞는 것이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최정옥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구축하는데 2억이면 저도 많은 생각이 들거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다른……

○ 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1차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우리가 어디어디 지역…… 용역이 더 중요한가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더 잘 알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할 수……

○ 최정옥 위원

우리가 어느 지역을 해양치유산업에…… 우리가 금일이면 금일. 우리가 지금 신지를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청산, 금일, 어디를 정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알지. 외부인들이 더 잘 알겠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토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최정옥 위원

내가 더 깊이 하면 시간도 길고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다시 불러볼게요. 저도 위원으로서 설명을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답답하거든요. 홍보물을 제작하면 한번 갖다 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 이것은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

에……

○ 최정옥 위원

그리고 제일 먼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우리 직원들이 첫째, 직원들부터, 우리 의회도 중요하겠지만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면 준비를 했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답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해놓은 다음에 어떤 홍보를 해야지, 지금 막연하게 홍보를 금방 될 것 같이 사업을…… 지금 다들 난리인데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대답할 수가 없어. 이것 먼저 정리를 빨리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저희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 4,555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7,359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시설개보수에서 시설비로 생활문화실 승압공사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가공교육실 운영기자재 구입 5,000만 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서 재료비로 완도우리음식연구회 완도 대표음식 발굴 재료 구입으로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완도 대표음식 발굴 실습교육 강사 수당 500만 원, 청년 4-H회 중앙대회 참여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 중앙대회 참석 1,1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으로 민간위탁교육비, 농

업인 굴삭기 면허취득 위탁교육비로 900만 원.

다음은 38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 농업인 실용교육 벤치마킹 515만 8,000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대학 운영입니다. 재료비로 농어민대학 실습교육 재료 구입 300만 원, 383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민간위탁교육 귀농인 농기계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로 750만 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꽃차산업입니다. 민간위탁교육비로 해양치유농업 한방꽃차소믈리에 자격증반 2,340만 원.

다음은 385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용역입니다. 재료비로 완도에 맞는 최고품질 명품 햅쌀단지 육성 시범 재료 구입으로 5,000만 원, 신품종 “보리+벼” 이모작 계약재배 소득증대 시범으로 500만 원, 기능성 컬러보리 특산화 시범 재료 구입 5,000만 원, 연구개발비, 시범연구비로 브랜드품종 개발을 위한 벼 신품종 비교 실증시범 2,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연계 기능성 농산물 생산시범 2,000만 원.

다음은 386쪽, 제일 아래 부분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과수 과학영농기술 보급 장비 보급으로 1,500만 원, 그다음에 농가 경영 컨설팅 농가경영 개선지원으로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 개선지원 1,200만 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시험포장 관리 운영에서 시설비로 센터 내 유리온실 전기공사로 450만 원, 국화 향연개발에서 재료비로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 500만 원, 조형물 화분 구입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분재국 육성포 시설하우스 신축 1,600만 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38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 베토기 2조식 1대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85쪽이요, 시험연구비요, 해양치유산업 연계 기능성 농산물 생산시범인데, 어떤 농산물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유색 쌀로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한 기능성 품종을 저희들이 증식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요즘 사람들은 색깔 있는 쌀이라고 그러죠? (예)

색깔이 몇 가지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현재 색깔별로 해서 정미…… 뭐냐, 흑미 그 다음에 녹미 또 향찰, 향이 나는 쌀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흑미나 그런 것은 다 기존에 나왔던 쌀이 아닙니까? (예)

해양치유산업하고 연계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해양치유하고 연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해양치유하고 연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치유를 위해서 완도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색미에서…… 건강, 그런 항산화 물질 그런 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단일품종으로는, 단품으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오색이라든가 삼색이라든가 세트로 구성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도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쌀이 나왔는데 생산시범이라고…… 기존에 있는 쌀들인데 생산시범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역에 할 예정이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이 희망농기들을 조사해 놓고 보니까요. 완도 그다음에 군외 그다음에 고금, 노화, 신지 일부 이렇게 체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노화 쪽에서도 이렇게 벼농사가 많이 발달된 지역이어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러 군데에 신청했으면 20헥타르가 넘겠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서너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또 너무 분산되면 안 되니까 농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지역을 단지화로 묶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도 보면 쌀 쪽으로, 벼 이쪽으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농산물이 다른 농산물인 줄 알았는데 거기도 벼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요, 387쪽예요. 국화 조형물 제작 구입, 재료비에요.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국화 쪽은? 저희 완도타워나 이런 쪽에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관광객들이 오면 참 보기도 좋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다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서…… 해남에서 완도로 들어오는 관문, 또 강진에서 고금으로 들어오는 관문, 이쪽에도 보면 국화를 전시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할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 욕심도 그렇게 넓혀서 하고 싶습니다. 마는 거기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인력 그다음에 박람회를 전시했을 때에 관리 인력, 그런 것들이 예산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예산을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1,5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조금 더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더 투입 하더라도 그래도 완도에 그런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래도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보면 이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십시오. 좀 더 달라 해가지고 더 보기 좋게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산팀장도 다 계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조금 더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이렇게 조성하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십시오. (예)

도로변을 보면 진짜 허하니 보기 싫은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이렇게 꽃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분들이 지나갈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음식이요. 엇그제 제가 같이 가서 봤습니다. 마는 우리가 이것을 언제부터 했었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실은 대표음식 발굴은 이번에 처음으로, 엇그제 처음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음식을, 제대로 개발을 한번이나 안 했나요? 뭔가 개발해서 이렇게 시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어떤 대표음식 개발보다는요, 어린이 간식이라든가 또 어린이 성장 발육을 좋게 하는 그런 음식을 주로 개발하고, 어떤 완도를 대표하는 그런 음식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처음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되네요? (예)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은 것도 아시죠. 음식, 완도에 뭔가 음식이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지금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솔직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도 그렇고. 이전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마는 적당히 내가 봐서…… 내가 그날 느낀 것은 적당히 그냥 실적위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막상 그렇게 완도대표음식을 발굴하자는 취지를…… 일선에 있는 식당 요식협회 임원들하고 또 생활…… 음식을 만드는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하고, 생활 개선 회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한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음식 회원들 쪽에서는 보다 더 저렴한 음식,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하지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나 요식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판매를 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 많이 창출되는 쪽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상반된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도……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 최정욱 위원

다 들어서 대강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가 이 예산도 한 2,000여만 원되죠, 다 합치면?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돈도, 예산이 필요 없어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형태로 어떤 개발을 한다면 하나 마나라는 얘기에요, 예산만 없어지지. 기왕이면

돈을 더 추가해서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대로, 개발을 하려면 제대로 개발하고, 제대로 개발을 못하겠으면 예산이 좀 필요하겠죠. 그냥 땀만 식으로 실적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꼭 좀…… 이번에 기왕 시작한 것 제대로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은 되면 지역경제 효과와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개발이 된다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개발이 잘만 되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좀 생각부터, 하여튼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볼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그리고 387페이지, 국화…… 조금 전에 양훈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국화꽃은 다 객지에서 들어오나요, 완도 여기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부는…… 저희들이 작품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조국, 동그란 옥국 같은 경우는 화분에, 동그란 화분에 들어있는 것들은 조달 구입을 해서……

○ 최정욱 위원

왜 우리 완도에서는 안 되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그곳을 관리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도감독도…… 운영할 인건비, 인부가……

○ 최정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다가 주면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이제……

○ 최정욱 위원

계약 재배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때도, 이전 군정 질문 답변 때도 그 말을 했었습니다마는……

○ 최정욱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요, 방금 양훈이 위원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농가들이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잖아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왜 객지에서 이것을 사게 하냐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규모가 커지고 몇 만 본씩 국화 화분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몇 농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계약 재배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조달 구입한 것들이 몇 천 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 최정욱 위원

한 농가에서 하기가…… 소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그리고 한 농가에다가 위탁을 맡겼을 때 그 농가도 실패해 버리면…… 우리가 몇 만 부씩 할 때는 2,000본 정도는 없애버려도 그 행사가 가능하겠지만 한 2,000~3,000본이 없어져 버리면 행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때 실패하면 다른 데에서 사오면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데 그때 그것이 쉽게 그렇게 구입할 수는……

○ 최정욱 위원

아니, 지금 말한…… 양훈이 위원님이 말한 것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화를 우리도 가서 봤는데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그런 지역에…… 금방 양훈이 위원님이 말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때…… 물론 객지, 외부에서 사오고 그러면 예산의 문제가 따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에요. 일거리도 되고 농가소득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연구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검토해서……

○ 최정욱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식량작물 안전성 기술 그 부분 1억 5,000이네요, 그런데 보면 이런 사업을 꼭 필요로 합니까? 양훈이 위원이 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이런 사업들이 진즉 우리 지역에도 도입을 했어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도서로 이루어졌고 또 이렇게 수산업에 치우치고, 또 이런 규모로 50헥타르, 100헥타르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업 쪽에 1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억 5,000이라는 재료비 이 부분이 재료비입니까, 아니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재료비로 해서 품질 고급화를 위한 그런 재료를 저희들이 시범농가한테 투입해 가지고 쌀 품질을 향상을……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0헥타르예요. 200헥타르면 엄청 넓은 면적인데. 이것이 소유주들하고 다 결탁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가들 전부 다 일일이 개인별로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을 설명하면서……

○ 김재홍 위원

아, 200헥타르가 확보되어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확보를……

○ 김재홍 위원

거의 그러면 동의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은 따로 동의를 안 받고요. 이왕 재배하면서 어떤 단지화로 묶어 가지고, 이제 개개인별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어떤 품질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냥……

○ 김재홍 위원

아니, 소유주하고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제 구두 동의로 이렇게 하고 명단만 취합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계약서라든가 작성을 하고……

○ 김재홍 위원

아니, 동의를 안 받고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좀……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더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그 정도의 면적이 되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면적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가 서로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내가 방금 조금 전에 이

야기했잖아요.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답변하고 싶으면 답변하세요.

(방청석에서 “이 사업들이 기존에 그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육성되고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진흥청으로 교육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작년부터 이렇게 대단위로 재배하는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동의를…… 어떤 다른 부분에서는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다 받고 1차 교육하고 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외람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고품질 쌀 어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기술센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양곡 수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RPC……

○ 김재홍 위원

RPC에서 하죠. 그러면 그 나머지를 소장님이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정하는 과정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내가 숙제로 뇌들 테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은 125억 3,966만 5,000 원이며, 본예산 대비 5억 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130억 4,1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편성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의료원 환자진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의료원 의과 환자진료 약품구입비로 본예산은 4억 원이며, 본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민원대기실 편의시설 임대료 지급비 500만 원 보건기관 운영지원 포상금입니다. 공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본예산 2억 8,2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설비입니다. 통신시설 이설 원인자 부담금 2,000만 원.

396페이지, 치매관리사 재가돌봄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수당 지급으로 740만 원. 치매관리사 재가 돌봄사업 보험금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상해보험 가입비 110만 원.

3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재가돌봄사업,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치매안심관리사 직무교육비 60만 원.

다음 398페이지, 건강실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관절염 예방관리 무릎보호대 구입비로 1,000만 원.

다음은 402페이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산개발비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500만 원.

403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

다.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로 본예산 2,400만 원이며 본예산 대비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로 1,920만 원.

다음은 405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행사운영비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파스 및 상비약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9년 1차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3쪽에요, 의료사업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이 5억 1,3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약품구입비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약품구입비로 의료원에서 5억 7,600, 보건소 400…… 아니, 4억 600만 원, 대상포진 2억, 국가 (청취불능) 6억 3,000만 원, 총 한 18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건의료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입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의료사업 수입만 30%,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제가 자료를 한번 해보니까요, 2018년도 저희들 수입금이 의료원만 8억 2,000 정도 수입이 있고요, 보건지소가 한 7,000…… 아니, 7억 정도로 해가지고 15억 정도는 수입금으로 우리가 세입예산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약품관리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까?

(방청석에서 “약품은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일단 뭐, 뭐 구입해 주라고 선정하면 저희들이 경리계에게다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품목에 대해서 요구하면 경

리계에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이 이렇게 약품을…… 필요한 약품을 이렇게 올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한다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예, 저희들이 올 초에 입찰을 경리계에 의뢰해 가지고 낙찰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주문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역에 있는 보건소 약품관리도 통합적으로 의료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보건지소 약품도 보건행정팀에서 입찰해 가지고 구입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의약품 관리실태도 다 나와 있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따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방청석에서 “품명…… 품목 말씀이십니까?” 하는 직원 있음)

예, 전체적으로 의약품 관리실태를……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전산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따로 한번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3억 1,78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7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 5,8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분기별 수의계약에서 2년간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지방상수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3억. 3억 원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서 (청취불능) 등급인 완도군의 상수도 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위탁관리비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보길 부황천 지하저류조 실시설계용역 공기관 대행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운반비 5,94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9,504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목변경으로 민간위탁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8,118만 원.

4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마을하수처리장 탈취촉매제 구입 300만 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탈취약품 구입 525만 원, 시험연구비, 신지 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장치 시약 및 소모품 구입 375만 원, 시설비,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에 목변경으로 8,1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완도읍 성내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처리입니다. 시설비, 청정완도 인생맛집 상수도 설치공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412페이지, 재료비 하수종말처리장 소독조 자외선램프 구입 4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처리 약품구입 600만 원, 시설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설비 교체 5,000만 원, 액상폴리머 용해장치 자동화시설 3,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및 협작물 위탁처리비 1,150만 원,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오폐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비 800만 원, 재료비, 오폐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 1,506만 원, 시설비, 오폐수처리동 건축물 보수공사 1억 7,000만 원, 1

억 7,000만 원은 죽청리 오폐수 처리동이 19년 되어 가지고 건물 내부 균열이 심해서 이번에 개 보수하고자 합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공공 운영비, 청사 인터넷 사용 및 통신요금 360만 원, 시설비, 청사 내에 우수 배수시설 설비 정비 공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킴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원금을 위한 전출금 13억 9,04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작년도 결산 후 잔액이 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8억 8,54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9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난해도 수입 6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13억 9,04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58억 8,54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9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노화읍 서넛도 관정 및 급수관로 시설공사 1억 4,890만 2,000원, 노화읍 후장구도 우물 보수공사 1,700만 원, 보길 선백도 상수도 시설 1억 원, 보길면 보옥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5000만 원, 군외 불목 간이상수도 보수 2,000만 원, 약산 화가 상수도 신설공사 2,000만 원, 다 음은 예비비입니다. 내부유보금 17억 4,679만 3,000원을 감액하여 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409페이지, 보길 부향천 설계비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 본예산에 시설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시설비가 60억 원으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시…… 내년부터 할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내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마을하고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마을에서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 소규모, 그런 것을 건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만약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만약에 순군비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비가 아니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대략 한 10억이면 가능합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한다면, 저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고자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건의하고……

○ 박인철 위원

환경부하고는, 지침하고는 안 맞잖아요. 마을 가구…… 가구 단위도 안 맞고 마을도 안 맞고, 환경부에서는 뭐 5개면 5개 마을 몇 호, 몇 호 하는데, 여기는 2개 마을이어 가지고 안 맞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규모 기준에는 미달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순군비로라도 넣어가고 할 수 있도록, 한 10억 정도라고 하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최대한 국비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 박인철 위원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설비, 인생맛집이 어디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 축제하는데 그런 식당……

○ 박인철 위원

뭐 기존에 다 배관라인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장보고축제하고 청정완도 가을빛 축제를 할 때 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 상수도는 해변공원 그쪽에 밸류가 나와 있고 거기에 연결하면 되고, 인생맛집에서 나오는 오페수, 오페수가 배수로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안 받기 위해서 펌핑을 하는 시설이예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 설치해 버리면 계속 씩니까, 이것 일회용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펌프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합니다.

○ 박인철 위원

펌핑만 하고 나머지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보길도…… 노화, 보길도 물 문제가 있으니까 저류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민원 하나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꼭 좀…… 국비가 안 되면 순군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길 부항 저류조를 하는 데에 있어서 노화와 보길의 물 가뭄 때문에 저수지 물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붓고, 다시 그것을 먹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수도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 번 할게요. 왜 얘기를 하나면 마을 바로 위에 있는, 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마을들은 지금 하수도 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물이 그대로 내려온 저수지 물을 저희들은 갖다가 펌핑해서…… 그때는 물이 없어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희들이 한 200개 마을 정도 되는데 40개 마을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지원이 1년에 1개밖에 안 되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지금 소재지 위주로 많이 하고, 또 관광객 위주로 하고, 사업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지 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우선순위에 넣어서……

○ 박재선 위원

다른 데는 점차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들은…… 많은 가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물은 그대로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류지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물이 없으면…… 저희들한테 제일 시급한 것이 그것이지

요. 그러니까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422페이지예요. 보길 선백도 상수도. 여기를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절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가 전체적으로 상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선백도만 연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본예산에 1억을 세워서 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을 추경에 더 세워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이 1억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총해서 2억이 되겠죠.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재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탐장님,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가능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총괄사항으로 기정…… 본예산 기정 예산 94억 5,334만 2,000원에서 87억 9,326만

3,000원이 증액된 182억 4,660만 5,000원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조성 장비 임차료 600만 원, 재료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응애, 진딧물 방제약품 구입 9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가뭄대비 스프링클러 등 재료 구입 7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495만 원, 하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495만 원, 청산면 경관작물 응애, 진딧물 방제약품 구입 896만 원.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자차액보전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000만 원, 일반운영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실천 농업관련단체 워크숍 총괄해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완도자연그대로 집중육성 품목 생산농가 해외농업 선진지 견학 2,8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 실천 농업 관련 단체 워크숍 참석자 여비 300만 원, 다음 민간이전에서 전남에서 먼저 살아가기 지원, 도비 보전사업, 저희가 두 군데 선정되었습니다. 각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가뭄대비 소형관정 설치지원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만 원, 그리고 자연그대로 감굴 명품화사업 묘목 구입비 1억 1,036만 원.

그리고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다음은 288페이지, 일반운영비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팜파티 운영지원 600만 원, 연구개발비에서 완도자연그대로 비파 단체표장 등록용역 9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품목 비파 지리적표시 용역 900만 원, 완도자연그대로 감굴 통합포장재 디자인 개발용역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영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기술비 지원 3,600만 원, 거대우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 실비보상 목변경……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4,200만 원, 도서벽지지역 소 브루셀라 및 결핵체병 채혈 실비보상 5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영비 절감 한우 사료자동화 급이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아래쪽 일반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사료비 960만 원.

또 다음 2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산지생태농축산업…… 아, 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 구입비 7,200만 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논 타작물 기계장비 지원사업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75페이지, 도 매칭사업인데 어째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 이것은 우리 도지사님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쌀 농업인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쌀 농업을 하시는 분 중에 완도농협과 약정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에 배정된 것은 67농가입니다. 그래서 거기 배정금액에 대한 60%를 산정해 가지고 3월부터…… 신청자를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를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 선지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농가한테 준다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죠. 신청자한테는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의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3월 8일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준다는 이 말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 이것은, 이 1000만 원은 농협에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정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아니, 1,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의 60%인 600만 원을 월 8개월로 나눠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자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이것 어떤 뜻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협에서 원래 쌀을 수매하고 나면 11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3월에……

○ 박인철 위원

처음 돈이 나가는 것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이자 차액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 이것 뭐예요, 2,800만 원은, 2명씩 해가지고 14명이 나간다는 말인데, 어디를 농업 생산농가…… 완도자연그대로 어떤 것을 가지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우리 완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파라든지 감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이렇게 농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굉장히 고급농산물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본 쪽 농업분야가 우리 기후와 비슷하고 선진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목반을 하시는 분들하고 군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그렇게 해서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품목을 일곱 품목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도 완도자연그대로라고 해가지고 부기를 따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냥 농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그랬는데……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농가 장기성필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6,000…… 8,300만 원이라고 올렸는데, 추경에 더 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 박인철 위원

어떤 필름을 뭐하는데, 2,100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8,300만 원으로……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저희가 본예산에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수요가 많아가지고, 설명이 빠졌습니다 마는 팀장님의 부연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 박인철 위원

예, 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장기성필름은 0.1mm에서 mm 당…… mm가 0.1mm에서 0.15mm인데요, 한번 설치하게 되면 5년 이상 쓸 수 있는 필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몇 년도에 도비사업으로 있었는데요, 한 몇 년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사업에 일부 생겨났고…… 읍면 농가들한테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도비 없이 그냥 우리 자체 군비로 하는데……

(방청석에서 “도비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더 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이 신청이 들어와서 1회 추경에 더 포함을 시켰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았고요.

28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순만 농림…… 환경산림과장, 농업축산과장할 때부터 새끼우렁이사업 이것은 우리가 더 연구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한번 평가해 봤어요?

(방청석에서 “예, 계속 친환경재배농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가가 아닌 농가에 대해서는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자부담……” 하는 직원 있음)

우렁이가 월등하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저기 (청취불능) 전부 뭐니까, 제초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얼추 다 논을 갈아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뭐 친환경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방청석에서 “일부 친환경…… 제초제를 하시는 농가들은 우렁이를 공급받지 않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우렁이 공급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업체에서?

(방청석에서 “지금 고금하고 완도읍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완도에서만 해요, 타지역에서도 들어와요?

(방청석에서 “타지역에서는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완도지역이…… 우렁이를 완도지역에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우렁이 공급 시기가 완도가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완도산을 먼저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우렁이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는, 우리보다 먼저 썼던 해남, 영암…… 방송에서 나온 지 알죠, 우렁이 이것이?

(방청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뭐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농법이라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나온 것 알죠?

(방청석에서 “일부 뭐냐, 직파논에 뿌려 가지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나중에…… 완도는 그래도 바다가 있어 가지고 썰물, 밀물이 확실하다 보니까 피했는데 육지 같은 데에 수로를 다 막아 버려가지고 범람하고 그런 것까지 다 알죠? (예, 그렇습니다)

추적 60분에까지 나와 가지고 이 농법이 잘못되었다고 처음에 선호했던 농가들이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계속 올라오니까 하는 말입니다.

28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소형관정을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하는데…… 밑에 묘목 지원사업입니까. 이것 완도자연그대로를 또

여기다가 붙여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 박인철 위원

3,000만 원을 증액해 주라고 했는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소안, 노화, 청산도 쪽에 이렇게…… 소안도 감귤이 사업성이 모여 가지고 신청자가 좀 많이…… 저희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3,0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 기준이 뭐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완도자연그대로 명품화 해가지고 감귤이?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가……

○ 박인철 위원

우리가 말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가 자연그대로 품목을……

○ 박인철 위원

실증시험을 했단다가, 뭐했단다가 해가지고 뭐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가 자연그대로 농축산업 품목을 7개 품목으로 정했는데 그중에 감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귤은 농업…… 고령 농업인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소득화하고 감귤 묘목사업을……

○ 박인철 위원

그냥 이것 묘목사업이죠. 그러니까 묘목을 지원해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귤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니까…… 그냥 묘목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될 것인데 꼭 이

런 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28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은 이번에 미국 쌀을 수출하는 그런 것입니까? (예)

이것 해외 개척, 이것은 수산경영과에 있죠? (예)

거기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가 업무분장을…… 총괄적으로 해외시장 개척하고는 수산경영과 시장개척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업분야로 제한해서 수출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고, 그 뒷장에도 보면 완도 쌀 소비 홍보가 있죠, 홍보비.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넣어놔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은 예산계에서도 걸려야 되고 업무분장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유통, 가공해 가지고 수산경영과 쪽에 농업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개척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농업 분야에 한해서 쌀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제한적으로 시장 개척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전에 이기석 과장님이 해양…… 수산경영과장으로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장개척팀에서 다 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있으니깐.

이것은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이라고 1,500만 원이라고 해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바이어를 만나 가지고 국내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완도에 종사하시는 분이 외국에 나가서, 미국으로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쌀이 계약되면 물류비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쌀을…… 적자

를 감소하고 수정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비…… 그리고 적자보존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수출을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이 말이에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대부분은 물류비로 하고요. 일부 소액에 대해서는……

○ 박인철 위원

안 맞는 말인데. 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소비촉진 홍보비도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완도 쌀 소비 촉진, 금방 과장님이 대답했던 일종의 그런 것이구면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요, 용역비는 완도자연그대로가 나와 있고 비파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업무보고 때도 군외면에서 하고 있는 방울토마토 이런 것도 했는데요. 그런 상표등록이나 포장지, 그런 것은 예산에 안 들어와 있네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연구용역비…… 맨 밑에 보면 감골로 되어 있는데, 감골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방울토마토도 같이 박스 제작을…… 과업지시를 할 때 방울토마토까지 같이 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군외면 방울토마토 박스가…… 그때 용역심사를 할 때도 내가 그렇게 듣고 있는데, 부기는 이렇게 감골로만 되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방울토마토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같이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275페이지요. 전남에서 먼저 알아보기 지원사업,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김영록 도지사님…… 전라남도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젊은 사람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이외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5일에서 60일…… 두 달 동안 전남에 3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신지 울모래마을하고 청산도 슬로시티 느린섬여행학교 두 군데가 되었는데요. 거기를 만약에 신청해 가지고 하게 되면 숙박비하고 거기 단체에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걷기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따른 체험비는 예산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나머지 생활비라든지 기타는 본인부담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2년간 내려와서……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 2년이 아니고 60일.

○ 최정욱 위원

60일이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최장 5일에서 60일, 2달까지 알아보기 체험을……

○ 최정욱 위원

그렇게 시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대부분 숙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숙박비만? (예)

그러면 지원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신청은…… 저희 사무실로 직접 하든지 인터넷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악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30%를 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결론은 완도에서 그렇게 살아보고 완도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요, 감귤 그 용역, 지금 용역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감귤 포장지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위원

아니, 284페이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감귤묘목 구입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감귤…… 과장님, 소안도에서 생산된 것 먹어봤죠.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일부 생산농가에 따라서 품종에 따라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집니다. 어떤 것은 당도가 좋고 맛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농가에서 재배한 것은 맛이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정욱 위원

기왕 이런 묘목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뭐 그런 기준이 있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래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알아보니까 이렇게 현재…… 완도 특유의 시고 단맛이 강한 품

종이 있습니다. 그 품종 위주로 보급하는데 유라 실생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또 그 품종은 제주도에서도 보니까 일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요. 묘목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일단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당도도 좋은데 어떤 것은 보면 껍질이 너무 얇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해서 묘목을 제대로 만든 것을 보급해서 완도 명품화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선되는 대로 그냥 뭐 묘목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완도명품이 안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되어 버리면 하나하나……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제가 심의했습니다마는 보류시킬까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도 농민들은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 최정욱 위원

아니,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이것을 봐야지. 이것을 나도 정말 괜찮은 품목이라고 보거든요. 처리가 된다면 우리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 기왕 이렇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묘목을 해서 보급을 해야지. 어설픈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묘목을 해놓고 뒤로는 이게 소비자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져버린 뒤로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진 뒤로는 어떤 돈을 투자하고 개발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그래서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이야 농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것 명품화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용역을 해서요, 우리 군에서 보급할 때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서 그 묘목을 보급해서 우리 완도의 브랜드화와 명품화를 만들어야 맞죠. 그래서 내가 먹어보기도 했는데 당도가 어떤 때는 또 아니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선별해서 제대로 공급이 되어야 되죠, 군에서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농업기술센터에 그것 좀 개발해 보라고, 연구 좀 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명

품화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서 묘목을 보급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8페이지요, 국비 반납한 것이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이것은 무슨 뜻 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우리 팀장님의 부연설명을……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당초 비가림 재배시설은 고추를 5년간 재배해야 되는 조건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비가림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입니다. 농가들이 5년간 고추를 반드시 재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청취불능) 많이 신청해 왔다가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야, 반납을 사전에…… 도에서 사업 조정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사업 조정을 안 해준 결과 때문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전혀 그러면 효과가 없네요,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이네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일부 농가에서는…… 비가림시설을 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전에 하신 분들은 많이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런데 최근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추를 5년간 강제적으로 재배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올해는 안 했나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올해는 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때문에?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 최정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295쪽에요. 295쪽 제일 상단에 재료비를 봐주십시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이 있네요? (예)

이것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위의 것을 감하고…… 부기상을 바꾼 사항이거든요.

○ 김양훈 위원

그것은 저도 보면 아는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우리 축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저희들이…… 송아지가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폐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계속 설사예방약 공급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년 전에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홍보하고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업이 재료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농가들의 요구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은 재료비 내에서 다른 부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생균제 보급사업은 삭감해도 지장이 없고 이것을 갖다가 설사약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설사약까지 구입해 줘야 되는가 싶습니다. 항간에 듣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면 소만 사농으면 행정에서 다 키워준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료급 이시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생균제부터 시작해서 인공수정료까지 안 해주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설사약까지 해줍니까?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계속 농가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고 농가들의 신청도 저조한 부분이 있고…… 송이지 폐사가 상당히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적인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물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소만 사농으면 행정에서 전부 다 키워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면 뭔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축산농가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전에 브루셀라 같은 경우도, 폐렴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도축이 돼도 85%, 90%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작목들은 농사를 짓다가, 농사하다가 다 죽어버리면 보상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 쪽은 엄청난 특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런데 전염병 보상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들이 보상해 주고……

○ **김양훈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소만 사농으면 행정에서 다 키워준다. 10원짜리 하나도 안 들이고 다 키운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설사약 이것은 생각해 봅시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요, 29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국고보 조금 반환금이라고 그래서 첫 년도부터 생산유통 규모와 기업화산업 국비 부당수령금……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방청석에서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그 뭐야, (청취불능) 고소, 고발사건 관련해 가지고 반환을 받은 사업입니다. 반환금.”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전체 다 징수된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전체 징수해 가지고요, 반환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국비, 군비 다 정리된 것입니까, 이것 이?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완료됐다는 이야기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288쪽을 보면…… 비파에 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한창 식재를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비파 인기도가 떨어졌는지 돈이 안 되어서 그러는지, 그런데

이제 단체표장 등록이나 지리적표시 등록 이런 것 용역을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비파도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렇게 소득화 작목을 해서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 우리 농민소득과의 연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동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비파가 완도의 기후조건을 활용해서 우리 농민소득 작목으로 그런 데로 괜찮다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농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심었다가 풀 속에서 베지도 않는 농가들이 3분의 2에요. 그리고 조금 하우스나 하고 그런 몇 농가나 비파를 선호하고 있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실패작이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몇 천만 원씩 들여서 2개 합치면 한 1,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늦지 않았냐. 차라리 일찍 해서 그것을 포기한 농가들이 포기하지 않는, 의욕을 가지고 다시 관리하게끔 만들어 줘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그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완도 신지, 또 군외 쪽에 비파 농가가 70~80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식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판로라든지 마케팅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점검을 한번 다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한우 자동화 급이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가정에 어떻게 보급되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축산팀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이것은 소먹이를 줄 때 기계장비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최소한 50두 이상 된 규모화된 농가들만 해당이 되고요. 소규모 농가들은 기계를 살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심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는데요. 5개소로 지금 올라온 것은 금년도에 갑자기…… 해마다 2개소였다가 금년도에 5개소로 저희들이 신청량을 받아다해서 일단 증액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후유증 없이…… 잘 선정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김양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습니까마는 대규모 축산업자들은 사실 먹고 살만 합니다. 이런 혜택을 안 줘도 됩니다. 사실 소규모로 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렵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대로 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소형…… 288쪽에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 그 신청…… 읍면에서 신청한 실량, 그것을 제가 부탁했죠? (예)

그 신청량은 파악이 됐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엇그저께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파악을 해보니까요. 지금 기존에 보급된 것 외에 한 200여 대의 수요량이 있더라고요. 신지 같은 경우는 한 40대 정도.

○ 허궁희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물을 때 90 몇 개라고 해서 너무나 놀란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농가에서 요구한 신청대수하고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수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300대가 들어와서 80 몇 대밖에 보급을 못했는데, 이전에

보고할 때는 거의 그냥 신청량하고 보급량하고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보고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금년을 좋은 경험으로 삼으시고요. 그 힘없는 농민들..... 쉽게 말하자면 제일 나이 먹고, 이 저형 저장고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농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소리는 솔직한 이야기로요. 잘못된 비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급이 시설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런 데에다가 해주면 많은 농민들이 박수칠 일이에요. 이런 부분 제대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237억 8,303만 1,000원에서 117억 4,720만 3,000원이 증액된 355억 3,0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비가 111억 4,439만 6,000원, 군특이 29억 8,000만 원, 소방안전세가 700만 원, 도비가 17억 9,876만 1,000원, 군비가 196억 7만 7,000원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로 군특 9억

원, 군비 9억 원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개소당 10억 원으로 3개소 3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군특 30%, 군비 30%, 자담 40%입니다. 사업비가 작년에 가내시 되어 본예산에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가 많고 민간 자본이전사업으로 조기완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내부 협의한 바,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성립된 예산이 없으나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간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점을 이행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조기집행실적을 올려 좋은 평가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군재정에 보탬이 되기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후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1월에 사업신청을 받고 3월 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은 수년간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과 불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실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생산유통기반 구축에 있어 사무관리비에 완도특산품 포장박스 혁신 디자인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영세한 유통업체에서 저급한 포장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군의 특산품 이미지를 살리고 질 좋은 포장박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포장박스에는 지리적 표시 상표를 부착하여 완도 수산물이라는 점을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감리비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비는 현재 추진 중인 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사업비가 55억이나, 실제 설계결과 75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줄이고 또 줄여서 53억 2,000만 원의 설계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 1억 8,000만 원으로 설계용역비를 반영하다 보니 전체 사업비에 감리비를 포함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특 10억 원, 군비 10억 원입니다. 동사업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산물산지가공사업과 같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생이 내에 이물질 제거로 매생이의 위생적인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매생이 세척기 지원사업 3,000만 원, 매생이 진공포장기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D-GPS 플로터 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장비는 태풍 피해조사 시 해상시설물 위치를 좌표로 환산하는 장비로, 시설 위치가 면허지 내냐, 외냐를 판단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ASC 인증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ASC 인증 관련해서 사업이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설명을 드리고, 드려야 만이 위원님들께서 아마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인증은 ASC와 MSC 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복의 경우 우리 군에서 아시아 최초로 2016년에 용역을 시작, 2018년에 14어가가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복 327어가, 해조류 106어가, 총 340어가가 인증을 받았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해조류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역에 있어서는 우리 군보다 먼저 부산 기장군에서 2017년에 추진하여서 지금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본심사를 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 인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역의 경우는 우리 군보다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통영, 창원, 신안, 진도 등에서도 인증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ASC-MSC 국제인증 취득에 속도를 내고자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다는 점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해조류 ASC 인증 홍보물 제작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전복 ASC 인증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홍보물은 해조류하고 전복을 다 포함한 홍보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및 몸속 미세먼지 제거에 타고난 해조류를 소포장해서 완도수산물을 홍보하고자 재료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 양식광어 비상품어 구매자금 지원을 본예산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품어가 유통될 경우 전반적으로 광어의 품질과 맛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어양식 전용 액화산소용해기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에 용해기의 효과가 매우 높아 인기가 좋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발전 지원에 1,000만 원과 해조류산업 발전 세미나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C 인증을 받은 어업인의 해외시장 개척 시 지원과 우리 군 사단법인 한국해조류발전협회의 세미나 개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복선별기 제작 및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전복산업연합회에서 주로 지원…… 구입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직접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류, 전복, 새우 등 양식장에 소독제 공급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우량종자 해조류 먹이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SC-MSC 인증 추진, 퇴적물을 조사하여 정확한 해양환경 상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참전복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전복 우량종자양식장 모니터링을 위한 선박 임차료에 625만 원과 조사용 시료 구입비 등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친교배, 수입산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군 참전복 보전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대책 수립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여년간 전복양식에 있어 태풍, 적조, 고수온 등 많은 자연재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중단기 대응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 해조류 등 ASC-MSC 인증 추진컨설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존 어업지도선의 구간 변경으로 유류 구입비를 본예산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완도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에 도비를 포함 1,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온라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 수

산물 소비촉진 판촉행사로 4,000만 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등 완도특산물대전 시식용 재료 구입비와 직거래장터 홍보 및 시식용 재료 구입비로 본예산 보다 500만 원씩 증액된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수산경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유망양식품종 그레 가지고 감태, 곰피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전복먹이가 부족해서 대체품종으로 감태를 공급하기 위해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5,000만 원,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로 사업비 5,000만 원을……

○ 김양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369페이지요, 감태, 곰피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자답이……” 하는 직원 있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자담 포함…… 자담이 50%여서요, 그래서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 김양훈 위원

이것이 전복먹이로 들어간다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전복먹이종자 공급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전복먹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실험양식을 끝내 가지고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저희들이 미역이나 다시마를 가지고도 먹이가 남는데, 이 감피하고 전복먹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이 감태는 여름철에 저희들이…… 미역하고 다시마가 여름철에 사실상 거의 녹아서 먹이공급이 어려운 시기를 대체하고자 감태 종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고수온에도 아무 상관없이 큰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0틀이라고 했는데 뭐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어가에 공급하려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감태, 곰피…… 그 완도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양식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완도 어디에서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남용 전직경영인 협회장님께서 양식하고 있습니다, 금일.

○ 김양훈 위원

금일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것 예전에 한번 실패한 감태 아닙니까. 양식 해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초창기에 실패하고 지금도 상당히 감태가…… 상당히 수온에 민감한 품종이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잘 양식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양을 수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실패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종자만 팔아먹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종자먹이 여름 대책을 위한 것인지, 그것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진도하고 해남 쪽에서는 올해 종묘가 실패했는데 우리 완도 쪽에서는 완전 실패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37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연구용역비,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용역. 이 부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전복산업을 한 20여 년간 쪽 해오면서 각종 자연재해를 겪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손에 와 닿지 않고 또 많은 양식어업인들이 경험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복양식어업도 새롭게 태어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수산직에 계시는

공무원 분들과하고 어가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에요? 용역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용역과정에서 다양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 김양훈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어가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민들이 훨씬 더 잘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총 반영해 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또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분석. 이 원가분석 예전에 도에서 해가지고 못한다고 했었죠. 못한 적이 한번 있었죠, 원가분석을. 이 원가분석을 실질적으로 어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소모비용을. 이것 용역사들이 와도 제가 봐서는 못합니다, 어가들이 훨씬 낫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차피 어업인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그래야 제대로 된……

○ 김양훈 위원

아니, 어가들이 직접…… 어가들과 전복산업 모든 단체들이 다 있는데. 생산단체도 있고 치패부터 해서 유통…… 뭐 생산단체까지 다 있는데. 그 생산단체에서 원가분석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굳이 용역까지 맡겨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무래도 12개 읍면에서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읍면, 또 각 어촌계들을 전부 의견을 수렴하고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

운 점이 있어서……

○ 김양훈 위원

아니, 제가 보서는 그런 어려움은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처음에…… 치패가 들어왔을 때 단가부터 시작해서 인건비부터 뭐 들어가는 비용, 가격이나 모든 그런…… 제가 보서는 어가들이 더 생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캐치하겠는데요, 용역보다는.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메모해서 단가를 낼 텐데, 저는 행정에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이요, 행사운영비에 청정바다수도 완도 소비촉진 판촉행사라고 그래서 부기변경이 있는데, 어디에서 부기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는, 추경예산서에 보면 부기변경이 없습니다.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수산유통팀장 조승호입니다.

부기변경 그 행사 1,000만 원을 감하고요, 그 밑에 당초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 촉진 거기에다가 3,000만 원을 증액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편성목을……

○ 김양훈 위원

어디 밑에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바로……

○ 김양훈 위원

바로 밑에 재료비 쪽에요?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아니요, 행사운영비요, 그 두 번째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 소비촉진 판촉행사.

○ 김양훈 위원

거기에서……

(방청석에서 “매생이.” 하는 직원 있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매생이를 감하고 매생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포괄적으로 다른 품목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포괄적으로 부기를 표기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에서, 매생이 판촉행사에서 빼고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서하고 이게 맞는 위치입니까?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원래는 매생이를 놔두고 예산이 부족하면 청정바다수도 판촉행사를 3,000만 원 증액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

○ 김양훈 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죠?

○ 수산유통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예, 인정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다시 수정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본예산에 보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3,000만 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본예산이랑 합친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 다시 수정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뭐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누구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기집행도 있고 뭐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

장님이 (청취불능) 아니겠습니까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를 심의…… 의회 의원들의 의결권 같은 것을 침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요.

368페이지, 수산물물류센터 감리비. 왜 감리비가 갑자기 여기에서 8,400이 나오니까. 우리 수산물물류센터 총액이 55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5억 안에서,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된 55억이 되어야 되는데, 감리비가 따로 떨어지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사업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줘야 맞는 것인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지금 그러면 55억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설계가 끝나 가지고 전남도에……

○ 박인철 위원

지금 심의 받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설계심사……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설계가 얼마에 납품되었습니까, 55억에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53억 1,300만 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몇 천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감리비를 대야지. 왜 감리비를 여기에 따로 책정합니까.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나머지 약 1억 8,000을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도저히 들어갈 틈새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55억 한도 내에서…… 그러면 공사를 줄여야지, 탱크 하나를 줄이더라도 그

렇게 가야지. 안 그러면 거기예다가 더 다시…… 55억을 가지고 안 된다면 5억을 더 감리비하고 설계비를 더 플러스해 가지고요. 저기 뭐야, 군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60억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설계비 따로, 감리비 따로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당초에 75억 정도 설계비가 나와서 이것을 줄이다, 줄이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전임과장이 있을 때 했는데, 나도 한번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 뒤로는 안 갔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55억인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감리비를 따로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것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급속동결장치. 이것도 참 애매한데 그대로 놔놓고요.

지금 ASC 인증 여기 삭감을 했는데, 퇴적층조사를 삭감했는데 그 뒷장을 보면 액수를 늘렸는데요. 연구용역비, 자치단체이전 목을 바뀌어 가지고 늘렸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한 장 뒷장을 보면 액수를 늘려놨는데요, ASC요. 퇴적물조사도 애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삭감해 버리고 1억으로 늘려놓고, 그 ASC 인증 추진컨설팅 용역도 3,000만 원인데 삭감해 가지고 뒤에 5,000만 원으로 늘려놨던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당초에 ASC 인증 어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급격하게 신청 어가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이렇게 반영했던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사업비,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사업비 다 똑같은데 거기예다가 그냥 플러스 7,000만 원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해놔서 별다른 이유가 있는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없습니다. 다만, 신청 어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 박인철 위원

37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완도 양식 광어 비상품어 구매자금, 이것 작년도부터 나왔는데, 갑자기 또 7,2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비상품어 광어가 좀 많이 생산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양식 어업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늘려놨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안 맞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전년도부터 생긴 예산인데.

그렇게 하고, 밑에 민간자본이전이요, 액화산소용해기 구입비 1억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어디에다가 지원해줄 것입니까? 지금 적조가 한참 되고 고수온이 되어 가지고 얼추 광어양식장에 다 액화산소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액화산소기에서 수조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잘 풀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액화산소를 잘 녹아 들어가도록……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군비로…… 뭐야, 국도비도 안 들어가고 순군비로 해 주냐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돈들이 아닙니까, 다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375페이지요, 376페이지. 글로벌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해가지고 7,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홍보마케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본예산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소요되는 사업

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전에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 가지고 그 앞장에 보면 글로벌시장 이것 국비입니까, 3,000만 원. 기존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3,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것이 국비를 받아왔다는 이 말입니까.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에 있을 홍콩식품 박람회…… 우리 완도업체들을 모시고요.

○ 박인철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홍보박람회까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좀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정도로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7페이지요, 포장재사업이 지금 필름이 아니고 포장재죠? (예, 그렇습니다)

필름이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를 보면 포장재가 375페이지에 또 포장재가 있는데 이것 중복된 것 아닌가요? 중간쯤에 보면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슨 포장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앞에 있는 것은 디자인이 포장재…… 박스도 저급일뿐더러 포장 디자인이 너무 복잡하고 혼선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요. 완도전복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저급한 그런 디자인을 쓰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 가지고 공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한 디자인으로 해서 한 가지로 우리가 1만 장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소포장재 지원 이것은? 375페이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그동안의 멸칭박스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것 1만 개 이것은 무슨 포장인가요, 아까 금방 디자인해서 한다는 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로 대부분 전복 유통…… 영세한 전복유통 업체에서…… 영세하다 보니까 박스를 아주 저급한 재료인 저질박스에다가 디자인도 아주 상당히 복잡하게 전하…… 완도전복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훼손시킬 정도로 복잡한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디자인을 통일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복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전복……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전복, 각 상호는 어떻게 하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 최정욱 위원

보급할 것 아니에요. 상호 없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통일해서? 각자 자기 상호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상호는 하के 하고요. 거기에다가 완도 지리적 표시 상표도 넣도록 하고 그래 가지고……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디자인 전체하고 자기 상호는 개별적으로 넣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 최정욱 위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림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공급하도록 그렇게……

○ 최정욱 위원

한군데를 지정해서 상호는 각자 자기 상호도 넣고……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만 통일된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요, 그 매생이사업 지금 시기가 아닌데 왜 이제야 하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11월 전에는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우리 2회 추정도 있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미리……

○ 최정욱 위원

왜 예측…… 지금 해도 어차피 돈을 그때까지 되워야 되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추경이 만약 9월 정도 되면 너무 시간도 없고 바빠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반영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전복활성화나 뭐 전복전략에 대해서요. 이런 것 솔직히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우리 지역의 의원들, 예를 들어서 각 전문가들 또는 양식어가들이 앉아서 토의를…… 아주 피 터지게 토의만 하면 이 가닥이 나올 거예요, 바로 답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미리서 용역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현장에서 일하는 어업인들이 잘 알고 또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민원제기를 받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우리들이 제일 잘 아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끼리 간담회를 정말 진지하게 한번만 해도 이 답이 그냥 나오고, 현재도 나와 있죠, 이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실행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용역 굳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이런 돈, 예산을 차라리 간담회를 해서 직접 어민들이 듣고 자기들이 필요한……있는 것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런 것이 더 낫죠, 그럴 돈이 있으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우리 어떤 수산행정적…… 전문공무원들의 인력구조상 상당히 이런 부분에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그래서 용역을 줌……

○ 최정욱 위원

간단하게 해서 보고 그러면 돼요, 간단하게 주선했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간담회 한번 우리가 조성해서 한다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376페이지요, 판로를 하는데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에…… 재료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1,500씩 드는데 1식이라면 한 번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여러 번하기는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여러 번한 것이 지금 이렇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1식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주로 1년에 몇 번이나 하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대형유통업체 판촉활동은 뭐 4번 내지 5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4~5번을 하는데 이렇게 보통 한 3,000 정도 이렇게…… 재료비를 구입해서 해야 돼요? 이것 시식용이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시식용도 그렇고 일부 시제품으로 해가지고 선물용으로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군배하고 선물하고, 이런 내용이구먼요. 시식용은 아니죠? (예)

시식용이라고 해놓으니까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내가 까먹어버렸네. 37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라고 해가지고 양식장 소독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뭘니까, 양식장 소독제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미생물을 이용한 양식장 소독제입니다. 주로 전복양식장, 광어양식장, 새우양식장에 공급하는

소독제.

○ 박인철 위원

어떤 미생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 지금…… 예산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본 예산을 할 때 이것 때문에 아주 박 터지게 갑론을박을 했는데, 소독제라는 말을 바꿔 가지고 이엠인지 어떤지도 모르고 소독제인지 알고…… 무슨 소독제인가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양식어가가 한 30여 어가……

○ 박인철 위원

이것 이전에 해양정책과에서 올리왔던데, 왜 이번에는 수산경영과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밑에 전복우렁종자 해조류 먹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것은 미세조류를 구입해 가지고 전복종묘를 양식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 박인철 위원

무슨 1,815포대라고 했는데 조류가, 미세조류가 포대로 나오니까?

이것을 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됩니까, 순군비로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것인가.

(방청석에서 “해조류 가루를 중국산 수입품 같은 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해조류 가루로 지원해서 우렁종자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게 확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3,000만 원이면 전복 치어를 생산하는, 치패를 생산하는 어가가 몇 어가나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한 300어가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300어가 되는데 1,875포대라고 하면, 이것 어쩔다는 말이에요. 한두 포를 주고 말아 버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데, 막말로 지원해 주려면 돈이 3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지. 이것 3,000만 원을 가지고 보통 치패어가가, 생산어가가 300어가라고 하는데,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이것 한 포대가 몇 kg인지는 모르겠는데, 뒤 6만 4,000원이면 별로 큰 포대도 아니겠는데, 비료포대 20kg나 될 것 같은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충족시키기에는 사실상 엄청난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안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렁종자 해조류 먹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것 김가루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김, 미역가루.” 하는 직원 있음)

저도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런데 종자를 생산하는 단체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직원 있음)

그 몇 사람에게 의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볼게요. 작년에 제가 8,000만 원 ASC 인증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그것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용역을 쥐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8년도예요. 그러면 이 8,000만 원을 어떻게……

(방청석에서 “8,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4,000만 원 정도 이월시켜놨습니다, 명시.”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전일부터 14여가가 ASC 인증을 받아가지고요. 그것 예산을 세워서 빨리 집행하고 빨리 어떻게 10% 이상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산을 지금까지도 안 쓰고 남겨놨는데요. 왜 도대체 그것을 안 쓰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4,000만 원 정도는 썼습니다.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자워크숍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퇴적물조사가 해조류 같은 경우 한 사계절 내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고요. 전복 같은 경우는 한 번 퇴적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해조류 같은 경우는 사계절 동안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해조류 ASC 인증해 가지고 본예산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없애고 다시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퇴적물조사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되면 계약할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도 뭘니까, 해조류로 해가지고 ASC-MSC 인증 추진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은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타시군은 엄청나게 빠르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완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 뻥길 거예요. 아마.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하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현장 해역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해조류는 빼고 ASC로만 딱 해가지고 전복, 해조류만 이렇게 했잖아요. 1억을 세운 것이, 퇴적조사가…… 전체적으로 해조류도 아까 그런 것하다가 해가지고 퇴적조사를 하고, 또 부족한 면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것을 계속 연계사업을 해야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추경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하면 맞겠습니까.

이것 타군…… 5,000만 원 이것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바로 추경이 확정되면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아니, 컨설팅 이것 용역으로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완도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좀 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이 편성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7,746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의회공직자 직무연수 위탁교육비 650만 원, 의회홍보용 쇼핑백 제작 560만 원, 행사운영비 중에 전남시군의장협의회 개최 4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중에서 월정수당 3,133만 8,000원을, 의회 역량개발비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1,58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시설비 등에 본회의장 영상장비 설치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아니, 의회가 솔직히 세미나나 공청회 이런 것을 이제부터 해보자고 올해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위원회도 그런 것이 있으면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깎아버렸네요, 예산을?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그 예산은 뒤에 보시면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번이 되어서 5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된 공청회나 세미나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해보려고 전문위원실에서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한 8회 정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횡수가 너무 많고 그런 사례도…… 4번 정도 되지 않겠냐 해서 4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의원들이 한 번씩만 해도 몇 번씩인지……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아니, 예산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하시고 부족하면 추경 때……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 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8분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범성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우성자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임경진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8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3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이범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311쪽, 군외 달도 테마공원 데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달도 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달도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00M의 숲길 조성과 그에 따른 로프, 난간, 야자매트, 안내표시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해양경관이 우수한 (구)선착장에 데크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으로 군외면민과 테마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 공간이 될 것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본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성

환경산림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यो. 데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데크시설을. 이런 데를 좀 보완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얘기하기 힘들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제가 봐도 탐방로 형식으로 하게 되면..... 데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데크는 약.....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데크 설치를 지양하고, 야자매트를 이용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홍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압니다. 거기에 바위가 좀 있어 가지고 급경사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데, 데크시설을 필요로 하는데 자재를 좀 좋은 것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하여튼 최대한 데크 설치를 최대한 자제하고요. 또 만약 꼭 필요한 부분은 자재 선정에도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데크로 안 하고 여기 그림대로..... 2번에 친환경적으로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바위를 통과하는 부분은 약간의 데크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나있는 그 길들은 야자매트나 친환경적인 자재를 사용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살려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여기 선착장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옛날 제일사 미역공장 앞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면?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테마공원에서, 테마공원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왼쪽에 (청취불능) 그 섬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기존에 나있는 길이 있고, 거기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 3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크는 군외면사무소를 바라보는 그쪽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안전건설과에서 해냈던데 그쪽에서 지금..... (청취불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축양장들 있는 곳, 거기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축양장 있는 쪽으로 가서 뒤편 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림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축양장 쪽으로 되어 있는데.....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잘못된 부분은 설계가 끝나서..... 설계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비하는 탐방로를 보면 그쪽이 xxx 씨가 지금 양어장을 신축한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그제 아니고.....

○ 허궁희 위원

아니, 이 분홍색 길이 맞으면..... 이 분홍색 길이 맞으면 맞지, 왜 아니야?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아니, 아니.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이 있죠. 여기가 개매기…… 테마공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그 옆에 바로 우리 현장이요. 그 옆이 xxx 현장이고.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지금 그림이 완전히…… 보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보면 여기에서 이쪽 부분입니다.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양식장을 지나서 그러니까……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양식장을 지나서……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설명을 그렇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양식장을 지나서……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홍색으로 그려놓은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이 말입니까?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지금 현재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거기에서 연결을 시키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자료를 들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땅 주인들하고 이야기가 됐냐는 이야기지.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아, 소유주들하고 다 이야기가 됐어요.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빨간 것으로 해놓으면 우리들은 여기서부터 처음한 것으로 알지, 그것이 지금……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 빨간 선에 대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곳, 그 부분에서 300M 정도 구간이 정비가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스팔트로 다…… 진입로나 탐방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끝 부분이구면, 끝.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끝 부분에서 이렇게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여기에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여기 탐방로에서 지금…… 해안선을 따라서 바닷가 쪽으로 (청취불능) 가는 줄 알았구면.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아니, 반대입니다. 반대.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외면사무소 이쪽을, 원동을 바라보면요. 그러면 이쪽이, 원동을 바라보는 이쪽이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구조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조물들을 어떻게 살려가면서 탐방로를 할 것인가.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저희가 추진할 그 사업 예정지 안에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림에 있는 것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 숲속을 지나가니까요. 숲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구조물이 지금, 바닷가 쪽에 구조물들이 다 되어 있는데. 반대쪽, 원동 쪽을 바라보는 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 가지고 xxx 씨 축양장 거기를 못 가가지고 연결되는 것으로 그림이 되어 있구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거기 그림에 xxx 씨 축양장까지 그 집을 거치지 않고 거기까지가……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못가가지고 기존 도로하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연결됩니다.

○ 박인철 위원

바닷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거기를 연결되면 못가가지고 지금 몇 군데…… 그림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들이? (예)
완전 반대쪽이네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차 추경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원도 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은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청정바다

수도 원도 연중 캠페인 홍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 홍보 대상은 서울 권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광판 및 KTX 영상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홍보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기별로 관광내용을 차별화시켜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잡는 해조류. 두 번째는 슬로시티 원도, 보고 먹는 힐링여행 축제 관련. 세 번째는 해양치유산업. 네 번째는 여름시기에 해수욕장 홍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해조류라든가 광어, 특산물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간이 길고 대도시 수도권에 홍보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중 캠페인 송출 예시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수도권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에나 설치할 계획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KTX하고요. 수도권 중심지 한 군데, 총 두 군데입니다.

○ 허궁희 위원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 하는 것이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에다가 하는 예산이 5,000만 원이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사무관리비, 금방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5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8회…… 8개월.

○ 김양훈 위원

8개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 김양훈 위원

매일 이렇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매일 3 내지 4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그것이 1, 2, 3, 4, 5안까지 있는데, 그러면 한 3일은 1안을 하고 3일은 2안을 하고, 이런 식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죠, 이것이 시기별로 지금 가장 해조류가…… 미세먼지가 이슈 되기 때문에 4~5월은 미세먼지를 잡는 해조류만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5~6월은 축제시즌이기 때문에 축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월…… 월별로 차별화해서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 김양훈 위원

월별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몇 군데에다가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서울은 한 군데…… 서울 대도시 전광판 한 군데.

○ 김양훈 위원

아니, 몇 군데가 아니고 몇 분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분 내외로……

○ 김양훈 위원

1분 내외요? (예)

1분 내외면 1분 안쪽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습니다. 30초 스포츠 광고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한다면 1분 정도 할 수 있는데, 1분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스포츠 광고형식으로 해서 30초 이상 또 40초짜리 그 정도로 해서 해볼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 김양훈 위원

8개월 동안요? (예)

8개월이면 연말까지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번 12월까지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내가 어제께 보니까 설명을…… 연구용역까지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그것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아, 내가 뺐던 것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청취불능)

○ 박인철 위원

아니, 설명 요라고 해놨는데 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자료를 좀……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내가 그것은……

○ 박인철 위원

아, 괜찮으니깐 되놓고.

왜냐하면 담당관님이 설명할 때 내년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 용역이 또 필요한가, 권역별 용역이. 그리고 용역을 심사할 때도 참 말이 많았던 것인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굳이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로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할 것인데 굳이 이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이런 권역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과제에 너무 안 맞아요, 이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설명을 이전에 드렸습시다마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라든지, 동부권의 환경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동부권 특성화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생활 밀착형 SOC사업 조사를 통해서 일반 농사·농촌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의 설명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1억 2,000이나 들어 가지고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완도 전체적인 용역을 다 한번 했어요. 물론 이 용역하고는 틀리죠. 그러면 이 용역하고 너무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그 용역을 발채해서 보면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한 것과 다 대동소이해요.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 동부, 서부…… 동부, 남산면, 완도읍 체도 내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중간보고할 때 봐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대대적인 용역을, 발전계획용역을 할 것인데 굳이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쥐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역발전종합계획이라든지 관광발전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지만, 깊이 있게 또 그렇게 분야별로 특성화 있게 그렇게 다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특성화시켜서 부분적으로 특성화시킨 그런 용역해 볼까, 그런 생각을……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을 대대적으로 잡아가지고 더 큰 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산 2,000을 가지고 어떤 특성화를……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른 부분은 빼고요. SOC시설에 중점을 두고, SOC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만 특성화시켜서 특성화계획을 용역해 볼까……

○ 박인철 위원

SOC시설이라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동부권이 장보고대교가 연결됐기 때문에 고급 지역의 골프장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순신테마…… 지역 개발이라든지, 금일이면 명사십리 해당화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SOC 사항을……

○ 박인철 위원

내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사업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던 용역들이 아닙니까. 해당화나 최경주골프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부서들에서 해가지고 추진 중이고, 금일 해당화공원도 환경산림과에서 해가지고 작년부터인가 사업에 들어가 가지고 다 복원이 진행 중이고, 다 지금 실시 중인 사업들이예요, 그런 사업들이. 그러한 용역을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25페이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전라남도 도서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완도군이 50%씩 사업비를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금일고, 노화고, 고금고, 약산고 학생 약 8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1인 기준 4,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전남도 내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여수, 신안, 그리고 완도, 진도 4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씩 조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고등학교 전체 중식비는 도교육청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식비 역시 현재 급식소를 운영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장보고장학회에서 야간자율학습 지원사업으로 배식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조식비 부분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남도 내 4개 시군에,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식비를 50%씩 분담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꼭 장보고출연금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고, 또 하게 되면 기존 본예산에 장보고출연금을…… 예년보다 한 6~7억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해줬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출연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기존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

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장보고장학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그간에…… 현재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까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장보고장학회에서 어렵히 알아서 하겠습니까라는 수년간 고정적으로 장보고장학금에서 주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런 예산들도 한번 우리가 평가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다가 우리가…… 교육지원청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군 예산과 얼핏…… 거의 버금갈 것인데 교육지원청에다가 주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이것을 계속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실질적인 이런 용도로 돌려야 되는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수년 동안…… 제가 7대 때부터 보니까 7대 때 막 들어와서 우리 장학금에서 나가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액수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물론 장학재단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순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도가도 그런 것을 좀…… 간담회 시기나 그런 시기를 봐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면 우리 이해가 빠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여성이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이동과 2019년 제1회 추경 삭감대상 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드림스타트에서 상대적으로 읍권보다 도 서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빈약해서 금년에 신규로, 신규사업으로 이 부분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여성이동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이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민원봉사과 배정택입니다.

219쪽입니다. 한옥마을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한옥마을 약산 커뮤니케이션 신축 실시설계비 1,329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산한옥마을은 2014년도 준공 이후에 전원마을을 주민들이 이렇게 정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가 공동체를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여기 지역에 와서 살 수……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서로 간에, 또 인근하고 통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범성

민원봉사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설명을 요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삭감이…… 1차 조서에 삭감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설명을 요했습니까?

○ 위원장 이범성

아, 설명은 삭감이 되더라도 꼭 와서 얘기할 부분은 하계끔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양해를 구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것?

○ 위원장 이범성

아니, 구하다기 보다는 실무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직원들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하십시오. 삭감된 것이, 삭감조서에 올라가 있는데 설명이 들어 오니까요.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 조례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가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기존 마을이나 복지회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조례를 떠나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인데, 조례도, 조례에서도 무슨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그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또 3억도 안 됩니다, 만약 조례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마을에 100가구, 60가구, 150가구, 200가구라고 해가지고 차등으로 예산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그냥…… 집행부에서 각 마을에서 예산을 들이대니까요. 7대 때 조례를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하라고 해서 정했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그 마을에 구암

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마을에 다 있는데 이것을 다시…… 그분들이 완도로 귀향을 했단지…… 귀어를 했든 뭐 귀향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몇 가구되지도 않는 이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지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원마을주택을 하는 이유는 도시민을 유치해서요, 지역의 인구정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마을이라고 인근에 있지만 독특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개념보다는 서로 간의 공동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신축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더욱 더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할 일이 없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개념보다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귀향을 했으면 그 마을, 구암마을하고 같이 어울리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자기들만 따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그런 분야는 저희들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저도 여기 와있는 안태호 면장님이 약산 면장을 할 때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뭐 분할을 해주라, 마을을 만들어주라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귀향한 사람들을 따로…… 구암마을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만들어 주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필요성이 있냐고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을을 7대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약산면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그런데 굳이 이렇게 따로…… 뭐 말이 커뮤니케이션

이지. 마을회관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 기존에 토착민들, 구암마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암마을 내에 그 마을이지. 따로 그 마을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이것은 시설을 하고 나서 그쪽에…… 어차피 저희들이 도시민을 유치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가 (청취불능) 또 그 공간들을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마을개념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분들, 귀향하신 분들하고 마을 토착민들하고 잘 어울려라고…… 방속에 나오는 것을 보듯이 같이 어울려야지. 거기에서 뭐 공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소득증대될 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이면 좋은데 전혀 지금 따로, 기름과 물 같이 늘어나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자기들 것만 따로 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구암마을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구암마을 원주민들은.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조례도 완도군 조례에도 안 맞는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동료위원 여러분, 삭감대상이었는데 설명을 요했던 것은 위원장으로서 조금 성급한 생각……

(「아니, 괜찮아요.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30페이지, 상단 부분에 군관리계획 최경주골

프리카데미 관련해서 용역비 6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간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용역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22억 정도의 용역을, 행정절차를 해야 됩니다. 이중에 6억 정도는 행정이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나머지 16억 정도는 민간투자자가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경북 울진 원남골프장이나 그다음에 또 성주, 그다음 경남 통영, 이런 지자체들에서도 투자유치 차원에서 해준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관련 용역은 예산과목이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까운 목을 편성한다고 하면 시설비가 더 가깝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정비는 시설비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쪽에 서울 강서구청 체육회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그쪽 서울 쪽에 있는 강서구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경제 협력해서요. 그 팸투어를 이분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요. 부기를 조금 수정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체육관계자 팸투어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냐,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 예술단 운동복 포상금 관련해서 훈련용품 구입비 1,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사격선수 이윤리 선수 지원 관련 그런 경비입니다. 이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초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일에 공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로 넘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서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못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넘어올 것입니다. 초안은 나왔는데 자료는 위원님 몇 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에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경비 3,750만 원을 부기 2개로 나누어서 출전경비 750, 등록비 3,000 이렇게 나눠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 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역도연맹에서 이 부분을 선수들이 참가하면 일정 부분 경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역도연맹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단장으로 참여하는 지자체에다가 비용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출장경비로 해서 3,750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려다가 나눠놨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등록비라든지 정식용어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용어를 정비해서요. 아시아 주니어 역도 북한대회 출전경비 이렇게 해서 3,750만 원으로 세우면 어떨까,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최경주골프는 놔놓고.

그 밑에 바로 가가지고 부기변경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이것이 참 안 맞는 말인데, 예술단 운동복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 다른 것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제가 역도연맹에 다 전화해 봤습니다. 출전비도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 역도연맹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속 기록에 기록이 되니까요. 그리고 과장님의 말 못

할 고충도 압니다.

그래서 바로 1차가 끝나면 담당팀장님과 예산 계하고 해가지고,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다 정해져 버린 것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다 이렇게 한다고 정해놔는데 이것도 좀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것 지금 등록금도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띄워놓으면 주민들이 다 예산서를 보버리더라고요, 그 예산서를. 그래서 주민들이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이것 모르는 예산이냐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고 그럴 때는 잘 몰랐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지금 시내에서 우리가 추경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추경이 끝나면 우리 예산계에서 바로 이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우리한테 역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2차 축조할 때 맞는 부기를 찾아가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관리계획은 자꾸 이야기를 해봤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말했던 몇 군데에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 계실 때부터, 그 다음에 정명성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왔는데요. 전혀 무슨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유치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군관리계획을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뭘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군 설군 이래 이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SOC 이런 사업은 해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오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관광시설계장을 할 때……

○ 박인철 위원

어떤 것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소세포 드라마세트장 그 관광지를 할 때 제가 그 용역을 하고 대상주택이 투자자……

○ 박인철 위원

그때는 해신세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촬영한다고 다 못이 박아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최경주 골프는 할지, 안 할지 아직……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여기에서. 만약 이것 군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싹 해가지고 만약 투자를 안 하고 그 골프장을 안 찾으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 책임은?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 세 가지는 그런 식으로 부기정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그 훈련용품 구입이요, 그전에 했던 것은 조례에……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소속팀에서 안 나오니까, 소속팀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소속팀에서도 모든 훈련장비나 이런 것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굳이 또 해준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중복…… 소속팀하고 우리 군하고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체육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중복해서 지출되는 그런 사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전남체육회에서는 모든 훈련장비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있어 봤기 때문에…… 모든 훈련비나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은 다 나오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확인해서 중복지급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잘 운영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좀 알아보시고 바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40페이지, 군청사 전면 도시공원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완도군청 앞 도시공원화사업은 한번 해놓고 보시면 진짜 잘됐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군청 앞에서 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주차장 문제는 우선 지금 2주차장을 저희들이 동의를…… 동의서는 아직 못 받았지만 동의는 다 받았습시다, 구두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지금 감평평가 의의를 해냈고요. 오늘 오후에 보고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해 났습시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는 매입비하고 또 균특 신청도 9월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균특도 3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원화를 하게 되면 31면이 부족한데요. 군청 옆면에 9면이 있고 뒷면에 34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치면 44면인데요. 공영차가 한 10대 됩니다. 그러면 34면은 군청 직원들한테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뒤쪽으로

옮기든지, 또 직원들이 10분 이내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오지 않는 방향으로, 2주차장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라도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내권에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문제잖아요. 뭐든지 주차가 제일 먼저 해결이 안 돼서 난리인데.

요즘 이 근래에 골목까지 돌아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자주 다닙니다.

○ 최정욱 위원

여기에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가 안돼요. 왜 안 되냐면 나도 어제도 보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봤지만 이 부근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골목도 다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여기에서 봐도 중학교 밑에까지 차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여기를 주차장 없이 만들어 놔버린다고 하면 과연 그 불편을 어떻게 감수하려고…… 의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해도, 저 상태에서 놔두고 해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리고 공무원들, 직원들을 언제까지 막을 거예요. 차를 갖고 오지 말라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2주차장이 될 때까지 군청 옆면하고 뒷면은…… 군청 바로 뒤에, 거기는 직원들이 주차를 못하게요. 44면 정도 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해결된다고 보십니

까, 과장님은. 전체 이쪽 주차장이?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직원들이 10분 이내는 될 수 있으면…… 저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고 군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차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지.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근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봐보세요, 어디에 주차를…… 우리가 다음에 공터라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주차를 해야 되겠다. 지금 초등학교 그 수영장을 해놓고 골머리가 아픈 것이 주차장이예요. 거기도 이 부근이예요, 사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 난리인데 그것은 해결하지 않고 우선 우리가 공원을…… 물론, 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 주차문제 해결도 안 되는데 뭐가 급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꼭 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차라리 군청사가 높으니까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층에다가 차라리 공원조성을 하면…… 돈을 더해서 한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해야지. 이 상태에서 내가 봐서는 절대 안 되고.

또한 뭐를 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사실 어떤 민원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군청 앞 광장이예요. 그런 광장인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다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어 가고 있는 저것을 지금 공원으로 만들면 주차장 해결도 안 돼. 주차가 더 복잡하게 되죠, 저것을 없애버리면. 한번 조사를 해보라니까요. 지금 밖에 한번 쳐다봐요, 차가 얼마나 서있는가. 여기서 과연 저것을 없애면 그 차는 어디로 갈 것이며, 또 우리가 몇 분 거리에 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해놓고 걸어들 수 있다면 괜찮은데 주차할 데가 없으니깐, 이 부근에는 저 밑에까지…… 골목마다 다 세워져 있어, 주차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 보고 해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성을 한다고 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군청사인데 뭔가 해결을 해야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하여튼 우선 군청 주변에 제일 주차 문제가 뭐냐면 직원들이 많이 타고…… 우리 직원들이 한 300명됩니다, 300대. 그래서 직원들을 일단 통제하고, 이쪽 주변 군청 옆면하고 뒷면을 통제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여기 주차장이 한 340평 되는데요. 그 뒷면하고…… 거기는 매입하려고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거기가 56평하고 (청취불능) 한 34평이 되더라고요, 그 뒤쪽에. 거기까지 하면 100면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더 늘려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느 정도 해보고…… 우리가 읍내에서 제일 급한 데가 모든 것이 주차장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하고 나서 이것을 해도 안 늦잖아요. 그럼 과장님의 말처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면 해놓고 나서 “아,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주차 해결이 되겠구나.” 라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때 가서 만약 주차를 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할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31면이 부족한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통제하고……

○ 최정욱 위원

직원들을 통제……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옆에 칸하고 해서 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옆에도 하고, 또 앞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해서 군청 옆에……

○ 최정욱 위원

아니, 나도 들어서 압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또 한 번 돌아봤어요, 지금 골목마다 다 나름대로 조사해 보고 온 거예요. 차가 안 서있는 (청취불능) 그런 데에까지도 주차가 되어 있어, 어디 공간이 없어. 누가 와서 비집고 차를 세워놓을 만한 자리 하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상황

에서 우리가 저것을 없애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여튼 저게 급하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맞겠죠. 그런데 우선 급한 것이 주차라는 얘기에요. 이것을 먼저 해결하고 해도 될 것인데.

저것을 해버리면 그 주차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직원들한테 물론, 지금도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만요, 지금도 직원들 중에 안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다 굳이 가지고 오는데요, 주차가 어려우면 알아서 다들 피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하지 마라, 뭐한다고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

○ 위원장 이범성

과장님, 계속 말꼬리를 물지 말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좀 들어보시고 최종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 최정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만약 과장님, 하계 되면 이것 언제 착공이 됩니까? 설계 안 나왔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지금 바로 설계를…… 기본계획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예산계에 한 번 물어볼게요. 2회 추경이 언제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대략적으로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6월이나 7월 정도로……

○ 박인철 위원

6월이나 7월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제일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이요, 이전에도 한번 설계비 2,000만 원이 공론화가 되어서 어렵게 설계비가 삭감됐다가 앞에 있는 허정수 국장님이 이런 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꼭 살려주라고 해가지고 이 2,000만 원을 살렸는데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책자라도 미리 좀 의회 간담회할 때 가지고 와서 했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쪽이 옛날 과장님 그 자리에…… 퇴직했습니다마는 김재홍 과장님이 계실 때 여기를 사려고하다가요, 지금처럼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를, 지가를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못해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애당초 그 당시에 여기를 사가지고 우리 의회 부속건물이 여기로 가고 주차장하고 본청에 건물들이 부족하니까 여기로 온다고 했는데 다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가 달려드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지가를 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포기했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었으면 미리…… 이번에 우리 770억 예산 중 부지매입비가 70억이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부지매입비 정도는 잡아놔야 일들이 순조롭게 됐을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2회 추경 때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2회 추경 때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왔다면 설계 그 기간이 있을 것이고, 설계가 나와도 공사에 착공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되면 설계하면서 2회 추경에는 부지매입비를……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요,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경제교통과에서 국비사업으로 30억을 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겠고, 우리가 완도읍 5일장터 저기도 받아놓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공사 착공을

안 하고, 진즉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까지 오늘 사업이 되어 가지고 내일 준공이 되고, 그런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저것을 올해, 이번에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경에 잡아가시고, 2회 추경하고 해가지고 일단 주차타워를 못 만들더라도 바닥이라도 해가지고 저기 것을 이쪽으로 흡수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 어떻습니까. 만약 부지매입이 올라온다면 2회 추경에 예산액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먼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이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하자면 군청 앞 주차장 전체를 공원화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주차장은 그대로 두고요, 민원실 쪽 앞에…… 군청 앞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면만 한 30~40대 공간이 됩니다. 마는 거기를 깨끗이 정돈하고 정리를 해서요, 군청을 찾는 민원인이나 외래…… 외부손님들한테 우리 완도군의 상징인 군청을 깨끗하게 정돈된 이미지를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주민집회 공간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집회공간은 충분합니다.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군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군청에 할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 형태로 쓸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토지매입 관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따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변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 부족한 공간들을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차장을 크고 좋게 만들어놔도 그 주차공간은 부족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학교하고 저 밑에 내려가는 구간을 보면 양쪽 편에 전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안 세워도 주위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청 뒤쪽 주차장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요, 또 우리 직원들이 특히 2부제 차량 운행관계가 법령으로, 군 조례가 아니라 법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미세먼지 관계라든가 교통 혼잡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서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이면서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 내지는 주민들에게 개방하자는 그런 분위기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토지매입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다면 이 공사가…… 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대신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바로 같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 급한 것은 아니니까 만약 이 공사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급한 것은 아니니까 같이 좀…… 하게 되면 해주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왜냐하면 일련의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땅을 못 샀으니까 오늘이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요, 가계약을 한다든가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군에서 가격을 붙여버리면 바로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20만 원이 되어 가지고 안 맞아요, 지가가 안 맞아가지고 못 사는 그런 일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7페이지,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2차 보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2차 보전금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외대상은 담배, 주류 중개업 등 조례로 제외 대상 업종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경제교통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이요. 그것 때문에 보충으로 다시 설명도 듣고 싶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분야별로는 다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자꾸…… 예전에 박인철 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까는 자영업자들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계속 지원제도가 나왔는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가지고 역효과가 나거나 안 좋은 소리가 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참 소외를 받거나 역효과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국한해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요. 원래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전에 전남보증재단이 생기기 전부터 원래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 제도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것을 전남별로, 각 시군별로 거기에 보완해서 더 편리하게 해보려고 해서 이 재단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몇 천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전남신용보증재단만 된다는 것이 안 맞아서……

이것을 할 때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당장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에게 질의가 와요, 왜 그렇게 됐냐고. 그리고 좋은 제도가 오히려 안 좋은 역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소외를 받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다짐을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제도를, 그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잘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위원님의 제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또 다른 부분을 알아보고 위원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방법, 또 농식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두 군데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누구나 소외를 받지 않게요, 기왕 하는 것 혜택을 볼 수 있게 취지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이어서 250쪽, 2018년 사회적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작년 10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 교부결정이 저희들한테 11월 21일에 통보되어서 이미 본예산에 요청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금년 본예산에 확정을 못했던 사항으로 이전 재원을 가지고…… 지금 도비는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재원으로 이번 예산에,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도비, 군비, 자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목에 도비, 군비, 자담이 되어야 되는데 8대 100…… 10으로만 되어 있어서……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래서 이제……

○ 박인철 위원

무슨 사업인가 해서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도비하고 군비, 자담도 있고. 지금 80% 준다는 것은 도비, 군비가 예산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요, 20%는 자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2,000만 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 이야기 한번 해주시시오.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작년 11월 3회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11월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이 들어왔으면 여기에 그러면……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불용돼서 재원 자체가…… 전년도 수입으로 되었습니다. 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도비는 뇌뭉 버리고 군비로 하겠다는 이 말이에요?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기업은 어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엠사랑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그 뒷장에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 돈은 왜…… 우리가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도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52페이지, 제일 상단예요. 사회적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돈이 6,000만 원이 잡혔는데 4,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뭐 이런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 사업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해당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건으로 먼저 263쪽, 방송영상 산업 유치 및 육성에 사무관리비, KBS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 제작 지원비 7,0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수산물 특집 다큐멘터리의 7,000만 원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받고 확인한 결과, 본예산에 수산물 다큐는 해조류, 전복, 광어 등 전반적인 수산물 다큐를 목적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양다큐멘터리(해조류에 길을 묻다)는 전국 생산량에서 가장 많은 생산을 하는 우리 군 해조류가 최근 사회적 재앙으로 대두되는 미세먼지의 배출에 좋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서요, 지난해와 금년에 가격이 폭락된 매생이, 다시마는 물론, 김, 미역 등 해조류를 미세먼지와 교부시켜 방송 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금번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이 내실 있게 준비하여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263페이지 아래쪽 노화건강테마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1단계사업으로 시행되었지만, 현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복웰빙센터 건물의 활용방안은 물론, 그보다는 미개발된 8만여 평의 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장기 그림을 그려서 각종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 등 앞으로 개발계획에 참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획을 세워 밑그림을 그려놓아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공모사업을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어도 부분적인 매각 요구가 있을지라도 신중하게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지역주민들의 의

견이 반영된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관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0쪽, 다큐멘터리 제작이요, 이전에 수산물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광어, 전복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었고요, 전체 수산물로 알고 있습니다, 해조류 쪽으로, 이게 작년에도 보면 해조류라는 것에 광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 본예산이랑 중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 이전에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서을 이쪽에 모니터링까지 계속 한다고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해조류 광고를…… 굳이 여기까지 더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방송을 우리가 한번 하면 보통 방송…… 한 꼭지가 최하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1억까지 가고 그러는데요, 방송에 한번 이렇게 나가면 지역특산물 판매나 판매전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물론 그렇게…… 금방 과장님의 말씀도 좋은데요,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수산물 쪽에서 전복, 광어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경남방송 수산물 특집으로 또 들어있습니다, 6,000만 원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경남……

○ 김양훈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보다 경남방송 것 하고 또 이것이 중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역이 경남…… (청취불능) 경남방송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우리 청산 슬로 걷기축제 때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관광과 특산품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서 판촉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경남방송에서 6,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은 지역방송이 아닙니까, 그리고 위에는 전국방송이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우리가 전국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지역에……

○ 김양훈 위원

1,000만 원 차이면 전국방송이 훨씬 낫죠, 지역방송보다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지역과 중앙…… 전국방송을 이렇게 저희들이 그때마다 분배해서……

○ 김양훈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홍보, 광고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홍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무 무방비하게 예산들이 홍보나 이렇게 방송국에 제작 지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한 군데로 많이 흘러나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광고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보면 중복광고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방송 제작을 하는데 정말 내실 있게 철저히 주문하고 그래서 좋은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노화건강테마촌 기본계획용역이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 사업이 1단계 사업이 전복웰빙센터라고 큰 건물만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도 현재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단체에서, 동아리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전체 8만여 평, 8만여 평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개발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화읍과 같은 조건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도요, 지금 방치된 지 오래 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가서 보면…… 어제에도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동호회나 일반 단체들에서 막무가내로 사용하고 있고, 가서 보면 주민들의 말로는 흉물스럽다고 그래요,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서는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해도 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 면을 전부 다 이렇게 건물을 쓰겠다. 엄청 넓은 땅이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굉장히 넓습니다.

○ 김양훈 위원

통과되게 되면 잘 세워서 진짜 군민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활용가치가 높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해조류밥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전복도, 광어도, 해조류도 홍보한다고 본예산과…… 지금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밥상 홍보, 냉장고를 부탁해 이것은 음식을 특별하게 홍보한다는 얘기잖아요, 다 큐멘터리로 꾸며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특산품을 이용한 음식을 연예인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봅니다마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음식을 개발해야 된다, 어쩐다 하고 왔지만요, 지금 특별하게 내세울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밥상을 제대로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에 내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뭐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전복이나 광어나 해조류나, 이런 홍보가 없다고 하면 여기 에다가 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접목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겠다. 본예산에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 있는데 우리가 농촌기술, 저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음식이 전혀 개발…… 저기에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음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을 홍보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미지만 안 좋아지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대표음식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대표음식으로 홍보할 할 경우에는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나왔을 때 그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완도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홍보를 했으면 완도에 와서 찾았을 때 어디에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 프로그램은 전복이나 완도의 광어라든가, 해조류를 사용해 가지고 조리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완도에 직접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전복이 정말 먹음직스럽다……

○ 최정욱 위원

그것은 이런 홍보, 광고, 흡쇼핑이나 뭐 광고, 이런 것이 엄청 나가요. 전복이나 광어요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많이 나왔어요.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그런 뜻으로 홍보를 한다면 의미가 없죠. 우리 완도만의 특별한 밥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조류 밥상.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복지행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TBC 관계는 제가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장과 만나고 JTBC 관계자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 미팅한 후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해조류가 좋다는 것을…… 그것을 계획해 가지고 방영하자.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뉴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밥상…… 뭘니까, 이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쪽 JTBC 미디어팀장하고 제가 오늘도 통화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적당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파급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냉장고를 부탁해에 국한하지 않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알겠는데 방송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음식 어떤 것을 개발해 놓으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설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어떤 완도대표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내놓으면 더욱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먼지와 관련한다든가 기타 완도 주력특산품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시청자들에게 많이 노출시켜서 주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 소관 설명 요 3건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4페이지, 자연그대로 감귤명품화 사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고품농업인이라든지 비수산인 소득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소안, 노화, 보길, 청산 쪽에 감귤사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사업 수요 조사를 했는데 1만 2,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때 8,000 물량을 반영했고, 추가적으로 3,000만 원, 추경에 약 한 3,000 정도 추가물량을 배정을…… 예산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영비 절감 한우사료 자동화 급이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축산에

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을 알아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전체 축산농가에 한 30%에서 40%까지 전부 보급된 상태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450 축산농가에서 9,000여 두 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동화 급이시스템을 2007년도에 2개소, 작년에 2개소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2개소를 확보했고, 추가적으로 3대 물량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축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입니다. 이 건은…… 이 건도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요, 이것도 밤에 응급하게 송아지가…… 면역력이 약한 송아지 같은 경우는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비상약입니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응급 투여해서 안정이 되면 그 다음날 원거리에 있는 수의사라든지 동물병원에 가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농업축산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이것 뭐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고 설명을 제대로 각인하기 위해서요. 밀감이죠, 소안도 묘목. 이것 안 그래도 저도 그것을 내가 먼저 해 보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올라와서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묘목을 지원하면서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소안도에서 그것이 자생해서 좋은 완도의 명품화 감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농가들이 지어서 소득과 창출되게 되어야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먹어봤을 때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차별화가 덜 된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묘목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 묘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나가서 잘못되어 버리면 다음에 이것을 하려고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처음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정말 잘하자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묘목을 이렇게 줌…… 어떤 묘목이 좋다거나 이런 것 없이……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추가 설명을 드리면 감귤이 증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력은 빨리 나오는 것이 가격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라실생이라는, 그것이 청귤차로도 가공이 가능하고 당도, 신맛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품종으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어제 급하게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급하게 제주도에서 알아보니까 봄 묘목은 전부 완판이 되어 가지고 어렵고 가을 쪽에…… 가을에 묘목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유라실생 묘목으로 해서 가을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진짜 묘목을 잘하십시오. 왜냐하면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제품이 안 좋아서 못 팔거나 못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보급하는 사업이 오히려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서 기왕이면 우리 완도 소안도에서 나오는 감귤이 명품화될 수 있도록 그 묘목 선택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395쪽, 송아지 설사약. 이것이 진짜 축산농가에서도 이런 비상약은 전부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아지가 날마다 매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이 부분도 295페이지를 보면요, 당초 본 예산에 생균제 공급사업을 8,000만 원을 계상했

거든요. 그중에서 거기에서 감액을 하고요, 이것도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생균제 예산을 좀 해서 설사약 구입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축산팀장님에게 보충설명을 듣도록……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축산약품을 판매하는 일반판매점이 없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광주나 대도시로 나가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비약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농가당 1개에서 2개 정도 공급하면……

송아지는 설사해 가지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치료시기를 놓쳐버리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로 투여하면 일단 송아지 설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저희들이 치료 시간을 벌 수 있어 가지고요. 수의사나 그다음에 동네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농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비약의 성격이니까 그것이 많은 농가들에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눠주기 위해서 예산 계상만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상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응급약하고 상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소 인공수정을 하고 나오는 날짜를 거의 다 압니다, 주인들이.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다 해놓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직접적인…… 대농가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고 소농가들이 부족할 거예요. 아마 소농가들 쪽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골고루…… 다른 지원을 못

받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다 반계금 잘 배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경영비 절감 사료 자동화 급이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한우농가가 몇 가정이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한 470여 농가 정도 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설명에 가…… 이것을 공급 몇 가지를 했다고 그랬죠? (예)
몇 가정이나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2017년도에 2농가 했고요, 2018년도에 2농가를 했고, 본예산에, 2019년도에 2농가, 총 6농가가 대상……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공급할 때 몇 두 이상, 이런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급했는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사업지침에 고령농가라든지 자동화가 필요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정해서 공급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공급 규정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공급하다 보면 이게 말썽의 소지도 나와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집들은 본인들 예산으로 다 자동화 급이를 해요, 사실은.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일부는 자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 공급해 주면 좋죠, 예산이 풍부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런 공급을 할 때 지금 이것이 한두 대를 가지고 자꾸 공급을 하고 그러다 보면 특혜성 이야기도 나와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자부담 절반 가지고 공급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내 돈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공평하지 못한 점들이 들려와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내가 어제 또 이것을 잠깐 지적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공급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규정을 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설명대로 한다면 나이를 먹은 사람 뭐 고령화로 한다지만 내가 봐서는 고령화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급된 부분이……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부의장님, 우리 축산팀장님이 한번……

○ 허궁희 위원

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저희도 지침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 허궁희 위원

어떤 식으로 지침이 있는가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일단 최소한 50두 이상 사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우선권을 저희들이 주는 부분은 녹색축산 지정을 받거나 안 그러면 친환경 인증, 그다음에 HCCP 인증을 받은 농가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지금 친환경 인증이 36농가고요.

그다음에 HCCP 6농가, 그다음에 녹색축산 지정 농가 2농가가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농가들한테 특별한…… 다른 혜택을 보는 부분은 없는가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아니요,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없습니까, 왜……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우선권만 줄 뿐입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렇게 선정된 농가들에게 우리 군에서 다른 특별한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없냐.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소규모 농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증비는 저희들이 전액 보조해 주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요.

○ 허궁희 위원

다른 부분은 이렇게 혜택을 받은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준다고 했죠. 현재 공급된 것도 그분들한테 공급된 것인가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전에는 인증만 해당이 됐었는데요. 금년도 지침에는 저희들이 HCCP하고 그다음에 녹색축산 인증이나 뭐 깨끗한 농장까지 다 한꺼번에 농림부에 의해서 인증을 받은 그런……

○ 허궁희 위원

아니, 공급된 부분에서 그런 가정에 공급됐냐는 이것입니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그런 농가들도 다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 안에 되지 않으면 아직 공급을 해준 적이 없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확실하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 허궁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인증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 것이 아니어서…… 이 공급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들쭉날쭉 선정을 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 것이었어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동일할 때는 고령농가들에게……

○ 허궁희 위원

당연히 그랬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키십시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 부서는 설명 요가 필요한 사업이 1건 있습니다. 325페이지, 작은섬 큰 기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0인 이하 도서에 대해서 생필품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마용 서비스 지원사업, 또 소규모주택 개량 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에서 대상 도서를 금일, 노화, 고금, 금당으로 해서 총 8개 도서에 대한 사업 신청이 있었고, 이 사업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정책과장이 서울 출장 중이라서 미래해양사업단장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 1억 원 계상 건입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해조류를 구입하여 전복먹이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해조류부산물

지원사업에서 부가를 정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역 구매 재활용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도 2억 7,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녹음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억 원, 금액 1차 추경에 3억 원, 그래서 총 6억 원으로 한국수자원관리공단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예산과목을 현행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후 사후관리 부분은 전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시설비로 노화읍 미라리 로드선창 시설 1억 5,000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시설은 약 15년 전에 마을에서 자체 공동기금으로 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선박(청취불능) 승하선 시 높이 차이가 크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3억 원이 소요되나 군에서 부잔교시설에 따른 부분, 1억 5,000만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마을 자체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 선창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는 수심이 깊어서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되고 마을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감안하시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 개선 물질 공급사업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추가로 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재료비로 2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목 변경해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품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단장님의 보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공기관 등 해조류부산물 지원이요, 여기 어디에다가 위탁을…… 전복주식회사에 준다고 했나. 아니, 전복생산협회에다가 준다고 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완도금일수협하고 위탁기관으로 체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협회 쪽으로 준다고 그랬었는데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당초 제안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도금일수협하고 위탁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 정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마 그때 양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목상 잘못되어 가지고 보조…… 민간보조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쳐서 다시 수협으로 넘긴 것이죠. 원래 전복생산자협회에다가 준다고 해가지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이 사업은 작년에도 금일수협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협에다가만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 때

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과목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뿐만 아니라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수협에다가 줬을 때는 보조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증액이 됩니까, 이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관에 주는 경우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죠. 이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에다가 준다고 해서…… 그런데 다시 바뀌어 온 것은 이것 솔직히 피해서 가고…… 그래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아니.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것은 예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증액, 1억 증액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미역, 이런 것 가격이 폭락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재활용하려고 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재활용할 때 이것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셨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세한 내용은 담당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은 수년째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부터는 현장점검

을 착실히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김양훈 위원

실질적으로 어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수협에다가만 도움을 주는 사업 같아요.

지금 재활용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것 재활용…… 부산물로요? 전복먹이용이죠?

(방청석에서 “전복먹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전복먹이용으로 줄 때 전복 어가들한테는 어떻게 줍니까, 수협에서? 돈을 받고 줍니까, 아니면……

(방청석에서 “일정…… 거기에 따른 보관료라든가 저온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발생된 전기세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민들한테 공급할 때는 비용을 일정 부분 이렇게 부담해서 받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보관비나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엄청난…… 똑같은 돈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보셨죠?

(방청석에서 “그런 부분들은 정산서가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 부분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부분은 확인을 잘하십시오. 저희들이 군예산을 가지고 수협기관에다가 뭐 돈을 줄 일은 없잖아요. 거기다 보면 수입기관인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위원님,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수협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어민들이 진짜 필요해서 이 사업을……

○ 김양훈 위원

어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저도 노화나 이런 쪽에서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해 주라, 예를 들어서 전복먹이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장에 못 가본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김양훈 위원

이것 어느 수협에다가 줄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완도금일수협에 위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거의 보면 다 금일수협이에요, 금방 노화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쪽도 수협이 있는데 다 금일수협 이터라고요, 그쪽에서 다시마나 미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노화 미라리 그 로드선창 부분이요, 로드선창이라고 그랬으면 옆에다가 부잔교라고, 차라리 이것을 안 쓰는 것이 더 안 나았어요? 선창 내용이라고 해놓고 부잔교라고 하면, 부잔교는 이전에도 말을 했지만 모든 어촌계에…… 서로 부잔교를 가져가려고 서로 해주라고, 단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총만 안 들었지, 전쟁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잔교 하나 가져가려고, 어촌계에서…… 그런데 저기는 다 국비인데 여기는 순군비로 해가지고 목에다가 부잔교로 써놓으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잔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것입니다.

노화 미라리가 어촌계 동네도 크고 배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심도 깊어 가지고 선창을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부잔교로 딱 목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혜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마 이 마을에 실재……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모든 어촌계들이 다 어렵습니다. 풍부한 그런 동네는 거의 없는데…… 저도 미라리 동네도 가봤고 그쪽에 젊은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것이 꼭 필요해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차라리 부잔교라는 목을 빼버렸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로드선창으로만 들어왔어도…… 로드선창시설로 들어왔으면 저희들이 그나마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거기에서 부잔교라고 써놓으니까 나중에 다른 어촌계나 마을에서…… 우리도 그냥 이렇게 좀 해주라고 했을 때는 순군비로 다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러면 부기상에 부잔교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51쪽에 해조류부산물, 이것 자체부터 잘못 올라온 것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했는데, 단장님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협회라고 했는데 전복협회가 공기관입니까, 전복생산자협회가? 공기관이 아닙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도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 세밀하게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장님의 말씀처럼 전년도에 우리 미역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추경에 1억을 세웠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어저께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전복생산자협회에 냉동 창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군에서 지어줘 가지고요. 전복생산자협회는 공기관이 아닙니다.

단장님, 현장에서 미역이 톤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톤당 가격이? kg당 가격이? 어제 급하게 바뀌었는데, 저녁 6시부터 이것이 금일수협으로 가가지고 미역…… 그 부산물이 아니고 어민들, 생산자어민들을 위해서 미역으로 바뀌었는데. 1억을 가지고 얼마 매입도 못해요.

우리 군에서 진짜 어민들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발 빠르게요. 안 그러면 예비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생산자를 보호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얼추 미역도 끝물에 들어 가는데요. 전복먹이가 아닌, 진짜 미역공장에다가 원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끝물에 들어가고 있는데 낮은 감도 있어요. 우리가 전복할 때 전복생산자들에게 줘니까, 뭐 차광막입니까. 이런 것을 예비비 5억 넣어가지고 해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비비 5억은 거의 다 사장시켜 버리고 바다에 펼쳐지지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줄 때는 우리 단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어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비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원물을…… 완도에서 상고선이 많이 안 뜨니까 금당 같은 데에 가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습니다. 금일, 고흥 이런 데에 가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민들이.

그렇게 하고, 예산목을 하나하나 잡을 때 이것 좀 세밀하게 하십시오. 공기관이…… 어디가 공기관이에요? 이것은 예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김양훈 위원님이 말했는데 심의를 안 거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야 될 예산입니다. 처음부터. 이 목하고 공기관하고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처럼 금일수협에다가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게 좀 빨리 해주시고요.

올해 부잔교가 몇 군데 됐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좀 적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올해 부잔교 여섯 군데……

○ 박인철 위원

전년도보다 훨씬 적게 됐죠.

그렇게 하고, 부잔교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데도요, 먼저 이런 데에다가 그러면…… 여기도 분명히 노화 미라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도 부잔교라고 해냈는데, 이런 데에다가 먼저 배정하고 나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군비 플러스 군비로 매칭을 해버렸으면 마을에서도 부담이 안 돼. 이

마을에서도 지금 넓도 내리하고 분쟁이 붙어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쓴 마을이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방현수 팀장님 안 그렇습니까. 어장 분쟁이라고 해가지고, 진즉 마을 비용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내가 언뜻 듣기로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이…… 그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6개라도 이런 데에다가 미리 하나를 줌……

금방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부잔교 뭐 국비가 나오면 개소당 한 1억 정도 나오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1억 나오면 여기 지금…… 한 1억 5,000으로 해놨으니까 마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어촌계에 부담을 안 주고요. 우리 국비를 나머지 한 2억을 더 부담,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매칭으로 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예산을 못줄 무슨 패널티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나면 가까운 고금도를 봐봅시다. 실질적으로 부잔교가 필요한 동네는 안 되고, 군수님 면담으로 해가지고 행복기금 얼마 내놓으니까 부잔교가 거기로 가버리고, 어민들의 진짜 삶의 제일 기초적인 문제인데, 어느 어촌계나 이것이 다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어느 어촌계가 더 필요한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선정되어야 되는데, 아니, 돈이 많은 어촌계는 행복기금이나 장보고기금을 내놔 버리면 거기가 먼저 선정되어 버리고, 진짜 필요한 어촌계들은 거기에서 탈락되어 버리고 그런단니까요.

(자료를 들며)

진짜 이렇게 그림대로 보면 엄청 필요한 데가 아닙니까.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배를 다 수용하려면 방파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방파제는 M당 1억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았으면 여기에다가 먼저 부잔교를 하나 더 선정해 가지고 1억 플러스 2억으로 국비를 대면 마을 자부담도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데에다가 우리 행정이 선도적으로 대처를 못하는가. 그러면 여기는 부잔교 6개가 가는데, 못 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요,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3억이라서, 저

희들 부잔교 사업비가……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아니, 국비에다가 우리 군비를 플러스했으면 뭐 6개에서 하나만 여기로 주고 1억 5,000인데 거기에다가 5,000을 더 넣어 가지고 2억을 했으면 마을에 부담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깔끔하게 되어 버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마을에서 1억 5,000이라는 돈을 마을에서 부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말이 1억 5,000이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해주고도 군에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이 말입니다. 1억 5,000을 대고 자부담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것도, 이 목도요. 예산계, 안 맞습니다. 시설비에 해야지. 어떻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시설비에. 예산목들을 좀 보십시오.

여기서 설명할 때 그냥 자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넘어가는데 자부담을 담당과장님이 1억 5,000을 넣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산목에 시설비에 자부담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이런 목들은 내가 찾아보려고 해도 목이 잘못된……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사업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 (청취불능) 혼동이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할 때…… 내가 현장을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지 않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할 때 1억 5,000에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마을에 자부담을 넣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닙니까. 될 수 있으면 단장님이 이것을 해주려고 하면 추경에 1억 5,000을 보태 가지고 공사가 좀 늦더라도 순군비로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래야 마을에 우리 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까지 넣어가지고…… 해주려고 하면요. 1차에 예산을 통과시켜놔 있으니까 2회 추경예요, 뭐 6월이나 7월에 한다고 하니까. 1억 5,000을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요. 좀 늦은 것은 상관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공사를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필요한 공사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일단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추관호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추관호

저기 351쪽에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단장님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100% 금일수협한테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어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전복생산자협회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가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균특 예산 2억 5,000은 수협으로 주고, 별도로 순군비로 5,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그 5,000만 원은 전복협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을 증액해서 편성하고요. 어제 양응열 과장님도 전복협회에다가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 5,000을 금일수협에 주고, 본예산에 들어있는 2억 5,000도 금일수협에 준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한다면 전복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는 저장시설을 활용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범성

지금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

게 보면 사업비를 쥐가지고 전복생산자협회 그 부분에서 냉장고를 해놓고 그 사업이 없으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단장님이 그것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부분은 현재 예산안대로 해서 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대로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요. 355페이지에 적조, 이것 공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목변경을 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적조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재료비에…… 그 부기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선물질인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개선물질을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위원

예, 뭐 2,500톤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공기관에다가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기관에다가 위탁할 것이며, 이 물질은 환경 개선물질이라고 했는데 환경 개선물질이 어떤 형태의 물질인가 그것을 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위탁기관은 양식수협, 거기서 예상하고 있고요. 물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스텍하고 두오존이 있는데요, 두 물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양식수협에다가, 육상양식협회에 주는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어류양식협회.

○ 박인철 위원

아이고, 머리아.

○ 전문위원 추관호

어류양식수협이죠, 협회가 아니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수협. 어류양식수협.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목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양식수협이 있고 협회가 있으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이것은 예산과목이 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협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가들한테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이 제품들을 선정할 때 꼭 한 가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선호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로 목을 박게 되면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선정해서 어가들이 선택해서 쓰게끔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보는데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1차적으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어가가 선택하도록……

○ 허궁희 위원

앞으로 꼭 그랬으면 좋겠다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351페이지, 갯녹음 바다숲 조성이요, 그것 증액된 이유가 군에서 요청해 가지고 도에서 내려와서 증액된 것인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이것은 도와고 매칭사업이라서 도 내시액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다는 이야기인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전체적으로……

○ 최정욱 위원

이것 효과가 언제 나오는지요, 어제 대강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첫 사업이라……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을 계속할 것 아닙니까. 군비가 벌써 3억이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잘되면 좋은데 안 되면 벌써 군비 3억이 날아가는 것인데, 적어도 올해는 나오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산…… 잘 아시겠지만 수산사업에서 바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 효과가 나오기 전 결과가 안 나와요, 어떤가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하여튼 최대한으로 효과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왜냐하면 이 군비가 없어서 옛날 인공어초 같이 잘못돼서…… 뭐야, 효과가 없는데도 계속 이것을 우리 군비로 몇 년간 투입하고 나서 뒤에서야 잘못되고 어떻게 됐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적어도 올해하면 올해 안 나오나요, 연 말쯤에 효과가 안 나오나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마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아마 도에서 충분히 용역을 거쳤고요. 아마 용역상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지 않겠느냐.

○ 최정욱 위원

그것은 나도 이해를 하죠.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올해 정도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내년 본예산에 또 들어오면 효과도 없이 또 본예산을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올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철저하게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예산에 넣을지 말지 내년에 생각할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예, 단장님. 방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갯녹음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수산 쪽이

라면 저희가 수산…… 또 친환경 쪽으로, 바다환경이 오염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로프라든가 암반에 끼워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실로 묶어서 한다고 그러고. 완도군은 감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 사업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감태하고 곰피가 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여기는 보니까 완도군은 감태로 되어 있고 진도군은 감태, 곰피, 참모자반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로프에 싸가지고 줄로 친환경적으로 묶어서 바다에다가 띄우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 사업이. 그리고 물때에 따라서도 틀리고 조류에 따라서도 다를 텐데. 친환경적으로 이것이 자라야 될 것인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바다에다가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고.

그리고 수심이 얼마 정도 되는 데에다가 설치합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완도, 진도 그 부분은 감태, 그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종묘 생산업체를 거기에다가 설명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느 품종을…… 이렇게 해역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제일 우선적으로 한 부분은 그 사업지구 내에 자연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런 종자를 사업지구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지구에서 환경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자생할 수 있는…… 자생하고 있거나 전에 자생했었는데 환경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없어진 그런 해조류 품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여기를 보면요, 자생이 없어지는 것은 환경이 안 좋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무 같은 것을 많이 했었는데 염산을 뿌리고 김을 한다고 해가지고

없어진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도 안 하나
까 지금 자연적으로 또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
요.

그런데 갯녹음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 다시
이것을 똑같이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 이게 아마 그 지역에서 잘되는 것은 다 똑같
이 잘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안 되는 것
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냐는 얘기
죠.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습니
다마는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
다는 보장보다도 이렇게 사업을 한번 추진해서
효과를 냈으면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조사를 잘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 지역에 맞게
끔 하고요. 또 수심이 얇은 데에 이런 해조류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러니까 한번 조사를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단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라리 로드선창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
께서 말씀하시듯이 2회 추경에 분명히 정리해 줄
것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 위원장 이범성

그리고 부잔교 부분은 빼줄 수 있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삭제……

○ 위원장 이범성

예, 삭제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짚고 넘어가겠
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
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업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유망양식품중 종자 공급사업입니
다. 동사업은 전복먹이인 미역, 다시마 수급이
어려운 여름철부터 미역이 생산되기 전까지 전복
먹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조류인 곰피 종자를 공
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확보가 되
었으나 재원율이 당초 도비 20%에서 15%로 줄
어 재원 변경으로 인한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
입니다. 작년에는 사업비 5,000만 원에 1,000틀
을 보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청산 지리, 신흥,
완도 망남리, 군외, 소안도 등지에서 공급해 가
지고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12월
사이 전복먹이대용으로 어업인들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서 올해도 공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완도 광어 비상품어 수매
자금입니다. 본사업은 양식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
지는 광어의 유통을 막아 완도명품광어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에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최근 광어 소비가 급
격히 둔화되고 출하가 지연되어 양식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항생제 사용을
자제해 옴에 따라서 비상품어 광어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7,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25
톤에 지원 1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수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산소 용해기 구입비 지
원입니다. 개당 500만 원으로 40대를 구입해 가
지고 군비 1억 원, 자담 1억 원으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액화산소량을 조절, 수조 내에 용해시
키는 장비로 액화산소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액
화산소 구입비 절감은 물론, 산소 부족으로 인한
광어 폐사를 방지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어
양식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양식장 소독제 지원입니
다. 본사업은 광어, 전복, 새우양식어장에 미생

물을 이용한 친환경 소독제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복과 광어양식에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새우양식장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우양식 4여가를 포함, 30여개의 어가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사업입니다. 전복종자를 배양함에 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전복종자 먹이로 공급하여 내연성이 강한 건강종자를 배양하여 보급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 종자 생산업체를 지원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372페이지, 전복산업 활성화 중장기대책 용역입니다. 우리 군 전복 양식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과정에서 많은 난제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는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전복산업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수립,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해 가야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복산업은 과잉생산, 판매 부진에 의한 가격 하락,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유통구조에 있어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보,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장단기 대응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입니다. 어업인이나 비전문가가 원가를 산정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지고 계획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연구 용역기관에 원가를 조사, 분석하도록 하여야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자료를 어업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경영 상황을 진단하고 과다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뿐더러 채산성에 맞게 성실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용역비를 확보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ASC, MSC 인증을 받은 어업이나 단체, 중국과 일본 해외마케팅 홍보행사비로 1개국에 3,000만 원씩, 2개국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중 200만 불 이하 해외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후 판매실적이 있는 해외프로모션비로 1개 업체당 약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군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 시에는 군위원님들의 견문과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반드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페이지요,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요, 이것 지원해야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대체적으로 배합사료들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전복이 크기만 컸지, 그렇다고 건강한 종묘 생산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해조류를 미세하게 분쇄해 가지고 먹이를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공급할 예정입니다.

○ 박재선 위원

보면요, 지금 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료를 만드는 과정…… 업체하고 군하고 조인을 해서 거기에 해조류를 많이 넣어서 그 사료를 전체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 어기들에게 지원해 줘야 만이 전체적으로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6만…… 뭐 1,800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특정인한테 조금씩 주는 것밖에 안돼요, 너무 소규모고요, 주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요,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료업체하고 손을 잡아서 하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야 이 자체가 골고루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양식어가들한테 먹이까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가, 참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해양정책과에서는 미역이 남아돌아가지고 어가들이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고 미역어가들을 산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리가 돈을 1억 5,000인가 줘가지고 미역을 사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료를 군에다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금일수협이나 이런 데에다가 해서 사는 것이니까요, 뭐 해조류,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료공장에서…… 그런 데에 예산이 거기에도 잡혀져 있는데 그런 예산은 냉동할 필요도 없이 이것저것 돌려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먹이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가들한테 사줘야 되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사업 부분은 큰 전복먹이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은……

○ 박인철 위원

아니, 해조류부산물이라고 지금 이것도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초미역을 산다는 말입니다, 원초미역을.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먹이를 해조류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3,000만 원을 해주면 과장님이 어제 설명하듯이 해조류를 사다가 사료공장에다가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것 해조류부산물이라고 했는데 다시 오늘 또 정책과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 했던 미역을 사서 뭐한다고, 원초미역을 산다고, 미역값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어가들한테 먹이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뭐 돌발변수가 생겨가지고 불가분하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뭘니까, 전복치패 생산자가 한두 명도 아닌데 전체를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먹이를 공급한다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럽고요.

과장님, 370쪽, 비상품어 구매자금, 작년에 작년부터 1억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1만 7,200만 원이 더 댔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러니까 현재 광어양식산업이 광어 소비 둔화로 인해서 가지고 팔지 못하고 양식어업인들이 수조에 많은 광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품어인 광어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7,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광어상품 안정화를 하고 비상품이 시장에 안 나오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덧붙여서 액화산소 용해기, 이런 것은 어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런 돈보다는 밑에 1억인데, 이런 돈보다는 비상품어에다가 한 3억을 하든 5억을 하든 더 책정해 가지고요, 진짜 비상품 광어가 하나도 외부로 반출이 안 되게끔,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 줬으면 어떤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복어가에서 용해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그 고기를 키우는 과정에서, 전복을 키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필수품목입니다. 그런 필수품목들은 어가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품어, 이런 것들은 진짜 어가 안정과 완도광어만의 소비촉진, 또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에는 5억도 좋고 10억

도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서는요, 선도적으로 제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이 아니고 전체 어가들한테 고루 고루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도…… 하예튼 비상품어 광어는 단 한 마리라도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야 된다고……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도 예산을 7,200만 원 이것이 아니고, 3억도 좋고 10억도 좋다니까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비상품어는 전량 우리가 군에서 다 구매해 가지고 어류양식 수협에서 거름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간에…… 또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어류수협에서는 이것을 가지고도 사료도 만들려구면,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려구면요, 이 광어를 가지고, 비상품어 광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용해기 같은 이런 것은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하는데, 그 고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필수가 아녘니까, 이런 것은. 이런 필수들은 어가들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자체적으로 안 되는 비상품어나 또 전복데이나 미역데이를 하듯이…… 지금 광어 값이 안 좋으면 광어테이라도 해야 될 것 아녘니까. 광어판촉행사라도 따로……

이번에 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롯데백화점에서 고생하신지 아는데요, 저도 문자도 받아보고 육도 많이 얻어 먹어보고, 광어를 키우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육을 얻어 먹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이 와가지고 연어하고 그런 것…… 그런 것은 행사 도중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도 키우는 어가들이 봐서는 진짜 속이 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상품어, 이런 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어가가 안정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글로벌시장,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아래에 국비 3,000, 군비 3,000, 6,000만 원 그 부기하고요, 그 밑에 장에 또 7,800만 원의 부기가 어떤 상

호…… 여기 6,000만 원도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박람회고, 또 뒤에 이것 7,000만 원도 이번에 대만에서인가 홍콩에서인가 하는 그것인 줄 알았더니만 과장님의 설명이 그것이 또 아니네요. 그러면 얼추 6,000만 원하고 이 돈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앞에 있는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이 부분은 국비가 추가로 3,000만 원이 내시되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4월이나 5월이 박람회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홍콩.

○ 박인철 위원

그 박람회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식품박람회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젖은 본예산에도 있고 그러는데 글로벌…… 따로 본예산 대비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주 쪽으로 나간다는 이 말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7,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일본, 요즘에 ASC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어떤 해외……

○ 박인철 위원

아니, ASC…… 지금 군에서 문제가 되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과장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해양 쪽에서는 전부 ASC, 또 해양치유, 자연그대로 이것을 빼버리면 뭐 설명이 안

돼요. 예산 설명을 하는데 이것만을 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은 것이 전년도…… 올 초입니까, 14어가 이것뿐인데, 14어를 가지고 전복, 해조류는 ASC 인증도 안 받아 가지고 올해도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 말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 설명을 해줘야지. 어떤 업체들을 선정해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할 것이며,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왜냐하면 본예산에도 이 유사한 예산들이 홍보비까지 싹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 이렇게 목을 하나 달고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미주는 빼고 중국 쪽으로 간다는 이 말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중국과 일본 쪽을……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371쪽에 양식장 소독제, 이 부분을 방금 한 가지로 소독제를 이야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느냐면 이엠이 나쁘다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한 가지를 이렇게 명시해서 하게 되면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적조 피해에 관해서도 한 가지 제품 이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두세 가지를 넣어줘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로 찍어서 하게 되면 같은 소독제여도 뭐 50%는 자부담이지만 안 쓰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그래서 고루 혜택이 가게 하려면 반드시 두세 가지 제품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래야 기호에 맞는 제품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책자에는 3,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 전문위원 추관호

3,000만 원 맞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 생각에는 단일제품이 아닌 그런 두세 가지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잡아주면 좋겠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이 좋으면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누차 물어본 얘기인데, 371쪽에 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요, 이것을 원초로 해서 사료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루로 해서 바로 어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을 사료업체에다가 우리가 원초를 공급해 가지고 미세하게 분쇄해 가지고 사료에 섞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사료공장에다가……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분말가루로 그냥 미세가루로만 해가지고 먹인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물량을 가지고…… 지금 사료에다가 이렇게 사료랑 같이 첨부해서 원초 재료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2쪽예요. 용역, 연구용역비를 봅시다. 전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대책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꼭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만 해야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 급변하는 전복산업시장 측면에서 우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전문용역기관보다는 어민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여론 조사를 좀 하고 이렇게…… 조사를 좀 하면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일반어업인들이 하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신력이 없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가분석이요, 이것도 꼭 그렇게 용역에다가 맡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중장기대책하고 같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은 같은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같은 측면으로 본다면 한꺼번에 예산서에 올려야죠. 같은 측면으로 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얘기고요, 이 원가분석은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도 용역을 맡겨가지고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못했어요, 그때. 혹시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맡겨가지고 도에서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누

구보다 제일 잘 아는 것이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이것은 생산자하고 같이 원가분석을 하는 것이 이 용역사들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차피 용역사에서도 양식어업인들의 의견 부분에 상당히 반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반영은 되는데 꼭 용역에다가 맡겨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얘긴요. 저희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산단가…… 그 생산자협회도 있고, 다 협회들이 있는데. 그 분들 간담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원가분석하면 그냥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료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하기 위해서는……

○ 김양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원가분석은 광범위하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구입을 해서, 종자를 구입해서 키워서 들어가는 단가들인데…… 광범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들어가는 단가가 원가분석인데, 1kg를 키웠을 때 얼마 들어간다,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원가분석하려고 하는 것인데. 뭐 다른 이유가 더 있어요, 원가분석 말고? 없지 않습니까? 원가분석만 있지, 1kg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복이나 모든…… 광어나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자, 광어 1kg를 키우는데 1만 1,000원이 들어간다, 이 원가분석 용역을 했습니까. 다 어가들이 산 것 아닙니까, 생산자들이.

그리고 중장기대책은 예외가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매 해왔던 패턴으로만 가다 보니까 폭넓게 전문가들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원가분석만큼은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고생스럽더라도 행정에서 생산자 이쪽 협회에서, 생산협회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꼭 이렇게 맡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자료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용역을 해가지고요. 이참에 한번 제대로 된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안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속마음도 좀 알겠습니다. 고충도 알겠고, 오죽 했으면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서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4시21분 기록계속)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40분까지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재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30페이지,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관련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인데요. 여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테이블 위에 (청취불능) 관련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PGA 프레지던트컵 특급 골프대회인데 3개의…… 4개의 골프대회가 열리는데 그 4개 골프대회 하나에 국한하는 그런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주기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최되는 그런 유명한 골프대회인데요. 최경주 선수가 2027년에 완도에서 이 대회를 개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골프장을 만들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3일에 완도에 와서 현지까지 꼼꼼하게 다…… 2~3시간 동안 체크를 하고 자기가 최종 후보지를 거기로 결정하고 해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넘으면 다시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놓고 투자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 6억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있는 예술단원 운동부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것은 주로 훈련용품 구입 가격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그 전에…… 몇 년 전까지는 훈련용품을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오기 전에 이 관계를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지금은 일체 지원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용품 지원관계는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가 입법예고를 해서 공고 중인데요. 이 관계가 마무리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의회로 넘길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최경주공원이요. 최경주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 최경주재단과 우리 군과 오고 가는 서류가 있으면 하나 취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지금 현재는……

○ 박인철 위원

없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안을 제시할게요. 6월이나 7월에 2회 추경을 한다고 하니깐 그전까지 최경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자체에서 군관리계획 용역비 6억을 세워가지고 변경해 준다는 것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것을 하계끔, 그동안 최경주재단하고 확실하요. 우리 군에서 군관리계획까지 군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그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그때 내놓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회 추경 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 박인철 위원

아니, 뭐가…… 말로만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가 있어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이것이 어찌 보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특혜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서 직접 군관리계획을 지정해 가지고, 변경용역비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자들이 군관리계획에다가 반영해 주라고 그 로비가 엄청납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것이니까 반영만 해주고, 그런데 이것을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용역비까지 우리가 다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써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말이 지금 이번에 나왔으니깐 이번에 이것으로 끝내고, 2차 추경 때 확실하게 최경주재단하고 최경주 투자방향서를 받는다는가 뭐를 하든가요. 우리도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를 우리가 주민들에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1회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2회 추경에 이안을 이대로 올리는데 그 안을 올릴 때 그런 모

든 장치들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군 취업 예술단 훈련용품 구입이요. 그것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라남도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라남도체육회요. 그 체육회에서도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원은 되고요, 전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고 일부 지원은 되더군요요, 일부 지원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던데. 도 체육회 소관인데 저희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훈련용품까지…… 그전에도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용품까지 한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훈련용품 말고 부기를 정정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른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이윤리 선수가…… 일례를 들면 총이 최초의…… 이윤리 선수한테 지원해 줄 당시에, 그때 총을 샀나 봐요. 그런데 총이 상태가 불량이고, 또 여타 다른 용품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지원된 부분이 일체 없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기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용품은 어차피 용어 자체가 크게 잡아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세워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까 체육회에서는 총도 다 사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3~4년 전에는 지원이 됐는데 최근에는 지원이 일체 없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해양사업단장님은 군외로 출장을 가시고, 해양정책과장님은 서울 코엑스행사 때문에 출장가시고 그래서 기획팀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351쪽,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역가격 하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저희들이 세워서 금일수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사업입니다. 올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세워야 만이 금일수협과 계약하여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위탁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우리 예산계예다가 한 마디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한테…… 허정수 국장님은 자기 소속 실과

가 아니어도 배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어떤 것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오전에 해양 그 단장이 계시더구먼. 이것이 중요합니까, 우정국에 어떤 일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관외…… 밖에 출장도 아니고 이런 데에는 참석해 가지고 설명해 줘야 맞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 예산할 때 팀장이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에 와가지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예산을 놔놓고 담당과장이…… 국 단장 제도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생겼는데 허정수 국장님도 가만히 예산을 할 때 보니까 내 실과 소속, 내 국 소속이 아니어도 계속 앉아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담당과장 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는 데, 자기 소속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무슨 일로 출장을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썼으니까 물어볼게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은 금일수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금일수협하고 우리가 공공으로 해가지고 계약만 하고 전복생산자 말고 전복 또 무슨 협회가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전복생산자협회입니다.

○ 박인철 위원

전복생산자협회입니까. 거기하고…… 다시 금일수협하고 계약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아닙니다, 작년에 3건의 사업을 했는데요. 금일수협하고 2건하고 1억 원의 사업비가 민간위탁사업비였는데 생산자협회하고 계약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 과정에서 금일…… 원도 금일수협하고 계약해 가지고 다시 거기로 내려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업비를 회수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잠깐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어민들을 위해서…… 어제 정책과장이 설명을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부기정정을 하라고 해서 오늘 부라부라 부기를 정정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금세 아직 예산 방망이도 안 두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완도금일수협에서 다시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한다는 이런 말이 바로 돌아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사업비를 그대로 집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꼭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하십시오, 다시 확인합니다, 이 관계만큼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단장님께서 가서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직무대리 김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아시냐고, 오늘 무슨 일로 가셨는지, 오늘 어떤 일로 출장을 가셨는지 그 결과보고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해주십시오.

해양정책과 직원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수산경영과장님이 14시에 전북산업연합회 긴급대책위가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팀장 김일입니다.

먼저 양식장 소독제 사업입니다. 유용한 미생물, 그 유산균을 이용해서 만든 용액 성분의 소

독제를 말합니다. 주로 소독제로…… 새우양식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유해한 클로르칼키를 쓰고 있어서 수산식품 안전성에 문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이 없는 소독제를 쓰고자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음 것까지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다음은 전복우량종자 해조류 먹이사업입니다.

검증이 안 된 질 낮은 중국산 배합사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종묘 생산여가에서는 자체적으로 배합사료를 사료 업체에 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깨끗한 완도산 미역과 다시마를 이용해서 배합사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 보자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양식장 소독제요, 이게 새우양식장에는 저도 필요하다는 소리를 한 번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새우양식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지금 어류, 전복은 사실 좀 더 소독제 사용을 검증받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새우 양식장에서는 새우양식여가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방금 설명 내용을 들었는데 어류나 전복에서는 별로 안 씁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여기에 넣게 되니까 어류나 전복에 이것이 공급되고 있는 것처럼 혼란이 와요.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왜 한 가지 제품 보다는 두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냐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백신 사업을 주면 자기가 선호하는 회사로 다 찢어집니다. 잘 알죠, 그런 부분?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엠이라는 명칭 하나를 놓고 하나가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제품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광어, 전복이라고 해놓으니까 외부 출하인들이 봐서는 어류, 전복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새우를 키우는 곳에…… 거기 몇 가정이 됩니까, 네 가정입니까? (예)

네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전복이나 어류를 넣어놓잖아요. 이런 부분은 잘못됐죠? (예, 맞습니다)

부가를 확실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저희들이 뭐 이것을 꼭 달리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쟁업체들이 있어야 앞으로도 무슨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단독제품만 공급하니까, 그것 외에는 안 써 버리니까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개선해 달라는 이런 요구였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방금 허균희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면 새우양식장에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보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저희들이 이것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양식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 김재홍 위원

직접 다이렉트로 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전복우렁중자 해조류먹이요. 이것은 아까 저는 어제 듣기로 김 가루로 들었고요. 또 오늘은 미역가루로 들었고요. 또 이것을 사료하고 배합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지금 이 회사는……

○ 박재선 위원

생산을 계속 해왔어요?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전복생산어가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예요.

○ 박재선 위원

어가들이라면 종자협회에서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직무대리 김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부 김 가루도 있었는데요, 김 가루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역하고 다시마를 우선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일단 우리 탐장님도 이제 끝나면요. 과장님한테 어떤 부분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안 쓰셨는가, 다른 데로 간 부분을…… 의회에 어떤 일로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출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27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 삭감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5건에 8억 3,493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420호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범성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최 정 욱		
의 원	허 궁 희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30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8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6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2분 폐식)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5.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7. 완도군交通安全 증진 조례안
8.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3.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5.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7. 완도군交通安全 증진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8.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우성자 의회는 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완도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30일, 1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30일 1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철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잘사는 미래 원도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박인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제는 저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또한 심각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요즘 가뜰이나 경기 침체가 장기국면에 접어들어 놓여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에 우리 군의 주력산업인 광어 양식산업 마저 빨간 등이 켜져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금치 못하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광어양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광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어는 1980년대 대량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우럭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식 어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중 우리 군은 1만 3,000여 톤의 광어를 생산하여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광어 가격이 폭락하여 양식업계가 초비상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완도산 광어 1kg은 지난해 1월 1만 4,500원에서 올해 1월 1만 640원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3월 현재 1만 500원으로 생산원가인 1만 1,000원에도 못 미치는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건비, 사료비, 전기요금 등 고정 지출은 크게 늘고 있지만, 출하가격의 하락세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여 양식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에는 무엇보다도 연어와 광어 등 대체어종의 수입량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어 수입량은 2017년 2만 9,000톤에서 지난해 3만 7,000톤으로 27%

이상, 광어는 2017년 748톤에서 지난해 1,574톤으로 200% 이상 증가한 반면, 광어의 국내 소비량은 2017년 3만 7,584톤에서 지난해 3만 3,060톤으로 10% 이상 줄었습니다. 현재 수입 수산물인 연어와 광어에 부과하는 FTA 관세율은 10%입니다.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하고,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광어 수급량 조절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완도군의회의는 정부가 광어 가격 폭락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광어 양식 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연어와 광어의 수입물량 조정과 관세 상향 등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광어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량 조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의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진정한 군민의 봉사자로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총 6건의 안건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4.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5.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군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완도, 진도, 해남 3개 군이 공동 투자한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포함된 남도광역추모공원이 2019년 4월 25일 개원함에 따라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요금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4호,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청해요양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해 5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청해요양원 관리의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동의안의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노인의 만성·복합질환 증가에 따른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실시 중인 진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추가하였고 불필요한 진료 수수료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외래진료환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30% 감면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7.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8.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외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사도의 도로 구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사도 개설자가 사도를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운전면허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의 운영 취지에 맞게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마을을 별표로 지정하고 있어 별표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이 추가 신청 시 많은 기간이 소요되므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지정하고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이에 맞게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완도군 보건 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허궁희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3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2.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

먼저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444호 완

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타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군에서는 화장장려 지원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년 12월에 착공한 완도, 진도,

해남 3개 군이 공동 투자한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포함된 남도 광역추모공원이 지난 4월 25일 준공하고 4월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화장장 이용요금 부담이 7만 원으로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목포, 광주, 순천 등 외지화장장 이용 시 55만 원을 부담하는 경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광역화장장 개원으로 지원사유가 약화되어 근거 조례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남도 광역추모공원이 지어짐에 따라서 군민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안번호 제24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의안번호 제2444호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하기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시설 입소를 통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04년

군외면 황진리에 건립된 청해요양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및 완도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4년 6월 1일부터 3년씩 다섯 차례에 걸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부유지재단 소속 완도 성광교회에 위탁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9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해요양원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시설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탁범위는 청해요양원 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방법 및 기간으로는 위탁운영수탁자는 완도군 노인 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운영 실적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 70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재정부담 조건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수탁기간은 협약 시 공중협약을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43호 완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44호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4호 완도군 청해요양원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4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로 제안된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의 만성적이고 복합적 질환 증가에 따른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진료비 및 수술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외래 진료환자에 본인부담금 30% 감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수수료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른 과중한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진료비 및 수수료 수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확대 등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45호 완도군 보건의료원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재선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위원(1인)

허궁희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69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4월 3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3.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2.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3.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 완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제정안에서 사도의 도로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

한 규칙에 따라 차선폭 5미터 이상으로 도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으로는 지형 상황 등을 참작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사도 개설자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을 안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조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46호 원도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장님이 설명하엿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6호 원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6호 원도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47호 원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 원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군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 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군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교통안전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과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여기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한 번만 그런다는 이 말입니까?

○ 박인철 위원

예, 이것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어느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예. 반납했을 때 1번에 10만 원?

○ 박인철 위원

예.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7호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중입니다.

19쪽, 저희 국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는 농어촌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오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 마을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 대상 마을 추가 지정 시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등 신청해서 지원 대상 마을을 확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지원 대상 마을을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의 정의 제2호 중 “않은” 을 “않는” 으로 문구를 문법에 맞게 수정하고 (칭취불능) 별표에서 정한 “완도군수 이하 군수가 지정한다.” 로 개정하고, 별표 100원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2페이지 신규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지원대상 마을을 조례로 지정한 후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마을을 추가 시 즉시 지원할 수 없는 불편사항이 대두됨에 따라 특정되어 있는 100원 택시 지원 대상 마을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별표 이것은 한 번인가밖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뭐 수요가 많습니까, 많아서 이것을 갑자기 올린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8개 읍면, 20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지정해 달라고 하는 곳이 금일의 3개 섬지역 그리고 완도읍 (청취불능)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대로 놔놓고 올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데 아직도 섬 지역이…… 노화라든지 섬 지역에서 많이 요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시기가 너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행규칙이 나오면 그때그때 즉각, 즉각 저희들이 대상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 박인철 위원

왜 이 말을 하나면요, 이 100원 택시가 된지 5년째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낙연 도지사가 이것을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도에서 안 하고 국비로…… 전년도보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 군비 부담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늘려나 버리면 군수…… 어떠한 장치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어주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군수한테 이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그냥…… 어떻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것은 읍면장이 농어촌버스라든지,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읍면장이 신청하면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든지 그래서 통제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바로 신청하면, 군수가 바로 해버린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생략되고 너무 많은 지역이…… 이것도 어차피 (청취불능)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애매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은 박인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통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만들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제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도 있고요. 아니면 별도의 택시 업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뒤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도록,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칙으로 넣든, 조례에 넣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이것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다가.....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삽입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지. 왜냐하면 군수님도 그렇고.....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의회에서 걸러졌을 때는 부담이 덜한데, 막 해버리면 안 해주면..... 요즘은 하도 주민들이..... 조례를 보고 있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은 집어넣고 가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재선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금일도 그렇고 도서지역으로 다 나눠서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분

들이 요구한 대로 군에서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심사 절차를 한번 걸쳐 가지고 지원 대상 마을이 되면.....

그런데 또 지원기준이 있어요. 인구수에 따라서 한 달에 몇 배를 주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보면 희망택시를 할 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는 곳, 낙후된 마을에 100원 택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마을들이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그분들은..... 없어서, 버스가 안 오니까 오로지 택시로 다녀야 되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다녀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너무 저희들이 100원 택시마을로 지정을 하면 비용 부담도 있고 그래서요. 기준이 몇 수인지, 인구수에 따라서..... 농어촌버스를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100원 희망택시를 지원마을을 최소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월 몇 배로 주고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형평성에 맞게, 1배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원하는 마을들은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현장파악을 잘해서 가지고 서로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48호 완도군 100원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김재홍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조인호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6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김 재 홍		
의 원	김 양 훈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0회 완도군의회(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14일(금)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
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27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완도군의회 우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인철 의원과 박재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49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은 이번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전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각 상임위별 의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5.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9.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5.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6.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7.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9.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과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2018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된 내용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등 세부적인

결산검사 결과는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주요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22건으로 부서별로 공통된 개선 사항은 이월액, 집행 잔액의 과다발생과 일부 사업 추진의 소홀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8.59%, 집행 잔액은 6.17%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과 집행 잔액 합계 비율은 23.81%로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매년 결산검사 시에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및 권고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예산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중장기 사업은 사고이월에 대한 부담과 부작용에 대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간 사전 협의 및 적기 예산집행의 확고한 의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 관리 소홀로 진행 중인 사업비 불용처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그 예외규정으로는 같은 법 제 50조에서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야 함에도, 이미 계약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 중 미지출액 4건 3억 4,966만 4,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비 중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검토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철

저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5년 동안 세입·세출 외 현금의 반환 청구가 없는 세입·세출 외 현금 은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 편입을 요구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외 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덧붙여 이월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입·세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세출 외 현금 중 보관기간 초과 및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은 관련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예산으로 귀속 등 철저하게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 집중관리 마흡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분석한 결과, 미수납액의 총액에서는 감소 추세이나,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태풍피해 지원금과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 등의 고액 반환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납세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지원금의 경우, 사전에 지원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기금사업 활성화 및 존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방기금은 지자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사업을 위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및 도달시기를 명확히 한정하고 수입을 늘려가야 할 것인데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기금의 수입은 매년 소액의 예치금이자와 기타수입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기금 조성이 저조한 상태이며, 당해기금 목적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고유 목적사업의 유효성이 떨어지거나 순수한 자체수입이 열악한 기금은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존

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성과계획서 지표 달성을 0% 및 불합리한 성과지표 개발입니다. 자치단체의 성과관리는 지방행정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를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군정 주요시책과 정부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성과지표는 209개로, 이중 109개 지표를 달성하여 목표달성률은 52.2%입니다.

그러나 부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외부평가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단기간 달성도가 높고 계수화가 용이한 분야에 대해서만 내부지표를 설정하여 예산의 효과적인 성과관리와 평가결과 환류에 부적합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에서는 성과중심 위주의 단기적인 성과지표 운영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성과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과정에서 군민의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공유재산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 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 대비 169대의 주요 물품이 초과되었으며, 정수 승인 대비 보유대수가 371대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직원교육을 통한 업무연찬 등으로 관련법 적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물품관리 및 예산 요구와 편성, 집행과정에서 정수대상 물품배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10시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공이용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게 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취득 인증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당면 현안사항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입니다. 본의결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의결사항을 이행하여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고자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결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 및 1건의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 의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중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장애인 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훈 의원 발의)
6.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7.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9.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의 지정과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맛 좋고, 특색 있는 맛집

의 지정과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와 음식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수산업장인 증서 수여, 기술장려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개정 내용이 기존 조례에서도 예측 가능하므로 개정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청산도에서 완도 전역으로 슬로시티 지역이 확대 인증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기준, 우선순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체계 및 내용 상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0조 제2항 중 '농업 경영'을 '농어업 경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성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

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상임위 조례안 및 각종 안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0회 완도군의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1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2.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51호의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취득하게 하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 권장 대상시설 등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인증기준, 제5조에서는 인

증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군민들이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 저촉 및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중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1호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

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라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 및 당면 현안사항 등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과 해양정책과에 완도군 부두잔교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수산경영과에 어업처리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권장하는 사무 중 읍면에 위임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내용상 등의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뭐 수산…… 해양정책과 하고 수산경영과, 각 읍면에 이것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해양이나 수산직들이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읍면에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이 업무가 양이 많거나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군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건씩 안 되는 업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양정책과에 보면 부잔교 사용료 징수인데…… 이것은 개인이 설치하는 부잔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별로 없고, 또 수산경영과에서 하고 있는 어업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는 (청취불능)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전반적인 그런 어업신고가 아니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세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이 없어서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은 크게 염려할 바는 안 되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읍면장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런 차원에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만 한정된 것입니까. 아니, 포괄적으로 어업신고 처리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 세부사항은 없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만 한정된 그런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2호 완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직무대리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오늘 중앙정부로 출장을 가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에 대한 완도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설립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의 연대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

변영을 추구하기 위함으로써, 예를 들어 섬에 불리한 법령과 규제 개정 및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공동 대응함은 물론,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으로서 본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자체 11개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에는 회장의 선임방법과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 제8조에서 10조에는 실무협의회 및 회의 운영과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권고사항으로 행정협의회에 분담금 세입조치를 의무화하고 분담금은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쪽부터 7쪽까지 규약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규약 내용의 설립근거는 아까 지방자치법 제152조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게 2012년도 3월 15일에 창립됐었는데 회원, 단체…… 이 지자체가 용진군, 보령군, 여수시,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사천시, 남해군, 강화군, 완도군 이렇게 해서 11개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분담금을 연 2,000만 원씩 이렇게 분담을 하고요. 주요 활동실적을 보면 우리 바다면적과 국토면적을 설정할 시에 도서지역 현안과제들을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의했고, 또한 정책토론회를 의회에 두 차례 걸쳐서 개최했으며 도서 여객운송 대중교통화 정책방안 등 연 구용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3회와 협의회에 정기협의회 3회, 실무협의회 15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지하철역에 디지털포스터매체 광고를 했고, 8월까지 할 예정이고 케이블 TV매체 광고를 또 7월부터 8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토론회도 7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게 주로 바닷가…… 지역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허정수

예, 전부는 아니고……

○ 최정욱 위원

전체가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허정수

예, 섬을 끼고 있는 그런 지자체 위주로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 바다로 켜서가 아니고 섬으로만 이루어진……

○ 기획예산담당관 직무대리 허정수

예, 섬이 있는 그런 지역이면 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의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3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0회 완도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1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5.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2.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3.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5.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양훈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맛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에게 완도군을 대표하는 검증된 먹거리를 발굴, 지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음식의 맛과 질, 그리고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차별화된 지역 맛집과 음식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맛집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맛집의 지정과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맛집으로 지정된 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맛집의 발굴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맛집육성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발의한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전문위원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을 대표하는 맛집…… 일반 음식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양훈 위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454호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수산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기술자에 대하여 수산업장인으로 선정하여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 수산업의 기술 향상과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수산업장인의 선정은 수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전통수산업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하고 계승해 왔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안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장인의 추천은 읍면장, 군 단위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 관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따라 수산업장인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증서를 수여하고, 매년 200만 원씩 2년 동안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수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등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수산업장인 선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범성 위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해서 읍면장이라고 해놔는데요.

○ 이범성 위원

예.

○ 박재선 위원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들이 수산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읍면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군내 수산업 관련 협회장이 한다고 하는데요. 매년 2명 이내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수산 쪽에 업무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15년이 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선정과정을 좀 달리……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범성 위원

거기에 추천을 한다든가…… 거의 15년, 제가 봤을 때도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 기준을 15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0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안 맞고, 그중에서 15년으로 기한을 두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색출함으로써 좋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의 장인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보면 나이는 적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의 신청대상자가 되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지 않냐. 또 젊은 부분들도 기술력이랄까,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도 획기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기한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수산업 발전에 급하게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 기한 때문에, 그 15년이라는 연수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수산업의 발전이 그만큼 후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5년이라는 기한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읍면에서 더 보완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정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지 하고자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도 읍면장이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수산업의 장인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읍면장에게 권한이 많이 넘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지역에서 잘하는 사람들…… 추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연수 부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제8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됴므로써 선정 부분에 좀 깊이 있어 다루다 보면 좋은…… 선정되는 분들이 나오지 않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봐도 제8조에 보면 심사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5호 완도군 수산업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2456호를…… 순서를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3.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5.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중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의안번호 2457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슬로시티가 청산도 지역만 지정·운영되어 왔으나 2018년 4월 3일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완도군 전 지역으로 확대 인증됨을 통보함에 따라서 전 지역 확대에 따른 슬로시티 이념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그동안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또한 안 제4조 슬로시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완도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설치, 그리고 안 제5조 기능,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17년 11월 1일 슬로시티가 청산도에서 완도군 전역으로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게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58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제정 목적, 정의 등을 그리고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제한, 설치 기준, 설치 신청, 설치 우선순위 등을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자 지정, 이설, 전기료 부담 등을,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그리고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관리 운영의 위탁, 폐등, 시행규칙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7쪽부터 31쪽까지 조례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전문위원 추교훈

예, 의안번호 제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2항 중 “농업경영”을 “농어업경영”으로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개정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좀 더 명확히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명칭을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내용 중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사전재해영향 평가심으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을 재해영향 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으로, 검토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조례의 용어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5쪽부터 45쪽까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

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운영규정 등에서 용어가 변경되었기에 이에 맞게 정비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7호 완도군 슬로시티 청산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

안등 설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8호 완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59호 완도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예,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다음은 의안번호 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5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마을회관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 도서권역 주민들에게 공동체 활동공간인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 내 건축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7호의 매입이란 용어의 뜻을 기존에는 “건축물만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로 돼 있던 것을 “건축물에 부지를 포함하여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교훈

의안번호 제2456호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에 기건축된 건축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후에 의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 매입이라는 용어 자체가 건축물을 사드린 것으로 해석하다 보니깐요. 지난 민간경상보조심의위원회에서 건물만 사면 되겠냐, 부지는 어떻게 하겠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 보류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니고 건축물을 사들이면 당연히 부지까지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심의위원들은 “그 부지까지 정확하게 명기해 달라. 그래야 건축물과 부지가 한 등기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해서 개정하게 된 내용이고요.

일단 건축물과 부지를 사드리면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가 이전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중요등기라고 해가지고 건물과 부지를 마을에서 함부로 팔 수 없게끔, 또 함부로 담보를 설정할 수 없게끔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중요등기로 해서 거기에다가…… 등기를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함부로 채권 설정이

라든지 할 수 없게끔, 그런 것까지 다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안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예,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으면…… 부지가 없으면 건축물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는 없지요.

○ 박인철 위원

그런데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잣대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물이 없는 부지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물이라는 것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 조례가 7대 때 2번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앞에 두 과장님을 거쳐서…… 왜냐하면 군수님한테 행복기금을 갖다가 바치고 그러면 없는 부지까지 사들여 가지고 해가지고요. 부지를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7대 의회에서 정확하게 60호, 100호, 200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액도 다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고금도 같은 데는 공유수면이 있어가지고 군에서 사야지만 거기에서 판다고 해가지고 고금도 그 마을에서 우리 군에다가 돈을 예치해 놓고, 그 예치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줘 가지고요. 먼저 사고, 고금 그 마을에서 돈을 다시 넣었다는 말이에요, 군에서 산 것처럼. 그래서 완도읍은 너무 건축바……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아파트가 났든 아니면 어디 건물이 나오면 그것을 사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건축물로 해놨는데.

아니, 건축이 있으면 당연히 부지가 달리는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잣대를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부지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명시해놓으면 이것은 건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읍면에

서도 다 다시 부지를 사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완도읍 내에 어떻게 보면 복지화관이나 마을회관이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없어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건축물로 하자, 한정을 짓자. 건축물이라면 아파트…… 건축물로 들어가더라도 그 세대 N분의 것에 대한 부지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N분으로. 안 그러면 개인 단독주택을 산다든가 아니면 다른 건물을 사면 그 부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이 잣대를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도 심의위원들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부지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런 부분도……

○ 박인철 위원

그런 건축물은 우리 군에서 못 사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하고 소유물이 다르면…… 부지하고 건축물이 다른데 그것…… 원래 위에 건축물은 아무 쓰잘머리가 없어요, 부지가 그런 것이지. 그것을 못 사죠, 그런 것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다가 괄호 열고 건축물 부지 포함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나중에 감당을 못 한다는 이 말이에요, 감당.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포함된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셔야지. 건축물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명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도 건축물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지를 포함해서 들어가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담당 팀에서는 그 심의하시는 분들한테 그 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하계끔 해야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그랬었는데……

○ 박인철 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조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요즘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 얼마나 밝은지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지라고 해놓으면 너 나 없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감당이 안돼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것 해석 자체를 건축물이나 부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물에 부속된 부지를 포함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른 마을에서 “우리 부지를 사주라.”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 박인철 위원

이 조례에…… 처음에 이 조례를 잘 봐야 된 다니까. 왜냐하면 완도읍이 낙후되어 있다고 그 래 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7조에다가 집어 넣은 것 아니에요, 완도읍을.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나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건축물이 있으니까 사려고 하니까, 토지에 포함된 것을 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뭐로 막을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잣대를 대 가지고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것을.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제가 2014년도에…… 그 당시에 개정하실 때, 위원님들이 개정하실 때 “완도읍을 포함한다.” 로 들어갔다가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로 그 부분은 생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차라리 완도읍을 명시할까 하다가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재연될 것 같아서 완도읍은 아예 그냥 뺐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벌써 노화 구목도 내일 모레 준공된다고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목리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도 3억 5,000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준공도 안 됐는데 이것저것 다 해주라고 하는 것.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온다는 것이요. 우리가 조례로 딱 정해놔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서 조례를 핑계대면서 안 된다고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이것 과장님 말처럼 완도…… 우리가 명시는 안 했지만 7대 때 완도읍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 동료의원들 아홉 분의 의원들이 인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가 또 완도읍이라고만 명시할 수는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완도읍을 명시하는 것이 제일 좋죠. 완도읍에 한한다고 명시해 놓으면 좋은데. 다른 지역의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아마 하셨던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때 큰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문제 제기는 없었고. 그런데 조례에다가 완도읍이라고 딱 찍어놓는다는 것이 말이 안 맞아서 안 했지.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청취불능) 이야기는 없었어. 그냥 이것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됐어요. 건축물을 사주자고 해서. 왜냐하면 다른 읍면 같은 데는 우리가 마을회관을 보통…… 옛날에는 5억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지도 사주고. 그래서 완도읍 같은 데는 부지를 사주다 보면, 군비를 보면 땅을 하나 사려고 하면 20억, 1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방비를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건축물이 나오면 사주자고 이래서 이 7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읍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들이대 버리면 우리 군은 할 말이 없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건축물 이야기를 놓더라도 다른 읍면에서도 건축물을 사주려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방법은 없지요. 건축물을 사주라, 우리도 매입해

달라, 마을회관을 지어주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 박인철 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해놔야면 자연부락…… 읍면에 가면 어디에나 다 있어요. 마을회관도 다 있고 복지회관도 다 있어요.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좋고 나쁘고 조금의 차이가 있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완도읍도 자연부락은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없는 곳 중에 아주 안 좋은 데가 화개리하고 신기리하고, 완도읍 신기리하고 두 군데인데. 그런데 화개리는 지어준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 마다하니까 리모델링을 했고, 신기리도 했다가 땅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불용 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도읍이에요, 읍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완도 시내입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본토 고향도 가서 보면 엉망일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마을회관이 없는 완도읍이 향동리하고 중앙리하고 용암리, 아마 이 3개 마을에만 마을회관이 없을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 그러니까요. 다 협소하고, 인원수에 비하면 다 협소하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지까지 넣는다고 하면 나중에……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우리 군에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기존 건축물도 사들인다고 그랬는데 기존 건축물 팔호하고 부지 포함이라고 한 것은 건축물을 사거나 부지를 사거나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하고 부지를 한꺼번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건축물을 사면 부지까지 다 사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부지 포함을 넣느냐는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계속 심의위원들한테 그 취지라든가…… 설득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 박인철 위원

그 심의위원들도 다 자기 건물이 있고, 다 자기 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주거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물하고 부지하고 같이 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부지를 명시한다는 것은…… 야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완도읍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집어넣어서 들이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건축물 매입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읍면에는 적용할 수가 없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례를 적용한다고 하면 완도읍에 있는 3개 마을 외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향동, 중앙, 용암, 이 마을 이외에는 다른 마을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는데,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한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이 건축물하고 부지하고의 관계를 따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들이지는 모르겠는데, 그 심의위원들을 바꿔야죠. 바꾸든가, 아니면 과장님이 이 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잘하든가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 안에 부지를 포함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종의 신축이란…… 지원 조례에 보면 신축,

매입,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다 나누어지는데, 그 용어의 정의가 다 되어 있거든요. 신축은 어떻게 한다, 뭐 재건축은 어떻게 한다, 매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다 다르게 나뉘어 있는데요. 매입 부분에서 기존 건축물을 사들인다고 해 버리니까 건축물만 사면 되냐, 부지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답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문제인데, 건축물을 사면 당연히 부지가 따라오는 것이지, 부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버리면 나중에……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건물……

○ 박인철 위원

문제의 소지를 만들게끔 하나는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하든가,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완도읍을 집어넣든가 차라리……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완도읍 도시계획시설 내에……

○ 박인철 위원

그렇게 문제가 딱 끝나버리는 것이지, 완도읍을 넣는다는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완도읍 도시계획시설 내 마을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마음 편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최정욱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완도읍에서 다 알고 있더라도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완도읍을 표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재선 위원

제가 한마디를 할게요.

조례를, 개정안을 만드는데요. 완도군이라고 해야 맞지, 어디 읍이라고 정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도서지역에서 만약에 이 지역은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지역으로 해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위원님, 조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읍 3개 마을 외에는 이 매입요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아니, 보면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건축물하고 부지를 사들이면…… 그러면 부지를 다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부지 포함 사들인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봐서는 예산 감당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또 특정지역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치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에다가 특정지역을 포함시켜서 한다. 그러면 나중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 특정지역이 또 있어 가지고 거기 조례를 만들 때 특정지역을 넣어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특정지역을 넣으면 그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하고 부지를 사들이는 것은…… 우리가 뭐 동네마을이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이 있었을 경우에도 이 조례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나의 차이가 있겠지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사들인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읍면에서 이것

좀 사주라고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항 자체가.

○ 김양훈 위원

아니죠, 그것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사기를 치고 나쁜 짓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건축 따로 부지 따로 이렇게 해서 법에 안 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동네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부지까지 사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지까지 다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예산 감당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저도 발의자라 말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의 취지 자체가, 과연 이런 취지를 벗어나서 관 계공무원들…… 의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다른 데에서 또 한다고 하면? 솔직히 완도읍 때문에, 이 취지로 발의돼서…… 이것도 아마 의원발의로 해놓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과연 이것을 벗어나서 타지역에서 해주라고 한다고 공무원들이 함부로…… 내가 봐서는 어렵지 않느냐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고 가만히 있었어요?

○ 김양훈 위원

명시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 최정욱 위원

명시가 그렇다고 하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취지 자체가, 예산을 세울 때 자체도 그렇고요, 여기에 맞는, 완도읍으로 한정해서 할 것인데 이것을…… 이것이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마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한 과장님, 누가 위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민간심의위원들이…… 민간인도 계시고 퇴직

하신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합니다. 설득을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행정, 공직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거든요.

○ 박인철 위원

건축물이라는 것은 부지까지 포함해서 건축물이죠. 우리가 위에 지상권만 설정하는 것도 아닌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에 “부지 포함” 이렇게 써놨다고 해가지고 다른 읍면에서 부지를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안 사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매입이라는 부분은 완도읍의 3개 마을 외에는 다른 읍면에 적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들어가지고 “기존 건축물 등”을 넣으면요, “부지”를 빼버리고 “기존 건축물 등을 사들이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러면 더 애매하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들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법적용어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면 기존 건축물 가로 부지 포함에 대한 저희들의 해석은 기존 건축물과 연계한 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의 일부 판단은 건축물과 부지는 따로, 건축물을 사들이고 부지는 요구하면 매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기존 건축물과 연계한 부지 포함” 이렇게 할까요?

(방청석에서 “기존 건축물에 해당되는……” 하는 직원 있음)

부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 해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조례하고 상반될 수…… 틀릴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옛날 (구)경로당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못 쓰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을 완도군에다가 철거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주차장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조례가 된다고 했을 때 “자, 건물하고 부지를 다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해주시시오.”라고 그러면 군에서 다 건물 매입…… 토지 다 매입이 됩니까,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은 마을회관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것도 마을회관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기존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용도가, 앞으로 마을회관으로 쓸 용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우리가 마을회관이 필요하니까 해달라는 것이고,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해 달라, 그것은 용도하고 안 맞죠. 마을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해달라는 이런 조례죠.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들을 새로 신축하게 됐어요. 그러면 군에다가 이 땅까지 다 사서 새로 신축 해주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실질적으로 기존 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마을회관 신축…… 이것은 매입이 아닙니다, 기존에…… 다른 읍면 매입이 아닙니다, 용어를 할 때, 기존 마을은 신축 또는 재건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있는 것이 기존 건축물, 토지 (청취불능) 사들이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건축물…… 그 것도 기존 건축물이죠, 신규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 사가지고…… 동네에서는 우리가 다 팔았으니까 새로 지어주라고 하면 되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회관 신축 부분은 이렇게 하거든요.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해서 그 자리에 새롭게 지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 김양훈 위원

이용을 좀 많이…… 좀 아시는 분들은 유권해석을 하면서, 좀 돌려가면서 이용해 먹지 않을까 이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최정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홍

예.

○ 최정욱 위원

이게 자꾸 말이 나옵니다마는 유권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이 조례 이 자체를 가지고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면요. 완도읍이 아닌 다른 데도 다 이용할 수가 있죠.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이 조례 자체도.

그러나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 자체를 우리 위원들이 모를 리가 없겠죠. 또 관계공무원도 모를 리가 없었고, 이 취지 자체가 발의를 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이라는, 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완도읍을 한정해서 하는 것인데…… 다만, 여러 가지 그 용어 자체 때문에 명기를 안 했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할 일이 없을 것이고, 또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용을 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도 타 읍면에서도 이용하죠. 이 조례를 가지고도 하려고 하

면…… 타 읍면에서도 건물 우리도 사주라고 하려고 하면 하겠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가버린다고 하면…… 적어도 법안 발의 자체가 왜 이것이 나왔는가, 그것은 완도읍 때문에 나왔고, 또 완도읍의 토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이 나와서 발의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군에서나 타 읍면에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7대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토의를 했다고 하면 다 누구나 알고 있고, 또 공무원도 거기에 한정돼서 올리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유권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죠. 다만, 어찌됐든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묵고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재검토를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고, 과장님 의견하고 위원들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을회관 지원 조례가 신축, 매입, 재건축, 리모델링, 수리 이렇게 나뉘었는데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해서 신축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또 마을회관을 짓는다. 이렇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입은…… 매입해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헐고 신축으로 지원은 못 해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이렇게 책임자들이 머리를 쓰다 보면 “자, 이 건물이 낡았으니까 우리 이것 하나 사주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마을회관에 한해서……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으면 안 됩니다.

○ 허궁희 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니까 완도읍만 해당이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 허궁희 위원

그것은 우리들이 이렇게…… 위원들이나 공직자들 중에 아는 분들 몇 분들의 이야기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조례를요,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겠어요? 그것을 생각해야죠. 우리 몇 사람이 안다고 해서 그 조례를 인정하고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아까 드렸지만 “부지포함”이라는 말을 빼도 다른 읍면에서 이 조례를 활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까 박 위원이, 박인철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여기에 부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건축물을 살 때 땅 없이 건물만 누가 삽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심의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건축물만 사면 나중에 건축물만 등기할 것이냐, 땅은 등기 안 하나?” 라는 이런 지적이죠.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과장님이 여기 건물을 사요. 우리가 봤을 때 “부지까지 샀습니다.” 라는 그 말 아닙니까. “건축물을 하나

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굳이 꼭 부지라는 용어를 거기에다가 넣는 것이 오히려 회군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로, 지금 우리들의 생각은.

○ 전문위원 추교훈

제가…… 전문위원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보면요, 기존 건축물 가로 열고 부지 포함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놓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건축물 가로 열고 부지 포함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물 따로, 부지 따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건축물이라고 해도 포함이 되고, 그 말이 그 말이라는 얘가지. 굳이 꼭 여기에다가 명기할 필요가 있느냐.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그것을 가지고 저도 왜…… 건물을 사면 부지는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그것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토를 다냐고 그랬는데, 제 얘기도 그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달아서 문제라는 얘기로.

(방청석에서 “건물, 건축물…… 옛날에 보면 등기는 있는데요. 땅은 개인 땅인데, 마을에서 땅 얼마 돈을 주고 건물 등기만 마을새마을회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만 살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사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군외 지역에 있던 내용인데 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사인 간의 거래는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사줄 것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을.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사는데 땅을 부지 따로 건축물 따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사겠습니까. 살 수

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러는 것은요, 심의위원들이 어떤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이런 조례가…… 최정욱 위원님이 이것을 했다가 안 되니까, 실과에서 이 조례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을 것인데.

우리, 내가 뭐 그러는 것은…… 의회에서, 7대에서 이것을 2번인가 3번인가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전혀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토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를 해 줘야 되는가. 이 기존 조례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전…… 8대는 아닙니다마는 7대에 이것을 한 번 조례에 해가지고 또 다시 개정해 가지고 해줬는데, 그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의회에서 이렇게 해버린 것을…… 뭐 심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심의를 통과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처음에는 여기를 차라리 부동산으로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원래…… 저희들이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축물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용어 정의를 해석해 보면 건축물 플러스 토지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계속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지를 빼고 건축물만 사들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뭔가 이 용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예요. 단순하게, 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물은 놔두고 토지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냐.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건축물하면 당연히 부지가 지 달려오겠지, 이것은 상식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이 용어 자체가 건축물 플러스 토지가 되어야 그 건물이 완전체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

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토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냐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웃음)

그것은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 박인철 위원

토지 없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런데 등기상은 건물, 토지 따로 따로 노니까요.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들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다 기존 땅 위에다가 토지가 올라가는 것이지. 뭐 땅 없는 토지가 어디에 있어. 그것은 땅…… 지주 따로 건물주 따로 그것은 극히 이례적인 문제들이고, 또 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그런 건물을 매입할 일도 없거니와…… 참말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이범성 위원

그런데 그 위원들은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재선 위원

그러면 3개 마을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3개 마을밖에 적용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심의위원들이 왜 그것을, 이것 꼭 부지를 넣으라고 할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만약에……

○ 박재선 위원

3개 마을을 하면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완도 군에서 할 수 있게끔 매입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좋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그 3개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 놔던 부분인데, 그것을 꼭 넣으라고 할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심의위원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정적 용어를 정확히 좀 정리하자는 이 취지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심의위원들의 말은 그 건축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물을 사면 땅까지 당연히 들어오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심의위원들은 심의를 하면서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라. 건축등기 따로, 토지등기 따로, 건축물만 있고 토지는 없으면 되겠느냐. 이번 기회에 하나의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실 완도를 3개의 부락입니다 마는 자꾸 말을 하지만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알아봐도……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못 알아봐. 내가 알아봤는데 살 만한 데가 안 나와, 그 예산을 가지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나와서 한 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됐는데.

이 법이 딱 걸리는 것을 다음에 했을 때는 또 이것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뭐 법은 만 들어진지 다 알고 있고, 다 원하는데 이런 용어 자체를 가지고 또 안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거든요, 밖에서 볼 때는.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지금 이것을 과장님은 3개 마을만 한다고 했는데 개포리 같은 데도 없어요, 마을회관이. 그래서 개포리 뭇니까, 농산물검사소 그것을 우리 군에서 사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안 판다고 해서 지금 못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마을을 여기에다가…… 거기에 토지, 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건물도 옛날 관공서 부지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개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거기도…… 뭇니까, 다시 농업축산과에서 뭇하던데…… 그래서 못산 거예요, 사려고 애를 피웠는데도.

지금 개포리 같은 데도 어디에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개포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사서 해주려고 해도 없단니까.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개포리도 있고 신기2리도 있고, 없어요, 지금. 아파트, 저기 학림아파트 있는 곳 거기도 없어요.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사서 해주려고 해도 살 데가 없어요.

○ 위원장 김재홍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만 계속 지나고 있는데.

○ 최정욱 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취지 자체가 완도를 일원이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외에 벗어나서 이것을 누가 아무리 이용하려고 한다고 해도…… 법을 이용한다면 이것을 가지고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심사위원들도 한 것을 우리가 전혀…… 의회에서 그대로 해나가는 것은…… 용어 자체를 가지고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취지 자체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이대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김재홍

위원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검토를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정리가 이렇게 안 되면 뭐 다음 회기 때 한번 더 논의를 합시다. 여기에서 선불리 해가지고 서로…… 의회 위원님들 뭐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용어를 한번 잘못해서 해놓으면 또 뒷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문위원들과 의논을 한 번 해서 어느 용어가 적합한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 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현재 이것이 시급한 사항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마을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고요. 해당 마을은 완도읍의 향동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동마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인데 원래는 추경이 끝나고 심의가 되면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줄 준비를 했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의회하고 조율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다면 8월…… 심의위원회가 아마 8월쯤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재홍

8월이요? (예)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구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재검토를 한 번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한 번 더 논의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금번 회기에는 부결하고 충분한 검토 후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방금 발표했듯이 이 부분은 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 전문위원 : 추교훈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0회 완도군의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6월 1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의안번호 제2450호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 외 8개 항목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일반 및 특별회계 현황은 5,865억 1,14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102억 9,43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6,052억 9,45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5억 7,44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은 예산현액 5,865억 1,143만 7,000원 중에서 4,481억 5,712만 9,000원을 지출하고 1,014억 5,271만 6,00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8억 6,818만 9,00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300억 3,340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806억 5,970만 1,000원

으로 이중 지방세가 172억 2,139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45억 7,617만 1,000원, 교부세는 2,334억 6,687만 2,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98억 1,506만 5,000원, 보조금 수입이 1,631억 3,066만 1,000원이며, 보전수입 등이 1,424억 4,95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288억 6,637만 원으로 성질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75억 1,794만 원이고 물건비가 338억 4,580만 6,000원, 경상이전이 1,363억 26만 1,000원, 자본지출이 1,825억 3,568만 4,000원, 내부거래가 125억 2,212만 3,000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4,455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총액은 2012년도에 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2018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공유재산 총 평가액은 4,649억 3,565만 3,000원이었으며, 2018년도에 103억 5,213만 7,000원이 증가되고 17억 7,768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8년 말 현재는 4,735억 1,010만 4,000원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4,597억 1,296만 6,000원이며 일반재산은 137억 9,713만 8,000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 말 물품 총 건수는 1,013건에 69억 7,497만 8,000원으로 2018년도에 118건을 취득하고 24건을 처분하여, 2018년 말 현재 물품 보유수는 1,107건에 77억 6,0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2건으로 36억 6,470만 3,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24억 6,713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7년 말 조성액은 73억 1,022만 7,000원으로 2018년도에 20억 9,966만 원이 조성되고 2억 9,210만 5,000원이 사용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91억 1,77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7년 말 현재액은 11억 7,473만 1,000원으로 2017년도에 18억 1,088만 1,000원이 증액되어

2018년 말 현재액은 29억 8,56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240억 8,371만 6,000원으로 이중 1,262억 8,776만 8,000원을 수령하여 1,016억 2,95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66억 5,009만 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80억 811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령액과 특별회계 수령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던 결산검사 결과, 감사의견서…… 22건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치 계획에 따라 시정 또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행정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박인철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정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서면검사와 현지 확인 등을 병행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입니다. 2018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865억 1,143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5,628억 7,577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6억 3,66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5,440억 6,478만 9,000원 보다 365억 9,501만 2,000원이 많은 5,806억 5,970만 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3억 3,424만 6,000원보다 9,110만 3,000원

이 감소한 4억 2,534만 9,000원이고 결손처분의 주된 사유로는 배분금액 부족 5,540만 1,000원, 시효소멸 3,592만 9,000원, 행방불명 7,930만 7,000원, 무재산 2억 5,175만 3,000원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636억 2,736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92억 4,741만 4,000원을 합한 예산액은 5,668억 7,477만 4,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2%에 해당하는 4,288억 6,63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992억 9,645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447억 3,110만 4,000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72억 1,047만 1,00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483억 5,487만 4,000원이며, 주된 이월액 발생사유는 사업의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2%에 해당하는 347억 1,195만 4,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예산관리 소홀, 보조사업 포기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46억 3,485만 7,000원은 예산현액 236억 3,666만 3,000원의 104.2%로서 9억 9,819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2,386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66만 2,000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7억 1,642만 4,000원이 초과 수납되어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1.5%이며, 미수납액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11억 9,231만 8,000원 등 22억 1,508만 5,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액은 218억 2,663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8억 3만 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36억 3,666만 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192억 9,075만 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1억 5,602만 6,000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5억 2,44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614만 1,000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5억 7,568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3%에 해당되는 19억 7,564만 6,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로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

액 발생, 보조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130건에 437억 3,110만 4,000원, 사고이월은 34건에 72억 1,047만 1,000원이며 계속비는 40건 483억 5,487만 4,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4건 15억 2,443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5,614만 2,000원, 계속비 1건에 5억 7,568만 8,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은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예산운용 방안 검토 등 총 22건으로 세부적인 결산 내용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국장님, 저가…… 보조반납금이 60 얼마인가요, 이게…… 보조반납금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가 어째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몇 페이지……

○ 우성자 위원

2페이지요, 2페이지. 세출에서 보조반납금이 엄청 많아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로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가 필요하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불용 처리된

부분들을 보면 주로 이유가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뭐 상위계획이 FTA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되지 않아서요, 이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없었던 경우가 농업축산과에 있고, 또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미발굴이 돼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미진행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기별로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하고,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없도록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지적도…… 결산검사 시에 많습니다. 너무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게 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해서 대상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잡아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확하게 얼마짜리 사업이라고 1,00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개선하고 권고사항에 따른 조치계획, 이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여러 번 봤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년마다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올해는 숫자를 줄였습니다. 해년마다 60건, 70건씩 나왔는데 건수에 연연하지 말자고 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줄였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연찬회를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결산검사 이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의 권고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또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직원들한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잘 몰라요, 서무직들이, 이것을 내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산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그 뭘니까, 각 실과 서무, 전직원이 하면 좋지만 서무 정도는 이것을 같이 한번 훑어보고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공감하고요, 지적을 받은 부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또…… 그러니까 언제 이 업무를 보고 그럴지 모르니까, 계장, 실무자들까지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라는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서로…… 이 1,000여명의 직원들이 다 내 업무라고 봐야 되는데 내 업무 소관이 아니면 평풍을 많이 친다는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이렇게 하면 내 업무냐…… 같은 과에서도 계가 틀리다고 해가지고 내 업무니, 남의 업무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연찬회를,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숙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저도 두 번째 이것을 받아봅니다마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항상…… 하는데 그런 이유가 항상 달려 있어서요, 그러나 “내년에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향

상 대답은 그러는데 역시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상반기가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것을 잘 챙겨야 만이 하반기에 불용액이 될 나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지적인 대로 잘해서 올해 결산이 잘 되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령이나 제도의 미비점이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좀 바꿔서, 개선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1,000억 줄 테니까 지방비 100억을 부담해서 집행해라.” 라고 이러면 사실…… 중앙정부에서 인심을 쓴 것 같지만 사실 비현실적인 그런 사업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전 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그래서 핑계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나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박인철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과 오늘 본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의 건으로 심사한 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등 향후 재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50호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0회 완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박 인 철		
의 원	박 재 선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16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10시00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폐식)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 기획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10시04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7월 3일 우성자 의회운영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0호와 2461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0호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안번호 제2461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올 상반기에 추진되었던 군정 주요업무들 중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건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제27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담당부서별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상 2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이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 등 12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 청렴향상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가 4등급, 내부청렴도가 4등급, 도내에서 21위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맞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 청렴도 측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 자체적으로 지난해에…… 그 평가 후에 갖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분석한 결과, 외부평가는 재세정 분야, 내부평가는 인사 분야가 좀 취약합니다.

○ 우성자 의원

저도 생각할 때 그 내부청렴도는…… 인사 분

야에서 2016년과 2017년에는 1만 건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는 많이 떨어진 10.71%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인사가 예측 불가한 인사가 나왔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렴도가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불만을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떤 조직에서나 인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도 인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말씀처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말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각 이렇게…… 본청은 본청대로 실시하고 있고요, 읍면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런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사업으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 만족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제가 생각할 때도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외부청렴도의 경우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 해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청렴도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해 가지고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요.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도 예측 가능한 인사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

이 자기 직장에 대해서 애사심이 부족하고,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그 측정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되는데 그렇게 왜 낮게 주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자신들의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이 약한 것 같습니다. 애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집중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난해에 청렴도 측정결과, 전라남도 내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군이 좀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처럼 청렴도가 부진한 그런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그런 시책제도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천시와 수원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시책들이 있습니다. 영천시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멘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레드휘슬이라는 비위공직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또 수원시의 경우는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청렴미투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추진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의사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의원님의 좋은 제안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레드휘슬은 군에서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미투, 청렴미투 제도는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해서 도입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7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우성자 의원

없습니까. 아주 대단히,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보겠습니다. 3쪽,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시 완도군 권역별 특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6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8월에 최종보고를 해서 9월 중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의 특별한 시책을 하나 발굴, 도출해서 2020년이나 20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 우성자 의원

중간발표가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하여 주시고요. (예)

금년도 예산에 공모사업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진행 상태와 활동성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전건설과 `19년 노화 소당 도청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용역 외 3건을 발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건이 완료되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2건이 선정되었고,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여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2월 업무보고 때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 해외연수에 갔다 와서 우리가 실적 보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그 대안을 제시해 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담당관님이 “예, 따로 가져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개발과 한희석 과장님한테 “군누이 어항이 우리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을 답변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한 가지도 담당관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담당관님이 과별로 나눠주셨는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우리 실정하고 안 맞는다는 것은 잘 압니다, 일본하고 우리 실정하고, 그러나 개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도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셔서요, 제가 많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아직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밑에 계장이랑 같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오시면…… 담당관님이 못 챙기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챙겨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을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선진지 해외 벤치마킹을 해서 정책을 제안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6개의 실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항만 및 어항 건설관계,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박물관 건립관계, 관광정책과 해상유류선 케이בל가 설치관계, 안전건설과 군민 재난대비 안전교육 관계,

해양정책과 수산시장 위생화 및 전문점 설치운영관계, 농업축산과 완도 자연그대로직판장 운영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반드시 결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하고 상황이 많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크고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그렇다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그 보고를 제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회기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이 주 내예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기획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18년도에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정부합동평가가 재작년에 실적을 평가했을 때를 보면 상위권으로 올라가겠다는,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저것을 한번 보십

시오.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고 한번 봐보십시오, 자세히. 우리가 22개 전남 시군 중에서 2014년도에 13위, `15년도에는 16위, `16년도에는 15위, `17년도에 19위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일하게 안전관리가 2위고 나머지는 15위, 22위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22개면 22개 시군 중에 22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꼴등도 있다는 얘기고.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것을 보면? 이것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위권에 이런 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올해는 좀 더 순위가 상승될 수 있도록 전 부서장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실국장님, 담당관님, 소장님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한번 보시고, 정말 이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가지표가 총 150개 항목이고 이중 정량 평가가 123개, 정성 평가가 32개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렇게 평가결과가 저조한 이유가 첫째, 평가 지표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지표가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현재 지표는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인구 구성이라든지, 산업 자원별 뭐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도시 쪽 시군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비교해서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다면 타 시군은 그렇지 않은가요, 전남에서.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표…… 의견을 수렴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런 문제가 완도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타 군도 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다 1등부터 20등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우리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둘째, 평가지표 달성을 못하였는데. 이것을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게으른 것인지, 일을 안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지표 제도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도 평가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하고는 도비사업이 많이 배정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사방산 댐이라든지. 우리 군에는 없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관심을 좀 덜 가졌고 신경을 덜 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세 번째는 평가지표를 달성하였는데도 시스템 입력을 안 했는지. 예를 들자면 어떤 분야에서 노력을 했는데 시스템에 못 올려서 그런 실수가 있는 것인지. 분석결과가 나왔다면, 그런 것이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표와 안 맞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성적이 저조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매달 추진실적을 점검해서 기한 내에 추진실적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입력은 제대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 우리 시군만의…… 아니, 우리 군만의, 타 시군에 없는 것이 우리만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인데도 우리는 22개 꼴등한 것도 있어요. 대부분 중간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신다는 얘기에요. 잘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군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 데도 그렇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완도 예, 그렇죠, 타군에 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조하다는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부진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155개 항목마다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각 부서별로 지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정부합동평가추진사항보고회를 자주 하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3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3개월마다 하는데 어떤 성과는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부진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요, 그다음에 개선사항을,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분야에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추진상황보고회를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년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이하다는 증표라고 생각하는데, 안 한다는 증표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추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게 매년 군의원들의 질의사항이 아닙니까, 질문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한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 개선사항을 강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업무보고 때만 이렇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뭔가 개선을 해야죠. 또 그때 가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생각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하겠습니다. 평가항목 155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분석해 보시고 어떠한 이유로 평가가 저조한지를,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통보하고 실과장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안 하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이제 보고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마는 올해부터는 부진부서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하고, 상위부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괜찮겠네요. 이것을 본의원이 금년도 군정 질문 시 본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실과소장님이 직접 챙겨 보신다고 하면 실과별로 최소 어떤 것인지 분야별로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실과별로 소통을 하세요, 어떤 것이 잘못되고 있는지 토의도 하고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때 제대로 이렇게 답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예산규모로 앞으로 일정만 나열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내실운영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과들도 보면,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써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보고서를 쓸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의회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나열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회보고서는 군수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에 할 때는 군민들, 주민들이 보기 좋게요,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이 다 이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고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 질문 때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적기에, 적재적소에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건전한 재정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본의원은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정사항을 평가하면 그 결과를 재정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작성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목적대로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출계산서에 성과 달성률입니다. 보면 0%입니다, 0%. (청취불능) 성과지표 현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김양훈 의원

예산집행은 100%인데 달성률은 0%. 좀 그렇지요, 안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공감합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것 반영을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좋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실적들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달성률은 몇 %인데, 성과율이 0%라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내실 있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해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할 때……

○ 김양훈 의원

이 모든 부분은 군정 질의 때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3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중앙부처 국고 지원사업 (청취불능)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그

렇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공모사업을……

○ 박재선 의원

공모사업이 1년 연중에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작년 하반기에 약 11건에 468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6월 말까지 26건에 489억 7,000만 원, 합계 37건에 958억 원.

○ 박재선 의원

나름대로 대응도 잘하고 있고요, 담당관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군정 질문답변 시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추진하고 또 부서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선정금액에 따라서 0.1점부터 1점까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요.

공모사업을 하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 ppt 자료를 준비를 하고 또 현장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기피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사업 추진성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부서에서 개별 공모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실적 등을 별도로 평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공모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군민의 혈세인 군비가요, 작년에 보니까 170억, 160억 정도가 투입되거든요.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할 문제가 있는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 사업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그 용도 목적에 맞게끔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요, 각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담당관님, 그리고 군비가 소요된 공모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작년도 군정 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모실과에서 특정인한테 금액을 해가지고 군비로 투입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있죠? (예)

이러한 공모사업들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계획도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것 이거든요. 의회하고 항상 공유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쪽,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공약사항은 민선7기 기간 중 우리 군의 행정의 핵심과제이자 5만 2,000명 군민과의 약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군민과의 약속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애당초 몇 건이었습니까, 공약사항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52건.

○ 박인철 의원

보니까 자료는 57건도 있고 40 몇 건도 있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52건으로 이렇게 결정되었구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총 52건 과제 중 1건은 완료되어 있고 51건은 추진 중이네요, 맞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최근에 민선7기 그 1주년 보고회에서요, 보고회 결과, 완료 건수가 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45건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7건이 어떠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료를……

○ 박인철 의원

됐습니다. 여기 1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대단위사업인 금일 연륙교와 소안 연도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차 구간, 이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체육인센터 등 14개 사업 등에 4,0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도 뭐 확보는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금후 계획은 어

떠……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공약사항에 소요되는 소요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체육인교육센터는 1차 부지선정 결과, 우리 군하고 장흥군하고 압축되어서 8월 중에 선정될 예정인데요. 중앙부처하고 대한체육회 등에 방문해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담당관님.

체육인교육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센터는 체육회에서 짓는다고 하지만 부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만 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디 부지 확보해 놓은 데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분야는 관련 주무 부서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전혀 없죠. 그리고 이 체육인교육센터를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데, 부지 및 SOC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한다는 이것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럴……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체육인교육센터가 한 460억 정도 소요 되는데 우리 군에서도 부지, 이런 것을 다 확보하려면 최소한 몇 십억이 소요되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럴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담당부서에 물어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군민들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그렇게 하고요. 장애인골프장, 이순신, 진린장군, 가리포진, 해양관광 활성화, 섬자리숲길 조

성, 다도해일출공원, 해조류박람회, 사후면세점, 소비자 직거래, 전복산업 활성화, 해조류육종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받을 떼고 있습니까. 예산을 떠나서 각 실과에서는 첫걸음 정도는 떼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21년 보건복지부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요. 진린장군 선양사업은 명칭을 완도 고금 역사공간 자원 활성화사업으로 변경해서 `20년 관광자원개발 균특사업으로 신청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해양공원…… 활성화사업 중인 해상케이블카 설치, 뱃 해상힐링유람선 투어사업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해양케이블카도 이야기했지만, 담당관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거기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이 용역을 다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의회에 와서 보고도 없어요.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간다, 아니면 500억이 들어간다. 이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의회는 한 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집행부하고 전혀 같이 두 바퀴가 못가고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회에서는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지금부터는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집행부…… 담당관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여기에 와있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국·단장님들, 실과장님들 전체 문제예요. 전혀 의회에 와서는 이야기를 안 해버려요.

하여튼 알았고, 이런 것들이 일련에 진행되게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자료에는…… 드론산업이 완료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평일하고 주말에 정원 8명씩 해서 운영할 계획……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11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1명, 주말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들어가니까 12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생 모집의 한계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까지 교육비가 22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실정인데 어떻게…… 담당관님,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됐고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보니까 공약사항에서 완료된 공약사항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추진된다면 내가 보서는 드론교육장은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요. 군에서 드론을 어느 분야에 활용할 것인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운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현직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군민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해서 군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번에도 보니까 전남도청 비전선포식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고흥에다가 드론. 앞으로 이 산업이 크게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드론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축구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래서 축구인들이 주말에도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으로 쓰느라…… 그 부지가 올바르게 목적에 맞게끔요. 그 정도 부지를 드론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혀 1명, 2명…… 뭐 주말에는 10명 정도 더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세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과 보고 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총괄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확보, 사업 추진, 효율적인 운영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약사항을 이행하여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를중)

(11시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추진 등 14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이범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페이지에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사항은 작년 군정 질문 시에도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친절은 공무원이 가져야할 최우선 덕목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베스트스마일 공무원 선발제도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선발하였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은 2017년도에 처음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4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14명, 또 민선7기에 2명까지 해서 총 4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참 좋은 제도라 좀 더 많이 선발되어 가지고 완도군이 항상 웃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인센티브는 현재 인사가점으로 해가지고 0.2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 선발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해서 유럽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들에 대한 인사가점을 올리는 등 수혜 확대방안을 검토 좀 해달라고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계속 유지되는 사항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가점을 올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혜택의 여건들이 되어야 더 좋은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이 더 탄생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마는 현재 최고로 줄 수 있는 인사가점이 1점입니다. 그래서 1점인데…… 지금 현재 친절공무원에게 주는 0.2점 가점으로 봐서는 장관급표창을 받거나 또 도 단위 30억 이상 공모사업을 받아왔을 때 주는 점수가 0.2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수혜확대방안을 제안하신 만큼, 0.3점으로 상향하는 방법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스마일공무원은 어떤 곳에다가 보내놔도 지역주민들이 하여튼 잘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얘기들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베스트스마일 공무원이 많이 탄생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참…… 스마일공무원은 가점도 주고 해외도 보내주고 또 거기에 책정되려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고, 또 몸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불친절한 공직자가 개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이랄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매년 우리가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읍면과 직원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군 홈페이지에 갑질 부정·부패신고 배너를 개설해서 신고를 받고 있고요. 또 금년에는 고객소리함을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의 친절에 대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재 불친절공무원으로 통보됐을 때는 인사 감점으로 마이너스 2점 감점 조치를 하고 있고요, 특별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본의원이 질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은 너무나 친절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타성에 젖은 일부 공직자들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항간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어떤 면에는 상사들의 얘기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소문도 떠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지역민들이 왔을 때 무슨 말을 들겠어요. 뭐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팽배하게…… 한 사람이 그럼으로써 완도군 전 공무원들이 다 못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전문강사 교육도 필요하지만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 수집, 이들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민원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친절한 행정이 아마 청렴도 평가와도 결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친절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공직자 청렴 역량 강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면 단위나 어디에서나 전부 다 고객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객소리함 운영 실적과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불친절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고요, 친절공무원 접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더욱 강구해서, 홍보해서 모든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개중에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로 들리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고객소리함에 누가 뭐 준비를 안 하고, 또 넣지도 않고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불친절한 그런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색출해 가지고 뭔가 지도를 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감점여건을 준다든가. 그런 표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보여야 ‘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친절공무원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시고, 청렴도 외부평가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친절운동이 꼭 시스템에 의거,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16쪽, 재난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요.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요, 저희들이 계약 부분은 세무회계과에 의뢰하면 세무회계과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아, 이미 6월 10일에 했다고 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심의를 끝나서, 입찰 완료해서 끝나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초·중·고등학교에 해조류급식 지원사업을 하셨죠? (예)

그러면 본사업은 자치행정과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셨죠? (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는 현장에 가보지 못했고 저희 팀장이 시행 초기에 2번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해조류를 먹었다고 하던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도 초기에 그런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학생들이 해조류를 싫어한다,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해조류 원재료를 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 자체가 그렇게 원재료 부분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예요. 농공단지하고, 농공단지 가공업체들하고 그렇게 해서요. 거기에서 나온 가공류 제품을 학교에서 같이 급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가공류는 아직 안 만드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만들어져 있는 것 있습니까.

일단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11개소에 147개 품목이 있거든요.

○ 우성자 의원

아, 그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렇게 애들이 다 안 먹고 다 버린다 고 그렇습니다, 해조류를 전부 다……

그래서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죠?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단체하고 해조류를 교류해서 만들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당초 시행할 때 관내 초·중·고 영양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해조류로 만든 음식들로 요리 시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음식연구회 xxx 회장님도 직접 참석해서 가지고 시연도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해조류 급식 지원사업하고 관련하여 우리연구회하고 연계해서 아직 만든 것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요리 레시피를 개발해 가지고……

○ 우성자 의원

개발을 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기존에 레시피가 개발된 책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날 거기에서 영양사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현재 그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해보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은 그 레시피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워낙 선호하지 않고요. 김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품 위주로 아마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해정 요리사하고 참여해서 해조류…… 서길수 과장님이 그때 만든 레시피라고 그러는데……

(집행부 좌석을 보며)

과장님, 맞습니까? 서길수 과장님?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좌석에서) 예, 완도군 자원관리센터에서 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래서 저런 지금…… 만들어 놓고도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쪽하고 연계가 잘 안 돼서 저런 음식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조류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원재료도 좋고 가공품도 좋고 또 완도에서 생산된 해조류를 소비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어차피 완도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 사진은 완도초등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급식실에 부착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도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에 맞게 군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요. 혹시 학교로 배분하면 어떨까, 그러면 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조류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책자들이나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책자보다는 급식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호기심에 먹을 수 있게끔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해조류에 좋다는 그런 홍보는 군민들이 쉽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메뉴를 잘 정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먹을 수 있고, 또 부모들도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잘 정해 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쪽이요,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적극 대응입니다. 민사소송을 보니까 노화읍 하수관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청구, 금일읍 하수관거 공사현장 간접비 청구, 노화 구도 가설공사 지체상금 청구 등 1심은 전부 우리 군에서 패소를 했네요? (예)

이것 청구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그것이 3건에 20억 1,400만 원입니다.

○ 김재홍 의원

2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패소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패소 원인은 저희들이 장기계속 차수벽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 중지 등의 사유로 해가지고 채류자 인건비 등 간접비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래서요. 우리 군에서는 차수벽 준공금 지급 전에 간접비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원고 측에서는 최종 준공금 지급 전에 청구함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간접비에 대한 소송은 제도적인 문제로서 우리 군의 행정행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 김재홍 의원

2심이 진행 중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지금 현재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대법원 판례 등 검토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도수영장 공사 청구, 어떠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상당한……

(집행부 좌석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원청하고 하청업체 간에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 완도군까지 같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 골조 부분에 사업을 원청에서 하청에게 이 사업을 줬는데, 그 사업을 원청과 하청 간에 계약을 맺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 되는데, 하청업체에서는 그 사업을 원청과 계약한 그 내용대로 거기에다가 사업을 다 했으니 추가금…… 사업량으로 보면 지금 제대로 다 이행이 안 된 부분이고, 사업비로 보면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사업량을 다 했는데……

○ 김재홍 의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청업체 그 관계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원청과 하청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군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하고 우리 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사업된 만큼 사업비가 다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 하자는 없습니다.

○ 김재홍 의원

적극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금면 돈사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 두 분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네요. 행정과 고금면 주민대표가 적극 대응하고 있고 2개소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법원 판결을 검토만 할 뿐이죠? (예)

이 소송이 패소할 경우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2심이라든가 패소가 된다면…… 본의원은 그래요. 제2의, 제3의 고금 돈사가 출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기구 정원 적정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무래도 우리 군은 수산군이기 때문에 수산 분야하고 관광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분야의 행정을 수행하면서 조직들에 대한 정원관리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정원을 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은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지, 약산, 보길, 금당, 생일면의 경우에는 수산직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어민들에게 가끔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도대체 완도군이 수산군이냐고, 민원 처리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수산정보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하소연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 읍면…… 즉, 수산행정이 잘 이루어지겠는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다섯 개의 읍면에 수산직이 배치되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임용시험에서 저희들이 수산직 3명을 보충요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3명이 합격되어서요, 아마 9월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에도 충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3명 가지고 되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3명하고 본청에서도 이번에 아직 읍면 안 내려간 직원들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5명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전에는 이렇게 수산직렬이 부족하지 않았었죠,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 최정욱 의원

오히려 오면서 수산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것은 수산직렬이고, 농업에서도 이렇게 보면 농기계 임대 같은 것도, 내가 누차 몇 번에 걸쳐서 그 농기계…… 농민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떤 경운기 같은 것도 간단하게 부속 하나 얼른 가서 고치면 되는데, 수리한다고…… 이동수리 이런 것은 보고회 때는 잘하는데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딱 1명 있어요, 1명 있어 가지고 1명이 나가버리면 임대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수리하러 가지를 못해요, 그것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안 주니까 못한 것으로 내가 파악되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직렬이나 이런 농업에 대한 직렬, 이런 부족한 인원을……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대로 직원들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원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택이라도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택으로라도 해야 되잖아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부족해서 출장 수리를 못가고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청취불능) 혼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무원 직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요, 9월 중에 인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순환보직 형태로 해가지고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조금 전에도 했지만 수산직렬, 또 농업의 임대

사업 같은 그런 직렬들 그 요소요소 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반기 때 조직개편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때 정말로 하반기 조직개편 때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에 대하여 깊이 분석한 후, 완도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인원이 보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직렬은 어떠냐고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기금의 정원의 적정관리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직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략 7~8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7~8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직장 내 일련의 사건들도 잘 알고 계시구면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정에 미치는, 민원인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따로 현재 그런 직원들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이런 직원들로 인해서 선량한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그

런 조직의 통합 장애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도 하지 않고 불친절하고 책임감도 없고, 또 직원들과의 화합과 소통도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들 업무만 과중되고, 직장 분위기도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 잘하는 직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일련의 이런 사태들을요? (예)

뭐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들도 서로 민원인들이 오면 너 일, 내 일이라고 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이런 다툼들이 직장 내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법에까지 호소하는 이런 실정이죠, 우리 군이?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습니까, 뭐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직 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그런 소극적이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공무원 퇴출 관련 보도한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서울시에서 근무성적이 나쁘거나 무능력한 직원들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서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도 과감히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법 제65조의 3항 제1항 제1호를 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위 해제를 위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명령을 할 수 있고,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의 직권면직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이제는 공무원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품의…… 품성과 자질이 없다면 과감히 직권면직 등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의 무사 안일주의나 태만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는 임용고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채로도 들어오고, 여러 방향으로 공무원들을 채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무원들을 메꾸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에다가, 도 인사위원회에다가 면접 사항에서 면접을 철저하게 봐가지고요. 거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도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도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가지고 의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에서 면접 좀 잘 해가지고 우리 군으로 내려주라고, 우리 지방으로 내려주라고, 면접을 엉망으로 보다 보니까 직원들에게서 일련의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

니까 과장님이 도 인사과에다가 면접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보라고,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직장 내에 맞는가. 우리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도에다가 권의를 드려가지고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인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러겠습니다. 도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서울시도 아니까 우리 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어 있으니깐.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중에 불성실한 공무원들, 또 직원들 간에 일도 안 하고……

그런 직원들이 방금 과장님은 7~8명이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더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1년에 최정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산직이나 기술직렬들이 많이 부족한 편 아닙니까. 그런 부족한 데에서도 자꾸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더 많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조항들이 있으니까 법적조항에 맞게끔 직원들요, 여기에 맞는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를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속개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께서 주민과의 면담이 있어 배석하지 못하였으며, 정석호 부군수께서도 2019년 전남생물진흥원 제2차 이사회 회의가 도청에서 있어 끝까지 배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 등 15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허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등급제는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해 왔는데, 장애등급 폐지 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동안 지원지침에 의거해서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보호,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개별적 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여론이 조성되어 지난 7월 1일자로 장애인등급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판단되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로, 2단계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금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내용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할까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장애인 복지서비스 필요도에 따라서 장애인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서 7월부터 활동 지원(청취불능) 응급안전 주거활동에 우선 적용되고, 2020년에는 이동 지원 서비스, '22년에는 소득 고용 지원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과 관련된 장애인 수당과 장애인 연금은 변동되지 않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런데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사례가 생기거나 주민 불편과 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될 텐데, 아마 그것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간혹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 지급수당은 변동이 없고요, 장애인 관련해서 수당하고 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을 옛날에는 1, 2, 3등급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확대되었기 때문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정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활동지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울러서 장애등급제 폐지 말고도 복지혜택을 주민들이 몰라서 못받는 사례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모르고, 그런 부분은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5쪽, 저소득층 자활사업에 대해서요, 84명인데 읍면이 19명이고 나머지 자활센터가 9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이 왜 이렇게…… 읍면 배당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들 중에서도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국민기초수급자가 거의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8세 이상 65세 미만이 국민기초수급자 바깥에 되는데요, 18세 미만이라든지 65세 이상이 보편적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은 장애인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자활사업이 갈수록 다른 데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들어오는 숫자는 다 수용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쪽, 제가 어르신들 목욕권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고 계셔 가지고 정

말 어르신들이 잘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목욕탕, 이발관, 미장원 이렇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없습니다.

○ 우성자 의원

세 군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세 군데.

○ 우성자 의원

세 군데 각각…… 그러면 몇 업체나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지금…… 목욕업체는 다 들어갔고, 100% 들었고요.

○ 우성자 의원

전체 목욕탕이 거의 다 들어갔다는 그 말씀이 시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이용업소, 이용업소는 손님을 안 받으신다고…… 젊으신 분들이 안 받기로 해서 거기 업체 때문에 한 10%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거의 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젊으신 분들은 노인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영업 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안 받는 것으로…… 신청을 안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그 선정과정이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선정되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등록해서 신청서를 저희들이 교부해 드렸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보니까 군에서 선정대상을 고르고 이런 상관은 없고, 하시는 분들을 다 받아준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등록업체에 한해서 기회를 줍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혹시 목욕권을 가지고 가신 분하고 현금을 가지고 가신 분하고 대우가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약간 신문…… 원도신문에도 나왔습시다마는 현금을 가지고 가신 분을 더 대우해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완도읍에서 특히나 많은…… 섬에는 없습시다마는 완도읍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교육을 언제 몇 번하셨나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어떤 목욕탕을 지정하기 어렵습시다마는 그런 목욕탕이 있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가서 지도와 계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업체사장이 처음에는 약간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1,000원을 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무 강압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업체가 그렇게 호응해 주니까 협조해 주시라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고 협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제가 직접 목욕탕에 가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주말에 토요일에 가고, 일요일에도 가고 이틀 목욕을 갔거든요. 이 주 말고 6월에 제가 가봤는데

요, 첫날은 목욕권을 가지고 네 사람이 가니까 위에 사물함 위층을 주더라고요. 아니, 현금을 가지고 가니까 사물함 위층을 줬거든요. 다음날은 목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층 사물함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욕을 같이 간 사람들한테, 그랬더니 목욕권을 가지고 가면 사물함 2층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아래층만 주고, 그래 가지고 가신 분이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불편한데 아래층을 주니까 옆드려서 물건을 넣고 빼고 하기가 힘들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갔는데 아래층 사물함을 주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오래 있으면 내 물건을 꺼내고 싶어도 꺼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잘못해서 문이 열어지면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그 집은 원래 그러다고 그러라고요, 목욕권을 가지고 가면 사물함 아래층, 현금을 가지고 가면 2층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욕권은 현금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똑같은 것인데, 노인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시고요.

내가 어느 목욕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하지만 말할 수…… 제가 직접 해봤으니까요.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가지고 한번 목욕업소 사장님들이라든지 교육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금이라는 것을……

그달 그달 계산을 안 해줍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목욕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받으면 그 달에 돈을 환불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꼭 알아보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좀 관련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고금청년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주택 개량사업을 해줍니다. 수리해서, 청년회에서요. 그런데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집을 수리하는데 저희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화장실만 좀 군에서 사업으로 받아주면 어떨까요 물어보더라고요. 면장님이 물어봤는데 이것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더 이상 저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서도 청년회에서 이렇게 주택 개량사업, 이런 것을 봉사로 하는 면도 있습니까? 혹시 해당하고 하는 분이나……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고금청년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우성자 의원

다른 청년회는 해주라는 데는 없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나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 어렵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서 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를 아름답게 하는데 화장실이라도 조금 보조해 주시면 부담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행복동지사업이 주택협회하고 도와고 군하고 3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건으로 해가지고 1,100만 원을 지원 받았고요. 2018년도에 3건 해서 2,000만 원을 받았습시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허궁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신지주택을 개보수하면서 호응도가 높아서요. 올해는 6개 가구에 7,300만 원을 지원 받았습시다. 그런데 고금면에 2건이…… 주택 신축하고 출입문 내부 창호, 도배, 장판, 전기시설로 해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아니, 그것은 수급자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이 청년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분.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닌 분은 행복복지재단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른 데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었던데요. 보조 좀 해주라고 하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70% 선상이 된다고, 주긴 줘도 저희들은 80% 소득…… 이 커트라인을 정해 뒀습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조건이 있습니다마는……

○ 우성자 의원

청년회에서 봉사로 집을 고쳐드리는 분이 다 노령하고 가난하신 분이시, 돈이 있는 분이 이렇게…… 자식들이 하지, 청년회에서 하겠습니까? 혹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공동모금회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꼭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예요, 보훈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명예 존중과 보살핌은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 보훈단체가 11개 맞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11개 단체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본의원이 알고로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기념행사 등에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보훈 급여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다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훈탑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굉장하…… 차도 개설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그래서 충훈탑의 접근성을, 편리성을 도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5년부터 계속 장애인단체…… 아니, 보훈단체에서 신축을 건의해 왔습니다. 세 번째 시도를 했다가 다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9개 단체가 함께 쓸 수 있는 종합보훈회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정욱 의원

충훈탑은 지금 접근성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들리는데, 어디 도로를 한 쪽으로 여기를 다시 튼다는 등, 옮긴다는 등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어떤 말이 맞을까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보훈단체에서 4년 전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

습니다. 충훈탑을 이설해 주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 전 회기 때 그때 거론됐었습니다. 그때 천양숙 의원님이 정식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옮겨주라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옮겨주려고 하다 보니 상징성이고 충훈탑이 다른 데를 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보훈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반절 이상이 반대를 하고, 특히 읍면에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로 저희들이 위치까지 선정했습니다마는 장보고동상이 있는 곳이 적지라고 몇 번 전문가를 모시고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충훈탑이 건립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치까지 선정했습니다마는 장보고동상이 있는 쪽이 적지라고 몇 번 전문가를 모셔다가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충훈탑이 건립될 경우, 접근성이 안 좋아서 다른 읍면에서 참석을 안 하겠다는 여론이 비등해서 그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무산했고요. 지금 올라가는 길에 보훈단체에서 나이가 드셔서, 연로하셔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설치까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무산되었고요.

올해 현충일 기념행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변영화하고 같이, 보훈단체에서 건의해서 변영화하고 두 군데…… 저기 중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하고 저 밑에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 길 두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데요. 두 채 정도가 비워져야 됩니다. 집 두 채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우선 용역 몇 필지가 들어가는지 면적이 합산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옮기는 것은 아니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옮기는 것은…… 예,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그러면 차가 올라갈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습니다. 차도가 개설되는 것으로 추진……

○ 최정욱 의원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의원들한테 들어와서 어떤 질문을 할 때 황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먼저 알려주시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지금 몇 필지가 들어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그래서요. 그것만 데이터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몇 필지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필지 모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1안, 2안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는 밖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황당하죠.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미리 의회와 협의해도 좋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진단 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최정욱 의원

보훈가족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보훈단체의 여론입니다.

○ 최정욱 의원

보훈단체 관련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과정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종합사무실 신축을 건의했습니다. 2016년 4월에 보훈단체 임원 회의를 했는데요. 사무실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5개 단체…… 무공수군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독립유공자회 5개 단체가 제향군인회 사무실을 증축,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고 입주 확인 의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모 보훈단체의 입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7년 5월에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완도를 개포리 (구)한전 관사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요구하였으나 부결되었으며, 2017년 7월 보훈단체와 협의하여 현 보훈회관 부지에 보훈회관을 건립 의결하고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12월 완도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부지매입을 추진하던 중 2018년 4월에 보훈단체 건립 의견 불일치로 건립이 무산되어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보훈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재건 의해 옴에 따라 내년도 보훈회관 건립비 국비보조금 5억 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종합보훈회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립 부지는 군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계획은 갖고 있네요, 보훈회관 건립?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내년 예산 신청을 우선 했습니다. 저 분들이 건의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지는 확정 안 됐고요. 부지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한 목소리가 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두 번을…… 아까 제가 서두에 경과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무산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이 합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목소리로 추진해야 만이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요, 보훈단체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3월에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
나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280평으로 계산하고 있고요, 한 4층
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2층, 3층은 사무실, 4층은 대회의실로 해서 그렇
게 28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대지는 어느 정도로 보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대지는 일단 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부지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최하 3층 건물의 사업비는 되어야 된다는 얘
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층 정도의 규모면…… 사업비가 필요
할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
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사업비는 대강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 19억 정
도가 필요하고요, 국도가…… 5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권기금하고 군비로
충원해서 2021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
니다.

○ 최정욱 의원

국비와 군비 말고 금방 뭐라고 했어요, 어디라
고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복권기금아……

○ 최정욱 의원

거기에서는 얼마 정도……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5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매년.

○ 최정욱 의원

10억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50억을 전라남도에 배정해 줍니다.

○ 최정욱 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예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거기에서 치열하게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하여튼 그 계획이 세워졌으면 예산에 잘 반영
해서 꼭 잘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
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6페이지지요,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삼두리 추모공원에 지금 1억을 들여서 수목장을
조성하셨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지난 6월에 저기를 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뭐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자연장지의 목적은 지금 분묘를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서 면적을 축소하자는 측
면도 있고요,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의원

본의원의 지역구가 거기인지는 알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봉안당 뒤에 보면 굳이 수목장을…… 봉안당 뒤편에 보면 수목장하기 좋은 데가 있는데 꼭 도로 인접지역에다가 수목장을 조성해야 되는지 납득이 좀 안 되어서요.

과장님, 추모공원에 가보셨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자주 가봤습니다.

○ 김재홍 의원

봉안당 뒤에 올라가면 아주 나무가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놔두고 굳이 도로변에다가 수목장을 꼭 조성해야 되는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당초에는 그 뒤에 산까지, 넘어가는 산까지 그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삼두리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줄어들면서 수목장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이 23주로 축소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수목장을 개장했는데 2년 반 만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이 되어서 수목장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 김재홍 의원

지금도 그러면 수목장을 많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수목장이 지금 만장되어 있어서 더 이상 수목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 김재홍 의원

그런데 보면 지금 봉안당을 많이 안 찾잖아

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봉안당은 축소가 안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규모 자체가 축소되지 않고요. 수목장만 삼두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이 한 반절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지금 앞에 수목장을요, 국도도 77호선인데 양쪽에 묘지가 보여서 안 좋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반영해서 (청취불능) 우선 묘지를 가리는데 그 수종을 완도 호랑가시나무로 식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수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면적이고요. 10년 이후에는 봉안당 뒤쪽으로 개관해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요 근래도 추모공원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계속 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요, 동에 보면 거의 잔디가 없어요, 잔디가. 거의 흙이에요. 그래 가지고 옛날 보면 공동묘지 형식으로 이렇게 잔디가 많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거기 묘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계획은 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2월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이유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잔디 상태도…… 매년 300만 원 이상을 들여서 잔디에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군비를 좀 출연하는 측면에서 산림, 임업……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2월에 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여러 번 가봅니다마는 잔디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 김재홍 의원

잔디를 잘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봐서는 위탁을 줘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지금 거기에 거름도 하고 있고요, 시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도 하고 있고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 그것을 네이비에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보니까 “문화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추모공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모셨던 분들,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가족들이 왔을 때 상당히 아늑하게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정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 친환경공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경로당시설물 관련해서 간단히 하 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경로당 304개, 노인복지회관 1개, 노인회관 5개, 총 310개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 시설물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래요. 자료 한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금일 화목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1994년도에 이것이 건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기능이 전부 다 상실되어 가지고 지금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맞습니다. 노인 금일분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금일분회가…… 저희들이 몇 번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때 50만 원, 2010년에 60만 원으로 임대를 해서 노인회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번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노인회 분들이 너무 고집이 세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폐지를 하고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세무회계과와 잘 정리를 해서요.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310개소를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진짜 의미가 없는 데는 매각도 하고 또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저한테 한 번 결과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16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 체도와 떨어져서 형성되고 있는 외판섬이 지금 44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외판 섬, 따로 배를 뒀 2번 탄다든가 여러 번 타고 다니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304개소고요. 외판섬은 2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군정…… 작년도에 군정 질문이나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제안했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과장님하고 같이 대면하면 사회적인 형평성이랄까, 또 예산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의원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요.

외판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점심은 공동으로 먹고 또 저녁이면 개별적으로 집에서 생활하고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이도 드시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그런 부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좀 솔직히 노인들의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랄까, 어려운 그런 생활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부식비라도 한 50%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인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러겠 지만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아주 외판섬들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편이 원활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부식비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들의 마련을 좀…… 다시 한 번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의원님께서 이전에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시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섬지역의 부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례를 파악해 봤 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로당 운영비를 300만 원부터 408만 원까지 4개의 단계로 규모하고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식비가 좀 부족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섬지역에 있는 그런 21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더 협의해서, 긴밀해서 협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또 이번에 얘기해서 안 되면 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외판 곳에서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저 의 취지가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신다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의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업무보고, 임시회 본회의를 한다고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고를 하죠, 의장님?

○ 의장 조인호

예.

○ 박인철 의원

오늘 군수님 이하 집행부들의 의회 참석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부군수는 전남해양생물진흥원으로…… 군수님은 그렇다 치고 이사회에…… 제가 알아보니 뭐 별로 중요한 회의도 아닙니다. 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부군수가 불참하고, 군청 앞 광장 도시공원사업 중간보고회, 기후변화에 따른 해조류양식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아니, 하필 의회가 열리는 날 이런 일정을 잡습니까. 의장님,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인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군수님이 불참하게 되면 최소한 부군수라도 자리에 앉아서 있어야 되는데, 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이사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사회인데 이런 것을 핑계대고 여기에 참석도 안 하고, 지금 내가 가만히 봐보니까 여기에 안 나와 있는 몇몇 소장이나 과장도 있어요. 보고도 안 하고 불참한…… 여기에 불참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의회의 시간을 비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만연되어 있어요.

의장님, 이것은 각별히 집행부에 경고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요.

○ 의장 조인호

예, 이 부분은 참고하고 내일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지원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단설립 후 4년 정도가 됐는데 과장님, 그동안 성과분석 한번 해보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재단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해서 경영실적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성과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한 번도 성과분석을 안 해봤습니까?

아니, 법적근거를 떠나서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3년에 한 번씩은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다면 4년이나 됐는데…… 법률상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이 행복복지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성과분석이…… 과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하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내년에 재단이 5년차이기 때문에 이사진이 다시 설립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업무보고에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행복복지재단에서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성과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해당사업 연말 현재의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은 어떻게 다 구비되어 있습니까, 제출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작우지간 2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요. 그래서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2월에 제출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요, 있으면 본의원에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5억인데 마을기업체, 자영업자, 출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기타 1억이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일정별로 기업체는 누구, 마을은 어디, 출향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세부모금 계획입니다. 기부금이 3억 원, 지정기탁금이 5,000만 원, 후원물품이 5,000만 원, 행복전도사 1인 1구좌가 4,000만 원, 승진, 영전 시 축하기부금이 500만 원, 1일 찻집 1,000만 원, 판매수입금 지정기부 2,500만 원, 급여 끝전 모으기 1,000만 원이며 출향인에게도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동자료에 의하면 “관내”와 “관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부금 유형별로 보면 마을이 한 30%, 업체가 한 37%, 공무원이 12%, 주민이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매년 관외 기탁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지출 같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관외와 관내의 비율입니다. 관외에서 전년도에 6,500만 원이 기부되었습니다. 먼저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외에서 기부에 따른 홍보 및 접촉활동이 너무 미흡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관외활동을 어떻게…… 이것은 뭐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사들이나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 기부금…… 기부금은 재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체 관여할 수도…… 기부법에 의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마을이 많이 차지했는데, 이 마을도 우리가 한번…… 과장님, 여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마을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들을 하면 우스개 소리로 사업하려고 군에다가 행복복지기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읍면별로, 각 마을별로 돈이 얼마 있겠습니까마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꼭 군수님과 면담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내놓고 마을의 숙원사업들을 이렇게 해갑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다면 관내보다는 관외 분들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더 동조하고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관외활동을 강화해야 된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과장님이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도 이사하고 이사장을 새로 뽑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8월 말에 이사장이 한번 연임했기 때문에요, 8월 말에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결원이사가 한 분이 계십니다.

○ 박인철 의원

뭐 재단이사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결원이사만 뽑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뽑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결원이사만 뽑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벌써 행복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4년인데, 그러면 4년 연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중에 바뀌진 분도 한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중간에 단체장이 아니어서, 사회단체장이 아니어서 자기들이 다른…… 새로 선출되신 분이 교체가 됐고요. 지금 당연직이 군청에 두 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한 분을 이사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완도 그러면 의회…… 누가 이사입니까, 어떤 분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을 받아서 선임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때 그렇게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의회에서 한 명이라고…… 지금 의회에서 누구 추천한 분 없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제……

○ 박인철 의원

이사회가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이사를 뽑을 때 의회에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혹시 행복복지기금에서나 과장님이 우리 의장님한테 뭐 이사를 추천하라는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아작?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 이후로는 한 분씩만 결원되고…… 한 분씩, 한 분씩만 결원됐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 후에 협의를 해서 두 분 이상 되면 한번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이사하고…… 이사장은 누가 뽑습니까, 어디에서 뽑습니까? 군수님이 뽑습니까? 아니면 이 이사회에서 뽑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사장은 이사 중에 소속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냐면요. 벌써 시중에는, 향간에는 현직 이사장 다음으로 누가 이사장을 한다고 뭐 들어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다 회자되어 가지고 있어요. 누가 이사장을 한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라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사들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사들. 이것이 지금 이사들이나 이사장이 중점적으로 해서 이 행복복지기금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거의 주민복지과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들이 공모를 일찍 해버릴 수도 없고요. 사무실도 군청 내에 둘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일체 관여하지는 않고요.

○ 박인철 의원

아니, 군청 내에 두고 있고…… 애당초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 군에서 50억을 출연했고, 다 그런 것이 밑거름으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은…… 재단법인의 모든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이사가 하고 대내외적 업무집행과 대내외적 대표권을 갖는 것은 이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사들이 어떤 분들인지 면면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어떤 분들이 이사라고 한 번도 설명도 없고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가 활성화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사들이 대도시의 경제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출향인을 잘 파악하여 아침형 방문활동을

한다면 소기의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을에서 기탁한 것은 순수한 기탁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물론 순수한 기탁도 있겠지만 거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온, 군수님 면담을 하면서…… 그런 금액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물론 복지재단에서 의회에 와서 전체 의원들 아니면 의장한테라도 어쨌어쨌한 사업을 한다는, 이런 설명을 해주면 좋는데 전혀…… 우리 의회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참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 나가 복지재단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야…… 복지기금이 많이 걷히면 좋지만 거의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이야기할 게요. 마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넓게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사회가 구성되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듯이 한번 얼굴도 안 마주쳐봤는데 그 이사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부금 조성요요, 과장님, 다변화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 박인철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추진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여성아동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여성아동 그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한번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금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러면 지급대상이 1,90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우리 완도군 대상 아동은 1,905명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9월부터는 7세 미만까지 그 수당을 준다고 그렇게 했다던데, 계획대로 완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정부정책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 우성자 의원

아직 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수당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7세 미만까지 된다면.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만큼 국비 지원 대비 지방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우성자 의원

제가 아동수당과 관련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때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는 고향사랑상품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0%는 상품권으로 같이 공유하면 어떻겠냐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고향사랑상품권을 50%로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고향사랑상품권이 완도군에 시행됐기 때문에 이 아동수당 지침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좌 입금으로 해서 통장 지급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을 세밀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때 2월에 내가 그 말을 한 것 같은데.

성남시나 군산시 같은 이런 경우도 학부형들에게 엄청 반발이 심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상품권으로 했을 때.

그러나 지금 완도읍만 보더라도 뭐 옷가게든 이런 가게들이 하루에 한 벌도 못 파네, 어찌네. 가게가 지금 텅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것은 좀 짐작하시죠? (예)

그래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부가 같이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시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꼭 그게 실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것은 지침을 확인하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리고 2020년도에 어린이복합센터 건립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규모, 뭐 사업비,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이 사업이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그 안에 어린이..... 아이돌봄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관련, 그다음에 가족센터까지 이렇게 겸한 그런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일단 수요 신청은 도를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에 그게 반영이..... 신청해서 다시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먼저 사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사전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전에 다문화가정 한글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자국어하고 한국어하고 동시에 나오는 그런 책자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계장님한테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연 초에 해주셔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세워서 지금 대상자 88가구를 선정했구요. 그 한글교구에 대한 구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아, 그랬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꼭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한국어를 빨리 익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성이장 상사업비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년에 한번 주든지, 아니면 연말에 2,0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없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맞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읍면에 16개…… 5개 읍면에 16명의 이장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의 상사업비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시설비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져서 물품 구매…… 시설사업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읍면에 사업 중단 지시를 5월경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16개 마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추경에 증액해서 마을당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질적인 시설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우성자 의원

제가 이장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냐. 경로당에 뭐 필요한 것을 보수하고, 심지어는 정말 절실하지 않아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올려주시든지, 아니면 2년 만에 1번씩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2,000만 원으로 사업 1건이라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2,000만 원이면, 한 마을에 2,000만 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장이장도 몇 명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혹시 또 여장이장이 많이 나올지 않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 때 그 1,000만 원씩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 편성을 2,000만 원씩 해서 읍면에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과장님, 인구는 우리 군의 존립근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 이범성 의원

먼저 인구가 너무나 감소하고…… 얼마 안 있으면 5만이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5만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나머지 일들이 따를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는 전출이 더 높은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전입보다 전출이 더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0~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부모와 자녀가 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요. 역으로 60대에서 70대의 고령 노령층이 일부 전입은 들어오는데, 그게 전출이 전입

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인구가 매년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의 생각이나 본의원의 생각이나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하여튼 뭐 이쪽 완도에서 돈을 좀 벌고 그러면 부동산 매입 때문에 당연히 빠져 나가고, 또 자녀들 교육, 서울 대학교라도 보내려면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들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실거주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실거주 인구수보다는 많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게 참 문제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련부서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또 주민등록이 우리 군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완도로 좀 옮기게끔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등록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꼭 좀…… 그 부분에 엄청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방소멸 위험지수,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고흥하고 신안군이 30년 이내에 소멸 가능성이 있고 우리 군도 소멸 위험지수가 0.254,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

거든요. 그래서 발표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가장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군정질문 시 그때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더니 인구 늘리기 2.0정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은 인구 늘리기 정책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때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과장님, 출산장려정책이 인구 늘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일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전혀 뭐 안 준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죠) 본의원은 이제부터 실행이 가능하고 또 효과가 있는 정책을 더 발굴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 군에서 어촌이나 아니면 농촌 저쪽 섬 쪽으로 가면 장가를 못가고……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 전체 전수조사를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요.

○ 이범성 의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인구를 늘린다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 우리가 컨설팅을 통하든지, 컨설팅들을 군에서 좀 부담을 하더라도요, 결혼을 못해,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결을 시켜 가지고, 만약 베트남으로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온다든가 했을 때는 일거양득이라고…… 여자도 데리고 오고 와서 아이도 3명을 낳아버렸다. 그러면 무조건 인구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장님, 이 부분을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하니까 “좀 그것 별 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좀 깊이 있게 해가지고 군에서……

어떻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짜가지고요. 어떤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그런 컨설팅 이랄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요. 자, 금일에 가면 몇 명이 있더라. 아니면 노화에 가면 몇 명이 있더라. 꼭 그런 부분들에 결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 대책을 세우고, 예산도 세워가지고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요. 꼭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좋으신 제안입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수 조사를 먼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 특수시책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명심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계속 저는 물고 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구가 우리 군 소멸 여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해 가지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 과를 세운 시군이 4개 시군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죠. 그것은 자기들이 생존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완도군 같은 경우는 해양치유과랄까, 더 귀중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해양치유과만 되어 버리면 인구가 원 없이 다 와버릴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들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기는 하지만, 또 금방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좀 짚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실과소간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손을 얹어 놓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지난 4월에 광주전남연구원에 완도군 인구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인구라고 하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출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정주여건. 쉽게 말해 군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포함된 것이 인구종합대책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과별로 60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실과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한 차례에 종합보고회를 개최했고, 이달 말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보고회를 군수님 주재로 합니다. 그 이후에 인구정책기본조례에 의해서 인구정책협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이 안건을 인구정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법제근거, 예산 지원근거라든가 전부 그런 것을 절차대로 이행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실과에서 지금 현재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손을 얹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본의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인구정책은 여성아동과만의 업무이지, 타 실과소의 관심은 전혀…… 여성아동과에서 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도 뭐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 완도로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들이 협조체제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뭐 조직개편을 하든지 인구정책에 하여튼 커다란 중점을 두고요. 뭐 과가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도 일찍 그런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아니면 TF팀이 제대로 딱 구성되어 가지고 인구정책에 대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좀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라서 5만 인구가 저는 마지노선이라 정하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회 유관기관 단체 및 전 군민

이 참여한 인구 감소 최소화정책을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나중에 인구 감소가…… 계속 이런 정도로 줄어간다는 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 못갈 것 같아서 이렇게 조바심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특별하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보완해 가지고 계속 열심히 인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월 31일로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하셨죠? (예)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센터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5개 영역에 41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재검토를 지금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또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또 이혼 또는 가출한 다문화가정이 완도군에 389가구 중에서 42가구가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다문화 복지서비스를 한번 새롭게 추진해 보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하반기에 시작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종사자가 센터장님을 합쳐서 열네 분이서 하고 있죠? (예)

특정상 야간근무를 하고 주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사업별로 야간이나 주말에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러면 야간과 주말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야간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아, 야간에요? (예)

그리고 제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노화 청소년문화의집은 군에서 직영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직영합니다.

○ 박재선 의원

위탁자가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때 당시에 위탁자가 나오지 않아서,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지어 가지고 바로 군에서 직영……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2명……

○ 박재선 의원

1명이요, 1명.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1명…… 정확하게 잘……

○ 박재선 의원

예, 그것 장소가 제가 봐서는 문제인 것 같아

요.

자료를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고 지역에 차량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꽉 막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장소가 놀이터 장소였는데 없애고 저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생겼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갈 곳이 없어요, 저 장소가. 왜 저런 장소에다가 처음에 지었는지 저도 참 의문스럽지만 지나간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금년도 사업비를 보니까요,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또 3억 3,40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운영비는…… 아니, 사업비는 어디에 쓰일 계획입니까? 운영비는 따로 있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운영비는 2,700만 원이고 3개 사업에 사업비가…… 3,400만 원 정도는 별도……

○ 박재선 의원

그러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거기에……

○ 박재선 의원

없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노화 청소년센터에서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악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3,400만 원 별도로…… 세부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아, 그것까지 다 하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거기 노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하고 횟수를 정해서요,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마련한 후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5쪽이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저희들이……

○ 허궁희 의원

군에서 직접 사업은 안 하고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약 5개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사업하고 국적 취득비용, 건강검진 지원 및…… 그다음에 친정어머니 되어 주기 사업 등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신지에도 상당히 많고, 꼭 제가 지역을 염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분들이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즐기는 문화를 가지려고 하더라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렇죠, 여러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죠? (예)
저한테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팀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이분
들한테 문화센터에서는 “완도읍으로 나와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지 같
은 경우.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아
요. 한 30~40명, 40명 안팎이 되니까…… 다는
안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나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나
면 일주일 내내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2~3일 정
도는 야간에 모여서요. 낮에는 주로 다 이렇게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바다면 바다
이렇게 농사면 농사,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
간이 없고, 야간에 이렇게 시간이 나는 대로 자
기들이 한글교육을 받고 싶고, 또 거기 시간이
되면 문화체험으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법이나
이런 것을……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일찍 우리나
라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20~30년 정도 되
더라고요, 이 연수가. 상당히 오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이것이에요, 전문강사 이런 사람보다. 그
리고 지금 현재 가정들이 여유롭지 못하니까 야
간에 차를 타고 나오기가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완도읍으로.

이 얘기를 자주 여러 차례 해서…… 우리 팀
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이것입니
다. 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것
보다 현재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지원만 좀 해서 차근차근 이런 방안을 찾아
줘 봐야 되지 않겠냐.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
는 어떠신지 한번……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그 수요를 파악해
서 하반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
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을 꼭 해서 그분들의 사기도
살려주고, 또 고향에 가서 자랑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삶이 이렇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그
러면 아마 한국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
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잘 알겠습
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마치
고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이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1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민원봉사과
- 문화체육과
- 세무회계과
- 경제교통과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권 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추진 외 13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감사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꼭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심각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래도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여권 발급을 18시에서 20시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건수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늦게 다 퇴근하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바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은 참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생스럽더라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보고 기획보고에는 있었는데 실적보고에는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도가 낮아서 제외시켰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있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 민원봉사과장 권혁

2019년도 사업물량은 약 50동인데요.

지금까지 이 사업의 문제점이 기존 건물주의

동의를 있어야 만이 정비되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동당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적어 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가 무엇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대표브랜드요?

○ 우성자 의원

예.

○ 민원봉사과장 권혁

대표브랜드라고 하면…… 주소득은 수산업이기 때문에.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제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그런 브랜드를 내놓기까지는 깨끗하고 또 신선하고 모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접근한다면 관내의 폐가가 보기에 흉물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범죄지역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공간인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이런 빈집들을 예산이 적어서 손 놓고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손 놓고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인도 설득하고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혹시 빈집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특별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계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이번에 새로 조정된 규정인데요,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주문 중에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따른 특례법이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빈집 철거는 자진 및 직권철거,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이러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앉으십시오. 일단 앉으시고.

제가 이런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례법을 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또 주요 내용을 보니까 군수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유자에 대한 철거명령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도대체…… 빈집이 정비되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관련법이 시행 중인지를 파악을 미처 못 했지만 앞으로 이런 법을 잘 활용해서 관내 청정이미지에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빈집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빈집뱅크제를 추진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빈집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그러면 읍면에서 이장들한테 빈집 수요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오라고 하면 이장들이 수요조사를 빈집 몇 번째, 몇 호, 몇 채 이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이장이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빈집 철거를 하겠습니까. 현재 우리 마을도 완전히 두 가구가 문이 바람이 불면 들락

거리고,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장들한테만 맡기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대부분 어려서 집을 나가신 분이고, 부모가 살다가 돌아가셔서 출타하신 그런 가정인데, 그 집을 절대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뭐 정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그 사람들의 친척을 찾는다는지, 누구를 찾는다는지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요,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이장하고 상의해서 찾아가 보고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만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지붕을 벗겨주고 뭐 철거해주고…… 지붕을 벗겨주는데 100만 원, 뭐 철거하는데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거기를.

그러면 이 특례법에 대해서 너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의원님의 말씀처럼요. 이후에라도 읍면에 진짜 흉물로 남아있는 공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건물주를 파악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설득하고,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읍면으로도 한번 시행을 해주십시오. (예)

빈집이 그래도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쓰러지기 직전이고, 아까 봤지 않습니까, 문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지나가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누구하나 그것을 손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사명감을 갖고 진짜 흉물스러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

입니다.

용자금 회수에 대하여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니까 미수납이 8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원금이 1억 5,000이고 이자가 6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주택자금 미납액에 대하여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냥 이자가 71.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 부담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재산 조회나 소재 파악 등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 우성자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계장님, 모르십니까?

(방청석에서 “현재 고액 연체되고 있는 사람들은 실태 파악을 다 했습니다. 재산이라든가 뭐 현재 주거상태라든가, 전부 파악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냈던 분들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용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도 우리가 재산이 회수할 금액이 얼마나, 이것만 보고 있지 말고, 정말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불용 처리해 가지고요.

머리가 맑아야지, 머리만 복잡하게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꼭 좀 신경을 써가지고 확인해 주시고.

제가 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가져다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어려우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8쪽,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여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읍 단위만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 김양훈 의원

이것이 쉽게 말하면 하수나 이런 지하에다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중복 굴착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현재 노화하고 완도읍 두 군데가 완료되어 있는데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부분은 그동안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업체에서 어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할 때요, 실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관련기관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활용도가 많이 낮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업무가 연계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맑은물사업소장님, 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것도 업무 연계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완도읍은 14억 5,000만 원을 들어서 완공이 됐었고, 노화는 6억 6,000만 원 정도 용역비로 추진하셨죠? (예)

지금 도시지역 도로가 몇 군데 있습니까, 완도

에?

○ 민원봉사과장 권혁

도시계획도로요?

○ 김양훈 의원

아니, 도시지역 도로.

○ 민원봉사과장 권혁

도시……

○ 김양훈 의원

지역도로.

○ 민원봉사과장 권혁

도시 지역도로?

○ 김양훈 의원

지역도로.

○ 민원봉사과장 권혁

지역도로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공간정보계장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도시계획지역은 세 군데 있습니다. 완도읍, 노화읍, 금일읍.

○ 김양훈 의원

금일읍까지 세 군데가 있죠?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예.

○ 김양훈 의원

그러면 두 군데가 완료되었는데, 차후에 이 통합시스템을 금일에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보면 완도읍하고

노화읍하고 2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완료했고요. 금일하고 노화를 비슷하게 본다고 하면 한 6~7억 정도 더 들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이렇게 특별하게…… 낮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 부분도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업체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인식 부족이 있기 때문에……

○ 김양훈 의원

방금 그것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금일까지 한다고 그러면 27~2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완도, 노화, 금일까지 한다고 하면? (예)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과나 활용도를 깊이 분석한 후에 추진 여부를 해주시고, 홍보 부분을 한번 잘 좀 해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이런 예산이 확보되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이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그리고 완도군 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사업자가 자료요구 시 자료제공, 사업 준공 시에는 준공도면 및 지하시설물 등 작성 공문 성과심사를 득한 후, 전산에 탑재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 공간정보팀장 김경희

(좌석에서) 주무 실과 도로 굴착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는 안전건설과라든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하고요.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면 변경된 자료들을 우리한테 검수를 받고 준공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로 처리하도록 교육하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조례 18조에 보면 간단하게 (청취불능) 심사 공문을 첨부해 가지고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죠. 그것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팀장 김경희

(좌석에서) 예.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우리 군 지하매설물 추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완도읍 침수지역 정비, 노후 상수도 관거 교체, LPG 배관망 지하 매설사업 등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혀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아니면…… 그 사업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잘 관리해서 시스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허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 이것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11페이지,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신지 대곡리에 농업법인 라온이 신청한 3개의 돈사 신축,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좀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신지 대곡리 돈사 라온이 3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7월 25일에 건축물 및 관련 인허가가 접수됐고요. 올 1월에 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6월 26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재심의 사유는 기반시설, 즉 진입도로 확보 방안대책이 미흡하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및 이해 발생 저감 대책 제시 등으로 인해서 재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재심의도 중요하다는 지금 지역민들을…… 과장님이 바뀌시고 한 번도 현장에 안 가보셨죠? (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서 금곡리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그 심각성을 아실 거예요.

왜 과장님께 제가 이 질문을 묻게 되냐면 이전 과장님은 계속 거기를 관리해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가 달라서 아마 대비를 못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대비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에 큰 피해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그리고 자료를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 한 번쯤은 봤겠쥬. 못 보셨습니까? (예)

이게 현재 완도호텔 자리에 36층짜리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 부분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 허궁희 의원

그러죠.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부분은 `18년도 8월 31일에 건축허가가 전남도로 이렇게 접수되어 가지고 12월 19일에 전라남도 건축경관심의 조건부 의결됐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전라남도 건축허가 사전승인이 됐고요. 5월 2일에 전라남도 소방 성능위주 설계 심의 조건부 의결됐었습니다. 이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한번 내용을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제가 저런 것을 한번 묻게 되는 것이냐면 그쪽이 상당히 차들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닙니까. 수협, 뭐 아파트, 예식장, 음식트화거리 등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다른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를? 현도로 상태에서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그런 대비책은 없죠?

○ 민원봉사과장 권혁

거기가 당초에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길 때요. 거기가 당초 건물 내에다가…… 그쪽에 예식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식장이라든가 뭐 공공해수사우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가지고 전남도에다가 했는데요. 그 부분이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그래도 다소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 예식장 같은 것이 기존에 이 건물이 철거되면 다이아예식장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식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5~6월경에 다시마 위판시기에 집중적으로 화물차…… 다시마 차량들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간적으로 아침 잠깐 시간대에 위판이 완료되고 종료되기 때문에, 그

런 부분은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원이 있는 곳은 찾아가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해소한 다음에 발주하게끔 해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백세시대 평생학습관 운영 등 총 15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이충무공 기념사업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85억이라고 했는데 확보가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금년까지 49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0억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나머지는…… 내년도가 사업의 마지막 년도입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내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해서, 내년까지 다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사업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것이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사적평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사적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고 빨리 추진될 수도 있고,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왜 물어보냐면 이것이 끝나도 또 다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이 늦다 보면 다음 사업에도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도 저희들이…… 의회가 필요하면 저희가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꼭 준공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다 확정됐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총 사업비 85억 중에 전시영상관이 50억이고 관왕묘 재건사업이 20억,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5억이고 총 사업비가 85억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정유재란 테마 전시하고 영상관 그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시 영상관 건립을 위해서 사업비가 50억 정도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35억 정도, 그리고 전시 연출하는 그런 부분에 15억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2층 규모로 전시 영상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층은 영상체험관, 그리고 정보센터…… 휴게실과 사무실,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요, 2층에는 이순신관, 그리고 뭐 가리포청사관, 그리고 특별체험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전시 부분은 별도…… 아직 계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선 공간 구성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별도로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하여튼 과장님, 전시관하고 영상관이 50억인데 해양생태전시관도 5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시관도 50억인데 가서 보면 크게 이렇게 크게 좀…… 미비하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관하고 영상관 50억이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너무 이렇게 적게 짓다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예다가 영상관하고 전시관을 할 때 예산을 더 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이 사업이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최초에, 2017년도에 선정할 때 이 사업을 총 규모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 심의를 받아 가지고 85억으로 확정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년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사

업시기도…… 그런 부분에 와있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영상관…… 영상관 같은 경우는 제가 남해에 가서 한번 보니까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3D로 해서, 그러니까 50억을 가지고 전시관을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쓸모 있게…… 한 번 와서 보고 다음에 와서 또 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상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죠? (예)

중간용역보고 한 번…… 한 번도 저희들한테는 안 해줬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전시연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계약하고 발주가 되면 중간보고회…… 하여튼 수시로 보고회를 할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용역 보고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관광자원이 많이 지금 열악하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 뭐 체도권, 동부권…… 체도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다 열악하다고 봐야 됩니다.

○ 김양훈 의원

전체적으로 완도에 관광객들이 오면…… 모든 관광자원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부권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주요 체육 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이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00세 시대 건강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 체육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 잘 아시죠? (예)

거기에서 개소당 중앙정부에서 뭐 30억짜리 생활밀착형 30개소, 10억짜리 80개소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중앙정부에서 그런 주민밀착형 생활 SOC사업 관련해서 했었고, 우리 군도 이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군외 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군외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외에서도 말을 들어보니까 “좀 너무 적지 않느냐?”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추진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잘 좀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이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가지고 문화나 그런 운동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고금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금도 같은 경우는 군민체육센터에서 되어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가서 보면 그 활동들이 많이 지지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관이 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녁에 일이 끝나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운동을…… 고금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는데요, 다른 읍면에 가서 보면 일이 끝나고 나서 거의 술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불화도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쪽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부분을 좀 잘해서 본의원의 생각은 체육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그 부분 종합계획은 아직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때그때 사업도 읍면 실정 건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사급한 곳부터 사업을 지원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읍면별로, 아니면 권역별로 아니면 연차별로 중장기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적으로 특정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12개 읍면을 전부 다 봐가지고 종합계획을 한번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재원이 없으면 그냥 뭐 2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돈이 얼마 없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안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라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분량이 배가 돼서 연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빙그레시네마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빙그레시네마 지금 현재 반응이 좋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좋습니다.

○ 우성자 의원

좋고, 대도시에서 방영한지 얼마 안 된 그 유명한 기생충 영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몰랐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참…… 발 빠르게 잘 움직였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끔 영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묻는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문자를 한번 넣어주시면 어떤가, 영화를 할 때요. 다른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의원들한테도 한번 넣어주시면 우리가 “아, 오늘 무슨 영화를 하고 있구나.” 라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알고 있으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좋을수록 신경을 써서 앞으로 도 꼭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공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유명 연예인이 많이 오고 있죠, 완도군에?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공연을 저희들이 보보면 보통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줘야 그런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마다 너무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표를 못사니까 읍면에 기본으로 몇 장씩 나눠주면 어떠냐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그리고 그분들이 섬에서 꼭 그것을 보러 나온다고 보장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다시 읍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것도 번거롭고, 그러나 그분들이 표를 못사니까 왜 완도에서만 많이 보고 우리는 안 되냐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공연을 하는지, 표를 파는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4장씩 사는 그런 능력자도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 우성자 의원

그런 능력자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전화로 해가지고 한

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하면 내가 4장을 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하기 때문에 4장을 샀다는 것을 알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저희들도 어떨 때는 보러 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러.

그러나 표를 사려고 연구도 안 해봤고, 또 가지도 않았지만…… 정말 시골에서 가고 싶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올 때 못 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말까지 지어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너무 큰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논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각각 2명씩 있죠? (예)

전문적이고 다 이런 청소나 청결이 다 2명씩 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집에 일이 생겼거든지 아니면 무슨 일로 연가를 냈을 때 대체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오늘도 근무했는데 내일 또 근무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이 좀 아픔이 있었습니까라는 5월 말에 다시 재개장을 해서 운영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근무자가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해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요원 한 분, 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두 분이 6명씩, 6명씩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A조, B조 나눠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 과정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가를 내야 된다는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야 된다는가. 그러면 그 파트별로 2인 1조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근무를 한 사람이 핑크를 내면 다른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해야 되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현재 인사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조직개편하고 또 하반기에 인력충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수영장이 개장해 가지고 처음에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완도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는 근무를 어차피 해야 되지만 남의 근무까지 해주고 그럴 때 몸이 피로하고 마음이 불편하면 친절하게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친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몸이 불편한데.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정말로 실적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하루속히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이분들이 불평, 불만 없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군수님 공약사항인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선생과 동국진체를 테마로 한 거리 조성을 한다고 군수님께서 공약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뭐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용역은 8월 20일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이런 사업들이 용역이 완료되고 그러면 의회에도 한 번씩 보고를 해주면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할 때 부의장님하고 신지면 문화원 관계자를 같이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나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소요 사업비는 지금 얼마로 예상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종용역 결과물이 나와 봐야 아는데,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청취불능)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한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이 사업이 문화예술인 조성 관련사업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군특사업으로 편제되어 있다가 내년부터 문화 관련사업, 그리고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군특회계보조금에서 시도비로 지방 이양으로 되어서 시도비가 됩니다.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군특 재원은 시도비로 줍니다. 주고, 시도에서 도비와 해서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새롭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아마 확보하고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라남도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일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그리고 다른 문화재 중보 관련, 이런 부분이고요.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고금역사관광자원화사업, 이런 사업들도 전부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시도비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요. 내일 전라남도에 방문할 예정이고 시간 타임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일 전라남도를 다녀올 예

정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군특회계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군특이 아니고……

○ 허궁희 의원

지방……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도비로……

○ 허궁희 의원

아, 도비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12억 중에 6억, 6억으로 해서요. 도비 6억, 군비 6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내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라남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이 내용은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것이 민선6기 때부터 추진했던 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치고는 아직까지 확실한 뭐 이렇게…… 계획은 있으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들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새롭게 책정해서 반영하는데 다른 계속사업에 비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고요, 만약에,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군수님하고 협의하고 해서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행자부에 간다든지, 그래서 특교세를 가지고 오더라도 특별교부세, 군비…… 하여튼 돈을 (청취불능) 합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왜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느냐면 첫째는 공약사업이고, 또 공약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될 시기에 왔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한 김에 더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19페이지요, 공설운동장 경기관람석 개보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관람석 3,000석을 스탠드 운동장 내에, 그리고 사무소 6개소를 짓고 외벽 디자인 보수를 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스탠드 공사와 사무실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외벽디자인 공사는 좀 늦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이 사업이 당초에 빨리 잡았다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법 위반 저촉 여부, 그런 것 때문에……

○ 김재홍 의원

아,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년에 예정되어 있는 행사를 전부 못하고 하반기로 다 미뤘습니다. 하반기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보수…… 개보수할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금년에 착공을 하다 보니까 추진비가 계속 딜레이가 되

어서 지금 현재까지……

○ 김재홍 의원

아,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벽디자인 공사의 경우, 협상이라는 방법으로 계약한 후에 추진 중으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데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방금 그 내용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 최초 공사 착공부터 모든 것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요, 이 외벽디자인 공사는 스탠드 의자를 세팅하고 뭐 사무실도 좀 만들고 이런…… 모든 사업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될 그런 마무리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스탠드 공사, 이런 부분이 이달이나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면 좋은 안을 공모해서 외벽디자인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상 보이는 건물은 사무실 용도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공설운동장 안쪽에서 보이는 저 화면은 국기 게양대 중심으로 좌측은 남자화장실, 오른쪽은 여자화장실, 그리고……

○ 김재홍 의원

화장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뒷면, 건물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사무실 공간으로…… 7.5평 규모의 사무실 6개를 구상했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너무 공간이 좁다고 해서 이 7.5평 공간 2개를 합쳐서 15평짜리 사무실 공간 2개하고 나머지 7.5평짜리 공간 2개는 체육단체의 각종 집기, 이런 것을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면 체육 관련에 대한 단체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사적인 다른 단체도 들어오게 되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을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단체가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가져가고, 그런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단체가 37개가 됩니다. 60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체별로 그런 공간을 달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모든 60개 단체가 아니지만.....

○ 김재홍 의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인데 예술단체가 들어오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냐는 얘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육단체하고 다름이 없도록, 그런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단속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건물로 인해서 운동장 내부경관 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차피 그런 부분들을..... 스탠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보완하고 또 화장실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약간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물외형상 경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내부 색상도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내부 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벽디자인, 이 부분.....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기존에 되어 있던 사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디자인을 바꾸실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차피 체육시설물이다 보니까 체육 관련, 스포츠 관련 그런 부분들로 디자인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스포츠산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제안서를 받은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요. 좋은 안을 선택해서 디자인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군민들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야까 김양훈 의원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격에 맞는,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격에 맞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고요. 고생하십니다.

저는 4페이지예요, 장보고한상어워드와 관련하여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수상자 현황을 보면 3개 년도에 13명의 수상자가 있습니다. 장보고한상어워드를 추진하고 있고, 또 완도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상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까지 수상자로 열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역대 수상자들 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요. 그리고 우리 군 홍보 관련, 군정에서 알려져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이메일을 통해서 완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시차도 안 맞고 일과시간이면 그쪽은 한밤중일 수도 그래서요. 전화 통화도 시차가 거의 없는 그런 나

라에 계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카톡이나 이메일, 이런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동향 파악을 하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에…… 동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상자들하고 연락을 자주 해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상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위를 받치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라든가,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워드인해서 완도군에 도움이 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한상을 제정해서 수상을 해서 상을 줬고…… 장보고한상을 하는 주목적은, 첫 번째는 장보고선양사업이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장보고를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일 테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 특산품을 알리고, 군정을 알리는……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있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실적을 물어보셨는데요, 금번 엇그제 5월에 장보고수산물 축제를 할 때도 장보고한상수상자들께서 우리 완도군에 장학금 2,500만 원을 해주시고 또 완도고등학교에 가상체험관, VR체험관도…… 2,000만 원의 상당의 VR체험관도 만들어서 기증해 주신 바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장보고한상 대상 수상자인 영산그룹 박종범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본사 현지에 우리 완도군 청년 3명을 인턴으로 선발해 가지고 거기에서 유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또 중국에 계신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은 최근에 장보고 (청취불능) 심양 이런 데에서 완도홍보관을 열어 가지고 완도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 바도 있고요, 이번 8월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양에서 유럽 쪽, 그런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6개 나라가 와서 전시관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한민국관, 대한민국을 알리는 대

한민국관 입구에다가 완도홍보관을 별도로 할 수 있게끔 그분이, 회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가지고 그 부분을…… 완도홍보물을 알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완도군과 투자유치 또 시장개척,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상자들이 우리 완도군의 큰 인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상자 현황을 실과소에서는 배부해서 업무와 연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훌륭한 인맥들을 완도군 행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군수님 공약사항이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1회 추경 시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추진과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 6억을 신청했다가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전 1회 추경에 예산도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고요, 금년 5월 23일에 완도군과 최경주 선수 간에 골프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예산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용역비를 좀 확보해서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골프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같이 투자유치를 해서……

○ 박인철 의원

누가 투자유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민간사업자가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경주 선수 이름으로, 최경주 선수가 이런 부분 민간투자…… 어차피 그 사업이 570억 규모의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최경주 선수 혼자 570억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 박인철 의원

아니, 돈에 관계없이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골프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 변경을 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최경주로 한다는 말이죠? (예)

최경주 선수가 SOC를……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문제고요.

만약 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했는데 이후 민간사업자가 그것 투자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계적으로 알려진 최경주 선수의 이름으로……

○ 박인철 의원

그것은 그분의 생각이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5월 23일에 완도군과 최경주 선수가 투자하기로 투자협약을 맺었고, 또 최경주 선수, 최 프로가 투자를 하겠다는,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투자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것이.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도 저것이 지금, 저 자료가 골프사업장 설치에 나온 법령들입니다. 다 아시죠? (예)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반을 군수한테 제안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자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게 민간사업자를 위해서 지자체가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사례가……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해양차유산을 한다는 데에다가 민간사업자가 콘도를 짓는다고 집어 넣어주라고 해도 우리 군에서 다 안 집어넣어준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5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진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명콘도, 완도로 들어올 것이 못 들어와 가지고 진도에서 내일 모레 개장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간사업자는 토지면적의 80%를 확보하거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안 후 60일 이내에 군수가 결정여부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죠? (예)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위반서를 가지고 군수가 가지고 오면 군수가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남도에 관리 지원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후 전라도에서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예)

완도에 골프장 건설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또한 최경주라는 훌륭한 선수가 추천하는 골프장은 더더욱 찬성합니다.

그러나 군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형평성하고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해양치유산업의 공공투자 부분과 연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우리 군 차원의 전략적인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유치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업자가…… 기본 아닙니까, 군관리계획변경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자가 그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허가가 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SOC사업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뭐 상하수도를 해준 다든가, 도로를 뚫어준다든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신지에 있는 해양테마펜션단지가 그런 예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가 SOC사업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사업 시작점부터 우리 군에서 돈을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돈 6억이 문제가 아니고 군관리계획변경을 해줘야 되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에서 6억을 들여 가지고 다 해줬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안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경리관인 부군수가 질 것입니까?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의 몫인데……

히여튼 과장님, 과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해결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뭐 6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절차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무슨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자가 어떤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 박인철 의원

아니, 과장님. 내가 질문을 할게요. 아니, 내가 질문을 할게요. 2회 추경 시 또 이것이 올라옵니까, 이 용역비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출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 아무 이유 없이 2회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그것은 좀 안 맞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제가 좀……

○ 박인철 의원

아니, 설명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 조성관계는 민간투자자가 행정절차

를 처음부터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변경 관계는 민간투자자가 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행정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이렇게 일부분 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 지자체 경북 울진, 그리고 경북 성주, 경남 통영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서, 여러 방안들을 종합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런 예도 좋지 만…… 기초적인 것은 처음부터 민간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여기에 없는 것인데요.

완도의 인물이라고 하면 장보고죠? (예, 그렇습니다)

장보고인데 사실 여러 가지…… 이 사업비가 들어와 있습니다라는 우리가 이번에 중국 영성에 있는 어디입니까, 장보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적산법화원.

○ 최정욱 의원

적산법화원이죠. 거기에 갔을 때 우리들이 느낀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장보고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또는…… 장보고에 대해 선정하신 분들 누구나…… 해외 분들도 거기를 안 가보고는 장보고를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누구나 관심 있게 거기를 한 번쯤은 가볼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를 갔었을 때 완도 김종식 군수와 기념식수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명패는 있는데 그 기념식수는 다 잘라버렸거든요. 그것을 그때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봤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적어도 장보고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견학을 했을 때, 그것을 봤을 때 과연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들도 가서 보면서, 그냥 무심코 보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 또 자기 생각들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쪽하고, 영성시하고…… 그때 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어떤 관계냐. 저한테는 답이 안 왔거든요, 사실. 그 영성시 직원하고 통화는 했었는데. 과장님한테는 어떤 답이 있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저한테도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보고, 그리고 영성시청을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담당자는 어차피 적산법화원하고 그쪽 시설물 관리를 영성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하다 보니까요. 영성시 관계자는 그 부분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무가…… 기념식수한 그 나무가 고사되어서 버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전달하고요. 그 이후로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다 봤지만 고사…… 나무가 어디 잘못되어서 자른 나무는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잘라도요, 고사가 됐으면 딱 밑에까지 잘라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 50~60cm, 위에 놓고 자른 것…… 그것은 누구든지 보라는 표시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장보고를 홍보하면서 자랑스럽게 세계인이 이렇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그쪽하고 합의를 해서 차라리 없애버리든가, 차라리 새로운 나무를 심거나 그래야지, 그것을 교육장에 가져와서 오히려 안 좋은 모습만 보여주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영성시를 방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소나무가 병에 의해서 고사가 되어서 잘랐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같은 수종으로 해서 다시 보식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랬으면 참 다행인데.

원래 나무가 고사에 의했다면 딱 밑에까지 잘라야 돼. 그런데 한 50~60cm 이렇게 보이게 해놔서, 밑가를 보라고 해놓은 거야. 나무도 아주 어디 병난 것이 없이 깔끔해요, 그 나무를 잘라놓은 것도, 그러니까 아마 그쪽의 변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나무를 새로 심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 없애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그래야지……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다 보실 것인데, 그것을 보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의장 조인호

끝났습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자주채원 확충, 지방세 부과, 적극추진 등 14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군청 앞 광장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군청 앞 광장 공원화 사업이 어렵습니까, 지금?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어려운 것보다도 모든 군민들이 사용하고 또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기 때문에 지금 하나 하나 모든 것에 설치나 이런 것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게 상징물로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런저런 의견을 계속 모으고, 계속 수렴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1회 추정 시 사실 반대와…… 반대도 우리 의원들이 많았고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렵게 예산을 승인했는데요. 그때는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이, 다 준비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우리가 용역을 쫓습니다. 공원화 사업 용역업체에서 국내나 해외사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고요. 또 지금 6차까지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좋은 안이 있는가, 이런 저런 안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연이 좀 되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남들이 봐도 참 잘 만들어 놔다,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계속 5차 중간보고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6차까지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6차까지 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6차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8월까지 마무리……

○ 최정욱 의원

8월입니까.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보면 거의 1개월에 한번씩 했어요. 우리도 어떤 것을 할 때 어떤 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중간보고회를 할 때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한두 가지가 부족해서 다시 이것을 해보자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한 달까지 가서 또 하고…… 무엇을 그렇게 추가하는데 한 달 만에 하나씩, 한두 건이나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을…… 그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용역사에서……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새로운 것을 또 요구하고요, 저희들이.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처음에 가져온 것 중에서, 어떤 용역을 할 때요. 해오면 거기에서 뭔가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거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한두 가지일 것인데 6차까지 할 정도의…… 한두 가지일 것인데 한 달 만에…… 거의 보니까 한 며칠 걸린 것이 아니고 꼭 한 달 만에 이것을 했어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 한 가지만 했을 것인데 뭘 5차…… 3차까지는 그랬다고 해요, 보통. 1~2차는 적어도 그런 것 보완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3차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은 다 되어 있을 것인데, 4, 5, 6차까지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5차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1, 2차를 넘어서 이렇게 자꾸 보고회가 늦어지고 자꾸 보고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5차까지 해서 거의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차……

○ 최정욱 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 2차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자꾸 뭔가 추가됐다든지, 뭔가 되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라는 얘기에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1차…… 2차까지는 캐노피가 있지 않습니까, 캐노피 그것을…… 앞에 거기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한번 하고, 그러면 그 철거한 것을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것을 정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해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버리는 것보다는……

○ 최정욱 의원

2차 부분 때 그런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2차, 3차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차 때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하나 가지고 그러면……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리고 캐노피하고 광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요구가 나온 안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자료 수집도 하고 여기저기를 다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6차에서는…… 저희들이 5차를 할 때 나무만 이렇게 하고 잔디만 하면 너무 단조롭지 않냐. 그러면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때냐. 그래서 상징물을 용역사에서 한번 어떤 상징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선택해 가지고 외보라. 그래서 잊그저께 상징물에 대해서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말로만 해서요, 다시 그러면 상징물을 스케치를 해서 가져와서 봐보자. 그리고 설치하는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하고 그러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 6차까지 하면서…… 뭔가 6차까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제 질문 취지는 그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캐노피? 캐노피하고 방금 6차 때 잔디 두 가지밖에 말이 안 나오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나무 관계도 나무도……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여러 개를 심을 것인가. 아니면 나무도 몇 주는 (청취불능) 그들만 할 것인가. 또 앉는 스탠드를 돌로만 할 것인가, 아니면 원형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상의하고 서로 토의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라. 그래서 용역사에서 가져오면 또 여기서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가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면 빨리 빨리하겠지만, 용역사라고 해서 수시로 오라고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가 오래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 기왕 6차까지…… 1차 때는 뭐 때문에 다시 이렇게 해서, 2차는 이렇게 뒀 때문에 이렇게 뒀다고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 8월에 용역보고가 완료되었다고 했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그때는…… 했을 때는 의회에도 한번 보고할 것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것이 찬성, 반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말을 했느냐면 주차장 문제가 문제지 않느냐고 그랬었는데,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때 한창 논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때? (예)

그런데 주차장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면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 두 필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때는 다 될 것 같이……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때는 같이 거주하시는 한 분이 내가 책임지고 받아준다고 그러기에 잘될지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개인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한 필지, 여기 앞에 필지는 당초에 없던 계획인데 본인이 한번 가격이 맞으면 팔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분도 해결되고 그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크게 한 105면 정도 전체를 (청취불능) 할 수 있고요. 여기 한 면을 뺀다고 하면 한 60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세 필지 매입……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세 필지는 우선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2.5 곱하기 5m로 해서 주차면을 해보면 한 40대는 세울 수 있도록 우선 조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저기하고 여기 주차장 공사하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여기 주차장 공사는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부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 최정욱 의원

원래는 저게 돼야 맞잖아요, 먼저. 우리가 그때도 그런 말을 했었고, 빨리 그러면 주차장…… 주차할 때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박인철 의원님께서 주차장을 먼저 하고……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우리가 공원화사업은 좀 늦추더라도 좀 신중하게 하자고 그래서 공원화사업 주차장을 빨리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때 약속한 대로 되냐고요. 그때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주차장이 해결된다고 해서……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러니까 주차장 여기를 사서…… 세 필지를 사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40면.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것을 먼저 사고 공원화사업에 들어가느냐고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단니. 말을……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매입해서 주차장……

○ 최정욱 의원

적어도 의원들과, 의회와의 약속이면 그것을 하려고 해야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박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공원화사업을 같이 하든가, 주차장을…… 그렇게 해서 공원화사업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빨리 확보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십시오, 주차장 문제. 기왕 한 것 다시 타진해 가지고라도 그런 것을 해서 할 때 같이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한 대로 꼭 좀 지켜주십시오.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폐교 매입 추진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됐고, 지금 등기이전까지 다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급하게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네요.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소안 (구)소안고등학교 본건물 기숙사, 운동장, 관사입니다.

과장님, 매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우선 이전에 한번 그런 매입하기 전에 그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면사무소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찾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우선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을 요구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일단 주민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게이트볼장으로…… 단체, 사회단체 뭐 사무실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들어봐야 되고.

또 아까 건물 관계…… 이석우 면장님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기숙사는 `11년도에 지어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원들 숙소가 오래 돼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직원들 숙소를 하지 말고 차라리 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관사로,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랬고요, 그리고 학교 본관동이나 아까 사택 같은, 관사 같은 것은 너무 건물이 오래되어서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리모델링해서는 활용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만약에 사회단체에서나 이런 데에서 활용하고 싶다고 그러면 학교를, 거기를 뜯고 관사나…… 그 자리에다가 하면 어떻게 하

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더 여론도 듣고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많이 알아보시긴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부분적으로 쓸 부분은 쓰고,

또 한편으로는 저것이 지금…… 대지가 3,500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봤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이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것 해주라, 이것 해주라.” 라고 하다 보면 딱 짜여있는 개발 여건들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본의원의 생각은, 적은 그런 평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2회 추경 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요, 저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는가. 뭐 10년을 내다보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가지고요, 용역을 좀 켜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갔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켜서 용역사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 이범성 의원

아니, 사업현장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소안도 이장, 단장이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다…… 어떻게 보면 이것 찢어주고 저것 찢어주고, 저기 활용도가…… 소안도 가고 싶은 섬으로 해가지고 엄청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런 부분들도 밀접하게 관련시켜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에 꼭 그 용역비를 올려서 처리해줄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 가지고요, 몇 년 정도 서류를 보관하나요, 결손…… 아니,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 서류를 몇 년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저희들이 서류로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 우성자 의원

예, 읍면이나 아니면 군이나 다 똑같은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서류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보존기간이.

○ 우성자 의원

보존기간이 틀려요, 어떤 내용은 몇 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대강 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보통 한 10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 결손처분입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이 이것은 받기가 좀 어렵다.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그러면 바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연도에 상관없이 결손처분을 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면 결손처분은 읍면에서 판단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판단을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5만 원 이하는 읍면에서 하고요, 5만 원 이상은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자동차를 폐차한지 10년 이상 되었는데 지금

까지 세금이 나오고, 사망하신 분이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누락된 세금이 나온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런 경우는 결손처분을 잘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조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계속 고지서를 내고, 이장은 그것을 못 받고, 사망했으니까 받을 수가 없고, 자식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내겠습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하고 왔다갔다 계속 그렇게 만……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맞는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러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읍면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혹시 읍면에 세무 관련 서류도 확인하십니까, 읍면도?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저희들이 합니다.

○ 우성자 의원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하여튼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물론, 그렇게 꼼꼼하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여기 나오시는 과장님들 항상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여기에서 내려가든지 하셔 가지고요. 오래 되고 정말 받지 못한다든가 애매한 것은 확실하게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서류랑 깨끗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액이 158억 3,700만 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목표액이……

○ 김양훈 의원

예, 자료 한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도 지방세 징수율을 보면 2017년 대비 주민세 4%, 재산세 6%, 자동차세 12%, 담배소비세 마이너스 2%, 지방소득세 4%, 과년도 17%로 그렇게…… 담뱃세만 빼고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랬죠?

작년도 지방세액을 172억 징수한 것으로 본의 원한테는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업무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금년도 목표액이 158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징수액 대비 금년도 목표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저희들이 목표액을 높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목표액을 낮춰 가지고 초과 징수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까 표를 보면 전부 다 증입니다. 증, 담뱃세만 3% 마이너스이고 나머지는 다 증인데. 여기서 14억을 낮춰 가지고 목표액을 잡는다는 말이 좀 안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깝게 목표액을 잡아야 되는데……

○ 김양훈 의원

전년도와 대비해도 벌써 172억인데 154억이나 저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뭐 과세자료 누락, 이런 것으로 발생하는 차액은 아니겠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렇습니다. 변동이 크게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여기에서 변화가 있을까. 다른 자동차세나 이런 것은 다 증액……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작년도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너무 14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고 적게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 치하고 비교분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까 말했던 뭐 과세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교부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저희들이 매년 낮게 목표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실에 맞게 목표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추경에는 현실에 가깝게 추경 세입을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초과했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액보다 목표액 위치를 잘못 해 가지고 초과 징수한다고 하면 그 예산만큼 빠져 있으니 우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징수 부분도 철저히 하시고요, 목표액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하자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보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군정 질의 때 물어보겠습니다. 잘 좀 해서 목표액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는 잡아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면사무소하고 보길면사무소 신축이 2020년도 본예산에 확보한다고 했는데요, 이 두 개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 한 군데에 30억씩 6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서 건물을 짓는데 60억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이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에서 저번에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전부 균특을 받아와도 우리 군비가 50억에서 60억이 들어가는데, 전부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다

지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할게요, 지금 환경산림과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고금하고 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읍면 사무소가 전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 D등급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을 일시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1년 본예산에 총액의 몇 %로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다 준비해 나가게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대비를 해야지.

지금 이것 순군비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바로 이렇게 두 건물씩 해버리면 말이 60억이지, 순수한 군비가 60억씩 들어가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할 것이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연차적으로 해야죠.

○ 박인철 의원

이것을 뭐 조례에 한다고 하니까 기금조성으로 해가지고 그 기금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요, 조금 전에 이범성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금방 과장님의 답변에 무슨 게이트볼장이 나오고 사회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대 그런 쪽으로 쓰지 말자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매입해 놓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

면 어떻게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런 여론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 박인철 의원

그런 여론을 조성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소안면사무소 앞에. 전천후게이트볼장 예산을 잡았다가 그것 불용된 것 알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소안면에서, 면의 그 노인들이 반대해 가지고 불용된 것 알죠? 아니, 뭐 과가 틀리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자꾸 이런 데에 자리를…… 영구적으로 놔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지들은 지역면민들을 위해서, 모든 지역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뭐 사회단체에서 학교나 칸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관리가 안 됩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겠습니다. 용역해서 사후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아까 최정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완도군 공공조형물 등 설치 조례 아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 꼭 합당하게 조례심사…… 이것 경관 관리에서 할 것인데,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요, 물품수급관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세무회계과에 한정된 질문이 아니고 우리 군 전 실과소, 읍면에 해당된 질문이므로 전 실과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것이 우리 군 물품현황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 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당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도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 관계법령 잘 알고 계시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정수 책정 기준에 대비해서 169대, 정수 승인 대비 371대를 초과 보유하고 있는지 압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아까 보니까……

○ 박인철 의원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 결산검사 위원들이 뭐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주무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지적사항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세부적으로 보면 차량은 11대가 초과되어 가지고 있고, 복사기는 19대, 19대, 냉난방기는 130대가 초과되는 등 정수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그래서 이제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의 지적사항이어서요,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고 실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분시켜야 할 것을 읍면에서도…… 군청은 세무회계과에서 정리를 하고요, 불용 처분은, 읍면은 읍면장님이 해야 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나 에어컨이나 무엇이든지 사서 못쓰게 된 것은, 옛날에 못쓰게 된 것은 불용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 버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 지금 우리 재산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직원들 사택을 신축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폐기 처분 안 하고 또 다른 물품들이 들어가니까 냉난방기 같은 것들이 130대 정도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됐든 세무회계과장님이 됐든 직원들과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물품관리에 대해서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니, 필요한 것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재산으로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 재산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것을 좀…… 직원들과의 연찬 교육을, 업무연찬을 새로 해가지고 내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는 깨끗하게요,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 후 15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완도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총 18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연근해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로 완도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식수 및 얼음 공급은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에 지원해서 3,500만 원 정도 지불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완도항에 입항한 전 선단에게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전체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일부…… 한 선단에서는 얼음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얼음을 지원하지 못해졌고, 그에 따른 식수까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그게 그러면 장어통발선단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장어통발은 얼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을 줌…… 요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제가 하역선단 대표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다른 부분을 지원 요청 하세요. 검토를 해서 7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게 지금 크레인 사용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를 지원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게 지금 국제항으로 인해서 크레인 비용이 한 17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역…… 그 노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23만 원에서 26만 원, 29만 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대수별로 해가지고, 6만 5,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즉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뒤따라가지 못한 것 같고, 다른 타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확하게 기 알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대책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해줄 수 있게끔 잘 해주 시고요. (예)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도 의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완도항이 선석하고 제빙시설하고 저장 시설 등 그런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춰줌으로써 오라는 말을 안 해도 완도항은 가깝기 때문에 연근해 어선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저도 마찬가지고 수거 선박 실습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경부두…… 새로 전용부두가 준공 되게 되면, 완공되면 기존에 농공단지 해경부두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기반시설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접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연초하고 작년 군정 질문할 때 “그런 부분을 확보해라. 항만기본계획에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셔서 해당 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차적으로 기존 해경부두 활용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주민여론이랄까, 수렴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지 제가 군정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신지 물하태 강독 (청취 불능) 개발해야 된다고 방금 이야기하셨죠. 4차 항만기본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겠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적극 힘쓰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마음을 먹고 잘 추진해 나가는데, 지역개발과하고 연계부분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역개발과하고 얘기를 하고, 지역개발과에서는 또 해수청하고 협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특별하게 지역개발과하고 관계를 좀…… 자주 접촉해 가지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완도 소비원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계기가 꼭 갖추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수거 실습선하고 행정선 계류…… 부두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가야되는데,

일단 사진, 자료를 좀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저희들이 봤을 때 1부두 그쪽이 거든요, 그런데 실습선하고 저 부분이…… 실습선, 행정선이랄까, 저런 부분이 해경부두가 완공되면 해경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봐 가지고 옮겨갈 수 있으면 저쪽 선석이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이 해경경비구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경비구조과하고 협의가 되면, 이루어지면 수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할 계획에 있고,

또한 요트계류장 부분이 철거가 아직 미비한데 하역업체에서 요트계류장도 빨리 철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정책과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빨리 해당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상호 협의를 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는 그 답을 어떻게 줬어요, 계류장 부분? 아니, 요트.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결정을…… 이리저리 결정하려면 또 한 2~3년이 흐르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이 뭐 2~3년까지 흐르기가 하겠습니까.

○ 이범성 의원

뭐 자신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님이 얘기를 한다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좌석에서) 요트계류장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저것을 설치한 지가…… 그리고 파손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그런 모든 예산, 그런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어떻게 보면 책임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방문해서 다시 한 번 철거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방문하고 그 결과 내용을 본의원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집행부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크레인비라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군에…… 하여튼 1년이면 얼마 정도 우리 완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배 한 척이 입항하게 되면 2,540만 원 정도의 소요경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년도만 해도 1,429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4차 항만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되게끔 하시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하태랄까, 신지 쪽에 이런 선석을 많이 만들고, 뭐 일반저장고랄까, 이런 부대시설들이 완료되면…… 하여튼 완도의 파급효과는 엄청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아무튼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농공단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 분양률이 67%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도 67%였는데 전혀 분양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미분양 6필지 중 한 필지는 배관망 저장탱크 부지로 하고 있고요, 한 필지는 분양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 비용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억에서 7억 정도까지 매입하려면 들기 때문에 몇 개 업체와 입주자금 계약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7월 20일까지 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현재 하나는 협의 중이고 4개는 아직 협의 자체도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제 문의는 계속 들어오는데요, 문의하고 저희들과 계약협의까지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정욱 의원

저번에는 분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던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면적 부분, 사업비 부분이 5억에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 최정욱 의원

원래 농공단지나 해양생물단지가 됐든, 그 평수에 의해서 가격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10억 이상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것을 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돼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들이 농공단지에…… 벌써 십몇 년 전에도 10억 이상 다 투자가 됐었는데, 지금 10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에 비하면. 그것으로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유가 안 되죠. 근본적으로 저것이 뭔가 우리들한테…… 특화단지에 들어올 만한 그런 업체가 없다는 얘기로.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업종이 수산물 가공이라든지 수산물 도매업, 뭐 식품 도매업,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나요, 지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런 업체들을 좀 파악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현재 분양된 업체는 주로 무슨 업종이에요?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수산물 도매업이 있고, 식품 도매업이 있고 수산물 가공이 있고…… 거의 수산물 도매업 쪽이 많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몇 개 업체라고 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전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필지 수로는 18 필지이고 업체 수는 16개 업체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현재 16개 업체는 들어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산물 도매 쪽이라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수산물 도매, 수산물 가공…… 뭐 그렇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에는 해양생물특화단지라고 이름을 정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조성목적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뭔가 농공단지에 어떤 제품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해양생물특화단지라는 이름도 걸었을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양생물산업 집적화하고 규모화 뭐 지역특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농공단지를, 특화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해양생물특화단지란 다양한 생물자원을 첨단기술로 분석,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물질을 창출하는 산업이고, 이러한 산업을 특화시키기 위해 단지를 조성한 것입니다.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그 말씀이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온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입주된 것도 그렇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래도 공식적인 해양하고 관련되어 있는 수산물 가공 도소매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딱히 안 맞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의 우리 완도에 기존에 있는 업종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큰 차이는 없다고……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좀 더 거기에 한 차원 높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성한 것이었는데, 아무리해도 그런 것에 미숙한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해양생물산업과 우리가 처음에 계도하는 등 업체가 하나라도 있는가요, 현재 16개 업체 중에서? 다 똑같지, 지금.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업체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 완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말고, 그런 제품 말고 하나라도 더 들어온 것이 있냐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거기는 각 품목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깊게 못 들어가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해양생물단지에…… 우리 처음 기본취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본의원은 연초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수산물 가공 시 해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에서 지사님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지사님과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에서 한 분이 참석해서 가지고 그 부분을 건의한 것 같은데, 건의내용이 해수를 사용하는 입주업체가 기존 하수관로에 해수 유입 파이프를 설치해서 해수를 유입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고, 또는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전용통로를 설치해 주라, 그런 건의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민간인이 군..... 그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 부분을 도에서 우리한테 건의서를 올려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정욱 의원

통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깔 수 있는 통로를 터주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기존에 해수를 쓰는 분들이 파이프로..... 하수관로나 이런 데에다가 통을,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수를 유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해수가 막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통로 형태로 해가지고 해수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라는, 그런 건의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실 그제..... 농공단지도 원래 그것이 숙원 사업이었어요, 저도 거기에서 하지만 어떤..... 기존업체가 바닷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업체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추가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바닷물을 저 뒤쪽 끌어오려고 하면 끌어올 수가 없어, 그런 배수관로가 있어야..... 물을 끌어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관로가 있어야 거기다가 줄을 펴서 끌어오면 우리 농공단지도 언제든지 바닷물을 끌어 쓸 수 있거든요. 그것 관로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뭐 원내에 없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아마 생물단지에서 그럴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죠. 우리가 관로만, 들어갈 수 있는 관로만 해놓으면, 그것이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물단지 뿐만 아니라 우리 농공단지가 아마 바다로 가는 것이 한 두 블록 정도 통로가 있을 거예요. 그 차가 다니는 데가, 중간에 쪽..... 관리사무소 앞, 저 바닷가까지 내려가는 도로, 저 옆에 가면 아마 해초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블록 하나, 두 개 정도는 갈아놔야 되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중간에 어느 업체든지, 어느 자리든지 바닷물을 언제든지 본인들이 갈아서 (청취불능)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놔야 맞거든요. 그래야 농공단지가 분명하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설령 어떤 업을 바꾸든가, 제조를 다른 것으로 바꾸더라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죠, 그런 것을, 업체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정도는 해줘야 맞거든. 거기 농공단지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한번 과장님, 거기를 심도 있게 해서요. 그것은 해양생물단지 그쪽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농공단지도 해가지고요, 그것을 한번 꼭 좀 참고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돼요, 저것.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일단 완도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 자주 안 하세요. 예전부터, 농공단지에서 처음부터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고서가 주로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만 있지, 업종별, 유형별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현재 가동률은 어떻게 되고..... 이것 지금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경영은 어떠한지 등 농공단지 산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되어 있으면 하는데, 무리한 내용인가요,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무리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싶고 그래서 농공단지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협의회 회장님도 뵙고 했는데, 그게 정기적인 모임도 갖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위원들을 만나고 몇 번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도 그치고 말았는데, 그 이후에 설문 조사를 실시해 보려고 저희 직원들이 조사표를 나눠 주고 했는데 그것도 회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을 직접적인 청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농공단지운영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소통의 장을 농공단지협의회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까 보고드릴 때 농공단지 전담직원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때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가지고 농공단지 사무실을 다시 정비해서 오전, 오후로 해서 상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주로 그 직원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민원처리만 하고 있고 내부 민원…… 업무처리 직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농공단지협의회체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우리 군에서 활성화시켜 볼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을 해가지고 회장님도 만나 뵙고, 위원들도 만나 뵙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다른 업종별로 모여 있다 보니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저도 농공단지에서 몇 년 해봤는데, 십몇 년을 해봤지만 업종별로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돼요. 결국 군에서 개입을 안 하면 협의회 구성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입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잘 되도록 해서 거기를 통해서 어떤 것아…… 민원이 나 해결사항이나 또는 군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지원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어떤 말들이 도나면 힘이 있고 뭐한 사람은 혜택, 보조 뭐 몇 억씩 그냥 받아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어 가지고 무슨 말을 해봤자 필요도 없고,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것이 협의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이, 자기들이…… 누구를 줘도 다 인정을 할 만큼,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것을 듣게 되면.

그런데 지금 구조는……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농공단지에 보조업체로 나가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가, 그랬을 때 과연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는가. 이것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래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협의체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방금 과장님의 말처럼 업종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돼요. 그러니까 군에서 좀 관여를 해서 업종별로 묶어서 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어서…… 우리 농공단지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계도하고 할 일이지, 군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것이죠. 뭐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직원이 상주해서 직원이 그런 것 민원해결도 하고요. 군과 역할…… 중간에서 역할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 게끔 앞으로 그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 활성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요, 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물 이중 굴, 가리비, 미역, 다시마 실증실험 결과 양식가능 결론. 이것을 우리 업무보고에 굳이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상풍력을 하면서 해상풍력과 수산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참고하시라고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을 참고로 한다면……

어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뭐예요?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어업권에 대한 그런 부분이겠죠.

○ 최정욱 의원

어업권도 어업권이고 그 밑에 어류가 산란할지, 왜, 이게 돌고 하면 미세한 움직임에도 어류들이 굉장하…… 뭐냐면 산란이 어려울 것이다. 또는 어류들이 그 주변에, 주위에 살기 어려울 것이다. 어민들이 대부분 이런 것이 걱정이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업…… 고갈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것을 확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도 된다.” 라고 연구를 하려고 해야지. 양식 이것 솔직히 굴…… 안 될 이유가 없죠, 어디다가 해도, 거기예다가 해서 안 된대요, 양식이. 또 가리비를 우리 완도에서 많이 해봤지만 실패입니다. 그것을 해서 된다는 보장은 있지도 않은 것이예요. 미역, 다시마 어디든 해도 되죠.

굳이 나는 왜 이것을 여기예다가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해상풍력을 하는데 왜 이 문구를 넣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넣었는가. 또 해상풍력을 해서, 해상풍력을 어디예다가 그 줄을 묶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상풍력기를 설치하게 되면 양식도 못하게 되고 어민들이 생존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요, 해상풍력기를 해도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 내용은 면허지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법적으로, 풍력기 내에 면허지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야……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기재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허지야 타당하면 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을 넣을 것이 아닌데 왜 굳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주무부처와 협의해 가지고 낼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 넣으면 안돼요, 이런 것을, 말만 더 만들어내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도가 없잖아요. 이것을 넣을 만한 의도는 없는데 넣었죠. 의도 있게 넣은 것은 아니죠, 확실하? (예)

여기에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도 없는데 왜 넣어요. 이런 것이 오히려 말만 만들어 내지.

그리고 17페이지요, LPG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박인철 의원하고 보고서에…… 그때 간담회할 때 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예산이 300……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41억입니다..

○ 최정욱 의원

41억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백 몇 십억 그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126억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몇…… 그 마을 단위를 뺐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하려고 하면 다하지. 어떻게 이제 와서 빼느냐고. 이것을 군수가 책임질 것이냐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다시 사업비를 선정, 신청해서 되면 하는 것으로……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실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보고도 드렸습시다마는 당초 2015년도에 산자부에서 (청취불능)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을 줬을 때가 금액이……

○ **최정욱 의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그때 다 했으니까요. 지금 2차로 예산이 부족한 것을 다시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 **최정욱 의원**

신청을…… 126억을 전체 산자부에다가 건의 해서 올렸고 그 올린 것이…… 국내에서 7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뿐만의 일이 아니고 7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LPG 배관망 사업단에서 각각 증가된 사업비를 산자부에다가 요청을 했고, 산자부에서는 기재부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이 확실한 것은 아니잖아요. 확보된 것은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러나 126억 전채는 못해 주더라도 국비 지원은 해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가용리, 대가용리, 이쪽 어디…… 향동리? 어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신기리입니다.

○ **최정욱 의원**

신기리, 이런 쪽 몇 군데가 빠지고…… 그러면 이 사업을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당초 사업계획에 대가용리, 소가용리, 신기리가 제외됐던 것을 의원님들께서 “완도읍에 가는데 그 주변마을을 빼면 되잖나. 포함해서 하자.” 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포함해서 사업비를 뺀 것이…… 126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는 당초에 없던 구역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처음에 했던, 그 3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안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서 이 사업이 증 됐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신청량이 1,500세대 정도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7월 말까지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하라고 홍보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말에 보면 몇 세대 신청이 되었는지 파악해 가지고 그 세대 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1차 그때 보고회 때처럼 어디어디를 빼고 이 금액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것은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곳도 다 포함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2차 계획이 나오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다시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면 그때 간담회…… 중간보고회를 하듯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해양생물특화단지 해수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코드번호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음부터 할 때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처음에 1차산업이 아닌 2차, 3차산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해수가 유입될 수 없다고 해서 그 코드번호만 땅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될 듯 이야기를 하면……

거기는 다 해수를 사용할 수 없는 업체죠, 해양생물특화단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한 업체가 본인이 해수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서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애당초 서길수 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것을 했는데 코드번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양률도 이렇게 저조한 것도 그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서로 여기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서길수 과장이 할 때부터 100% 분양이 된다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의원님들도 주민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미적미적해 버리면, 주민들을 만나서 잘못 설명해 버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거기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트계류장 있죠. 실국장님들이 뭐하는가, 단장님이 뭐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올 봄에 도 해양수산국장하고 도 항만과장이 와 가지고 우리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올해 도로 넘어온다더구먼, 이관이. 해양…… 그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정책과장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박현식 부군수님이 있을 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로 이관이 되니까, 연안이 끝나고 이관이 되니까 도에서 철거를 하려고 한다. 단, 우리 군에서 설계비만 좀 해주라고 그런 사항인데 대답이 이렇게 나오니까. 서로 업무연찬을 안 합니까?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고 도에서 담당국장하고 도 담당과장, 우리 군의 행정을 총 책임지는 부군수님까지 배석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왜 과장님들은 모르고 여기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찬을 좀……

(부군수 정석호를 보며)

부군수님, 각 실과장님들도 자기 실과 업무뿐만 아니라 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에 대해서 연찬을 하십시오.

올 봄에 도에서 국장하고 과장이 내려와서 이것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들이 돌면……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안환옥 과장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12페이지요, 해상풍력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해상풍력은 수산업과 공존하고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본의원도 찬성한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합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두 개소는 전기사업자 허가를 취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계있는 주민들의 수용성은 100% 확보되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100%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망석리와 금일읍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허가를 취득했

습니다마는 어장권이나 해상풍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수용성이 확보가 안 돼서 수용성 확보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 정도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정확하게 퍼센티지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는 뭘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망석 완도해상풍력은 망석리 인근 5개 마을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변환소와 관련해 가지고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지 않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요. 남동발전은 6월에 금일 황제도에 육상계측기를 설치하고 해상계측기는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 질문 시 부군수님에게,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국장님에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해상풍력을 하고자 하는 수면이 1만 7,000헥타르입니다. 이 수면은 우리 어민들이 대대로 관리해 온 수면이며, 완도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수면들을 특정인들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완도군이 해야 될 우선적으로,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것 안 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제일 좋은 것이 용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수협중앙회에서 영향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가장 발 빠르게 어업적가치 평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계획도 없죠,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이제…… 아니, 현재하고 있는……

○ 박인철 의원

발전회사에서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 말고 우리 군에서 이 정도 어장권 확보가…… 많이 있는 어장권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우리 군 수산업의 가치라든지 국내 사례, 이런 부분을 보고 어업적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2회 추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우리 군에서도 집행을 하고, 또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과 대화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과의 공존방안입니다. 정부과제로 전북 고창과 통영에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전북 고창과 통영, 완도해역은 다릅니다. 똑같은 바다라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데에서는 다시마, 미역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온 차이,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바다생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을 다 넣어놨는데, 업무보고에다가…… 미역, 다시마 품목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산업이 각 지역마다 다 다르고 품종 또한 다르고, 경쟁력 있는 품종이나 어법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해역에 맞는 공존 방안이 뭔가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측기 설치를 위해서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전 사용허가,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고시에 의하면 계측기 반경이 5km죠? (예, 맞습니다)

말뚝만 박아 버리면 우선권을 주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작년 8월 이후에 고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그러면 이 업체들은 완도해상풍력하고 남동발전이 우리 군하고 MOU, MOA까지 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남동발전은 MOA까지 체결되고 완도해상풍력은 MOU가 체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하고 이런 업무체결까지 해냈는데 동일 해역에 2개의 업체가 계속기를 설치하도록 중복허가를 내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중복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5km 안에 다……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를 내줬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왜 내줬는데 안 내줬다고 합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방청석에서 “정책과장님 해수부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방청석에서 “취소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취소했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를 보며)

환경복지과장님, 산지전용허가 취소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좌석에서) 전에 8월 이전에 취소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했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업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실과소 간 전혀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 마지막인데 나는…… 해양정책과나 환경복지과에서 산지허가나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를 경제교통과와 의논해 가지고 내줘야 되는데, 이런 업무를 잘 모르고 있으면 막 내주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환옥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적인 행정실정이 이렇습니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국단장 제도가 생겨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단장들이 나서서 업무연찬을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께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백히 잘 기억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배정택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관광정책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1. 휴회의 건

(09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군 관광종합개발계획 등 총 23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관광정책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허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의회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작년도에 완도군의 회 해외활동 보고 시에도 제안했던 사업인데 알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본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아직까지 보고나 이런 내용은 없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때제때 세심한 주의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의견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해상케이블카 설치 구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원들이 전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용역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도타워는 그동안 상산, 완도 동망산 동망공원에서 상산까지 연결하는 그런 케이블카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지 상산까지 약 3.1km를 해상케이블카로 이동해 가지고…… 또 신지명사십리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안이 약 867억 원으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완도타워에서 상산까지 똑같이 케이블카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신지 명사십리까지 모노레일로 이동하는 사업으로서 800만 원과 모노레일사업비 246억 해서 1,046억이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할 경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립공원지역이 상당히…… 타 지자체를 보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데 상당히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 외에 저쪽 신리로 바로 올라…… 그러니까 상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신리로 내려가는 구간하고 또 명사십리…… 명사십리까지 하는 그런 케이블카를 한번 구상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하는 것이 한 4.2km 이렇게 용역 결과가 저희들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삭도는 단선이 있고 두선이 있고 세선이 있는데, 세선으로…… 단선보다는 두선이 안정적이고, 두선보다는 세선이 안정적이어서 초속 25m…… 시속 25m…… 초속이죠, 초속 25m 풍속에도 견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길이는 약 2km, 정확히 말하면 바다 위만 1,600M인데요, 그 위를, 120M를 공중에 떠서 모노레일로 이동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요금은 왕복 2만 원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민간업체에서 투자할 때 적어도 한 30년간 운영해 가지고 투자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만 5,000원 정도 이상 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세세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협의와 민간투자자 유치가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 좀 알 수 있을

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위원회를 통과하기가 그동안…… 타 지자체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2020년 10개년 주기로 공원구역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주관 부서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추진이 수월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공원계획 변경 추진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해상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잘은 알지 못하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양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 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해상관광진흥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들은 아마 해상관광진흥지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그 당시 지역 개발과입니다, 도서개발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완도 중도지구에 하나골프, 그쪽과 연계해 가지고 이 해상관광진흥지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그때 시행되지 않고 금년에 4월 1일부터 시행, 공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아, 예. 우리 군도 해상관광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받게 된다면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된다고 알고 있는데, 수산자원보전지구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완화가 된다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한번 해보는 것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우리 완도군 관광에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준비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나와 있는 명사십리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뭇 블루플래그 인증도 받았고, 또 그 위원들이 오서 가지고 막구조…… 그 지정내용을 알고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런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막구조상가 계약은 5년간으로, 작년 2018년 8월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9일에 공문을 보내서 철거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제가 금년 1월에 온 후로 아마 3월에도 2번 정도 철거에 대한 간담회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처음에 두 분이 해수욕장관리사무소로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저희들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철수를…… 철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해수욕장관리사무소 옆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하려고, 금년에 똑같이

영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설득해서요, 총 7동 중에 2개동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요, 저도 한 2회에 걸쳐서 3시간 반, 4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도 상당히…… 그분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에게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런데 일부는 철거를 했고, 지금 나머지 5동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금년에는 아무튼 제가 2월부터 그분들과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접촉하면서요, 금년에는 계절영업 허가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안에 본인들의 재산이, 그분들 말로는 2,000만 원, 3,000만 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그냥 이렇게 집행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그분들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무튼 절대 영업 허가는 내주지 않고요, 그냥 바로 끝나면,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끝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런데 그것이 피서철 내내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섯 군데나 되기 때문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저분들이…… 굉장히 금년에 영업할 것으로, 본인들은 영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로 강제 행정집행은 못할지라도 어떤…… 경관상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도 좋은 관광 그림이 들어간, 그런 막으로 가려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 허궁희 의원

예, 하여튼 어떻게든지 처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일곱 상가에서 많은 분들이, 피서객들이 음식…… 뭐 식사라든지 다양한 음식들로 이렇게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일곱 곳이 사라지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은 참……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16년도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막구조가 설치된 곳이 녹지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업할 수 없는 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푸드트럭을 한 4개 정도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공고를 했는데 2개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도에 주소가 있는 사람으로 공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외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더욱 말썽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완도로 제한했습니다마는…… 음식, 먹거리가 어렵게 된다면 저희들이 타 지구, 완도를 넘어서라도 이렇게 푸드트럭을 공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 음식, 먹을거리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푸드트럭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완도를 찾는 분들이면 회 한 그릇이나 전복 한 그릇을 먹고 가려고 마음먹고 오시지. 푸드트럭에서 그런 것을 사먹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물론 애들은 좋아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섭습니다마는 과장님의 혼자 힘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마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적극 대처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해요. 관광객들…… 이제 장마철이 지나면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올 것인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식당 두세 군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참 큰 걱정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구상을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막 구조 철거한 자리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짓죠? (예, 그렇습니다)

왜 꼭 이렇게 성수기 때 그런 공사를 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거기에 대해 저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생각합니다.

○ **허궁희 의원**

그렇죠, 과장님,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누가 이것을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을 좀 앞당기든가, 해수욕장 그 피서철이 끝나고 나서 해도…… 어차피 내년에 사용할 공사가 아닙니까. 금년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성수기에 발주해 가지고 정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좀 쓰시고요. (예)

이쪽 상가 입구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작업 있죠. 그 부분도 저는 아쉽더라고요. 엇그제가보니까 관광객들 차하고 공사 차하고 뒤엉켜 가지고 서로 뺑뺑거리고 이것이야…… 왜 이런 행정을 하는가. 좀 더 앞당기든가, 아니면 가을로 넘겨버리든가. 아쉬움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주위 사람들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십시오. (예)

또 모래 유실된 지역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모래유실에 대한 용역을 해양정책과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 **허궁희 의원**

우선 조치방법은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래서 마을에서 하는데…… 금년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모래를 거기에다가 좀 부어달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2주차장이 있는 그 곳에 모래를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 트럭이 모래에 빠져 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 **허궁희 의원**

안 돼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래서 중단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군 전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장마철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 아마 문제가 금년 여름에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하여튼 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우성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1페이지, 슬로시티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도군 전지역이 슬로시티로 확장…… 확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확대 지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2007년도에 청산도가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었을 때는 핵심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서 슬로시티의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슬로시티…… 시군에서 전 지역으로, 자치단체 전지역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그러면 그 확대에 따른 종합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 슬로시티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잘사는 지역 만들거라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슬로시티를 이렇게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례에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것은 슬로시티라고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슬로시티에 대한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잘 알리고요, 완도의 자연생태 그리고 느낌의, 여유 있는 그런 관광지다.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나 기관에 슬로시티 깃발을 게양하고 또 공직자들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게 꼭 국비나 도비, 이런 큰돈을 들여서가 아니고요, 아직은 우리가 슬로시티에 맞는, 걸맞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슬로시티는 완도군 전체가 지정을 받았지만 이렇게 분산보다는 집중화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면서 차별화가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야 만이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분산보다는 사업비 10억, 이런 사업비로 분산해 가지고는 전혀 효과가 안 되고, 안 나오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이렇게……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청산도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는데요, 청산도는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시키고 앞으로 어떤 그런…… 슬로시티 예산이나,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문화를 이런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최근 목포시가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언론에 완전히 도배된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슬로시티는

요, 우리 군의 소중한 브랜드가 아닙니까. 이 브랜드를 우리 군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하셔야 되고, 여기저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완도에 가면 “아, 그것만은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마다 자기 면에 어떤 것을 해달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꼭 거기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것으로 좀 연구를 해서 가지고 집중화를 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쪽에 위생……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음식점 위생 점검은 얼마에 한번 가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지금 사실 현재 현황이 고급, 약산 같은 경우는 2개월에 한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음식점이 거의 800개, 칠백 몇 십 개가 되기 때문에도, 현재 위생감시원을 동원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위생감시원은 그러면 어떤 분이 하시나요, 직원 말고 위생감시원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민간인 중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저도 마트나 이렇게 가게에 가가지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인이 무엇을 적 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에서 서로…… 안목도 있고 그러는데 가서 지적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참 어렵고.

내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2년 이상 장사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위생 검열한 번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식당에 가봤더니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습니다. 사실 사진을 찍어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하고 그

냥 보고만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슬로시티로 지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하시고, 또 우리 실정에 외국인들을 전부 종업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종업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음식을 주문해도 잘 못 알아먹고 또 뭐가 부족해서 갖다 달라고 해도 못들은 척하고 안 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가 있냐면 해남에 사는 지인이 완도의 횃집을…… 거기는 화를 사다가 떠서 먹는 곳으로 갔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항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분이 완도군수한테 전화한다고 막 전화번호를 누르고 하니까 그때 다르게 바뀌면서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고요. 또 어떤 한 분은 매운탕을 시켰는데, (청취불능) 가서 매운탕을 시켰는데요. 여기는 목포에 사시는 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를 뜨고 남은 뼈다귀로 매운탕을 끓여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매운탕을 시켰는데 이것을 주냐고 그랬더니 안 먹으려면 마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생검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슬로시티로 지정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겠습니까. 해양치유산업은 더구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좋은 문구를 프린트해 가지고 식당으로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검열을 한번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음식점을 해봤는데 반드시 위생검열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오늘 위생검열 갑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시키더라도 뭐 전부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면에 한두 명, 한두 군데만 가서 불시에 지적하고, 혹시 위반이 됐더라도 “다음에 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을 안 합니다.”라고 해놓고 오고…… 또 다음에 한 면에 가서 한두 집을 가고, 금일에 가고, 약산에 가고, 고금에 가고, 한 직원이 하루 출장을 내면 세 면도 갔다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것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위

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게끔 해서요. 전체 다 가면 인력만 많이 들고 힘들어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연락이 간다니까요. 위생검열이 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을 보내더라도 한두 집만, 한 면에, 힘들면. 그렇게 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영업을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점검하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업주교육, 그리고 직원들 자체교육, 위생감시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너무 불친절합니다. 어떤 식당은 쟁반에다가 음식을 갖다놓고 쪽 밀면서 “바쁘니까 좀 잡수시오.”라고 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친절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울릉도에 가가지고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식당들이 냉장고, 의자세트 이런 것들이 정말 정결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여기는 군에서 지원을 했는가 보다.’, 식당마다 다 잘 되어 있어요.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군에서 지원해 줬나 보다.’라는 제가 이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 입맛에 안 맞는 반찬이라도 그래도 기분 좋게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도도 정말 군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결하게, 깔끔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완도군 관광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이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이 완료되었으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우리 군 관광산업의 현실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군은 청정자연환경과 역사문화가 풍부한 고항인데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005년도 드라마 해신이 잠깐 인기에 힘을 입어 가지고 490만까지 하다가 약 6년 정도 300만 이상 관광객을 유지하다가 작년 2018년도에는 2004년 이전, 이하로 관광객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성장동력이 빈약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리적 여건상 그런 농수산업, 관광산업이 완도군 경제의 핵심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산업이 정체되고 퇴보된다는 군민들, 주민들의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듣고 있습니다. 사실 관광객이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여 가지고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문화, 역사 이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관광전략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의 역사자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지역으로 청해진 장보고 유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길 윤선도 유적지, 그리고 고금 이충무공 유적지 그리고 소안항일운동, 객사, 또 가리포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것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동안 장보고 유적지와 보길 윤선도 유적지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타 시군을 보면, 인물 역사를 보면 설화를 가지고 고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바뀐 소재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우리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 김양훈 의원

우리 군에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관광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개인적으로 각각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청산…… 슬로시티 청산도와 그다음에 수목원, 저는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면 외부 관광객들이나 지인들이 와서 완도에 가서 가볼만한 곳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딱 두 군데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군외 수목원, 완도타워. 그렇지 않고는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당일 코스로 왔을 때는 청산도에 들어가기 어렵고, 접근성이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가서 어떻게, 어떻게 관광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대답해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코스도 이렇게 1박을 했을 때 1일차…… 2일차, 3일차 2박 3일을 한다든지 코스별로 관광코스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19페이지에 보면 가고 싶은 섬, 생일면에 케이크 조형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이 됐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진행이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의 설계 잘못이라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생일케이크를 높인다고 밑에 받침대를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받침대도 없이 해가지고 그것이 좀 안 보이겠다 싶어서 높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케이크가 드러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높이는……

○ 김양훈 의원

처음에 이렇게 하실 때 주민들 청취는, 의견청취는 들어보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봤을 때는 설계 중이었는데, 담당계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 김양훈 의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전에 옥상에다가 생일케이크 조형물을 설치했지 않았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크고 금일에 들어가는 배에서 봐도 이렇게 훤히 보이고, “아, 저기가 생일면이다. 생일이다.” 라는 것을 뻔히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도 1억…… 거의 2억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지금 가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리고 이것이 케이크인지 생일면인지, 이것이 상징물 아님니까. 전혀 이런 것이 잘 안 나타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엄청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더 크게, 공사 중에 있으면 좀 더 크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높이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요. 기존에 2층에 있는 케이크가 저도 굉장히 좋고, 보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케이크에서 포토존으로 관광객이 왔을 때 사진을 찍지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아래로 이동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래도 생일면의 상징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고, 훤히 배를 타고 들어오면서도 볼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공사 중에 있으면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해상 힐링유람선 투어상품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람선 상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이것을 합니까, 상품 개발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유람선 타당성 검토용역이…… 용역기간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최초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에 저희들이 모집…… 사업자를 모집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것이 이전 업무보고 때, 연초 업무보고 때도 그때 박현식 부군수님이 제실 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해상 양륙 버스, 이런 것도 생각을 한다고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뭐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도…… 이것도 아직 없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수륙양용버스는 사실 유람선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수륙양용버스를 제주와 부산에 있는 업체가 최근에……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워낙 강력한…… 이 버스가 과연 파도가 2M 정도로 흔들릴 경우에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그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강력하게 유람선 수준으로, 그런 안전도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재질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다시 그 회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규제 유예,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다시 신청한 것으로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완도 바다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유람선 참 완도…… 바닷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 멋진 경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은 유람선 투어가 관광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으면 한번씩 의회에 와서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한국관광 100선, 우리 군은 그때 한 군데도 선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옆에 군에서는 그래도 다 갖고 있었는데, 그전에 완도군도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올해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씀, 드릴 말씀

이 없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군이 민선6기부터 뭐 500만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소리만 크지,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500만을 유치하려면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들겠네요, 여러 사람이 질문을 해서.

2페이지, 장보고수산물축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완도군의 대표축제라고 과장님은 어떻게…… 무슨 축제라고 보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산도 축제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하고 그런 것으로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장보고축제라고 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대표……

보면 계속적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라는 명칭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도 그대로 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축제 명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그동안에 장보고축제로, 인물축제로 하다가 그 당시 지역여론이 인물축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때 아파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장보고수산물축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장보고수산물…… 장보고인물축제를 하다가 수산물로 다시 했다는 얘기로, 장보고수산물축제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수산물축제로……

○ 최정욱 의원

2015년부터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 우리가 인물이면 인물, 축제가 그렇게 되어야지. 수산물축제, 사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장보고잖아요. 거기에 수산물을 넣어버리면 밖에서 축제를…… 우리가 기획할 때 뭔가 딱 꽃혀야 되는데 상징적으로 장보고, 수산물 두 가지가 들어가니까. 특별하고 상징적인 어떤 이름으로 각인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중간에 명칭을 다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물…… 최근에도 수산물보다는 인물축제로 더 강조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장보고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보고상단 퍼레이드도 했고요. 또 장보고 해상왕국, 그 중간에 있는 해상왕국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넓게 강조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장보고수산물축제지만 장보고 인물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려면 이름부터 바꿔야죠.

수산물축제는요. 지금 각 지역마다 너무 많고, 소규모축제도 많고 행사가 많고 그러니까요. 이것이 잘못되면 축제 분위기 자체를 이름 이것 이…… 수산물을 이제는 축제에 넣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장보고수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필요시에 그렇게……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쨌든 수산물축제, 장보고축제가 성공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축제고, 우리 군에서 무슨 축제라고 하면 장보고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최선을 다해서 살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은 축제 주제와 컨셉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축제위원으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다들 조금만 되면 마음이 들떠가지고 금방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지적도 많이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41개 우수축제로 선정하였는데 장보고축제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인근에 진도 바닷길축제, 강진 청자축제, 장흥 물놀이축제등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장보고축제가 최근 5년 이내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보고축제가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튼 저희들이 장보고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나 또 전남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찌됐든 성공하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냥…… 오래해서 이렇게 돼서 된 것처럼 벌써 들떠 있지 말고요.

타 지역의 군들이 저렇게 성공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을 잘 보시고, 따라서 축제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전혀 없으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축제가 말씀하신대로 지난 5년까지 우수축제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제로베이스의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축제가 대표축제나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결과보고회 때 들어가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그런 것은, 제가 지적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적어도 축제라고 하면 완도의 대표적인 주체성이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또 상징적인 것이 딱…… 관광객들이 귀담아듣고 다음에 어디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어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햇갈리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할 때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대표축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차분히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준비하고 개선하고 해야지. 그래서 그때 가서 더 준비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잘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그것을 하려면 그때 가서 하지 마시고, 그래 가지고 꼭…… 그렇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잘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하면 아무래도 다르겠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축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자꾸 그렇게 돼서 지적했을 때 “그때는 바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라고 이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25페이지에 음식문화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 좀 할게요.

본의원이 생일도밥상을 보고 우리 군에 특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혹시 추진되고 있는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생일도밥상은 굉장히 지역특산품으로 활용해 가지고요. 더군다나…… 뭇니까, 바위에 붙어있는 그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다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역음식으로는 최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대중화시키려고 생각이 드니까 대중화하기에는 이런 바다에서 이렇게…… 양식하지 않고 그런 생물이란가 또 기술적으로 나오는 음식을 그때그때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생일에 있는 식당이라도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그것도 어렵다면 완도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한번 접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먹어보셨죠, 과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생일도밥상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보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완도에서 살아도 느끼잖아요. 밥상이라고 하면 그런 특이한…… 완도만의 자랑인 해조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어도 참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완도를 찾는 사람이 하루를 지나서…… 물론 완도의 회와 전복은 대표음식으로 이름이 나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음식을 지나서 다른 데를 찾아보려고 하면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 개발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이것 진즉부터 추진해 온 것이죠, 음식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는 완도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음식 개발은..... 아무튼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했어도 지금 사실 제대로 이렇게 내놓을 만한 뭔가가 없죠. 시식용을 개발 했다고 했어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없습니다마는 해초비빔밥 정도, 그 정도가..... 대중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식당이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해서 하루에 한 200명, 300명, 500명이 온다고 그러면 식당에서 손님을 몇 사람이나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집중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매생이가 이름이 나기 전에 모 식당에서 매생이 하나로 이름이 나서 각 (청취불능) 밖에서 관광객들이 매생이를 먹으러 완도까지 오는 것. 그런 것 아시나요, 들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완도식당들이 매생이를 취급하지 않은 식당이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과장님, 이번에 맛집 조례가 통과된 것 아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통과된 것은 압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렇게 생일도밥상, 이런 밥상을 가지고 한번 완도읍에도 이렇게 지정해서 경영을 정착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런 부분을 대표음식과 관련해서 생일도밥상

이 대중화할 수 있도록, 어떤 컨셉을 변경해서라도 대중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음식을 잘 만들어서 성공한 모델이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당도 그것을 따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관광객들이 그 음식을 찾으러 오는데 다른 식당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그것을 보고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음식이 변화되고 개발되고 하는 것이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일도밥상에 대한 그런 비슷한 것으로 해서 그런 의지를 한번 가져볼 생각은 없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생일도밥상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자체..... 그 하나의 밥상은 굉장히 지역특산품을 활용하고 제철특산품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아무튼 생일도밥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고 우리 대표음식을 개발하는 것과 또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 최정욱 의원

특별하지 않으면 찾아올 이유가 없죠. 다른 데에도 다 음식이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특별하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해조류반찬 3종 차림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을 낼 때 어떤 음식점은 거의 우리 해조류가 안 들어갑니다. 멀리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해조류, 미역, 다시마가 보통 나오는데,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해조류를 상차림에 해서, 우리가 먼저 해조류를 소비해서 지역 해조류를 활성화하지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최정욱 의원

그것을 손님들이 잘 먹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사실 저희들부터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는 특별히 다시마나 미역을 이렇게 내놔 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손님들이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제대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를 개발했다고 하면 왜 안 먹는지, 이런 것……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세 가지를 개발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어떤 것이든 완도 해조류를 세 가지씩은 놓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좀 안 되는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왜 안 먹는지.

우리도 대표음식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 속에 반찬 세 가지를 넣어줘 봐야 식당들이 크게 선호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고 자기들만의 반찬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음식을 개발하듯이 그렇게 밥상을 개발해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하면서 그런 것을 개발시켜서요.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완도맛집으로요. 그래서 보급시키는 정도로 그렇게 가야 맞다 보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세 가지, 네 가지 해줘야 맛 없고 안 먹는데, 알면서도 굳이 여기 보고서에다가 세 가지해서 접목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보고 할 때마다.

제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더라도, 좀 늦더라도…… 아니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더라도 연구를 꾸준히 해서 그런 식으로 해봐야지. 못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 최정욱 의원

우리가 미역 하나만 가지고도 그 식당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나요, 음식솜씨와 손맛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다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음식이 식당 주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발을 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뭐해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꼭 좀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음식 개발을 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농촌기술센터에서 그때 개발을 했는데, 지금 업무가 제대로…… 어디가 어떻게 정확하게 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음식 개발은 농촌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개발될 경우에 이것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식품 위생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예산 지원은 우리…… 거기는 원래도 이것은…… 음식에 대한 지원이 도비도 있더군요,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없잖아요, 거기 기술센터에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예산을…… 저희 예산을 거기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그 한계가 제대로 나눠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시식행사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것으로……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서 시식하는 정도에서 정당하게 우리 음식 개발에…… 예산을 가져오고 도비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관광정책과장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예산을 여기에서 따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기술소에서 어떤 뒤를 하려면요. 과끼리 협의체로 해서 서로 하는 것이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은가요.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음식 개발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그것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생계라고 그러면, 사실 모든 음식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위생계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생계라고 그러면 어떤 위생 지도, 점검이라든가 또 이렇게 각종 영업신고, 또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 개발 예산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 **최정욱 의원**

아니, 내가 의원이 돼서부터 관광정책과에서 이것을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음식 개발 이런 것을. 그래서 질문하게 된 것이고 그랬었던 것인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그런 한계를 명확하게 해서 국비로 받아올 수 있는 곳에서 주관을 해야 맞죠.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아무튼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서도 엄청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것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동료의원들에게 많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새기서 가지고 완도의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안 이목 담수호에 35억을 투입해서

체험형 생태공원 및 휴양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주요내용은 탐방로, 조망대, 포토존, 또 생태체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소안면을 자주 들락거리다 보니까 갈 때마다 해양생태공원을 보고 오는데 볼거리가 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망대에 가면 (청취불능) 가서 멍하니 서 있다가 오고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투입된 사업비만 35억인데 앞으로 쓸 사업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뭔가 좀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시 제가 자리에 없었는데 저 대신 동료의원인 박인철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가 멍하니…… 지금 저 부분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봐보십시오, 여기가 담수호 조망대입니다, 조망대.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조망대 주위 수면 위에 미니 전복가두리랄까, 또 지주식, 뭐 부류식 김발, 미역시설, 그리고 죽방염이랄까, 여러 가지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참…… 저희들이 봤을 때 가서 멍하게 보고 오느니…… 그다음에 철새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철새를 본다 하더라도, 또 갈대가 우거질 때는 갈대를 본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아무것도 없을 때 가서 보면 도저히 뭐 이것…… 조망대라는 것이 무엇을 조망하라고 여기에다가 해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박인철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도 봤습니다마는 김이나 김발이라든가 뭐 이런 다시마, 미역 같은 경우는 가을에 그 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 추경에 할 때라도 시

법적으로 이렇게…… 크게는 사실 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형…… 옛날 그 채취선 같이 그런 것이라도 하나 소안면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근차근 그런 부분들도…… 아직 사업은 뭐 완료되지는 않았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거기 조망대에 올라가서 “아, 이 지역은 김이 이렇게 생산이 많이 되는 곳이다. 앞으로 김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좀 느끼고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콘셉트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서 조형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고 느낌으로써 뭔가 행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정책과의 임무가 막중하다 보니까…… 한 두 과가 되어야 될 텐데, 거의 두 과가 다 소모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런 좋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여튼 완도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세 지역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한 5년에 40억씩 투자하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40억씩.

○ 박재선 의원

그러면 올해는 소안이 되고 생일, 여서도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이 될 텐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안하고 생일, 여서도의 킬러콘텐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소안은 노랑 무궁화를 만들어서 지금 항일은 동기념관 근처에 있는 곳에 한 3,000평 정도의 노랑 무궁화를 중심으로 공원을 하는 것이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일은 아까…… 약간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생일케이크와 그다음에 섬길 조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서도는 돌담길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킬러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한 개 지역씩 보면 40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앞으로 시설하고 뭐하고 하면 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요, 사업비를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오시는 분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사업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주민들과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공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최대한 집중적으로 이렇게 분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투자를 더 해서라도 취지에 맞게 그렇게 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에도 뭘니까, 김양훈 의원님께서 작년 군정 질문 때도 했었는데 생일면하고 여서도 접근성 문제입니다, 접근성. 어떻게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생일면은 개인 회사……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서도는 섬사랑호라고 해서 국비…… 국고보조선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목포해양지방수산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서도 운항을 하루에 2번쯤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선 의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을 잘 듣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라도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되는 것은 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뭘니까, 청장님께서 완도 출신인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취불능) 좀 같이 하시고, 또 관심도 갖고 이렇게 추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작물 재배 육성사업 등 총 20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의원

과장님, 아까 보고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이 정부조직법에 개정안에 반영되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현재 7월에 행안부…… 농식품부 기구정원 책정안에 완도사무소 개선안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재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혹시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을 경우에 이것을 뭐 부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100%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보면 보통 부지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나머지 건물 부분은 농관원 본원에서 이렇게 계산을 세워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선 의원

예, 먹는 식품의 안전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도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이 있으면 의회도 같이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박재선 의원님이 말한, 여기는 부지하고 다 있죠? 기존 개포리에 있던 것이 폐쇄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사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팔아가지고 부지하고 건물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개포리 주택가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농관원에서는 거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해서 일단 추후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 박인철 의원

거기는 부지가 꽤 넓게 있는데 본건물하고…… 하여간 우리 군에서 할 때요, 재산관리계에서 사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우리가 못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군수님 공약사항인 완도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가 우리 군 농축산분야 대표브랜드죠? (예, 맞습니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특허청에 2016년도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상표 등록 시 관리기준도 잘 알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군수 공약사항에 관리번호 17번이라고 해가지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완전 정착' 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정착이라는 표현은 기반 구축이 다 되었다는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말은 맞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기반을 구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과장님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수산군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우리 완도에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산업을 선호하고요, 농업은 수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우리 자연그대로가 군수님 민선6기에 막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과장님이 네 번째 과장님인가, 다섯 번째 과장님인가 그런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님들이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완도 자연그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매번 질문답변 시나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미진하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좀 미비합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어떤 경우에 완도 자연그대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난 4월에 박인철 의원님 의원입법으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농약이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도지사 인증을 받았다든지 하면…… 그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우리 완도 자연 그대로 상표를 사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제품들이 상표를 달고 나가야 되는데.

누구나…… 지금 아무나 쓰고 있는 이런 실정이죠, 우리 군에서 생산된 품목에서?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아무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팀에서요, 이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면 신청한 후에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 관리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들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동법률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이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맞죠? (예, 맞습니다)

인증된 유기농산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우리 군에 한 80농가 정도 유기농 위주로……

○ 박인철 의원

유기농산물이요. 그러면 무농약농산물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무농약은 벼 부분이 많아 가지고 한 1,000농가가 약간 넘습니다.

○ 박인철 의원

1,000농가. 그러면 무항생제 축산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무항생제는 약 한 45농가 정도 됩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여기 인증 유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인증, 다시 한 번 말씀 좀……

○ 박인철 의원

인증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유효기간은…… 매년, 1년마다 인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이 잘 아시는데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까 기획실에 있다고 하는데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생산을 해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그 제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 얘기했던 이 브랜드를 사용……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의견이 어떤지 내가 동

의를 구하고, 또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에 정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도군이 수산군이지만 농업도…… 1년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업을 자가 농까지 해가지고요. 총 액수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2004년도에 그때 무슨 핵폐기장 문제 때문에 (청취불능) 하나가 자가농이 500억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쯤은……

뭐 노화도 전복만 키우는 줄 아는데 노화, 고급, 완도읍 벼농사도 엄청 많이 하죠? (예)

완도 자가농까지 하면 아마 3,000억 이상 될 것입니다. 이것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물어본 것은 품종별, 유통단계별로 필요한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만든 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상표 등록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완도 자연그대로가 제일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을…… 우리 농축산인들이 생산해 놓으면 과장님께서서는 유통, 마케팅 이 부분 신경을 써서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아로니아 주스, 젤리 개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예산 뭐 4,800만 원인가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을 이번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시다시피 아로니아가 32농가에서 약 8헥타르, 연간 한 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아로니아 품종이 충청도 이북까지 전국적으로 재배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가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군 재배농가들 용역을 좀 해서요, 주스하고 젤리제품을 저희가 레시피를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로니아가 처음에는 많이 권장한 품목이었는데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경제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다가 의뢰를 했지만 아로니아 제품들이 다 기존에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기존에 제품이 나와 있는데도 추출 방법에 따라서 효능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이오연구센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청취불능) 비교했을 때는 뭐 항산화 물질이 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차별화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에는 원생산물, 원물을 가지고 이것을 가공상품화를 해가지고 경제성이 있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스나 젤리 등으로 제품이 현재도 개발되어서 유통되고 있는데, 과

장님, 완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십 몇 농가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 공장을 차릴 수 있는 경제적 요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제품 연구와 개발을 하지, 생산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공식품으로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바이오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어도 일부 시제품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 박인철 의원

거기는, 제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저도 뭐 이사 중에 한 명입니다.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인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시제품으로 해가지고 그 단계적으로…… 학교식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거기에서 완제품이 되면 자가생산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조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그냥 그때 그때 어려움으로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영구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 완도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방송에 나온 것을 이렇게 보면 아로니아나무를 다 파고 있지 않습니까, 폐기처분하고,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저는 2페이지에 귀농, 귀촌 정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는 자치행정과, 여성아동과, 해양정책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어나 귀농정책은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이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정말로 인구 늘리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도 군정 질문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의 정착에 대해서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도시민들이 와서 바로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업을 한다든가 이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먼저 와서 귀농, 귀촌해서 겪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맞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귀농의 집이 한 군데 있기는 있으나 제대로 그 집이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와서 살아보고 귀농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시설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제가 군정 질문 때도 귀농, 귀어 업무를 통합하면 어떠냐고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혹시 그것을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귀농, 귀촌 업무는……

○ 우성자 의원

귀농, 귀촌, 귀어.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귀어까지 포함해서 전에 군정 업무보고 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지금 하반기 때 조직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참고할 것으로……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동안 검토해 보거나 이런 것은 없

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자치행정과에서 성과별로 의견수렴을 했거든요. 그때 귀농, 귀촌업무도 전체적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래서 귀어는 어디로 가고 또 귀농은 어디로, 귀촌은 어디로 사업을…… 업무분장을 시키면 이분들이 헛갈리고 복잡하니까요. 그냥 3개 업무를 한 계에서 봐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꼭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죠, 주택수리비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정착장려금 300만 원, 이 돈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금액은 적습니까마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은 많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못 받으신 분이 많은 불만을 토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면…… 정착장려금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정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교육을 100시간 받아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50시간입니다.

○ 우성자 의원

많이 내려갔네요. 그동안 8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내려갔습니까? (예)

제가 할 때는 100시간이었거든요. 100시간을

받고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또 (청취불능) 계약을 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인데.

또 혼자 오면 안 주지 않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세대로, 가족이 내려와야 됩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세대가…… 자식들이 단독세대로 나가있고 나 혼자 사는데 가족이 없다고 안 주고, 그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그런 경우도 이래 가지고요, 상당히 받는 분하고 안 받는 분하고 그런 사이도 안 좋고, 불신아…… 행정에 대한 불신과 또 상대방……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그런 점도 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주택수리비에 합해 가지고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양정책과장님하고 타협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귀농, 귀어인들을 만나보셔서 이야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그것을 한번 타협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 300만 원이 그대로 지원된다고 하면 단독 세대는 혼자와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들이나 딸들이 다 나가고 없는데, 나 혼자 사는데 어디에서 남편을 구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확실히 지어 가지고 처음부터 설명을 딱 해줘서 이 분들이 나는…… 뭐야, 정착장려금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거기에서부터 뭐 기대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형저장고에 대해서요, 올해 85대를 한다고 하셨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85동입니다.

○ 우성자 의원

예, 작년에는 몇 개 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집행부 좌석을 보며)

유통팀장……

○ 우성자 의원

작년에 172개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72개하고 추경에 100개 하고, 제가 검토해 봤거든요, 작년 서류를 보고, 그러면 왜 172개에서 갑자기 85개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자료를 봐보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담당팀장이 와서 서류를 주세요.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 우성자 의원

(집행부 관계직원을 향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이 85동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것은 다 하셨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우리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읍면마다가 사업량을 배분하고 그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집행부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줄어든 이유, 작년에는 172동이었는데 올해 85동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최근 평균적으로 2018년도는…… 172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는 94동, 2016년도는 88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읍면에서 듣기로는 85동을……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군청에서 제한해 둔 동수를 맞추려고 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못 받은 사람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물량이…… 이전에 심의하고 나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보조사업이 실과별로 이렇게 총액 실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온저장고사업을 늘리면 다른 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런 보조사업을 줄여야 돼서 이것을…… 지금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85동으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본예산 대비.

○ 우성자 의원

그러니까 소형저장고는 농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집에 필요가 없어도 하고 싶어 합니다. 옆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해서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더 줄이더라도 이런……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이런 것은 그냥 많이 줄이지 마시고요, 차라리 포장을 한 군데 덜 하더라도 이런 것은 민원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직접 민원인한테 이런 합성을…… 원성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줄여도 이렇게 갑자기 100동 가까이 줄여버리면 이것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등 총 20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환경산림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조금 늦어서 미안합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하고 몇 분 안 되는 분들을 데리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제하고 경쟁인데 어떤 상태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거제와 지금 전국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에서 당초에 공모사업 신청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 후보지가 다섯 군데에서 우리 완도군이 선정되어서 전국에서 2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아니, 1개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경남 거제시와 우리 완도군이 선정되어서 지금 후보지 현장평가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상태가 거제시에서는 각 유관기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장들이 적극 발로 뛰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고요. 우리 완도는 전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걸으려는 표는 안 나지만 물밑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거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필요한 사항으로 확정된 뒤에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

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완도군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런 부분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거제시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밑에서 조용조용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홍보나…… 언론지사 등 홍보나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해도 된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이번 주……

○ 김재홍 의원

아, 도 지침 때문에 여태 홍보를 안 하셨는가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장소가 완도수목원이다 보니까 우리 완도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모든 것을 총괄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시 홍보라든가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청취불능) 건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그분들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봤을 때……

최종심사가 며칠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8월 5일, 6일 양일간인데요.

전남도청 담당사무과장, 거제시청 담당과장께서 어제 산림청에 가서 어디를 먼저 갈 것인가 제비뽑기를 한 결과, 완도군이 8월 5일에…… 그리고 평가원들이 완도에 오셔서 13시30분부터 평가를 하고, 이곳 완도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거제로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대충 유치금액이 얼마쯤인지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거제시는 1,000억, 우리 전라남도 1,75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굉장히 거대한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완도군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성화사업 추진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없으면 놔두고요.
최근 언론에 공원 일몰제, 다시 말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제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장기간 방치된 공원부지가 공원용도에서 2020년 7월까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이죠, 우리 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조사할 때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문제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는 100만 제곱미터의 땅들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이 100만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기 때문에요, 우리 군에서 일단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원부지로 활용하거나 앞으로 공원부지로 활용해야 될 토지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것은 또 다른 대안을 한번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방금 말했지만 100만 평방미터나 되는 면적을 공원화하기에는 예산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 지자체 재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사유지의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혹시 마련 중에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를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매입하고 개발이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그런 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 제한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국에 들어오는 가장 큰 민원이 개인 사유재산을 왜 침해하느냐는, 이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보전산지나 보전녹지로 묶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재산사유권 부분도 고려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해서 그 경관이 훼손되는 시설물은 못 들어오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미집행 도시공원은 계속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허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들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상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5페이지, 진아리채 고물상 매입 추진사항입니

다.

먼저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물상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을 했어도 못했는데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 와서 이렇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재 부지매입이 완전 완료되었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완료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7월까지 이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전이 끝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이전 기간을 쫓고요. 의원님…… 그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 결과, 본인도 7월 말까지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 **박인철 의원**

이 부지매입은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일단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안에 있는 토지매입만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그 땅이 체육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활용은 문화체육과.

○ **박인철 의원**

문화체육과로 넘긴다는 이 말이죠. 관리 이전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진아리채…… 과장님 과에서 고생하셔서 가지고 도로 선형 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진아리채하고 대성병원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사고유발…… 다발지역이죠, 거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위험한 구간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도로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 도로는 아마 농어촌도로로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안전건설과장님도 여기에 계신데 적극 검토해주시고, 문화체육과도 안전건설과에서 도로를 신설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좌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7월경에 다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안전건설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요, 여기가 교통이 아주 많은 지역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조인호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소방서 신축 추진 등 총 19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안전건설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휴회의 건

(15시17분)

산회에 앞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에 대비하고자 내일 7월 19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7월 19일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질의)

부의된 안건

▣ 군정 주요업무 보고·청취(계속)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산업과
- 수산경영과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6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 · 청취(계속)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국수산업체대학 운영 등 20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5호 태풍 다나스 복상에 따른 전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우리 군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14페이지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조류 양식시기가 끝나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좀…… 해조류들이 많이 있고요, 또 미역귀를 생산하면서 줄기를 바다에 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을 수거해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바다에 버려진…… 우리가 청정지역이죠? (예)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 춘분기에 전복 먹이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약산에 주로 공급하는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약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은 주로 미역 양식 시기가 4월 말 정도 되면 거의 끝나거든요. 그런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매가 되지 않은 일부 해조류들이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이런 해조류도 수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매까지 전부 지금…… 수매하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애당초 목적대로, 과장님의 설명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왜냐하면 가공업체에서는 매일한 미역을 염장 후 보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 봤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금일에 한번 갔거든요.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우리가 금일 수협에 가서 그런 부분 염려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금일을 수협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미역 양식시기가 끝나버리면 미역을…… 채취하지 않은 이런 미역들을 전부 다 바다에 치워버린다. 그래서 이런 미역을 수매해서 가공공장을 우리가 가공해서 보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또 염장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설명대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염장해서 보관해 가지고 춘분기에 전복먹이로 가면 좋은데, 우리가 공장에서 되는 것을 사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염려하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 박인철 의원

확인을 철저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신데…… 혹시 다시마 꼬리 수매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시마 꼬리 수매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안 가봤죠. 저는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올해 다시마가 풍작이고 많이 하다 보니까 1,500, 1,700원짜리 다시마도 있어요. 제가 금일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완도수협에는 가봤거든요. 가면 대신리하고 정도리,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어민들한테는 최소한 7,500원, 8,000원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 어장에서는 자가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자가로 소화하려고…… 좋은 것은 뇌놓고 나쁜 다시마가 오는데요, 1,500원, 1,7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제품이 유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다시마 꼬리 수매 지원사업을…… 본예산에 했던 것이거든요. 올해는 특히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과잉생산 때문에, 아마 그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요.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나가면 주무팀장님이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이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같이 쫓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 유통질서가 또 문란하게 되거든요. 저질, 아주 안 좋은 제품들이 가니까 좋은 제품들이 같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주무부서에서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군수님이나, 또 의회에 보고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우리 어민들이 아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때에 예비비를 쓰라고 있는 것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 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다 우리 어민들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2억을 지원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마는 금일 수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과…… 아무튼 어려운 부분을 저희들이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금일 수협에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이 안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 조치하도록 올려놨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 잘됐고요. 발 빠르게 행정을 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적재적소에 해야 됩니다. 꼭 과장님이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낙연 도지사님이 계실 때, 지금은 국무총리입니다마는…… 또 우리 신우철 군수님이 막 들어와서요, 100원 희망택시 운영에 대해 알고 있죠? (예)

현재 7개 읍면에 13개 마을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보다 더 열악한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섬사랑을 이용하는 외딴섬 주민들입니다. 과장님, 그분들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따라서 그분들에게 완도군민이라는 희망과 긍지를 갖도록 섬사랑호가 접안하는 외딴섬 주민들에게 100원 택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번에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아니, 국회에서 윤영일 의원이 뭐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부속도서에서 섬사랑호를 타는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 박인철 의원

예, 외딴…… 군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다가 100원 택시를 하듯이 섬사랑호를 이용하는 모도, 여서리, 덕우도 이런 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것 좀 내년 본예산에 잡아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요, 한국수산벤처대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학사 운영은 잘하고 계시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잘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보니까 876명이 현재 수료하셨다는데,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벤처과정 (청취 불능) 과정하고 중복된 숫자가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중복된 숫자입니다.

○ 김양훈 의원

중복된 숫자요, 중복된 숫자면 505명이 맞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총 수료자는…… 숫자상으로는 그렇고요, 과정을 거친 학생은, 거쳤다는 것은 876명입니다. 숫자로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혹시 수산대학 운영하고 수료자들 창업이나 그 경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성과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주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 학교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성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아직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래도 한 번쯤은 성분분석이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벤처대학에 나와서 얼마만큼 어장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성분을 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완도 추진계획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365기 동대라든가, 이쪽 바다지킴이 이렇게 이쪽에 간단하게 있는데, 뭐 다른…… 지금 이것은 빠고요, 스티로폼 이런 것은 빠고, 한창 언론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무슨 계획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주로 방금 말씀하신 페스트로폼이나 해안가에 밀리는 쓰레기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전년도에 저희들이…… 페스트로폼 감용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연안이나 이런 데에 보면 분쇄되어 가지고 자잘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스템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해서 미세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북 패각도 바다에 다 버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자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그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일본에 가서 그런 사례도 연구했습니다마는 굴 패각도 주로 약산, 신지, 고금에서 발생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공유수면 상에 이렇게 막으로 방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일본도 한번 갔다 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통영시도 한번 가서 그런 사례들을 조사해서……

○ 김양훈 의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요, 저희들이 아까…… 페스트로폼만 저희 감용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소각기 구입을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소각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소각기가 특허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 김양훈 의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열분해…… 소각

시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하고 충청도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량 장착용으로 해서 특허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전남도하고 최근에 심의를 마쳤고요, 지금 구매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미세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소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수거만 했지, 전혀 처리를 못하고 스티로폼만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소각기가 어떤 소각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잘 추진하겠지만요, 한번 그 소각기를 미리 보고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상오염이라고 그러면 꼭 바다에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지에서 바다로 내려가는 오염물질도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에 따른 대책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연안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하수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더 이상 바다로 못 나가게 이렇게 방지막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걱정되는 것이 어민들이나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요, 바다의 폐통발 그 정화작업을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있으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내년도부터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쓰레기…… 소규모 쓰레기집하장 시설사업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선상집하장을 만들었는데

요소요소에다가 소규모로 해서요. 어업인들이 조업 중에 이렇게 발생된 쓰레기를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집하장시설을 만들고요. 이 집하장시설은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에서 수거처리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이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 김양훈 의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서,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면…… 제가 다이버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면 통발하시는 분들이 좀 걸리면 다 잘라버립니다. 바닷속에 있는 것이 거의 다 폐통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화사업…… 이렇게 사업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건져 내니까 이렇게 수질이나 밑에 별이나 이런 모든 것이 깨끗했는데요. 지금 폐통발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다 죽어간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안 되면 잠부수를 한번 넣어가지고 직접 보십시오. 어마 어마합니다. 지금. 그런 정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통발협회에다가 매년 통발 수거사업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진짜 완도가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딱 나오게끔 해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요즘 계속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와도 다 통발만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청정바다 완도 이미지가 되게끔, 좀 깨끗한 바다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고수온 적조 종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고수온 및 적조에 의한 전복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예)

4년 동안에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시 어업인의 손실은 물론이고 또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등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방금도 말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온이 높아버리니까 적조가 발생되었다가…… 고수온이 되어 버리면 적조는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2~3년 동안에 고수온 플러스 적조 이렇게 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 금년도 적조대책과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분말황토하고 머드스톤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적조대책은 그렇게 추진하고요.

고수온과 관련해서는 수온 측정을 과학원에서 하는데 8개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수온측정기를 10대를 더 임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요소, 요소에…… 현재 측정을 해서요, 과학원에서 측정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측정해서 대응하고 있고.

또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차광막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 그랬는데요, 과학원에서 최종…… 일정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차광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작년도와 다르게 저희들이 올해 국비사업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는 액화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서 피해 예방에…… 고수온에 대응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우리가 전복뿐만 아니라 광어랄까, 여러 가지 어류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꼭 발 등에 불이 떨어지면 행하고 하는 것보다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의 예방대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 가지고 제대로 매뉴얼 상으로 조직화되게끔 해서요, 4년 동안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작년도 군정 질문 시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피해가 발생된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전문기관에 심도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하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심도 있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과학원하고 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어업인 순회교육을 해서 어장관리교육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하고, 피해 어업인들도 물론 그때 나와서 교육을 받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간담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민들이…… 뭐 전복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조나 고수온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게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계속…… 우리 생산어가들은 전복만 키운다고 얹어져 가지고 있고, 또 나머지 일들은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피해가 나오면 보상이나 받으려고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하더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생산어가들

도 많이 깨우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작년까지도 전복이 계속 그냥 홍수 출하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즉, 행정과 각 협회 차원에서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홍수출하도 자제되고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패 입식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1년 6개월에 생산어민들이, 전부다 완도주민들은…… 전복을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지역 전복을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고수온이 오면 폐사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패 입식, 그런 홍보랄까, 어민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쪽……

○ 이범성 의원

군정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1년 6개월 동안에 폐사가 안 나오면 내년에 고수온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중간 패 정도면…… 5에서 8cm 정도 키운 것을 1년 6개월 키운다면 보통 10미랄까, 11미, 12미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량이 없고, 전부 다 1년 6개월 키우면 주로 14미, 15미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류소통을 위한…… 군수님이 항상 뭐 한 줄 비우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 축소랄까, 입식량 조절, 또 여러 가지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뭐 가두리…… 지금 가두리를 비우라고 하면 아마 어민들이 “당신, 무슨 생각 있는 소리하고 있어?” 라고 그럴 텐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장관리는 우리 김일광 과장님이 해서 김일광 과장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그러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복생산 어민들이 처해 있는 것을 볼 때요,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어민들은 고생만 엄청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왜, 소득상 1년 6개월 만에 팔아버리니까 소득이 많이 안 난다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인근 해남, 진도나 신안, 고흥 그쪽 생산어가들은 배를 두들기면서 그냥 큰 사이즈 가격을 올릴 대로 올려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 분명히 아시죠? (예)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 잡아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협의회에서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논의만 하면 뭐하냐는 이거예요, 세월은 다 흘러가 버리고.

우리 군의 전복생산어가랄까, 어류랄까, 다 해가지고요, 지금 어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한 7,000억 된대요, 7,000억. 다른 루트로 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어민들이, 생산어가들이 빚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모양새만 좋다는 이것이에요. 전복 같은 경우도 크게 키워서요, 만약에 뭐 10미 위주로 작업을 한다면 하루 판매량이…… 1톤 700 정도가 한 차거든요,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어야 이것 차표를 떼

고 뭐 좀 얻어먹는데…… 타 시군들은 한 차를 팔면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득이 1년을 따져놓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냥…… 우선 과거보다 폐사는 줄었지만 폐사가 안 나와 가지고 1년에 팔아버리고, 팔아버리고 하는 것이 지금 완전히 몸매 배어 가지고 있고요, 어가들에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수출물량이에요, 10미가 한 집당 한 500kg 정도, 11미가 한 500kg 정도 그렇게 요구를 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이랄까, 아니면 폐사가 덜한 지역 2년 내지 3년 지역만 쫓아다니면서 단가만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복리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제시했던 대안과 해당 어업인 및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피해 최소화 방안 및 중장기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시고요, 우리 군 생산어민들도 큰 사이즈를 출하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어촌 정수 생산기반 시설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촌계마다 가장 필요로 사용하는 시설이 부잔교와 인양기라고 생각하시죠? (예)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수요량이 많이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민들의 수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이 군특에서 내년

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저희들하고 한번…… 7월 24일까지 해당 실국으로 요구하라고 그래서요. 연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요구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1억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요, 그쪽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질변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내년에도 이것 추진을 계속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군특회계에서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어려움이 완전 많이 있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려움보다는…… 종전에는 중앙부처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도에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 이양사업이 됨으로써 도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가서 한번 저희들이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니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제 도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동안에는 군특회계로 했다면 도…… 지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최대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제일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 사업이 도 쪽으로 보면요,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사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우리 군은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세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 많이 배정해 달라고요, 우리 군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을 어찌 됐든 홍보를 잘…… 그분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인양기 중에서 내구연한이 초래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검사에 불합격한 이야기도 많이 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일부만 그렇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목포 안전공단에서 검사해 가지고요. 보면 읍면에 가끔 불합격을 맞았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수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년도에 지원해 준단지요.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금 몇 대나 그렇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올해 알기로는 동고리하고 한 두세 군데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거든요.

○ 최정욱 의원

2~3대 정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안전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준 것이 아니고요. 각 어촌계로만 연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마 조사해 보면 수리가 가능한 그런 인양기도 있을 것이고요. 쓰지 못하는 인양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치해 놓은, 한번 전수조사나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전수조사를 상하반기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필요하고 위험한 인양기, 이

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 조치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 지금 계속 그렇게 된 것은 철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한번 제대로 검사해 보고요. 그것에 대한 정비대책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페이지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4년도에 해양수산부 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아직 안 끝나고 있죠? (예)

왜 아직까지 안 끝났는지,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해양…… 이용 협의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해수부 승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정에 저희들이 무엇을 포함시켰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취불능) 모래포집기를 추가로 넣어서 이것을…… 해양 이용 협의를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에 해안…… 이용률은 연안침식이나 이런 부분을 주목적으로 뒀는데, 모래가 유실된다고 하면 왜 모래가 유실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7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용역을 중지하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년치 사계절에 대한 모래 유실의 원인이 무엇이나,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나.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수부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2차 연안 정비계획이 금년도에 끝나는데요, 3차, 그러면 이것을 3차 정비계획에……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3차 연안 정비계획에 반영해 달라. 그렇

게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기예산은 저희들이 한 30억 넘게 배정을 받았습니까라는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및 연안해역 이용 용역에서요, 둘 다 중지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금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용역비 지금 아까…… 사전모니터링은 다 확보되었고요, 해역 이용 협의도 다 뒀습니까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전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면 용역비를 현재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요, 용역비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그러니까 얼마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2억 1,000만 원인가 해가지고요,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 중에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난 사업인데 왜 이게 중간에…… 이것이 원래는 59억이 책정됐었죠? (예)

그런 사업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나 열정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모르고 추가로 이 사업을 신청했던 것인지,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59억이라는 돈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줬겠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게……

○ 허궁희 의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지침을 정해 놓고 쫓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중간에 중지되고……

모래 유실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을 한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금년 말입니다.

○ 허궁희 의원

금년 말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3차 추경에 반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3차 추경에는……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의원

결정이 되었나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해수욕장에서 부상자가 발생되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확실하게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시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모래 유실 원인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까지 같이……

○ 허궁희 의원

저는 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유가 선착장이라고 봐요, 울모래.

그러니까 나는 왜 이 얘기를, 이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고 싶으냐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설계 용역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고생을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연계가 되지 않고, 우리 군끼리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또 중지되고 그럴 것인데.

그래서 같은 우리 군의 사업들이니까 연계를 해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확대한다든지, 군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고 봐요. 대비를 철저히 해야 이것이 이중, 삼중 투자되지 않지. 돈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잖아요, 현재.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인규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저도 객관적으로 의원님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이것이 학술적으로 원인규명이 되면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유관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런 대책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하여튼 대비를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해양치유 자원 실용화기반 연구 개발사업 등 총 12건입니다.

.....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이상 보고 드린 12개 전략과제 외에도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양치유산업과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치유산업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기반구축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사업은 군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비 4억을 포함시킨 사업비가 56억이고 4개 시군이 포함된 사업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맞습니다. 4개 선도지자체에서……

○ 이범성 의원

금년도에 본사업이 끝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용역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해조류나 해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물질을 추출해서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또는 원료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상실험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임상실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종 결과물이 저희들에게 제출되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실용화기반 연구개발 사업은 3세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1세부가 해양치유자원 효능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고, 두 번째는 해양치유법

제정이라든가 사업화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용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민복지 건강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재 개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은 2018년도에 해양치유…… 우리 군의 대표자원인 해조류를 활용한 치유효능 검증결과입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러면 이 사업하고 더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이전 군에서 실행했던 다시마 임상실험이라든가, 그 부분들이 있었다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냐는 이것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제 해조류를 섭취하는 데에 있어서 영양가라든가, 이런 기능성 물질 연구는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대표적으로 우리 군의 대표자원인 해조류를 먹는다는가, 또 바른다는가 했을 때 효능을 검증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서 실험 결과를 정부에서 공인 또는 인증을 해주냐는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본의원은 해양치유산업의 소프트웨어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해조류 양식어가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조류 속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추출해서 건강기능식품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장들이랄까, 우리 군민들이 찾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해조류가 어디에 좋다고 광고할 수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연말에 최종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치유하는 데에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관시켜 가지고 광고도 나오구요, 정확하게 미역이 어땠다, 김이 어땠다, 톳이 어땠다, 다시마가 어땠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귀중하게, 군비를 투여해서라도 한 4개월가…… 아주 귀중하게 앞으로 해양치유산업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과제를 정해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해 줘야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 생산어가랄까, 해조류를 생산하고 있는 어민들이 아주 많은…… 값비싼 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군비라도 확보해 가지고 기능성식품원료 개발 인정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다음은 해조류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18페이지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시관을 찾는 관람객 추세가 요즘 어떻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마는 좀 미미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너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조류센터의 핵심전시관인데 그런 핵심전시관을 처음에 시설했던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또 새롭게 가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시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홀로그램이나 영상들은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도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는 것어요. 2021 박람회도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할 비용을 확보해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중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 이범성 의원

박람회를 하려면 뭐 지난 번 박람회 때 다 봤던 그런 것을 가지고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니, 새로운 콘텐츠를 박람회……

○ 이범성 의원

아니, 새로운 콘텐츠보다도요,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저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는 것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안 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다가 돈을 들여야 될 것인가, 2021년 박람회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야 되는데.

○ 이범성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뭐 청산을 갔다 온다든가 하면서 들려서 관람도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점인지 봐가지고 과장님께서, 아니면 실국장들 회의에서 어떤 모델로 잡아가지고요,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부분들부터…… 해조류전시관이 가장 중요한 기본, 지금 첫 관문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2021년에 해조류박람회를 한다고 관광객만 많이 유치한 다기보다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 보여줄 것은 없는데 와서 “와서 보세요, 보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것 명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부터 계속 페이지 수가 다르고, 과장님 책과 다른데요. 제가 이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점검하시는 분이 이런 세심한 부분도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나가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서류 점검하시는 분이 신경 좀 쓰십시오.

저는 5페이지, 해양치유산업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을 선점하고, 또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정이나 확산을 뛰어넘어서 완도가 해양치유와 관련된 시설이나 기반이 구축되어서 운영된 것처럼 그렇게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해양치유가 무엇이고, 완도에 가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있느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멀었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홍보를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 지인하고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셨죠? “해양치유 유토피아 완도에서 건강한 휴양을 즐기세요.”, 과장님은 이것 보셨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저희들이 직접 설치했습니다.

○ 우성자 의원

“해양치유 유토피아 완도에서” 이렇게 해놔는데요. 물론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유토피아는 흔히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완도가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을 보고 “너무 앞서 가는 광고를 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인 해양치유는 일반시설이 없을 때 해양기후라든가, 이런 천연자원을 활용해서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등 이런 1차적인 것을, 아웃도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요. 2차적으로는 해양치유센터라든가 이런 하드적인 부분에 (청취 불능) 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2단계로 볼 수가 있고요. 3단계는, 3차적으로 볼 때 전문의료기관에서 처방과 진단을 받아 가지고 수술을 받는다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는 조금 답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해양치유산업으로서 해양치유 모든 치료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것으로 봐서도……

“완도에 와서 즐기세요.”, 지금 당장 오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느낀다는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BI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해양치유중심지 완도라든가, 해양치유와 유토피아라는 그런 합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광고 카피로 개발했습니다마는…… 꼭 유토피아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만 적용하는 것보다도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최적지다. 또 완도의 해양치유산업은 다 건강하고 몸에 좋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 우성자 의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반드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실정하고 맞는 홍보를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도에서 당장 뭐 치료도 하고 아까 노르딕워킹, 이런 것도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노르딕워킹을 하러 오면 받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의원

그러나 현재 완도에 오면 내가 원하는 머드팩이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하시 되, 현재 실정하고 맞게 홍보를 해가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보하는 홍보물도 그런 것 신경을 쓰서 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이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우성자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건립사업비가 320억, 이중에 군비가 112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는 17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10억이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인데 그때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 건축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의원

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2021년까지 12월까지 목표로 정하고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제일 문제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잔여사업비는 304억인데 어떻게 확보……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문제가 없겠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군수님과 꾸준히 기재부와 해수부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억 원의 총 사업비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앞으로 정부안이 연도별로 얼마씩 배정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320억은 확실한 것으로……

○ 김양훈 의원

확실히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관련법에, 해양치유산업 관련법을 보면, 지금 국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거의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예산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이 걱정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그 센터운영 계획은 됐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공사 설립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제 주도 삼다수 공사, 그런 예를 제시하면서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설립 관계 타당성 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운영계획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내년에 바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 김양훈 의원

그 운영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세심하게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참고 자료로 이렇게…… 제가 한번 놀러갔다 왔습니다. 진안 홍삼스파에 한번 갔는데 여기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니 좋더라고요. 한 7~8개 정도 프로그램이 되는데,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4만 5,000원인가 주고요. 딱 2시간 걸립니다. 그냥 풀장만 돌아도, 아까 우성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완도 바닷가에서 노르딕워킹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센터에 접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센터 앞으로…… 테라피 시설에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어느 정도 진척되어 가는 것 같고,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어 가는 것 같고 준비가 하나하나 되는 것이 보이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되어야 되겠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 물론입니다.

○ 최정욱 의원

현재 노르딕워킹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노르딕워킹이……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중에 노르딕워킹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또 백사장에서, 또 실내에서 필라테스, 또 명상, 앞으로 요가도 할 계획이고요. 올해 여름에는 명사십리 모래 백사장을 이용한 모래찜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염지하수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일부터 바로 해수풀로 이끌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현재 시설을 요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설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비치 바스켓을 구입해서 오셨죠? (예)

그 뒤로 우리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치유…… 이렇게 체험해 보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놓고 나서 어떤 여론을 들어보거나, 비치바스켓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또 그렇게 느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시다시피 비치바스켓은 유럽에서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국내에 설치했을 경우에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그것이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는 상당히 톱니다마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상당히 신기해하고요. 또 자주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기호치유프로그램 시설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마는 국내 기술진들이 한번 보면 제대로 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런 뜻은 알겠는데, 지금 해서 처음 놓으면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앉는 것이지, 놔져 있으니까 앉는 거예요. 적어도 났을 때 이것 이……

저번에 명사장에서 군수님도 “비치바스켓이 설치됐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과연 앉아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관광객들이 앉아서 이것을…… 치유프로그램으로 해서 첫 시설인데, 앉았을 때 어떤 느낌과 어떤…… 우리가 뭐라고 할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셨냐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앉아서 체험하는 분들에게 간단히 인터뷰 식으로 해서요. “어떻습니까,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상당히 괜찮다. 재밌다.”, 이런 평을……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이 재밌다는 얘기예요.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 이예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전혀 어떤 하나의…… 신기해서 그 것이 놔져 있으니까 앉아있을 뿐이지, 치료에 대한 어떤 효과나 가능성. “아, 앉아보니까 어떤 느낌인데.” 라는 이런 것을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의자에서 앉아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좀……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처음…… 우리가 어떻게

든 일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첫째로 이런 물건을 들일 때부터 어떤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요, 적어도 관광객이 와서 앉아봤을 때 “아, 거기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 앉아보니까 어떻더라.” 라고 이런 효과가 나오게 그만큼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준비할 때, 괜히 와가지고 “그것이 무슨 치유냐?” 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것인데요. 그런 것 좀 잘 참고해서요,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2차로 어떤 것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뭔가 기능성을 거기다가 첨부한다든가. 뭔가 색달라야지, 사람들이 앉았을 때, 뭐 의자 같이 똑같은 것 앉아서 뭐하겠어요. “느낌이, 이것이 무슨 치유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치유사업의 근본적인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부터.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추가로 한다든가, 뭘 해야 되면 그런 것을 좀 해서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저 이상 할 수가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할 때 확실히 해야 맞죠. 이것은 어떻게 하든가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해야지. 예산만 막 가져와서 놓는다고 잘한 것은 아니죠.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군에서 성공을 해야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기호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설문조사라도 해가지고 앞으로 비치바스켓의 활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보완 좀 하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우리 국내 기술로도 충분하게 저것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우리나라 사람에게 맞게 해야 맞죠. 무조건 외국에서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뭐가 없다면 저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명사장을 오픈해서 하면서 이런 때에 명사장에 해양치유의 섬을 더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거리에 문구 하나

라도 신경 좀 더 써주시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산물의 천국, 이런 것은…… 그런 쪽에는, 그런 것보다는 해양치유의 섬……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가 자연치유니까요. 자연치유가 뭐예요, 휴양과 휴식, 그렇지 않습니까. 휴양, 휴식…… 예를 들어서 해양치유의 섬, 이런 식으로요. 그런 문구로 해서 이런 때에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사장에 관광객들이 올 때 이렇게 해야 홍보가 크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아, 다음에 이런 섬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자연적으로 홍보할 시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하나하나, 이런 것 문구 하나도 신경을 쓰시고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치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완도 전북주식회사 운영 외 16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의장 조인호

계속해서 보고해야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30분에 속개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오전에 이어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아니, 오전에는 차분히 하더니만 오후에는 왜 이렇게 달려잡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답변 좀 해보십시오, 과장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오전에는 너무 부연설명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달려잡니까. 차분히 좀 하지. 1년에 딱 2번뿐인 업무보고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9페이지요, 과장님.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면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제가 수산경영과로 와가지고 홍콩, 상해 두 번 해외시장 개척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완도군 수산물이 해외시장을 파고드는데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보다도 어려운 그 구멍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앞으로 수산물시장이 많이 개척되어 가지고 많은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데 큰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군수님이 외국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및 완도수산물 홍보를 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완도군수님이 한 것 같은데, 방문 MOU 이런 체결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가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과거의 실적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상해에 갔다 온지가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벌써 4,000만 원어치의 마른 김을 수출했을 정도로 조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오늘 일정을 보니까 과장님이 오후에 4,000만 원어치를 농공단지에서 물량 선적…… 그 행사 때문에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수출 실적과…… 저도 농공단에 삽니다. 과장님. 그래서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물량, 샘플물량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양도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마 우리가 미처 다 체크하지 못한 물량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군의 주력산업이 전복산업이기 때문에 전복 부분이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되는데 원물 가격이 워낙 해외시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높아 가지고요. 그런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만이 우리 수산물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무슨 원물가가 높습니까. 저도 잘은 모릅니다. 마는 kg에 만약 3만 원에 사가면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는 그것이 9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 정도 돈으로 팔린다고 하는데요. 무슨 원물가가 낮고 그럼니까. 오히려 저가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 바이어들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해외 투자유치도 중요하고 MOU 체결하는 것, 뭐 홍콩, 상하이, 미국에 다녀온 것도 중요한데요. 전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유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다는 인력 부족도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업무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난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움직일 수는 없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그마한 성과라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진단하기로는 첫째, 군수님이 해외에 다녀온 후에 주무부서에서 후속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이제는 군하고 같이 안 한다고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군하고 업체들하고 갑을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업체들이 행정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불신단계에 와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도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외국에 가서 팔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제품의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그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려고 해야 되는데, 완도에 있는 그대로…… 국내에 시판된 제품을 가지고 가니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박람회 시 완도에 있는 제품을 전시하니까, 아니면 풀무원이나 CJ, 동원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전시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청산바다에서 생

산된 전복 제품 이런 부분도……

○ 박인철 의원

우리가 해외시장이라고 하면 전복뿐만 아니라…… 원도 전복단기도 단가지만 해조류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올해. 뭐 미역…… 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역, 다시마, 톳, 매생이, 어느 것 하나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업체들이 다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런 RND를 개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앞서가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해외시장을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물품을 파는 데만 하다 보니까 전혀 성과를……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제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군에 나오는 수산물이 해외시장에 접근하는데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많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외시장은 앞으로…… 지금 같이 해왔던 그대로 하지 말고 다시 전략을 재수립해 가지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요, 국내 판촉행사.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행사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의 배경, 소요된 예산, 성과 등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성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날 개최해 가지고요, 9,800만 원의 특산품을 판매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갑자기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한 쪽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방금 답변했듯이 우리가 그 행사에서 9,800만 원의 실적, 판매실적이 있다고 했죠? (예)

그 행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행사비용은 우리 군비……

○ 박인철 의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우리 군이 1,900만 원, 금일 수협이 2,000만 원, 농협이 440만 원, 수협이 500만 원. 총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잡치지 않았지만 어류양식에서 준 500만 원까지 하면 5,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5,300만 원에다가 여기에서 군수님이 올라가고 또 다른 유관기관들이 올라가고, 우리 관내 군에서도 올라가고,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올라가고, 이런 경비까지 한다면 꼭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금액으로 (청취불능) 통해 방송 홍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해조류를 중심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중점이 됐고요. 또 일기가 좋지 않아 가지고 판매액이 저조한 그런 실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군비는 그렇다 치고 옆의 유관기관에서 부담해 준 부분에 대한만큼 실적을 못 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자꾸 말을…… 과장님,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번엔 공군화관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세미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기획예산담당관…… 내가 알기로는 수산경영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실제적으로……

○ 박인철 의원

업무가 수산경영과가…… 주관 업무가 수산경영과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실제적으로 미세먼지 부분은 수산경영과 소관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미세먼지와 해조류가 결부되다 보니까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심포지엄은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요, 심포지엄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맡아주라는…… 부탁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월 질문답변 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잘 알았고.

금일수협에 확인해 봤더니 이 2,000만 원…… 돈만 냈지, 세부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류수협 500만 원은 군에서 집행했는데 회계절차를 거쳤습니까, 없죠?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서 잡수입은 처리하지도 않고 정산도 안 됐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광어협화하고 직접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광어협화가 됐든, 우리 군에다가 뭐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여기에서 형법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식재해보험에 대해서 한마디, 25페이지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험 조례가 갑자기 변경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와 현재 가입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전년도에 1,331명이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올

해는 928명으로 한 70% 정도 가입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70% 정도 됐다면 변경사항 중 어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제일 첫째가 표준사용 기준이 갑자기 강화된 부분하고 그동안에 우리 군 지역에서 재해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재해보험률이 288%까지 높아짐으로써 보험률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업인들이 많이 가입을 기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의 답변처럼 가장 먼저 표준사용 기준에 대한 것인데, 이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표준사용 기준을 해수부하고 수협중앙회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전혀 몰랐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저희들한테도 의견 조율이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이 표준사용 기준이라는 것이 보험에 이렇게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전복산업 활성화 방안 안에 행정에서는 그래도 사용일수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건강한 전복을 양성할 수 있다, 이런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부분은 국립수산과학원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수부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요, 본의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12월 4일 해양수산부에서 전남도에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며)

여기 딱 나와 있구먼요, 전남도 서류에,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12월 5일에 우리 군의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우리 군에서는 12월 13일 주요 양식품종 표준사용 기준 개정의견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전복은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이 중요한 주요 표준사용 기준을? 여기 보니까 내가 서류를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작년 12월에 했는데…… 여기에 딱 첨부된 서류가 군외면에서 세무회계 6급 박국중이라는 직원이 광어에 대해서만 넣어놨어요, 도에다가 넣어놨어요, 전복이 해년마다 보험 때문에 죽어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도에다가 회신도 안 했어요, 전복에 대해서는.

이것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오기 전입니까? 제가 보니까 과장님 전, 과장님이 수산경영과장으로 오기 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팀장도 빠져 있고 직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만 했더라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타까워서…… 이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군 수산행정의 현실입니다. 이런 공문 하나하나를 잘 받아줌으로써 우리 어민들한테 혜택이 오게 되지, 이것만 잘했어도 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문제가…… 공문을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 문제예요, 그렇지만 행정이란 것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물은 것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사님이 피해현장에 왔을 때 재해보험 지방비 한도액을…… 지금 전복 무슨 협회장입니까, xxx 협회장님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서로 건의는 했습니까, 도에다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몇 차례 도에다가 서류로 건의를 하고요, 그 당시에 xxx 회장님께서 건의를 도지사님께 했는데 2017년도에 150에서 300으로 인상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많이 부담된다고 해가지고요, 조금 난해하다는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사님께서도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조만간에 이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어민들을 위해서 꼭 되게끔 계속 건의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변경된 보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엇그저께도 태풍이 이렇게…… 7월에 없던 태풍이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70%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보험을…… 보험도 적정 수준에 안 맞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업인들이 양식하고 있는 현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 박인철 의원

설치기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설치기준하고 약간 괴리가 있기는 있는 부분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한테 묻느냐면 항간에는 뭐 한 칸에 전복…… 쉽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전복 한 칸에 2,000미가 들어가는데 1,000미는 보험이 들어있고 1,000미는 보험이 안 들어있으니까 만약 태풍…… 재난 시에 보험을 든 것은 보험대로 하고, 보험을 안 든 1,000미는 재해보험을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준 보험제도 있죠, 한 어가에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러면 폐사가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은 보험을 들어 있고 어떤 것은 보험을 안 들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전수조사는 다 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은 5월에 합법적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조사가 끝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에 해수부 주관으로 전남도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어업인들과 관련 단체, 또 신의준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그래 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올해만큼은 표준사용 기준은 보험으로 가고 오버 입식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기에서 해수부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에서는 어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셨고요.

다만,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부분이 지금은 막혀 있어 가지고요. 지금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행안부하고 해수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만이 내일이라도 당장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이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요. 아마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왜 그러냐면 벌써 시중에는 어민들한테 그렇게 들고 있어요. 보험 넣은 것, 또 보험을 안 넣으면 정부에서 한 재난대책으로, 재해보험으로 보험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도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전복이 보험을 들었고, 어느 전복이 보험을 안 들었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협에서 어업인들이 이 보험제도가 갑자기 개선되다 보니까 가입을 안 하고, 차일피일 이렇게……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어업인들이 바라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이 상당히 늦어지고요. 어업인들이 많은 기피를 해왔기 때문에 늦게 가입 신청이 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이, 그래서 아직 현장실사가 보험사에서 안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해수부에도가도 제도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사항을 며칠 전에 전화상으로도 건의했고요, 요구했고요. 또 보험사에서도 빨리 이것 실사를 끝내야 된다는 사항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어민들한테 결정된 것처럼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민들의 불편, 어민들의 손실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것이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수협에 FPC,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대 의회 때부터 계속해서 주문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완도 금일수협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사업. 즉, FPC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혼잡이 예상되어 인근에 있는 개인소유…… 저기 냉동 저장 시설 알죠? (예)

저것 철거와…… 그 옆에 경사 물양장 알죠? (예)

그것을 복구하여 차량 이용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군정 질문을 통한 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다시마 위판을 할 때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기 해조류 주재판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더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당시 저장물 철거비 일부를 수협에서 부담한다고 수협조합장하고 약속한 바 있거든요. 일부 도비를 받고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이것 꼭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신안군 양식학교 개설이라는 정책 들어보셨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못 들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신안군의 경우 민선7기 들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안군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안군에서 경쟁력 있는 지주식 김과 왕새우, 개체굴 등 3개 품목을 전략품목으로 선택 후 양식학교를 개설하고 수료자들에게는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채용 시에는 자격증이 있고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벤치마킹할 생각은 없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한번 저희들이 금번 출장을 가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후에 좋은 부분은 우리 군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도 지금 들어서 알죠, 우리 군에 수산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엄청나게 많이 부족합니다.

○ 박인철 의원

엄청나게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십시오. 완도군은 수산군이라고 해가지고 과도 두 과가 있고 사무관도 4명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인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신안군 같은 데는 수산직을 엄청 많이 뽑습니다. 이것 꼭 자치행정과에 해서 올해 뭐 3명인가 5명을 뽑는데 3명인가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숫자를 가지고는 되

지 않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 사진은 제가 완도 망남리 어민들과 금당면민들하고……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삼배체 굴 현장입니다. 삼배체 굴에 대해 과장님, 들어보셨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조금 들어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남해, 신안, 인근 고흥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같이 갔던 일부 어민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소득품종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삼배체 굴에 대한 지원을 해주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직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담당과장님,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금당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던데.

(방청석에서 “삼배체가 아니고 그냥 개체굴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냥 개체굴입니까.

하여튼 보니까 이배체 굴이 있고 삼배체 굴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산도 잘 되고, 삼배체 굴은 그 뭐야, 씨가 없는 것이라서 전북들한테 피해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고요.

이것도 시간이 되시면요, 업무보고가 끝나고 8월경에 의회에서도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요, 우리 전 북산업이 위기산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대체품종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삼배체 굴 부분은 남해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 다미는 지금 현재 고흥 쪽에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정보도 있고 그래서 고향을 한번 제가 가서 실태파악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금당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도 들어봤는데 겨울에 안 크다가 수온이 막 변하면서 엄청 빨리 크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개체들은 이배체도 그렇고 삼배체도 그렇고 계절에 관계없이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도 본예산에도 잡아 가지고 시범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페이지,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추진이 매우 느리네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설계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일정 규격에 맞춰서 지으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설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설계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설계비에서 그것을 좀……

○ 이범성 의원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을 가지고 많이 도 설계 심사과정에서…… 돈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

를 될 수 있는 대로 95% 선에서 저희들은 맞춰줬으면 하는데, 설계심사과정에서 절대 그것이 인정되지 않아서요. 줄다리기 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금년도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최대한 그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기가 협조해 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항간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하게 떠돌고 있는데 장보고식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장보고식당이요?

○ 이범성 의원

옆에 물 라인 (청취불능) 때문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것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옆에 장보고식당인가, 거기에서 배수로 관계로 상당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하면서 배수로 라인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는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전혀 물류센터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쪽으로 배수가 되고 있어서요. 관계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당사자는 그 배수로를 이번에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로 배수로를 해주길 바라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은 원만히 해결되겠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전혀 저희들 사업하고는……

○ 이범성 의원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사업이 매우 지연된 만큼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먼저 수산물물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또 아무 필요 없는 건물이 되어 버렸을 때는 엄청난 군의 손실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여차피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운영을 누가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군에 있는 한국전북수출협회, 전북유통협회, 남도전북연합회, 광양양식단체를 전체 회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립되면 그 조합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차피 수출물류센터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활전복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급속동결장치 20억 사업도 수립하고 그래서 되는 대로…… 될 수 있으면 활전복과 가공전복 위주로 해서 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영은 지금 운영을 했을 때 무엇인가 잉여가 있어야…… 건물을 지어놓고 어떻게 봤을 때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대단히……

물어볼 것들이 한 30분 정도 걸리겠는데 괜찮겠어요? 과장님, 저쪽 행사장에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어볼 일은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군정 질문시 내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료를 많이 요청하려고 합니다.

급속냉동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 아……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HCCP시설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설계되었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다 포함해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HCCP시설이 왜 중요하냐면 일본으로 1년에…… 저희들이 활전복으로만 한 1,600톤 정도 나가는데 2021년에는 HCCP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지금 수입을 안 한다니, 어찌나…… 이런 부분들로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정보가 들어와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행사 때문에 다음에 더 질문하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의 표시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한 운영을 누가 하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빠른 시간 내에 정립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누가 한다니, 안 한다니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정립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왜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넣어주느냐, 뭐하느냐고 계속 말꼬리에 말꼬리만 넣고 있습니다. 현 시점으로.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요. 하여튼 수출물류센터가 우리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 완도에서 과잉 생산되는 전복산업에 대해 정확히 맥을 짚고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할 수 있겠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행사 때문에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4시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중국 상해 시장개척단 수출 계약 물량 첫 선적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 지도사업 추진 및 지도 공무원 역량강화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2페이지, 꽃차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물

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꽃차산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였는데요, 계획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도 청정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생하고 있는 그런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요, 장미라든가, 식용장미죠, 장미라든가 그다음에 코끼리마늘, 또 도라지, 작약, 그런 주위에 있는 소재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기초를 잡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전국 최초 꽃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이 그런 꽃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꽃차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요, 꽃차 소믈리에반을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해서 연중 50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그런 계획으로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꽃차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신안군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꽃차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말 빠르게 대응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이 꽃차산업을 선점하려고 나름대로 특색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파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 꽃차산업이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산수국을…… 주식회사 코스맥스 하고 일전에, 5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산수국 앞을 납품해 가지고요, 어떤 추출물을 가

지고 활용해서 저희들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요. 거기에서 산수국을 확대 재배하면서 나온 생장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수국은 다른 시군에서는 아직은 거론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5주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10만 본을 유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하여튼 꽃차산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농민에게 산업으로서의 경제성을 줘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제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예산도 열악하고요, 여러 가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처리되지 않는, 그런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타 시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뺏겨 버린단다가, 그런 부분들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걱정스럽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주민 소득과 연결되지 않으면 뭐 필요가 없겠죠. 꽃차산업이라든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농가 소득의 주부분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제 말에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꽃차산업 육성이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별하게 추진하여 주시고요, 또 과감하게 진행해 주셔야 방금 말했던 타 지역이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서 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터들이 꼭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허궁희 의원

김양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센터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전문여성농업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생활개선회하고 그다음에 한여농회,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전문여성농업인들이요? (예)

그러면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단체 말고 전문적으로 농업하시는 여성분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개 조직이고, 품목별로 연구하라고 해가지고 음식연구회도……

○ 김양훈 의원

예, 그러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어느 영역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농촌 같은 경우는 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활동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또 저희들이 주도해서 움직여야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요, 참 운영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특히나 음식연구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심에서는 어떤 음식…… 새로운 그런 음식들을 배우기 위해서 음식 전문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 같이 이렇게 취약한 곳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학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음식

들을 접할 기회가 없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여성 회원들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런 교육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마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섬으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읍면에서 나오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완도를 지역이나 도로와 연륙된 면 단위는 그래도 편안한데, 그래도 옆에 있는 섬 쪽에서도 그렇게 농협…… 전문인들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생산부터 기술 지도까지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광범위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외면에…… 사시는 분인데요. 도시에서 귀농해 가지고 목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분을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해서 목이버섯을 시작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요, “귀농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목이버섯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목이버섯을 하게 되었고 그랬더니 “식이섬유 함유량 매우 높고 비타민D가 풍부하고 여성들 건강에 아주 좋다. 건강의 섬 완도 여성들한테 공급하고 싶어서 목이버섯을 택했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이버섯을 재배하면서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산하는 부분, 재배하는 쪽에서는 자신이 있는데 마케팅 쪽이 매우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센터들에서 전문인력들한테 마케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생산하고 재배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케팅, 이런 부분은 참 매우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농업인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자주 만나가고요. 편하게 재배하고 유통부터 마케팅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그분들도 편하게 농사를 짓고 그

럴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좀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허궁희 의원

김재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센터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센터장님, 여기가 완도로 들어오는 입구 남창대교입니다. 아시겠죠? (예)

전에 보면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어요. 양쪽으로 꽃으로 해가지고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완도의 이미지를 보여주시고요. 해남에서 완도 진입 시 차별화를 통한 완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창대교에 사계절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센터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첫 이미지이고 좋은 인상을……

○ 김재홍 의원

관문이다 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산림과입니까? 시가지에 그 꽃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꽃만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 김재홍 의원

아, 시설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실질적으로……

○ 김재홍 의원

그러면 팀장님께서도 지원해 주고 환경산림과에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조성.

○ 김재홍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좌석에서) 예, 몇 년 전까지는 환경산림과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차 연구검토 결과에 의해서……

○ 김재홍 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사업비보다 모양새가 훨씬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내년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좀 부락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좌석에서) 내년 본예산에 요구해서 가급적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역특화 틈새작목, 그 비파 관계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파농가가 124농가로 되어 있어요, 72헥타르, 올 봄에는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축산과하고 또 농협군지부하고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이렇게 갑자기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 김재홍 의원

올해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해마다 그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올해 특히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았는데……

○ 김재홍 의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어느 농가에 갔어요. 가서 탄 것을 보니까 엄청 많이 따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처리 부분이 없어요,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마침 보니까 가공…… 비파 가공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법안을…… 크게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요, 일부 생과를 소비시켜 주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을 좀 확대해 가지고 최대한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야 될……

○ 김재홍 의원
가공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즙이라든가, 와인.

○ 김재홍 의원
비파를 장시간 보관을 못하죠? (예)
제가 봐서도 가공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가 안 되고, 과잉생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공기술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금년도에…… 고금도에 정미순 농가도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요, 처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서요. 농업축산과에서 착즙기인가요, 그것 2대를 5 대 5로 해서 지원을……

○ 김재홍 의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파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공시설

기계를 확보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금 보면요, 제가 어느…… 대체작 물로서요, 애플망고를 완도에서 키우고 있는 농가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망고라는 것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대체작목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데 묘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가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면서 행정예다가 지원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요, 농가들이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해보시오.”라고 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마무리할 때쯤에는 행정예다가 의타심을 가지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판매 부분을 우리한테 떠넘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 김재홍 의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과잉 생산되고…… 제가 봤을 때 비파를 지적한다면 어느 농가에 특정을 뒤가지고 했으면 이렇게 과잉 생산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런……

○ 김재홍 의원

그리고 애플망고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서 하다 보니까 3년째 됐는데 벌써 열매가 열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체작목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홍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최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소장님, 내가 이것 업무보고 때 군정 질문 때 계속했던 사업인데, 계속 말했던 것인데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왜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냐고 그랬는데 지금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수리사업, 인원 충원이라든지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이 잘 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때 자치행정과……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 그 군정 질의답변 때 행정계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자치행정과 인력부서…… 뭐냐, 인사부서하고 최대한 절충해 가지고 조기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할 때마다 그 말을 내가 계속 들은 것 같은데요. 완도는 4면이 바다고 농가가 다 영세하고 소농가들이에요. 소농가를 위해서 이 임대사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뭐 대농가들이야 다 경쟁력이 있어서 웬만한 농기계는 다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완도는 사실 다 영세하고 그렇게 농사가 크지 않으니 임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정책적인 사업인 것이고 그것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완도는 특히 고령화죠. 옛날에 그래도 이분들이 완도를 다 지탱해 왔던 분들이에요. 혹시 소장님, 고령화고 그래서 무시한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없는데 왜 말이 꼭 그때마다…… 이렇게 빨리

하겠다고 하면서 왜 안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하여간 이번 조직개편도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적극적으로 인사부서하고……

○ 최정욱 의원

의원 발의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해서…… 이번에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또 안 되어 있고, 또 물어보면 우리도 참 말하기가 힘들죠, 이것에 대해 어떤 설명하기가…… 뭐가 강하게 해야지, 인원 보충이 안 되면.

(복지행정국장 허정수를 보며)

허 국장님, 어떻습니까. 요청해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검토하면 뭐해, 그 민원인이 계속…… 서비스가 뭐예요,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진짜 해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령하고 영세하다고 해서 무시해 버리면 안 되죠.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장님한테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런 질의를 하거나 질문하는 것 없게끔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야…… 내일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아, 이제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잘 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렇게 설명해도…… 오늘 답을 이렇게 듣고 “아, 이제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또 몇 개월이 넘어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거기에서 “우리 못하겠습니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설명하겠죠, 민원을…… 그러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다음에 그런 것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파산업이 6차 산업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6차 산업에서 전부 끝났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서 그것을 하면 신지에 있는 거기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생과로 팔 것은 생과로 팔고, 나머지 앞이나 과일 같은 것은…… 거기에서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량 수용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가 지금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신지를 지나다닐 때마다 보면 문이 닫아져 있던데, 지금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현재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 박인철 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후속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총 사업비가 30억이 넘게 들어갔죠? (예)

말씀 많은 비파산업이 아닙니까. 저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한번 나왔던 것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장이었는데 제대로 안 봤다고 해가지고요, 광주타임인가 어디인가 내가 대

문짜하게 한번 맞았는데, 왜 그것 활용도가 그렇게 떨어집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를 작목반으로 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림막 같은 것도 싹 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때…… 법인이 2개 있습니까, 비파법인? (예)

지금도 각 법인끼리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은 어느 정도 분리되어 가지고 그렇게 큰 트러블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7대 의회에서 막 들어와 가지고요, 이 비파산업이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6차 산업이 되어 가지고 신지에 공장까지 다 설립되어서 우리가 현장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그런 기계 설비를 놔놓고 아직도 이렇게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산업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놔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의 어떤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매자금 같은 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서 생산된 것은, 생산된 완제품으로 나온 것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생산해서 나온 것은 비파와인 하나요. 나머지는 전부 다 om방식으로 생산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스라든가 그다음에 잎차라든가 그다음에 비누, 그런 것들은 전부 다 om방식으로 생산하도록……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om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생산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om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공장에서 om방식으로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쥐가지고…… 뭐야, 완제품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가 다른 데에 쥐가지고요, 법인에서 쥐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은 못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자본금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 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부분들은 거기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파를 권장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 군비까지 해가지고 30억이 넘게 투자된 사업이 아닙니까. 하여튼 잘 되게끔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공장이 설립됐으면 사후관리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장이, 그 법인이 잘 돌아가면…… 운영비라도 안 되면 군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지금 비파농가가 엄청 노지로 해가지고, 하우스로 해가지고 여러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개발만 해놓고 이렇게 놔둬 버리면 그 농가들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안 되면 우리가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
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
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분뇨 및 오폐수처리장 운영
관리 등 총 10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의 보고 내용 중 의문 나
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인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오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문
졌습니다.

죽청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용량이 1일 몇
톤이며, 현재 가동률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
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처리용량은 1,750톤이고, 현재 1일 7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40%가 되겠습니
다.

○ 박인철 의원

가동률이 40%라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들이 84개소입니
다. 당시에 공사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가
지고 입주업체를 모집했는데 일반 생산하는 업체
는 적고요, 육상 축양시설, 그러니까 농공단지가
분양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당시에 육상 축양시설
을 많이 처리장에 설치하다 보니까 폐수 유입량
이 상당히 적어서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오폐수처리장에서…… 농공단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도읍내 것도 들어
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농공단지 내에서만.

○ 박인철 의원

농공단지 내에서만 들어옵니까.

그러면 해양생물특화단지 내에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것도 죽청리 농공단지로 갑니다.

○ 박인철 의원

죽청리 농공단지로 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되었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처음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수처리시설만 들어와야 되는데 분양률이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소장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노후화가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배출수 수질기준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잘 관리되고 있으면 과태료 납부, 이런 문제는 없겠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없고. 개선명령을 한 차례 받았는데 그것도 시설물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저번에 방송에 나온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수고 앞에서 농공단지로 넘어가죠, 우리 그쪽으로? (예)

그 처리시설은 어떻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것은 완도읍 내에 생산된 오폐수를 본처리장에 펌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1일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1일…… 거기도 한 700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용량은 조금씩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명수가 해수라든가 비가 오면 물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지금 죽청리 그쪽에서도 거기로 들어오죠, 농공단지 쪽으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죽청리 내에 있고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우리 시내에 처리하는 시설이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수고 앞에서는 냄새가 조금 덜 납니다. 거기는 냄새가 덜 나는데. 제가 농공단지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주말이 되면 농공단지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화장실 각…… 농공단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말만 되면 냄새가 올라옵니까? 그것은 가동을 안 해서 그렇니까, 아니면 기온 차이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가동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악취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 박인철 의원

그 악취가 주말만 되면 그러더라고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 어류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거기에서 나는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해가지고 처리장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 박인철 의원

아니,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니고 각 가정…… 전부 다 화장실 같은 것 라인으로 농공 단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꼭 올라오더라고요, 주말만 되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특별한 이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희들도 한번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리고 소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알고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수도 및…… 하수도법 및 완도군 하수도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죠? (예)

2018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한 건에 한 7,100만 원.

○ 박인철 의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 건에 7,15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수도 조례에 의하면 공사 착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현재 체납…… 원인자부담금은 완도군 하수도 조례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권한이 읍면장에게 위임되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이 건물은 완도읍 실무자가 업무 미숙으로 부과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2018년도에 내가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요. 체납사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의 태만이 아니고 납세 태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납세 태만이란, 우리 직원의 징수 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세수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 운영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완도읍에서 `18년 10월에 재산압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청취불능) 금년 5월에 납부확약서를 받았고, 10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무튼 잘 처리하셨고요.

이후부터는 건축부서하고 협의하여 납부 후에 꼭 건축 준공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간단히 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 물어볼게요.

생활분뇨, 완도읍에서 연결이…… 향동리나 서성리나 이런 몇 군데는 안 되어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지대인 향동리하고요, 동망리 일부 또 용암리 저쪽 대성병원 있는 위쪽 일부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 지역은 우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침, 그래서 기본계획에다가 37억 정도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승인 신청해 났습니다.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국비를 받아다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역이 너무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당장 사업비가 이렇게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이 같이 동반 수용되어야……

○ 최정욱 의원

그것이 승인된다면 언제 되나요, 된다고 하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제 바로 뭐…… 연차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해 되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런 곳도 있는데…… 지금 향동리 같은 데는 도로를 다시 그쪽 법원 밑에서부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면, 그것을 하게 되면 또 다시 파야 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이, 도로계획이 들어선다면 하수도 계획하고 같이 공사를……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같이 거기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또 다 파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올해 아마 잡혔어요, 거기. 소장님, 그것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기왕이면…… 다들 그 말을 하거든요, 그것 해가지고 파면 뭐하냐고 그래서요, 소장님하고 같이 참고해서 공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우선 물어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로를.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담수화사업이요, 섬에 한 7개가 되어 있네요, 해수담수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해수담수화사업은 지금 한 10개 정도 되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막여과를…… 여과필터를 통해서 식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막 훼손율도 많고 관로도 부식되고 그래서요, 5년이 지나면 기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고 교체대상이 됩니다.

○ 최정욱 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죠, 그것에 대해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것이 많습니다. 수중모터 고장부터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도 잘 준비해야 되겠네요, 미리미리.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데 해수담수화라든가, 가능하면 안 하는데요, 전혀 다른 대책이 없는 도서는 해수담수회를

시설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모품 비용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전기사용료까지 지급……

○ 최정욱 의원

예,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 안 나오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완도항 물양장 배수펌프요. 거기를 보면 배수펌프가…… 배수관문이라고 하냐요, 제일 마지막에 바닷물을 막는 것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배수관문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렇죠. 이제 물이 세계 들어올 때잖아요. 영등살도 곧 있으면 돌아오고, 그러면 개포리든 어디든 물이 그것 때문에 다 찰 텐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것을 준비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우선 그것은…… 언제 계획이 잡혀져 있냐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한 10월 말까지는 본설계에 배수관문 교체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왕이면 이것 먼저 해서 우선…… 거기에 물이 차고 그러면 원성들도 많고, 자꾸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거기를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곧 있으면 물이 차고 영등살이 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어차피 할 사업 같으면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방금 최정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간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두 쪽에서요, 일부두에서…… 주도 앞에서 일부두까지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거기까지 추진되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쪽은 포함이 안 됩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좀 우려스러워 가지고…… 최정욱 의원님하고도 이전에 침수되어 가지고 밤 몇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밤늦게 장화를 신고 돌아다녀 보고 그랬는데요, 참 거기가 침수되면 아주 말짱이 심한 지역이거든요, 개포리 쪽하고, 이 사업이 포함이 안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이 별의미가 없겠네요. 개포리 쪽도 침수가 이전에 됐었고, 일부두 쪽도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 사업 성격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우수, 빗물로 인해서 침수된 그런 지역을 해소하는 사업이고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해수가 역류해서 침수되는 지역은 성격이 다르고 그래서요, 하수도……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해수역류하고는 바로 이렇게 연계는 안 되고요.

그런 사업은 항만이라든가 재난관리부서에서…… 목포나 이런 지역도 저지대 해안가는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체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요, 정부사업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번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어렵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것을 좀 더 알고 싶었고요, 그런 부

분들은 전문…… 아니, 그 부분에 대한 부서하고 제가 상의해서요.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역류된 부분들이…… 바다 해수역류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 정비 40개소가 있네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400……

○ 이범성 의원

490개소.

주로 비가 오고 그래서 침수 사례를 보면 낙엽이나 이물질로 막혀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비가 많이, 아주 갑작스럽게 30mm에서 50mm가 쏟아져 버리면, 그러면 한꺼번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요. 하여튼 빗물받이 사업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요, 배수관문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개포리 부분도 바닷가에 보면 배수관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배수관문 그것이 바닷물이 역류되었을 때 못 들어오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그냥 바닷물을 끌어온다고 호스를 다 꽂아놔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읍사무소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배수관문 사업을 할 때는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도 부분 알고 계시죠, 구도 담수화사업, 소안 구도.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예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추가로 관정 배관을 하나 했구요.

○ 이범성 의원

관정 배관을 한 곳도 안 나온다는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연결공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해수담수화가 가동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관로공사를 발주해 놔습니다마는 소안이나 보길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그러면 보길하고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무언가 연륙되어 있을 때 바닷물을 담수화사업으로 빼가지고 한다면 전혀 식수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전부 다 사다 먹는 실정이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언제쯤 그 일이 추진되겠습니까? 이왕 할 바에는…… 저 물을 관정 하나 파 있는 것 물 양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한 70톤 정도 나옵니다.

○ 이범성 의원

한 70톤 정도 나오면 우선 대체가 되는데. 그것도 머지않아 안 나온다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게 추진된다면, 보길 쪽에서 오는 물이 구도까지 연결이 된다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공사 발주…… 한 6개월로 봅니다. 공사 기간을. 6개월로 보면 그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 이범성 의원

6개월 이후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적극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물이 열악해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안녕하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보고기념관 운영 등 8건입니다.

(참조)

· 2019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 의장 조인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박재선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23일(화) 오후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3.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8.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인호 의장 발의)
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3.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4.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인호·허궁희·
우성자·박재선·김재홍·박인철·김양훈·이범성·최정욱 의원 발의)
7.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8.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장 발의)****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13시58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본결의안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정부는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엄중한 사태에 대한 전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결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4.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장애인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4시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의 관람료를 통합하여 운영하던 것을 개별 관람료로 분리하고 단체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소송 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다양하게 필요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 인원을 현행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위축이 가능하도록 안 제2조를 개정하는 것이며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에 따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 기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인호·허궁희·우성자·박재선·김재홍·박인철·김양훈·이범성·최정욱 의원 발의)

7.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이범성 의원 발의)
8.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외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66호, 완도군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입니다.

본건의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산림생물권역의 변화, 생물종 다양성 훼손에 대비해 국가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난대상록활엽수종 등 770여 종의 자생식물을 포함한 4,150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으로 최적지임을 건의한 내용이며, 심사결과 건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민이 각종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

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수거체계의 구축, 운영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처리,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계약,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개정안 제2조 14호 공동주택이란 정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에 상충되므로 상위법에서 정의하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전라남도에서 2020년 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총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8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보고 실적을 청취하고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점검하였습니다. 군정 추진에 따른 의문 나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애써준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2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인호 의원 발의)
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인호 의원 발의)

(09시57분 개의)

○ 위원장 우성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인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

한 규탄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유입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그 과정에서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에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장 전에는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출장 후에는 출장보고서를 제출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국외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61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의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7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의안번호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 이후 첨단산업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 보

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세계자유공정무역원칙을 합의한 G20 정상회의 선언 및 WTO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엄중한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본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제2470호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본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2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0호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우성자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조인호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2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

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을 통합관람료로 운영했던 것을 개별관람료로 분리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체할인에 관한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 관람료를 성인 기준 각각 2,000원으로 분리하였으며, 단체할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20인 이상 20% 할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보고기념관과 해양생태전시관을 통합관람료로 운영하던 것을 각각 개별관람료로 분리하고 단체할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3호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우리 군 소관 2건의 조례부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64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 행정심판 및 행정처분 등이 갈수록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소송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다양하게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현행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위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1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소송과 행정심판 등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기존 장애등급이라는 내용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이용하여 지원 및 보조금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맞도록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의 장애등급 규정 중 1 내지 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14개 조례의 항목은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부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65호 완도군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의 장애등급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복지행정……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 것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고문변호사 위촉관계인데요, 현재 우리 군 고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금당 출신 xxx 변호사하고 해남에 있는 xxx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이 위촉되어 있는데, xxx 변호사가 지난 6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xxx 변호사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종 심판이라든가 소송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떤…… 전남도 내 6개 시군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지금 법률사무를 보고 소송업무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안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우선 나중에는, 장래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일단 고문변호사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명 이내로 하자는 이유는요,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월 수당이 30만 원씩 갑니다, 그 사람 들한테 월…… 그런데 조례상으로 5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꼭 5명을 위촉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요, 2명 내지 3명 선을 유지하다가 꼭 필요하다면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런 내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꼭 5명을 다 위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명에서 상한선을 5명으로 이렇게 늘려놓자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4호 완도군 고문번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65호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1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7월 2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2.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3.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3.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6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인호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246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조인호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생물권역의 변화와 생물종 다양성 훼손 등에 대비해 국가 난·아열대 산림생물자원 보존과 연구를 위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이 필요한 실정으로 완도수목원은 난대상록활엽수종 등 수천여종의 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로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최적지일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건의내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라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4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66호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범성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6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등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67호 이범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제안사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이 각종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3조 기본방향에서 건축물 및 도시공간하고 이렇게 했는데…… 건축법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 및 도시공간……

○ 전문위원 최명신

아직까지 건축법하고 연계가 안 되는 것으로……

○ 박인철 위원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 전문위원 최명신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라서 이렇게 지도하는 그 정도……

○ 박인철 위원

여기에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

○ 전문위원 최명신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권고안입니다.

○ 박인철 위원

강제규정은 없어요?

○ 전문위원 최명신

예, 권고안입니다.

○ 박인철 위원

권고안입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67호 완도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제2468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 폐기물의 공공관리 등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 수요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제14호와 15호에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제9조 2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9조 4에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처리를, 제9조 5에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계획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사용봉투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제15조 6항을 개정하고 저소득 가정에 제공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의 선심성 무상제공 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 제24조 1항 후단에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에는 수수료와 과태료 부과금에 대한 준용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를 외래의 부기법에 의한 명칭을 올바르게 표기하고 일부 품목 추가와 용량별로 구분하였으며, 별표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중 품목과 배출요령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별표10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이익금 등 종량제봉투에 30L를 추가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판매 수수료 (청취불능) 9%를 적용한다는 내

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별표 15 읍면당 생활폐기물에 관리에 관한 사항과 별표16 재활용품 매각 수거 계약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재활용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의 구축, 운영,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개정 수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조 제14호 공동주택이라는 정의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므로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51쪽, 의안번호 제2469호 저희 국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

은 군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생활안전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안전보험제도를 근거로 하여 보험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내년부터 전라남도에서 2020 도민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제회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안전공제회 가입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보험기간의 범위를 그동안 보험회사로 했었는데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로 개정하여 안전공제회 가입 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2020 도민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안전공제회 가입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의 용어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68호 완도군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69호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화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1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폐식)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거쳐 집 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 리고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722억 3,523만 2,000으로 1회 추경 대비 441억 9,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21억 2,322만으로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21억 1,7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법정 필수경비 및 하반기 주요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321억 2,322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의 증가로 11억 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교부액 236억 4,882만 9,000원과 특별교부세 33억 1,460만 원 등 총 269억 9,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500만 원 등 총 28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8억 2,11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연도 최종 결산금액을 반영한 결과, 16억 3,1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64억 6,24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1억 39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비 40억 2,803만 4,000원, 환경보호비 17억 8,092만 6,000원, 사회복지비 35억 2,888만 원, 보건비 4,816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14억 3,228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비 7억 7,878만 9,000원, 수송 및 교통비 20억 1,14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1억 6,817만 9,000원, 기타 6억 7,901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220만 원, 예비비 19억 4,596만 4,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14억 1,723만 9,000원, 물건비 55억 1,146만 1,000원, 경상이전비 49억 2,792만 6,000원, 자본지출비 304억 3,202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5,031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3억 9,387만 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997억 3,521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8억 6,6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2,380억 4,725만 8,000원으로 166억 9,6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47억 4,292만 2,000원으로 67억 5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9억 4,503만 5,000원으로 4억 9,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249개 사업에 158억 3,535만 1,000원이 신규 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업 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억 1,7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4,7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자금용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5억 4,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8억 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6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3개의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3,253억 5,991만 5,000원에서 362억 4,7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3,616억 791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4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 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으로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와 검토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각 상임위 안건 심사를 위하여 8월 28일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8월 28일 내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8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중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8일(수) 오후 15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완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안
10.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안

(14시58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외 1건,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변경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4시59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입니다. 출연내용으로는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에서 1,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지난 3일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 간 토론과정을 거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총 규모는 5,701억 3,52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00억 2,322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9억 9,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1억 6,455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4억 3,333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43억 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서 및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관광정책과 2건에 4억 3,303만 3,000원, 해양정책과 1건에 5,000만 원, 수산경영과 2건에 42억 원, 농업기술센터 1건에 5,000만 원, 맑은물관리사업소 2건에 1억 6,455만 1,000원으로 총 8건에 국비 21억 원을 제외한 27억 9,758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건전재정 및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합목적성 등을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입의 합목적성 결여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낚치 양식사업 외 1종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투입의 합목적성, 당면한 전복·낚치산업 환경에 적합한 사업계획 결여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급변하는 양식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합목적성이 보완되었을 경우에 올해 정리추경 시 재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시 우리 지역 실정에 적합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라며, 예산 투입의 합목적성을 확보한 후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입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주민 요구 및 급변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보다는 산출을 강조하는 것이 성과주의 재정운용의 원칙이며 사업예산과 성과관리를 연계한 성과예산이 도입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의 경우 계량화되지 않은 성과, 형식적인 성과분석과 관례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성과주의 재정 운용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철저한 성과분석 하에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5.3%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서로 형성된 지역여건 때문에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임에도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숙전복종자 재활용사업과 태풍대비 도교 인양 장비 임차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금회에 한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니 예산의 합목적성과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 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운택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치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3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 개선하기 위하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규칙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5.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27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와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학대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종합계획 수립, 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 운영 등 학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1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군외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 취득,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토지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102필지에 23

만 1,557평방미터, 건물 20동 8,497평방미터에서, 토지 114필지에 23만 6,402평방미터, 건물 29동 1만 1,331평방미터로 토지 및 건물 취득 21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4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15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자금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안전으로 의안번호 제2481호, 군

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입니다. 본의견 제시안은 금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외곽순환도로 조성관련 현황도로를 반영하고 도로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읍 소재지 주변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사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총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

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사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한해도 넉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주변의 소외계층을 돌보는 아량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허궁희·우성자·박재선·김재홍·박인철·김양훈·이범성·최정욱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우성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인호·허궁희·우성자·박재선·김재홍·박인철·김양훈·이범성·최정욱 의원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영역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과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4조와 제80조의 내용 중 ‘깍연’이라는 한자용어를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방청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본회의장 위층에 가면 방청석이 있는데…… 이것이 (청취불능) 4번에 보면 ‘깍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배를 피우로 행위로 이렇게 고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설명한 것으로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5호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우성자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3.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궁희 의원 발의)
2.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우성자 의원 발의)
3.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홍 의원 발의)
4.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적십자사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완도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 보니까 첫째 제3조가 지원사업인데, 이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상위법인 적십자하고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기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제5조의 경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경우에도 적십자사법 제23조에 국유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기마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하고, 다시 한 번 완도군 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

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이것 어떻게 하지는 말입니까?

○ 위원장 박재선

부결, 부결. 회의 진행은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6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1인 노인가구가 급증하면서 안타까운 고독사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이에 따라 관내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 안 제4조와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를 예방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77호 완도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재홍 의원 발의)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재홍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위원

김재홍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관내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며,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노인 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해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홍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8호 완도군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1호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의안번호 2471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해

2019년 관리계획을 변경, 승인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들의 총괄 취득내역입니다. 기존에 124건, 면적 24만 54제곱미터, 금액 197억 6,200만 원에서 이번에 취득재산은 토지와 건물 21건에 7,609제곱미터, 금액은 60억 300만 원 증가하여 총 올해 취득재산은 145건에 면적 24만 7,733제곱미터 그리고 금액은 257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입니다. 첫 번째, 군외 군립체육센터 건립.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세 번째,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 마지막으로 노화 솔지향 대합실 부지매입 등 총 4건입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잠깐…… 민원인이 와서 군청에 있는 관계로, 제가 문화체육과 소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 관계입니다. 군외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외면 주민들 생활체육 활성화와 문화행사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건물취득 대상지는 군외면 원동리 204-1번지 외 3필지에 3,103제곱미터. 그리고 건물은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253제곱미터에 체육관을 25억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에 선정되었고,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바로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재선

실과별로, 부서별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외 2건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제2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군청과 의회를 찾는 민원인 및 군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2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68회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변경된 부분이 있어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 및 건물 취득으로, 위치는 기존 완도 군내리 722, 724, 725-1, 725-3번지까지 4필지에서 7필지가 늘어난 총 11필지이며 면적은 토지 11필지 1,819제곱미터, 건물은 7동 921제곱미터로 총 매입비 11억 2,300만 원입니다. 완도읍 군내리 722번지를 우선 매입하여 조성할 예정이며, 추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확장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매입부지 현황 및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보길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길면사무소는 1986년에 건축된 시설로 2018년 5월에 실시한 정밀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D등급으로 평가되어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건물 취득으로, 위치는 현 보길면사무소 부지인 보길면 부항리 1번지와 1-3~4번지, 1-36번지 3필지이며 면적은 지상2층 연면적 660제곱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5,000만 원,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기간 중 임시 사무실은 보건지소 건물 2층과 부속건물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인 노화 솔지향 대합실 신축공사에 대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으로 공모사업 내역에 대합실 신축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화 내리 잡종지 기획재정부 소유 땅 약 3,066제곱미터를 매입해서 그 안에 여러 대합실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내년에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변경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1호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1호 2019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공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2.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선 의원 발의)
3.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제시안

(10시58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7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 지원, 자금 지원 우대, 구매활동 촉진,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 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 등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와 구

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활동하는 여성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기업인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우성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79호 완도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80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재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선 위원

박재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고,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제 중 지속가능한 농업, 농식품 기반 조성 분야에 스마트팜 지원 확대가 포함되는 등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스마트팜 농가의 조성과 확산을 위해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스마트팜 등 조례에 대해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유통시책, 추진전략 등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유통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농업의 미래성장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중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과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8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이 아마 교육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금일 소재지 외곽순환도로 조성 관련해서 해당 도로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금일읍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내용으로 노선 연장 및 축소 3개소,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취불능) 순환도로 조성에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 기능 변경은 주간선도로에서 집산도로로, 중로 2-7호선 연장 축소가 3,784M에서 2,712M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소로 2-5호선 신설 1,612M 도로 기능 변경에 따른 연접도로 재정비 건으로 소로 3-15호선 연장 축소, 소로 금1-1호선 연장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과에서 금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바로 여기 금일읍사무소 인근에 있는 중앙주유소부터 신평리까지, 이 앞에 이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존 1984년도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고시할 때 이 도장리에서 신평리까지 총 3,784M를 도로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15M까지 유지된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상…… 이 도로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도로 폭을 6에서 8M 도로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15M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기존 도로 폭이 15M 도로로 있다가요, 현재 도로가 6에서 8M로 축소되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로 이의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 주간선도로는 중로 2-7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신규로 금2-5호선 소로로 1,612M, 이 도로를 소로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하게…… 현실에 맞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도로를 축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소로로 되어 있던 3-10 도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인데, 이 구간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도로가 현재는 약 30M 정도 축소되는, 도시계획도로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 소로가, 금1-1 소로가 중앙주유소부터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쪽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도로상 15M에서 6M 도로로 축소하다 보니까

이 인접 부분 길이가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5M 도로를 6에서 8M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면서 생긴 부분들을 현실화시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시설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그동안 주민의견 공고 청취와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마친 후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내용을 토대로 9월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 세무회계과
 - o 기획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문화체육과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 해양정책과

(13시29분 개의)

○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472호 2019

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전라남도 섬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SOC 투자 활성화 및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이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입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라남도 지역을 해상교량 메카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상교량의 필요성 및 공사비 확보 등입니다. 이하 3개 기금 출연기관 현황과 4페이지의 출연사업 사용계획서 그리고 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이것이 1년에 1회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10년 전에 한번 했고요, 올해 한번 하고, 언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아, 그때 할 때만 이것을 출연하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나머지는…… 해마다 것이 아니지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총 필요한 예산은 3억 1,200만 원인데요, 7개 시군이 1,000만 원씩 내고 전남도가 4,000만 원,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청취불능) 기타…… 그 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

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 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혀 의결도 안 됐고 뭐도 안 됐는데,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바로 바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이나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요,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바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러 오신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좀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법정경비 등을 우선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2018년 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 반영된 236억 4,900만 원이,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33억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2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500만 원으로 총 28억 1,5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

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추가 변경된 128억 2,9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존수입 총 반영액은 426억 1,4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년 회계연도 최종 결산금액을 적용한 결과,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42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1억 8,3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과다 전출된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280억 원 대비 442억 원이 증가한 5,72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3%, 재정자주도는 55.1%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72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21억 2,300만 원으로 420억 7,500만 원이, 특별회계는 401억 1,200만 원으로 21억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총 44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1,917억 1,100만 원으로 183억 6,500만 원이,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이 978억 7,900만 원으로 105억 5,800만 원이, 국도비 사용 잔액반환금은 68억 5,800만 원으로 30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32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예산 324억 1,900만 원을 제외한 96억 5,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총 266억 5,4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에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34.9%인 9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기타직, 공무원직은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변동분을 적용하였으며,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총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과 부서별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 및 읍면직원 포상을 위한 시상금 등 포상금 2,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9년 예산 교량 국제심포지엄을 위한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금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및 농공 지구 조정관리 특별회계 초과전출금 13억 7,000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1회 추경 의회의결 시 삭감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8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편성은 연말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8억 1,400만 원, 여비 1억 6,200만 원, 일반보상금 3억 3,500만 원 등 총 1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완도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되어서, 40억에서 150억으로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노인목욕비 추가 지원 20매에서 24매, `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검노린재 방제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추가 반영, 기타 복지사업의 증가,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추가 반영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고 내년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연내에 집행 가능한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74억 3,300만 원, 민간자본 이전 3억 2,4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에 5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 공공관 자본이전 3억 5,500만 원 등 총 10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722억 3,52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1억 9,2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321억 2,322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9%인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01억 2,101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7%인 21억 1,7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9,159만 4,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1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예방접종 구입 6,510만 원, 수산경영과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2,161만 원, 이자수입인 세무회계과 저축성 이자수입 9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인 기획예산담당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500만 원, 문화체육과 완도 빙그레시네마 결산수입금 2,23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9억 6,942만 9,000원이 증가한 2,559억 6,56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232억 400만 원, 특별교부

세인 자치행정과 인구감소지역 통합재정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7억 원, 경제교통과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3억 원, 지역개발과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안전건설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1,000만 원,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드론 운영 관리사업 8억 원,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46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4억 4,482만 9,000원, 소방안전교부세인 안전건설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조금 6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복지와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4억 원, 지역개발과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11억 5,000만 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안전건설과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 해양정책과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60억 5,91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2,9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105만 3,000원이 증가한 1,132억 3,3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2억 7,588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7,2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3,881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2,3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7억 1,338만 2,000원이 증가한 264억 2,99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세무회계과 순세계영여금 120억 4,085만 4,000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4억 105만 5,000원이 증가한 514억 9,6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539억 9,64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7,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자치재원 확충, 지방세수 목표 달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2019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988만 6,000원, 세입증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독촉장 발송 수수료 1,000만 원, 청사 및 물품지원,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군의회 엘리베이터 시설보수공사 500만 원, 군의회 사무실 방화문 교체 400만 원, 군청사 사무실 증축 및 이전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 청산면사무소 회의실 및 사무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신규 및 교체 30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사무용 가구 구매 45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가전제품 구매 900만 원, 상시감사장 의자 교체 300만 원, 대회의실 이동식책상 구매 780만 원, 민원봉사과 민원접수대 책상 구매 350만 원, 완도읍 기사대기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매 500만 원, 고금휴게소 집기 구매 400만 원, 약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매 2,000만 원, 자치행정과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700만 원.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에서 (구)소안고등학교 활용방안 용역 2,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서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3억, 군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시설

비에서 생일면 직원관사 신축공사 4,000만 원, 보길면사무소 직원관사 신축공사 2억 500만 원, 관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직원관사 노후 집기 교체 390만 원, 읍면 직원관사 노후 냉방기 교체 500만 원입니다. 행정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버스 임차료 330만 원, 행정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500만 원, 행정차량보험료 지급 300만 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완도읍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교체 9,500만 원, 노화읍 행정차량 승합차 교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237페이지요, 군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그것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 그것 다시 전체적으로 수리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200……

○ 최정욱 위원

237페이지.

○ 위원장 박인철

군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아, 거기는 이번 직제개편 대비해서요, 문화체육과가 과가 분과되고 그러거든요, 과를 하나 그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것 전체 리모델링을 그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보고를 들었던 것 같은데.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그때 한번 한 것은 처음에 단체, 기관단체 사무실을 하나 한다고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나 했었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까요.

○ 위원장 박인철

됐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235페이지요, 군청사 사무실 이동계획 기본용역이 있는데, 군청사를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군청사를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없어서요, 문서고 위치가 다 틀려서요, 사무실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사무실을 증축하려고요, 세 군데를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증축하고 지금 장보고장학금이 있는 곳, 거기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방법하고요, 또 공영주차장 3층, 제일 위층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하는 방안, 세 군데…… 세 개 중에 하나를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설계를……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는 방안을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고금면사무소는 짓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 기본용역비만 3,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것으로……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6페이지, 약산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발족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작년에 고금하고 약산하고 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2개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하는 데마다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사무실이 없는 데는 신축을 하고……

○ 위원장 박인철

없는 데는 신축을 한다고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없는 곳은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약산면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서,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각 12개 읍면이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축을 다 한다는 말인데.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원 내에서 이렇게 뭐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완도읍은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도……

○ 위원장 박인철

완도읍은 각 11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도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11개 읍면은 모임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하나 있잖아요, 지금.

(「지역발전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지역발전위원회인가, 그것으로. 그러면 뭐가 정리가 되고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 하는 말이에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군의회에서 초대 의회 때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구성한 위원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요.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완도군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되게 시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확대를 해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금하고 약산하고…… 또 2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죠, 우리가 권유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9개 읍면인가요, 다른 읍면도 점차적으로 하나씩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센터 건물을 신축해야 되냐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남아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또 꼭 읍면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라든지. 지금 센터를 신축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까.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하여튼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도 하는데…… 재산담당을 하고 있으니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도 아주 보기 싫어 죽겠는데 거기에도가…… 거기 공설운동장 외벽을 뚫어 가지고 어떤 사회단체에도가 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고금면도 들어와 있고 또 보길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노화 같은 데에…… 금일도 D등급을 받았죠, 청사가?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금일은……

○ 위원장 박인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세무회계과에서 그것을 정리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다들…… 읍면사무소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신축해야 되다 보니까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2회 추경이 되더라도 이런 때부터 우리가 준비해가야 되는데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꼭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위에…… 지금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차, 보기에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것을 기한이 있어서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몇 년인데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기한이요? 6년입니다.

○ 이범성 위원

6년이 도래되었다는 뜻이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6년이 도래되고 또 차가 노후되니까, 6년이 됐어도 차가 양호하면 더 쓰고 그러합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죠.

아니,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 그런 정도면, 더 타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제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4억 9,169만 3,000원 대비 16억 5,210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3,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예비 일반보상금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부서 및 읍면에서 미처 예상치 못하거나 긴급한 소요에 대한 예비비성 성격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국내여

비 4,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해조류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대외평가 업무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지방자치경영대상 브로셔 제작 492만 원, 지방자치정책대상 자료 수집 500만 원, 중앙단위경영대회 자료 작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이미지마케팅 전개에 사무관리비,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군정 홍보비 3,300만 원, 수도권지역 군정 영상홍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취재 지원 재료비, 군정 홍보 촬영용 재료비로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및 반부패 관리에 행사운영비, 청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이요, 사무관리비에 해양치유산업 홍보 3,3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해양치유산업 홍보, 이것 3,300만 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이게 해양치유산업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업비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 그럽니까, 계상할 때 사업명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등 군정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 목을 지금 잘못 썼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사업명을 저희들이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59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 이것은 어떤 워크숍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려고 하는데 그런 응모 아이디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선발…… 선정해서 한정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역에서 하면서 그냥 선정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부서별로 한 5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 김양훈 위원

당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박 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강사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외부강사를 초청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당일로 해서요? (예)

아, 예산이 당일로 하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박 2일.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것 좀 궁금해서요.

159페이지,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용역이라고 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건전이 말하는 것입니까. 신규면…… 신규에 대한 용역을 했을 것인데 다른 사업에 대한 건전이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비비성 성격으로 각 부서에서 추가로 돌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용역 관련 건에 대해서 예비비성 성격으로 신청해 놓은 사업입니다. 6회라는 말은 잘못되었구요, 1식 정도가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규사업 용역…… 제가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한 것이요. 어떻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부서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공모사업에……

○ 최정욱 위원

돌발적이라면 뭐를……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즉, 말하자면 완도읍내에 어떤 것을 새로 뭔가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이 뭐 신규로 생각이 나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응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성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러면 이것 예비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우선 이것을 해놨다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돈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하고자……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 6회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 예산이…… 큰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6회가 맞습니다, 금액이……

○ 최정욱 위원

2,000만 원씩 해서 6회를 할 것으로 판단하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내에서 6번을 하려고 한다는 그 말입니다.

○ 최정욱 위원

2,000만 원 내에서, 그것이 가능한가요?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정책기획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아니, 추정 때 총 1억, 2,000만 원씩 5회 세워놨는데요.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공모사업이 있으면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이 맞는데요. 그 시즌이 지나고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팀에다가 하반기에 한 건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요. 그런 시책이 들어오면 정책기획팀에서 예산을 짚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것까지 해서 6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회 지금…… 예비비로 1억 2,000만 원을 더 한다는 얘기로, 그것까지 해서 6회라는 얘기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추경에 한 회분을 더 세운다는 그 얘기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5,662만 6,000원이 증액된 299억

9,011만 7,000원입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노사협력 및 조직 활성화 국제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앙부처 및 도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지원 강화에 공공운영비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액되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 노화 보건지소 (청취불능) 부담하고 구제 신청 판결에 따른 1, 2차 이행강제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단 지원 행사운영비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이장단 한마음행사 추진에 따른 무대장치 등 지난 7월 31일 이장단연합회 간담회시 논의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행정 추진으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9년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시군 참가 부스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목포시에서 실시하는 금년도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시군 참가 부스 설치비, 운영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주민자치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고금면과 약산면이 선정돼서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읍면 시책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31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PC 구입비 4,500만 원 업무용 모니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장애로, 전산장비 교체로 인해서 기존 PC 50대와 모니터를 40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9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지원,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군 2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분담금 7,8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능형 ICT 조성 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외면 3개 마을을 대상으로 ICT 지수를 활용해서 스마트 컴퓨터용

기관 구축 등 3개 사업을 이렇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업무 운영, 외빈초청여비로 우호협력 중국 광둥성 운부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방문자 초청 여비와 홍콩 TVB 원도 홍보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관계자 초청여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업무추진 관련 위임변호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선임료, 위임변호사 선임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 총사업은 총 44건으로 현재 34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건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청원경찰 복제 구입비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예요.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금년도 예산은 3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청취불능) 공무원 2억 원 편성 예정으로,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에는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하고 도 단위 해외연수 그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공무직들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공무직 포함해서 정규직 전체 다 갑니다.

○ 김양훈 위원

전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금년도 계획은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유럽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평균 350 정도로 잡고요, 3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요. 간담회할 때는 4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민선7기 들어서 1차 년도 400만 원은 기납부가 됐고요, 2차 년도부터는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각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700만 원이 해당되고요. 많은 데는 2,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납부해서 내년까지 해도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분을 먼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올해 예산도 없다는데,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65페이지, 국외자매도시 초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국외자매도시는 하반기에는 중국 광둥성 운부 시하고 교류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번 저희들이 갔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협력을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이번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 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초청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한 곳밖에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것하고 홍콩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단 TVB 방송국에서 완도군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초청여비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이범성 위원**

거기를 내가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 분들이 완도 촬영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인데.

이전에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지난번에 한 번 왔다갔잖아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TVB에서 10명 정도가 촬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산 해녀, 전복, 해녀체험이라고 해서 전복 ASC 인증하고요. 청보리밭 구들장 논, 이런 전체적인 해양치유프로그램까지 해서 찍어 가지고 홍콩에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팀들 10명이……

○ **이범성 위원**

아니,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본위원회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오실 때는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왔다는 것은 정보상 알았어요. 그런데 왔을 때 그 부분들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라고 했

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비, 해외여비만 저희들한테 세워서요. 추진은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미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해 가지고 굳이 만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고, 또 성격상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연결된 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자리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163페이지. 이장단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장단 한마음행사는 이장단…… 지난 7월에 한번 간담회를 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액 대비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그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추가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면에 대해서 추가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변형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

들이 전혀 모르고 예산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행정담당 이.....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행정담당입니다.

지난 7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최근 한 3년 정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장단 한마음행사를 행사운영비로, 민간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간담회 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한마음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시다마는 지금 예산은 당초에 3년 정도 2,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마음행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아직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다. 이장단이 그 행사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244개의..... 현재 이장단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전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얼마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행사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 이장단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갔는지, 아니면 불만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감안해서 가지고요,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금방 9월에 하지 않습니까?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10월에 체육..... 노인의 날 행사 하고 각종 행사가 겹쳐서 11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피해서, 그래서 이장단하고 프로그램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개 연안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최대한 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장단 그 임원에서는 이렇게 예산만 상향 지원해 주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나요?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 우성자 위원

이장단장님은 따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마음을 터놓고 나눠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부족해서 다른 자금을 요구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임원들을 불러서 속 내막을 터놓고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광둥성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왜 우리 군이.....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현재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협력, 그런 차원으로.....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MOU를 체결한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조례를 한번 봤습니까? 해외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매결연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사전에 교류해서…… 의향서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동 진씨 촌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홍보영상도 찍고 (청취불능)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여기 항공료라는 것이 우리가 간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그쪽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우리가 항공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 위원장 박인철

이것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교류협력계에서 전체적인……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수산경영과 수산물…… 특산물 수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문화하고 청소년 교류, 해외수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를중)

(14시34분 계속개의)

시작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과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777억 2,465만 8,000원에서 36억 7,117만 2,000원이 증액된 807억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6억 5,650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억 3,9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윗부분입니다. 보훈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완도 충혼탑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완도 충혼탑 진입로 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 원,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 아래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으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식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260만 원,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금액으로 당초 1억 3,200만 원에서 1,584만 원이 증액된 1억 4,784만 원 사회복지일반 사무관리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9,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윗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완도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체부담금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아래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462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2019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성화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공모사업에 시니어클럽, 군노인회 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은 연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79쪽, 윗부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자체분 4,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운영 재료비,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윗부분입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윗부분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개장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시설비,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조성 공사목 나무교체 및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공설묘지 편의시설물 정비사업, 공설묘지 팔각정 개보수 2,000만 원, 장사시설물 공설묘지 추모공원 안내판 배치도 및 설치사업 760만 원, 노인목욕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노인목욕비 지원금액을 당초 7억 4,046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억 8,416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내일키움통장 발생이자 등 42건에 대하여 6억 2,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발달재활서

비스사업 발생재활서비스 발생 이자 등 58건에 대하여 1억 3,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아래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 8억 9,759만 9,000원에서 61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시군의료급여사업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지급액이 당초 8억 5,553만 6,000원에서 625만 원이 증액된 8억 6,178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의료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 3,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이요, 완도추모공원 수목장 공사목 교체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두리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추모공원입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사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것이 76주는…… 저희들이 올해 1억의 예산을 들어서 호랑나무하고 옻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희들이 수목장을 개장하려고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수목장을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돌아봤어요. 다시 수목장 고사목을 교체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뒤에 그 뭐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청석에서 “묘지.” 하는 직원 있음)

묘지, 그 부분도 있었고, 자연림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76주네요. 그 부분은 신규로 조성해 가지고 100%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당초 추모공원을 했을 때 위에 나무 식재가……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 김재홍 위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나무 식재를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76주는 100% 자랐고요. 위에 천차에 했던 그 나무 14주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써있다는 말입니다. 수목장으로 해서 나무는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 김재홍 위원

예, 현장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184페이지요, 노인목욕비 지원이요, 이것은 그전에 인원파악을 해서 했었는데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전에는 64%, 작년에는 64%를 사용했거든요. 전체 배부량에 비해서 (청취불능) 64% 사용했는데, 현재 7월까지 85%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겨울이 되면 더 높아질 것 같고, 당초에 전체 80%…… 9억 9,4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예산을 더 신청해 뒀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을 주로…… 퍼센테이지 수가 어디에다 주라고, 읍면에 이렇게 비율로 보면……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완도읍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 섬에서 사용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목욕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 최정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수영장이 생기면서 저한테 민원이 목욕탕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들어왔는데요, 수영장이 열리면서 그 목욕비 티켓을 준 것은 거의 안 쓰고 머리하는 쪽으로 가버린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수영장으로 목욕을 하러 가 버리니까 목욕티켓이 자기들한테 안 오고, 또 미장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욕탕이 완전히 운영이 안 될 정도래요. 그런데 목욕티켓을 늘린다면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도 위원님의 말씀 같이 한번 조사해 봤는데 그런 계절적인 운영의 효율성은 좀 있습니다. 여름에 목욕탕을…… 아니, 수영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목욕인구는 줄고요, 사용인구는 줄고, 그것이 미장원으로, 이장원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용업계의 주인 대표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리고 목욕탕은 굉장히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찬바람이 오는 가을부터는 목욕탕 쪽으로 다시 또…… 따뜻한 물을 쓰

기 위해서 목욕탕으로 많이 쏠리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사용률이 높아졌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은 죽겠는데 사용률은 높아 지나가 그제 안 맞아서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그 문제는 아까 고 과장 설명대로 이·미용 쪽으로는 더 이렇게 소비가 많고 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액수는 늘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겨울철에는 목욕탕 사용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이것이 목욕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이·미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맞네요. 이·미용이 들어가야 맞거든요. 목욕권만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착각했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목욕탕을 하시는 분들이 죽겠대요. 그래서 가게를 내놔야 되겠다는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그동안에 안 되는…… 목욕권을 발행하면서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여름이라 그러지, 여름이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1년 동안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 최정욱 위원

예,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183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30식인데 750만 원을 가지고 몇 키로나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이것 30식이면 30군데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183쪽.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제 3키로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 에 다시 제대로 해서 5키로로 늘렸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해버립니다.

3키로를 해주다 보니까 어정쩡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집을 줄이더라도 키로 수를 올려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계속 지원이…… 각 부락들이랄까, 아니면 강변 단위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 가지고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군요.

이 부분은, 3키로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사업비를 줌…… 30식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써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3키로짜리 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별로 쓸 방향성이 많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페이지,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것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중식 때 남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싶는데 일주일에 2번 운영하기 때문에 2번을…… 3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 시범적으로 1인당 1,000원씩 받고요, 다른 시군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도만 운영을 안 했는데요, 읍내권의 결식 어르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을 3번으로 더 늘려서 5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여기는 완도읍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른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완도읍에 오시면 홍보해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아니, 다른 읍면은 안 되고요, 완도읍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밥은 일주일에 5번을 하게 되면 영양…… 채용해야 됩니다. 조리사, 조리사 인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조리사하고 조리원도 다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계속비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계속비는 뇌놓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생략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2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6억 대비 21억 7,400만 원이 늘어난 257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행복학습매니저 보수 교육 운영 목변경입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 그것을 감하고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당초 국비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부분에 80-90세대 소규모 강좌 운영. 이 관계가 목변경 사업입니다. 앞장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명사초청 군민강좌 운영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명사초청 군민강좌 운영 4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직업 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 위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완도문화원 증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했구요.

다음 페이지, 225쪽 상단 부분 공연전시 관련 홍보 인쇄비 700만 원 홍보현수막 390만 원 민간위탁금,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청취불능)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1억 9,400만 원 하반기에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무대 시설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아래쪽, 영상장비 워런티 비용, 유지보수 보존비용입니다. 1,052만 원 아래쪽 시설비,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고세 7억 원.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중국 운부시 우호교류 협력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이충무공 기념공원 전시영상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중국 운부시 우호교류 협력행사 관련해서 외빈초청객 1,020만 원 시설비, 중국 운부시 진린장군 사당 내 고급 충무사 안내판 제작설치비 1,3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보길 예송리 상록수림 보호펜스 보호정비, 부기변경입니다. 구계에 있는 (청취불능) 구간으로 테크시설 보수 정비 4,000만 원을 감하고 4,000만 원을 증한 내용입니다. 아래쪽, 완도향교 주차장 부지매입 3,660만 원 아래쪽, 시설비 향토유적지 소규모 긴급보수 1,500만 원. 그 아래쪽 민간자본사업 보조 청해사 주변정비 도비, 군비해서 4,000만 원

다음 쪽, 22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토지매입 1억 3,600여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3,000만 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캐노피 보수 공사 1,800만 원. 고급 국민체육세대 외벽지붕 방충시설 보수공사 1,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28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PPT, 그다음에 조감도, 사업신청서 및 패널, 그다음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데 각각 500만 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관리계획 체육인교육센터 변경결정 용역 4억. 중간부분, 고급면 게이트볼장 덕트 설치공사 2,000만 원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2,000만 원 아래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전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871만 원

다음 쪽, 229쪽. 수영장 운영 강사로 지급. 이 관계는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700만 원 시설비, 체온유지실 설치 수영장 하수도 보수공사 1,000만 원. 수영장 휴게실 조성사업 2,000. 아래쪽 시설비, 약산 여동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앞쪽에 있는 세부사업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앞쪽에 체육 시설 관리운영을 읍면 어린이놀이시설 그쪽으로 세부사업명 코드를 변경했구요. 그때 5,000만 원을 감하고 여기 5,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1,000만 원은 위치가 잠깐 변경되어서 부지 경지 평탄작업을 하는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 전자책 영상장비 구입 350만 원

다음 쪽 230쪽, 독서관장 문화공연 400만 원. 그 아래쪽 감리비, 완도문화원 증축공사 감리비 5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군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 자산취득비, 도서관리업무용 PC 3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보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 자산취득비, 도서관리용 PC 구입 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31쪽, 시설비, 병영마을도서관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국고 보조반환금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229페이지요. 수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수영장을 이제 지어 가지고 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은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젊으신 분들은 안에서 수영을 하고요. 체온 유지, 또 온도 설정 이런 부분들 수온을 29.5도로 맞추고요. 지온은 그쪽에서 나왔을 때

춡지 않지 않게끔 30도 이상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한기를 느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체온유지실을 별도로 한 칸 만들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체온을 올릴 수 있게끔 체온유지시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영장휴게실 관계는 지하 1층에 매점하고 수영장 수영복 임대하고 판매하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음료를 파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수영장 하수도 보강공사, 이것은 하수구 용량이 초등학교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키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3키로와트로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고요. 위원들도 일절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다 아시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지어 가지고 또 하수도공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의문스럽고요. 또 체온유지시설 이런 것이 잘 되고 휴게실이 잘 될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네요.

거기 찜질방은 없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없습니다.

○ 우성자 위원

다른 데에 찜질방이 있는 데는 찜질방을 이용하던데, 약간 춡고 그러면 따뜻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고 와서 또 다시 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까라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후회 없이, 다음에 다른 데도 견학해 보시고요, 나중에 다르게 될 고친다든가, 더 다르게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해서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 우성자 위원

꼭 견학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90세대 소규모 강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30대, 40대 그런 분들이 취미 생활로 하는 평생학습 일종의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많이 받고요. 그런 강좌를 많이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가지고 확보를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는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효과도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강좌 개설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80세, 90세 그런 분들인가 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저도 잠깐…… 완도수영장 하수도 보강공사

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강공사를 하면…… 그것 원래 건설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건설업체는 수영장 건물을 짓는 그 부분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하수관로와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 연결해서 운영을 실제 해보니까……

○ 이범성 위원

적다는 이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쪽 용량이 빠져 가지고 역류하고……

○ 이범성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설계를 잘못했든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거기 향동리 그쪽이 좀…… 하수관로 부분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조금……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수영장에서 먹한다고…… 원초적인 것을 잡아가야지. 수영장 것만 키워서 한다고 해서 그 하수가 원활하게 잘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겠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학교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편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위원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도문화원 증축 하수도원인자부담 이 부분들 1,700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당초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하루…… 3제곱미터 이상의 오수가 방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하수도법에 하수도 관련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계산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라고 온 돈이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이것은 자동적으로 한번 납부하면 끝나는 일들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26쪽예요, 향토유적지 소규모 긴급보수. 이게 지금 어느 쪽의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향토유적, 이런 문화재……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향토유적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소규모로 파손되고 수리나 정비를 해야 될,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의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보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읍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금 많이 요구돼서요. 5개 읍면에서 5,000여만 원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1,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줬는데요.

우선 이 돈은 각 읍면에 편성…… 수리보수요구가 들어온 읍면에 현지방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이 이전 집중호우 때 보니까 유실된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진짜

급한 데부터…… 제가 봐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급한 데부터 순번 순위를 잘 정해서 현황을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 체육인교육센터 용역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자료, 위원님들……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관련해서 그 부분 사업 개요하고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를 완도읍 중도리 쪽하고 신지면 신리 쪽하고 두 군데를 내부적으로 정해서요. 한 쪽은, 중도리 쪽은 교육센터. 그리고 신지 쪽은 체험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완도읍 쪽, 중도리 쪽이 농업진흥구역이다. 해제부분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서 신지 쪽으로 위치를 확정지었고요. 그쪽 오른쪽에 보시면, 조감도에 보시면 위치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민박단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 부분에 군유지 한 27%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웃음테마촌 그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15만 5,000제곱미터 약 5만 평 정도의 부지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현지 실사를 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8개 읍면…… 10개 읍면 아니, 10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포기하고 8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치단체장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완도하고 장흥이 후보지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도군하고 장흥군이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완도군과 장흥군이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유치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과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향후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이사회를 열어서 50명의 이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분들의 표결로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후 일정이 아직 안 나온 이유는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직 소통이 100%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 향후 센터 운영 관련해서 각종 통계자

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 초에 그 결과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화를 해서 최종 OK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보완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12월 안에는 2개 지자체가 올라가서 (청취불능) 통해서 한 군데가 선정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군수님과 국회에 가서 정세균 전 의장님 뿐만 아니라 안구백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영주, 이종걸 의원, 박정 의원,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사 50명이 있는데요, 50명을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사들에게 완도군을 홍보하고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요. 특히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님을 통해서 대한체육회 이사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접촉해서요, 지금 현재는 완도군이 유리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 결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용역비 4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선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하되,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전체 16만 5,000제곱미터 (청취불능) 부지가 26~27%는 군유지지만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가장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놓으면……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똑같은 지자체가 싸움을 하면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이것 최종 선정되면 용역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냥.....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삭감.

○ 김양훈 위원

예, 삭감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은 언제쯤에나 발표합니까, 이것?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방금 말씀을 드렸다고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소통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예요. 하여튼 금년 안에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제가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양훈 위원

금년 안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230페이지.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군외 작은도서관하고 보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군외하고 보길 작은도서관이 문체부 중앙공모사업에 금년 3월 선정되어 가지고요. 두 군데 위치로 압축해서 군외면은 청년회관, 그리고 보길은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지원된 돈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000입니다. 각각 군외하고 보길 1억 4,000씩인데요. 면적이, 리모델링해야 될 공간이요. 군외 청년회관 같은 경우는 30평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조

성할 계획이고요. 보길은 한 40평 정도의 규모로..... 보길 복지회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40평 정도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계예다가 군비로 조금 지원해 달라, 그리고 3,700를 군외 작은도서관에 추가로 요구했는데, 300만 원만, 자산취득비 PC 300만 원만 반영되고 3,400은 미반영되었고요. 보길 같은 경우에는 4,300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자산취득비 PC 구입 값 300만 원만 되고 4,000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도 예산계장을 해보고 예산팀장도 해보고 5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이 부분은 물론, 12월 말에 리모델링해서 1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요. 집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타 비품, 도서, 서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것을 하실 때 같이 하시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 가지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이 더 들어가면 2배로 돈이 들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할 때 같이 안 하는가, 그것을 여쭙보고 싶어서 제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그래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본예산에는.....

○ 박재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했으면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면 다시 돈이 2배로 들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2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 구입하고 각종 비품과 집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깐요.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입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아까 세무회계과였을까.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여기 설명을 듣고자…… 국장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군민회관 리모델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군민회관을 당초에 주민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해 놓은 그런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요.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는 선정됐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군민회관 리모델링사업이 약 20억 정도 부분이 공모사업에 계획을 올려놓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을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홀 쪽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어디 사무실을 한다고 했는가요, 리모델링?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안에는, 군민회관은 무대하고 의자하고 이런 것을 다 새롭게 정비하고요, 또 건물이 33년 지나서 조금 누수가 된 부분을 수리보수하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 아까 세무회계과? 거기에서

서 2,000만 원 리모델링, 군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들어왔던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리모델링 2,000만 원……

○ 최정욱 위원

아까 질문하니까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설명을…… 거기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 전문위원 추관호

세무회계과에서는 조직개편을 하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그것 말씀이십니까?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탐하고 그 옆에 새마을지회가 같이 들어와 있는 건물 1층이 있습니다. 그 1층 건물 공간에…… 내년엔 1월 조직개편을 해서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마는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조직개편을 해서 체육시설사업소가 아마 만들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무실 공간에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소가 그 자리에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탐하고 사무실하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하나로 터서 체육시설사업소 공간을 과 단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위한,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한 2,000만 원 사업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목적실내체육관 156억짜리가 준공되면 체육시설사업소가 당초 실내체육관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 자체가 2단계…… 주민생활 SOC 복합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축 관련 계획이 또 하나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직개편해서 사무실이 거기로 가는데, 그동안 거기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 같은 것…… 그런 것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새마을지회는…… 공설운동장 스탠드 보수사업 안에 사무실을 15평짜리 2개, 7.5평짜

리 2개 총 4개를 만들어놨습니다. 새마을지회가 그 공간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그 공간을 비워주면 그 공간하고요. 옆 공간에 체육시설팀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하나로 터서 사무실을 내년 체육시설사업소 과 단위 사무실로 하반기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수영장이요, 휴게실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저것이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휴게소를 할 어떤 법적근거가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여기에서 말하는 휴게소는 수영장 옆에, 본사무실 옆에 공간이,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단체에서 사무실도 많이 요구하고 또 수영협회에서 자기 사무실 공간을 달라고 그래서요, 사무실 공간을 만들 겸, 그리고 직원들이 A조, B조 근무하고 있는데 피곤하니까 쉴 수 있는 공간 겸 해서 사무실 공간을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사무실 휴게실이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227페이지, 시설비에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도대체 이거 뭐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 위원장 박인철

지역에서 해주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설명을 떠나서요. 애당초 소안도 전천후 게이트볼장하고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을 때 위치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했는데요. 거기 사용자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2억 5,000 인가를 세워줬는데. 거기에 또 뭐하는데 1억짜리…… 뭐야, 3,600만 원이 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2억 5,000의 부지매입비를 확보했는데, 그 확보하는 과정에…… 그 땅이 국가 땅입니다, 기재부 땅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억 5,000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 금액을, 토지매입비를 산출할 때는 공시지가가……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런 과정들은 내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감안해서……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그런 과정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어느 지역에서 해주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하나는 이 말이에요. 애당초 목적지 에다가 두고 행정을 했으면, 펼쳤으면…… 이것 얼마입니까, 3억 8,600도 안 들어가고, 이런 돈 들은, 아까 박재선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런 돈 들을 군외면이나 보길 이런 도서관에다가 집어넣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것인데. 애당초 장소를 벗어나 가지고…… 금일에 게이트볼장을 짓는 사

람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아니, 노인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리 해주고 저리 해주고, 멋대로 행정이 해줍니다. 왜 우리 행정이 이렇게 끌려갑니까.

그래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부결 시키고, 그러면 의회의 어떤 놈이 부결했다고 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행정이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하나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해주면, 또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이제……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이 오기 전부터…… 오기 전의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우리한테…… 7대 의회에서 소안 게이트볼장하고 금일 게이트볼장 이것 때문에 말썽이 많았는데요. 5,000만 원씩 깎아 가지고, 7억이 올라와서 6억 5,000으로 해줬는데. 그리고 애당초 위치가 다 있었다고요. 소안도는 위치가 없으니까…… 왜 소안도는 불용시켜 버리고 여기도 위치가 없으니까 불용시켜야지. 왜 이렇게 끌려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뭐 금일이 별 것입니까? 이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줬는데 또 다시 부족하다고 돈 1억 3,600이 올라오면 말이에요…… 위원들을 뭐로 봅니까? 우리는 올릴 것이니까 위원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다 예산을 통과시키라는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제……

○ 위원장 박인철

이것도 규정대로 하면 소안도를 불용시키든지, 금일도 위치가 없으면 불용을 시켰어야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차액 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평가액이 2억 5,000 보다 더 나와서 그 차액 부분을 부득이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참…… 알았고요.

수영장이요, 과장님 계도 있고 담당팀장님도 바뀌고 밑에 팀원도 바뀌었는데요. 수영장에 우리 군 식품들이 들어가 가지고 납품을 하고, 일을 하고, 식당을 하고 뭐를 해가지고 돈을 못 받았다고…… 그것을 다 해결하고 돈을 내라고 했는데. 뭐 말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영장 업체한테 돈은 다 지급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돈은 다 나갔고, 5,900만 원만 지급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송 중이라 그 돈은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원청과 하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 돈을 가져갑니다. 저희들한테 체납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그전부터 내가 과장님한테는 직접 이야기를 안 하고 전임팀장님하고 주무관한테요. 여섯 개 업체인가 완도업체에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대금결제를 못 받았으니까 대금 관계를 하고 대금결제를 하라고 했는데요. 결제는 다 되어 버렸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돈은 다 원청에다가 지급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이 체육시설 군관리계획, 이것은 우리가 안 되면 돈을 불용시키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 위원장 박인철

확실히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먼저, 선관리계획 변경 용역은 안 하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원래는 그것을 해야 맞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11월 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추경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군 자체…… 의회에 넘기기 전에 심의가 8월 2일에 끝났고 8월 6일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가 안 맞아서 의회에 넘길 때 당연히 해서 넘겨야 되는데요, 시기와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 못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부분은 면적은 변동이 없고 금액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11월에 한번 승인을 맡은……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짧게, 짧게 하고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 군관리계획안에 변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변경이 들어오지 않았거나와, 지금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금년도 9월에 최종선정이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우리 군이 최종선정이 안 되면 이것은 불용 처리한다는 이 말이죠? 아니, 확실히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선정이 안 되면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최종선정이 돼야 한다는 이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확보만 해놓고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알았습니다.

또 물어볼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 중 완도해경 구전용부두 내 경비구조대 사무실 이전설치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구전용부두에서 신전용부두로 해경이 옮겼으나 경비구조대 사무실을 앞으로 해경에서는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때문에 조업선단 유치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완도해경 구전용부두 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입니다. 완도해경에서 일반바지선으로 매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강소기업 총 사업 8,000만 원 중 군비 3,000만 원이 되고요, 여기는 총 1억 원 중에 자담이 2,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화 지원사업 중 전통시장 디자인 개발사업 550만 원. 완도 5일시장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설치 400만 원.

다음은 245쪽입니다. 5일시장 상가 스마트방송 설치 1,5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완도사랑상품권 및 봉투 제작 5,7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수수료 2억 2,000만 원.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모집 등 홍보비 1,322만 원입니다.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중 '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기반조성에 1억 3,000의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과 247쪽은 일반적인 보조 계속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완도군 교통에 대해서 공영제 추진에 따른 용역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타보상금 중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재정지원에 897만 6,000원. 운수업체보조금, 유가보조금 6억. 이 부분은 본예산에 50%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

분인 50%를 예산에 기정한 것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관리 중 시설비에 완도읍 동방리 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 원

다음은 249쪽에 갈매기 표지판 및 반사경 설치 1,200만 원 시설비 중 보행자 안전지킴이 시스템 설치 800만 원 택시 운영 및 지원 보조에서 기타보상금, 다음 페이지 250쪽, 100원 택시 운영비 지원 군비부담금 4,056만 원입니다.

이상 일반회계고,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 256쪽, 시설비 완도 죽청 농공단지 개보수 4억 6,7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2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260쪽,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금 7억 8,000만 원, 일반예비비 2,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요, 20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억 6,000의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억 6,000 중 군비부담금 50%인 1억 3,000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요, 5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전에 특성화시장을 먼저 밟아야 만이, 해야 만이 관광형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별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5대 핵심과제인 편리한 시골 결제, 고객 신뢰, 위생 및 청결,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인지했구요, 5일시장에다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정옥 위원님이나 나나, 박인철 위원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인구랄까, 노점상들 그런 부분들 정리 부분들도…… 처음에만 좀 씹박하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업만 투자하려는 것보다도 질서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님……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철

예.

○ 전문위원 추관호

조금 전에 거기 특성화시장 공기관…… 누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추진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법에 정해져 있는…… 혹시 예산을 할 때, 의회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목상 문제가 없도록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 전문위원 추관호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목을 예산계하고 같이 잘 검토해 보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8페이지,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용역이라고 했는데, 완도교통만 한다고 했는데요, 고금교통 같은 데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물어봤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한다고 하면 전체 읍면을 다 같이 해야 되는 데요, 그래서 일단 완도교통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하게 되면 다 같이 한 번에 해버리는 것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고금교통 같은 데도, 그런 데도 공영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런데 이 용역을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다 보면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완도교통만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요.

250페이지, 100원 택시 이것 4,050만 원으로 해놨는데,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뭘니까? 다 예산은 잡혀져 있던 것인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군비……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로만 더 넣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저희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 위원장 박인철

아니, 너무 많이 분이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한다고 연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마을에 가구당, 아인면 인구수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을에서 알아서 분배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000 몇 백만 원이 올라온 것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보충설명을 교통행정팀장이……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좌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조봉흠입니다.

해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1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 도에서 내려올 때 도비 5,000, 군비 5,000을 본예산에 세우고요, 정기추경에 요구해서, 4,000 정도 더 해서요, 작년에 1억 4,000 정도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또 올해는 택시비가 지난번에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까지 나간 것은…… 9월까지 지급되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4,0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을 할 때 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니까요,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다 정기추경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넣어놔서 하는 말입니다.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148억 5,085만 9,000원에서 13억 1,494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6,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관광홍보자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완도군 관광홍보관 통역안내도우미 인부임 720만 원, 사무관리비, 완도군 관광홍보관 실내디자인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 분석 솔루션 이용료 2,500만 원,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 기타보상금,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도비 1,100만 원, 군비 2,650만 원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도비 5,500만 원, 군비 8,250만 원 총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완도해양치유시티투어 운영 차량 랩핑 8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 300만 원, 2019 남도 자전거길 상품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완도해양치유시티투어는 KTX와 SRT 고속열차가 송정역을 경유함에 따라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대도시 관광객을 모객해서 완도까지 와서 관광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입니다. 시설비, 범바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000만 원 증액 1억 8,000만 원,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 집 보수공사 4억 2,500만 원, 감리비,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집 보수공사 감리비로 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이 행사, 사무관리비 해당이 행사 KTX역 및 다중집하장소 홍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리, 연구용역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금당팔경 명품길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도로유실 복구공사 5,000만 원, 청산 도청항 관광안내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500만 원, 노화 북고리 호안도로 시설공사 2억 5,000만 원, 청산 슬로시티 주말장터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267쪽 제일 아래,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내 해조류 등 해양쓰레기 처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수욕장 연구용역비, 블루플래그 국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축제 관리 사무관리비, 해조류 홍보용 요리 레시피 책자 제작비 800만 원, 동일 책자 제작으로 외국어, 영어와 중국 책자 제작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63쪽예요,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난 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인근 강진군에 보면 사단법인 강진관광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진의 모든 축제 또 문화, 예술, 기타 향토자원 관리 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강진군청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금 해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완도 쪽에 문화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화 쪽으로 관련된 단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별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다 못하는데 별도로 또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문화원이라든가 각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생단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 김양훈 위원

지금……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 있는 이렇게 문화원들은 모두 그쪽에, 관광 쪽에 관여된 분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을 또 만든다면…… 따로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 관광마케팅사업을 종합계획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요. 또 관광사업하고 문화예술, 이런 관계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보급하고 연구하고,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 그리고 향토문화

자원 보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문화콘텐츠로 육성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재단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 김양훈 위원

전혀 지금…… 아까 강진을 말씀하셨는데 강진의 그 임 대표라는 분이 그전에 여행사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하면서 강진 뭐 투어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좀 동떨어진 용역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은 현재 관광진흥 그런 관련법에 보면 지역관광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상당히 가점을 주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강진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축제나 그다음에 각종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고요.

265쪽, 시설비에 느린섬 여행학교 작가의 집 보수공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죠. 이것을 꼭 보수 공사해야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은 폐쇄를 결정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서 더 쓸 수가 있느냐,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느냐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 김양훈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해가지고 D등급을 맞고…… 이것이 70년도에 지은 건물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60~70년이 되어 버린 건물인데,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노화나..... 아니, 보길이나 고금이나 이런 면사무소도 D등급을 받고 한 40년이 된 건물도 전부 다 신축을 하는데, 아니, 70년이 된 건물을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해서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해야 돼요, 철거. 이것은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고요.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도 머리 아픈 일이 많죠, 청산에서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줌.....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고 70년이 된 건물이면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년도에 보니까 설계..... 기본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뭐 1,400만 원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까워도 1,400만 원은 날려야죠. 이것은 그냥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해도 문제고, 또 안 해도 문제인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줌..... 건축학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벌써 70년이면 한 60~70년이 된 건물..... 콘크리트가 아무리 잘해도 50년입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쓰면 이것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충분히.....

○ 김양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8쪽,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 3년째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매년 해야 될..... 해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성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올해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무슨 크게 뭐 성과가 있는 것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성과분석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이라고 많이 홍보가 되었고 관련 인터넷 자료도 많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고 또 일본을 보면 아시아 최초로 3개..... 당초에 2개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3개소인 것으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확인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단체가..... 플래그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FEE인가, 거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단체는 아닌 것 같던데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게까지 그렇게 크게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니, 지금 현재 블루플래그만 관여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시설이나, 종합적으로 이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유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시아는 두 군데만.....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가요. 70 몇 개 나라에서 한 45군데인가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 김양훈 위원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용역을 하고 1년마다 계속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 5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인증을 계속 받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받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앞으로 평생, 매년 받는 거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FEE 환경교육재단 대표가 왔을 때도 조그마한 테크가 부서진 것을 보고 이 상태라면 블루플래그 깃발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간간하게…… 기준을 지키라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면 알겠네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아서…… 올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덜 왔다고 얘기하던데, 한 30%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던데, 내년에 이것을 인증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에 해수욕장 관광객 수를 보면 대충 알겠네요.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되겠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정량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는가, 그것으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 김양훈 위원

그렇죠. 그 뒤로 만약에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 블루플래그 인증은 대한민국 (청취 불능) 많이…… 전 세계적으로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곳이 각각 나라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다가 대한민국에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요즘에 하도 국제 인증만 받고 형식적인 인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약식만 하고 국제인증만 받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남발하고요. 또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홍보도 하고……

○ 김양훈 위원

올해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포토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솔직히 사진 몇 명 찍고…… 저도 올해 몇 번 가봤었는데 그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블루플래그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인식도 잘 못하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사진 한 방 찍고 가고, 그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누가 뭐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블루플래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와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내년까지 한번 보시고 성과분석…… 올해 것도 성과분석이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서 관광지 내에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 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이 쉽게 관광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금당면에서요, 금당면 둘레길. 지금 현재 금당면은 금당 8경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완도군의 경관을 고흥군에서 유람선을 띄워서요, 오히려 고흥군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당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고, 오히려 그런 관광객들이 육지로 상륙해 가지고, 오히려 탐방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정말 관광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인데.

오히려 군비..... 도비로 5,500만 원, 군비가 8,200만 원으로서 군비 부담이 약간 크긴 합니다. 도비사업이었다는 그런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금당관광지를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이 사업비는 모두 금당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가 어디에 투여되는지 알고 싶어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한 20km 정도 거의 금당 전체적인 탐방로를.....

○ 이범성 위원

그리고요, 266페이지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 무슨 이유로 추가된 것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본예산에서 이미 다 완료되었던 그

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토지보상비는 당초에 총 6억인데 지금.....

○ 이범성 위원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가해 가지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거기가 그러면 생태공원이..... 몇 평 정도로 예상한 지역이에요, 거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신흥리 해수욕장 위쪽을 보면 갈대숲.....

○ 이범성 위원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래서 그쪽을 생태공원으로 테크를 조성하고 해서 저쪽에 정미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산이 오히려 도청리 쪽으로 (청취불능) 이런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관광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사업비 이것이 토지보상비 3억 원으로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이것이 토지보상비가 사실 6억 원입니다.

○ 이범성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탐장님, 알고 있으면..... 토지보상비가 6억이예요, 아니면 3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토지보상비가 8억 7,000 정도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추경이나 또

2020년 본예산이나 다 추가해 줘가지고 언젠가는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기확보된 2억이……” 하는 직원 있음)

아, 돈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나는 토지보상비 총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266쪽예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노화 북고리 호안도로시설공사가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추진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 김재홍 위원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안도로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이나 건설과, 이리저리 모르겠고 그러는데, 갈꽃섬이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조기 때는 바닷물이 도로를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 김재홍 위원

이것도 작년쯤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맞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 김재홍 위원

어떻게 봤을 때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오니깐. 더군다나 2억 5,000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갈꽃섬 여행학교를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데요. 북고리에 가면 개매기 체험하는 데입니다. 개매기 체험하기에는 현저히 상태가 좋습니다. 물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관광객들이 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썰물 때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대조기 때 만약에 밀물이 들어와 버리면 거의 도로 위로…… 제가 그때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대조기 때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으로 도로 위로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만 관광객들이……

○ 김재홍 위원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보강입니다.

○ 김재홍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완도에 뭐 통역안내도우미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게 사실 지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저희들이 거기 남부대학교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또 섬도…… 섬의 날 행사 때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관광안내도우미는 세계선수권대회 때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것을 뭐 성립전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썼다는 이 말입니까, 이 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없던 예산인데, 여기에 굳이 이 부스를…… 전남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주라고 해가지고요.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거기에 가면…… 세계수영대회를 보면 자원봉사도우미들이 다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과 통역을 해가지고……

○ 위원장 박인철

통역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 말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박데이터 솔루션 이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뭘니까, 이것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은 KT, KT 옛날 통신공사의 각종 자료를 가지고 완도군에…… 1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완도로 들어왔는가.

○ 위원장 박인철

핸드폰 이것 출력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렇죠, 핸드폰을 이 사람이 가입할 때 대구 경상도에서 가입했다, 대구에서 했다, 서울에서 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그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또 카드까지 연동되면 그 사람이 완도에 와서 얼마만큼 이렇게 썼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계획에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노화 북고리, 김재홍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방법론에 있어요, 방법론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에 좀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인데, 전복오감학교로 해가지고 15억을 가져온 것이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 이것 총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여기에? 15억짜리가?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전복오감학교는 총 사업비가 2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직 거기는 안 하고 있고, 1회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진입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것 저기…… 그 당시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됐는데, 담당과도 모르게 공모해 가지고 건강테마촌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그 용도로 모든 영역에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억 5,000이 호안도로로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요, 세상에 도로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정도로도 없는데 군에서는 건물을 지었습니까. 개인들한테는 뭐 3M면 3M, 8M면 8M, 그 건물용도에 따라서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냥 그런 데에다가 그것 15억 국토부에서 준 것이 아까우니까 그쪽에 다 지어 가지고 나머지 사후약방식으로…… 과장님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 판단은 마을의 굳이 마을에 수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점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그 당시 담당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1억만 예산이 투입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2억 5,000을 또 여기에 넣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 개발과나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 말도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해조류 해양쓰레기. 이것은 해양정책과에 가서 보면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5,500만 원을 올렸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바다 해조류가 급일해수욕장이라든가 약산가사라든가 해수욕장에 많이 밀려와 가지고요.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급하게 여름 피서철이 오기 전에 정리했던 그런……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해양정책과에 보면 바다해양쓰레기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태풍이 왔으면 태풍 그런 데에 쓰라고 있는 돈이니까 그런 데에 좀 해가지고요. 지금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선 돈을 올린 것이네요,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읍면에서 외상으로……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다 예산도 없는데 써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절대 성립전 예산은 쓰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급한 예산들이 있으면 의원 전체한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의장님한테만큼은 보고를 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의장님한테는 이런 보고 안 했죠?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나 이런 모든 것을 성립전에 쓸 때는 최소한 의사와나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사정을 안 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자원 재료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토양개선펙 구입 450만 원. 보길면 경관작물 보식용 꽃 종묘 구입 4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종자대 구입 1,4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948만 원. 하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중간지점 민간이전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억 2,140만 원이 증액된 8억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산도 구들장은 편의시설 편의토지 매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 귀농귀촌박람회 홍보특산물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1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에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5,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4,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서 민간이전에 경장보조사업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사업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맨 아래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 4,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유통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재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맨 위쪽 부분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400만 원 증액된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72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대인소독기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중에서 통제초소 운영지원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통제초소 운영 재료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1억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폭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에 경관작물 장비임차료가 있는데요, 경관작물작물제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장비임차료를…… 군에서 부담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작물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나가고요, 이 부분은 보길면 낙서재 일원에 이렇게 옛날에 농지였

다가……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간하려다 보면 중장비를 투입해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장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경관작물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 경관작물제를 받으신 분이 임대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해야 맞는 것이 않은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 부분은 거기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경관작물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작물제도 안 나갔습니까? (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277페이지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 과업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요, 감귤하고 모링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감귤하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모링가라고 해서 인도가 원산지인 대야리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미는 특용작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7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먹노린재 방제사업 이것이 돌발병해충으로 최근 2~3년 근래에 발생된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해서 조생종 벼를 많이 파종합니다. 그래서 권장해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노린재가 산에, 야산에서 원동을 하다가 모내기를 빨리 재배하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먹이로, 벼를 갉아 먹는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발생됐고 올해도 발생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7,400만 원을 가지고 1차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먹노린재가 발생되고 있어서요, 이게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청취불능) 수확량도 굉장히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친환경단지 중에서 농민 부담 50%해서요, 50% 부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방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5 대 5 농민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그 소리죠? (예)

그런데 매칭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8만 2,000…… 2,000헥타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생종 지금 거의 다 익었는데 지금도 피해가 있다고요? 지금 보면 나락도 거의 다 익어가는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조생종 벼는 일단 수확된 것은, 거기는 제

외하고요, 기존 벼에도…… 이게 노화 쪽이라든지 군외, 그리고 고금 쪽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약제비하고 방제비하고 같이 해서, 5 대 5로 부담으로 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약을 한다는 얘기는…… 전에 했던 것은 아니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전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한다는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조생종은 약을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생종 나락이 거의 다 익어가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조생종은 기존에 1차 방제를 했고요, 2차 일반 중생종, 만생종 벼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개별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금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청…… 또 예산이 나오게 되면 3회 추정 때 저희가 전부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현장검증은 안 해보고 일단 형식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제가 1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당초에 할 때는 제가 1,300헥타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혹시 조생종이 완도군에서 몇 헥타르나 심어져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친환경농업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정확한 조생종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따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2,000헥타르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고 대충 잡아서…… 지금 2,000헥타르로 기준을 잡아버렸죠.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2,000헥타르를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잡았고요, 현재 올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생종 벼에 대해서는 아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조생종 벼에 이렇게 먹노린재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조생종 벼에서 최초 발생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다 그 종만, 만생종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기술센터에 방제가 아직도 필요하냐는 그 의견까지 저희들이 물어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눈에 가면 방제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특수한 데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 7,200이라는 큰돈이 올라와서요, 그 2,000헥타르다 보니까 이것이 2,0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저희들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실제 이게 벼가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냐고 했는데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그게 벼이삭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280페이지, 민간이전 완도자연그대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요, 요즘 뭐 사업이 다 안 되고 판로가 안 되는데 포장지는 500만 원이 더 증가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자담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군비 부담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팀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사실 그 포장재 지원을 연초에 해가지고요, 농가들이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새로 추가로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뭐야, 계산된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이죠?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본예산 때 해도 될 것인데, 지금 뭐야, 사업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사업, 이 돈이 늘어나서……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이렇게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늘어났다는 그 말인가요?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예, 계속 자연그대로 완도농산물 이…… 많이는 안 하지만 조금씩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농식품유통팀장 양영애**

(좌석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은 236억 3,915만 7,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시 26억 6,144만 6,000원을 증액

하여 263억 6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시설비에 국립공원지역 정비사업 2,000만 원.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환경보전 증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다음은 294쪽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운영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2,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4,444만 6,000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8,25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7,200만 원으로 본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길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75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에 소안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 1,900만 원. 보길, 청산 소각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3,800만 원. 금일 기존 매립장 내부 정비공사 1,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진기 지정폐물 처리 기정예산 1,935만 원에 증액분 2,565만 원을 반영, 총 4,500만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매립폐기물 부담금 1,800만 원. 소각폐기물 부담금 8,7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CCTV 구매 설치 기정예산에 한 대분 500만 원을 증액…… 500만 원의 증액분 한 대분 500만 원을 반영 총 1,000만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자원순환 폐기물처분 부담금 1,718만 9,000원.

다음은 29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1,5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에 재사용봉투 제작구입비 1,520만 원. 생활폐기물관리 포상금에 청소행정 우수읍면 시상금 39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시설비에 노화 읍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 6,200만 원. 노화 읍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조성 부지매입 1,528만 원. 노화 읍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진입로 확장공사 9,000만 원.

다음은 2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금일 폐기물처리장 외부 정비 혼합폐

기물 위탁처리용역 2,000만 원. 비위생매립장 방치쓰레기 처리 기정예산 3,990만 원의 증액분 2,370만 원을 반영 총 6,3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청정바다 가을빛여행 축제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기정예산 1,808만 원의 증액분 736만 원을 반영 총 2,544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기정예산 2,000만 원의 증액분 2,000만 원을 반영 총 4,000만 원.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에 숲가꾸기 패트를 운영 소모품 구입비 385만 4,000원. 넝쿨류제거단 운영 소모품 구입 331만 5,000원.

다음은 300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680만 원. 산림문화박람회 운영 사무관리에 산림문화박람회 운영 1,000만 원. 본사업은 박람회 시 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에 노화 미라 씌지공원 국유재산 대부로 731만 2,000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가로등 배너 제작 설치 1,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현장심사장 무대 설치 및 음향기기 대여 1,000만 원.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두대에 대해서 기정예산 1,650만 원의 증액분 1,100만 원을 반영 총 2,75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에 완도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5,000만 원. 노화 웅막산 칙냉쿨 제거사업 2,000만 원. 금일 동백 임도 칙냉쿨 제거사업 2,000만 원. 고금 녹색체험마을 칙냉쿨 제거사업 2,000만 원. 보길면 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 2,000만 원. 완도읍 태풍 다나스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5,453만 원.

다음은 303쪽입니다. 신지면 태풍 다나스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1,000만 원. 약산면 태풍 나사스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2,000만 원. 산불예방 공공운영비에 읍면 산불진화차 수리 및 정비에 1,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시설비에 완도읍 노두리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 대구미 등산로 공용화장실 재축공사 6,000만 원. 고금 덕암산 산림휴양시설 이설사업 5,000만 원.

다음은 304쪽입니다.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 보호수 안내판 정비 및 설치 2,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기정예산 4,000만 원의 증액분 1,000만 원을 반영 총 5,00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에 고금면 임도시설 정비 2,000만 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사무관리에 국제협력회의 통역료 및 사무용품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고금 덕암산 산림휴양시설 이설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거기에서 이설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고금면 덕암리마을 주민들 군수님 읍면 순회방문 시 건의했던 사항으로, 탐방로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서를 전부 다…… 공사할 때는 토지주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고금면에다가 받으라고 공문을 시달렸는데 답은 다 됐다,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크시설을 다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그 산주가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사건이 이것이었습시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약간 마을산이 아닌 사유지에다가 기 나있던 탐방로 등산로에다가 데크를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도군의, 전라남도의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민원을 넣어 가지고요. 당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해서요, 그래 가지고 1억을 다시 또 요구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마.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습시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기관에 공무원을 연계해 가지고 징계를 줘라.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이것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할 뿐이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민원에 시달리느니…… 그리고 그쪽 민원인들도 도저히 뒤로 물러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 밑에 약 10M 우측으로 해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분들한테 섭섭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그러면 이 산 주인이 고금도 사람이에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원래 그……

○ 이범성 위원

아니, 살고 있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금은 서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 이범성 위원

예, 보충설명해도 됩니다. 고금도 사람은 원래 그런지 해서.

(장내 웃음)

○ 우성자 위원

원래 저기가 우물이 있어요, 샘이. 거기 등산로에 가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샘을 뚫었는데 그 주위가 전부 덕암리 산이여 가지고요. 제가 이장 때 동의서를 해서 거기에다가 돌담도 쌓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땅이 아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xxx라는 분이 고금면 장풍리 분인데 서울에 가서 사시는데요. 그분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어요. 또 그분의 소유가 딸한테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딸이 완전히 기존(청취불능) 활

용을 했고 승낙서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2억을 요구해서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서요. 오죽 오죽하니까 그것을 옮기자. 법률상 마음대로 뜯어서 옮기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고. 제가 그때도 임도를 내놔는데 한 100M 정도를 그분이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한 5년 있다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웃기더구먼, 딸도 완전히 막무가내로…… 그것은 자기가 그것이 있으면 도저히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승낙서를 안 받는다고, 그때도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렵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고금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범성 위원

아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도 사람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매끄럽게 잘 해결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잘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저희 과에서 총 62억 4,975만 5,000원이 늘어난 총 543억 6,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입니다. 완도타워 주변 꽃동산 조성 작업 인부임 944만 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000만 원. 완도읍 향동리 새뜰마을사업 공모용역 2,000만 원. 완도도시재생센터 장 활동수당 725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 향동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7,000만 원. 완도읍 서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침수지역 개선공사 8,000만 원. 완도타워 주변 유희 농경지 꽃동산 조성공사 2,000만 원.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 족욕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억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관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5,100만 원.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시설 관리 인부임 1,082만 4,000원이 증가된 6,710만 4,000원.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근로자 인부임 4,000만 원을 삭감한 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타워 주변 경관조명공사에 1,000만 원. 완도타워 주차장에서 타워 구간 도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타워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대합실 무단점용 변상금 및 점용료 2,300만 원. 본건은 감사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금일 일정향과 소안 이목향 공공용 주차장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과 제명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정도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공사 2,00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대가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 망석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에 2,000. 노두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 금일 일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 척치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1,000. 척치 선양장 설치공사 1,000. 넓도 위험도로 개설공사 5,000. 신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00. 군외 고마도 여객선 대합실 신축 1억 5,000. 대창1구 마을안

길 정비 2,000. 신지 대평 쉼터 정비공사에 2,000. 석화포 선착장 정비공사에 2,000. 고금 화성 해수저장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금 청룡 소공원 조성사업 2,000. 약산 상득암 선착장 계단 및 파도막이 시설 5,000. 여동 진입로 확포장 5,000. 청산 구장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00. 소안 월향 공동작업장 포장 4,000. 동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 보길 보옥 마을안길 주변정비 2,000. 생일 서성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완도군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에 1억. 소안1교 항로표지 시설 5,000. 완도 망남 선양장 시설공사 2,000. 군외 황진 선착장 연장 2,000. 고금 일덕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 고금 도남 진입도로 정비공사 1,000. 고금 충무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 청산 양지 마을안길 확포장 2,000. 보길 백도 선착장 보수공사 2,000. 보길 중리 쓰레기장 진입로 확포장 2,000. 비법정 도로시설 확장 및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시설 보강 및 정비에 2억. 소규모지역 개발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 수효사 주변정비 2,000. 고금면 복지회관 개보수 2,000. 고금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2,000. 약산 구성 진입로 정비 2,000. 장용 마을기반시설 정비에 2,000. 장용 진입로 주변정비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재정지원사업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소안 횡간 호안도로 시설 2,000. 보길 구도 쉼터 설치 2,000. 신지 월향 정자 설치공사 2,000. 청산 읍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입니다. 약산 구성리 방파제 상부공포장 2,000. 노화 삼마 선창진입로 방호벽 설치에 2,000. 약산구성 방파제 보강 2,000. 소안 당사항 방파제 연장 3억. 노화 어룡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 3억. 금일 선착장 보수 1억 5,000. 금일 감목 선착장 보수 2,000. 군외 황진 선착장 보수 2,000. 약산 어두 선착장 보수 2,000. 소안 구도 사면 보수 보강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산 구성 마을안길 위험구간 정비 2억. 어항 내 퇴적예방사업으로 노화 미라항 해수소통구시설 2억. 보길 중리항 퇴적예방사업 8,500. 생일 유촌항 퇴적예방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내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 완도 대신 물양장 포장공사 2,000. 완도 죽청 물양장 확장공사는 1억 9,856만 원을 증액한 3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외 대장2구 물양장 정비공사에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미라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4억 2,800. 생일 서성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에 4억 2,800. 생일 서성항 퇴적예방사업 1억 5,000. 완도 망남항 소규모어항 방파제 보강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산 당목항 안전난간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금일권역에 대한 사업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7,000을 삭감해서 각각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목변경에 1억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6,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이요, 자산취득비에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마을회관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요, 약 100개의 마을회관에 지원할 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요, 1식인데, 1억짜리 1식인데 몇 개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하나에 100여만 원 정도.

○ 김양훈 위원

1식인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표기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1억짜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죄송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 축산과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은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요.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00개 정도로 추진하고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원래 목이 빠들어진다고 했는데, 가을에 해충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추진시기를 좀 늦춰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에.....

○ 김양훈 위원

올해는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남겨서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시기를 맞춰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313쪽예요. 소규모어항시설 보강 정비 사업 2억인데,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과에서 소규모 민원처리 목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났고요.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렇습니다. 읍면의 수요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이 벌써 4억이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소규모 민원처리 건의사항이 아직도요, 40~50건을 접수해 놓고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게 말하면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예비비 성격으로 비법정이나 소규모어항으로 2억씩, 4억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다 명기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래도 올바른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요 예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동네마다 숙원 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는 것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수요…… 저희들이 요구한 수요는 다 감당을 못합니다.

읍면에서 이번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아마 읍면에서 요구를 기본적으로 10건 이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요, 이번 예산에서 급한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 사업으로 1식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암리에서 노두리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안전난간하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총 1억 5,000 중에서 도비 지원이 50%, 군비 매칭이 50%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지역을 제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09쪽에 전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예.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인데요, 전남에…… 이게 목적이 죽육시설을, 전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죽육시설을 설치해서……

○ 위원장 박인철

죽육 말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죽육.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조류센터 그 인근에 해수를 이용한 죽육시설 설치계획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채택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거기에 그런 위치가 나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해조류센터 밑에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좀 쉼터공간으로 꾸미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하고.

3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대합실 무단점용.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쪽 소안도 하고 금일 일정항은 그런 대부료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썼다는 이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일 일정항하고 소안 이목항에 대해서, 공공용 주차장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 위원장 박인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매립을 하면 우리 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항이나 소안도 이목항은 진즉 우리가 했던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우리 재산으로 그때 할 때 해놔요 이런 일도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마 공유수면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귀속시키지 못하고……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재부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물양장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안 되면 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기재부에서……

○ 위원장 박인철

어촌계에서 다 대부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촌계에다가.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했으면 하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차라리 대부계약을 체결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313페이지에 시설비 성립전, 고금복지회관 이것 도의원 사업 같은데, 고금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거기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도서팀장님, 이 사업 보훈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죠?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 도서개발팀장 황창령

(좌석에서) 고금복지회관은 체육관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이것 못쓰게 되어 있죠, 시설비가 아니면 못쓰죠? 이것은 예산계에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우리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을 해도……

○ 위원장 박인철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개보수가 시설비에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나면 전에 예산할 때 못쓰게 했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그러고요.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도의원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뭐든 우리 군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원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계하고도 교류하고 있고요. 아마 이 복지회관은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 위원장 박인철

지금 어디예요?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이것은 여성단체회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인철

나는 고금도에 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복지회관을……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회관도 군 소유로……

○ 위원장 박인철

여성단체회관은 이번에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 그것은……

○ 위원장 박인철

정확하게 들어왔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군 소유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같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는 못하게 아마 예산계에서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완도 죽청 물양장 확장공사. 지금 공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돼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 위원장 박인철

예당초 제가 말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다 같이 확보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기정예산이 1억 4,800인데 추가가 1억 9,800이 나와 버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돈만 빠져 버리고 (청취불능) 그대로 있던데, 그러면 그 공사를 끝내고 나서 2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사는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별도 발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한테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 투여가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 위원장 박인철

공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공사인데, 그러면 공사 부분이 완공되고 나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취불능)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돌만 빠뜨려놓고 다시 이렇게 공사금액을 잡아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공사는 다른 데 급한 곳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잘한 공사입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니까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7,009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5,2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지역방위 운영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구입에 308만 원,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구입에 990만 원, 지역방위 운영 시설비입니다. 금당 소방차고 증축에 3,000만 원, 노화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상하수도 연결공사에 3,000만 원, 지역방위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무기 탄약과 과학화시스템 구축에 2,34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정비에 411만 원.

322쪽입니다. 배수 개선 노화 구석지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입니다. 노화 구석지

구 배수 개선사업에 3억 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문대비 양수장비 유류대에 3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산 당리마을 연꽃단지 관정 설치 및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고금 가교(음마) 배수갑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금일 척치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약산 장용저수지 주변 정비공사에 1,000만 원

323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완도읍 중도리 배수로 준설사업에 4,000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농어촌 가로등 재해복구사업에 1,971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노화읍 양하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용역에 3,600만 원, 금일 장정리하고 금당 육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노화 구목 시설비입니다. 노화 구목 새뜰마을사업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7,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화 소당도청 시설비입니다. 노화 소당도청 새뜰마을사업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화 이목 농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 원, 군외 달도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장풍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324쪽입니다. 소안 이목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생일 유서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완도 대신(명가동) 배수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완도읍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2,000만 원, 완도 소가용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완도 대야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완도 사정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완도 부흥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완도 중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 장정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군외 대문리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신지 임촌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이덕암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 원, 고금 청용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고금 부곡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산 모도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화 충도 방조제 개보수에 1억 원.

325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에 1,200만 원, 건

실시공관리 시설비입니다. 약산 군도 9호선(가사) 태풍피해복구공사에 2,0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동고) 태풍피해복구공사에 5,000만 원. 도로 시설 개선 행사운영비입니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타당성조사 국회 토론회 개최에 1,000만 원. 도로시설개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타당성조사 국회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도로시설개선 출연금입니다.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행사 출연금에 1,000만 원.

326쪽입니다. 도로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노화 농도 307호선(알갱이)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1,329만 원. 약산 득암 농어촌도로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2,015만 원. 생일 군도 15호선(서성)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329만 원. 완도 주요 도로변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 농도 103호선(신평)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신지 농도 301호선(야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9,901만 원. 금당 군도 12호선(온금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당 119지역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970만 원.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입니다. 고금면 관광해안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설 자재 운반차량 임차료에 8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교량가로등 보수 및 교체에 5,000만 원. 관내 해상교량 낚시통제구역 표지판 설치공사에 2,000만 원.

327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개소당 5,000만 원.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전관리 시설비입니다. 위커힐 인근 재난위험구역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완도읍 부흥 소화전 복개공사에 2,000만 원. 완도읍 도암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읍 도장 재해위험 시설 보강공사에 4,000만 원. 금일읍 하화전 저류지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900만 원. 완도읍 화개리 하천 보수에 2,000만 원. 군외 영흥천 하천 긴급정비에 1억 원.

328쪽입니다. 군외 영풍천 하천 긴급정비에 1억 원. 완도 대야천 하천 긴급정비에 8,000만 원. 군외 삼두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보험금입니다. 군민 안전보험 가입비에 감액 1억 3,632만 6,000원

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시설비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에 1,0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사업에 1,000만 원. 보행자교통안전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32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1,639만 2,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UPS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입니다. 900만 원. CCTV 복구공사에 1,000만 원. 고금면 덕암리 초등학교 인근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범좌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330쪽입니다. 지능형 방법용 CCTV 설치사업에 5,000만 원. 2019 섬지역 재난안전 CCTV 구매 설치사업에 3,5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입니다. 완도 대문용계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8억 3,805만 6,000원. 재난예방 대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물 460만 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시설비입니다. 폭염대비 항구대책 시범사업 1억 3,740만 원. 재난재해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관리사업에 8억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금일 감목, 동백, 노화 이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에 2,000만 원. 소안 비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재난복구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응급복구 동원장비에 2,400만 원.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품 지원 재료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780만 3,000원.

332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81만 4,000원.

335쪽입니다. 간척지구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7쪽입니다. 세입예산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에 685만 4,830원입니다.

마지막, 338쪽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서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19년도 기정액은 194억 6,811만 9,000원으로 금번 2차 추경에 18억 7,736만 2,000원이 증액된 213억 4,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다시 마꼬리 수거 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재료비에 해조류 발효 액비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및 여객 운임지원사업은 운전자 요금 부과 및 운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다목적인양기 정비사업은 (청취불능) 설비에 대한 정비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도비사업으로 청산 모서항 부잔교 설치 2,000만 원 군외면 고마도 부잔교 설치 2,000만 원 신지면 월양리 호이스트 수리 및 금일을 일정리 해양쓰레기 적재장 설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자체사업으로 태풍 대비 도교 인양 장비임차료 4,000만 원 시설비로 노화읍 미라리 로드선창(부잔교) 시설사업 1억 5,000만 원.

343페이지입니다. 고금 넓도 도교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후계인력 관리, 사무관리비로 제1회 섬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연안해역정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방자치대전대상 포상금으

로 500만 원, 청정바다수도 완도 시책추진 우수업면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에 4,0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1,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발비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환경관리 2,000만 원,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나무 지주대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41페이지 재료비에 해조류 발효 액비 공급사업,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조류 액비 공급사업은 이염활성액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염활성액은 유용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주로 (청취불능) 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해조류 액비는 작물 성장에 필요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농축한 생육자재인데, 영양제나 성장촉진제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작목반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전복이나, 광어나, 김이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농민들한테요? (예)

해양수산과…… 아니, 뭐야. 해양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이것을 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조류엑비를 농축시켜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해조류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번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또 액비하고…… 해양정책과에서 액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엠활성액은 액비 공급사업하고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엠활성액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청취불능)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해조류 액비는 쉽게 얘기하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성장촉진제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과수라든지, 과채류, 녹채류에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이엠 미생물도 결과적으로 과수나 야채 그런 것에도가 뿌리거든요. 성장촉진제로, 영양제식으로 뿌리는데 그러면……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알기로는 이엠활성액은 영양제 성분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용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정량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작물이나 축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해조류 액비는 농축된 이것을 한 1,000배 정도로 물을 희석시켜서 이파리에 직접 뿌려서 하는 영양제 개념으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유자발이나 뭐 그런 데에 한다는 말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유자발도 하고요, 딸기도 하고 고추라든지, 뭐 이런 데에 이렇게 물하고 해서 한 1,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분사해 주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41페이지요, 다시마꼬리 수거작업. 이것 본 예산에 2억인데 지금 2억을 추가한 것이죠? (예) 지금 이것이 이미 다 끝난 것인데 왜 추가한 것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 보니까 올해 금년도에 다시마 가격도 좀 다운되기도 되었지만 많이 생산되어서요, 꼬리가 전년 대비해서 수협위판장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도 많고 그래서 수협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 양이 많아서, 꼬리가 많이 있어서 어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서 요청해서?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과장님 설명을 편하게 하십시오.

이 사업은 내가 2019년도 후반기 업무보고 때 다시마 값이 너무 하락하니까 제가 건의해 가지고 2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정욱 위원님도 쉽게 알아들으실 텐데, 수협에서 한다고 그러면 최정욱 위원님은 수협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협이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어민들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최정

육 위원님이 쉽게 알아들을 것인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요, 해양…… 유해생물구제 사업 집행잔액 1억 얼마 이렇게 반납하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몇 페이지요?

○ 최정욱 위원

347페이지, 왜 이런 것을 못하나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그때 이것이 발생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작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어떤 것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파리나 이런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이것을 예산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가두리 현대화 사업, 이것은 앞으로 안 할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적조 대비해서 가두리를 이동시키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실제 가두리를 반납하고 이것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어민들은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새로 제작만 하려고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없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좀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정비사업, 342페이지,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342페이지?

○ 이범성 위원

342페이지, 다목적 중간쯤에 시설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10개소요?

○ 이범성 위원

철거사업, 수리, 철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철거사업?

○ 이범성 위원

지금 정비하고 수리, 철거, 철거에만 이 자금 이 쓰인다는 소리입니까, 예산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리도 하고 철거도 합니다. 이것이 사업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가 된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하고요, 또 수리를 요청한 데가, 들어온 곳이 한 10개소 가까이 들어와 있어서……

○ 이범성 위원

아니, 수리하는 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듣는 곳만 20개도 넘는데요, 지금 수리할 데는 많이 있는데 수리를 미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수리를 하면 다음에 새로운 인양기를 신청하지 않아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 부분에 저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

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저쪽 도서지역 같은 데는 수산직불제로 해가지고 30%를 어촌계에다가 다시 주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0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수리를 요구한다든가 철거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항들..... 어촌계마을에 가면 참 꼴 보기 싫게 널려 있는 것이 지금 인양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철거될 수 있고, 또 수리될 수 있고. 그냥 인양기 사업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리 철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343페이지 중간에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양식어장 청년창업 지원, 이것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금년부터 취소할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342쪽에요, 사무관리비 태풍대비 도교 인양 장비임차료,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태풍이 오면 부잔교는 (청취불능) 도교하고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도교를 육지로 인양하고 부잔교만 물에 떠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적을 받아보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태풍 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도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서 돈 10만 원씩 부담하고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도교 이게 전부 다 고정식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나사를 풀면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양훈 위원

만약에 크레인이 간다든가, 장비가 간다고 하든가 갈 텐데, 이것이 하나 옮기는데 3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한 대가 이동하면서 하루 쓰는데 30만 원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개당, 한 개당.

○ 김양훈 위원

한 개당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다시 내리고.

○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마을, 각 어촌계에 한 마을에서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것 터무니없는 예산이 나오겠는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다 하거든요. 일부는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출연하게 된 배경이요. 저쪽 현지 확인이 왔을 때 재난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문책을 받아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단가조사를 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생각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완도군에 도교, 이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 김양훈 위원

완도군 전체예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것 태풍이 올 때마다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하면요, 올해 태풍이 앞으로 몇 개나 더 올지 모르는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한번 태풍이 오면 거의 그래서…… 어떤 읍면은 보니까 올려놓고 태풍이 올 때까지 계속 올려놓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러거든요.

○ 김양훈 위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동네에다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풍이 오면 올려서 관리 좀 해달라. 그런데 안 돼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어촌계 너희들 얼마씩 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장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이런 그…… 행정에서 도교까지 해주고, 부잔교도 다 해주는데. 그 차후관리까지 행정에서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동네어촌계나 그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올려서 행정에서 전부 다 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42쪽, 운수업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해서 3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1억 5,000, 1억 5,000이 또 올라옵니까? 뭐 여비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여기에 보면…… 종전에는 운전자한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한테도 요금이 부과되고 또 매년……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진즉 운전자한테 부담이 됐는데 우리가 하기 전부터, 진즉부터 운전자한테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2016년부터 됐었죠.

○ 위원장 박인철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2016년도부터.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이 말이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매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자체로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존에 2회 추경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2회 추경을 하는데요, 이 차량 운임하고 여객 운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뭐 저기 (청취불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자동화물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자동화물비로 해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이 자체는. 매칭 펀드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운임 인상이 매년 되는데.....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국비 매칭사업이면 국비 플러스 군비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없고 자체분 아닙니까, 우리 자체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국비로 했는데, 국비 재원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펀드로 해서 계속 해야 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전체 부족해 버리니까 부족한 부분을.....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1회 추경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그 국비가 내려온 만큼 다 같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또 3억이 늘어나느냐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매년 거의..... 작년도도 3억 정도 추가 됐거든요, 위원님. 그랬는데 보면, 특히나 금년도에 보면 차량을 cc별로 재원율을 변경해 놓고 있어

요.

○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전년부터 실시되고 있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금년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용달차가 몇 톤 오면 몇 톤, 몇 톤 그렇게 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종전에는 2,500cc 미만에서 일괄적으로 20%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부터 보면 1,600cc 미만은 30%, 1,000cc 미만은 50% 이렇게 지원율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더 안 주고 이런 지원율만 확대되고 그러니까 시군이나.....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해주고요.

그 밑에 금방 김양훈이 했는데, 도교 인양. 과장님, 태풍이 불면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나도 의원배지를 단지 6년차에 들어갑니다마는 태풍이 불면 섬에는 못가지만 완도 관내는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어촌계에서 부교를..... 도교를 내려와 버려요, 물속에다가. 부잔교하고 떼어 가지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잘한 데는 우리가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는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계끔 만들어야지. 세상에 태풍이 분다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군데 도교를..... 부교를, 도교를 내리고 어찌고..... 그런 크레인 비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양정책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에다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마을 살림이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줬을망정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죠, 관리들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우리가 시설할 때 시설비로 해놔서, 또 우리가 일정부분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 위원장 박인철

아니, 태풍이 분다고 도교를 내리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인철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계속)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 수산경영과
- 해양치유산업과
- o 농업기술센터
- o 보건의료원
-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o 맑은물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저희 여성아동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기정예산액이 194억 5,300만 원에서 약 5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청소년신문 제작 프로그램 운영에 작년 3,000만 원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자산취득비에 학교밖지원센터 설치 운영 물품구입비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화 청소년문화집 운영 재료비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재료구입비 480만 원을 목변경으로 감하고,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1,800만 원…… 아니,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480만 원을 목변경했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노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당초에 1,200만 원이었는데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성평등 촉진 지원사업으로 당초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한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전기시설공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급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봉사단체 지회장 및 임원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는 총 16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당초 1,000만 원에서 마을당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약 1억 6,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자체 추가분에서 11개소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차량유지 관리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시군을 조사했는데요, 특별수당이 평균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월 7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월 평균 15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상단부분 재료비에 저소득 가정 김장 담기주기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완도군 보육한마음 체육행사에 2,000만 원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이 목에서 감을 시키고요.

다음 페이지, 205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변경해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청산어린이집 옥상 방수공사 창문 누수공사에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길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로 당초 3,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추가 공사분이 필요해서 2,000만 원을 증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 우리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로 당초 2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당 예꼬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해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청해어린이집은 우리 군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를 합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 시설 사업비로 청산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보상금 사회적수혜금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이·미용 쿠폰 분기별 지원사업에 당초 1,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수요를 보니까 약 54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나머지 450만 원 정도를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행사운영비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체 벤치마킹 및 워크숍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워크숍에 참석하는 청년발전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청년발전협의체 활동수당으로 청년발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40명입니다. 이 위원님들의 활동수당으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여성아동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쪽예요. 행사실비보상금, 여성단체 지회장 및 임원연수 500만 원. 이것 어떤 목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한국부인회 전남도 지회 연수가 올 하반기에 완도군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수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실비보상이 아니고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라는 얘기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거기에 참여하는 완도군 여성단체 내 한국부인회. 그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회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실비보상금이요? (예)

몇 명인데 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기 완도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혼자 앞으로 5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행사에 필요한 행사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행사비용인데요. 그러니까 행사 운영비로 편성하는데 전체 12개 읍면이 묶여 있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해서 그 행사를 치르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예요, 이장상사업비. 이것 매년 2,0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금년에…… 당초 1,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2,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여성이장님 전체에다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이장으로 해서 3년으로 자를 것인지.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꼭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전에 읍면순회하고…… 결정했던 한글학교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하반기부터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아까 모 신문을 보니까 몇 개 읍면에 모집한 광고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가정…… 12개 읍면순회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한글학교 운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요구해서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좀 금액을 늘려야 되겠죠? (예)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다문화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아쉬움을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한글을 못하는데 자식을 어떻게 가르치느냐는 이것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요. 저는 또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개 국가가. 그런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애들하고 공유하면 더 좋지 않나. 애들이 왕따를 당하지 않고 더 이렇게 접촉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저희들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놀랐는데요. 15년,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읽고 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우선 그것부터…… 한글을 깨우쳐야 만이 국적 취득이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김양훈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여성상사업비요. 이것 2,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비에 한해서 줄 것 아닙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시설비로 읍면에 전달할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읍면에서 각 이장이 있는 데에다가 자기를 자체로 보급식으로 하라고 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시설비이기 때문에 읍면에 전달하면 그 마을에 필요한 시설사업을 설계를 거쳐서요. 일반 정식자격이 있는 업체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 업체는…… 그러니까 여성이장들이 그쪽 부락에서 (청취불능)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읍면사무소에서……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읍면사업으로 합니다.

○ 최정욱 위원

읍면사무소에서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주민숙원사업비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자꾸 여성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고.

그러면 꼭 그것을 정해 가지고 여성이장에게 몇 년에 한 번씩 준다든가, 아니면 신규이장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정해 가지고 다음에 그런 것이…… 뭐 항상 받는 것이니, 뭐니.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게끔 빨리 이것을 정해 가지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원칙을,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장기교육 중이므로 설명을 여성아동과장님이 하겠

습니다. 그 점 참작하십시오.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서길수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상 여성아동과 다음이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여성아동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직무대리 서길수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기정예산액은 16억 7,400만원입니다. 이것 1억 9,200만 원이 증된 18억 6,7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213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서 환경정비물품 540만 원을 목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시설비에 행복민원실 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문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민간위탁사업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시설비로 농어촌 마을경관 개선사업비로…… 이것도 도비, 도 공모사업인데요, 도비 50%, 군비 50%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군민행복민원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만 달랑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좀……

○ 위원장 박인철

담당팀장님이 하십시오.

○ 민원행정팀장 김란

(좌석에서) 민원행정팀장 김란입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 민원실 내·외부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실 민원실 내부가 너무 협소하고, 또 민원실 정문 진입로가 급경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이용이 불편하고요, 또 민원실 화장실이 내부에 있습니다. 또 화장실 칸도 일반인 칸, 장애인 칸으로 해가지고 장애인화장실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상주직원이 40명이 넘고 1일 평균 500명 이상 다녀가시는데요, 대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보하고자 이 용역비를 제안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모든 민원인들이 행복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입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355억 1,123만 4,000원에서 54억 7,624만 5,000원이 증액된 409억 8,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32억 9,439만 6,000원, 군특이 29억 8,000만 원, 소방안전세가 700만 원, 도비가 19억 7,876만 1,000원, 군비가 227억 2,732만 2,000원입니다.

먼저 357페이지입니다. 유통가공 관리운영에서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양식 지원에서 김종묘 공급사업비로 본예산 2억 원에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동물질병 예방 백신공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산동물질병예방용 백신 공급사업 위탁대행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사업에서 우량전복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사업에서 예산과목을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염전 등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을 위해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으로 도비 1억 8,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서 추가로 우리 군에 배정된 재정 이전사업으로 사업희망자를 모집한 후, 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넙치양식에 국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그리고 용수정화시설물을 활용한 친환경전복양식장 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어장관리에서 2019년 어업면허 신청 현지조사 및 2020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선박임차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완도특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지원으로 본예산 1억 2,000만 원에다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유통관리에서 건강의 섬 완도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 본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완도군이숍 쇼핑물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글로벌시장 개척에서 중국 완도홍보관 및 각종 전시물 홍보용 출력자료 제작비로 4,000만 원을, 그리고 중국 내 완도홍보관 신설인테리어 이용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글로벌시장 판로개척 수출상품 및 박람회 행사 지원사업비로 본예산 6,000만 원에다가 국비 5,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총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유통업체 및 직거래장터 운영에서 대도시 직거래장터 판촉행사 운영을 위해 본예산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페이지요, 민간자본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50%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 국비가 전혀 없네요, 2개소 50%?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자체사업으로 해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아, 자부담사업이예요? (예)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 저희들이 개소당 5,000만 원짜리 사업 4개소를……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좀 작아서 그 규모보다 조금 큰 규모로 해서 1억짜리. 그러니까 1억 군비 지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2억짜리 규모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2개소를 예산에 반

영해 났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라면, 예를 들자면 어떤 제품. 즉 양식장의 어떤 사료 저장이나, 아니면 일반 어떤 저장창고냐는 그런 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로 사료와 일반수산물저장창고를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마…… 건조된 다시마 저장이라든가, 또 그 외에 전복사료용 미역, 다시마를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규모를 좀 큰 것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사업자 면허를 준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하는 저장창고사업으로 준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전업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위원

필요하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요, 358페이지요,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납치양식하고 전복양식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양식장에 있어서 선진기술을 접목한 양식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4월에…… 그 당시에 의회 회기가 있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신청해야 될 것인데, 회기가 아니어서요, 급하게…… 신청 시기도 촉박하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협의를 거쳐서 해양수산부로 신청서를 전달해 가지고요, 정부에서 7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완도군이 납치하고 전복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 6월 11일에 이 자

리에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1차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약간 들었고, 들었습니다마는…… 국비 6억…… 납치 같은 경우는 군비 6억이고, 전복은 15억에 군비 15억이에요. 그랬죠? (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적어도 군비가…… 국비를 가져와서 자부담과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줄 수 있죠. 이런 전복이나 납치가 기생산되고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군비를 6억, 15억을 줘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내가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적어도 완도에…… 정말 새로운 품종을 하나 개발해서, 양식기술을 가져와서, 도입해서 이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민들한테, 사업자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권장하기가 어려운 사업. 그런 데에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성공을 거처서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른 업체들이 따라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도 투입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 납치나 전복은 기생산하고 있고, 과연 이 돈을 투입해서 그만큼 어민들이나 사업자들에게…… 뭐랄까, 도움이 되겠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납치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전문가들이 질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복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한 40억짜리 가까이 되죠, 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자해서 이것이 된다고 한들 과연 누가 40억을 투자해 가지고…… 누가 선풍할 만한 사업의 효과도 없고, 뭔가가 돼서 된다면 정말 40억 원을 투자해서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도 되기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수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친환경적으로 키워서 했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어민들을……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어민들이 그런 제품을 생산하게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지. 이렇게 개인이 하나 어떤 것이 된다고 해서 우리 완도 전복에 효과가 있냐고 한다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데다가 우리 군비 15억, 군비 15억이면 어디에 써야 될 지도

모르겠는데요. 15억 같은 것을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비를 가져와서 본인 자담과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해요. 군비를 거기에다가 더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도 당초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군비 부담이 사실상 너무 크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국비를 좀…… 재원을 재원부담률을 높이고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데, 너무 높다는 사항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특히 수산양식사업의 경우는 공공성은 사실상 별로 없고 거의 개인부담을 수반한 자본이 전사업이다 보니까 어업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대부분…… 수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대규모사업은 영세어업인들이 선뜻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않느냐는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양식산업의 현 추세로는 스마트를 활용한 선진양식기술에 막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군이 제1호 수산군이고, 모든 부분에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접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우리 군비 부담이 많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신안 지도읍에다가 스마트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400억 짜리 클러스터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고배를 이번에 마셨습니다. 부산하고 경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추세가 전부 이렇게 스마트를 이용한 선진양식기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탄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 2개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진도에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진도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북양식사업 50억짜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사업이 반드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군에서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이번

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군에 뭐 사업비 배제라든가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해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과장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잘 압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져온 것이긴 하는데.

이것, 적어도 군비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돼요. 적어도, 아까도 말했지만 군비를 투입해서요. 40억 이런 것 누가…… 이것을 보고 과연 누가 자기 돈을 대서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사업을 갖다가 줄 수는 없잖아요. 군비를 투입해 가면서, 그러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군비를 투입해서 다음 사업체들이 이어받아서 우리 군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수산업에 한 사람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계속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에요. 쥐도, 군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비를…… 국비를 가져와서 자부담을…… 국비 10억을 가져왔다면 자담 10억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를 받아다가 주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특혜인데. 거기에다가 군비까지 없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우리가 몇 억 정도 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얼마 소규모 투자를 해서 빨리 이것을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 해가지고요. 국비 부담률을 늘려야 앞으로 수산사업이 잘 진행되겠다는 사항으로, 제도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이것 군비는 어민

들한테 쓸 일도…… 이런 것 21억이면 어떻게 될 할지 모르겠어요, 어민들을 위해서. 훨씬 효과가,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360페이지요, 완도군이습 쇼핑몰 활성화 컨설팅 용역, 작년에 한 번 안 했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완도군이습이 2003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용역을 한 번 2008년도에 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지금 추세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한 방법으로 판매방법이 바뀌고 있고, 또 스마트를 이용한 모든 판매방법도 도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이습이 10년 전의 운영방법에 머무르고 있어서 뭔가 개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요구한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위탁용역이었나, 했던 것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줬죠, 이 습?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습이요? 안 줬어요.

○ 최정욱 위원

안 줬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내가 착각했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57페이지…… 358페이지 상단이요, 우량전복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 이게 뭐니까? 설명 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에 전복종묘를 생산하는 업체가 244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우량종묘는 어업인들한테, 양식어업인들한테 전부 판매를 하고요. 성장이 둔한 종자를 주로 어업인들이 폐기하고…… 육상에서 폐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아깝다고 마을어장, 이런 데에다가 살포하고 그래서요. 너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동물먹이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사업을 한번 실험적으로 진행해 보고자 미숙종자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공장예다가 1차로 맡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료 효율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어업인들하고 사료업체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기 전에 한번 행정에서 일부 지원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동물먹이용으로 활용이 가능한지를 실험해 보고자 해서……

○ 우성자 위원

동물은 어떤 동물예다가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는 오리, 닭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잘되면 우리나라에 반려견, 반려견 같은 데에 엄청나게 사료도 공급되고 있어서요. 그 부분에 접목을 하면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어업인들이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 우성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244개 전복어가에서…… 어떤 집에서 실험용을 사설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주로…… 완도에 전복종자협회가 있습니다. 전복종자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회원들한테 미숙종자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 사료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 우성자 위원

그런데 전복이나 넙치나 수산물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남은 새끼까지 사서 해준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것을 바다에다가 다 뿌리면 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사서 해준다는 이 말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것이 전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악 영향을 끼칠 공산이 큼니다. 그런 미숙종자를 바다에다가 살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의 정서에 벗어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생산업체가 284개 업체고 그동안에 전복종자를 생산한 업체에서 상당히 소득도 매우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당히 전복종자업체도 어렵다고 그러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어렵고 그런 것은 우리 주위에 전부 치패하시는 분들…… 이범성 위원님도 일부는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복치패에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20억, 30억, 40억. 그 사람들은 몇 백이 문제가 아니고 몇 십억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놓고 있는데 그 종자까지 그것까지 사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돈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을 올린다는 것은…… 그리고 확실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험 삼아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 번…… 거기 360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지원으로 4,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주로 미디어광고라든가 지하철역이나 버스맵핑, 이런 디자인을 이용한 홍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본예산

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동안에 TV 광고라든가…… 그 외에 YTN 같은 10개 회사에다가 광고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4,000만 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활용하고자……

○ 우성자 위원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짜지면 그런 것은 예산에 맞춰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생각 없이…… 생각 없이는 아니겠지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요구하고 이런다는 느낌도 저희들은 받고 있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우리 군이 워낙 수산물이 다양하고 또 생산된 물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분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지원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완도군이 너무 편향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 홍보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산군이다 보니까 많은 업종들이 상당히 되고 있어요, 수산물이.

신안 홍보물 보셨죠, 우력. 보셨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못 봤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래요.

보면 상당히 눈에 와 닿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 현재 완도군의 우럭 생산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물론 광어사업도 아주 어렵습니다마는 우럭생산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거기에 눈도 안 돌리고 있어요. 계속 하는 홍보만 하더라고요. 전복, 해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금일수협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겹치지 않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해줘야죠. 왜 하는 홍보만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물을 때 얼마나 반감을 가지고 묻겠습니까. 우리들도 대답할 그런 생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요. 경영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도군이 조율해서 정말 지금 현재 제일 어려운 수산물이 무엇인가도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는 홍보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전복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도 방송에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홍보물이 나오면 그런 식으로 편향적이에요. 물론 생산자가 많고, 생산양도 많고 한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 말이 아니라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수산물 홍보를 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달게 받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저도 가슴에 딱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앞으로 대비해야 돼요. 꼭 했던 방식으로만 한니까 우리가 봐도 “아이고, 또 전복.” 아니면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니까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반감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58쪽을 보시면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양식장 조성사업으로 3억 6,000인데, 도비로 해가지고 진행될 텐데, 지금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계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도에서는 주로 새우양식을 염두에 두고 폐염전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요. 도에서 사업을 우리 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폐염전이 몇 개소가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하는 어업인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어디라고 다 찍어져 가지고 자금이 내려온 것은 아니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새우양식 같은 경우도 폐염전 활용방안들을 조금이라도 잘 선택해 가지고 뭔가 사업성이 있을 때…… 순전히 태양광이나 이런 여러…… 보기 싫게 모든 것들이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새우양식으로 해가지고 좀 소득성이 높다고 그러면 다른 염전들도 그 방향성에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선택을 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보조반환금에 대해서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수산물 중형 저온저장시설이요. 이것 1,921만 4,000원을 반환하셨는데 이것에서 돈이 남았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집행잔액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단위에서 수산물 저온시설을 못해가지고 아우성인데 왜 돈이 남아있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계약해 가지고 잔액이 건수별로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건수별로 남는다니 그것이 뭔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건에 따라서…… 가령 1억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국비가 일부 한 500만 원이 남는단거나, 600만 원이 남는단가.

○ 우성자 위원

아, 이게 가정용 저온시설이 아니고……

○ 전문위원 추관호

중형입니다.

○ 우성자 위원

중형? 아주 큰 것?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아, 큰 것인 줄 알고 물어보느라고.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최정욱 위원이 이야기하던데 스마트식 순환여과는 어떤 방식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일명 먹이 투여, 급여 이런 것도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핸드폰으로 많이 조정해 가지고 먹이를 투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

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 군에서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어업인들한테 전부 알리고 어업인들 중에 희망하는 어업인들이 있어서 해수부로 전달했던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나 부의장이나 김양훈 위원이 광어양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지금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그것이에요. 수산여과식이라는 것은 물을 다시 계속 순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가능하냐. 지금 어류질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즉, 물을 뽑아서 바로 뱉어도 질병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해서 EP를 조명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경영과장님도 항시…… 이전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EP를 조명하고 있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150여가가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대체적으로 우리 완도군 광어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대다수가 배합사료는 (청취불능) 가격 면에서 안 맞다고 해가지고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전어가, 100%가 EP를 사용하지 않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래도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도 되지 않겠나.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원하는 것은 EPD. 이것을 하기 위해서, EIP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서 저지해야 될 사업을 스마트사업 순환여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생각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지금 광어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키로당 1만 1,000원.

○ 김재홍 위원

실거래가가 1만 원입니다.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무래도 국민들이 활어 같은, 광어 회 같은 것은 소비가 많이……

○ 김재홍 위원

얘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과잉생산이라고 그래요. 말하기 쉽게 과잉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잉생산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완도군 이 자체로 본다면 오히려 한 가지를 더 규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순환여과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이 자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어려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358쪽예요, 폐사어 처리수거비 지원. 목변경 8,000만 원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은 예산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목만 사무관리비에서 목을 좀 변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목변경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야까 그 밑에 폐업전 새우양식장을 한다고 했었죠? (예)

혹시 새우양식장에 대해서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직 우리 군에서는 새우양식장에 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직 못 들어보셨어요? (예)

새우양식장의 그 물이 얼마만큼 더럽고 오염이 많은지 혹시 파악은 안 해보셨습니까? (예)

안 해보셨죠. 어느 면에서 새우양식장 때문에 고소, 고발에 들어간 것도 모르시죠? (예)

또 그 새우양식장을 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면요, 이것 때문에 바다 해조류나 펄, 전부 다 오염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들어오고 지금 계약 파기까지 들어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득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새우양식장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것. 뭘 좀…… 그래도 민원을 좀 보시고 무엇을 파악하시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신청해야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사업자를 한번 모집해 보고 현지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 김양훈 위원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요, 그 환경에 맞춰가야죠. 이 새우양식장을 했을 때 그 주위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환경, 오염 한번 다 봤어야죠, 해보고 나서 그런 것을 따지고, 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극 (청취불능) 되는지, 또 주변에 민원……

○ 김양훈 위원

이것 새우, 그 폐염전이면 전부 다 바닷가 쪽 아닙니까. 그 물을 저장해 놓고 엄청난 약품을 쓰고 항생제를 쓰고 하는데, 그것 어느 순간에 물이 다 뜬다. 그것이 다 바다로 유입되었을 때 거기에 미치는 그 영향, 환경적 영향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금도에서 그 양식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양식장을 한다고 해서 날 새기로 한 달 이상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소, 고발에 들어가고, 결국은 새우를 저녁에 모르게 넣었다가 물건을 뺏습니다. 동네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고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동자 한 명은 결국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새우 두 군데 또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하고 불화설이…… 엄청 안 좋아요.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원이 엄청납니다. 한번 가서 봐보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새우양식장을 하겠다, 소득사업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현장에 나가서 좀 보세요, 이런 것. 나가서 현장을 보고 무슨 이야기라도 하고 예산을 올리고 해야죠.

351쪽예요, 상단에 중국 완도홍보관 그것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저번에 상해로 시장 개척을 갔었을 때요,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이신 안청탁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중국 선양시에서 주로 사

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거기에서 상당히 큰 사업을 하면서 중국관이라는 큰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완도홍보관을 배려해 주겠다. 그쪽에서 완도수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셔서 거기에다가 우리 홍보관을 개설하려고 그것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완도의 전체적인 수산물홍보관입니까, 아니면 완도의 전체 관광, 이런 전체적인, 통틀어서 하는 홍보관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거기에 우리 수산물도 들어가고 특산물, 또 전반적으로 관광, 홍보까지 다 포함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인테리어 그 부분도 똑같은 것이에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같이……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출품자료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거기에 가서 거기에다가 전시할 출품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매번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357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산동물 질병예방 위탁사업 대행수수료 1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것 어떤 근거로 여기에 올라왔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일명 저희들이 백신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어 양식어장에 질병예방용 백신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질병예방용 백신을 투여하는데에 질병관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서부어류양식수협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부양식수협 자체 규정에 수수료를 일부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업인들한테 한 6% 정도로 상당한 금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작년 전 남도 감사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위탁으로, 우리 군에서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그 과정은 잘 알고요.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류양식수협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은 저희들이 완도군 조례에 의해서……

○ 위원장 박인철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하위법이 우선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상위법에는 수산동물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 단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협에서는, 양식수협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업인들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고 백신문제가…… 아니, 백신공급이 다 끝나고 돈이 0원인데 갑자기 위탁수수료가 올라오면…… 그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그러면 1회 추경에라도 백신공급을…… 금액이 남았을 때 올려야 되고.

또 기존에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작년에 도 감사에…… 잘못됐으니까 도 감사가 지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 감사실에 가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군에서 이기든가. 이것이 지금 검찰까지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그렇으면 올해는 다른 방법으로 백신공급을……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라도 다른 방법을 행정에서 연구해가지고 해야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번에 저희들이 4월 11일인가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 1차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었고,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검찰 수사 중에 있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지금도 그러면 과장님. 검찰 수사 중인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옵니까? 그것이 끝나야……

그렇게 하고, 백신공급이 지금 얼추 다 됐는데 어민들이 다 6%를 냈어요. 그러면 수협에서 하는 일은 수협에서 직접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질병관리사한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우리 군에서, 담당 팀에서 해야 돼요, 이것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우선 인원도 부족하고, 또 하다 보면 일시 고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제정비 이런 것을 감안하면 어차피 군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면 되죠, 해가지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는 사실상 그렇게 진행하기가 좀 늦었고, 시기적으로 늦고 그래서요. 부득이하게 이번엔 수수료를……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이 수수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상위법에 보면 과장님도 봤을 것입니다. 수산물 위생관리로 해가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로 해가지고, 상위법에서는 수협에서 할 수 없으니

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러니까 이 사항을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가 이런 경비를 국비로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올해만큼은 위탁수수료를 군에서 진행하고요. 내년부터는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해수부에서 국비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방법을……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올해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근거도 없고 법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법으로 위탁할 수가 없고 위탁수수료를 줄 수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행정 편의주의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은 과장님, 됐고요.

조금 전에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국에 원래 홍보관이 없죠? (예)

저번에 홍보관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해시인가는 한 번 2,000만 원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없는데. 거기 남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실내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 소개 자료 2,000만 원, 전시회 출품 2,000만 원 이렇게 합니까, 남은 것에도가?

그러면 거기 한상어워드를 받을 때요, 그분하고 어떤 계약조건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른 계약조건은 없고요. 중국에서 선양시에다가 프로젝트라고 16 플러스 1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중국 국가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다가, 한국관 내에 완도특산물 홍보용 부스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무료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차근차근하게

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9년 총 예산은 69억 821만 7,000원에서 이중 56억 1,532만 8,000원이 증액된 152억 2,3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 기획관리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바로알기 종이만화 책자 제작 2,500만 원, 그다음에 해양치유산업 주민 홍보 리플렛 제작 2,400만 원 기타자본이전 해양치유원도 BI 상표출연 등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분야에 행사운영비,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사무관리비, 해양치유산업 차량 랩핑 300만 원, 해양치유프로그램 운영 안내포스터 등 제작비 600만 원.

352페이지입니다.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시설비, 해조류센터 옥상정원 안전시설 보강공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기획운영 사무관리비에 2021 완도해조류 박람회 공식마스코트 인형 제작에 330만 원, 박람회 기념품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균특회계 도비, 군비로 해서 5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자체사업비 사무관리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 홍보 소책자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쪽 제일 위에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기후치유프로그램은 작년 8월부터 계속 계절별로 해서 기후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지고 동프로그램을, 여름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을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약간의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1회할 때 인원들이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동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총 23회 정도 했는데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한번……

(방청석에서 “동프로그램은 29회를 운영해서 594명이 참여를 했고요. 체험관, 그때 축제 때나…… 그때 체험관을 해서 2,4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프로그램에는 한 2,252명이 참여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이범성 위원

거기에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분포도가 어떻

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봄에는 관광객이 32.5%가 참여했고요. 지역민은 67.5%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현장조사는 바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관광객들을 이렇게 비율을 나누기는 어렵긴 하지만요. 현장접수이기 때문에 관광객 참여가 더 많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지역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양치유라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으니까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게 쓸 수 있고 또 홍보도…… 또 지역민들만 홍보해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모든 부분들을 내다보고 그런 부분들의 홍보를 좀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자금이 소요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351쪽예요, 행사운영비에서 투자협약식 및 투자유치설명회, 투자협약식은 지금 어디…… 얼마나 됐습니까, 투자협약을 할 분들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투자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올해는 없었고요, 앞으로 10월에 해외투자유치 관련해서 미국에서, LA에서 하게 되는데 3개 업체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3개 업체만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우선 해외투자유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혹시 뭐 이렇게 국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들이라든가 있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 예. 지금 어디 특정업체를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해양치유산업이 홍보되면서 일부 업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분야 쪽에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며칠 전에 해외에서 오신 분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투자유치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양치유설명회를 할 때 꼭 참석하겠다. 거기에 한번 (칭취불능) 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우리가 해양치유 이것이 민자를 주다가…… 그냥 7,000억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실현 가능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목표치는 그렇게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00억이라는 그런 예산을 더 저희들이 확보……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우선 숙박업소 유치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는 지금 어디에서 많이 하는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계획된 것은 LA에서 한 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내년 2월경 정도에 서울에서 한번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전부 다 보면 다 숙박 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요. 해양치유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쪽에 컨셉을 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맞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숙박은, 오면 서로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해양바이오기업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352쪽, 본예산이었나. 계단폭포 그 해조류센터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세부사업 변경이라고 해서 또 2,000만 원이 있어서 그것 설명 좀 해주시라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당초에 저희들이요, 앞에 해양치유…… 35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보다는 우선 캐스케이드를 조성하면서 안전사고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먼저 본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감을 시키고 그 사업을 전환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기존사업은 그대로 하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캐스케이드는 그대로 하고요, 그 외에 안전시설을……

○ 허궁희 위원

조명이나 이런 부분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물어보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352페이지, 하단부 지역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 밑에 있고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19억 정도로 되는데, 어떤 연구개발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연구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얘기하는데요, (청취불능) ICT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것 용역비입니까, 지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닙니다. 용역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 위원장 박인철

지금 이것이 189억에 대한 1차분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182억.

○ 위원장 박인철

거기에서 그때 한창 설명할 때는 그런 연구용역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19억 정도가 간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설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라든가.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용역이면 용역이라고 표시해 주고, 뭐는 뭐라고…… 설계비면 설계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설계 같은 것도 연구개발입니까? 나머지 시설비는 시설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억을 이렇게…… 이것 그러면 전부 뭐로 잡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해양치유 용역을 했단?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니, (청취불능)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 설계는 별도 회사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게 되고,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런 것 다 입찰할 것 아닙니까, 설계 같은 것도, 우리가 어떤 안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기존에 (청취불능) 보면 다 나와 있던데, 모형도는, 조감도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 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여기에 뭉뚱그려 가지고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19억을 잡아놓으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 안에 시설비, 연구비 용역비, 뭘 비, 뭘 비 다 따로 부기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해양블루존 뭘을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19억이 나……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팀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

다. 당초에 개발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이후로 소규모 세부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실행계획에 맞춰서 단위사업에 대한 건강기후지수 개발이라든지, 정밀의료해양치유콘텐츠 개발, 그리고 맥반석 연구용역, 그리고 마을기업 설립 지원, 해양기후 어플 개발 등 다양한……”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열해 줘야 되는 데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런 돈들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의의는 모른다는 이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하는 직원 있음)

이것 다 개개인 사업들, 각각의 사업들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이것이 발주할 때는 개별적으로 발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총괄로 해서, 그렇게 하나로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면 설계하는 데에다가 다른 것도 맡기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각자의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야가 따로 따로.

(방청석에서 “그러니까 개별 분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개의 사업으로 계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로 따로 하면 추진하기도 좀……”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9억 이 안에 신지면, 청산면 또 어디입니까.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그 안에 다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거기 안에는, 우리가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에 들어있는 연구개발사업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5개 단위사업 연차별 예산 투자계획을 저희들이 표로 만 들었는데요. 이것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미리미리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연구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한테 2번인가, 3번인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무슨 사업 20

몇 억, 무슨 사업 10 몇 억, 무슨 사업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연구개발비라는 사업도 그 당시 182억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이런 예산들이, 내 기억 속에는……과장님, 제가 틀립니까?

그때 (청취불능) 소장이 와서 설명할 때 어디 단위사업은 얼마, 뭘 사업은 얼마 이래 가지고 200억에서요. 열 군데에서 열한 군데가 되면서 182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위, 19억 어떤 연구개발비…… 안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각자 위원들한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부 다 나눠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장님, 재설명을 한 번하죠.

○ 위원장 박인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청취불능) 왔을 때 과장님이 했을 때는 이런 예산들이 없었어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단위별 어디에다가 얼마 투자, 어디에 얼마 해가지고 182억의 돈이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6억 8,585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1,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농업박람회 참가에서 일반운영

비 중 사무관리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용품 제작 및 임차 등 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500만 원, 생활개선회육성에서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완도 대표음식 발굴 실습교육 강사 수당 370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에서 민간이전 중 민간인위탁 교육비로 농업인 굴삭기 면허취득 600만 원.

다음은 36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중 재료비에서, 재료비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5,000만 원.

다음은 369쪽입니다. 농업시험포장 관리운영에서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꽃묘육성포 지붕피복재 교체공사에 1,100만 원, 국화향연개발비에서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대야리 국화육묘장 피복재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예요, 재료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하여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엠을 공급하는 차원에서요, 일부 농가에서 이엠을 쓰는데 효용을 보신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축산농가에서는 그렇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의 축산농가에서는 굉장히 이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취제거용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축산농가라고 그랬는데,

축산…… 가서 보니까 창고에 쌓아져 있더라고요, 이엠이. 쌓아져 있는데요. 다 썼으면 없어야죠. 내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려다가 안 찍어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안 가보셨죠? 가서 보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리고 또 해양정책과에서도 농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을 올렸던데, 그것도 말이 안 맞죠. 농민들이 원하면, 그러면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 기술센터에서 다 올렸어야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왜 해양정책과에서 올리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거기 자금 1억을 가지고 나눠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취제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안 쓰고 창고에 쌓아놓느냐고, 그리고 이 업체도 문제고, 아니, 예산이 나오기도 전에 전부 그 업자가 전화를 다 돌리고 또 주위 분들이 와서 전화하고, 이것 방법론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위원들도 모르는 예산을 먼저 그 업체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공급하는 부분은…… 뭐냐, 이엠 액비 같은 경우는 수산정책과에서 해조류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만드다 보니까 수산정책과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엠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최초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요.

하여간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 김양훈 위원

이전 본예산 때도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했었어요. 본예산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매번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공급체계를……

○ 김양훈 위원

사회적기업을 보니까, 이전 자료를 보니까요, 연구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군에서 3,000만 원 씩 하다가 이번에는 그것이 끝나니까 도에서 또 2,000만 원을 받아다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매

번 받아가던데, 한 업체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그냥 보조해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매번 한번, 한번 하다가 계속 한 업체 먹여 살리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진짜 제품이 좋으면 왜 안 쓰겠습니까. 왜 안 쓰고, 왜 안 하겠어요. 진짜 제품이 좋다고 그러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다 쓰죠. 왜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고 반강제식으로 갖다 주니까 그냥…… 다 놔두고 결국에는 버리고, 헛예산이라는 이 소리죠, 이게. 왜 낭비성 예산을 계속 해 년마다 쓰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재고로 쌓아놓는 농가도 있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활용하는 농가가 더 많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관리를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장님한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관리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일부는 안 썼다면 그것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보조해 주고 왜 관리를 안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 다음부터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검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65쪽예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완도 대표음식 발굴 실습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추가됐는데 왜 추가되었습니까, 370만 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당초에 완도 대표음식을 발굴하라는 그런…… 발굴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다른 목에 있는 강사수당을 먼저 사용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일단 그 대표음식은 발굴해 잡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다른 대표음식을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 강사수당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하고 계속……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대표음식을 관광정책과에서 쪽 하다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경에 발표회를…… 평가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이 대표음식도 관광 쪽에서 하다가, 이리 넘어와서 하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만 해놓고요, 다른 시군들은 엄청 이런 부분들에 참 많이 열정을 쏟고 있는데, 우리 완도군은 이과에 있다가 또 이 과로 넘어갔다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청구하더라도 완도에 가면 어떤 대표음식이 있더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맥락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요, 하여튼 대표음식을 뭔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2회 추경예산 총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은 130억 4,100만 3,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9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133억 9,03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제2차..... 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인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행사운영,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행사참여 실비보상비로 1,25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입원 치료 및 응급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

다음은 377페이지, 난임부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로 600만 원.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민간인 위탁교육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다음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관리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사전검사비 지원비로 400만 원.

다음은 382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5,000만 원, 예방접종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의료원 백신냉장고 교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19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보건의료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3,990만 4,000원이 증가된 21억 1,10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장보고공원 화장실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장도 목교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장보고기념관 및 동상, 공원 내 수목 정비사업 2,000만 원,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유적지 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임 512만 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장도 진입로 보수공사 2,000만 원.

다음 페이지, 404쪽입니다. 시설비, 장보고동상 어린이놀이공원 친환경 조성사업에 도비 5억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어촌민속전시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재배치 기본계획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페이지, 어촌민속전시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재배치 기본계획, 여름에 어촌전시관에 사람이 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떨어지고 있는데 재배치 용역비, 이것 꼭 써야 돼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폐관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신축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어 가지고요. 건평이 한 1,000평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그냥 폐관하기는 그렇고, 또 이렇게 그냥 놔두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전시관 단장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00만 원을 가지고요. 그냥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돈을 아껴서…… 뭐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거기가 접근성이랄까, 여러 가지로 떨어져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 그것 과장님, 안 맞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저희들이 지금 새롭게 단장한다는 얘기는요. 명칭도 어촌민속전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시물도 좀 바꾸고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명칭을 변경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굳이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 내년 리모델링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용역을 거쳐야 신청하기 때문에……

○ 이범성 위원

저기예다가 또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폐관도 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어떠한 이전 신축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가지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새롭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 이범성 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

고 다른 데예다가 신축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맞겠어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해서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 안이 있습니다. 명절을 새고 군수님한테 결재가 되면, 다시 한 번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해야, 내년에 국비를 신청해야 내후년에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한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사업소장님은 그래도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 가셨는데 예우차원에서 그냥 넘어갑시다.

(장내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심했습니다. 한 끝에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6억 2,73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4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2,7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완도 군내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계획수립 용역 9,000만 원, 완도읍 용암리 비탈면 오수관로 정비공사 5,500만 원, 관내 하수도 맨홀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9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재료비, 분뇨처리장 약품 구입 1,669만 원 증액, 시설비,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준설용역 5,700만 원, 분뇨처리장 액상부식조 상기시설 교체공사 7,000만 원 계상.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장 원인슬러지 처리수수료 1,560만 원 증액, 분뇨처리장 흡착물 처리 수수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전출금 4억 3,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8년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3억 1,373만 4,000원, 발생이자 514만 1,000원, 다음은 시도비 반환보조금,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 1,446만 1,000원, 발생이자 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65억 7,68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시도비보조금 1,247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5,485만 7,000원, 시도비보조

금 반환금 1억 2,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 4억 3,9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65억 7,685만 6,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개선입니다. 시설비, 노화 서넛도 급수구역 확대공사 토지매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정상적위탁사업비 고금, 약산 급수구역 송수관로 세척 및 교체공사 2억 3,500만 원, 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상수도 급수공사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먹는물 수질관리 지원사업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취약계층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소방안전교부세 안전점검 분야 집행잔액 1억 6,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2쪽, `18년 완도군 소안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국비하고 군비사업을 7 대 3으로 가져와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아마 사업이 불가한 지역, 예를 들어서 저지대라든가 사업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업비 잔액이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잔액이 좀 많아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최대한 해야 되는데요. 일하기가 쉬우면 잘 하는데 일하기가 어려우면 안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지금 그쪽 처리시설 지금 다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추석에 완료되니까, 추석 전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 그런 데는 아직 포장도 덜 된 것 같은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 이범성 위원

아, 건설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고요. 이것은 저기 위쪽, 한 쪽들 안 된 곳. 저기 고랑을 넘은 쪽이 안 된 것이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 쪽은 그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 이범성 위원

돈이 남아서요.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정액 예산보다 1,060만원이 증액된 9억 6,19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원도군의회 회의실 전자교탁 설치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설명을 드리면 소회의실에 컴퓨터 시설로 해 가지고 한번 한 다음에요, 본회의장은 본예산 때 해서 한번 해보려고……

○ 위원장 박인철

의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접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계속)

그러면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1차 삭감대

상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352페이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19억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9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총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연구계약비를 예산서에 명시했고요, 올해 3차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표를 보시면 총 다섯 개 단위사업이 17개 사업으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17개 사업 중에 앞으로 연구개발사업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임상실험이라든가, 또 해양치유 실용화 기반연구라든가, 또 블루존시설과, 또 건강과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표에서 빨강게 표시한 부분이 올해 집행하게 될 2019년도 연구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2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한 80%, 그리고 연구개발사업비가 한 20%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36억 원 중 올해 1차분에 19억 2,000만 원을 발주할 그럴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까 과장님이 오전에 설명했던 시설비 같은 것은 전혀 없구먼요, 그런 것은, 설계비 그런 것은 전혀 없구먼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설계비는 이 시설비 안에, 실시설계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요, 여기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구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연구개발비에는 설계비는 안 들어있고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이 해양바이오연구단지 기반구축으로 해가지고 3억인데 이것은 어디, 뭐하는 거예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런 경우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기반구축인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기반구축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3억을 거기 에다가 배부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시설비로, 기반구축사업비로 19억 4,000만 원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유럽 블루벨리파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독일을 말하는 거예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유럽에 있는 유레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쪽 연구기관하고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저번에 프랑스에 갔던 거기 연구 그쪽……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요, 그쪽 아닙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잠깐……

(방청석에서 “유럽 블루벨리파크 연계사업은 해외바이오 연구기관하고 해외에서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그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하고 유럽기관하고 해서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야 되고 신청해서 어떤 연구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또 사업을 신청하고 그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고, 또 국내의 바이오기업하고…… 국내하고 해외하고 바이오기업하고 또 공동연구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연구개발비 20%가 빠져나가 버리면, 36억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146억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182억에서 그러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지금 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개발사업비에는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또 그중에 사업컨설팅도 할 것이고, 또 우리 군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 맥반석 관련해서 정밀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돈을 해서 찾아놓고 여기가 되면 완전 돈방석에 앉는 꼴밖에 안 되네요, 그런 데가.
여기 입찰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당연히 입찰……

○ 위원장 박인철

통괄 입찰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입찰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닙니다. 종합…… 그 총괄계약 발주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해서 예산을 19억 2,000만 원을 올해 계약하고, 나머지 12억은 내년예 2차 년도에 계약하고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올해 19억 이것을 그냥 한 묶음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과제별로 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총괄발주를 해서 계약을 하고요, 세부사업들은 별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이것은 다 틀린데 별도로 건건이 안 하고 전체 이렇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관련기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쪽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아니면 그냥 입찰에 의한 계약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지금 아직 결정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 위원장 박인철

이것을 보니까 14억 계약, 뭐 돈을 주면 흘러갈 것 같구먼.

(방청석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하든지. 진행하면서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 비슷하면서도 추진하는 분야나 업체 같은 경우에 틀린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분야가 많고, 또 전문컨설팅이라든지 마을기업 설립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따로 따로 발표하면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요. 총괄로 해서 발주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관리하고 또 추진 사업 같은 것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괄로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과목이 다섯 가지 아니에요. 목이 다섯

가지인데, 다 분야가 틀린데. 이것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 목들이 틀리지 않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마 해양치유블루존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다섯 개로 나누어진……

○ 위원장 박인철

뭐야, 센터별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지는 뭐가 들어가고, 청산은 뭐가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단위별로 다섯 가지가 나뉘지는데, 이것을 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것이 의아하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여러 가지 그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36억으로 총괄계약을 하고, 내년에는 이 예산을 3개년도로 나뉘어 가지고 올해부터…… 올해 필요한 19억, 그다음에 내년에 필요한 12억, 그리고 마지막에 5억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요. 계약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한번 이것이 입찰되어 버리면 그 업체에서 36억을 몽땅 가져간다는 말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하는 직원 있음)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사업이…… 이 사람이 연구개발한 것 하고 다른 팀이 연구개발한 것하고, 그러면 편이하게 틀리게 나오면 돈만 날려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위원장님, 그게 총괄하게 되면 한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성격의 연구용역입니다. 대학교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고……”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금방 한 군데에서 한다고 해놓고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총괄계약은 한 업체에서 하더라도 공동분담 이행방식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3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선 1차분이 19억 아니에요. 그러면 1차 19억을 하는 데에서 나머지도 해야 만이 이것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1차분 19억이 끝나고 또 내년도에 나머지 12억을 한다면, 그러면 이 목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 목으로 목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올해는 총 36억 어치의 총괄적인 계약이 들어가고요, 세부적인 연차계약은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1, 2, 3차로 나뉘어서 하는데요. 2021년까지 하는데 올해 입찰된 업체가 2020년, 2021년부터 해야 맞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처음에 결정된 업체가 3년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이전 36억이라면, 연구용역비가 36억이라면 어디 대기업들이 뭐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뭐 하나 프로젝트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도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입찰할 것인가도 안 되고, 협상에 의한다면 한 업체에 미뤄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얼마나 특수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러면 36억을 한 업체에다가 줘버리면 거기에서…… 내가 우성자 주고, 김재홍 주고, 허궁희 주고 하는 것인데. 또 나는 내 마진을 다 먹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여튼 연구를 좀 합시다.

과장님, 내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사업은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구개발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내년에는 안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올해 발주를 해서……

○ 위원장 박인철

올해 몇 개월이 남지도 않았는데 19억을 주겠

어요. 계속비사업으로 가겠구먼, 보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일단 자금 발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구먼.

그러니까 발주를 하는데요. 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따로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3년치를 한 예산에 전체적으로 몰빵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좀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한 업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전문기관들이..... 대학이라든지, 연구에 참여를 시켜야 되니까요.

○ 위원장 박인철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어찌됐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이고, 한 업체가 일단 계약 건을 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다 보면 그럴 필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돈이 36억인데, 연구개발비가 36억인데,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 해가지고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리고 과장님, (청취불능) 처음에 200억으로 해가지고 11개 업체가, 시군이 되어 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안 해줬잖아요. 그 (청취불능)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182억이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나 그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만 한다고 했지, 연구개발이 갑자기 20%가 나와 버리고, 이제 와서 20%가 나와 버리면..... 그동안 의회에 와서는 전혀 그런 보고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연구합시다, 같이.

다른 위원님들 물어볼 말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아니, 내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방금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업체에 어차피..... 책임은 한 업체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한 군데에 하니까. 그렇죠? 그 업체에서..... 어떤 업체는 자기 손맛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을 성공하는 쪽으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들어보면,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중요한 사업 하나하나를.....

왜 해양치유산업과가 생겼어요, 직원이 없다고 금방 말하는 것 같던데, 과가 생겼는데 직원이 없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업체가 책임지고 하는 것을 보면 일을 편하게 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힘들더라도 성공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만에 하나 그 업체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한 그 업체에서도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선정할 것 아니에요, 이 5개 품목에 대해서도, 뭐 교수들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들이 검증하기 이전에 그 예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위원님, 그것은 (청취불능) 저희들이 기안을 할 때 과업지시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작성해 가지고.....

○ 최정욱 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는..... 어쨌든 책임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안 자체를 하면, 또 그쪽 말을 우리가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한 번 계약을 하면, 왜냐하면 계약자니까.

그래서 그것을 탓하기 이전에 그런 것을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일을 성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만큼 관심과.....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하나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군데에 몰려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사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안 보인다는 얘기니까. 방금 박인철 위원이 말한 것과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이것을 해야지. 한 군데에 그렇게 해서 잘못되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제가 한번 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잠깐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이 해양치유 산업과와…… 치유지역 역량강화, 치유 연계산업, 치유스마트, 전부 해양치유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있는데. 블루존하고 해양치유하고 관계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장님? 보니까 해양치유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여기 블루존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전체적인 해양치유산업 안에 해양치유 블루존 사업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해양치유에서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치유산업에서도. 그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거예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해양치유산업 용역을 한 것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분야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 (청취불능)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설정했기 때문에 블루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블루존사업이 해양치유산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여기를 봐보십시오. 해양기후치유센터, 노르딕워킹 조성사업. 이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 해양치유에서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기후치유센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콘텐츠 개발사업에서 해양기후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해양기후센터와는 별개 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언제 한번 토론회를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몰어볼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존경하는 위원님들,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설명을 드리러 왔습니다.

331쪽입니다. 이 드론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갈아드린 자료와 같이 재난재해관리를 위한 스마트드론인데요.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해가지고 내후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각종 재난안전관리 및 순찰환경 분석시설 점검 등으로 소중한 인명피해 예방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시설물 안전점검 등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떤 인명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인적이 드문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 드론을 띄워서 수색도 좀 하고요. 또 태풍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피해 상황을 촬영하고, 또 조소라든가 가두리에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할 수 있도록 드론을 띄워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원도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드론역을 12개 읍면 취약지역에다가 2개를 만들고요. 또 대형드론 2개를 사서요. 여기에서 모터만 누르면 역에서 떠서 촬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억 규모로 여러 군데 역을 만들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예산 형평상 우선 8억만 가지고 시행하라고 이렇게 공모 선정을 받았습니

다.

○ 위원장 박인철

안전건설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섭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 쓴다는데요, 태풍 때는 비행기도 안 뜨는데 이것 드론은 안 날라가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태풍이 불고 있을 때는 안 되고요, 사전, 사후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난 태풍 때 띄운다니까 특별한 드론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아닙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 1식하고 드론스테이션하고 드론 2대를 구입한다는 이것이지요.

요즘 드론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대형은?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좋은 것은 한 1억 정도, 저희들 사무실에 있는 것은 500만 원이라 성능 자체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뭘랄까, 최신, 최대로 큰 것으로 해서 살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들이 안전건설과에서 이 드론 자체들을 다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이 되면 관제센터하고 연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을 한 다고 했는데 이 사업주체는 누가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사업주체는 완도군이죠.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합니까, 아니면 기존인력을 가지고 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관제센터가 구축되어 가지고 24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각종 재난업무에다가..... 이것이 적게는 제가 신설됐어야 됐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넘기려고 해요. 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못 받겠다. 그랬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이런 것이 좀 고려되지 않겠냐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아직 이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만 운영한다고, 위탁을 안 하고 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그런 운영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아직 없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현재 우리 과에서 이번에 드론자격증을 2명이 뒀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런데 그 직원들이 드론만 하라고 있는 직원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다른 업무는 많은데 우용석이라고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다행히 드론을 뺏기 때문에 다른 인력만 충원이 된다면, 계만 신설된다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 위원장 박인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직원들이 계속 안전건설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사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게 되면요,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유지관리업체에서 도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데……

○ 위원장 박인철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 안전재난팀장 김준혁

(좌석에서)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 위원장 박인철

사업의 기대효과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봐서는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 정도 고가의 기계를 작동하고 뭐한다는 것은…… 인력채용, 드론만 하는 인력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완도군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다고 1회 추정 때 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수요에 맞게 빠른 시일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또 주민수요까지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고 한 100군데 된다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개소에서 100개소 정도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뭐 동네나 그런 데는 선정됐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수요를 다시 한 번 파악하려고 합니다. 3월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수요를 파악해서 각 읍면의 마을회관 수하고 적절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뭐 파악……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하려고 지금……

○ 김양훈 위원

12개 읍면 어느 정도…… 그래도 100군데라고 그러면 분포는…… 배정률은 정해졌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마을회관이 많고 인구수가 많은 곳에 배정을 좀 더 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왕 사업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만약에 퇴치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실행이 되는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좀 늦은 것은…… 저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계절적으로 늦었는데 그 기계 성능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요. 또 내년에 다시 한 번 가동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다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설치해 놓고 이번에 사용을 못하고 내년에 쓰다가 만약에 그것 성능이 안 좋아진다면, 아니면 그것이 (청취불능) 고장이 있어버리면…… 예산이 된다면 다행인데 안 되어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페이지 341페이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에 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입니다. 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은 작물 성장의 필수성분인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서 해초나 이엠 등에 조합된 고농축 생육자재로 과수나 과채류, 엽채류에 살포하면서 주로 작목반에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엠활성액은 전작물이나 수도작에 이렇게 공급했는데 해조류액비는 주로 작목반에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페이지 342페이지 하단부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태풍 대비 도교인양장비 임차료 4,000만 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부잔교사업은 시설비로서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태풍이 오면 어민들이 이것을 잘 인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번 시행해 보고 효과를 한번 분석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촌계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발효액비 문제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좀 위원님들도 이 내용을 깊이 알아야 돼요. 주민들이 물어봐도…… 우리가 이 액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사용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설명도 없었고.

이것이 첫 사업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전부터 해왔습니다.

○ 허궁희 위원

해조류액비를요?

그러면 왜 우리들한테는 한 번도 그런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성분분석표랑. 왜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성분분석표는 기술센터에 아마 이야기했지 않았느냐.

○ 허궁희 위원

기술센터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해양정책과로 해서 실무팀장이 없다고 해서 실무자가 누구냐고 해서 직접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뭘 갖다가 뵈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산출기능사용설명서를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냐. 단순한 이엠도 성분분석표를 갖다 주라고 하면 다른 타 지역 업체에서는 가져오는데. 아니, 우리 지역특산이라고 해서…… 참 말도 좋습니다.

해조류발효액비, 뭘을 어떻게 사용했고 뭐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무슨 성분이 어떻게 포함되었고, 그런 내용을 전혀 우리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게 해주라. 우리들도 내막을 알아야 공급해 주고 이해를 하고, 전혀 우리들은 까막눈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에 민감하다면 많은 주민들이 연락이 오는 것 알죠. 예산서도 안 와서 전화가 오고, 이런 내용이 사실…… 오늘도 또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떻게 되

려고 그러는지. 저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것은 보완되어야 되고,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서운한 말을 했다고 조르륵 들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서운하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킬 분야는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이 액비는 뭐 다시마가 들어갔든지, 미역이 들어갔든지, 개물이 들어갔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어떠한 성분이 있어서 식물에 좋다고 한다고 홍보할 것 아니에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공급만 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그런 점은 과장님이나 실과에서 보완할 점은 하세요. 공급만 우선시하지 마시고, 무언가 그래도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공유를 해야죠, 같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그것 342쪽, 도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꼭 이것 행정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다기능부잔교를 시설할 때 우리가 시설비로 해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전부 설치해줬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서 인양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요.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어촌계에서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어촌계를 지도하는 방향으로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이번

에 올렸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먼저 하지 마시고 어촌계나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 가지고 한번 해봐라. 어촌계에 이야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도……

○ 김양훈 위원

꼭 행정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불면 지도를 많이 합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보통 도교를 하나 만드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사전예방책으로 해서, 한 30만 원 정도로 해서 예방책을 강구한다면……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왜 그러냐면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요. 태풍이 어느 정도 기상대를 보면 큰 태풍이 올지, 작은 태풍이 올지 대충은 감을 잡아도…… 우리나라 기상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약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때 그때 상황인데, 그때마다 태풍이 온다고 해서 큰 태풍이든, 소형태풍이든, 중형태풍이든, 대형태풍이든 그때마다 올린다고 하면 여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때마다 다 해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것은 터무니 없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행정에 또 손을 내밀 텐데 그때 가서 행정이 잘 하겠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1회만 하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분석한 뒤에, 그런 부분들은 어촌계에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가능하면 도교까지 행정에서 전부다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어촌계에다가 부탁을 하십시

오, 가능하면 부탁해 가지고 관리만큼은 어촌계에서 하고 동네에서 해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행정에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염려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어촌계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태풍이 온다고 하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요. 200군데를 전부다 직원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200군데를 한꺼번에…… 직원들이 200명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크레인이 200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올리는데 1분, 2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읍면장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요. 육지 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읍면에 있는 장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서……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해조류 이옴으로 해가지고 이것 몇 톤이나 지원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게 가서 보니까 한 마을에 50통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내가 왜 물어보냐면 해양정책과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2015년, 2016년 21톤 5,000만 원, 2017년, 2018년은 5,000만 원을 가지고 10톤, 도대체 뭐니까, 이것이, 관리는 합니까, 하면?

아니,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액수는 똑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뭐 100원 했던 것이 갑자기 200원으로 뛰어버렸습니까. 이런 관리도 못하면서 왜 예산을 세웁니까, 2015년 21톤 225농가, 2016년 21톤 231농가, 2017년 10톤 297농가, 2018년 10톤 436농가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 수치들이, 톤수는 줄어드는데 농가는 반절 이상 늘어나 버리고, 또 갑자기 21톤을 지원하다가 2017년, 2018년에는 10톤으로 줄어들어 버리고,

과장님,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부분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금방 허공희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듯이 모든 것이 3년 하면 성과분석표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과분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할 것은 하나도…… 실과에서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틀려요, 과장님, 이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분명히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죠, 새우어가한테 준다고, 그런데 오늘 이것 새우어가는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러면, 그때 갑자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때 당시에는……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위원들을 존중한다면 의회에 와서 한결같은 말을 좀 하고,

이런 것은 한번 최소한 실과에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팀들이나 주무관들이 이 정도는 확인을 해가지고 왜 갑자기 용량이, 물량이 10톤이나 줄었는가, 똑같은 금액에, 지금 농촌기술센터도 보니까 매년 5,000만 원씩 해가지고 30톤을 하더니만 `19년도는 5,000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16.7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30톤씩 하다가 16톤, 그리고 여기하고 수산정책과하고 해양정책과에서 한 것이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이것은 활성화 액비인데 이것은 또 해조류 이엠이라고 해서 차이가 나는지, 어쩐지, 우리 군청 내에서 과마다 틀리고 계마다 다 틀려요,

또 수산경영과에서는 군비 100%로 했다가 자담 50%가 들어가고, 우리가 말하듯이 액비가 그만큼 좋다면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다 사서 쓰죠, 지금 내가 보니까 광어 어가도 이엠을 쓰는 곳이 있더군요, 자기가 사다가, 좋으니까, 완도 것을 사다가 쓴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의회 의원들도 이렇게 각자 인터뷰를 해봅니다, 돌아다니면서, 전체적으로는 못 해봐도, 그래도 대농,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하는 데에 가서 물어봐요, 이엠이 어떤가, 그리고 이 이엠이 좋다면 군수님한테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요, 의원들이 만나기 편하니까 의원들한테 세워주라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진짜 우리가 해보니까 좋다고 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들한테 말도 안 했다가 예산서도 안 왔는데, 어디 실과에 예산이 잡혔는지, 안 잡혀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2주전부터 의원들한테…… 전체 9명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해양정책과에 무슨 예산을 세웠는지,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박인철, 김양훈이 제일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의원들이 뭐가 돼요, 전체 9명 의원이 바보가 되어 버리지.

그리고 이 예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면 다 인터넷에 띄워놓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군민들이 아니에

요, 군민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욕을 한다니까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357페이지, 수산동물질병예방 위탁사업 대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많은 어업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 때문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공급사업이 우리 군 명품광어의 위상을 상당히 높이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백신 공급사업을 하는데 다시 새로운 틀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올해만큼은 어차피 올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서부어류양식수협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부어류양식수협도 워낙 경영이 열악하고 그래서요, 앞으로 금융사업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측면에서, 또 수산유관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야 우리 수산업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한 건, 한 건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관여된 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병관리사들이 이렇게 어류수협에다가 해가지고 질병관리사들이 위탁을 받아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질병관리사들이…… 오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병관리사들 1%대 수수료를 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 때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수수료 부분을 따로 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에 걸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질병관리사들한테 6%라는 수수료가 통상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를 여기에서 집행하게 되면 질병관리사들한테 있는 돈은 질병관리사들이 그대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할 것인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급사항이 나타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정도까지……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팀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처음부터 공기관 위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업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이것 잘못, 목을 잘못짚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관리사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실값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가들한테 이익이예요.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감사에서 그것을 지적당하고, 따로 예산은 날아가는 것이고, 지금 이중, 삼중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이미 어류수협에서 질병관리사들이 백신을 맞추면서 수수료를 주려고, 어류수협에다가 주려고 따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질병관리사들은 이미 그 수수료를 어류수협에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누가 당해요, 어류수협이 또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에 들어가면 고발하게 돼요. 그래서 어류수협에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질병관리사들한테. 미리 주는 식이니까.

지금 질병관리사들은 기분이 좋죠. 질병관리사들 배불리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와 국비로 이런 부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백신 공급사업을 우리 군에서 직접 질병관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직접 직영하는 그런 체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질병관리법 등에 보면 이것 잘못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해년마다 해야 될 것인데, 과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이 사업?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차피 수수료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어서, 수수료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놓고 하고요, 지금까지 백신 공급사업의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제일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이것은 지금 위탁수수료가 문제가 아

니고 원천적으로 수협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상위법상. 법령에 나와 있는 상위법상 수협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지금 수협에서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고요.

또 봐볼게요. 공급사업비는 민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본으로 지원해 놓고 수수료는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팀장님한테. 이 회계질서가 맞습니까? 아니, 사업은, 백신공급사업은 민자본으로 해놓고 위탁수수료는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그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법, 법, 법 좋아하는데 근거가 없어. 예산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관계를.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 누가 나중에 책임질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도 감사에 나오면 (청취불능) 이것도 100% 걸리는데, 감사가 나오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서부어류양식수협을 간접사업자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수수료 부분도 어업인들이 이렇게 부담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류양식수협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에서 잘못했지. 애당초 우리 군에서 잘못되었고 또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면 올해부터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또 주무팀에서 연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관행대로…… 작년에 도 감사에서 걸려 가지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가지고 저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관행대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것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전체적으로…… 또 회계법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팀장님이 말을 못하니까 이인석 주무관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것 맞아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예산팀에서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세울 수 없는 예산을 세워줬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어차피 일은 벌어졌으니까 내

년부터라도 진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관리사, 질병관리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약회사에서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수사대상입니다. 몇 개 질병관리사들이…… 돈이 이것 뭐 한두 푼입니까, 백신 돈이. 우리 어민들한테 진짜 좋은, 우리 어가들한테는 진짜 좋은 일이지만 관리가 이렇게 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 진짜…… 이번에 예산이 끝나더라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다음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358페이지입니다.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완도군에 전복종자업체 284개의 업체에서 1년에 한 10억 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도 전복가두리에 입식하는 양은요, 한 5억 700만 미 정도 입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5억 가까이 된 종자는 대부분 다 인근 마을어장, 이런 데에 많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복의 품질을 떨어트리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동물사료화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이범성 위원

지금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참 수고가 많습니까마는 안 하려다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치패사업 한 25년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용히 넘어가면 될 텐데 또 건드려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오리 사료에 쓴다고 했었죠, 답이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1차적으로 오리와 닭에다가……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오리에다가 어떻게 해서 했다고 정확하게 다 정리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보급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이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요, 꼭 나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업들도 있으니까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치패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래도 고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많이 벌고, 가면 갈수록 치패사업도 생산량이랄까, 여러 가지 때문에 좀 어려워지고 그러기는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사업만 집행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하게만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런 부분들이 치패가 남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사료화를 시켜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어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할 수 있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가 사정을 해보겠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 성공하면 새로운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내가 봐서는 새로운 소득원인데 5,0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고추를 가는 믹서기 그것…… 가는 부분들로 분쇄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체계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이것을 사고 저것을 사고 차량. 차량도 이것 각 업체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걷는다든가 그것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랄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업계획서는 올라왔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그런데 약 40톤에서 50톤 정도를 수거해 가지고 사료업체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사료를 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그냥 돈을 땀 튀기하지 말고요. 딱딱 해가지고 다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것을 축적해 가지고……

○ 이범성 위원

그런 부분들만 명확히 한다면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완도군 전복종자협회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우리가 전복치패를 하는 곳이 고금도만 있는 곳이 아니고 12개 읍면에 걸쳐…… 금당에서부터 다 있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읍면에 일단 알려지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요. 뜻이 있는 어업인들로 해서 물량을 조정해 가지고요. 고루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것이 많아요. 과장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전복어가

들이 진짜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는데. 방송에 나온 청정바다인가요, 우리 군에서 할 것은 그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과장님, 봐보십시오. 전복을 막 까가지고…… 전복을 안 키우는 저도 알겠습니다마는 치패를 안 하는 저도요. 전복을 계속 쳐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바다에 그것을 방류하면 생태계 교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가들에서 전복을 안 치는 어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쳐내지. 그것 다 물통을 빼가지고 바다로 다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돈을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사료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체 같은 데에서 예산을 가지고 올라오면 군수님이 면담을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요. 과장님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는 이염이나 액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무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릴 때요. 내가 과장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다 알겠는데 군수님 면담으로 해가지고 내려 찍어버린 예산들인데 지금.

우리가 치패를 안 친다면 모르겠어. 그런데 치패를 출하하기 전에도 치패를칩니다. 그것 다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미리 관에서 이런 것을 치지 말고 뭐 폐기물로 버린다든가, 쓰레기로 버린다든가 육지에서 버려 가지고 불로 소각해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홍보는 과장님,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전복 (청취불능) 하면 보통 2번에서 5번, 7번까지전복을 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만약 내가 현장에서 100만 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가면서 자꾸 쳐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하면서 미숙종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마는 안타깝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어서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히 오전에 지적하셨던, 김양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적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폐염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폐염전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로 노화지역에 있고요, 일부 고금도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희망자는 아직 없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안 해서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아직 희망자는 없고요.

오전에도 왜 그랬냐면 이것이 진짜 민원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새우가 돈은 됩니다, 잘 키워내면. 그런데 바이러스가 한번 오면 전멸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항생제 투입이나 이렇게 물 이런 것이 엄청 안 좋습니다, 수질이. 그래서 환경적인 오염이 엄청 심하고 그래서 동네 분들과 민원 부분이 엄청 심해서 오전에 이것이 좀 커졌었

는데요,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항상 이것을 선정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폐염전 소득품종.....

○ 최정욱 위원

이것도 보니까 군비가 1억 8,000이 들어가네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전남도에서는 신안, 무안 저쪽에 소금, 천일염을 하다가 많은 업체가 많이 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염전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전남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완도도 폐염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군에서는 사실 뭐 심각한 것은 아니죠. 폐염전으로 인해서, 폐쇄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군비가 이것도 1억 8,000이나 들어가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한번 희망자를 모집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진짜 심사숙고해야 돼요.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이야 좀 심각하지 않더라도 주지만, 군비 1억 8,000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목포구 염전 그런 것은, 그 쪽은 심각하겠죠. 그런데 완도는 그것이 아닌데 군이 군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희망자도 없는데 우리가 희망자를 찾자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서 적어도 그런 어가들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들이면 (청취불능)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공고도 하고 하지만, 그런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까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1억 8,000의 군비면 어디든 쓸데가 많은데 이런 데에다가, 생각도 안 한 곳에다가 예산을 짠 것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군비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희망자가 진짜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군비, 도비를 올리더라도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이어서 스마트순환 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넙치양식 외 전복양식까지 2건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자세한 보고는 드렸습시다라는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첫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를 이용한 양식시범사업을 접목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으로요, 어차피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하지 못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사업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양수산부에서 스마트양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대규모 클러스터 사업장을 조성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스마트를 이용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시범적으로 공모사업 2건 선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우성자 위원

과장님, 그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을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이 올해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3월에 급하게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전 읍면을 통해 가지고 어업인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두 어가에 신청이 들어와서요. 그것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또는 1년 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의장님과 잠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희망자가 와서 PPT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PPT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군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PPT 설명도 하고 다 하면서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고요, 선정이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우리들한테 알리는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입장이. 현재 입장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자마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을 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담당관님께서는…… 아니, 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공모사업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퇴양난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난해합니다.

아무튼 심사숙고 생각해서 우리가 후회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비판을 듣지 않게끔 그렇게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넙치하고 전복하고 아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하실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당연히 그렇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ASC 인증을 받죠? (예)

그것에 접목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넙치……

○ 박재선 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 군에서도 광어양식장에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심사기관하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심사기관에서 광어 부분에 사료 부분이 조금…… 생사료 부분이 걸려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복은 ASC 인증을 받고 지금 2기, 3기차 ASC 인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박재선 위원

그 양식장은 아직까지 없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아이고, 이렇게 과장님이 장시간 서있어서 참 묻기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광어 같은 경우는 EP로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딱 여기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스마트순환양식으로 사료는 EP로……

○ 허궁희 위원

EP죠,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서로가 편하게 해야 되냐면 군에서 계속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예산은 받았어요, 내가 업자라고 합시다. 받았어, 다 집을 지었어. 처음엔 잘 됩니다, EP로, 중간까지 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목적은 돈입니다. 이것은 어디 시험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생사료로 잘 키운 고기들이…… 아까 우리가 공개했죠, kg에 지금 1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계시지만

광어양식 전망이 그렇게 밝습니까? 제가 봐서는 국가적으로 특단이 내려오지 않고서야 그렇게 밝은 면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2~3년은 좀 고생할 것이다.

그러면 양식장 개장에 대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키웠어요. 나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 키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방법을, 그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스마트양식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받도록 그렇게……

○ 허궁희 위원

보조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압류하고 어떤 뭐…… 왜 저는 그 얘기를 드리냐면, 안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저 같은 경우도 20년이 넘게 여기에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반대했던 부분이 스마트사업이라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람들이나 즐기는 용어지, 광어양식이나 현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용어예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좋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십몇 억을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업자는 좋겠죠,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돌아섰어, 내년에, 안 맞아서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사업목적대로 안 하면 당연히 환수……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환수, 말로 환수지. 내가 오가는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일이면 저희들도 한번 해보자고 하겠어요. 안 보입니다. 이것은 답이 없는 일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전복 같은 것은 치패로 할 그런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광어 성패는요, 죽어도 EP로는 안 맞습니다. 더 조건이 좋은 제주에서도 손을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요 제주…… 언제입니까, 봄입니까? 봄에 연수를 갔을 때 수협에 가서 직접 제가 물었어요, 왜 EP사업이 안 되냐고 물으니

까 원래 목표가 100톤이었다고 합니다. 80톤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번 7건 중에 제주도가 2건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치패장입니다. 치패장. 성패장이 아닙니다. 치패장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방금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치패장은 가능하다. 성패장에서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 미워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요. 정말 내년이면 뭐 보듯 뻔하게 결과가 나올 것인데 이 결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추진하시라는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순환여과식이라고 했죠. 순환여과식이 과장님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물을 계속 한 번에 돌린다는 얘기죠. 이 광어, 낚치는 성어가 됐을 때 순환여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형식으로 해가지고 순환여과식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육질부터 다 갑니다, 고기가 갑니다. 그리고 EP를 먹여 가지고, 지금 제주에서 EP를 먹여 가지고 키운 고기들이요. 판로길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안 씹니다. 왜요, 이 칼잡이들이 칼질을 할 때 껍질이 안 벗겨집니다. 그만큼 육질이 떨어져서 가격 차이가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EP를 먹인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하고 생사료로 들어갑니다.

생사료를 먹이게 되면 이런 순환여과식은 자체가 실패작이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순환여과식, 스마트순환여과식으로 해서 광어양식을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아까 허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치어 때는 됩니다, 치어 때. 치어 때 6cm, 5cm, 10cm 미

만으로는 가능합니다. 20cm, 15cm 이상 넘어가면 무조건 다…… 그 현장은 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눈에 뭐 보듯 뻔한데, 이것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도 수산분야에 전문가시고 오래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추관호를 보며)

전문위원님, 잘 아시죠. 실현 가능합니까? 그래도 수산박사가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대답해 주십시오. 순환여과가 가능합니까?

이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순환여과 진짜 좋습니다. 될 것만 같으면 100% 저도 하자고 합니다. 앞장서서 합니다, 앞장서서. 이것은 고려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경영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전문가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현장에서 몇 십 년을 해온 분들이고, 이런 사업을 아까 안 되면 다시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개인적인 일이지, 이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회수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비를 투입할 때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군비 이것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비는. 군비를 투입할 때는 뭔가 어민들한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어떤 사업이 활성화되거나…… 그것을 보고 보급시키기로 했을 때 우리 군비가 투입되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개인의 혜택을 주려고 군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안 되면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 위원들만 해도 전문가들이 볼 때 아니라고 하는 사업을 보조금까지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또한 물론 해수부의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염려하는 것은 알아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했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줘서 안 되는 것을 우리 군

비를 같이 해서 투입해서 (청취불능)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우리가 다음에 그 공모사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아니,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올릴 때도 다 했죠.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했는데 뭐 그런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이렇게는 한 목소리로 그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도 군비를 투입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들 생각 차이가 이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이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해수부에 했던 것을 올리는, 이 염려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산경영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엠사업을 2011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3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칙은 자체적인 생산시설을 하계끔 되어 있었으나 사무실 여건상 저희들이 사무실 설치를 못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청취불능)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한 국비로 주면서 국비가 끝나가지고 도비로 해서 1년에 4,000에서 5,000씩 (청취불능)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만 지금 민간에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약에 우리 군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완도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전부다 이엠을 무상공급하고 있는데 이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들의 소득증대 차원과 또 완도,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인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우성자 위원

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우리 군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 사업이 2011년도에 넘어왔었습니다. 배정됐었는데 그때 사무실이 협소하고 어디 시설할 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완도에 없어 가지고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하니까요, 군수님께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에다가 연계해 주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서요,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검토를 한 결과, 사회적기업에다가 해도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검토를 끝내고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도에서 4,000만 원을…… 결과적으로 이엠을 우리가 삭감하면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다른 시군은 전부 군에서 직영을 하니까 믿고 말이 없는데, 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익이 가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처음에는 법인으로 해가지고 잘합니다, 처음에는 법인을 구성해서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 실태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청취불능) 배가 아프다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먹고 있냐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도 잘 해보고.

그러면 전혀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못하겠네요, 어떤 성분으로…… 이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엠을 생산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상급기관인 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엠을 생산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것이 오염되지 않았는가, 또 그다음에 정확한 규정이…… 뭐냐, 규정을 갖춘 그런 이엠이 생산되고 있는가를 연에 한 번씩 그렇게 점검해서 합격통보가 됐을 때 생산이 가능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다 기술센터에서 보급하지는 않고 어차피 거기에서도 생산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전년까지는 정상적인 보조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30톤을 납품을…… 오는 농가들 명단을 다 적고 농지업무를 어떤 농민의 자격을 갖춘 농가들에 한해서……

○ 우성자 위원

소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엠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공급받을 때 업체가…… 어디 업체에서 받으니까, 보통?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엠사랑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엠사랑, 그러면 어디가…… 여러 군데에 있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원료 이엠을 받을 때 말입니까?

○ 우성자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것은 공인된……

○ 우성자 위원

아, 원료 이엠을 받아다가 여기에서 배양을 하니까? (예)

그래서 많이 든다는 이 말이구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왜 이것을 수산업에서는 비싸게…… 수산업 쪽에서는 타 지역에서 갖다가 비싸게 사서 쓰는데 왜 농업 분야만 이렇게 공급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이 미생물 자체가 수습 가지입니다, 수습 가지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은 농업부분 이엠만 생산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밀도라든가 그런 것이 수산업, 양식업에서 쓰는 이엠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어업에는, 수산업에는 안 맞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이엠사업단에다가 이런 부분도 어가에서 필요하니까 자체 심사해서 필요한 어가한테 공급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권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저는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소장님이 몇 년 됐죠, 완도에서 소장을 맡은 지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제가 2011년 말 12월에 왔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저도 이것이 뭐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정말 농가에 필요한 것인지. 그동안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동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중요한 것이라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제가 조금 전에 시군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생산 공급하는 그런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우리 완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 중에 우리 완도를 포함해서 22개 시군 중에 20개 시군이 이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2011년도에 그 사업이 시행되어 가지고 농가에 필요하지 않고 어떤 효과가 없었다면 진즉 그 사업은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들이 써보고,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백히 유지되고 또 도비를 지원해서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위원

타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객관적으로 소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예요.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하는지도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공급한 농가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분명히 이엠은 어떤 작물에 대해서 생육을 촉진시킨다든지, 직접적으로 생육을 촉진시킨다든가. 영양제 성분이 아니고요. 어떤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여건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육안으로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엠을 쓰시는 농가들은 그 작물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져 가지고 병해충에도 어떻게

보면 일반 재배하는 것보다는 더 강한 느낌을 받았고요. 또 어떤 생산물에 대해서 보관력이 좋아 졌다든가, 그런 것들을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최정욱 위원

농가에서 하는 말과 적어도 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아, 이래서 어떤 효과가 있더라.” 라고요. 그 정도 세월 정도 됐으면 완도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이엠에 대해서 농가들이 쓴…… 적어도 이렇게 농가들이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 라는 이런 확실한 객관적인 자료는 안 만들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부분들은 지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시험연구기관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문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엠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온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우리 소장님도 자신은 못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실은 어떤 수차상의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위원

소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완도군만 빼놓고 타 시군들은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죠? (예)

지금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엠을 배양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급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

니까 실질적으로 군비가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아니요.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최소한 억 단위가 넘습니다. 군비가 별도로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궁희 위원

생산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재료비만 해도 4,000만 원씩, 5,000만 원씩 넘어가는 그런 시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물론 농사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저는 왜 이 부분을 묻느냐면, 우리 완도군은 순수한 군비로만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부담하지 않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죠.

○ 허궁희 위원

안 하죠.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완도에서만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갔지. 다른 데에서는 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직영을……

○ 허궁희 위원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양을 공급하면서도 군비가 덜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받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4,000만 원 정도 군비가 절감되죠.

○ 허궁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물론 어떤 사항이었는지 제가 못 느끼기 때문에 모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축산농가나 이렇게 원예농가나 어떤 농가에서도 자부담 없이 무상공급

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까 들어보면 해마다 공급하는 양하고 그 사업비는 같은데 들쭉날쭉하다는 것을 아까 수산정책과에서 들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기술센터에서는 이엠을 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정상적인 보조로 해서 5,000만 원씩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러면 그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재료를 구입하고 생산하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서 30톤은 저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30톤을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하는데요, 올해는 정상적인 보조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료비로 구입하다 보니까 완제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제품을 구입하니까 거기 생산원가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에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원가비가 줄어들었다, 쉽게 말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완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아까 수산용품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만 해도 새우양식장 위주로 공급한다고 그렇게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양식과에서, 수산경영과에서는.

(방청석에서 “올 추정.” 하는 직원 있음)

올 추정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의심스럽고, 더 이해가 안 가냐면요, 아니, 상반기에 설명한 내용하고 하반기에 설명한 내용이 달라버리잖아요. 물론 부서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갈수록 못 믿겠어요.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 이런 데에다가 진짜 우리가.....

그리고 꼭 필요하면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서

도 반반이 됐든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본인들이 구입해서 쓸 것 아니에요, 이것이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지 않았나요. 무조건 무상공급을 하려고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20개 시군 중에 유상공급으로 하는 데가 한 7~8개소가 됩니다, 7~8개 시군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시군도 작년까지 유상공급을 하다가 무상공급을 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면 분명히 농가가 수확량이 2배가 되고 3배가 된다면 분명히 사다가 쓸 것입니다. 그러나 육안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미미한 효과를 어떻게 농가에서 관측하기 어려우니까 내 돈으로 갖다가 쓰기는..... 좀 뭐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파 이엠.....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돈을 주고 쓰기에는 믿음이 안 가고, 끼놓고 말을 하자면 돈을 주고 쓰기에는 믿음이 안 가고, 그냥 줬을 때는 밀쳐야 본전이니까 쓰겠다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다면요,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사다가 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주 소수겠죠, 그것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아주 소수겠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냐면, 해마다 이런 사업에다가 순수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나..... 채소나

축산, 어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요.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분들이 돈을 주고는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해보시고요. 무작정 무상공급만 고집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이 갖다가 쓰다보면…… 아마 좋은 것을 느끼고 이렇게 소득과 연계된다는 것을 안다면 다 동참할 거예요. 그렇게 좀 유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소장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지급했는데요, 2019년에도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 원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씩 매년 했다는 말입니다. 이엠사업을 활성화액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올해 5,000만 원을 더 요구한…… 완도군에 갑자기 농사가 더 늘어났습니까, 과수원이 늘어났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공급량이…… 완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30톤을 공급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 위원장 박인철

지금 우리가 올해 액비를 얼마나 지원했는지 압니까? 소장님, 올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액비는 저희들이 잘……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러니까 이엠하고 이것을 올해 얼마나 했는지 압니까?

농업축산과에서 4,940만 원, 수산경영과에서 6,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장님이 가져다준 진도요, 우리 농사보다 3배, 4배 더 많습니다. 영광, 장성, 강

진, 보성, 고흥, 구례, 곡성 다 농사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보다 작고 못합니다. 갑자기 5,000만 원으로 했던 곳이…… 해년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5,000만 원을 5년 동안, 올해까지 해가지고 5년 동안 5,000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올 이번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이렇게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죠. 그리고 농업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요. 내가 전체 농가들까지 다 뽑아 왔습시다마는 비파, 감귤, 고추, 딸기 다 똑같아요, 지원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하고, 지원했던 데하고 농업축산과에서 지원했던 데하고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에서…… 내가 5년 동안 자료를 뽑아 봤는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액비사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타 시군에 비해, 어제인가 소장님이 타 시군보다 많다는데 소장님이 가져다준 것하고 우리가 해년마다 보급한 것하고, 회사는 완도군이 훨씬 많습니다. 농가에 비례해 보면. 그런데 갑자기 해년마다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소장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5,000만 원을 확보하느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이것 위탁을 맡겨버렸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 양을 생산하는데요, 완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단가가 비싸서 저희들이 추가로……

○ 위원장 박인철

하여튼 이유가 안 되고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제가 듣기에는 그……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소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대상포진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상포진 수요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0만 원으로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수요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처음 2017년 말에 왔는데요, 2017년에는 총 인원이 180명입니다. 180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에는 730명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저희가 예산을 계산해 볼 때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그래서 이번에 또 금년에는요, 결국은 `17년에 그래서 `18년은 3배 예산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작년에 비해서 2배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접종을 맞으러 오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최대한 늘려 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폭발적인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금액을 좀 낮춰야 된다. 사실은 거의 사입가격에 조금…… 계산하기 힘들어서 (청취불능) 떼고 9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거의 사입가격은 8만 원

사실은 솔직하게 수요를 지금도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정도 해보고 그러면…… 이것은 단기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00만 원이 충분할지, 모자랄지 그것이 예측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군민들이 옛날에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대상포진에 대해, 50대 정도 되면 맞아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원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출장을 가가지고, 읍면에도 홍보해 가지고요, 이런 예산은 많이 잡아도 좋습니다. 읍면에 보건의료원의 의사들이 나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하고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래서 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그냥 한번 시행해 보고, 내년에 해도…… 이게 급성병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런 것은 의료원에도…… 만약에 대상포진이 걸려도 충분히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있고, 또 치료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꼭 많이 세워 가지고 전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25쪽입니다. 225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완도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장보고 한상명예의 전당과 관련해서 시설비 7억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사업은 장보고공원입니다. 옛날 수석공원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장보관기념관 옆에요, 거기에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건물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 건물에다가 외관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안에다가 장보고한상 어워드 수상자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하는 공간. 그리고 완도향토사료관, 그러니까 완도의 어제, 오늘, 또 미래의 완도를 소개하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하고 군비 7억하고 매칭해서 14억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설계하고 이런 아우트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 저기가 그러면 군특 7억만 들어가나요? 군비 7억도 들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도대체…… 저기에다가 14억이면 건물을 지어도 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시 연출하는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인철

어떤 전시…… 한상어워드라는데 어떤 사람들을 저기에다가…… 한 상이라니까요. 몇이나 나왔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재 2016년부터 작년까지 열 세분이 배출되었고요. 금년에 내일…… 아, 모레 금요일에 금년도 한상 수상자들 여섯 분을 심사합니다. 매년 여섯 분씩 수상자가 나오구요. 그분들을 디지털 화해 가지고 구축해서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우리 군에 역사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우리 군에 역사관도 없고, 이도재…… 고금도에 가봤습니까, 그렇게 놔놓고는……

한상어워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의……

○ 위원장 박인철

보니까 장보고축제를 할 때도 그 사람들은 제일 앞 단상에 세워놓고 의원들은 꺾다놓은 보릿자루처럼 한쪽에 놔두고 그렇게 행사를 하더군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의 역사관, 그런 부분하고 같이 내용이 구성돼서……

○ 위원장 박인철

아니, 문화 그것까지 다 하니까…… 우리 역사의 시조인 이도재 적거지에 가봤어요?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예)

그런 데도 그렇게 방치해 놓고…… 이런 데에만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군비 7억까지 내다서 14억이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단순 건물 리모델링 부분만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과장님, 보니까 위에 수석은 어디에다가 전시하려고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에 거기 수석……

○ 위원장 박인철

거기요, 우리 군에서 그런다는 말입니다. 저기에다가 비까지 세워놨다구면, 수석 뭐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분들하고. 거기 그런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좀 됐습니까, 그러면? 수석도 기증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군수님 때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지. 전복물류센터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기에다가 비석까지, 비까지…… 수석전시관이 라고 해가지고 비까지 세워놨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공간을 구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그분들하고 한마디 상의는 해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협의가 안 됐는데요, 이런 아우트라인 계획은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수석 관련 부분들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공간을 일부 할애해서 공간을 구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렇게 되면 직원배치도 하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은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관리로 해가지고 한 명이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 그 직원 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이제……

○ 위원장 박인철

그 관리직원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별도로……

○ 위원장 박인철

그 직원도 내가 10월 질문답변을 할 때 자치행정국장하고 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보조하는 기간제나 아니면 그런…… 별도의 정규직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세대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어떠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분들을 한다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한상…… 이분들이 해외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고,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

는데요, 이분들의 성과나 이런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제작해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들에게 그런 것을 홍보하고 보여줌으로써 장보고대사의 개척정신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무슨 한상어워드에 장보고까지 들어가요. 하려면 잘 알았구요.

아니, 그리고 여기에 7억을 왜 안 올려놔요,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군비 부분, 부담분이 예산파트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담하지 않구요, 어차피 7억 플러스 7억을 해서 14억을 채워나도 금년 안에 14억이 다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만 우선 편성해서 기본계획하고 설계하고 이런 것을 집행하고요, 나머지 사업부분, 군비 7억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면 본예산에 위원들이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 예산할 때 같이 잡아야지. 그러면 이것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겨버리든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 기본설계는 하고 있는데요,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 안에 다 세워져도 이월 처리 부분은 이월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재원이 사장되고 그러니까 군비 부분은 내년에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예산계와 합의는 본다고 하지만 의회하고 미리……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도 이러이러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이전에 설명할 때도 매칭사업이라고 말을 안 했잖아요, 설명할 때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전에, 2월에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의회에 이

관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할 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구체적으로……

○ 위원장 박인철

이러이러한 사업이라고 말을 해서,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하여튼 배려해 주시면 이 부분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잘 알았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리고……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것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다음은 227쪽입니다.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토지매입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 5,000을 세워 가지고 이 사업부지는 금일 화목리 물양장…… 기재부 땅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는 사업인데요, 기재부 땅이라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억 5,000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엇그제 8월에 기재부가 최종 매각된 지역을 하면서 감정평가 매각가액을 3억 8,600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액분 1억 3,600여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매입한 다음에 연말, 연도 내에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까 합니다.

○ 위원장 박인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예요, 소안하고 금일하고 두 군데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과 관련해서 6억, 6억으로 해서 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편성되었다가 소안은 부지가 애매하고 없다고 그래 가지고 따로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소안 건은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금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지역 간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소안 부분…… 이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우선순위…… 전천후게이트볼장시설 수요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배정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아니, 그래서 이런 것…… 행정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읍면에서 소리를 크게 치고 좀 뭐하고 그러면 다 거기로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러면 소안도도…… 금일 것이 거의 10억 되어 버려요, 이제, 그러면 소안도도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해줘야지, 그런 문제점들은 왜 생각을 안 하는가.

그리고 금일도 애당초 이 땅이 아니고 땅이 다른 데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예다가 하면 될 것인데, 굳이 땅을, 부지를 다른 데예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애당초 거기도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지가 싫다고 억지로 해주라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덩석 물어서 따라가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문제점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84쪽 윗부분입니다.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고사목 나무교체 및 주변 정비 사업 2,000만 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3일에 추모공원이 개장했습니다.

다. 그때 당시에 수목장 23주를 식재하였는데 지금 6주가 고사하고 17주가 22기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17주 중 5주가 사진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양육 상태가 안 좋아서 가지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주를 이식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주변에 식재되어 있는 (청취불능) 단풍나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하고 나무를 배치하는 등 주변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본위원이 설명을 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어떻게 봤을 때 민간위탁 사항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으로서의 의문사항이 있고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을 해줌으로써 산림조합과 잘 협의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이렇게 시형작조를 겪다 보니까..... 나무를 식재했는데요. 지금 식재는 100% (청취불능) 됐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 (청취불능) 나무 식재 관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전문기관에서 올해 2월에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만 식재가 된다고 그러면 산림조합에 책임을 전가하겠습니다. 나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인철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관광정책과장 정광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64페이지, 관광정책과 관광홍보자원관리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문화관광재단은 완도의 (청취불능)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또 보존하고,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 그리고 문화예술사업 추진, 향토문화자원 보존.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강진군을 보면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강진군에서 축제라든가, 갖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한 곳으로 플랫폼화가 되어서 관광산업을 추진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될 경우에 완도군도 상당히 여기에 전담하는 기구가 되어서 완도군 관광산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 위원장 박인철

건건이 합시다.

관광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 문화나 관광이나 전 분야를 다 이렇게 통합해서 타당성조사나 연구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전체 한꺼번에 다 묶어서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한다는 얘기잖아

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다음은 268쪽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수욕장 연구용역비.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용역 2,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루플래그는 일반적으로 덴마크에 소재해 있는 환경교육재단에 있는 그런 기구로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요, 환경 또 안전, 수질 등 종합적으로 한 100가지 품목에 대해서 평가해서요, 그것이 다 충족되어야 주는 그런 인증입니다.

저희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 분야에서 해썹이 식품안전 인증을 받아서요, 한번 이렇게 인증을 받은 후에 그것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다시 또 이렇게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매년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 심사를 거쳐서요, 그 인증이 상당히 이렇게 권위 있는 인증으로…… 해수욕장을 안전하게,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인증용역입니다. 이것도 잘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이것 블루플래그 인증을 통해서 해수욕장을 한 등급…… 홍보하기 좋게 인증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래그 인증을 받는데 해썹식으로 하는데 해썹은 받아서 해년마다 심사기준을 받아요, 그렇죠? 금방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인증을 위한, 그런 재신청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렇죠, 용역이 아니죠. 심사를 받기 위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죠.

매년 용역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사 기준을 받는 것은 틀린데, 심사기준은 거기 항목마다 꾸준히 체크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썹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 연도에 1년에 한 번씩 받는데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이것 또한 다른 데에 위탁을 주거든요, 이 관리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 덴마크 (청취불능)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이 나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수욕장 상태를 보고 안전, 또 환경 이런 것을 보고 100가지를 평가해 가지고 다시 재인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비예요, 관리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것을 받기 위한 어떻게 보면……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이야기하십시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이것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데, 인증하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재거 왜 그러냐면 이것 용역비가 아닙니까?
(예)

용역비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 용역비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 용역비죠?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심의에 들어갔을 때 용역심의에서 올라오는 내용이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인증평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사가 아니라 일반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용역도 있고, 또 추진해야 되는 용역도 있고 이렇게 평가를……

○ 김양훈 위원

이렇게 되면 용역심의, 이 자체가 안 올라왔어야죠. 용역심의가 올라와 가지고 목에 용역비라고 올라왔는데 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 김양훈 위원

인증 받기 위한 용역을 매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인증 받기 위한 용역이죠, 인증 받기 위한, 다른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 인증서 인증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죠, 인증을 받기 위한……

○ 김양훈 위원

용역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용역이라고 봐야죠.

○ 김양훈 위원

그런데 봐보니까 자꾸 용역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용역개념하고 심사기준을 받기 위한……

○ 김양훈 위원

심사기준을 받기 위한 비용하고 용역비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 용역비는 매년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받는 것인데.

내가 봐서는 이 회사…… 회사라기보다는 이 단체한테요. 이 단체한테만 계속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한국…… 덴마크 (청취불능) 환경교육재단 아래 소속에 있는 환경교육재단, 거기에 신청해 가지고요.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이 재단에서만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좀 희한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이 단체에 계속 이 돈을 내고 인증서를 사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어떻게 보면……

○ 김양훈 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위탁관리가 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100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될 수 없는……

○ 김양훈 위원

자기들이…… 100가지라는 것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항목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이 단체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는 단체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국제인증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단체인지. 여기는 단체가…… 요즘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용역을 해서, 돈을 들여서 인증을 받아놓으면 한 2~3년 동안 자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심사하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재심사를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용역을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받으라고 하니까 이 단체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취불능) 환경교육재단은 1981년부터 계속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탄탄한 단체가 매년 돈만 받고, 또 돈만 주라고 그러면 안 되죠.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 용역은……

○ 김양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용역도 아니고 뭐 한다고 그러면…… 매년 2,9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매년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결코 그러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게 좋은 것은 아니네요? 방금 김양훈 위원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매년 수수료로 준다는 표현이 안 낫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요, 공사와 용역,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을 산 것은…… 당연히 기본공사는 공사인데요. 용역이라는 것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도 설계용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축제 대행사를 맡은 용역도 용역이라고 하고요.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 김재홍 위원

제가 보서는 일종의 기업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신지에서 아주 크게 행사도 한다고 그랬는데요, 결국은 1년에 2,910…… 군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받고 그냥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까다롭지 못한 그런 인증이라기보다는 매년 이것을 (청취불능)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 김재홍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박재선 위원도 ASC 인증을 받았는데, 매년 그것도 이렇게 같이 합니까?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매년 심사를 청구해서 다시 합니다.

○ 김재홍 위원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수욕장에 그렇다고 해서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오는 것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대내외적으로 어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브랜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1년에 2,900씩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것은요. 특별히 다르게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군이니까 하지. 이것 개인 같으면 하겠냐는 이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래서 지난 일입니다마는 태안군이나 몇 개 시군에서 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움직였는데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후로도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나 세 번째라도 상당히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까마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것은 없어져 버리겠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정말 정중히 사정을 드립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이것 결론적으로 용역을 뭐하려고 하는데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자체적으

로…… 와서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것 해마다 2,900만 원씩 들어간다면 차라리 사버리는 것이 낫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까 ASC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ASC 개인의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합니다.

○ 이범성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꼭 사기를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것 국제적인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연관된 부분에다가 1년에 2,900만 원씩 꼬박고박 갖다 바친다는 것이 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다고 우리 군수님은 사방팔방 떠돌고 다니고, 돈을 안 주고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년에 2,900만 원씩 계속 내야 된다면 이것은 뭔가 짊고 넘어간 다든가, 아니면 본부에다가 왜 이렇게 꼭 2,900만 원씩 소요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위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5분 기록중지)

(18시07분 기록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인철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선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2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8월 29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계속)

(09시58분 개의)

○ 위원장 박인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어제 심사한 2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2건의 예산에 대하여 재설명을 들은 뒤, 다음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우량전복 생산을 위한 미숙종자 활용사업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번하고 그 결과가 좋으면 자체적으로 업체 간에…… 사료업

체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어업인하고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올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치패 찌꺼기를 갖다가 사료업체에 공급해서 이렇게 사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완도에 그런 사료업체가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완도는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을 묻게 된 동기가요, 완도에 사료업

체가 없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다가…… 이것이 양이 많은 것 같으면 하겠는데 양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요. 과연 그 사료업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안 맞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완도군 종자협회에서 사료업체하고 상당히 서로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리느냐면 승인은 해줬는데, 이 사업이 유명무실 참…… 그렇게 마무리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여론화가 될 것 같아서요. 염려돼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심사숙고해 가지고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그러냐면 사료업체가 완도에 있다면 저희들도 확인차 한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 있게 되고 그런다면 저희들도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좀 쓰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올해 1회에 한합니다. 내년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폐염전 활용……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폐염전 활용 소득품종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폐염전이 최근에 많이 도산하고 업체가 오래되다 보니까요, 양식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우리 군에 1건이 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는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요,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전남도에서 앞으로 우리 완도군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과정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일단 사업을 배당해 주시면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거부하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수산경영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요, 사업을 설명하실 때 잘 고려해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또 주위 인근 분들하고도 잘 토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인철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폐염전 거기에 한정, 국한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일반…… 다른 데는 쓸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철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안 되면 불용되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는 좀 늦었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자 선정을 하고요, 진행되면 사업 착공까지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 위원장 박인철

아니,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공모자가 없을 때…… 올 12월 말로 연도가 끝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 위원장 박인철

불용 처리한다는 이 말이지, 올 12월 말까지 안 되면, 재공고, 이런 것 없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요, 연락이 안 된 것 같은데 태풍 대비 도교 인양장비 임차로 설명 요 했는데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하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342쪽, 하단부 태풍대비 도교 인양장비 임차료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군을 관리하고 있는 도교가 총 173개소가 관리되고 있는데요, 도교를 인양하는데 대충 개당 30만 원씩 하면 한 5,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어촌계별로 해서 개당 돈 10만 원 정도는 어촌계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일단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래서 피해예방이나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요, 내년부터 어업인들한테 “어촌계에서 인양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 내년부터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기상악화나 태풍 때는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인양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해양정책과장의 보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 부분도 딱 올해 1번으로 마무리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예산에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꼭 해가지고 성과분석을 해서 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요, 그 사업 결과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철

올해 한해입니다. 내년에 이런 것 올리지 마십시오. (예)

해양정책과장님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간담회를 했듯이 수산경영과에 PPT 자료가 있으면 자료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계속)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10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년도 2회 추경 최종……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기 전에, 8건에 48억 9,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2회 추경에서 제일 심도 있게 했던 것이 수산경영과에서 했던 2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고요, 11월 경이나 12월 경에 정기추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거기 수산경영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그때 누가 위원장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최종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마지막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결과대로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8건에 48억 9,758만 4,0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에 대한 수정발의 건은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음에 본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인철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2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허 공 희		
의 원	최 정 욱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18일(수) 오전 09시20분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1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09시23분 폐식)

제273회 완도군의회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의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18일(수) 오전 09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09시2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9월 2일 우성자 의회운영 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9시2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9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9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재홍 의원과 김양훈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

4.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

(09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2호와 제2483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482호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안번호 제2483호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군민들의 진솔한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6개 읍면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준공된 사업장과 추진 중인 사업장의 건설시공 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이번 제273회 임시회 기간 동안 6개 읍면을 방문하여 군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사업장을 확인, 점검한다는 것이며, 기간 동안 사업장 점검을 위해서 집행부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발주된 해당 읍면의 각종 건설사업과 보조용자사업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사업장 확인서류 제출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09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의 상정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민 생활현장 방문을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23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23일(월) 오전 11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7.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7.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완도군 지역혁신협의

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1시3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가 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 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

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누락 및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 및 사용료, 입장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휴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2조 제1항의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체계에 맞지 않고 부대시설 또한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명승 제34호 윤선도원림에 대한 휴관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일부 명칭 및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사용료, 입장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휴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를 제2조 제3호에 신설하였고, 이에 맞게 별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약안으로, 심사결과 규약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

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운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나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보길도 운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정으로 종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군민 생활현장 방문은 민생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민심을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4.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4.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11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의안번호 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협의의 기능을 안 제1조와 2조에 협의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 해촉 및 의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5조에 협의회 회의 및 분과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에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 영향평가 및 재심사 등은 해당 없습니다.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조례는 위임된 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지역혁신위원회하고 상생협의회의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별개 사항으로요, 저희들은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상위법에 의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여기 읽어봤더니 상생협의회의하고 대동소이하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틀립니다, 기능이……

○ 박인철 위원

그리고 2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과하면 20명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20명 안에서 분과를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분과 설치하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20명으로 해서 회의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조례를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관련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생협의회의하고는 충돌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완전 별개의 협의체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4호 완도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협정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 등…… 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보건진료직렬 등 공무원의 수당을 일반지역 근무자에게 월 25만 원, 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특수업무수당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직렬에 대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보건진료직렬에 대하여 일반지역 근무자는 월 25만 원, 도서지역 근무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 및 체계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조례 개정 시 보건직렬 직급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죄송합니다. 그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만약 10명이라고 하면……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한 20명입니다.

○ 박인철 위원

20명이요, 어떤 분들로 20명이예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보건진료직렬이 해당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20명이 의료법 제2조 2항 및 동조제 제2조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무원입니까?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지금 그 의료법 제2조 의료원에 대해 간호사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직종들이…… 보건직렬들이 많잖아요, 우리 군에.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떤 직렬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보건진료직렬만 됩니다, 보건진료 직렬만.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진료소장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진료소장도 해당…… 직렬이 보건 직렬이면 해당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보건진료직렬은 다 된다는 이 말입니까?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예,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20명.

○ 박인철 위원

보건진료직렬이 20명밖에 안 되나요?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에 있는 간호직이나 이렇게…… 거기 말고요, 거기는 제외하고요, 보건진료소, 도서낙도에…… 모도 진료소라든지 이렇게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에 있는 직원을 말씀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수당을…… 보건직은 많잖아요?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낙도에 있는 보건지소 직렬만……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보건지소진료소에 있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공중보건지도 있고 보건지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모도라든지, 사후도라든지, 이렇게 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 약제를 투약할 수 있는 진료직 공무원이 한 20여명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반적으로…… 일반지역 근무자로 해가지고 월 25만 원이 나갔는데 다시 해가지고 35만 원씩 준다는 이 말입니까?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기준에 월 25만 원이 나갔는데……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아니요, 일반…… 여기는 의료업 무수당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까라는 조례에서 이번에…… 의료업 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의료업무수당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일반지역은 25만 원, 도서지역은 35만 원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기존적으로 일반직이 됐든 도서직이 됐든 25만 원을 지급했는데 보건……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은 10만 원을 인상해 가지고 35만 원을 준다는 이것이지요?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아니요,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보건진료직 의료업무수당 지급이 기준에 25만 원하고요, 도서지역은 35만 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누락돼서 이번에 개정해서 이것을…… 신규로 이렇게 부의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기준에 지급되고 있었는데, 조례에 없이 지급되고 있다가 지금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이것입니까?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왜 이제야 이런 것을……

그러면 법도 없이 그냥 돈을 지급해 버렸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닙니다. 정비가 당초에…… 2013년도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로 해가지고, 의결되어 가지고 쪽 관리해 왔는데요.

문제는 새올시스템상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정이 안 되어 가지고요, 지난 2018년도에 별도로 미수정된 조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추가로 넣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없었는데 주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법규 그 시스템상에……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2013년까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급을 했었는데, 작년도 말에, 작년도 말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전산상 오류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빠진 사항을 이번에 다시 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계속 지급…… 조례가 제정된 후에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에 조례를 재개정하면서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한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새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중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의 발전방안, 정책 반영, 수산업에 포함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한 규약안을 마련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설립개요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전남 16개 어촌지역 시장군수로 구성하고 주요 기능은 어촌지역업무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어촌지역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추진 등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4조는 협의회 규약에 관하여 총칙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7조는 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제8조에서 16조는 협의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하여, 제17조에서 13조는 협의회 재정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제152조가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전남 어촌지역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좀 잘못됐죠, 이것 지금.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이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요, 먼저 의회를 통과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 넣었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이번에 추경에 안 들어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또 뭘니까,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것은 전남 시군 시장군수협의회고요.

○ 박인철 위원

이것 안 들어왔어요, 어촌지역?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어촌지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안 들어갔어요,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안 들어왔어요?

○ 전문위원 추관호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그것이고, 그것은 이번 추경에 들어왔고요.

○ 박인철 위원

그것 말고 이것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어촌지역 시장군수가 같은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 이것은 틀립니다. 이전 추경에 했던 부분은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요, 기능이 다릅니다.

○ 박인철 위원

나 이것으로 봤는데.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전남 협의회는 몇 군데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전남 22개 시장군수. 여기는 전남에서도 어촌 지역만……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어촌지역만 들어간 것이구면.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이것 언제 간담회 때……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 그러면 내가 그것을 예산으로 알았구면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전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85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9호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세무회계과장께서 소방안전교육을 이번 주부터 들어가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재산세 감면료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적 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 감면

료를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이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시장 그것 있잖아요. 어촌인가, 시장인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추경에.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아니, 제가 다시 줌……

○ 박인철 위원

여기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창립총회는 저희들이 10월에서 11월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조례를 먼저 해놓고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예산도……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여기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전남 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창립총회 추진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300만 원이. 그래서 내가……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저희들이 규약안을 그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의견을 절충하다 보니까……

○ 박인철 위원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약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회를 존중한다면 미리 와서요,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잡아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이것을 까먹어 버린 것 같은데.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말씀이 안 나오게끔 꼭 통과한 후에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라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6호 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완도군에서 설치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 조례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의 정리로 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에서 누락 및 신설된 체육시설 용어에 대한 규정 정비로서, 현재는 공설운동장, 야구장, 테니스장 각 시설물별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규시설물 취득 시 누락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완도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물”이란 포괄적인 용어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

10조 제1항 제5호 사용료 감면 부분에 대한 규정 일부 삭제입니다. 현재는 감면대상에 등록된 문화예술 및 체육동호인단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문항을 삭제하고요, 이 단체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11조 제1항의 사용료 및 입장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강제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휴관일은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과 명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증가됨에 따라서 용어의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이 없고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첫째, 제2조 제1항의 체육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체계에 맞지 않고요, 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부대시설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제2조 제1항을 “체육시설이란 완도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둘째, 안 제21조의 2 제1항 제1호에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은 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익체육관에 대해 과연 휴관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휴관을 했을 때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없다면 군민들의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였는지, 또 휴관을 한다고 하면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체육시설을 종류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공익을 중심으로 토의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10조 5항에 보면…… 그러면 그동안 체육동호인들한테는 안 받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21조에 보면 휴관이요, 첫째 주, 셋째 주는 청경들이 뭐해서 그런 것입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수영장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2개 시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군에 휴관규정이 있고 휴관해 오고 있는데요. 실제 인력운영상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경들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주 52시간도 맞춰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파악했더니 일요일에 휴관하는 곳은 네 군데, 월요일에 휴관을 하는 곳은 여덟 군데. 그리고 휴관하지 않는 곳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시군이 휴관 규정을 신설해서 휴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들도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리기로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체육관은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가 없으면 다 쉬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근무는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근무는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계속 행사가 있어서 거의 못 쉬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다시 10조로 가가지고요, 운동장 같은 데 축구동호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전체 다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동호인들은 사용료를 받을 때 1년 계약, 아니면 월별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청소년들이 풋살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청소년들이 메인운동장하고 축구전용구장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문을 잠가 가지고요, 축구협회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 계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 체육시설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시설팀장 전호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것을 징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 또는 연간 계약을 이행해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는 저희가 해주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협회에다가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또 저희들한테 접수가 사전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뒤에 협회

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저희한테 그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 이따 오후에 끝나고 풋살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풋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자기들이 사용할 경기장이 없다고 그래요, 운동장이. 축구협회에서 뭐…… 그것이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마침 그런 조례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안내하면 되겠네요?

○ 체육시설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예, 운동장이 지금 전용구장은 야간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설운동장 같은 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으니 조정하면 가능……

○ 박인철 위원

풋살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해도 된다는 이 말이죠?

○ 체육시설팀장 전호용

(좌석에서) 예,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죠.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39쪽 신규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요, 거기에 국민, 고급국민체육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료하고…… 국공장 사용료하고 들어가 있는데, 이것 이번에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그전에는 이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단체별로, 그 시설물별로 다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그전에 개정됐어야 했는데 개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급국민체육센터 국공장을 새로이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전에도 이것 계속 사용료를 받았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고급하고 국공장은…… 국공장은 받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답변을……

(방청석에서 “고급체육관하고 국공장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시설이 되면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빠져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에 징수를 완료해라.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국공장하고……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고급 같은 경우는 체육단체에…… 국민체육센터를 청년회다가 이렇게 위탁 그런 식으로 맡겨 가지고요, 이번에 감사원에서 조사가 나와서 저희들은 위탁한 것이 없다고 그냥 무마시켜서 공문을 보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체육시설에 포함되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급도 모든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요, 만약에 체육관에서 사용하는 전기세라든가 물품 비용을 전부 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방청석에서 “조례상에 보면 별도로, 전기 사용료라든가 다 이렇게 별도로 산출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어서요, 편의상 그냥 사용료만 일부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지가…… 오래된 시설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를 안 받다가 이번에 처음 받았다는 얘기에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라는 작년에 군 자체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어 가지고요. 또 더군다나 그런 부분 관리 자체를 청원경찰이 하고 있다 보니까 청원경찰 측에서는 우리 업무는 경비만 서는 것이지.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상충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각 면마다 실내체육관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군에서 해주는 시설인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도 다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여기 조례에 포괄적인 용어로 정리했기 때문에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게이트볼장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라는 거기는 경로우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면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전부 다 군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종합적으로 엮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해주는 모든 시설은 전부 다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을 때요.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운동기구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그것도 체육시설이죠?

(방청석에서 “예,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것도 체육시설이죠. 그러면 그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야외 운동기구는……

○ 김양훈 위원

그것도 안 맞잖아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하고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일반 야외 운동기구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아, 그것도 수리하고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기 요금, 상수도 요금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만큼 활용도도 떨어질 것이고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갈 데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큰 단체, 이렇게 큰 시설물 같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용을 잘 하고……

거기를 지금 보면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상수도세, 이런 것이 엄청나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전부 다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에서 안 해주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부담하고, 이 돈도 사람들에게 내라고 하면 체육관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누가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사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건물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요. 공공요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다른 시설물하고 동일하게끔 군이 공공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답답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외면에 또 생기죠. 거기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완도군에 있는 것을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8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명승 제34호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에 관한 휴관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청소년 권리 보호와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 “학생이란 중·고등학생을 말한다.”를 “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제4조 휴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에 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제2조 제2호의 경우 “학생이란 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되었으나, 동일연령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학생은 구분되어야 될 용어입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학교 밖 청소년”이란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항 제2호 “학생”이란 용어는 현행대로 하고 제3호에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라고 신설하고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5호를 6호로, 6호를 7호로, 7호를 8호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별표 윤선도원림 관람요금표

학생 및 군인 구분란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킴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건 다 수정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7호 완도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8호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공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3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9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제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종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2조 제3호의 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시행령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시행령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59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중에서 어업 부분이 다 별도 부분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또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90호 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김 재 홍		
의 원	김 양 훈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10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3분 폐식)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 군수

(11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완도군 청사 신축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4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재선 의원과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선 의원과 박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1호와 제2492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

입니다.

주문사항은 의안번호 제2491호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의안번호 제2492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건의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을 이번 회기 동안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은 집행부와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고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과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게 됩니다.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전심사를 위해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10월 24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 군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에 따라 의원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규칙 제32조에 의거 동일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언과 횡수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되 검토하겠음, 서면 제출하겠음은 지양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답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 전부서 대상으로 의원님별 일괄 질문을 실시 후 군수 답변을 먼저 듣고 부군수 및 담당부서장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궁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허궁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등원 후 현재까지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의정활동에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2019년도 군정 질의에 임하면서 집행부에 대하여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거나 잘못을 따지고 지적한다기보다는 완도군정에 대해서 이해나 납득하기 어렵고 그리고 궁금하고 의문 나는 사항들을 종합하고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행정국장에게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군에 돈사 및 태양광 수상복합아파트 등 집단민원들이 발생되어 주민 대 주민, 행정과 주민 등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지역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단민원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첫째, 현재 발생되었거나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인허가 내역, 둘째, 지금까지의 대응방안, 셋째, 집단민원의 해소 및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법 제56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등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활동영역이 국제적으로 넓어지면서 다양한 인종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결혼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실제 결혼하는 열 쌍 중에 한 쌍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만큼 국제결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 둘째, 지금까지 지원 및 관리실태, 셋째,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광사는 나주 패사사건에 연루되어 함경도 부령으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신지도로 옮겨 이곳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동국진체라는 독특한 필체를 이룩한 문인이자 화가입니다. 따라서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예술작품 등을 활용한 거리를 조성하면 명사십리 해수욕장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명소로 태어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원교 이광사거리 조성계획과 둘째, 사업비 확보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명사십리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적인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하여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관광객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관광정책의 결과라고 본의원은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지 명사십리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운영상황, 둘째,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 셋째, 모래유실에 따른 대책, 넷째, 여름철 관광객 패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다섯째, 오토캠핑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청정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오염행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건강의 섬 완도, 청정바다수도 완도, 자연그대로 농업 등 청정이란 용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호로 붙이는 청정이 아니라 내실 있는 청정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구석구석 세밀하게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만이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되리라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둘째, 지도 및 단속실적, 셋째, 기타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광어산업 생존전략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이 제269회 완도 군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광어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수입산 어류가 2008년 대비 785% 증가되었고 수입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는 높아가고 있는데 국내산 어류의 소비자 트렌드 지수는 감세추세에 있으며 광어생산원가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려운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광어산업 현황 및 실태와 둘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셋째, 박인철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넷째, 위기 극복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산업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위주의 업무보다는 농업의 경쟁력 있는 산업화를 통해 농업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업무가 과연 우리 군 농업현장의 농업인들에게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군

농업환경 및 현주소, 둘째, 경쟁력 있는 시험작목에 대한 성과 및 산업화계획, 셋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대응작목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위생적인 분뇨처리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3회에 걸쳐 질문하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본의원에 게 보고는커녕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의 섬 완도,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누가 될까봐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첫째, 읍면 및 도서지역 분뇨처리실태, 둘째, 가족용 정화시설 관리실태, 셋째, 대두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군민의 행복한 미래완도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편익과 행복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기도 하지만, 좋은 제도나 시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군정 질문 답변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정책 및 시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보다 잘사는 미래완도 건설과 선진 의회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완도군의회는 소통하고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을 모시고 부족하지만 열성을 다해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행정에 반영하여 군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희망완도소식지 제작·배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등 연 2회 제작, 배부하고 있는 소식지는 지역주민들과 특히 고향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나름 성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편집절차와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및 배부 배경, 최근 3년간 소요예산, 소식지 편집 및 제작절차, 배부대상 및 배부내역, 희망완도소식지 기능보강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에게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은 장보고대사의 도전·개척정신이 살아 숨 쉬는 청해진의 고장 완도입니다. 본의원도 의원이 되기 이전에는 장보고대사의 위대함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국 법화원을 다녀온 후 장보고대사에 대해 너무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어떤 영역보다 우선하여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장보고 선양사업 진행상황, 선양사업을 위한 종합대책, 장보고선양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계획, 사업 계약방법, 사업추진 부진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노인목욕 및 이·미

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 추진실적,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방법 및 절차, 추진성과 및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과 목욕권 및 이·미용권 회수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완도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도사랑상품권에 대한 발행개요, 가맹점 발행액, 회수, 인센티브 등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변환소 지역갈등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제주간 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갈등과 주민혼란이 발생됨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 활동상황 등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완도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에 의하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관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 현황과 최근 5년간 기업별 지원현황, 법 취지에 맞게 업체들이 운영되는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기대효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가공공장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유자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소비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자 유통·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자 가공공장은 소비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공산업이 성공하려면 소비자 (청취불능)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과 개발된 제품에 대한 마케팅전략, 그리고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통·가공공장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지금까지 진행상황, 운영주체 및 제품의 종류, 마케팅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한 SOC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일 것입니다. 광주에서 강진 서성까지 1단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진 서성에서 해남 남창까지의 2단계 구간은 고속도로 5개년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사업의 진행상황 및 준공 예정기간과 2단계사업의 진행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에게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수요시장에 대응하고 해조류 가치에 대한 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위기극복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을 해양치유과에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개요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 단위사업별 부지확보 여부, 연도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분야별 사업계획,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실용화 맞춤형 농업인 지도교육의 성과분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우선과 농업여건 변화에 적합한 새 기술을 맞춤형교육은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이며 일상화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든지, 기존 농업의 패러다임을 갖고 소득 쾌거를 했는지 등의 성과가 경우에는 맞춤형 농업인교육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용화 맞춤형 교육 추진현황, 교육 참여자 성별·연령별 분포도 등 현황, 교육수료 후 성공적인 사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사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잦은 태풍으로 군민 여러분의 심려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진심으로 애쓰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해 힘써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제8대 완도군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저는 군정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졌고 고심하였으며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 그동안의 군정 추진과정을 되짚어 보고 심도 깊은 질문과 필요하다면 날선 비판으로 군민을 위한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저의 뜻을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을 위한 더 나은 길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발언이 우리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의 생활여건에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에게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 관광정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광객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각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의 소비를 지역소득원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청산도 슬로시티가 성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어 한때 완도 관광의 70% 이상을 점유했던 보길도 관광은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는 등 우리 군 관광은 역동성이 상실된 채 표류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한때 드라마 해신 방영 및 촬영 시에 완도를 찾는 차량 행렬이 완도대교를 건너 강진까지 정체된 상황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완도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세심한 분석과 체계적

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변화추이, 우리 군 대표관광지 관광객 변화추이, 최근 3년간 관광관련 수상내역,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 확보와 군 재정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7년부터 '19년도 공모사업 현황, 사업 확정 후 포기사업 내역 및 사유, 공모사업 시 수반된 용역내역,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세부내역, 업무추진 시 대두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지역선도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역활력의 중심은 청년이며 미래는 청년들의 의식과 공동체 참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정부에서는 실업, 취업 등 청년들의 문제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통한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지역발전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청취불능)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현황과 완도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사항,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읍면 청사 신축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의 경우 내구연도 도래로 건물이 노후되고 수시로 보수공사가 필요하는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과 읍면 청사 현황, 노후건물 또는 장래대비 신축에 따른 종합계획, 청사 신축 시 재원 확보방안, 신축 시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단체와 협업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화 갈꽃섬

전북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사업완료 시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과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에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감축과 대기오염을 줄여 탄소 제로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시대에 편승하여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며, 특히 건강과 청정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군의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앞서 보급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실적, 향후 추진계획,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대당 가격,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전복패각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복 양식과정 중에 발생된 죽은 전복의 폐각을 거의 바다에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의식의 문제 이전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은 청정바다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폐각의 자원화방안, 사업추진의 지연이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민 해상교통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은 도서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육상교통과 비교할 시 환경과 시설 등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육상에서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지만 도서의 경우에는 태풍이나 풍랑 주의보가 발효되면 꼼짝 못하는 매우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지역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교통에 대해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교통망 체계와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현황, 분야별 지원

기준과 자격, 지급절차 및 정산방법, 보조금 부담수령 방식을 위한 관리체계,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 도서낙도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영 검토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ASC 등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청취불능)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전복산업의 활력을 되찾고자 ASC 등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행정 지원 없이 유통업체와 양식 어가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완도 전복이 ASC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인증을 받은 ASC에 대하여 행정의 행보와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활용도가 없는 ASC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ASC 등 인증배경 및 인증현황, 인증 후 활용실태 및 실적, 현재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치매환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가족 또한 매우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치매환자 현황, 조기검진, 치매예방, 사후관리 등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매뉴얼, 치매안심센터 개설 및 운영상황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생각할 때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에게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 대응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높아가고 다양해짐에 따라 각종 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행정의 손실도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가 이미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등에 대한 손실과 손해, 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법에 의한 행정행위와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진행상황. 둘째,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진행상황. 셋째, 고금 돈사 행정소송 진행상황. 넷째, 군 고문변호사 활용실태 및 소송발생 최소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에게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들의 환경,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등에 대하여 우리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결식아동 지원대상 현황. 둘째,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과 절차, 지금까지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국민주택 용자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청취불능) 8억 정도 되는데 이중 원금이 1억 5,000이고 이자가 6억 6,000 정도 됩니다. 주택자금 미납액에 대하여 매년 결

산검사 시 지적되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가 71.8%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 부담만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민주택 용자금 미징수 사유별 현황 및 그동안의 조치사항과 둘째, 향후 대책 등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단된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역도실업팀 운영배경. 둘째, 선수 및 임원현황. 셋째, 지금까지 지원 및 수상실적과 넷째,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에게 완도형 6차산업화 흑염소 육성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산 흑염소의 부가가치를 위하여 6차산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마케팅 판매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완도 6차산업 흑염소 육성실태. 둘째, 지금까지 지원사업 실적. 셋째, 황칠 및 다시마 부산물을 활용한 생균제 개발 및 활용실태. 넷째, 흑염소 6차산업의 구체적인 내용. 다섯째,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외면은 우리 군의 관문으로서 좋은 숲과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곳입니다. 군외 원동항을 수변공원을 반영한 아름다운 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외 원동 지방어항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 지금까지 진행사항,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바다생태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산자원을 회복, 증가시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안어장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다목장사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은 자원을 회복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성과 및 효과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바다목장사업

의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전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분석 및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국가암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종 암 발생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5대 암과 관련한 지역으로, 의료통계에 의한 5대 암 중에서 우리 군에서는 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5대 암 조기 발견을 통해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암 발생현황 및 관리실태. 둘째, 국가암 관리체계. 셋째, 5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넷째, 5대 암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주권자인 군민을 대변하고 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완도 군의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군민들과 공감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군정에 반영하여 해결하였으나 재정의 한계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안타까움과 함께 아쉬움을 가집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감소는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우리 군의 최우선의 현안사항으로서 집행부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제274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군정 질문은 첫째,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당면 현안사항에 초점을 두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어려운 수산업에 대한 고민과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셋째,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은 군민들이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경제활동의 주무대는 바다이고,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 동향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하여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의 중심은 소비한계, 판매부진, 가격하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일반적으로 과잉생산과 경기침체로 불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그러한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생산분야는 인위적으로 컨트롤하기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답은 유통, 가공, 마케팅을 통하여 답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악순환, 즉 마케팅 전략에 나오는 주기변동입니다. 주기변동에 따른 대응전략은 현재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인 수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을 위해서는 유통·가공·마케팅에 답이 있다고 제안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유통·가공산업에 대한 방향 및 품목별 전략. 목포시에서 조성중인 수산식품 수출단지에 대한 대응방안, 유통·가공산업의 국제적 흐름인 수직계열화 방안, 조직개편 시 유통·가공·마케팅을 위한 가칭 유통·가공과 신설에 대한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에게 2021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산업의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지금까지 2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2021년에도 개최가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억 이상 투자하여 2회에 걸쳐 추진된 해조류박람회가 과연 박람회 개최 목적을 달성했는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람회 시 관람객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은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핵심가치인 해조류 산업의 활성화는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는 2회에 걸쳐 추진된 박람회의 분석을 통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여 해조류산업의 활력을 도모하는 박람회가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람회 개최 필요성과 2회에 걸쳐 추진된 박람회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21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박람회 주제 및 컨셉, 외국인 관람객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개최장소의 문제점과 대책, 수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 주민들에 대한 홍보대책과 박람회 사무국 구성시기와 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에게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 관리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9월말 현재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최근 3년간 사유별 휴직현황, 최근 3년간 직급별, 직렬별 보직 및 이동현황, 무보직 현황 및 결원 및 충원계획, 조직개편 진행상황, 가족공무원 현황, 일곱째, 전남도청 해양수산국과 해양연구센터, 완도수목원에 파견된 직원의 업무추진 성과와 전문직렬로 채용된 공무원의 업무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출신의 프로골퍼 최경주를 기반으로 한 골프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조성계획 및 지금까지 진행상황, 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시설 입안 진행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시안은 완도군수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인들이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해온 바다에 대한 수산업 가치 등에 대하여 해상풍력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풍력 추진계획 및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금후 계획, 주민 수용성 확보여부, 해상풍력 설치예정수면에 대한 공익상 지장유무 및 어업적 가치와 수산업과의 공존방법, 그리고 계통연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에게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반시설 취약과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지리적여건 때문에 각종 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군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및 절차, 공모사업별 근무인력 현황, 향후계획,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해양사업단장에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는 완도라는 이미지 가치 상승효과를 거양하였고, 브랜드 가치를 떠나 바다는 지역경제의 핵심인 수산업을 위해 보존관리는 영원히 우리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포식 이후 과연 바다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존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 추진배경, 부분별 종합계획 및 추진상황, 선포식 이후 주민의 의식구조 변화 및 정량적인 성과,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로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 등 활용여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 미래의 100년 대계를 이어 갈 핵심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해 오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해양치유산업이 우리 군 미래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마다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또한 일부에서는 “해양치유산업에 지나치게 치우쳐 다른 분야의 행정이 소홀하지 않는가?” 라는 염려도 존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주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해 하는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274회 임시회 군정 질문을 통해 그 답을 얻어 해소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규모 및 금액과 부문별 사업 계획과 사업예정기간,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의 주요내용과 운영계획, 해양치유전문병원 및 민간 투자유치 진행상황,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영역 및 성장적 계수, 관련법 제정여부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양한 수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 군은 우리나라 양식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식산업은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노정되어 있는 불법양식은 우리 군이 대표적인 우심해역으로 행정은 행정대로, 어업인은 어업인대로 각각 고민과 고통을 지닌 채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실익을 감안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품종별 불법양식현황 및 발생요인, 그동안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불법양식어장 정비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안어장 재배치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보길 부항천 지하수저류조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보길 부항천에 보조 수원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지하수 저류조 사업에 대한 사업현황,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 일괄 질문할 시간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를중지)

(13시59분 회의계속)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양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존경하는 완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양훈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분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원만한 조화를 이루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진행되는 군정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궁금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및 무사안일 행정에 대하여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조직내부의 허술함과 조직의 탄력성에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최근 정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사태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제 그 자체를 사회적 특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그동안 추진상황, 최근 3년간 유형별 징계자 현황, 청렴도 향상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 운영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자생적 지역경제 조성, 건전재정 운영 등으로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의 재정구조는 전체 예산 중 85% 이상을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되는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은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 재정운영계획, 재정운영성과, 결산 및 효율적인 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장님께 자주재원 확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6.51%로 신안, 구례, 함평, 강진, 장흥 다음 순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환경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재원 발굴 및 세원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채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우리 군 자주재원 현황 및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 최근 5년간 교부세 현황과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 하수도 등 기타 시설물들을 조사 및 측량을 통해 시설물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전산 데이터화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하고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도읍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향후 LPG 배관망 공사를 위하여 굴착 예정선이 시내 도로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배경,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방법 및 시설업체 현황, 그동안 활용실적, 금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고금면 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금도는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수군을 형성하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역사공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없는 역사도 만들고, 없는 설화 속의 인물을 활용하여 지자체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우리 군의 경우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의 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먼저 표시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금도에 존재한 역사관광자원은 무엇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내용과 이러한 역사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은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고, 특히 지리적 여건상 문화적 수혜가 부족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체육시설은 생활의 활력소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느낀 사항은 우리 군의 체육시설이 타군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대폭 확충을 제안하면서 그동안 군에서 조성한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과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 관리상태,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에게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감사 결과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159억 9,100만 원으로 이중 8.3%인 13억 4,0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이월된 세입수입 중 충분히 납부 가능한 자들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기인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액 및 미납액 현황과 세외수입 결손처리내역, 세외수입 징수활동 상황, 그리고 징수를 제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에게 지방도 830호선 위

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830호선은 신지~고금간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급커브 및 경사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그 어떤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도 830호선 중 위험도로 현황과 사업진행구간 및 소요사업비, 향후계획과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에게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사업 침수예방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를 일대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하수도 중점관리사업은 침수라는 해묵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청정바다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성과를 기대하면서 사업의 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향후계획 및 추진상 문제점,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에게 장보고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보고기념관은 2008년에 개관하여 기념관 시설 및 장비 등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장보고기념관 운영상황, 개선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완도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신우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늘 그러하듯이 새로운 시작은 커다란 포부와 계획 속에서 희망을 갖지만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완도사랑 작은 실천이 성실히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납니다.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의 감소 등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당면한 우리 군의 최우선 현안사항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결과라 할지라도 중앙 및 지방의 권력기관이나 가진 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은 그 자체를 사회적 특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류의 저변에는 갈등이라는 불협화음이 존재하여 질서를 양분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상생의 원칙하에 배려하고 나누고 이해하려는 소통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에 진행되고 있는 군정 질문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현상을 소통을 통해 타개하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실태파악과 생산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인구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량이 부족해 사람을 입으로만 생각하던 시대엔 인구가 짐이 됐지만, 이제 인구는 짐이 아닌 국력이며 미래의 희망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이 지난 지금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이미 인구소멸위험 진입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멀지 않아 5만 인구가 무너지리라 예측해 봅니다. 따라서 인구정책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첫째,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 둘째, 인구감소 유형별 요인, 셋째, 최근에 발표된 5개년 인구종합계획, 넷째,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구정책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노인인구는 1만 5,771명이고, 이중 홀로 사는 어르신은 노인인구 대비 32.9%인 5,2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지원사업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은 열악한 재정일지라도 우선으로 지원해야 될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독거노인에 대한 알림서비스 설치기구 및 소요사업비, 둘째, 운영 절차 및 관리 매뉴얼, 셋째, 추진성과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에게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빈집들은 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여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2018년 7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빈집 읍면별 현황, 둘째, 지금까지 정비실적 및 소요된 예산 집행내역, 셋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우리 군 계획 및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완도해양경찰서 사용 부두 우리 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위치한 완도 해양경찰서 선박계류장이 이전함에 따라 동계류시설 및 배후부지에 대한 우리 군 활용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완도항의 정온수역과 선박계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동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는 연근해어업 및 미역가공업체들의 하역에 필요한 시설로 적합한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기존에 완도해양경찰서가 사용했던 계류시설 및 배후단지 현황, 둘째, 해양경찰서 선박계류장 이전상황, 셋째, 소유자 및 관리자 변경계획 및 절차, 넷째, 우리 군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와 밀접

한 관계가 있는 지정항이며, 주로 외국 수출입품을 실은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완도항은 정온수역이 협소하고 계류시설이 부족하며, 항만배후단지도 거의 없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우리 군이 수립 중인 완도항개발계획, 둘째, 제4차 항만기본계획수립 및 절차, 셋째, 항만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그 동안 추진사항, 넷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항은 동지나해 등 연근해 어선들의 조업해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어획물 선도유지와 기름값 등 비용절감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선주, 선장, 심지어는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들까지도 완도항을 선호하고 있지만 기름주유, 얼음 및 쇠빙, 계류시설 및 하역시설 등이 미비하여 주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19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현황, 둘째, 인센티브 지급현황, 셋째,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넷째, 앞으로의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길을 중심으로 한 노화, 소안권역은 한때 완도관광의 80% 이상을 담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청산도 슬로시티 이후, 편중된 관광정책으로 인하여 노화, 소안, 보길권역의 관광은 정체 또는 퇴보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분석합니다. 보길도를 중심으로 한 노화, 소안권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균형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화, 소안, 보길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 둘째, 동지역의 관광객 변동추이, 셋째, 관광 활성화방안 및 완도 화홍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에게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은 해조류를 바다에 버리지 못하게 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고, 그렇게 수거된 해조류를 전복 먹이로 재활용하는 것은 차순위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이 목적을 벗어나 전복먹이용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향간의 여론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추진배경과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 둘째, 분야별 사업추진 절차. 셋째, 사업추진 성과. 넷째, 향후계획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에게 해조류산업 실용화기반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분야에서는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치유자원은 수산물일 것입니다. 공기, 모래, 펄, 바람 등이 어업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유자원의 실용화 기반 구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 부담액 각 4억 원씩 포함하여 51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용화사업이 과연 상업화 및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개발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기반 연구개발사업 개요. 둘째, 대상품목, 임상시험 결과 및 성과. 셋째, 활용 및 산업화계획. 넷째, 해양치유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장에게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물 수출물류 확대를 위하여 75억 원 규모의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의 기본은 해협이며, 해협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영 주체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 주체 선정, 운영방법이 필수라고 판단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배경. 둘째, 사업개요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 셋째, 앞으로의 계획. 넷째, 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냉동수산물에 대한 해협 인증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수산경영과장에게 전복산업 유통·

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6.13 선거 시 군수 및 광역,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공약이 “위기에 빠진 전복산업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한 결과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없고 결과도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전복산업의 생산 측면은 인위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절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가공, 수출분야에 전략을 집중해야 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전복산업분야의 유통·가공·수출현황 및 실태. 둘째, 민선7이기 시작 이후 진행상황. 셋째, 분야별 당면한 문제점. 넷째, 전복산업의 유통, 가공, 수출에 대한 미래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완도군의회 최정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완도군의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모두가 행복한 희망찬 미래완도를 위해 애쓰시는 신우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잘된 부분은 적극 권장하는 등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완도 군민들은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 사항 진행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7이기도 벌써 1/4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모든 공약들이 기본 틀을 잡고 순조

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공약사항은 주권자인 군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며, 진행사항은 현재의 완도와 미래의 완도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7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둘째,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 확보내역. 셋째, 희망완도소식지에 게재된 공약사항 이행률 44.7% 달성에 대한 세부항목별 실적. 넷째, 금일~약산간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경위. 다섯째, 부진한 공약사업이 있다면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완도군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매결연단체들과의 협력관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당시 상황과 여건에 따라 급조된 협력관계 및 한시적 운영관리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국내외 자매결연 현황. 둘째, 최근 5년간 연도별 자매결연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내역 및 추진성과. 셋째,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에게 완도군 장애인복지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능력 배양과 생활안정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을 지원해 주고 장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둘째, 장애인복지관 급식실 운영예산 및 1일 이용 현황. 셋째, 2019년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 넷째,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현황. 다섯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에게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등에 크게 공헌한 분들을 장보고한상어워드를 통해 오늘의 장보고대사로 예우하고 그들을 통한 우리 군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계획 및 시설

후 활용도와 기대효과. 둘째, 한상어워드 수상자들을 통한 우리 군 체계적인 활용내용. 셋째, 앞으로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대표축제인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가 벌써 22회를 맞고 있습니다. 22회째를 맞이한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정체성, 경쟁력, 대표성에 대하여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본예산 기준 축제경비 비율이 0.72%로 강진, 곡성, 장흥, 무안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나 경쟁력은 아주 낮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최근 5년간 소요예산 및 평가결과. 둘째,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실적. 셋째, 최근 5년간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수상내역. 넷째, 축제를 대폭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따른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에게 농공단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도죽청, 가용농공단지는 양식 및 수산물가공, 제조 등 우리 군 기업활동의 주무대이며 많은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생물 특화단지가 조성되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가 20년이 경과됨에 따라 각종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입주업체들의 경영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공단지 현황. 둘째, 단지별 입주 및 가동현황 및 미분양 현황. 셋째, 분양금 미회수 내역. 넷째, 노후시설 개선사업 내역 및 금후 계획. 다섯째,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에게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하루만 지나면 먹을 음식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즉, 전문식당과 고유의 음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이 작년도 군정 질문 등 3회에 거쳐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개발을 주문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특산품을 이용한 고유음식 개발 현황. 둘째, 해초비빔밥 및 전복소스 활용실태. 셋째, 완도읍 음식문화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의료원장에게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계획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서로 형성된 우리 군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에 대비한 후송계획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응급환자시스템 구축현황 및 후송체계 매뉴얼. 둘째, 최근 2년간 후송실적. 셋째,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넷째, 공보의 근무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 군수 신우철

군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고, 역대 그 어느 의회보다도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선7기 군정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해양치유산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 신지명사십리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획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완도사무소 유치, 공모사업비 985억 원 확보, 대외평가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 등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이렇듯 민선7기 군정이 생동감 있고 활기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군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했던 부분은 적극 개선, 보완하면서 완도의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시책 발굴·추진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인철 의원님과 최정욱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에게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완도 수산물 시설과 생산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 수산물 가공업체는 총 82개소, 유통업체는 37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유통업체가 많은 이유는 어가에서 직접 전복을 유통하는 어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우리 군 주요 수산물 중 하나인 김은 일본으로 대부분 수출되고 있으나 마른김 수출은 일본에서 중국으로 전환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은 제품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최고급품을 요구하나, 중국은 제품심사가 용이하고 중급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역은 타지역산에 비해 품질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미역 주생산지인 약산 어두, 금당 가학, 신흥은 비교적 내만어장이어서, 외해어장으로 이동하여 양식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복은 가공품의 국내 소비와 및 수출 저조로 인해 여전히 활전복 위주의 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원물 확보난과 원물 고단가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의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과 타 시군 대부분은 마른김 가공시설사업에 지원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시군 최근 3년간 지원현황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표를 보시면 2018년 기준에서 우리 군 외 9개 시군 25개 유통가공시설 중 24개소가 김 가공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복소비 촉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앞으로 전복가공시설사업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5쪽 완도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방향과 전략은 크게 국내

소비확대와 해외시장을 넓혀 수출량을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소비확대를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소비환경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을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수산물 소비문화가 위축되고 장기화 조짐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항간에는 IMF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다인가구에서 핵가족, 혼밥족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사회구조가 우리 수산물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에 맞추어 수산물 유통구조도 변화하고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중심의 구조에서 온라인시스템으로 변화, 혼밥세대 증가에 대비한 간편식제품 개발과 다양화, 제품 판매단위의 소량화로 신속히 진행시켜야 됩니다. 전복은 kg 단위를 벗어나 마리 단위의 순살전복과 절편, 냉동전복과 전복만두, 전복볶음밥 등의 간편식으로, 해조류에 있어서는 해조국수, 스낵, 칩, 해조분말 등으로 넓치는 활어 유통에서 선어유통으로 마리에서 g 단위의 소량화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수산물 유통, 가공에 있어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군청홈페이지 온라인시스템 강화와 완도군 이숍 운영도 현 추세로 바꾸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해외시장 개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틈새를 노려 공략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우 수산물이 “성인병 예방 및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식품이다.”라는 인식변화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식품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일본수산물의 수입제한에 따른 일본국의 WTO 패소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 수산물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고 전복의 경우는 수출량이 늘고 있으며 중국은 대기 및 바다 환경 오염의 심화로 자국수산물의 소비를 기피하고 완도산 수산물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수산물의 국내소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기에 주변 국가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

한 작금의 현실을 미리 예측하고 민선6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미국, 캐나다, 홍콩, 동남아시아 등 많은 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지난번 중국 상해에서, 수출상담회장에서 5백만 불의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이룩하였고 이번 미국 LA 수출상담회에서도 8개 업체가 상담회장 측에서 750만 불 수출계약을 맺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식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 군은 2년 전부터 ASC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제수산물 인증을 추진하여 아시아 최초로 전복이 인증을 받았고 2020년까지는 우리 군 특산물인 전복, 해조류, 광어 등 수산물에 대해 양식어장의 10% 정도 ASC 국제인증 확대를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에 있어서는 ASC 인증은 물론,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게 되면 바이오산업의 원료인 해조류의 대량소비가 이뤄질 것이고 해조류의 주생산지 우리 군의 해조류산업도 더불어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AT 출신 전복주식회사 사장과 ASC 전문가, 유통전문가와 장보고한상어워드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마케팅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 LA 시장개척단에 전복주식회사 사장이 동행했습니다. 미국에서도 AT 출신답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보고 전복주식회사 사장을 AT 출신으로 선택한 주주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였습니다.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황무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장보고대사의 개척정신을 이어받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8쪽 완도군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품목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품목별 현 실태와 전략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해조류 대부분이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현상을 겪고 있

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시설과 생산을 권장하고 우량종자를 개발해서 보급하며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해조류 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전복산업은 철저한 사육관리로 낮은 폐사율을 유지하고 있고, 전복산업발전협의회의 전복가격 조정으로 안정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활전복 소비 둔화를 해결하고자 전복가공품 개발연구로 다양한 유통경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 취득으로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항생제, 친환경양식, 백신접종으로 타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도록 차별화하였으며, 우리 군의 명품광어 소비를 위해 선어회 유통구조 개선, 소포장 판매광어 가공품 개발 등의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쪽, 목포시 대양산단 수산식품수출단지 구성에 따른 우리 군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목포시 대양동 일원에 조성된 대양산단은 우리 군 입장에서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많은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산물 생산기반, 국내외 여건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20%도 안 되는 업체가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군의 장점을 내세워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서 수산물 수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양식수산물 생산 및 국제인증 획득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비교우위를 점하도록 하겠으며 김, 해조류 가공공장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대양산단과 달리 우리 군은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바이오산업을 육성시켜서 대량 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전복, 고등어, 참치, 삼치, 광어 등 선어가공공장 유치에도 공을 들여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맞는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통·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 시 유통가공과 신설검토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유통·가공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유통가공과에 대한 신설여부도 검토하였으나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

라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외 마케팅을 위해 AT 출신 전복주식회사 사장과 ASC 전문가, 유통전문가, 그리고 장보고한상어워드 관리책임자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공격적인 운영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직계열화를 위한 국내 대형 식품회사 유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수직계열화를 갖출 수 있는 국내 대형 수산식품회사가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부지 확보, 물류비 절감, SOC 확충 등의 중대한 당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서 식품회사의 유치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에게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유통·가공산업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 수산업의 현실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제활동의 주무대는 바다이고 지역경제의 핵심은 수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산업의 동향을 보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지금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수산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가고, 혼자 사는 인구 10명당 한 사람으로서 늘어남과 더불어서 국내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소비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우리 수

산업의 현실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소비한계, 판매부진, 가격하락으로 연결되고 기업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와 과잉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논란에 대해서는 과잉생산이나, 소비감소라는 얘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국내의 소비감소와 더불어서 생산량의 증가, 두 가지가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우리 군 전복양식어가들이 수협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신우철

제가 수협별로는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마는 약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군수님.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 1년 예산이 한 6,000억 정도 됩니다. 이 1년 예산을 넘어 7,000억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신우철

거기에 한 가지, 우리 전복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2조 원 정도가 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 6,000억 보다 더 중요한 원금상환은커녕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할 수 없는 높은 이자인 일반자금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어산업이나 해조류산업도 현재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 수산업이 왜 이렇게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지 많은 진단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보셨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사실 제가 그 분야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현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국내 소비는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소비패턴의 문제, 인구구조의 문제, 경제침체 문제, 모두 수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수산업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해양치유산업에서 찾았고,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에서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군수님. 수산물 과잉생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 즉, 생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군수 신우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비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생산도 과잉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복에서 경험을 했고, 또 매생이에서 양식어가가 스스로 참여해 주었듯이 이제는 적정 시설과 더불어서 생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군과 협력해서는 국내 소비를 늘려야 되고, 해외시장을 늘려가면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먼저 수산물 과잉생산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잉생산, 즉 생산은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어업인들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외쳐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불법시설은 현실적으로 철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군수님이 처음부터 전복 한 칸 줄이기 운동, 해조류 밀식시설 방지 등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행정기관에서 과잉생산 품종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오래전부터 수산물의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수부로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부진하면 그 원인을 생산자인 어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하여 어업인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수산업의 불확실성과 수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어민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람 몸에 좋다는 수산물을 군민들이 맛있게 먹고, 쉽게 먹고 자주 먹을 수 있는 제품 개발과 판매시스템을 갖춘다면, 즉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 분야에 집중한다면 이러한 악순환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본의원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국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제품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는 소규모 단위, 1인 가족이 벌써 10인에 1명이니까 굉장하…… 500만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일회용 그런 가공제품이 나가야 되고, 그러면서 국내 소비의 한계를 느낀 나머지, 해외시장에도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번에 미국과 프랑스를 돌면서 여실히 느낀 것인데요, 한국의 수산물, 특히나 완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해야지, 우리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느꼈고, 특히나 그렇게 된 것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완도의 해조류 국수가 하루 종일 판매되는 것으로 예상이…… 오전에 다 팔리는 그런 성과를, 이것이 바로 요즘의 소비자 트렌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A에 가서도 우리 지역의 업체가 개발한 상품들이 즉석에서…… 이것은 대단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인데요, 즉석에서…… 9개 업체가 시장개척단에 참여했는데요, 8개 업체가 즉석에서 이런 수출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제 이런 자구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터어 있더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완도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마케팅 전략의 주기변동 가격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이 각 품종에…… 결정될 수도 있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도 결정되는데.

그런 주기가 전복으로 보면, 산업별로 보면 쇠퇴기에 접어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청취불능) 정기적인 반복을 거듭하는 형태를 주기변동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수산물이 주기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어민들이 항상 하는 말, 몇 년꼴로 가격이 해거리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변동인 것입니다. 군수님도 공작을 거치면서, 또한 군수님 직을 수행하면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업중에 반복되고 있는 주기변동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 혹시 자주 반복되는 우리 수산물 주기변동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이 수산업의 특성상 바다의 생산주기도 나옵니다. 풍흉의 교차가 우리 완도로 보면 대체적으로 3년에 한번 꼴로 옵니다. 이것은 풍흉의 교차로 인한 주기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육상에서 가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주기현상들을 보면 이것은 생산과 공급의…… 아니,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3년 단위로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격이 좋을 때, 그다음 년도 이듬해 3년째를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참고하고 국내 소비 확대와 더불어서 해외시장 개척

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기변동에 대한 대응이 바로 군수님이 방금 대답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본안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유통, 가공, 수출, 마케팅산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수산업종 중 경쟁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업종을 말씀하십니까, 품목을 말씀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품목이요.

○ 군수 신우철

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5대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태풍이 7개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군외면에 32.7도의 수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청취불능)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완도가 겪어야 될 5가지의 위험요소라고 보는데요, 여기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조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김, 미역, 다시마, 툇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시설에서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복산업이 과거에 피해를 많이 봤지만, 이번에 침수피해 외에 우리가 피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업인들의 자구노력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태풍 피해 또는 5가지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유통구조의 개선이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본다면 전복, 해조류, 광어는 다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광어도 활광어에서 선어로 이렇게 해서 뭔가 소비자들의 트렌

드에, 입맛에 맞는 그런 가공제품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완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전복과 해조류, 광어가 다 경쟁력이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본의원이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완도군이 전복 양식산업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복산업은 방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산 점유율은 높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 면에서 해남, 진도, 신안군보다 낮고, 다시마산업도 생산 점유율은 높지만 경남 기장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복은 큰 전복 양성비율이 해남, 진도, 신안이 완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 추석 등 명절에 관내 유통업체들이, 뭐 완도 전복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용 전복을 해남, 진도, 신안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전년도에 해남, 진도, 신안이…… 뚝니까, 수온이 낮은 것을? 그래서 큰 전복이 없어서 완도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실정이고.

다시마는요, 기장군은 자연건조 후 2차 기계 건조를 통하여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다시마 가격도 한 1배에서 2배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 이미 해남, 진도, 고흥군에, 미역은 고흥군에, 툇은 진도군에, 매생이는 장흥군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은 혹시 본의원이 분석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 군수 신우철

그 분석은 시설방법과 환경,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도의 전복이 과거에는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전복이었지만 이제 시설면적이 많아지고 그리고 밀식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폐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조기 판매하는 경향으로…… 결국은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식어업인들께서도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

예요. 이런 시설방법의 개선 또 양식량의 축소,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을 높여갈 수가 있고요. 다시마와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흥에 우리가 뒤처지는 것도 우리는 전복먹이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광어를 시설하는 것. 그러나 고흥은 전부 다 키우기 쉽고, 이와 같이 생산량만 비교하더라도 완도는 30만 줄에 30만 톤의 미역을 생산합니다. 그런데 고흥은 15만…… 13만 줄을 신설하는데 20만 톤을 생산합니다. 한 줄에 우리는 1톤도 못하는데 고흥은 1톤 이상합니다. 이것은 시설방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환경은 우리 완도가 다른 지역보다 낫다. 해조류 생산에서도 그렇고 전복 생산에서도 그렇고, 광어 생산에서도 그렇다. 앞으로 시설방법의 개선과 양식량의 감소로 해서 다시금 완도의 그런 우수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동안 군수님이 수산업의 유통,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본의 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 군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타 시군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또는 일부 업종은 퇴보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은 다양한 양식산업이 존재하고 열악한 재정의 한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서 2페이지와 3페이지, 우리 군 유통·가공시설의 규모와 현대화 및 식품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시 어떻다고 보십니까?

○ 군수 신우철

우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 완도를 따라올 만한 환경여건을 갖춘 데는 없다. 이런 환경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설방법과 시설량에서, 시설량에서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천혜적인 환경 속에서 시설량과 그다음에 시설방법을 개선해 간다면 다시금 우리 완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되찾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해외시장 개척에 나가서도 완도가 지

니고 있는 천혜적인 그런 환경과 더불어 바다 밑에 맥반석이 있어서 식품의 안전성과 그리고 맛과 향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의 유통·가공시설 업체는 많지만 규모면, 시설면에서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우선 전복 가공부터 보겠습니다. 군수님, 전복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즉, GMP 위생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업체가 우리 군에 있다고 보십니까?

○ 군수 신우철

갖추고 한다고는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해협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서 ASC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특히나 홍콩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부족하다. 앞으로 우리 완도의 이미지에 걸맞게 식품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보해 나간다면 그런 ASC 제도와 해협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군수님이 답변하듯이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주)완도전복도 전복가공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옛날에 농공단지에 50억, 80억을 투자했던 씨푸드 글로리아 수산 등 이미 다 문을 닫은 실정입니다. 해조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수출바이어가 왔을 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공장이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님?

○ 군수 신우철

지금 ASC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 군데 있죠. 그런 곳은 충분히 그분들한테 보여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ASC는 국제 인증 제도이기 때문예요. 해협 제도는 우리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만, ASC 제도는 국제수산물…… 친환경수산물 국제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에서 받는 그런 부분은 정말 자랑스럽

고요. 특히나 의원님들 중에서도, 홍콩을 동행했을 때 느낀 부분입니다마는 ASC는 거기에서도 차별화하고 있고, 가격을 2배를 받아도 이익제기가 없는 것이 바로 ASC입니다. 앞으로 이런 ASC를 확대해서 자신감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ASC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 청산바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해조류산업입니다, 전복산업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 군수 신우철

해조류산업의 ASC는 아직 표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매뉴얼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ASC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 ASC 업무를 대행할 팀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방금 군수님 답변에 ASC 전문가를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도 2차 ASC 어민들을…… 간담회할 때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해도 군수님,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 ASC 전문가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전문가가 우리 어민들한테 무엇을 던지는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 군수 신우철

지금 ASC 전문가로 채용한 직원요, 예를 들면 전복은 일체 우리 17개 어가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지만, 다른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의 노르웨이 연어는 ASC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어 있는데, 지금 해조류나 광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하는 그런 업체와 더불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간담회 장소에서도 느낀 것은 ASC 전문가가 우리 군에 채용이 됐다면 전문답게 어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팀을 담당하는 팀장님보다 대답을요, 어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못하더라는 이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아직은 어민들하고 대민관계가 부족해서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고흥군에서는 미역산업을 위해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 군수 신우철

그것은 명천어촌을 중심으로…… 그것은 저도 과거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서요, 거기에는 품종 개량사업과 더불어서 시설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3만 대에 20만 톤을 생산한다는 것은…… 한 줄에 1톤 이상이 생산된다는 것은 좋은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 완도의 경우도 과거에 1톤 이상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1.2톤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1톤 미만으로 생산됩니다. 이것이 시설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고흥군에서는 우리 군 미역 가공업체들이 원료가 부족하고, 또 우리 군에서는 다 전복먹이로 하기 때문에 원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료를 사러 가면 공장을 고흥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장을 옮기면 공장 및 가스배관시설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특히 녹취에도 나왔지만 군수님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 청정바다수도 완도에서 아직도 미역자숙 시(청취불능) 사용하고 있는 가공업체들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더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군수님, 보셨죠? (예)

이 사진은 우리 군 마른김 가공공장에서 발생

된 세척수입니다. 저 주위에 광어양식장하고 또 매생이를 생산하는 여러 어가들이 있습니다. 동영상은 있으나 너무 보기 흉해서 본회의장에서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슬러지도 100% 바다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자료3 하나 더 올려주세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인근 해남군에서는 해남김의 브랜드를 위하여 사업비 14억을 투자하여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김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150억 규모의 거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방금 자료에서 보았듯이 서천군에서는 김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세척수로 인한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집중식 세척용수 공급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 세척수 배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생이사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장흥군은 자체적으로 동결건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흡쇼핑의 경우에 반쯤 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목포나 강원도 등에서 동결건조를 하고, 일부 어업인들이 전체를 소홀히 하여 흡쇼핑 런칭 과정에서 반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항을 군수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 유통·가공시설, 기반시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신우철

아까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그 부분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가스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LPG 배관망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산업의 활성화, 이것이 그동안 전복산업에 묻혀서 과거에 우리가 60%를 생산하던 김 생산량이 지금은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전복으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다시금 우리 군의 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부터 그랬고, 즉, 어떤 경우냐면 지금 해외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이 김밥용입니다. 그래서 김밥용이 250에서 300g까지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300g, 우리 지역 것은 270g이어서 탄성이 좋아서요. 쉽게 말하면 옆구리가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완

도산 김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리스크를,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해조류라는 그런 판단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알고 계시죠?

○ 군수 신우철

예, 15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군수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8년도부터 수산식품, 연구 개발, 판매, 마케팅 등 수산식품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소당 150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11개는 완료되었고 9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남 괴산에서는 내수면 민물고기 특화사업, 경남 통영은 스마트가공산업, 충남 서천은 서천김 클러스터, 화순군에서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인근 해남군에서는 김과 전복 연구 및 판매를 위한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수산물의 유통, 가공, 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저 사업이…… 사업규모가 150억 규모이면서 자부담이…… 기초자치단체 부담이 50%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1개소, 9개소가 추진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공한 지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지자체 예산 부담도 크긴 하지만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것을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해봤고, 바로 와서 해봤는데요. 그것이 우리 지역 출신이 있어서 검토했던 것입니다. 검토했던 것인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고, 그다음에 저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추

진했던 지자체가, 성공한 지자체가 아직 없다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군수님, 잘 들었고요.

본의원은 군수님과 의견을 달리 하고 싶습
니다. 바로 이런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도 예산을 하면서 2차 추경에서 봤는데
수산물로 한 공모사업 중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그런 사업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특정사업에 보조금 42억으로 해가지고 한 70억
정도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정인에게 가는 공모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취약한 수산식품산업분야의 공모사업을 군 재정
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순
세계잉여금이 1년에, 우리 군에 300~400억 정
도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1개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을 단순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성공한 지자체가 없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서 앞으로 그것을 보완한 후에
하겠다는……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런 답변도요, 군수님, 이
자리에서 처음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항상 같이 가
는 마차라고 생각합니다. 두 바퀴가 달려가야 만
이 행정도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에 사석에서도 군수님한테 의회를…… 행정에서
하는 일을 좀 그때그때 의회에…… 전체 의원들
한테 안 되면 조인호 의장님을 통해서라도 이야
기됐으면 좋겠다고 사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드
렸습니다마는……

○ 군수 신우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안 한 가지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받아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차제에 의장님께 제안을 드리
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정기적인 이
런 간담회를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
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질책
을 받을 것은 질책을 받고, 또 협조해야 될 것은
협조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
람이고 제안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고 언론에 보도
되어 우리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가졌던, 희망을
줬던 사항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북 소비촉진과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추진
하였던 전복만두, 전복빵, 전복피자, 냉동전복밥,
순살전복 등의 제품 개발과 마케팅이 어떻게 추
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우선 거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전복만두,
전복이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전복만두와
더불어서 전복빵, 이런 것이 유통되고, 거의 안
되고 있는 것이 전복냉동밥입니다. 볶음밥의 일
종인데요, 이것을 김제에 있는 그런 식품회사와
사전협의를 했는데, 가격 때문입니다. 이 가격을
어떻게…… 납품가격을 맞추는 것인가, 거기에서는
전복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예 전복밥에
너무 적게 들어가도 이것은 전복으로서 가치가
없다, 전복밥으로서, 그런데 새우로 예를 들어
보니까 새우볶음밥이 있는데 새우만 가지고 1년
에 1,000톤이 들어간다면, 그 1,000톤이 전복으
로 대체가 된다면 오히려 새우보다는 훨씬 더 많
이 소비될 것으로 돼서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전복주식회사와 더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납품가격을 맞추는 수 있을까, 그게 된다면
적어도 1,000톤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복냉동밥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 신제품을
만들어서 보니까 새우냉동볶음밥이 훨씬 맛이 있
어서 앞으로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문제
는 우리 지역의 전복을 거기에서다가 공급을 하는
데요, 거기에서 단기는, 판매단기는 6,000원으

로, 여기서 원료가 얼마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싼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복은 그렇다 치고요.

광어택배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광어택배로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생제와 더불어서 제주에 광어의 문제점이 대두될 때 우리가 광어택배…… 아니, 백신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선어로 택배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선어로 해서 택배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는 양이 많아지면 이것을 써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어가공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추진을 했는데요,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양식조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협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양식조합에 했을 경우 자부담이…… 그렇지 않으면 영여조합법인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다른 협동조합 같으면 바로 잉여조합으로서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류양식수협으로서 는 부담이 돼서요, 이것도 꽤 규모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한 12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협회와 그다음에 양식조합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런 물건을 제 공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군수님이 각종 행사 때, 이동군수실을 통해서요, 전복하고 광어 축진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6.13 지방선거 시 위기에 처한 전복산업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공약도 군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소리는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요.

○ 군수 신우철

공약사항은 임기 내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그나마 금년에 가격이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난해에 전복팔기운동으로 인해서 큰 전복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잘못됐죠. 군수님. 이번에 오히려 큰 전복이 없어 가지고 아우성이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 군수 신우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 박인철 의원

작년에 진도, 해남, 신안에 냉수대가 들어와 가지고 전복들이 생각보다 많이 폐사되고 있습니다.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가격 형성의 문제인데요, 지난해에, 그때 판매했던 전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것이 분리도 안 되는 것이고 악순환의 연속이 되게 됩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작년에 공무원들이 전복팔아주기를 해서 그 부분도 한 축을 했고, 또한 전혀 냉수대가 들어오지 않던, 우리 군을 빗겨간 해남, 진도, 신안이 냉수대 때문에 큰 전복이 없어서 우리 군에…… 하여튼 어민들이 올해는 좋은, 그나마 좋은 단가로 요 근래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보다는 실무부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한 지속성, 연속성, 열정과 함께 군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후속대책에 대한 시스템이 움직여야 되는데 시스템의 부재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우리 직원들은 나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복산업이 처한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5대 리스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2만 2,000톤의 전복을 생산하는데 완도가 1만 4,000톤 정도, 그러면 국내 소비는 계속해서 줄어든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면 국내 소비를 위한 방안보다도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이 한꺼번에 모색되어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군수님이 공무원들을 감싸는 마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는 군정은 그렇습니다. 군수님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작을 하지만 군수님이 의도한 대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작년 조직개편 시 국·단장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있는 조직개편인지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판단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내용은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또한 군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 금방 제가 물어본 것에 대답을 하셨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할 것이 오래 걸리면 휴식을 취했다가……

○ 박인철 의원

예.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은 20분 내로 본안질문을 해주시길 바라며,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제 질문이 길다고 해서 몇 단락을 빼고 간단한 것만, 서너 단락은 빼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군수님, 민선6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완도라는 이미지 제고와 수산물 홍보에 대해서는 성공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수산물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판매망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수출되는 품목과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우선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상해에서도 즉석에서 500만 불 수출계약을 맺었던 홍일식품하고, 또 홍콩에서 했던 청산바다. 거기는 ASC 인증을 받아서 홍콩에서 식품박람회 때 제일 좋은 코너에서 전시회를 했는데요, 오히려 거기 윌슨그룹의 벤 회장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로 “완도에서 이런 ASC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가격을 2배 받아도 누가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되어 있고요. JS코리아 역시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전복가공품이…… 또 요즘에 활전복으로도 이렇게 수출이 되고 있고, 요즘에 광어 수출까지 감당하고 있어서,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참여했던 8개 업체들을 보면 다 앞으로 완도의 가공산업을 이끌어갈

만한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많이 빠르고 합니다. 군수님.

다 넘어가고 다음은 유통·가공업의 품목별 전략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산업은 방금 전에 군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기에 빼고요. 미역산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관내 미역가공업체들의 가공능력은 연한 8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나 관내 미역원초가 좋지 않아 30% 이상은 고흥군에서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우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내에 적어도 40만 가까이 시설이 되지만 생산량은 한 30만 톤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 줄에 1톤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이…… 먹이용도로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미국과 프랑스에 가서 느낀 것인데 이 외로 미역귀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요. 앞으로 양식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30만 톤 생산부분에서 식용으로 차지하는 부분의 비중이 넓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당지역과 약산지역 등에서 주로 미역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대만에서 먹이용도로 이렇게 하고요. 때로는 식품으로도 하지만. 앞으로 시설방법의 개선과 그다음에 시설량, 헥타르당. 이것을 조절해서 식품으로서의 원료로도 가치가 있을 정도로…… 과거에 우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 있습니다. 가공업자들도 그렇고, 가공업체들도 그렇고 생산어민들도 과거에 우리가 1등 미역을 만들어냈던 저력이 있습니다. 산니크산, 가마이시산.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품종 개량을 해서 1등 미역을 만들어 내도록. 오히려 고흥의 명촌 어촌이 우리 완도 것을 보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양식시스템, 가공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미역산업을 지속시키려면 행정, 어업

인, 가공업체가 참여한 계약재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재배시스템 구축은 인센티브 없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계약재배에 참여한 어민들에 대해서는 어장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어장정화사업, 부자 등 시설물 중자들을 지원하고 가공업체는 물류비,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주신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생산, 가공, 유통분야의 문제점을 짚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외해 어장과 내해어장, 그리고 감기식과 끼우기식을 구분해서요. 식품용은 끼우기식으로 그다음에 먹이용은 감기식으로 해서 시설방법의 개선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식품으로 볼 때는 가공용, 그다음에 미역귀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미역귀 양식은 또 별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다시마 유통·가공업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군수 신우철

다시마는 사실은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약 20만 톤 이렇게 생산됩니다마는 지금의 소비 형태로 봐서는 매년…… 지금도 3년 단위로 주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대량생산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반드시 바이오산업으로 연계해서 갈 때…… 오히려 아무리 양산체제로 가더라도 그것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RND, 프랑스와의 RND도 이와 같이 양산체제로 갈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소재 품목을 선택하고 그리고 RND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ND 사업은 국내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해야 되겠지만요. 외국, 외국에서 해양생물연구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프랑스 로스코프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뜻을 통해서, 뜻을 통해서 항상

제를 대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했다, 이런 것은 획기적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 뜻을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 국내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요.

앞으로 또 치매예방 및 치료제, 그다음에 당뇨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우리 전복과 미역의 성분과…… 약리효과로 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산업은 이와 같이 바이오산업과 연계해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해서 갈 때 수산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질문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군수님이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많이 중간 중간에 준비한 것을 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마산업과 관련하여 군수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수협회원조합의 경향성과 발표에 의하면 (청취불능) 금일수협이 40억 이상의 순이익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완도 금일수협이 주체가 된 다시마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을 통하여 유통개선, 제품개발, 마케팅 등을 통하여 활력과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모 대학교수님이 다시마 추출물인 암 발병 예방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력과제로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해조류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행정, 수협, 학계,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거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시마산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회가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한 가지, 거점단지사업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의원님들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면, 지난번 검토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거점단지사업을 반대하셔서 그 원인으로 한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점단지사업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갈 것이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이 연계해서 갈 때, 여기에서 의원님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나온 치료제, 즉, 후코이단 성분과 같

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질 개발과 더불어서 의약품으로 개발될 때는 그 수요라는 원료가 무려 50만 톤, 70만 톤이 됩니다. 이를테면 감당 못 합니다. 완도의 다시마, 미역을 합쳐도 50만 톤인데, 그 산업이,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된다면 한 품목에 50만 톤, 기초적인 것이요. 그렇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시장규모는 약 6조원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70만 톤, 100만 톤이 나간다면 부족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뭔가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게 바이오산업이고, 그다음에 시설방법의 개선이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어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광어산업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쉽게 먹을 수 있는, 조금 전에 군수님의 말씀처럼 1인 가족 소포장 형태의 선어회가 소비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현재 존경하는 김양훈 의원님의 (청취불능) 이마트에 광어 선어회를 납품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광어생산어가의 말씀처럼 2만 톤 납품 어민들한테 물류비 등을 지원해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은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이마트 납품이 되기까지는 어업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신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완도가 지금까지 항생제를 썼으면 이마트 납품이 안 됩니다. 백신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우리 군을 찾았고, 그때 얘기는 뭐냐, 완도군이 이렇게 백신으로 가졌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취불능) 완도가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그러면서도 주방장들이 썰었을 때 칼에 붙지 않는 것이 완도광어 육질의 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 것을 안 쓰고 완도 것을 쓰겠다고 군을 찾아서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더욱더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백신을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성 검사를 더 강화해서 이제 광어를 이마트로 납품하는데, 결국 제주 것은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리 완도산 광어가 이마트로 납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한테……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어가가 말했던 1.4에서 1.5 크기는 괜찮은데 1.7에서 1.8 크기로 하는 것은 수율이 42% 정도밖에 안 나와서 벤더들이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어단가를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이 필요한데 그 견해를……

○ 군수 신우철

물류비 지원관계는…… WTO와 관계된 그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WTO와 관계된 것은 법적검토를 한번 해야 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번 전복생산자 어가에서 바구니 규격 그 관리주체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구니 무게가 1kg에 250g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번에 1kg에 500g으로 표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작원료도……

○ 군수 신우철

400g을 덜 담을 수 있고 바구니 무게를 올린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전복산업발전협회가 잘 해주었다. 그래서 가격도 이렇게 안정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고, 이와 같은 바구니를 통해서 결국에 감량을 늘려가자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 방법의 개선과 생산량의 조절, 이로 인해서 소비의 극대화로 이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것으로…… 그래서 다시금 완도전복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서 우리 완도전복이 다시금 명품전복으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 잘 알고 계시네요.

이 바구니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텀 문화를 없애고 공정한 거래실현을 위해서 이 바구니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바구니 제작비 일부라도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지난번에 종묘생산 업체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했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 출하량을 1만 4,000톤으로 볼 때 바구니가 140만 개가 필요합니다. 제작비가 한 4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한 20%에서 30% 정도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그게 일화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의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준비했던 것 다 빼졌습니다. 나중에 군수님하고 사석에서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젊은 친구의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군수님도 자리를 하다 보면 자주 들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살다가 6년 전에 귀향하여 돈이 된다고 하여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전복양식을 하고 있는데 고수온으로 한번, 적조로 한 번 피해를 당하고, 겨우 전복을 안 죽이고 키워서 팔았는데 정산해보니 수협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로 이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대출금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젊은 친구 혼자만의 일이 아닌 지금의 완도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정의 무게추가 해양치유산업으로 기울어진 측면이 강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본의원 또한 주민들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미래완도

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군수님의 열정과 계획에 적극 동의하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와 미래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번 되돌아보고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전사적 행정이 아닌 균형 행정을 기대하면서 군정 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군수 신우철

거기에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치유산업과 수산업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수산업을 살려내기 위한 가장 유일한 대안이 해양치유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서 수산업을 살려낼 수 있는지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군민들한테……

○ 박인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다음은 1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사항 진행 및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항이란 군민과의 공적약속으로서 가급적 지켜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군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만큼 우리 군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원도군민 19세 이상을 대상, 무작위로 주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유권자들과 함께 공약사항 이행정도를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중 부진한 사업이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배심위원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 또는 폐기하여 공약사항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내부적으로 연 2회 2월과 7월에 군

수 공약추진보고회를 개최해 점검하고 있으며, 외부평가로는 공약이행주민배심위원단을 구성하여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 추진상황을 군 홈페이지에 연중 게시하고 있으며, 공개내용은 공약목록, 이행계획, 이행실적, 공약평가 및 활동상황 등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예산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에 10개 전략으로 52개의 공약을 이행하는데 총 사업비는 3조 273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국비가 1조 8,643억 원, 도비 166억, 군비 2,428억 원, 민자 8,726억 원, 기타 3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 중 국책사업비가 2조 5,735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85%를 차지하며 사업별로는 해양치유단지 조성, 소안~구도간 연도교사업, 금일~약산간 연육교사업,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사업 등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으로 국비는 예산순기 등 시기별로 대응전략을 구체화하여 중앙부처에 신규사업을 지속 건의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비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군비 확보방안으로는 재정분권정책에 따라 '20년부터는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라 공약사업과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 회계연도 연말에 발생하는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여 군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제외한 공약사업은 임기 내 국비 및 군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약사항 달성 세부항목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평가한 공약이행률은 공약세부사업별 국책사업을 제외한 평균 55% 이상이며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하는 공약이행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성과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5개 분야로 미래완도 9개 사업, 성장완도 21개 사업, 복지완도 21개 사업, 감동완도 9개 사업, 청정완도 10개 사업으로 총 5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공약은 완도드론훈련교육원 유치 등 8개 사업이며,

2021년도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등 42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 대외평가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공약실천계획 평가와 더불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민선6기에 이어 4년 연속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민선7기 주요성과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등 국비 1,540억 원 확보와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등 공모사업 44건 선정에 따른 사업비 985억 원 확보, 해외시장 개척 업무협약 19건, 수출계약 13건에 2,600만 불 등 큰 성과를 거양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금일~약산간 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군 현안사업이자 동부권 금일, 생일, 금당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완도 고금에서 약산, 금일, 금당, 고흥 금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은 42.4km로 기개설된 15km를 제외하고 해상교량 5개소에 10.22km, 접속도로 17.18km이며 총 사업비는 9,354억 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우선 금일~약산 구간을 1단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금일 일정~신도~금당~고흥 금산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 추진방향은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안은 국도 27호선 기점을 고흥 금산에서 완도 고금으로 변경, 국도로 승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과 제2안은 금일~약산간 연륙교 접속도로인 당목 우회도로 우선 착수와 금일~약산간 연륙교를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 중입니다. 1단계 구간 총 사업비 4,346억 원 중 1,500억 원을 금일해상풍력으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아 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내외에 우리 군의 사업 추진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도 승격을 위해 범군민대책기구 구성과 국도승격촉구서명서 징구, 그리고 완도군의회와 고흥군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7개 시도지사가 국도승격을 공동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륙교의 우선 추진을 위해 연륙교 접속도로인

당목에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착공이 예상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드시 본구간이 국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과 협의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고, 당목 우회도로 준공과 연륙교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국가계획 미반영이라는 이유로 선정되지 못하여 안타깝고 모두들 허탈해 했지만 우리 지역민의 최대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의 약속 민선7기 공약 진행 및 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실 저도 공약사항에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시간 좀 지켜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요. 직원들한테 대충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큰 골격에서 한두 가지만 먼저 말하고, 또 과장들한테, 실무자들에게 할 질문이 있고 군수님한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서 해양치유산업과 변환소 관련해서 바로 그렇게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보는 군민들한테 알 권리와 신뢰를 주기 위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소식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 다소 잘못 전달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군수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다음부터 그런 것을 철저히..... 군보를 기재할 때는 플러스가 됐든,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됐든 잘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의원님들과 군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약사항 이행도를 평가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될 때는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를 평가한 후에 52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평균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검증받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다. 또 우리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가지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관보다…… 아마 의원보다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우리는 생활을…… 직접 예산 투입하는 과정을 알기 때문에 뭐라 해도 의회 이상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세히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요.

한 가지 또 금일과 연도교사업이요. 민자본 1,500이 있잖아요. 이게 1,500인데 어떤 누가 1,500인지,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 아니면 어떤 재원인지, 이 민자본 1,500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군수 신우철

이것이 공사비가 600메가와트를 하면 3조 원이 투자됩니다.

그 투자금액의 5%, 그러면 1,500억이 됩니다. 이것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1,500입니다.

○ 최정욱 의원

무슨 자금이에요? 제가 이해를……

○ 군수 신우철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런 것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물어본 것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의원들 읍면 순회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소안과 노화 다리문제는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잘 안 된다. 그런데 군보에 보

면 금일과 약산 다리는 지금 한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추진 중에 있고, 저렇게 노력하는 모습인데 왜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빠져 있느냐. 후순위나 뒤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쪽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보에 올릴 때도…… 거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노화에서 소안간 연도교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것을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민선6기 군정을 맡으면서 그러면 1단계부터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않느냐고 했는데 완전 별개의 사업입니다. 완전별개의 사업이고, 그때 당시에 도서개발종합…… 개발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예타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470억을 했다가 나중에 증액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약 1,000억 이상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870억 미만으로 우리가 조정하면서 추진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두 군데 다 생각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가능성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을 선행할 수가 있다는 이런 답을 얻어냈기 때문이에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와 접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지금 투트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개발사업비로 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서개발사업비가 우리 군이 반절로 깎였습니다. 왜 이렇게 깎였냐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연륙이 된지 10년이 되면 육지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로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외, 완도, 신지, 고금, 약산까지 연결되어 버리니까 여기에 도서개발사업비가 깎였는데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2,000억이 1,000억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줄기차게 행안부와 국토부를 드나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열심히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군보에 금일 연도교만 넣고 소안과 노화를 빼버리니까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숙원사업인데 왜 우리는 빠져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군수님이 설명할 겸 그런 것도 다음 군보에 올릴 때는 같이 올려줌으로 인해서 그런 소외감을 안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군수 신우철

그것도 우리가 소식지에 검토를 했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희망만 주는 꼴이 되어 버리고 그래서요. 나중에 설명회를 별도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변환소에 대해서요.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이고 제가…… 군과 의회가 같이 범대위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요. 정말 찬반투표를 2번이나 거쳐서 무기명이나, 아니면 비밀투표냐를 거치고, 또 반대할 것이냐, 찬성할 것이냐 투표까지 거쳐서요. 결론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총 34명에서 24명 찬성. 아니, 24명 반대, 7명 찬성, 기권 3명으로 해가지고요. 34명이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돼서 변환소를 반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도 없고, 같이 앉아서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자주 주민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 군수 신우철

변환소 문제는 일관 되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환소, 안 오면 좋다. 들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범대위 결정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날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또 변환소라는 것은, 이것은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기

에 철도나 도로 또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이 다 공익사업이다. 이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반대하더라도 이게 추진되는 사례가 있더라. 진도가 그렇고, 그다음에 당진이 그렇고, 밀양이 그렇고. 갖은 행정심판에서 다 불허가 되고 밀양에서는 자살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음에도 결국에는 계획대로 추진하더라. 이렇다면 군정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더라도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도 똑같은 반대 입장이 되고.

진도 같은 경우나 당진 같은 경우도 똑같이 반대합니다. 군수가. 그런데 이것이 진행됐던 사례를 본다면 이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지역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변환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굳어진 제 생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문제가 나오는데 군수로 인해서 지역의 갈등에 관한 사례는 없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 오면 좋다, 군수는, 그리고 범대위 결정사항을 존중한다. 그러나 이 변환소라는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경험을 했듯이 불가피하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초지일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환소 문제는 더 이상 저한테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저도 오늘로 군수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또한……

의장님, 군수님의 답변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제 질문은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참고하라고 한 이야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 최정욱 의원

군수님, 방금 범대위 결정에 따르겠다, 완도에 오지 않으면 좋겠다.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그 말 꼬트머리에 어떤 말을 군수님이 하느냐면 공익사업이니까. 이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타 지자체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하고 똑같아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의원님의 생각이구요.

○ 최정욱 의원

아니, 밖의 주민들이 들을 때요.

○ 군수 신우철

예를 들면 진도도 강력하게 자치단체와 함께 반대를 했고,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져버렸죠. 그래서 그냥 지중화로 가버리고 진도 지역의 이익 하나도 없이 가버렸고, 당진에서 또 같이 반대하다가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대법원에 가서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밀양사건, 밀양사건은 정말 반대에 부딪치고 해서 결국에 두 분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대로 진행했던 사례들을 보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은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군수 신우철

군수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추진은 한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하는 일을 군수님이 대변할 필요가 없죠.

○ 군수 신우철

예를 들면 저기에서 군수하고 똑같이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했는데 그냥 지중화를 해버리고 가버린 사례들이 있잖아요.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전에서 하는 일이

지. 지자체장이 미리 한전에서 그럴 것이라는 예단을 뒤에서 깔아 버리니까 항상 주민들이 헛갈려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하게 되어 있고.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 최정욱 의원

그리고 군수님, 제가요. 군수님이 자꾸 밀양, 해남, 진도를 말하는데요.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군수님, 지금 밀양이나 해남, 진도가 변환소사업을 한 것을 몇 년도로 알고 있습니까?

○ 군수 신우철

음, 그것이…… 메모 좀……

○ 최정욱 의원

군수님, 그냥 제가 말씀할게요.

○ 군수 신우철

진도가 2009년도고 당진이 `14년도고 그다음에 밀양이……

○ 최정욱 의원

아니, 군수님.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양과 진도, 해남 저런 쪽은요. 전원개발촉진법이 변형되기 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전원개발촉진법이 국가에서 전력수급계획에 따라서요. 밀양에 가서 이렇게 변환소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자체장한테 가서 하면 그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허가 조건이 풀어지면서……

그런데 이런 것을 당하면서 국가에 너무 경제적인 피해와 또 지방간의 의견 차이가 많고 지역 갈등이 심해서요. 이것은 전체적인 국가의 손해로 해가지고 2015년도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해서 아주 무소불위한…… 일부 삭제한 것이 뭐냐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삭제하고 뭐를 넣었냐면 주민수용성을 넣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2015년도?

○ 군수 신우철

예,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공익사업은 추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때로는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이라는 것이 생기죠. 그러나 지금 현정부에서는 긴급적 지역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법과는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지금 벌써 해야 돼요.

또 두 번째, 국책사업이란 7차 전력수급계획이 육지와 제주도지. 완도와 제주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아시죠, 군수님도?

○ 군수 신우철

그 사업의 목적에, 사업의 목적을 보면 완도는 취약한 전력계통을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는 원활한 전기 공급을 하기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군수님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가…… 국책사업을 정할 때요, 전력수급계획을, 제주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육지에서 제주를…… 국가산자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완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른 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해서 한다면 제주를…… 완도와 제주를 산자부에서 정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지와 제주로 정했지, 완도와 제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왜 완도와 제주가 되게 되느냐. 한전이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완도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다고 본 거예요. 모든 것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왜 완도가 됐을까,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한전이…… 국가 산자부에서 완도와 제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용역에 의해서 완도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실장이 하는 말에 이런 것이 있어요. 전력수급계획 7차에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하

니까 자기들은 용역에 의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완도로 정했느냐고 그랬더니, 너희가 완도에 찾아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했냐고 하나까요. 김경수 실장이 법대위 총회 때……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간추려서 말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2017년도에 군수님을 처음 뵈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군수님이 알 것이라고 했어요,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내가 “너희가 우리를 속였지 않았느냐. 아니, 왜 우리 완도에다가 하느냐?” 라고 하나까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그 사업목적에…… 설명을 하잖아요. 사업목적에 제주도는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한 목적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제주도를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완도는 단 한 가지 뭐냐. 취약한, 그러니까 비상식 취약한 전력계통망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정전이 된다든가 할 때, 그럴 때 비상용으로 쓰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 최정욱 의원

아니, 군수님.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력수급계획에서, 국가에서 정한 것에 완도가 들어간 배경. 왜 우리 완도가 들어가서 이런 혼란을 겪는가. 처음에 산자부에서 완도로 정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전이 용역에 의해서 군수님을 찾아와서 2017년도에 완도의…… 제주도 전력이 필요하니 완도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설명을 군수님한테 드렸다고 이렇게 해요, 김경수 실장이.

○ 군수 신우철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없습니까, 확실하죠? 그러면 왜 그런 것에 대해서 번복을 한번도 안 합니까?

○ 군수 신우철

뭐요?

○ 최정욱 의원

그런 것을…… 그쪽에서 말을 그렇게 하면 아니라고 말을 하든가.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의원님이 계시는 장소에서, 2018년 12월 27일에 내가 한전한테 질타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지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을 다 무시하고 제3의 장소,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선정하면 수용을 하겠느냐. 수용을 하겠다고 한전에서 해서 우리가 전부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자리였고 우리가 제3의 자리로 물색하기로 합의본 바 있지 않습니까?

○ 최정욱 의원

군수님, 그것은 제가 직접 참석해서 알고요.

인환옥 과장도 그때 참석해서…… 범대위 총회할 때 자주 한전관계자들이 그렇게 해서요. 솔직히 자기들과 우리는…… 솔직히 우리 군수지,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의원님, 자주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말이 길어지는데요. 내가 한전의 변환소가 들어와서 찬성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 최정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완도읍의 현안사업이라 가는 데마다 질문이에요,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과 언제 앉을 기회도 없었으며, 물어볼 기회도 없었고.

범대위 총회에서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물어보면 이 여론이 잘못돼서 흘러가 버릴까봐 내가 그랬습니다마는 오늘은 군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군수님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 군수 신우철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는 알았죠.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 군수 신우철

완도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완도는…… 우리 완도에다가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수님은 2017년도에 한전관계자가 와서 만났을 것 아닙니까. 만났으면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설명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즉, 말하자면 한전이 와서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어떻게…… 한전이 군수님을 기망시켰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말을 잘못해서 군수님이 잘못 알고 승낙한 것인지, 한마디로.

○ 군수 신우철

아니요, 그것은 뭐 군수가 승낙하고 말고 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는 저것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제주도를 위한 사업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요, 군수님은?

○ 군수 신우철

그렇습니다. 저것은 제주도를 위한 사업이다. 우리 완도는 취약한 전력계통만 보강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처음에 와서 한전의 용역에 의해서 완도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는……

○ 군수 신우철

그런 것은 전혀 안 바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처음에 2017년도에 와서 군수님이 만났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제주의 전력수급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완도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한테?

○ 군수 신우철

그때는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한전에서는 그런 설명도 없이 군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자기들 기본계획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전혀 다른 것은……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때 계획도…… 완도에다가 한다는 계획은 없었네요?

○ 군수 신우철

예,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군수님은 그러면 그것을 몰랐네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제일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두 번째, 처음 2017년도에 한전관계자가 와서 한 말은 완도에 군수님을 찾아와서 제주도를 위한 사업만 설명을 했지. 완도에다가 용역 같은 결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 군수 신우철

알게 된 것은 나중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무렵에 얘기가 됐지, 그전에 완도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전의 김경수 실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는, 우리 군수님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용납이 안 되지.

○ 군수 신우철

다시 말씀드리면 변환소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찬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안 들어오면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해 봅니다.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완도군민들이 해양치유산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총 사업비 1조원이 투자되고 민선7기 군수님께서 완도 군정의 핵심적인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현시점에서 다시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이 문제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면서 예산확보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웰컴 최미경 대표가 최초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제가 평소에…… 제가 해양수산 분야에 있었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이 바이오산업과 그리고 해양, 그 당시에는 헬스케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치유산업으로 (칭취불능) 그런데 평소에 제가 관심 있던 사항이고,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면담한 후에 바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평소에 군수님이 되기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에 해양기본계획용역 결과 채미경 웰컴 대표가 제안 시 사업추진을 확산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도 바로 군수님이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남 고성, 경북 울진 4개 지자체를 웰컴 최미경 대표께서 용역하고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습니까?

○ 군수 신우철

사실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어떻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은, 해양치유산업과 관련해서는 완도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성, 태안, 울진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한 것으로 알았거든요, 직원들한테도 내가……

○ 군수 신우철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곳을 물색해서 거기에 웰컴과 고려대학교, 다른 데를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지자체 단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자료가?

○ 군수 신우철

우리는 우리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 군수 신우철

있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의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에 건의하게 된 것 아닙니까?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고려대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네요?

○ 군수 신우철

고려대에서 하는 것은 치유효과에 대한 것을 RN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려대에서 해양치유에 대한 각 4개 지자체의 과학검증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 군수 신우철

해양치유산업 추진과 관련해서 치유요법에 대한 효과, 이런 것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입법화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을 고려대학교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검증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 검증도 중요한 것이죠, 해양치유산업에.

○ 군수 신우철

그것은 나중에 입법하는 과정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추진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효과를 입증할 만한 뒷받침이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맞죠?

○ 군수 신우철

중요하죠.

○ 최정욱 의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면 4개 군이…… 사실 고려대학교에서 과학검증한 자료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해양치유사업단에서 2018년도 해양치유 4개 지자체 주요연구 성과입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4개 군이 거의 비슷한 연구과제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니 과연 이게…… 똑같은데 효과가 있을지.

○ 군수 신우철

저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면 치유요법은, 치유요법은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후치유를 비롯해서 바닷물…… 숲치료, 펄치료, 광물치료, 생물치료를 모두 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은 소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진이 지하암반수입니다. 아, 염지하수. 이렇게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후치유와 더불어서 숲치료, 광물치료, 그다음에 생물치료까지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테라피는…… 22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노르딕워킹을 하는데요, 이것을 따라서 태안에서 했어요, 태안에서 따라서 했는데요. 그때마다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노르딕워킹을 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수부예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각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양치유산업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못하게 해서 각기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그런 테라피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한민국, 우리나라 4면의 바다인데 4개 군이 언젠가는 거의…… 같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 군수 신우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노르딕워킹을 하겠습니까, 기후치료를 한다고 호흡을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될 부분이 고요. 그다음에 숲치료를 한다고, 바닷물치료를 한다고 바닷물이 오염된 곳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옆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기후치료를 한다고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없고 산소음이온 발생량 전국 최다, 또 바닷물 깨끗한 정도 그리고 바닷물의 성분 또 갯벌, 이런 종류가 다른 지역하고 완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우리 지역을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흉내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제공을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의 말처럼…… 들어보니 그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정말 여기에서 차이가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지자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성들이 다 있을 것으로 봐요. 우리만 다 잘났다고 하기는 그렇고, 거기도 지형에 맞춰서…… 물론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어떤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바닷가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무엇일까, 완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아직…… 군수님이 뒤로 알아보면 되겠지만 군수님이 그렇게 자신한다면, 물론 그렇다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군수 신우철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후치료를 하는 데에는…… 예를 들어 산소음이온 양이 우리가 3,100인데 전국 최다가 되면서 기후치료를 할 때 해양 에어로졸이나, 예를 들면 미세한 물방울이나 그다음에 공기를…… 호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비치바스켓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20~30분 동안 있으면서 호흡하고 해야 되는데요. 오염된 곳 주변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해양 에어로졸이나 공기를 마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 같은 경우 삼천포 그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고성도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이런 데는 기후차유하기는 힘들고, 아까 같이 노르딕워킹을 하는 곳도 태안에서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미세먼지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노르딕워킹을 하느냐.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지적인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좋습니다. 군수님의 자신 있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게 된 계고요. 또한 대한민국 4개 지자체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마는 군수님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다 빼고요. 그러면 유럽과 대한민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유럽의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해양치유산업 성공사례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행사 때마다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자료를 보시다시피 제가 유럽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저도 군의원 생활을 하면서 왜 해양치유에 대한…… 의원으로서 승인하면서 군수님과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이제 한 번쯤은 짚고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비교 한번 해봅니다.

이 자료는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유럽의 해양치유산업의 입지조건에 대한 제 생각을 단순히 비교해 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지정학적 측면에서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 도시로서 국경 없이 접근성이 좋고 화폐도, 유로화도

통일해서 경제활동이 자유롭고 정치, 경제, 문화 부분에서도 동질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남국이 분단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수단은 유럽은 철도나 교통망이 발달해 손쉽게 나라마다 이동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공편이나 선박을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고 일기 등의 변화로 입·출입 제약이 많이 따르며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국민성에 대해서는 유럽은 복지제도의 발달과 재산에 대한 소유개념이 우리나라에 비해 약하고 관광, 레저, 크루즈관광 등 휴양문화가 과거부터 발달되고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을 축적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의지가 강하고 돈을 아끼고 상대적으로 레저, 휴양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측면에서는 유럽은 55개국 우리나라 1.4배 정도인 7억 5,000만이 살고 있고 그만큼 유럽은 유동인구가 많아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200만이고 4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므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 유럽과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특징으로는 유럽은 연중 다습한 기후 영향과 피부 관리를 위해 사우나나 일광욕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분위기나 성격도 외향적이고 개방적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사진을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들은 피부 노출을 매우 꺼려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제품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휴가기간은 25일에서 30일이나 되고, 대부분 대륙 내 위치한 국가들로 휴가는 바다나 해양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해양치유에 대한 관심과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휴가일수가 평균 7일 정도이고 해외나 가족단위 여행에 급급한 실정이며 치유와 관광, 레저문화는 아직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군수님, 제가 지금 비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수 신우철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데는 환경과 문화, 그리고 치유방법 등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환경적으로 보면 유럽의 북부지역은, 유럽의 북부지역은 잦은 파도가 많아서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커먼 것이 되고요. 단지 기후치료는 가능하지만 생물치료나 광물치료를 하는 데에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행해지는 것은 기후치유와 더불어서 숲치료가 대부분이고요. 또 여기에서 해조류를 이용한 것은 완도에서 수입해 간,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이용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서 행해졌다가 아시아권으로 온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했다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그것을 덮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이제 해양치유에 필요한 것은 거기에 적절한 천혜적인 환경요건, 기후가 필요하고 또 깨끗한 바닷물이 필요하고, 갯벌도 가공하지 않은 갯벌, 그리고 바로 쉽게 바를 수 있는 갯벌과 더불어서 발라서 안전한 해조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갖춰져 있을 때 22개 테라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유럽보다도 완도가 더 좋은 조건이다.

예를 들면 독일 노르더나이시의 관광청장이 완도를 방문했습니다. 독일 노르더나이시에 없는 이런 자원을 완도가 지니고 있다. 정말 완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부럽다. 우리 독일 노르더나이시도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완도는 해양치유에 적합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연결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최대 규모의 상록 난대림으로 구성된 수목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요건과 더불어서 주변 국가에…… 중국도 못하고 일본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아시아를 찾으면 이제 완도를 찾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그러면 국내보다 국외를 비중을 많이 두고 말씀하시나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다함께 가야 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치유산업을 하고 다니기 때문예요,

국내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유럽하고 연결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국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죠?

○ 군수 신우철

국내에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입니다. 요즘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수영장 내에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워킹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좋아하십니다.

이렇듯 근골격계의 문제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치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해수치유가 될 것입니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손과 발만 가지고도…… 수술을 했던 사람도 재활치료를 바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우선되는 것은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아까 침체된 수산업과 농업, 축산업을 동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산업과 관광산업, 바이오산업이 함께 가는…… 이것을 치유산업 단 하나로 보지 말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요. 수산업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축산업을 살리고, 그리고 지역에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려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어쨌든 제가 그런 것은 군수님의 말을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내를 볼 때 유럽과 우리나라는 너무 국민성이나 이런 복지제도나 휴가문화나 해양레저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멀다고 봐야죠. 여기까지 와서…… 과연 누가 얼마나 치유하기 위해서 와서 할까. 외국은, 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유동인구와 복지제도, 또 서로가 왕래하는 인구밀도나 여러 가

지를 봤을 때, 또 그쪽은 치유에 대해 오래 전부터 생각을 가지고 있고.

○ 군수 신우철

우리나라가 2018년 말로 3만 불이 됐습니다. 요즘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보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가족과 함께 힐링하고 때로는 치유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치유하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만 불 시대와 더불어서 고령화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100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치유다. 치유효과가 높은 것은 산림치유보다 해양치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해양치유산업을 완도가 최초로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 정말 시대적인 상황에서 잘 잡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군수님의 의지를 들여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유럽과 시장성, 이런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군수님께서서는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의 백년 미래 먹거리산업이고 완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복, 광어양식산업과 해조류산업은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의 어떠한 사업보다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적 버팀목이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주력사업들이 살아야 젊은 인구가 유입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완도 수산물에 뒷전에 밀려 대책 없이 무너지면 완도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박인철 의원이 해양, 수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어차피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군수님, 민선6기와 7기에 들어와서 민선1기와 차이가 있다면요, 해조

류에 대한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 군수 신우철

무슨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를 들자면 유통이 됐든, 어떤 양식산업이 됐든, 뭔가 달라졌다면요.

○ 군수 신우철

지금 치유산업과…… 늘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수산업을…… 지금 수산업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인데 치유산업에 치우쳐서 수산업이 소외되고, 또 수산업이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 해양치유산업은 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충격요법이다. 이것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먼 훗날 아닙니까?

제가 군수님이 설명하는 것을 꼭 들었습니다, 박인철 의원한테.

○ 군수 신우철

이것이 준공시기를 보더라도 2021년에 치유센터와 문화기후센터 그리고 바이오연구센터가 다 들어갑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 또 질문이 있겠습니까마는 꼭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간선시대부터, 민선부터 생산과 양식…… 양식, 생산, 유통, 제조 짝 해보고 지금에 왔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 예전 군수님들이 다 했던 말이에요, 그때도 그 시대에 맞춰서 과잉해서 가격이 폭락되고 그럴 때마다 대책이 수요와 공급, 또 수출을 다변화해서 이것을 키워야 된다. 또 제품을 다양화해서 해야 된다는 소리는 (청취불능) 예전부터 많이 토의하고,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항상 토의를 같이 해왔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보면 뭐가 달라졌을까는 생각을…… 제가 듣지 못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지금 우리……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북 산업의 경우도요, 내가 민선6기 들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폐사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폐사율이 30% 이상, 50%대까지. 여기에도 그때 양식을 했던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와 같은 폐사율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가고, 또 이제는 이와 같은 전북산업을 어떻게 하면 소비를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전북과 관련된 제품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또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국제수산물 인증 제도를 해보자는 것도 우리 완도가 발 벗고 나서는 부분이고.

광어의 경우도 항생제로 갈 것을…… 항생제는 대안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백신으로 가야될 때다. 그때 백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양식어가들이 잘 따라줘서 우리가 백신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의 제주산과 완도산이 구분되고, 이제 완도산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이마트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상황에 걸맞게 완도수산물에 대한 상황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해조류 부분도 과거에는 우리가 식품으로 갔다가 전복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복먹이용으로 갔기 때문에 질 저하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식품용으로 가고 바이오산업용으로 가려면 거기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 뭐 군수님을 내가 탓하려고, 이유를 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도 수없이…… 예전에 그런 회의에 참석도 많이 하고 토의도 많이 하고,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항상 반복되는 말씀을 저는 그대로 들은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군의원이 돼서 한 가지 해야 되겠다고 한 것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해도 '아,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전문부서가 생겨야 되겠구나. 전문부서도 우리 직원들은 한계가 있다. 왜, 행정전문가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정년을 마친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습니다. 그래서 양식과 유통전문가, 또 무

역전문가, 제조전문가, 가공전문가. 적어도 이런 전문가가 포진해서 어떤 계획을 짜면 하나하나 풀여지지 않을까. 그것 하나만 하려고 해도 엄청난 일이 많은데 우리 직원들은 한두 가지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해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조직개편 때 이것을 하면 어찌됐냐고 했는데 결국에 무산되고 관심도 없는 것처럼 가버려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나면 해양치유산업은 과로 움직일 정도로…… 저 같으면요, 수산물도 얼마든지 좋은 대안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 좋은 뭐가 나올 것인데, 왜 이런 것은 관심이 없이 이렇게만 갈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 혹시 적어도 금방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 한 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군수 신우철

그런 이유 때문에 완도군에는 전북주식회사에 aT 출신사장이 대표로 와있고, 출신대표로 와있고, 그리고 전복을 장보고글로벌 재단을 통해서 장보고한상어워드를 제정해서 세계의 나라에서 성공한 한상들에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ASC 전문가로 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유통전문가.

이와 같은 것을 망라해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요. 이번에 갔을 때, 상해에서나 미국에 가서 그렇게 즉석에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aT가 이번에 미국 LA에 가서도 완도산 전복이, 바로 거기에 냉동전복이 전시되어 있는 이런 현상을 즉석에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해에 가서도 그렇고, 또 홍콩에 가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깔려 있는 그런 네트워크와 더불어서 aT 네트워크 그다음에 장보고한상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런 해외시장 개척이 탄력을 받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유통 분야의 획기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아니, 그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컨트롤타워는 있어야지. 군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군수 신우철

그것은 부군수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부군수님이 어떻게 유통에 대한……

○ 군수 신우철

TF가 구성되기 때문에 TF를 관리하는, 그것은 유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주식회사 대표, 그다음에 ASC 전문가,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한상어워드 관리책임자. 이 사람들이 의견을 고안하는 것이 컨트롤타워, 이것은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울러서 이 TF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부군수가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잠깐, 좀 그렇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적어도 양식이면요, 우리가 적어도 무슨 일이 났을 때만 대처하고 뭐할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전북 선양사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인지,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개발하고 꾸준히 하려고 하면 적어도 전문가가 거기에만 얹매어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을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같이 계속 꾸준히…… 거기에만 얹매어도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가공이나…… 아니, 유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요. 유통도 전문 수협이 됐든 주식회사가 됐든 유통들이 됐든, 이런 데와 아울러서 안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유통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검토하고 앞으로 나올 양을 대비해서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수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것의 계획을 세우고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가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제품 하나하나 개발해야 되고, 그런 전문가가요. 다 사실 필요하고요.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수출…… 전북주식회사요, 저 사장님을 믿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수출 이것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형식상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자면 수출도요, 수출이나 행사 이런 것을 어디에다가 해야 되느냐면…… 내가 행사를 30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완도에.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죠. 자매결연도 시키고 (청취불능) 없는 것을 내가 차로 싣고 다니면서 서울에…… 그 뒤로 백화점이고 어디고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는 유통구조나 소비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먹혔지만, 지금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 군수 신우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래서 유통구조의 변화, 이른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군의 홈페이지나 이숍도 전부 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식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남해수산연구소와 해양수산과학원과 해서 그 양식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다 개발해 냈잖아요. 그다음에 가공품도 지금 사회트렌드에 맞게 핵가족 제도화되면서요, 거기 일화용품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나왔을 때, 그나마 그런 제품들이 나가서 전부 다 수출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갖춰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분야는 해외시장 마케팅으로 해서, 그렇게 TF를 구성해서 가고 있다는……

○ 최정욱 의원

아니……

○ 군수 신우철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해갈 것이고.

이제 각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요, 거기는 또 해양바이오연구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도 있고, 또 국립수산과학원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과 논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군수님이 그것은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그런데 후속조치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받쳐줬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보완해 가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내가 봐도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원들의 구조나 이런 인사이동이나…… 아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것을 바라고 이렇게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전문가지, 그런 쪽으로는 아니니까요.

○ 군수 신우철

그래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된 것, 그다음에 ASC 관련된 것, 또 유통문제는 유통문 제대로.

○ 최정욱 의원

하여튼 군수님은 제 의견에는 동감하지 않네요, 그쪽으로는?

○ 군수 신우철

결론이 지금 어떻게, 의원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최정욱 의원

제가 말했잖아요. 정말 전문가들, 적어도 중년의 전문가들을……

○ 군수 신우철

나름대로 하고 있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했던 것이예요, 필요하면.

그런데 정말 이제는 전문가라고 하면 퇴직이나 정년하신 분들이 진짜 전문가예요. 다 겪어보고, 파악하고 산전수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해서 분야를 4개 분야 정도 그렇게 하면, 군수님도 편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편할 것이

고, 아무래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구조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이전 조직개편 때부터 했던 말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은 생각이 없으신 것이죠?

○ 군수 신우철

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을 실시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은 2030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이 사업이 성공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해양치유산업 총 사업비 1조 원에 공공이 3,000억, 민자본 7,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10년 안에 한다고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 군수 신우철

2030년으로 해놓은 것은 치유산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분야는 2021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 외에, 그 외에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치유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보험으로도 가야 되고, 또 그 외적인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완벽하게 치유산업이 추진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면 2030년까지로 보고, 그전에, 2021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유산업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치유센터와 문화 및 기 후센터 그리고 바이오연구센터와 공공병원, 그다음에 전문병원은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 또한 다 2021년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치유산업은 굴러간다. 그 이후에 민자시설로 여기에 더 필요한…… 골프테마파크라든지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축될 때를 2030년으로 넉넉히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치유에 해당하는 것은 2021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년, 그러니

까 2030년대에는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군수 신우철

2030년은 그 외적인 사항이 다 마무리된 시점이 2030년이구요. 치유센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2021년이면 다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요. 2021년도에는 그게 되는데, 2030년으로 잡은 것은 그 외적인 것을 다 여유 있게 갖기 위해서 2030년 연도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신우철

예, 예를 들면……

○ 최정욱 의원

그렇게 보면 되죠?

○ 군수 신우철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해서 나타나면 좋지만요. 스타트업까지 연결시켜 나가려면,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와 연결시켜서 그 산업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그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 앞으로 10년 남은 것이거든요, 결론으로 보자면. 그렇죠, 2030년이면?

그것이 10년 안에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질문해 본 것입니다.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 최정욱 의원

확신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공부문에 군비는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3,000억이 공공부문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가 거기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군수 신우철

군비는 그중에 약 1,000억 정도로 봅니다.

○ 최정욱 의원

1,000억이요.

○ 군수 신우철

그것은 예산 확보방법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공모사업으로 블루존 조성사업 같이 했을 때는 군비 부담이 훨씬 적어지고,

그런데 다행히 정부가 (청취불능) 있는 것이요, 바이오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 그다음에 해양관광거점도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유지가 된다면 국비와 지방비, 도비와 군비 이렇게 매칭 펀드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군비의 부담률을 훨씬 적어지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확보를 할 때는, 일반예산으로 할 때는 군비 부담률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우리가 RND로 추진한다거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특 문제가 지방비사업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해양치유 관련 각종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소요경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봅니다.

○ 군수 신우철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군수님, 사실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언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 저 역시나 한번 불러서……

○ 군수 신우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간담회를 요청했고요, 그것이 받아지지 않았습니까마는 앞으로 그것

을 정량화해 준다면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저도 오죽하면 오늘 군정 질문에 넣었겠어요. 이것은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죠. 내가 판단이 서지 않으니깐 군수님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그렇게 군수님이 하겠다면, 진즉 한번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더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저한테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원이 이해를 못하고 군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어떻게……

○ 군수 신우철

그 중요한 사항을 본안질문도 아닌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세워놓는 것은……

○ 최정욱 의원

아니, 군수님의 답변이 길었어요. 저는 시간을 맞췄어요. 이 질문 다 하면 15분 돼요.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줄이라고 해서 내가 나머지는 다 줄였어요. 군수님 답변을 최대한…… 군수님한테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나도 들어야 다른 데에 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 군수 신우철

다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내가 직접 해드릴게요.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설명을 다음에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그런 기회를 갖자는 얘기인가요? 아직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까요?

○ 군수 신우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것들이…… 결국 토론이 되어 버렸잖아요. 내가 이야기하고 의원님께서 또 이야기하고.

○ 최정욱 의원

아니, 내가 군수님 말씀을 듣고 거의 넘어가

죠. 군수님의 이야기를 내가 끊을 수 없어서 듣고 있는 것이죠.

○ 군수 신우철

다음에 토론회장에서 이야기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이런 것은 다 궁금한 것이거든요, 주민들이. 과연 지어놓고 운영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까. 그런 계획은 있을까. 내가 무슨 답을 못해요, 무슨 답을. 의원이 답은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한테 질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내가 넘기려고 합니다. 단, 마지막으로 내가 몇 가지만 할게요. 군수님이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나도 그것이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해양치유산업은 미래를 위한 장기사업이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국민성에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고,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주기식보다는 작은 것보다도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연도별 사업계획 준비를 위해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수정과 대책을 강구하며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치유산업은 우리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치료와 요양 쪽에 무게를 두고 자연스럽게 치유를 알게 하면서 휴양레저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째, 지금부터라도 타군과 비슷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의 장점을 살려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완도군민이 눈이 있어 보고 있고, 귀가 있어서 듣고 있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속앓이를 하는 군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서는 마음을 헤아려 우리 완도 발전을 위해 가감 없이 자기 소견을 말할 수 있는 투명하고 편한 토론문화를 살려 장단점을 현명하게 받아들여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 지역 현안사업도 잘 해결될 것이며 해양치유산업도 꼭 성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선7기 벌써 반이 되어가

는 시점에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들의 예산 확보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현재 완도와 미래 완도를 위한 공약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에게 답변 감사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석호를 보며)

부군수님, 매달 의원간담회하는 것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군수님은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집행부가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의회가 개원하고 매달 간담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간담회 때 한 달치를 다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자동적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오늘 군정 질의 때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부군수
- 기획예산담당관
- 복지행정국
- 자치행정과

(09시57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부군수

○ 부군수 정석호

부군수 정석호입니다.

먼저 1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관광정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관광객 현황 및 변화추이입니다. 완도군 관광객은 2016년 225만 457명, 2017년 312만 3,904명, 2018년 216만 9,88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방문객 93만 7,505명으로 2016년 대비 138%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박람회 입장객 수를 제외하면 1만 6,512명이 감소해 0.76%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감소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기간인 주말에 잦은 여객선 운항통제와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으로 해수욕장 방문객이 2017년 대비 30% 감소하였고, 가을 행락철인 10월에도 태풍 콩레이로 여객선 결항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쪽, 최근 3년간 관광 관련 수상내역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슬로시티연맹에서 주최하는 슬로시티어워드에서 2017년, 2018년 두 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으뜸해수욕장에 신지명사십리가 청결안전 부분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에 제작한 완도관광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앱어워드 올해의 앱에 선정되었으며, 국제가든 관광 네트워크에서 주관한 정원관광 컨퍼런스에서 보길도가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상에 다도해일출공원이 선정되었으며 2019년 1월에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슬로걷기축제가 선정되었고, 2월에는 해양치유생태관광으로 문화가치대상 우수 프로젝트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 추진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산업, 바이오헬스와 같은 청정해양환경과 바이오산업에서 중요한 해조류 등 우수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해양치유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을 융합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해양치유산업은 전국 4개 자치단체 중에서 완도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 중에 있어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전문병원, 마리나 리조트와 더불어 해양바이오 연구소가 건립되면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182억 원 규모의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총 사업비 20억 규모의 스마트 해양치유마을 조성을 위한 행안부 시범사업에 군외면에 선정되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살펴보면 해양생태도 1등급,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인 ASC 인증 획득으로 청정바다수도 완도로서 대외 신인도를 얻고 있으며, 특히 국내 최초이며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획득한 신지 명사십리의 블루플래그 인증으로 청정완도의 이미지를 드높였으며 2,000억 원의 규모가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로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시아 최초 국제슬로시티 인증이 지난해 완도군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중앙정부의 한중 정상 우호협력사업인 이순신, 진린장군의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 완도 고속도로 완도~제주간 고속철도, 완도~고흥 지방도 830호선의 국도 27호선 승격을 통한 접근성 개선으로 서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관광재단을 통해 다양한 여행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마련하여 민관이 협력한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활용한 건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먹거리, 건강관리, 휴식 등 세계적인 관광트렌트에 맞춰 권역별 자원 발굴을 통한 완도 전지역에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웰니스 관광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통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생태자원을 관광아이템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린장군 선양사업을 통해 중국인을 비롯한 해양치유 의료관광산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장기적인 대책 외에도 단기적인 대책으로 국내관광 트렌트에 맞춰 명사십리해수욕장에 어린이물놀이장 설치, 장보고기념관에 VR체험시설 도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관광정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한국 100선입니다.

부군수님, 혹시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런데 전남에서 보면 죽녹원, 섬진강 기차마을, 녹차마을, 해남 미항사가 이렇게 선정되었는데, 완도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정석호

저희들도 2019년과 2020년도 관광 100선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어렵게 선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 아시겠습니까?

장보고…… 드라마 해신 촬영 시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차량행렬 사진이죠. 보면 우리가 강진까지 밀렸다고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부군수님께서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저도 그때 당시에 완도를 왔습니다.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완도를 다녀가셨는데요. 최근에는 관광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개발하고 관광지 개발도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보면 완도관광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너무 단편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께서서는 완도군에서 한국 관광 100선에 들어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우리 군에도 역사문화자원인 장보고 유적지라든지, 보길 윤선도 유적지, 묘당 충무공 유적지, 완도수목원, 슬로시티 발상지인 청산도 등 수많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1년도에……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선정된 그런 자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다수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100선의 문제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운영관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간의 연도별 관광객 현황의 추이를 보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군의 접근성이 낮아서 재방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정체되었다고 보고 있고, 또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최근 관광패턴을 보면 접근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접근성을 이긴 사례도 있고요, 해신을 통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본의원은 소재와 스토리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 또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고 있고 올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보면 부군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요,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방안으로 해양치유산업을 통한 해양관광도시 실현을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려운 관광산업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 해양치유산업이 역동성 있는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요,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콘텐츠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보면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자원을 몇 가지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니다. 전혀 없습니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 목포 외달도라고 하죠. 거기 슬로시티가 요즘에 유명한 것 아니죠? 그런 것 한번 보시고요.

또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국제인증 프로그램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정석호

블루플래그 인증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도군의 바다가 청정하고, 우리 지역이 청정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관광객을 확보하는 데에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인증이라는 것은 원래 까다롭습니니다, 사실. 그리고 또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은 관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지 명사십리시설을 좀 관리해서 관리기준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제인증 관리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국제인증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오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니다)

인증만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효과를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관광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광자원을 어떻게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좀 부실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때 관광객들 80% 이상을 점유했던 윤선도 유적지 중심에 보길, 노화, 소안권역에 대해서는 관광정책이 한 줄도 없습니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부군수 정석호

물론 노화, 보길, 소안지역도 우리 지역의 다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크고 작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니다라는 보고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완도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요. 또 웰니스 관광 선도, 외국인 관광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완도관광문화재단의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현재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과업기간을 금년도 9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9일까지 해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니다.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웰니스 관광 선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사진은 웰니스 관광 25선에 선정된 진안 홍삼스파하고 장남진 편백숲, 산청 동의보감의 사

진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공사에서는 2017년도에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했고 발표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웰니스 관광의 주테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힐링, 치유를 목적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주테마는 한방이고요. 그리고 힐링과 명상도 있고요. 뷰티와 스파 또 자원의 숲, 치유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준비를 하면서 또 언제 선정하겠다는 계획인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사계절 온화한 기후를 활용한 건강한 관광지로서 군외면에 스마트 해양치유마을을 조성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신지 명사십리에서 매월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지면을 중심으로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해양치유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 전국 유일의 난립 상록수림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요. 현재 약산면 동백숲 조성사업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통해서 외국인을 유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2020년부터 고금면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고금면 일면에서 발굴조사를…… 전라남도 투자심사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이 완공되는 2023년도에는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과 덕동리 일원의 생

태자원과 역사자원을 연결하는 해상데크길 조성으로 매력적인 관광인프라 구축과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운부시와 문화교류를 확대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요. 예전에 저희들이 설화 속의 인물들을 보면 홍길동이라든가 바보 온달, 그런 것을 가지고도 자원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장보고라든가 이순신, 윤선도, 이광사 이렇게 역사에 실존했던 인물들이 산재하고 있음에도 관광자원에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서 그것을 자원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이야기거리도 많이 만들고 해서 자원화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인물관광의 실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또 이러한 자원들을 핵심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보고선양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린 장군, 이런 본선양사업을 통해서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는 답변서를 보고 본 의원은 느낀 바가 좀 큼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실효성 있고 성과 있는 완도관광정책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체감한 것이 사실이 큼니다. 완도관광의 현실을 인식하셨다면 좀 더 실효성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현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길도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운영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가, 또 소안도의 항일운동의 경우는 얼마든지 역사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소안 항일운동에 대한 방송을 보고 저 또한 놀란 적도 있습니다. 이

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그런 자원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의원은 완도군의 관광자원이 가보고 싶은 관광 100선에 선정되지 못한 원인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관광, 자원관광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또 보완해서 과거 우리 해신의 그런 영광을 한번 누릴 수 있게끔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치유산업을 관광과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소요되는 부군수님의 말씀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진하다 보면 우리가 소중히 다른 자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정석호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다음은 5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박람회 개최 필요성입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산업 육성 전략에서 나아가 바다환경과 인류건강을 위한 해양치유산업의 가능성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 주요 정책인 4차산업, 기술개발, 바이오 에너지, ICT·BT 융복합 식·의약품 등 해조류산업의 활용가치의 확대로 국가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국내외 투자유치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조류산업 특화단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4년과 2017년도 박람회 성과분석입니다. 질적성과입니다. 2017년 박람회 관람객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0.5%를 기록하며, 2014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수출상담

회 참여업체 설문조사에서는 해외바이어의 66%인 30개 바이어가 유망품목 발굴을 목적으로 수출상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차례의 박람회 개최로 수출계약과 상담은 2017년 박람회는 2014년 박람회 대비 45%와 142%가 각각 증가하여 해조류산업의 활성화 및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에 기여하였고, 기업 및 참가국가 증가, 해외바이어 유치로 국제교류 추진에도 이바지하는 등 해조류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박람회 주요 성과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박람회 주제 및 컨셉입니다. 2021년 해조류박람회 주제는 단순하되 방문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주제 선정에 위한 자문위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5개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치유의 바다, 바닷말이 여는 희망의 미래로 선정하고 컨셉은 기후 조절자로서 바다를 건강하게 회복하고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하는 해조류의 가능성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목표달성 방안입니다. 관람객 유치 목표인원은 내국인 61만 명과 외국인 3만 명을 포함해서 64만 명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일반관람객과 비즈니스 참가자를 세분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관람객 유치 성과가 집중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인프라 및 관련기관, 여행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3만 명의 외국인관람객 유치를 위해 해조류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학회, 대학, 연구기관 협력 워크숍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한국방문객 유치를 위해서는 전남도 등의 협조를 받아 우호 자매교류 해외도시 및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초청하고 공식여행사 초청설명회, 중국인관람객 유치 등을 추진하고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안산시와 우리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사관, 코트라 등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인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분산 개최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1년 박람회는 이전 박람회 불편사항인 긴 관람동선을 줄여서 전시테마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완도해변공원을 주행사장으로, 신지 명사십리 해변을 부행사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분산 개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부행사장은 주행사장과 자연스런 연계를 위해 셔틀버스와

해상서들을 운영할 계획이며 해상서들은 안개, 우천 등 날씨 변화에 취약하여 운항 중단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상악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승객안전매뉴얼 마련과 셔틀버스 임시 증편 등의 행사장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입니다. 2021년 박람회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60억 원, 수입금은 40억 원입니다. 수입금 중 입장권 판매는 64만 명으로 설정하여 전체의 77%인 31억 원, 휘장사업비 5억 원, 임대사업비 4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휘장사업은 선행 박람회의 경험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임대수익은 기업교류관과 특산품관의 부스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10%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매몰비용에 따른 대책입니다. 2021년 박람회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신규시설 건축 없이 2017년 박람회 콘텐츠 장비를 재활용하고, 기존시설과 연계한 전시관을 활용하여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이후에는 개별 시설의 사후 활용방안 여부와 개조 후 재활용 등의 단계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및 해조류산업의 홍보효과를 위해 박람회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지역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사후 임대방안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박람회 상설전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 박람회에 생산된 자원을 집적화하고 신규 제작된 영상 및 전시물을 상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호응도 및 참여대책입니다. 2017년 박람회 사후평가 주민 만족도에서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박람회가 해조류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조사에는 전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21년 박람회가 관광객 수 증가, 해조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박람회 개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의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고 성과가 분명한 만큼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시행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해조류박람회

는 국가를 대표하는 행사로 그동안 완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두 차례의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로 2021년 박람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한다는 당위성을 피력하여 주민 참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박람회 기간 중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는 스페셜데이를 계획하여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관련 산업체 종사자의 관심을 촉발시켜 박람회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21년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100억을 계획하였으나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사업비 93억 원을 승인받아 일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비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력하여 기재부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미확보 시에는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비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지리적 위치와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외국인바이어, 전문가 등의 섭외여건이 불리하지만 그 동안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와 국내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 사무국 구성시기 및 인력 확보방안입니다. 박람회 사무국은 내년 1월 초에 6개팀 22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조직개편 시 인력을 파견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왜 해조류국제박람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한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박람회 개최는 우리 완도군이 해조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조류를

주제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조류의 판촉활동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핵심은 해조류산업의 육성과 해조류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함이 주목적입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회에 걸쳐 박람회를 개최하였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정성적 성과, 정량적 성과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정성적 성과로는 2017년 박람회 관람객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80.5%를 기록했고 주민만족도는 주민 53.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6.4%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상담회에 참여한 해외바이어 및 국내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상담…… 성과 및 만족도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72개의 업체 중에서 70개 업체가 참여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정량적으로는 2017년 박람회 총 수입이 1,000…… 1,200만 원, 1,000억 2,200만 원으로 지출이 94억 2,200만 원으로 비용편익이 1.06으로 전문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봅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 유발이 1,421억 5,500만 원, 부가가치 유발이 592억 8,200만 원, 고용창출은 2,156명이 창출되었습니다. 전남지역에는 생산 유발이 936억 3,700만 원, 부가가치 유발이 421억 4,000만 원, 고용 유발은 1,79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5,230만 달러의 수출계약이 체결되었고 2,90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다섯 개 국가 7건의 MOU 체결 등을 통해서 지역기업 해외진출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이 평가입니까? 정성적, 정량적 평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면서 한번 의논해 보게요.

본의원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완도라는 인지도가 상승되었고 행사기간 중 숙박 및 음식점소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해조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해조류산업에 대한 부가가치나 활력화 차원에서는 전혀 도움이 없었고, 오히려 정체 또는 퇴보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서 `17년도 박람회가 `14년도 대비 수출계약이 45.3% 증가되었고 수출상담도 142% 증가되었다는 것은 질적 성과로 부군수님이 답변했듯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계약들이 수출로 이어졌는지, 수출로 이어져 해조류산업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결과 조사, 유지관리, 부군수님, 되고 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출…… 저희들이 2017년 박람회를 통해서 수출계약이요, 4개국에 3,6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는데, 실제 수출로 이어진 것은 1,000만 불 정도 수출을 해서 약 25%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전남개발공사에 용역을 줘서 이것 사후평가를 했죠? (예)

저도 그때 군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전남개발공사에서 박사님 세 분이 오셔서 가지고 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용역평가 그것이. 그런데 부군수님이 2017년 박람회 시 5,230만 불 수출계약을 했다고, 뭐 성과를 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조사에서는…… 우리 군에서, 또 전남개발공사에서 제시했던 것의 10% 미만입니다. 겨우 몇 컨테이너 정도 갓을 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모든 행사가 시작과 끝 점에서 (칭취불능)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결과는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점 좀 양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해조류산업을 위한 박람회였지만 박람회

이후 해조류산업에 대한 기반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소비가 확대되었습니까? 즉, 해조류산업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었던 박람회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것이 2번에 걸쳐 추진되었던…… 이것이 해조류박람회의 현실입니다, 해조류박람회에 대한. 부군수님, 제 의견에 동감이 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해조류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해조류 소비가 정체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조류 소비가 정체된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등을 주로 먹는 도시민들이 해조류를 잘 먹지 않아서 줄어들었다고 보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부군수님, 우리가 해조류박람회를 한 것입니다. 어제 군수님 답변에서도 거의 1인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1인 가족이 된지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마케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조류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니까?

부군수님이 조금 전에 93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요, 이번에도 답변서에는 군비 2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비가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빠져있는데요. 본의원이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마는 완도가 해조류 중심지라고 하지만 생산량, 부가가치는 타 시군에 완전히 빼앗겨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미역은 고흥, 김은 해남, 다시마는 진도에, 다시마는 부산 기장에, 매생이는 장흥. 완도군이 선점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해조류가 하나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본의원이 부군수님에게 박람회의 목적을 물어 보고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린 것은 세 번째로 개최되는 2021년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반드시 해조류산업에 영향을 줘서 해조류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박람회가 되어야 함으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 부군수 정석호

예,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음은 7페이지의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와 컨셉입니다. 주제와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관람객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그 주제를 보고 뭔가 딱 떠오르는, 즉 말해서 박람회를 여는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2021년도 국제해조류박람회의 핵심은 정체되어 있는 해조류를 어떻게 홍보해서 국민들의 식탁으로 유인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부군수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동의합니다.

○ 박인철 의원

해조류를 어떻게 해외시장에 팔 것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해조류의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주제와 컨셉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결정하겠지만 실용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제와 컨셉은 하울 좋은 (청취불능) 사업보다는 군민들의 눈높이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군수님, 관람객 유치대상에 있어서 어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역주민들도 중요하고 외부관광객, 뭐 다들 중요하겠죠.

그러나 본의원이 가장 중요한 분야를 물어본 이유는 박람회 개최의 핵심은 해조류산업의 활력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대상자

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문졌습니다. 2017년도 박람회 개최 시 풀무원, CJ, 동원산업 (청취불능) 등 국내 수산물 대기업들이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박람회 시에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내 대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대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조류 관련 대기업체를 (청취불능) 그 담당을 지정해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고 홍보하고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부군수님 뿐만 아니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국내 수산물기업들의 참여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조류박람회의 품격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박람회에 가면 전시관에 완도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내 대기업들 브랜드입니다.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기업체 유치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내업체, 수출바이어, 해외업체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발전된 해조류산업을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핵심역할이 필요합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동의합니다.

○ 박인철 의원

따라서 국내 수산물 대기업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산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2번에 걸쳐 추진된 박람회 시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대체로 보면 어떤 박람회나 각종 행사의 경우 지역주민이라든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장권 구매 때문에 그 할당 문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박람회 입장권을 판매량을 보면 읍면, 향우회, 또 완도의 기타 건설업체들, 완도하고 계약을 하는 건설업체들한테 배정합니다. 또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은 마을로 배정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마을은 공동경비에서 부담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박람회에 대한 이질감이 생깁니다. 또한 읍면향우회에서 오면 각 읍면별로 그 향우들을 다 대접합니다. 다 여기 박람회 기간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이 잘 인지하시고 앞으로 2021년도 박람회 입장권 판매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부군수 정석호

최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음은 행사장과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분산 개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 개최를 하는..... 왜 분산 개최를 하는지, 분산 개최 시 장단점에 대하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행사장을 분산한 것은, 예전에 동선이 너무 길고 뽀뽀해서 분산 개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를 했을 경우에는 관광객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또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장시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들었고요.

분산개최 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육상과 해상으로 해가지고 지역 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해상셔틀 같은 경우에 날씨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가 문제됩니다. 그때 육상 셔틀버스를 증차하고요. 또 저희들이 제1부두에서 신리 해수욕장 선착장으로 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리 해수욕장에서 두 행사장까지 가는 셔틀버스와 또 열차를 거기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열차라든지 해가지고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행사장에 이동할 수 있도록.

○ 박인철 의원

예, 잘..... 거기에 대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동선관리입니다. 분산 개최 시 관람객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별로 동선관리가 필요하고 사전 홍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통체계입니다. 해상과 육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육상의 경우 완도읍에서 신지면 진입구역, 관외에서 신지 진입구역, 장보고대교에서 신지 및 완도읍 진입구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차량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정체가 예상되는 구역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상교통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신지 선박접안장에서 행사장까지 거리가 2km 이상 됩니다. 방금 부군수님이 그에 따른 설명을 하셨는데, 신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배를 가지고 신리에다가 접안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또 다른, 거기에 또 시설물이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두 행사장 주변의 음식 등 식당의 문제입니다. 관람객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산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것입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주행사장과 부행사장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전시연출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부군수 정석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박람회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선이라든지, 교통 체계라든지, 행사장 배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신지 부행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그게 완공이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2주차장 주차구간을 부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2주차장은 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선다는 곳 아닙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그쪽인데요. 해양치유센터 앞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에 해양치유과에서는 바로 내년도에 국비, 군비,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 부군수 정석호

공사는 시작하겠지만 완공은.....

○ 박인철 의원

완공은 안 되지만 그 공사하는 데에다가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부군수 정석호

거기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별도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 또한 매몰비용이죠?

○ 부군수 정석호

예, 텐트 (청취불능) 비용까지……

○ 박인철 의원

다 매몰비용이죠.

다음은 사업비 관련입니다. 기재부에 승인된 93억으로 추진합니까?

○ 부군수 정석호

93억이라고 딱 여기에서 못 박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확보를 최대한하고,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그런 프로그램은 좀 줄인다든지, 그렇게 사업비를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국제 승인을 다 받고 했다고, 예산이 다 확보 되었다고 하더구면, 부군수님이.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9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직 확정이…… 뭐 해수부하고는 국제 승인으로 인정을 다 받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이 말이죠?

○ 부군수 정석호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100억으로 (청취불능) 됐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요, 총 사업비는 어차피 다시 확정되어야 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93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이 예산만 소요됩니까?

○ 부군수 정석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대한 100억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데요, 만약 여의치 않으면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해가지고 사업비를 맞춰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사업의 운영분석입니다. 2021년도 입장권 수입계약은 전년 대비 13.8%가 감소하였고 확장사업은 5.8% 증, 임대사업은 8.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계획 중 증감 요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입장권 수입은 저희들이 목표 입장매수를 63만 명으로 설정해서 결정을 했고요, 임대수입 같은 경우에는 기업관을 해조류 관련 기업의 홍보를 목적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입점기준이 까다로워서 참여업체의 60%가 판매위주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기업 홍보를 위한 기업 교류관과 판매를 위한 특산품관을 분리 설치해서 임대수입을 보다 높여나갈 계획이고요, 확장사업의 경우에도 목표 입장객 수가 수익성 판단기준으로는 2021년 박람회는 입장객 수 측면에서 사업자 관심을 끌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행박람회를 기조로 해가지고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해조류박람회는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분석하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매몰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선 2017년도에 활용했던 워터스크린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군비 20억을 의회에서 승인했는데 집행 하셨나요?

○ 부군수 정석호

그것은 2018년 1월에 차기 박람회 개최 방안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결과, 워터스크린 건물을 자을 부지선정 문제라든지 차기 박람회 (청취불능) 맞지 않아서 불용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을 부지가 없어서 불용 처리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장소를 확정하기가 그때 당시에 곤란하다고 그래서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워터스크린을……

○ 부군수 정석호

별도로……

○ 박인철 의원

어디에 지금……

○ 부군수 정석호

금년도에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3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본 행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해조류박람회 중 제일 큰 문제가 부군수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몰비용은 그대로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람회를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박람회 상설전시관을 지어서요, 그것은 4년마다 한번씩 하는 박람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전시관을 짓는다면 생활편의시설이라든지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로 지어서 활용한다면 매몰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2014년, 2017년 2번에 걸쳐서 해

조류박람회를 치렀는데 제일 문제가 매몰비용입니다. 매몰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각 실과소에 해조류박람회 때는 별도 예산으로 최소 60억에서 70억 정도가 잡힙니다. 박람회라고 묵은 안 세우지만 우리가 추적해 보면 다 박람회 목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번 해조류박람회를 할 때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조금 전에 93억, 100억이라고 이랬는데 170억에서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도 문제거니와 거기에 갖춰져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박재선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관광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관광하고는 전혀 연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전시 연출한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시설물 중에 사용할 것이 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 중에서 어촌전시관과 해양생태전시관, 장보고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은 재활용한다고 하고, 장소가 있냐고요, 재활용할 장소.

○ 부군수 정석호

아, 보관하는…… 보관하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 박인철 의원

아니요.

○ 부군수 정석호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안 하고요. 재활용은 어촌전시관하고……

○ 박인철 의원

그런 모든 것들을요, 가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시설물을 우리가 기존에…… 방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해양생태전시관이나 어촌민속전시관이나 이런 데에 연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군수 정석호

일단 박람회가 끝나면 이런 전시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은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의 문제고요. 박람회 기간 중에……

○ 부군수 정석호

박람회 기간 중에는 별도……

○ 박인철 의원

없죠,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해조류센터 하나는 가능합니다. 해양생태전시관, 안 됩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전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물을 넣을 데도 없습니다. 거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2번의 박람회 사례를 보면 박람회 이후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전시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0억 중에 한 10억? 그 10억도 지금 창고에 있지 재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람회를 하면 전체가 매몰비용입니다. 우리가 순천 정원박람회나 가까운 장흥 의학통합박람회나, 여수 해양엑스포는 그것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 심도 있게 검토해서 2021년도 박람회는 매몰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부군수님?

○ 부군수 정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2021년 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면 부군수님은 1차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1차 수혜자는 어민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정석호

본의원의 분석으로는 식당, 음식, 숙박시설, 일반상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민들일 것입니다. 해조류박람회에 대하여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어민들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왜 어민들이 해조류박람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물론 그것도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수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민들한테.

따라서 2021년에 개최되는 박람회는 전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람회 시 주행사장 부근의 식당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나 큰 도로 안쪽에 있는 식당들은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완도읍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높습니다. 박람회를 안 할 때보다 손님이 더 없다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번 장보고수산물축제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당을 그쪽으로 안내…… 붐비니까 그쪽으로 가라고 안내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일단 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완도군내 음식점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점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한 가지 예로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운영요원 등을 활용해 분산 배치하여 그러한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람회 사무국이 내년부터 운영되죠, 소요인원은 22명이고요?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22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박람회와 관련하여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정석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연 평균 휴직 인원이 30명 이상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박람회 사무국으로 22명을 파견하면 매년 50명 이상의 결원이 생기는데 인력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우리 군 현재 정원은 695명인데 현원이 679명이고 결원은 16명입니다. 박람회를 22명으로 구성하게 되면 총 34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 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미임용자 1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도군 자체로 뽑을 인원이, 또 뽑아야 되는 인원이 21명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22명 아니고요?

○ 부군수 정석호

21명, 새로 뽑을..... 그래서 총 3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박람회를 개최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결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2년 정도의 결원 발생률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하여튼 박람회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존 업무처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인원을 활용하여 우리 직원들의 피로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마무리하겠습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현재 정채되거나 퇴보하고 있는 해조류산업을 살리는 박람회, 긍정적인 성과 보다는 정량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계획과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조류박람회는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람회 이외의 예산을 포함하여 개최할 때마다 170억에서 200억 이상의 예산이 소모성예산으로 즉, 매몰비용입니다. 따라서 `21년 박람회는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성공여부는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업인들의 참여는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혜당사자인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조류 본연의 박람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양치유 연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2개 다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170억에서 200억 이상이 투입된 2021년도 완도국제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성과를 기대하면서 부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한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12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주 2회, 직원 월 1회, 강사초청 특별교육은 총 7회 실시하

였습니다. 금당면 외 4개소에 대해서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설·추석 명절, 하계 피서철 공직감찰 및 특별 암행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도군홈페이지 및 기획예산 담당관실 내에 비위공직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12개 읍면 29명의 청렴옴부즈만을 위촉, 읍면 종합감사 참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자 부정부패행위 정보 제공 등 청렴완 도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결과 총 160건을 적발, 시정 32건, 주의 128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5,937만 8,000원의 추징 및 회수 등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27명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자체 종합감사와 수시 공직감찰을 통하여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감찰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유형별 징계 현황입니다. 자세한 징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청렴도 평가 등 향상 종합대책입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우리 군의 청렴도는 5등급으로 최하위로 평가되어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발표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서별 원인분석과 향상대책을 수립, 군수님 주재 하에 보고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청렴옴부즈만 워크숍을 개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민원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 만족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서별 개선사항을 발굴 통보한 바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된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강화 및 갑질 및 부정부패 익명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컨설팅을 11월 완료 예정으로 있어 본청 및 읍면 찾아가는 권역별 청렴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완도군 청렴리더 37명을 선정하여 10월 7일과 10월 8일까지 2일간 워크숍 및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페이지,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기추진 중인 시책들과 함께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 이수제와 청렴시책 우수부서 및 읍면 포상제 등을 추가 운영하여 깨끗하고 청렴

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 불이익 및 페널티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비위행위 점수제를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위행위 점수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교육선발, 복직포인트, 국외연수, 콘도이용, 직위해제 등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위행위에 따라 최대 점수인 10점 도달 시에는 직위 해제에 해당되며, 비위행위 점수는 당해 직급 내 계속 누적됩니다. 금후에도 엄정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비위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조치로 비위행위 발생 예방 및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최근 전국을 휘몰아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는지 편안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공직자는 항상 모든 생활에 있어서 청렴하고 또 부조리 없이 공정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느꼈습니다. 공무원을 예로 든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무원에 임용돼서 들어왔어도 국민들은 그것을 사회적 특권으로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또한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사회적 특권으로 보더라고요. 그런 추세입

니다. 쉽게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변화 추세라고 봅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아직도 타성에 젖어있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사회변화에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분야가 공직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에 대해서 본의원이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은 질문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기강 및 청렴은 공무원의 기본의무니까요, 의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공직자는 정말 청렴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편의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군수님의 경험과 우리 군의 실정을 비교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공직자들이 대체로 보면 타성에 많이 젖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부조리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기 보다는 관행에 젖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도 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되는데 제도상 퇴출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출중한 경험을 되살려 우리 군의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개인의 이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우리 군 행정조직의 시스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공직은 특별권력 구조로 형성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힘은 대단하죠, 그러나 그 힘이 나오는 원천은 바로 특별권력 구조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 조직시스템상 팀 단위, 과 단위 이렇게 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단위, 과 단위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 보면 팀 간, 과 간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제가 보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가 6급 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6급 팀장은 핵심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6급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 연세 드신 팀장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나이도 먹고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에 젖어 가지고 무사안일하고, 일들을 밑에 직원들한테 다 시키고 본인은 결재만 하는 그러한 관행 때문에 공직문화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저도 그런 부분 동감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 읍면, 일부 팀, 일부 과에서는 조직원들 간의 권력과 이기주의 때문에 조직 내 불협화음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 간 이전에 사법문제도

생기고 그랬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렇게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트러놓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조직 내 특별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특별구조가 무너지면 행정의 힘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나 부서장이 강하게 지시하고 싶어도 팀 간의 소통…… 주무관들은 달리 이견이 있고 또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또 눈치를 보느라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죠?

○ 부군수 정석호

그런 문제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것 현장 파악도 하고 계시겠네요?

○ 부군수 정석호

그런 것까지는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경험에 의하면 팀장이 자기는 일을 안 하면서 나한테만 시키니까 내가 불만이 있어서…… 팀장한테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요, 나중에 청렴도를 평가할 때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청렴도가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개인들의 이탈도 문제가 있지만 본의원의 판단은 특별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부군수 정석호

사실 저희들이 특수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권력관계라기 보다는 지위체계가 안정하게 확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급자라고 해서 밑에 직원을 억누르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직원 간에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직장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는 것이 우리 군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평소에 본의원이 밑에…… 주무관들도 만나보고, 직원들도 만나보고, 팀장도 만나보면요, “일하는 것이 좀 어떠냐?” 라고 하면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힘듭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1번으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 부군수님도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이…… 같이 해야 되는데요. 직원들 간의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서로 힘드니까 “진짜 못해 먹겠습니다. 그만둬야 될 듯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신경을 잘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입니다.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는 4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 종합해서 5등급. 도내에서 21등, 2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거의 꼴등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제가 봤을 때는 공직 내부의 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간의 화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야유회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자가 이제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소통에 역점을 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청렴도를 보면 내부청렴도 인사분야에서 2016년, 또 2017년을 보면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18년도에는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떨어진 7.7%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청렴도는 인사문제가 제일 크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시죠?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읍면에 발령되고 그런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보인사라든지 승진인사를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래도 2016년이나 2017년도 인사는 그래도 공직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예측 가능한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요즘…… 2018년도에는 잘못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측정 시 많은 공무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인사분야가 청렴하지 않다. 그래서 점수를 안 준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제일 문제가 인사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부군수 정석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나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정책을 아무리 실현한다고 할지라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직원들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저는 청렴도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조직을 사랑하고 직원 간에 서로 협동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청렴도는 결코 향상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잘 화합하고 조화를 이뤄서요, 올해 평가는 향상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장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한테……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완도가 창피하니까 좋게 설문에 응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감점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청렴도 향상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직자 분들한테 점수를 주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시스템을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진짜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이렇게 점수를 잘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입니다.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외적인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 직접 관리하고 챙겨야 될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사문제고, 또 외부청렴도 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인사부분이고, 또 외부는…… 즉 말하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들한테 얼마만큼 직원들이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 이런 부분이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렴도 측정에 있어서 친절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안 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청렴도 조사를 할 때 민원인들이 부결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됐을 때에 대해 보다 더 친절하게 해가고요, 안 되는 부분을 상세하고 소상히 설명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절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 면 단위나 군 단위에 온 민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쪽 부서에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면 그쪽에서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 가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또 “다른 데로 가십시오.” 라고 합니다. 군에 와서 한 네 군데를 돌다보면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온다는가, 읍면 단위에 나왔을 때는 엄청난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나와서 일을 다 봐야 되는데 일을 못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이 직원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제 업무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에 가면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외부 청렴도와 관련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지 않느냐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자면 민원실에다가요.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솔직히 어느 부서에 가서…… 저희들도 헛갈릴 때가 많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이 일을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봐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민원실에다가 부서를 하나…… 자리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면 이런 내용을 보고 “여기 부서로 가십시오.” 라고 하는 안내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정석호

안내요원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파악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청렴도 관계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필요하겠지만, 공직자들이 직장 내 공지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측정할 때 공무원들이 자

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불만사항부터 표출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 김양훈 의원

보고서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청렴도 등급이 높은 영광군을 멘토로 해가지고요. 청렴도가 특별히 낮은 기관이…… 완도와 장흥군이 4등급입니다. 여기를 멘티로 해서 권익위원회 위원 2명과 민간자문위원회 1명으로 그룹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컨설팅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속 공무원 중 직무수행이 매우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직원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조직 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 대해 부군수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팀에서 주기적으로 감찰하고 업무수행 능력 같은 것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분들도 일을 하지 않고 또 불친절하고, 그분들 때문에 더 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고요. 이런 직원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직장 분위기만 흐리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래서 그렇게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들을 퇴출하기 위해서 비위 점수제를 시행했습니다. 비위 점수가 10점에 도달하면 직무정지 또는 퇴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평소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이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일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권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정석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부군수님, 이제 공무원들의 철밥통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등의 조치를 잘 취해주시고요. 그래도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품격과 자질이 없다면 과감하게 직권면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비점수제를 시행하면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요. 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 김양훈 의원

부군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음주운전, 폭행, 업무상 횡령, 기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34명 정도 됐는데요. 34명에 대한 업무배제 또는 인사 조치하신 것 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지금 저희들이 징계처분한……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견책, 정직 이런 것 말고, 감봉, 이런 것이면 인사 조치에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나 어디에서나 음주운전, 공무원의 폭행, 또 명예훼손,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업무상 조금 잘못해 가지고 그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서 특단의 인사 조치나 뭐를 했는가. 읍면에 전보하는 것은 말고요. 왜냐하면 우리 군 행정에서 뭐가 좀 잘못되면 읍면으로 전보합니다. 읍면도 행정이 필요한 곳입니다. 읍면에 전보하지 말고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읍면으로 발령을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하신 것 있으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금년에 제가 인사위원장으로 징계한 것은 감봉한 것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감봉은 여기에 나와 있고 다른 어떤 특단의 인사 조치는 있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아직 없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충격요법으로 뭐 그런 것은 없었죠? (예)

왜 제가 물어보나면 전년도 질문답변 시에 내가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 군도 서울시 처럼,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치를 취하자고 했는데요,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보고서에만 이렇게 나와 있지,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 부군수 정석호

앞으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1명 감봉 조치한 것도 신규직원입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감봉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도 부군수님이 잘 아시죠?

○ 부군수 정석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직원이…… 저번에 내가 조인호 의장님하고 도의회 의원들하고 만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왜 면접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을 우리 군에 보내서 다른 공무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게 하냐고 했는데, 그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같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요. 그런 직원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읍면에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읍면에 놔놓지 말고 본청에 데려와서 특별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님, 공직기강이 무엇인지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공직기강이란 공직자는 근무하는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직무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율과 법도입니다. 공무원의 규율, 법도, 이것만 지키면 공직기강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못 미쳐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서울시나 평택시에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 알죠? (예)

평택시를 보니까 올 2월 2일에 아주 엄청나게 공무원 분들한테 규율을 줬구먼요.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사회봉사명령 96시간, 청렴교육 이수 20시간, 복지포인트 전액 감액, 성과급 미지급. 엄청난 이런 것을 했구먼요, 평택시에서는.

○ 부군수 정석호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터.

○ 박인철 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연대책임도 물었구먼요. 그렇게 하면, 주무관이 하면 위에 팀장과 과장이 연대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우리 군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이니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정석호

근무평점은 전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전직원을 가지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국 제도가 생겨서 부서장들이 먼저 근평한 다음에 국장님들께서 다시 거기에서 전체…… 동 내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 나머지…… 각국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그 순위를 결정합니다.

○ 박인철 의원

최종 결재자는 부군수님 아닙니까?

제가 왜 이란…… 공직기강, 모든 것 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이야기했던 화합, 소통 다 좋습니다. 이 근무평점이 제대로만 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의 평등. 우리들이

보통 보면 직원들이 읍면에서 본청으로 오려고 하고, 본청에서는 지원부서로 가려고 합니다. 왜, 근무평점을 잘 받기 때문입니다. 사업부서에 있으신 분들 밤낮없이 일해도 항상 근무평점에서는 뒤로 처집니다. 우리 의회직원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들 편만한 것 같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근무평점이 항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무평점만 객관적으로 되더라도 우리 직원들…… 조금 전에 김양훈 의원이 말씀했던 청렴도 같은 것, 내부청렴도 같은 것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니까 국·단장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것은 부군수님이 특별히 챙겨서요, 직원들한테 근무평점을 가지고 불만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부군수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다음은 17페이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2018년 12월 기준 완도군 인구는 5만 1,477명으로 10년 전인 2009년 대비 2,824명이 감소, 5.2%의 감소율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282명씩 매년 0.6%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2014년, 2017년, 2018년의 인구 감소율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감소율인 0.6%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인구변동 현황입니다. 2009년 대비 40대 이하 및 60대 인구가 감소했으며 50대와 70~80대의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이중 10대가 27.1%, 20대는 26.5%로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연령층인 20세부터 49세의 인구는 남성보다 여성인구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는 2018년의 연령대별 증감현황으로 50대 이하 인구 및 70대 인구가 감소했고, 60대와 80대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위 표에서 보였던 지난 10년간 증가했던 50대 인구가 최근 2018년에는 60대로 변동되었고, 지난 10년간 감소했던 60대 인구가 70대 인가로 나타난 것은 인구 고령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감소 요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난 10년간 인구감소 요인별 인구수를 보면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2,290명 더 많고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1,729명 많게 진행되어 인구 감소요인이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출생자 수는 386명, 사망자 수는 615명이며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는 매년 229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증감 그래프를 보시면 2010년에 출생과 사망에 의한 감소가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2010년 실제 출생자 수 437명으로 2012년 449명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2009년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것도 출생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전입, 전출에 의한 인구감소의 사회적 요인입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전입자 수는 4,448명, 전출자 수는 4,621명이며 전입과 전출에 의한 인구는 매년 173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순전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09년과 2014년, 2017년, 2018년에는 인구감소율 또한 최근 10년 연평균 감소율 0.6% 보다 높았으며, 순전입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2012년, 2015년은 최근 10년 연평균 인구감소율 또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생과 사망보다 전입, 전출에 의한 감소가 인구변동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순이동자 수 그래프를 보면 20대 이하 및 70대 이상 인구가 감소하였고, 30대 및 60대 인구는 증가했습니다. 군의 높은 고령화율에도 70~80대에서 순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완도군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찬 미래완도를 비전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가족친화환경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군민의 질 향상, 군 활력 증대를 위한 새로운 유입구조 형성

이 세 가지를 정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비전과 정책목표에 따라 5대 전략을 정하고 그에 따른 중점과제와 부서별 61개의 세부사업이 검토되었습니다. 5대 전략에 따른 61개 세부사업은 별도로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구정책으로는 지속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애주기별 연계된 정책에 더욱 집중하여 장기적인 출산, 육아 기반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돌봄비용의 일부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및 가족상담과 자녀돌봄기능 수행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청년센터 설치와 운영,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지원 등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 문화, 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지역 내 정착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마트 해양치유마을을 조성, 어촌체험 살아보기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유출 예방을 위해 지역의료체계 강화 및 여가활동 지원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유관기관단체 및 주민 참여대책으로는 유관기관별 담당부서 지정 책임제로 완도군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여 인구 늘리기 공감대 형성으로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쳐 생활편의, 여가문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군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이외에도 귀농·어촌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리더 및 주민들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종합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의장님, 점심 조금 늦어도 되겠죠?

○ 의장 조인호

예.

○ 이범성 의원

부군수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인구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했던 바가 있습니다. 인구와 땅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이자 미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완도군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땅 또한 타 시군보다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익적사업을 위하여 부지확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완도는 섬으로 이루어져 시설물을 유치할 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유치는 물론, 투자유치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국공유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범성 의원

먼저 10년간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인구는 최근 10년간 평균 0.6%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9년 대비 2,824명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높고, 전입보다 전출이 더 높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입보다 전출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답변서에서 보셨듯이 최근 10년간 20대 이하의 인구와 70대 이상의 인구에서 전출이 많고요, 오히려 30대에서 60대까지의 인구는 전입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인구 전출은 남도의 특성상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부모와 함께 전출함으로써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에도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고 도시에서 취업하게 되면 전출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본의원도 부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연령대별 인구 변동현황을 분석해 보면 40대와 60대 인구가 감소되고 50대 및 70~80대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0대와 20대 사이 감소율은 2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20대 이하 진출이 심화되고 전국적으로 (청취 불능) 10대에서 2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봅니다. 40대에서 60대 인구는 중장년층의 전입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이범성 의원

맞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만큼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적고 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 나가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인구변화 추이, 변동현황, 유형별 분석 등은 대체로 분석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거주하는 인구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많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에 등록된 인구수가 보통 실제 인구수보다 5,000에서 6,0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금년도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주민등록 실태조사는 매년 4회합니다.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요. 1분기와 3분기는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2분기와 4분기는 자치단체가 주관해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진출이 될 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군이 할 일입니다. 잘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된 지방 소멸 위험지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흥, 신안군의 경우 30년 이내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지자체로 발표되었고, 완도군의 경우에도 소멸위험지수가 0.253으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하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존립문제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저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5대 전략 61개 세부사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대책이 인구정책 5개년 종합대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인구정책을 오래 전부터 추진해 왔죠?

○ 부군수 정석호

인구정책은 예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인구가 증가할 때가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제가 알기로 인구가 증가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계획만 잘 짜지. 그에 따른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못했는지, 인구가 늘어난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줄어든 인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었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어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인구만이라도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인구가 어떻게 보면 완도의 존립근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가니까 참…… 본의원도 그에 따라서 엄청 완도의 존립근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변동 현황을 분석해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0대, 20대 연령층의 감소가 가장 심하고, 50대, 70~80대 연령층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수립 시 이러한 증감영역에 대하여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동의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다면 10대, 20대 연령층 감소율을 어떻게 줄일 계획이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완도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장보고장학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마는 최대한 완도에서 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아이들이 진학 때문에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완도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본의원도 동의합니다.

하여튼 10대, 20대 연령층의 대부분은 학생연령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명문학교 만들기 정책은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인구정책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학회 이사회 개최 시 반드시 이런 정책을 설명하여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추가한다면 민선6기 군수님 공약사항에 가장 한국수산대학 설립이나 완도캠퍼스 신설은 어려운 사항이지만 인구정책과 고령화된 양식어업인의 인력 확보차원에서도 다시금 추진되어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이유로 군수님께서도 수산대학 유치를 고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입학정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산양식기술연구원 현대화방안 등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요,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군수님 질문 때 미역가공공장……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미역가공공장에 엄청난 인력을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고향으로 다 가버린 것 알죠?

○ 부군수 정석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고흥 원초가 좋다 보니까 고흥에 있는 공장에 다가만 주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이쪽에서 가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쪽으로 다 빠져 나가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공단지의 과거를 들춰 보면 농공단지가 가공공장으로 해서 그냥 미역을 찢는다든가, 뭐 줄기를 찢는다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다 갔거든요, 고흥으로. 그러니까 완도 자체……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부군수님도 그런 것을 챙겨 가지고요, 지금 전복먹이용 미역만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도 시설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실과별로 연구해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자료 좀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로는 최근 정부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전제하에 발표한 핵심전략입니다. 부군수님, 한번 보셨습니까?

○ 부군수 정석호

예, 자료 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출산을 위주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인구정책의 방향전환을 선언했다는 뜻이죠? (예)

정부 발표자료에 근거하여 우리 군이 관심을 가져야할 영역은 첫째로 생산연령 인구 확충분야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재취업 활성화와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며, 둘째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분야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적응입니다. 셋째, 고령인구 증가 대응분야에는 우리 군 연령변동 추이상향을 고려해 볼 때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사진은 영광군입니다. 지난 8월 28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82명으로 전국 2위, 합계출산증가율은 0.28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금년도 1월 조직개편 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여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다음 자료 한 번 더 올려주시시오.

동사진은 고흥군에서 전국의 청년향우를 대상으로 귀향·귀촌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진입니다. 고흥군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인구정책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부군수님, 2장의 사진을 보시면서 느낀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인구정책을 대부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등 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범정부 인구정책 TF팀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정책적 방향을 고려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꼭 검토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질문만 하지, 실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제 입만 아픈것 같습니다.

○ 부군수 정석호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심했다가 우리도 다른 군보다 더 잘 하지는 못해도 해나갈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인구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5만 인구는 무너질 것입니다. 기존 사고를 버리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행정의 틀을 좀 바꿔주시시오. 둘째, 조직개편 시 전담부서를 신설하십시오. 인구는 완도의 존립근거이

자 미래입니다. 셋째는 인구정책,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십시오. 유관기관 단체도 마찬가지로요.

하여튼 부군수님, 인구가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고, 이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5만 인구가 무너지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점심시간이 다 됐고 오래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완도군 전체는 못했고요, 조사를 한 번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전입을 안 하신 분이요, 학교마다 8명 내지 7명. 전체 전입이 된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부군수 정석호

저희들이 전에는 인구 늘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냐고 물어봐 가지고 권장해서 이렇게 모셔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 단체에 임직원들이 완도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공문도 보내시고 또 직원이 찾아가 보시고요. 어떤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다른 때는 전입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군수님이..... 기관단체 회의를 하시죠. 그

때 꼭 협조해서 전체 전입할 수 있도록 부탁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석호

저희들이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우성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완도소식지 제작배정은 매년 2회 설, 추석 명절에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해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군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그동안 총 57회에 걸쳐서 제작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요 예산으로는 총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평균적으로 1회 발간 시 2,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연도별 집행액은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편집 및 제작절차는 발간 1개월 전 부서별 자료취합 후 총 3 내지 4회에 걸쳐 내용을 기획, 수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소식지 배부대상 및

배부내역으로는 매해 4만 부를 발간하여 관내 다중집합시설인 버스터미널, 향만터미널, 주요 관광지에 배부하며 군민은 읍면사무소를 통하고 출향인과 명예면장, 홍보대사 등 4,000명은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희망완도소식지 활성화 방안으로는 보다 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지역 편중 없이 내실 있게 구성하여 군정 홍보에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인쇄 관련해서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입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희망완도소식지 제작, 배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담당관님,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소식지는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고향소식을 알리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제도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한다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협조나 참여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맞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배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상자별로 어떻게 나눠서 배부하시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배부 대상자는 군민, 출향인, 명예면장을 대상으로 해서 1회 발간 시 4만 부를 발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군민, 출향인, 명예면장님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배부하는 과정은 읍면으로 나눠주시나요, 아니면 객지는 우편으로 하시고 읍면은 읍면별로 그냥 나눠주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관내 군민들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외에 계시는 출향인들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중집합장소인 터미널 그런 데는 배치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읍면은 직원들하고 이장들하고 나눠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장들이 전달하지 않고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하면 다 안 가져가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것을 봤는데, 완도읍은 알바생을 이용해서 그것을 배부한다고 하던데 그것은 완도읍의 재량으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우편료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읍면에도 지원해 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큰 읍 단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읍 단위만요.

그러면 소식지 편집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편집은 군수님, 부군수님, 담당관님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편집을 하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먼저 1개월 전에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취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초안을 1차로 편집해 가지고 각 부서로 다시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식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까지 50……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취불능) 했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방법을 개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소식지56호, 57호를 전부 보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회소식을 제외하고 총 76건의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식지 표지를 제외하고 19면인데, 3면 이상이 해양치유산업이고 군정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상을 받은 내용과 약속이행을 잘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 또 구체적인 수출성과가 없음에도 수출계약을 성과로 판단하는 해외시장 개척, 실체가 없는 해양관광허브도시 등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56호와 57호를 판단해 봤을 때,

이런 식의 편집은 행정의 일반적인 홍보에 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선 군정소식지가 우리 군민들과 향우들에게 그동안의 군정성과 및 운영계획 등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산업은 우리 군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군민들에게 자세히 알려야 되고요, 수상실적은 또 외부에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외부평가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도 있게 했고요. 고향소식지에, 군정소식지에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과 해양관광도시 육성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물론 해양치유산업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

해야 될 중요사업입니다. 그런데 19면 중에서 3면 이상이 해양치유산업으로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출향인들한테 배부하시고…… 명절이 되면 그분들이 고향에 와서 보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살고 있는 금당 분들이 명절 때 와서 이 소식지를 봤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담당관님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2개 읍면 전 소식을 다 다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발간 시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꼭 그런 것도 좀…… 골고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완도관광산업 이렇게 추진한다. 여기에 있어서 윤선도 유적지 등 보길도는 빠져 있습니다. 보길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군에서 보길도 관광에 대하여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면을 늘리더라도 읍면별로 균형 있게 소식을 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12개 읍면 소식이 기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소식지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초 해양환경관리팀을 운영한다는 기사

입니다. 어민 및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될 내용은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정의 성과는 주민들의 협조 없이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내 일이다.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내용이 무엇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같이 화합해서 하자.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의견을 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요. 담당관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소식지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런데 소식지의 근본적인 문제는 편집절차 및 편집권에 있다고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가지고 계신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는 그런 편집위원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다시 한 번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전북 진안군 소식지 편집위원회 워크숍 내용입니다. 진안군 소식지 발행 및 운영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식지의 기능과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모범사례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안군 같은 곳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완도군 소식지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예산입니다. 예산이 우리는 5,700만 원으로 중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해남, 장진은 한 1억 원 정도 되고 장성군은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주문했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더라도 꼭 확인해서 가지고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소식지 인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 관내에 있는 신문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알기로는 15개의 완도출판사와 인쇄사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다는 못 물어봤습니다. 마는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완도신문사에서 한번 인쇄하고 나머지는 완도에서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담당관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 말이 맞는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번에도 저희들이 완도에 있는 신문사로 쫓고요, 추석 때 한 것도, 저번에는 완도신문에 쫓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제도를 통해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이것도 입찰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입찰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될 수 있으면 완도에 있는 업체가 이런 인쇄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역제한을 뒀어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세하더라도 완도에 있는 업체로 정해서 소식지가 인쇄되고, 그분들도 같이 동참하고,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잘 알겠습니다. 지면을 늘려서 읍면의 소식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인쇄관계는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남산면 쪽으로 갔을 때도 그쪽에서 굉장히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내용은 한 줄도 없다, 그리고 그쪽다리에 대한 내용도 한 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루 지역안배를 해가지고요, 지면을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여기 소식지에 명예이장이 있는데, 명예이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전에는 명예이장 관리를 철저히 잘해 가지고 우리 군 홍보나 행사나…… 이런 데에 많이 참여하고 또 우리 특산물 같은 것이 판매도 많이 되고 그러던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명예이장이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식지만 배부를 하는가, 아니면 이 관리를 따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대답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명예이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에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활용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며)

이것이 희망소식인데요, 소식지입니까, 홍보지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소식지입니다.

○ 박인철 의원

소식지죠, 그런데 조금 전에 우성자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의 홍보지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군정성과라든지 군정계획에 대한 소식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너무 뻥튀기된, 있는 그대로 하면 좋은데요, 너무 많이 나가요. 해양치유센터 건립부지 다 확보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해양치유 320억, 센터는 확보되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연도별로……

○ 박인철 의원

아니, 내년도 예산도 안 했는데, 국회에서 예산도 안 건들었는데, 내년도 60억하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 박인철 의원

지방비와 군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된 것처럼…… 이제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겨우 확보된 것은 5억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러니까 총 예산은 320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억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실시설계비만 5억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이번에 해양블루존도 도에서 예산이 깎였다면서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기존에 되는 대로만 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홍보지도 조금 전에 했는데, 편집위원도 주민참여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되어야 됩니다. 편집도, 군청의 군수님, 부군수님, 또 담당관님하고 홍보담당관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게 주민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이 되면 홍보지가 나올 것인데 그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담당관님, 저도 간단히만 물어볼게요. 혹시 잘 알지 모르겠는데 드론훈련장, 교육훈련장, 잘 알죠? (예)

제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한번 갔는데 들은 것이 있어서요. 거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드론교육원 유치는 완료가 됐고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1명이 교육을 수료하고 있거나 수료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올해 그렇게 해서 됐는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에는 군민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의 접수를 받아서 군민들까지 드론교육을 실시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군민들은…… 돈이 들어가는 교육비는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을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드론을 유치했다고 100%로 공약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유치를 했으면 뭔가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드론산업이 산업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드론교육에 의해서 실효성 있게 완도가 필요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지금 32명이 하고 있는데 최소한 50명은 되어야 겨우 자기를 인건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집해 보면요, 군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내년에는 바로 문을 닫아야 할 처지래요. 할 수가 없대요. 운영을 50명 정도 되어야 그나마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일반인한테 할 것 이냐고 하니까 220만 원이래요, 1인당. 일반인들 중에 누가 220만 원을 주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군에서 어떤 대책이 안 나오면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공무원들만 현재 하고 있는데 일반 군민들까지 확대해 볼까 계획 중에 있고요.

예산 지원여부는 선거법 관련으로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분야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 최정욱 의원

들어보니까 해남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지자체에서 50 대 50으로, 그러면서 타 군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요. 타군인 해남에서도 자기들한테 온다고, 2명이 왔는데 거기는 이런 제도로 하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것이 됐지만 유치해 놓고 내년에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반 군민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지원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서 적어도 체계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요. 어떤, 어떤 분야에 이것을 쓰게 돼서 산업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요. 계획을 잘 세워보십시오. 무조건 교육만 해서 돈을 낭비하면 뭐 하겠어요. 배웠는데 쓸 데가 없으면 뭐하고, 그런 것 좀 잘 체크해서 계획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2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굴한 다음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소요, 우리 군과 해당 없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 3년간 총 326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118건을 공모신청, 82%인 9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21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포기사업으로는 2018년 수산경영과 소관 U-IT 융합 모델화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설비시설 목적으로 신청하였으나 U-IT 융합 모델화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포기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은 미추진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시 선행조건 및 선정을 위하여 총 33건의 용역에 대하여 10억 5,46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쪽, 공모사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내역입니다. 지난 3년간 총 19건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56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세부내역은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긴급한 공모사업 정보 입수 및 응모 기간이 짧은 공모사업에 대해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모동향 신속 파악, 정보공유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공모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접수기간이 짧아 접수하지 못한 사업 중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은 추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모사업 신청 시 군비 부담분 미확보 상태에서 응모하고 선정 후 군비를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여부와 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대응능력 및 선정률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공모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미선정사업의 원인을 분석하여 철저히 보완한 후에 재응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와 선정된 공모사업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본안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담당관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군정 질문답변 때 이야기했죠. 우리 중앙부처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런 사무들이 지방으로 많이 위임되고 있죠.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담당관님이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평균 공모사업에 선정된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 기준으로 볼 때 총 33건에 708억, 금년도는 현재 기준 총 36건에 55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나름대로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한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금년도 공모사업 중에서, 122건 중에서요. 61건은 제외되고요, 또 61건 중에서 22건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9건이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요, 36건은 선정되고 3건 미선정됐다는 답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중 추진불가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단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을 보며)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거점형 청정…… 건립사업이 있죠, 담당관님?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단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습니까?

사업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좌석에서) 그 공모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우리 국장님…… 아니, 과장님은 아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제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공모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강진 수협에서 위판하고 있는 우리 군 어민들의 위판행위를 금일수협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약산이나 고금에서 이러한 위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소안 수협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파악한 위판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약산면 당목에다가 위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위판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매인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확보되어야 중매인들이 나설 것인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수산군인 완도군에서 못하면…… 강진 수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안 맞다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강진군에 귀어학교라고 개설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좌석에서)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귀어학교는요, 해양수산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선정해야 될 정책이 아닙니까. 강진군에서 귀어학교를 개설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귀어학교를 개설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좌석에서)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해양수산기술원과 협의해서 완도군 개설 여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리고 복지행정국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족센터 건립사업이 있죠. 자료에 의하면 추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추가 불가한 것이 아니고 여가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가 불가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뭐 예산지원의 문제라든가, 활용의 문제라든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성 의원님께서 항상……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답변도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50대와 또 70, 80대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공모사업은 그러니까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좌석에서) 나름대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낱알이 파악해 가지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다음은 제가 경제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따로……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잠깐만요, 실국장님을 답변하실 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국·단장들이 일어서는지 보고 질문을 던지십시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면 국·단장님께 여쭙…… 질문지를 안 던져서요,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십시오.
국장님, 여객자동차터미널을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으로 해서 BF 인증사업 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예, 알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저기도 보니까 추진 불가 답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좌석에서) 제가 그것은 상세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는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것이 터미널인데요. 터미널은 사실 공영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장애인들을 위한 BF팀입니다,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 정책보다는 먼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좌석에서) 예,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앓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단장님들이 직접 한번 챙기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도 하고 신설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후에 성과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수시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다면 성공사례가 있으면 그 성공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지금…… 완료된 공모사업은 `14년 도라든지 그런 과년도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공모사업 추진 시에 보면 해마다 160~170억 정도 군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고, 또 보완할 문제가

없는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리고 감사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모사업 관리라든가 운영, 이런 상태를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관리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부서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있다면……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 결과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를 제대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제대로 부여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사업계획서를 하나 만들거나 ppt를 제작하고 그런 것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টে를 정확히 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소요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한 후에 신청하도록, 작년에도 그랬죠,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앞으로 대규모…… 공모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금년도 간담회 시에도 특정인한테 해가지고 15억이나 6억, 뭐 그런 군비가 투입된…… 선정된 후에 의회에 말씀한 적도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래서 현실상 맞지 않고, 또 그런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비 확보로 인해서 공모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에서는 완도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후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겠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있죠. 어민들이나 군민들이 보면 정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이요, 그런데 실과에서 읍면 단위로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 보조사업을 홈페이지에 신설로 개설해서요, 우리 군민들이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얼마든지 지원하고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고란을 통해서 정부지원사업은 전부 지원을 하고……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정부 보조사업은 해먹는 사람만 해먹습니다.

그러니까 신설로 개설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년에 무슨 사업들이 내려 오는지 다 알고 있으면 그 시기 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각 부서별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요, 군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고를 잘 숙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6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51%이며 재정자주도는 58.26%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계획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총 2억 1,370만 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총 13억 6,998만 원으로 1인당 평균액은 129만 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총 4억 7,785만 원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행사축제경비는 총 61억 8,54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관련 4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보상금은 총 8억 7,38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이장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자체노력 분야와 감액제도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먼저 자체노력 분야는 주요 경비를 얼마나 절감했느냐는 세출 효율화 항목과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을 반영하는 세입 확충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평가방법은 전전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전전년도 경비가 많으면 페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제도는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하여 중앙부처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경우 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를 감액하는데, 감액된 재원들은 감액이 없는 지자체에 교부세 산정비율만큼 보전액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우리 군은 총 35억 8,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는 2017년도 박람회 개최에 따른 행사축제경비 일부와 지방세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인한 세입확충 분야에서 일부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교부세 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완도군 2017년도 기준 결산자료입니다. 우리 군의 부채

비율은 0%이고, 수익계약 비율은 8.09%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017년도 지방세는 176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163억 5,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2억 6,800만 원이며 2017년도 세외수입은 250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231억 6,300만 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1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기반해서 예산요구단계 성과계획서 작성 시부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와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성과계획서에 기초하여 성과를 측정하는 한편, 그 결과를 다음 예산편성 시 환류하는 등 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상경비는 절감, 선심성·전시성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재원은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투자심사, 지방재정 영향평가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행사축제경비는 총액 한도를 적용하고 사전, 사후심사를 강화하여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은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지 매입,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총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운영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부정 수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세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선 산정 시 반영되는 통계자료 관리는 물론, 자체노력 반영분야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항목에 대해서는 책임부서별로 연중 점검 관리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령위반 과다지출, 개별 법령 규정절차 위반, 의무사항 미준수 등에 따른 교부세 감액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부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십니다. 우리 군 연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6,000억이 넘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2회 추경까지 해서 5,706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양훈 의원

1번 자료 한번 올려주시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재정규모 변동추이표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 2015년도에는 한 3,300억, 2019년도에는 4,500억 이렇게 한 33%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시시오.

두 번째 자료는 세입예산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46%, 보조금이 38%,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8%. 우리 군 세입은 거의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번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시시오.

다음은 세출규모표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분야가 21%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 해양,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 환경보호분야가 16% 등 됩니다. 본의원이 우리 군 세입예산, 세출예산 또 최근 5년간 재정규모 등의 자료를 제시한 것은 예산규모를 알아야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장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서 표로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담당관님,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5년간 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분석해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증가율이 한 1.4% 높고 잉여금은 평균 0.4%로 매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완만하게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 이후에 정부 세제개편에 따른 국도비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잉여금이 증가한 측면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국도비 지원사업 잔여물량 반납에 따른 군 부담금하고 국도비사업 포기물량 부담금, 또 군 지자체 잔여물량 이런 것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업(청취불능) 적극적인 사업자 발굴 미흡, 또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잉여금이 비록 완만하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지만 사용하지 못한 만큼 당해 연도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물론 잉여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 활용은 됩니다. 활용은 되지만, 다른 필요한 사업에 전혀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이는 회계연도 독립원칙과 건전재정 원칙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성과분석을 잘 해서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회계연도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6.2%에 해당하는 3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7년도 예산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347억 원 중에서 예비비가 약 125억 정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폭이 계약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잔액발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담당자들의 예산관리 소홀로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 김양훈 의원

본의원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실 있게 작성하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금은 거의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작성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맞습니다. 각 부서마다 전부 다 형식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의원님들도 예산을 결정할 때 각 실과에 그렇게 예산을 정리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우리 군 성과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8년도 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전략목표가 한 20개, 정책사업목표는 103개에 지표수가 209개 정도 됩니다.

○ 김양훈 의원

달성률은 몇 %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52% 살짝…… 그 정도 됩니다.

○ 김양훈 의원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분석자료 표를 보시면 초과달성이 109개, 미달성이 100개, 달성률이 한 52.2% 정도 됩니다. 특히 제일 낮은 분야가 복지행정국 분야, 또 미래사업단, 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분야가 제일 낮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미래사업단장님, 또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은 직접 챙겨서 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국·단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들 있음)

잘 좀 챙겨주십시오.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본자료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에서 인용한 자료입니다. 전남 시군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자료인데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순수 지방비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 6.5% 정도.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6.5%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더라고요. 담당관님, 낮아지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낮아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도급이라든지 중앙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 김양훈 의원

계속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 김양훈 의원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군을 분석한 표입니다. 우리 군은 한 58.26%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를 보면 저희들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높아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자율성이 좋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 이후 재정운영의 자주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016년도에 정부 세제개편과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인 경기도…… 7개 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교부 특례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내국세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16년에 1,716억 원 정도, `19년도에는 2,212억 원 정도로 해서 496억 원이 증가되는 지방교부세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계획 분야 중 몇 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7번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동자료는 행사, 축제경비 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전체 예산에서 1.5%로 21개 시

군에서 여섯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데는 강진과 장흥, 이런 곳은 청자축제와 물축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행사축제 경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료가 `17년 자료 같습니다. `17년도에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읍면축제, 가을빛여행축제, 슬로걷기축제, 그리고 주말장터 운영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 지원 등 때문에 그런 축제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었구요. 그리고 `17년도에 해조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제라든지 행사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는 축제 관련부서에서……

○ 김양훈 의원

부서에서 따로 제출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뭐 관광정책과에서 축제에 관한 부분은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일 큰 것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회성이 많다. 또 소비성이 심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저희들도 이런,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해 본 것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이·반장 활동보상금 기준입니다. 본예산 기준보다 훨씬 더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좀 많이 낮죠? 저희들은 0.19%로 거의 제일 낮은 쪽에 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반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본수당은 월 2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여금은 2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은 1회에 2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5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시군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좀 낮은 것은 이장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 김양훈 의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장 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례나 이런 데를 보면 저희들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더 이장이 많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자연마을이라든지. 이장…… 마을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인구수가 벌써 배가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파악은 제가 못해 봤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인구수가 벌써 배인데 저희들이 이장이 더 적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월 20만 원씩 편성해서……

○ 김양훈 의원

이장님들이나 단장님들이 일선에서 제일, 그리고 지역에서 제일 고생하는 분들 아닙니까. 어느 정도 걱정선에서는…… 제일 많이 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중간 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내년부터는 10만 원이 향상된 3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외여비 비율이 0.19%로 일곱 번째로 높은 것 같습니다. 국외여비는 해외출장여비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 국외여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국외출장 성과가 있다면 사례를 한번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료를 보니까 `19년도 본예산 기준자료로 보입니다.

국외여비의 자세한 사항은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노조 협약에 따라서 매년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성과와 관련해서는 역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성과에 대해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성과보고서도 30일 이내에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성과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표 한 번만 다시 올려주십시오.

우리 군은 채무는 없지만 부채는 1.72% 정도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BTL사업으로요. 우리 군 문화예술의 전당 시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 김양훈 의원

구체……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맞춤형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의 전당 2030년까지 시설임대료가 39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398이요. 그 부채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중 세출 (청취불능) 세입 확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계약 비율입니다.

표 한 번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군 수익계약 비율은 8.09%로 전남에서 일곱 번째로 높습니다. 표를 보면요. 그 수익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세무회계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특정인에게 7건 이상 수익계약을 한 경우가 있으면 어떤 분야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연평균 일곱 건 이상은 공사분야고 용역분야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공사가 작년 한 해에 350건 정도 됩니다. 한 해에. 그래서 그것은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최대한 빨리 다음주……

○ 김양훈 의원

날짜를 정하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다음주 월요일이면 21일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법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 다수의 수의계약이 체결된다면 같은 업종에서는 행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그런 의심이 없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본의원은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정인들에게 편중된 수의계약은,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재정의 핵심은 성과관리에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물론, 각 부서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서가 형성된 지리적여건으로 인하여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이 열악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연 300억 이상의 금액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잉여금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당관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으로 본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국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과 관련한 인허가 신청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고금면 도남리에 2017년 12월 13일 신청된 돈사 신축 신청은 2018년 4월 24일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이후 사업주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유사양돈장 견학 및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되어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 2018년 10월 11일 건축허가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지면 동고리에 신청된 건물 진입도로 관련 기반시설 부적합 및 환경피해 우려 등 개발행위 허가조건에 부

합하지 않아 두 차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신지면 대곡리에 신청된 총 4건 중 1건은 기반시설 부적합과 가축전염병 발생이나 오염원 유출 시 우리 군 청정이미지 훼손, 환경오염 등 각종 위협발생으로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추진 차질과 관광산업 활성화 저해와 같은 공공성, 공익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지난 10월 11일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입지 부적정, 기반시설 부적합, 환경피해 우려, 공익과 공공성 및 주민수용성 미확보를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불허가 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환경 및 경관훼손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총 47건의 신청에 대하여 26건을 허가처분하고 14건은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7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2건을 허가 처분하고 4건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지역사회 갈등유발과 지역 청정이미지 훼손 등 지역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인허가 신청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일괄 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계획 심의대상 건물은 미리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검토를 위해 신청지 인근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알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발생과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가축사육 제한 조례, 도시계획 조례의 이격거리 제한규정을 작년 9월과 11월에 개정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취소와 불허가 처분으로 다수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분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근거 및 처분사유를 명확히 하여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방지하고 진행 중인 소송 건들은 실무부서와 협력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소명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허가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정점검을 강화하여 당

초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고발과 원상회복 명령 등 특단의 행정조치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적극행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 군에 변환소나 돈사,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으로 지역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되고 있죠? (예)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행정과 주민과의 갈등보다는 주민과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과 주민과 주민, 즉 지역에서 갈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조정은 행정에서 하지만 최종조정이 안 될 경우에,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되는 실정이죠.

○ 부의장 허궁희

돈사 같은 경우 고금면 돈사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예)

여론에 의하면 고금면 자체적으로도 조율을 당사자와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떻게 얼마나 진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당사자와의 대화…… 사업주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도 행정과 대화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또 고금면에서는 단체별로 청년회, 여성단

제, 이장단, 어촌계장. 또 뭘니까, 여러 단체들이 여섯 차례인가 그분들을 만나서요. “고향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포기하면 안 되겠느냐.” 라는 그런 시도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속해서 사업을 강행할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차례…… 세 차례에 거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그런데 10월 24일에 예정된 4차 변론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측에서 신청한 증인까지 아마 거기에 출석해서요, 증인 심문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신청했던 내용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한 차례 변론을 더 거칠지, 그것은 불투명합니다마는 어쨌든 연내로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고 현재 2심에서 계류 중인데요,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한 내용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고문변호사는 말 그대로 초기에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정식변호사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직판사 출신 명망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 또 우리 고장 출신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하고 이렇게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신지 동고 지피도 소송 중이죠, 행정소송?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예. 신지 동고 지피 관계도…… 지금 거기 동고 지피는, 거기가 라온에서 신청한 건인가요? 대곡리?

○ 부의장 허궁희

아니, 동고 지피하고 라온하고 두 군데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렇죠. 거기 법원에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는 조금…… 우리 군에서 너무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동고리 그 도로를 확인했죠? (예)

도로를 확인하면 톱 건조나 다시마 건조를 하고, 또 도로가 농로다 보니까 1톤 차량들이나 작은 차들이 비키게끔 여러 군데를 해놨어요. 그런 내용까지 가지고 나와서 “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다. 그러니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부당하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쪽 변호사 측에서 하고 우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언급을 안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때 동네 청년 분들과고 주민 한 20여 분이 현장에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도 갔었고, 우리 측 변호사하고 그쪽 변호사하고 같이 참여를 했고, 재판장이 직접 현장을 둘러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변호사의 이야기는…… 자기들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적극…… 그런 진입로 협소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폐수 발생 시에 바다로 흘러들어 가는 그런 문제점하고, 또 거기에 마침 비상식수로 쓰고 있는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강조해서 재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모습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측 변호사와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변론…… 서면 답변에 충분한 변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참여했던 그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그보다 더 여러 건을 예를 들어 가면서 부당함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하여튼 잘 준비해서 법무팀이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재 대곡리에 농업법인 라온에서 신청한 3개 회사에서도 그런 것

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만약에 한 건이라도 풀리게 되면 나머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소송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법무팀이나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온…… 농업법인 라온에서 신청한 3개 회사는 어떻게…… 제가 이번에 심의회에 참석을 부득이하게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라온에서 신청한 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2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고, 아, 이번에 그 3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주민수용성 미확보라든가 환경피해 우려, 기반시설 부적합, 입지 부적정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단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불허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부서인 민원봉사과로 법무…… 통보가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불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허가 처분할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런 것 참…… 하여튼 불허가해서요. 다음에 분명히 이 분들이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고 남을 분들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태양광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보면, 왜 있냐면, 태양광 발전허가를 먼저 내지 않습니까. 발전허가 때 대응을 잘하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발전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이 분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발전허가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개발허가 행위를 아주 (청취불능)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교통과…… 뭐야, 경제교통과에서 발전허가 심의를 신중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단계에서는, 발전허가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사하기 때문에 아마 허가가 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정책…… 신재생에너지정책에 의해서 그런 것을 장려하다 보니까 법령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함부로 불허가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단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의결할 때요. 거기에서 아무래도 주민수용성이라든가,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걸고 불허가 처분하는데요.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발전허가 때…… 뭐야, 이격거리나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되죠, 그 단계에서는.

○ 부의장 허궁희

그런 부분이……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4개 실과에서 협의했다는 내용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이해가 안 갔느냐. 군도를 끼고 있는 임야에다가 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군도에 접해 있는 임야에다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때 당시 생각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개 실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었지는 모르나, 이것은 마을진입로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그것이야…… 물론, 부결시켜서 업자가 사업을 못해서 말았는데요. 만약에 했더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일련의 돌아가는 상황을 참고해서 협업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는 그래서 부서 간의…… 뭐라고 합니

까, 같은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협의할 때 한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한번 정도는 더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철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인허가는 나갔어도 마무리 준공검사를 할 때……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민들하고 약속은 한다는 말입니다, 업자들이. 그런 부분 중에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마을주민들하고 업자하고. 그런 경우가 뭐냐면 현재 신지 풍력 같은 경우도 준공검사를 안 내고 있죠, 안 나갔죠? 제가 알고 있는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주민들과 약속은 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 해요, 회사 측에서. 어렵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민원발생 소지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무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저도 뉴스에서만 봤습니다마는 여수 케이 블카 식으로 될 것 같은 감도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여튼 민원소지는 이렇게 하고요. 대곡리 법인 라온에 대해서, 이것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을 앞으로 진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곡리라는 마을

을.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있냐면 이 돈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민들이 그 불편을 견뎌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엇그제 거기에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뜻을 이해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우성자 의원님께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은 완도를 장보고 정신과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명소로 부각하고 장보고의 고장 청해진 완도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양사업의 주요현황을 보면 우선 장보고 한상어워드 추진 `16년 3명, `17년 4명, `18년 6명 총 13명의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였고, 올해에도 일본 마루한 그룹의 한창우 회장 등 총 여섯 분을 선정해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제작한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 歌 공연의 경우, 올해 서울 남산국악당,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성황리에 공연하였고, 장보고수산물축제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축하공연과 장보고업적 알리기 등 장보고선양행사 시 활발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법화사지 발굴의 경우, 올해 9월 3차 정밀발굴까지 마무리하였고 발굴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법화사지 사후활용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후 12월 문화재청에 사적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법화사지 활용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도관광정보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완도와 장보고, 완도 향토사 등과 어우러지는 장보고한상 성공스토리를 전시하는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사업은 올해 특별교부세 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보고선양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2017년 7월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원을 통해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

별, 단계별로 추진 중이며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업하여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선양업무는 문화예술업무와 병행 추진 중입니다마는 업무의 중요도와 업무량 등을 감안해서 내년 조직개편 시에는 장보고선양업무를 전담하는 장보고선양팀을 신설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장보고항상 수상자 가족 완도투어가 10월 24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군 일원에서 실시되며, 한상명예의 전당 건립 등을 추진하고 수시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답변 중에서 조직개편 시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한다는 그런 답변에 대하여 본의원은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담당팀이 신설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은 장보고 관련 업무를 관장해 오셨고 장보고선양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고 또 이해가 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고대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을 묻고자 합니다. 장보고 앤닌스님은 어떤 관계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일본 천태종 개창자라고 일컬어지는 교토시 인근에 있는 엔라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연력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3대…… 뭐라고 합니까, 좌주라고 합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3대 좌주.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데 그분이 일본 전당사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38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무렵에 중국 당나라에 가서 8년인가 머무르면서 장보고대사의 통찰 하에 있던 적산법화원에서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보고대사를 존경하고 일본에 돌아가서도 대사의 영덕에 힘입어 당나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해서 살고 있다, 항상 존경한다고 이렇게 편지까지 남긴 분입니다. 그것이 앤닌 스님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본 불교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앤닌 스님을 모시고 있는, 국장님의 말처럼 연력사라는 사찰에 가면 장보고기념비도 있고 앤닌 스님을 따르는 그 일본 글자들…… 장보고대사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보고대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가 어떻게 속속들이 중국들의 마음을 알겠습니까마는 적산법화원을 제가 두세 차례 다녀온 바에 의하면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출신인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 특히 장보고대사 같은 사람들의 사당을 마련해 가지고 굉장히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특히 일본사람들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본사람들의 행적도 많이 거기다가 해놔던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륙인의 기질들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자기들의 국익에 대한, 또 산둥성 정부에 대한 의지도 있고 그러기는 하겠습니까마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장보고동상까지 설치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보고의 고장인 완도도 중국보다 더 큰 선양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에 잠깐 캡처를 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보이는 것이 중국 적산법화원에 있는 장보고동상입니다. 저것은 중국에서 설치한 것이고

요, 동상은.

나머지 3개 사진은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진이 일본 엔리쿠사에 있는 장보고대사비입니다. 청해진대사 장보고비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은 일본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완도군에서 2002년도에 군비와 민간자본을 모아 가지고요, 엔닌 스님과 관계가 있는 연력사에 저 비를 세우면 어떻겠느냐고 연력사와 협의를 마치고 한국에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한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연력사 부근에 있는 적산궁이라는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도 신라명신상이라고 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신라명신으로 장보고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신라명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면서 저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본 적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제가 중국 영성시에 있는 장보고기념관을 사적으로 방문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관리책임자가 하시는 말씀이 장보고대사를 많이 자랑하면서 자기는 장보고기념관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장보고대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국장님, 그냥 냉정하게 우리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정.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간에 장보고대사가 그때 통일신라시대에 조정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암살된 이후로 저평가되고,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는 그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보고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이라든가 문헌들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해서 장보고선양사업이 그때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로 드라마 해신으로까지 방영되면서 장보고에 대한 존재를 알려왔고,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서…… 그전에 장보고축제를 통해서 완도가 장보고의 고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여러 가지 선양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로서, 또 세계 최초의 해양경영인이라는

그런 무게감 있는 장보고대사의 글로벌 홍보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양사업들을 해나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일본이나 중국이 장보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학자나 몇몇 단체들에 의하여 장보고대사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지. 특히 우리 군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둘째, 그동안 우리 군에서 장보고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민선 초기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 차관훈 군수님 때는 장보고축제 등 선양사업이 분위기도 갖추고 그랬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선양사업이 정체 또는 퇴보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저는 퇴보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런 사업 분위기를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은 크게 나누었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연구 발굴과 더불어서 연구와 발굴, 그리고 복원, 이런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만이 1차적인 장보고 선양사업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생각해서요.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 보면 장도 청해진유적이라든지 법화사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졌고, 또 장도는 국가사적지로 지정될 만큼 성벽…… 토성 복원이라든가, 건물 복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법화사지 발굴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자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발굴과 복원만 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도의 역사, 문화, 관광 또 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보고를 테마로 한 축

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해양경영을 개척했던 선구자로서의 어떤 훈을 받아서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홍보와 더불어서, 글로벌 홍보와 더불어서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장보고한상어워드라는 제도를…… 상을 통해서 세계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분들을 완도의 인맥으로 삼아서 관리함으로써 완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국장님도 답변을 잘해주셨습니까라는 첫째,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발굴해 가지고 하려면…… 장보고대사는 신해양시대의 롤모델입니다. 우리나라의 물류는 97%가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완도 지역경제의 바탕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배워서 완도의 미래비전으로 삼아야 되고요, 둘째는 다른 지자체는 신화 속의 인물도 개발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있는데 위대한 인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장보고대사의 유물과 유적을 관광 자원화해서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의 완도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국장님의 말씀대로 21세기 장보고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정부의 분권화에 따라서 지역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셨죠? (예)

그래서 2017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차질 없이 장보고선양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장보고 관련 단체가 몇 개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국내에는…… 관련 단체라고 그러면 우선 글로벌장보고재단이 있고, 그전에는 장보고기념사

업회라고 있었습니다. (청취불능) 시절에. 그다음에 장보고연구회인가, 경영사연구회인가 합쳐 가지고 글로벌재단으로 하나로…… 그다음에 완도 군에는 장보고연구회가 있고, 신흥사를 중심으로 해서, 뭉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카데미.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아카데미 이렇게 해서 3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래서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물론 연계할 때는 하고 합니다마는…… 그렇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장보고연구회는 주로 군민들이 장보고를 알리는 사업을 하는 글로벌재단과…… 또 한 상어워드사업이요, 또 아카데미 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떤가요, 통합해 가지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세 단체를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단체를 통합해서 한 재정 하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세 개 단체를…… 장보고축제, 장보

고장학회 등 모든 것을 한 군데로 묶어 가지고 그 조직 내에서 자기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보고기념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 법화원의 경우는 다섯 개의 관이 장보고기념관인 데에 비해서 완도군은 전시관이 2개밖에 아니죠, 전시관이? (예)

기본전시관, 기본계획전시관에 대해서 혹시 보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것이 건축한지 12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전시관에 전시했던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되고, 또 새로운 콘텐츠를 구성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더 새로운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유구, 이런 것들을 더 확보해서 전시관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식으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좀 건축한지 오래돼서 노후가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장보고대사 흉상입니다. 등을 돌리고 있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당이고요, 장보고대사 사당. 기념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위치가 지금은……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있는지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압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혹시 관광객들이 찾을 때 잘 볼 수 있도록 동선 배치를 다시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혹시 정비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설명을 드리자면 흉상 저것은 동상이 건립되기 훨씬 전인 10 몇 년 전인가 2000년도 그 경에 세워졌는데요, 그때는 동상을 세우자는 의견들만 나올 때였는데 그것을 언제 세우냐, 10년이 넘어갈 것인데.

그래서 우선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흉상이라도 세워놓고 장보고유적지라는 그런…… 하여튼 장보고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래서 흉상을 먼저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보고공원이 그때 당시 매립된 상태였죠. 그래서 거기가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사당도 그런 상황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장보고동상도 크게 들어서 있고 또 기념관도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저 사당의 위치라든가 규모, 또 흉상의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것도 관광객들이나 탐방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재배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장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저도 장도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너무 좋더라고요, 장도를 혹시 개발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도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발굴, 복원사업이 이미 완료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완료되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완료되었고 그래서 탐방로까지 토성을…… 옆으로 빗겨가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수정비,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장도를 더 이상 뭘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혹시 장보고대사 탄신일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탄신일은…… 장보고대사가 태어난 연도는 정

확하게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암살당한 연도만 서기 841년으로 정확히 나와 있는데, 아마 출생연도는 790년도 정도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785년에서 790년 이렇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출생년도도 모르는데 탄신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더라도 가장 탄신일이라든가, 이런 의미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행사를 벌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에 없는 사실을…… 역지로 탄신일로 만들어서 기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 포럼 때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결론을 내렸고요. 차라리 5월 3일이나 5월 31일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그때 뭐 장보고 탄신제를 지내든지. 역지로 탄신일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학자와 단체들을 통해 가지고 제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장보고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직……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이요, 많이 늦었습니다. 마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축제를 하고, 또 기념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훌륭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재정비해서요, 완도를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처음에 말씀하시피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꼭 관심을 갖고 빨리 선양사업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로 적정행정 구현에 관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총 정원은 695명이며, 결원은 41명입니다. 본청에 9명, 직속 및 사업소에 3명, 읍면에 29명이 결원이며 결원사유는 휴직 27명, 교육파견 2명, 공로연수 12명, 명퇴 3명입니다.

다음 5페이지 최근 3년간 휴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휴직인원은 95명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최근 3년간 휴직현황입니다. 육아휴직이 79건으로 직원들의 휴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업무 인수인계 현황입니다. 6개월 이상의 장기 휴직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충원계획에 반영하여 인원을 추가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급별, 직렬별 보직 및 이동현황과 직급별, 직렬별 무보직 현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 및 충원 계획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 결원이 41명으로 나와 있지만 10월 14일자로 신규공무원 29명이 임용되었고, 휴직자 의원면직자가 일부 있어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올해 신규 충원 예정인원은 총 67명이며 30명은 임용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7명 중 16명은 미임용, 21명은 채용예정입니다. 그중 토목직 10명과 해양수산직 5명은 전라남도에서 충원 요구하였으나 과락 등으로 합격자가 없어서 완도군 자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인원을 충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원 예정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기에 맞는 신규 충원으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진행상황입니다. 지난 6월 조직의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 해결하고자 부서별로 직접 대면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조직개편을 위한 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조직진단 결과와 실무심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의회에 조직개편 기본안을 보고 드리고 한 차례 더 실무심의회를 거친 다음, 11월 중에 의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공무원 현황입니다. 우리 군 부부공무원은 총 77쌍에 154명입니다. 부서별 부부

공무원 및 부자공무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도청 파견직원 업무실적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해양항만과 완도항 담당에 우리 군 소속직원이 1명 파견되어 있으며, 파견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그 직원의 업무 추진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선박입출항 신고 수리 및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외 5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및 정원의 적정관리로 적정행정 구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결원 및 충원계획입니다. 책자에는……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 책자에는 결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죠. 금년도에 67명을 충원할 계획이죠? (예)

결원은 연평균 한 30명 이상 발생되고 있는…… 휴직인원은 여기에 빠져 있죠, 결원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휴직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 휴직인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95명이 되지 않습니까, 도표에 보면, 이런 것이 다 빠지고 나서 그러면 결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 41명에는 연평균…… 아니, 휴직인원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최근 3년간 95명인데 도표에는 이 인원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도 바람화사무…… 아까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는데 22명을 파견하거든요. 그러면 도표상으로 합쳐 보면 한 93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충원됐으니까 숫자는 더 줄어들겠죠. 이번에 신입직원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부족한 인력들은 다음부터 어떻게 충원하실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답변서를 참고하시면…… 화면 좀 띄워주시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저것을 보시면 10월 16일 현재 정원 현황입니다. 10월 14일자 신규공무원 20명을 반영한 이후에, 지금 현재 총 정원이 695명이고 결원이 679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16명인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저기 별도 정원이 38명인데 저기 별도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직자 27명과 공로연수 9명, 장기교육 2명 이렇게 해서 38명입니다. 저기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숫자입니다,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결원과 별도로…… 정원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 정원은 정원 외로 분리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이 결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초에는 별도 정원과 결원이 같았지만 별도 정원은 대체인력 충원이 가능하여 충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원은 줄어들고 별도 정원 인력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그러면 별도 정원에 있는 직원이 복직하게 되면 결원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결원이 0명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 정원으로 있는 직원이 복직하고 싶어도 복직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때는 결원이 생길 때 복직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임용 시 정원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임용자가 아까 16명, 행정직들 중에 발령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임용자 16명하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남아 있는 2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직렬들, 과락자라든지 그래서 도 자체시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군에서 경력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2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37명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은 695명인데 현원은 716명으로 21명 과원이 됩니다. 별도

정원 38명은 그대로 정원에 있고, 그렇게 되면 저 인원에 대해서는 박람회사무국으로 파견조치를 하게 됩니다. 18 내지 22명 정도, 꼭 22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18명으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다음 인사 시에는 결원이 거의 해소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또 결원이 발생할 시에는 수시로 채용해서 결원을 채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 올해 12월 조직개편 이후 1월 정기인사가 있을 때는 결원이 전체 제로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 37명을 더 채용하게 되면.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직렬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이나 이런 많은 직렬들이, 과락으로 해가지고 못 채웠죠. 방금 답변에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자체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시험은 영어를 뺀 나머지 경력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시험을 현재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이 난이도가 높아서 과락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과목은 월등한 점수를 받아도 한 과목에서 40점을 이하만 생기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일단 자격증이라든가 경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되, 난이도를 낮춘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출제수당을…… 예산을 들여서 업체하고 시험출제 전문업체에 맡겨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특채가 아닌 경력자로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경쟁으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채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 박인철 의원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곳에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업무 과다현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관리감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월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질문은 생략하고요, 민선7기에 들어서 우리 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단장 제도를 두는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 제도의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제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결재라인이 많아졌다. 국장제도가 생기면서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전결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만큼 국장한테 책임을 주면 국장 선에서 전결하기 때문에 부군수나 군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할까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모셔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늘었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도 들겠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옥상옥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수, 부군수한테 집중되어 있던 직원들의 관리감독 또 업무관리, 이런 부분이 다소 국장들한테 이동하면서 그분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더 신경 쓸 여력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대외적으로 제가 자주 느끼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군정으로 참 바쁘신 분들인데요, 행사에, 특히 관외 뭐 서울이라든가 광주, 도청 이런 데에 출장을 갈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경우 군수님은 관내 행사에 참석하시고, 그래서 이런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세미나, 포럼, 연수회 이런 데에 가면 할 수 없이 누군가는 대신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과장 명함을 내고 거기에 참석하는 것하고 국장 명함을 걸고 가는 것하고 거기서 대우하는 태도가 다르더라. 국이 없는 군 단위에서 온 과장들은 아무래도..... 시골, 군에서 온 과장들보다는 그래도 국장이라는 명찰을 달고 가니까 좀 더 그래도 완도군이, 뭐 우리 군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국장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비중 있는 공무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했다고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장점이 크게 있겠습니까. 이 제도를 계속 보완해서 간다고 하면 단점이 몇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분산되고,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음으로써 조직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조직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말씀 다 하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단장 제도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정착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요일에 의회에 나와서 업무 쪽으로 직원들을 찾으면 월요일 오전 내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 부군수님이 주재하는 회의, 국·단장들이 주재하는 회의, 또 실과장님들이 주재하는 회의, 너무 회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국·단장 제도가 생기면서 결재라인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아직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된다.

그렇게 하고 전남 22개 시군 중에 5개 시를

제외한 17개 군 단위에서 국·단장 제도를 하는 데도 있고 또 실로, 2실로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2국, 1단이 아니고 1실, 1국, 또 국이라고 하지 않고 2실, 옛날 우리처럼 기획실하고 주민복지과에 4급 서기관님들이 계셨던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실효성, 지금 많은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파악하다 보니까 단장 제도를 하다가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국·단장 제도가 꼭 유지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예전처럼 돌아가서 우리도 1실 아니면 2실, 2읍 이런 식으로..... 어차피 4급이 세 분이니까 한 분은 완도읍으로 간다든가, 읍을 담당한다든가. 읍이 우리 군 인구의 어떻게 보면 1만 8,000명, 2만 명이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이 조직개편의 문제는..... 물론 조직의 발전을 위한 측면보다는 어떻게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지역발전이 되게끔 하는가, 거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더불어서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 입장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 제도가 꼭 필요하니 계속 밀고 나갑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군수님과 의회에서 조정해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을 가지고 오면 조인호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군수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민선7기에 전문인력을 채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ASC 인증 전문가, 장보고 선양 관련 전문가들이 있는데, 과연 전문가 채용 이후, 이 분들이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 관련해서 임기제로 뽑은 분은 아시다시피 한상어워드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제 몫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ASC 전문가는 공모에 의해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력, 학력, 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했습니다마는 아마 경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ASC가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뽑아놔야니까요. 다소 진척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수산경영과에 배치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눈앞의 성과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채용은 특채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시험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특채라고 말씀해도 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특채의 일종인데, 그것은 특별채용의 일종인데 요즘은 개방형 임기제라고 해가지고요.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내부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간 당신들만 공무원을 하는 줄 아느냐.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그룹들도 공직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또 그것은 시대적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 우리 입장에서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분들은 글자 그대로 특별채용입니

다. 특별채용인 만큼 특별한 일을 이분들이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 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장보고선양 관련 전문가, 이 분은 장보고 선양 일만 합니까. 저번에도 신문인가 보니까 어디 사무과장, 우리 군에 특별채용이 됐는데도…… 어디 서울 행사장에 뭍니까, 장보고사무국장으로 나오던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글로벌……

○ 박인철 의원

글로벌재단인가 어디인가.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장보고재단에……

○ 박인철 의원

사무국장. 이 분이 우리 군 소속입니까, 그러면 거기 글로벌재단 사무국장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우리 군 소속입니다.

○ 박인철 의원

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군에 특별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행사의 개요를 보니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관계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거기에서 별도의 급여는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도와주고,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이것은 급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군에서 특별히, 글자 그대로 특별히 채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행사에, 거기에 버젓이 이름 석자를 올려 가지고 사무국장이라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

고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직렬 이기주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번 조직개편 시에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직렬 이기주의라는 것이……

○ 박인철 의원

우리가 보면…… 이 말에 국장님은 동의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직렬 이기주의와 과 이기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힘이 있는 과에서 힘이 없는 과로…… 내 이 말이 잘 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평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해주 시고요.

가족관계공무원은 뭐 어느 정도 숫자를 한번 알고자 했는데, 보니까요. 사춘, 육촌까지 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은 있지만 50% 이상은 되더군요. 그래서 엇그저께 완도신문에도 나왔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뭐 이 분들이 특채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들어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인사 시 읍면으로 가서 빨리 들어온다든가, 진급이 같은 동기들보다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곡해의 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완도수목원, 도청으로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죠.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내가 봐보니까 이전에 센터장님이 계실 때 RnD나 비RnD 이런 사업들이 엄청 잘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보니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RnD가 뭐 1건인가, 2건인가밖에 안 되고, 비RnD도 거의 없고, 왜냐하면 RnD에 집중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군비를 여기에다가 3억 5,000인가 해년마다 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데에 우리 직원을 파견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도청 해양수산국에다가 완도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완도항 연근해선단 유치로 인해서 수산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수산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서도 수산공무원을 많이 좀 해주라고, 왜 우리 면은 수산직이 없냐고, 다른 면도 수산직이 왜 없냐고, 또 고금도 같은 데는 수산하고 농업하고 분리해 주라고 합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수산직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보니까요, 완전 단순 업무입니다. 4차 항만계획에 필요한 업무도 아니고, 국장님의 답변에 나열되어 있고 제가 알아본 것에 의해도 너무나 단순 업무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 도청에 파견이 됐으니까 가교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특정인을 위해 파견되지 않았느냐, 특정인을 위한, 이런 의심이 되고 그래서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1월 28일까지 파견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파견이 끝나면 연장이 안 되고 바로 우리 군에 복직되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1년 파견이기 때문에 일단 복직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복직시켰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군 실정에……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군에 수산직 2명이 뽑혔죠? 원래 5명인가 했습니까, 그런데 2명밖에 안 뽑혔죠. 그리고 각 읍면에 수산직이 없어서 다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일 당장이라도 국장님한테 “복직시키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하여튼 내년도에 1년 파견근무가 끝나면 이유 없이 복직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국장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주재원 확충대책입니다.

2018년 지방세는 17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여 2017년 163억 5,000만 원에 비례해서 5.3%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세외수입은 190억 6,900만 원을 징수하여 2017년 대비 231억 6,300만 원 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세외수입이 증가한 사유를 보면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인한 결산잉여금 44억 8,900만 원, (청취불능) 10억 원이 포함된 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 지방세는 185억 9,000만 원을 부과하여 17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6%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교부세 현황입니다. 교부세는 2018년 2,432억 8,1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201억 5,000만 원, 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입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누락 없는 지방세 부과로, 누락 없는 지방세를 부과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2019년 지방세 목표액 299억 7,000만 원을 100% 징수하기 위해서 과제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원관리를 하고, 납기 내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탈루와 은닉 지방세를 발굴, 조사하겠습니다. 2019년 세무조사 목표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도세 1억 1,500만 원, 군세 2,300만 원입니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미신고한 납세자를 연중 수시로 조사하고, 감면 지방세 이용실태조사 등 감면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락세액을 추징하고 발굴하겠습니다. 징수부분은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을 즉시 압류하여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두 차례 영치 예고 후에 번호판을 영치하여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체납자의 매출채권 압류와 지방세·국세 환급금에 대한 조기 채권 압류를 통한 충당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회계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국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포함한 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자주재원이라고 합니다.

○ 김양훈 의원

먼저 자체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군 지방세 중 핵심 재원이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변화 추이를 어떻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자체수입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마는 담배소비세가 '16년 이후에 감소,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금 말씀했던 그 표입니다.

본의원의 분석으로는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다 이렇게 증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증가 이유는 과세표준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담배소비세는 '16년도 이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담배소비세는 좀 감소해도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좋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4년간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혹시 세무회계과장님, 세외수입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세외수입은 지방세에 비해서 세목이 190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부과 징수하는 세목이 한 8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무직, 전문직이 관리하고, 또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서 4개 과를 빼고는 다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관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확보라든지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락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세무회계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세금이 누락되지 않고 또 압류가 제대로 실시되도록 이렇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본자료에 의하면 `17년도에는 `16년도 대비 한 45억이 많고, `18년도 대비 47억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박람회 결산잉여금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영향이 가장 큼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그러면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율이 91.3%로 8.9%는 다음 연도로 넘깁니다. 이 금액이 평균 14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분석되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 분석해 봤습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방세,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덩치가 큰 세목들은 전부 국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서는 교부금이라든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고 또 내는 액수가 커야만 저희들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완도군이 어느 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1년 사이에 세금이 몇 백억씩 늘 어날 만무하고, 가장 큰 것은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돼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공무원들,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세금이 누락되는 것 없이 부과를 잘하고 또 체납자들이 없도록 징수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방금 국장님의 말씀처럼 세원 발굴도 하고 징수를 높이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도지역을 현시점으로 보면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광양이나 여수같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원을 발굴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또 징수율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아니, 3번 자료를 올려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세외수입 미징수 현황입니다. 본의원은 2,000만 원 이상의 자료만 정리해 봤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민원봉사과장님, 미징수 세입에 대해서요, 그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좌석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크게 나뉘어서 세가지 종류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관련 위반 과징금하고 어선법 위반과태료, 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3건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동산실거래 과태료 및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약 201건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율은 188건, 그래서 징수율은 93%고요, 어선법 위반 과태료는 56건을 부과해 가지고 28건 징수해서 5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28건을 부과해 가지고 180건, 79%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정리해서 꼭 회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좌석에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농업축산과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좌석에서)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상시적으로 세외수입을 부과한 것은 없고요,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회수를 못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독려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어떻게 징수하실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좌석에서) 일단 재산조화를 통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채권을 확보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부동산 압류를 넣는다는 얘기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좌석에서) 예.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저희들 자동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현재 총……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징수하지 못한 것이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년도가 4억 5,000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과했던

부분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분기별로 2회 읍면을 방문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불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징수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자동차번호판을 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몇 건이나 했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번호판 영치가…… 작년에 22건 했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영치하게 되면 바로 체납 회수가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번호판을…… 과태료를 납부하고 찾으러 옵니다. 작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 방법이 제일 낫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그런데 차량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차량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됩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좌석에서) 저희들도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절차에 의해서 재산압류 등을 통해 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수산경영과장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좌석에서) 저희 과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 허가를 내줄 때 부과하는 세외수입인데, 그것은 100% 징수를 완료하였고요. 지금 4,100만 원 남은 것은 어선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선업무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넘어가기 전에 체납된 4,1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요.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선에 전부 압류 조치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제일 금액이 큼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예, 저희는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에 대해서 10만 원 이상 체납자, 또 3회 이상 납부하는 업체들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단수 조치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 및 누락이…… 아니, 세금 징수가 제대로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들한테 물어본 것은 꼭 세외수입업무가 꼭 세무회계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실과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면, 세외수입은 어떻게 보면 세금인데 많이 징수가 안 돼서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군 재정의 대부분은 지방교부세, 조정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발굴과 징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직자의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관행 차단을 통해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방안으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도의 정책 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컨설팅제도 활용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컨설팅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이해관계자인 군민께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부여하겠습니다. 또 인허가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행이 없어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30일 이내 답변규정을 준수하고, 반려처리를 제한하는 등 동 제도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울러 완도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그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행정 혁파 및 적극행정 보상대책입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주민 권익 침해와 재정상의 손실에 대해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소극행정에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기별로 점검 관리를 정례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적극 추진하고, 적극행정 공직자에 대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 기간 단축,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품격 있는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질문은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고 다수 주민들이 저한테 자주 이야기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울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대통령령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지자체까지 시달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정부로부터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최근 행정의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법과 제도가 현장하로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아직 군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렇습니다. 요즘 공직사회가 업무연찬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무가 귀찮아서 그런지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하는 그런…… 다른 곳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일반주민들의 경우 이렇게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소극행정을 (청취불능)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소극행정의 사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소극행정의 사례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모두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적당편의, 업무해태, 탁상행정, 기타 관 중심행정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1번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소극행정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본의원은 첫째, 업무 부담과 민원 우려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회피하려는 업무처리 형태와 둘째, 규정을 지나치게 엄매어 관행을 답습하는 형태, 셋째,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부당한 업무 형태 등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두 번째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바로 저것은 소극적 책임회피성 업무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예)

본자료는 감사원 자료를 이용한 자료입니다. 업무를 적당히 처리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극적 업무처리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업무처리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 자료를 보고 구구절절 현실에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극적 행정을 적극적 행정으로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 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우선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

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하고요, 또 자체 점검관리를 통해서 악성이나 상습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또 법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우리 군에서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크게 사례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현재 적극행정은 8월부터 예정되어 가지고.....

○ 부의장 허궁희

실천은 아직 안 했죠? (예)

그러면 사전컨설팅제도 활용실적은 아직 없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사전컨설팅제도는 제가 감사팀에서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에 2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요, 왜 이런 것이 되냐면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직자 분들도 적극행정으로 변하게 되면 서로 더 신뢰하고 일에 취미를 더 붙이지 않을까. 이런 유도를 해가는 좋은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적극행정은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사전컨설팅 등을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하여 주시고요, 둘째,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를 전공무원들에게 교육하여 완도군의 품격 높은 행정을 기대하면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다음은 3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재난·재해 및 AI, 구제역 등 각종 감염·질병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마을이장의 관외출타 시 핸드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18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6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간으로 1차 연도인 금년에는 100개 마을을, 2차 연도인 2020년에는 나머지 1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군 본청에 통합 주장치부를 설치하고, 읍면에 주장치부 12대와 마을단위 수신단말기와 무선송신기 각 222대, 5가구 이하 마을 내 단말장치 306개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6월 21일 계약을 체결하여, 1차 연도 사업지구인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업설명과 함께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5개 읍면 100개소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122개 마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구축되어 있는 24개 마을에 대해서도 시험방송과 장비기능 테스트를 거쳐 연동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본 회선료와 시설 유지보수비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회선 사용료는 연간 1,0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연간 2,000만 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부담 기본 회선료는 예산 확보 후 전체 군비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마을 지형에 따라 난청지역 및 음영지역이 발생되면 옥외 무선수신기 추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마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 예산 확보 후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마

을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재난마을방송시스템의 재난재해 등 각종 상황 발생 시에 원격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휴대폰을 활용하여 마을에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재난방송을 기구축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지금까지 구축이 완료된 것은 24개 소입니다. 전부 안전건설과 소관으로 권역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현재 먼저 해놓은 곳이요? (예)

그러면 현재 구축된 마을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전에는 마을이장이 관외 출타 중이거나 관외에 나가있을 때는 신속한 상황전파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마을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된 곳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장소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저희 마을도 권역사업시스템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방송은 이장이 2번, 3번한 곳까지 있었습니다. 마을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방송시스템을 해주라고 해도 안 했었는데 참 좋은 방송이구요, 특히 재해나 긴급 시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연도 사업은 금년도 11월 중에 완료된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이 1차 사업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약산의 경우 일부 마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가……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약산은 1차 연도로……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깐요, 약산은 지금 4개 마을인데요, 장용리, 구성리, 죽선리, 가래리 이렇게 4개 마을만 먼저 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 바로 연초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마을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도서낙도지역도 포함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다 포함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사업비가 18억 4,500만 원이고, 이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설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난치지역과 음영지역이 발생했을 때는 무선수신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부족하다면 추가로 확보해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후관리가 문제죠? (예)

업체는 왜 공개입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제환경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사업은 물품계약하고 공사계약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요, 전부 조달청 시스템이나 계약으로 해가지고 말이 공개입찰…… 아니, 제한경쟁 입찰방식이지. 공개입찰로 받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그래요, 업체에서 사후관리는 언제까지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통신사업은 2년으로 사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2년 안에는 그분들이 와서 다시 수리해 주기로요? (예)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설된 마을 중에서 당장 옥외수신기를 설치해야 될 마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금년 사업지구 내에서는 7개 읍면에 9개 소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옥외 설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준공이 안 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현재 준공은 됩니다. 당초 설계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은 되고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없어도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사업 후에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꼭 그것을 잘 해주시고요.

내가 작년에 군정 질문서에 보니까 재난특별

교부세 6억 6,900만 원을 지원 요청한다고 하였고요. 또 재난정책과 세종시에 방문해서 재원 확보활동을 부군수 외 다섯 명이 가셨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이 왜 빠져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사업이 전체 군비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특교세를 신청했었는데요, 2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그랬습니까. 작년 답변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빠져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마을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다음은 5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 발생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국가소송 2건,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15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는 8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접비 청구 민사소송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을 상대로 제기된 간접비 소송은 노화읍 하수관거, 금일읍 하수관거,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간접비

청구로 총 3건입니다. 노화읍 하수관거와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소송은 우리 군이 지난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청구소송은 지난 9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결과, 우리 군이 주장한 내용이 다수 수용되어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1심 판결결과 선고금액인 10억 9,000만 원보다 8억 1,000여만 원이 감액된 결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항소심에도 우리 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은 현재 2심 변론 진행 중에 있고, 노화-구도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0쪽,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 항소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접비 소송은 주로 장기계속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대한 책임소재가 주요 발생 원인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각 차수별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소명자료를 평소에 확보해서 분쟁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금 지급 전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 소송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금 돈사 행정소송 진행상황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사업주 우명석이 우리 군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4월 25일 1심 재판 결과 우리 군이 패소하고 5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과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에서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6회에 걸쳐 사업주를 릴레이 방문하여 사업추진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고금면 청년회 및 주민 대표들이 9월 16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주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 변론기간 동안 우리 군 소송대리인과 행정에서는 소송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10월 24일 예정된 4차 변론에서도 원고가 심의회에 제출한 주민설명회와 현장견학 확인서가 허위임을 추가 준비서면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측면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치유산업을 지향하는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발생 최소화 방안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시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소명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한 영조물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장소를 제외한 모든 공사장에 안전표시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시기일실과 기재누락 등 공무원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군 고문변호사 활용실태입니다. 완도군 고문변호사는 두 명으로 그동안 자문변호를 담당해 왔던 서한기 변호사가 지난 6월 30일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후임으로 광주지역 법무법인 서울의 장병우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자문료는 개인별 매달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자문료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는 현재 행정처분 및 각종 민원 처리사항 등과 관련하여 월 평균 4건 이상 서면 또는 전화방법을 통하여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각 부서별 적극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 민원해결과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발생 사전예방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송발생원인 및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이 30건이나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30건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노화읍 하수관거 간접비 소송은 우리 군이 1심에서 패소하여 10억 9,747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금액보다 8억 1,000만 원으로 감액 판결이 나왔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2심에서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판결문이 진행 중인 금일이나 노화연도교 공사간접비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의 생각은요, 아마 유리하게 우리 군에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판결문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발생은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발생될 것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부군수님 주재 사업 발주부서, 계약부서 등과 합의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은 고금 돈사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 행정…… 2심 중에 있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데.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고서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요, 보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금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주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고금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2개소에 법인법무 변호사가 선임되어 적극 대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11쪽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5월 10일에 항소해 가지고 그중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변론이 진행되고, 오는 24일에 4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차 변론에서는 당시 해남 양돈장, 유사 양돈장 견학에 참석했던 참석자들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증인신문을 통해 가지고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서 무엇이 허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특정해서 입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소송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한다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군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굉장히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복지행정국장님이요, 허궁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취불능) 다섯 건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얘기했는데 해양치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2, 제3의 고금 돈사 같은 이런 사건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정기인사 이후에 인수인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정기인사 이후에 인수인계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보면…… 2번, 상·하반기에 정기인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상 제일 취약한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정보 화시대에 맞게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는데 전자결재시스템상 인수인계 절차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기존에는 인수인계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전자문서 시스템 작성으로 전환되어 가지고요, 최근에 인사가 있을 때는 전자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부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사실상 정기인사 후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인수인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인계인수 절차는 어차피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는 반드시 하도록 하고요, 안 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절차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전자적으로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물론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그래요, 첫째는 인수인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보통 인사를 하게 되면 금요일 오후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요일에 인사발령을 하면 언제 인수인계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수요일에 인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 주에 인사발령을 한다면, 금요일에 발표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인사발령을 한다면 2일 정도 인수인계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전화라든지 야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인사가 발표되면 바로 사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부서를 보면 3~4일이 지나서야 사무분장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자리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부서가 2일 정도 인수인계할 시간을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직원들도 혼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인수인계할 수 있는 제도를 주고, 해당부서에서 심사한 사무분장대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뉴얼대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또 사무분장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그 기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다음은 12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 협력 강화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단체 현황으로 우리 군은 국내 24개, 국외 6개 등 총 30개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북 김제시와 지난 2017년 4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양평군과 안산시와는 2016년에 각각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국외 단체로는 2015년 2월 샌디에이고 한인회와 2018년 1월에는 베트남 트어트엔 후에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단체와 함께 한 주요 협력사업은 매년 자매결연도시 대표축제 시 완도군 홍보와 함께 특산품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7,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우리 군 주요 특산품인 매생이, 전복 등 판촉행사시에도 적극 협조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우호교류도시인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의 면담 결과, 도농상생을 위해 서울시 공공급식센터에 완도산 해조류를 공급기로 협의하여 현재 금천구와 성북구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축제 및 해조류 홍보영상을 지하철과 광고탑 등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에 송출하는데 협조해 주었고 오는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에도 적극 홍보해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군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장보고함대에서는 매년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과 함께 특강을 하고 있고, 워크숍도 완도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산물 판촉과 문화교류를 위해 대도시인 화성시와 지난 8월 상호 방문을 통한 사전교류를 추진한 결과, 내년 3월 중 자매결연도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군과 역사문화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중국 운부시 운안구와도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위해 현재 이순신, 진린장군 학술회의와 다큐 제작, 완도 수산물 상품전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단체 협력강화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매결연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일을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무래도 자매결연 지역 간의 문화나 행정, 경제, 이런 상호 교류를 통해서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판촉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하면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국내 24개 기관 및 단체, 국외는 6개 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 5개 기관 및 단체는 민선6기와 7기에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30개의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현재 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 6개 단체하고 우호교류도시 3개 단체. 그리고 교류협력에 주로 장보고함대,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교류도시는 1998년도에 전국 16개 지자체가 네트워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교류가 실제 없는 상태입니다.

○ 최정욱 의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는 천안시, 인천 연수구, 장보고함대 정도만 정기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 이후에는 유아무야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방금 그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우호교류를 하고 있고요. 또 특산물 판촉행사도 같이 하면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최근 5년간 협력사업 및 성과를 보면 천안과 김제 축제에 참가하여 특산물 홍보 및 특산물 부스를 운영하였다고 했는데요. 장보고수산물축제 시 참여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단체가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거의 매년 저희들 장보고수산물축제에 교류단체에서 방문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강동구, 연수구, 천안, 광주 남구, 김제시에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민선6기 이전에 맺어진 국외 우호단체와 교류한 적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국외 교류단체는 현재 진행상황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 최정욱 의원

없죠? (예)

중국 영성시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대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영성시 부분은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중국 사드 배치 관련해서 금한령이 내려져 있어서 현재 교류가 제한된 상태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가 중국 장보고 적산법화원에 견학을 가서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그쪽에 가서, 아파 의원들은 거기에 가서요. 적어도 영성시의 어떤 설명과 서로 우호적으로…… 어떤 사무실이나 청에 들어가서 설명을 듣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보는 사람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니깐 밖에 어디에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요. 밖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갔을 때는 자매결연이 아니라는 내용을 들어서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서 있어서 그분들과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맞다.” 라고 하더라고요. 영성시는. 그런데 완도는 그때 당시 그것이 파악이 잘못되었는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그쪽하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영성시하고 자매결연 단계는 아니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어떻게 영성시는 자매결연이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쪽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오고 그랬는데요. 현재 자매결연은 맺어지지 않았고요, 우호교류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이 맞죠,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 법화사지에 갔을 때요. 우리 군수님이 나무를 심은 것을 뭐라고 하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기념식수.

○ 최정욱 의원

기념식수. 기념식수가 두 수가 있었는데, 둘 다 기념식수 간판은 있었는데. 위에 나무를 이 정도 목을 남기고 잘랐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불쾌하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아. 그것을 자르려고 하면 밑을 잘라야 되는데 이만큼 남겨놓고 그 기념식수 판은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게 뭐냐, 조사를 해서 이 관계를 우리 군에 알려주라.” 라고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그런 지적을 해서 가지고 영성시 (청취불능) 전화를…… 정식으로 항의해 가지고 공식답변을 받았습시다. 받았는데, 기념식수가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식을 하겠다고 해서요. 저희들이 다시 금년 8월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식하게 되면 어차피 살기가 힘들어서 내년 봄에 보식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마 병으로 인해서 고사되었다고.

○ 최정욱 의원

죽은 것으로? (예)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확인이 안 됐으니깐. 그런데 꼭 일부러 자른 것처럼 그런 표시가 딱 보이더라고.

그러면 앞으로 영성시하고는 꾸준히 관리가 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지금 현재 중국 그쪽에서도 우호적으로 나 오고 있어서 영성시하고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나무는 내년에 식수한다고 했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내년 봄까지는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전에 그 나무를 파버려야 될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 최정욱 의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그것을 보면 반드시 뭔가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또 완도사람들이 보면 참 기분이 나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 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볼 때 국내단체와 교류 와 협력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과 장님,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일정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자치행정과에 교류협력팀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자치행정과에 교류협력팀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교류협력팀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 그다음 에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 영관리, 또 완도군 향우회 지원관리, 교육지원청 과 협력사업, 장보고장학회 지원사업, 그리고 또 국내외 교류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국내외 교류단체 관리 등 교류협력팀에서 하 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전부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전담부서까지 있네요.

본의원이 이번 대구 수성구의회에 자매결연이 라서 갔다 왔거든요. 의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하 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 서로 연결해서 지역발전에 활용해야 되는지 본인 도 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따라서 자매결연단체 등과 교류협력관계를 분 석을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활성화시킬 지 역과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군정 질문답변을 해야 하지만 오늘 의사일정상 시간이 많이 흘렀 으므로 주민복지과 질문답변은 내년 오전 10시 에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 문화체육과
- 세무회계과

(09시5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적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4,000원권 연 24매 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률은 목욕탕 30%, 이용업 24%, 미용업…… 죄송합니다. 미용업 24%, 이용업 6%로 전체 이용률은 60%입니다. 추진성과로는 목욕권에서 이·미용권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회수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동사업의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전년 대비 실적으로 배부수량 대비 회수율은 전년 9월말 기준 39%이며, 금년 9월말 현재 회수율은 61%로 이용률이 22% 상향되었습니다. 이용권 배부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연령기준 지원대상자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복지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등을 현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읍면에서 본인 직접 수령 또는 자택방문 등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장기 입원환자, 타지역 거주자, 장기 출타자 등 미수령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자녀들의 대리 수령 사용과 도서 및 산간오지 거주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사용 독려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성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용권을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는데요,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노인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인구대비 24%인 1만 2,232명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엄청 많습시다.

목욕탕 2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영 공중목욕장이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포함이 됐는가요, 안 됐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공중목욕장을 포함해서 20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전부 포함해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도 있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이 완도읍, 금일읍, 군외면, 보길면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현재 9월말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목욕장으로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미용으로 확대하면서 미용권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장기 입원환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가 장기 출타 등으로 해서 그쪽이 한 9.6%, 127명이 이·미용권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가 없어서 수령 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목욕업을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미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목욕을…… 남자 분들이 자주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용은 많이 하실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한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읍면에서는 나눠줄 때부터 본인 확인하고 직접 면에 가서 가져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장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것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아무한테나 줬지만,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런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해서 나눠줬는데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반납하라고 하면요, 이장이 덜 나눠주고 반납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잖아요. 읍면에서는 반드시 장기 출타하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장이 안 주거든요, 본인한테. 안 주는데 다시 반납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그분들한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7명은 미거주자여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가족들이 수령할 시에는 위임권을, 위임장을 제출해 주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 이장님이 나눠주면서 장기 출타를 했단다가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단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면사무소에다가 반납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납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전부 다 나눠주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장들한테 하지 말고 읍면에다가 반납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목욕장에서…… 목욕장은 1,000원이지 않습니까, 요금이. 요금이 1,000원인데 그 목욕장에도 이 목욕권을 하나 가지고 가서 한 번 사용합니다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인 1매 사용하는 것으로.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예를 들어 목욕장에서 목욕권이 들어왔다. 그러면 배분은, 금액을 지불할 때 1,000원씩만 지불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000원 청구를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니까요, 무조건 4,000원짜리 한 장이어도 1,000원만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것이 의원님,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전라남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농어촌 도서벽지에 목욕탕이 없는 곳으로 도지사님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해줬고, 또 운영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서두에 다 말씀드렸다고 이 것은 우리 군에서 엄청 좋은 사업이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도 안 주면 목욕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에도 이것이 좋고, 좋은 일이니깐요. 이런 것들을 가족이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족이 사용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전부 많이 사용해서 회수율이 100%는 안 되더라도 좀 회수율을 높여서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음은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림서비스 설치사업은 응급상황에 대처가 미흡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5개 읍면 292가구에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2만 6,000 원으로 완도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였으며, 응급 요원 3명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292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건강 상태가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노인,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대상자와 독거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입니다. 운영 및 관리로 가구에 설치된 장비는 응급상황 시 자동 신고,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를 전송하고 소방서에서는 응급신고 접수 및 응급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 위탁기관인 완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과 대상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흐름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성과로는 2018년에는 완도, 군위, 신지, 고금 4개 읍면 195가구에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약산까지 추가 5개 읍면 29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응급요원 등 인프라 부족으로 현재 제도권에서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하여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서비스 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전 읍면에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대상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응급요원의 모니터링 및 정기적 방문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2개년 동안 5개 읍면에 292가구를 지원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안전하게 추진되는 매우 중요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상황 발생이 27회 있었는데 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7회 출동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응급사항은 27건으로 질병 19건, 화재감지가 5건, 골절이 2건, 가스 감지가 1건이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가 자활센터를 방문했는데 자체적으로 292 가구인데, 3명 요원이…… 어떻게 보면 개인당 한 100가구, 참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돌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하루에 1만 원씩 기름대가 나가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뭐 약산에 간다든지 어디에 갔다 오면 기름 값도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그 자기 차의 소모, 그런 부분들은 전혀 관계없이…… 기름 값도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말씀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군에서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사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차량을 계속 배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차량 배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추후에, 앞으로 전면적으로 12개 읍면에 확대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주로 그 관리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 건강상태가 취약한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장비사용에 취약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요, 돌봄이 3명 있는데 주로 자기들이…… 자주 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연속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

주 돌아볼 수 있게끔 한다든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전기차라까, 그런 분들이.....

활동을 그만큼 하시는 분들이 더라고요, 제가 쪽 훑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량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름 값은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기름 값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전기도 들어가겠지만 저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잘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관리원이 월 1회 이상 (청취불능) 점검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상으로 기계가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이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요,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진짜 과거에 TV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혼자 죽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월 1회인데요, 자기들 얘기로는 꼭 1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들리고, 또 지나치다가도 들려보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위로도 좀 해주고요, 또 최저임금으로 172만 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 나와 버려요, 너무 힘들대요, 일이. 그리고 자기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냥 나올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고 그러면 돌려주고 나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접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의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규정은 150명에 1명씩 관리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취약한 여건상으로 해서 100명당 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이 기계만 많이 설치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둘러본 집은요, 어떻게 눌러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응급요원들이 가가지고 누르는 방법이랄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달에 1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스템상 이상이라고 뜰 때 장비 이상이라고 뜰 때 저희들이 가서 오작동이라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명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기료가 한 달에 3,000원 미만 정도로 나갔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기계를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교육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은 모두 우리 지역을 일구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공경하면서 잘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체가.....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요, 그런 분들에게 진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제가 한 열 군데는 돌아봤는데 마음이 썩해 가지고 진짜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픈 분들, 또 여러 가지..... 누가 돌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음은 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운영보조금 7억 6,440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8명, 물리치료사, 조리사, 언어재활사, 운전사 등 총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2019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평가, 기능향상, 직업지원 등 7개 분야 41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1,146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은 답변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복지관 급식실 운영 예산 및 1일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실 운영 예산은 3,056만 원이며 8월말 기준 이용 누계 인원은 6,366명으로 1일 평균 40명의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이용하였습니다. 완도군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으로 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총연합회 3개 단체에 9억 4,4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9년 장애인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54억 2,730만 7,000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현금 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 등 서비스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시설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 현물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직업문화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2억 5,340만 3,000원의 예산으로 군립도서관, 보건의료원, 읍면 등

에 27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위한 완도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2021년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인복지관 시범사업으로 2020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어교실,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자조모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장애인 문화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관심이 있어 질문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다시 질문하게 된 사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약자의 복지는 중요한 생각되어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급식 인원을 작년과 올 8월까지 살펴보면 회원 수 150명 대비 일평균 40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명 대비하면 한 27% 이용률이 되더라고. 과장님, 뭔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이것도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치거든요, 급식실 이용. 작년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 가지고 했었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40명이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는 식당이 정말 좁은 것 같아서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정도였는데, 올해는 고급, 약산 때문에 많이 들어서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까 하고 가봤더니 작년과 거의 비슷해서요.

혹시 복지프로그램이 약해서, 아니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담보되어 있지 않을까 생

각해 봤어요. 어떤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현재 40여명이 이용을 작년에 비해 서……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의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은 무료입니다. 일반장애인한테는 2,000원씩 받고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부터는 국도비 3,600만 원을 급식비로 지원해서 일반 총 장애인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만 2,000원으로 사용하는데, 9월 추이를 봐보니까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개 부분에 41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0명 이상 될 경우는…… 그 식당을 50명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 이상 사용할 경우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고 소방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2,000원…… 전 장애인들에게 무료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늘어나면 장애인들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혹시 프로그램 중에서도 좀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장애인들이 거기서 어울리면서 자기들끼리 동변상련으로 어울리는,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자조모임, 치유탐방, 문화체험 등을 적극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자조금 8,000만 원. 아니, 800만 원. 공감과 치유탐방에 2,000만 원. 문화체험에 1,000만 원. 3개 프로그램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94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확대하여 참여활동을 하도록 추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신축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여쭙보겠습니다.

복지관의 직업재활시설 시범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21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1층에 있는 공간 한 50평 정도를 1억 4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70%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 12월 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05년에 한번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공동작업장을 실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차장하고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1년 만에 운영 부진으로 중단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으로 할 것인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사람이 한 50명 내외거든요. 50명에서 55명 정도 되는데요, 식사는 한 40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요, 계속 장애인복지관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사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증대하지 않고, 증대 없이 장애인복지관에서 1년 동안 시범 운영하고 분석해서 2021년에 장애인재활시설이 완공되면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면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과 그 밀에 리모델링한 것……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 신축할 때, 그때 쓰겠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와 있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정확한 계획은 세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한 군대를 더 돌아봐서 확정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기왕 하는 것 신중히 검토를 잘하시고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한 번쯤 해서 실패가 없도록 잘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21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데, 장소는 어떠한 곳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소 물색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부지 마련하기가. 그래서 현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저도 거기를 한번 이것을 보고 돌아봤거든요. 거기에서 또 다른 데에 지어버리면 장애인들이 찢어지고, 왔다갔다 이동하고, 이것 효율성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옆의 땅을 매입하면 좋게 나오겠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주택지역은…… 의원님, 장애인협회와 여러 군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저희하고 공동적으로 땅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주택들은 각도가 암반으로 깔려 있어서 45도 각도입니다, 거기에 건축하기는 어렵고, 또 그 옆에, 밑에는 매매할 사람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여중학교 뒤에 전답이 좀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서 이동거리가 너무 멀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부근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장애인들의 질 좋은 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검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일반인들과 같이 2년에 한번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거기에 가서 제가 잠깐 장애인들과 대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와서 그냥 간단히 맥을 짚고, 이렇게 간단히 하고 만다고, 우리도 일반인처럼 종합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진을 받는데 그러느냐고 하니까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여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지 않느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우리는 보건소에서 와서 간단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요.” 라고…… 정확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에 내가 한번 들릴게요.” 라고 그러고 왔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의료보험조합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1회에 한해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이것 보건소에서 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병원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받아서 그랬던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복지관 관장님 채용은 누가 어떤 식으로 채용하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은 사단법인 전남 장애인 협회가 위탁……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하고 상관이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죠, 그리고 수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공개입찰해서, 공개경쟁해서 운영하고……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장애인들과 가만히 내가 비밀리에 대화해 보면 굉장히 관장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표시는 못하고, 보면 알죠, 눈치나 이런 것으로. 그런데 올해는 내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아하고 저 분이 꼭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이고 채용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의 입기가 얼마 안 있으면 끝난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65세이니까 올해까지 마무리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은 우리가 저쪽에다가 말할 수는 없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 최정욱 의원

할 수 없나요, 그 사람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분이요, 의원님의 말씀이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서기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굉장히 종사를 많이 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전 관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전 관장님은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이 교체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된 분인데요, 이 분은 굉장히 공동작업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들어와도 좋지 않겠냐, 직업재활시설 관장으로, 그래서 저 분이 굉장히 그쪽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아쉽죠.

○ 최정욱 의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다시 재임용하면 저희들이……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장애인들 한 5~6명이 나한테 가만히 와서 자꾸 그 말을 하네.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잘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금, 약산 장애인 분들이 차량 운행이 없어서 복지관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금 약산에 두 분이 일반버스를 타고요. 9시까지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9,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요, 작년에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버스를 구입해서요. 하반기에 고금, 약산, 신지 3개 읍면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작년 말까지 검토를 해보니까 이용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지만 이용을 하고 고금, 약산은 차를 놔두고 이용을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올해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노선을 변경해서 12인승 버스…… 봉고만 신지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후 발생자가, 또 이용자가 발생할 경우는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변경해서요, 그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쪽에 이용자가 있는데 못 온대요. 한 10명 정도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저희들이 꾸준히 대형 25인승 버스도 운영하기 때문이에요. 약산, 고금 쪽 인원이 몇 명인지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이용하는데요.

지금 완도읍에…… 25인승 버스를 완도읍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완도읍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섯 대로 운영하거든요. 직원들이 초과근무 때문에, 예산 때문에 8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청소하고 9시부터 운행을 합니다. 9시부터 운행을 하는데 차가 한 대 더 늘어날 경우 직원들이 풀로 다 운영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분이 9시 이후에 운영할 경우는 10시 넘어서 도착하거든요. 고금, 약산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그냥 와서 9시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차가 있어야 되구먼요. (예)

지금 신지에 가는 차가 거기까지 뛰게 되면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까지 늘리라고 하니깐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래서 올해 마사회에서 차를 한 대 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를 배정받으면 고금, 약산, 신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 최정욱 의원

잘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동차는 지원이 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지원 품목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가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스쿠터는 장애인 지원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 의료보험 장애인들은 건강관리공단에 1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장애인 지원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또 4,000만 원, 5,000만 원이라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는 그건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우리가 품목을 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완도는 없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애인 체육대회를 말씀하십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전남도내 장애인 체육활동은 문화체육과를 통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생활체육회에도 1,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한마음 대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문제로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애인들이.

○ 최정욱 의원

예, 자꾸 건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8개 시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만 하고 14개 시군은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른 시군에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1억 5,000 이상이 수반되는데, 매년. 그래서 다른 시군의 설립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좀 지켜보면서 준비는 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아무튼 우리 군 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더욱 더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다문화가정 적응대책 등 3건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389명으로 읍면별로 완도 114명, 금일 36명 등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192명, 중국 72명 등입니다.

2쪽입니다. 2019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건강검진비 지원, 한국어교재·교구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센터운영비 지원과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통번역 지원,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9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11개 읍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현재 특정시설의 종교 건물이 아닌 공공시설로 이전과 한국어 교육 확대 운영, 국적 취득 지원, 기타 가정교육 확대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공시설로 이전을 검토하고 위탁사업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1회성 중심의 단발성 사업을 폐지하고 수혜자 중심의 소수 연중사업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교육을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고 국적취득 비용 지원과 함께 국적 취득 교육매뉴얼 제작, 교육을 실시하여 국적취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 및 부부교육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당행사를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적응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보다 다문화결혼 이민자가 23명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문화가족들을 접할 수 있고, 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계가 글로벌화되고 국제적인 교류 및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달되면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죠? (예)

다문화가정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와 함께 의견 교환 및 간담회 참석까지 하면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 질의 때 본의원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요구했구요,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확인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건에 대한 수요 파악 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가정의 취업반에 대해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간담회 때 그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직접 와서 그런 계획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 읍면별로 수요를 파악해서 추진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작년도 답변서에 보니까 요양사 및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이런 데에다가 많이 실태파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실태파악은 되어 있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전수조사…… 직업 희망뿐만 아니고 가정 실태조사부터 해서요, 다문화센터에 다문화가정들 가구별 생활 실태조사 업무지시를 내려서 조사 중입니다. 이것이 10월 말까지 완료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꼭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분들의 생활이 나아져야 2세대들이, 그에 대한 자녀들이 이렇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글교실은 기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각 읍면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다가 저는 그렇습니다. 보육, 요리교실 같은 것을 접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일찍 나와서 음식 개발도 하고 또 못하는 사람은 다문화가정에서 일찍 오신 분들한테 음식도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큰돈이 들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8월, 9월 2개월에 걸쳐서 12개 읍면에 의원님들도 함께 참여하신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10년, 20년이 된 이주여성이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되 읽고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적 취득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꼭 반영해 뒀는데요, 한글교육을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하면서 그러한 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부분 그 취미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국적취득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간담회 결과 지원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공공시설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어느 시설로 위망하고 있는지, 그것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간담회 때 이것이…… 외국에서 온 이주여성들의 나라별로 종교나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특정 종교시설에 다문화센터…… 민간시설

이 건물에 있는 경우는 22개 시군 중에 완도뿐입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서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족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선행조건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금년에는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족센터를 다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먼저 선행돼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고요. 가족센터가 공모사업에 되면 그 부분에 다문화센터를 같이 집어 넣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가끔 대화해 보면 제일 불만이 그 부분입니다. 특정 종교단체에 자기들은 가기가 싫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100% 귀담는 것은 아닙니다. 분석해 보면 그분들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불교 쪽에서 온 종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맞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장소를 마련할 때는 앞으로 그분들이 편하게 정보교환도 하고 만남도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사항인 한국어교실, 국적취득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도 수용이 가능한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것이 예산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어떻게 반영되게끔 요구했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저희들이 간담회 결과에 우선 선행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국적취득에 대한 다양한 지원, 부부에 대한 그런 소통문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부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대폭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 부분은 아마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지원사업이 군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제고해야 된다고 판단

이 됩니다. 다행히도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좋긴 좋습시다. 군에서 하는 사업과 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에 여성아동과가 조직개편해서 새로 생기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센터의 사업이 일회성에 단발성 사업이 수십 가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혜자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혜자가 한정된 그런 부분에 사업들을 많이 했길래 금년 7~8월에 389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다문화센터에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 다문화가정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소수의 연중사업으로 다문화센터 사업을 재편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완도군이 다문화업무를 위탁해 오면서 사업의 실효성 및 문제점에 대한 고민 없이 업무가 추진되다가 여성아동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과정을 통해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나 `19년도에 비해 `20년도에는 다문화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갈수록, 군에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에 나선 것도 알고 있고요. 이렇게 다문화가족들과 우리 군, 또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간담회를 읍면마다 했죠? (예)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왔던 사업들 중에 후속조치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내년도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주여성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읍면마다 국적들이 다 다른 이주여성들이 1년에 한번이라도 한 자리에 모일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요. 내년에…… 엇그저께 최근에 어린이집 한마당행사를 했듯이 다문화가정 한마당 명랑운동회를 내년에는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참 좋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센터에 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해결이 됐고, 또 그 분들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모임장소나 이런 것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들으셨죠,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정 종교를 싫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만 여기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다문화사업이 피부에 와 닿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문화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도 느꼈고 공무원들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완도군 인구정책을 보더라도 다문화가정의 출산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2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물어보니까 27%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그래서 지원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지 않는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의 자녀문제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열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보다 더 그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들도 우리 문화에 적응하고 우리 사회에 구성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힘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정하고 다른 내용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보통 3시에서 6시 안에

이렇게 끝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들에 나가서…… 다 이렇게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중간 4시쯤에 하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와야 되고, 들에 나갔다가도 일찍 들어와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쪽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6시까지로 연장해 준다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일을 하고도…… 또 들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간을 조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것은 법규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군에 어린이집이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개소가 휴업 중인데요, 그중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6개소입니다. 우선 먼저 시범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종일반을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는 교사가 증원이 돼서 다양한 예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 한 군데를 종일반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이것의 확대 여부를…… 이 부분은 순군비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저는 꼭 종일반으로 이렇게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면 첫 번째로 그것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일하다가도 중간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4시쯤에 하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가정들은 부모가 받아들이는데 맞벌이하는 가정들은 거의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개선되면 좋겠다.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군외하고 약산 간담회를 과장님하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느꼈던 점, 이런 부분을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각 12개 읍면에 지금 현재 보면 친정어머니 예산이 1,800만 원인가요? (예)

이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같이 읍면순회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읍면에 예산을 배분해 가지고 그것을 읍면에서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몇 개 읍면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것이 아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읍면은 차등을 뒀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요. 또 다른 읍면도 그런 부분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대폭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차등해서 집행해 볼 계획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이 내가 질의한 내용의 답변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 12개 읍면 중에 제일 잘 되고 있는 읍면이 어디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대표적인 것이 약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약산면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큼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느낀 부분이 그렇습니다. 약산면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군외와 약산을 갔었는데 군외도 사실 이루어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산이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주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친정어머니가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1,800만 원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등을 좀 두시고요. 잘한 읍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잘한 읍면은 좀 더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한 3년, 4년 이렇게 지나도 한국어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주여성들이. 그랬을 때 그 밑에 자녀들은…… 그래도 대중적인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부모님, 어머니의 언어를 따라갈 것인데 그것이 힘들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정에서 조금 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다문화가정이 됐을 때는 뭔가 느끼고 왔을 것 아닙니까. 한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내년 예산에 대폭 확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다음은 4쪽입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는 1만 5,754명으로 전체 인구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세 추세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완도군 전체 인구 중 여성 49.8%, 남성 50.2%로 성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청년인구는 여성 42.8%, 남성 57.2%로 남성이 14.4% 많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인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여성이 43%, 남성이 57%, 30대는 여성이 44.7%, 남성이 55.3%, 40대는 여성이 41.4%, 남성이 58.6%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청년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청년인구 1만 5,754명 중 전입은 10.4%인 1,631명이었고, 전출은 12.3%인 1,930명으로 전출이 전입보다 299명 많았습니다. 19세를 포함한 20대에서 순이동이 -266명으로 전출이 가장 많았고, 40대에서는 순이동이 60명으로 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참고로 성별 전출입 현황을 보면 여성은 전입보다 전출이 204명 많았고, 남성은 전입보다 전출이 95명 더 많아 여성의 전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혼인, 이혼 동향입니다. 지난해 기준 완도군 전체 혼인건수는 196건으로 이혼건수는 112건입니다. 2017년 대비 각각 23건, 21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초혼 연령은 남편이 35.88세, 아내는 30.22세로 지속적으로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완도군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7월말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관내 청년 40명으로 청년발전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년발전협의체는 청년정책 의제발굴이나 제안, 군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제, 교육, 복지, 문화 등 4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하게 됩니다. 최근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임원 선출 등 운영체계만 구축되었고 11월 중에 청년협의체 우수지자체 벤치마킹과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여건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특히, 과학적인 근거를 통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금년 2월 호남지방통

계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월 공표를 목표로 완도군 청년통계를 자체 개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청년정책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청년정책워크숍인 청년정책파티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 지원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위해 2020년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행안부 균특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말 청년통계가 공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인구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청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청년발전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청년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취·창업 교육, 청년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선도 인재육성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면 청년인구가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만 5,000여명의 인구(청취불능) 대비 3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를 연도별로 보면 '14년도 대비해서 '18년도를 보면 한 700명 정도가 감소되었고요, 또 같은 기간 중에 청년인구는 1,500여명이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91%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있겠지만 인구 감소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것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어촌, 또 전체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떠나는 청년들을 어떻게 붙잡아둘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청년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호남지방통계청하고 지난 2월에 업무협약을 맺고 통계청에서 완도군 청년정책에 대한 기초통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총 8개 분야 135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하고 있는데요, 인구, 혼인, 출산 또 여기에 대한 일자리, 복지 관련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11월까지 완료되면 11월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초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완도군 청년대책의 핵심 분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완도군 청년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데 제대로 한 번 더 어떻게, 또 어떤 분야에 어떤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4월부터 6월까지 청년발전협의회를 40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24명 정도는 청년들이 스스로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시켰고요, 나머지 16명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청년발전협

의체로 구성해서 4개 분과로 편성해 뒀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보면 12월 중에는 청년정책종합계획 수립과 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2개의 협의체의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청년발전협의체는 청년발전에 대한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해서 그것을 완도군의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당초 목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청년센터 조성, 여기에 10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들어가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년정책에 대해서 왜 제가 알고 싶었냐면,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잡아두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본의원은 센터를 빨리 조성해서 우리 정책을 발굴하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청년……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청년발전정책 발굴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여성아동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음은 9쪽입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9월 말 기준 총 299명입니다. 지원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동급식은 방학 중 전체와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매일 1식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1식에 4,500원으로 각 읍면에서 부식으로 구입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63명의 아동에게 2억 4,209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9월말 기준 299명의 아동에게 2억 1,51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서로 형성되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과 급식시설이 부족하여 부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부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2017년도 현황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2017년도는 약 400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400명이요.

왜 2017년도 대상자를 물어보냐면 2018년도에 64명이예요, 대상자가 줄었는데 혹시 그 사유가 있는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것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완도군의 인구분포가 적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만 18세가 넘어가는 학생들은 제외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감소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생각했을 때는 취약계층이 줄었다거나 학생들이 졸업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는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나 아직도 299명이란 결식아동 대상자가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4,500원의 부식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요,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우유, 계란, 햄, 소시지. 이런 부분은 간식 수준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그런 부분 없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단가가 1식에 4,500원 기준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것을 급식으로 해줘야 맞습니다. 도시 쪽에서는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급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나 또 지리적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여건이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 급식을 부식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이 보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식재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해도 식사 한 끼에 4,5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것을 의원이 알아봤을 때는 군민들이 지급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대상자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추후라도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자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된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참 보면 어려운 실정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식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 군정 질문 국민주택용자금 징수현황 외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주택용자금 징수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민주택용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무주택자 및 수해 피해 대상자에게 지난 1980년부터 1990년까지 501동 17억 8,700만 원의 용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별 미징수 현황

입니다. 501동 중 443동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8동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8억 1,200만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징수 사유로는 행방불명자 17명, 사망자 32명, 기타 9명 등으로 지금 상환능력 상실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자산가치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해 11월 국민주택용자금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6월까지 일제조사를 거쳐 최고장 발부 및 강제징수 예고장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건축물 근저당권 설정과 토지에 대한 압류 등을 실시하는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용자 개시일이 30년에서 40년이 지나 대부분의 채권이 시효 완성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시효 완성 건에 대해 우리 군 자문변호사와 관련규정 자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일괄 결산 처분하는 방안을 의회 동의를 구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주택용자금 징수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주택용자금 특별회계로 추진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특별회계가 주택자금용자 특별회계 중 7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중 부실하게 운영되는 회계가 바로 주택자금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징수가 너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총 58명이네요. 용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못한 이유를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행방불명자가…… 잠시만, 지금 501동 중에서 433동은 회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8동은 원금 이자를 합쳐서 8억 2,200만 원 정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로는 행방불명자가 17명이고 사망자가 32명, 기타 9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금상환능력 상실자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물이 30년에서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자산 가치를 상실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읍면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도읍이 좀 많은 것 같은데.

○ 민원봉사과장 권혁

완도읍이 13건이고요, 금일읍이 15건, 노화읍이 11건, 군외면이 1건, 신지면이 11건, 고금면이 3건, 약산면이 3건, 보길면이 1건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주로 보니까 완도읍, 금일읍, 노화읍, 면은 신지면이 많죠? (예)

현재 8억 1,200만 원 정도 회수를 못하고 있죠.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러니까 이 원금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이자가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원금이 1억 5,300이고 이자는 82%가 이자네요. 실태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실태조사는 정확히 되고 있어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방금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유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유별로 답변을…… 뭐 행불, 납세 태만, 폐업, 부도 이런 사항이죠?

자료에 의하면 받은 사람은 세 사람이고 나머지 55명이 (청취불능)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맞습니다. 법적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특별회계 취급은행은 어디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용자 초기에…… 그때 당시 용자를 시행할 때는 주택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9년 경에 차익금을 우리 군비로 모두 상환해 가지고 금융기관과는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 법적조치를 해 놓고 있는 분은…… 법적조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대상자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다가 총 147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고요,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시효가……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연대 보증인까지 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그렇습니다.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현재 보면 행불이 17명, 사망자가 32명인데, 방금 얘기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재산 압류도 해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재산적 가치도 없을뿐더러 재산이 자녀들한테 상속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도 법적 처분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

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국민주택 실태상황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가구별 조치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다음은 3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배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의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DB화하여 전자 지도를 만드는 사업으로 각 시군의 데이터를 취합, 표준화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시스템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소요 사업비는 2013년 완도읍 95.58km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4억 4,724만 1,000원을 투입하여 362.59km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6억 6,700원의 사업비로 노화읍 81.2km를 전산화하여 시스템화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으로 네이버시스템 외 2개 업체가 참여, 추진하였으며 시스템 활용실적은 시스템 도입 초기 단계라 활용도가 미비한 상태이나 시스템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시스템 DB 정확도 제고와 시스템 활용도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 한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시스템은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기타 시설물들을 조사 탐사 및 측량을 통해 시설물 속성정보와 위치정보를 전산데이터에 전산지도로 만든 사업이며 도로 위 중복굴착 방지, 예방과 복구비용 절감효과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복구비용을 절감한다는, 전산데이터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비를 21억 들여 가지고 완도읍하고 노화읍은 시스템이 완료됐죠? (예)

그 시스템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활용도가 올해 처음으로, 처음부터 시행한 사항이라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매우 낮죠. 그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완도하고 작년도 노화읍이 전산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공문과 구두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스템 활용실적은 옛날 종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전산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라 홍보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해가지고…… 이 좋은 사업을 해놓고 활용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요. 여기를 보면 전자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면 얼마나 공사하기 편하겠습니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도읍에서 하수관거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을 보며)

맑은물사업소장님, 거기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현재 하수도 침수 예방사업은 주로 우수, 홍관 우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시스템하고는 조금 접목이 어려워서 그것 없이도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어째 활용을 못해요. 안 맞는 이유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기존에 금당도가 구축되어 있고요. 참고하기도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도 원활하게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 김양훈 의원

그 이유는 그전에 있는 지도를 보고 이렇게 하수가 나오는, 이런 것만 알고 하는 것이고,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아니, 활용도 가능합니다마는 같

이 복잡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처음부터는 어렵겠지만 같이 접목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예, 앞으로 완도읍하고 노화에 구축된 지역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상하수도 교체 그때 유용하게 쓸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시스템이 활용가능한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이 7대 지하시설물인 상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현재 상하수도하고 통신 분야 3개 분야만 이렇게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쪽으로 적극……

○ 김양훈 의원

통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도로 굴착, 상하수도, 뭐 통신, 가스 분야 이쪽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금까지 활용실적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LPG 배관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수치지형도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그쪽만 1건 정도, 많이는 아니고 1건 정도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런데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1억을 투

자한 사업인데 활용도를 보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하매설물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완도읍 침수지역 정비, 노후 상하수도 관거 교체, LPG 배관망 등 지하매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용도가 잘 되게끔 해주시지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만 아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홍보해서 다각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다음은 5페이지,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빈집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노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빈집실태조사 결과 우리 군은 총 514동의 빈집이 파악되었으며 그 중 철거 형이 349동, 활용가능 형이 165동입니다. 지금까지 정비 및 활용실적으로는 매년 빈집 정비 희망자를 신청 접수하여 50여 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16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빈집 활용은 소유자의 활용 부동으로 귀농·귀촌 빈집 정보제공 등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 정비 소요예산은 철거장비비, 폐기물처리비, 인건비 등을 고려 할 때 최소 290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현재 지원은 군비 100만 원입니다. 주민들의 자부담금 과중에 따른 사업 기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지원액을 200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른 정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철거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2020년부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따라 기존방식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련규정 검토결과 동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읍면지역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우리 군은 이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년도에 빈집 정비, 빈집 정비 애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관내 전 지역에 필요로 남아 있는 빈집들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어린……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공간도 허다합니다,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빈집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철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해야 된다고 느끼고 계시죠? (예)

현재 이러한 빈집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권혁

현재 우리 군에서는 빈집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철거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매년 약 50여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부터 현재까지 163동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163동을 어떻게 정비했다는 소리예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모두 철거하였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냥 싹 폐기처리하고요.

그러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빈집은 몇 동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현재 총 514동의 빈집이 존재하며 그중 철거형이 349동, 활용가능형이 165동입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러면 우선 철거대상인 349동에 대하여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매년 사업 신청량은 약 50여동이며 희망자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도시에 거주하는 건축주의 향후 귀향계획과 부동산 보유 의사 등의 사유로 일제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정비 빈집 중 안전에 위협을 주는 빈집과 농어촌 경관을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설득하여 조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가장 경관상 보기가 흉한 것이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완도 관문에서부터 섬으로 가면 어떻게 봤을 때는 옛날 말로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흉악스러운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파악도 하고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지금 특례법이라고 2018년 7월 17일에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농어촌지역은 제외됐죠? (예)

민약에 저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정비가 빠른 시간 내에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어촌 지역만 제외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만.

○ 이범성 의원

아, 준농어촌 지역까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저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특례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죠, 지금 강제로 철거할 데가 많이 있는데 본인들의 의사가 안 따라주니까 철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법까지도 적용을 못 받다 보면 더더욱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여튼 직원들이 최대한 해가지고요, 진짜 빈집은 꼭 없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기들이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많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를 테마로 하는 예술작품을 활용하여 문화 및 치유거리를 조성하고 명사십리 등 주변 관광지와 함께 완도의 명소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조성계획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로, 문화거리 조성과 기념관 건립, 빈집활용

과 적거지 복원으로 추진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20년 지방이양균특 회계사업으로 도비 6억, 군비 9억 등 총 15억으로 우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적거지 복원 소요 예산의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기존 해양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한 문화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힐링체험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과는 달리 사업내용이 보완되어 추정 소요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본사업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됐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답변서 1쪽을 보면 추정사업비는 총 31억 3,000만 원으로 민자 또한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확보가 이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가장 어려운 점이 신규사업을 책정하는 것이고, 선정되게 하기 위해서 책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

운 부분입니다. 특히 문화사업하고 관광사업 중 일부 사업들이 내년부터 균특회계보조금에서 시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해서 시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된 예산은 국가에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3조 5,700억 정도 예산을 3년간 지급할 것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서 신청한 그런 문화관광 관련 그런 사업들, 또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얼마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 부분은 전체가 공공으로 들어갈 부분은 아니고요, 공공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한 16억 정도 됩니다, 1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빈집을 활용한, 공간을 활용한 그런 민간투자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문화거리 조성, 그다음에 기념관 조성, 그래서 한 15억 정도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그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다가 예산을 신청해 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련 과 방문을 여러 차례 했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얻었고, 그리고 도 예산담당관실에 그 관련 예산이 넘어간 것으로 그것까지 파악했습니다. 나머지 민자나 그런 것을 파악해야 될, 투자해야 될 그런 12억은 원교 이광사 기념사업회 또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요, 투자 유치하는 데에,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수고하고 계십니다.

내년 지방이양 균특회계로 총 15억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가 확실히 확정돼야 만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부 여부를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시군에 가내 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에는 가부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는

반영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요, 그리고 현재 적거지 복원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내년 본예산에는 2억만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적거지 복원사업은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 사업 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적거지 복원 관련은 저희들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4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우선 군비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 또한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요, 우선 1단계로 내년에 2억을 군비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광사 적거지 본체를 해체하고 초가지붕으로 다시 복원하는 등 내부 전시물도 전시를 해야 합니다. 밀랍인형이나 이광사 초상화나 (청취불능) 그런 볼거리를 전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2억을 가지고 주변에, 본체 옆에 행랑채하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다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광사 작품, 그리고 조선시대 유배문화 전시, 또 마당 정비, 그다음에 돌담 정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적거지가 복원되면 내년에 일부 해체하고 복원되면 내년에 완도군 향토문화유산으로도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사진 한번 올려주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이광사 적거지 건물입니다. 보다시피 부식이 많이..... 저 행랑채 같은 경우는 거의 쓰러져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상당히 시급합니다. 이 내용이. 이것이 큰 바람이 오면 아마..... 저 행랑채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원체 기둥이 많이 기울었어요, 가서 보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집이 많이 기울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제 생각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현재 이광사 적거지는 별도로 주차장이 없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별도로 없고요, 금곡마을 앞에 주차장.....

○ 부의장 허궁희

예, 거기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명절 때나 주말이 되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별도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그런 내용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주차장 관련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을 제가 가봤고요,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 별도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교 이광사 거리 조성 관련 문화거리의 걸어가면서 신지 읍면 소재지에서 적거지까지 약 1.4km 정도 되는데요, 걸으면서 구석구석을 돌아보는 그런 내용으로 테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물론 걸어서..... 거리 조성이니까 걸어서 구경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씩 현장에 가보면 면소지 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 시에 차선이 1차선밖에 없어요, 아주 비좁습니다. 중간에 차를 비킬 공간도 없고 통행이 매우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 기본계획사업비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별도로 관광객 수요나 이런 불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별도의 주차장 부지가

확정, 선정되면…… 이 점에 대해서 확정되면 확충해 나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사진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이 이광사 추진위원회에서 저렇게 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주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름을 알리는 분들이 참여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그래서 저한테 저런 메모장을 준거예요.

즉, 무슨 말이나면 이 이광사 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저만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완도군이나 그런 관계자인 공직자 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 2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도실업팀 운영배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과 연계한 우수선수 육성을 통하여 군 체육 위상을 제고하고, 군정홍보와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역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실적입니다. 2015년 1월 창단 이래 지금까지 20개의 대회에 출전하여 총 7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수상실적입니다. 4개 대회에 출전하여 총 2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한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은 2개, 동 2개를 획득했고, 4월에는 제58회 전

라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를 획득하며 3년 연속 1위의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국 남녀 역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은 2개, 동 5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7월에는 한국실업역도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에 참가하여 금 3개, 은 5개, 동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역도실업팀 운영성과로는 그동안 우수선수 영입과 역도훈련장 준공 등 적극적인 지원의 결과로 올해 우리 군 선수가 역도 한국주니어 신기록 달성과 2019년 전남체전 역도 종목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선수단 기량이 날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도실업팀 운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운영성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상내역이나 성적을 보면 감독 이하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달도 많이 획득하고.

답변서 2쪽에 보면 역도팀 운영배경에 따라 중고등학교 역도꿈나무를 발굴하여 우수선수들을 육성, 관내 출신으로 (청취불능) 이상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역도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중학교에 역도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완도고등학교에 역도부가 있는데요. 완도중학교에 지도자 1명, 선수 5명,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지도자 10명, 선수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중고등학교 꿈나무들한테 지원내역이라든지 있는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매년 한 1,500 정도 세웁니다. 학교 운동부 육성 기틀을 마련하고 자 청소년 체육 활성화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훈련비, 훈련용품, 그리고 대외출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뭐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보고장학회에서도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보고장학회에서도 예제능계 학생들 중에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역도꿈나무 발굴, 우수육성 지도, 창단에 75개…… 방금 보니까 75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나까 다행인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년에 여러 차례 합동 훈련을 통해서, 중고등학생들과 군 탐하고 합동훈련을 통해서 좋은 지도를 받게끔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완도군 역도실업팀 훈련장이 신축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중학교 역도훈련장 거기에 더 부설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중학생들 꿈나무들 하고 같이 훈련도 하고 그런 노하우도 서로 소통하면서 훈련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역도훈련장이 준공이 됐고 금년 1월에 역도훈련장으로 이동해서 저희 실업팀들이 역도훈련장에 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월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완도중학교, 그다음에 완도고등학교, 역도선수들하고 합동훈련 이런 것은 아직 없었는데요, 필요하다면 학교 측 지도자들과 협의를 해서 월 1~2회 정도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의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여자 2명, 남자 2명 총 4명

으로 한정……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저희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성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역도실업팀, 역도팀을 전국에서 27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구성은…… 선수가 11명인 데도 있습니다. 11명인 데가 있고, 그리고 전라남도…… 가까운 곳인 장흥군청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군마다 다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과장님, 전자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선수들의 출생지를 보면 공주, 광주, 고흥. 완도 출신은 딱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감독 입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중고등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나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중고등학생들을 유입해서 완도군의 위상을 올리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군 출신 중에 (청취불능)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가 기량이 뛰어난 선수였는데, 금년 3월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상무 소속으로 군 입대를 하는 바람에 2명 완도군 출신이…… 총 4명 선수 중에 2명 있었는데 (청취불능) 선수가 군대에 가는 바람에 1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내년 9월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면 군 실업팀으로 영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완도고등학교에 3학년 졸업예정자가 1명 있는데요, 역도팀 안에 그 선수. 그다음에 주변에 완도출신 우수선수가 있다고 하면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영입을 한다든가 충원한다든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독 계약은 어떻게…… 뭐 기간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의 모두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되어 있고요, 매년 12월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수와 감독을 재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연봉…… 성적에 따라서 연봉을 올릴 것인가, 깎을 것인가 이런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완도는 유일하게 역도후원회가 잘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요. 식사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많이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제가 감독이나 이런 선수 계약을 묻느냐면요, 지금 완도출신 중에 감독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주변에서 소리는 들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고양시청에 트레이너로 활약하고 있는 (청취불능) 선수가 학생 때부터 상당히 실력이 뛰어난 선수예요, 이 선수가. 왜 그러냐면 역도후원회를 장기간 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람이 오면 선수를 발굴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 현재 감독이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충분히 역량이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고 또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으나 지역출신들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수라든지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역출신을 한번 고용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평가를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현재 고양시청 그러면 역도로는 알아주는 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트레이너를 한다고 하면 이쪽에 와서 감독할 만한 능력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토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6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공개 석상에서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 사업면적 146만 2,000여 평방미터, 약 44만 2,300평이며 사업비는 570억 원의 민간투자자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코스 조성과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골프아카데미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5월 최경주 프로골퍼와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고요, 같은 해 11월에 건립 후보지 검토와 수익성 조사를 위한 완도군 골프테마파크 조성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에 최경주 프로골퍼와 대상부지를 확인했고요, 최종 후보지를 조율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금년 5월 최경주 프로골퍼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입안 진행상황입니다.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한 후에 2020년에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직접 투자에 소극적인 민간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휴양·관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7쪽, 최경주 골프테마파크 부지현황입니다. 부지는 총 501필지로 공유지가 50필지, 2만 9,272㎡이며 사유지는 451필지, 143만 2,880㎡입니다. 토지확보 및 소유자 동의현황은 시기 미도래로 아직 추진된 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경주 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경주 프로하고 MOU 체결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난 5월 23일에 체결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최경주 골프재단에서는 570억을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6억을 이번에도 보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데, 이것 한번 의회에 와서 삭감된 예산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인철 의원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삭감됐죠. 그렇게

하고 삭감할 때 이유가 있었죠, 삭감 이유가. 예산 삭감 시 예산 심의하면서 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게…… 이번에도 보니까 2020년도에도 예산을 올려놨더니만 충족시킨 것 있습니까, MOU 말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직 MOU 말고는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MOU가 무엇입니까? 옛날 예산팀장을 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서 쌍방 간의 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호 양해 내용을 기재하는 합의문 정도……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법적인 것은…… 신의성실을 위반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저도 완도에 최경주 골프장 동의합니다. 최경주라는 훌륭한 선수가 골프장을 짓는다는 것은 더더욱 저도 동의합니다.

추진절차를 보면 민간사업자가 기초조사 실시 후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리고 최소한 토지면적의 80%라든가 아니면 주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 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한 필지라도, 아니면…… 4만 평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 절반이라도 최경주재단에서 토지를 산다든가 아니면 토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던 501필지 중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동의를…… 주주들한테 동의를 얻는다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야 만이 우리가…… 그런 것을 얻어도 우리 군비 6억을 들여 가지고 군관리계획 변경을 한다고 하면…… 물론 투자 유치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고개를 한번 저을까, 말까 하

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 군비 6억을 투자해서 군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만약 최경주재단에서…… 최경주가 여기 골프장을 안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과장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질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의원님의 말씀처럼 토지 소유자와…… 토지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최경주재단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경주 선수의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난 5월 23일에 완도군과 투자협약도 맺었고 투자의사가 확고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6일 토요일에 최경주 선수하고 관련 재단 관계자, 군수님으로 해서 광주에서 미팅자리가 있습니다. 미팅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요, 그런 모든 과정들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토지 확보입니다. 토지를 확보해야 만이 최경주재단에서 완도에다가 최경주 골프아카데미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군수님을 만나면 뭐합니까. 100번, 1,000번 만나면 뭐합니까. 전혀 그런 토지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군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 그러면 501필지, 주주들의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가 바다를 끼고 있는데,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군관리계획 변경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더 이야기해도 과장님한테 답변이 더 이상 나오겠습니까. 그 마음 제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군에 국공장이 몇 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국공장이요?

○ 박인철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국공장은 구 청해정 건물에 있다가 이전해서 보건의료원 아래쪽에 하나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나죠. 그런데 지금 2개로 안 되어 있습니까, 구 국공장? (예)

그 관리는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안 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관리해야 됩니다.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2017년도 1회 추경에 2,000만 원 용역해 가지고 안전검사를 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안전검사를 했는데……

○ 박인철 의원

D등급이 나왔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C등급이 나왔습니다.

○ 박인철 의원

C등급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작년에 최정욱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고 현장도 같이 가서 보고 했는데요. 청해정 건물 관계가…… 새롭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가 그 후로 말이 없고요. 문제는 그 부분을 그분들한테 임대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청해정 그 건물부지가……

○ 박인철 의원

아, 잘 알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유지가……

○ 박인철 의원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어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현재 상태는 건물도 불량이고 그래서 철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철거 비용은 확보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직 철거비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여기에 아직 안 올라와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아직 편성 요구가 안 났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구 국궁장 안 가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안에……

○ 박인철 의원

(자료를 들며)

제가 저기에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 가지고만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많이 흐트러져 있고……

○ 박인철 의원

영망이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탈선의 장소로도, 그런 쪽으로……

○ 박인철 의원

아니, 탈선의 장소도 있고 안전상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만약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그 책임은 어디에서 집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안 되면 이 재산을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으로 넘기십시오. 거기에서 처리하게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여튼……

○ 박인철 의원

이 문제가 최정욱 의원 때부터 된 것이 아니고 7대 때부터 나온 문제예요, 구 국궁장 문제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 기억으로는 김동삼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뭐 재할용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화시설로 할 것인가. 그때부터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런데 지금도 영망으로 방치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알기로는 지난 번 의회 때 철거비를 계상했는데, 4억을 계상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원님들에게 이 부분이 언급됐으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철거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철거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정리하십시오. 흙물스럽고요. 그쪽으로 쪽 올라가다 보면 또 층흔타고 같이 연결되죠. 층흔타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쪽이. 저도 이번에 한번 올라가봤는데 너무 흙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최경주 골프 군관리계획 용역 6억 만원은 심사숙고하십시오. 어느 정도 최경주재단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다만 땅 몇 필지를 사든가, 동의를 얻든가. 그리고 MOU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MOA로 변경되어 가지고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고해 가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 8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금면 역사공간관광자원 활성화 대책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금면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관광자원

현황입니다. 고금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개소, 도지정 문화재 4개소, 군지정 문화재 6개소로 총 11개소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군 문화재의 24%가 고금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8쪽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계획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에 걸쳐 고금면 덕동리 730번지 외 11필지, 총 24만 1,078㎡의 규모에 190억 원 사업비로 역사관광 자원화사업, 어촌체험 자원화사업, 역사공원길 조성사업,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으로 총 4개의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에 고금 덕동 일원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12월에 해남도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본사업을 우리 군 5개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5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에는 전라남도 제2차 투자심사에서 예산 확보 조건으로 사업이 조건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2020년 군특회계보조금 지방이양사업 도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관광과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10쪽, 예산확보 내역입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내에 내년도 실시설계비 5억 원을 배정 건의하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완공 시 활용방안입니다.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모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고금역사공간 관광자원 활성화사업을 2023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관광객 등 고금의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생태관광 루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중국 운부시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의 다변화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금역사공간관광자원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금면에 있는 문화유적은 이충무공 유적을 비롯해서 지석묘, 이도지, 적거지, 향토문화유적 등 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완도군 향토문화 제1호 이도지와 적거지에 대해서 한번 문졌습니다. 이도지, 적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도지, 적거지를 한 2~3번 가봤습니다. 참 초라하게 지어져 있고요, 앞에 주차장도 변변치 않고, 제가 봐도 좀 답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도군 향토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라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지금 현재 보면…… 저도 가봤는데요, 가서 볼 것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쓸령합니다. 또 안에 내부는 문이 잠겨 가지고 볼 것도 없고요, 그리고 주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광객이 왔다고 해서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적거지 예산만 들여서 적거지를 만들어 놓고 아무 활용가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방금 과장님께서 주차장 문제, 변변치가 없다고 했는데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성자 의원님께서도 이전에 늘 자꾸……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은…… 이전에 제가 2~3번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금면에서 들어가는 쪽에, 입구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민가가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일대를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 저희들 위치가 선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면사무소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저쪽 땅 주인 소유주하고 다 얘기해 봤었는데요, 그냥 한번 슬쩍 지나가는 얘기 같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땅을 주라고 했더니 “아니, 주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땅을 왜 주느냐?” 라고, 그만큼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문제도 안 되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도로에 전부 다…… 볼 것도 하나도 없고, 대책 좀 잘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향토문화재 제1호,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살림을 했던 이도지와 적거지인데, 이도지, 적거지라고 해서 볼 것이…… 내용물도 하나 없고 앞에 간판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해서 활용도가 높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이도지, 적거지 현장사진입니다.

전부 다 보면요, 벽이고 어디고 전부 다 훼손되어 가지고 진짜 보기 싫습니다. 제가 한번 쪽 돌아보면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도지, 적거지 기둥입니다, 기둥, 사진으로 보니까 예쁘게 보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크게 손상이 안 되고, 직접 가서 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금방 무너지게 생겼어요, 가보셨는데 저런 것을 안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근에는 발견을 못했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 김양훈 의원

저것이 최근에 아닙니다. 정말 오래된 상황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전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저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 김양훈 의원

대충 봤다는 얘기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완도군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유적…… 완도군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 완도군 전체에 45개 있습니다. 매년 수시로 저런 부분에 대한 수리, 보수 건의를 해당 읍면에서 계속 해오고 있고요. 방금 지적하신 이도지, 적거지 관련 사진은 저희도 발견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고금면에서도 건의가 아직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건의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별도로 저희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예산에서 남은 부분을 가지고라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주차장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게끔 구조 자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면을 대표할 만한 역사관광자원은 사적 114호로 지정된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정유재란 시 조명, 수군연합 등 통제영이 설치된 덕동 일원으로 역사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도 현재 추진 중인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역사공간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과장님, 답변서를 보면 역사공간 활성화사업이 19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확보방안하고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까 원고 이광사 문화거리 조성 관련 그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고요. 고금 역사

공간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서 군특보조금에서 도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1순위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연도별로 지장 없이 확보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 첫 해인 내년 예산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도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관광과를 수차 방문해서 이 사업을 예산에 새로, 신규로 반영해 주십사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관광과에서 전라남도 예산담당관실로 이 사업을 1순위로 넘겼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까지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투입계획은 당장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5억하고 군비 5억, 10억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 50억, 그다음에 2022년도 50억, 2023년 마지막 연도에 80억, 이렇게 해서 그래서 190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산 확보를 잘해서 가지고 문제점 없이 잘 진행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우선 방금 언급을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에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용역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신규사업 선정 예산 확보를 위한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추진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주

민설명회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다음 질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 용역을 하면서 조감도부터 용역사진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었는데,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삼군수군통제영 인포메이션 상제 도입입니다. 잘 아시죠? (예)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그 부분하고요, 제가 아마 저 위치가 되겠다 싶은 곳에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인포메이션 그 자리요, 저 자리가 맞습니까? 저 자리가 맞으면 저쪽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할지, 이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볼 방법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은 방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것이 확정된 위치는 아닙니다. 방금 언급한 내용대로 기본용역자료 조감도에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이고, 조감도 내용입니다. CG 컴퓨터그래픽으로 사진에서 조감도로 입히는 과정에서 차이도 생길 수가 있고요, 저 부분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또 사업위치를 최종 확정하고, 그런 부분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그 자리의 주민들을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인포메이션센터를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자세하게 소통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현재 보면 우리 용역도 거의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감도하고 저 용역하고요, 거기에서 또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 용역을 했으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께서 언급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대한, 나름대로 (청취불능) 없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설계하는 과정에 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해 주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어촌체험센터 같은 경우도요, 바다 쪽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산 중턱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험하는 자리하고 그 위치하고 잘 안 맞습니다. 자료로는 사진을 올려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올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하기 전에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문제점 없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고급에서 또 관광자원을 중국하고 연결을 시켜서라도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저기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 공간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관광버스 한 대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이전에 누차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충무공 유적지를 들어가더라도 승용차나 소형버스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길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버스로 관광객들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관광객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들어가는 진입로, 이 도로들이 잘 확보장이 돼서 관광객들이 큰 버스라도 손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도록 좀……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도로 진입로부터 정비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떨는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가장 큰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그 부분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사업과 덕동과 고급 충무사 간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광역화되면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가 소통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저는 고민보다도 먼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데 그 부분은 추진하려면 당장……

○ 김양훈 의원

예산 확보가 문제겠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예산도 예산입니다, 예산도 예산인데. 문제는 현재 사유시설에 뭐 축약장도 있고……

○ 김양훈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쪽은 축약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 쪽이냐고 그러면 세동 앞쪽으로요, 구간, 구간으로. 그것을 좀 더 안 되는 구간을 넓히자는 것이지. 지금 가서 보시면…… 과장님이 전혀 안 가보셨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덕동에서 충무사에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세동에서 덕동 충무사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길이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게 해서 그쪽에 예산을 좀 세워서요. 진입 도로를 먼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도 역사관광사업은 고금도 주민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큰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중에는 이런 질의를 안 하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 11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체육시설 읍면별 현황과 확충계획입니다. 우리 군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10개 읍면에 3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세부현황은 답변서의 11쪽부터 1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시설 확충을 위해 완도군 체육시설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읍면별, 연도별 연차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과 활용실적입니다. 각 마을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은 12개 읍면에 15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 평균 3만 6,6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은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대책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와 소규모 체육시설은 마을과 읍면에 관리책임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주요 시설은 군이 관리하여 체육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과 보수 등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시설관리의 문제점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는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 읍면, 군이 전수 조사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하고 합동으로 분기별 지도 점검하여 보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 군정 질의 때 제가 또 한번 했던, 질의했던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실태, 관리, 정기점검 등 이설이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야외 운동기구 설치하는 기본적으로 개소당 세 종류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이설하는 경우에는 400~5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설보다는 신규 시설하는 그런 실정이고요. 기존에 시설된 야외 운동기구 중에 상태가 불량한 그런 시설도 많습니다. 저희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6개 읍면에 91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보수하려고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치현황을 요구한 것은 현장을 제가 다 모르니까 아는 쪽만 가보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쪽은 세부적인 조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5쪽은 마을만 작성되어 가지고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마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세부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그것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가 문화체육과에서만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대장, 이런 것이 다 있을 것인데, 지금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 주변,

등산로 쪽에는 환경산림과에서 그런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로당은 주민복지과, 그리고 공원지역은 지역개발과, 이런 데에서 각각 시설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은 (청취불능) 관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조사해서 취합했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제가 이 과, 저 과를 언급했습니다마는 평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통합적으로 통괄 책임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쪽, 저쪽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헛갈리지 않겠습니까.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완도 종합운동장 산책로 주변입니다. 관리가 잘 됐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것이 너무 잘 되어 가지고 군민들이나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것은 약산 삼문산 주변 운동기구입니다. 야외기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보시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한여름에 찍은 것이니까, 최근에 찍은 것이니까?

○ 김양훈 의원

최근에 찍은 것.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약산면에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책임입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약산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수조사를 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저것을 보면 전혀 저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렇게 사람이 없는 곳은 이설 했으면 좋겠다, 많은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올려주십시오.

여기는 답변서에 보면 월 1,200명이 사용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조사하고 취합한 과정에…… 저기가 아마 약산 해동리에 서……

○ 김양훈 의원

예, 해동리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두리에 가는 거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120명을 타이핑하면서 1,200명으로 오타가 난 것 같고요, 가는 도로변 쪽에 세워져 있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아는데 하여튼 저 부분은 그렇게 자라 있고, 또 저것이 활용도 안 되고……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1,200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타가 나서 120명이라고 합니다. 자, 120명이라고 하더라도요, 싸리나무가 저 정도 크기라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120명이 왔다면 저 싸리나무나 저런 것이 없어야죠. 이것이 어떻게 운동하는 사람 개체수로 120명, 뭐 1,200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알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그 관리실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고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기구가 뭐 한 두 개도 아니고 각 마을 동네마다 전부 한 동네에 두 군데, 세 군데 있는 곳

이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전부 다 관리하기에는. 안 되면 읍면에…… 요즘 공공일자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 얘기해서 관리도 잘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접어들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정보 교환 등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도군의 경우 체육시설 현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특히 완도는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는 게이트볼장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재 각 읍면 단위에 야외 운동기구 정도만 좀 있고 체도관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타 읍면에는 야외 게이트볼장,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 정도만 읍면 단위에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많이 열악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읍면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이전에 김양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로 보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금년에…… 내년에 19억 원을 들여서 국비로,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체부 국비사업으로 확정돼서 내년에 보길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금 쪽은 동계 전지훈련도 많이 오고 완도 체도관하고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물론 다른 읍면도 확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 고금 쪽에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요구해 뒀습니다. 고금 쪽에 체육공원 기본계획 조성 용역관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타 나머지 읍면

은 모두모두 한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읍면에 체육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수요조사를 하고, 용역을 발주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의원

방금 고금면 용역 2,000만 원이 지금 올라갔죠. 그런데 군외 그 축구장 아시죠? 지금 드론연습장으로 쓰고 있죠. 그렇게 면 단위에다가 축구장 하나만 달랑 지어놓으면,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못 갑니다.

이왕 시설하려고 하면 SOC…… 생활 SOC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30억짜리, 10억짜가 있는데요. 10억짜리는 좀 뭐하고 30억짜리로 크게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전지훈련을 와도 운동장 하나만 달랑 해놓으면 그분들이 와서 그것만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요, 생활 SOC사업이라고 하면 30억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높게끔 용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 이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언제쯤에나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빠르면 3월이나…… 아니면 추정할 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예산에는 고금 쪽에 전지훈련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빨리 넣었고요. 나머지 읍면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용역계획에 반영하려면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예산도 더 많이 수반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경에 그것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좀 빨리 해가지고 종합대책 수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체육시설 요구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해서요, 건강을 지키는 데에 큰 무리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 2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로 4회 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동안 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년 전 글로벌 경영인 장보고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상어워드 수상자들의 성공스토리를 전 시하여 미래의 장보고를 길러내는 동기부여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기존 완도관광정보센터를 일부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현재 1~2층 연면적 151㎡ 196평의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14억원 중 특별교부세 7억을 이미 확보하였고, 군비 7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시설은 기존 장보고공원 내에 위치한 장보고기념관, 해양생태체험관과 연계한 문화교육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완도와 장보고, 그리고 장보고와 한상기업인들을 한데 묶어 완도에 대한 대외이미지 제고로 홍보효과가 기대되고, 활용도가 떨어진 완도관광정보센터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상어워드 수상자 활용실적입니다.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 개막식에 수상자들이 장학금 기부와 완도고에 가상체험관을 기증하였고, 작년도 대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영산그룹에 현재 우리 군 청년 2명이 워킹홀리데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요녕, 심양 국제농업박람회에서 작년 국회의장상 수상자인 상익그룹이 6개 업체 42개 품목 중에서 전복절편, 다시마국수, 조미김 등 1,200만 원 상당의 우리 군 수산물 구매를 홍보하였습니다. 지난 9월말 미국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제2회 한상어워드 수상자 홍명기 회장과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의 도움으로 투자유치와 수산물 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우리 군과 관내 수출업체 9개,

미국 수입업체 5개소 등 3자간 업무협약과 수출 계약 MOU 8건에 750만 불의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심양시에 진행 중인 동중부 유럽 16개 국가들과의 경제 및 인프라, 무역, 문화, 기술 및 교류사업을 위해 러시아, 헝가리 등 각 16개국 대표부가 상주할 예정인데요. 장보고한상 상익그룹 안청락 회장, 작년도 (청취불능) 수상자입니다. 안청락 회장의 도움으로 11월경 대한민국 국가관 내에 완도특산물 홍보관도 개설, 운영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군 인재 양성과 해외시장 개척, 투자유치 등 지역홍보에 한상어워드 수상자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상자 관리와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클럽재단에 대해서 매년 장보고대사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6개 분야에 공로가 큰 한 상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로분야 및 자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대상, 국회 의장상, 그리고 문체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해양수산부 장관상 이렇게 6개 분야로 공모를 하고 있고요. 자격은 대상하고 국회 의장상은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해외에서 실천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은 물론,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첫 표가 되는 한상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문체부 장관상은 문화영토를 넓히는 분,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한식문화를 해외에 전파하거나 농림어업생산물물을 해외에서 유통하는 공로가 큰 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해외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등 경제영토를 확장하

는 데에 공로가 큰 분, 해수부장관상은 장보고대사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을 함양하면서 물류 및 유통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공로가 큰 분들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심사를 거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현재 13년이 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그러니까 6개 분야별로 받는 규정 이 다 다르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대상하고…… 총 6개 분야가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그 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심사를 해서 미달되거나 상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해당된 상은 수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때는 세 분이, 그리고 제2회 때는 네 분이, 그리고 작년에 제3회 때는 각 분야별로 한 분씩 해서 여섯 분이 시상……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수상자가 탄생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의 대한민국의 문화영토를 넓히는 데 공로가 큰 한 상, 이것이 정해졌잖아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있어야 만이 이 상을 주고, 여기에 맞는, 여기 상을 예를 들자면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함양하여 대한민국의 물류 및 유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공로가 큰 한상은 해당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분야별로 규정이 다 되어 있죠? (예)

나라는 어떻습니까, 거기 몇 개 나라 정도로 13명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나라는 기업하고…… 자료를 잠깐. 나라별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오스트리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1명 그분이 대상을 받았고요.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작년에 두 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 분이 받았고, 일본에서 한 분이 받았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기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작년에 한 분 받았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작년에는 여섯 분이 다 됐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됐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이 원래 취지 자체는 장보고를 알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선양하고.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니까 그쪽에 목적이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보고를 해외에 알리려고, 그런 취지에서 이 상을 준 계기가 된 것이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장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양 사업도 추진하고, 우리 군이 추구하는 투자 유치나 우리 지역의 특산품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마침 보면, 답변서에 보면요, 과장님, 그것보다는요, 그분들을 이용해서 수출 또는 지역특산품 이런 것을 이용하는 데에,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답변이…… 책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좋은 취지로 그런 상을 만들어서 주면서…… 그것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게 되고 지역특산품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용해서…… 꼭 그 사업의 목적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상을 받고 이것을 알면 얼마나 자기들이…… 자기들이 상을 받을 때 정말 크게 생각했는데 이런 것을 본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이런 것은 굳이 안

해도…… 설명할 때, 설명할 때 이런 분들에게 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효과를 많이 얻었고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런 것은 되지만, 기재를 해서 마치 그 사람들이 장보고에 대해서 외국에서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여기에서 뭐 장학금 뭐 주고, 이런 것만 내용에 써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책자 자체가, 답변서가 거기 사람들에게 맞춰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어찌겠어요, 이것을 만약 알게 되면, 그렇죠?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이 완도 방문 및 투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상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에도…… 다음주 10월 24일에 여수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시상식이 끝나면, 끝나고 완도로 이동해서 2박 3일 동안 완도에서 완도투어를 실시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관광지, 또 전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특산품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어도 하면서 그분들에게 우리 완도를 소개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 성공스토리를 재전시하는 것이 가장 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보고기념관에 성공스토리를 전시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자들을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완도하고 인연을 맺고 장보고선양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또 호응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년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할 때도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분들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면서도 한국까지 와서, 완도까지 내려와서 축제에 참여도 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요, 수시로 그분들의 동향도 파악하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21쪽, 수상자 활용실적을 보면 장학금 및 가상체험관 기증, 위킹홀리데이, 완도수산물 홍보 등 수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수상자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참고로 24일에 금년도에 수상자 시상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역대 수상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수상자 협의회라고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매년 기금도 자체 조성해서 장보고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후원역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와서 예우차원에서 2박 3일…… 보면 가족초청 완도투어 실시, 완도군 홍보대사, 뭐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스토리 전시, 이런 것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보면 그런 것을 해서 완도에 와서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특산품을 알게 되고, 전복도 알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그것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맞죠? (예)

그러니까 꼭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것을 꼭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냥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면 절대 안 된다고, 가끔 그 말을 내가…… 군수님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을 먼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가버리면요, 그 사람들이 뭐 수출업체, 무역회사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부 장관도 문화에 대한 상을 받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부담을 줘버리면 상의 가치, 이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면 적어도 답변을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상을 줬을 때 외국에서 장보고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심정, 즉 말하자면 장보고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한상 어워드에서 뭔가 우리가 상을 주는 취지에 맞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이나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직은 수상자가…… 금년에 4회째를 맞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역대 수상자들 출범식을, 이번 10월 24일에 출범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도 하실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직 그런 구성 자체가 안 되어 있구먼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번에……

○ 최정욱 의원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홍보는 자체하면서 하십시오.

답변서를 보면서 현재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기준 완도관광정보센터 총 14억의 사업비로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여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상자들은 분야별로 최대 6명까지 수상하게 되어 있는데, 전시공간은 충분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의원님의 말씀대로 전시공간이 부족합니다. 장보고기념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전시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관광정보센터 1~2층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완도 향토사 이런 부분도 소개하고요, 장보고와 연계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세부 공간 배치는 미디어실, 전시실 그다음에 VR 체험실, 이런 식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전시공간 이런 부분들, 매년 수상자가 탄생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여쭙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은 전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뀌어서 디지털 및 미디어 영상 등 그래픽 패널을 이용한 그런 역대 수상자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디지털화해서 구축하면 큰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매년 탄생한 수상자들 공간 일부……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바꾸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계속 넘어가는 그런 역대 수상자들은 디지털화 가지고 미디어로 구축해서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적어도 기왕…… 상은 계속 줄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해서 기왕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다가 건축 부분하고 전 시, 연출,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구체화되면 별도로 의회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향후 의회에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보고 한상어워드를 통해 완도를 전세계에 홍보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간단히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장보고한상어워드 관리 책임자가 특별로 되어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분은 특채 계약직으로 채용됐는데 그분의 계약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관리.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분이 그것만 관리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제목 큰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상자들과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장보고 글로벌재단의 사무총장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요.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어제 복지행정 국장님은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장보고한상어워드 사무국장까지 같이 겸한다는 이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내부적으로 장보고 글로벌재단 행사가 있을 때 그분이 가서……

○ 박인철 의원

왜 우리 군의 직원인데, 그러면 장보고한상 어워드는 어워드 대로 나가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채용한 직원인데 거기에서…… 그러면 기존에 그 분이 사무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사무국장 직위를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같이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의 원활한……

○ 박인철 의원

아니, 잠깐만요. 군수님의 답변은 유통, 수출도 한다고 하지. 과장님의 답변은 한상 사무국장도 한다고 하지. 국장님의 답변은…… 분명히 복지행정국장님의 답변은 그것을 안 한다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관리요원으로……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요원을 우리가 특채로 뽑았습니까, 그분을? 장보고 한상어워드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장보고 한상어워드가 뭔데 특별채용할 정

도의 어떤 그것입니까, 장보고한상어워드?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이번에 4회하는데요, 과장님. 그분들이 우리 군에다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투자양해각서, MOU 말고 MOA 정도로 체결했다든가. 뭐 그런 것 있습니까? 조금 전에 뭐 미국 LA에 가서 1,000만 불, 750만 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MOU고, 특별히……

올해 하면 4회차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한상어워드 상을 그분들한테 수여해 가지고요, 어디 가서 보면 축하할 때나 뭐 할 때나 장보고 축제 할 때 보면 최고 예우를 해줍니다, 그분들을.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군에서 최고 예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투자양해각서나 아니면 투자를 했다든가. 어쩔 때는 언뜻 들리는 이야기로는 케이블가를 하는데 얼마 투자하겠다. 그런 것도 말로 해서 말로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한테 1년에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글로벌재단이요?

○ 박인철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1년에 7,000.

○ 박인철 의원
그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에 나열해 놓은 이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그 부분이 조금……

○ 박인철 의원
과장님이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언론에 대해서 특필됩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 허무할 정도로, 허망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고 지금

열네 분이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번에도 6명이 받으면 20명인데, 이 분들 관리를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분들 관리하고요.

○ 박인철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다음에……

○ 박인철 의원
수출도 하고 뭐 투자 유치도 받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것도 같이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 분의…… 지금 1년 정도 됐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 3월에 채용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그분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분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수산경영과 해외 시장 개척하고 또 완도 특산품을 판촉하는 그런 부분들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분의 실적이…… 이번에 군수님이 축하에서 미국 LA에서부터 프랑스 로스코프, 노르망디까지 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는 그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특채로 했으면 정확한 업무분장을 주고 그 업무분장에 맡겨서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이 다르고 과장님의 답변이 다르고, 한 집행부의 과장님 답변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자주 이 말을 물어보는 것은 군청 직원이면 직원이지. 임용고시를 봤든 특별채

용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군청 직원이 왜 한상 어워드에 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상어워드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따로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를 관리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해외시장 개척, 투자 유치, 이런 중간에 연계시키기 위한 중간역할,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채용했습니다. 채용하고, 그다음에 장보고 글로벌재단에서 채용하기 이전에 글로벌재단의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그분이 원래 서울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현재 완도 여기에서 상거하고 장보고한상어워드 수상자 장보고 선양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글로벌재단이 끝으로 쪽 떨어져 있고 연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같이 봐주십시오. 지금 그분이 중간에…… 별도로 안 봐도 될 일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군수님도 말씀하신 해외시장 개척 이런 부분을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그분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분 매일 출근합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매일 출근합니다.

○ 박인철 의원

완도로 왔다가 금방 장보고재단까지, 글로벌재단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장보고 글로벌재단 일도 하고 한상어워드 일도 하고 우리 군 행정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출근하고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면서 과장한테 출장복명서를 받고 서울에 출장을 가고 그러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저한테 출장이 올라오면 제가 결재하고, 보고하고……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출장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장 주요내용?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리 장보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분이 사회를 보러 가는 것도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적어 가지고 올라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일반……

○ 박인철 의원

과장님하고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논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상어워드 수상자가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청년 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2명밖에 못 갔는데 이것은 뭐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서서. 아니, 거기에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는 당초 3명이 선발되었는데요. 한 분은…… 두 분은 현지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고, 한 분은 본인이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해 가지고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 박인철 의원

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본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서 당초 공고할 때도 비자 발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 박인철 의원

아, 그것은 본인 문제겠죠. 그런데 그 문제가 군 미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군 미필은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가 선발할 때 그 정도까지도 확인을 안 하고 선발했는가. 그분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못 받는 것인가. 그 정도도 확인을 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비자 발급을 할 때 본인이 신청서를 잘못 작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자 발급이 안 된 것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비자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는 그것이 한 번 캔슬되어 버리면 그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아깝니까. 서로 가려고 하는 자리가 아깝니까. 그런 자리에 3명을 했는데 거기에 2명밖에 못 갔다는 것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

하여튼 과장님, 그분이 어디 출장을 갔다는 그것 있죠? 그런 출장복명서가 있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회계과 소관 읍면 및 청사 신축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 및 읍면 청사 현황입니다. 우리 군 본청 및 읍면청사 건축 면적과 건립일, 내구연수 및 등급을 분류하여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안전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등급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다음은 노후건물 또는 장래 대비 신축에 따른 종합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결과 군 본청은 B등급인 양호, 노화읍, 금당면은 C등급인 보통, 금일읍, 고금면, 보길면은 D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지 못한 읍면은 내구연수가 오래된 읍면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군청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0년 후 기본계획 용역 등을 실시한 후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20년 본예산에 30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길면사무소 신축비 29억 원, 고금면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 1억 4,000만 원, 금일읍사무소 신축 기본계획비 3,000만 원입니다.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못한 읍면은 안전진단 실시 후 청사신축 기금을 조성하여 신축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기금은 내년부터 매년 50억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축

시 읍면 유관기관단체 활용방안은 읍면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유관기관단체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청사 신축 종합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외면사무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청사의 내구연수가 3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연도는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도시들을 가보면 30년 이상 된 건물들도 상당히 깨끗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완도는 30년이 되고 건물이 노후되면요, 금방 노후되는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신축할 때 보통 보면 그 지역업자가 하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지금은 입찰로 하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을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읍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읍면은요, 5개 읍면 안전진단을 했는데, 읍면 안전진단은 읍면에서 합니다. 비가 샌다든가 균열이 있다든가 해서 수리를 요구하면요, 저희들

이 심한 상태라면 안전진단을 해서 몇 등급이나 나오는가, 그렇게 해서 신축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몇 년에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법적인 기준은 없고요, 소규모라…… 읍면사무소에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정기적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읍면에서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그랬을 때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길도라든가, 고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D등급이 나와서 보길도는 하고, 또 고금도 해야 되고 금일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청사를 신축하실 때 앞으로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읍면청사를 신축할 때, 저는 우선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 위주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보거나 그럴 때 편히 쉬면서 일도 보고 그렇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청사를 신축할 때 향후 쓰임새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두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보면 군이나 읍면, 마을단위를 보면 너무나 건물을 짓는 데에 현혹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카페 형태로 지어서 방금 말씀처럼 효율성 있게 극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운 인근 시나 군 이렇게 타 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을 때요. 지금 보길도를 제일 먼저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한 시공 관리를 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다음 3페이지, 다음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징수액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18년 징수액은 190억 6,900만 원으로 2017년 231억 6,300만 원 대비 17.6% 감소하였으며, 2016년 186억 2,400만 원 대비 2.3%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징수액 증가 사유는 2017년 완도군 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로 인한 결산잉여금 44억 8,900만 원과 국제지원금 1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8년 미수납액은 15억 5,000만 원으로 2017년 19억 700만 원, 2016년 20억 6,500만 원에 비해 각각 18.7%와 24.9%가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입니다. 2018년 결손액은 시효소멸 3,592만 9,000원, 행방불명 1,321만 6,000원 등 총 7,502만 5,000원이며 2017년 결손액은 시효소멸 6,455만 8,000원, 행방불명 3,227만 원 등 총 1억 3,739만 8,000원입니다. 2016년 결손액은 행방불명 1억 6,285만 1,000원, 무재산 7,401만 8,000원 등 총 2억 4,56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활동 상황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이월 체납액은 15억 5,000만 원 이었으며, 2019년 현재 체납액은 1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징수율 올리기와 체납액 정리 합동단속반 등을 운영하였으며,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양대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징수체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징수활동과 더불어 전 부서 및 읍면별로 우선 정리대상을 선정하여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독려하고, 과감한 결손처분과 체납액 정리 합동단속반, 징수반 운영, 고액체납자 전담책임징수제 추진 등 군과 읍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에게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지방세에 대해 설명을 들었기에 세외수입 관련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체 수입이 적어 교부세나 보조금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체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이 오히려 더 높은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요,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3년간 결손처리내역을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결손액이 줄어드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 결손액 중에 시효 소멸이 가장 낮았고, 징수 의지가 낮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멸시효는 기간이 넘어서 징수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5년이 넘으면 소멸시효가 넘어서 결손처분을 합니다마는 지방세에서는 거의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소멸을 (청취불능) 이런 경우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고요, 행정력이 5년간 낭비되고 예산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효소멸하지 않고 재산압류를 통해서…… 시효소멸하지 않고 있고 행방불명이나 다른 원인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고요.

우선 재산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징수할 수 있고, 시효소멸을 해버리면 완전히 못 받아버리는……

○ 김양훈 의원

책자에…… 보고서 답변서를 보면 시효소멸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최근에……

○ 김양훈 의원

이 자체가 뭐냐면 5년 동안…… 시효소멸이 5년 기간인데 제일 많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그만큼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쭙본 것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회를 세무회계과에 개최해서 채권 확보는 됐는가, 그런 것까지 확인하고요, 각 부서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채권 확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질의할 때도 언급할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세무회계과장님한테 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 부서의 다 똑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전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전

부서일로 다시 한 번 보는 것은, 다음에는 징수가 제일 낮은 부서장님에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징수활동 추진내용에 차량 정리 그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합동단속반을 교통행정제하고 같이 자동차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때 같이 가서……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경제교통과하고 교통……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같이……

○ 김양훈 의원

자동차세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과태료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 김양훈 의원

그러면 합동 단속은 경제교통과하고 자동차 체납액만 하네요, 다른 것은 안 하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번호판 영치할 때만 같이 했습니다.

○ 김양훈 의원

나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다른 체납액도 같이 합동단속하면 안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같이 한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실과가 전부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도 본의원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할 때만, 번호판 떼러 갈 때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합동단속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진단, 대책을 내놓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징수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수체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천으로 가야 되겠죠. 답변서에만 기록할 것이 아니고, 진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실천으로 가야 징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하신 대책안을 토대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 실과 별로 해서,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주기적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경제산업국

- 경제교통과

(09시57분 개의)

○ 의장 조인호

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께서 아시아유소년주니어 역도선수권 대회에 참석하여 (청취불능) 출장이므로 오늘부터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점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교통과 소관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상풍력 추진현황은 총 3건으로서 참여업체는 완도해상풍력, 서부발전과 코오롱 그리고 남동발전입니다. 설비용량은 총 1,156메가와트이고, 총 사업비는 5조 7,500억 원입니다.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OU 또는 MOA 체결현황입니다. 완도해상풍력과는 2017년 9월 27일, 서부발전 및 코오롱과는 2013년 4월 11일 각각 MOU를 체결하였고, 남동발전과는 2016년 12월 29일 MOU를, 2017년 11월 21일 MOA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지금까지 진행상황 및 금후 계획

입니다. 먼저 완도읍 망석리 해상의 완도해상풍력사업입니다. 완도해상풍력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망석리 해양조사 및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였고 2017년 9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9월부터 연말까지 망석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동의서를 획득하여 2018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올해 9월부터 선진지 벤치마킹 등 망석리와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계와 인허가를 병행할 계획이며, 2021년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서부발전과 코오롱이 추진하는 금일 황제도 및 생일 덕우도 해상풍력입니다.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2013년 4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3년 10월부터 2년간 노화읍과 청산면에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입지·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1월 현재의 발전단지 계획을 확정하여 서부발전과 코오롱, 전남개발공사 간 MOU를 체결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고, 현재 해상계측기 설치를 준비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이후, 생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내년 3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완료하여 풍향을 계측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남동발전이 추진하는 금일읍 남쪽 해상풍력입니다. 남동발전은 2016년 12월 우리 군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7년 10월 덕우도에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우리 군과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사업 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고, 2018년 5월 해상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동년 11월 1단계 200메가와트에 대하여 전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황제도에 두 번째 육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경, 금일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추진하고 2단계

사업구역에 해상계측기를 설치하여 풍향계측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타당성 조사를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6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남동발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SPC를 설립하고 내년 10월 2단계 400메가와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한편, 2021년까지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1년 8월 착공,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주민 동의 등 공익상 지장 유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별 주민수용성 확보 추진현황은 완도해상풍력은 망석리 주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9월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3회 정도 인근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선진지 벤치마킹과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생일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발전은 주민설명회와 선진지 벤치마킹을 각 4회 실시하였고 향후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과 참여업체는 지속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발전수익 공유를 위한 주민 참여방안과 발전단지 내 신규어장 확대를 위한 수산업 공존방안, 향후 발전사업 허가 및 설계·인허가 추진 시 직간접 영향을 받는 읍면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수용성 확보 확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업과 공존방법입니다. 2014년부터 한진 주관 해상풍력단지 해수공간을 활용한 산업융합설비 연구를 정부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시험 결과, 수산물 미역, 다시마 등 4종의 양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향후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단계에서 우리 군 해양여건과 주요 양식품종에 적합한 발전단지 내에 양식장을 설치하고 참여업체와 주민 간 협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과 관리규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계통연계입니다. 참여업체별로 설치예정인 27기에서 75기의 풍력발전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전달하기 위한 변전시설을 설치하여 완도변전소로 연결할 예정으로 완도해상풍력과 서부발전과 코오롱은 해상풍력단지 내에 해상변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남동발전은 금일읍에 육상변전소를 설치하여 완도변전소와 연계할 계획으로 2018년 12월 1단계 허가분 200메가와트에 대한 송전이용계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설계단계에서 계획 수립 후 참여업체와

한전, 우리 군과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박인철 의원입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조건 하에서 동의합니다. 해상풍력은 수산업과 공존하고 특히 주민, 어민들의 수용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 군의 지역경제의 핵심이 수산업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을 조성하고자 하는 수면에 대한 수산업적 가치가 반드시 해상풍력산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변환소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오픈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은 주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해상풍력에 대해 동의합니다.

국장님, 혹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정부의 탄소 제한정책에 따라서 현재 7%대에 머무르고 있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도 이러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죠? (예)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라북도 고창이라든가, 통영 이런 데를 비롯

해서 한 40개소 정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전남 블루에너지 계획에 의해서 신안에다가 완도의 한 8배 정도 되는 8.2기가바이트의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작년까지는 22개소였는데 갑자기 늘어가고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죠? (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동발전 1개 업체는 전기사업 허가 취득을 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남동발전하고 완도해상……

○ 박인철 의원

완도해상풍력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는 현재 계측기 설치를 준비하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1개 업체가 아니고, 저는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덕우도 앞에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2개 업체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예)

전기사업법상 허가요건은 사전검토와 더불어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문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어떻게 제출하였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2018년 9월경에 산자부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제가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발전소에서 완도 변전소까지 송전선로 연결 시 송전선로 주변 의견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양식면허지 또는 해상, 선박, 항로 등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도해 주변 환경과 인근 지선인들과 민원 발생소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이 주무부서의 의견입니까? (예)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우리 군이 요청한 의견 중 다른 풍력발전사업과 중복 우려 여부를 물었는데요. 답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중복 우려가 없다고 하셨죠.

지역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 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역의 수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주민숙원사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산업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벤치마킹을 하고 적절한 피 해보상,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쪽으로 주민수용성 관련해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역의 수용성 여부 검토 시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과 관련된 수용성은 다 검토 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았습니 다마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 박인철 의원

안 하셨죠, 국장님.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남동발전에서 완도변전소로 송수선……

○ 박인철 의원

송수선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동사진은 허가 신청지 송수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송수선 계획에 의하면 생산된 전력은 생일, 신지, 완도 항을 경유하여 완도변전소로 연계된다는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양식어민, 어촌계, 동해역에서 조업하는 어민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한 수용성 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남동발전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발전단지가 들어가 있는 그쪽 양식어업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2차적으로 그쪽에 지선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 이고요, 지금 뭐 연안연승이라든가, 이런 어선협 회를 통해서 1차 면담을 한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면담을 했습니까, 수용성을 확인했습니까. 수 용성 확인은 아직 안 했죠? (예)

다음은 MOU, MOA 체결사항입니다. 2개 업체는 MOU, 1개 업체는 MOU, MOA를 체결하 셴죠? (예, 그렇습니다)

MOU, MOA 체결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신의성실의 원칙이죠, MOU는, MOA는 법적 인 효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신의성실을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2016년 12월 29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의하면 완도군에서는 개발 관련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동일 해역에서 2개 업체가 계측기를 설치하도록 중복허가를 했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여기는 지금…… 해양산림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셨죠?

취소를 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 박인철 의원

이것은 신의성실 위반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의원님께서 제가 봤을 때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MOU를 체결한 업체는 아닙니다,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고……

○ 박인철 의원

어쨌든 간에 중복이…… 계측기가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이……

○ 박인철 의원

우리 군 해양정책과에서 다 허가를 냈죠? (예) 그리고 나중에 취소시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실과소간 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같은 군에서 같이 행정을 하는데. 이것 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문제들이 지금 잘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경제교통과에서 컨트롤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신의성실을 위반하였고, 이 업무가…… 말이 밖으로 쏘인다라는 세무회계과에서 언제 경제교통과로 넘어왔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조직개편 이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남동발전, 서부발전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가 세무회계과로 경유해 가지고 경제교통과로 갑니다. 우리 군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가 풍력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부 경제교통과로 가야 될 문서들이 전부 세무회계과를 경유해서 경제교통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업무가 작년 9월에 조직개편을 하고 경제교통과로……

○ 박인철 의원

조직개편이 되기 전부터 이 업무는 경제교통과 고유의 업무입니다. 에너지팀이 있든, 없든 그전부터 신영균 과장이 그 당시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그다음에 서길수 과장이 있을 때, 그리고 퇴직하셨습니까라는 최창주 과장이 있을 때, 지금 안환옥 과장이 있을 때, 이 고유의 업무는 경제교통과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업무분장도 없이 세무회계과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질문 답변 시 말하니까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은 TF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TF팀 만들어졌습니까? 안 만들어졌습니다. 슬그머니 그 담당과장이 퇴직하니까 다시 모든 업무가 또 경제교통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 예정면적이요, 국장님, 어느 정도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3개를 합쳐 가지고 한 1만 7,000헥타르.

○ 박인철 의원

1만 7,000헥타르죠. 제곱킬로미터로 합치면 한 170킬로미터가 돼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정도.

○ 박인철 의원

여의도 면적의 58배나 됩니다. 바다가 해상풍력으로 완전 조성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수역에 대해 우리 군에서 어업적가치 평가해 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못했죠. 제가 이번에 어른의 날 행사 때 금일에 갔습니다마는 금일, 금당 쪽 불법 김어장들이 많습니다. 이 어장들이 어떤 어장들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을 박아서 김양식을 했을 때는 못했던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할 수는…… 1만 7,000헥타르는 지금 제한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지금 이런 것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만 7,000헥타르요?

○ 박인철 의원

예, 제가 저번에 부군수님한테도 질문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사용해 왔던 우리 바다, 여의도 면적의 58배나 되는 광활한 바다를, 이런 바다를 특정인이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권이, 이 바다의 관리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군수.

○ 박인철 의원

완도군수로 되어 있죠.

최소한 완도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특정인들이 어업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어업적가치를 군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를 해상풍력에 반영해야 됩니다. 본의원의 판단이 국장님, 잘못되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닙니다.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고향이 금일인데 이 현장에 한번 혹시…… 시간을 내서 가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풍력이 들어선다면 이 바다는 김양식어장으로 최적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민들이 탐내고 있는 실정이고, 옛날에 지주식 김양식은 잘 안 됐지만 요즘은…… 우리 질문답변 첫마디에 군수님이 말씀했던, 우리 완도의 해조류가 왜 다른 시군보다 질이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멀리, 외로 못나가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최적지입니다, 이런 데가. 그런데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도 금일수협에서 여기에다가 어업권을 내주라고 하셨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제가……

○ 박인철 의원

나중에 해상풍력이 되면 절대 보상을 안 받고 철수하려고 한다. 해상풍력이 이루어지는 동안만 큼이라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한시적 어업 좀 해 주라고 안 했습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해양정책과장님, 수산경영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 해조류양식팀장 방현수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장님이 출장 중이셔서 가
지고요. 해조류양식담당 방현수입니다. 제가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조류 면허는, 신규면허 자체는 개발되
지 않은 것이 한 3~4년 정도……

○ 박인철 의원

알아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왔는
가, 안 들어왔는가. 그리고 들어왔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
요.

○ 해조류양식팀장 방현수

(좌석에서) 지금 면허를 많이 원하고는 있습
니다. 수협뿐만 아니고 어촌계도 그렇기는 하
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개발이 안 되기 때
문에……

○ 박인철 의원

아니, 개발이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 군
에서 도나 해양수산부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
서…… 아니, 해상풍력에다가 이렇게 행정적 편
의를 제공하면서 우리 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
민들을 위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요. 국, 도와
해양수산부에 이런 것을 가지고 단장님과 아니면
과장님, 아니면 실무부서 책임자들이 한번이라도
해양수산부의 문을 두드려봤나는 이 말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국장님, 용역은 전혀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아직 용역을 안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사진은 경남 옥지도에서 해상풍력과 관련하
여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
에 작년도에 박현식…… 지금은 도로 올라가셨습
니다마는 박현식 부군수님한테 이 건으로 질문할
때 신안하고 기장, 여러 군데의 이런 사진을 보
여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추진하
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 용역 중간결과를 보셨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그것은 보도된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내
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중간보고 시에 환경정책평가 연구원들이 발표
한 자료에 의하면 조업구역 축소, 저서생물 서식
지 훼손, 환경변화로 어종 교란, 해양사고위험
증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꼭 제 생각하고 같다. 본
의원도 원양 어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요, 바
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러한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챙겨보셨으면 하는 마
음입니다. (예)

다음은 국장님한테 우리 주민 수용성에 대해
서 묻겠습니다. 수용성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지
역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상풍력을 하
는데 주민수용성이 필요한 지역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직접적으로 발전시설에 들어갈 곳이 금일, 생
일이고, 앞으로 송수선 선로가 통과할, 해저통로
가 통과할 지역은 완도, 신지, 고금, 약산이 해
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전력 생산시설은 금일, 생일, 완도읍.
완도읍은 변전소가 있으니깐요. 그다음에 송수선
시설체통에 의하면 신지, 생일, 고금, 약산, 완
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산면하고 청산면만 빼고 다 들리는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금일지역 그쪽으로……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금당, 청산, 노화, 소안, 보길만 빼
고 나머지는…… 12개 읍면에서 8개 읍면이 다
걸리죠, 송수선 계통부터 하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4개…… 5개 읍면이 지금…… 6개 읍면이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8개 읍면에 걸리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6개입니다, 6개.

○ 박인철 의원

아니, 고금…… 금일, 생일, 완도.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신지, 고금, 약산.

○ 박인철 의원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다 걸리죠. 군외가 안 걸리고, 이런 데 주민수용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뭐…… 약산이나 고금이나 신지 뭐 이런 분들은, 완도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죠, 여기에 대해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부분은 발전시설이 들어설 지역부터 먼저 하고 1차적으로 송수선……

○ 박인철 의원

완도…… 이것도 국장님의 업무인데 완도변환소가 저렇게 참여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주민수용성 확보가……

○ 박인철 의원

주민수용성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들어가고.

여기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해상으로 들어와도 문제고, 철탐으로 들어와도 많은 전기량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상 아니면 철탐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기 완도와 제주 간 문제도 철탐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서 미리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누구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된 분들이 그쪽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그리고 어촌계, 우리 군도 물론 공유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해당이 되고, 어로 일을 하는 어선들,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시구면요.

이런 분들에 양식어업자, 허가를 받은 어선어업자, 지선 어업인 맨손어업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포상할 때 맨손어업도 포상을 하니까. 그리고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1차는 면허를 갖고 있는 어업권자와 허가를 받는 어선업자들, 또 2차는 어촌계, 지선 어업인, 그리고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완도군수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해관계가 다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여기에 동의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일 덕우도 앞 해상풍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 남동발전하고 서부발전 두 군데에서…… 덕우도 쪽 우측은 남동발전, 좌측은 서부발전 그쪽 해상에 들어섭니다.

○ 박인철 의원

덕우도 주민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덕우도 주민들한테도 안환옥 과장님이 가셔서 사업설명회를 했는데요, 그 사업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안 됐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덕우도는……

○ 박인철 의원

아니면 안환옥 과장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예,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전년도에 덕우도를 방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완강하게 거부하고요. 그렇지만 일단 얘기를 들어보자고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설명은 해드리고 나온 바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덕우도 주민들 뭐 이장, 어촌계장으로 해서 120명으로 해가지고 전혀 안 됐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예, 그 이후에 일정을 잡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일 덕우도 주민들의 자존심이죠, 덕우도 주민들의 자존심이 아닙니까? 왜 금일은 군수부터 해가지고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러는데, 덕우도는 전혀 없다가 와가지고 하나까…… 제가 덕우도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주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만큼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요. 허가를 받은 데도 완도해상풍력하고 금일 남동발전이라고 했는데, 완도해상풍력은 군수님 일인 말도 없어요. 남동발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되어 가지고 있어요, 견학도 같이 다니고, 뭐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과장님, 앉으십시오.

즉, 완도군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가 누구, 또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일지는 몰라도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덕우도 주민들도 이해당사자입니다. 금일 같이 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 국장님, 이해관계자가 중요하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덕우도에 그런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판단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두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수산업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수산업과의 공존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 시 수산업과 공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발전시설단지 내에다가 약품에 맞는 양식을…… 양식어업을 한다든지 어류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요, 발전단지가 들어설…… 양식 또는 어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바다를 입체적,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거기에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등 마케팅에 전력생산업체도 참여하여 상생관계를 이루자는 것이 수산업과의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군수님이 자주 말씀하신 수산업과의 공존입니다.

그렇다면, 수산업과 공존하려면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군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일단 해당 지역에 맞는 양식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식장을 조성하고 또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소요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소유권 이전, 어장관리 방안,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수산업과의 공존에 대해서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답변서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각 업무에 해당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업과의 공존을 위해서 우리 군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요. 이 해양…… 해상풍력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쪽 해역은 조류 흐름이 빠르고 파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해양조건을 판단해서 공존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둘째는 시설방법입니다. 전력생산시설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

법으로 시설해야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시설면적에 대한 적합한 설계도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어장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전력생산업체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전력생산단지 내에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도 전력생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전력생산시설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추이를 어민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체에 제공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동의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국장님, 해상풍력하고 약산 당목에서 금일까지의 연륙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금일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 연륙교……

○ 박인철 의원

연륙이죠, 금일주민의. 그것은 저도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륙하고 해상풍력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뭐 관계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금일지역 해상에 남동발전 해상풍력이…… 그쪽에 발전단지가 시설되다 보니까 금일지역 주민들의 의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남동발전의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그 다리를, 연륙교를 하다가 지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민자로 유치해서 정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필해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 박인철 의원

아니, 질문답변 시…… 첫날 군수님 질문에서 뭐 민자 1,500억이 나와 있던데. 이 답변서가

맞는 답변서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도 국장님 소속으로 있으니까요. 아니, 다리를 놓는데 국가가 다리를 놓지, 남동발전에서 다리를 놓습니까? 그리고 그 1,500억이라는 것은 보통 투자금의 1.5%를 내는데 5%로 해가지고, 뭐 3조원의 5%로 해가지고 1,500억이라고 하던데, 그 1,500억은 완도군에다가 발전기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여기가 금일해역인데, 금일과 가까운 해역인데 연계계통을 하다 보면 6개 읍면이 다 걸립니다. 그러면 그 읍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도 아마 협의를 통해서 남동발전하고…… 남동발전에서 SPC 설립허가를 받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남동발전에서 1,500억을 해가지고 연륙교를 놓는다고 합니다. 약산에서 금일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1,500억을 내놓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이요, 남동발전에서 3조를 투자해서 75개의 해상발전시설을 건립하는데, 그것이 아마 남동발전에서 경제 타당성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1,500억…… 5%가, 총 발전사업비의 5%인데요.

○ 박인철 의원

원래 정부에서는 1.5%를 말한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에서는……

○ 박인철 의원

그런데 남동발전에서는 5%를 내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맥시범으로 5%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국장님도 여기 완도금일해상풍력

중간점검 간담회에 참석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언제 얘기하십니까?

○ 박인철 의원

`18년 12월 23일 11시에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국장님도 참석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참석했어요, 서류에는, 그러면 여기 남동발전에서 대답한 것 들었죠? 남동발전 (청취불능) 차장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욕이 앞섰다. 좀 더 신뢰성 있는 말을 해야 되겠고 본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니 다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신뢰성이 무엇입니까? 신뢰성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쪽 다리를 연륙교로 이렇게 한 것은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 신성장관광벨트 용역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완도가 그쪽의 거점지역으로 발표되어 있고, 그 안에 서남해안 관광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면 완도를 비롯해 가지고 상당히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박인철 의원

신의준 도의원의 모두말씀 “남동 정태균 부장님의 3차 주민설명회 시 연륙교 착공 전에 풍력사업을 착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다리 착공은 빠지고 지금 2021년에 계획이 끝나면 풍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도인지. 남동 정태균 부장 “제가 당시에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추진위원 “정태균 부장이 설명할 때 분명히 다리 착공과 동시에 공사를 시행한다고 선언했는데 기억이 없다니 참으로 유감스럽다. 남동발전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신중하게 답변해 주라.” 라는 이것입니다. 지금 금

일..... 아주 순수한 금일주민들한테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까?

만약에 국장님, 만약에 해상풍력이 설치됐는데 다리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다리가 안 되면 그때는 금일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러니까 도에서도.....

○ 박인철 의원

이 서류를 보니까 군수님이 주재한 설명입니다. 보고예요, 군수님의. 또 누구는 그런 말을 했구면요, “장도가 아닌 김발양식장은 면허지 허가가 났는지?” 라고, 우리 담당 해양정책과장은 “사무실 확인 후 통보하겠습니다.” 라고.

나중에..... 뭐 풍력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고 주민들한테, 금일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금일주민들한테는 풍력을 함과 동시에 금방 다리가 착공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 국도도 승격되어 있지 않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국도 승격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지방도로 해서 그것이..... 군수님도 그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민자 1,500을 끌어들이 가지고 지방비, 도비로 2,500을 해서 연륙교를 가설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또 하나 읽어볼게요, 지금 확보 및 풍력산업에 관한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방문 등 대통령..... 군수 임기 내에 사업추진하기 위하여 동시 착공하자고 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500억을 지급하는 추진 등은 정태균 부장이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신의준 의원님이 금일 설명회가 끝난 후 다리는 도에서 놓는데, 왜 남동발전은 관심이 없냐고 질문하여 다리는 남동발전이 놓는 것이 아니고 풍력사업과 동시에 연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린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다.

지금 회의석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풍력이 되면 다리가 놓인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호도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금일지역 주민들이 남동에서 그 이야기를 꺼낸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 있으니까 소외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남동에서 그런 지원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군수님의 모두말씀이, 끝나는 마무리 말씀이 해상풍력발전은 연륙교가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해상풍력이 연륙교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군수님의 인식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금일주민들이 금방 다리가 놔질 것처럼 한다고. 행정절차에 대해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구체적인 지원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SPC를 설립하고 최종 공유수면 인허가, 이런 부분 전에 아마도…… 군과 협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여기에 군수님도 그랬구먼요. 지역민들도 다리를 놓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그러면 해상풍력이 시작됐는데 금일 연륙교가 안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금일주민들의 실망감은 누가 치유할 것입니까?

저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이 금일 일정 간, 약산 당목 간 그 연륙교가…… 일단 국지로 기점 변경을…… 835호선 고금까지 된 것을 금산에서 고금까지 된 것을 27호선 국지도 기점 변경을 시키기 위해서 승격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국도 승격이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방법

이 있고, 그것이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지방비를 부담해서 지역발전 그것하고 합쳐 가지고 연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처럼 이것 정확하게 하십시오.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되고 국토교통부에서 안 되면, 그러면 이 발전기금 1,500억하고…… 뭐 500억도 나온다, 1,500억도 나온다. 완도 신지면 해상풍력, 지금 보고 있죠? 거기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그러면 만약 국지도로 승격이 안 되고, 또 국토교통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풍력발전기금 1,500억 하고 나머지는 완도군에서 군비를 대가지고 다리를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도비, 지방도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죠.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풍력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 플러스 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이 말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현재 지방도니까 도비하고 민자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 박인철 의원

어떤 특별지원금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남동발전에서 지원하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만약 그 1,500억을 그 다리에 놓는다고 하면 나머지…… 저기에 연계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어엽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남동발전하고 앞으로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남동발전에서 이것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면 SPC가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SPC는 나중에 1년 단위로 너희들이 발전을, 풍력발전을 해가지고 얼마 전기를 생산해서 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면 그 이익금을 금일에 얼마나 줄래, 생일에 얼마 줄래. 이것은 그 차후 문제입니다. 그것은. 차후 발전추진위원들이 있으면 그 추진위원들하고 거기 SPC하고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만약 1년에 1,000억을 번다고 그러면 금일에 100억을 주라, 아니면 우리 군에다가 100억을 주라. 그것은 차후문제가 아닙니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그러면 소안~구도 간 연도교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놔둬니까?

거기에다가 그러면 군비를 투자하고 도비가 갔다고 하고, 그리고 발전기금이 갔다고 하면요. 그러면 소안에서 구도 간 그 다리는 무엇입니까? 저기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중간다리가 되어 있으니깐.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은 발전단지가 들어설 그런 예정지하고 벗어나 있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저기도…… 소안 분들이나 노화 분들한테 해가지고 풍력단지를 하나 만들라고 할까요, 저기도 그러면?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도에서 그 많은 자금을 어떻게 가지고 오며, 또 우리 군비가 매칭사업을 빼고 그러면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군비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투자하겠나는 이 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원 금액 이 부분은 앞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SPC가 설립되고 최종 인허가단계에 경제 타당성조사 결과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यो, 풍력을 찬성하고 반대한다는 것을 떠나서요. 주민수용성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고, 그것을 정보화해서 주민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금일 해상 풍력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주민들한테 어느 순간부터 풍력이 되면 다리가 놔진다는 이컬이 같이 성립되어 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력은 되고 다리가 안 났을 때 그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허탈감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도에서 받고 또…… 여기 뭐야, 지원금을 받고 또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요. 그 사업이 뭐 한두 푼 사업도 아니고 5,0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약산부터 그 다리가 시작되면 금당부터 해가지고 고흥까지 연결한다는 벨트사업이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거기에서만 이렇게 딱……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이 금일로만 잘라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 답변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저는 국장님한테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환소 문제를 통해서 얻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잃은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좀 깊게 새겨서 금일 해상풍력뿐만 아니고 완도, 아니면 덕우도 앞에서 행하는…… 서부발전에서 한다는 모든 풍력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둘도 셋도 주민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모든 절차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쳐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충돌이 없이,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더라도 앞으로는 절차, 절차마다 주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민수용성이 제일 큰 문제니까 거기에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7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해양경찰서 사용부두 완도군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에 위치해 있는 완도해경 선박계류 부두현황입니다. 완도읍 가용리 747-12번지에 위치한 해경부두는 7,500여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해양경찰청 소유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해경부두에는 일반바지선 1척과 유류바지선 1척 등 2척의 대형바지선과 경비구조정 이용시설인 소형바지선 1척 등 총 3척의 계류시설이 있으며 경비함정 10척과 방재정 2척, 경비구조정 1척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부두로 완도해경 선박계류 이전상황입니다. 유류바지선 1척과 경비함정 10척, 방재정 2척은 금년도에 이동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해경의 경비구조대 이전은 신설부지 내에 직원복지관 신축사업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22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농공단지 해경부두 소유 및 관리자 변경계획 및 절차입니다. 완도해양경찰서 계획대로 2022년 경비구조대 사무실 완공 후 이전이 완료되어 소유권 변경을 추진할 경우, 완도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청을 통해 기획재정부로 재산을 반납하게 되고 우리 군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군은 빠른 시일 내에 부두를 매입하기 위하여 2022년 이후에 예정된 경비구조대 사무실 이전을 조기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활용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구)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해서 연근해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할 계획이며, 매입이 완료되면 선석 확보를 위한 준설작업과 부두 확장사업을 통해 하역, 선별, 급랭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해양경찰서 사용부두 완도군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완도해경 선박계류시설은 연내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경비구조대가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성립됐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내년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활용이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 실정이 아닙니까. 원래 동부두는 신지대교 공사 시 규격제작용으로 완도군에서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를 득했고 당시 재정부 재산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해경으로 넘어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경으로 재산을 이전할 시 우리 군에서 대응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해양경찰서가 신설되면서 재정경제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했지만 정부부처끼리 관리이전이 되어버린 사항이라 저희들이 혹시 알았더라도 관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완도항이 좁고 배후부지도 없고 그러는데 공공기관들끼리 연결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넘어가버린 그런 시기라는 그 말씀이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기재부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서로 이전이 진행됐다는 말씀……

○ 이범성 의원

그때 그 당시에 뭔가 단서랄까, 여러 가지의 조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완도항 관련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근해조업선단이 완도군에 와서 1년이면 한 1,400, 2017년도에 한 1,400 정도를 완도군에서 소비한다고 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정도면 완도군 해조류 판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인 줄 알고 계시죠? (예)

더 많은 연근해어선들을 유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금 오지 않는 상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냉동 급랭시설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저번에 본의원이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중매인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워낙 선석이 없다. 또 접안하고 수산물을 하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따라서 동부두에 대해서 완도해경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도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만남으로써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우리 군에서 해경에다가 빨리 반환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반환되면 우리 군에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해경 신설부두 내에 경비구조대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현재 완도항 실정을 고려할 때 적합한 건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항 일반 물양장 부두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설 부두 내에…… 거기가 꼭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경비구조대원들이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기시설이고, 또 기자재 창고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축법 위반행위도 아니고 해경 신설 부두에 필요한 특수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완도항이 지금 무역항이죠? (예)

그런데 무역항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경 부두 자체가요, 드론 그 부분들이…… 국가 대 국가, 기관 대 기관 부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희들로서는 불행한 그런 시설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요, 저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시설이다. 해경 신설 부두에 그런 구조대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런 시설이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니, 그런데 시설을 하더라도 완도 땅이 많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비구조장을 빨리 타서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 이범성 의원

아니, 그런 돈을 들어서 (청취불능) 쪽에다가 한다든지 했을 때는 완도항 자체도 넓어지고요.

또 그쪽에서 출동한다고 늦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일단 선박이 있는데 경비구조정, 그런 데가 있는 곳에 상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주시설……

○ 이범성 의원

앞으로 선박은 출항하면서 모두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그러지. 그 안에, 옛날 완도항에 어떻게 보면 화재사고도 좀 있고 그랬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긴급하게 가까운 데로 출동한다고 하지만요, 요즘 연근해 그런 부분들에서 풍랑에 의한 사고, 그런 부분들의 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뭐 응급환자 출동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도항에 현재 경비구조대 복지관을 신축함으로써 국제항으로서 완도항을 제대로 써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 공간이 너무 커버리다 보니까. 혹시 그런 데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냉동공장이나 아니면 저장, 냉동저장시설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모든 지역민들한테 많은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해 봤자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면서 뭔가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9쪽 이범성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인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 개발계획입니다. 완도항은 전라남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538억 원을 투입하는 중앙방파제 500m와 유선부두 196m, 방파제 50m 등을 설계 중에 있고, 바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용역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해 8월 착수해 2020년 6월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도항 기능보강 및 물류 공간 확장을 위해 완도관광호텔에서 해경부두까지 1.5km 구간 임항도로 개설과 신지 강둑 물양장 및 돌재부두 시설 등 10개 사업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남도과 해양수산부를 방문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방문,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등 우리 군 계획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항 개발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항은 항만법상 무역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역항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항만법 제2조에 의하면 국민 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도항이 무역항으로서…… 국가관리 무역항하고 또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구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도항은 어디에 속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전라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입니다.

○ 이범성 의원

완도항이 몇 년도에 무역항으로 개항되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1981년도에 됐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1991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1981년도에 무역항으로 됐고요.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된 것은 2010년도에 변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완도항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군민 또 관광객, 조업선단들, 그리고 제주 물류기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은 지역주민, 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또 어업인, 제주~완도 간 물류 등 우리 군민들이 다수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항 개발 및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발업무는 전라남도 해운항만과 항만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리는 완도항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다가 지방어항으로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요, 완도항은 우리 군에 있고 주로 사용은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는 실제로, 항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군이 많은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할 그런 항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면 관리비 차원에서 1년 관리비를 얼마나…… 관리하는데 도에서 소요되니까, 예산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항은 우리 군에 있는데, 주로 지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도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개항한지 30년이 된 완도항 개발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현실에 맞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도항을 관리하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완도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완도항이 앞으로 더 무역항으로서 본연의 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3차, 4차 항만기본계획에 완도항의 부족한 인프라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이 완도항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웬만한 연안항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미흡하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뭐 정원수역이 충분하지 않아 가지고 각종 태풍이라든지 오면 선박들이 다른 곳으로 피항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계류시설도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있어서 외항 선박이 좀 기피하고 있는 그런 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방시설이라든가, 급랭시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조업선단에서 많이 애로를 하소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항내의 정원수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태풍이 온다면 강진 마량이나 또 산마항 및 약산 득암항 등지로 다 피항하고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각종 선박 접안 및 계류시설이 부족합니다. 연근해선단들이 기선, 권역망 선박들도…… 완도항에 들어오는 배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 잘 보시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들이 완도 관내 어업인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가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완도항이 뭔가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시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항내 배후단지가 없어 항만 기반시설이 거의 제로입니다. 필수조건인 제방시설, 저장시설도 전혀…… 하나도 없죠. 일부 수협 것만 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농공단지에 좀 있고 완도항 쪽에는 부족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없는데 무슨……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도항은 무역항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볼 수 없는 실정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기능이 미약하죠.

○ 이범성 의원

그리고 해경부두가 생기면서 무역선이 완도항에 접안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 도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것이 보호구역 지정인가 뭔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모양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완도항 개발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직 못 해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왜 용역비는 수억씩 써가면서…… 지금 완도항이 입항하는 연근해어선들이 들어오면 완도에다가 돈을 그렇게 뿌린다던데.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뭐 1억이 아까워 가지고 못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차 항만국가에서 수립하고 있는 항만계획에 우리 군에서 완도항의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전라남도 방문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고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을 요청하였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금년 12월 중에 해운사라든가, 항만 도선사, 관계기관하고 설명회를 갖고 2020년 6월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1일 평균 내지 선박 기항 수, 또 외지선단 입출항 자료라든가 관광객 현황, 또 완도~제주 간 물동량,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3차 계획 시에도 우리 군에서 많은 계획을 요청하였습니까마는 물동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국장님, 잘 될 것 같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최선을 다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특히 본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신지면 몰하태 지역입니다. 그쪽이 수심이 좁고 또 선석 확보에 유리하고요, 또 뒤에는 부지가 있어 가지고 부지 2만 평 정도는 배후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부산공동어시장 중매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완도항이 고등어선박 어선들이 가장 좋아하는 양륙항이라고 합니다. 그것 왜 좋아하는지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완도 근해에서 잡은 고등어를 신선도를 가장 유지하면서 전국적으로 출하시킬 수 있는 곳이 완도항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데 그 고등어를 신고 들어오는 배들이 고등어 하역이랄까, 여러 시설 부분이 부족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얼마나 시급한 사항인지 느끼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전용부두를 매입해서 그런 조업선단들이 접안하고 그쪽에서 냉동창고를 통해서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출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다면 전 해경부두, 지금 이전하고 있는 부두가 그만큼 쓸모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잘 간수하고 또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정해하고 계속 미팅 중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자주 그쪽하고 의견도 듣고……

○ 이범성 의원

그러면 경해는 저것이 된다면 바로 들어온다는 그런 실정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쪽 이야기는 완도가 그런 인프라 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완도로 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려고 한다는……

○ 이범성 의원

그렇죠. 관내에서 광어양식업자들도 경해 고등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또 경해에 한번 고등어가 들어오면 하루 저녁에 인원이 얼마만큼 투여되는지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한 120명 정도.

○ 이범성 의원

그렇죠, 120명이 하루 저녁 날을 샌다든가 하면서 작업을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다면 완도…… 지금 농공단지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전혀 활용 값어치랄까, 전부 다…… 부군 수납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고흥 쪽으로 미역공장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추진해야 완도군이 그래도 좀…… 인구도 좀 늘어나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런 것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이번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엄청 중요한 완도의 일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기 있지 마시고 도나 해수부를 쫓아다니면 서요.

또 건수는 많이 올라갔지만 다 잘라버리고 한 두 건이나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목표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신청해 놓은 것에서?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10건입니다. 연계된 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것을 빼면 8건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8건 다 할 수 있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최대한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 최대한…… 그런 말은 안 맞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우리가……

○ 이범성 의원

아니,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찾아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논리 개발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설득을 정확하게 해서 8건은 꼭 확정되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꼭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1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지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보고, 먹고, 체험하는 행복한 완도 여행!’이란 주제로 장보고테마, 수산물테마 등 46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의 최근 5년간 소요예산은 2015년 7억 4,000

만 원, 2016년 8억 500만 원, 2018년과 2019년 7억 8,500만 원으로 2017년에는 국제해조류 박람회 행사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쪽, 최근 5년간 중앙정부 평가결과입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아쉽게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 및 실적입니다. 첫째, 완도의 대표인물인 장보고대사를 주제로 한 장보고상단퍼레이드 및 장보고 해상왕국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보고대사의 위업을 재조명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전 축제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축제 기획으로 15만 명이 방문하여 식당, 숙박, 특산물 판매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축제였습니다. 또한 무료 전복시식회, 해조류 직거래장터, 청정완도 고향맛집 등을 통해서 다양한 수산물 요리와 판매코너 운영 등으로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제의 비전 및 방향 전환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축제의 효율화를 위한 축제전담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으로서 단기간에 준비하여 축제를 진행 시 예년 축제를 답습하는 등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없으므로, 장보고수산물축제나 슬로건기축제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와 기획하는 축제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금년 장보고수산물축제 분석결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상당부분 증가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먹거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프로그램과 메뉴 개발을 통해 보다 많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보고수산물 축제 명칭 변경 검토입니다. 현재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장보고의 인물과 수산물이 결합되어 주제가 불분명하여 기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해상왕장보고축제로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년마다 국제해조류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내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최 시 축제추진위원회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축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물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된 홍성 역사인물축제, 영암 왕인 문화축제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쟁력 있는 완도 장보고수산물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46개 우수축제 및 유망축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는데 알고 계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보령 머드축제입니다. 보령 머드축제는 대표축제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유지하여 문화관광축제를 (청취불능) 명예축제라고 합니다. 인근 시군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남에서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6개 축제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죠,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고, 강진 청자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최근 5년 이내에 우수축제로 선정된 적이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없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것이 오늘의 장보고수산물축제의 현실입니다. 동의하시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것은 많이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까 답변 자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축제의 정체성이 없다. 인물축제인지 수산물축제인지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하고, 또 프로그램이 매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차별화도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본의원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축제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고 보고요. 인물축제인지 아니면 수산물축제인지. 그렇다고 뭐 큰 차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산물을 이용하여 성공한 축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산물……

○ **최정욱 의원**

수산물로 하는 곳은 영덕 게와 평창 송어축제가 대표적으로……

둘째는 축제의 차별화가 없습니다. 우수축제로 선정된 46개 축제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나름대로 들여다봤습니다.

○ **최정욱 의원**

어디에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대부분 축제가 그 지역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전통문화, 음식을 주제로 축제를 했는데, 특히 화천 산천어축제라든가, 보령 머드축제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축제로 차별화가 되었다고 분석해 봤습니다.

○ **최정욱 의원**

공통점이 주로 참여화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참여, 이런 식으로.

○ **최정욱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장보고축제, 수산물…… 차별화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장보고축제로…… 이렇게 인물축제로 간다면 장보고선양사업 측면에서 장보고를 주제로 해서 차별화시켜서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인물축제로 해서 차별화시키 나가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축제란…… 사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완도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축제를 안 하는 곳이 거의 없죠? (예)

그 지역축제의 차별화는 자연환경과 문화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화와 환경을 가지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것과, 또 체험거리도 만들고 먹거리도 제공하여 축제를 성공시키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국장님, 현시점에서 냉정하고 솔직하게 현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저도 동의합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올해 장보고수산물축제 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봐서요, 그 분석도 하고,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다 했습니다. 내가 군의원이 되기 전에 이 축제에 대한 불만들을 주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요, 내가 그때 느꼈던 그 불만을 의원으로 들어가서…… 다행히 내가 위원회로 들어가서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구나, 왜 이런지, 왜 수치상 조사도 잘못되고, 왜 축제가 주민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지 않은데 군은 저렇게 성공했다고 그럴까, 그것을 보면서, 제가 축제위원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및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고생한 만큼의 보람이나 좋은 평가가 안 나오니까 참 아쉽더라는. 이것이 고,

두 번째는 왜 이럴까, 왜 결과보고가 이럴까 했는데, 제가 결과보고를 나름대로 조사를 스스로 했어요. 사실 우리가 원동 다리와 신지대교에 카메라 감지기 2개만 있어 버리면, 차량 대수가 들어와 버리면 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없더라고, 그래서 뭔가 해서 조사하니까 완도타워 모노레일을 타는 것을……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가게 되어 있죠, 그것을 통해서 현장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군에서는 정말 인원이 며칠…… 5월 4일은 3만 4,000명, 5월 5일은 2만 8,000명 이런 식으로 보고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관광객이 오히려 5월 4일이 조금 오고 5월 5일에 많이 왔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여기서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왜 내가 말하느냐면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가 심사평가할 때 이미 이것을 가지고 전체 심사위원들은…… 심사위원들은 전체 다 축제가 성공했다고 봐요. 한 사람도 잘못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런 것을 지적했었어요. 그랬는데, 죽어라고 축제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내가 지적하기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몇 가지를 가지고 했는데요, 자기들도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분석을 하자는 얘기가 뭘냐면,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음 내년도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더 해야 되겠다는 이런 대안이 나왔을 때 우리 축제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하자는 것이지, 그것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미 보고회 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확하게 보고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축제부터 뭔가 달라지는 그런 축제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첫째, 축제의 정체성을 확실히 정립하십시오. 인물로 가든지, 아니면 수산물로 가든지. 본의원의 생각은 장보고대사의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인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정체성을 뚜렷하게 해가자. 그래서 인물축제로 나갈 것인지, 수산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의원

왜 그러냐면 적어도 완도에 오면 장보고수산물, 뭘 축제인지 관광객들한테도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차라리 수산물로 하려고 하면…… 수산물이라고 하면 요즘은 안돼요, 뭘 수산물이라고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 같으면 전어는 어느 지역, 우리 같으면 전북, 수산물이면 전북이니까 전북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물도 아니고 수산물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 수산물축제는요, 예전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안 하는 데가 없고 수산물은 내 접근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물은 큰 의미가 없어요, 수산물은, 우리가 어떤 축제를 통해서 수산물과 연계해서 판매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경제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상징성이 있는 것,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둘째는 장보고 선양사업과 연계하여 인물축제로 간다면 축제위원장에 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대학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 사람들을 축제…… 인물축제로 한다면 해양경찰이나 목포해양대는 우리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그런 사람들이 축제위원장이라면 그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축제 때,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는…… 두 기관, 그 거대 조직한테 홍보 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축제추진위원회 이 부분을…… 안전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꼭 좀 그렇게 해보십시오.

셋째, 냉정한 축제…… 아까도 말했지만 성과 분석입니다. 형식에 그치지 말고요, 말장난이 아닌 내실 있는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놓고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축제 준비기간은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개월 준비해 가지고 어떻게 그런 성과분석을 내겠어요. 그래서 1년 전부터라도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뭐가 문제인지, 또 우리가 했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하면 실패로 올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축제위원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미리하자는 얘기에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제가 답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제전담팀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축제만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축제를 등한시하는 부분도 있고 딱치면 축제를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축제에 대한 차별성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축제하는 동안 보면 정말 고생했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왜냐하면 공무원이고 뭐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뭐가 있냐면 죽어라 고생했는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요, 우리 같으면 진도 바닷길, 그러면 진도 바닷길을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요, 바닷길을. 그렇죠? 장흥 물축제, 물축제는 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솔직히 보십시오, 상단퍼레이드, 잠깐 1시간 하면 지나 갑니다. 그것도 큰길가로 지나가니까 관광객들 중에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누가 보느냐,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니면 못 봐요. 노젓기 때 안 오면 못 봐요. 또 금방 말한 김밥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대가 아니면 우리는 정확하게 내용을 만든, 관광객들이 2박 3일 동안 와서 뭔가 볼만한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왔다가 가면 완도에 가면 뭐, 뭐를 보러간다. 보러 가는데 보고 가서 다른 관광객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완도에 가면 이런 축제를 해요.” 라고 그러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지. 누가 2박 3일 동안 여기에 와서 관광을 하겠어요? 1시간 아니면 한나절, 하루를 오더라도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잠깐잠깐 넘어가는 프로그램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많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모든 것이 그렇다 보니까 정체성도 없어,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대표성으로 보고 느끼고 가는 것도 없어. 보고 가서 다른 관광객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못 보니까. 자기 시간대가 안 맞으면 볼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공감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지 먼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김밥이나 상단행렬을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보다도 관광객들이 미리 어떤 선정을 한다든가. 그 선정을 하면서도 홍보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하고 참여하게 하려면, 홍보도 하고 참여도 유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상단행렬을 했기 때문에 뭐가 남겠어요, 기억에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생각해서 그런 것 하나하더라도 미리 그런 것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 군의 축제가 보령 머드축제처럼 명예축제가 되어 완도라는 이미지 상승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5건의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입니다.

완도사랑상품권은 5,000원권,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4종으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였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019년도 상품권의 발행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지난 7월, 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110억 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의 구매는 관내 금융기관 35개 지점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 구매만 가능합니다. 개인의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이내이고, 법인의 구매한도는 반기별 500만 원 이내입니다. 상품권의 사용은 가맹점으로 지정된 관내 업소 1,524곳에서 가능합니다. 상품권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8월 한 달간 공직자 완도사랑상품권 이용 릴레이행사를 실시하여 1억 2,5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9월에는 추석맞이 릴레이행사를 추진하여 1억 8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3곳의 기관·사회단체와 1억 7,000만 원의 구매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품권 판매·환전 현황은 9월 26일 기준이며, 10월 15일 기준 판매금액은 17억 940만 원이고 환전금액은 12억 965만 원으로 상품권 사용이 안정화 추세입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 첫째, 상품권을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되는 불편함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 충전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상품권 갱 문제입니다.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문제 발생 시 가맹점과 개인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중복 위반 시에는 가맹점 취소 및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개 업체에 가맹점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상품권에 대한 인식부족입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상품권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부터 완도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상품권을 발행해서 관내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상품권을 많이 판매한 금액으로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뭘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실질적으로 상품권 이용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환전율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이 부분인데요, 현재 70% 정도 환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용하는 추세를 봐보면 주유소 부분에 대해서요, 예전에는 단가가 낮은 외지에서 주유하고 오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상품권을 이용해서 관내지역 주유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구요, 외식업지부에서 저희들한테 1억 4,000만 원의 구매협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소에서 식료품을 구입할 때 예전에는 싼 목포에서 구매했는데 완도지역에서 구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파악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예.

그러면 40억을 발행했고 17억 정도 팔렸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17억 판매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도내 판매실적을 보면 분기당 6억 7,000 정도

가 평균 판매금액입니다. 저희들이 7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면 1분기가 넘었는데, 실제 이 정도면 저조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다행이고요.

혹시 읍면 단위나 섬 지역 이런 데에는…… 그런 데에도 가맹점이 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가맹점 신청률은 84%입니다, 완도군 전체적으로 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97% 정도 가맹점을 신청했고, 생일이 한 5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생일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혹시 홍보가 잘 되어 있을까요, 주민들한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이 좀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되도록이면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읍면을 위주로 교육하도록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가…… 우리 군에서도 깡이랄까, 그런 것이 발생한 것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소를 가맹점 취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본인이 구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환전할 때 그 넘버링을 다 찍습니다, 바코드로, 이 사람이 50만 원을 구매했는데 50만 원이 그대로 환전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가맹점하고 둘이 짜고 환전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고생하시네요.

그런데 경기도 강화사랑상품권이 깡으로 불리

는 부작용이 심각해 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폐기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처음이니 만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이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점, 추진과정에서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젊은 층들이 거의 카드 사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젊은 층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년도에 모바일이라든지, 이 카드를 충전식으로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리고 70% 이상 사용해야 만이 나머지 거스름돈을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혹시 마트나 그런 가맹점에서 그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셨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보면 거기는 꼭 70%를 사야 환전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은 50%만 구매를 해도 상인들이 환전해 주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직접 들은 말인데요, 어느 모 마트에서 5만 원권을 받아 가지고 1만 원어치를 사니까 나머지 거스름돈을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에 재미를 붙여 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했대요, 본인이. 그래서 현금을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떤 마트는 “그래, 가지고 와라. 내가 나머지 내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마다 꼭 70%로 그것을 계산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현금을 자주 바꾸는 재미를 붙이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하시고, 정말 읍면으로 이장들한테 하든지 단체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상품권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직접 주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몇몇 사람들이 이익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이 오염되고 오해가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골고루…… 진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음은, 3쪽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변환소 지역갈등 해결대책입니다.

먼저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한 변환소 설치 계획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며, 15년 기간의 장기계획입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이며, 2017년 12월 29일 산업부에서 공고하였습니다. 제8차 전력수급계획의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송변전 설비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건설 지연된 설비 10개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계획하였고, 특히 제주도의 수급불안 조기해소를 위해 2025년 준공예정인 #3HVDc를 2020년까지 준공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완도~제주 간 #3HVDc 육지 측 건설사업은 변환소 규모 200메가와트로써, 본관, 창고, 경비실 등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부지면적은 약 3만 평방미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지 및 주민 수용성 확보에 따른 그동안 진행상황은 2017년 2월부터 12월 까지 한전에서 변환소 예정부지 확정을 추진하여 완도읍 가용리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변환소 반대 범안도군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 2018년 9월 4일 완도신문이 개최한 군민토론회 이후 완도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그해 12월 제3후보지 추천 및 무효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7일 행정, 의회, 주민, 한전이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범대위 구성 운영을 합의하였습니다. 2019년 1

월부터 3월까지 범대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준비위원 14명이 5차 회의를 진행하여 50명의 범대위 위원 구성과 회칙을 마련하였고 2019년 3월 25일 완도~제주 간 변환소 관련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제정하였습니다. 9월까지 운영위원회, 총회, 간담회 등 총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8월 6일 변환소 설치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반대를 의결하였습니다.

금후 대책 및 우리 군 의견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전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을 위하여 범대위 차원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우리 군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이 미흡한 변환소 건설 및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합니다. 갈등 해소 대책으로는 주요 쟁점사항을 보면 첫째, 최초 완도지역 설명회 당시 사업목적과 불부합. 둘째, 청정바다수도와 건강의 섬 이미지에 부적합. 셋째, 망석리 마을총회 부결을 무시하고 한전에 통보. 넷째, 한전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다섯째, 변환소 설치와 완도 해상풍력사업의 연계. 이상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한전에서는 산업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반대를 주장하면서 한전과 대립상황으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범대위와 함께 한전과 대화를 실시하여 한전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공감할 때까지 이해와 설득을 진행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변환소 지역갈등 해결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최정욱…… 그제 최정욱 의원님이 군수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변환소 관련해서는 항상 투명하고, 또 투명하게 공개해서 모든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잘 추진해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음은, 6쪽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입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 지정현황은 인증 사회적기업 3개소와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로 총 5개소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으로는 완도읍 주식회사 이엠사랑, 고금면 농업회사법인 청해진미, 군외면 자연으로 영농조합법인인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완도읍 주식회사 완도네시아, 유한회사 만나씨푸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원받은 사회적기업 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이엠사랑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톳식초, 김·튀김부각 이엠발효식품, 다시마비누, 전복햇반 등을 개발 판매하며 연매출 6억 700만 원, 고용인원은 6명으로 지역정화활동 참여, 복지관 청소, 지역아동센터 물품 기부를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청해진미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 후 소포장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계약을 통해 판로를 확보 판매하며 연매출은 3억 4,000만 원, 고용인원은 7명으로 고금면사무소 물품기탁, 노인전문요양병원 현금 기부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전통발효식품 및 농수산물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천연해초 누룽지 및 식초, 효소 등 자연발효식품 등을 꾸준히 개발 판매하여 연매출은 2억 3,000만 원, 고용인원은 7명으로 행복나눔의 집 물품 기부, 외국인 근로자 식사제공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완도네시아는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서 게스트하우스, 비누공방, 커피숍을 운영하여 연매출은 1억 5,000만 원, 고용인원은 8명으로 각종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무료재능기부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최근 5년간 기업별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사회적기업 4개소에 사업개발비 2억 1,700만 원, 인건비는 국도비로 6억 4,900만 원 등 총 8억 6,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기업별로는 주식회사 이엠사랑은 2010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2015년 국도비 재정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최근 5년 동안 도비 및 군비 1억 4,000만 원의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청해진미는 2014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인건비 2억 7,000만 원, 사업개발비는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연으로 영농조합법인은 2015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억 1,000만 원, 사업개발비 4,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식회사 완도네시아는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2017년부터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성과 및 기대효과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 고령자, 저소득, 다문화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소비자들에게 소포장 가공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매년 불우이웃, 요양원 물품 기부,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또 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촉활동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주민 소득창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축을 차지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의 성과분석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연속으로 하나까 좀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시작할 때는 전부 다 법인으로 시작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이 끝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섯 개 업체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것이 개인사업으로 간다고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법인으로 하되,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조치할 방법은 없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 지정을 도에서 매년…… 재인증을 받아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와고 협의해서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재인증할 때는 도에서만 관여합니까, 우리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관리만 하시고 재인증을 줄 때는 도에서 합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그런…… 전혀 뭐라고 해야 될까, 권리라는 것은 없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도점검하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지도만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인증을 받은 세 업체, 또 나머지 두 업체는 점검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세 업체는 인건비를…… 전부 다 고용해 가지고 잘됐다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인건비는 저희들이 매달 지급해 주고, 인건비를 지급할 때 근무상황부라든지, 출근일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제출 받아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현지에 가서 정산하고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보셨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합동점검이 고용노동부와 도와 저희하고 같이 합동…… 타 지자체 시군 담당자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타 지자체가 와서 합동할 때는 주로 뭘 확인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보통 출근부, 그다음에 근로참여근로자 실제근무현장 확인, 참여근로자와의 면담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참여근로자 면담? (예)

그러면 주로 참여근로자들이…… 정해져 있겠

네요. 고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보통 1년 단위로라도 아니면 6개월 단위로라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채용해 가지고 몇 명이고 누구누구라고 명단이 다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 명단이 있고 돈이 나갈 때도 그 사람 통장으로 나가고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통장 은행 입금내역, 통장사본까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법인으로 잘 구성해 가지고요.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많이 관여하는 사항이고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업들을 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혜택을 주는 것인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하실 때 잘 보시고요.

사회적기업을 처음 신청할 때는, 그것은 군에서 신청을 받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신청을 받고 진단은 도에다가……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도에다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신청할 때도 과연 이 사람이 법인을 잘 운영할 것인가, 개인으로 갈 것인가를 잘 진단하셔서 가지고요. 서로 우리가…… 적은 돈이지만 이해하고 또 협력하는 데에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회적기업, 이것이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으로 간다고 봐서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신정을 쓰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9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항 유치현황입니다. 완도항 입항 선박은 2017년 5,560척, 2018년 5,626척, 2019년 6월말 기준 2,315척이며 조업선단 유치 실적은 2017년 1,118척, 2018년 1,831척, 2019년 6월말 기준 1,292척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완도항 유치 인센티브 지급현황입니다. 총 1,292척의 조업선단에 6,170만 5,0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으며 식수는 678척에 777차, 얼음은 513척에 1만 1,905각을 공급 지원하였으며, 항만하역료는 2019년 7월부터 101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연근해조업선단 1척이 입항하는 경우 면세유, 부식, 생활필수품 구입 등으로 약 2,540만 원을 우리 군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제적효과를 수치화하면 2017년에는 약 1,412억 원, 2018년에는 약 1,429억 원, 금년 6월 30일까지 약 588억 원입니다. 금후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계획입니다. 조업선단 유치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구 해경부두를 조업선단 전용 부두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부두 소유권 변경을 위해서는 완도해양경찰서에서 신설부두로 이전 완료 후, 반납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나 경비구조대 사무실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기 이전 대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업선단 전용 부두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공산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조업선단 유치를 위해서 부산, 통영의 근해통발 수협, 채낚기선단 협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두의 수심이 낮아 대형선박

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급속냉동, 냉장시설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운반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반선 1척에 얼음 약 1,200각을 선적하여야 하나 공급량이 부족하며 자동화 공급시설이 없어 선적에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고등어선단 유치로 민원이 발생한 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조업선단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완도는 부산공동어시장 보다 조업 후 이동거리가 짧아 부대비용 절감과 높은 선도 유지로 품질 고급화가 가능하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연근해어선 완도항 유치는 완도읍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 1,400억을 쓴 것으로 답변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1척당 2,540만 원씩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들어온 척수를 대비해 보면 1,400억 정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범성 의원

요즘에 완도항 인근 상가들에 대한 연근해 어선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물건을 사가고 그런 것 파악을 해보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큰 마트 같은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고 숙박시설, 음식점까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설문조사 같은 것, 객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해 가지고요, 계속 꾸준히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은 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까지 한번 신경을 써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을 꼭 해주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내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항간에서 들은 소리는 식품을 외지에서 싣고 들어와 가지고 푸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다고 본의원한테 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완도군에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 파악을 못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해 보느냐 안 해보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근해어선 입장에서 본다면 완도항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부분이나 동지나해에서 작업하는 어선들이 육지로 오는 경우 부산으로 갈 때 보다 다섯 시간이 더 짧습니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의 운영비라든지, 유류대금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요, 신선도가 훨씬 높아서 가공제품을 만들 경우 수입도 더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장점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가장 좋은 장점이 아닙니까, 강점이고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좋은 강점을 두고도 연근해

어선이 완도군 소비측면에서 엄청난 보탬을 주고 있는데, 계속 유치가 저조하다든지 또 회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빨리 진행할 부분은 빨리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근해어선이…… 완도어선들이 조업수역으로부터 완도항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주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이쪽 부대시설이 부족함으로써…… 얼음이 없어서 얼음을 사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얼음 같은 경우도 꼭 이쪽에 있는 그런 부분으로만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을 때 다른 큰 업체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현실적으로 제빙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급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화들도 이런 부분을 투자 유치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 이범성 의원

아니, 해마다 봐도 그래요, 해마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고, 보고서를 봐도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 대처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조업선단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금년 자료는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 자료라서 그렇습니다.

○ 이범성 의원

10월이 아니고 6월말 기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같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지금 9월 기준으로 보면 2,040척으로 작년보다 더 입항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다면 뭐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없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재 식수얼음, 하역료 등 세 분야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도항에 입항하는 전 선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입항하는 모든 선단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장어통발선단에 식수얼음을 지원해 주고 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지원되는데 장어통발선단은 얼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요. 식수하고 하역료, 크레인 사용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크레인 사용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6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통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완도에 참…… 돈을 많이 뿌리는 그런 선단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을 더 확인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불편한가. 과장님이 오시면 “다 좋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부분들은요, 크레인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좀 높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즉각, 즉각 조치도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대응해야 될 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완도항과 부산공동어시장은 규모면으로 봤을 때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향후 완도항 시설 확충과 더불어서 해경부두를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해서 하역시설, 제빙시설, 냉동시설, 냉동창고 등을 설치하고 연근해선단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제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제빙시설, 기반시설,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저 배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국장님께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경부두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경부두하고 신지물하테, 지금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데, 아까 “국장님, 여덟 가지 꼭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엉거주춤하게 “예.”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꼭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항만업무 담당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도 엉거주춤하게 “예.” 라고 하시려고

요?

(장내웃음)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일부두에 완도 수거실습선하고 행정선이 계류하고 있는데 해경부두가 완공되어서 해경이 그쪽으로 갔을 때 해경과 협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수거실습선 관련해서 해경하고 서너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경 측에서 보안 문제, 그다음에 해경선박들 대형하고 그리고 완도 해경이 전체 해경의 중앙기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선석에 여유가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틈새공략을 해서 여유 공간이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그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관공서하고 또 완도 수거실습선이 빠져 나가면 통발 배들이 한 네 척 정도 접안해 가지고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면 작년에도 오직 선석이 없어 가지고 장어는 급한데, 하역은 급한데 못하고 그래 가지고요, 제주 배가 접안하지 않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푼 적도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폭넓게 생각해서 가지고요, 어디 한다고 얘기만, 말씀드리지 마시고요, 어디 정리된 것이 있어야 이런 말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정리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년이 지납니다. 내년에도 안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군보다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를 하려고 엄청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항선적의 인센티브 지원이랄

까, 그런 것 계속 조사해 보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목포 쪽으로 (청취불능) 빠져 나갔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목포시장이 완도군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내가 간접적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서 가지고요, 한 척, 한 척 빠져나가다 보면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명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11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 및 해양생물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지는 1993년 1월 7일 착공하여 1998년 6월 30일에 완공되었으며, 조성면적은 가용리 33만 6,000평방미터, 죽청리 22만 3,000평방미터로 총 55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지는 우리 지역 특화산업 유치를 위해 2015년 6월 26일 착공하여 2018년 1월 19일에 준공되었으며, 조성면적은 산업시설 7만 1,000평방미터, 지원시설 4,000평방미터, 공공시설 3만 5,000평방미터로 총 11만 평방미터이며 1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지별 입주 및 가동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지는 12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가동업체 수는 115개 업체로 9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생물특화단지지는 1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2개 업

체가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미분양 현황입니다. 완도 가용·죽청 농공단지는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해양생물특화단지는 면적 기준 25.8%가 미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 부지는 24필지 중 5필지로 1만 9,282 평방미터이며, 미분양 부지 1필지에 대해서는 식품제조업체가 입주 의사가 있어 상담 중에 있습니다.

분양금 미회수 내역입니다. 분양대금 연체내역은 없으며 해양생물특화단지는 5개 업체에서 분할 납입 중으로 분할대금 잔액은 약 26억 3,900만 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내 누전이 잦았던 기존 노후 가로등 261등을 철거하고 LED 보안등 23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죽청수원지 여과기 개선 및 물탱크 우회관로 설치를 위한 죽청 및 장좌수원지 공업용수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로 인한 우·오수관로 막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준설공사 및 CCTV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도로 침하구간 및 포트홀을 정비하고,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및 토사유출 구간에 대한 배수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협의회와 분기별 1회 정기적인 만남의 날을 추진하여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부지 조기 해소를 위해 고등어 선단 유치와 연계한 고등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폐업 등 장기 방치된 부지에 대한 입주업체 사업계획을 요청하고 1년 이상 방치부지의 입주계약 해지 안내 및 동종업종 매매 등을 추진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역할 미흡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공단지 협의회 위원 재정비를 요청하고, 협의회 합의사항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의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담장밀 잡초 자발적 제거, 쓰레기 배출방법 지키기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안내문 발송, 방문 등 계도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

지 분양 및 해양생물단지 운영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옥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옥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공단지는 참 중요하죠. 지역일자리와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 상세하게 잘해 왔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또한 활성화 방법이나 문제점 및 대책도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것을 정리를 잘했지만 실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월에 군수님과의 면담을 하겠다고 간담회 계획을 갖고 있네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일정에 안 맞아서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되도록이면 입주한 기업체가 다 참여해서 서로 애로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눠서 그 부분을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옥 의원

농공단지가 이렇게 분야별로 모임이나 협회나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 면담할 때 다 나올 수 있겠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알람도 보내고 독려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옥 의원

왜 그것이 염려스럽냐면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전부 나오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아니면

참여를 독촉해서 오면요. 군수님은 다 모여서 갔지만 사람들이 거기에서 말을 안 해요. 군수님 얼굴을 보고 함부로 말을 못해. 그러니까 아마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적어도 군수님이 가서 어떤 간담회를 할 때는 우리가 현장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참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는 애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협회와 구성, 협회가 잘 돌아간 다음에…… 서로 간 의견이 교환되고 많이 할 거예요. 그다음에 군수님하고 어떤 간담회를 했을 때 제안이나 자기들의 의견이 도출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모여 가지고 해보라고 하면 안 해요, 말을 전부 다 안 하고요. 군수님만 말하고 끝나고 가게 돼요, 그 자리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애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말했지만 협회도…… 농공단지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잘났어요, 다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고 하나씩.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총 협회를 구성하도록 하면 아마 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보겠다고 나와 있네요.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특화단지 형식으로 네 필지가…… 다섯 필지 중에 네 필지만, 그리고 한 필지만 문의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보고서를, 답변서를 작성한 이후에 또 두 필지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는 민원이 좀…… 한 필지는 장례식장 그 태양광하고 옆에 그림자가 많이 비쳐서 어렵다고 제기한 한 필지가 있고요. 또 한 필지는 다른 업체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부지를 활용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 그 두 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필지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필지면 한 몇 평이나 될까요, 거기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두 필지 말씀입니까?

○ 최정욱 의원

예, 아니, 대강만 알면 됩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하나는 1,000평 가까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부분도 1,000평 정도 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한 2,000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 되면요, 평소 본의원이 이런 제조업, 유통, 이런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도 그것이 되어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침 외국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마음을 접었는데 그것을 보고 더더욱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정 두 필지가 잘 안 되면 내가 과장님과 별도로 만나서…… 유통구조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저것이. 예전같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할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할 의향이 있죠, 하게 되면, 만약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관광정책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09시56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본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호 의장님께서 외부 의정활동으로 인해 오늘 본회의 주제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질문답변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 등 총 4건입니다.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명사십리해수욕장 방문객 현황입니다. 2017년 63만 4,000명, 2018년 49만 1,000명, 2019년

45만 3,000명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다양한 놀이 시설과 편의시설이 있는 실내시설로 여름휴가를 즐기는 관광패턴 변화로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비 현황입니다. 매년 해수욕장의 낡고 파손된 편의시설과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 해수욕장 청소인력, 개장기간 중 안전요원 고용, 관광객 및 주민들을 위한 콘서트 등으로 2017년 6억 7,300만 원, 2018년에는 10억 2,400만 원, 2019년에는 9억 7,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운영 총 사업비는 26억 6,99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수입현황입니다. 시설물 위탁사용료로 `17년도에는 1,288만 7,000원, `18년도에는 1,013만 6,000원, 올해는 839만 1,000원으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샤워장 2개 그리고 상가시설 등 해수욕장 위탁시설물 미운영으로 최근 3년간 명사십리해수욕장 수입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신지면 신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옆 장소에 사업비 6억 4,721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층 화장실 및 샤워실 그리고 2층 해수욕장 안전요원사무실로 이용할 있도록 개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장애인 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하는 BF인증 신청을 하여 9월에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12월에 전라남도 계약심사 완료 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일시 중지하여 9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리모델링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장 지반이 모래로 구성되어 지내력 불확실성에 따른 건물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공법을 변경해야 함으로써 해수욕장 개장 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개장기간 중 공사를 중지하고, 폐장 후 공사를 재개하여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명사십리해수욕장 내 막구조 상가를 운영하여 피서객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왔으나 시설 노후화, 모래 패착한 주변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2016년에 시설물 철거를 결정하고 2017년에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명사십리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현재 막구조 상가지구는 자연녹지지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막구조 상가는 15개소 중 11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현재 철거 반대민원으로 4개소는 미철거된 상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 철거를 완료하고 수목 식재, 물놀이 시설 설치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여름철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막구조 상가 철거에 따른 해수욕장 내 먹거리 등 상가시설 보완대책으로 푸드트럭존 운영 및 추후 대체 상업부지를 마련하여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사십리해수욕장 모래유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양정책과 부서에서 2019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신지면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야외 노출을 피하는 관광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욕장 내에 이동식 물놀이시설 및 그늘선택 설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 3억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명사십리해수욕장 블루플래그 재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 이미지 구축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고 연차적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영구적인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로 관광객 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토캠핑장 운영상황입니다. 오토캠핑장은 신지면 신리 명사십리해수욕장 관광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만 5,984제곱미터로 캠핑카 사이트 22면에 카라반 1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토캠핑사이트 48면, 관리동 1동, 물놀이체험장,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 캠프파이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총사업비 3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공하였으며, 민간 위수탁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주식회사 캠프파라다이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5,203만 원의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오토캠핑장 이용객은 1만 9,088명으

로 4억 7,200만 원의 매출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용객 현황, 캠핑장 사용료 등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제가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기간 동안 계속 방문객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볼거리를 찾아 먼 거리를 떠나는 그런 관광객 보다는 대도시와 가까운 수도권 같은 경우, 강원도 같은..... 평창 이후에 그렇게 떠나는..... 가까운 곳으로 휴가를 즐기는 그런 관광객, 그리고 폭염을 피해서 노출되지 않는 실내시설, 그리고 물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관광객 대책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차근차근해 나가게요.

그러면 방문객은 계속 감소하는데 운영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최근 해양경찰서에서 전국적으로 상주 근무자를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안전요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객 수가 적게 올지라도 노후화된 시설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해경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올해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주찬, 퇴임하셨습니다 이주찬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해경이 손을 떼고 수상구조대를 투입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는 그때부터 계상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 일련에 과장님이 답변했던 이런 대책이나 문제점, 대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여름철 폭염을 피해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실내시설을 찾고요. 해수욕장 방문객이 줄어드는 추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좀 더 공격적인 그런 관광정책을 펼쳐서 저희들이 피서객을,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여름철 피서문화가, 트렌드가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방송을 보니까 진도는 작년에 비해 올해 관광객이 2배로 늘었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입장이고 진도군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진도나 목포, 해남은 관광객이 빠지고 있고..... 아니, 해남이나 완도는 관광객이 빠지고 있고, 강진까지 빠지고 있고, 진도나 목포 쪽은 관광객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 생각으로는, 대명리조트가 완도군에 왔을 때 그것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도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진도에서 나름대로 관광시책을 펼치고.....

○ 박인철 의원

호텔이나 리조트..... 여름 피서철에 예전에는 다 그냥 피약벌에, 바다에 나가서 모래찜질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관광 추이가 다 바뀌고

있죠, 그런 추이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못하고 4년 전입니까, 5년 전입니까. 완도에 대명리조트가 온다고 하니까 그 지역 몇 분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전혀 거기에 협조를 못했죠? 그분들이 처음에 완도 명사장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리조트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미처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달라진 휴가문화나 과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우리 군에다가 뭐 해양치유로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리조트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해양치유와 별개로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민간업체에서 우리 군에다가 한 500실 정도의 리조트,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것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콘도나 리조트 등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았구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진 준비 안 됐습니까?

이번에 막구조 상가 철거를 계획했고, 철거를 부분 부분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4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도 최근에 철거를 했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분들이 작년에에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인 시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막구조 상가를 철거함으로써 먹거리가…… 관광객도 많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먹거리가 아주 부족해 가지고 푸드트럭을…… 먹거리 부족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푸드트럭을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그 푸드트럭이 관광객들의 먹거리를 해소하였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소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관광객들이 오시면 있는 먹거리를 그냥 사먹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푸드트럭 4동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는데 2동만 입찰에 응해 가지고요, 2동만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막구조 상가에서 운영했던 것보다는 먹거리가 부족했다고……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구조 상가를 철거한다면 그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 것도 맞춰서 다음을 준비해서 철거해야 되고요, 또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 없이 보기 흉하다, 위생적이다, 어떨다고 해가지고 철거를 했다는 말입니다. 철거했을 때는…… 계절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절음식점 정도는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구요.

그리고 여기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리모델링 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BF라고 알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장애물……

○ 박인철 의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예비 인증을 받는데 한 7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증 완료 후 계약 심사 및 계약을 의뢰하는데 3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이 절차가 그래서 그랬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BF 인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BF가 생기도록 상당히…… 그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빨리 챙기지도 못했죠. 그 점 인정합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피서철에 피서객들이 와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아야 될 피서지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를 하고 보기 싫게 가림막으로 막아놓고, 그래서 그런 공사들은 피서철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시설해 가지고 준비를, 스탠바이를 해놔다가 피서철이 끝나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 피서가 시작되기 전에 완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공사가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보다 보니까요, 설계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설계업체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여기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완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설계업체가요? (예)

완도업체인데 파일공사로 의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는 약 1,8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 박인철 의원

뻔한, 모래 위의 지반이 아닙니까. 그런 모래 위면 사전에 지지력 확보나 이런 것도 설계할 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 심사할 때 그런 검토도 안 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거기를 당초 저희들이 할 때 기본적인 그런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 쫓았던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사전……. 납품을 받을 때 전부 심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설계 이렇게…… 설계 부실에 의한 증액사유가 나왔는데,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을 보며)

세무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 설계 부실로 인해 과다 증액되면 설계회사에 뭐 제재하는 것 없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좌석에서)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주관부서에서 설계 변경사유가 타당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하는데 협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자한테 뭐 제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공사……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비는 증액되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애당초 지지가…… 지지력이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설계하듯이 설계납품을 받았다는 이 말입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관광시설팀장 대답 한번 해보세요.

○ 관광시설팀장 김용석

(좌석에서) 관광시설팀장 김용석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전에 제가 시설팀장으로 오기 전에 발주된 사업이라서 자세히 알아보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 참 갑갑합니다.

모래밭에 건축을 올리면서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반 설계하듯이 그랬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 31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나와 있습니다.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담당인 세무회계과에서 해야 하는지, 여기에서 답은 안 내려고 합니다마는 하여튼 협의 후에 이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모래 유실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은 해양정책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해양정책과에서 액수가 많이 드는데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다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보기 위해서요.

과장님, 옛날에 이런 모래 유실 현상 한번 느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 **박인철 의원**

어떻게 그 모래가 복원되는지도 봤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여차피 철거해야 그것이 복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거에, 전에 모래 유실이 되니까…… 신리 내정리 선착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지에? (예)
이것을 철거한 이후에 명사장의 모래 변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복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복원됐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지점은 모래에 이상이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자금도 유실되고 있는 쪽이죠, 유실되고 있는 쪽은 어디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쪽 울모래 쪽인데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원인에 의해서……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양정책과에서 모래 유실이 있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그 액수가 꽤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또 어느 한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는…… 물론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따라서 하지만 방파제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쪽은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어느 쪽은 방파제를 송수구를 소통구도 없이 방파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모래가 다 유실되어 가지고 자갈이나 벌 같은 것이 다 나와 버립니다. 지금 실정이 이런 것입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오토캠핑장에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여기 처음에 했던 데는 하다가 중간에 나갔고, 또 몇 번 위수탁한 데가 바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입니까, 저기에서 하는 분들 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현재 2년 계약으로 했는데 1년 연장해서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 바뀌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 **박인철 의원**

지금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용객이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이 활발하…… 우리가 뭐 리조트나 콘도 같은 것이 활발하게 되니까…… 이런 오토캠핑장들이 활발하게 이용되어야 만이 명사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인데, 예산을 들여놓고 할 것인데…… 우리도 여름철에 한번 가서 보면 썰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일단 오토캠핑장 수요 감소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전체 관광객 감소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현재 수탁을 받은 회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앞으로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전반적인 홍보에……

○ **박인철 의원**

아니, 제가 봐서는…… 그때 우리 7대 때도 주민과의 대화할 때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또 보수하고 그렇게 했으나…… 거기에 우리가 식재된 그런 것도 다 봤죠, 과장님?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당시…… 처음에 할 때 나무 같은 것을 식재했는데 전혀 안 어울리죠. 그날막도 제대로 없고, 나무 식재해 놓은 그늘도 없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분이 2020년이면 계약이 만료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다시 재계약할 계획이 있다고 보니까, 내년인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어차피 이 위수탁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공고로 하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예, 그러니까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입찰할 경우에 가장 많은 금액을 (청취불능)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연간 위탁수수료가 5,200만 원입니까, 우리 군 수입으로? (예)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위수탁회사는 공과금만 내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명사장의 오토캠핑장에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직장,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한 것 있습니까. 단체로 와서 그런 것은 전혀 없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를 지금 보면 풋살경기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것은 얼마나 관광객들이 이용을 합니까? 보면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도……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이용하는 모습은 많이 못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없죠.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 행정예다가 오토캠핑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의서 같은 것을 올린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을 보충해 주라,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다시 꾸며주라는 이런 건의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아니면 세미나실을 하나 지어주라든가, 그런 적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듣기로는 직접 저한테 그런 건의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조사해서……

○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있습니까? 그런 건의서를 받은 적?

(방청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를 들며)

제 손에는 이런 건의서들이 있는데요, 이러이러한 식으로 오토캠핑장을 해주면 오토캠핑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요. 왜 제 손에는 있는데 여러분들 손에는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비가 처음에 12억 4,900만 원이 투입됐고, 이런 것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2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위수탁료를 올려야 되는데 뭐 관광객이 와야 위수탁료를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5.4%입니까, 5.6%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수탁, 위탁료는 둘째치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야 그 주변이 형성되고 그럴

것인데 전혀 돈은 투자해 놓고 못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과장님이 좀 짚어보시고요.

과장님, 관광이 무엇입니까? 관광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관광은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과 그리고 관광 상품 운영으로 해서 국내, 또 국외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 것은 수산업과 관광입니다. 양대 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너무 관광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은 접근성과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접근성은 뭐 차근차근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에 볼거리가 딱히…… 핵심적인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관광을 와가지고 핵심적으로 관광객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우리 군은 시설보다는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목원, 그다음에 청산도, 그리고 약간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보길도를 포함한……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수목원, 보길도, 청산 슬로시티, 소안과 생일 가고 싶은 섬, 여서도 뭐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완도읍에다가 관광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없으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관광지가 된 곳이 다 어떻습니까, 다 만든 곳입니다.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바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프라는 어느 시군이나 열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의 것 딱 한 가지를 보고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좀 돈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뭐 한 가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완도에 와야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그 관광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관광이…… 다른 것들이 활성화되고 또 수산물 소비 촉진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한번……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정도는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해주고.

지금 우리 군의 접근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고속도로라도 완도까지 확장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지금 강진 시티투어, 진도 시티투어, 전남 한 바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도도 개인이 SRT라고 해가지고 투어버스를 하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지금은 약간 미비합니다마는, 홍보 단계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관광객 유치도 있지만요, 주민들에게 서울이 3시간대 아닙니까, 꿈의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서울 1일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티투어를 하면서 주말만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에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요, 이번에도 장보고 저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40명을 모집하는데 10분도 안 돼서 다 찼다고 합니다. 우리도 SRT를 타고 서울에 한번 구경을 가자고, 그리고 뭐야, 노화나 청산 이런 데에서도 시간을 좀 연장해 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발하면 배 시간이 있어서 못 오니까,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요. 우리가 주중에도 관광객을 완도로 유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니까, 이분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온다고 하고, SRT를 타고요. 중국에서도 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군에서도 하고…… 민간인들이 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예산적 지원을 많이 하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관광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먹거리입니다, 지금.

지금 뭐야, 목포에 케이블카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다 휩쓸려져 버렸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꼭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6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입니다. 본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공모사업으로 당초 폐교된 노화 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노후화로 불가피하게 국토부와 협의 후 노후읍 북고리로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전복특구 지정 및 2012년 여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아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원이며 2020년까지 전복역사관과 전복 푸드체험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해상 전복체험장, 개매기 체험시설,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지역개발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과 군관리계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으로 11월 중 전라남도 실시계획 승인 후 절차이행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갈꽃섬 전복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시에 보면 9월에 시작하게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11월 그런 것 같은데, 불과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추진을 아까 보니까 '16년도에 했죠? (예)

공모사업으로 해서 '18년도에 이월액을 변경했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21억 사업이 완공도 아닌, 준공도 아닌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역변경 때문에 1년이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 승낙을 받기 위해 좀 지체된 측면이 있고,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그런 기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체된 것은 인정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확포장도 계속 해오고 있고요, 도로 진입로가 제가 알기로도 좀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전건설과에서 축양장 아래쪽을 제외한 데카지는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양장 아래 280M 정도 그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도로가 현재까지도 다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상 내년 말까지 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축양장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도로에 높여서 (칭취불능)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까지의 도로 완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년부터는 공사에 착수해서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최대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관광과에서 보면 관광여행에 대해서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설 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추진이 조기에 빨리 추진되어서 완공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관광정책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현황입니다. 노화읍 주요 관광자원은 전복의 주산지로서 전복 축제, 전복 체험과 개매기 체험 그리고 노룩도와 연결되는 신비의 바닷길,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보길은 역사인물인 윤선도의 고장으로 윤선도 원림과 자연생태자원인 예송리, 중리, 통리 해수욕장, 그리고 예작도 감탕나무, 황칠나무, 상록수림 등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소안은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항일운동기념탑과 공원, 진산리, 미라리 해수욕장, 상록수림, 당시도 등대, 소안 8경 등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광객 추이입니다. 노화, 보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13만 6,000여명이 방문하고 있고, 소안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2016년 13만 8,000여명에서 2017년 15만까지 증가하였으나 2018년 도에는 기상악화로 11만 2,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권역별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화읍에는 고막리 일원에 아까 말씀드린 갈꽃섬 오감여행학교 조성사업을 2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길면은 지역 개발부서에서 보길권역 거점개발사업으로 100억원의 예산으로 예송리와 예작도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정책과 어촌 체험마을 활성화사업으로 젓갈 담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안면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40억 원, 이목 해양생태공원 조성으로 35억 원 등 사업을 추진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안, 보길에서 숙박과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섬 명품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서 소안, 노화, 보길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도록 유인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화, 보길, 소안권역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지도, 신지 명사장도 방문자 수가 줄어들고, 뭐 이쪽, 저쪽 다 줄어들고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런 추세입니다.

○ 이범성 의원

청산도 관광객 방문 수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취불능) 32만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는,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28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쪽도 줄어든고 저쪽도 줄어든고, 줄어드는 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관광객 수가 늘어나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쪽도 줄고 저쪽도 줄고 그러는데요, 그 줄어든고 감소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청산도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산도는……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감소 추세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여객선으로 이동해야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상 변화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계속 부족한 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관광상품 변화 같은 것도 계속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객선을 타는 것이 세월호 이후에 엄청 불편해졌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상당히 불편해졌습니다.

○ 이범성 의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3번 내고, 4번 내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대요, 얼굴 뭐…… 표를 끊고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요즘 세상에 배를 몇 명이 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당신이 주민등록증을 내도 당신 주민등록증이 얼굴하고 제대로 맞니, 안 맞니 그러면서 관광객들과 엄청 싸우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려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 대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 난지가…… 어느 순간에 다 흘러가고 있는데요, 연근해, 가까운 섬까지 가는데도 그 법에 다 적용시켜 가지고요, 이 사람도 주민등록증을 보자, 저 사람도……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제가……

과장님, SRT 타봤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타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약하면 누가 뭐 검색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아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도 그러셨겠지만 저희들이 타도요, 여기에서 예약만 끝나면 서울까지 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가 있으면…… 요즘 규제개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노력은 해봤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말씀하신대로 세월호 이후에 여객선 승선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고,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

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것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해 본 적 있으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찾아도 뵙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발을 맞춰 가지고요, 우리 군을 찾는 여행객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서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 관광자원 현황을 보면 노화, 보길, 소안권역이 아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은 관광, 어떤 경관자원으로서 보길, 소안…… 상당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활용을 잘하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뭐 관광객이 전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해서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노력한다고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노력을 정확하게 해줘야 관광객들이……

지금 이 권역을 방문한 관광객 추이를 보면 노화, 보길은 줄어들거나 답보 상태고, 소안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2018년도에는 줄어들었어요, 좀 늘어나다가,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소안도는 가고 싶은 섬 선정 이후에 한 2년 정도는 관광객이 약간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광객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미라펜션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숙박시설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전국에 모든 지자체들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온갖 힘을 다…… 경쟁하면서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죠, 그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우리 자체도, 우리도 어느 정도 다 하지는 못해도 어느 근처까지는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 노화…… 아니, 보길 같은 부분들은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완도에 80%라는 그런 막대한 관광객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관광이 보길 같은 경우는 청산도 이전에는 상당히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서 그렇게 인정됐었습니다마는 여기 완도로 오신 관광객 분들이 상당히 분산되어서요, 보길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청산도 슬로시티가 시작된 후부터는 보길, 노화, 소안 권역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나름대로 소안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보길도 예약도 예송 이런 구간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관광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노화, 소안, 보길과 관련된 관광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권역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SNS 홍보 동영상을 만들 때도 완도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권역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최근에 유튜브 자료로 한번 소안으로 이렇게…… 이런 자료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차별화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군적으로 홍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안 농협에서 TV 광고하고 그랬던 것 알고 계세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농협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갖는다는가, 전혀 그런 부분들은 안 해보셨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안 농협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관광홍보를 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인가,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소안 농협에서…… 일단 방송에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방송에서 계속 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깊이 있게 보셔 가지고요. 화홍포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소안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자기들 수익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겠지만 그것을 군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관광객 수가 뭐 배로 늘어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보고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내놓았으나 노화, 소안, 보길 권역은 자연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자연경관

이랄까,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꼭 완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뭐 슬로시티는…… 가을빛 여행축제나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충분히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요. 저쪽 노화, 소안, 보길 권역은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아우트라인을 잡든지, 그것이 홍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별로 특별하게 없잖아요. 홍보가 따라야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들을 보고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지난 업무실적 보고 때 말씀하신 해상 힐링 유람선투어 상품 개발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착수해서 내부적으로 중간보고회를 가졌는데요, 확실히 결정은…… 유동적이어서 가지고 결정을 그 당시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종보고회를 저희들이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유람선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완도에서 신지 이런 부분을 유람선으로 띄우자고 하기 때문이에요. 상당히 유람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용역을…… 용역에서 나오는 그 결과랄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도 뭔가 고심해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의 견해는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상 힐링 유람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유람선을 띄울 만한 관광지를…… 청산도라든가, 보길도라든가, 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여객선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경영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완도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고흥에서는 금당 쪽으로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군들은 실행에 옮기고 있고,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요. 어떻게 봤을 때는 뭐 날씨 탓이랄까. 뭐 바람이 불면 운영을 못하니, 어찌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든지 의원들하고 자리를 좀…… 간담회를 갖든지, 또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머리도 맞대 가지고요. 타 군들한테 그런 좋은 경관을 우리가 다 뺏기고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조만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소안, 보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객선에만 의존하지 말고 같이 어떤 곳을 잡아 가지고요. 같이 돌아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경관이 좋은 데가 엄청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업무실적 보고 시에 이목 해양생태공원이 가면 썰렁하다. 행사 중에 의원들이 가면 도대체 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무엇을 해냈는지.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솔직히 가서 안 되면,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분수대라도 하나해서요. 그 넓은 광활하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들……

대구 수성구에 갔을 때 다른 것 없고 그것 하나만 달랑 있어도……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응

집해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즐기고 하는데요. 우리는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데 너무 행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어요. 아니면 체험장이랄까, 아니면 뭐가 죽방염이랄까, 아니면 미역 가두리랄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요. 그런 부분 전혀…… 뭐 계획된 부분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방금 말씀하신 이목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해조류에 대해 풀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안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연 김 채묘가 될지, 아니면 미역 채묘가 될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에서 채묘한 것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조그맣게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볼까. 좀 전문부서와 연구해서 여기에서 과연 미역이 자랄 수 있을지, 김이 자랄 수 있을지 한번 그렇게……

○ 이범성 의원

연구해 보세요. 거기 물이 죽어있는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요즘 폐각사업도 나오고 그러니까 폐각도 붙여 가지고 한번 그쪽에 시기적으로…… 빠른 시기에 하다 보면 수온 때문에 뭐 김이 활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좀 늦게…… 그런 부분들을 보여줌으로써 “아, 저것이 진짜 완도의 김이구나.”, 또 “저것이 완도의 미역이구나. 저것이 다시마구나.”, “전복 가두리는 멀리 떠있는 것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전복을 키우는구나.” 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홍보가 아니겠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가지고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꼭 배를 이용하면 위험성도 따르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더 연계해서 양쪽으로…… 거기 조망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좀 더

연계해 나가서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다든가. 해조류박람회 때 밖에 전부 다 시설해 가지고 가서 다 보고, 뭐 스위치만 누르면 가두리가 올라오게끔 했던 그런 일들을 다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볼거리를 제공하지는 그 취지입니다. 본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냥 안 된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요. 뭔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꼭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 많은 것을 주문한 것 같은데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1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군 고유음식 개발현황입니다. 음식의 개발은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완도 전복의 저가형 음식레시피 개발을 위한 관광형 전복음식 개발사업 컨설팅용역을 시행하여 관내음식점 5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가형 전복메뉴 4종류를 보급하였으며 해조류요리 강습회 및 요리 경연대회, 해조류박람회시 해조류 전시요리 등 122개의 품목의 해조류 음식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복해조류비빔밥, 전복소스 활용실태입니다. 먼저 전복해조류비빔밥 활용사항입니다. 전복해조류비빔밥은 전복요리 취급음식점 76개소 중 완도읍, 청산면, 보길면 소재 21개 음식점에서 메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복해조류비빔밥은 2013년 11월 완도군 대표음식으로 선정하고 관내와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식회를 실시하여 레시피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2014년 상표 등록과 판매가격을 확정하여 음식점 및 일반인 대상으로 레시피 교육을 통한 활용 보급이 실시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복소스 활용사항입니다. 전복소스는 각 읍면 76개소의 전복요리 취급업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복소스는 2017년 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에서 연령대별 선호도를 찾아 소스 4종을 개발하고 관내 음식점 영업주 대상 실습교육을 통하여 보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복소스 레시피 보급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과 음식점, 전복 관련 영업자와 관련 단체에 배부 활용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전복소스 사용 음식점을 모니터링하여 우수업소에 찬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토요상징콘서트를 통하여 전복소스를 곁들인 전복음식시식회로 4,500명이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장보고수산물축제 시 전복찜과 전복탕수육을 이용한 전복소스 시식회를 운영하여 군민과 축제방문객에 전복소스 레시피를 보급하고, 완도 전복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하였습니다.

12쪽, 활용 및 관리실태입니다. 해조류 활용 음식 발굴을 위하여 2013년 해조류개발음식 공모전과 전국 해조류음식 개발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일반음식점 해조류반찬 사용 운동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조류음식 홍보물 제작 활용은 발굴 음식 중 100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해조류건강밥상 책자를 제작하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자치단체와 초중고 급식단체, 관내 음식점 등에 배부하여 해조류 소비 촉진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를 이용한 해조류 소비홍보를 위해 해조류건강밥상 책자를 개편해서 제작하였고 광주, 전남 학교급식소와 전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발송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해조류음식 모형제작과 전시활용은 지금까지 해조류건강밥상 책자에서 어린이 기호음식 등 네 가지 테마로 40종을 선정해서 2017년 발굴한

생일도 건강밥상 1세트 11종의 향토음식을 실사 모형으로 제작하여 각종 지역축제 그리고 심포지엄, 국외의 투자유치 설명회장에서 전시 활용하였습니다.

13쪽, 확대개발 및 브랜드 등 홍보계획입니다. 해조류 소비 촉진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영어와 중국어판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현재 발주 중에 있고, 2020년에는 새로운 해조류음식의 레시피 발굴과 신규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연말까지 해조류 사용 우수업소와 전복소스 확산 우수업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음식찬기와 위생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업소 메뉴 중 읍면별 대표 단품요리를 발굴하는 자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찾아가는 완도맛집 발굴지원도 준비하여 민고 찾는 우수업소가 발굴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되었던 음식점의 친절수준 향상과 위생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교육과 인센티브 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완도산 우수 식재료들이 각 업소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고유음식 개발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의 관심사 중에 완도 음식문화 개선이 필요하여 지난 7월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 시 보충 질의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음식을 2013년도부터 꾸준히 개발해 왔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벌써 2013년이면 6년 동안 개발해 온 것이죠.

그동안 개발한 음식 수가 수도 없이 많던데요,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나 어떤 개발에 대해서 성공한 보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약 120여종을 발굴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중화된 음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개발은 많이 했지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상표 등록까지 했었나요, 그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전복해조류비빔밥은 등록했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수차례 시식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장성이 없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동안 해오면서 무슨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2014년 해조류박람회를 점유해 가지고 대표음식으로 전복해조류비빔밥을 개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그것을 한번 드셔보시고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당에서, 전 식당에서 이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분산되어서 찾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동안 실패해 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될지 대강 어느 정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보면 상당히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음식을 개발했습니다마는 실패한 원인이요, 물론 전복…… 해조류음식의 그런 거친 식감 같은 것을 이유로도 듭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한 식당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음식을 사용해서 도전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 최정욱 의원

개발해서 식당에 보급은 했지만 사실 자기를 나름대로의 대표음식이 있어서요. 아마 그런 것이 밀려있을 거예요. 아마 후순위로 어떤 것을 개발해서 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래도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까지 개발 노력을 사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방법 면에서 변화를 준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최정욱 의원

결국 계속 개발할 필요성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군 대표음식으로 전복과 회, 이것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 외에 필요한 대표음식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음식이라고 하면 해조류를 통한 밥상. 즉, 말하자면 해조류가 완도의 대표음식이라면 전복과 회도 들어가고 해조류도 들어가는 그런 밥상을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이 무조건 발굴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내가 봤을 때 엇그제 시식도 했지 않습니까. 시식했을 때 가서 봤지만 그 시식에서…… 뭐 때문에 시식을 하고, 뭐 때문에 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목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즉, 말해서 전복회 이런 것은 대부분 식당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발했으면 가격대가…… 왜 가격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정도를 이 가격으로 만들면 되겠다는 이

런 것 전혀 없이 그냥 해놓고요. 얼마냐고 하나까 한 2만 5,000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저것을 개발할까, 거기에서 앉아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 그런 말까지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뭔가 그런 것 아닌가요, 개발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밥상이나 아니면 단체관광객들이 왔을 때 해조류를 통한 완도만의 고유음식을 맛보고 싶어 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어서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닌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중화해서 완도군의 대표음식으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완도에 가면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음식문화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식문화를 개발하는데 지도소에서 우리가 딱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그런 밥상을 이렇게 해서 개발해 보라고 이렇게 뭔가 목적을 정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인데. 그냥 음식만 개발하면 예전부터, 2013년도부터 해왔던 전략으로 똑같이 갈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날 가서 보니까 해조류로 해서 개발해 놓은 것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그런 것을 뭔가 우리가 목적을 정해주면 밥상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생일도에 가서 먹어봤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비슷한 완도의 독특한 밥상이라든가. 뭔가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을 어떻게 상품성 있게 개발해야 되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내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하나 개발해서 한번…… `13년도에서 계속 해온 것이잖아요. 그것을 반복해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요, 본의원이 제안한다면 차라리 밥상, 완도만의 밥상. 즉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강진 같으면 한식식당 같이 대표음식을 만드시지, 우리 해조류를 통한 완도의 밥상, 그렇게 해서 어떤 개발을 해서요, 쪽 10가지면 10가지, 15가지. 그것을 놓고 시식을 하고 가격대를 평가하고 이 가짓수마다 어떻게 이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날 가서 보니까 먹는 것만 시식을 하는 거예요. 먹어서 그것이 좋으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뚜렷한 정보도 없고 뚝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지도소에 주려고 하면 목적을 정해서 그런 밥상……

또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것이에요. 뭔가 1만 원짜리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관광객들이 1만 원짜리 밥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아보면 백반밖에 없어요, 두부찌개나. 완도의 해조류를 먹고 싶어 하는데 뭔가 독특한 음식을, 그런 것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은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동의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 생각에는 두 가지를 그렇게 정해서요, 그 밥상과 저렴한 가격 한 가지로 목표를 딱 정해주면서 이렇게 개발해 줘야 된다고 해야 거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식할 때 거기에 2만 5,000원짜리 전복물회 같은 것은 너무 가격이 세서 대중화하기 힘들고, 거기 해조류솔밥 그 정도를 맛만 있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 상품화는 어느 정도 개발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밥상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노력들을 했더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만 좀 보완해 가지고 어떤 밥상을…… 무엇, 무엇을

가지고 김, 미역, 멸치, 다시마, 해조류 등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식당들한테 그렇게 해서 개발한 것을 주면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자기들 식당들마다 노하우가 다 있어요, 식당들마다 회만 하는 것 같아도 회도 자기들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고, 다 자기들 개발대로, 자기들 자존심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어 줘서 그것을 앞세워서 판매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것은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해서 나감과 동시에 빛도 못보고 사라져 버려요, 이 음식이.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이 완벽하게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정해 줘서, 맛집으로 지정해 줘서 우리가 개발한 음식만 취급하게끔 그렇게 식당을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도와주고 또 홍보도 해주고, 그래서 성공된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식당들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찾기 때문에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음식이 성공하면, 그럴 것 아니에요, 식당에 가서 그 음식이 있냐고 찾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보급하는 것이 낫지. 개발해서 식당을 주면 식당에서 절대 안 합니다. 자기들 자존심 때문에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그때 음식시식회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음식을…… 완도 고유음식을 발굴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조류가 너무싼 가격에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수급을 올리고, 또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음식이…… 요리하시는 분들도 광주에서, 화순에서 오셨고, 완도에는 명인이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

고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음식이 꼭 명인이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정욱 의원님이 세세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전복물회를 나보고 말 하라고 해서 얼마냐고 하니깐 1인분에 2만 5,000원이다. 그러면 그 전복물회 하나 먹으려 누가 1인분에 2만 5,000원씩 10만 원짜리 밥상을 먹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꼭 관광객을 겨냥한다기보다는 우리도 가서 “야, 그 밥을 먹으러 가자.” 라고 이렇게 할 정도의 그런 음식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보니까 해조류로 시래기, 다시마, 미역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많이 생산된 우리 해조류로 밥상 음식을 좀 만들고요. 또 김치와 생선구이만 있으면요, 김치가 맛있고 생선구이만 곁들이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강진에서 크게 한옥으로 지어 가지고 한정식을 판매하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기와집.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기와집을 봤죠, 한옥 기와집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음식을…… 몇 가지로 꼭 정해줄 필요는 없고 해조류 레시피를 만들어 주면서요, 새로운 음식점 하나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음식을 해봐라, 우리 군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음식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해조류밥 그것을 먹어 보니까 그때 밥이 질어서 그렇지, 괜찮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게 부셔 가지고 고명식으로 올려야지, 그렇게 많이 넣어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안 좋아하고 또 아이들은 안 먹게 되고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요, 그렇게 계속 연마다 얼마, 얼마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챗바퀴를 돌듯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보니까 튀김도 있고 뭐 그런 것이 좋은지도 압니다. 그런데 언제 식당에서 튀김을 모양을 내서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고생은 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가지고요, 집은 못 지어줄망정 식당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얼마 지원하겠고 한다든지 해가지고요, 그 사람 집은 그것만 할 수 있게끔, 꼭 그 레시피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소스도, 그때 두 가지 소스가 나왔는데 “이 소스로 하시오.” 라고 하면 절대 그 식당에서 안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가지고 정말 음식을…… “완도에 가면 우리 그것을 꼭 먹고 오자. 그것을 먹으면 비싸지도 않고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가공공장 건립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자는 그동안 고품 등으로 홍수 출하되어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으로 유자가공 공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균특 회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완도농협에서 20억 원의 사업비로는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의 한계와 계절성 공장 가동에 따른 인력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지난 8월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근 유자가격 동향 및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2017년 한파와 동해로 유자 생산량이 감소하여 작년과 올해에 유자 가격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유차청과 유자차는 시장에 유사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상품 개발 아이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지난해 유기농 유자는 우리 군에서 135톤 등 전국적으로 86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유자의 재배면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먹거리의 안전성이 강조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게 유자 농축액 등의 반소재 형태로 가공하여 커피체 인점 등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금면을 중심으로 유기농 유자 재배 농가작목반을 구성하고 착즙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후,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70억 원 규모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여 유자를 타 품목과 연계하여 소득 작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면에서 유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참 많가지고 다른 읍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예)

그리고 유자로 축제할 정도로 대표적인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농협에서 이것을 전부 사고요, 나머지는 일반상인들이 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부 외부상인들이 썬 가격에 유자를 사는 실정입니다. 농협에서 다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농협으로 꼭 내는 사람들은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일반상인들이 사고 있거든요.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포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유통가공..... 그 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식품부에서 70억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가공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유자 재배면적을 좀 확대해서

고흥지역하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친환경유자는 가격을 따로..... 일반유자하고 따로 판매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유자가격이 보통 일반유자 가격보다 약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kg에요? (예)

가격에 차등을 줬구면요.

군수님의 공약에도 자연그대로 농축산 그 정착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가격에 차등을 뒀가지고요.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고금 유자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아십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약 200여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5농가에서 324헥타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히 4개 마을에 유자가 많이 심어져 있고 다른 마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다 아시고 우리도 다 압니다마는 배나 감귤, 사과, 뭐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은 자체 폐기도 할 수 있고, 가격이 떨어지면요. 그런 것도 하는데 유자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자꾸 바뀌져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농산물 폐기 지원은 일단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일정규모 면적이 되어 가지고요, 일단 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유자 같은 경우는 현재 농식품부에 고시 품목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일단 폐기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단지…… 뭐야, 헥타르가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것만 그럼 되면 되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일단 면적도 일정 이상 되어야 되고, 그것이 아마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서요, 해남 월동배 추라든지, 무안 양파 같이 이렇게 농식품부에서 고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고금 실정이 일반 상인들이 와가지고 유자를 삽니다, 사고요. 그래도 꼭 농협에다가 내겠다고 하시는 분만 농협에다가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은 많이 없고 일반상인들이 사는데요. 내가 아는 분인데 공무원으로 퇴직하는 분이 작년에 유자밭을 팔았는데,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웃으면서 내년에는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팔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 또 팔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어요. 거기에 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인한테 파는 가격이…… 그러니까 좀 빨리 팔아가지고요. 유자가 가을이 되면 노랗게 많이 나오는데 상인들은 그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유자나무가 몇 년생이면 몇 톤 정도 나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하는 것도…… 500만 원이 다 1가구당, 뭐 전체는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랬을 때 그분이 얼마나 유자밭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손해를 받고 팔았다는 것을, 남들보다 손해를 받고 팔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고요.

또 농협에다가 알아보니깐 농협에서 파지를 삽니다, 유자파지. 아주 나쁜 것. 그것을 사가지고 즙을 짜는데요, 즙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은 판매하고 나머지는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버린다고 하고, 또 유자 작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파지를 사가지고 땅에다가 묻는다고 합니다. 유자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협, 그 수산업 쪽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합니까. 1년이면 진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유자가가 이렇게 한 305가구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 과연 얼마나…… 무슨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과장님?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일단 유자는 아시다시피 고금, 군외, 금일 이쪽에 많이 심어져 있고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배면적이 너무 많다. 일단 일부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 유자나무를 그러면 자르라는 말입니까, 다 심어서 수확도 못한 유자나무를?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유자나무를, 이미 심어진 유자나무를…… 그것이 가공시설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가공시설이 없어서 지금 수확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자르라는 것은 말이 안 맞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일단 유자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일단 의원님의 말씀대로 가공공장을 저희가 사업비를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래서 그 70억짜리 공모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자가 지금 현재 전부 파서…… 농협직원한테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유자를 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고흥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격이 좋을 때는 가져가고 가격이 나쁠 때는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우리가 유자를 사가지고 고흥으로 판매할 때 그 직원들의 가슴은 어찌겠습니까. 내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70억짜리 정도를 하면 수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된다고. 그런데 유자차, 슬라이스 아니면 즙 이렇게 세 가지로 공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수출도 할 수 있다. 이전에 왜 수출이 끊겼냐고 물어봤더니 라인이 짧아서 비배품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수산업 쪽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서 유자를 심으신 분들이

다 나이를 드셔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그것을 가꿀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요, 꼭 공모사업에 확정되도록 노력하셔서 유자가 안정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완도 유자가 고품 유자로 둔갑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농업축산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 3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형 6차 산업화 흑염소 육성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흑염소의 6차 산업화 사업 추진은 흑염소의 사육에서부터 육가공 제품의 생산판매 및 체험 등 6차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강진완도 축협과 약산흑염소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추진 성과로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소비자 트렌드 조사용역을 실시하였고, 온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흑염소 액기스, 곰탕, 떡갈비의 시제품 및 파우치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축협 하나로마트 내에 흑염소 고기 전문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후흑염소농장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을빛여행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약산 흑염소를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약산흑염소 가공제품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오는 11월부터는 농협 전남본부를 통해 흑염소 판촉 프로모션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흑염소하면 약산면에서 특산품을 기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 전체 사육농가라든가 사육두수에 대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약산면에?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우리 군 전체 사육농가는 한 280농가에 1만 1,200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약산면에서 한 91농가에 7,500두로 해가지고 사육두수 기준은 한 6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68%면, 완도군 전체로 본다면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6차 산업이라고 그러면 생산에서 제조, 판매, 체험, 관광 등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산업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답변서에 보니까 6차 산업 네트워크 공동마크 및 판매 촉진, 이런 부분은 주로 누구와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지, 구성을 하고 있는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 유통까지 포함, 융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약산 사육농가하고요, 사육농가에도 저희가 지원해 가지고 가공공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조해서 축협이라든지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까 3억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그것 말고 답변서에 있습니까라는…… 잠깐만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신제품 개발이라고 한 것 여기 3억에 투자……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신제품 개발은 3억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기존 흑염소 액기스나 곰탕을 소비해서…… 추진과정에 보면 떡갈비 3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음식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 원인이 뭐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제품 제조 허가는 되어 있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면 특허청에다가 제품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제품 판매코드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현재 신청 중에 있고 10월 중에……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식품 제조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요, 여기에 보니까 시식회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농가 소득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방금 11월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뭘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흑염소를 키워 가지고 적자를 보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흑염소 가격이 최근에 떨어져 가지고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완도군의 여러 가지 해조류라든가, 이런 부분

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방금 우성자 의원님의 얘기처럼 유자, 흑염소 다 마찬가지로예요, 지원사업으로 굉장히 하고 있는데 소득이 안 오르면 농가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질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완도축협하고, 강진완도축협하고 마트에 매장은 설치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8월 12일에 판매를 개시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300kg을 판매했고요, 금액으로는 약 5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강원도 지역이에요, 양 사육농가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사료주기, 먹이체험, 이런 것을 하면서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체험장이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별도로 체험장은 없고요, 앞으로 약산 삼문산 쪽에 경관이 좋은 사육장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보면 체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광 상품화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상품 후에 먹거리도 제공하고 이렇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동의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약산면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흑염소,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잘 추진되어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10월 17
 일 국립난대수목원 후보지인 전라남도 완도수목
 원 현지평가 시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
 리 지역에 위치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이 후보지
 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격려 차 방문해 주신 조인
 호 의장님과 허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
 의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
 산림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환경오염 배출사
 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 외 1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
 경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
 업장 현황은 폐수·대기 배출사업장 외 5개 분
 야 총 5,072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121개
 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
 여 과태료 6건에 448만 원, 사법조치 6건, 개선
 명령 1건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
 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쪽,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대책입
 니다. 관내 김 가공시설은 기타 수질오염원 16개
 소, 폐수 배출시설 2개소입니다. 2017년까지는
 김 가공시설을 해조류 단순 세척시설로 분류하여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관리하였으나, 2018년부터
 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폐수 배출시설로 관리하
 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폐수 배출시설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설치

장소 확보, 설치비용 부담, 입지 제한 저촉 등
 김 가공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타 수질오염원시설이 김 가공시설 가동 시 수
 시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상 문제점 및 대
 책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대
 부분 소규모 영세사업장 또는 계절사업장으로 관
 련 법 미숙지에 따른 사업장 교육 미이수 등 관
 리기준 위반 시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장에
 서는 환경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물 관리에 한계
 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지도 및 법정교육 이수를 안내토록 하
 겠으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기준에 관한사
 향을 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환경오염예방에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
 오염 배출사업장 현황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
 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
 다.

과장님, 환경지도팀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4명입니다.

○ 김양훈 의원

4명이요? (예)

관리대상이 5,702군데인데 지도단속을 그 팀
 원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읍면에
 서 직접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현재는 환경지도팀 4명만 지도단속 중입니다.

○ 김양훈 의원

아, 4명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시 후 사법처리와 행정처분까지 했는데요. 그 지도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5,000개소에 대해서 1년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반분기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오염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 규정에 의거해서 업종 및 규모별 연 1회 내지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가뭄, 장마철, 명절, 연휴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에는 특별점검과 민원 다발지역은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수시 점검하고, 또 분기별로 하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만 하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전에 계도도 하고요, 단속하기 전에 계도도 하고 책자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매월 지도 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주민들이나 어가나 농가들에서는 환경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반도 하고, 환경을 모르다 보니까 위반을 많이 해서 조치도 취해야 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나가서 교육을 많이 잘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해야 점검할 때 지도단속에 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앞으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각 마을 출장이나 읍면 순회 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책자만 달랑 주면 안 됩니다. 가서 직접 책자를 가지고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이 아까 4명을 가지고 전부 지도 점검을 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 인력을 가지고는 업무가 과중한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12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려면 4명을 가지고는…… 아마 충원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5,702개소 신고사업장 외에도 복잡하고 불특정한 환경오염 피해 진정 등의 민원, 상대성 민원 등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희수를 보며)

이대로 자치행정과장님이 참고해 주십시오.

4명을 가지고 12개 읍면을 전부 지도점검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나중에 조직 개편할 때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좌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2015년에 우리 군에서 청정바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도에서 자라나고 있는 해조류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항상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청정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재산이고 또 돌려줘야 할, 후손들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입니다. 현재 처해 있는 환경문제는 좀 심각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는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문제를 고민해 주시고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음 3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탄소배출량 감축 및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1대 보급 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는 휘발유차의 10%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보급실적으로 2019년 올해는 전기자동차 23대, 전기이륜차 31대를 보급하였고 충전기는 22대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총 보급량은 전기자동차 49대, 전기이륜차 33대, 충전기 40대를 보급,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매년 수요량을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 승인 시 100%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되며, 설치 가격은 급속 5,000만 원, 완속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월에 2020년도 보급사업 추진과 함께 3월 중 급속충전기 수요를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서지역 급속충전기의 경우 환경부에 수차례 설치에 따른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도서지역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지 및 관공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이 가야 할 방향이고 또 급속도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뿐만 아니고 나라 자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또 연료비 절감효과도 있고 그래서 전기차가 안전하게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전기자동차는 친환경적이고 매우 경제적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완전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충전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완전충전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본의원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술이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게 되면 우리 군도 미리 준비해서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 보급현황을 보면요, 2대당 충전소 1개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올해는 전 읍면에 충전기를 충전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은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량이 극히 적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향후 전기자동차 문제점을 대비해서 주요 관광지,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도서지역은 충전소가 안 된다고 했죠, 배제가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전기차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 도서나 육지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도서지역만 배제가 되는지, 항상 도서지역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부에서는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을 매년 1,000개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수요는 매년 4,000개 이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구 밀도가 높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도서지역에도 급속충전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꼭 그렇게 되도록 소의를 받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이 그만큼 노력해야 만이 완도군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청정바다수도라고 해놓고 환경적으로 나쁘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기차가 군에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서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서두에 인사말씀을 하셨듯이 의원들도 전부 다 참석해서 심사한 날의 내용을 잠깐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난대식물원 추진실적아.....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규모를 보니까 400헥타르에서 1,800억, 국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18년 7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7일 13시 30분에 심사관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상황하고 결과, 이런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본사업은 산림청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3월 산림청 추진계획에 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군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완도수목원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8월 5일에 현장평가를 오기로 했었는데 7월 17일로 연기되었고요. 그중에 우리가 유치 서명운동을 추진해 가지고요. 완도의 인구수는 5만 2,000이지만 저희가 순천박람회 등 관외 주요 관광지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약 8만 3,000명이 서명에 동참하셨고요. 전라남도에서도 3만 명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평가위원들한테 총 11만 3,000명의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에 평가위원 아홉 분이 수목원을 방문해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오신 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곳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10월 17일 완도군을 시작으로 해서 10월 18일에 거제시를 그분들이 방문했습니다. 결과는, 최종결과는 오늘 담당사무관이 개봉해서 평가표 집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종결과는, 아직 날씨는 미정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완도수목원이 국립 난대수목원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리고 보면, 열악한 인원 속에서도 보니까 군외 쪽에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이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은재 팀장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
습니다.

먼저 1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
하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원동항은 1975년 8월에 지방어항으로 지정되
어 기본계획은 2008년 12월에 수립되었으나 현
재까지 미개발어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본계획
상 물양장과 유어선부두, 선착장, 호안 등 총 70
억 4,200만 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진행사항입니다. 2019년 지방어
항 보수보강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확장과 진입로 정비, 계선주 설치, 호안정비, 물
양장 확장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양장 승상과 계선주 시설 등을 목적으로 지
방어항 보수보강사업비 3억 원을 전라남도에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외 원동항이 완도군 관
문으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해서 기본계
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
리청인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
신 군외 원동항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완도군 관내에 지방어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전라남도 지방관리어항은 총 19개 어항으
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열아홉 군데입니까? (예)
지금 열아홉 개의 어항 중에 진행이 미개
발..... 몇 개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군외 원동항을 포함해서 완도 망석리 그
리고 고금 가교, 청산 신흥, 소안 진산, 금일 충
도 이렇게 총 6개항이 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6개 항이죠.
그러면 이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우선순위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기
때문에 가장 큰 결정권은 전라남도에 있지만 그
래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우선적인 부분은, 시장군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현재까지 저희들은 어선세력이라든지, 또 양식
규모 또 태풍 예습 시 대피할 수 있는 어항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
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정확하게 적용하려고 합니다마는 좀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의원이 물어보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군 외 원동항은 관문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어선들이 수시로 접안을 해요.

그런데 이까도 얘기했듯이 1975년도에 되어 가지고 1985년…… 2008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지금 현재 보면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내년에 3억을 투자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장님께서 계속 우리 군 원동항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해 주셔서요. 전라남도에서 우선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보수보강사업비로 확보해서요. 주민들이 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보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관문이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원동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느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것이 지금 선착장으로 활용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저것이 부잔교인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부잔교.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기울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다음 사진을 올려주세요.

저것은 부잔교가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서 저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선착장…… 고마도 배가 다니는 선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생각했을 때 부잔교라는 것은 선박이 입출항을 할 때 그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 벌에 잠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저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고.

다시 사진 한 장 더 올려주십시오.

도교를 보더라도, 도교에 녹이 엄청 슬어있죠? (예)

저런 부분에서 보면 고마도 도선이 하루에 서너 차례 운행을 합니다. 저렇게 봤을 때 위험을 당했을 때, 무슨 불의의 사고라도 났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이런 것을 보고 감안해서 모든 원동항이 개발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 부분은 끝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서, 안전성을 고려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예, 지역개발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다음 3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건에 474여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

면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2건에 120억 원이, 2018년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소규모재생사업, 어촌 뉴딜사업 등 총 6건에 226억 원의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존 중앙부처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총 9건에 128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별 근무인력 현황과 추진 절차입니다. 현재 우리 과는 도서개발팀을 제외하고는 3개 팀 모두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팀은 6급 1명과 7급 1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관관리팀은 6급 1명과 8급 1명이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 각종 경관 개선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항개발팀의 경우 6급 1명과 7급 1명이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 300사업과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절차는 예비계획 수립과 공모 신청에 이어 서면, 현장평가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과 내년 준비 중인 공모사업 규모는 총 9건에 1,629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모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7개 지역에 691억 원의 사업비로 공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전라남도 1, 2차 평가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서면평가가 이루어졌고,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 현장평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은 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공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새뜰마을사업,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관관리팀에서는 공공디자인 개선과 간판 개선,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항개발팀에서는 2021년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

발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던 공모사업이 474억이고 앞으로 할 것이 한 1,600억 정도 되죠? (예)

본의원이 우리 군의 공모사업을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40% 이상이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 고맙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을 주로 군에서 하는데, 위수탁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보면 토목 일은 월등히 잘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건축공사 부분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번에 업무보고 실적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농어촌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매월 1회 정기적인 보고를 받고 있고요,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무래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해양수산부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현재 인력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다 감독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공모사업을 하기에……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해야 만이 사업을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인력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금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편입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한번 쪽 훑어봤더니 거의 공모사업을 담당…… 직원 1명이 하고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촌 뉴딜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다 목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면 국비도 거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세인데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촌 뉴딜 공모사업 관련하여 한희석 과장님이 늦은 밤까지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도 의회에 늦게 있다가면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서 한번 과장님을 보고 왔는데요.

엇저저게 뉴딜 공모사업 교육을 했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컨설팅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연치 않게 컨설팅을 하신 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국 여러 군데를 돌아봤는데 한희석 과장 같이 사업에 열정과 대단한 절박감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응하

고 있는 공무원이 전국에서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복지행정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군 공모사업의 40% 정도가 지역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조직개편 시에, 여기는 지원부서가 아니고 사업부서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채용해 줬으면 하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부군수님과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니, 앉아서 이야기하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좌석에서) 금년에 시설직들을 과락으로 인해서 많이 뽑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자체적으로 15명 정도를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시설직이 아니더라도 행정직이라도요. 7급 고참들이 하면 서류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행정직들이. 시설직이 안 되면 행정직이라도 보충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에 꼭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다가 인력을 많이 충원해 주십시오.

○ 부군수 정석호

(좌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항상 그렇게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본안질문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평소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사항이어서 간단히 여쭙보

했습니다.

먼저 박인철 의원님이 칭찬을 대단히 하시는 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어디인자……. 자료가 잘못 올라왔는데. 죄송합니다. 저 자료 잘못 올라왔어요.

제가 구심도시를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번창했던 곳인데 지금은……. 자주 가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도 제가 또 한 번 돌아봤거든요, 점심을 먹고, 정말 문을 닫고 빈 가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나뒤통도 되는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번이나 거기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완도읍 중앙, 주도, 서성 이 마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번화가, 완도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은 상가가 침체되어서 빈 점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이 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현재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는 관심 밖이냐고 말을 해요. 시골에도 이렇게 가보면 한 20개, 30개 마을……. 그 사는 동네도 정말 길이고 뭐고 다 뽕뽕 뚫려서 그렇게 다 있는 것 없이 다 해주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관심 밖이냐고 자꾸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무엇이 먼저 답일까.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2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자료를 올려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잘 보이지 않을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큰 도로에서 서성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수정당인가, 금은방이 있는 곳. 거기에서 세 집 정도만 돌면 길이 넓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서성리로 바로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저쪽 오면서 차가 왕래하기 좋고, 저 왼쪽에 오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입니다. 저기 흥어집이 있는 곳에서 거기를……. 거기도 집들이, 그렇게 높은 집들이 예전 집들이더군요. 그러니까 잘해서 거기도 4차선으로 터놓으면 양 군데만 터놓아도 우선……. 자연스럽게 차들이 왕래하고 그러면 거기 상권이 개발되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빈 점포라든지 도로, 주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 폭 자체가……. 지장물 보상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이 있을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시가지의 도로 확포장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자가 과연 팔 것이냐는 문제하고, 과연 팔려고 했을 때 감정가하고 실책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건물주가 수용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건물주와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보고요, 또 실제적인 감정보다는 가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것을 예측해서 건물주하고 만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동참할게요, 설득할 것이 필요하다면, 한쪽에서도 그렇게 같이 설득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이 관심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참고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 고속도로 1, 2단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부터 강진 성전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량은 연장 51.11km입니다. 폭원로는 23.4M로 4차로입니다. 설계속도는 100km이고 사업비는 1조 4,553억 원입니다.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업체는 대우건설 외 6개사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나들목 7개소, 분기점 1개소, 휴게소 2개소, 졸음쉼터 3개소, 방음시설 4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99년도에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2015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고, 2017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용지보상이 80%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는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사업이 2024년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공구별 현황과 공사비 집행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추진상황입니다. 2단계 사업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로 4차선로에 연장 37.5km, 사업비

1조 513억 원으로 1단계 사업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강진에서 해남 구간이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추가검토 노선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2021년도부터 2022년 기간에 중점추진 노선으로 진입시켜 1단계 구간 준공 전에 2단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도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광주~완도 고속도로 1, 2단계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1, 2단계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열심히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민들이 이 사항을 궁금해 하고 또 고속도로 추진을 소망하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편익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경제성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청취불능) 지금까지 광주에서 강진 성전까지는 0.87. 원칙은 1이 나와야 되는데 0.8 이상이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해요. 그런데 광주에서 해남까지는 0.78이 나왔고, 또 광주에서 남창까지는 0.72가 나와 가지고 경제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렇죠.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남창까지는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15년이나 20년 후에 남창까지 완전히 개통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있으나 마나 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군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요, 도나 전체적으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거나 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제가 전라남도 등 수많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가장 아쉬운 것이요, 우리 지역에 큰 인재가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취 불능) 인재가 없다고 해서 안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요, 타 지역 출신이지만 마음의 문을 열게끔 두드리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 존경하는 의원님들, 또 모든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잘 들었습니다.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은 물론이고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고속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과장님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니까 알기 위해서 한 내용이 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어느 선을 잡든지 노력해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수고하십시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안전건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다음은 5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30호선 중 위험도로 현황과 사업 진행기간 및 소요사업비 그리고 금후계획과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830호선 현황입니다. 관리청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이며 총 연장길이는 41.6km로 포장 17.8km, 미포장 7.7km, 미개통 16.1km이며 포장률은 42.8%입니다. 미포장 구간은 약산 해동이 1.9km, 금일 신고리 구간이 2.1km, 금당 차우리 구간이 3.7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업현황입니다. 총 5개소에서 위험도로 개선 및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량은 5.3km, 사업비는 114억 9,1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국지도 13호선 3개소 중 2개소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신지 보행로 정비사업은 현재 기공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징구율을 64%로 123필지 중 81필지를 징구하였습니다. 지방도 830호선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기공승낙서 징구 및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민의 교통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도 위험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총 27개소의 위험도로가 있으며, 총 사업량은 17.61km이며, 사업비는 164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본대상지구가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굴곡 위험도로 개선 중장기계획에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으며, 본지구들이 전라남도 중장기계획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신지 보행로 정비사업은 금년 10월까지 기공승낙서 징구를 완료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신지 독계령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지속 건의하여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고금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기공승낙서 징구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발주할 예정이며, 신지 갯길 정비사업은 내년 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도로 정비사업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기공 승낙서 장구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조하여 기공승낙서 장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830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례없는 가을 태풍이 많이 찾아 왔었습니다. 재해대책 총괄부서장으로서 열성적인 업무 추진으로 큰 피해 없이 잘 넘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지방도가 46.6km 맞죠? (예, 그렇습니다)

미포장 7.7km고 미개통이 16.1km인데, 그 미개통 부분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그것은 현재 지방도 노선이 고금 석치에서 고금 금산까지인데요, 지금 개통되어 있는 것은 고금 석치에서 약산 당목 구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리가 안 놔졌고, 또 다리와 석천과의 접속 도로 구간이 개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미포장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노선이 확정되고 사업을 해야 만이 포장이 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량 구간도 빼고 접속 구간이 미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니까 지방도 830호선으로 지정만 되고 아직 안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로 교통량 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전하고 이후하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금년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직은 안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조사하든 안 하든 많이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되면서 교통위험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고도 그전에 비해서 많이…… 다만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가 27개소로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이런 부분이 군에서 발주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요, 완도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한참 밀리면 사업진행이 엄청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의 풍부한 역량을 가지고 인력을 전부 다 동원해서요,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가지고 잘되게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자료 준비 됐습니까? 안 됐으면 그냥 할게요.

지방도 830호선이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가 범람하는 것 잘 아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고금 장례식장 앞에도,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자주 범람하는지, 거기에 대책이 있는지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우선 기후변화로 인해서 시간당 시우량이 많은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당초 설계를 할 때요, 말하자면 10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시우량을 계산해서 설계했어야 하나, 과거의 설계는 최대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비로 설계해서 다리 폭이라든가, 또 배수구 용량 이런 것이 적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과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쪽에 보면 예전에 준비했던, 설계했던 배수로 넓이하고요, 지금은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그 물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고금면 중심권에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굴곡진 것 아니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거기에서 전부 다 물량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우선 이번에 경험해 가지고요, 단기적으로는 그쪽에 인도가 나있는데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턱이 있어요, 그 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15M 간격으로 구멍이 있는데요, 지금은 250mm 정도의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확대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박스를 도로관리사업소에 맞게 키우고요, 또 우리 군에서는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앞당겨서 하천 폭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중심권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전부 굴곡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물이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쪽 농경지부터 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는, 매년 그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하천공사와

겸하고 선형을 바로 잡으면 그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전 (청취불능) 도로사업소장님도 오서 가지고 그때 같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데요, 그 사업이 빨리 우선순위로 되어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례식장을 넘어서 도로 그 아치형이 있고, 또 도로에 보도블록을 해놓은 것 아니죠, 그 보도블록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했고요, 고금면민들이 체육관으로 가는 인도를 과거부터 요구해서 쪽 그 일환으로 저기 삼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 고금면에서 요청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할 때는 군에서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하오나 많은 협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사진을 보면 좀 편한데 사진이 없다고 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 전체가 범람되면서,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도블록이 있다 보니까 아까 200mm, 250mm 정도 되는 맨홀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별로, 그것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고, 이 도로가 배수로로 되어버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보도블록 높이가 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 일대의 도로가 전체적으로 침수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버스도 거기에서 침수되어 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농기계센터의 자재, 그 물건들이 한 1,000만 원 가깝게 전부 다 못쓰게 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 오고, 경찰서에서 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밑에 가정집도 똑같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저도 (청취불능) 집중호우가 났을 때 현장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느낀 점이 있고요.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단기대책, 중장기대책을 세워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이 되면 이런 집중호우가 또 올 것 아닙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정집 피해는 계속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을 중간 중간이라도 우선 낮추면 그 도로에 있는 물이 배수로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그 보도블록을 낮춰서라도 해놓으면 그 도로 밑에 배수로가 또 있거든요. 그 배수로로는 보도블록을 해놓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가, 그 밑에 배수로가 또 있습니다, 유관 이.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하여간 단기대책은…… 빨리 내년 우기 이전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렇게 해서 잘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큰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도와고 도 관리사업소하고 우리 군청 안전건설과하고 소통은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아주 좋습니다.

○ 김양훈 의원

좋아요, 그러면 도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과 의견조율은 잘되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에다가 요청한 사항은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이번에 고금도 국도 상정리와 가교리를 선형사업하지 않습니까. 그것 도에서 이번에 공사한 것 알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중복사업이죠,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면민들, 주민들, 오고 가는 사람들 전부에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명하느라 바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죄송합니다. 완도 건설을 책임지는 건설과장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22개의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으로 커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그 이면에는 지난 인사 때 담당팀장, 또 담당자들이 전부 바뀌어 버렸어요. 인수인계가 잘 돼서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해야 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상급기관이 하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잘못된 사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부실시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산…… 지방도 830호선이 있는데 약산 당목에서, 해동리에서 당목으로 가는 금일 배 타는 곳까지 있죠. 그것 우회도로 설계 용역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노선 확정을 위해서 설명회를 10여일 전에 했어요, 당목 마을회관에서. 그런데 경제적인 속도를 내려면 시속 10km의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당목 그 뚝니까, 마을 노거수가 있는 곳. 거기에서 저쪽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을, 산 쪽으로 올라가는……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청취불능) 새로 집을 지어놔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해야 되고, 또 다시마 건조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많이 (청취불능)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제일 아껴야 하는 것이 다시마 건조장이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빼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속도를 40km 속도로 추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민들이 과거에 마을 뒤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미신으로 해가지고 마을에 좀 불길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과거에 송곡 앞으로 국도가 지났었는데요, 그 뒤편으로 도로를 냈는데 아무 탈 없이 잘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낭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현재 당목항으로 가는 그 도로를 넓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유수면 관계라든가 지장물 등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소된다고 해도 도로를 놓게 되면 앞으로 저쪽 부산에서부터 국도가 승격이 되면, 연결되게 되면 엄청난 차량이 통과해 가지고 마을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마을 뒤편으로 가는 것이 맞고.

다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역민들과 절충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 2월이나 주민들이 승낙해 준다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봄에는 착공해 가지고 2021년도 말에는 준공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이 우회도로가 되어야 만이 지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약산하고 금일 간 연도교가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교도 되고, 앞으로 되게 되고 약산 동백 치유 숲이 내일 모레 개장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많이 찾아올 것이고, 또 찾아오면 지금 현재 상 태로는 그 도로가 엄청 위험합니다. 교회 앞부터 축양장 그 사이가요. 나오는 배들 그 시간에 맞추다 보면 지금도 엄청 위험한 도로인데, 그 도로가 늦으면 더 복잡해지고 더 위험할 것이고, 그리고 동백 치유 숲에 오신 분들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설득을 잘해서 가지고 충분히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과장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모든 부분에 기를 모아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꼭 잘 정리해서 위험도로가 아닌 진짜 편한 도로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허궁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 출석의원(8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조인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미래해양사업단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산업과
- 수산경영과

(09시56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해양사업단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미래해양사업단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다.

미래해양사업단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 추진배경입니다. 깨끗한 바다환경을 유지하고, 어업인 의식개혁 및 공격적인 바다 가꾸기 실천으로 건강한 섬 완도의 청정바다 이미지를 지속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브랜드로 완도산 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별 종합계획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에 24억 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조성사업에 2억 원, 그리고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응기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3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부분별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7월, 대한민국 청정바다 완도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상징 조형물 설치, 해양쓰레기 제로화 캠페인 실시,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바다환경지킴이 31명, 바닷가 지킴이 28명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우심지역에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바다수도 선포 후 개선된 사항은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완도의 미래 특화 브랜드가 대외적으로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선포식 이후 주민의식 구조 전환은 희망완도소식지 등 지속적인 언론 홍보와 주민이 참여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실천운동을 통해 우리 지역 청정바다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한편으로는 군민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포식 이후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라는 브랜드로 중앙부처 사업비 확보 등 활용여부입니다. 2015년 5월 1일 동브랜드 선포 이후 2017년 10월 17일 해양자유산업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청정바다수도 선포식 효과라고 판단되며, 그 후에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하고 그 효과도 상당함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내년에도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무인도 해양쓰레기수거, 바다환경지킴이 및 바닷가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2015년 5월 1일 장보고수산물축제를 할 때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선포식 장면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세요.

이 장면은 군수님한테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김공장 세척수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시시오.

화홍포구에 방치된 폐선과 각배들입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시시오. 차근차근 넘어가 보십시오. 다 봤습니까, 방송실?

이것이 폐선, 스티로폼, 전복 (청취불능) 엉켜져 있는 사진입니다.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각 12개 읍면이면 12개 읍면 다 동일한 사진들입니다.

단장님, 왜 제가 먼저 이 사진을 올린 것인지 알겠죠?

지금 청정바다수도 후속대책에 우리 바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2015년 5월 1일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선포식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선포라는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포식 이후에 어떤 상황을 보면 대외적으로는 청정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정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완도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요. 대내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주민의식 개혁에 주민들이 동참하고, 바다 가꾸기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요.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식을 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도입하여 부표를 처리하는 것, 그 이외에는 5년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이 하

나도 없습니다. 방금 사진에서도 보았듯이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선포식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해양환경관리단을 확대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읍면에서도 바다환경 지키기 운동 등 새로운 시책들을 상당히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방금 단장님도 상세한 설명을 했지만, 했으나, 현장에 가서 보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올렸던 사진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 화홍포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현재 완도 바다의 상태인 것만 단장님이 좀…… 단장님도 현장에 다니면서, 출장을 다니면서 봤을 것 아닙니까. 저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완도군에서 청정바다수도라고 해가지고 성과를 내세우고 있는 이동식 스티로폼 감용기, 이것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추진했습니까? 우리 군입니까, 아니면 다른 군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당초에 우리 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했는데 신안, 해남, 통영 그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신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신안 감용기 운영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박인철 의원

2011년도에 신안군에서 이동식 감용기를 했는데 잦은 고장과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폐기하고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과정을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티로폼 처리방법에 있어서 신안군과 우리 군이 다른 것.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신안군하고 비교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현재 저희들 장비 보강을 위해서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1대하고 이동식 차량 2대를 구입해 가지고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하나 더 구입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처리…… 신안군도 처음 우리 군에서 했던 대로 하다가 고정식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신안군 처리방법하고 우리 군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단장님.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와 관련하여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정부에서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해수부에서 폐부자 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2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 박인철 의원

지금 매년 친환경 부표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피부자 또는 개량부자 사업을 통해서 스티로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청정바다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원과 해상에서 발생된 오염원이 있는데, 육상의 주요오염원은 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생활하수하고 분뇨?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생활하수하고 생활쓰레기 담수호 방류죠? (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오염원은 생활하수, 분뇨, 담수호 방류, 생활쓰레기인데, 육상오염은 생활하수가 분뇨, 이런 것은 통영시의 경우를 보면요,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는 9개 어촌계는 전부 다 오폐수 처리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실정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하고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추가해서 이런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통영시 같은 데도 다 되어 있는데, 통영시 같은 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어촌계별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복이라면 통영은 굴 아닙니까? 굴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미국 식품위생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다 파지에다가도 설치하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군에서는 바다에 그런 것을 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전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청정바다수도라고 한다면 최대한, 최소…… 육상 오염원을 줄이고, 바다에도 같이 이렇게…… 물론 스티로폼을 수거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서하고 단장님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속조치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외 6개 사업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37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답변서에 있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답변서에 없는 해양…… 청정바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선상 집하장 설치를…… 79개 운영하고 있고요,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폐통발 반납에 따른 통발 구입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선상 집하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선상 집하장을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파지로 만든…… 이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박인철 의원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그러면 정책과장님, 이것은 어촌계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관리가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어촌계를 순회하면서 어촌계에서 일단 생산 파지를, 쓰레기를 모아두면, 모았다가 이것이 차서 화흥포구로 가져오면 위탁처리하는 군에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4,000만 원씩 들어 가지고…… 이것 순군비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아닙니다.

○ 박인철 의원

국비를 플러스합니까, 매칭사업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매칭사업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4,000만 원이라면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개수가 되는데, 전혀 그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래서 이제……

○ 박인철 의원

내가 너무 각박하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을 유심히 많이 다녀봅니다. 그런데 선상 집하장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유명무실하게 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후 단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후속조치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방문 시……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러 갈 때 보면, 의장님을 비롯해서 가는데요. 사업현장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토목현장을 보고 가는데 그 주위를 보면 전부 다 바다쓰레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해양쓰레기, 이것이 우리 군의 실상입니다. 군수님은 가는 곳마다 청정바다수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업현장은 예나 다름없고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장님도 이런 사항을 인식하고 있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군수님이 매번 행사 때 아니면 외부행사 때, 내부 행사 때 청정바다수도 완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군수님이 강조한 시책에 대해서 단장님이 직접 챙겨서 성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해양 발생 오염원 중에 가장 심각한 오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폐어구, 뭐 어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단장님, 금방 대답한 폐어구나 통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장님, 해양생태전시관 같은 데에 가봤죠. 완도 장좌리, 장보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나 장보고 사업소나 다 거기가 완도읍의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면 바다 벌을 보고요, 좋은 바다를 봐야 되는데…… 저번에 사진을 못 찍어서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만 물때가 안 맞아서 못 찍었는데 전체가 폐통발입니다. 그래서 완도에 관광하러 와가지고 장섬에 들어가면서 보는 것은, 바다에 보이는 것은 폐통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이 이렇게 완도읍의 관광지…… 관광 1번지라고 하는데도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적이 드문 무인도는 빼더라도 각 읍면은 어찌겠습니까? 그래서 연안부터 근해까지 전해역에 폐통발이 산재되고 있고, 그리고 통발을 뇌놓음으로써 들어간 어류들이 썩어서 해양오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도 단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통발협회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저희들 위탁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겁니다.

○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통발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통발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통발이 오래 되어서 교체할 시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으로 가져와서 폐기하면 새로 구입 시 50%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는데 현재 바닷속에 있는 통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촌과 해상 수심 5미터, 이런 부분에 5M, 10M면…… 폐통발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발 허가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완도 바다, 개머리 주변 해변, 이것은 뭐 완도읍뿐만 아니라 통발을 하고 있는 12개 읍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폐통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발어선과 어민, 마을 앞바다, 통발을 하고 있는 어민들을 한번 현장에서 만나 보셨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직접 현장에서는 못 만나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안 만나봤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을 보며)

해양정책과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어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이런 문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폐통발 수거 관련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납했습니다마는 연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옛날에 보면 바다 청소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합니까? 그런 사업이 지금은 없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바다 청소사업은 자율사업대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일부 수거합니다마는 폐통발을 수거하려면 어차피 바닷속 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옛날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전에, 한참 이전에 군비를 대가지고 바다 이렇게 사업도 하고 그런 것 같던데요, 근래는 전혀 그런 사업이 없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그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 사업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일부 했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이 안 되면 군비라도 가지고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터전이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 박인철 의원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단장님, 뭔지 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전복 출하 시 죽은 전복하고 가두리 섹터 안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섹터 안은 전복이고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까지는 일반 해양폐기물하고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전복패각 자원화사업을 노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거의 바다에 버리죠, 이 쓰레기들을 어민들이요. 전에는 적조로 해가지고 금일에 패각이 많이…… 폐사가 나올 때는 우리 군에서 여수로 실어 보내 가지고, 파지로 실어 보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 적은 있지만 개개인 어민들한테 나온 것은 거의 다 바다에 버리죠. 이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진 다시 한 번 올려주십시오.

단장님, 이것 뭔지 알죠? 김 가공공장 세척수입니다. 서천군 같은 데 마른김 가공 공장 현장에 제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다 세척수도 중앙 집중식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해서 버리고.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업체별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환경산림과하고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하십시오. (예)

저런 데도 우리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저 주위에 맨손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먹고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다 저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것도 단장님, 출장을 다니면서 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폐방치 어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화흥포구에 방치된 폐어선과 각배들입니다.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저것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 박인철 의원

읍면에서 일단 실태파악을 하구요. 저희들이 공고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자체 처리……

○ 박인철 의원

저런 배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쭉 방치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저런 배들 애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도 전혀 안 올라오고, 예산이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의원님, 처리하고 있고요. 1년에 한 40여 척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폐선 감축 말고요. 저렇게 방치된 선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폐선 감축입니까, 아니면 저런 배들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방치 폐선.

○ 박인철 의원

(방척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저희들이 방치 폐선은 매년 국비하고 군비 5 대 5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인이 있는 배들은 개인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저런

각배들은 주인이 많이 있는 배들이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하고 장기방치 폐선에 대해서는 실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는 전복 가두리 폐자재입니다. 이러한 폐자재는 산 속에도 있습니다.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저도 많이 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한번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까, 이런 데? 우리가 청정바다수도로 해가지고 스티로폼 감용기 이런 것이 아니고, 진짜 저런 것을 치워내야 되거든요. 한번 조사되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것은 사유시설로 자세한 실태파악이 일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런 폐가두리에 대해서는 어업인하고 어촌계에서 자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해양쓰레기로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금방 말씀 중에 육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가지런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되게끔, 육상에 있는 그런 자재들은,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육상하고 접안되어서 전부 다 폐자재들이 영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되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때는 새로운 문제인데요. 원칙으로 하면 양식을 하다가 발생한 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렇게 해안가에 방치해 놓은 것은…… 어촌계에 가면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이런 사례들

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요. 어업인들의 인식을 같이, 계도활동을 병행하면서 어업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쓰레기가 누구 소유라고 다 적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얹히고설켜서. 그러니까 전복 폐자재도 문제가 심각하니까 다음에 처리계획을 세우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복 폐자재는 일정 부분 어촌계에서 부담하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요, 최소한 육상에 올려놓기만 해도 우리 군에서 수거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좌석에서) 그런데 해상에 발생한 쓰레기만 처리하더라도 우리 군하고…… 국비사업으로는 버거운 실정이거든요. 폐자재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꼭 그렇게 처리계획을 세우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다음은 낚시어선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신고가 된 낚시어선이 한 100여 척 되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낙시어선에 발생된 쓰레기 및 분뇨처리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쓰레기에 대해서는 되가져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분뇨에 대해서는 낙시어선 어업을 신고할 때 활동 (청취불능) 선박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 박인철 의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이 많이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낙시하시는 분들이 관광에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대략 한 50만 명 정도 우리 군을 찾습니다. 낙시어선에서 발생된 쓰레기 및 분뇨처리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사내호에서 방류되고 있는 담수와 완도 청정바다수도 정책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내호 방류수는 군외, 고금, 완도군 해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지에는 그 영향이 조류에 따라, 물때에 따라 청산해역까지 미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영역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단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우리 군에서는 현재 사내호의 수질이 좋지 않다는 상황인식을 하고 있고요, 갯벌이나 해양생물에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과 강진, 장흥, 해남과 협력해서 수질 개선을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수관문 개방 시에 어업인들 1,200명에게 문자 알리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문제입니다. 바지락이나 바다 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내호를 (청취불능)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단장님, 그것도 알죠. 강진군에서는 빠르게 용역하고 있는 것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어제 존경하는 김양훈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는…… 물론 우리 군에 사내호가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냥 현재하는 대로 사내호를 방류할 때, 어민들한테 문자만 보내고 이런 것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관리청인 영산강유역청하고 강진완도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내로 자체적으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단장님.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를 해 가지고 제일 수해자가 누구입니까. 어민이죠? (예)

그런데 어민의 의식구조가 선포식 이후 크게 달라진 점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은 의식구조에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도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어떤 어구 실명제라든지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 생각에는 선포식 이후……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졌다고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인들의 참여 없이는 청정바다선포식, 이것은 구호로만 끝입니다.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이것을 이행할 시 어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어촌계에다가는 불이익을 줘서 어업인들이 청정바다 선포식에 따른 대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년부터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청정바다 선포 후 개선된 사항으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등 서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바다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성과가 아니거든요. 청정바다수도 선포 이전과 이후에…… 이전에도 수산경영인 통발협회, (청취불능) 협회 등의 해양쓰레기들을 수시로 수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포식 이후 개선된 사항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한 마디로 없습니다. 선포식 이후 후속대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도가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라고 선포식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분석한 결과, 후속대책은 너무나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시 현장을 파악하고 실태를 조사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다는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완도군이 존치하는 우리 군의 터전입니다. 관리와 보존을 꼭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잘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물으신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산업 추진배경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전통 수산업의 위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다양한 요

인으로 우리 군은 지자체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신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에서 완도만의 청정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미래전략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최적지로 매력 있게 되살아나고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건설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산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구묘 및 금액입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총 토지구묘는 (청취불능) 신지면 대곡리 일원 총 221필지입니다. 이중 국유지가 13만 6,503평방미터, 군유지가 12만 2,584평방미터, 사유지가 16만 9,749평방미터입니다. 일부 숫자에 오차가 있어 정정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부지는 27만 3,147평방미터입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할 토지는 신지면 대곡리 일원 15만 5,959평방미터로 매입금액은 148억 원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양치유센터 및 문화치유센터 건립 사항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예정부지에 대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법은 올해 말 공포 예정에 있으며, 해양치유단지 지구 지정은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업예정 기간입니다. 우리 군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해양치유센터, 해양자원관리센터, 해양치유공원, 그리고 공공 해양치유전문병원 등을 건립하고 민자시설인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해양치유리조트, 해양바이오 연구기업, 숙박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계별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하여 신지면 신리 153-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0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요 사업비 재원확보는 금년 17억 원이며,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들어갈 2020년 124억 원, 2021년 179억 원으로 연차별로 정부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군비 확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치유센터의 주요 시설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등 우리 군 특성화 치유자원인 해조류, 해수, 해니를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시설과 요가 및 명상 공간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운영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층별 배치계획에 따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호흡기 질환, 재활 및 회복기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 관리는 우리 군 직영 또는 지방공사 설립 등 다양한 공공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본계획은 신지면 신리 153-20번지 해양치유센터 인근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20실 병상 규모의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을 유치하여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 방안계획 용역을 6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내 병원과 MOU 체결을 위한 업무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 예정부지의 토지매입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정부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민간투자 유치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유치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은 고려대 수련원과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의 기존 부지 및 건축물 활용을 위해 대학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건강리조트는 2개 지역을 우선 유치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대야리 일원 약 12만 3,000평의 부지와 신지면 신리 일원 약 2만 평의 부지를 숙박시설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바이오 연구소와 기업은 신지면 신리 일원 약 5만 1,000평의 부지를 교육연구시설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민간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 유치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해양치유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난 8월에는 사학연금공단과 접촉하여 20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주도과 코트라 등과 상시 접촉을 통해 활발한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LA 코리아타운 내 한인사회 경제인들을 초청해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천만 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자 유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투자 유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1월에 완료한 후, 코트라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군과 사학연금공단과의 민간투자 MOU도 내년 3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투자유치 수도권 설명회, 국제투자박람회 등도 참가하여 우리 군이 목표하는 민간자본유치 실현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18년 10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동법률이 제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해양치유는 단순 콘텐츠 영역이 아닌 의료와 관광, 바이오 분야가 연계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되는 미래 신산업 성장 동력입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통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부분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풀뿌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연계하여 자연그대로 수확하는 농축산물과 대한민국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식품을 개발하여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수산 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양치유산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나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까지는 해양치유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양자원을 활용해 건강증진과 질병을 예방하는 해양치유산업은 국내에서 생소한 신산업으로,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민의 이해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군민의 이해와 참여는 절대적입니다. 사업 추진 상황을 군민과 함께 공유, 홍보하여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완도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하는 근거 법령이 무엇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하고 현재 국회에서 발의 중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 박인철 의원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작년부터 해양치유산업을 뒷받침해 줄 법률이 언제 제정이 되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금년 4~5월경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 법이 금년 말까지 제정…… 이러한 국회 상황에서 제정 공포가 가능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지금 해수부에서 금년 말까지 통과시킬 목적으로 국회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금년 말까지 제정, 공포되길 희망합니다. 관련법도 제정 공포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 근거 법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고요.

○ 박인철 의원

예, 맞아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치유가 아니고 포괄적인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공포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죠. 이것이 탄력을 받으려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왜 처음부터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해양치유 산업은 대단위 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사업에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 시 항상 놓치지 않고 감사원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련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관련법이 없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수산발전기본법,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것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련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에 따라 사전 절차는 밟았습니까,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해양공간의 이용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관련 또는 이런 시책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이 말씀하신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양 및 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만 정해 놓은 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개별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수산업법, 향만법, 어촌어항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양치유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해수부에서도 해양치유산업법을,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칙으로 해양치유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포된 해양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이 무엇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해양치유에 대한 정의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 뭐 육성, 또 전문인력 양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맞아요. 해양치유에 대한 정의,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 해양치유지구 지정,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성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포예정인 법에 의하면 우리 군이 해양치유 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서 사전절차 누락 또는 소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감사 시 적발되는 사례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공포 예정……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법에 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데 아직 뭐 올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법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패스트랙이라고 해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해가지고 끝나면 자기들 선거 때문에 이것은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염려해서 단장님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저번에 받아서 통과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조건부 승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조건 승인을 받을 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시설 인력, 구체적인 시설 또는 인력, 또는 뭐 차별화된 콘텐츠, 이런 것을 보완하도록……

○ 박인철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시설과 인력, 그다음에 대책과 차별 이것이죠. 그래서 실시설계 후 두 단계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필요한 토지면적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좀 했는데 이것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답변서에 중구난방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아침에 직원들이 와서 정리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입할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것은……

○ 박인철 의원

한 42만 정도 되죠, 평방미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15만 5,000평방미터.

○ 박인철 의원

매입한……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추후 매입 예정이……

○ 박인철 의원

추후 매입 예정이 15만 5,000 정도 되죠? (예)

매입 예상금액은 148억이 맞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감정가로 해서 148억 원.

○ 박인철 의원

군에서 매입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것이 군비라서 일시로는 부담되기 때문에 한 5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이것 전액 군비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는요.

○ 박인철 의원

지금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에도, 토지매입 비에도 이 정도가 들어가고, 또 건물을 하는데도 우리 군비가 들어가죠. 몇 대 몇입니까, 매칭이? 국, 도, 군으로 해가지고요. 32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매칭사업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도에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도에서는……

○ 박인철 의원

한 15%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이 해양치유하고 해양블루존입니까, 여기를 하는데, 우리 군 출신 도 의원들을 한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예산, 도에서 한번이라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개별적으로 만나서 부탁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개별적으로 만났는데 이번에도 일련의 그런 사태들이 발생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후로는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도의원을 만나보니까 한 번도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도의원들한테 도 매칭사업 예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나 설명도 못 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런 데에 오해가 없게 좀 해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토지 사용계획에 대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자료를 들며)

도면은 명사십리 예정부지 도면입니다. 저희들 해양치유단지는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이쪽 울물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바이오 특구를 포함해서 개발부지는 12만 9,800평 정도가 개발 예정으로 있고요. 해양치유센터 부지가 1만 8,165평방미터, 공공부지, 바이오연구단지, 기후치유센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정에 있습니다. 결론은 관련법이 제정되면 별도로 해서, 치유단지를 조성해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우선 단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은 2022년까지죠. 사업비는 2,177억이고요. 사업 주요내용은 해양치유센터와 공공해양치유전문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해양치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는 차질 없습니까? 국회에 얼마 요청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내년도에 정부예산으로 62억 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 그렇게 됩니까. 총예산이 322억, 그러면 내년도에 62억이 된다고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정부예산에 반영돼서.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를 다 합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국비만 62억.

○ 박인철 의원

국비만 62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우리 군비가 한 60억 갑니까, 아니면 한 45억 갑니까? 매칭으로, 도비 매칭으로 된다면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여기 군비는 한 4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은 치유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이 센터를 짓는데 국비, 군비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입니까? 도비도 들어갑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해양치유센터에 국비, 지방비 5대 5로 해서 도비…… 지방비 중에 도비 15%, 우리 군비……

○ 박인철 의원

35%, 그렇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의원

그럼 현재 정부예산에……

과장님, 앉으십시오.

189억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처음에 1차……

○ 박인철 의원

189억이요, 그러면 나머지 131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이 사업비는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다 협의

되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충분히 확보된다고 봅니다.

○ 박인철 의원

전혀 국회에서 삭감되고 기재부에서 뭐하고 그런 것은 없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없습니다. 320억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고생했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예산도 다 확보됐다고 하면 추후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착공은 내년도 3월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공을 2021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단장님이 금방 말씀을 잘못 했는데요.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준공이 가능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럼 일단 1단계사업을 하고 2, 3단계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 계획은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센터가 건립되고요. 거기에 기후치유센터가 건립되고 공공병원도 유치해서 그쪽을 전부 클러스터화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위치가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모래가 올라오는 그런 위치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계에다가 반영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요.

○ 박인철 의원

왜 이런 말을 제가 물어보느냐면 불라벤 태풍 때 우리 군의 상황을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 주차장, 치유센터를 짓는다는 곳 넘어서…… 그 넘어서까지 논밭까지 간 것 알죠? 그리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주변에 신지면 하수처리장이 있는 것 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유센터하고 하수처리장?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처음에 치유센터 부지를 잡을 때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시적으로 거기 미관을 보완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유센터 단지가 조성되면 그 하수처리 용량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로 옮길 생각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치유센터가 내년에 되면 용량을 봐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 박인철 의원

바로 들어오는…… 도로를 또 다른 데로 내면 모를까, 그 도로를 사용해 가지고 해양치유센터를 한다면…… 바로 앞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는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셨어요? 여기에 대해 의논한 적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좌석에서) 해양치유 관련으로 인해서 발생된 오수량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센터에서 나온 양은 충분히 커버되는데요, 그 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오수 발생량이 나오면 이전이라든가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해양센터에 여러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도 있을 것이고, 오수가 생길 것이고, 또 신지면, 거기에서 처리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얹혀 있으니까,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 질문에 보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재단을 설립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센터를 개설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남았는데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운영방법들을 세밀하게 서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같이 해갑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센터 운영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예, 그런 준비도 해주시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뭐 조금 전에 단장님이

설명했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치유센터 내에 22개의 테라피시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양기후치유라든지 해수치유, 그다음에 해양광물치유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은 누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고려대학교 연구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고려대학교 연구단이요, 따로 우리가 용역을 준 것 있습니까? 용역이 전혀 없는 것 같던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고려대학교 해양치유산업 연구단, 거기에서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4개 지자체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말씀 중에…… 단장님, 이번에 국회에서 있었죠. 단장님이 심포지엄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참석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거기에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고려대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할게요. 연구용역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 박인철 의원

그리고 독일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했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 없어 가지고.

○ 박인철 의원

우리 군에서 4억, 각 지자체에서 4억씩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해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제가 그 교수님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제가 얻은 정보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아직 안 가고 있거든요, 그 용역팀들이. 그리고 뭐 저도 프랑스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해양치유가 뭔지 못 느끼고 왔습니다. 그때 같이 가신 분들이 독일을 같이 가자고 하던데. 독일에서 오신 분들도요, 이번에 거기 국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단장님이 많이 줌…… 우리 군에서 다시 새로운 연구용역을 주든가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인력은 어떻게 양성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준비된 것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해양치유사하고 해양치유지도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교재가 발간되어 있고요. 또 2022년부터 전문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최근에 필라테스 등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 이분들도 전문교육이 가능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이…… 이전 질문 때는 아직 그런 법령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 되어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이분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쌓고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저번 질문에도 했지만 국가자격증으로 해양치유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해양치유시와 해양치유지도사를 구분해서 해수부 고대사업단에서 교육교재를 집필했는데요.

○ 박인철 의원

아니, 아직 그런 법이 없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예, 그 법은 없습니다마는 유사한…… 관련된 유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격증 같은 것, 우리 군에서 주는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잘 알겠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할게요.

그러면 단장님의 답변서에 전남대, 조선대, 고려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남대만 MOU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고려대, 조선대 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일단 치유전문병원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공공치유전문병원은 전남대고요. 민간치유전문병원은 고려대, 조선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공공전문병원 토지는 대학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것을 제공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군에서 제공합니다. 토지 부분은 군에서 제공합니다.

○ 박인철 의원

군에서 제공한다고요, 토지도? (예)

어떤 근거로 군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병원 토지를? 한두 평도 아니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의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공공병원, 민간병원은 본인들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만 공공병원은 우리 군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게 되면 전액 국비로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만큼은……

○ 박인철 의원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좌석에서) 국립병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대하고……

○ 박인철 의원

국립병원이요.

그러면 이런 토지비용도 내가 조금 전에 이야

기했던 대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좌석에서) 이전에 보고를 드렸던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거기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입니다, 전부 다. 해양치유단지.

○ 박인철 의원

전체 해양치유센터 안에 들어가는 부지라는 그 말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기재부 부지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무상양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자료를 검토하면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은 그때 봐야 알겠죠, 무상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을 단장님, 성공하려면 핵심이 민간투자거든요. 군수님이 엇그저께 LA에 가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전남개발공사가 참여해 가지고 여수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에 투자자들이 엄청 많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현재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지금 특별한 투자나 뭐 그런 것 없습니까? 군수님이 LA에 가가지고 콘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런 실적이 있고요, 하여튼 밑그림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MOU를 체결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해양치유에?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니, MOU만 했지,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는 전혀……

○ 박인철 의원

전혀 뭐 없었습니까, 군하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

○ 박인철 의원

민간인 투자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앞으로 별도로 역할을 분담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다른 것들은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게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해양사업단장 앞으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다음은 11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종별 불법양식 현황입니다. 현재 KMI 판독 결과, 김은 시설량 12만 6,000여 책 중 면허지 외 초과, 이탈 시설은 59%, 미역은 시설량 37만 여줄 중 32% 정도가 불법시설이며 전복은 시설량 72만 8,000여 칸 중 34%, 굴은 시설량 6,170여 줄 중 58% 정도가 면허지 초과와 이탈된 상황입니다. 김의 불법양식 발생요인은 2017년 이전에는 면허와 면허 사이가 500M를 두고 수면을 이용해 왔으며, 면허구역 내에도 김발을 발과 발 사이 간격을 20~30M 이상 유지하면서 시설하다 보니 시설량은 기준치보다 적는데 밀려나오면서 어장구역의 벗어나 면허 사이사이에 불법시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김양식 어장을 정비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연안 어장조사 및 재배치 사업을 추진 3,540헥타르의 어장을 정비하였으나 2017년부터 김양식산업의 호황시기에 편승, 주요 항로는 물론 공유수면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무질서하게 불법시설을 자행함으로써 무면허 불법시설이 급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요 불법시설 지역은 노화읍 외도, 금일읍 어구낙 등 인근 시군 경계지역입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김을 억제 품종으로 지정하여 신규 어업면허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미역, 다시마, 불법양식 발생요인입니다. 식용, 가공용 미역시설은 감소하고 전복먹이용 미역시설은 증가하여 항로 주변과 어장사이에 불법시설이 산재해 있고 다시마는 금일읍 우도 인근 해역, 냉개지구 등 최근 3~4년 동안 가격 호황에 편승한 불법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트시설의 과다 투입으로 어장정리 및 철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전복가두리, 불법양식 발생요인입니다. 전복가두

리 시설은 조류소통 문제로 가두리 간 간격을 넓히고 있어 어장과 어장 사이에 이탈하여 불법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전복가두리 신규어장 개발은 제한상태이며 수면을 옮겨 대체 개발하고자 하여도 여건상 면허 취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 전복가두리 어업권은 100여만 칸 가능하나, 실제시설은 73만여 칸으로 27%는 남는 상황이지만 34%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어류 가두리는 현재 신지 송곡, 금일 신도, 금당 차우에 시설된 30년 이상 노후된 가두리들로 사양산업화하여 자연적 폐업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굴은 주로 고금 동부해역과 신지 월부해역에 시설하고 있으며 80년도 말에 양성화시킨 어장으로 다수의 어업인이 소규모로 불법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불법어업 정비실적은 최근 1년 동안 말목 1,700개, 김발 306책, 미역은 2세트 55줄을 철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화홍포항과 완도항 입구의 김, 미역, 다시마 시설물을 철거하여 항로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48건을 단속하여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양식시설에 대하여 어촌계 자율추진을 유도하되 항로상, 시군경계 등 우심해역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번한 민원지역, 분쟁지역에 대하여 타깃 정비를 실시하고 어업질서 확립 업무를 완도 수산행정의 최우선 현안업무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양식어업인들이 “왜 나만 단속하느냐?” 등 면허개념을 무시하고 목전의 이익만 추구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또한 휴일과 새벽야음을 틈타 동시에 다발적으로 대규모 무면허 불법시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비하여 낮은 양형으로 벌금을 내고도 또 하겠다는 어업인이 많고, 어업권 대부분이 어촌계 소유 어업권으로 어촌계 구조 및 운영의 폐쇄성에 의한 당사자간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휴일과 새벽야음을 틈탄 불법시설 행위에 대해 장비와 인력이 풍부한 해양경찰에 단속강화 협조를 의뢰하고 어업면허의 개념, 어촌계의 운영, 불법에 대한 사법처리 등 어업인의 의식 변화를 위하여 대어업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양식 어업인에 대한 양형 상향을 사법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연안어장 재배치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은 총 사업비 22억 8,500만 원의 국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개 어촌계에 984헥타르입니다. 이중 금당면 가학지구 해조류양식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신지 동고, 청산 지리 어촌계 전복양식장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의 성과로는 최근 5년간 전복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도비사업인 금년도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노화읍 방축리 김양식어장 1,392헥타르에 사업비 7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부류식 김양식시설 1만 1,020책을 재배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용역 및 로프, 부자, 말뚝계약을 완료하였고 전체적으로 내년 1월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을 통해서 계획 생산, 품질 제고, 법질서 준수 등으로 어촌 선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양식어장 정비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혹시 불법양식어장에 가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한번 금일 쪽에 가봤습니다.

○ 박인철 의원

시설물 철거할 때 가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철거 때는 가보지는 못하고 현황 파악만 하고 왔습니다.

○ 박인철 의원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사항이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타 시군을 한번 봐보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업체에다가 이 철거를 의뢰했던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생각 있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위탁 부분, 그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가급적이면 계도하고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불법양식은 행정은 행정대로, 어민은 어민대로 매우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죠,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 불법양식은 오랫동안 우리 수산행정의 대표적인 업무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업무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예)

우리 군 해양수산분야도 조직이 개편되었고 또 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단장님이 그 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단장님께 드린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불법양식 현황에 대해서 분석은 해보셨죠, 단장님?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저희들한테 KMI에서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것을 판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이 팀장을 제외하고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그렇죠. 여기 답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불법시설물들이 최근에 시설된 것은 아니죠,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것들이죠? 김은 뭐 그렇더라도.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부 지역의 김과 다시마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오래전에 발생된 시설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죠? (예)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민들이 면허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김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탕주의, 이런 인식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요, 다 좋습니다마는 1페이지, 2페이지에 우리 어민들을 한탕주의로 이렇게 표현해 놔습니다. 이런 답변서는 앞으로 좀…… 답변서에 이런 용어는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만약 우리 어민들한테 나왔을 때 어민들이 자괴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한탕주의가 뭘니까, 도대체 행정용어에서…… 이것은 단장님,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 참…… 제가 보기에 좀 그러네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 박인철 의원

보면 수산물에 대한 수급정책이 없습니다.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품질보다 생산량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한 수산업에 김 한탕주의로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김이 근래에 많이 좋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과 관계없이 빈 바다만 보이면 시설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죠. 여기에 동의하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 가능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어업인들의 투자비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불가능하죠?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어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김이 헥타르당 350……

○ 박인철 의원

단장님, 제가 보니까 김 불법시설이 7만 4,766줄 정도 됩니다. 불법시설이요. 이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우리 어민들이 한 400억 이상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단장님이 보고했던 김이나 다시마나 전복, 이런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을 때 우리 완도군의 어민들이 받는 손실액이 한 5,000억이 됩니다. 국가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석은 단장님이 한번 해봤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저희들이 시설비 산출을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가두리1헥타르당 얼마, 시설, 김 얼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우리 어민들이, 전복어가들이 금융회사에 한 7,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거했을 때 어느 어민을 떠나서 한 5,000억 정도 어민들한테 손실이 옵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양식어장들을 정비할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한번 이야기……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전체적으로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화들이 타깃 정비해서 순위별로, 1순위는 예를 들어서 항로 주변이라든지 어업 분쟁지역, 이런 것을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왜 나만 단속해?”, “나만 단속 안 되면 돼.” 라고 하는데 철거 불가능합니다. 단장님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이 철거는 불가능합니다. 항로에서는 연안 여객선 항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방현수 팀장이 있을 때 철거해 놓으면 그 다음날 가서 또 깔아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밤낮없이 가서 철거…… 오만 욕을 다 얻어먹고, 막말로 바다 용어로 (청취불능) 받으면서 철거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깔아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철거하면 다시 말합니다마는 어민들이 5,00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현실화시켜야 되는데.

단장님, 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나 해수부에 방문해서 현실화 계획에 대해 건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은 없고요. 그러한 대책으로 해서 저화들이 어장 재배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어촌계 간 잘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단장님, 해양치유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민들의 먹거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데에 좀 단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탐하고 해수부 같은 데에 가세요.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아는데도 자주 문을 두드려야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해수부에 찾아다녀서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현실화되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금년도 8월 27일에 공포된 양식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양식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이 공포됐죠, 8월 27일에?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시행은 아마……

○ 박인철 의원

1년 있다가 하고요.

보면 어장어업의 평가와 심사가 문제죠, 이 법이? (예)

그리고 불법어업인은 어장면허를 못 받도록 되어 있죠. 현재 김은 59.1, 미역은 32.3, 전복은 34.1%가 면허지 외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면허는 앞으로 연장이나 개발이 어렵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별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단장님께 물겠습니다. 불법양식 철거가 어렵습니다. 현실화가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과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단장님이 이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의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미래해양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패각을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하여 자원 재생산 및 연안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노화읍 동천리에 264평방미터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너지연구원 사업 타당성 분석, 어촌계장 설명회,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주요설비 시연회, 지역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 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후 11월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각의 자원화 방안으로는 먼저 과일야채 등 천연칼슘 세척제로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전복패각의 열적 소성처리로 제조된 녹지 않는 분말상의 펄안료 생산과 전복패각을 절단하여 나전칠기를 만드는 원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진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수산조정위원회 1차 개최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연회 요구로 지난 5월 농어민체육센터에서 주요 설비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주민대표 설명회 시 예정부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장소를 변경 추진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복수거에 따른 어업인들의 동참 및 합리적 수거방안 마련인데요, 사업자와 어촌계 간 사전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패각 수집으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전복패각 자원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복 이것 패각이 심각하죠. 아까 박인철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바다에다가 이것을 버림으로써 심각한 오염이 됩니다. 환경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했으면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자원화센터 이것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빨리 완공되게 해주시고요.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원화센터를 이용하는 업자, 사업하는 분께서 이윤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전복패각과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상태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지원해 줘서 사업이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데, 적정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에너지연구원에도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를 의뢰해서 이 부분도 타당하다는 그런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한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다 패각을 수거해야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거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노화 어촌계장단들과 회의를 할 때 자리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배로 직접 싣고 오면 바로 수거하는 방법. 또 일정장소, 연안에다가 수거장소를 만들어 놓고 어업인들이 거기다가 버리는 방법. 또 바다에다가 띄워서 선상 집하장식으로 거기에 모아두고 일정 부분이 차면 어촌계에서 끄집어내고 처리업자가 가져가는 방법.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사업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어촌계장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보서는 어민들이 많이 도움을 줘야 이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같이 과장님께서 어촌계와 토의를 잘하시고 또 현안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음 3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제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차량 자동화물비 지원사업의 3종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분야별 지원대상 기준 및 자격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정규운임의 20%, 차량은 전년도까지는 일률적으로 20%를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α별로 최대 50%에서 2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제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은 원도, 군외, 신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중 정규운임의 20%를 지원하고 차량자동화물비 지원사업은 청산, 생일면에 주민등록을 둔 도서민 차량이 완도항을 이용한 경우 자동화물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사업비 지급절차 및 정산 방법과 부당지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실태입니다. 분야별 지급절차는 매 익월 여객선 승선자료를 첨부하여 선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승선자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방법 및 부당수급 예방관리 감독을 위해 여객선사 승선권 발권시스템과 군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및 제도권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스템

간 연동되어 있어 선사 신청자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후정산 구조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있으며 차량 자동화물비 지원사업은 매 익월 완도항을 이용한 청산, 생일면 주민 차량 자동화물비를 항만하역회사가 보조금 교부신청하면 승선자료 확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산방법 및 부당지급 예방관리 감독을 위해 항만하역회사 보조금 신청자료와 청산농협 월별 승선권 발권자료 건별 대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14년부터 '17년까지 과다지급액 1만 519건, 6,474만 6,000원에 대해 회수 처분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주)동원운수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환수액 건별 재확인한 결과 6,965건에 4,314만 4,5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3,554건에 2,139만 6,000원을 환수액으로 확정하였으며, 동내용은 동원운수에서 서명 날인한 바 있습니다. 사유별 조정대상은 행정차량 등 공무수행 288건에 178만 8,500원, 단순번호 오기차량 2,938건에 1,923만 2,500원, 확인오류 3,739건에 2,212만 3,500원입니다. 환수 대상액에 대하여 3차 납부안내 및 2차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재산 가압류 및 제소 신청으로 8월 22일 완도법원에 1차 변론 출석하였고, 9월 19일 2차 변론 출석 예정이었으나 동원운수의 반소장 제출로 변론 기일이 11월 12일로 재연기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도서낙도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영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여객선 항로는 7개 선사, 24척 17개 항로로 이중 100원 여객선 운영대상은 국가보조항로 1개 선사, 5개 항로 18개 부속도서로 여객선별 운항항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 여객선 운영과 관련 초기 소요예산은 1억 5,867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 후 연간 소요액은 1억 1,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스템 개발비를 '20년 본예산에 반영한 후 시스템을 개발하고 '20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도서낙도 주민 행복추구권이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도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섬사람들은 사실 교통수단이 배박에 없습니다. 해상 여객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요, 여객선 항만 운항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없어요? (예)

여객선은 도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에 있어서요, 운임상 3년으로 해가지고 18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3년간.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보니까 3년간 투입된 것이 한 18억 정도 되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여객차량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집계는 안 해봤지만 아마 18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 그래요.

보면 도서민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중에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들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금은 전산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등록이 도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 자체가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이에요. 초창기에는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전산 프로그램상 전부 다 적발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최근에도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원 보조항로…… 100원 여객선 운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소요예산이 1억 1,000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이 가능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보조항로만 가지고요, 일반여객선은 20% 정도 지원되는데 별도로 빼고요, 연간 보조항로에 대한 운영비, 이런 정도로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러면 추가로 더 했을 때는 금액을 올려서 하겠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예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뭐죠, 도서민들의 운항…… 오르고 내리고 한 그 인원수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음은 8쪽,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외면 동부해역 9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완도군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갯벌 1,000헥타르 중 58.7헥타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바지락 서식장 및 자원조성, 해삼 및 꼬막 자원조성, 모니터링 및 경제성 분석 등입니다. 지금까지 1년차인 2018년에는 꼬막 모패단지 5개소 및 모패 9,901kg 살포, 해삼 49만 5,000마리 방류, 바지락 환경개선을 위한 모래 3,313루베를 살포하였습니다. 2년차인 올해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에 모패단지 조성용 꼬막을 5개소 138만 2,000마리 살포했고 9월에는 바지락 6개소의 서식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후 바지락 서식개선 환경지구예 모패 살포, 11월에는 9개 어업공동체와 함께 수산자원 남해본부, 충남 보령, 고흥 여호 어촌계, 보성 꼬막 한정식당 견학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2월에는 꼬막 유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관리위원회 개최와 함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외영풍, 대창 1, 2구 어촌계에서 당초 해삼, 바지락에서 해삼은 포기하고 바지락으로 품종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안어장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50억이 투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중 군비가 25억이죠. 시행사업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문취급 기관이기 때문에 목장사업은 그쪽에서 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현재 보면, 모든 사업들을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하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농어촌공사……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보면.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게 되면 부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데. 어떤가요,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여기에 보면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한 살포사업도 하고요. 그 사업비 내에 모니터링까지 같이 겸해서 살포를 했는데 살포를 중단하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보서는 걱정되고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항상 걱정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억을 투입해서 해삼을 방류

하고 모패를 살포하고 그랬는데, 무슨 모패입니까, 참꼬막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모패는 꼬막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참꼬막이 아니고 꼬막이에요? (예)
문겠습니다. 작년에 해삼 종묘 몇 g짜리를 언제 살포하셨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작년 가을철에 했는데 1 내지 7g 정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질병검사 같은 것은 다 해서 했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대중적으로 보면 7g 이하를 하게 되면 고기밥이 될 우려가 있고 그런데요, 이 표에 보면, 또한 봤을 때 올해는 해삼을 살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당초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해삼이 계획에는 들어있거든요. 용역과정 중이었는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수중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하겠다는 얘기에요. 책임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이 원인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사업계획은 당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해삼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작년에 살포했는데 금년 여름에 저희들이 공단하고 한번 해삼을 조사했는데, 여름철이라 (청취불능) 들어가면 거의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아마 어촌계에서 패류를 다시 바꿔 달라는 그런 건의

가 있어서요, 바뀌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청취불능)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 바지락은 서식지가 조건대 10M, 모래 벌에서 서식하고요, 산란 시기는 6월에서 9월, 주로 7~8월이거든요. 살포 시기는 봄, 가을입니다. 꼬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대 10M에서 벌 바닥에서 자라죠. 이런 부분 맞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꼬막 같은 것은 약간 물렁물렁한 벌에서 많이 서식을 많이 하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이 자료를요, 관심 있는 분한테 자료를 뽑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19년 9월, 12월로 연기됐는데, 그 부분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지락 같은 경우는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청취불능) 많이.....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살포 시기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12월로 연기되어 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살포 시기들요, 패류 같은 것은 추위에 강한 그런 패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시기는 겨울에 살포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겨울에도 큰 문제는 없는데, 11월이나 12월이나 살포하면 좀 그렇다고 해서 내년엔 하는 것이 어떨냐고 그래서요, 관리위원회하고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 시기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현재 꼬막 모패를 9,901kg 살포했는데요. 모

패면 어느 정도, 몇 cm이나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모패는 2cm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2.8dm 이상 아니고요? (예)

현재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 부분을…… 모패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그동안 동부해역에 패류자원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유생이 많이 발생해서 이 자원을 활성화시키자는 것, 이것이 주목적이고요, 특히 꼬막 같은 것이나 패류는 2년이 지나야 만이 유생을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 하에서 작년에 살포했기 때문에 유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 최종결과보고회도 나오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살포했기 때문에 생존율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는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이나 유생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공단에서 하지만, 관리나 이런 부분은 해당 어촌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어촌계에서요? (예)

옛날에 보면 참꼬막이랑 바지락이 많이 생산됐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끔 사내호 방류 때문에 폐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질의한 것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사내호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나름대로 보면, 군외면 일대에서 완도읍까지도 오거

든요, 사실, 이런 것을 잘 감지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수자원관리공단이 나올 때 같이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한……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올봄에는 김철행 팀장님이 나가셨죠? (예)

작년에 내가 물어보니까 전혀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 군에서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현장에서는 전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여러 번 나갔는데.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안 나갔다는…… 단장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관리위원회를 할 때, 최종보고회를 할 때도 저희들이 갔고요, 현장은 저희가 못 나갔습니다마는 관리위원회 최종보고회라든지,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면…… 그전에도 부군수님하고 저희가 군외면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본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전혀 안 나가고 있고 살포 시에도 안 나왔단. 그러던 올봄에는 김철행 팀장이 나갔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전에 보면 전 부군수님인 박현식 부군수님이 계실 당시 군외에 오셔서 저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불목분교가 폐교되면 거기예다가 전문성 있는 음식점을 하고 싶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위원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각 어촌계별로 나눠져 있어서 이것을 법적인 하나의 통합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율관리공동체를 저희들이 전남도에 신청해 놓은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공동 운영하는 것하고, 어촌계는 다르지만 동부권역 어촌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거든요. 동부 쪽에 보면, 군외 지역을 동부 쪽이라고 하는데, 그 쪽 부분에 소득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50억을 투자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고, 완전히 그 쪽 동부권에, 더 나아가 완도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부탁드립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고맙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음은 10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해조류 양식어장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생산한 후 버려지는 해조류를 수거하여 전복먹이 재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사업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전복 양식 어업인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가을철 이후 전복먹이 부족 시 공급함으로써 전복양식의 안정화 및 생산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절감효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는 해조류부산물물은 시중가격을 감안, 단가를 결정한 후 10~11월 중 양식어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해조류부산물 수매 확대를 과잉 생산에 따른 해조류 수급량 조절 및 생산비 절감효과 함께 전복먹이 부족 시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조류부산물사업은 양식어장에서 주로 버려지는 미역이나 줄기, 이런 것을 수거해서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또 그렇게 수거한 해조류부산물을 가을철에 전복먹이로 공급하는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바다에 버려진 미역이나, 다른 미역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해조류부산물사업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첫째는 바다에 버리는 미역을 못 버리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2차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춘분기에 전복먹이가 없을 때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목적을 2차

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항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요, 이런 목적을 벗어나서 염장미역을 사가지고 재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들려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잘 파악해 가지고 본연의 뜻에 꼭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금년 연초 군정 질의 때 현장에 나갔는데요, 미역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은 미역귀도 상당히 단가가 비싸거든요, 600원, 700원 이렇게 수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역줄기를 하려고 하면 미역귀 생산하는 미역줄기를 통째로 처내버리거든요, 미역 생산시기가 끝나면, 4월 초순경이나 4월에, 그러니까 거의 버려지는 그것을 수매해서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은……

○ 이범성 의원

아니, 얘기는 그런 부분인데, 일일이 그것을 수매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가지고 그냥 줄기하고 엽채까지 있는 것을 다 사다가 넣는다는 항간의 이야기가 많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없게 본연의 뜻대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부산물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어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보관량을 가지고 있는 금일하고 소안 수협에서 일단 각 어촌계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금년도부터는 전북산업연합회였다가 통보해서요, “이러한 미역 수매사업을 어민들에게 공급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신청한 사람들에겐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항간에는 어민들이 이것을 조달받는 사람들은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또 금일수협에서는 관리하는 것은 금일 쪽 사람들만 받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했는데, 금일수협에서 주는 사업은 금일수협 권역 내에 있는 어업인들만 공급해 주는데요, 보니까 완도부터 동부권역 쪽으로만 공급을 해줬고 이쪽은 공급이 안 돼서요, 금년에는 소안수협에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소안수협에서 이쪽의 것은 소안수협으로 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일 쪽에서, 금일수협에서 취급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가져가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화에 와서 달라고 해도 이미 다 정리가 되어 버렸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무성하게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에요, 올해 소안수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뭐 소안도에 있으니까 소안사람들만 준단다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보길, 노화 어업인들이 공평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하고 그런 유대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말하자면 신청한 어업인들 모두에게 다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저희들이 수협에다가 요구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전제조건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그래서……

○ 이범성 의원

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것 같이 해버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 이범성 의원

수협장하고 친하면 여러 차 받아 버리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라는 이것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동부와 서부를 꼭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완도군민들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공평하게 꼭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마 꼬리 수매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은 여러 번 다녀왔는데,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이랄까. 아니면 저질 다시마 1,500원에서 뭐 2,000원 미만 그런 다시마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다시마에 털이 올라서 상품화가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어민들이 놀기 싫다고 해서 말려 가지고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시마 꼬리 수매사업을 했던 것을 보면 2m를 1m 60으로의 규격하고 잔여 40cm를 유통하지 못하게 해서 이것을…… 다시마의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주요 취지였는데, 그것이 유통된다면 당초의 취지와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수협하고 유통되지 못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다시마가 어느 한때 단가를 유지해 주면요. 금일 쪽이랄까, 약산 저쪽들은 단가가 좋으면 엄청나게 다시마에 열정을 쏟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저질다시마가 유통됨으로써

원단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마가 자체적으로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그런 다시마를 생산하다 보니까 과잉생산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질다시마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없어져야 되는데 어민들은 단돈 한 푼이라도 번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마 유통,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요. 혹시 사업예산이 부족하다면 약간 증액이라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밀접하게 다뤄준다면 다시마 값도 하락을 많이 안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마 꼬리를 수매해 가지고 저장했다가 전복먹이 공급, 전복어가에도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가지고 꼭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저희들이 의원님의 말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옴으로써 해조류랄까, 전복이랄까. 이런 수산물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 많이 없어 가지고 안정된 그런 어업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다음은 12쪽, 최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스티로폼을 수거한 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

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양환경관리팀 7명, 이동식감용기 차량 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월말 현재 이동식 감용기를 11개 읍면 순회 운영하여 페스티로폼 총 6,500루베를 처리하여 이곳 4만 kg을 생산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용기 1대당 1일 이곳생산량은 180~200kg, 감용 처리량은 32~33루베입니다.

다음은 13쪽, 위탁처리와 연간 기준 비교분석입니다. 1년 기준으로 위탁처리 시 3억 9,6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감용기 운영 시 2억 6,5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결국 1억 3,020만 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먼저 감용 처리속도와 작업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 현지 주민 거주 인력을 채용하여 감용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어장정화선을 이용 읍면에 적치된 페스티로폼을 약산 우두리 적조방제창고 부지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감용 처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셋째, 자연산화된 페스티로폼은 감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친환경 이동식 소각기로 소각 처리토록 하겠으며 넷째, 이곳 생산 시에 압축시간을 단축 생산하여 폐플라스틱 유회플랜트의 원료용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페스티로폼 저감을 위한 정책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해수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처리 지원 요청하였으며, 이동식 친환경 소각기 1대와 운반용 차량 2대를 구입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생산된 페스티로폼 4만 kg를 위탁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식 페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과장님, 우리 군 바닷가 등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해양쓰레기라는 것이 오늘 처리해도 다음날 보면 조류에 의해 발생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우스개소리로 관련 공무원들이 쓰레기와 숭바꼭질을 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해양쓰레기와 겹들어서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앞에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용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로폼을 수거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갖춘 장비가 감용기 2대, 절단기, 호이스트 등 장비 소각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입비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량…… 장비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4억 예산으로 구입 중에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이게 2대의 양이죠, 9억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차량 2대가……

○ 최정욱 의원

거기에 따른 것이잖아요, 이 소각기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별도로 소각기가……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따라간 것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따라가는 것은 별도입니다.

○ 최정욱 의원

별도로 움직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뒤에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요, 감용기 차량하고 별도로 운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소각을 하나요? 감용기는

스티로폼을 할 것이고, 소각기나 이런 것은 다른 제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소각기는…… 이 스티로폼을 감용 처리하다 보니까 상태가 좋은 것은 바로 감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좀 오래된 것은 작업시간도 많이 걸리고 (청취불능) 이런 오래 되고 스티로폼에 붙어있는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각기에서 바로 소각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별도……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티로폼을 소각하기 위해서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을 추가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깨끗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감용기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소각기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2대가 같이 움직이는 것하고 똑 같죠.

현재 뭐 스티로폼 발생량은 파악할 수가 없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발생량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할 때 계산해 보니까 한 1만에서 1만 4,000루베 정도.

○ 최정욱 의원

뭐 이것은 정확하게 수치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용기 이후 처리한 스티로폼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루에 32에서 33루베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 최정욱 의원

과장님, 박인철 의원 할 때 했어요. 그것은 생략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감용기로 해가지고 완도읍면으로 다니잖아요. 읍면으로 다니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간, 예열시간, 어떻게 하고 그러면 과연 될까요? 설명서도 봤습니다마는 배를 타고 들어가는 시간, 출근해서, 가서 또 감용기를 예열하

는데 한 2시간인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한 1시간 걸리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한 20분 정도.

○ 최정욱 의원

20분이요. 저번에 1시간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겨울철에는 한 30분 정도 하고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켜놔서 종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20분 정도 내외로 예열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솔직히 감용기 운영하면서 수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리는 차량 2대를 했는데, 5~6회 정도 AS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전부 본사에서 와서 AS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수리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정욱 의원

보통 우리가 한 달 작업하면 며칠 수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리하는 것은 자체 수리, 자질구레한 수리고요. 올봄에 종전 시스템에 있던 압축링이 압축이 많이 새서 이것을 팽창식으로 교체했을 때 2,000만 원, 그것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잉곳을 하나 생산하는데 8분 정도 걸렸는데 그것을 교체하면서 6분 정도 시간을 단축해서 작업능률은 많이 향상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 최정욱 의원

우리가 지금 4월부터 했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몇 월부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됐습니다.

4월부터 한 것을 보면……

(자료를 들며)

이것이 작업일지거든요, 운영. 그런데 4월부터 5, 6월 3개월을 보고 그 뒤로는 내가 안 봤어요. 평균치 3개월을 내가 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3개월치를 봤는데요, 이렇게 3~4일 일을 하면, 이틀이나 3일 일을 하면 3~4일 이상 수리해요. 작업일지는 거짓말일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11일을 했더라. 거의 10일, 11일 아래요. 3개월 동안, 나머지가 다 수리예요, 거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그 시즌이요, 의원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4, 5, 6월이 압축팽창을 팽창식으로 바꾸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4월, 5월, 6월에…… 그러니까 차량 2대를 그때 당시 바꾼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아무래도 작업시간이 좀 적어졌다고 저도 인정하고요.

최근에 그런 문제가 거론돼서 9월부터는 어떻게 됐든 현장에 도착을 9시까지 하는 것으로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서 9시까지 현장에 도착하고요. 그 대신 일찍 들어간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업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작업은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기계는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기계도 개선되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절대 저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조하는 쪽에 내가 옆을 통해 들어봤는데요, 저것이 고장이 안 날 수가 없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저희들이 뭐냐, 팽창식으로 바꾼 이후에 그렇게 큰 고장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썼던 신안군은 10년이 되어서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시스템의 어떠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 1년 근무…… 우리가 돌렸지만, 가동했는데 현재 큰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고요.

○ 최정욱 의원

감용기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생각이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최정욱 의원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왜 이것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친환경 부표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스티로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친환경 부표사업을 공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냐면 기존에 썼던 스티로폼을 100% 반납하는 조건 하에 친환경 부표로 변경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거한 것이 대략 한 15만 내외가 돼요, 수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감용기 차량으로 말하자면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장이 이제는…… 저렇게 작업일지에 본 것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다가 기기 조작을 잘못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적으로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다.

○ 최정욱 의원

확실히 뭐…… 그렇다면 본의원이 조사한 것

하고 다르니까.

제가 보는 것은, 사실은 감용기 때문에 세 군데에 민원을 받아서 갔거든요. 첫째가 기계가 있는데 놓고 있다. 일하지 않고 그것은 뭐냐면 출근을 해서 예열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예열이 뭐 한두 시간…… 9시에 출근해서 어찌고 하면 오전에 잠깐 1시간 하고 만다고 전부 그렇게 말을 해서요.

지역에서 “한번 의원님이 와서 보세요.”라고 전화가 와서 보길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여기 자료 올려질까요, 자료를 한번 올려볼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그때 보길도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현장에 그때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여자들이 한 8명이 있고 총 12명이 작업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4명을 한다는 말은 전혀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간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도 스티로폼을 좋은 것으로만 아줌마들이 추려터구면, 추려주니까 4명이 그것을 넣는데. 오전에 가는 시간을 보니까 그동안에 해냈던 시간…… 우리가 11시 좀 못돼서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양을, 우리가 갔는데도 그 정도 양을 해냈으면…… 내가 양은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렇고요.

또 두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시시오.

여기는 망남리인데요. 쓰레기를 주웠는데, 스티로폼하고 해서 한 15일 동안 해변에 쌓아 놔다. 그런데 차는 무슨 큰 차가 3일이나 와서 하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쓰레기는 그대로 쌓여져 있지. 차들이 왔다만 간다. 의원 동네에서 이렇게 놔두고 있는데 와서 좀 치워주라.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죽겠다고 해서 내가 의회 직원들 하고 갔어요.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인데. 스티로폼이 거기에 산처럼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처리해 놓은 것은 두 자루예요. 3일간 해서 두 자루를 해놓은 거예요. 과장님, 두 자루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서 계산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그러니까 3일 동안 두 자루. 참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럴 것 아니예요. 산처럼 쌓여져 있는데 차는 왔다가 가면서, 3일 동안, 해놓은 것을 보

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필요한 것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얼마…… 작업하는 시간도 안 되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이거든요. 줄어들지도 않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또 세 번째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재활용한다고 해서, 쓴다고 해서 저것을 동그랗게 압축해 놓은 것이거든요. 저것도 뭐냐면 조금씩 나오니까. 한 번에 그날 나와서 재활용한 것을 처리하면 좋은데 못하잖아요. 양이 적으니까. 그렇죠? 양이 맞아야 가져간 상대하고도 할 것인데. 그것을 또 바다에 쌓아놓으니까 바람에 날리고 뭐하고 저렇게 또 다시 바다에 떨어지는 저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면 우리가 감용기를 하는 것은 현장에 가서 바로 그런 것을 수거해서 바로 처리하지는, 참 이론적으로는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취지로 처음에 출발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또한 두 번째, 지금 보면요. 1년에 약 1억 7,300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거든요. 감용기를 이용해서. 이것 정확하게 수치를 빼보셨습니까, 과장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가 7,200루베를 처리했을 때요. 이것이 루베당 5만 5,000원 정도 위탁 처리비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같고요. 이 7,200루베가 공무원들이 1년 동안 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양이 7,200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했을 때 소요 예산이 지금 한 2억 2,5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7,200루베라는 것은 우리가 감용기에서 실질적으로 처리는 안 해보고 대강 수치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닙니다. 4만 루베인데 이것을 루베로 계산하면 한 6,500루베 정도 되거든요. 연말까지 되면 우리가 7,200루베 정도는 처리할 것이다. 9월말 기준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7,200루베 정도 처리했을 때,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결과 값

을 얻었던 것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7,200루베를 위탁 처리하고, 아니면 감용기로 그것을 처리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빼자면…… 나도 자료를 정확하게는 안 해봐서 과장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본의원이 보서는 그것은 수치하고는 전혀 계산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안 맞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작업하는 것을 본 것하고 잘못 봤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수궁합니다. 수궁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작업시간이 초창기에는 4시간, 5시간이었던 그런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되더라도 아침 일찍 좀 나가고, 그 대신 우리가 시간외수당을 줄 테니 그렇게 하자고 직원들과 협의해서 9월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러면 하여튼 과장님, 전혀 문제가 없네요? 나도 그 뒤로는 조사를 안 해봤어요. 우리가 그때 민원을 받고 이런 조사는 아마…… 그 뒤로 우리가 못 봤다면 8월, 9월 그 뒤로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9월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요, 그 뒤로 개선이 전반적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랬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때 볼 때는 참 심각했거든요, 저것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도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 출퇴근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못했는데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

신 대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좀 당부해서요. 직원들이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최정욱 의원

의원이 그 민원을…… 현장 세 군대를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오라고 할 정도면,

또한 우리가 읍면 순회할 때도 했지만 쓰레기 이것 가지고 난리거든요, 쓰레기 좀 어떻게 처리해 주라고, 그런데 쓰레기를 모아서 거기에 놔두는 것도 2차 문제거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냥 버려 버리고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남도에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페스티로폼 쓰레기 집하장을 지원해 달라고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최정욱 의원

지금 우리 군에는 스티로폼이나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있죠? 처리하는 공장이 없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중간처리장만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중간처리요? (예)

원 처리업체가 여기에 못 들어오는 이유라도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아마 군 단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런 업체가 들어오면 좋겠네요, 우리한테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좋다고 봐야

조.

○ 최정욱 의원

그래서 감용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9월 이후로 완벽하게 잘됐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제가 말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현장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쌓아놓으니까 2차로 쓰레기를 쌓아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위탁 처리를 하면 바로 그것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장이 깨끗할 것인데, 그것을 감용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해변에다가 쌓아놓으니까 2차적으로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쓰레기는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어선협회에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자기들이 제안을 하나 하더라고요, 쓰레기에 대해서, 완도항에 들어오기 전에 바지 하나 있으면 어장을 하다가 걸리는 쓰레기가 엄청 많대요, 하다 보면.

그런데 말은 아까 박인철 의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쓰레기를 우리 해양쓰레기 제로화 사업, 그것을 어떻게든지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하는데 정작 할 수 있는 대안은 만들 어놓지도 않고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은, 자기들이 그 쓰레기만 안 버려도 엄청나다는 이야기에요, 다시 걸러온 쓰레기가, 그러면 와서 가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을 집하장에 내려놓고 우리가 들어오

면, 그것을 군에서 처리하면…… 그 쓰레기만 줄어도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번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제안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조업하다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최정욱 의원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협에다가 저희들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업하다가 발생한 쓰레기를 일정 크기의 마대를 보급해 주고, 그 마대를 가져오면 마대 크기에 따라서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돈을 지급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제 자기들도 잘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오면서 자기들이 그냥 내려 버려야지. 거기에 오기 전에, 대기 전에, 대서 귀찮게…… 그것을 인수인계하기 귀찮으니까 다 버려 버린대요, 그런 제도는 있어도 자기들이 귀찮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편하게 해줘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얘기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면 어디 바다에다가 띄워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최정욱 의원

그렇죠, 바다에다가 완도읍에 들어오기 전에 바다 어디에다가 띄워주면, 거기에다가 해주면 자기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들어오겠다는 얘기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한번 검토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봐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한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 배가 한 300척되더라고요. 300척이 조금씩만 가져와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안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수 그런 말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아까 박인철 의원님이 다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질문답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추진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배경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하여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해조류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신지면과 청산면에 올해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182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

바이오연구단지 조성 등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합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은 해양치유 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 등 5개의 단위사업과 18개 세부사업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추진내용은 해양치유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 등 5개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이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부지 확보 여부입니다.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기반조성 부지로 1만 283평을 확보하였으며, 기후치유 및 문화치유센터 시설 부지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내 군유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확보는 차질 없습니다. 이어서 연도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사업계획입니다. 바이오연구단지 기반 구축 등 9개 하드웨어 사업과 블루밸리파크 연계사업 등 9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사업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발전투자협약을 마련하여 관계부처를 확정하였고 지난 6월 중앙부처, 전라남도, 우리 군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관계기관 회의 개최, 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에 따른 기상청 업무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해양바이오 육성세미나 개최, 해외 선진기술 교류를 위해 프랑스 모홀레 연합과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실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후 내년 초 세부사업별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 세부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질문은 없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세심하게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다음은 6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기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치유자원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자원을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해양치유법 제정,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양치유산업 전반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우리 군 부담금 4억 원, 총 51억 원의 사업비로 해양수산부와 4개 선도지자체가 고려대 해양치유 연구단에 R&D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은 1차 연도 기초연구, 2차 연도 실용화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3차 연도는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표준 모델 개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해조류를 활용한 연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4개 선도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해양자원과 해양치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대상품목과 임상실험 결과 및 성과입니다. 2018년도부터 실시한 3건의 세부과제 임상실험 결과는 지난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 설명을 드린 바 있어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한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결과는 고려대 사업단에서 올 11월 중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료가 확보되면 의

원님들과 곧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치유산업 연구개발사업 활용 및 산업화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신뢰 구축과 미래의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과학적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매뉴얼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치유자원의 생산과 안정성, 품질관리를 위한 해양치유관리단을 구성하고 해양치유지구 지정 등을 통해 국내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추진상황입니다. 해양치유 전문인력은 해양치유사와 해양치유지도사로 구분됩니다. 해양치유사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해양치유 요법을 시행하며, 해양치유지도사는 해양치유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인력 지원 자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부의 인력양성 및 추진일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해양치유사 및 해양치유지도사 교육에 필요한 교육교재 집필을 완료하고 점차적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격시험, 자격증 발행 등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2022년에 해양치유사 및 치유지도사가 양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2021년 해양치유센터 운영을 위해 국내 및 해외 해양치유 관련 유사 자격증 취득자를 사전에 선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치유센터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단장님께 많은 것을 질문하였기에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기초연구와 표준사업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실행사업을 추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구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기초연구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 연도에는 해양치유산업 여건 분석이라든가, 법률 초안, 지자체 선정 등 기초연구가 있고요, 2차 연도에는 실용화연구, 아시다시피 해양치유산업 기반 마련이라든가 협력 지자체 비즈니스 개발 모델, 연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예, 관련된 제정 법률과 자치단체별 모델 개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도군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준화 사업 모델이 무엇인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델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준화된 매뉴얼을 가지고 수요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해양치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동안의 계획대로 로드맵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 사업화 모델은 금년 중에 완료될 것이고요,

하여튼 우리 군이 선도하고 있는 모델이 대한민국 해양치유산업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 만성골반통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쭙보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조류 섭취가 부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은 전남대 박용주 교수팀이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만성골반통 환자에게 해수치유 단기효과는 고대 안산병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해수탕과 머드팩, 해조류팩을 이용한 치료효과 연구도 고대 아산병원에서 과업수행을 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답변서를 제가 세심히 체크하니깐요,

지금 5일 내지 19일 정도 실험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는데, 신뢰할 수 있다고 보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임상실험 기간이 그렇게 표시됐습니다마는 시험기간이 끝나고 약 2주간의 해조류 추가 섭취 또 이런 것을 이행해 가지고 3개월 뒤에 대면 채취라든가 채혈을 검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찰을 해서 나온 연구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답변서 책자를 봤을 때는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랄까, 이런 부분들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현장에 와서 조사를……

○ 이범성 의원

현장에 와서 그 사람들 몇 몇을 불러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대상군, 대조군이 있고 나눠서…… 저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 아닙니까. 뭔가 완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해조류를 가지고 사업화를 만든다는 그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몇 몇을 데리고 그냥 물어보고 어떻게 검사 좀 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은…… 임상실험 같은 경우는 최대한 2년 정도 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는

데요. 와서 처음부터 불과 몇 명씩 데리고……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어떤…… 이런 기본적인 밑바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산업화되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분명한 많은 관심과…… 또 열성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용화 연구 개발사업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까지 치유센터가 건립된다고 합시다. 건물만 있어 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그런 것이 실용화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것을 검토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데에…… 너무나 멀리만 보고 쌓아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완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것들…… 완도에서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요. 해조류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마, 미역이나 헐값에 판매되고 그래서 어민들이 모두 “죽는다. 죽는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만 되어 버리면 완도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특별하게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리고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산업을 얘기할 때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단장님께서도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께서 여쭙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수님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완도사람들 다 앞으로 이런 데에…… 노는 사람이 없이 다 채용할 수 있겠고, 우리 지역민들은 그냥 뜬구름을 잡고 있는지 전부 다 들떠있는 그런 사향인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전체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의원

아니, 지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치유센터가 건립되고 뭐 병원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가가지고 나는 운전사를 하겠다, 수위를 하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주 완도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일자리 부분이 인구정책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만 나오면 인구 땡이잖아요. 인구 뭐 사방에서 다 와버리면 완도 인구 10만은 금방 되어 버릴 텐데.

그러니까 아직 공포가 안 났습니다마는 해양치유관련법을 보면 치유사 또는 해양치유지도사가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들이 전문인력인 것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렇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유사 자격증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기후치유프로그램 강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이런 자격증을 받은 강사들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해양치유산업은 50시간, 해양치유지도사는 70시간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치유센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 이범성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등용해야 되는데요.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거 참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생각만……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우리 인력이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완도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명을 모집한다고, 뭐 20명을 모집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가지고, 전 지역에 홍보 좀 해가지고요. 놓고 있는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는 전문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치유사도 되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신경을 써주실 것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실험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4억을 들여 가지고 51억, 해수부까지 해서 51억 투자된 것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우리와 관련된 해양치유자원 해조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또 다른 지역의 해양치유자원들도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서요, 그러한 임상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치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것은 해양치유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다 해왔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 해양치유와 관계없이 다 해오고, 사우나 같은 데에 가서 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 40억을 들여 가지고, 4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 임상실험을 한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했는데…… 세 가지는 작년에 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임상실험의 대상자는 누구였고, 기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 관련된 대상자들, 그다음에 대상자와 대조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해 가지고요, 관련 팀들

이, 교수 팀들이 그 지역에서 선발해 가지고 왔고, 또 기후치유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신지면 주민들도 협조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한 2년 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 2년은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내가 아까 단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프랑스 출장 때문에 못 갔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세미나를 했던, 고려대학 교수가 발표했던 것을 입수해 보십시오.

그런 용역을 가지고,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과연 군수님이 말한 백년 먹거리라고 한 그것이 맞는가, 다시 한 번 입수해 보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분들도, 용역하시는 분들도 내가 정확하게…… 저도 못 봤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의아해 하고 있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는 해양치유가 백년의 먹거리라고 그러고 맨날 해양치유, 해양치유만…… 전사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임상실험을 한다면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결과물이 나올 것인데, 단 며칠, 몇 개월을 해가지고 어떤…… 그리고 그 임상실험을 고려대학교 교수가…… 완도 기후 아닙니까, 바다 아닙니까, 완도 해수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완도에 내려와서 연구를 해야지, 도시 뭐 서울에서, 안산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무엇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 대상 질환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후…… 군수님이 말하고 과장님도 말하고 단장님도 말한 것은 완도 치유, 완도 기후치유, 자연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나면 이 정도의…… 세 가지를 내놓고 이것으로 임상실험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무슨 해양치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듣던 것하고 답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저랑 프랑스에 갔다 왔죠? (예)

그러면 뭐 해양치유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때는 사정상 여러 가지를 체험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 박인철 의원

아니요, 로스코프하고 노르망디하고 갈 데는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청취불능)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화의약이지, 해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유럽에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우리가 수궁이 가는 정도로 내놓고 해야 우리도 “아, 이런 것이 해양치유구나.” 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너무 답변들이 동떨어져 있어서 내가 질문지를 들었습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하여튼 12월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과장님, 출장 때문에 못 갔는데요. 한번 이번 에 세미나한 것을 입수해 가지고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해양치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경영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9월 29일 미국 LA 시장개척단 수출계약 물량 첫 선적식을 오는 10월 29일 오전 9시30분 농공단지 홍일식품 앞에서 의장님과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적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선적 물량은 해조류 가공식품 총 8종에 약 4,000만 원어치의 물량입니다.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적식이 끝난 이후에 신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셔도 시간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어서 오후 2시30분에는 군청 민원인 대기실에서 미국 울타리 USA 홍보부스 운영 사업 설명회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도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어산업 생존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식현황 및 실태입니다. 완도 어류양식은 191어가에 120헥타르 규모로 양식 중이며, 연간 1만 2,888톤을 생산하여 1,5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중 광어 양식은 151어가에서 연간 9,800여톤을 생산 1,200 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동향은 500g은 8,000원, 1kg는 1만 1,000원, 2kg는 1만 2,000원으로 제주산 광어에 비해 평균 2,000~3,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17년에 2,688톤, 2018년에는 2,475톤이며 수출국은 76%가 일본이며 제주산 광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1위가 연어로 1,560톤,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민

어, 돔, 농어, 방어 순으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광어 양식산업은 2018년 상반기 이전 호황기를 틔타 타 업종에서 광어 양식으로 전환, 시설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개선 사업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폐사율이 감소하고 생산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선어 횡감용 연어 수입 및 일본산 방어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가격하락은 물론, 광어 소비를 급감시켰으며 2018년부터 다양한 어종이 수입되면서 총 수입량이 우리나라 광어 총생산량 4만 톤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 해소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선어횡감용 연어 및 방어 수입수산물의 통관검역을 강화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였으며, 활어회 중심에서 선어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지원도 확대해 주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어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C 인증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친환경 광어 생산 공급을 위한 질병예방 백신공급, 항생제 잔류검사, 쿠도이충 검사 확대 등 광어산업의 기반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광어 소비촉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국내 판촉행사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단에 광어 양식 어업인들도 직접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품종의 다양화로 동반성장을 시키기 위해 조기와 새우류 등으로 전환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활어회 중심에서 선어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선어회 가공공장과 사료 저장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사업비 총 75억 원을 전남도에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 후 항체생성 확인체계 구축으로 백신효능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도록 성과배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 12월까지 광어부문 ASC 심사 기준을 심사기관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년층을 상대로 활어회가 아닌 선어회로 즉, 트렌드 지수상승 유도 등 핵가족 및 혼술·혼밥족을 겨냥한 편의점 1~2인용 횡감 개발과 가공식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어

산업 생존전략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수산업이 대부분 다 어렵죠. 그나마도 경쟁력 있는 광어산업까지 흔들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격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사진 한 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이 지금 현재 가격 단가입니다. 한 4~5년 전의 일이, 악몽이 생산어가에서는 아주 그냥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 그런 가격대로 하락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도 광어 양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만 있을 시기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현재 표를 보시다시피 가격대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서는 현재 광어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둔화와 외국산 연어 및 방어 수입이 늘어나는 데에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으로는 2018년 이전 광어 가격 호황기를 틔타 시설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또 행정에서는 에너지 절감장비인 히트펌프라든가 인버터, 액화산소, 이런 경영비 절감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성량이 대폭 증가하여 과잉 생산된 것이 가격 하락의 요인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과장님, 답변을…… 참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생산어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산량이 좀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대가 하락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수입생선들 때문에 하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회의 대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야 있겠지만 가격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썩 헛감은 아니에요. 현재 광어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한 내용은 선어획감용으로 연어나 방어 수입수산물의 통관 검역 강화를 건의했다면 거기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연어와 방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결과 부분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해수부에……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입제한 또는 검역을 강화해 가지고 차단을 좀 시켜 달라고 건의했습시다라는 이 사항이 사실상 국제협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요. 그러나 완도나 이렇게 수산군으로서 그런 대응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완도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나 이렇게 취해져 있는 현상을…… 현재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강하게 한번 어필할 만합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방금 답변 내용에서 ASC 국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과정이라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사전에 광어 부분에 있어서 국제 인

증 추진을 위해서 심사기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광어 양식부분에서 제일 접근하기 어렵다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으로 산어 부분이 제일 먼저 거론됐습니다. 완도 같은 경우는 생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생사료의 대부분은 어류가 (청취불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요. 그 부분을 그냥 놔두고 있으면 되겠느냐, 어떤 해결책을 심사기관에서 마련해 달라. 그래야 우리 광어에 대해서도 국제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광어 양식산업을 탈피하고 싶다는 내용을 적극 권장……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창 연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래요,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서에 보면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양식장 자동화 급여를 계속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내놨어요. 완도의 현재 양식기술하고 이 부분이 맞다 생각하시는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접목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이런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적, 공간적 노력 절감 등 여러 가지로 이득이 된다. 아마도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광어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이고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꼭 나쁘다는 이 뜻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 한 가지라도 있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수출 계약이라든가 MOU를 체결한 그런 실적

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시장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파악하고 광어를 수출하려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 또 해외바이어들과 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나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갔다 와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을 많이 표시한 것을 봤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과장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양식협회 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같이 간담회도 하시고 또 어민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지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지역이 발전되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를 피하다 보면 오해만 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생산어가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유망 양식품종 중에 조기류나 새우류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몇 가정이나 이렇게 유도되어 있나요, 실적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조기류하고 참조기는 그래도 다섯 어가 정도는 하고 있고요.

○ 부의장 허궁희

광어 양식에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완전 전환은 아니고요, 일부를 지금……

○ 부의장 허궁희

아니, 그러니까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새우도 한 다섯 농가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조기류 이 부분이 이렇게…… 치어 대금을 약간 보조해 주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아주 소량이어 가지고 일반 어가들이 한두 개씩 실험해 보고 싶어도 공급을 받지 못해서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아마 이런 부분은 어가들이 많이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지 마시고 희망어가를 받은 후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그런 제도를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참고로 정도리에 있는……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도리 종묘배양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군하고 MOU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기종묘 생산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계시고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지금 어가들에서도 상당히 여러 각도로 광어에서 탈피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그중 일부 어가에서는 다른 고기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빨리 입수해서 어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물으려고 합니다. 신세대 청·장년층을 겨냥한 선어회로 청년 트렌드에 맞는 선어회 참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저한테 저런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어민들도 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꼭 추진해서 이 어려운 광어 양식 어가들한테 희망과 힘이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꼭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런 사업 건의를요. 전남도에 방문해 가지고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방문해 가지고 사업을 건의 하고요, 또 전남도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만, 서부어류양식수협하고 광어 양식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들이 대부분 자부담을…… 30%에서 40% 정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 자부담이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고, 자부담을 부담하는 측에서 운영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도 서부어류양식수협이라든가 광어 양식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아마 어렵다 보니까 고심이야 당연히 하겠죠. 과장님이 파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적은 액수 같으면 몇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겠지만 금액이 크다 보면 그것이 선뜻 어려운 일 아닙니까.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어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까지 이렇게…… 내년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적극 대처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4쪽,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ASC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SC 등 인증 배경입니다. ASC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성장하는 수산 인증으로 안전하고 이력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임을 보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ASC 인증은 양식업자와 환경, 지역사회, 유통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효용을 주는 인증으로서 완도군의 수산물 ASC-MSC 인증을 계기로 책임 있는 어장 환경관리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 수산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 및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ASC, MSC와 같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국제 인증 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인증 후 활용실태 및 활용실적입니다. 현재 완도군은 2018년 8월 30일 책임 있는 친환경수산물 생산 선포식 개최 이후 홍콩 일슨그룹과 수출 및 홍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식회사 청산바다, 주식회사 올가홀푸드와의 국제 인증 수산물 생산 확대 및 인증 수산물 유통망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지난 9월 19일에 체결하였습니다. ASC 인증 전복의 총생산량은 약 200톤 정도로 주식회사 올가홀푸드, 파크하얏트 등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호텔 등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전복 2기 15어가에 대해 본심사 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1일 ASC 전문가를 채용하였으며 현재 ASC 전문가가 전복 3기 198명과 해조류 ASC-MSC 신청어가 106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금후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책

임 있는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을 받기위해 해조류와 광어 품종으로 확대 추진 중이며, ASC-MSC 추진해역에 대한 퇴적물 및 수질조사를 남해 수산연구소에 의뢰하여 106개 정점을 조사 완료하고 제3차 52개 정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완료된 106개의 정점 자료는 전복 1기 14어가의 인증 사후 심사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ASC 국제 인증에 대한 사전 준비 비용 심사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커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증획득 이후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증 품종에 대한 판매 이득이 적으며 인증품종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인 COC 인증획득 업체가 주식회사 청산바다밖에 없으므로 관내 전 유통업체에 대해 COC 인증을 획득토록 적극 권장함은 물론, 어업인을 상대로 국제 인증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ASC 등 인증 추진 및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ASC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의원님께서 ASC 1기 어업……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제가 1기 어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14개 어가 중에…… 선포도 하고, 인증도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ASC 인증을 받은 어가 자체를 군 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전복 1기 인증을 받은 14개 어가는 당초

추진을 청산바다 주관 하에 ASC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ASC 인증 제품을 수출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또 COC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COC 인증도 청산바다밖에 관내에서 받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바다 한 업체로 국한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선포식을 하실 때 10%까지 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2021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맞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것이 가능할까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최대한 ASC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요, 2021년까지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타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아마 진도, 신안, 경상도 통영 그쪽으로 한 8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알기로 부산에서도 MSC 인증이 금방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단체보다 늦은 것이 완도입니다.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제일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올려줘 보십시오,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중국입니다. ASC 인증을 받았습다. 그러니까 보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완도

군이 타 단체보다 늦고,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완도군은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더 이상 이 ASC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또한 대외적으로 해서요, 저는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1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인증 어가도 확대함과 동시에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죠? (예)

비용이 사실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더 힘든데 군 자체적으로 하면 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와 도와 연계를 많이 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가지고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지자체로 하기는 좀 벅찰 것입니다, 아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출연기관인 한국수산업다가가 이 ASC 인증 관련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양…… 한국수산에서 ASC 인증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양식 어업인 13어가도 한국수산에서 추진한 ASC 인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번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것 심사를 다시 하고 하거든요, 서류심사라든가.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8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광어, 전복 등 수산물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화된 물류 시설 부족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수집, 보관, 선별, 포장, 선적에 이르는 이동과정을 거치다 보니 수산물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죽은 전복이 늘어나는 등 수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진적인 수출유통망을 개선하고 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출산업으로 키워 우리 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어업인의 실질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어와 선어를 병행 취급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에 추가로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위치는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축면적은 3,513㎡ 규모로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국비 25억, 도비 5억, 군비 25억이고,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 수조동, 급속동결시설, 냉동 냉장시설, 사후면세점 등을 갖춘 계획이며 이중 급속동결 장치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비 1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20억 원으로 별도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8월 9일에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 참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8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작년 9월 17일부터 올해 4월 10일까지 4차에 걸쳐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과업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올해 5월 27일 공사발주를 실시하여 6월 19일 공중별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별 추진사항 점검 및 감리보고를 통해 건립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순기 내 시험가동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도 연내에 착공, 센터와 함께 완료토

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주체인 가칭 수산물 수출협동조합의 설립도 서둘러 물류센터 완공 이후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세 부적인 운영계획입니다. 물류센터 운영주체인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은 전복수출 협회, 전복유통협회의 회원사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10쪽입니다. 운영은 위탁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협의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총사업비 55억 원의 0.7~1% 내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타 지자체의 수산식품거점단지 임대료를 참고한 내용입니다. 운영비 확보 방안으로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입주업체들이 수산물 수출액 중 일정 금액과 포장재 공동구매 등의 수익금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동결 및 급냉 수산물에 대한 HACCP 인증 계획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내에 HACCP 기준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급속동결장치시스템과 급속 냉동창고 기능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전 진행절차인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어항구 지정에 따른 건축 허가기간 연장, 주변 수산물유통업체 인수라인 관련 민원 그리고 잦은 호우와 태풍, 관급자재 납품 지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이 없는 한 사업 순기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매우 느리네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왜 이렇게 부진한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본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가지고요. 설계과정상 전남도와 심사과정에서 많이 수정, 보완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유통업체의 인수라인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올해 특히 많은 비와 태풍이 여러 차례 옴으로써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부진한 그런 이유입니다.

○ 이범성 의원

금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했죠? (예)

지금 봤을 때 가능하겠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최대한 끝내려고 합니다. 다만 일기라든가 관급자재 공급이 좀 순조로우면…… 어떻게 하든 끝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인근 유통업체들이랄까, 식당하고 인수라인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해결됐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시행이…… 공사에 차질이 많이 온 것 같아 가지고요. 더군다나 보고서에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올해는 유독 태풍이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늦어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 순기를 넉넉히 잡고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추진 운영과 기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먼저 수산물물류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1층에는 전복수조를 한 10개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광어수조를 1개 해가지고 수조동을 11개 정도 설치하고, 또 별도로 해협 시설을 갖춘 급속동결장치시스템을 1층에다가 전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센터 사무실이라든가, 사업홍보시설, 사업면세점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의원

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운영주체입니다. 운영주체는 방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유통협회, 수출협회, 남도유통하고…… 그 부분에 국한되어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요, 폭을 좀 넓혀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뜻이 있는 어업인들로 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건물은 연말에 가능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주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공백이 없도록 잘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임대방식으로…… 가칭 수산물수출협동조합에다가 임대 형식으로 주는데요, 정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으니까 그 정관 안에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운영비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유통이나 수출이나 모든 업체들이 과거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전복상자를 유통에서 샀었어요, 그런 것을 공동구매해서 거기에 남은 부분을 가지고 임대…… 아니, 여기 운영 뭐 임대료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생산자로 넘어간 것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여기 계획된 부분들과는 다르게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도 관내에 가칭 수출협동조합,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돼요, 그러면 수출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수출의 몇 %를 사용료로 뭐 내고 쓴다든가, 이런 것이 운영방법 부분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초 해수부에서는 위탁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국비 25억을 10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씩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서요, 위탁은 아니고 우리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임대방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임대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문제점 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하여튼 과장님, 그 말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수출물류센터 건립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쪽 흘러왔지만 주식회사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론에 타깃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큼니다.

그리고 또 운영방법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운영이 안 되면

않으면 건물만 반듯하지, 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필요로 했던 사항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하게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론 질타의 첫 번째 대상이 수출물류센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잘해도 못한다, 언론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언론 과정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언론의 대상이 되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도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위해서 예측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이범성 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7개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같이 미팅을 몇 차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통 안 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잠시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요, 계속 추려 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또 모여서 다른 것을 도출하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지 않겠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늦어가는 것이…… 하여튼 세심하게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점 없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의원도 전복 유통과정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잉여를 목표로 하고 또 저런 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이 잉여가 없고 뭐하다 보면 또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

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속동결시스템을 갖추죠? (예)

냉동이 전국적으로…… 일본에서도 가져가고 있고 그러는데, 판매량 확보랄까, 그런 것도 신경을 못 쓰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아직 그것까지는 손을 못 뻗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완도 자체적으로 활전복 위주로 가고 있는데 수출물류센터가 이루어짐으로써 냉동 수출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20억이 투자되는 급속동결시스템에 대해 급속동결시스템의 기계 동결기랄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했던 업체들의 조언도 듣고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동결장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방문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이 대상국을 어디로 잡느냐, 동남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하느냐, 일본을 겨냥하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기계 자체의 효능이랄까, 선호도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해협 시설이 포함되지 않았죠, 설계 상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중간에는 전부 보완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 이범성 의원

해협 시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주로 전복이 일본 쪽에 꾸준히 수출되고 있는데, 2021년도부터는 해협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 냉동을 안 받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ASC, MSC 인증 관련해서 본의원이 홍보관 인증 지원센터랄까,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수출물류센터에 마련해 가지고 같이 호흡하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려고 전 질의 때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관리사무소 옆으로 해가지고 홍보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홍보하면서…… 동료이신 박재선 의원님께서서는 ASC 인증 부분들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 부분들이요, 청산바다가 혼자 인증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청산바다가 일본에다가 전복을 다 파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 그것 알고 계시죠? “ASC 인증을 받은 것만 일본에서 먹으십시오.” 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렇게 하면 다른 전복은 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ASC 인증을 못 받은 전복은 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일본으로 나가는 것이 한 천 몇 백 톤이 되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전체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ASC 인증을 받는 부분도 이런 공간에 활용도를 뒤가지고 뭔가 같이 대화하면서 다들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하여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수출에 대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

도 많습니다. 또한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산물수출물류센터죠,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한 40% 정도.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40%인데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일기가 협조해 주면 어렵게 가능하지 않을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급속동결장치, 이 부분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당초에는 광어하고 전복에 쓰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광어는 아직 수조 하나고요, 광어 양식협회하고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전복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런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 제가 아닌 완도군민이 본다고 해도 느끼는 부분이 임대절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하면 제가 본 느낌에서는 수산물물류센터가 전복을 위한 물류센터이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지금 광어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하고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그러니까 전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선어물을 할 때 급속동결장치를 광어도 하계끔 해줘라.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한자도 안 들어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앞으로 급속동결장치는 장치지만 또 저장시설도 갖춰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도 광어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릴 때 빨리 선어회의 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만이 급속동결시스템에도…… 광어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동결해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아니, 아까 허궁희 부의장님이 광어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부분도 마찬가지. 임대를 그러면 3개 회사에 바로…… 전체 임대해 줄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임대해 줄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수산물수출협동조합에다가 임대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조합이 설립되어 있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정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보면 한국전북수출협회, 유통협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회원사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지금 언뜻 우리가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전복을 위한 사업이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수산경영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12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복산업 유통·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복 유통·가공·수출 현황 및 실태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총 17개의 가공업체와 읍면 포함 247개의 전복 유통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에 2~3개의 전복장 수제 가공유통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복누리 외 16개 업체가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 수출량 약 940톤, 2,632만 불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물량 중 활전복이 90%, 가공제품 10%를 차지하고 있고, 나라별로는 일본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활전복의 주소비층인 45년~60년생들의 직장퇴직에 따른 소득감소, 저출산 인구감소, 지속되는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전복소비 둔화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육류와 농산물에 비해 전복이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해 경기침체와 더불어 소비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출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수출은 물론 ASC 인증을 받은 전복도 생산량 대비 수출판매량이 저조한 실정이며, 수입업체에서는 우리나라 전복의 원물가격이 높아 활전복은 물론, 가공제품까지도 거래를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품인 중국산과 저가인 남아공 등의 전복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과는 식품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일본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일본 수출량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국의 전복 수입규제에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유통전략

을 모색하기 위해 2018년 14개 어가의 ASC 국제 인증 획득 이후 인증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을 위해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시장개척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는 2기 15개의 어가에 대해 인증심사를 신청 중에 있고 제3기 198개의 어가에 대한 인증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주식회사 올가홀푸드와 우리 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 전복을 지속적으로 공급·판매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복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및 대도시 직거래장터 축제행사에 참여, 운영하였고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는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노화읍 청년회와 함께 완도 전복 소비 촉진 대국민 홍보 직거래판매행사를 개최하여 약 1.5톤의 전복을 판매하였습니다. 금주에도 국내 3개 지역에서 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해외 전복 소비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 홍콩에서 열린 WWF 지속가능한 수산업 워크숍, 홍콩 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상해, 미국 LA 등지에서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시장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여 피해사례와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군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의 향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중자 및 먹이구입량 절감, 관리선 유류비 절감, 전복먹이의 적정량 투입, 절·금식 확행, 노동력 투입 등 전복양식 경영비 절감방안에 대해 대어업인 지도 홍보를 실시, 원물가격을 낮추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수출대상국 다국화하여 수출품목 다양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전복 중심의 유통을 탈피하기 위해 전복튀김, 전복 종이컵밥 등 편리함과 간편성 중시한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윈스톱 수출기반을 구축하여 전복의 대외수출업체 지원과 ASC 인증 전복 판매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복산업 유통·가공·수출 강화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이범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동료의원들께서 하도 많이 군수님께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 단장님께도 물어보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철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 추진 중인 대형선단 수산물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의 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단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가동 중인 수산물수출가공공장 33개소가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협 인증을 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개소가 되고요, 전복의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건립되면 전복 수출을 주도할 것이며, 김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 44개의 1~2차 김가공공장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인근 해남, 신안까지 김을 사가지고 군으로 들어와서 가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가공된 김이 현재 일본 또는 중국 등지로 동남아까지 계속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미역하고 다시마, 톳이 염려되기는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조류 부분에서는 품질 향상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이, 가장 품질을 높이는 것이 자구책이고, 그러다 보면 어차피 대형선단도, 원물도 전부…… 가장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원물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제품을, 특산물을 안전성 있게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을 좋게 만들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다 우리 군으로 오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도 군수님의 생각하고 비슷하군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꼭 그렇게 마음만 놓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목포시에서는 대형선단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 부분에 심지어는 일반 유통업체랄까, 미역 가공하고 있는 업체…… 완도에도 여러 가지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이범성 의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그나마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스스로 살려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시고요, 꼭 군수님이 그렇게 분석한다고 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분석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손은 놓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군이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의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분석을 하시고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록

제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

부의된 안건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농업기술센터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6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군정 질문 및 답변(계속)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답변할 내용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 산업화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산업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은 기후온난화 적응 및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귤류 92농가 31.2헥타르를 재배 육성 중에 있으며 신품종 도입 및 신규과원 조성을 통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근 4년간 명품감귤 생산단지 조성 외 5개 사업 18개소에 시설감귤, 노지감귤 연구회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적응 과수 동해예방 및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을 위해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시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겨울철 동해 예방 생산성 우수 감귤품종 도입, 친환경 농자재 자가 제조 실습, 친환경 감귤 품질 고급화를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단위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향후 1 시군 1 특화작목 육성사업 확보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농업 투자 기피현상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귀농인 및 청장년 농업인 투자 유도 및 농업 자동화기술 도입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험작목 산업화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지역에 젊은 사람이 많아서 농업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해온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농업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요. 귀농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물어보시는데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일단 토지 같은 것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변에서 봐도 여건이나 조건이 갖춰줘야 그런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계획도 세울 텐데, 우리들이 봐도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있더라도 보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답변서를 보니

까 경쟁력 우위품종에 대한 시험작물로 노지감귤과 만감류를 재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감귤의 경우에는 재배면적이 제주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끔 우리가 뉴스를 접하게 되면 감귤이 수지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베어 버리고 다른 품종을 선택한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의원님들께 지난 번 군정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감귤은 지역특성이라든가 토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구매해 가지고 집에 보관해 놓으면 일주일도 넘기도 전부터 썩어나갑니다.

그런데 완도에서 생산된 감귤 같은 경우는 거의…… 소안도 감귤이 유명세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관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 우월하고 월등하게 좋으면 시간이 지나면 완도 감귤을 찾기 마련입니다마는 그동안 홍보나 관리가 문제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품 자체가 소규모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품질을 고급화하고 균일화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소규모화……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군의 경쟁력 우위 품목으로 두 가지, 노지감귤하고 만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시험작목으로 이왕 선정을 하셨으니까 산업화를 추진하시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우리 지역에서 식재한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이렇

게 경쟁력을…… 앞으로 이겨낼지 아니면 무슨 다른 선택을 할지는 지켜 보겠습니다마는 기술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소장님, 간단히 물어볼게요. 소안 감귤……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쟁력이 좋다고 했는데, 그 껍질이 어떤가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니까 껍질이 좀 딱딱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개량됐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품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후환경 때문에 딱딱하고 잘 안 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험작목하고 연계해 가지고 부드러운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니까 당도도 뭐고 참 좋더라고요. 다만, 소비자들이 칼 때 그것이 아주 불편하지. 그것만 어떻게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과육하고 껍질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까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질문을 합니다마는 곧 올해가 되고 내년 예산도 들어가고, 또 직원 조직개편도 있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어떤 계획은 세우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인력관리부서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요. 공

정적인 답변을……

○ 최정욱 의원

다음에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지금 1년 4개월째가 됩니다마는 말만…… 1년 4개월 동안 흘러갔지, 제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또 농민들이 질문 할 때도 제가 답을 하나 해줄 것이 없어요. 뭐가 되어야 답을 하지.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우리가 답을 드릴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다음은 3페이지, 계속해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온난화 적응 아열대작물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대야리 시험포장에 애플망고, 레드베이버리 등 5종을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레드베이버리, 애플망고 등 3종을 신규 식재하여 지역 적응시험 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의 경제성은 낮지만 교육농장 및 농가카페 등으로 활용 가능한 커피는 품종별 재배방법 정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험 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아바, 아페모야 등 4종의 아열대작물의 경우 농가 보급 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시험 재배를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적응시험 작목에 대한 경제성 분석으로 우수한 아열대작목 선발 및 농가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열대작물 재배 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난방시설 및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며 소규모 생산 판매로 인한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 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작목 육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예,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작목으로 앞서 말한 노지감귤 외에 애플망고나 올리브, 커피 등 여러 가지 시험 재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방금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구아바라든가 아페모야 등 동남아 쪽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 다문화가정 쪽에서 약간 소비가 있습니다마는 소비 규모가 작고 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도 중단하고, 대신 난지과수연구소 하고 결탁해 가지고 레드베이버리라는 품목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소장님께서도 금년에 겪어보셨다시피 몇 년에 걸쳐서도 안 오던 태풍이 금년에 한꺼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후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하고 가까운 인근 해남이나 강진, 진도 이런 주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목으로 성공한 사례나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강진이라든가 해남 쪽에서는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육성해서 보급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귀농하고 있는 농가 한 분이 바나나를 완도예다가 접목해 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려고 합니다.

○ 부의장 허궁희

이렇게 뜻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선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먼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공모사업을 하려면 일단 규모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0.5헥타르, 1헥타르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요. 한 농가가 잘해봤자 0.2헥타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군비로 7 대 3 정도로 해서 지원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그런 계통에 뜻이 있는 분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연대에서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특히나 귀농자라든가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작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작목 변화를 못하고 있고요. 귀농자들을 설득을…… 혹시 하고 싶은 농가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권장합니다마는 일단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러면 시험작목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쪽으로 준비하고 있거나, 방향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잡고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산지원을 이런 쪽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요, 고령인 농가들은 정말 재투자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농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딱 갖다가 막상 주면 한 1년이나 2년 운영하다가 이것이 돈이 안 되니까 바로 손을 떼버리고 바다에 뛰어

드는 그런..... 해조류사업이라든가 그런 양식사업으로 뛰어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 부의장 허궁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 투자하면, 쉽게 말하면 자금 회전이 빠릅니다. 봄에 투자하면 가을에 소득을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마는.....

혹시 젊은 사람이나 귀농자 중에 대응작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묻거나 센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다면, 농업인이 온다면 하여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혹시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이렇게 많은 품목을 시험 재배하고 있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자 중에 혹시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자신 있는 것만 그래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게 많지 않은 농가에서 피해를 보게 되면 그나마도 이런 도전자가 안 생길 텐데,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다음은 4페이지,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용화 맞춤형교육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기술정보 및 실용화 맞춤형교육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운영,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찾아가는 영농현장 실용화 현장컨설팅 등 7과정, 1,624명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5개 과정 2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참여자 1,600여 명 중 여성 참여율이 25%이며 60~70대 교육 참여자가 63%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교육 참여현황은 고금, 완도, 소안, 군외 순으로 농업 비중이 높고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읍면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교육 수료 후 농업 참여현황 및 수범사례로는 창업농업교육 수료 후 귀농하여 목이 버섯 재배하는 농가, 꽃차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장미를 심어 체험농장을 운영 중인 농가, 농업인 대학을 재학 중이면서 전복노타리버섯, 노타리버섯 분홍과 노랑, 솔타리버섯을 재배 중인 농가 등 교육 수료 후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타리버섯은 농촌진흥청과 현장 실증실험 중에 있어 향후 농가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성 참여율 확대 및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활성화를 위한 읍면별 순회교육, 일반 여성농업인 대상 김치전 문가, 라이스디저트 및 완도군민 대상 소형기계 등 자격증반 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교육에서 경영 및 창업 교육으로 확대 운영하고 현장실습 위주의 학습지원 및 기술이전으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실용화 맞춤형교육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중식을 마치고 잠깐 완도타워를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국화전시관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감탄하고 왔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을빛축제장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 축제를 떠나서 거기에 전시해 놓은 그런 것은 정말 잘해 놓으셨고, 꽃을 가꾸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맞춤형교육을 7개 과정으로 해서 금년도에 24명이 참석했다고 하셨는데, 맞춤형교육 그 과목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농업인들의…… 저희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매년 추진하는 새해 농업인실용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교육 연령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60대, 70대가 63%도 많지 않습니까. 주로 고령층이 교육에 참석하는데요. 그것이야 우리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40대 이하 중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을 조사해서 교육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40대 이하 젊은 교육생들이, 어떤 특수작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교육을 매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선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와 농민들에게 왕복 여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도 교육, 도로 교육을 받으러 가면 왕복여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대단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섬에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으로 순회를 하시더라도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금 유기농유자연구회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생소한 단체 같아요. 유자연구회라는

단체가. 또 어떤 단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우리 관내에 고금을 중심으로 해서…… 금일이라든가 유자 재배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친환경, 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유기농유자연구회가 결성되어 가지고요.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차원에서 그런 친환경 쪽으로 가고자 하는 농가들을 육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판매가격도 보면 kg당 1,000원에서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일반재배 유자와.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일반재배 유자하고요? (예)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한 20~30명 정도.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20~30명이요. 대표가 xxx 씨인가요? (예)

아무쯔록 그런 좋은 단체를 이용하시고 실정에 맞게 맞춤형교육을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전문성 확보와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내용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실을 운영하고 그러시죠, 꽃차하고. 꽃차 자격증반도 운영하시고요? (예)

이번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고유음식 개발을 했죠, 이번에. 고유음식 개발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신 분들이요, 꽃차 자격증반 회원들이 조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일반인들도 조리실을 마음대로는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생활문화실은 완도군민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오픈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소.

그런데 물론 어떤…… 거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유음식을 개발하시는 분들이요, 꽃차연구회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리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마찰은 아니더라도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일이고, 또 1, 2, 3층 있지 않습니까, 조리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조정하면 그렇게 기본 나쁘게 하지 않을 일을 고유음식을 할 테니까 당산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더 쓰시고, 알아보시고요, 서로 같은 군민들끼리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전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혹시 아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했던 남도음식문화축제에 완도를 대표음식을 출품하기 위해서 우리음식연구회 회장이 한 달가량 회원들과 같이 음식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요, 건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2층 조리실을 활용하면서 꽃차연구회는 1층에서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도 잘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꽃차연구회가 오해하는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먼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치매환자 현황 외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현황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기준 완도군의 치매 유병률은 11.2%로 추정환자 수는 1,752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1,269명으로 경증 946명, 중등증 284명, 중증 39명입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에 의한 치매상담 및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 시 치매 정도 중증도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지 저하자의 경우 인지능력 강화를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내 인지강화교실, 투약관리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증치매 환자는 치매심터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매 정도가 심한 중등증과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집중사례 관리와 요양원·요양병원 등 시설 입소를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매 확진을 받은 어르신은 치매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족의 휴식과 정보 교환을 위한 가족카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증치매환자 중에서 독거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개별 문제 및 욕구를 파악한 후,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정상어르신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 내에서도 경로당으로 찾아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개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8년 12월

308㎡ 90평 규모로 보건의료원 부지 내에 신축 착공하여 올해 5월 완공되었고 지난 10월 10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및 프로그램실, 진단실, 상담실, 검진실, 가족카페이며 치매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 예방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신과 전문의가 치매안심센터에 내원하여 주민들의 치매상담과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치매조기검진 3,719명, 치매환자 사례관리 447명을 실시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1,836건에 6,9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치매환자 쉼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및 지문등록, 배회감지기 장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사업으로 신지면 임촌리 마을을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60세 이상 주민 대상 매주 1회 인지능력 강화교실 운영 및 치매어르신의 가정에서 정서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대일 치매안심관리사 활동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선도학교 지정, 치매선도단체 지정, 치매인식개선 참여인력 양성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입니다. 첫째, 치매 조기검진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인지저하, 경증, 중등증 등 각 단계별 맞춤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으로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 군민 치매 인식 개선사업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치매환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10월 10일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

에 따라서 치매 검증이라든가 예방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치매환자 사후관리 분야에서요, 치매 선도학교로 신지중학교, 또 선도단체로는 완도농협 신지지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 이유 말씀이십니까?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동안 보면 치매환자들은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치매환자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든지 치매환자에게 가까이 가고 포용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칭취불능) 한가족처럼 이렇게 보살피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치매환자가 집에 있으면 그것을 숨기는 경우도 있고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감싸 안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매 진행을 늦추고 치매 예방도 시키는 그런 목적입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렇습니다. 제가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신지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음악에 맞춰서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방향인데, 그런 교육을 거기만 하지 말고요, 각 읍면마다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요, 또 누구에게나 다 치매는 다가올 수 있으니까, 군 직원들도 있으니까 군청 관계자라든가 읍면 순회로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안심센터 선도단체 이런 것을 여쭙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노후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치매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다음은 4페이지,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암 관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5대 암, 이제는 폐암까지 해서 6대 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폐암 발생자 수는 2012년 205명에서 2016년 176명으로 조금 감소하였습니다. 국가 암 관리체계는 국민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국립암센터, 또 검진의 료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암 예방 홍보 및 교육, 암 검진 안내, 미수검자에 대한 독려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8월말 기준, 3,735명이 국가 암 검진을 받았으며 전체 대상의 24.1%의 수검률로 전국 23.5%, 전남 22.9%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위암 등 암 확진 환자 64명에게 1억 577만 5,000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 관리 중인 재가암환자는 176명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장암 환자에게는 장루 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의료기관이 아닌 집에서도 암 관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암 검진 독려를 위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들에게 조기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청취불능) 전화 등을 통하여 안내하였으며 경로당 등 7,946명에게 암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장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군 민원실 등 다중이용시설 37개소에 채변통을 비치하는 등 수검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대 암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은 전 군민의 암 검진 참여를 위한 홍보 강화와 함께, 검진 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검자에 대해 집중 검진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암 예방수칙 등 교육을 강화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

신 국가 암 관리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재홍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금연클리닉을 하고 계시죠? (예)

그것 성공률이 몇 %나.....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금연 말씀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금연.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저조한 실정이죠.

여기를 보니까 폐암이 2016년에도 48명, 이 정도 되는데, 폐암하고 흡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지금까지 의료기관..... 전문가 등 폐암과 담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누누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요, 실제로 담배로 인한 암하고 그렇지 않은 암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실제로는, 실제 담배로 인한 암보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암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의료기관에 오기 전에 서울에 있었는데 폐환자들 중에 담배로 인한 폐암은..... 암 특성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작은 세포암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암보다는 일반 선종타입의 암이 많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대체적인 분위기는 담배하고 폐암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나면 약간…… 의료원에 가면, 검진대상자들이 가면 불친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거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좌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주민들을 받들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예,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다음은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후송시스템 및 후송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증의 1차 응급환자는 현재 완도군 공공의료기관 12개 보건지소, 18개 보건진료소 및 2곳의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제로 주야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섬에 위치한 12개의 보건지소들 및 18개의 보건소입니다. 아쉽게도 완도군에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2~3차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해남, 목포, 광주 등 타 지역으로 긴급히 후송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긴급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많은 도서들로 이루어진

완도군 특성상 긴급 후송체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증응급환자 긴급 이송수단은 승용차, 구급차, 선박, 헬기입니다. 주로 선박과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완도관할 119센터의 구급차 현황은 완도센터에 1대, 노화지역에 1대, 고금센터에 1대, 금일지역에 1대, 소안 1대 총 5대입니다. 응급헬기착륙장은 12개소와 인계점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40개소에 응급헬기가 착륙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권역별 응급환자 후송체계입니다. 우리 군의 권역별 1차 응급의료체계는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2곳의 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도권역인 완도읍, 군외, 신지, 고금, 약산면은 민간의료기관인 대성병원에서 1차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일, 금당, 생일, 금일권역은 본섬의 각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 2인이 24시간 대기하고 민간의료기관인 금일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연중 24시간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화, 소안, 보길, 노화권역의 경우 노화 본섬은 노화보건지소의 야간진료실에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소안 본섬은 소안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 2인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산권역의 경우 본섬에서 의과 2인이 24시간 비상 대기합니다. 최근 2년간 응급환자 진료실적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1차 응급진료는 읍면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있으며 2018년 286명, 2019년 264명을 응급 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보건기관을 경유해 응급헬기와 해경선을 이용하여 후송한 실적은 2018년 246명, 2019년 233명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주간 중증응급환자 후송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은 야간, 기상악화 시 선박, 헬기 운항이 안 되는 점, 도서지역에 해경 경비정의 접안이 안 되는 점이 문제입니다. 향후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완도 해양경찰서와 섬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해남소방서와 구급차에 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이라고 하면 119 구급차 확대, 배치, 119 나르미션 활성화, 부잔교, 접안시설 보강 및 확충, 그다음에 헬기착륙장 확충, 주야간 전천후 출동 가능한 선박헬기 요청이 보완대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배치 공보의 현황 및 근무실태입

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배치된 공보의는 전체 47명으로 의과 전문의 3명, 의과 일반의 22명, 한의과 13명, 치과 9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전문의 3인을 포함하여 9명을 배치하고 약산 등 연륙·연도된 군외, 신지, 고금, 보길에 의과 일반의 각 1인을 배치, 노화읍에 3명, 소안, 청산, 금일, 금당, 생 일에는 의사 2인을 배치하여 24시간 진료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의과, 치과는 섬의 민간의료현황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공중보건의 근무실태 및 지도감독 추진내역입니다. 수시점검 16회, 특별점검 2회, 총 18회를 실시하였고 무단이탈 등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주민 여론 수렴결과 등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 여론은 도서지역 특성상 금요일의 잦은 연·병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월요일과 금요일 연·병가를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병가 시 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공보의 유치 관련 문제점은 의료취약지인 우리 군은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여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 배출 감소와 공중보건의들의 도서지역 근무 선호도가 매우 낮아 향후 전문의 등 우수 공중보건의사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우개선 등 군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의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체계 및 공보의 근무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의료원 군민들을 관심 있게 돌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서지역에 거주할 때 가장 불편한 사항 중에 하나가 열악한 의료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료시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에 더욱더 의료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후송수단

을 살펴보면 연륙이 안 된 도서지역인 청산면과 금당면의 경우 구급차가 없는데, 그것에 대한 수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청산하고 금당……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직원들이 대신 답변해 줘도 됩니다.

○ 의약관리팀장 문제우

(좌석에서) 감사합니다. 의약관리담당 문제우입니다.

현재 청산은…… 청산하고 금당만 구급차가 없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도…… 생일도 없고, 차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구급차를 배치하기가 어렵고요. 완도소방서가 내년 10월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그때 섬 지역에 전부 다 구급차가 배치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내년이면 다 준비가 되네요?

○ 의약관리팀장 문제우

(좌석에서) 소방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8쪽을 보면 긴급환자 후송대책으로 기상악화 시 선박이나 헬기 운항이 어려움에 따라 유관기관에 유기적으로 후송체계를 구축한다고 대책에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상 악화 시에?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의석에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 의약관리팀장 문제우

(좌석에서) 사실 원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기상악화 시에는 사실상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며,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요청해서 해경 함정에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해경 함정이 못 온다고 해버리고요.

헬기도 어제…… 그제 밤에도 해양경찰청에 노화 환자 한 분을 후송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부탁

하고 사정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해양경찰서 경비정이나 아니면 헬기 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 다.

○ 최정욱 의원

그렇다고…… 어차피 도서지역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대책이 잘된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9에서 한번 왔기에 제발 기상악화 때 도 쓸 수 있는 대형헬기 좀 준비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매스컴에서도 잘 나오는 경기도의 이국종 교수라고 응급의학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야 (청취불능) 헬기가 이번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대형헬기가. 그러니까 완도군도…… 이것은 개인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도적으로 그런 헬기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그 헬기에 탑승하는 인력도 만만치 않고, 그것은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지금으로서는 사실 닥터헬기 이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그럴까, 기상악화 시나 밤에는 출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9쪽에 주민여론 수렴결과 등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잘 나와 있네요,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기를 해결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직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상신

(좌석에서) 예, 보건행정팀장 박상신입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저쪽으로 가서 현재 근무를 하고요, 공보의들의 근무상태를 제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각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1년 정도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 도서낙도는 공보의들 인력이, 전문직들이 계속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복지상태도…… 숙소라든가 이런 것을 일일이 챙겨주고 있고요,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병가를 간혹 내더라고요, 그래서 복무단속은 병가서를 제출해 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친절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정욱 의원

예, 하여튼 주민여론이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서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서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상신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하여튼 민원사항을 쪽 제가 몇 가지 들었는데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불편사항이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완도군의 경우 도서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함에 따라 공중보건의 중심으로 응급환자 후송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우성자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원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의과가 노화에는 없네요, 그런 특별한 이유

라도 있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응급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노화는 특수합니다. 24시간 운영체제고, 24시간 운영체제는 24시간 문을 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는 24시간 운영체제가 아닌 원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면 끝나는데 6시 이후에 스탠바이 상태가 되면서 환자가 올 때마다 콜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좀 특이하네요.

그런데 한의과는 간호원이 같이…… 의사하고 간호원이 같이 배치되지 않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같이 되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저희가 사실 인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그래서……

아니, 고금에 한의과가 있는데 한의사가 좀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예약을 안 하면 치료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사람을 보내봤습니다. 내가 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보내봤더니 간호원이 없어서 혼자 그 많은 인원을 치료하기 힘들다. 그래서 예약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옆에 간호원이 가끔 도와준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시골에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약해서 가겠습니까, 버스도 시간이 안 맞고, 그분이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나쁘게 말하자면 뭐 예약이 안 밀려 있어도 밀려 있다고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때 간 상황에서도 환자가 없었는데 예약이 안 났다고 내일 오라고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호원을 같이, 한

의사가 가면 간호원도 같이 배치해 가지고요. 한 의사가 너무 힘들면 환자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고금 상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민준이라고 공보의 3년차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환자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런데 본인이 볼 수 있는 한계가 넘게 환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을 쫓아왔습니다. 못하겠다고. 또 새벽에 환자가 온대요.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할머니들이 그렇죠, 잠이 안 오니까.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한의과 의사가 하다 하다 몸살이 나고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러니까 보조인력 간호사가 없어서 환자를 보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주이유는 환자가 너무 본인의 능력 밖으로 많은 것이 지금 문제죠. 일단, 사실 예약진료를 하라고 제가 권유했습니다. 예약진료를 어떤 식으로 하나면 너가 환자한테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 줘라.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밀려들면 너 혼자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한의과는 대개 하루 근무시간 내에 30명 수준이 되면 사실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막 40, 50명씩 이렇게 오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골치가 아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한의과는 주로 물리치료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분은 물리치료만 해도 좋을 것 같은 이런 환자가 왔을 때요. 간호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대신 물리치료를 해주고 의사는 다른 환자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의료시스템 자체에 한의과는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아, 그래요. 그런데 다 한의원에 가면 다 물리치료를 해주잖아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사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대로 놔둬야 되겠네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제가 볼 때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것이 사실 고금면의 상당한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나쁘게……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없어도 예약이 있다고 하면서 예약을 안 받는다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의사가 힘든 이런 부분은 환자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픈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예, 문을 닫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도 힘이 드니까 문을 닫고 쉬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문을 닫고 설 만도 하지.” 라고, 하여튼 소위 이야기하자면 (청취불능) 환자가 많아 가지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너무 실력이 좋은 것도 문제네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러지, 실력이 없으면 안 갈 텐데요.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고금면의 민원이니까

한번 소장님이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그래서 사실은 한의과 의사가 저한테도 불만이 많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2019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생적인 분뇨처리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분뇨처리장은 완도읍과 체도권인 군외, 신지, 고금, 약산의 분뇨를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일일 60톤까지 가능하며, 2019년 9월말 기준 4,600톤이 반입되어 하루 평균 16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997년 가동하여 22년째 운영 중인 시설로 각종 기계설비가 노후가 되어 정상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초 시설개선을 위해 국비 5억과 군비 5억을 투입해 악취포집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계설비도 단계적으로 보

수 교체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쪽, 섬 지역 분노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서 지역 중 읍면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장이 없는 외딴 섬은 개별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별 정화된 분노는 분노수거차량을 이용, 완도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딴섬 중 일부지역이 분노수거를 위해 차도선을 임대하더라도 접안할 수 없고, 접안은 하더라도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분노수거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딴 섬 대부분의 거주 형태가 1가구 1인 또는 2인의 고령층으로 분노발생량이 많지 않아 큰 불편을 못 느껴 분노수거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지역의 원활한 분노처리를 위해서 차도선 점안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구분하고, 분노발생량과 섬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3쪽, 읍면 도서지역 분노 처리 현황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허궁희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해 줘서…… 육상은 잘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렇게 도서지역에…… 여객선이 미운항되는 지역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연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셔서 가지고 군외 2개 도서를 다녀왔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런 곳에 대해서, 물론 제재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홍보해서 그래도 바다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홍보를 해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하수도법이나 조례에 보면 관내 도서낙도 43개소는 의무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라는 그런 지역이 제외된 현상입니다.

그리고 차도선이라든가 협소한 그런 섬들은 생활의 불편이 없는 한 자체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또 도서를 다니면서 가능하면…… 도선이 가능하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어렵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홍보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 많이 건설되어서 보급도 많이 높아졌죠? 몇 %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완도군은 56%.

○ 부의장 허궁희

56%, 절반 조금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매년 보급률이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분노반입량은 줄어들겠습니까마는 100%로 개선될 때까지는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예) 관리를 잘하시고요.

육상에는 이렇게…… 보고서를 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객선이나 낚시선들, 이런 해상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선박관계는 행정과도…… 해양경찰서, 해경에서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아, 그러면 업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육상만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선박은 해경에서 관리를 한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현재 지도 단속 관계는 그렇고요.

○ 부의장 허궁희

관리체계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관리체계도 선박은……

○ 부의장 허궁희

아, 해경에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부의장 허궁희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서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여튼 완도가 청정바다 완도라고 이렇게…… 어떤 행사든, 어떤 장소든 편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청정바다수도에 누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해서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본안질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많아서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하수처리장이 있죠. 무단방류로 인해서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도 조사한 것 알고 계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이후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하수처리장은,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 그 뒤부터 불명수하고 싸웁니다. 주로 불명수의 유입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요즘 해수면이 상승해 가지고 해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마당 물이나 지붕 물은 우수관을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오수관으로,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비가 오면 오버되는, 그다음에 건설사업을 하면서 배수…… 도로 빗물은 우수로 해야 되는데 오수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노화는 2014년도에 준공됐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불명수를 잡기 위해서 세 차례 연막시험을 했고요. CCTV 카메라를 넣었는데 한 30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마무리는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추가로 노화 소재지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3억 원을 본예산에 요구해 뒀습니다. 소재지가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주관하고 맨홀, 이런 부분을 CCTV와 연막을 통해서 불명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분노 수거, 이것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너무 냄새와 악취가 심해서 그 부분 때문에 운동 조차 못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민원거리가 많아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아서 다시 한 번 했고요.

방송자료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어딘지 아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골프장.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예, 맞습니다. 도로 저기에서부터 삼거리로 나오는 주유소까지가 저런 형식입니다. 비가 오기만 하면 맨홀에서 물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 중에 물이 있으니까 차를 세척한다고 한 번씩 세계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에 나오는 물이 다 분노거든요, 저 물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너무 저기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비가 오면 저 물이 안 나와야 되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저 맨홀 위로 물이 안 나와야 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렇죠. 비가 오더라도 불명수가 유입되지 않아야 됩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그런데 저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대처를 해서 빨리 저것을 조치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저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방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면 분노는 일부 섞여 있지만 거의 빗물입니다. 빗물이 유입되어 가지고 오버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기 대책으로 도로에 중배수로를 만들어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맨홀에서 오버되는 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대책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불명수를 잡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소장님이 계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다음은 4쪽,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길, 노화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작년 노화, 보길도 가뭄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뭄대책 방안마련 지시로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위한 사업비 60억을 투자하여 길이 238m의 지하차수벽을 설치하여 확보된 지하수와 하천수를 3,000톤 규모의 지하저류조로 자연 유입시켜 집수 후 보길 상수원에 물을 공급하여 가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하수저류지 사업 관련으로 주민들 및 직원의 이해력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보길도 부용, 부항리 주민 30명을 모시고 '18년 12월 강원도 속초 지하수저류지 시설 견학을 다녀왔으며, 주민설명회 및 직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2월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준공을 목표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개별 면담을 병행하는 사업설명회를 8월부터 매월 1회씩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차례 실시한 주민설명회 시 건의한 주 내용은 오폐수처리시설 건의, 지하수 활용으로 가뭄 시 지하수 저하 등 지하수 영향에 대한 사항, 지하수저류지를 부항천 하류부에 설치 건의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 등 사업 착공 전 궁금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피해 우려에 대해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조속

한 시일 내에 본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길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보길 부항천에다가 3,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하면 노화, 보길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류조를 가지고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박인철 의원

다른 항구대책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연초…… 작년에 박현식 부군수님이 계실 때도 이 관계가 거론됐었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18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사항에 해저관로계획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의원

소장님, 10월 13일에 재경향우회를 할 때 과천에 왔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참석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자리에 김영록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요, 향우들 또 완도 12개 읍면에서 올라온 군민들이 있었는데 노화, 보길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해저관로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소장하고 박현식 부군수하고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전남도 관계자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공유된 것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기본계획상에 해저관로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해저관로사업은 결국 군에서 기본계획 용역에다가 반영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얻어야 만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박인철 의원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고.

그 이후로 소장님이 후임으로 오서 가지고 일련의 이런 문제들…… 그 당시에 제2의 수원지 문제도 나오고 광역상수도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 해저관로로 해서요,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도하고 어떤 업무연찬이라든가 아니면 공유를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요, 또 도에다가 협조도 요청하고 그랬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역이 있는데 그런 용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상하고 해상에 해저관로가 있는데요, 남창에서 남성항까지 4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성항에서 백일도, 흑일도, 노화 또 가능하면 소안까지 하면 해저관로가 6.2km 정도 나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잠깐만요, 흑일도, 백일도 다하고 횡간도, 노화, 념도, 전반적으로 남산면을 다 커버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가뭄 시.

지금 념도 같은 데도 가뭄 시에 물이 부족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노화 넓도도 그렇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해저관로를 하면서 그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하자는 이 말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8년 5월에 착수해 가고요, 금년 10월말까지 시설계획 확충, 방금 말씀드린 해저관로계획까지 반영하는데 한 500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는 재정계획이라든가 보고서를 완료해서 전라남도청하고 환경부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하저류조 설치사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실시설계는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설명회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궁금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일부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의원

주요 원인은 뭡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주요 원인은..... 노화, 보길의 그런 지역적인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 박인철 의원

아니, 소장님. 노화, 보길 관계가 아니고, 여기 2개 마을이 연결되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부용, 부항리.

○ 박인철 의원

그 마을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저류조를 만듦으로써 오페수 이런 문제까지 다 같이 거론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전임소장님한테도 오페수 처리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지하저류조를 한다고 하니깐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오페수처리장이 아닙니까?

오페수처리장을 만들어주고 지하저류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큰 우선 민원으로 그 당시 전임소장이 이야기하고 또 내가 주민들하고 만나보니까 그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1일 생산..... 오수발생량이 50톤 이하는 검토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부용리, 부항리가 40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는데, 플러스 50톤 해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지금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환경부 승인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가망성은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것이 되면 저류조사업하고 연계해서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것도 일정 일리는 있습니다. 지하저류조를 만드는데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되겠는가. 그런 물이 들어갈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7월 25일에 환경부 완도군 국단장, 부서장, 환경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하여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죠, 저류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군의원들은 전혀 초청도 안 했죠, 그런 데에? (예)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4명의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고 다 7대 때도 가뭄…… 명절을 앞두고 가뭄 때문에 다 갔다 왔던 그런 자리인데, 이런 데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착수보고 때 의원님들을 초대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중간보고회가 또 있습니다. 착수보고회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된 단계입니다. 그때는 의원간담회 시에 꼭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 소장님뿐만 아니고요, 국단장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꼭 의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만이 그때 의회에 알립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민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좀…… 대화가 될 텐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군수님도 질문답변 때 소통, 소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밑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소통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랑 소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9명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5만 2,000 주민들하고 행정이 소통되는가. 이것은 소장님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나면 언제쯤에나 착공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류조사업은 제 예상으로는 내년 3월이면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아니, 여기가 토지문제도 없고 환경문제가 지하 영향조사 이런 것도 다 안 할 것 아닙니까. 다 빠지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대상은 아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2개 마을의 지역주민들과 합의되면 금방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국비도 확보됐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확보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니까 이것 제일 큰 문제가 오폐수처리장인데, 같이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이것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오폐수처리장에 예산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약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 박인철 의원

한 30억 정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소장님, 어떻습니까? 국비가 안 되면 우리 군비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까? 연차사업이니까, 1년에 예산 3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국비로 꼭 되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국비로 꼭 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다음은 7쪽, 김양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본사업은 환경부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6개월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201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

여 매설 및 지반개량공법을 선정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와 광주지방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여 201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무등아파트 및 학림아파트 일원의 우수관로 1.1km를 시공했으며, 야외 음악당 인근 물양장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공사를 착수하여 10월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9쪽 금후계획입니다. 12월 말까지 무등아파트 일원 1공구 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 2월말까지는 학림아파트 일원 3공구 우수관로와 배수갑문정비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7월까지 쉬리모텔 일원 4공구 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진사유 및 해소대책입니다. 부진사유는 특별히 없습니다라는 모든 공사구간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때그때 민원해결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어 작업 속도가 느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공 전 개별주택과 상가를 직접 방문 홍보하고 있으며, 블록단위로 신속 시공으로 차량 통행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엣그제 태풍으로 인해서 완도군 전역이 물바다가 된 것 잘 아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특히 주택하고 도로가 밀집되어 있는 완도읍에서 그 피해현상이 심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매우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

단됩니다.

답변서를 보면 2010년 2월에 착수해 가지고 2019년 2월에 공사를 착공했는데 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지연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실시설계에서 착공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라는 본사업은 일반 토목공사와 다르게 향후 발생하는 집중호우에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정확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침수 시뮬레이션을 통한 배수 처리방법을 결정하고 실시설계의 경제성 부의 검토 및 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법을 결정, 또한 총사업비 결정을 위한 환경부 재원 협의, 전라남도 건설기술위원회 심의 등 제반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 김양훈 의원

본의원은 좀 늦은 이유가 군에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법이 좋은지, 어떤 시공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계기관들 협의 등을 명확하게 해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렇게 접근하고 그랬으면 좀 더 빨리 추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다소 준비가 부족했던 사항도 인정합니다.

○ 김양훈 의원

답변서를 보면 민원으로 발생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좀 부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무래도 차량통행이라든가 굴착 때문에 소음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사전에 충분히 민원인들하고 조율한 것은 없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많은 상가 분들이 안 나오셨고요, 저희들이 공사 전에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진행합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고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뭐 신문광고, 플래카드 이렇게만 걸고 주민들하고 크게…… 주민설명회가 없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전에 주민들하고 소통이 너무 없었다. 그래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앞으로 설명 관계를 더 길게 하고, 자주 공사 진행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특히 완도읍 같은 경우는 상가도 많고 밀집된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을 잘해서 민원 발생이 없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료 한번만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어딘지 잘 아시겠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노후관로사업.

○ 김양훈 의원

이것이 본안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저쪽에 공사를 하다 보면 차도를 다 먹고 한 차선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반대쪽에 지역개발과에서 그린폴공사를 그때 하고 있었거든요. 양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저 사진에는 공사하는 사진이 없는데 1차로씩만 남고 전체적으로 차선을 다 먹은 거예요. 교통 혼잡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할 때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공사는 저희들이 먼저 진행되었고 지역개발과는 그 이후에 돼서 별도로 사전에 된 것은 없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때 그렇게 소통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토사 이동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한 차선씩만 남은 거예요. 저기가 어떻게 보면 완도로 들어오는 관문인데, 차량 통행이 제일 많은 곳 아닙니까?

저런 공사를 하실 때는 먼저 맑은물에서 하고 있었으니까 얘기가 들어오면 사전에 조율을 해서 교통 혼잡이 없게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교통에 혼잡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또 가을빛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관광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 공사를 하다 보니까 3차선에서 2차선을 다 넘어 가지고 1차선만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보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현재는 거의 70~80M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차선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가을빛축제가 이번주에 시작됩니다마는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잘 관리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나 불쾌함이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어디인지 잘 아시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의회사무과 앞.

○ 김양훈 의원

하수관거사업하고 준공이 됐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전체는 안 됐습니다마는 부분 준공은 됐습니

다.

○ 김양훈 의원

그렇죠. 지금 저기에 보면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자주 못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승강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데요. 저기를 공사하고 인도 경사가 엄청 심합니다. 저렇게 심한 구간이 겨울철이 되면…… 나중에 눈이 오고 도로가 빙판이 되었을 때 사고위험률이 엄청 높습니다. 저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기는 의회사무과 건물 자체…… 진입하는 계단이 높게 지어져 가지고 저기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하기 전부터 경사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인도를 담당하는 지역개발과하고 의회사무과와 저희가 한번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인도를 낮추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저기 승강장에 계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들이 겨울에 잘못하다가 다 자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회 앞도 저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 앞에 더 높은 계단을 하나 더 만들면 되는데. 그리고 좀 평지로 해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 앞에, 본청 앞 공사도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데에서는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이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어르신들의 고민이 참 큼니다.

이 근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불신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낮추려면 의회사무과 입구에 들어오는 계단이 하나 더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자체가 인도에 생기면 걸리는 부분이 있고, 보행예요. 그러니까 3개 실과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리고 저기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차보수를 하면 안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나무 네 그루가 고사되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이번 주말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나무를 다 베었더라고요. 그 부분 식주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현장공사비로 저희들이 보식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의원

업체 측에서 언제까지 한다는 답은 없었어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공사가 11월까지 끝나면 그전에…… 수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 크기의 수목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조금 작더라도 수종에 맞는 것으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꼭 철저하게 해서 미관이 나쁘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저희들 눈에 보이는 곳도 이렇게 되는데 진짜 안 보이는 데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번 태풍 때 도로 시내가 많이 잠긴 것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김영록 지사님도 내려오고 군수님 또 전체 의원들이 전부 내려가서 주민들한테 뭔가 해결하라는 의지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도지사님과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기도 어차피 도심 침수 예방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쪽 가용지구 무등아파트 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은 군내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대책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환경부에 사업계획 내용은 강제배수펌프장 2개소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체 우수배수로가 단면이 작습니다. 300mm, 100mm 그래서 그런 관들을 전부 키우고 또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 최정욱 의원

예, 지금 특별하게 이번에 도지사님이 왔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가져오거나 거기에 따라 뭐 특별한 사업이 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다른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없고요. 우리 군비로 그쪽 일대 준설사업을, 하수도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 최정욱 의원

주민들은 도지사님도 오고 뭔가 와서 보고 가니까 다 기대를 하고 우리들한테 질문을 하는데 전혀 없네요? 왔다면 갔지.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하여튼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제일 큰 현안사업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지만 배수로 관로가 물이 빠져야 되는 양과 크기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키워야 되겠던데?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가용지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관로 교체입니다. 작은 관을 키우는 것. 그런 사업과 병행해야 됩니다.

○ 최정욱 의원

이번 비가 많이 오기는 왔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그런데 아마 앞으로 기후조건이 이번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최정욱 의원

미림 같은 데도 자꾸 그 질문이 들어오고, 한번 만나셨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만났습니다.

○ 최정욱 의원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때 주민들은 빗물관계도 관계지만 미림빌 건축주 그분들과의 관계, 하자관계 그것을 군수님한테 건의했고요. 거기와 병행해서 침수 예방사업을 건의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뭐 특별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배려하겠다는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뭐가 있었다는 말도 있어서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때 비서실장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행복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확정은 안 됐는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다른 과에서 모를까요, 그것? 당장 질문들이 들어와서요.

그때 누구하고 했어요? 그때 누구일까요, 행복기금?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참여를 했고요. 행복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 최정욱 의원

그때가 언제인데 자꾸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나 해서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공동모금에서 사모님이 자동이체 2,000만 원을 했다는……

○ 최정욱 의원

안 들려요. 마이크를 가지고 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재경향우회 (청취불능) 사모님께서 수재만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2,000만 원을 공동모금에 기탁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침수됐던 거기를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승강기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결적을 공동모금에다가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이 나오면 바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최정욱 의원

그러면 거기 2,000만 원과 승강기자금 2,600만 원을 합쳐서……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전체적으로 2,000만 원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 최정욱 의원

합쳐서, 그것까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좌석에서) 2,000만 원을 기탁했기 때문에,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 최정욱 의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계속 민원사항이거든요, 저것이.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 중간에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즉각, 즉각 답변도 해줘야 되니까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방송실, 자료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잘 알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항동지구.

○ 박인철 의원

어딘지 알죠? (예)

그 다음 자료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계획도 알죠, 사업계획 평면도? (예)

제일 중요한 곳이 완도초등학교…… 항동리에 서 일부두, 여기인데, 이 사업이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기가 제일 취약한 지역인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하수도중점관리 침수 예방사업은 권역 지구단위, 군내지구, 가용지구, 이렇게 지구단위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4년도에 가용지구가 먼저 됐고요. 그 이후에 군내지구도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내지구는 다음 지정 후에 하는 것으로……

○ 박인철 의원

이 사업순위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가용 지구 일부두, 여기에 못 미치는 여기보다는 우선 순위가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순위도 특별히 바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환경부에다가 올렸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군에서 올렸습니다.

○ 박인철 의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습시다라는 그 당시의 서류를 보면 그쪽 일방통행구간, 구 읍사무소 앞에 그쪽이 침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도 관거 공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 지역은 언제쯤에나 될…… 이제 지정해 가지고 환경부에 뭐한다고 하는데 언제쯤에나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영산강유역청에서 한번 왔는데 우리가 안 됐죠,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최정욱 의원님의 질문에 소장님이 답변한 펌프 시내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영산강유역청에서 왔는데 안 됐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사전대책용역 같은 것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 박인철 의원

그래서 이것이 언제쯤에나……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거기를 할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세부적인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라는 배수펌프장…… 이번에 침수된 원인이 해수가 올라간 것하고 집중호우가 동시에 연결됐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강제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경을 키우고.

○ 박인철 의원

관로를 다 바꾼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원래 하천인데 복개공사를 한 뒤로 더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준설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그러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주 관로…… 주 배수로는 저쪽 (청취불능) 밑에 쪽하고 일부는 2년 전에 했고요, 미림빌 그쪽은 못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주 관로는 말고, 나머지 부분, 부분 관로들은 준설할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2지구로 지정되면 언제쯤에나 될 것 같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희들 계획으로는 빠르면 내년 말에, 9월이나 10월에 지구 지정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 박인철 의원

공사 착공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이것도 가장이지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2021년.

○ 박인철 의원

2021년이요, 한정 없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까지 또 다른 기후변화로

이런 비가 안 내리라는 법도 없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우리 과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에서 대책 수립을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수관로 준설 위주로 하고요, 지역개발과 이런 데에서 맨홀 정리하고, 빗물받이를 정리하고.

○ 박인철 의원

하여튼 다시 중점관리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 꼭 이 사업이 채택되도록 하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다른 사업도 많습디다 마는 아까 그 해저관로사업하고 군내지구를 중점 핵심사업으로……

○ 박인철 의원

여기가 또 인구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하계끔 모든 신경을 여기로 쓰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사업소장님, 보길 지하수저류지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주민과의 대화할 때 동료 지역구 의원들과 꼭 동참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소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보고기념관 현황입니다. 장보고기념관은 건축면적 1,739제곱미터 지상 2층으로 2008년 2월 29일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물로는 무역선, 목조벽화, (청취불능) 복원품과 통일신라 유물 30여점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입니다. 2018년 방문객 수는 8만 1,126명으로 3년간 추이를 보면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개관 12년째인 기념관은 오래된 영상장비와 노후화된 시설 및 전시물 등으로 전면 보완 및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보고기념관 개보수 대책입니다. 기념관 전면 재구성 뒤에 메인전시물 구축과 최신 영상장비 구축, 또 역사전시실과 체험전시실 분리 연출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전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재청 2021년 국고 지원사업 20억을 신청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실내 국궁장 설치를 위해 내년 본예산 군비 1억 원을 우선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기념관 노후시설 개보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쪽의 최근 3년간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7년하고 2018년 방문객을 비교해 보면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2017년도에는 해조류박람회를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군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양훈 의원

2017년도에는 박람회 때문에 많이 왔고 2018년도에는 없어서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2016년도에도 박람회를 했습니까? 2016년도에도 많이 왔잖아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기념관 입장에서는 노후화된 시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보고기념관을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1층은 그래도…… 콘텐츠라든가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한번 와서 보고 그다음에 와서 보면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오는 것이죠. 장보고기념관 뭐 변한 것 있습니까? 1층 빼고 나머지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몇 년 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했는데 하지 못한……

○ **김양훈 의원**

11년이 됐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12년.

○ **김양훈 의원**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체험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상물이라든지 업그레이드 된 것도 하나도 없고, 한번 와서 보고 그다음에 와서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세 번째로 와서 보겠습니까, 안 오죠. 거기에 대한 뭐 계획은 있어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에 문화재청사업비 20억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보해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사업 신청은 몇 월에 합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국비사업은 매년 4월에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4월, 10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10월에는 확정……

○ **김양훈 의원**

4월에 신청하고 추가 신청이 10월에 또 있죠. 2번 있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세부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세워져 있으면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없고요. 2021년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아직 준비된 것은 없고 사업비만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꼭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장을 실내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현재 관람객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볼거리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휴게소에 가면 좌측으로 통행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실내 국공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실내 국궁장이라고 했는데 거리나 폭, 이런 것 다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한 20M, 30M 정도 되고요, 2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의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관광객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사람들도 들어와서, 동호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관람객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바가지고 체험료도 받을 수 있으면 1,000원씩 받도록……

○ 김양훈 의원

그러면 관람객들 안전상 문제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거예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인력은 저희들이…… 로비에 안내하는 분들 4명이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 김양훈 의원

아니요, 아니요. 청원경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활을 쏘는 것 아닙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사무실에 (청취불능) 직원들이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니, 활을 쏘는데. 관람객들이 왔을 때 잘못 당겨 가지고, 장난식으로 옆에 잘못 쏘버리면 큰 일 나죠.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전담직원을 1명 배치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1명을 가지고요, 1명을 가지고 되겠어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해보고 부족하면 보조 인력을……

○ 김양훈 의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전상 큼니다. 나중에 사고라도 나면 엄청 큰 문제예요. 시설이 1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시설비, 인건비, 그 예산이 다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저희들이 설치 업체에 한번 알아보고 예산 편성요구를 했거든요. 그 정도 나오고, 또 설계사 업량에 따라서 감액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 김양훈 의원

저는 참 실내 국궁장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운영해서 봐가지고 보완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아무쪼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 분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직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설사가 되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객들 누가 와서 뭐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그분들이 전반적인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친절교육은 제가 가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전문교육은 저희 사무실에 학예사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청취불능) 직원들 전문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의원

그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관광객들이 오면 누구한테 물어보

든 답변할 수 있고, 해설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관광객들도 잘 이해되고 나중에라도 또 오면 인식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관광객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박인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의원

나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촌민속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위탁자가 있으면…… 소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위탁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촌민속전시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위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의원

용역을 진행 중이죠?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진행 중입니다.

○ 박인철 의원

그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탁…… 제가 여러 분들을 만나보니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던데, 우리 군의 생

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조인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하루 상임위원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휴회한 후 제8차 본회의는 모레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록

제8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7.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성자 의원 발의)
6.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7.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8.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개의)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 총 2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8차 본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완도군 대한적
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시5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
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

료 제출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3호, 제2514호, 제2515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양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입 받은 권한 중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7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과 읍면 및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운영은 의장을 제외한 8명을 의원을 2개 반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현황을 질의하고자 완도군 산하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궁희 의원 발의)
5.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성자 의원 발의)
6.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7.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정욱 의원 발의)
8.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0.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직무대리 김양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사업지원, 보조금 신청,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한 수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수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으나 안 제6조 제6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재의결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

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을 하면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불서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한 운용심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를 “90%를 초과할 수 없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소극행정 관행을 차단함으로써 규제애로를 해소하여 군민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장사시설 수목장 조성에 따른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

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2에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조례의 용어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에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술비 지원대상 연령을 폐지하였고 시술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 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규정실익이 없는 조항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및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

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시장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완도 장-보고 전통시장” 을 “완도 전통시장” 으로 수정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제3항 사용자 자격기준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삭제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준용법령 위반사항을 정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변경, 상위법령에 따른 위원의 임기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관광진흥법의 명확한 조문 인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정의 규정 정비와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분과위원회 최소인원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인 이상 15인 이하” 를 “5인 이상 15인 이하” 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률 및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군관리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점용허가일 기준 15일을 30일 이전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제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공간조성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공공시설물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상위법이 정한 내용과 조례상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을 수정하여 반환사유를 명시하였으며 별표 6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시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에 대하여도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주체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검사의 주체를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한 단순 재기재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4항의 “제3안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완도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한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3항까지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

회에서 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만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9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군정 질문답변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답변 시 약속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완도수목원이 국립난대수목원 타당성 평가에서 적격하다는 평가를 받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허공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불출석의원(1인)

박재선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완도군 재정안정화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시08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허궁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허궁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적십자사 인도주의 이념 실천을 지원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관련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입니다. 주요 내용은 허궁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법 22조가 무슨 법이요, 대한적십자사법?

○ 전문위원 최명신

사업재원의 조성입니다. 사업재원에 관한 조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 박인철 위원

적십자법 중에서 이것은 무슨……

○ 위원장 박재선

됐습니까?

허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3호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성자 위원

우성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 등 공적이 있거나 명예를 선양한 자에 대하여 4개 분야에 완도군민의 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수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4항 대상 수상 근거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4항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정하였으며 표결방법, 감표위원 지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제2494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수상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 및 표결방법에 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

다. 주요 내용은 우성자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상위법 저촉 및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1차 심사에서 탈락된 사람 5년인데 2년으로 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2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만 특별히 인정할 만한”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조례에서?

왜냐하면 올해도 보니까 군민의 상을 하는데 1차…… 작년에 탈락했던 분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적이 인정하려고 하면 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공적인데, 그런 공적을 가지고 다시 들어왔으니까요, 5년에서 그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이것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이 조례에서.

어떻습니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예, 그 말씀도…… 저도 고민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5년 있다가 올리기로 한 사람이 2년이 되니까 타가지고 애매한 부분이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무슨 상을 하나 타가지고, 그것이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심사에 올라와 가지고요, 군민의 상이 우리 군에서 제일 큰 상인데 군민의 상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일부조례개정안이 들어왔으니까, 5년에

서 2년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밑에 이런 것도 삭제해 버리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보십시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님, 어떠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최명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5년에서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박인철 위원님께서서는 나머지…… “다만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도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그 선정위원회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처음 가다 보니까 전에 심의한 내용 자체를 못 듣고 갔어요. 그것을 듣고 갔어야 옳았는데 그것을 못 듣고 가가지고 굉장히 우리들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2년으로 짧아졌으니까 이 부분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한이 필요가 없어요. 기한을 둘 필요가 없죠. “다만”이라는 것으로 해서 작년처럼 그런 상을 하나 받아버리면…… 년도나 이런 것을 제정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빼야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저 역시 동의를 하면서요, 특별히 인정할 만한 공적이라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기준인지 정확히 없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2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밑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우성자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은 5년에서 2년으로 바뀐기 때문에 “다만 특별히” 라는 문구를 빼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우성자 위원

예,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재선

예, 그러면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우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우성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4호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5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청사 건립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신청사 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5호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욱 위원

최정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본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지불서약서, 표준계약서, 건설기계근로자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로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최정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 건설기계, 체불, 임금 이것이 다 포함 되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관급공사를 할 때 식당 들하고 주유소들도 피해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식당하고 주유소도 같이 첨부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욱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최정욱 위원

(전문위원 최명신을 보며)

어떻습니까, 바로 넣을 수 있습니까?

○ 김양훈 위원

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최명신

예, 김양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시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최정욱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6호 완도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매 회계연도 연말에 발생하는 여유재원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개선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

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경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경상적 일반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며, 경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이 동시에 요건을 해당하는 경우 둘 중 큰 금액을 선택 적립하거나 동시 적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한 대규모사업 시행이 필요할 때, 그밖에 기금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사용방식은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계연도에 기금 총액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기금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여타기금과 동일하게 운영하며 존속기한은 관련법상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3년 연말까지로 하고 기한연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조례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금년도 기금은 2018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회 추경예산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했으며, 관련법 등에 따라 부패영향, 성별영향 분석평가 및 입법예고를 완료했습니다. 조례안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회계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정할 것이며 그 사람은 누가 정할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아래에 보시면 제5조 제3항에 심의위원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한테 심의를 맡긴다는 이 말이죠?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인가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법령에 따라서, 재정공시심의위원

회는 법령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위촉직, 당연직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그분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그것은 별도로요. 이 자리가 끝나면 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물론 잘 알아서 쓰시겠지만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쓸 것인지…… 기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알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알려주면 우리가 누구인지, 잘 쓸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요. 괜찮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 전문위원 최명신

그 부분이……

○ 우성자 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 전문위원 최명신

지방재정법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청취불능) 그렇게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우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 위촉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인가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우성자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 우성자 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담당관님, 갑자기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금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법이 약간 개선돼서요. 예비비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여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예비비가…… 계속 수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전에는 거의 예비비가 700억에서 100억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비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10억 조금…… 2회 추경할 때도 예비비가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입의 1% 내에서 적립하고 재난은 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많이 재난목적에 편성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비비 규모가 큰 단체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계속…… 행안부에 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많이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기추경 때는 어차피 부서에서 낙찰 차액 등 그 불용액들을 전부 삭감조치하면 세입하고 세출이 맞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재난목적예비비에 남은 금액을 탈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앞으로…… 우리 보통교부세가 2,500억 정도로 세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법…… 2017년 10월에 이것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고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내년, 다음 연도 추경에 저희가 재원

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공사를 하고 나머지 입찰차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담당관님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담당관님이 예산을 맡고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실과장들이 예산을 그렇게 주라고 의회에 와서 하는데요. 내가 7대하고 8대에 들어와서 회계…… 결산검사위원장을 해봤는데 불용처리가 너무 많거든요. 보면 하나도 안 써버린 예산도 많습니다. 예산을 잡아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그런 예산들은 미리 예산을 세울 때 잘라서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예산목을 보면 4년 전의 예산목하고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은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목들이 너무 같아요, 똑같은 목들이.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목도 이렇게 발굴하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데에다가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버리니까 불용액이 연말이 되면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2조, 아니, 3조 5항을 봐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적립금은…… 적립금이라고 봐야 되죠, 기금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금방…… 예산팀장님 말씀처럼 1회 추경에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굳이 다음 연도까지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예산이 통과하면 `18년도 불용액 같은 것을 여기 기금으로 한다고 안 합니까. 그러면 내년도 2020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을 쓴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50%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0%로 써야지. 왜 50%로 남기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부분은……

○ 박인철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법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향을 했으면 하는 사항……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100%로 해가지고 못쓰면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각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제가 알기로는요, 이것 다시 50% 적립할 필요는 없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이것은 있더라도 예비비는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예비금하고 일반적……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한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재정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니까 위원님들께서…… 100%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마다 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잡아놓으면 계속 기금만 쌓아져갈 것 같으니까 좀 상향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100%를 해놨다고 해도 100% 다 안 쓰고 조금은 해도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적립해 뒀다가 50% 놔두면 계속 우리가…… 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한다면 50%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안 맞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100%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단장님?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90%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90%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담당관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7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정수 복지행정국장님과 김희수 자치행정과장님이 현재 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 제정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행정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관련제도를 마련하고 완도군 공직자의 적극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관행 차단으로 규제의 애로를 해소하며 군민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목적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서 위임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2조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청취불능)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완도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적극행정을 전담하는 부서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

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위임 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과장님, 적극행정, 소극행정,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영상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주만을 위해서 위반되지 않는 사항을 선례를 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소극행정은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는 행정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 최정욱 위원

공직자 불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규제를 두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요? 군수님이 모든…… 인사권이나 분위기는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어서 굳이 꼭 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영상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만들어서 시행하라고 그래서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말씀드리면 못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제일 밑에 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그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 사항을 업무담당자가 유권해석을 좋게 해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가 있습니까, 이 법이? 이홍용 팀장님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 행정팀장 이홍용

(좌석에서)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행안부에서 지난 8월 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죠?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를 그러면 공무원 위주로 하니까, 민간인도 참여됩니까?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고영상

제가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 네 분이구요. 민간인이 다섯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촉사항이…… 또 다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8호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4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음은 27페이지 의안번호 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완도군 장사시설 수목장 조성에 따른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 골분함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내역을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관리 등의 부과에 근거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명확히 하며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목형 자연장의 안치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항, 추모목 1그루당 안치하는 골분함 수는 8기 이내로 하고 보관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차례대로 하며 안치 위치는 추모목으로부터 1M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항, 자연재해나 그 밖의 사유로 추모목이 고사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무종류로 바꾸어 식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3항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0조의 2 제1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제10조 제6항 각 호의 2의 부분 중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 하거나'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추모목은 사전 예약할 수 없으며 매매 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추모목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냥 거기에서 정해주는 것으로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추모목은 종류가요, 수종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추모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도·양수, 예약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요, 수목나물을 선정해 버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폐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세 그루, 세 종류 중에서 본인이 정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수목은 본인이……

○ 우성자 위원

와서 보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윗나무고 있고 동백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종을 선택하고 그 순서를 보고 그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좋은 수종과 좋은 위치가 있다 보니까 예약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나무를 많이 예약하다 보면 순서대로 못쓰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약을 못하게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나무가 고사해서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묘목은 거기에서, 추모장에서 바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사다가 심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바뀔겁니다. 그 수목하고 (청취불능) 맞게끔 다시 교체해 줍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추모공원 한 곳당 안치하는 골분함 수는 8기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전에는 가족묘로 했습니다. 가족묘로 해가지고 8기 이상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공동묘은…… 150만 원으로 15년 동안 사용했는데 150만 원을 못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기당 30만 원씩 해서 가족하고 연관 없이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나무를 쓸 수가 있어서요, 지금은 가족묘 위주로 해서 8기 이상은 못쓰게 했는데 공동묘이라고 해가지고 한 나무를 두고 선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각 8기까지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자고 하는 측면입니다.

○ 이범성 위원

부담이 좀 줄어들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50만 원으로 사야 되거든요.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99호 완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선종입니다.

127페이지, 의안번호 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에 긍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용어 정비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1호 중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이 폐지되어 만 45세 미만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연령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조 2호 중 동지침에서 운영하는 지원액을 최대 15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부터 6조는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증가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원장님, 시술비 150만 원을 가지고 병원에 한번 갈 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건강증진팀장 안병성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내수정이 있고, 체외수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선배아가 있고 동결배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당

하…… 한 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본인부담이 되고요. 저희가 150만 원으로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를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 60~7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는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요. 시술금은 횟수가 완전히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15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상당히 본인부담이 많겠는데. 그런 부분을 15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0만 원으로 정하셨을까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원래는 지침에 50만 원으로…… 한도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사회보장연구원에 의뢰해 보니까 군비로 지급할 때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50만 원의 3배인 150만 원으로 그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줘니까, 아니면 난임부부가 임신이 될 때까지 횟수에 관계 없이……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선배아, 동결배아, 그다음에 인공수정.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4번, 4번, 3번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7, 5, 5로 변경되었습니다. 7, 5, 5니까 거의 7

번, 5번, 5번. 이 정도 시술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정취불능)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진이 됐는데 본인들이 부담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난임시술을 하는 것을 보면…… 방금 팀장님의 말씀처럼 의료보험에서 하기는 하는데 많게는 2,000~3,000만 원씩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요, 신선배아가 가장 높거든요, 그것이 340 정도.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여러 차례 받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00~3,000만 원씩 들어가던데. 우리 군에서는 1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신 17번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7, 5, 5를 갖다가……

○ 박인철 위원

빼고 나서?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예, 그렇죠. 빼고 나서입니다. 본인부담을 전체 하게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을 전체 했을 때 그때 1회만 해줍니다, 아니면 시술할 때마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지금 현재는 1회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1회만 해주는 것으로요.

아니, 보건의료원에서도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것이 이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난임부부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던데.

그러면 우리 예산 때문에 1회만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 박인철 위원

이것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2019년도에는 시술하신 분들이 서른여덟 분이거든요, 서른여덟 분인데 그중에서 열두 분이 성공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팀장님의 말씀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될 때는 50만 원씩 준다고 하고, 의료보험 혜택이 다 끝나버렸을 때 150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정도 그러면…… 그전에는 50만 원씩 줬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50만 원의 한도에서 주는데요, 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신선배이는 비싸기 때문에 50만 원을 초과하는데요, 나머지 동결배야하고 인공수정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밖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150만 원 정도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현재까지는 1명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것이 한 번에 7번을 계속 연달아 할 수가 없고 한 번 하고 나면……

○ 박인철 위원

그러겠쥬, 쉬어야 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4~5개월 정도 후에 또 2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받은 것은 전혀…… 의료보험에서 하는 7, 5, 5로 해가지고 17번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그런 것은 없었다고요?

○ 건강증진팀장 안병성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05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00호 완도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손해배상은 (청취불능) 체계가 가능함에도 제30조 2항 규정은 지자체 면책사항으로서 주민들에게 전부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부당한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공고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근거규정이 본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

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01호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2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250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시장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을 허락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별표 1의 완도군 시장 명칭 및 위치 분류표에 시장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표기하고, 완도 5일시장을 완도 장보고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 제2항 시장 사용 및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내용과 제5조 제3항 각종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시장의 사용자 자격기준은 실제 입점된 상인들 중 일부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동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국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5조 3항에요, 조례가 들어있었는데 외부에 주민등록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었다. 그러면 조치는 안 하고 아예 들어오는 것을 삭제시켜 버리는 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입점자들을 완도에 주소를 둔 상인들로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완도읍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화돼서 그것을 삭제한 상황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조례에 맞춰서 뭐 다른 조치는 안 취했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사항은 저희들이 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안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왜 조치를 안 하시고 조례

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노점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을 파악하기에…… 상설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완도 분들한테, 시장에 들어가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없을까 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에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 다른…… 완도군에서 장사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시장 내에…… 5일시장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상가를 주라고 했을 때 안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상가는 다 분양됐고, 이번에도 상가를 분양할 때도 모집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점자들이 처음에, 당초에 모집되지 않아 가지고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국장님의 생각하고 본위원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작하니까 상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었다고 해가지고, 모집기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상가가 활성화되어 가고, 또 앞으로 활성화를 정확히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보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와서 서로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삭제시켜 버리면……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도 노

점상하고 또 상가하고 이 법을 서로 같이 묶으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나눠 가지고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회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노점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두기에는,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한정하기도 뭐하고.

○ 이범성 위원

아니, 노점상은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노점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 해나가는데 상가까지 같이 묶어서 전체로 아울러 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상가 부분이 뭐……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집한다든지 했을 때는 외지사람들이고 뭐고, 완도에 근거를 두지 않는 사람한테 그 부분까지 혜택을 준다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가 입점자들을 심사할 때, 신청해서 심사할 때……

○ 이범성 위원

심사하는 데에 무슨 규정이 없는데, 심사를 어떤 규정에 놓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심사할 때 그런 규정을 포함해서요. 완도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근거 없이 임의로 해가지고 완도에 근거를 둔다는 그런 부분들을……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가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그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 이범성 위원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기에 지금 투입된 예산만 해도 엄청 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조건이 좋아지면 여기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주변에 야시장이 개관되었을 때 과장님하고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주변에 너무 이쪽에 혜택을 줘버리니까 그 반대쪽 사람한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왜 거기만 하나고, 저희들도 장사를 하게끔 해주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판에…… 어떤 부분들은 보면 지금 상가는 완도군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지금 외지사람들, 주민등록도 안 둔 사람들을 상가에다가 입점을 시킨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들 모집을…… 상가 분들을 모집할 때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부분 규정을…… 조례에 있는데도 조치를 안 했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해 가지고 시행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상가에 입점된 분들은 완도에 주소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 상가 앞에 있는 차량 노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관내 분들이 거기에 입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분들이 입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 자체적으로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들로만 모집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의 말씀은 상가도……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이 상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상가는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고요. 상가 건물 밖에 차량 노점.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만 좀 넣으면 되잖아요. 상가 밖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의견도 동감합니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놔두면 되겠구면, 삭제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되지, 삭제할 필요가 없구면요.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좋은 부분들로 갖춰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완도읍 시장이 어디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읍 시장은…… 조례에는 완도읍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5일시장하고 남향시장하고 중앙시장을 완도읍 시장이라고 봅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남향시장, 청해시장 이렇게 고유 명칭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고유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조례상에는 완도읍 시장으로 해가지고 상설, 정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그 명칭을 그대로 살려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완도읍 시장이 남향시장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완도읍 시장을 구분해 가지고 5일시장을 완도장보고전통시장으로 하고 중앙시장, 그다음에 남향시장 그렇게 표기를 조례에다가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때 중앙시장, 남향시장으로 하고, 완도 5일시장을 장보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전통시장으로……

○ **박인철 위원**

장보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장보고라는 전통시장…… 그냥 이 글자 그대로 길게 해가지고 장 보고 전통시장인가, 아니면 장보고전통시장인가. 우리 군에서 통상적으로 앞으로 내세워야 될 인물인데, 이 인물을 그냥 우리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 글자 그대로 하면 좋습니다. 장을 보고 가자는 전통시장이면 좋은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장보고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라고 안 하고 장보고시장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완도군을 대표하는 1,200년 역사를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상설시장이 생기면서 입점자들이 건의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보면 지사님이나, 이전에 이낙연 총리가 오면 꼭 축하할 때 장보고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에 빚대서 많이……

○ **박인철 위원**

그분들은 그냥 축사로 해서 끝나는데요, 우리가 장보고라는 타이틀을 잡을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군의 대표인물인데 대표인물을 우리 군에서 너무 밑으로 평가 절하하지 않느냐.

글자 그대로는 좋다니까요. 완도군이 장보고를 안 내세우면 상관이 없는데요, 장보고라는 인물을 내세우고 장보고라는 인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어디를 가든 장보고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관광지에서도 장보고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장까지 장보고시장이라고, 장보고전통5일시장이라고, 그러면 장보고하고 전통

5일시장하고 어떤 함수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정도는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기를 보면 조례 개정안에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장하고 뜬 것이 장 보고……

○ 박인철 위원

우리는 알아요, 저는. 국장님, 이 글귀를 보고 아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 보고라고 이렇게 띄고…… 그냥 장보고라고 해버리지. 그것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위원님의 말씀처럼 장보고대사의 위상을 깎아 내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전통 시장에다가 이렇게 같이 대칭시켜 버린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전통 5일시장 뭐 쪽 내려왔던, 그런 식으로 가면 되지. 여기에다가 인물을…… 국장님 설명하고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냥 기존의 완도 5일시장으로 가는 것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5일시장으로 하면, 상설시장이 있는데 상설시장의 입점자들이 맨날 5일에만 개장하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5일을 빼고,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완도군 전통시장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냥 완도군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렇게 해서……

○ 박인철 위원

여기에 장보고를 넣는 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까 전에 이범성 위원님하고 김양훈 위원님이……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삭제하지 않고 살렸으면 좋겠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제가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완도읍 시장을 보면요, 경제교통과에서 상품권을 하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상인들이 완도상품권을 가지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안 되고 해남상품권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그런 실정이에요. 해남상품권을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물론 해남에서 내려와서 그랬겠죠. 지금 여기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안 맞고 그것도 한번…… 우리들이 뭘니까, (청취불능) 아니겠죠. 밖에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 상품권을 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여럿한테 들었어요. 가니까 완도상품권은 안 되고 해남상품권은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해남에서 내려온 상인들이겠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하고요.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질문답변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 왜 통행을 막아버린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어디 통행……

○ 박인철 위원

읍사무소에서부터 여기까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지금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예, 쌍용자동차에서부터 5일시장 주차장까지 일방통행로를 트고 차량이 이용하도록 양쪽 상가를……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가 현수막을 잘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뭐하고요, 이 관계도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상품권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좌석에서) 예, 그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 김양훈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인물론이 나왔는데 여수, 남해 이쪽에서 이순신 아파…… 언론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순신 식당, 이순신 대교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인물 이쪽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죠? (예)

똑같습니다. 장보고전통시장도. 그래서 아까 박인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완도전통시장,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했던 부분, 그것도 같이 뇌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결정사항은……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아니, 여기에서 하고 넘어가야죠.

○ 위원장 김재홍

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설명……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님, 이것은 결정을 짓고 가야지. 여기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지.

○ 위원장 김재홍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이따 수정하는 부분에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한 건씩이 아니고 11건이 한꺼번에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해되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제2503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국가통합교통체계의 (청취불능) 준용해서 임기에 대한 위반사항을 정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완도경찰서장, 해남소방서 완도119센터장, 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5조 위원의 임기를 준용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3년에서 2년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6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4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관광 진흥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의 정의를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정확한 조문을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관광사업자 및 여행사에 대한 정의규정을 법령 조문에 따라 정비하고, 제3조 및 제5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5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발행위 심의안전에 대한 전문분야별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당초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법이 정한 한도 내인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8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규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 68조 제2항에 구성 인원을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변경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10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인 5인 이상 17인 이하보다 최소 인원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탄력적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50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8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6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련 법률이 당초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 및 근거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당초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고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군 관리계획시설을 군 계획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 철도청장을 한

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현행화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점용허가 연정 신청기간을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당초 만료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6조 당초 도시공원법 조문을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신규 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9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조례 제28조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라는 부분은 가부 동수이면 제2항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과

반수가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8조 제3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의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표결을 그전에는 한 번만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표결할 경우에는 과반수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줬기 때문에 현행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반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봐지고 위원장의 표결권도 없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 김양훈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표결을 처음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한번 했는데 동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동수가 나와 버리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2번으로 이렇게 표결하지 않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1번만 하는 것으로.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투표를 한다는 이야기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쪽에 부결을 시켰다는 것이죠, 똑같은 것이 나오면.

○ 김양훈 위원

동수는 다 부결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0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105쪽 의안번호 제2508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유입입니다. 조례 제8조 제1항 제3호 별표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에서 현재 조례상의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공디자인적 요소가 더해져 건축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의 심의 대상 범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3호의 디자인 심의 대상과 금액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공공공간 조성,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공공매체 그리고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공이미지, 공공디자인정책 및 시범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심의대상과 금액은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와 올해 수립된 완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26조에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그 뒤에 나온 것 아닙니까, 다음 쪽에?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좌석에서) 옥외광고물.

○ 박인철 위원

아, 여기가 아닙니까?

(장내웃음)

○ 위원장 김재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0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1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509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 제26조의 납부 수수료의 미반환 규정은 법령 위반 및 소극행정 유발로 주민 불편 및 권익을 침해하며, 제27조의 별표 6은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내용과 조례상의 불일치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6조 제2항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 제27조의 별표 6의 1㎡ 이상 1.3㎡ 미만인 수수료 33만원을 35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6조 제2항의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단순히 삭제만 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

어 반환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 즉 수수료가 과오납된 경우,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민원불편 및 권익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7조의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시 입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5㎡ 이상 6㎡ 이하에 대하여도 상위법과 불일치함으로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정정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수정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이상으로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 119쪽, 의안번호 제2510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주체에게 인도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후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상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관리주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과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11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127쪽, 의안번호 제2511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단순 재기재에 해당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7조 제4항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질서위반 행위법을 없애버리면 그냥 물놀이를 하면서 위반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당연히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위반하면 이 법이 당연히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냐 싶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일반법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보면, 그 법에 있는 그 법대로 따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 조례에서는 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여기에다가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뺏으면 좋겠다.”라는 지적도 있어 가지고요.

○ 박재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더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1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33쪽 의안번호 제2512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우리 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6년 1월 2일 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거 현행에 맞게 제10조 제2항의 입찰제한을 규정하였으며, 2014년 5월 22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건설공사 등의 별점 관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0조 제3항의 조항을 재정비하였으며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6조 명예감독관 제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명예감독관을 이장으로 임명했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많아 가지고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국장님, 그러면 명예감독을 삭제하면 누가 이 공사를 다 감독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우리 기술직 마을 담당공무원도 있고, 관련부서에 기술직 담당공무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공사감독을 할 수 있고요.

기준에 마을이장들이 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오래 전에 운영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명예감독관 도장을 받으라고 하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놔라. 또 설계에 뭘 반영해 달라는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부실우려, 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습시다. 그런 부분을 기왕에 운영이 안 되니까 삭제하자고 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 우성자 위원

몇 몇 부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공사를 할 때 마을이장은 완전히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고요. 공사가 마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도 이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공무원들이 하면 저는 절대 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언제 가서 그것을 다 감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장들한테 차라리…… 누가 발전기금을 주라고 해서 그런 모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들이라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꼼꼼하게 사업을 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장도 모르게 사업을 해놓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삭제해 버리면 누가 감독을 해야 될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부분들은 읍면 지도를 통해서요. 꼭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이장들, 마을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명예감독관을 없애는 대신 보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은……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짜리 사업이라고 그러면 마을에 귀통이가 이만큼 남아 있어도 안 해줍니다. 이장들이 해주라고 하면 꼭 그 부분만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장을 안 찍어주면 서…… 뭘 안 해주면 도장을 안 찍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그러긴 하는데요. 이장한테 그래도 미리 알려서요. 이장이 그 마을의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가서 보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미리 알려서 꼭 부실공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마을이장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1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2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3호 완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4호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5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6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7호 완도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8호 완도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09호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0호 완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1호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12호 완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512호 완
도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4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24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양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정 질문답변,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군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먼저 의안번호 제251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범성 위원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성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범성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

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회 군정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이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에 대해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됨과 동시에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대상기관은 국, 단, 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주요 시책사업 예산 및 집행사항 등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부서별로 추진업무에 대한 서면 확인, 질의답변 및 현장방문 등을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양훈

이범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의 감사반 편성을 보시면 여덟 분의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하고 행정자치 분야와 산업건설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범성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감사반을 편성·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감사반 편성은 계획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3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감사기간 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4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제2515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양훈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이범성	최정욱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 의 록 서 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4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박 재 선		
의 원	박 인 철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5회 완도군의회(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09시59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
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어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려
분! 어느덧 희망차게 시작했던 2019년도 의정활
동을 마무리하고 2020년 새해 힘찬 의정활동을
설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제8대 완도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
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
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
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
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
리는 한 차례의 정례회와 여러 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추경예산안 심의, 군민 생활현장 방문, 군
정 주요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답변 및 조례안 심
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지역의 발전

과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과 자유한국당 5.18 망언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채택하여 나라의 안일을 염려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또한 국립난대수목원의 완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완도의 밝은 미래비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립난대수목원은 입지 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선정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며, 이야말로 군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한 좋은 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군민 생활 현장 방문을 통해 총 248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집행부에 전달하여 106건의 건의한 사업을 완료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의회 스스로 군민들의 애로점을 여러 기관, 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경청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답변자로서의 역할과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정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던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집행부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8대 완도군의회는 의원님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완도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으로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우철 군수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소통하고 완도군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는 2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의결하고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계획과 목적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와 집행부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사업 하나하나가 완도군의 비전과 군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동절기에 서민생활안정 대책은 물론,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군민들이 다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5만여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이양일

이상으로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9분 폐식)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8건의 출연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우성자 의원과 이범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 (10시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6호 및 제2517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2019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의무기금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중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10억 4,521만 1,000원, 보조금 2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91억 1,778만 9,000원, 이자수입 3억 2,909만 6,000원, 기타수입 810만 원으로 총 307억 3,319만 6,000원입니다. 이중 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93억 7,034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재원은 내년도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3억 8,300만 원, 예치금 303억 5,019만 6,000원으로 총 307억 3,319만 6,00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1억 1,778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16억 1,540만 7,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212억 3,254만 5,000원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304억 3,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사업,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5,841억 7,460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0억 3,6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413억 2,447만 원으로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8억 5,013만 3,000원

으로 27억 3,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를 삭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413억 2,447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1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의 증가로 9억 6,5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증가로 46억 3,62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억 946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부지매각대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 내부거래의 증가로 총 36억 8,86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13억 1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189억 5,482만 5,000원, 문화 및 관광비 4억 4,008만 7,000원, 보건비 2억 2,774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7억 6,1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7억 3,221만 5,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 1억 804만 5,000원, 교육비 5,626만 3,000원, 환경보호비 8억 2,818만 5,000원, 사회복지비 17억 8,338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비 7억 4,932만 5,000원, 수송 및 교통비 4억 7,703만 9,000원, 예비비 28억 3,362만 원, 기타 39억 7,939만 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자본지출 12억 3,922만 6,000원, 내부거래 193억 34만 1,000원은 각각 증액되었고 인건비 35억 9,767만 4,000원, 물건비 23억 7,711만 5,000원, 경상이전 11억 7,849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8,504만 1,000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3,005억 555만 4,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억 9,5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

우 국고보조사업은 2,350억 3,088만 원으로 11억 4,3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85억 2,967만 9,000원으로 14억 5,1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9억 4,503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5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의 국도비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21억 4,060만 3,000원이 신규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28억 5,01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3,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주택자금융자 및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과목 변경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28억 81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입금 등의 사정으로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5개의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3,790억 8,291만 4,000원에서 312억 9,570만 1,000원이 증액된 4,103억 7,861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의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서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명사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사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273건에 545억 2,568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건에 232억 7,52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서 2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명사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8호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1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범성 의원을, 간사에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1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11월 26일 하루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의 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7일(수) 오후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3. 휴회의 건

(13시59분 개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

(13시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범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완도군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5개 기금에 304억 3,319만 6,000원으로 내용별로는 식품진흥기금 9,321만 9,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00억 4,076만 6,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5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9,276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195억 593만 3,000원입니다. 그중 2019년 기금 운용 계획 중 수입이 216억 1,540만 7,000원, 지출이 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총 212억 3,254만 5,000원 증감이 있었으며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5,841억 7,460만 3,000원, 일반회계가 5,413억 2,447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28억 5,013만 3,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40억 3,93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정리추경예산인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불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삭감 등 집행부가 노력한 점을 느낄 수 있어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의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4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 및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종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의 의 의 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5.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2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4.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25.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1.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42.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4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44.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4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5.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2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24.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5.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1.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42.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4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44.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45.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의 건(군수 제출)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군수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신우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5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과 군의회에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7기는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완도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신뢰를 보내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면서 군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늘 협력하여 주신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2017년 해양치유산업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올해를 해양치유산업 원년으로 삼아 완도의 100년 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해양치유블루존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82억 원과 해양치유센터 건립비 320억 원을 확보하는 등 해양치유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에 위해 미국 LA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000만 불의 투자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청정하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플래그를 획득하였습니다.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83회 운영하였으며 총 8,100여 명이 참여하여 해양치유산업의 밝은 미래를 확인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국제해조류박람회는 3회 연속 국제행사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박람회의 위상을 재확인하였고, 해양치유산업과 박람회를 연계해 해양치유자원인 해조류의 가치 확산과 해조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 베트남 등 3개 국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450만 불의 수출 계약과 18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복과 해조류 가공품 등을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세계 속 한 상에게 주어지는 장보고한상어워드는 올해까지 총 19명이 수상하였으며, 수상자들은 우리 군 인재 양성과 더불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 확대를 위해 양식어가 교육과 함께 대상해역에 대한 퇴적물 조사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사회적 재난수준인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해조류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미세먼지 배출에 탁

월한 해조류의 효능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조류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과 유용미생물 등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 수출에 이어 미국 뉴저지 주에 수출됨으로써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의 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등록된 완도황칠은 지역특화림 조성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서울에서 완도 황칠공예전을 개최하여 황칠의 우수성과 황칠의 주산지는 완도임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금 역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난 7월 발행한 완도사랑상품권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30억 이상 판매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근해조업선단을 완도항에 유치하기 위해 2014년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는 1,33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고용 창출도 이끌어냈습니다. 전지훈련의 최적지인 우리 군은 올해 49개의 훈련팀을 유치하였고, 37개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1만 2,000명의 선수단과 관광객이 완도를 찾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완도수목원을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유치하고자 전개한 서명운동은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들이 뜻을 한데 모아 주었으며, 그 결과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타당성평가에서 적격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회를 맞은 우리 군 대표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전년 대비 2.16%가 증가한 8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고, 장보고수산물축제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해양문화를 이끌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군민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고자 복지, 문화, 주거환경 개선 등에도 힘썼습니다.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보다 더 나은 출산환경을 만들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여 이주여성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노년층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안전한 생활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공의료기관 진료비를 30% 경감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충전소인 빙그레시네마는 2017년 9월 개관 이후 이용객이 15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개장한 완도수영장은 6개월 만에 4만여 명이 이용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과 마을단위 소규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군청 공영주차장과 5일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이동군수실과 청년정책파트, 학부모초청정담회와 다문화가정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완도군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출범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비위행위점수제 도입, 공직자 청렴리더 운영 등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약산~금일 간 연륙교 건설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국도로 한정됨에 따라 제외되었으나, 연륙교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대외로 알리고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행정과 의회, 온 군민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힘을 모으는 중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내의 다수 주택이 침수되어 우심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완도를 군내지구 하수관로 준설사업과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을 통해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잦은 자연재해로 양식수산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재해보험제도가 변경되어 어업인들이 보험 가입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양식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세계경제는 미중과 한일의 무역분쟁,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기준금리 인하, 미국 대선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위기, 소비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비슷한 2.1%에서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으로 국내외 경제상황과 4차 산업혁명是我们에게도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미래 산업 육성의 밑거름이 될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2030년 완도

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그 어떤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완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군정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세계 속의 완도로 도약하기 위한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미래산업인 해양치유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완도 성장기반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 헬스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 해양기후치유콘텐츠 개발 등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치유전문병원과 해양치유리조트 등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 해제를 위해 전복산업특구와 해조류건강바이오특구를 통합해서 전복해조류건강특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소재로 하는 해양바이오 R&D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남도 핵심전략인 블루이코노미 5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해양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해조류를 해양바이오와 의약, 뷰티,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4차 산업을 융복합화함으로써 부가가치가 높은 박람회로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을 완도 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광객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위기에 처한 농수축산업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인 ASC, MSC 인증을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까지 확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약품 등 해조류바이오산업의 소재인 감태와 곰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양식을 추진하여 해조류 양식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완도 김의 생산량을 증대하고 옛 명성을 되찾고자 김 육상채묘와 냉동망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김 양식어가의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명품광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광어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백신을 공

급하고 사료저장시설과 선어회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명품 광어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조성 중인 수산물수출물류센터에 급속동결장치시스템과 해썬시설을 갖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미국 뉴저지 주로 수출한 완도자연그대로미의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업 정착을 위해 고품질 벼 생산거점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치유의 자원이 될 기능성 색깔보리와 꽃차 등 새로운 품목 육성에 힘쓰고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그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신속예찰방제 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소득작물인 유자와 비파는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6차 산업화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특화지원인 동백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에 등록하고 황칠과 함께 차별화된 산업화 모델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칠특화림 조성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원료수급과 황칠이 산림치유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을 연 60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촘촘한 맞춤형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건인하고 보다 더 안전한 완도를 만들겠습니다. 완도의 미래인 아이들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청년, 여성과 다문화가정, 어르신까지 더불어 행복하고 소외받는 군민이 없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LH 주공아파트 입주에 맞춰 신규 어린이집 개소와 공립 약산어린이집 신축으로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장보고어린이놀이공원에 놀이, 체험, 교육공간을 확충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건강한 청년문화를 조성하며 청년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장보고장학재단의 교육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창업교육, 다문화가정의 한글교육과 평생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에게는 친정 나들이 비용을 지원하고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부부 소통을 위한 읍면순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이·미용권을 사용하시기에 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등 의료서비스 확대 제공을 위해 의료원에 건강정책과를 신설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희망복지재단과 희망 더하기 결연사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이웃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직업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마을방송시스템 설치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재난구호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 운영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함으로써 확장된 재난재해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완도소방서를 연내에 신축하여, 보다 더 강화된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도시로 품격을 높이고 자연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고유한 문화와 자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하여 완도군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섬을 보유한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려 섬 자리 숲길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자원화를 하겠습니다.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을 건립하고 창작판소리 세계인 장보고가 공연 활성화로 글로벌 도전정신을 실현한 장보고대사의 선양사업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일운동의 성지임을 알리고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보훈회관 건립 등으로 호국정신을 고취하겠습니다. 완도수목원과 서부해안도로를 연계한 주요관광지투어 노선을 개발하고 투어버스를 운영하는 등 완도 관광자원을 알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대표축제인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와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핵심 콘텐츠와 관광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완도의 대표

랜드마크인 다도해일출공원은 오토캠핑장과 어린이 놀이공원, 음악분수 등을 갖추는 확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도타워와 신지상산을 잇는 3.1km의 해상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다도해 비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유람선을 운영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등 전문성을 확보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SOC 확충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완도의 청정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의 기반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산임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여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의 부산물 재활용사업과 굴 폐각 친환경 처리, 전복 폐각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해양환경오염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완도를 구시가지의 낙후 지역에 대한 정비와 하수도 정비, 주차장 및 소공원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촌뉴딜 300사업, 완도복합문화센터와 다목적실내체육관 조성 등 SOC를 확충하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과 구도-소안간 연도교사업, 금일-약산간 연륙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서지역 식수난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보길·노화권역 부황천 저류조사업을 착수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 역점시책들을 뒷받침할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050억 7,900만 원, 특별회계 150억 3,100만 원으로 총 5,201억 1,000만 원이며 올해 당초 예산 4,509억 5,600만 원 보다 약 15.3%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 회계는 22.7% 증가, 특별 회계는 61.8%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행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지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자체세입기반이 취약한 군 특성상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민선7기 군정 역점시책인

해양치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맞춤형 복지 추진 등을 위한 지출 수요가 세입 증가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내년도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군특회계 예산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우리 군의 주요 세원인 지방교부세는 감소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전환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은 군민의 관점에서 시급한 현안사업이 무엇인지 깊이 고심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전 공직자는 완도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세계 속의 완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미래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핵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항상 군민과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완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8호, 제2519호, 제252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우성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55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 재정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욱 의원을 간사에 박인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58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의회 회기를 기존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규칙안은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윤리 심사절차 및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규칙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성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특별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22.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2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0시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9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9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계획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금일 전 천후계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외 9건, 토지취득 30필지에 5만 7,866평방미터, 건물취득 1동에 7,596평방미터였으나 경제교통과 소관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여 이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우리 군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조례에서 사용된 호주제 관련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목욕장을 위탁할 때 완도군에 주소를 둔 단체에만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등 진입제한 및 차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비슷한 성격인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인재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육인재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재심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의제기 기간,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자체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안부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 장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관내 학교로 진학을 유도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인구유출을 억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3항까지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자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습니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20년 완도군 공유 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완도군 청림읍 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완도군 정신건강 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5.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1.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42.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43.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44.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10시4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5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재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조례안 외 20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민이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사전피해를 예방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피해방지 등 지원 및 지원협의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다른 데 따라 개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위원회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

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 운행범위 등에 대한 기준 및 표준절차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심의위원회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 인용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소속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때 따른 인용근거 조항 정비와 소속에 따른 귀농·귀어위원회 위원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과 위촉해제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및 위원의 위촉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녹색제품의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를 삭제, 녹색제품 구매예외 규정 수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 기금제도에 대한 일몰제도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조례 개정 신청을 5년 이후인 2024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상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및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조항 및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력을 자갈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제5조 2항 및 제7조 1항 토석·자갈을 토석·모래·자갈로 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2호 가목의 미식부지를 미 식재 부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7,9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완도군 특별보증을 통해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7,7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별보증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완도군 특별보증을 통해 관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전라남도에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전남관광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관광사업시설 투자 유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입니다.

본출연동의안은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에 2021년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 행사장 조성, 대회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산정기준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가산금의 비율이 조례와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현행화하고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와의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항과 과태료에 대한 관련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삭제 및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법령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와의 불일치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44항까지 21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완도군 완도축청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4항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은 각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휴회의 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5항 휴회의 건은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

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9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 출석의원(8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미래해양산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예산안

(10시04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최정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부서별, 세출별로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면밀한 과정을 통해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은 6개 기금에 157억 424만 3,000원으로 내용별로

는 재정안정화기금 21억 9,852만 8,000원, 청사신축기금 10억 671만 4,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267만 2,000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117억 1,329만 4,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5,191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3,111만 8,000원입니다. 그중 수입이 67억 4,090만 1,000원, 지출 212억 5,126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145억 1,036만 1,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기금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5,035억 4,781만 원, 특별회계 150억 3,117만 8,000원으로 총 5,185억 7,798만 8,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원회 삭감조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축제 광고 등 37건의 사업 48억 3,73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검사와 관련된 예산 5건은 해당업무의 관련부서인 세무회계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외 5건에 대해서는 예산에 적합한 통계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신적이고 선심성, 소모성 그리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심하고 심도 있게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도 출된 시정, 개선할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한 예산의 방만한 편성입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예산 심사 시에도 위와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중복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후 편성 시에는 부서별 또는 각 팀별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요구부터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방만한 중복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주민생활 불편예산 등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원칙 미흡입니다. 사업예산은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산경영과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광판 설치 등은 철저한 성과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을 사업에 편성하여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성과분석 후에 예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공급방법입니다. 현재 유용미생물은 농어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공급과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농어가까지 공급됨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농어가에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시에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일정 부분 자부담을 부과하여 소중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운영방법입니다. 주민중심의 예산 편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마을 숙원사업 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되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예산부서에서는 향후 지역위원회 사전 교육 시 취지에 맞는 참여예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예산 집행 방법입니다. 주민복지와 완도군 장사시설 CCTV 설치사업의 경우 회전식 보다는 고정식이 화질이 선명함에 따라 고정식으로 설치하시기 바라며, CCTV는 대여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구입보다는 장비대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작은영화관 수선 유지비 관련 2020년 재계약 시 수입금으로 작은영화관 부대시설을 수리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 시 거론된 개선할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 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예산편성이란 국민의

세금으로 주민의 복지와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윤곽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한 2020년도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투자되고,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며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수집과 질서유지 등에 적극 노력해주신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제안설명 시 자료 준비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정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양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5일 제 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동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요구 3건, 제도 및 정책 개선사항 62건,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하였고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7페이지, 분야별 제도개선 주요사항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예산회계 분야 등 주요사항을 5개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완도소식지 제작 및 배부방법 개선, 아동급식 지원 등을 발굴하여 제안하였고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이월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방안,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교육계획 등을 제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 7페이지 부터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상 조치로 시정요구를 한 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외 2건으로,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농·어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에만 4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597명의 계절근로

지를 배정받아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전담부서가 없으며, 동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유관 부서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군에 부족한 일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도전복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완도전복주식회사에 대한 개별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요구하고 몇 가지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도전복주식회사는 설립 취지에 적합한 회사경영과 전복산업 환경변화와 수요를 예측하여 건실한 경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정관에 따라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 12월까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더불어 경영실적 및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제를 도입하여 성과 미달 시 대표이사, 전무, 상무, 이사 등에게 책임을 묻고 연봉 및 성과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의 핵심산업인 전복산업이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 및 전복산업 환경의 악화로 인해 어려운 실정임을 직시하시기 바라며,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보고수산물축제 및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전면 재검토입니다. 본디 축제란 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생태자원, 특산물, 역사, 예술 등을 소재로 활용하여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개성을 축제로 구체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자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대표 축제라고 하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축제는 뚜렷한 개성과 정체성이 부족해 보이며, 타자치단체의 축제에 비하여 경쟁력 없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두 축제에 대한 냉철한 성과분석 후 개선방안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발굴한 우수 사례는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등 총 3건으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도 및 정책개선사항은 각 분야별로 총 62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으며 행정자치 분야에서는 예산 이월, 불용액 발생 최소화방안 등 20건을 제안하였고 산업건설 분야에서는 유용미생물 공급방법 개선 등 42건을 발굴하여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시정 또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양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5일간 진행되었던 제275회 제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사항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드시 군정에 반영하여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기간 회기 동안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옥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조인호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우성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호 의원 발의)
2.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조인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1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현재 80일간의 총 회의일수로 인해 의정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되어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일 늘려 내년부터는 총 회의일수를 90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총 회의일수를 추가 확보하여 긴급한 안건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민 의정활동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완도군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기존 8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문제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조인호 의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인호 의원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완도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 절차와 징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목적과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윤리심사 절차 및 징계에 관한 선행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완도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규칙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성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인호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성자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 이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9호 완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1호 완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우성자	허궁희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위원이 아닌 의원(1인)

조인호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14.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14.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13호 완도군 청렴 옴부즈만 운영 조례안 외 19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말 사용에 따른 일부 조항 자구 수정사항과 2019년 완도군 자치법규 정비과제 (청취불능) 발굴된 사항으로 해당 조례의 제19조는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9조 관련 정보의 보호규정 삭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관련정보의 보호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3호 완도군 청렴옴부즈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14.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1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16.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2호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부의에 따른 복지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운영비 등의 지원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회의 참가비…… 읍면 지역발전 위원들 회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7만 원씩인가. 그것도 전부 다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 운영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상위법령에 운영비보조금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지방재정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비 종류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회의 참가비 까지도 운영비로 들어가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된 것입니까?

읍면에서 (청취불능)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면 회의에 나오라고 그러면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역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군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러니까 지역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것도 권고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

는 것이지, 군에서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안도 하나하나씩 검토해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전부 배제하는……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지급은…… 그 운영비 범위는 전혀 모르겠네요, 운영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의 참가비도 검토가 안 되어서 나올지 안 나올지 자세히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보통 위원회 조례를 보면 그런 것은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조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여비 그런 정도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할 수 있겠는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김양훈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는…… 이것이 10년이 넘었죠, 지역발전위원회가 설립된 지? (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행정안전부에서 말씀드렸다고 지방재정법 개정 때문에 상위법령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을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이 조직을 없애라는 이런 말은 아직

없나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런 말은 없죠.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발전위원회는 아마 올 상반기 중에 조례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여수하고 완도만 현재 기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행안부의 권고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새로 제정해 가지고 아마 내년 상반기 때 운영할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위원회,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운영이 아닌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아마 다른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운영비로서는 안 되지만 본사업과 같은 역량사업이라든가, 활성화사업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무과에서 2020년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사업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이 같이 바뀌는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잘 좀 확인해서 가지고 읍면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회원들을 갑자기 조례에서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세운다고 그러면 그것도 읍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알아보시고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방금 고수영 팀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바로 폐지해 버리지, 왜 개정안을 가지고 왔습니

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그 조례하고는 다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에 완도읍에만 있다가 시범적으로 고금도와 약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올해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인가 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해 가지고 예산 지원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바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시키고 방금 국장님이 설명했던, 고수영 팀장이 설명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뭐 조례 있습니까, 지원 조례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현재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제정됨과 동시에 폐지할 수……

○ 박인철 위원

그렇다면, 제정이 안 됐다면 완도읍사무소하고 고금과 약산은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줬습니까? 완도주민자치위원회에 1년간 돈이 꽤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조례도 없이 지원해 줬습니까, 그런 데를? 작년도부터 고금하고 약산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약산 같은 곳은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청취불능)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준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민자치위원회는……

○ 박인철 위원

완도읍은 이것이 없어요, 완도읍에는 읍면 지역발전협의회가 없어요, 완도읍은, 애당초 완도읍은 없었어요, 12개 읍면에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하여튼 여러 위원회 정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현재 남발하다시피 무질서하게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각 시군별로 그런 사항을 알고 이것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조례도 없이 계속 법령에 위반되게 지원해 줬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주민자치위원회.

○ 박인철 위원

센터라고 안 하고 명칭을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더구면, 센터라고 안 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조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방청석에서 “있습니다, 있어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조례가 없다고 해.

(방청석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별도 조례는 없고요,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곳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할 것이 아니고,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지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던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서 하나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시켜 버리고 바로 다른 읍면들도 고금이나 약산, 완도읍은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 뭐 그러는데, 다른 읍면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 박인철 위원

그분들이 뭘니까, 발전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편입되어 가지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조례가 좀 그런 것 같네요. 폐지하고 바로 그렇게 올렸어야 했는데,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시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관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8조 1항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기간 5년 이내로”를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0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청취불능) 폐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금년도 법제처 정비과제로서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되는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0조의 위탁취소 부분을 전부 삭제한다는 얘기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위탁해지 부분은 2조 1항…… 21조 1항의 6호에 그 해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이 부분이 다른 데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중복되어……

○ 김양훈 위원

중복돼서 지금…… 중복된 부분이 안 나와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삭제시켜 버리면 무조건 5년…… 잘하든 못하든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호주법에 사용된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제4조 2호 중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

게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주제 관련 용어를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등으로 규정된 진입제한 및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에 “완도군에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나 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으로 규정된 단서조항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중목욕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에 주소를 두는 등으로 규정된 진입 제한 및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상위법에 근거함으로써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상이한 법령용어와 관련 규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취지에 적합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완도군으로 법령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6호에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

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를 신설,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휴가를 시설의 개방으로 하고 제2항 시설의 개방시간과 제3항 개방시간 조정 등을 신설하여 시설이용에 편의를 기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운영의 위탁”을 “운영의 위탁 지원”으로 하고 제1항 공개모집, 제4항 위탁기간 3년, 제5항 예산의 지원, 제6항 “규정 외의 사항을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등 운영의 위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위탁해지의 각호를 전면 개정하고 제3호 종합 안전점검 또는 종합평가를 거부나 방해한 경우, 제4조 고의중대한 과실로 청소년활동진흥법(청취불능) 경우 등 위탁의 해지사유를 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성격이 유사하여 충돌 가능성이 있는 완도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해당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용어 불일치 및 건축법 규정에 맞게 완도군 건축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호 제6항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건축 조례 위촉직 위원의 임기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한 해당 조례의 용어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완도군에 체육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체육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선진스포츠 문화의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4조에 지원사업, 제5조에 지원대상, 제6조 신청절차 및 선수의 선발방법,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완도군 지방공무원 관리 조례 제23조, 제26조 보조금의 관리감독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의 체육인재를 육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체육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생략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에서 체육의 정의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수라는 용어는 전문체육선수를 의미하고 있으므로 안 제2조에 대한 내용 중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전문체육선수를 발굴,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라고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이윤리 선수한테 계속 지원해 줬죠. 전에는 조례 없이 지원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윤리 선수 말고 우리 군에 또 있습니까, 어떤 선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현재는 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리 선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그런 급의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체전이라든가 국내대회에 입상해서 지원 신청자격이 가능한 선수는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포상금도 있고 선수수당도 있고 그러는데, 매년. 그리고 이 수당은 뭐 언제까지 준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뭐가 없는데. 보니까 거의 이윤리 선수 한 사람을 내놓고 선수수당,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 전액을 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런 선수들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완도군 마크를 하나 단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거의 뭐…… 내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던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우리 군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군의 마크를 달고 출전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국제대회가 아닌 국내대회라든가 단일대회에 참가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의무규정을 신설해서……

○ 박인철 위원

이 선수가 도에서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국제장애인올림픽대회에 나가면 도 이렇게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

리 군 소속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을 나가는 것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올림픽을 나갈 때는 군 소속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박인철 위원

소속이…… 어느 경기나 소속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을 나가더라도 소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실업팀이나 대한……

○ 박인철 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윤리 선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던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지금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 박인철 위원

완도군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조례도 없이 이제까지 지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진즉부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자고 해서요. 이 조례도 말한 자가 언제인데 이제 올라와 있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완도군 출신 우수선수들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체육회의 건의도 있고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 별표에 따라서 40점 이상이면…… 장애인올림픽이 됐든 무슨 올림픽이 됐든 40점이면 매월 27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수가 끝나고도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 활동기간 중에 주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 2년 주기로 선발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2년 기간 중에 매년 그 선수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그 해당점수에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2년 내에 새롭게 선발하기 때문에 끝나면, 선발이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박인철 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조례에……

○ 전문위원 추관호

79쪽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79페이지,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전년도 경기실적증명서 이것만 가지고 합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6조 3항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6조 3항에.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이윤리 선수한테는 1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매월 나가는 것이…… 새로 만든 조례상에서는 특급이 270만 원인데요.

○ 박인철 위원

그것까지는 하고, 그것은 매월 나가는 것으로 치고, 지금까지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또 경비, 그런 것도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없더라도,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통상 1년에 어느 정도 나가냐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이 조례상으로 나가게 되면 연 3,240만 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요. 그리고 전지훈련비는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그런 비용, 저런 비용 합치면 한 4,000 정도.

○ 박인철 위원

4,000 더 들어가죠. 전지훈련, 훈련용품비, 대회출전경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산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왜 물어보냐면……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 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88페이지 비용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보더라도 우리 군 소속 역도선수들보다 훨씬 낫다는 이 말이에요, 이 분이. 역도선수들보다 우리 군 소속인,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역도선수들보다 이분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받아왔고 그분들이.

그리고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을 하실 때, 그때 도 선수들은 체육회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체육회에다가 낼 예산을 가지고 선수를 발굴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선수들은 그냥 프리로 뛰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 군 소속 선수들하고 처우가 합당한가. 그 문제도 한번 따져 봐야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례를 만든 목적도 이윤리 선수가 근거 없이 우리 군 출신 선수라는 것 때문에 지원해야 되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함께, 그렇더라도 올림픽 내지는 아시아게임 이상에서 좋은 성적을…… 금메달 이상 메달을 딴

선수들 중 우리 군 출신이라면 어느 정도 사기진작 차원, 또 완도군 홍보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1년에 이런 선수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급, A급 이런 선수들은 거의 4~5년…… 아니,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사항이고, 최소한 우리 군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앞으로 체육에 이런 지원을 군에서 해줌으로써 사기를 높여서 기량이 향상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꼭 공부만이 아닌 예체능계의 청소년들도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선수수당이라고 딱 이렇게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뭐 훈련이나 전지훈련비, 이런 것어야 큰 예산도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매월 급여처럼 선수수당이라고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유도선수들 연봉으로 하는데 월 어느 정도 수령합니까, 역도선수들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선수들 4명 각각 금액이 다르긴 한데.

○ 박인철 위원

평균적으로.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2,000에서 3,000, 감독까지.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70만 원씩 딱딱…… 이것이 시행되면 270만 원이 바로 가는데, 이 연봉도 3,200만 원 나오구먼요, 3,200만 원 나오면 1년 이면…… 이윤리 선수한테 한 5,000만 원 정도 지급되겠구면, 훈련비까지 다 하면.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연도별 비용추계니까요.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특급이나 A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례…… 물론, 조례 없이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검토해서 조정해 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지나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 위원장 박재선

마지막에 다시 한 번하기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전체로 따지면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은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조례가 확정되면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조례를 개정해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드시피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해서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 있는 이윤리 선수를 우리가 근거 없이 지원하고 있다

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근거를 갖기 위해서 조례를 구체적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조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위법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지급이요, 2 번으로 중복되는 지급이 없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봤을 때 이것이 국가 기준인가요? 대한민국 기준에 보면 여러 대화…… 15조 1항에 보니까 세계선수권, 장애인선수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된 지급이 아니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중복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선수 등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최소한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로서 근거를 두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이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5조에 보면 주민등록지가 군으로 되어있을 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서약도 그렇게 받을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선수 중에 한 명만 주소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 자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은 잠깐만 제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지역에 등록이 세 분 중에 한 분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선발해 놓고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선수 본인이 완도 군으로 주소 이전을 안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선수가 이렇게 군에 이전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지원중지, 우수선수가 실업팀이나 프로팀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중지하고 환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올림픽이나 어디에 가서 메달을 따도 전부 다 선수들은 프로 아니면 실업팀에 등록되어 있을 텐데, 이것은 뭐 실력이 좋아도 그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겠네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 규정에 의하면 지원할 수 없죠, 어디 실업팀이나 소속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군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요? (예)
그러면 전부 다 이것은 생활체육에만 포함되는…… 장애인하고 생활체육만 포함되는 조례겠네요, 여기에 엘리트들은 전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체육인에 대해서……

○ 김양훈 위원

엘리트 쪽은 어디 시합을 나갈 때 소속이 안 되어 있으면 거의 시합을 못 나가거든요, 개인적

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장애인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장애인하고 일반인들인데 그러면 생활체육밖에 없는…… 생활체육은 큰 대회가 없을 것 같고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면 범위에……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 전문위원이 용어의 정의를 검토했는데 이 조례는 생활체육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수 전문체육인.

○ 김양훈 위원

우수 전문체육인이면 엘리트인데, 엘리트 선수들이 실업팀이나 프로에 있지 않고서는 선수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엘리트나…… 엘리트 선수들은 어디 시합을 나가게 되면 소속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무소속으로 뛸 수는 있어요. 뛸 수는 있는데 거의 힘듭니다. 거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도 분이 만약에 세계대회에 나가서, 큰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랬다고 했을 때 거기도 훈련비는 아니더라도 수당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해도…… 격려금 정도는 줘도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장애인하고 생활체육회밖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사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 지원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선수들은 10년이나 4~5년, 이 정도에 한 두 명 나올까, 말까 하지. 이것은 거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김양훈 위원

노화에 xxx라는 아이도 국가대표입니다.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프리팀에 있지만, 국가대표로 있지 않고 프리팀에 있지만 이런 애들이 중간에

운동을 안 하고 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거의 시합을 뛰려고 하면…… 코오롱에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도 도민체육회가 있을 때 와서 다 뛰어 주지 않습니까. 시합도 뛰어주고, 메달도 따주고, 근거지가 없어서 그냥 빈털터리로 10만 원인가 교통비를 받고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선수들한테요, 군을 위해서 시합을 뛰어주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라고 하니 다음부터는 안 온다는 얘기에요.

이런 조례도 만들었으면 그쪽 부분도 연관해서 우리 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는……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메달 몇 개씩 꼭 따주고 가요. 또 국가대표도 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국제대회도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해주는 것은 전혀 없고, 보면 장애인 쪽만, 뭐 생활체육 쪽만 이렇게 범위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이나 이런 때에 우리 군 출신선수들을 불러오는데 그 분들을 격려하거나 포상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분들이 국가에서 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금액은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100만 원, 은메달을 따면 75만 원, 동메달을 따면 52만 원 이고, 아시안게임에서는 포상금으로만 금메달을 따면 120만 원, 은메달은 70만 원, 동메달은 4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해가지고 점수도 40점을 한 방에 쥐가지고 270만 원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도대체 전혀 안 맞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계산추이가.

지금 우리가 이윤리 선수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월 270만 원 정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그 정도 나갑니다. 전년도 실적을 점수화해서 등급으로 선정……

○ 박인철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적로나 뭐 근거로 했던 것,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각종 세계대회나 국제대회.

○ 박인철 위원

아니, 270만 원을 준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선수한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그래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윤리 선수……

○ 박인철 위원

완도군에서 몇 년 동안 이윤리 선수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월 일정액을 주고 또 체육용품 주고, 뭐야, 전지훈련비를 다 대주고,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횡수는 정확히 계산은 못 했는데.

○ 박인철 위원

한 10년 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좌석에서) 예, 10년 넘었죠.

그래서 그동안 근거가 없어서 그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으로써 2년 주기로 계속 신청을 받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기준에 미달되면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으면 관례대로 계속 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세계 간다는 이 말이에요, 전혀 완도출신, 군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군 명예를 드렸었다든가, 군민의 자긍심을 높였었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예체능…… 체육인이 그렇다면 예체능 그런 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조례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체능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인,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센 감이 있지 않은가. 보니까 항공도 2 등석으로 해가지고 전액 다 우리 군에서 어디 나갈 때…… 이 안에 싹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도요, 이해가 되는 정도에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포상금 같은 것은 일시적이니까, 한 회에 한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가지만, 그냥 우리 완도군청 소속인 것처럼 완전…… 우리 군청 소속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위원장님, 한번 우리끼리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국장님, 이것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따 따로 위원님들끼리 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군민회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법적 반환의 무가 있으나 조례에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고,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 사용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강제적 표현이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반환하여야 한다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의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경우에는 사용료 미반환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반됨은 물론,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4호의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법규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설치조항에서 작은 도서관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근거 없이 규제사항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조례의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 1항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제6조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를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사항과 안 제31조 건물의 사용료(청취불능) 층별로 부지평가액 감정비율을 정한 규정은 상위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고, 안 제32조 시행령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 및 사회적기업의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대부료에 대해 50% 감면기준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감면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조례로 위임된 수의계약 기준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출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행정안전부의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우리 군은 2011년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가입하여 다양한 지역자원 및 정부의 홍보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완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 미만의 시군구의 출연금은 5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진흥을 위한 계획 조사연구 및 자료제공, 각종 매체를 통한 우리 지역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 지역개발 자문컨설팅교육 등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등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출연금 550만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입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예산입니다. 장학기금 적립과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내년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총 2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장학기금 적립 4억 원, 장학금 지급 등 26개 장학사업에 17억 4,900만 원, 지역교육사업 2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사업은 초등영어캠프 프로그램 지원으로 1,400만 원,

학생 및 교사 독서토론체험 프로그램 1,000만 원, (청취불능) 향상 프로그램에 6,000만 원, 관현악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6,000만 원, 국악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2,000만 원, 문화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영재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1,500만 원, 방과후 학교운영 순회 지원 1,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내년에도 2억 3,850만 원을…… 우리가 23억 8,500만 원을 장보고장학금에 출연하는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출연할 것입니까? 회계연도가 끝나고 15억씩 하다가 150억에서 2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요, 계속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출연해야 되는가. 어떻습니까, 국장님?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년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이자 수입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많이 해오고 그랬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좀 떨어지고 마이너스 시대에 접어들어서 기금출연은 변변치 못한 상태에서 지출은 해야 되고, 장학사업을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기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군비에서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추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을 멈출 수는 없고 확대해야 되는데 기금 모금은 여의치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군비라도 출연하고자 하는 그런 사형입니다.

○ 박인철 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잘 이해됩니다마는……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장학금이 해년마다 쓰이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가 한 번쯤은 되돌아볼 때가 되었거든요.

뒤에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해놔는데 마이스터고, 이것이 한 2억 정도, 무지개 이것도 2억, 지역교육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할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도 다 이렇게 해주고, 또 그 돈들을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가 해주면 그 예산들이 어떻게 소요되는가. 그런 성과분석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한 번씩 다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담당직원이 성과분석, 장·단점,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많이…… 제대로 해놔던데,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이런 사업들, 계속되는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데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심의 있게 논의되어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마이스터고 이런 것도 거의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처음에 마이스터고가 되면서 우리가 지원……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또 국악,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이런 것들도 4,000만 원 얼마씩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 다 쓰임새를 보니까 거의 간식비, 부식비 그런 데로 다 쓰이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내막을 들어가서 보면 아이들의 질적 향상 이런 것들이 물론 거기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학생들을 데리고 하려다 보면…… 그런데 너무……

이번에 국장님,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을 심의 합니다마는 아마 국장님이 예산을 한번 봤을 것 입니다마는 진짜 우리가 순군비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장보고장학금에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해년마다 하고, 그리고 각 읍면 면사무소들이 D등급을 받고 노후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신축하기 위해서, 물론 그 조례는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기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장보고장학금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읍면 행사나 어디 행사에서나 가서 보면요, 물론 군에서 “여기에다가 해라.”, “저기에다가 해라.”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보고장학금은 들어오지도 않고 거의 행복복지기금에다 다 기탁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안 되었는가. 꼭 군에서 이런

게 해년마다 이렇게 20억이 넘어가는 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국장님 소속인데요. 장보고장학금하고 행복복지기금하고 1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기탁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난 1년간 비교해 보면 양 기금 모금은 한 6대 4 정도, 복지회관에 좀 치우쳐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좋고 저쪽에도 좋다면 그쪽에 형평성이 있게 기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이 말씀드렸다시피 순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별로 되지 않고, 어떤 기반도 없고, 기반시설을 하는 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인재 육성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사업을 등한시할 수 없는, 또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복지예산이나 한정된 교육예산만 가지고……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대도시지역보다 혜택을 훨씬 못 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가 이것마저 멈춘다면 누가 완도에서 살 것이며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또 완도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런 것에 투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장보고장학회 모금부터 시작해서 배분방식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성과분석과 더불어서 해마다 심도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100번, 1,000번 이해됩니다마는 장보고장학회가 태동하고 나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가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데, `19년도 사업만 올라와 있고 그래서 한번쯤 되돌아볼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애당초 우리가 150억을 목표로 했다가 이자가 떨어진다고 해서 200억을 목표로 했는데 해년마다 출연금이…… 처음 태동할 때는 우리 군에서 15억씩 했는데 오히려 150억 목표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군 출연금이 해년마다 8억씩, 7억씩 더 많아지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계획도 얼추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인가, 아니면 접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부터 가입하여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년 우리 군 출연금은 258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강화 지원,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지방세정 발전 지원, 지방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본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 원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원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배분을 위해 2020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군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관리계획의 반영기준은 취득재산일 경우 토지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10억 원 이상, 처분재산일 경우 토지는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총괄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 30건에 면적 5만 7,866제곱미터,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한 동에 면적 7,596제곱미터이고 금액은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취득재산은 31건에 면적 6만 5,042제곱미터이고 금액은 366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안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외 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3페이지의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신축공사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1987년 매립 준공된 부지를 매입해서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신축하고 주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 취득으로 대상지는 금일을 화목리 141-12번지 3,392제곱미터의 부지를 3억 8,600만 원으로 매입하여 전천후게이트볼장을 2020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작년 12월 6일 부지면적 3,990제곱미터 2억 5,000만 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으나 도시계획도로 분할 및 간접평가 결과, 3,361제곱미터 3억 8,600만 원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예산 확보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차피 예산도 추경에 통과시켜 줬으니까 그런데요. 문화체육과에 보니까요, 게이트볼장 이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여기 금일도 보니까 게이트볼을 치는 사람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던데. 너무 행정이 주민들한테 끌려갑니다. 안 들어갈 돈이…… 물론 부지는 사니까 상관없는데 안 들어갈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군에서 했던 대로 군유지에다가 했어야 했는데. 주민들이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땅도 없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행정을 하실 때는 원래 원칙대로 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일 다목적 문화복지관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완공된 금일 다목적문화복지회관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각종 행사 시 주차난 해소 등 주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반영내역은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금일을 화목리 196번지와 999번지이며, 면적은 2필지 2,417.3제곱미터로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의 매입부지 현황 및 표에 나온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거기 승낙서는 받았습니까, 주인하고 얘기해 봤어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예, 토지를 취득하는 데에 이상 없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사진을 보면 밭으로 나왔는데 그 옆에 갈대밭까지 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갈대밭까지고, 갈대밭 주인은 그때 물어보니까 안 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다 정리되었어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정리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가 정문 바로 앞이죠, 체육관이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주차장하고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데요. 연결해서 많이 주차할 수 있게……

○ 김양훈 위원

주차장 용도예요, 다른 용도예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주차장 용도죠.

○ 김양훈 위원

확실하게요, 확실하게 주차장 용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씩 해주십시오. 2건이죠?

○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우홍래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경제팀장 우홍래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 변환소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산업자원부, 한전본사를 방문하기 위하여 출장 중이므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건은 완도항 내에 연근해 조업선단 접안장소가 부족함에 따라 해경부지를 매입해서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완도읍 가용리 747-11번지이며 면적은 7,503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에서 신설부두로 이전을 완료한 후에 기재부로 재산을 반납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 한국자산공사 목포지사를 방문해서 매입 관련 협의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매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경제교통과 경제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우흥래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건은 중앙시장과 인근 상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도시 재생사업과의 중복문제, 인근 상가주민들의 반대 의견 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우흥래 팀장님, 이것은 금방 팀장님 설명처럼 부결시켜도 상관없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우흥래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11페이지, 금일 명사십리해수욕장 관광자원 개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권역에 해양치유산업의 거점지역 또 향후 금일 명사십리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한 개발 잠재력이 높은 부지로서 위치는 금일을 사동리 외 세 필지이며 임야가 두 필지 2,797평방미터, 밭 1필지 793평방미터로 총 면적은 3,590평

방미터 약 1,085평입니다. 현재는 국방부 소유로 군 내무반이 시설되어 있으며 국방부에서 일 반에 매각하려던 것을 우리 군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매각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비로 약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관광자원 개발부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도시계획도로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향동리 일원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수십 년간 공유도로로 사용 중인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 필지에 3,430제곱미터고 사업비는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취득한 토지는 학교 용지로 부지매입비는 5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현안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건씩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 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7호 해양치유센터 건립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는 320억 원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다음은 17페이지, 의안번호 제8호 해양치유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 건입니다.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신지면 대곡리 1942번지 외 14필지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해양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청정한 해양공간에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 건강증진과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청산면 신흥리 580-1번지 외 두 필지이며 소요예산은 토지 및 지장물 포함 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런 데는 블루존 그 예산에서 땅을 산 것입니까, 아니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별도 토지비를 확보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블루존 예산에서는 왜 안 하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블루존사업으로 하고요.

○ 박인철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같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 박인철 위원

(청취불능) 보고할 때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입니까? 182억 안에…… 청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군비로 다시 한다는 말이에요, 매입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토지매입비는 군비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블루존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해양치유로 해가지고, 블루존으로 해서 200억으로 해가지고요. 10개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11개 지자체로 해가지고 182억인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군비 매칭사업 말고 뭐가 얼마나 더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토지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하면?

해양치유 블루존사업이 신지, 청산, 노화, 금일 쪽 이렇게 여러 군데 있던데, 센터별로 그러

면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군비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안에는 없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블루존사업은 신지와 청산부지하고 지장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에서 보고할 때는 다른 쪽도 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향후 해양치유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면 향후 사업으로, 동부권과 서부권 쪽으로 이렇게 확대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도대체 해양치유와 블루존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320억은 놔놓더라도, 182억은 놔놓더라도 도대체 얼마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략적으로 아직 그런 것은 안나와 있습니까, 그런 플랜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 이후에 특별한 군비 소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민자 유치라든가.

○ 박인철 위원

아니, 해양치유산업과에서 한 것은 그렇지만 환경산림과에서도 약산 당목향에다가…… 내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그냥 동백치유의 숲이라고 하더구면, 언제 거기에다가 해양치유의 숲이라고 붙여놔 가지고 돈을 더…… 50억짜리인데 거기에다가 계속 돈을 붙이고 그러던데, 완도읍은 해양치유만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다 오케이가 되어 버리는 것인가.

이런 것도 보니까 블루존사업에 이런 부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매입은 별도로 하고……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먼저 21쪽, 완도 청해진유적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적 308호 완도 청해진유적 보존과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완도읍 장좌리 809번지 임야 8,450제곱미터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억 8,400만 원으로 국비 70%, 도비와 군비 각 1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장님, 그러면 여기에 xxx의 땅이 여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장보고유적지는 우리가 전체 다 흡수하는 것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이 필지만 사면 다……

○ 박인철 위원

그분들이 팔기로 했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팔기로 해서 저희들이……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장도는 우리 군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했던 대로…… 다음은 이상 15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5건의 안전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4호 완도군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6호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7호 완도군 공설묘지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8호 완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

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9호 완도군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0호 완도군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1호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2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3호 완도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4호 완도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5호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5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0호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2호 2020년 완도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완도군 지역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 사전통지, 이의제기 기간 등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법적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중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에 맞게 60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의제기 기간을 “지체 없이”에서 “14일 이내”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33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보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이의제기 기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다음은 139페이지,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주제 폐지에 따라 조례 등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와 제6조, 제11조 중 “입적”을 “입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5조 제2항의 “잔여금액”을 “남은 금액”으로, 제7조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0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다음은 145페이지,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에 학교보건법을 상위법 변경에 따라 교육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 내용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5조 제3항, 제7항 또한 상위법에 따라 법령 적용 및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6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3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다음은 151페이지,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완도군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해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 등 손해배상 관련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 위탁의 취소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0조 전체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3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뭐 어디 수탁하고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아니요, 직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앞으로 수탁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법령에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조례를?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아직 위탁할 계획은 없고요. 법에서도 저희가 위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조항 중에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 인원들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인원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들이요.

○ 박인철 위원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해가지고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의사는 주 1회 저희가 위촉해 가지고……

○ 박인철 위원

해남에서 오십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해남에서 오시고요. 직원들은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수탁을 안 하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선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6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7호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8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39호 완도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옥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직무대리	우홍래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2.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3.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16.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17.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완도죽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2.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3.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16.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17.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박인철 의원 발의)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4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완도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금융회사의 책무, 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방지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원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본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제안사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민이 각종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사전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인철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0호 완도군 전기통신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13.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4.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15.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16.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의안번호 제2541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위촉위원회의 연임규정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를 개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제6항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회의 임기 중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연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65쪽, 의안번호 제254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에 따라 전국적인 표준기준과 절차를 반영하고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침사항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규정을 통일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장애인콜택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대비하여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안 제4조에서부터 제7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안 제8조 및 1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행차량의 종류, 운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대상자는 기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 시군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지침에 따라서 이용요금을 고시하고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전 지역을 운행지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하여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잘못된 점보다는 장애인 보호자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광역센터를 이용하는 쪽을 상당히 권장하는 모양이에요. 광역센터를 이용하다 보면 콜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눌러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완도 택시조합이라고 하냐요, 개인택시도 소속되어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개인택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거기로 연락처를 이렇게 홍보해서 콜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이 제일 활용하기 쉽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운영했었는데요, 광역센터인 콜센터에서 광역콜센터를 거치도록 강요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개선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용…… 뭐야,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 광역센터로 갔다가 광역센터에서 이렇게 지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같으면 그것을 참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콜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편리한 119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아침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더라고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 부분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콜센터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참고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11조에 보면 장애인이 아니어도 일반질병
이나 이렇게 사고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죠? (예)

그런데 12조에 보면 임신부나 이런 분들도 다
되는데, 미리 군수에게 등록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급하게 부를 때는 군수
님한테 미리 등록하지 않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
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러니까 지금 이용대상자가 장애 정도가 심
한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그다음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
이 어려운 임신부, 그리고 일시적 휠체어사용자.
이런 사람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들이 이용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장애인콜센터
로 해가지고 문자등록을 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임신부라든가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언제 아프겠다, 언제 아기를 낳겠다는 이
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119를 부르겠지만
만약에 119도 안 댔을 때 이것을 이용하고 싶
다. 그런데 미리 군수님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하
면 이용을 못하잖아요. 시간이 지체되어 버리니
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부분은 급한 사항인데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죠.

○ 김양훈 위원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등록……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그런 부분은 사후조치를 한다든지.

○ 김양훈 위원

그렇게 해도 관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등록해
놓고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은 병원에 가는 날짜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도 되는데 임
산부나 이런……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런 응급사항이 있을 때는 서류 없이 사후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있습
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4대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이것 도서지역은 들어갑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연륙된 곳은 들어가는데 섬지역에는 나르미선
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를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2주에 한 번도 좋으니
까 먼저 질병이 있는 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는, 장애자에 한해서요. 먼저 나올 수 있는 시간
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지역은 그
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
니까? (예)

그러면 위탁하는데 도선료밖에 안 들어가요, 더 이상. 맞지 않습니까,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니까요. 그런데 도서지역에서 질병을 가진 장애자가 밖에 나와서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하는데, 못가고 있는 실정이라 119를 써서 가야 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저희가 119하고 협의해서 그런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도서지역에 장애가 있고 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악해 가지고요. 2주가 됐든 한 달에 한번이 됐든 간에 한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마도 지금은 119쪽을 더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장애인콜택시 위주보다는 그런 위급한 환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 들하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국장님, 이런 부분 많이 참고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이용요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이용요금은…… 현재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기본요금은 1,000원입니다. 그리고 400미터당 100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바뀌진 요금은 기본요금이 500원이고 km당 100원이 추가됩니다.

○ 김양훈 위원

기본이 500원이고 km당 100원으로 바뀐다고

요? (예)

그러면 이것 장애인콜센터 이쪽뿐만 아니고 야까 말한 질병이나 입산부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4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85쪽, 의안번호 제2543호 농업축산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용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완도군 귀농·귀어위원회 위원의 소속 및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개정에서 따라 조례안 제2조 농업인들의 정의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관련법에 따라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귀농·귀어위원회 설치에 있어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일부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193쪽, 의안번호 제2544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촉해지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당연직 위원 임기를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의 2와 안 제14조의 3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과 위원의 위촉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05쪽, 의안번호 제2545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9년 완도군 자체 발굴 정비과제에 따라 발굴된 사항으로 녹색제품의 구매 의무 범위는 관련법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본조례는 지난 11월 중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이 일부 의결되었으나 일부 문구가 수정되지 않고 제출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 중 제9조 이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조례에는 해석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주요 내용 중 녹색제품 구매 예외 규정을…… 규정 수정을 삭제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매의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고, 녹색제품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 개정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13쪽,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11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일몰제도 이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준용하고자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 내에서 동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을 연장하고자 하나, 조례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안 2항, 3항, 4항은 상위법에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조례에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개정안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2024년도로 한 것은요, 2020년 12월 31일로 한 것은 이 법이 부칙에서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202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개정해 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내년에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지금까지……

○ 전문위원 최명신

어차피 계속 이 기금을 설치하는데 존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년 후에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검토의견은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5년 하고 이후에 다시 5년을 연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이렇게 판단해서요,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기금이 2024년이면 안 끝납니까, 생활폐기물?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아니, 이것이 2020년까지 하고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2025년까지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개정해 버리면 2024년에 끝나 버리니까.

○ 박인철 위원

아, 원래 이 기금이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우리가 주고 1년에 한번씩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제2의……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몇 %로 해서……

(방청석에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 관계로 조례도 같이 맞춰서……” 하는 직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쓰레기소각장이 언제까지……

(방청석에서 “2026년 4월 26일까지.”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군으로 오죠?

(방청석에서 “예,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나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에 맞춘다는 이것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이 법의 시행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시행일에 맞춰 가지고 5년을 하나까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개정해 가지고 5년을 연기하면 한 번 할 수가 있으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 전문위원 최명신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박인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 박인철 위원

예.

○ 위원장 김재홍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21쪽,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용어가 불일치하고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이를 현행화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청취불능) 불편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제명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 제6호 감량부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로 그리고 제3조 감량의무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개정하고 제3조의 2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의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과

용어가 일치하도록 각 조항을 부분 또는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4와 7, 별지1, 2, 3호의 서식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45쪽,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 조례는 상위법령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불일치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7조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4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53쪽, 의안번호 제2549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조례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서의 내용을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침해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를 대등한 입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지의 3조 및 제9조 제2항은 특정 당사자의 일방적인 책임조항 및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1조 제4항 및 별지 제9호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인 위탁관리계약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개정하고자 별지 제4호 3의 일방적인 책임조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다음은 261쪽, 의안번호 제2550호 안전건설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7조 제1항 별표1 제2호 다목, 별표1 제2호 라목 중 토석·사력을 토석·자갈로 개정하고 제5조 제2항 “분납하게”를 “나누어 내게”로 조례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용어수정안 중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 “토석·자갈”을 “토석·모래·자갈”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리고 가목의 “미식부지”를 “미 식재 부지”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56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경제산업국 소관 4건의 2020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의안번호 제2562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라남도도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금년까지 7억 7,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출연금은 7,950만 원으

로 10회차 출연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산업·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공장 증개축 건립자금 등 각종 건립사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에 운영됩니다. 금년에 우리 군 소재 23개의 업체가 총 70억 7,1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2차 보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제2563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함이며 재단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은 지난 해와 올해 각각 7,700만 원씩 1억 5,400만 원을 출연하였고 내년도 출연금은 7,700만 원입니다. 본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자금과 관내 소상공인의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에 운용됩니다. 금년에 우리 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실적은 10월 4일 현재 470개의 업체에 136억 원의 일반보증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째 기금……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내년에 세 번째입니다.

○ 허궁희 위원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때 수수료는 변동 없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수수료는 저금리 대출이자로 하도록 그렇게……

○ 허궁희 위원

아니, 이자 말고요. 수수료, 수수료, 즉, 무슨 말이나면 신용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예, 맞습니다.

○ 허궁희 위원

보증해 주는 만큼 수수료를 내는 것 아닌가요. 그 수수료는 변동이 없죠, 내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군에서 3년째 이렇게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수수료는 계속 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출연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지금 우리 군에서 수수료를……

○ 허궁희 위원

아니, 출연금은 계속 이렇게 출자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 또 대출을 받은 상공인들이나 이용자들은 수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 비례해서.

○ 경제정책팀장 우홍래

(좌석에서) 50%를 군에서……

○ 허궁희 위원

보증료식으로 냅니다.

보증료를 안 받으니까? 저는 보증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정책팀장 우흥래

(좌석에서) 군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확정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시행 받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료 보증서인가 뭐를 끊어요, 그것을 끊어 가지고 농협이 됐든, 수협이 됐든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가서 제출하면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 금융재단에 따라서 다르고, 제가 묻는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준 만큼 수수료를 받아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런 데도 거기에 출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것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자세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33쪽, 의안번호 제2564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지역신용보

증재단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여성 및 청년사업자 등 담보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출연금은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8억 1,4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020년도 출연금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관내 저신용, 여성가장, 청년사업자 등에게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사업에 이용되며 출연금의 12배까지 지원됩니다. 금년도 보증실적은 관내 43개의 업체에 총 12억 9,000만 원을 특례보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제2565호 관광정책과에서 제출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전라남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 내 부족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에 관광산업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출연금은 10억 5,000만 원이며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도비 27억 원, 시군비 33억 원으로 시군당 1억 5,000만 원씩 총 6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출연금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의 신축 및 증축, 개보수 등 용자 지원이며 한국관광품질인증 숙박업소도 지원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8개 업체가 선정되어 총 54억 1,000만 원을 용자 지원받았으며, 금년의 경우 1개 업체가 선정되어 15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출연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이상 15건의 조례안과 출연동의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5건의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1호 완도군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2호 완도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3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더 이상 의안번호 제2544호 완도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5호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6호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7호 완도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8호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49호 완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정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50호 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2호 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3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4호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5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2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사업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

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완도군 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전에 프로그램 연출, 행사장 조성, 대외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해조류산업의 가치발견 및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은 20억 원이며 출연방법은 현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의 별지1,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 주요연혁, 임원, 주요기능, 자본금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별지2 출연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1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완도항 해변공원 및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2021년 4월 23일부터 5월 16일까지 24일간 개최되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수익사업 40억 원, 국비 20억 원, 지방비 40억 원으로 내년에 군비 2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박람회장 기반조성, 전시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국내 유치활동에 사용되며 연도별로는 2020년에 군비와 수익사업 30억 원, 2021년에는 국비와 도비 수익사업 7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의 산출기초와 49페이지의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소관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본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 20억 원만 하면 해조류박람회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20억 원만 출연하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군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총 100억인데 100억을 가지고 해조류 박람회가 마무리됩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그럴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전에, 이전보다 해조류박람회가..... 내년에 하는 것이 더 크죠, 규모가? 신지까지 이번에 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17년도에 비해서요?

○ 김양훈 위원

예.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좀 더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좀 더 광범위하게, 크게 넘어가죠? (예)

그때 `17년도인가, 그때 해조류박람회를 할 때 180억 정도 들어갔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때도 100억 정도, 97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1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180억이 들어가고 올해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규모는 훨씬 커졌고 그래서 20억 출연 가지고 다 마무리될지 궁금하고요.

수익사업은 대표수익금 아닙니까, 40억? (예, 그렇습니다)

대표수익금으로 40억 원이 다 들어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계획에 차질 없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전에 해조류박람회 행사할 때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2017년도 말입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3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35억이죠. 그러면 수익금 5억이 더 증가되는데 그만큼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더 늘어나고 `17년도 박람회보다는 그때도 100억이라고 했고 내년에도 100억인데, 제가 보서는 그때 180억이라고 했고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만약에 100억이 넘어가면 나머지 박람회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딱 100억을 맞춰서 거기에서 할 것입니까?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입장권 수입을 줄이고요. 휘장 수입사업하고 임대수입을 늘려서 100억을 조성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 김양훈 위원

아니, 100억이 넘어가면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100억이 넘어가면 어디에서 따로 가져올 돈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총 사업비에 맞춰서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딱 100억으로 맞춰서요? (예)

이전 같이 100억 예산으로 잡아놓고 180억 이렇게 들어가지 않겠죠?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예, 2017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억으로 추진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180억이었거든요.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부대시설까지 여러 가지 제경비로 해서 그런 산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100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부대시설, 홍보비, 연출비, 경상비 전부 다 해서 100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하면 처음부터 출연금액을 더 넣어버리든가.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출연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20호 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17.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267페이지,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작업 기계의 효율화를 제고하여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며 상급기관의 지침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른 조항 수정으로 제9조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산정기준 수정입니다. 당초 1일 임대료를 구입가격별 %로 적용하여 타 시군과 비슷하게 구입가격의 0.5%를 적용하였으나 상위법 변경으로 구입가격별 1일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내용과 제16조 위촉직 위원의 임기 수정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8페이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

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소장님,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어떤 신청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 우성자 위원

아, 조정하라고요? (예)

그러면 이 위원님들이 특별히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전에는 임대료 같은 것을 위원들이 정했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무 하는 일은 없는데 그 위원들은 계속 가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상위법에…… 진흥청이라든가 농림수산부에 질의해 가지고 다시 한번……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들이 결정을 안 하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임대료를 결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상위법으로 임대료를 설정……

○ 우성자 위원

아, 상위법에 권장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요? (예)

우리 완도군 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현재로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임의대로 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 것 없이 임대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이라든가, 비싸다든가 이런 말도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가로 구입한 기계는 약간 임대료가 올라가고요, 고가장비는 임대료가 싸지는 그런……

○ 우성자 위원

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농민들이 임대할 때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그래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기계 임대료 때문에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일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종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24종에……

(방청석에서 “28종에 150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이범성 위원

그렇다면 좀 저렴한 기계, 싼 기계들은 임대료가 올라갈 것 같다고…… (청취불능) 같은 큰 기계들은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민들이 큰 기계를 많이 임대합니까, 아니면 작은 기계를 많이 임대합니까?

(방청석에서 “소형기계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소형기계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임대료를 더 내고 써야 된다는 그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전반적으로 본다면 임대료를 낮추자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소형기계는 약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 이범성 위원

큰 변화는 없겠습니까? 그에 따른 어려움이랄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소형굴삭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개정하기 전에는 12만 원 정도 임대료를 냈습니다마는 개정 후에는 8만 5,000원으로 그렇게 저렴해 지는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그러는데요. 상위법 기준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는 또 거기에 따라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임대료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

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1호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2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57쪽, 의안번호 309호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물환경보존법과 용어의 불일치, 과태료 규정에 반하는 등의 사유로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현행화로 수질 및 생태계 보존에 관

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비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분의 5에서 부담금이 이렇게 100분의 3으로 줄어든 것은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서 그랬나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동안에는 100분의 5였는데 이번에 100분의 3으로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완화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 확인이 안 돼서 어떻게 조정하다가 이번에 개정됐는가 싶어서 확인차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한 내용인데요, 100분의 3으로 상위법이 개정된 것이 '16년 1월 27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산금을 개정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산금을 더 걷으려고 그랬습니까? '16년도면 그전에 했었어야 했는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 사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3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두 번째, 369쪽 의안번호 제310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근거 없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수수료와 과태료에 대한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중 납부의 연대책임 조항과 제43조

중 철거한 급수설비에 대한 군 귀속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6조 중 수수료와 과태료의 관련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 및 제5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소장님, 법령근거 의무조항 그 수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용자의 수도 사용요금 납부 연대책임 삭제, 개인사유시설물에 대한 군의 귀속조항 삭제. 여기에 따른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당초 조례에 있는 연대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주민들한테 침해를 주는 방향이 있고요, 크게 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도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안 진다든가, 수도세를 안 냈을 때 이런 법이 적

용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수도세를 받아내기 위해 단수조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연대책임이랄까, 군의 귀속조항 이런 부분들은 수도세가 많이 밀려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부분들이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요금을 연체하는데 소액입니다만 그 금액을 가지고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 이범성 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수도 사용료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들에 큰 변화는 없느냐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없습니다. 단수 조치하면 바로 요금을 냅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5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세 번째 375쪽, 의안번호 311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발굴된 사항으로 조례에서 정해진 관리자의 업무범위와 자출범위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상 (청취불능) 처분방법이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관리자의 하부조직의 설치에 대한 건의를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지

방자치법에 따른 군수 권한에 침해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 법에 명시된 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조례에서 다시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청취불능) 처분방법이 상위법과 달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였고, 안 1조 및 4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5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마지막으로 385쪽, 의안번호 제312호 완도군 상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8조 조명시설 등의 (청취불능) 등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

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와 제20조는 관련 근거법령을 수정하였습니다. 제29조 가산금 및 독촉은 하수도법에서 근거가 없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위임조례로서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독촉을 해도 안 낼 경우 전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앞으로? 이것을 삭제하시면 안 낼 때는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것인가요? 29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상수도하고 마찬가지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동시에 이렇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체납요금을 징수할 때 같이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독촉장은 발부하지 않고, 그런 것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잘된다는 이 말인가요? (예)

그렇게…… 아무 뜻이 없어서 삭제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필요가 없어서?

앞으로 만약에 가산금을 안 내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이 부분을 전체 삭제해 버리십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가산 독촉은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상위법령에……

○ 전문위원 최명신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죠. 그리고 또 같이 징수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도 혹시 또 안 내는 부분이 있을 때는……

○ 전문위원 최명신

상수도요금만 내고 하수도요금은 안 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하수가 같이 갑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감사 때 보니까 미납분들이 많이 있던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미납분들이 많이 있던데, 3회 독촉장까지 내고 내지 않으면 강제로 압류를 한 다든가 이렇게 해서 징수를 했었는데요. 방금 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계속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 그것은 하수도 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매월 내는 하수도요금하고 다릅니다.

○ 김양훈 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로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상수도도 마찬가지로요.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은 매월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요.

○ 김양훈 위원

안 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런 분들은 단수 조치하고요.

○ 김양훈 위원

단수 조치만 하고 놔둔다는 얘기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저희들이 계속 단수조치를 하고 안 되면 단수를 합니다.

○ 김양훈 위원

단수조치를 하기 전에……

○ 전문위원 최명신

김양훈 위원님. 최근 세외수입 미납 그 부분은 오펜수, 농공단지 오펜수처리 미납금이 많았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것도 있고 상수도 미납금도 좀 있어요.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단수만 하고 내버려둔다고 하면요. 나중에 엄청 쓰고 단수한다고 하면 안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강제조항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수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고요. 독촉장을 내지 않아서 부과징수가 어렵다는 이런 부분도 좀 염려됩니다마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비와 같이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동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수조치가 돼서요. 지금까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재홍

예.

○ 이범성 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납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상수도법에는 독촉의 근거…… 상위법에 독촉관계는 없습니까, 상수도 부분에서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상수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상수도법에 적용시켜도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결론이 되겠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하수도법에는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 상수도법에 따라서 같이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 이범성 위원

원래 법에 독촉, 이 부분이 없었다는 뜻입니까. 이번에 없어졌다는 뜻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번에 없어진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범성 위원

일단 미납금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되어 가지고 하는 말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다면…… 독촉에 근거해서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2호 완도군 완도축청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3호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4호 완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5호 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0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예산안
 - 세무회계과
 - o 기획예산담당관

(14시01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8일까지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우리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바탕으로 내년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심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에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

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과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법적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재정안정화기금, 청사신축기금,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조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계획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59억 7,853만 7,000원, 보조금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301억 9,543만 8,000원, 이자수입 3억 6,867만 2,000원, 기타수입 1억 4,369만 2,000원으로 총 369억 3,633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사업비 38억 1,795만 6,000원, 예치금 156억 8,507만 7,000원, 기타지출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총 369억 3,6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02억 1,460만 4,000원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67억 4,090만 1,000원, 지출이 215억 5,126만 2,000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45억 1,036만 1,000원이 증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 총 조성규모는 157억 4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 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3억 7,034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 총 규모는 22억 9,852만 7,000원입니다.

다. 기금의 주요재원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 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일정률을 적립하며 조성된 기금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사용은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1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그 밖에 기금관리 운영의 필요한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연도 말 기금 적립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0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3억 7,033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2,590만 원, 기타수입 1억 3,559만 2,000원으로 총 196억 3,18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21억 9,852만 7,000원, 일반회계 전출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총 196억 3,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수입과 지출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까지 조성액은 총 196억 3,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20년도까지 집행액은 `20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174억 3,330만 6,000원으로 조성액에서 집행액을 제외한 기금 잔액은 총 21억 9,85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은 농협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며 `20년도 말 현재액은 `20년도 집행액을 제외한 총 21억 9,85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년도 기금운영 총괄계획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담당관님, 나카주십시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운영총칙으로 우리 군 청사신축기금은 2019년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보길면, 고금면, 금일읍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사전행정 절차입니다. 2019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수입 40억 6,000만원, 지출 30억 5,328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671만 4,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그 밖의 수입금이며, 지원기준으로 신청사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지원대상은 부지매입비, 건축비와 건립 관련 부대경비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40억 원, 이자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용자성 사업비 30억 5,328만 6,000원, 예치금 10억 671만 4,000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보길면사무소 신축 28억 7,860만 3,000원, 고금면사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4,468만 6,000원.

25페이지입니다. 금일읍사무소 기본계획 용역 3,000만 원입니다.

26페이지, 2020년도 기금조성액은 전입금 40억 원, 이자 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6,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은 비용자성 사업비 30억 5,32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청사신축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직무대리 김승훈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 위생관리팀장 김승훈입니다.

관광정책과장은 공모사업 관련 섬 출장으로 부득이 담당팀장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재원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징수 과징금과 기금의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 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완도 관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조성액은 9,321만 9,000원이며 2020년에는 과징금 810만 원, 이자수입 135만 3,000원으로 재원조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0년 말 조성 예상액은 1억 1,2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관광정책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관광정책과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직무대리 서말순

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과장님과 생활환경팀장님께서 지금 교육 중이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지도팀장 서말순입니다.

41쪽,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05년 완도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분의 5를 출연금으로 확보하여 2019년 12월 말 현재액은 100억 4,076만 6,000원입니다. 이 기금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로, 매립장, 재활용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20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출연금 15억 원과 2019년도 정기예탁금 회수금 100억 4,076만 6,000원, 예금이자 1억 7,252만 8,000원을 합한 총 117억 1,329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환경산림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산림과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9년부터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옥외광고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연도 말 기금조성액……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2만 8,000원이고 금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2,140만 원, 지출은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말 조성액은 5,1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계획으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7,967만 6,000원이 늘어난 총 5억 2,1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1억 7,000만 원이고 보조금은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9만 4,000원이 되겠습

니다. 올해 저희 수입계획 중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행정안전부의 간판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간판 개선 공모사업으로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보조금이 2억 5,000, 군비 부담금이 1억 5,000, 자부담 5,0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입금이 1억 7,000 중에 매년 출연하는 2,000만 원과 함께 간판 개선과 관련된 1억 5,000만 원이 전입금으로 들어와 있고요, 보조금 2억 5,000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이자수입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판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억 9만 4,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보조금과 군비출연금에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현수막게시대 설치로 2,000만 원을, 또 앞서 말씀드린 간판 개선사업으로 총 5억인데 조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 5,000만 원을 뺀 90%인 4억 5,000만 원, 총 4억 7,000만 원을 지출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5,149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 위원장 최정옥

57페이지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57페이지입니다. 예탁금은 2020년도 말 5,191만 8,000원을 농협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지역개발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개요, 설치년도는 2004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설치근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의 운영방향, 기금의 사후목표는 재난의 사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19년도 말 6억 976만 원에서 2,13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3,111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전입금 정기예치를 통한 공공이자수입입니다. 세 번째,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지원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대상은 재해위험시설 정비, 재해긴급복구비 등입니다.

6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은 수지총괄로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9,714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2,578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이 전년도 2억 5,467만 원에서 1억 5,366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853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매년 보통세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0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976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248만 1,000원이 증액된 749만 1,000원입니다. 이율에 따라 매년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난관리기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8억 2,864만 7,000원에서 9,714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2,578만 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용자성 사업비 전년도 대비 1억 9,467만 원이 증액된 2억 9,467만 원입니다. 비용자성 사업비의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1억 227만 원, 재난예방 대비에 4,240만 원, 재난복구 지원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전년도 7억 2,864만 7,000원에서 9,752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3,911만 8,000원입니다. 이는 지출계획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지출할지 모르는 부분에 대비하여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5쪽의 지출계획 세부계획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이며 전입금 14억 4,333만 3,000원, 보조금 9억 8,700만 원, 이자수입 2억 9,865만 1,000원, 기타수입 9,041만 9,000원으로 총 28억 1,240만 3,000원입니다.

67쪽입니다. 집행액은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 비용자성 사업비 21억 8,128만 5,000원이고 잔액은 6억 3,116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2019년도 말 6억 976만 원에서 2,135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3,12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5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비사업은 설명을 듣고 인건비 및 여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군비 사업만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사항 등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건정재정 운용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선 7기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건설을 위한 군정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최근 5년간 세입 증감추이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추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사전 교부결정액과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도 총 세입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509억 원 대비 15.3% 증가한 5,2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2020년도 사전 내시된 금액 전액을, 국도비보조금은 교부내시액을 기준으로 반영하고 연례 반복사업의 경우에는 교부 내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20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050억 7,900만 원으로 934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0억 3,100만 원으로 243억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552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469억 8,0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군비부담금은 1,035억 원이 되었습니다. 순군비 자체사업비는 일반회계 2,013억 6,500만 원, 특별회계 101억 3,900만 원으로 총 2,115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에 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순군비 자체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총 2,487억 9,5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 심사와 보조금 심의위원회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에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80%인 1,991억 8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법정의무경비로서 인력운영비는 정규직 및 공무원의 경우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정원 기준으로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을 3.9%를 반영, 5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는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을 적용하여 총 46억 9,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의회비, 직무수행경비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은 장보고장학회 등 7개 기관에 48억 원을, 포상금 및 성과상여금은 33억 9,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은 7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은 청사신축기금 등 4개 기금에 59억 7,8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에 6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신축기금이 2019년도에 설치되어 매년 5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본예산에 40억 원을 전출하고 잔액 10억 원은 추경에 전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여비, 특근매식비, 부서운영비 등은 자체기준 경비에 따라 부서별로 편성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은 최소화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액한도액을 적용하는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예산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146억 원, 행사축제경비 62억 6,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경상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

비는 237억 9,100만 원, 여비 37억 5,900만 원, 일반보전금 83억 5,200만 원, 지방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외 63억 3,300만 원 등 총 446억 1,3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사업의 적정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 등 비교를 통해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 및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 사전 매입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379억 3,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6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 13억 5,4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2억 8,300만 원, 민간위탁금 9억 2,6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20억 4,500만 원 등 총 59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에서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따른 기반조성, 균특회계 지방이양, 농어민 공익수당 등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935억 원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체사업비가 전년대비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 효율화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적극적인 재정 집행 노력을 통해 군정 발전 효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소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

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웅입니다.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201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1억 5,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과목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20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300만 원이 증가한 4억 9,000만 원, 재산세 2억 8,000만 원 증가한 24억 8,000만 원, 자동차세 5억 원 증가한 55억 원, 담배소비세 1억 5,000만 원 감소한 44억 5,000만 원, 지방소비세 31억 4,1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3,000만 원 증가한 35억 3,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18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4,000만 원 증가한 65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로 3,900만 원 증가한 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하수도·시장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로 3억 6,400만 원 증가한 14억 8,9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비용 판매수입,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전년대비 12억 8,600만 원이 감소한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11억 1,600만 원 증가한 1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300만 원이 감소한 4억 1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3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00만 원, 부담금 수입 2억 6,200만 원.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3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42억 8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94억 2,200만 원이 증가한 2,388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보통교부세 185억 9,900만 원 증가한 2,224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6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45억 6,900만 원 증가한 81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도세징수 재정보전금 60억 7,500만 원, 2019 회계결산분 재정보전금 8억 원, 균특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 조정분 12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022억 1,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0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등이 20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552억 3,2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139페이지부터 1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46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9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51페이지부터 16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9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9억 3,300만 원이 증가한 239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이 135억 원이 감소한 65억 원, 내부거래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14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35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은 545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의 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358페이지에 공간간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218만 2,000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십니까?

○ 우성자 위원

자치단체……

○ 김양훈 위원

(좌석에서) 358페이지, 그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 위원장 최정욱

밑에서 두 번째.

○ 징수팀장 이영수

(좌석에서) 징수담당입니다.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지방세외수입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싹 바뀝니다. 지금 시스템이 오래되어 가지고 새 시스템으로 다 바뀌는데요. 그 구축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는데 2년차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것을 그러면 위탁합니까?

○ 징수팀장 이영수

(좌석에서) 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합니다. 전국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운전공무원 피복비 구입이…… 363페이지인데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운전직공무원들이 색다른 옷을 입은 것을 못 봤거든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이 부분은, 매년 운전직공무원들이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는 옛날에 운전직공무원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매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해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운전직공무원들이 매년 체육대회를 할 때 추리닝을 입고…… 그렇게 축제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색다른 옷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회를 위해서 추리닝을 사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그날만 입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죠. 한 번 입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한 20벌 정도 한 것 같아요,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 우성자 위원

20벌이 이렇게 많아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니, 40벌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런데…… 운전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가 보네요.

그리고 한 김에, 364페이지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 용역하고, 또 365페이지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검토용역. 이런 것까지 전부 용역을 줄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닙니다. 이것 책자를 제작한 것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 우성자 위원

용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 경리팀장 한지영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토용역을 법상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용역을 받아야 만이……

○ 경리팀장 한지영

(좌석에서) 예, 회계사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용역을요.

○ 우성자 위원

아, 왜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는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받아야 결산할 수 있다는 그 말이죠?

○ 경리팀장 한지영

(좌석에서) 예, 결산을 저희가 작성하면 전문 회계사로부터 검토용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2쪽에 시설 및 부대비 부분에서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요. 다른 건물들도 이렇게 매년 받나요, 아니면…… 구 소안고등학교가…… 소안 무슨 마을에서 운영하는 그쪽이 아닌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것은 아닙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이 유가 무엇인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362쪽이요, 아래쪽.

○ 위원장 최정욱

시설 및 부대비.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본청입니다, 본청.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소안고등학교라고……

○ 허궁희 위원

구 소안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밑에서 보시면요. 시설 및 부대비라고 있는 곳 있죠. 362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 재산관리팀장 서정국

(좌석에서) 위원님, 재산관리팀장 서정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소안고가 폐교되어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요. 주민들이나 군에서 활용방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건물이 어떤 상태냐, 교육청에 있을 당시 하고,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저 건물에 대해 용역을 해가지고 쓸 만하다고 하면 활용가치를 보고요. 아니면 위험하다면 철거해서 저것을 다른 용도로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요. 그 용도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사기 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사고 나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합격판정이 안 나면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 재산관리팀장 서정국

(좌석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되고 활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 허궁희 위원

철거할 물건을 매입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죠. 안 그런가요?

○ 재산관리팀장 서정국

(좌석에서) 일단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매입하기 전에 이런 평가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어서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

해가 되는데, 매입하고 나서 이런 검사를 받았는데 활용도가 안 돼서 철거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지 않나요?

○ **재산관리팀장 서정국**

(좌석에서) 그 건물이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학교 건물인데,

○ **재산관리팀장 서정국**

(좌석에서) 군의 것이 아니고,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학교에서 일괄 부지하고 같이, 건물하고 같이 매입하다 보니까요, 그 건물상태를 저희들이 겹으로 봤을 때만 알지, 전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요, 한번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다른 건물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했던 그런 학교 건물이요, 저는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검토를 했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사기 전에는 하지 않습니다, 원래.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하고 나서요, 소안고등학교, 구 고등학교 말고도 매입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노화에도 노화 북고리……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도 이런 타당성조사를 했나는 얘기에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사고 나서 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 **허궁희 위원**

노화도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노화 초등학교, 옛날에 노화전북 그 학교……

○ **허궁희 위원**

보길에는 매입한 것 없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진설계를 받았던…… 성능평가를 받았다는 이런 용역은 제가 자주 보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여기에는 이렇게 세밀한 평가를 받은 용역을 줬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아, 그러기 전에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페이지라고 하면 자세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대답을 못하겠으면 담당팀장님들한테 대신 설명을 부탁하고요.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예요, 시설비에 청사 천장형 에어컨 설치공사가 있죠, 그것을 2억 8,000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여성아동과에 냉난방기,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스탠드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스탠드를 사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위원님, 거기는 별관동입니다. 별관동이라……” 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청사구조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62쪽, 허궁희 부의장님이 질의했던 부분이요, 이것 안전진단만 받으면 안 됩니까, 용역까지 해야 돼요? 안전진단만 받으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진단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꼭 이렇게 용역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전진단 쪽으로만 하시고 용역은 나중에 하십시오, 이것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라고 다 철거하라고 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안 하면 되지. 꼭 용역까지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다시……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약산 방송장비 교체가 1,500만 원……

○ 위원장 최정욱

몇 페이지인가요?

○ 우성자 위원

362페이지, 위쪽이요, 이것 스마트방송하고 연결해서 할 수 없습니까? 이것 새로 해야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이것은 회의실 방송장비입니다.

○ 우성자 위원

회의실이요, 이번에 스마트방송하면서 음면하고는 전혀 상관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회의실을 스마트방송으로 교체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363쪽인데요, 사무관리비에서 버스 임차료로 70만 원짜리 12회 있는데, 이것이 그냥 어디에 간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규정은 없고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이나……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실과에서……

○ 이범성 위원

꼭 12회를 운행한다고 봐서는 안 되겠네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고.

○ 이범성 위원

10회할 수도 있고 6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364쪽예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주민복지과 후방진입형 슬로프 장애인차량 신규매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뭔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장애인차량이 없다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요.

○ 김재홍 위원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를 가지고도 문제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슬로프라는 것을 이렇게 경사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 김재홍 위원

휠체어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고금요양원하고 어르신들을 휠체어 일반차량에 이동 불편함이 있어서 바로 휠체어를 차량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중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일반차량에 이동시킬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요. 바로 휠체어를 차량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 2대를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차라리 휠체어 차량이라고 하지, 용어를 슬로프라고 해놓으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이라고 했는데 왜 주민복지과에다가 해놨습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이것이 차량은 정수물품이라 승인을 받고 세무회계과에다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세무회계과에다가 세우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복지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협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에다가 사서 물품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그렇게 세워놔야지, 나도 체크해 놓고 나중에 물어보려고 놔뒀는데요, 이러면 우리 군에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물품을 다른 것으로 보내는 것……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위탁공고라고 하지 말고, 벌써 다 정해져 있는데 무슨 위탁 공고가 나와, 지금.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우리가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

○ 박인철 위원

아니, 위탁한지는 아는데요, 그래도 지원되면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간다고, 주민복지과라고 해놓으니까 나도 지금…… 이런 차량들이 경제교통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도 체크만 해놓고 나뒀다가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런 목들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우리는 전혀 몰라버려. 그런 예산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이에요, 뭐 세무회계과 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먼저 알고 물어본다니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주겠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통과됐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전혀 모르는 예산이 들어왔던데……

흔한 예로 경제교통과에서 그랬습니다마는 전혀 올라오지도 않는 예산 16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군수를 쫓아온다고 하는 이런 실정이에요, 정리는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체크해 주고요, 아니면 설명할 때라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1억이면 1억의 예산으로 리프트차량 2대를 사가지고 어디어디를 주민복지과에서 해준다고 하든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다가 세우면 안 됩니까, 이런 예산들은? 복지과에서 하나니까요, 이것은 자산물품도 아닌데,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관리하는 자산물품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정수물품이……

○ 박인철 위원

우리 군의 정수물품…… 아무리 뭐 위탁했다고 하지만 거기는 위탁자인데, 수위탁자인데, 그

려면 위탁자에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위탁해 줬기 때문에 관리전환해서 할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뭐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져봅시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360페이지 위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전입이라고 해서 3,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은 별관동…… 해양치유산업과가 올 때 지금…… 우선 먼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아직 안 세워져서. 조직개편을 하면 1월에 바로 직원들이 들어와서 근무해야 되는데요. 팀, 담당이 늘어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해양치유과가 본청으로 온다는 얘기인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2층 장보고장학회하고 법률구조공단이 다른 데로 가고요.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니까 과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오게 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거기 원래 사무실로 되어 있지 않나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두 군데로 나눠져서요. 사무실을 두 군데로 나눠서 쓰다가 하나로 뜯어서 하려고 하니까 거기가 수리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팀, 담당이 신설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3,500이……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 돈을 가지고 같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는 어디로 간대요? 저쪽 법률구조공단, 거기 사무실은?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거기는 토반다실 2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 지금 거기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9페이지요, 밑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임대료 2개소로 해가지고 해놓은 것, 그것도 그런가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이것이 토반다실에 했던 곳…… 토반다실 사용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200이 남는데, 이것은 혹시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세워놨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한 달에 200만 원이요?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100만 원씩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100만 원이요.

○ 위원장 최정욱

이것이 지금 월세죠, 그러면?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그렇습니다. 월세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2020년 본예산은 `19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9,519만 7,000원이 감소된 46억 4,120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예비비가 저희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올해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가 그렇게…… 49억이나 50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어서 그것을 삭감하셨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비비는 22억 정도 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외에 다른 예산이, 남아 있는 예산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예산이 없다고 난리던데 예산이 남아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예비비를 당초 정기추경에…… 당초 본예산 예비비를 저희 부서에 편성시키고요, 사용잔액 예비비에 대해서 22억……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예요.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부터 장보고수산물축제, 청정완도 가을빛축제, 군정사업 홍보, 전부 광고비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렇게 5,500만 원 정도…… 축제마다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으면 신문이나 방송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특정신문이라든지 그런 데에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왜 저기는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라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별로 이번 축제는 어느 어느 방송사로 하고, 어느 신문사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저희들이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축제를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저도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아, 어디에서 무슨 축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 5,500씩 해가지고 몇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없다,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저는 참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

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뭐 축제 홍보도 있지만 특산물 홍보라든지 지역 홍보, 관광 홍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위원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홍보 광고, 신지 명사십리는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완도 해수욕장의 우수성을 알려려면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우성자 위원

금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도 식사할 곳이 없어 가지고 오히려 다음에 안 올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홍보만 해놓고 그런 대책을 안 세워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작년에 식당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가고 그대 가지고 올해는 과연 얼마나 올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관광정책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이에요. 연구용역비 2억이 있는데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매년 10년 단위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제작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10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2015년도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5년도에 한 것은, 그것은 민선6기에 접어들면서 군정 운영방향이라든지 공약 실행사항이라든지 지역민 의견수렴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법에 의한 그런 종합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용역해 가지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에 준해서 무엇을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5년도 그 당시에 한 것은 민선6기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짧은 단기적인 그런 방향제시가 필요했다고 판단하고요. 또 활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활용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을 많이 안 하던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어쨌든 간에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어야 장기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기회로 선정되기 때문이에요. 되도록 환경요건에 맞춰서 발전계

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우리 군이 22개 시군 중에 용역 1등인지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 김양훈 위원

다른 것은 1등을 못해도 용역 1등은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에 용역을 해가지고 거의 활용도가 없는, 쓰지도 않는 용역을 해가지고 버리는 용역이 너무 많아요. 2억을 들어서 종합발전계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과도 보면 이런 용역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용역은 전부 다 인건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또 유사한 용역들은 지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억씩 들어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맞는 활용도 해야 되고 또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도 들어온 지 1년 반, 뒤 2년도 못됐습니다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용역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용역도 많고,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철저히 예산 편성단계부터 지양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187쪽, 행사운영비. 공약이행주민배심원단 위탁 운영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매년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 행사비로, 그 행사비로

2,000만 원입니다. 위탁해서 운영합니다, 그 행사가.

○ 김양훈 위원

어디에다가 위탁해서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여러 가지 대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행사를 선정해서요. 저희들이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인데…… 이전에는 어디 업체에 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입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쪽을 보겠습니다. 청정바다 가을빛여행축제 광고 5,500만 원, 이 광고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널리 알려져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가 존재하는 한 홍보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6,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6,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번 가을빛축제 총 행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억 9,000.

○ 김양훈 위원

2억 9000이요. 그러면 반절이 홍보비네요. 6,000만 원, 5,500, 1억 2,000이 홍보비고 다른 데에 가면 또 있을 것인데. 아니, 행사비의

절반이 홍보로 간다는 것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신문도 신문이지만 방송을 한 번…… 영상광고를 30초짜리 스팟 광고로 하면 3,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이것은 말이 안 맞죠.

이번에 장보고축제를 할 때 외부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작년에도 광고비 5,500만 원인가 들어가기도 그때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돈이 광고비로 들어갔을 거예요. 무의미한 광고비를 계속 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축제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홍보차원에서……

○ 김양훈 위원

다른 광고도 많고 홍보도 많은데, 가을빛축제로 해가지고 행사비용에…… 총 행사비용에 절반을 광고비로 넣는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을빛축제 이것 어떻게 보면 거의 군민들만 하는 것이고 또 소비성 행사라고 생각해요. 큰 효과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세한 효과는 관광정책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담당관실에서 가을빛축제 광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광정책과에다가 넘겨야지, 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차원 행사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요.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도희망소식지 제작, 그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맡겨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제작을 기존에는 저희 과에서, 저희 실에서 편 집했습니다. 저하고 부군수님, 그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군수님 이런 순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인 저하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촉하고요. 그 다음 민간에 외부전문가 두 분을 위촉해서 총 다섯 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쭙본 것입니다. 외부인들도 같이 구성해 가지고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을 보면…… 군 행정으로만 집중해서 제작하더라고요. 또 보면 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소식지 2면에 들어갑니다. 의회소식으로 해서 2면으로……

○ 김양훈 위원

읍면도 소외감 없이 잘 좀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용료 4,500만 원은 어디 어디 업체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뉴스1 이렇게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씩.

○ 김양훈 위원

1,500만 원씩이요. 그만큼 홍보효과가 나오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포털이기 때문에 매체에 뜨게 되면 전 신문에 게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신문매체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연합이라든지 뉴시스도 아마 국내 전통 최대 뉴스 전문회사고요. 그래서 아마 파급력도 크고 영향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도 있는 쓸 만한 매체로 해서 홍보결과와 효과가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2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안사업 공모.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192쪽입니까?

○ 김양훈 위원

192쪽 연구용역비.

○ 위원장 최정욱

1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이것은 해마다 연도 말이라든지 연중에…… 다음 연도에 현안사업 공모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아니, 이것은 기획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올해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세웠고요. 그다음 1회 추경에 4,000만 원,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기가 맞다 하면 부서에서 편성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부득이하게 그 부분에 부합하지 못할 때 기획팀의 총괄예산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용역을 추진했고요. 농업축산과 농업농촌지원

활용 지역 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취불능) 사업을 추경에 세워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도요, 본예산 사용분을 감안한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도 그러면…… 현재 이 용역비는 뭐 예비비 형식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예비비 형식입니다.

○ 김양훈 위원

다른 실과에서, 부서에서 못했을 때 해준다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불시에 발생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 김양훈 위원

그런 것은 실과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꼭 예비비 형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 실과에서도 충분히……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 김양훈 위원

아니, 실과가 더 전문적일 것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뒀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예비비 형식을 이것 말고 추경에 2번 더 넣는다는 얘기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금방 팀장님이……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1,000, 1회 추정 4,000, 2회 추정 2,000으로 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하고요. 사용하는 부분의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추가 확보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웬만하면 실과에서 이런 신규 현안사업은 미리 준비했다가……

정보력만 빠르다면 왜 모르겠습니까. 일을 안 하고 논다는 얘기죠.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먼저 전부 다 이렇게 공고를 띄울 텐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총괄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면 좋은데, 수시로 사업이…… 일몰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공모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부서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88페이지요, 온라인매체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라고 해가지고 3,3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보, 188페이지 가운데 줄.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홍보팀장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 홍보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온라인 활용 지역특산품 홍보는요. 매생이라든가 미역, 톳, 전복 같은 것을 온라인 배너식으로 해가지고 스파트 광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년에 한

6~7회, 많게는 10회 정도까지 합니다. 330만 원씩 해가지고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온라인 배너에다가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 홍보팀장 조승호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내년에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것도 촬영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189페이지요, 군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800이 세워져 있거든요. 군 대표 블로그라면 어떤 것을 말하나요, 이것도 역시 배너를 말하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요, 이것은 별도로 블로그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지금 홍보를 보면 거의 신문사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사용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사용료, 그러니까 전체 홍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스크랩 서비스 사용료는 저희들이 날마다 신문스크랩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용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도 지역의 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신문 스크랩을 하는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홍보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신문기사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 홍보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크랩 그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자료를 잘라서 스크랩을 했었던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다운만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잘 알았습니다.

187페이지요, 중앙단위 경연대회 작성 자료하고 2020 군정 홍보책자 자료하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제일 위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020년 군정 홍보책자 자료는 각종 지역현황이라든지, 통계 이런 것을 별도로 책자를 작성해서 VIP 같은 손님이 오실 때 자료로 내놓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지방자치 경영대전..... 아, 아니, 중앙단위 경영대회 자료 작성 이것은 각종..... 중앙언론사라든지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자 자료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2020년도 홍보책자는 관광자료 책자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아니고 별도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별도로 했습니까? (예)

191페이지요, 아까 청렴옴부즈만 워크숍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인이라고 했는데요, 민간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위촉.....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각 읍면에 2인씩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어떻게 위촉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할 필요성이 뭔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지역의 각종 공사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고요, 그런 여론들의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워크숍을 할 때 이야기해 주고 그런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렇기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 위원장 최정욱

이것 언제부터 했나요? 몇 년 됐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효과가 좋은데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금년도에 청렴도가 2단계 상승해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내부, 외부 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부는 4등급 그대로고요, 외부는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3등급, 2단계로 수직 상승해서 2단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18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역량강화교육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인원수는 10명……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지역혁신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올 2월에 편성되었고요. 올해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하고 위촉직하고 이렇게…… 위촉직하고 당연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토의하고 심의했을 때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청취불능) 공모하는 데에 도움을 받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그 혁신협의회 위촉직은 각 면 단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완도읍에서만 몇 명 뽑아 가지고 합니까?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외부교수라든가 아니면 (청취불능) 연구원.

○ 이범성 위원

아, 그러면 외부사람들을 위촉한다는 것이죠?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위촉되어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되어 있어요?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되어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 이범성 위원

주로 교수님들입니까?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교수님은 한 세 분이 되는데요. 목포 신순호 교수님하고 (청취불능) 그리고 조상필 박사님에다가…… 그리고 관내 기관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변영회장님, 여성단체회장님, 청년회장 이런 단체들도 몇 분이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부의장님이 위원이십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사업 때문에 이루어진 협의회입니까?

○ 정책기획팀장 고철휴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것이 국가균형위에서 관여되어 있는 각종 공모사업 선정이라든가, 추진 때문에 발족되어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협의회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내 임기 동안 다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주민복지과
- 민원봉사과
- 여성아동과
- 문화체육과
- 경제교통과
- 농업축산과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저희 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871억 1,483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86억 41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사업 확대에 의한 대상자 및 지급액 증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균특과 기금 포함 603억 6,049만 2,000원으로 69.2%입니다. 도비가 58억

2,244만 6,000원으로 6.7%, 군비가 209억 8,189만 4,000원으로 13.1%입니다.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6%로, 대부분 복지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군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주민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221페이지에 약산 군경충훈탑 주변 정리라고 했는데요, 약산 주변의 땅을 사기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군경충훈탑이 있는 것, 그것이 매년…… 저희들이 한번 지원해 줬고 또 장항군에서 한 번씩 해줍니다.

이전에 군수님이 가셔서 충훈제 행사 때 갔는데 돌이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줌……

○ 우성자 위원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훈탑이 아니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개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 우성자 위원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훈급여는 왜 이렇게 도비가 적게…… 우리 군비로 전부하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수당은 전액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 우성자 위원

아, 도비가 너무 적게 와서요.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114억이나 증가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이번 금액은 숫자가 늘어나고 확대되다 보니까 그 책정기준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 김양훈 위원

236쪽예요, 공기관 자본위탁사업비. 이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01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2020년까지 한국에너지재단과 협약을 했습니다. (청취불능) 2018년 8월 30일에 했는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연 200억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단 열창호, 바다, 보일러 공사 등 에너지 효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뭐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한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에너지재단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요. 저희들은 매칭사업으로 돈만 지원하고, 또 대상자를 선정해 드리고요.

○ 김양훈 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매칭은 안 되고 그냥 1,5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거기에다가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 정도 대줍니까?

○ 희망복지팀장 최정환

(좌석에서) 에너지재단에서 90% 이상을 대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90%요, 그 내용까지 있으면 보기 편했을 텐데 그냥 순군비로만 1,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 희망복지팀장 최정환

(좌석에서) 작년 사업결과를…… 올해 사업결과를 오후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작년 그 성과요?

○ 희망복지팀장 최정환

(좌석에서) 예.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예요, 거기도 위탁사업비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일 밑에 쪽이요, 이것 균특, 도비, 군비인데 이것도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위원장 최정욱

243페이지 제일 밑에.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재 장애인돌봄부터 시작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신청을 받아서요, 도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에 노인돌보미나 노인 그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도 있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현재…… 각종 치료사업입니다. 언어치료라든지 미술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 위탁사업자는 누구한테 맡기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이 사회복지정보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바우처사업으로 처리해서 각자 인증을 받은 산학협력단에서 신청하게 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전체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전체 예산을 주고 연말 마지막이 끝나면…… 12월에 끝나니까 1월에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정산서는 잘 들어오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그 밑에 민간자본……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밑에

장비보강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대충 들은 것 같아서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 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금요양원하고 청해요양원이 있습니다. 청해요양원은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용역을 줬던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고금요양원은 2006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청해요양원은 참고로 200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LED등하고 전동침대하고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올해 1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반절만 지원해 주고 내년에 반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자체재원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이것은 사회복지 의료복지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교체해야 될 비품 같은 것을 교체할, 실시할 그런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3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어디예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직 저희들이 청해요양원하고 고금요양원…… 나머지 3개소는 할 예정입니다. 전체 11개소 중에서 3개소만 운영순위를 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연초에 받아서 우선 낙후지역부터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밑에 장비보강 자산취득비, 거기도 그러면 고금요양원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금요양원에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 자산취득비는 청해요양원입니다. 시설비

로 고금요양원.

○ 김양훈 위원

위에만 그렇고 밑에는 청해 것이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저희들이 반절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에어컨, 그리고 전동침대가 반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해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요양원 쪽으로 이번에 보니까 차도 들어가고 1억씩…… 요양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25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경로당 신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경로당사업 신축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1개소입니다. 내년에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금액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억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대상지역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1개소 신청을 내년 초에 받습니다.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1개소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지금 뭐 문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금일…… 아니, 금당하고 노화읍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산면하고 세 군데 들어왔는데요. 우선 긴급히 신축해 줘야 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경로당은 동네마다 다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돼서 그런 것이지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30년 이상이 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안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화관으로 쓰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 이런 것은..... 먼 단위마다 오래된 건물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신축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렇습니다. 옛날 2015년 이전에는 (청취불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동을 낮췄습니다.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곳입니다. 30년 이상이 된 건물은.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완도군 전체 경로당을 다 해줘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30년 이상으로 오래되면 다 해줘야.....

○ 김양훈 위원

그 예산이 만만치 않겠구먼요.

256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장사시설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장사..... 공원묘지에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했는데 카메라 7대 중에서 4대는 작동되지 않고 3대는 작동되고 있는데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 많은 면적을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입니다. CCTV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방문하는지도 모르고 또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들도 많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위품들을 태우다 보면 화재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더 설치해 줘야 되는 필

요성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데에서 물품을 소각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각장이 따로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소각장이 있습니다라는 묘지를 설치하기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장을 없앴거든요, 묘지를 설치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축문 같은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화재 발생이 많이 나옵니다. 기일 같은 때에 오셔서요.

○ 김양훈 위원

그렇다고 해도 축문 같은 것은..... 묘를 쓰러 오면 담당.....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할 것 아닙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당연히 나갑니다. CCTV를 보고 나가는데.....

○ 김양훈 위원

아니, CCTV를 보지 않더라도 묘를 쓰러 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면적이 굉장히 큼니다. 1, 2구역이 있고요. 추모공원 면적을 2명이 커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가다가 일반차량들이 쓰레기를 투기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CCTV는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금방 7대에서 4대가 고장.....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4대는 작동이 안 되고 3대는 화질이 굉장히 흐립니다. 2004년도에.....

○ 김양훈 위원

그러면 7대로 다 커버가 안 돼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런데 7대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체해 주면 커버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라고 해놔서요. 새로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교체입니다, 교체. 그런데 설치로 기재했던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4대 교체하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네요. 있는 선로에 카메라만 바꾸면 될 텐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7대가 되어야 되는데…… 배치를 달리 해줘야 됩니다. 이전보다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섹터를 다시 맞춰서요. 그래서 여기를 교체하고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군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주택자금용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억 4,5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3,529만 7,000원으로 국비가 2억 6,459만 3,000원, 군비가 18억 7,070만 4,000원이며 주택자금용자 특별회계는 1,020만 원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312쪽이요,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세동1지구, 대야2지구 조정금이라고 이렇게 8,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조정금인지. 312쪽 제일 밑에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 8,000만 원을 말씀하시죠?

○ 허궁희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은 기타보상금 고금 세동1지구, 완도 대야2지구 조정금 8,000만 원인데요, 설명을 드릴 게요. 2017년 고금면 세동1지구, 또 2018년 완도읍 대야2지구가 사업완료에 따라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결과 산출된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어떤 토지가 줄어들었는데요?

(방청석에서 “지적 재조사사업은요, 다시 측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틀렸던 측량성과표하고 현재 전산화된 도면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국책사업으로서 2030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측량하다 보면 땅이 들어간 데가 있고, 나간 데가 있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내주는 땅이 있습니다, 국가로. 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국가로 받은 땅이 있어요. 이 조정금이 있어요, 조정금. 마이너스, 플러스. 감정평가 수수료도 수수료 아니면 개별지가, 공시지가로 사업……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차등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단가계산…… 그 조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한 측량수수를 우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측량수수료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런데 여기는 조정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해가 안 되죠.

(방청석에서 “아, 예. 조정금. 조정금. 주민들에게 가는 돈이 있습니다. 땅을 가져오면 줘야 될 조정금이 있습니다. 그런 계상액입니다. 측량이 끝나야 만이 윤곽이, 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나머지는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러면 예상으로 세워만 놓은 것이지……

(방청석에서 “예, 예측으로는 거의 다 소요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방청석에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켜봐야 되겠네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거의 마무리되거든요.” 하는 직원 있음)

그래요.

적은 부분입니다마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12쪽, 중간에 있는 한옥마을 풀베기 인부임은 어디에 이렇게…… 뭐 금액이 커서가 아니고요. 어디 쪽에 있는 한옥마을의 풀을 베는 인부대인지. 315쪽 중간에 한옥마을 풀베기 작업이요, 인부대.

○ 민원봉사과장 권혁

한옥마을이요? 풀베기요?

○ 허궁희 위원

예, 인건비.

○ 위원장 최정욱

315쪽을 보면……

○ 주택건축팀장 김광호

(좌석에서) 주택건축팀장 김광호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3개 중에 2개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요. 약산 전옥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변 환경을 정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인부임만 세워났고 상황에 따라 여름에 풀이 많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한번씩 정비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분양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다가…… 적은 금액이지만 금년에는 왜 이렇게 인부대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308페이지, 완도 사랑상품권 주민등록전입세대 지원이요. 이렇게 1년에 1,600명씩 많이 전입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세대 당 전입하게 되면 5만 원을 주거든요. 2017년도에 약 1,866건, 그래서 9,1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2018년도에도 1,909건으로 해서 9,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현재 1,669명으로 해가지고 8,9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렇게 전입을 많이 오는데도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전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 민원봉사과장 권혁

들어오고 또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엄청 전입이 많이 되는데도 그러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313페이지, 도로명 시설물 전수조사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이 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거기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설치비 2,000만 원을 말씀하시죠? (예)

도로명주소표지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로마다 한진주에 부착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군에 설치된 것이 2만 7,742개나 됩니다. 이 부분들이 다 골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바람에 의해서 볼트들이 풀리고 그것이 낙하되었을 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다든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런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볼트도 조이고 또 훼손된 것은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돈이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집은 아니고 큰 도로명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예요, 제일 위에 상단 토지대장 자료 변환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구 토지임야대장 자료 변환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토지대장이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이렇게 변환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연도별료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추진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위탁자가 어디냐고.

○ 민원봉사과장 권혁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권혁

전문업체로……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업체가 어디냐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것은 부연설명을 좀……

○ 위원장 최정욱

팀장님이 해주십시오.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좌석에서) 지적관리팀장 김진환입니다.

구 대장자료 변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뭐냐면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변환해 가지고 시스템에서 주민들이 열람할 때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전산개발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산개발업체요, 매년, 연도별로 계속 하는 것이죠?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좌석에서) 예, 아마 작년에 5,000만 원해서 했고요, 올해 5,000만 원만 하면 작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할 때 한꺼번에 해버리지, 그렇게 연도별로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적관리팀장 김진환

(좌석에서) 사업량이 많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런데 위탁해서…… 그 업체에다가 위탁하게 되면 한 번할 때 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연차적으로 작년부터 예산을 올리고, 올해 또 올리고,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좋잖아요.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도 될 수 있지 않아요? 위탁인데, 행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알겠고요, 313쪽, 사무관리비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비,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313쪽.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아까 설명을 드렸다고 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동경측지계 기반의 좌표체계를 세계 공통의 위치정보로 나타내는 세계측지계 기준을 좌표체제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청산만 한다고 했는데 다른 읍면은……

○ 민원봉사과장 권혁

다른 읍면은 다 완료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청산만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만 하면 이제 끝이네요.

그리고 313쪽, 제일 하단에 시설비 위에 보면 안내시설물 정비, 도로명 변경에 따른 정비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비에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도로명 변경에 따른 안내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은 정착단계에 있는 도로명주소,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요, 읍면, 신지면이라든가 군외면, 금일 이런 지역에서요, 그 도로명주소에다가 마을명을 이렇게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마을명을 포함한 도로명을, 새로 바뀐 도로명주소를 시설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지면이 한 31개소 되고 금일하고 고금이 1개소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데를 해 버리지. 일일이 뭐…… 들어오면 하고 안 들어오면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수조사를 하면 되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런 부분은 읍면을 한번 전수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그때 정리해 버리는 것이 낫죠. 꼭 들어와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우성자 위원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그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아, 전수조사를요?

○ 우성자 위원

예.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마을명은 법에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것을 변경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한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변경해 줬고요. 지금도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그래 가지고 마을명으로 변경해 주라는 민원이 가끔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때 2016년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때 하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너무 잘 모르니까 그 마을명을 넣어서 해주라고 해가지고요. 그때는 안 되는 부락은 안 되고 되는 부락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바뀌 달라고 하면 바뀌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2014년도에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됐기 때문에 변경되면 안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변경해 주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주민들 위주로 불편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은 맞는 말인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쓰다가 불편하면 바뀌주고, 또 바뀌주고 이러면 안 되고, 특별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뭐 몇 년도까지는 안 된다. 아니면 언제까지 된다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바뀌달라고 한다고 또 바뀌주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법적으로 3년 이내……

○ 우성자 위원

법적으로요?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예, 3년 이내에는 바꿀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3년 이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해서 올해 바꿀 수 있다는 이 말이죠?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예, 바꿀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하죠. 그러면 주민들이 자주 의견을 내고 원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바뀌는 상태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불편하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 주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친

정집 주소가 덕암길 몇 번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바뀌주고 또 바뀌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불편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뭐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예요. 정확하게 좋은 도로명주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꼭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지. 또 바뀌주고, 또 바뀌주고 그러면 서로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 공간정보팀장 이경희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 우성자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전체 총 내년도 본예산은 218억 77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5,50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성아동과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74페이지, 양성평등 추진 지원사업에서 고금 여성단체하고 우리하고 준다고 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2,000만 원.

○ 우성자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 원을 주고 고금여성단체협의회에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할 예정이고요. 지금 고금 여성단체는 노인대학교 급식봉사하고…… 그 부분은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 농축산물 판매, 이것은 따로 안 주고 500만 원을 그냥 줘니까? (예)

판매촉진으로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500만 원을 여성단체로 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매년 천안 흥타령축제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판촉행사를 하러 가거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만 주는 것이…… 흥타령축제에 판촉행사를 하러 갈 5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완도군 여성단체에 1,000만 원, 고금 500만 원을 이렇게 따로 준다는 말이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보통 완도군 여성단체에서 흥타령축제에 많이 가죠? (예)

그러면 고금은 노인대학 반찬사업으로 5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대학 반찬사업을 계속 연중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래서 금년에 냉온방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금년에 새롭게 지원해 줬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 양성평등 그날 기념식을 하는 그 비용이 3,000만 원이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행사비용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내가 확인해 봤을 때 274페이지에 농축산물 얼마 있었는데…… 275페이지, 농축산 축진 이백 몇 십만 원 있죠. 이것은 뭔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도비에다가 매칭사업인데요, 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별도로 순군비로 세운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 이 돈이 부족해서? (예)

어떤 곳에서 부족했다는 말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1년에 한 2번 정도 판촉행사를 여성단체에서 가는데, 거기에 체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순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 우성자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295페이지, 외딴섬 자원봉사로 해가지고 500만 원 새마을회에 한다고 하는데요, 새마을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또 따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읍면에…… 12개 읍면 전체에 자원봉사 형태로 조직이 되어 있는 곳이 여자새마을봉사단체거든요. 12개 읍면의 독거노인들 대상자에게 밑반찬이라든가 생일상 차려 드리기로, 그 봉사를 완도군 여성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각 읍면으로 나눠주시나요? (예)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보조가 엄청 많이 들어 가는데 또 따로 세워져 있어서요, 12개 읍면이라서 돈이 얼마 안 되기는 안 되는데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새마을로 보조를 받는 것은 놔두고 이것으로 따로 반찬봉사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쪽이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건전문화정착프로그램 운영.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지금 다섯 개의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법무부 법사랑 완도군협의회에 청소년 성교육 범죄예방캠페인에 저희들이 260만 원……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육성 완도지구에서 청소년 선진지 견학 결연사업을 합니다. 자체부담 1,000만 원, 저희 지원금 2,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으

로 추진을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인데 그것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아카데미에서 장보고 여름학교하고 그다음에 장보고 토요일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완도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요일연교실하고 팝아트 교실을 하는데요. 총 4개 단체에서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7,300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도에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5개 단체에다가 전부 다 해준다는 얘긴데, 나눠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제일 밑에요. 문화의 집 운영 지원 이것이 작년보다 4,000만 원 더 증액됐네요?

이것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금년에 늘어난 것은…… 청소년센터 거기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봉제로 하는데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키를 내년도 예산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최저임금에 맞춰서 증액된 것이라고요? (예)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리고 수당 같은 것도 줘야 되는데 그런 수당들이 빠져서……

○ 김양훈 위원

월급제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월급제입니다. 위탁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건비가 낮아 가지고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이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리고 수당 같은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보전해 주는……

○ 김양훈 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래요?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3명.

○ 김양훈 위원

3명 하는데 4,000만 원의 돈이 더 증액된다고요?

(방청석에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순군비사업이나 프로그램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화도 이번에 1,800만 원으로 해서 각 분야별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약 2,000만 원 정도는 완도 문화의 집 안에서 개별…… 별도 프로그램 3개를 저희가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다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부 다 예산목이 잡혔는데. 여기 운영비 재원에도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방청석에서 “지금……” 하는 직원 있음)

다른 데를 보면 전부 다……. 목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 있잖아요, 예산에.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니, 노화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들이 직영이기 때문에 부기명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완도 문화의 집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전체 통으로 운영비 안에 넣어서 주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3명으로 해서 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아무리 그전에 최저임금이라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뭐 수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일 것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혼자 앞에 1,000만 원씩 더 올라오는 얘기에요. 아니, 1,000만 원이 넘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인건비하고, 인건비 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세 가지 추가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전체 운영비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4쪽예요, 시설비. 신규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올렸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금년에.

○ 김양훈 위원

올해…… 그때 계속 2,000만 원씩 해마다 주기로 한 것입니까. 그때 격년제인가 그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금년까지는 여성이장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전체 여성이장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이장에 대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우리가 `19년도에 2,000만 원씩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0년도에는 신규이장한테만 2,000만 원씩 주는 것으로 지금…… 10개 마을로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10개 마을이 안 나오면 조정……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예산을 조정해야죠.

○ 김양훈 위원

조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쪽은, 그전에 받았던 여성이장들은 이제 안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79쪽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청해어린이 문화체험 이것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줄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매년 저희들이 완도군 청년연합회에 지원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어울림마당행사를 개최하고요, 하반기에 12개 읍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와대 등 선진지를 견학하는 그 예산 지원금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거기 합쳐서 5,000만 원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작년에는 얼마 줬는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작년에도…… 금년에도 5,000만 원.

○ 김양훈 위원

그때 3,000만 원으로 주지 않았어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청와대에 가는 그 비용이예요? (예)

궁금한 것이 많아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80쪽, 지방단체간부담금.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이것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목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나 또 가출한 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임시보호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운영하는 부담금.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기관을 이용하는 자치단체에서 그 부담금을 연회분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쪽에 서부권 지역들 전체 다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금액은 인구가 많은 데와 적은 데 상관없이 똑같이 준다는 말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 김양훈 위원

똑같이요, 이것하고 상관없어요? (예)
285쪽예요, 의료비 및 구료비, 사회복지사업
보조 다문화가족 자녀코칭 사업이 됩니까? 이 말
이 좀 어려워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가족의 엄마들이 한글이 서툴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한글을 깨우쳐야 되는데 언어가 서
툴다. 서툴다 보니까 의사표현도 안 되고, 그
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가 일대일로 가서 그
것을 치료해 주고 한글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깨
우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
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12개 읍면 전부 다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는 몇 분이나.....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현재 다문화센터에 전문강사가 1명이 있습니
다. 그래서 1명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년도
에 1~2명을 더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효과가
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
니다.

○ 김양훈 위원

1명을 가지고는 12개 읍면 자녀들을 다 데리
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사를 좀 더 초빙해서, 구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290쪽예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거기도 증액
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기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는
18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
니다. 종일형 어린이집. 신규 국가사업으로 이러
게 청원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3,000만 원이 새롭게 증액됐습니다.

○ 김양훈 위원

6시 이후에도 계속 관리해 주는 인건비요?

(예)

이것 국립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금년에 전체 읍면 다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전체 읍면 다요, 이런 것은 국비에서 안 나오
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인건비하고 일부 부분은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순군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1억 4,000
만 원 정도가 들어갈까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국비가..... 총 전체
지원금이 1억 7,200만 원인데요, 거기에 국비가
8,600만 원, 도와 군비가 4,300만 원씩 일단 지
원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운영비, 운영비하고 추가 소요
되는 인건비는 군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편성한 것입
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좀 더 많이 받게끔 쫓아다
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예요, 이차보전금, 신규사업이라
고 했는데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그것 어
떻게 할 계획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서
요, 만약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면 혼인신고한지 5년 이하인 부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월
15만 원씩 그것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3년 간
지원해 줄 계획으로 1차년도 첫 사업으로 지금
9,000만 원을 요구해 났습니다.

○ 김양훈 위원

3년 동안 계속 해준다는 얘기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계획은 15만 원으로 50명을 잡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적게 들 수도 있고, 많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0명으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결혼하고 5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예)

5년 미만의 무주택 이자보전금. 만약에 무주택이어도 이것은 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그 근거를 가지고 오겠네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렇습니다. 단위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것이 넘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그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바로 밑 시설비에 청소년센터 토지매입비. 이 청소년센터가 꼭 필요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청년센터입니다. 청년센터인데요. 저희들이 군 특으로 내년도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받았 습니다. 그런데 청년센터 안에 다양하게…… 저희들이 내일하고 모레 청년협의체 위원들하고 경기도 시흥시하고 순천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하고 또 창업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범적으로 운행해 볼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 토지매입비가 8억이고 또 건물을 짓고 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만큼 활용도가 있을지 좀 의심스러워서, 그만큼 활용도가…… 검토는 해보셨어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충분히 검토했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시흥시, 전남 영광군에 1차 사전답사를 갔다 왔 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청년토크를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청년들도 많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어서요. 금년에 저희 들이 내년도 사업을 군특회계로 신청을 했었고. 그것이 지금 행안부에 반영되어서 내년도 사업으 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청년센터를…… 조례로 만든 청년협의체가 있 어서요. 지금 계획은 민간에 위탁해서 자율적으 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내일과 모레 경기도 시흥시하고 순천시의 청년센터를 보고 와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라든 가 또 건물의 구조,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청년 협의체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들어서 요. 내년 초에 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의회에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아까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이장 상사업비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 습니다.

그러면 여성이장들이 나와 가지고 마을에 나와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단년으로 이것을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금년 개소당 2,000만 원 이전에는 1,000만 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했을 때는 이렇게 기기나 비품을 사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다 보니 그런 비품 구입이 전혀 안 됩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한 가지라도 하게 되면…… 2,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제가 그래서 한 것인데요.

그래도 여성이장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년으로 끊는다는 것은 좀 그래서요.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이장을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5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들이 매년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소진하는데 소진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특히 완도읍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차라리 이 부분을 여성이장 우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계속 여성이장이라고 그래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 여성이장 발굴차원에서 신규로 선임되는 여성이장으로 한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과 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요. 내년도에는 신규 이장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완도읍 같은 경우는 물론 사업할 데가 많이 없어 가지고 그러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성이장은 1년에 2,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가 높는데요. 새로운 이장들이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러워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1쪽이요,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남 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목포에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자치단체가 이 운영 부분을 분담해서 법정부담금으로 이렇게 분담을 합니다. 그 분담금이 1,9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완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286쪽이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4억 30만 원입니까. 이 부분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4명,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받아야 될……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특별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전하……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금년 하반기에 다문화센터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요. 다른 지자체 다문화센터 종사원들이 받은 처우개선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못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통비라고 했는데 1억 2,600만 원 너무 많지 않나.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전체적으로 처우개선비를 금년도부터 줬는데 요, 지금 24개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이 228명입니다. 그 228명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로 10만 원씩 설과 추석 때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약 67명인데 이 부분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섬에 있는 어린이집은 교사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섬에 들어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요, 주말에 나오고 들어가는 교통비라도 지원해 줘야 섬에서 보육교직원들이 그나마 사기진작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4페이지, 여성상사업비요, 방금도 우성자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준다는 것은 이장이 처음 났을 때 한 번만 주고 안 준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사람이 났을 때 한번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신규이장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여성이장을 선출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지원하면서까지, 여성이장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지원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올해 홍보가 잘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도 운영계획을 읍면에 보낼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총회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통과한다면 이장들이 무엇이 되겠어요, 이미 그 마을에서는 여성이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성을 더 세우자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장을 선출해 났는데, 이것이 통과되고 우리는 작년에 줬으니까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먼저 이런 것을 통보하고 그래서 다음 루트는 이렇다고 해줘야 그 마을에서도 총회를 할 때, 여성이장을 배출할 때 생각해서 할 것 아니에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뭐 하려면 내년에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야지, 이미 여성들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장 해놓고 내년에…… 마을에서는 그래서 여성이장으로 해냈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행정이 이전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결국 그 민원이 우리한테 와요,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예산 자체를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게 하고 해달라고 미리 홍보해서 알려주고 나서 여성이장들이 선출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먼저 해놓고 여성이장을 선출해 났는데 안 된다고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주려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래야지.

그리고 1년마다 한다고 하면 누가 1년마다 다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여성이

장을 노리고 배출하는 그런 부락은요, 이런 모순 점을 정확하게 잘 좀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모순 점이 없게끔. 아니면 2년 단위로 한다든가, 3년 단위로 한다든가 뭔가 규정을 두고 그다음에는 안 되게 해서 여성이장을 바꾸게 한다든지 그래 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질 염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래 버리면 안되죠.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든가, 올해 사업비를. 아니면 다시 계획을 올해는 주고 내년에……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정확히 짜서 미리 상반기 때나 홍보를 해서 미리 이장들이 다 알게끔. 그래서 다음 부락에서 그런 것을 알고 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해야지. 작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해버리 면 안 되지. 우리 행정을 뭐로 보겠어요? 어떻습 니까, 과장남?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바로 내일이라도 내 년도 운영계획을…… 읍면 마을총회하기 전에 내 년도 운영계획을……

○ 위원장 최정욱

늦었어, 지금. 늦었다고. 내가 아는데 벌써 이 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지금 12월이요, 운영하고 총회도 하고 그런다고. 이미 이야 기가, 밑거름 이야기가 다 되어 버렸다고, 자기 들끼리.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 이것.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릴 것이면.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제도를 수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제도 자체 를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제도를 없애지 않으려면 정말 이해 되고, 정말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할 수 있게끔 행정이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이 제도를 살린 다고 하면서 취지에 맞지 않게 가버리면 안 되 지. 내가 저번에도 그랬잖아.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서 미리 홍보하면서 이런 제도를 하게 하라 고. 그리고 제도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잖 아, 그때. 그래서 홍보를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해서 다시 세우든가. 계

획을 짜고 올해 홍보해 가지고 내년에……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일단 읍면의 여론도 수렴하고……

○ 위원장 최정욱

수렴은 우리 의원이라니까. 의원들한테 와, 결 국. 결국 의원들한테 그 민원이 다 온다니까. 내 가 말했잖아, 올해도 몇 번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 그랬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하라고, 의원이?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이것을 가지 고, 잘해서 계획을 잘 짜서 하라고. 그래서 2,000만 원 좋다, 그것도. 그 말이 맞다. 그래서 2,000만 원으로 한 것 아니냐고. 그랬는데 그것 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으로 그것을 정해라. 그래서 기간을 가지고 부락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짜서 홍보하라고 했잖아요. 매년 주면 그것도 문제라고, 그때 그 말 나왔잖아요. 그런 것도 안 짜고 무조건 이제 신입이장만 주겠다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겠 다 는 거예요? 내가 몇 번 그 말도 했었는데, 또 그 런 식으로 내가 말도 했고.

알았죠? 그러니까 없애버리든가, 내년에 꼭 사업을 한다면 내년까지는 이대로 하고요. 내년 에는 무슨 계획을 짜서 정확하게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해가지고 충분히 알고 이장을 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요, 다문화 읍면 부모교육사업이라 고 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것하고 284페이지, 읍면 한국어교실 운영하고 이것하고의 차이점 뭐 다른 것이 있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한국어교실은 다문화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한 글 습득교육을…… 완도읍은 다문화건강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읍면은 교사 확보 나 그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센터에서 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이것은 읍면장 책임 하 에 학교하고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별도로 4,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부모교육은 뭐냐면 11개 읍면 다문화가정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 중 하나가 남편과 부부간의 그런 나라…… 문화적 차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

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이해가 충돌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이혼이 되고, 가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남편들도 그렇고 이주여성들도 그렇고 이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소통하고 고부간의 갈등 같은 것도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건의가 많이 있어서요. 이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가 읍면에 방문해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해 볼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그러면 교사가 다르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 예산액 150억 2,900여만 원 대비해서 150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된 300억 5,828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시고.

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부의장님.

○ 허궁희 위원

설명은 잘 들어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0쪽예요, 작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은 도서관 소규모 수선 유지비 1,000만 원은 군 관내 작은도서관이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6개소에 대한 소규모로, 말 그대로 소파 보수조, 파손된 이런 보수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수리해 주기 위해서 총액으로 세워놓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사실 제가 왜 묻는지 이유를 알고 계시겠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알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그런 예산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됐는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반영이.....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했는지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했는데요. 추경에 그 부분을 세워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봐서 급하면 상태를 봐가지고

진단해서 있는 과목 내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단해서 급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있는 과목 내에 있는 돈에서 먼저 하고 추경에서 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분이 원래 예산에 계상되어야,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세워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면 문화체육과 소속이기 때문에, 소관이기 때문에. 뭘니까, 2층에서 하는 일들이나 1층에 두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이잖아요, 신지 문화회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 많이 새요. 조금씩 새면 활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 신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왜냐하면 태풍 때가 아니고 일반 비가 올 때도 청소하는 분들이 엄청 애를 먹어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다른 데에 전락을 세우더라도 여러 사 람이…… 그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활용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예산을 선집 행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취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챙겨서 그 부분이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323쪽이요, 완도읍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작 년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왜 갑자기 2 억 4,000이 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년에는 상반기 분만 세워놨습니다. 반절만. 그런데 내년 예산은 1년치 것 사사분기 상반기, 하반기 다…… 1년 것을 다 세워놓은 것이고요. 작년에는 상반기 것만 세워놓고 하반기 것은 추

경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다……

○ 김재홍 위원

추경 때 세웠다고 해서 예산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반절 세우고…… 본예산에는 반절만 세웠습 니다. 그래서 금액이 배 이상 튀어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면 금액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서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전체 60개 강좌를 상반기 3월부터 6월, 그다음에 9월부터 12월 운영하는 비용이 4억 넘 게 들어가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50%, 반절만. 50%로 반절만 세워서 집행을 하 고요. 하반기 비용은 1회 추경 때 세워서 하반기 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 계상은 금년처럼 반절, 반절……

○ 김재홍 위원

추경에 들어가게 되면 본예산에 안 들어갑니 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신속 집행할 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는 한꺼번에 계산을…… 1년치 것 을 계상해 놔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렇게 지원하 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과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 비용 말씀이십니까?

○ 김양훈 위원

문화원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매년…… 우리 문화예술단체는 23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마다 각종…… 1년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 육성차원에서, 또 문화예술활동 장려차원에서 단체들의 그런 활동계획서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년도보다 2억이나 예산이 더 증 났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이것은 2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 코드가요, 당초에는 이렇게 세부사업 코드 안에 없었던 그런 부기가 다른 목에 있다가 이 과목 코드로 들어와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지금 거기에 열거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문화원, 전통문화 전승 지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 이 비용은 매년 똑같이 세워진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코드 목에 있다가 이 코드 목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잘못된 것을 고르고 하는 그런 과정에 본예산에 새롭게 들어와서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매년 다른 코드 목에서 지원돼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어떤 목들이 여기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를 테면 전통문화 전승이라든지, 이런 몇 개가 코드목이 바뀌었습니다. 경상사업보조로 있는 목도 있고, 또 행사 관련 비용에 있던 그런 목들

도 있고, 이 목으로 다시 들어온 것도 있고, 과목 경쟁하는 과정에 정리해하고 예산파트에서 목이 맞다, 안 맞다 이런 부분에 시비가 있어서요, 금년 본예산에 세워놔던 것을 1회 추경 때 목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금년 본예산에는 제대로 세우자고 해서 목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과목을 설정해서 목을 (칭취불능)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과목 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은 매년 세워져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새롭게 추가로 늘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일단 알겠고.

327쪽예요, 행사운영비, 공연행사라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장보고축제 때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그 장보고축제 때는 따로 비용을 여기에서만 대고 다른 비용은 거기에서 추가가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각종 공연…… 1월부터 12월까지 공연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총괄액으로 파트별로 세워놔는데요, 장보고축제를 할 때나 가을에 하는 청정완도 가을빛여행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한 꼭지씩 프로그램을 거기에 넣어서 지원해서 공연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 부분은 별도지만 공연 관련은 저희들한테 세워진 예산액에서 행사할 때 한 꼭지씩 공연행사를 해주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이 예산은 그때 장보고축제를 할 때 거기에서 예산을 안 주고 이것을 가지고만 (칭취불능)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아까 장보고 얘기 여러 개 나오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맞습니다.

○ 김양훈 위원

328쪽,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영화관,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는 것으로는 이런 영상장비나 이런 것 수리를 못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제반수리는 군비로 해야 되고요. 전체 작은 영화관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을 빼가지고 나머지 차감액을 가지고 순수잉여금이 매년 정산하면 한 1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나오면 운영사하고 우리 군하고 수익 배분을 3 대 7로, 말 그대로 우리 군이 3, 그쪽이 7을 가져가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수익이 나와서 군 세입으로 3,000만 원 들어왔고요. 그 3,000만 원 세입이 들어온 돈은 말 그대로 세입으로 편성된 부분이고요. 우리 군비로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서 이익금이 나오는 데에서 같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돈의 일부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 데에서 같이 해버려야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상계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3을 가져와 가지고 이것을 또 투입한다면 3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한 2밖에 안 가져온 것으로 밖에……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된 돈은, 모든 발생된 세입은 세입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아니, 거기에서…… 아까 1억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1억에서 미리 이런 비용이라든가, 수선 유지비라든가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배분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산에 안 올려도.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방법상의 그런 내용이니깐요.

○ 김양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거기에서 하십시오, 거기에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 김양훈 위원

군비로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29쪽예요, 시설비.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 그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관광정보센터 건물에다가 장보고한상…… 2016년부터 금년까지 4회째 해서 총 1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 수상자들은 장보고기념관에 수상자 6명, 그 사람들의 성공스토리를 전시해 오고 있는데요. 그 전시할 때는 전시공간이 부족하니까 당해 연도 수상자만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 그 전전년도 수상자들은 자연적으로 전시공간이 없으니까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당해 연도만 전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쪽 수상해 오신 분들을 관리도 해야 되고, 전시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요. 내부를 리모델링해서 1, 2층을 그런 공간으로 쓰고, 일부는 완도를 알리는 홍보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명명을 해서 그 건물 리모델링을 14억 들여서 할 계획인데요. 건축물은 6억 그리고…… 아, 리모델링하는데 건축물은 8억. 전시연출, 영상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6억, 14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인데요. 내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열아홉 분이지만 앞으로 계속 매년 6명씩 수상자가 배출되면 그 사람들 자료 데이터를 전산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전시하는, 보게끔 하는 그런 것을 구축하

기 위한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앞으로도 이것 계속 그 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6명씩이요. 그러면 10년 뒤면 60명인데 다 거기다가 전시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대상자들은…… 보이게끔 그런 홍보물로 부착하고, 대상이 아닌 다른 분들은 디지털로 구축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터치하면 그 사람들이 쭉 역대…… 연도별로 나올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나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김양훈 위원

굳이 뭐 리모델링을 크게…… 전부 다 전시해 놓을 필요 없이 처음부터 데이터식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1, 2층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간에 맞게 전시를 하고요.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차근차근 역대 수상자들 부분은 저희들이 디지털로 전부 해가지고요,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운영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죠, 완도생활문화센터 조성. 그것하고 저 뒤에 보면 복합문화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생활문화센터, 이것은 문화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의 전당 1층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발표하는 발표공간. 또 거기에서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연습공간, 또 문화회원들 간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이것은 군민회관, 군민회관이 오래돼서 그 안에 무대나 의자를 썩 교체합니다. 새롭게 거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군민회관을 전부 리모델링한다는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 밑에 층만 들인 것은 군민회관,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의 전당 1층.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군민회관을 전부 리모델링하는데 21억이나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1억 7,000이 들어가는데 작은 도서관이 안에 들어갑니다. 1억 7,000 이것이 작은 도서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 무대하고 음향 또 조명, 뭐 이렇게 의자, 하여튼 시설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보면 의자 같은 것은 많던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의자 상태가 많이 불량합니다.

○ 김양훈 위원

2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리모델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군비가 벌써 12억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새롭게…… 말은 리모델링인데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새로 지어도 너무 많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전당은 500석 규모로 공연장을 조성해서 대규모행사는 거기에서 하고요. 100명이나 200명 정도의 소규모행사는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완도문화센터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고 한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생활문화센터요?

○ 김양훈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도에서 현장점검까지 와서 타당성까지 검증하고 간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복합문화센터는 리모델링이 21억이라 감이 안 잡히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 김양훈 위원

그리고 337쪽 기타보상금에 이윤리 아까 이야기하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번에 이렇게 지출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 건은 별도로 오늘 저희 과 예산 설명이 끝나고 경제교통과, 그다음에 농업축산과인가요. 거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5시나 5시 좀 넘어서 별도로 이 건만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설명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결정, 확정해 주시면 예산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선수수당만 해도 270만 원인데. 역도선수 군실업탐하고 버금가는 액수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윤리 선수가 완도에 대해서, 우리 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당을 꼭 줘야 되는가, 그런 것이 좀 의아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역도선수 급여가 300만 원이구먼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군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270만 원이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데, 4,500만 원의 돈이 나가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지원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조례를 이번에 넘겨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제안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340쪽에 완도수산물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이것은 매칭사업이라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5억 5,000인데요. 군비는 없고 군특 3억 5,000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된 돈을 교육청에다가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업을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2억 5,000을 부담하고 해서 5억 5,00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군에서 대행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저희 과 본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360억 1,635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6,1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경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02쪽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완도 죽청 농공단지 해수 인입시설 개보수 및 해수 인입관로 추가 설치라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공단지…… 기존에 완도하고 죽청 농공단지에서 해수를 쓰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가공공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에 해수를 개별적으로 유입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자 해수를 유입하려고 하니까 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배수로에다가 부분 파이프, 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수구가 막히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입주업체 대표가 도지사님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을 한번 건의해서 입주업체들이 해수를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십사 건의했던 바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기계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직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나와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짜여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생물…… 그쪽만 안 가고 죽청 농공단지하고 가용 농공단지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공급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인입관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 관로에서 해수를 끌어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관로를 해놓으면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로만 해놓고 거기에서 물을 빼가서 써라.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물을 올려놓으면 미터기를 달아 가지고 자기 쓸 양만큼 써라, 이런 취지하고요,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관로만 해놓고 거기에서 물을 빼서 쓰라고 그러면 각자 자기 집에다가 양수모터를 달아놓고 거기에서 빼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농공단지에서 물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상 어떻게 나올지 잘 짜여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사업비가 20억이고, 20억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2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화 지원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첫 번째,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은 박스나 포장재,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탱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있는 민간사업보조 자체재원, 이 부분은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각각 다르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3개 업체가 다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91쪽, 제일 위쪽예요, 제일 위쪽 농어촌버스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장보고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기 운행노선이 완도교통하고…… 완도교통이 원래 주운행노선이었습니다, 완도읍까지 다닐 수 있는 노선구간이, 그래서 그 구간을 고금여객이 교통을 운행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손실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허궁희 위원

완도교통이 다니는 곳을 고금교통이 다니니까 완도교통에 보상을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닌데, 그러면 설명이 안 맞지」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대신……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좌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조봉흠입니다.

약산 당목에서 완도읍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 버스가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다니는데 그 노선에 대한 보상입니다. 30분마다 계속 다니거든요, 그 버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운행횟수가 25회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자주 운행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없어도 다니게끔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게 차라리 기재했으면 이해할 것인데, 장보고대교 운행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누가 보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재할 때 알기 쉽게 용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에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상단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내에 하역시설이 협소해서요. 완도항에서 미역을 하역해서 농공단지까지 원초를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중에 4개소가 미역을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바로 바로 할 텐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요. 4개 업체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돈이면 원활하게 하역이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미역가공업체들의 불편함을 500만 원씩 지원해 줌으로써 약간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요. 어떻게 보면 어가들 것이 아닙니까, 다시마하고 미역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계속 하역비 때문에 물건 값이 싸다. 또 미역가공공장에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계약할 때 단가를 많이 깎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서 어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게끔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390쪽에요. 연구용역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이것 그전에도 안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것은 교통량조사를 실시하면서 운수업체 재

정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매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러면 매년 4,000만 원씩, 매년 이 예산이 나가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우리가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은 아니고요. 손실보전금을 버스업체에서 요구를 하는데 마땅한 근거가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뭐 3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이나 줄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매년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래서 심의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년도에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작년 것도 다 있을 텐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교통량조사를 하게 되면 금년도 교통이용률, 또 내년도 교통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양훈 위원

아니, 신규사업이 아니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 김양훈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다 0이라 신규사업 같이 보입니다. 예산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 군데가 지금 그래요. 361 쪽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한테 직접 찾아서…… 작년 것을 보고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이런 것을 할 때 세세하게 확인하십시오.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0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른 쪽은 잘 댔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경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라 그렇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전체 다요, 전체 다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요, 여기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김양훈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김양훈 위원

연구용역비도 0으로 나왔잖아요. 작년에 했으면 본예산에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검토를 더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빠트려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9쪽, 시설비에서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확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억이 들어와 가지고요. 뭐 집을 지어줄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렇게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 이범성 위원

아니, 2억을 들어서…… 원래 전용부두에 가 보면 컨테이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2억을 주고 집을 지어줄 것이냐고…… 해경에서 해주라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지역민들은 뭐 먹고 살겠습니까? 앞으로 전용부두가 저기로 옮겨지면서 경비구조대 사무실이 앞으로 국비로 해서 다 지어질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런데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빨리 지원해 주고……

○ 이범성 위원

아니, 지어주더라도, 늦어지더라도 그것이 늦어지니까 집으로 지어 주라고…… 2억으로 지어 가지고 그때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2억으로 지어주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활용은 하고 자기들이 신청해 놓은 것은 다른 데에다가 쓰겠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런……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우리는 땅 주고…… 원래 그것을 전부 다 군 땅, 군에서 점용하고 있던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기 신지대교를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도 간단하게 다 넘겨줘 버리고, 또 자기들이 옮기려고 하니까 뭐 외가지고 집을 지어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해경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 해경부두를 빨리 이전시켜서 거기를 조업선단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막 군비를 퍼주고 다 해주면서 가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거기하고 접선해서 말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들지도 못할 정도예요. 금방 해경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를 가서 들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새 컨테이너로 해도 충분할 텐데, 2억을 들여서 집까지 지어준다고…… 그러면 해경도 먹여 살리고 지역민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조업선단 유치 부분이……

○ 이범성 위원

아니, 조업선단 때문에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해경하고 해결할 부분이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한 부분이 2억으로 올라와 있으니깐 이것은 깜짝 놀랄 부분이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 이범성 위원

아니, 이것 좀 깎아야 되겠어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방금 이범성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요, 이것 위탁관리입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리는 해경에서 할 수밖에 없는……

○ 김재홍 위원

해경에서요? (예)
조업선단 유치를 해경에서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비구조 사무실 설치 부분만, 지금 현재 이동…… 옮기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못 옮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 김재홍 위원

그 조업선단 유치는 누가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86쪽에 기타보상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스템이 있죠. 거기하고 392쪽, 교통사고 줄이기 일반보조금. 거기도 인센티브가 같이 있거든요. 그 목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어때요? 아니, 똑같은 목을 갖다가 양쪽에 나눠놔기 때문에. 국도비 400만 원, 자진반납 (청취불능) 아니, 또 순군비 1,000만 원이…… 38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또 있어요. 이렇게 찢어놓지 말고 한 군데에도 해도 무방하지 않아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도비……

○ 김양훈 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는 교통사고 줄이기로……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순군비 부분이고요. 395쪽 위쪽은 도비하고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인데, 밑에 보면 국군비 280만 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같이 목을 잡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양쪽을 찢어놔서요. 여기를 보면 2개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목인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예산파트랑 협의를 해서……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376페이지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한 것. 지금 농공단지가 3개 업체 아닌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4개 업체.

○ 위원장 최정옥

어디 업체인가요?

상아, 향아…… 아, 네 군데가 맞네요. 거기가 생각이 안 나서.

그다음에 2020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요. 2020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1억짜리?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강소기업으로 되어 있는 다시마전복에서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어떤 것어요?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다시마전복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어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 80%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고?

누구 팀장님이 설명을……

○ 전문위원 추관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 주무관 김승규

(좌석에서) 제가 알아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니, 사업을 신청하면서 공모사업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80%라는 뜻이 뭐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자담이 20%.

○ 위원장 최정욱

자담이 20%면 80%가 보조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다시 봐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에 완도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부분은 기존에 현대화사업을 했었는데요. 추가로 저희들이 더 공모를 신청해서 추가사업 신청 2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5일시장에 더 해야 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햇빛이…… 너무 지붕이 위에 있다 보니까 햇빛이 바로 수산물 하시는 분들을 비추고, 야채도 비추고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햇빛가리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냉동고 같은 것을 해주면 거기에서 보관하면서 판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빈 공간, 그 공터 있는 그 위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다 씌운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 씌울 수는 없고 한 3M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햇빛가림막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최정욱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55억 6,884만 7,000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6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된 요인은 농어민수당 18억 정도가 신규로 계상돼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산면하고 보길면하고 경관작물이요. 이렇게 종자비랑 전부 다 해주고 직불금은 그분들이 가져갑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청산 같은 곳은 개별농가에 직불금이 따로 나가고요, 보길은 직불금이 없습니다. 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산만 개별농가 직불금이 나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논 주인들은 직불금을 안 줘도 아무 말 안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보길은 대상지가 개인 사유지가 아니라 낙서재 문화재가 있는 그 구간, 옛날 논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경작해 가지고 경관작물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보길면은 직불금……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뭐야, 퇴비도 주고 종자도 주고 다 주고 직불금만 본인이 받아가네요. 일도 다 해주고, 여기 인건비랑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관작물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고, 유기질비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축진제까지 다 들어가고 본인들은 그냥 직불금만 받아 버린다는 이 말이지요, 경관직불금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주무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영양제가 들어가지만 직불금을 받는 농사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관보전직불금은 2헥타르 이상, 중경관은 10헥타르 이상인데요. 이것은 신청면적 대비 파종면적을 갖다가 계속 연차별로 50%에서 55%, 6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5%가 안 되면 그 사업지구는 영원히 탈락

됩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비가 탈락되다 보니까요. 지금 청산 같은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직불금을 받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로시티 축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니까 거기는 유채 수확도 안 한다면서요. 유채 수확이 참 많이 되는데 인건비가 드니까 수확을 안 하고, 그때 면에 가보니까 미리…… 꽃만 보고 잘라버린다고 그때 그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죠?

(방청석에서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본 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유채를 수확하면 상당히 수확이 많이 되는데, 거기는 인건비 때문에 수확을 안 한다고 그때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많이…… 포장사업비라든지 사업보조금이 나가는 데, 이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뒤에 TMR 사료를 말씀하실까요?

○ 우성자 위원

예.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배합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진 완도축협에 다가 축협 50%, 우리 군 50%로 해가지고 포대당 1,6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고요. 강진 같은 경우는 한 1~2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축협하고 절반씩 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437페이지요. 귀농인 집수리 한 군데…… 집수리 1억 500. 이것 한 군데를 집수리 해 줍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이것은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해서요. 집수리는 500 그리고 정착금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정착금 500만 원, 수리비 5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것을 통틀어서……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1식으로 해놨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1식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이요. 보니까 군비가 거의 1억 1,200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해온 사업으로 새끼우렁이가 일부에서 효과가 없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는데요, 실제 새끼우렁이를 살포해 가지고 소각 이후에 새끼우렁이만 제거하면 잡초 제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농가한테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친환경유기농 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예? 새끼우렁이사업 이것 말이 좀 있는 것 같던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끼우렁이가 이렇게…… 처음에 농가(청취불능)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새끼우렁이사업이라고 해서 이중으로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잘되면 다른 농가에도 보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보급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친환경사업들을 계속…… 우렁이를 우리도 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그전에는 없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친환경농업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친환경농업팀장 이욱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렁이농법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도내에서 친환경…… 제초효과는 우렁이가 최고로 좋은 것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전년도까지는 인증을 받은 원하는 농가한테 무상으로 지급해 드렸고요, 일반농가한테는 30%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 몇 농가나 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저희들이……

○ 위원장 최정욱

아니, 이것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냐고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렁이가 두 군데 업체인데요, 어디어디 업체 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군외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금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읍에 한 군데가 있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고금은 없어졌습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완도읍하고 고금하고 두 군데 관내업체가 있고요, 금당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군외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한번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을 하든, 안 하든 영원히 지속 됩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아닙니다. 인증을 받았어도 그때 그때 해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필지별로 확인해서 산정합니다.

○ 우성자 위원

새끼우렁이를 제시기에 공급하는지도 가보시지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군에서 일괄 가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침 새벽 일찍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일일이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새끼우렁이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새끼우렁이를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나눠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갖다가 논두렁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나락이 조금만 어렸을 때 하면 괜찮은데 나락이 좀 컸을 때 하면 우렁이가 나락을 다 뜯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우렁이를 쥐도 갖다 부어버린다니깐요.

○ 친환경농업팀장 이욱

(좌석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공급방법을 좀 더 개선해서 원하지 않는 농가는 절대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요, 자부담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겠다고 하면 자부담……

○ 우성자 위원

아직까지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0월 부담하는 사람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서 가지고요, 농가들한테 이것을 주면 귀찮아서 버리는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고 제대로 하십시오.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우렁이가 논에서 커가지고 벌에 우렁이가 말도 못하게 커가지고 다니는 이런 실정인데, 군에서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주면 뭐합니까. 제초제 작업도 못하는데, 제시기에 안 주면 오히려 피해예요, 피해.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예산 낭비사항이 없도록 해서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없습니까?

이것은 축조 때 다시 한 번 부를 테니까 그전에 언제부터 시작했고 몇 농가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빼오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옥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출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관광정책과
- 지역개발과
- 환경산림과
- 안전건설과
- 해양치유산업과
- o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36억 3,125만 8,000원에서 9억 6,182만 2,000원이 감액된 126억 6,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1쪽이요, 가운데 있는 느린섬여행학교 철거 공사. 이것이 청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보수한다더니 어떻게 철거 쪽으로 정리되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당초 느린섬여행학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개보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되었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쳤는데요,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광객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가지고요, 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이 부분은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철거 쪽으로 실시설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대화 좀 해 보셨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동안 운영했던 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는 쪽으로 가자고 하고요, 그 외에 법인에 소속된 느린섬여행학교 사단법인 이런 분들은 전부 철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판단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이요,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관광지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반드시 변경용역을 거쳐서요,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용역을 한 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용역이 끝나봐야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용역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요.

○ 허궁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418쪽, 저 위쪽에 있는 금푸른 청학동 다체험 플랫폼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은 고금면 청학리에 그동안 농업…… 그 유자마을을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금년에…… 작년에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18억 원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이요, 같은 쪽, 418쪽 밑에 쪽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여차피 해수욕장 편의시설은 화장실, 샤워장, 기타 여러 가지 안전관리시설이 다 포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로 해서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노후되고 리모델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부의장님께서 보시면 어느 어느 부분이 좀 틀렸다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군비로도 예산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요, 화장실 보수나 이런 것은 겹치는 부분 없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대 성수기하고 금년에는 피해서요, 절대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9페이지요, 해설사한테 의복을 제공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이상 한 것은 7만 원씩 지급합니다. 해설사는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에서 열흘 정도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적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2014년 해조류 박람회 때 대거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나 해설가에게 7만 원 정도 저희들이 수당을 지

급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수당 말고 의복.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 의복이라고 그랬지. 의복.

○ 우성자 위원

수당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요, 저는 의복을 입는 것을 못 봐가지고 의복까지 사주시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개량한복으로 해서요, 어떻게 보면 해설가들이 집에서 입는 그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겠지만 그것보다 하나의 제복으로, 깨끗하고 깔끔하게 개량한복을 입으면 훨씬 이미지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 우성자 위원

그러면 해설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설사, 해설가가 완도에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등록된 분들한테 다 의복을 해주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활동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주는지 아니면 주로 활동하시는 분만 해주는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문화관광해설사는 열세 분 계시는데 이 분들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설가들은 사실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시는 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저도 해설가를 몇 년…… 오래 됐습니다 마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요, 고금은 활동범위가 좁아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 해설가는 엄청 많잖아요, 완도에. 그런데 활동하시는 분은 불과 몇 명되지 않아요, 그런데 50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옷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가지고 꼭 활동하시는 분들만

입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런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종합안내지도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또 410페이지에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그 두 가지는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관광과에 가면 관광, 접이식으로 해 가지고 큰……

○ **우성자 위원**

아, 지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리고 또 소형책자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관광객들이 지나가시다가 관광정책과로 와서 달라고 해서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숙박음식업소에서도 많이 가져가십니다. 1년에 한 2~3번 정도 만들어야 수요가 충족됩니다.

○ **우성자 위원**

지도하고 관광상품 안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지도하고 관광상품 안내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뒤에 것은 청산도.

○ **우성자 위원**

관광상품 홍보물은 청산도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산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가을빛 CF 제작 홍보물이라고 6,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엇그저께 세무회계과에서 가을빛여행 홍보라고 해가지고 5,5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는……

(「기획예산」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 기획예산.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

릅니까? CF 제작하고 홍보하고는 다른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굳이 구분을 하자면 홍보계에서는 일반 여러 가지 보도신문, 언론인 분야로 하고요. 저희들은 영상 제작이라든가 CF 제작이라든가 또…… 많이 오시는 경상도 쪽에 부산, 대구, 경북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특히 CF를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하고 일반 홍보하고 다르다는 이 말씀이시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동안 홍보를 나눠서 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왜 홍보를 같은 과에서 안 하고 굳이 나눠서 이렇게 쪼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래도 홍보팀에서는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신문,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쪽으로 하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을 위해서, 여객선이나 역에서 홍보한 다든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합니다.

○ **우성자 위원**

가을빛축제를 과장님도 올해 보셨죠? 가수 그 사람…… 20~30명 앉혀놓고 가수가 노래하고 이런 것 직원들도 보시고 다 보셨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을빛축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관광객들이 왔는지 그때 과장님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과연 얼마나 돈을 쓰고 갔는지. 우리 군민들이 아니라 관광객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거나 구상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가을빛여행에 대해서는 사실 항상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가을빛여행을 획기적으로 정말…… 더 업그레이드를 시

켜서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을빛여행이라고 홍보를 게을리 할 수 없어서요. 사실 대구나 경북 그쪽 KNN방송 같은 데에 홍보를 하고요. 인근 지역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관광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제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항상 구태의연한 자세로 형식적으로 홍보를 하시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지적할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혁신을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가을빛축제를 통해서 우리 완도가 홍보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년엔 정말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항상 때가 되면 CF 홍보하고 뭐 책자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개선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홍보도 되고 소득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요,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이것 작년도 실적은 어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 인센티브 지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유치해야 되겠냐고 그

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처음에는 그런지 몰랐는데 인근 해남이나 진도, 이런 데도 우리보다 더 많이…… 한번 데리고 오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센티브 금액이 떨어져 버리면 버스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완도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연락이 오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12월까지도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어려운 우리 관광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다…… 예산이 다 소모되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현재 거의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때 예산이 많이 안 남았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알기로 12월까지 쓰면 거의 마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많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예산만 많고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연히 할 일인데 그렇게 크게……

여행사 쪽만 덕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 작년인가 사무감사 때 보니까 사진도 없는 사진을 갖다가 만들어서 첨부했더라고요. 사진하고 자료하고 보면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돈만 받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0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5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말씀하시죠? (예)

지금 완도읍 망남리 전복체험, 그다음에 노화읍 북고리 전복체험, 달도 개매기체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서 용역하실 때 2,000만 원씩 송부해 가지고 1,000만 원씩은……

○ 위원장 최정욱

팀장님이 대신 답변할 때는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금방 망남리하고 달도하고 구석리, 또 두 군데는 어디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완도읍 망남리에서 전복체험을 하고 있고요, 노화에 북고리 전복체험 그리고 군외 달도 개매기 체험, 그다음에 약산 구석리에서 바지락체험을 계획하고 있고요, 보길도 여항리에서 바지락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김양훈 위원

지금 약산 같은 데는 바지락체험을 합니까?

(방청석에서 “올해는, 당초에 예산을 신청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정비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했는데 예산서에만 먼저…… 그러면 이런 것 나중에 추경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벌써 합의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미리서…… 돈도 없다고 하는데 먼저 예산에 올립니까,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기존에 해왔던 것은 지원하지만, 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 김양훈 위원

지금 보니까 약산 같은 곳은 바지락체험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전복으로 한번 했었고, 바지락은 제가 알기로 하는 데가 없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약산 구석리는 제가 알기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연말이 되니까 못하겠다고 포기하려고 그래서……

○ 김양훈 위원

그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미리서 되지도 않는 행사를 갖다가 해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자세하게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하고요.

412쪽, 행사운영비, 토요일싱싱콘서트는 어떻게 나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행사?

○ 김양훈 위원

예, 행사운영비에 토요일싱싱콘서트,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라든가, 효과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금년 토요일싱싱콘서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6월부터 9월까지 저녁 그 시간에 와서요, 토요일싱싱콘서트에 관광객들이라든가 군민들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인근의 식당가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이쪽 상가들 소득사업을 올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식당들을 보면 거의 이렇게 효과가 없다. 경제소득도 크게 안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일부 강진 같은 곳을 보면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인근 식당가에서 먹게끔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거의 뭘 상품권도 없이 그냥 놓고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군외에서 다른 팀들이 무료로 공연을 하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군…… 제가 예술담당팀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그 쪽에서 금요일에 보조사업을 해왔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마감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합니까? (예)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싱싱콘서트에 큰돈을 들이느니 그런 분들이 훨씬 낫던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거기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는 많이 안 오고요. 토요일싱싱콘서트는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 4월, 5월 축제기간 동안에 왓자지껄하다가 사실 6월부터는 거의 뭐…… 완도읍내가 허전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게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광객들이…… 버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올해는 시설하고요,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보면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부 정유하고 그러면 대부분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도 잘 준비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몇 페이지입니까?

○ **김양훈 위원**

같은 페이지요, 412페이지. 그 중간 하단에서

네 번째,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5,000만 원.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412쪽.

○ **김양훈 위원**

41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것 전부 다, 6시 내고향이나 해조류, 어영차바다야…… 전부 다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잠깐만요. 제가 얼른…… 완도음식 및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말씀하십니까?

○ **김양훈 위원**

아니, 아니.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12쪽,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

○ **위원장 최정욱**

412페이지 네 번째.

○ **김양훈 위원**

예, 밑에서 네 번째.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 네 번째요.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제작사업.

사실 여기에 1년 계획은…… 어떤 방송사하고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수산물특집다큐멘터리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방송사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요, 전부 다 보면 특집다큐멘터리라고 했는데요. 어영차바다야 아니면 해조류, CF 제작 전부 다 수산물특집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굳이 더블로 제작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방송에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이것 말고도 전부 다 홍보와 방송이 아닙니까. 중복된다는 얘깁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중복은 아니고요, 그것이 방송사마다 그때, 그때 KBS라든가 아니면 유선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면 일단 하나만 해서 다큐멘터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422쪽에 신지 명사십리 물놀이시설, 시설비에요, 작년에는 안 했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금년에 안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작년에는 하고요. 왜 그랬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작년에 하면서 안전관리 면에서 1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있었고, 또 안전,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소요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추이를 한번 보자고 해서 안 했어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이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대책은 잘 세워졌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요즘 추세가 호캉스라고 그래서 낮에는 물속

에 잘 안 들어가는 것 아니죠. 전부 다 에어컨 아래에서 즐기고 노는데요. 이 물놀이를 한다고 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내에서 어린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름에 어떤 단체, 그러니까 어린이들 단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군 관내 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물놀이시설을 그때 가서 봤는데 크게 이렇게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도 그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린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마지막으로 426쪽, 사무관리비에서요, 해조류 음식 책자 제작이라고 그래서 2,000만 원인데 어떤 음식을 책자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동안 해조류음식 수를 120가지로 해서 해조류책자가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비해서 새로운 그런 책자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 당초에 8,000만 원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문제로 6,0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 해조류음식이 120가지나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동안 가지가지, 여러 가지…… 우리가 요식경연대회라든가 또 요식업 학생들 경연대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습니다. 한 12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미 그것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급식소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전국적으로 다 보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레시피 요리과정까지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재료라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레시피 이름이 전부 다 나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완도 해양치유, 409페이지입니다. 409쪽, 저 밑에 부분. 완도 해양치유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요, 잘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지금 5,8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완도 해양치유 시티투어는, 간간이 보시면 주도 앞에 해양시티버스를 놓고 있습니다. 대형버스하고 소형버스 한 대씩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금년 하반기 때 시행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SRT 고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 이 홍보리플릿 제작으로 500만 원 해놓은 것은 역에다가 완도 관광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양치유시티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요, 또 앱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해양치유라고 버스에다가 그림만 그려

가지고 다닌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뭐 송정역이나 나주역을 통과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시간대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계획된 것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거의 날마다 한다는 것은 운영상……

○ 이범성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주말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로 해가지고.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해양치유”, “해양치유” 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말을 똑바로 하지, 왜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해양치유 그것 군에서 할 것을 민간인이 하니까 더 도와줘야 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아냐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말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더구먼. 업무를 한번 잘 파악해 가지고 설명을 똑바로 해야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더 도와줘야 될 것인데. 군 관광과에서 할 것을 민간인이 해가지고,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고 있는데. 설명들을 그렇게 하면 어짜자는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군에서……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챙겨 가지

고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적극성을 가지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아무튼 저희들이……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티투어 쪽에서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하루에 1박 코스로 해서 6만 5,500원이면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송정리까지 갔다가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서울에 갔다가 SRT를 타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싸게, 앞으로 이것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봤을 때는 홍보차원이 엄청 높고요, 또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한 거예요, 제 뜻은.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에……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아직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 정확하게 할 것이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예.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그리고 제가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서 보충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물어본 영상 관련해서 수산물……

○ 위원장 최정욱

몇 페이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412페이지에 해조류 다큐멘터리 제작, 해조류 홍보 전국시대 특집방송, 어영차바다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작한 것은 내년에 시기 별로 좀 수산물을 홍보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어영차바다야는 MBC에서 1년을…… 시군에서 부담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씩 부담을 받아 가지고 1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계도 있고 또 영상도 있는데요, 홍보계는 모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영상, 이쪽 파트는 교양정보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국장님, 가을빛축제 행사비가 2억 5,000이 아닙니까. 홍보비가 반절이 넘어요, 50%가. 그래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는 얘기죠, 관광객들도 거의 보면 없어요, 다 완도군민들이 전체 차지하고 있지. 그 정도로 홍보를 했으면 관광객이라든지 그만큼 외야죠, 와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홍보비만 날리는 것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광고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김양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인근 시군에서 전부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축제를 비롯해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완도에 오는 관광객이 좀 적습니다미는 홍보를 안 하면 그만큼 또 안 옵니다.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홍보만큼의…… 그 행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에는 많이 가는데 가을빛축제 행사는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입니까? 뭔가 볼거리도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안 오는 것이죠. 홍보만 50%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을빛축제 이것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예요.

○ 경제산업국장 서현종

그 말씀도 맞는데요. 다른 지역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완도에는 왜 그런 축제가 없냐고 의의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409페이지요. 지금 해설가, 해설사는 군에서 지정한 것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설가는 완도군에서 양성한……

○ 위원장 최정욱

그렇죠, 엇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는데 활동을 얼마 정리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안 하시는 분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요, 그렇게 하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해설사를 우선으로 배치하는 데요. 해설사가 없는 읍면이 많고요. 또 생일 같은 경우는 해설가도 없는 읍면입니다. 그래서 해설가를 (청취불능) 양성하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면 그 지역에 대해 훨씬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해설가 육성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해설사에 예산이 더 많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설가가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1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데, 완도읍권에 있는 데는요. 해설사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산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많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사실상 청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리고 408페이지요, 비치클리너. 그것이 뭐예요? 비치클리너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비치클리너라는 것은 모래사장 안에 있는 각종 쓰레기라든가, 쇠붙이라든가 쓰레기를 이 기기가 지나가면서 싹 골라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를 올려서 모래는 털어내고 쓰레기만 이렇게 고르는……

○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요, 홍보비. 자꾸 위원님들한테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보면 홍보비 내용이 거의 연도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년

도에 했으면 올해도 비슷하게 방송사하고 그대로 계약을 이어가고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한 34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방송사 프로그램 계약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전년도부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것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얼마 증액은 안 됐는데, 그렇죠? 계속 몇 년 간 똑같이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다들 효과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자꾸 예산은 똑같이 그 프로그램 그대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 영상, 관광, 홍보 이런 것을 보면요,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기획실이나 어디 과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군 홍보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의원인 우리가 봐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완도를 홍보하는 그 순간을 포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찌다 한 번씩 보는데요, 가을빛여행축제 홍보라고 그러는데요, 실제 우리 지역을 벗어나면 완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을빛축제든 무슨 축제든 간에 완도에 대한 것을 자주 노출시키면 그만큼 완도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좀 홍보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의원인 나도 TV에서 제대로 본 적이 없다가요, 횡수로 보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와야 돼요, 전체 과를 다 묶어놓고 보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튼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홍보라는 것이 1분 홍보 아니면 30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 한번 짝 이번엔 정리하고 추경 때 다시 한 번 짜서 해볼 생각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했던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텐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실제 방송에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방송하지 않고 절대 우리가 지원할 수……

○ **위원장 최정욱**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묶어서 정말 필요한 시간대에, 정말 필요하게 한번 전체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어떻게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다 찢어놓으니까 뭐가 뭔지 제대로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 홍보 중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KNN 방송이라고 부산, 경북, 경남지역의 방송인데 거기에 이 특집으로 해 가지고 1시간 정도 잡아서 하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요, 그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그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왜 우리 지역은 안 하고 완도를 하느냐?” 라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볼 때 정말 해서 이렇게 효과가 많이 있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죠. 특히 위원들은 그런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변화되게 가지는 그 말이에요,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 이 정도는 몇 년간 해봤으면 색다르게 변화를 해본다든가, 정말 홍보를 제대로 해본다든가. 그런 것이 되어야지. 맨날 하는 대로만, 계속 그대로 가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를…… 완도를 홍보해서 뭐 제대로 피부로 느낄 만한 뭐가 있냐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싹 정리해 버리고 새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이번에 싹 정리해 버리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414페이지요, 이것 계획공모형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1,800, 이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당초 관광거점도시라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인천 송도에서 관광전략회의를 할 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광거점도시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체부도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군수님께서 청와대까지 방문하고 국회 정세균 의장님 등 여러 군데에 방문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못 미치고 여수, 순천 같이 고속도로가 다 있고 KTX 같은 고속열차가 다니는 그런 곳으로만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완도는 거기에 너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관광거점 계획공모형사업으로 금년에 2개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100억 그리고 지방비 100억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1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최정욱

계획공모라는 것이 뭐예요, 계획공모라는 것

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관광지로서 활성화가 안 된 곳, 그런 곳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관광도시를 좀 이렇게…… 노후화된 그런 곳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사업계획을 우리들이 공모해서 그것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우리 군에서 읍면에 공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전국적으로 2개소만 합니다. 2개소만 선정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전국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데 될 것으로 생각하고, 댔을 경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414페이지, 신지 명사십리 허궁희 부의장님이 했습니다마는 5년 계획별로 이것을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한다고 했던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보통 5년이라고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올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놨는데 3년, 4년, 5년이 가면서 이 방향이요, 여기에다가 민박펜션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바뀝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한다든가 토지 감정 평가액이 안 맞아 가지고 안 한다든가, 바뀌야 됩니다. 바뀌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생략할까 했는데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서요, 전체 금액이 얼마쯤 되는가요, 20억 3,500인가요? 아, 418페이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20억.

○ 김재홍 위원

20억 3,500이죠? (예)

관광 그 해수욕장을 찾는…… 1년에 몇 명쯤이나 옵니까, 연차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렇습니다. 많이 올 때는 50만, 60만 옛날에 70만도 왔었습니다마는 올해는 45만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4억 1,300인가요, 좀 늘어났고,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9,0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장비가 없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전장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고요, 쉽게 말해서 노후화되면 안전요원들에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도비가 반절입니다마는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전에는 안전장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있었습니다.

○ 김재홍 위원

내년에 또 부과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도에서도 지원해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를 한 20년씩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안전장비가 특별히…… 뭐 5년단위로 바꿔준다는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재홍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에 보면요, 완도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해수욕장이 몇 군데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총 11개소입니다.

○ 김재홍 위원

11개소요.

주차요원 인부임이라고 해서 1,242만 원, 이것은 어디인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주차안내요원 인부임을 말씀하시죠?

○ 김재홍 위원

예, 주차안내요원 인부임, 19페이지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신진 해수욕장 같은 데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안전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서서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고요, 차량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인부임입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11개소라고 하니까 기왕이면 동일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했지만 관광객 수는 줄어드는데 해수욕장 운영비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21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66억 원이 늘어난 총 410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내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 중이세요. 금일읍 공공이용시설으로 2억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 위원장 최정욱

몇 페이지인가요?

○ 우성자 위원

508페이지. 그랬는데 이렇게 금일읍을 해주면 다른 읍면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읍면마다 사회단체사무실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시키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서 아마 그쪽에서 반영해 준 것 같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이리다 보면 너도 나도 사무실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럴 때 애로점이 있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을 했다고 하나까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또 515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요. 지금 고금이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목욕탕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저희들은 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목욕탕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엄청 고민인데.

그런 부분이 혹시 읍면에서 잘못될 경우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어떻게 보니까 지역개발과한테는 부탁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518페이지요, 마을 및 공동창고 지원, 작년에는 25억이었는데 10억 8,000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작년에 저희들이 25억을 요청했고, 올해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그렇지, 올해는…… 작년에 추정할 때는 수요를 예측하지 않고 사업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면, 올해는 도서개발팀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까지 확인한 다음에 사업의 적정성이 있는 부분만 요청했는데요,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데 아마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연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 추경을 이용한다고요? (예)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 거의 반절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509쪽에요,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주도 앞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범개선사업. 그 내용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 드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중에 시범사업으로 제시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완도읍에 가장 포인트를 두고 개발해야 될 지역이 어디일까 하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주도 앞모습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정해서요.

당초에는 사업예산은, 전체 큰 그림은 한 70~8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군비로 할 수 없으니까요, 올해는 우선 주도 앞 승강장하고 거기 가드레일이라든지 도로 노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공공디자인 측면에서 완도네시아에서 삼거리식당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되 주도 앞, 모텔 앞 거기를 포인트로 잡고 개선해 보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1억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나중에 예산을 더 요구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범 디자인사업으로 한번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상지하고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올해 저희들이 용암리 그러니까 비석거리 그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라는 공모사업이 문체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체부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총 10억 규모로 용암리를 공공디자인을 갖춘 마을로 만들어보자고 그래서 공모에 선정되었는데요.

올해는 실시설계단계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적격성 판정을 받으면 내년도 총사업비 예산은 8억 2,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 용암마을을 8억 원의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사랑방하고 용암리 가드레일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가드레일 정비사업하고 주민

쉼터 그리고 팽나무 주민쉼터사업과 노면 개선사업, 이런 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중에 우리 군비 부담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의 도로나 주변 정비사업이구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쪽예요, 시설비에 고금 장항 선착장 정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1억 5,000. 그때 선착장이 아니고 물양장 시설공사로 그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목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부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3쪽, 완도 다목적주차장 조성. 거기 게이트볼장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개발한다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교체하실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150억 원으로 확정된 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으로 고시된 것이……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목적주차장으로 쓰라는 사업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도 땅을 사기는 사야 되고, 또 토지소유자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년에 사는데요, 현재 거기를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

르신을 쫓아내야할 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문화체육과하고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땅이 팔려버렸다고 그분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걱정도 하고요, “우리 쫓겨나면 어디로 가냐.” 라고,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착안점을 두서 가지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7쪽이요, 제일 밑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라고 해가지고 1억입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실효를 해지시키라는 지침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그 도시계획시설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대상수가, 실효대상이 약 76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났든 공원이 났든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지어진 지역에 대해서 20년이 경과하도록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효하려고 하는데, 실효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용역비가 좀 커서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

해서요.

그리고 518쪽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면 마을회관 비품 지원으로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라서 이렇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신축, 증축, 개보수, 공동창고, 마을회관 비품 지원. 이 마을회관 비품 지원 2,000만 원…… 아, 1,500만 원인가요?

(방청석에서 “1,000만 원.” 하는 직원 있음)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요구하시면 그 마을에 필요한…… 회관 내에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내에서 물품구입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것을 알면 많은 마을에서 신청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이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내는 지원하지 못한다는 이런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 **허궁희 위원**

3년 넘은 회관들이 한두 개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렇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적정성을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514페이지요. 아까 청해시장. 이범성 위원님이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요. 주차장하고 우체국 옆에 게이트볼장, 청해시장 세 군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게이트볼장 그쪽을 철거한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요, 청해시장.

○ **위원장 최정욱**

청해시장을 말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청해시장을 철거하고요. 지금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면 그것을 쓰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요. 아까 우성자 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공공이용시설 증축사업 주민참여예산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로 그런 것은 어렵다고, 우리들도 제안이 들어오면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못 해주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군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라는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올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끝내놓고, 다목적센터를 지어놓고 그 건물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다 끝났는데.

금일 주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1층은 대부분 체육시설로 활용하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실과 더불어서 관련된 사회단체가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하신 것 같아요.

○ **위원장 최정욱**

어쨌든 우리 예산에 주민참여 공공사회단체한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마 1차 목적은 다목적센터를 관리할 수 있는 목적하고 이왕 사무실을 지은 김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부족한 사무실을 같이 했으면 좋겠

다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그런데 그것이 타 군도, 타 읍면도 알게 되면 문제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는 예산인데.

○ 위원장 최정옥

우리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주민참여제라 서 해주면 우리는 뭐나는 것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서 이런 것을 막아줘야지, 이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게. 아니라고 의원들은 제 재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버리면 우리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이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고민해서 예산 편성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국비

72억 4,949만 5,000원, 군특 3억 2,200만 원, 기금 1,849만 9,000원, 도비 32억 1,040만 8,000원, 군비 149억 3,128만 2,000원으로 총 257억 2,213만 4,000원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환경산림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1쪽이요, 첫 장이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용역비 이것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뀌는지. 461쪽 제일 밑에.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계획 변경용역비는 법에 매년 10년마다 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같은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엔 만발의 준비를 용역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저는 혹시나 이번에 뭐니까, 공원에서 다도해국립공원에서 개최한 내년인가. 지역이 바뀌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나, 그런 것이 궁금해서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해지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단체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해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464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부분은 건설기계…… 경유차에 그대로 가스가 배출된다는 말입니다. 장치를 거기에 붙이면 배출가스가 저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기계 엔진을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91쪽이요, 군외면 불목리 공중화장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중간쯤에 842만 원,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491쪽 중간 부분.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군외면 불목리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올해 사방댐을 군외면 뒤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원불교 측에서 물놀이시설이 되면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 김재홍 위원

아니, 이 부분이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부분이 불목리 그쪽에…… 다시 원상 복구한다는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환경산림과에서도 과연 법에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서……

○ 김재홍 위원

물놀이체험장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중에 예산을 설명하러 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2쪽이요,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5,000만 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용역을 할 것인지.

○ 위원장 최정욱

46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게 된…… 목록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목록에 대한, 지표에 대한 그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예찰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위원님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11조에 5년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마이크, 마이크.

○ 기후변화대응팀장 배두현

(좌석에서)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11조에 5년마다 용역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 김양훈 위원

그러면 5년이 돼서……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기후변화대응팀장 배두현

(좌석에서) 그 내용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매년 지자체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 김양훈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겠고요, 용역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잡아서 가느냐는 얘기로.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은 제가 연찬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1쪽, 시설비를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있는 것, 약산면 치유의 숲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당초에 이것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2020년 말에 사업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현지 결과, 현지 설계결과 사업비에 의해서 주차장하고 조경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4월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빠진 부분에 대한 보충 사업으로 실시해서 마무리하려고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우선 급한 사항은 아니죠?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내년 연말을 목표로……

○ 김양훈 위원

치유의 숲, 이것이 2021년도에 마무리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치유의 숲에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2020년 말에 완료를 하고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시개장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프로그램을 다시 교체한다든가 확정해 가지고 2021년 6월에 정식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조정사업이나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내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방금 물어봤듯이 약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균특하고 준비하고 해서 8억 4,000이 투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리비 6,000만 원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또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당초 설계에 조경이나 주차장 공사까지 다 포함됐어야 맞는데,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미루다 보니까 최종연도까지 밀려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 위주로,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 사업비에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우리가 균특에다가 받아 가지고 8억 4,000인데 이번에 3억 8,000을 거기에다가 또 다시 투자한다고 하니깐요. 이것은 어떻게 봤을 때 본사업이나 군비를 들여서 투자한 돈이나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비를 더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이것 꼭 해야 되겠어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들이 많이 올 텐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 시설공사가 빠져 있어 가지고요. 또 앞에, 건물 앞에 조경시설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미스인데이. 어쩔 수 없이 시설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차유의 숲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여러 가지로 수목원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마는 균형발전이라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르는 데에다가 계속 바르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요, 급한 일이 아니면…… 예산이 없다고 자르고, 자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침녕쿨 제거, 이 침녕쿨이 다른 것보다 환경도 훼손시키고 산림도 황폐화시키고 그러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요, 침녕쿨 제거사업?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침녕쿨 제거사업, 작년에…… 아니, 올해 저희가 그 제품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95%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할 때 저희도 긴가민가했어요,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우리가

실시간으로 매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치했던 부분은 전부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 허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 가는 곳마다 이 침녕쿨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12개 읍면으로 이 예산을 쪼개보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12개 읍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권역만 봐도 할 것이 많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리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청취불능) 진행됐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 관계부서하고 협력해서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2020년 본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2억 7,916만 4,000원이 감액된 229억
6,325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소방서 신
축비용 미포함, 즉 12억이 감액된 셈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안전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5쪽에 이어서 소방대,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관련해서요, 536쪽에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약산이라고 하셨
죠? (예)

약산에 왜 의용소방대 부지를 매입합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으려고요.

○ 우성자 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으려고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119를 지으려고요, 119.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사계곡?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574번지로 해가지고 소유자하고 협의되어 있
습니다.

○ 우성자 위원

소유자하고 합의가……

의용소방대 예산은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 삭
감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시고
요,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거든
요, 아직 확실하게 답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
은 무조건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관계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애매해
가지고 물어본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우성자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를 너무 사랑
하고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
로…… 극단의 처방을 내리게 되신 것 같은데요,
깎으시더라도 반절만 깎으시고 (청취불능) 기회
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분들이 반절이라도 남겨놓으니까 이번
에 행사를 하면서…… 그 계장님이 키가 컸잖아
요, “나는 너희들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0
만 원 관계가 좀 애매해서요, 땅이라는 것은 그
때 못 사면 사기 어려운 그런 관계여서 제가 물
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게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그러시고요.

손을 보시더라도 출동수당은 어느 정도 뇌뵈
야 되지 않겠습니까?

○ 우성자 위원

아니요, 소방대가 활동하지 않으면 출동수당도
없어야죠, 어떻게 수당을 뇌뵈니까, 못 뇌두죠.
말해도 안 듣고…… 제가 정말 제사를 했습니

다. 당신들 서로가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소방 예산은 전부 삭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여성다기능 CCTV라고 했죠? (예)

그것 아까 지역개발과에 없었습니까? 아까 지역개발과에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CCTV 하나.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CCTV가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아, CCTV가 아니에요? 아, 다른 거예요? 나는 CCTV로 생각하고 왜 또 다른 과에서 이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궁금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4쪽이요, 밑에 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대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육성 지원으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는데요. 경상보조는 훈련장 유지비, 사격장 유지비, 또 미세먼지마스크, 진드기 차단스프레이, 물자 유지비, 예비군훈련 소모품, 냉난방유지비, 정수기 임대료, 무기·탄약고 유지보수, (청취불능) 공과금, 무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비군의 날 행사, 또 여성예비군 지원 이런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적보조는 아까 말씀드린 훈련장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야간투시경 (청취불능) 빔프로젝터 구입, 훈련장 CCTV 설치, 보수, 노후 PC 교체 이런 용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 그렇게……

나는 왜 이것이 궁금했냐면 예비군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

데 이런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이요,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것은 (청취불능) 농경지에 포장 안 된 농로를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한다든가 (청취불능)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90% 이상 넘었어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마는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우리 군에 5,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보니까 농지정리한 데…… 그 농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청취불능) 농로에만.

○ 김양훈 위원

확포장이 안 된 사업이 많던데. 비포장으로 된 곳이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청취불능) 지붕 위예요?

○ 김양훈 위원

예.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간척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요. 포장이 많이 되어서 영농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아직 지역이나 이런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신청지는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5,000만 원 중에서 우선 가장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시설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 이것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6개 권역을 했어요. 원도 청해진권역, 금일 다시마권역, 신지 명사십리권역, 고금 청학권역, 약산권역, 신지 명사십리…… 6개 면에다가 했는데요. 도농 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이 뜨고요, 천장이 뜬 곳이 있어요. 그 소요예산을 산출하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6,000만 원밖에 주지를 않았고요,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만들어 낸 시설물이고, 또 소득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손으로 막을 것을 (취부능) 막게 되는, 그런 옷지 못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초동에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는 재원이 모자라서 할 수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 해놓은 곳 잘되니까, 관리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전혀 이용을 못하는 곳도 있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계속 보수만 해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곳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일단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요, 잘하게끔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마는 우선 고쳐줄 것은 고쳐주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쪽, 시설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액수가 엄청 크네요? 4억 9,600,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드린 풍수해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법정계획인데 10억을 한 번에 세우기에는 재정부담도 되고 그래서 2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절만 요구해 뵈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2년간.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10억이 들어가는데요.

○ 김양훈 위원

완도군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사업비 신청에

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라든가 각 부처에서 이것부터 따지고 안 해줍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해양치유산업과 2020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 25억 9,665만 9,000원보다 202억 7,504만 6,000원이 증액된 228억 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62억, 균특회계 27억 3,000만 원, 도비 27억 7,900만 원, 군비 110억 9,2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해양치유산업과 예산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해양치유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3쪽예요, 사무관리비. 치유홍보동영상하고, 584쪽, 사무관리비에 홍보영상 제작하고요, 이것 같이 해버리면 안 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584페이지에 있는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4,000만 원, 해양치유산업, 그다음에 해조류바이오산업과 함께 전체적인 그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치유체험 홍보동영상 이것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해도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체험프로그램이나 홍보동영상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이왕이면 아까…… 연속해서 보내줄 때 홍보동영상으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런데 홍보동영상에 기후치유프로그램 그 영상은 적은 분량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요, 전체적으로 기후치유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교육비요, 해양치유프로그램 초급지도자 양성과정, 584쪽입니다. 이것

양성과정을 하게 되면 치유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초급지도사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자격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딕워킹이나 필라테스는 초급지도사를…… 일정기간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또 실기테스트를 엄정하게 거쳐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치유사 자격증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시설비, 해양치유산업 BI 조형물 설치. 이것이 지금…… 잘 모르시죠, 어떠한 조형물인지? 그때 한번 제가 사무감사 때 설명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이것 엠자 써진 것, 그것 보라고 그러는 것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렇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양치유산업과는 시간이 안 돼서 23일에 보고를 드리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신지하고 완도에 들어오는 관문에 하나 있죠, 육교 밑에?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신지 IC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 하나를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솔직히 2,000만 원보다 더 들어갑니다. 업자한테 손해 좀 봐달라고, 예산을 이것밖에 세우지 못했다고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설치할 것이면……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고급 쪽이라든가 아니면 서부 쪽 적절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서부 쪽으로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관문 쪽에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에 해놓는 것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선정해 주시고요.

597쪽, 기타보상금에 공모시상.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액수가 너무 안 커요, 한 건에 1,000만 원씩이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 여기 2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기획과제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건에 대한 보상비가 될 수도 있고요, 기획과제 내용에 따라서 보상금이 분리됩니다. 편의상 2건으로 했습니다마는 5건이 될 수도 있고, 7건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오픈해서 공모하는 것입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해서 공모를…… 어디 방송사에 뱉니까, 아니면 신문에 뱉니까? 공모할 때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전부 저희들 그…… 허용되어 있는 완도군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2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2건이 아니고 그때 봐서 심사해서 따로 시상한다는 얘기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2건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5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의상 2건으로 해 놔 주시나마는……

○ 김양훈 위원

2건으로 되어 가지고 1건에 1,000만 원씩이라 ‘아,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국비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려 다녀보면 이런 기획과제가 꼭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과제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뭐 아까 5건이 됐든, 10건이 됐든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최대한 그것을 활용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81쪽, 약산권역 해양치유체험센터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581쪽, 이것은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약산에 산림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도 해양치유센터 공간을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이미 저기에 산림치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 저 공간을 활용해서 해양치유하고 산림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콘텐츠를 구성해 보자고 해서요. 그때 의원님들이 5월에 간담회를 할 때도 용역을 변경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산림과에서도 이번에 3억 8,000의 예산을 거기에 이미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2억을 투자한다는 이것이지요. 어디에다가 특별히 짓는다는가, 치유센터를 짓는다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저희들이 그 시설은 가급적이면 배제하고요.

○ 이범성 위원

치유의 숲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향후 3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2억을 가지고 내년에 설계를 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투자가 된다는가,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환경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거기 주차장, 이번에도 주차장 조정시설. 그러면 20억이 투자되는 이런 것을 치유과하고 환경산림과하고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또 환경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치유의 숲 과정으로 해서 또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또 이 부분은 어디에 쓸 데가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갖다 붙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과별로 같이…… 예산이 없다고 날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와가지고 예산…… 없는 것도 많이 세워놓고 자르지 마라, 어찌고 하는데, 그쪽을 자르든지, 이것을 갖다가

거기애다가 더 투여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과별로 미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산림과하고 계속해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관광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무슨 아이템이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세 과가 서로 잘하려고 난리겠네요. 치유의 숲, 약산, 거기애다가…… 군수님이 계셔서 그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 부분은 명심해 가지고요, 20억이 투자되는데 이미 다 투자된 데애다가 또 20억을 투자하려면 엄청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총 35억 8,908만 6,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110억 9,1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할 동안 찾으십시오.

628페이지요, 토종자원 코끼리마늘 단지조성 시범사업.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금년에 저희들이 토종사업으로 해서 코끼리마늘을 청산도에다가 1.5헥타르 정도 처음 입식해 가지고 지금 재배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능성 특산자원 쪽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요, 5헥타르까지 저희들이 확대 재배해서 관광객들한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 그전에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금년도에 처음……

○ 위원장 최정욱

처음 시범사업으로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해가지고 지금 재배를…… 식재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코끼리마늘을 선택한 이유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코끼리마늘을 선택한 부분은 코끼리마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토종마늘입니다. 그래서 그 토종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을 개발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다음에 631페이지요,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조성.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실은…… 벼 시범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 1차 추경 때 1억 9,000만 원으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내년 사업으로 국도비를 약 10억 정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벼를 타깃으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가을 식재에 들어갈 기능성 색깔보리 그 면적을 100헥타르 정도로 확대 시범재배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헥타르당 100헥타르 기준으로 300평당 10만 원 기준으로 그렇게 재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품화를 위해서…… 이 또한 저희들이 규모화를 해놓으면 차후에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 위원장 최정욱

예를 들자면 기능성 색깔보리를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 타 지역은 안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단 색깔보리를 청맥이라는 가공회사하고 계약재배를 전반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재배가 약간씩은 되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은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생산만 하고 판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 위원장 최정욱

이것 잘되면 농가소득에 좋겠네요, 소장님의 생각은? (예)

63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GAP실천

단지 육성사업이라고 그래서 2억으로 되어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 부분은 팀장……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세요.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좌석에서) 식량작물팀장 배천호입니다.

GAP실천단지 육성사업은 지역 내의 GAP 기반장비하고 시설, 그다음에 컨설팅교육비, 그다음에 GAP농자재, 물품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매년 시군별로 한 건씩 돌아가면서 22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우리 군은 처음이죠, 그러면?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좌석에서) 예, 처음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뭐라고요?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좌석에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환경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이 있지만 GAP는 약간의 적정치 농약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간접적인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제도입니다. 그에 따른 컨설팅교육이라든가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637페이지요, 벼섯교육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올해 벼섯을 내년도 벼섯 쪽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어민대학을 금년에는 벼섯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벼섯을 재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오늘 수료했습니다마는 32명 중에 21명…… 21농가가 현재 벼섯을 재배해서요, 일부 농가들은

자가소비를 하고 있고 15농가 정도가 생산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목 중의 하나가 버섯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버섯을 타 지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것을 해서 과연 보급되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면 판로 걱정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지금 현재까지는 판로에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공이라든가 직판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최대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요, 버섯에 지금…… 장비 구입이나 이런 보조예산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보급했는데 판로가 과잉되면 어떨까 싶어서. 타 지역도 버섯을 아주…… 여기 저기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타 지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은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선별해 가지고 틈새작목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 위원장 최정욱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8쪽예요, 민간자본이전 치유농업 꽃차.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차 소물리에반, 자격증반을 운영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시켜서 현장에서 접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도 하고 있고, 또 자연상태에서의 꽃차를 채취

해서 상품화하는데, 그 상품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가공산업하고요, 또 간단한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1개소라고 했는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직 저희들은 그분들이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단체를 지원해 주고요, 단체가 결성되지 않고 어려울 때는 마지막 한 사람한테라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꽃차한지 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꽃차는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꽃차를 그전부터…… 작년에도 안 했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금년 처음입니다.

○ 김양훈 위원

처음이에요? (예)
이것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닙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가 없다고 그러면 개인 한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죠, 하고 싶은 사람한테? (예)
한 쪽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꽃차연구회가 결

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체로 이렇게 결성해 가지고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직 업체나 누구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

○ 인력운영팀장 고영권

(좌석에서) 약간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팀장 고영권입니다.

꽃차산업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1년차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용장미 같은 것을 주목표로 했는데요, 식용장미는 현재 세 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꽃차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도군 같은 경우에는, 또 꽃차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했구요.

상품화를 하는 것은 이 꽃차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1단계로 저희들이 원물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까지 가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가내수공업 정도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했구요. 그에 따른 원물 생산을 통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가공공장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간단한 원물 생산 정도로, 원물을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2쪽, 여기도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제일 하단예요. 고품질 친환경 쌀 잡곡 수출단지 육성시범,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요, 친환경 쌀이라든가, 잡곡 등을 생산해 가지고 일단 수출을 한번 시도해 보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또 수출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도나 중앙하고 연계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금까지 수출해 본 적은 없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저희들이 어떤..... 자체적으로는 수출한 적은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세워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했구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20헥타르면 어느 지역에다가..... 대상지는 어디로 잡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대상지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 현장평가를 해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저희들이 투입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확보만 하는 것이네요. 무슨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국비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최대한 맞는 그런 단지로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에요, 거기도 민간사업보조인데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아열대작목 소득화 시범으로 1억 5,400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지역에서 솔직히 어떤 아열대과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접목시키고 싶어도 이런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들하고 접촉하고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었는데요. 지금 한 농가가 바나나를 재배해 보고 싶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 센터 문을 두드려서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한번 이런 아열대과수를 농가가 직접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접목시켜 보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바나나를 한번 해봤습니까, 그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거기도 바나나 재배경험은 없고요. 현재 커피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도 생산했을 때 농협에서 수매까지 전부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수매는 둘째 치고요. 한 번도 안 해 본분을 일단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해본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교육을.....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바로 이렇게 식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되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게끔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미리 그런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틀이 나와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그분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가지고 예산만 먼저하고, 예산을 잡아놓고 이제부터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얘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소득작물팀장 오석근

(좌석에서) 소득작물팀장 오석근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열대작물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어디에서 재배하느냐면, 제주도에 가면 온나라대응연구센터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재배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전남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농협, 전남농협지역본부하고 같이 (청취불능) 하거든요.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유통은 어디가나..... 지금 바나나는 수입 것이라고 농협에서도 판매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바나나라고 하면 농협에서도 당연히 유통하는 것이고.

저는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사업이고 아직 농가가..... 전혀 문외한이라면서요?

○ 소득작물팀장 오석근

(좌석에서) 그분 같은 경우도..... 현재 바나나 재배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가서 교육도 받고 또 그 농가 분들과요. 현지에 가서 재배 기술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소장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자기가 재배한 경험은 없지만 저희들한테 교육을 신청해 놓고..... 아니, 사업을 신청해 놓고 해답이나 강진 같은 데에서 바나나농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1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요. 이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좀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농사는 수산물하고 달라서 고단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단가들이 좀 낮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나오는 소득률이 적다 보니까 거기가 좀 잘못되면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또 안 맞아서 보일러

시설을 못해 버리면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짜 준비된 과
정에서 지원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
는데. 이전에 제가 어느 쪽 말을 들어보니까 정
확한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완도의
토지하고 기후하고 정확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데. 그러니까 투자만 해놓고 나중에 포기해 버리
면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농가가 사업계
획서를 가져왔을 때 가장 먼저 타진했던 부분이
그것이었고. 또 저희들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도농업은 전부 다 투잡, 쓰
리잡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빠른 농업에 투자하
다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힘에 부치고 그러면 던
져버리고 바다 쪽으로 뛰어드는 농가들이 대부분
이어서 그런 부분을 제3차, 제4차 강조하면서 확
답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런 것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검토
하고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기 631쪽,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육성 1억짜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국비
부분으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지
방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
해 가지고요. 면적이 일단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가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액수의
국비를 저희들이 (청취불능) 2021년 사업비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
적인 재매면적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

로 처음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특산단지면 완도군에서 주로 어디가 전망이
있는 곳이라고 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고금, 노화, 청산, 신지, 약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치유기능성 색깔
보리라하면…… 지금 보리 부분들이 참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33쪽, 제일 밑에 부분. 유용미생물
보급사업, 그것 지금 보급이 잘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보급하는 곳이…… 이 소리가 이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는데요. 갖다 쓰지도 않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부터 별의별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이전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해 가지
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농
가에서 그것을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
가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
급하는 방법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정
말 필요한 농가들한테만 공급이 되게끔 그래서
낭비되거나 어디에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주로 보급되는 것은 과육 쪽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채소라든가 과수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다
양한 그런 농업분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좋으니까 쓰겠죠? (예)

그런데 안 좋은 사람도 타가다 보니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랬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도 옆 사람들이 갖다 쓰니까 “공짜면 나도 가져다가 쓰겠다.” 라고 해놓고 막상 안 뿌리고 그냥 방치해 놓은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잡아내서 꼭 필요한 농가에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 부분들에 꼭 신경을 써가지고요, 좋은 사람들이 쓰면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중에 제대로…… 뭐 사업적으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필요 없는 사람들이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6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업용 굴삭기 구입인데, 굴삭기가 많이 필요하죠? (예)

이것을 가지고 임대해 주고 그러죠, 이것 소형입니까, 2,800만 원짜리가? (예)

국비가 달리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제 보면 힘없는 어르신들이 농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임대 사업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출석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 해양정책과
- 수산경영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원
- 맑은물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저희 부서 계속비사업은 2건에 69억 485만 원으로, 이중 연안정비사업 59억 원으로 현재까지 교부된 사업비는 31억입니다. 이중 1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해양수산부 3차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22년까지 27억 5,700만 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해수부에서 명사십리해수욕장 모래유실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낙도 해상교통 불편해소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우리 군과 고흥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주요 사업내용은 금일 동송항과 충도항을 대상으로 대합실, 물양장 조성, 접안시설 개보수, 금일 충도 어민소득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85만 원으로 현재까지 전액 교부되어 7억 5,3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12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마는 560쪽 제일 위에 있는 친환경해조류 발효액비 공급사업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분분석표나 이런 것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올해도 안 됐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준비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들께 주면 좋겠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도 이것을 어제 받았는데요. 컬러로 되어 있는데 복사하니까 흑백으로 돼서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유인물로 제작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저는 이것이야…… 어떻게, 어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십니까? 왜냐하면 수산정책과에서는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농민들한테. 이것이 농민들 위주가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주로 액비 공급사업은 해조류를 활용해서 액비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주로 작목반에 많이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작목반들이 액비를 주로 공급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왜 지원해 주지 않는냐고 저희 과에 와서요. 저희들도 고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올렸는데요.

어제 (청취불능) 제가 봤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생산이 증대되고 업체가 늘어났다는 이런 연구원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 허궁희 위원

아니,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막말로 (청취불능) 뿌려 봐도 좋은데, 그런 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묻는 부분은 해양정책과에서 과연 농민들을 상대로 보급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말은 같은 예산을…… 개발은 해양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라인은 농축과나 기술센터, 농업…… 그런 곳에서 하는 곳이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뜻이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런 사업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공급했을 때 과연 어

는 라인으로 공급을 했느냐,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보충설명해 달라는 그 취지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구요. 그 전년도는 우리 과에서 집행했는데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작목반에서…… 거기에서 가져가고 공급을 했다는 확인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공급하고 그 확인서만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제대로 공급이 됐겠느냐, 제 뜻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 허궁희 위원

공급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시다.

○ 허궁희 위원

하여튼 참고해서 공급이 원활히 되게끔 잘 파악하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고맙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9쪽예요, 재료비. 친환경쌀 생산단지 미역줄기 수매,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4월 정도 되면 양식시기가 다 끝나거든요. 양식시기가 끝나서 미역귀를 생산하는데 미역귀를 생산할 때 이것을 거의 마을에 있는 인양…… 작업을 많이 합니다. 미역귀만 하고…… 미역귀는 바다에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약산 화가리 쪽 (청취불능) 그 들녘에다가 살포해서 바로 갈아서 농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다가 일부 성분분석을 의뢰했거든요. 성분분석을 했는데 일반 쌀 성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비싸게 받았는데요. 지금도 가격에 차이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이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미역줄기를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지, 어떤지도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양을 가지고 가고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려다가 못가봤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전년도…… 금년도죠,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했구요, 알아왔는 것까지.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 김양훈 위원

친환경쌀이라는 것이…… 쌀도 미역줄기를 넣었을 때 진짜 좋은 쌀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성분검사를 다 해가지고요, 진짜 좋다고 하면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홍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쌀의 질도 그렇게 썩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기술센터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565쪽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행사를 며칠 하는데 2억이나 소요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날짜는 안 정해 졌습니다마는 보통 7~8월경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군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시군별로 전부 2억씩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일부 도비가 있는데 도비는 경영인연합회로 바로 지원되어 버립니다.

○ 김양훈 위원

저도 도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비에다가 우리 군비 2억에다가…… 뭐 행사를 며칠간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나 싶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행사는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도비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체 시군 경영인들이 다 오니까요. 제가 인원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군에서 할 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해남까지 가고 그랬거든요. 상당히 인원이 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밑에 것도 같이, 똑같은 여성수산경영인 것입니까. 여성단체가 아니고 수산경영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마음대회를 여성들만 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따로 안 하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여성분과협의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 김양훈 위원

수산 쪽에 보니까 하도 지원이 많이 돼서.

그리고 56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양식어장 청년 고용지원. 이것 거의 매년 못쓰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도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 금년에도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주로 못 쓰는 이유가 지원신청 자격이 있거든요. 신청자격에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 수산계를 일반계로 전부 다 바꿔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요. 올해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 안 되면,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그 지침이 개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면 매년 불용 처리더라고요. 그 지침서가 우리 실정하고 전혀 안 맞아요. 수산계를 졸업하고 나와서 남의 여장에 가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 아이들은 절대 남의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합니다. 매년 불용 되는데 군비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 다른 데도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 김양훈 위원

안 되면 빨리 감해 가지고 나중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양훈 위원

죄송합니다. 저 하나 깜빡했네요. 아까 귀어인 정착 및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몇 페이지입니까?

○ 김양훈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여기 아까 축산과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했었죠? 거기도 보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예산은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 김양훈 위원
거기에도 귀농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정착장려금 300, 주택수리비는 500이라고 그랬는데 축산과는 500, 5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어민들은 동등한 조건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서 만약 귀농이나 귀어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수산 쪽은 정착금이 300밖에 아니라고 그러면 귀농 쪽으로 돌릴 것 아닙니까. 조건을 똑같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565페이지요, 565페이지…… 56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한국수산업 제신문 보급사업이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무슨 신문을 어떤 식으로 보급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한국수산업제신문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로 경영인이나 또는 수산업을 이끌고 있는 이런 주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매년 지원하고 있

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신문이 또 어디에 있던데, 보급사업이…… 처음 듣네. 어업인신문이 또 있죠, 지원하는 것? (예)
더블 아니에요? 거기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신문사가 다릅니다. 수산신문이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수산과 관련된 신문들이. 그렇게 되는데 수산신문은 주로 어촌계장 위주로 저희들이 보급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정보신문은 경영인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 경영인하고 어촌계장하고 다르게 주네요? (예)
신문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신문사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37억 8,303만 1,000원에서 128억 5,194만 4,000원이 증액된 366억 3,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5억 4,889만 6,000원, 도비가 67억 4,482만 9,000원, 군비가 183억 4,125만 원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옥

수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문 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요. 591쪽, 원산지 단속 명예감시원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다섯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주로 어디어디에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대부분 완도 시내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요. 주로 장날을 많이 이용해서 같이 원산지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올해 원산지 단속 최우수 시군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592쪽, 수산물물류센터 전광판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다가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물 3층에다가 전광판을 대형으로 설치해 가지고 수산물 홍보라든가 또 해양치유산업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야간으로 영상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보네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대도시에 가면 큰 건물 외벽에 대형 전광판 시설 그 정도로……

○ 우성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9쪽에 수산물 안내 다국어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나라로 하시나요? 609페이지에 사무관 리비, 제일 위쪽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주로 중국어라든가 영어, 동남아 쪽 언어를……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갈 때 그 영상을 틀어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우성자 위원

이것 처음하시는 것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제대로 갖춰진 것은 사실상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김 육상채
묘 및 냉동망시설. 과거에 실시하다가 실패한 사
업이 아닙니까, 이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과거에 냉동망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상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때는 실패한 사업입니
다. 그런데 요즘은 채묘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전되었고 또 냉동시설도 제대로 갖추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것 잘 되겠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군외지역과 금일지역에서 냉동망 채묘시설
을 갖추고자…… 어업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범성 위원

선정을 잘해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
게끔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전기분
해,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이 벽오름 방지사업입니다마는……

○ 이범성 위원

개인사업에 벽오름으로…… 전복 탄 것을 이
야기하던데 전기분해를 해가지고 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고금에 가면
누가 벽을 타게끔, 벽을 타지 않게끔 다 자기 스

스로 파약을 해주는데 이 시설을 한다고 해가지
고……

이것 소안도에서 올라온 것이죠? (예, 그렇습
니다)

내가 소안도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더라도 아
닌 것은 아닙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면밀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해수 순환여과 양식시설 설명해 보십시오.
(「그 밑에」 하는 위원 있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이것이 전복을 대체한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
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저것 좀 잘 판단하
십시오.

물어볼 것이 너무 많습시다마는…… 611페이
지, 위생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수출전용포장재 지
원사업 골고루 가계끔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는 사람들만, 받는 사람들만…… 수없이
받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달라는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쪽 지원했던 그런 사항들을
보면 과거부터 꼭 받는 사람들만 어떻게 잘 아는
지. 우리 행정에서 다 가르쳐 주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 잘하고
있는 사람들로 잘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주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원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비회원
들은 기회가 못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게 하
겠습니다.

○ 이법성 위원

그것 재검토 좀 하십시오. 단체로 주다 보니까 단체에서 회장, 총무 뭐 이리저리…… 고작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만 계속 돌아가는 거 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이 파악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93쪽이요, 가운데에 있는 선어회 가공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면 30억 가지고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태반 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30억으로 지으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저번에 광어양식협회와 김재홍 위원장님을 모시고 거제 수협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일 느낀 점이요, 거기는 상당히 대형 선어회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경영난이 예측된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도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더라도 아마 40~50억 정도는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전남도에서 20억 원으로 사업을 했다가 한 10억을 증액해 가지고요,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사업비도 변경되고 재원도 변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선어회 가공공장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요, 40억, 50억 정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개년에 걸쳐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불리 달려들면 이 사업은 제대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게 서로 더 협의하고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준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4쪽이요, 제일 밑에 보시면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사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시험양식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집행되어 있는데, 596쪽을 보면 유망양식 품종으로 해가지고 종자를 공급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검토를 더…… 어느 쪽인지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미역하고 다시마종자를 공급하고 있는데.

(「감태, 곰피」 하는 위원 있음)

○ 허궁희 위원

아니요, 596쪽 세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유망양식 품종이라고 해서 종자공급사업 감태, 곰피 이 사업하고…… 여기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594쪽 제일 밑을 보면 감태, 우뭇가사리 시험양식을 하고 있다는 이 예산이 있어요. 시험양식을 하고 있는데 종자를 공급하겠다는. 이것은 성급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에는 감태, 곰피 종묘를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곰피 부분에서는 종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감태 부분은 아직 접근이 안 돼서 우뭇가사리하고 두 품종을 다시 시험양식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양식사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곰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 허궁희 위원

그러면 기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기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8쪽이요, 완도 동부권 건다시마 보관시설 건립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디에다가 이것을 건립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금일 화정리에 가면 옛날에 수협, 금일 수협 건물이…… 아주 오래된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낡은 건물을 전부 다 철거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거기에는 보관창고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워낙 낡은 시설이라서 철거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수협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70%…… 아니, 80%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자부담 3억 원의 사업으로…… 60%로 해가지고 3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군에서 처음 금일에다가 지원해 준 사업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요, 과거에도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제 생각에는 약산이나 신지 이렇게 다시마 생산이 많이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사업들이 골고루 돌아가서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지. 금일에다가만 이렇게 창고를 지어놓으면 이쪽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동부권에서 나온 다시마 상당 부분이 그쪽에 서 수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보관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우리가 다시마 수매할 때 자주 가보십니까? (예)

그러면 뭘 느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딘가에 터를 잡아서 위판장을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다시마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마 판매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전날부터 나와서.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꼭 이 사업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판매를 개선하는 쪽에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산어민들이 그런 시간이라도 좀 절약하고 또 근처에 좋은 창고가 있으면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할 때…… 그 뭘니까. 비닐을 일일이 가지고 와서 덮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구상은 안 하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쪽을 적극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항상 대두되는 것이 수산물 건조방법에 의해서 너무 비위생적인 부분도 많고, 또 수매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부분에도 어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가게끔 신경을 많이 써서 구상하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2쪽에요, 우성자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

데 시설비에 전광판. 이것 수출물류센터 50억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50억인데 급속동결까지 하면 75억 사업입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예다가 광고판이 10억. 이것 광고판 10억을 해가지고 효과가 그만큼 나올까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조금……

○ 김양훈 위원

아무리 대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구유동수가 있는데 여기에 10억짜리나…… 70억이 물류센터 공사비인데 10억이 광고판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제주여행객선 대형이 취향하고, 또 관광객들이 완도항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과거에 거의 버려졌던 그쪽 (청취불능) 매립도 이루어지고, 또 그쪽에 물류센터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이 상당히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예다가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나…… 홍보효과는 없고 기대치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갯지렁이 시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갯지렁이 시범사업은…… 실은 완도군 금당 출신 김창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부경대 교수 분인데 부경대에서 갯지렁이 부분에 대해 오랜 세월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종묘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년 2월에 퇴임하게 됩니다. 그래

서 퇴임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요. 완도군예다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으면 어업인들한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생각은 좋습니다마는 이 갯지렁이도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갯지렁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갯지렁이 이것을 그전에 신지 그리고 진도, 또 완도 이 쪽에서도…… 아마 갯지렁이를 양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실패를 했죠, 전체적으로? (예)

그런데 그 학식만 가지고 와서…… 지원해서 해본다는 사업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상당히 그때 한 방법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게…… 종묘 생산에서부터 양성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마도하고 사후도에 서식하고 있는 갯지렁이를 채취해 가지고 그 종을 생산하고자 부경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종묘를 구하기가…… 전부 다 중간에 폐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갯지렁이는요, 중간 부분에 종묘가 있는데. 저도 이것을 공부해 봐서 잘 압니다. 과연 시범사업으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분이 연구소에 있었으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잘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길 백도에다가…… 전복 가두리 밑 부분예다가 달아서 일부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괜찮아서 좀 더 규모 있게 시범양식을 해보고자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601페이지요, 히트펌프하고 인버터사업. 히트

펌프사업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인버터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트펌프사업에 예산이 더 많은데요, 이것을 인버터 쪽으로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전환을 해서 인버터사업이 활성화되게끔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이 부분은 군수님께 저희들이 보고해 가지고 직접 해수부 담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해수부의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어서요, 저희들의 입장을 꼭 전달해 가지고 내년 부터는 히트펌프는 좀 줄이고 인버터 쪽으로 방향을 돌려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이번에 정부예산에 6억 원이…… 우리 군에서 인버터사업을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억 원 상당의 인버터 공급사업이 우리 군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이 사실상 상당하…… 사업의 취지는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식어업인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사실상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습니다. 많이 없고요, 해마다 많이 반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죠, 보니까 불용 처리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도 8억이나 들어가는데 나중에 불용 처리되다 보면 8억은 그대로 없어지고 나중에 다음 연도 예산으로 가버리니까,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해서 가지고 불용 처리하기 전에 안 되면 감을 빨리 해버리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한 6~7년 전에 전복이 하도 많이 폐사되고 그래서, 어장을 바꿔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폐사율이 많이 낮아졌고 그렇기 때

문에 어업인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요,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줄이고요, 그래도 군비가 8억인데 다른 데에 예산을 쓰게끔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구명조끼 안전장비 보급, 이것도 사업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계속 불용 처리되던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어선어업에 주로…… 어선어업자한테 공급하는 구명조끼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양식어장 관리선이 많고 어선어업은 얼마 안 돼서요, 거의 상당 부분 공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시군 지자체 배정형식으로 물량이 배정되다 보니까 많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전부 다 작년에 보니까 전부 불용 처리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많이 불용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안 되면 예산을 받지 마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저희들이 계속 위에다가 그런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요, 예산을 줄이든, 어쩌든 상위에다 이야기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605쪽이요, 폐통발 반납 구입비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해양정책과에서도 보면 쓰레기 형식으로 하는데, 폐통발을 보면…… 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닷가에 폐통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거가 잘 안돼요. 그런데 현재 보면 통발 구입비로 해서 4,000만 원인데 이것은 기피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주로 통발어업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어선어업을 하는 그 어업자들이 조업하고 와가지고 오래된 통발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다청소 성격의 통발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허가로 하든, 어찌든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예요. 물론 허가가…… 지금 그렇게 나온다면 완도군 전체로 보면 무슨 부분이 있느냐. 강진이나 저쪽에 통발 허가가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서는 4,000만 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폐통발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과 경영 쪽이 다르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592페이지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이것 설명해 주실래요? 민간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위에서 세 번째.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산지가공시설사업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최정욱

592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수산물가공시설 24억으로 되어 있는 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신속하게 처리, 저장해 가지고 그 원료를 가공 유통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관내에 거의 수산물가공 제품이 이런 사업으로 인해 생산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총 40억 원입니다. 그중에 도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40억에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24억 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3개소씩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수산물 가공이라면 특별하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수산물산지가공 말입니까?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니까 수산물이라면 품목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특별하게 품목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수산물이 대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한 업체에 주나요, 이것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한 업체라든가 법인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직 뭐 그런 계획 없이 우선 사업을 받아놓고 누가 신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1월에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특별하게 수산물 가공을…… 우리 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누가 제안해서 하는 것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요, 연례적으로 사업비가…… 매칭사업으로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한 3개소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 위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도 신청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 개인별로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 해가지고요, 우리 군에서 얼마 사업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그 결과에 의해서 내려오는 매칭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수산물 가공이라면 1차 상품을 가공해서 2차, 3차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수산물 전반에 대해서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신청자를 받아서 그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595페이지요, ASC 인증 40여개로 해가지고 했는데, 40여개만 딱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ASC 인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비가 약 300에서 500……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300에서 500 정도 심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에 사업 심사를 받아야 할 어가가 한 40여개가 되기 때문에 5 대 5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지금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ASC 인증 부분이……

○ 위원장 최정욱

오래됐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ASC 제품을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이…… CoC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제 인증인데, 이 CoC 인증하고 ASC 인증이 같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ASC 인증을 하고 있는데 CoC 인증…… 유통업체들이 받아야 될 CoC 인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최근에 유통업체들을 초청해 가지고 이 CoC 인증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요, 유통업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ASC 인증하고 같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지금 ASC 인증을 받아서 어민들이 했으면 이것의 판로를 할 유통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통업체가 CoC를 받을, 그런 준비는 아직 덜 되어 있구먼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ASC 인증을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우선 어업인들이 상당히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것은 국제 인증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596페이지요, 친환경부표 보급사업, 이것 어떤가요? 부표를 뒤로, 어떤 것으로 친환경 부표를 하고 있죠? 어떤 부표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로 플라스틱 부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수출업체에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이것?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어업인들이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어업인들의 요구에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원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사업으로서 매년 우리 군에서는 보통 20억에서 30억씩 계속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599페이지요, 가리비 종자가 여기 있죠. 어떤가요? 이것 계속 예전부터 가리비 지원으로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계속 실패한 것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도 도에서 유망양식품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조기하고 가리비 종묘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가리비양식을 한때 상당히 고급지역에서 많이 하다가 또 중간에 많이 실패도 하고요. 요즘에는 가리비를 어업인들이 다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업인들이. 그래서 그런 어업인들한테 종묘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양식을 하면서 이것도 많이 해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지금까지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해서 정말 완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다른 품종으로 해야지. 매년 실패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갯지렁이나 이런 것, 부경대…… 갯지렁이도 부경대에서 와서 다 하죠. 그때 다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와서 채묘를 하는 과정도 하고 다 하는데요. 역시나 갯지렁이도 매년 실패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리비도 마찬가지니까. 더 이상 해서 안 되는 것은 빨리 다른 품종을 찾아서 어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게 해야지. 자꾸 실패하는 것만 계속 한다는 것은…… 좀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때요, 가리비 자신 있나요? 과장님도 못하죠, 솔직히 말을 한다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과거에 가리비양식을 한참 어업인들이 하다가 중간에 거의 도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러나 이런 양식품종을 다양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이 잘못된 것이 너무 쏠림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에 접근하는 것이 괜찮겠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가리비양식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상품을 한다는 것은, 나도 당연히 그것은 찬성하죠. 어떻게 하든 새로운 품목을 찾아야죠. 그런데 이것은 계속 실패한 것이라…… 그리고 또 솔직히 지금 내놓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할 수도 없고.

왜 이것이 피해나면 잘 안 되는 것을 어민들이 하면 그 어민은 또 실패함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상처를 받게 돼요,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어려운 점으로 해서…… 어민이 새로운 것을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이런 것을 해줘야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민이 함으로 인해서 한번 실패하든 실패하든, 그만큼 그 사람은 사업을 도전하는데 어려워요. 한번 실패하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한 10여 년 전에 가리비가 실패한 것은 너도 나도 너무 가리비양식에 쏠림현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매가 안 돼서 도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많은 어업인들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가리비가 성공하면 좋죠. 그래서 꾸준히 해왔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자체가 생기면서 계속……

그다음에 604페이지요, 불법양식어장 정비 행정 집행비용. 이것 뭐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설해 놓은 불법 양식시설물을 저희들이 강제 철거해 가지고 그것을 폐기처분하기 위한……

○ 위원장 최정욱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얼마 전에도 김양식…… 진도 어업인들이 노 화지역에 불법 김양식한 것을 저희들이 380여 채 철거해 가지고 1,6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폐기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불법단속하고 정비,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보여서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행정의 의지거든요,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해야…… 그것이 결국 어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과잉이 안 돼서 가격도 제값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두니까 다시 시설하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비만 던지지 말고 꾸준히 해주십시오.

609페이지요, 쇼핑물 광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완도군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상 완도군 이숍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마케팅광고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우체국쇼핑물 광고에도 1,200만 원을 홍보 광고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형식의 쇼핑물 광고비로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사진도 다 군에서 제작해 주니까, 개인업체 사

진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 위원장 최정욱

지금 이숍 정확하게 뭐 안 나왔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이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런 것 원래 추경에 하는 것이 안 맞나요,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이 먼저 나와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용역에 의해서 어떤 판매를 해야 되는지 진로가 나와야 거기에 맞추는 그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 결과가 아마 1~2월경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리고 보면 수출업체 방문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바이어,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나갈 때 기업체에다가 일정 부분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이 수출업체들이…… 우리 군에서 주관해서 가는 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출 상담하러 가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주관해서 갈 때…… 주관해 가지고 개척단을 꾸려 가지고 같이 나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 위원장 최정욱

개별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네요. 진짜는 그 사람들일 텐데,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억지로 데리고 가고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개인들이 가는 것까지 다 체크하기에는 사실 상.....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런 것에 불만의 요지가 있다고요. 진짜 실질적으로 가서 바이어 상담도 하고 그런데 경비가 없어서 못갈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면 사람이 차지 않으면 이 사람도 데리고 가고 저 사람도 데리고 가고, 그래서 안 되지.

(방청석에서 “수출업체 바이어 방문 실비보상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2021년도 해조류박람회를 대비해서 내년도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나라별로 초청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외국바이어를 우리 완도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경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 위원장 최정욱

그런 것은 괜찮지.

(방청석에서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경비 부분은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부분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형평성에 맞아야지. 개인업체들이 가서 수출 상담하면 100%, 거의 90% 성공해서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가서 바이어를 만나요. 그런데 그런 경비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안 차면 너도나도 가자고 막 불러 가지고 채

워서 데리고 가면서 지원해 주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 그 사람들 입에서 다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해서 잘하시라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경영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19년도 대비 29억 9,858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1,957만 원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98쪽이요, 대형태극기 국기계양대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인데 항일운동, (청취불능) 그런 상징을 위해서 금년도에 만세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31운동 101주년 그런 기념으로 해가지고요, 완도에 뭔가 상징 있는 그런 것을 해보자는 신규시책사업으로 들어와서요.

현재 신지대교 휴게소에 한 50M 이상 그 정도로 대형태극기 계양대를 해서요, 완도읍에서도 볼 수 있고 신지면 또 고금, 약산, 군외 쪽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51M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 우성자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아까 101주년 기념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작년에 저희들이 만세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우리가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하는데, 소안 쪽에 있기는 하지만 항일운동을 신지, 고금, 약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 상징성 있는 그런 계양대 형태로 해서요, 태극기 선양사업도 물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04페이지, 이장단 업무일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장단 업무일지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업무일지, 이 부분은 공무원 일반 업무일지 형태로 해서요, 이장님들이 일을 보시면서……상식적인 이런 부분도 담아 가지고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일지 형태로 제작을……

○ 우성자 위원

혹시 이장님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해주신다고 하셨나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셨는지, 업무일지를.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것은 매년 해온 사업이라고……

○ 우성자 위원

매년이요? (예)

저는 이장단 업무일지를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작년부터 했어요?

그 업무일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이장단들이 자기 업무일지를……그냥 그 사람들 업무를 정리하라고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종합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이장님들이 마을……

○ 우성자 위원

편리하게 쓰시라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업무를 수첩에 기록하시고.

○ 우성자 위원

예, 작년부터 하셨다고요. 작년에 내가 봤나? 예산이 나갔으면 내가 알았을 텐데.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과는 대부분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리고 이장단들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한 해는 견학을 가고, 한 해는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런 것도 이장이 246명인데 250명으로 이렇게 계산해 놓으니까, 뭐 그것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 좀

안 맞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선진지 견학을 250명으로 잡아 놓으셔서요. 246명의 이상 중에서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액으로 해놓으셔 가지고 그런 것이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간다고 해도 공무원들은 따로 출장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50명이라고 적어져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때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이장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면서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랬습니다.

○ 우성자 위원

한 해는 견학하고 한해는 행사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극기 게양대 설치부분. 과장님, 게양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태극기가 크면 클수록, 이것 태극기를 바꾸다가 어려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래서 특수 천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특수 천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람에 못 이긴다고 하던데 그것 정확하게 알아보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것은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장도 방문해서……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판단하시고요. 소안도

도 한번 물어보고 해가지고 혹시 추진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9쪽, 행사운영비에서 사랑의 기프트 내 짝 찾아줘 행사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것은 인구 늘리기 그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마는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한 4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요. 관내 유관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출산이나 결혼에 대한 관심도를 재고하기 위해서 짝 맞추기 행사, 그런 행사를 해볼까 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이런 행사는 아주 좋은 행사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루겠습니까. 외국인들하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베트남이나?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내년에 하게 되면 첫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좋은 사업들은 사업비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못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몇 번 여성아동과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못가고 있는 사람들이 완도군에 너무 많다.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라.” 라고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군에서 다 책임져야 해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한다.” 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아이টে이고요. 더구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5만 인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이요, 포상금에 공무원 산업시찰 48명 인데 어떻게 선정합니까? 197쪽, 포상금이요.

○ 우성자 위원

맨 밑에, 맨 밑에.

○ 김양훈 위원

197쪽.

○ 위원장 최정욱

포상금, 제일 밑에.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 모범공무원이요?

○ 김양훈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내년도 퇴직예정자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한 수치거든요. 내년도 퇴직예정공무원이 24명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퇴직자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나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따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모범공무원이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별도 기록물 관리 관련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 왔습니다마는 한국 지역정보개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줘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 신규로 올린 것입니까? (예)

그리고 20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이것은 도비가 200만 원 밖에 안 되고 군에서 6,100만 원을 했네요. 도에서 예산을 좀 받으시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정보화마을은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운영이 좀 미흡하고 그런 데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실적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곳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비가 200만 원밖에 아닌데, 생색만 내고 이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중고 무상급식 해조류 식품비 지원. 이것 식품으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음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것 초중고에 저희들이 주는 것은 식품이 아니고 가공품입니다. 해조류로 만들어진 가공품 위주로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가공품으로 지원합니까? 품목이 무엇, 무엇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김도 있지만 가공품이 간식거리로 나온 것이 있거든요. 크런치, 그런…… 현재 가공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학생들이 잘 먹습니까?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급식소에 한번 가봤어?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급식소에 가봤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이것 한번 가봤냐고, 해조류 식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한번 가서 봤냐고, 급식소에.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급식소는……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다 버리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습니까?

○ 김양훈 위원

이것 거의 안 먹고……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내가 현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 김양훈 위원

거의 버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안 먹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런데 제가 잊그저게 그날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최근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영양사 세 분이 그날 회의에 참석했

는데 이 자체를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더 확대해 달라고……

○ 김양훈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영양사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런데 거의……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전량폐기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을 지원하려면 음식메뉴 개발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지고 가서 다 버리는데, 이것을 학생들도 안 먹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작년 사업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양훈 위원

이것을 하려면 진짜 메뉴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한 다음에 진정하게 학생들에게 호응이 좋으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먼저가 아니고 메뉴 개발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후에 추경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212쪽이요.

소송사건 손해배상이라고 1억으로 되어 있는데, 4건으로 해서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12 쪽이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12쪽이요.

○ 위원장 최정욱
배상금, 밑에서 세 번째.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 손해배상금을 말씀하십니까?

○ 김재홍 위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 보면 패소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계속해서 소송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지금 손해배상금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억 원으로…… 일단 매년 1억 원씩 계상을 해놨습니다. 연말에……

○ 김재홍 위원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연말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김재홍 위원님, 이상입니까?

○ 김재홍 위원
예.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의료원 예산 총액은 110억 5,41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8,55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보건의료원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찾으십시오, 그러면.

656페이지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이것이 무엇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는 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의 세콤장치에 주는 용역료입니다. 저희가 세콤을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설치하는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아니요, 관리하기 위해서.

○ 위원장 최정옥
관리비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관리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67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이 예산은……

○ 위원장 최정옥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있네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완도 대성병원의 산후조리원에 도에서 매년 운영비 2억 8,700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인건비로 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그러면 조리 지원비하고 운영비하고 똑같은가요? 다 거기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대성병원으로 지원되고요. 조리 지원비는 조리예, 산모들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또 지원되는 것 있나요, 별도로? 산후조리원에 이것 말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이것 말고 도비사업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감면료를 일정기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본인부담금의 7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4만 원, 2주 이용했을 때 154만 원이 사용료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기준 이하의 가정에서 이용했을 때는 154만 원의 70%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685페이지요,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으로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칫솔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군이 2년 전에 전국에서 점심식사 후에 칫솔질을 실천하는 실천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률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칫솔하고 물컵, 양치할 때 쓰는 물컵을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칫솔질 교습, 지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주로 칫솔을 사서 나눠주면서 교육을 시키는 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시나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학교, 희망하는 학교를 조사해 가지고요, 저희가 양호교사들을 교육시키고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는 주로 양호교사들을 교육시켜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칫솔질을 잘 안 하셔서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칫솔질 교습과 함께 실천하도록 그렇게 계속 연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이것 계속 전에도…… 올해도 했나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올해도 해가지고 올해 우리 군이 전국 우수지자체로 지정돼서 수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알겠습니다.

692페이지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후변화 대비 중증열성혈소판이라고 해가지고 감소증후군 SFTS 예방물품 구입, 이것은 뭐예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기후변화라고 되어 있어서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이것을 진드기매개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기후가 고온화되다 보니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발생하고, 이 SFTS는 발병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치명률이 높은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예방만 하면 병에 걸리지 않아서 저희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에, 농업에 농사하시는 분은 일하러 가기 전에…… 기피제를 사서 농어민들한테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뿌리고 가시라고 이것도 지원해드리고요, 또 토시 같은 것을 사서 작업할 때 안전장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진드기 제품…… 그러니까 예방이요? (예)

이것 어디에 하나 더 있던데, 진드기 예방.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국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것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계속비사업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712쪽, 해수담수화 노후시설 개량공사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것은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5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노후가 된 시설물이 발견되었을 때 그때 개량공사가 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물이 발견됐을 때……

○ 이범성 위원

아,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713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마을하수처리장 422개소가 읍면에 되어 있는 데요. 거기에 마을하수처리장 처리…… 정화하게 되면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위탁하는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것은 전문업체가 완도에는 없고요, 전남권에 있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이범성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단가계약해서 합니다.

○ 이범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5쪽예요. 민간위탁사업비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그것 설명 한번만 해주시고, 7억 5,000.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이것은 표에…… 예산이 많습니까마는 하수처리장이 42개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중계 펌프장이 60개소 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 한 사람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

는…… 전남도 내의 전문위탁업체에 공개 입찰해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입찰해서 들어갑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아니, 2년 단위로 합니다. 2년.

○ 김양훈 위원

2년 단위로요. 그러면 전문위탁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전남권에 다섯, 여섯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은 9억 3,258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5,867만 4,000원이 증됐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회 홍보동영상 3,000만 원하고 올해 새로운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가 4,500만 원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5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저희 사업소 본예산은 2019년도 예산 대비 3억 992만 3,000원이 증가된 15억 6,2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8페이지, 시설비에 장보고기념관 실내 국궁장 설치 실시설계비. 이것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장이 없어 가지고 실내 국궁장 설치를 저희들이 요구했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휴게실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휴게실 통로를 이용해서…… 전시장 그 기념관을 보면 우측으로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쪽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것이 인기가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설치는…… 유지관리비는 기존 인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뒤에 보면 장보고활성화 기본계획용역도 있는데요. 용역할 때 같이 한번 해가지고 활용도나 성과 같은 것을 거기에서 한번 연구해 보고 나서 하는 것은 어때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 731쪽의 기본계획용역비는 장보고공원…… 현재 사당하고 흉상이 있는데 위치를 재배치하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장보고공원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봐서는 국궁장은 굳이…… 관광객들한테 큰 성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검토해서요. 당초에 우리가 시설비까지 요 구했었는데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 김양훈 위원

실시설계를 한다는 소리는 나중에 무조건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봐서는 안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25M에서 30M 나옵니다.

○ 김양훈 위원

40M, 30M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요, 25M에서 30M.

○ 김양훈 위원

작은 크기는 아닌데.

이것은 충분히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 해 가지고요, 이상이 없겠다 싶을 때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737쪽이요, 전기안전관리용역 수수료, 그리고 741쪽에 보면 장보고동상 전기안전용역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것이 전서관마다 다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예산이 관별로 다 분리되어 가지고……

○ 김재홍 위원

용역입니까 아니면 안전관리입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안전관리입니다.

○ 김재홍 위원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또 금액도 틀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업체에서 하죠.

○ 김재홍 위원

그런데 따로 따로……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예산 편성이……

○ 김재홍 위원

전기용량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용량에 따라서 다르죠.

○ 김재홍 위원

기념관에 몇 킬로와트나 들어와 있어요?

○ 정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그것까지는 제가……

○ 김재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의에 이번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정옥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불출석위원(1인)

박재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주까지 각 부서별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표시해 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 소

모성 그리고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계속)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14시03분 기록중지)

(16시17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축조심사 결과에 따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과목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충설명을 듣고 비효율적인 예산이나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 또는 낭비성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2차 축조심사 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쪽, 완도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2015년도에도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2030년도에 종합발전계획을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년 완도군 종합발전계획은 민선6기 군정 운영방향, 공약실행, 지역민 의견수렴 등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16년도부터 2020년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상위법에 근거한다든지 이런 근거가 없는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2030년 완도군 종합발전계획은 중앙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것의 시간적인 범위가 2020년도부터 2040년이 되겠습니다.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역시 2020년도부터 2040년까지 현재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두 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10년 주기로 군 비전 제시 및 군정 운영지표를 설정하고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수립을 위한 행정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입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이 10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종합발전계획용역을 살펴보면 여수시가 2019년도에 5억 원, 강진군이 1억 원, 장흥, 영광, 해남이 각각 2억 원씩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씩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했고, `15년도에 1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 활용도가 엄청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금 6년? 6년 만에…… 몇 년 안 돼서 또 시작하시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15년도에 한 것은 민선6기 출범하면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들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때 용역을 한 것 가지고 지금 활용하면 안 됩니까? 우선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그때 이 계획은 5년간 단위계획이기 때문에 10년 과업계획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그때 `15년도에 할 때는 1억이었는데 2억으로 올린 이유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인근 시군에서 보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장흥, 영광, 해남 이런 시군에서도……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너무 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잡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잡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현실에, 우리 군 현실에 맞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도 해가지고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민선6기에 활용을 많이 해서 시책 개발이라든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참고했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활용도가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1억을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다 순군비인데 재원도 부족하면서 꼭 군이 이번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보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이 우리 군 발전에 합법적인 그런 지침서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되더라도 제대로 된 지침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2억 원 을 계상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은 부적절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요 핵심내용에 해양치유 완도, 관광 완도, 바이오, 기후 변화 일련의 이런

것들이…… 해양치유산업에도 12억인가 15억인가 용역비가 잡혀 있고, 다 잡혀 있어요, 건별로. 단장님, 단장님이 여기 주요내용이라고 해놓은 내용을 보면 각 실과마다 건별로 해가지고 용역비가…… 이 2억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가 잡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이 그때그때 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민선6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했으면…… 조금 전에 담당관이 말했듯이 10년 주기로 한다면 아직도 어렵고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 용역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도 해양치유산업 같은 데에 이런 기후 변화도 있고요, 기후변화도 5년 단위 용역을 한다고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해양치유산업도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12억인가 19억인가 해양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용역비가 들어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용역비들이. 그러면 수산은 수산대로 용역비가 들어와 있고 농산은 농산대로 용역비가 들어와 있는데, 뭐 중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추진할 용역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군 정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이용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도는 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군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별개의 또…… 어디 공모사업도 아니고 별개의 용역들이 많이 있어서요, 너무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서로 간에.

그리고 10년 단위로 한다면 아직 기간도 남아 있는데 굳이 내년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거기 관련법규에 10년 주기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시간적인 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특별하게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하게 뭐……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전라남도나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종합계획에 발굴된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국책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우리 군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획이고요, 부분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용역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용역이 아닙니까, 이 용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역들과 너무 겹치다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중요성도 의문시되고 그런 것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 용역과제 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더 심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용역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절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10년 주기로 해서 종합계획 용역을 준다고 했죠, 10년치를. 완도군이 10년 동안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용역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침상에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용역에 의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말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도에서도 우리 군에 어떤 공모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기준을 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중요하다라는 얘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주 우리 군의 골격을 이루는 그런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종합개발계획……

○ 위원장 최정욱

그것은 10년…… 이것도 해왔을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해왔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데에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국책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중앙부서로 사업을 신청할 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선정해서 추천하고……

○ 위원장 최정욱

그것 용역비가 2억이나 필요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뭐 새로운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어서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추가……

○ 위원장 최정욱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까마는 10년이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부분들도 가미해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결국 실과는 또 용역들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더블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단기적인 계획이고요. 종합개발계획은 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다음은 188쪽입니다. 지역이미지 마케팅 전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비 3,300입니다. 요즘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사용자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가 아주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 유튜브에 배너 광고를 연중 15회 실시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슬로걷기, 장보고수산물, 가을빛여행 축제 홍보비 각 5,5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3대 축제는 우리 군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신문, 인터넷과 각종 잡지를 이용해서 축제 한 달 전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및 인터넷, 잡지 그다음에 포털, 영향력 있고 파괴력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차별화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비는 55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 차별화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기적인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홍보효과가 누적돼서 우리 군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홍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3개 축제에 5,500만 원씩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군정 역점사업 홍보 광고 3,300만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이라든지 청정바다수도 완도 캠페인이라든지 완도 자연그대로 등 농수축산업이라든지 군정 역점사업 등을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보 매체는 신문, 인터넷, 포털 등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과 전략, 군정 성과들을 중점 홍보해서 우리 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농수축산물 광고 3,000만 원입니다. 자연그대로 농산물 특산품이라든지 해변포도, 방울토마토, 비파, 소안감귤 등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청정바다수도 해산물, 전복, 해조류, 어패류, 광어. 이런 특산품들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완도 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끝으로 여름 해수욕장 홍보광고 5,500입니다. 우리 군 해수욕장은 총 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초차리 스파크 광고를 제작해서 방송매체에 홍보하고자 3,300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광고 2,200을 신문에 광고하고자 해서 예산 5,500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홍보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연례적으로 계속 똑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왕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홍보방법을 다양화해서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주로 어떤 홍보매체…… 주로 방송사나 이런

데가 어디인지. 지방방송인가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신문은 (청취불능) 광고로 해서 1면이라든지 2면에 광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방송은 캠페인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스파크 광고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제가 간단히 우리 군의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약 24억 정도가 되거든요, 실과별로 다 같이 합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잖아요, 홍보하는 데에만 이렇게 쓰는 것이. 보니까 우리가 연례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에요, 계속, 뭔가…… 타 시군도 전체 이렇게 안 하는 곳 없이 다해요. 뭔가 우리 군도 이제는 변화해서 홍보를 남다르게, 발 빠르게 해야 되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그런 중앙방송을 통해서 한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느껴지는 것도 없고 피부에 와 닿는 것도 없고,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도 없고.

이것 계획을 짜서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저희들도 중앙방송이라든지 그런 쪽에 홍보를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 방송은 예산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한두 군데라도 중앙방송에 방송될 수 있도록, 광고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중앙방송도 주부들이 보는 시간대가 다 달라요. 뉴스시간대 뭐…… 다 못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추려서 하면 이런 방송보다 훨씬 효과가 크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우리가 완도를 홍보하는 것이 뭐예요. 전체적

으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지. 지방이나 이런 가까운 데는…… 광주라든가 이런 데에서 완도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솔직히? 목포나 이런 가까운 지방 이쪽은 완도에 대해 말을 안 해도 잘 알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지역신문이나 방송사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겨냥해서 SNS라든지 포털사이트 그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를 보면 수도권 지역 군정 영상홍보라고 전광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서울지역 건물에 가면 대형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한 홍보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요, 다른 것보다 이것들을 활용……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을 내년에는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을 다시 전반적으로 실패하고 다 의논해 가지고요, 이번에 그러지 말고 추경에 제대로 짜 가지고 해보는 것은 어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홍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뭐 각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홍보는 계절별, 시기별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하여튼 담당관님도 이것을 느끼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앞으로 수도권이라든지 KTX라든지 지하철역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분야를 넓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홍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홍보에 대해서 봤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다 비교해 봤고요. 또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짜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뭐…… 이것 신문사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25회, 25회 해 가지고 다 5,500만 원씩 해 가지고, 뭐 건당 220만 원씩 해 가지고,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220만 원이고, 어떻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 박인철 위원

이것 해년마다…… 본예산 책자를 펴보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이 홍보가…… 신문에 낸다고 해 가지고 홍보가 얼마나 될지는 놔두더라도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야 되는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산 편성기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리고 숫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이. 해년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유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청산 슬로건기 축제 5,500만 원 25회라고, 그러면 신문사 25개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매체의 영향력을 봐서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여기 매체가 어디어디에 들어가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온·오프라인 다 통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방송사까지.

○ 박인철 위원

방송사는 관광정책과에 따로 있는데 무슨 방송사까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방송국도 캠페인 광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막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는 다 따로 있는데.

아니, 가을빛여행 같은 것도 실행사비는 2억 8,000인가 그런데 홍보비가 1억이 넘어…… 여기 기획예산실하고 관광정책과에서 합친 홍보비가 1억이 넘어가고, 축제예산은 2억 5,000인가 2억 8,000이고.

해년마다 이것도 민선7기…… 6기 들어서 가을빛축제가 처음 시작됐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성과분석을 해보면 전혀 성과는 나오지 않고 그냥 마을잔치 형식으로만 되어 버리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래도 우리 군의 3대 대표축제에 가을빛여행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홍보는 나름대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변화되는…… 홍보기법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달라지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거의……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신문사가 스물다섯 군데고 방송사…… 다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고민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이거예요. 해년마다 똑같이 순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사례라든지 도 사례를 좀 참고해서 예산 편성기법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차라리…… 어떻습니까, 홍보비가 100억이 들어가더라도 진짜 메인방송에 제대로 완도를 알릴 수 있는, 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예산을 더 크게 가져가더라도, 요즘 보니까 타 시군들도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더구면, 그런 식으로 계속 방송에 노출시키는 것이 소비자들한테 더 우리 완도를 알리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그냥 일회성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적으로 잡아 가지고요.

우리 군이 지금…… 뭐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예산할 때 따져 보니까 시 단위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에 있는 것과 관광정책과에 있는 방송 이런 예산을 다 합쳐 보면 tap이예요. 3등 안에 들어가요, 예산은. 다 합쳐서 봐보면, 우리보다 월등히 큰 시 단위하고 해도 우리가 안 저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영상팀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서 보다 선별적이고, 선택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진짜 단장님의 말씀처럼 집중 좀 해주세요. 꼭 신문에……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눠 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우리 완도 군을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담당관님, 다음 장입니다. 189쪽인데요,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것은 사용료라고 해서 뭐 홍보가 아니고, 어떤 사용료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완도와 관련된 그런 뉴스를 스크랩합니다. 그런데 신문사가, 대한민국 신문사가 굉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스크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인터넷에 치게 되면 완도에 관한 뉴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쪽 일괄적으로 발췌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한 업체한테 이렇게 맡겨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으로?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홍보팀장이……

○ 홍보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월 사용료가…… 한 달에 한 번씩 월 사용료가 1년에 한 7,800 정도 소요됩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한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냐고요.

○ 홍보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아,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 김양훈 위원

어느 업체예요?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설명 당시에는 연합뉴스 등 3개사라고 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니, 어느…… 프리미엄 뉴스가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것이냐고.

○ 홍보팀장 조승호

(좌석에서) 그것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 김양훈 위원

아니, 예산을 올려놓고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면 말이 됩니까? 담당실과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사용료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똑같은…… 말이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번 가을빛축제 일정을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관광정책과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날 강진에 갈대축제가 있었고, 저녁에는 4시에…… 올해 있었고요, 저녁에는 진도 (청취불능)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해에…… 예를 들어 메인가수가 누구인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불러야 됩니다. 뭐 축제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많을 많이 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려면 예산을 많이 낭비하고 더 세우더라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축제날에 보니까 강진에서 4시에 송가인이 온다고 해가지고 고금면의 완도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가서 점심을 먹고요, 그 축제에서 송가인을 보려고 전부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미애하고 김소유가 왔었다. 그날 김소유하고 둘이…… 2등하고 그날 왔는데요, 거기에 2등 정미애가 완도에 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사실 젊은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본무대에 세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축제를 꼭 하려고 생각한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해에 누구를 완도로 불러야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려고 완도에 많이 찾아오겠는가, 그런 것도 연구하시고요, 꼭 날씨는 바꾸셔야 됩니다. 그날은 강진하고 진도가 같이 있어 가지고 또 하면 마찬가지로.

제가 축제 때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그 가수가 불쌍하더라고요. 제일 뒤에, 끝에 한 사람 20~30명을 앉혀놓고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 저 가수가 노래할 때 기분이 어떨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좀 파악해서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담당관님,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과에도 청정원도 가을빛여행 축제 홍보비로 6,000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꼭…… 이쪽하고 그쪽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제까지는 영상마케팅팀이 관광정책과 내에 있어서 영상 홍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관광정책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영상팀이 우리 부서로 옮겨오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파악하기로는 1년에 홍보비가 24억이니, 24억이 더 되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찢어져 가지고 자기 할당, 뭐 신문은 신문, 뭐 TV는 TV, 또 뭐 다른 부분들 인터넷은 인터넷,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요, 자기 부분들, 또 본축제 예산보다 홍보비가 버금가는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홍보는……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이 올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홍보해야……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많이 세웠다고 해서 꼭 될 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 가지고 뭔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구성될 수 있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에 홍보에 대해서는 연간 또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는요, (청취불능) 전국에 2개 있는 업체 중에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계.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예산편성 외에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강화할 만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형식에 그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맞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2월에 발표한 중점 추진과제 내용 중 주민참여예산제 평가내용에 실링 설정 반영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자 타 시군의 사례를 파악한 결과, 인구 3,000명을 기준으로 읍면별 실링을 정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 실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2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할당된 실링에 맞춰서 3 내지 40명으로 구성된 읍면별 지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군에 제출했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제안된 사업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에 각 부서에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 `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이라서 발굴된 사업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시겠지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18년도 행안부에서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사례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를 잠깐 훑어보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전부 채택이 됐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이렇게 되면 마을안길, 뭐 마을 아스콘 포장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군에서 할 일은 뭐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했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업은 하시되, 정말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 뭔가 삶의 질이 달라지고 소득이 생기고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도 100번, 1,000번 호응하고 좋아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마을하천 정비사업,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고 한 것이고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군에서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공성이 강한 그런 성격으로 선별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실 때도 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생길 그런 부분도 연구하시고요, 또 전체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전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때부터…… 사업을 받을 때부터 잘 받으셔서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주민들을 교육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교육

시켜서 내년부터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사업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로 할당……

○ 김재홍 위원

방금 우성자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다 보면 방금 우성자 위원님의 얘기처럼 노 화읍 솔밭공원 정비사업 이런 부분이에요.

전부 채택되고 그랬다는 것은 이미 심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예산까지 편성되었으니까요, 거의 확정단계입니다. 의회에만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 김재홍 위원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참…… 숨겨놓고 그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이상합니다. 아까도 그렇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부서별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있나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 주민참여, 내가 봤을 때…… 강사가 누구인지 아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강사……

○ 김재홍 위원

거기를 참여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뭐 건설과, 산림과 전부 같은 것인데요, 봤을 때, 방법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7페이지부터 보시면 `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현황이 나옵니다. 행안부에서 선정한 사항인데요, 그러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위원들 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참여…… 각 읍면별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교육을 실시한 내용하고 전혀 상반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이것은 지금…… 뭘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들은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가능 여부를 파악했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각 읍면별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각 읍면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받은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위원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일반사업 성격의 예산을 올린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재홍 위원

계속적으로 내년에 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현재는 예산서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나오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줬어야죠. 위에서 다 짚 다음에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 꾸려서 부서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김재홍 위원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좀 성질을 건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좋은 예산인데요. 단장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봤습니다.

○ 박인철 위원

모 신문에 확정 2020년도 완도군 주민참여예산 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준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사에서 그냥 취재한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신문사에서 취재해서 자기들 방향대로 쓴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다 나와 있던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완도읍 12개 읍면으로 딱 해가지고 뭐, 뭐 확정된 것으로 신문사에서 나가 버렸던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자료를 준 바는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의회에서 봤을까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보도자료는 저희가 준 바 없고요. 아마 자기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 참여예산이 기존…… 진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뭐 실링까지 세워놓고 큰 읍면은 더 주고 작은 읍면은 덜 주고 완전 나눠 먹기 예산으로 되어 가지고, 이 사업도 봐보면 거의 주민숙원사업…… 숙원사업인지 주민참여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꼭 이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나눠먹기 예산으로 다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각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아우 트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읍면장들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나눠 먹기식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불채택된 것은 읍면하고 관계 없는 것. 이렇게 보니까 마을 빈집형 어르신 공동생활공간 조성사업, 제 생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볼 만한 사업들은…… 뭐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불채택되어 버리고, 나머지는 거의 실과소에서나 아니면 읍면에서 할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타이틀을 달고 그냥 무임승차한 것처럼 보인다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에서는 확정됐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1차 축조심사를 하고 있고 그 설명을 듣고 있는데 손도 못 대게끔 딱 이렇게 나와 버리다 보니까, 물론 단장님의 말처럼 홍보계에서 안 줬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다루지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에서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손대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취재기자가 잘못 알고 취재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다음 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그 마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완도읍이면 완도읍, 노화읍이면 노화읍 전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리고 실링을 세우지 말고 그런 예산들이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진짜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발굴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김재홍 위원

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참여예산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짜부터 우리 지역민들한테 소리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완도신문인가 우리 지역신문에 저렇게 확정됐다고 나왔다면…… 뭐 위원들한테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손대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일인데, 이것 뭐 손대도 관계 없겠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안 맞춰서 가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했는데 시설비는 그래도 의회 의원들 사업비가 있고 그러니까…… 또 복지 분야랄까, 그런 데에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지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고, 확정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아침에 신문이 딱 떨어지고, 참 이것이……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신문에 게재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서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동향을 파악해서……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올리지만 하면 통과를 시키라는 그 말이에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범성 위원

나는 솔직히 그런 부분들이 영 마땅치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이 되든지 가장 크게 생각한……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뭔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이란 솔직히 주민들, 군민들이 예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한 가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살피지 못한, 발이 닿지 않고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것을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렇게 가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막아줘야지. 왜냐하면 “의회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올려놓고 위원들 보고 자르라고 하면, 기대를 가지고 자기들은 주민예산제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맞지 않다고 해버리면…… 위원들이 이것을 손대면 서로 간에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올리면 무조건 이것은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깨줘야 다음에라도 예산을 짤 때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것으로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올라온

것을 그대로 올리면 이것이 맞겠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내년부터는 교육할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선심성이나 목소리 높이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예산을 짜가지고 주민참여로 올라오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죠?

기획담당관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설명자료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정보화마을은 현재 우리 군에서 금당면 가학리, 소안면 월항리, 보길면 예송리 이렇게 3개 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 정상사업보조는 전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도비가 지원 (청취불능) 마을에서 자체부담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3개 마을에서 한 6,000여만 원의 특산물 판매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라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 부분은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설명 끝났습니까?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 운영
이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운영은 현재 마을단위별로 특별히…… 정보화
마을뿐만 아니라 마을단위 일도 같이 보면서 운
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엄청 활용도
가 저조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비도 한 200만 원에 순
군비가 6,000만 원인데, 아니, 도비는 이렇게 조
금 가져오면서 순군비로만 꼭 해야 되는지 거기
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운영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운영이 그렇게
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재
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우선적으
로…… 취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우선하고요, 지정
이 취소됐을 때는 그렇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
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우리 군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
고 일정한 자격기준으로 심사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지정하고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우리 군이 3개
마을에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 시행
착오를 거듭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

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자립
운영, 그다음에 지역 청년과 여성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지역특산물 판매행
사, 지역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고
또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이 좀 미흡한 마을이 있기는 합니
다. 그러나 우리 정보통신팀에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하고 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고
요, 궁극적으로는 자립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 당신들이 물건을 팔았으면 그 이익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만큼은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부터는 줄여나가거나
운영되지 않는 마을은 취소조치를 하도록, 그런
게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뭐 설명은 잘 들었는데 참 좋은 사업입니다.
소득을 창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보면 거의 이렇게 예산만, 인건비만
받을 욕심에……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검
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
기 때 뭐 잘못됐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관리감독
을 잘해서 운영해야지, 지금 형태로 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사업이 되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
이 돼서 한 번 더 질의한 것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올해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서두에 설명을 6,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
을 드렸는데 3년 동안 거의 6억을…… 마을 판
매수입을 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판매수입이 거의 없더라고요.
금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그냥 형식
적이에요. 형식적으로만 집에서 요즘 인터넷……
다른 일반 생산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으로 팔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팔죠. 요즘 인터

넷을 가지고 전복이고 해조류고 팔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전자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한테 너무 예산이 가고,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부족해서 더 쥐야 된다, 어쩐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진짜 잘하면 더 쥐야 되겠죠, 좋은 사업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다음은 209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웹사이트 통합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완도군청 홈페이지는 통합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지난 2016년도에 통합으로 새로 개편했었습니다. 매년 장비 업그레이드나 리뉴얼이나 서버 장애 처리 이런 부분에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있고요. 내년에는 메인화면을 재구성할…… 한 2,30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년도는 왜 갑자기 2,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는가, 그것에 대해 한 번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래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메인화면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2,30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 박인철 위원

컴퓨터를 막 켜올 때 메인화면입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오래되면 옛날 자료들이 있고 또 용어도 안 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가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 박인철 위원

다른 것은 없고 메인화면만 교체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다른 것은 기존에…… 매년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있고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단순히 그 화면뿐만 아니라 전부 홈페이지에 포함된 내용들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화면을 개선하는 데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해년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예산을 보냈더니만 3,000만 원씩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2,000만 원 정도가 여기에 더 업되어 있으니까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가, 그런 것이니까요. 뭐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랐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매년 유지보수비는……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내년에는 메인화면을 디자인해서 새롭게……

○ 박인철 위원

3,000만 원씩 들어가 있던데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특별하게 뭐 메인화면이 바뀌진 것인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담당팀장님이……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담당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정보통신팀장 전문희

(좌석에서) 메인화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간단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을 누르면 계속 눌러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년에는 메인화면 앞메다가 관광이면 관광, 아니면 다른 중요…… 뭐 인사 관련은 그쪽. 한 3개 분야로 나뉘 가지고 구성을 다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다음은 211페이지, 민간단체 운영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등록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11개소입니다. 이 11개소는 도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승인해 주고 있고요. 현재 11개소지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 단체는 4개,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완도군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이나 공익적 행사, 군민화합행사에 매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사랑의 김미역 복넉보내기 사업은 계속 해마다 이어집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 거기는 해마다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했고요.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요, 올해……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러면 팀장님이 양해를 구하시고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사랑의 김미역 복넉보내기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가 있어서 한 3억 정도를 현물을 포함해서요. 현금으로 모금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류 지원비로 해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보낼 때 물류비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으면 다시 조정해서 감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실질적으로 사용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언제 보낼지도 모르는데 예산에 물류비를 세워놓는다는 이 말씀이시죠?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예, 예산을 상황에 따라서 전라남도하고 공동으로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도에서도 언제 보낼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해서 바로 추진되면 보낼 수 있게끔 준비예산을 확보해 놓으라는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경 때에나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감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런 돈을 가져가면 정산은 확실히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저희들이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것이 청년회에서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또 다른 단체에서 비슷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자기 단체의 특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이런 분들도 정말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아껴 쓰고, 여러 사람들이 볼 때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했는데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현재 등록된 단체가 완도군 새마을회, 완도군 변영회, 완도군 청년회, 완도청년회의소, 완도읍 민주개혁국민연합,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완도지부, 장보고아카데미, 호남 한민족공동체, 완도를 사랑하고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완도읍 건강 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이렇게 11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생전 듣고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그러면…… 듣고 보지도 못한 단체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단체 외에는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도에서 지정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

○ 박인철 위원

1억 4,000에서 완도군에서 해주는 단체들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그러면 금방 과장님이 나열했던 그 단체들한테 전체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변영회,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 청년회, JC,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이렇게 5개의 단체입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에 해줍니까? (예)

그리고 다 따로…… 실과에 잡혀져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거기는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고요.

○ 박인철 위원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금……

○ 박인철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변영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이…… 지역 리더희망워크숍 관련해서 청해지 발간이고요, 건강한지역사회운영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 박인철 위원

건강걷기대회요?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청년회에서는 어린이 야외물놀이장 개장, JC에서는 슈퍼스타, 빙그레 청소년 체육대회, 나 는 완도인이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방금 말씀드린 물류 지원비로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각 실과에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자치행정과에 다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아니요, 비영리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각 실과에서 행사마다 건 건이 잡혀 있던 것이 이번 예산에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여기로 다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고요. 그전부터 이렇게 같이 관리해 왔어요.

○ 박인철 위원

아니, 번영회에서 완도 청해지 발간 이런 것.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따로 목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보이던데요.

○ 교류협력팀장 우홍창

(좌석에서) 아, 번영회에서는 청해지 발간을 한 번하고요. 격년제로 지역리더 워크숍을…… 격년제로 한 회씩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보니까 전체 예산서에…… 옛날에는 각 실과마다 조금씩 잡혀 있던데 이번에는 안 보이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영리민간단체고 업무성격상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편성 요구한 것이고, 이 5개 단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아동과, 또 보훈 관련 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주민복지과. 이런 식으로 개별 법령에 의해서 해당과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목도 있던데 이번에는 통으로 1억 4,000으로 잡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한다는 이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가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야 만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재설명을 요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완도항 물양장 쓰레기 수거 인부임 2,484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으로 수급 구간은 완도항에서 (청취불능) 구간으로 주변 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군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지만 금년부터는 도에서 관리하도록 전남도 도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약 3개월분 예산 미확보로 우리 군에서 군비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분인 6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도항인데 왜 우리 군에

서 이것을 해왔는가.

그리고 전에 보면…… 항만청에 그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해양항만과 완도항관리소입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에서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채용해 가지고 아침에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환경산림과에서 이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좀 그러네요.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그래서 당초 수차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자기들 도비 자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분이 미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올 3개월분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을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군에다가 남겨주라고 해도 안 남겨주면서 나쁜 것만 우리 군에 미치는가. 그러니까 도에 전체적으로 다…… 1,834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400만 원을 다 밀어버리면…… 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3개월분이 미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까지 3개월분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650만 원만 해달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34만 원은 삭감하고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소속 관리주체가 도니까 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내년에는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음은 4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시설비, 청산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CCTV 설치사업비 1억 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청산면 구장리, 완도 읍리, 정계리, 신평리, 부흥리, 국화리 등 7개 마을에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다 들었고, 그리고 이미 다 신문에 나와 버렸는데 말해서 뭐합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한 것은 7개소라고 해서요, 한 군데에다가 7개를 다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7개 마을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아침에 신문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다 공포해 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상에 다 나와 버리고 그랬

는데 의회에서 손을 댈 수도 없는 것이고,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듯이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은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좀…… 진짜 복지나 아동, 이런 데에 미쳐 힘을 못 쓰는 데에다가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여기에서 뭐…… 환경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손을 대버리면 위원들이 벼락을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이렇게 해나갔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방식이 잘못됐더라도 그냥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음은 491쪽입니다. 군외면 불목 물놀이장 공중화장실 및 탈의실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842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사방댐 조성공사 완료 후 원불교 측 요구사항으로 검토결과, 법에 근거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성 시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삭감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다음은 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서 약산면 치유의 숲 조경 및 주차장 조성공사 3억 8,0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기준 설계에 따른 (청취불능) 자재 단가 상승과 한정된 예산으로 치유시설물 이주 설계로 인한 미반영 부대공사인 조경, 절성토 사면 석축공사, 주차장 공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당초 사업설계 시 완벽한 설계가 되어야 되나 행정미숙으로 인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이 없으면 완공을 못합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이 완공됐는데 주차장이나 주변 시설이 안 된다면 건물의 가치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예, 부지는 확보되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아, 그러면 재정비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잘하셔야지, 어찌겠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꼭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여러 가지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해양치유과에서 사업비 20억…… 도지사님이 마련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투여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예산적으로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부족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명확히 해줄 수 있습니까? 치유과 설명할 때 분명히 20억이 투

자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과가 끝나고, 과장님이 끝나고 그러면 또 거기다가 얹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잘 처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저희 과 재설명 건은 3건입니다.

23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례관리대상자 집수리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본예산 1,000만 원, 추경예산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5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취불능) 설치, 화장실 개조로 지붕 개량 등 소규모 집수리사업이며 대상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사례관리 중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중간부분……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건건이요, 건건이.

238페이지의 집수리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여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이것.

1,000만 원씩 해서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부기상으로는 그렇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500만 원씩 해서 올해도 4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는

1,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런 가구들이…… 소규모로 지원해 줘야 될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에 다시 1,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구나 다섯 가구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두 가구가 아니네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필요에 따라 더 할 수도 있고, 가구 수에 맞춰서?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244쪽에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기부식품 푸드뱅크 제공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 주체는 완도제일교회 한기장복지재단입니다. 유급종사자 1명, 무급종사자 2명, 자원봉사 6명, 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이상 방문 배분하고 있으며 기탁처는 정기 3개 업체, 비정기 5개 업체입니다. 사업대상은 완도읍 58명, 군외 10명, 신지 5명 이렇게 해서 총 73명에게 취약계층 등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부식품, 이것은 어떻게니까? 푸드뱅크면 직접 우리 군에서 사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탁자가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장보고베이커리, 이런 데, 또 빵 굽는 사람들 여기에서 정기기탁을 해주고 있고요, 비정기 업체는 한들수산, 삼육두유, 서울우

유, 우리콩두부, 식자재마트. 여기에서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도군 73명에게 매주 주 3회 정도 배부해 드립니다. 드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남아있는 음식을 저희들은……

○ 위원장 최정욱

이 3,000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3,000만 원은 인건비로 80% 쓸 수 있고요.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하고 무급종사자 2명이 같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해야 되고 또 식품을 받아와야 되고, 또 배분하고 이런 것을 한 사람이 하기 어려워서 9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푸드뱅크가 원래…… 기업에서 팔리지 않거나 재고, 철 지난 것 이런 것을 기부해서 나눠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 3,000만 원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것을 나눠주고, 기부를 받아서.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시설비, 완도군 장사시설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설치된 CCTV가 노후되어 물체 식별 및 저화질…… CCTV를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5개소로 추모공원 3개소, 봉안당 입구, 관리소 입구, 자연장 입구, 공설묘지 2개소 서편, 동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리의 범위는 공설묘지 7,526평, 추모공원 1만 5,743평 총 2만 3,260평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 5개는 2만 화소급으로 설치하여 장사시설의 원활한 시설 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CCTV 설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것…… 이전에 신설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설명하실 때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이것이 신규설치인데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자리 배치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CCTV 위치 현황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안당 입구하고 공설묘지 서편 입구하고, 동편 입구하고 관리사무소 주출입구인데, 4개 배치를 달리해서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5개 전체를 수리비로 넣는다는 것이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그렇습니다. 교체해서 다시……

○ 김양훈 위원

그런데 그렇게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특히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묘지를…… 면적이 넓다 보니까, 2만 3,000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리사무소에 한 분이 근무할 때가 많거든요. 두 분이 교대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한 분이 바깥에 나가서 관리할 수가 없어서 CCTV를 보고 사람이 오면 얼른 가서 확인하고요. (청취 불능) 옷을 태우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해 주고 그래야 해서 관리적

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지금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줬는데 한 명만 근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조합에다가 인원을 좀 더 배치하라고 하십시오. 위탁을 주고 위탁금도 다 주는데 한 명만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인건비를…… 두 분이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사직을 내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인건비를 최저인건비로 주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들이…… 중도에 사직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면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가 그런 부분을 정리해야죠. 위탁을 줘놓고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해준다고 그러면 위탁자는 그냥 돈만 먹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화재위험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장사시설이 있는 곳은 원래 물품을 태우는 곳을 한 군데에다가 지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정장소가 없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지정장소가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있으면 그쪽에 하계끔 유도를 해야죠. 오신 분들한테,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물품은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저쪽에 태우십시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 그냥 묘지를 끌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냥 “여기입니다.” 라고 하고 가버린다는 얘기인데,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그러니까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요. 묘에 찾아온 조문객들이 오시면 바로 CCTV를 보고 현장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를

해주고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울 것 같으면 그런 장소로 안내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CCTV가 광활한 면적을 위해서 한 5대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훈 위원

위탁 금액이 7,700만 원이면 그 위탁자가 어느 정도 관리를 다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해야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위탁하게 된 배경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계속 직원들이 바뀌지다 보니까. 수목관리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명을 가지고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더 넓히고 그렇게 해서 하고요.

제가 봐서는 굳이…… 그전에, 기존에 있던 것을 수리해서 쓰고 또 방향만 옮겨서 틀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신설로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늘어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장사시설이, 추모공원이 예전보다 면적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7,700만 원의 위탁비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인건비하고 나머지로의 별초를 한 3회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목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장비나 그런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조합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새로 신설된 면적은 얼마나 돼요? 그렇게 몇 평 안 되는데 그쪽만 하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살리고 또 보수하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공설묘지가 7,526평이고요, 추모공원이 1만 5,743평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6년 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배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해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배치로 예산을 2만 화소급으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한테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꼭 CCTV를 설치해야 되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보편적인 공공기관시설에는 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회전식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예, 반경은 좀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현재 보면 고정식으로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비용이 5년마다 2,000만 원이죠?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경우 교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다시 위치도 변경하고요, 옛날에, 6년 전에 설치했던 것은 식별이 좀 어렵거든요.

○ 김재홍 위원

예를 들어서 5개를 설치하면 하나당 400만 원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양어장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CCTV가 다 있습니다. 렌털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3년 주기로 하면…… 기계 하나당 10대를 설치했을 때 13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렌털로 사용하면 5년 정도 해도 65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렌털로 하면 AS도 바로 됩니다. 항시 뭐가 잘못되어 있다, 이랬을 때 바로 전화를 하면 AS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성을 이야기해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렌털로 하는 것과 고정식으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 이런 부분을 렌털로 하면 가격도 싸고 AS도 잘될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것이 위원들의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하단부분 민간위탁금 원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 관장 외 3명, 관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 1억 199만 7,000원의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아카데미 등 하교 및 토요 운영에 차량임차비로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및 사무운영에 따른 출장비 250만 원, 전화 경비운영 등 공공운영비에 1,050만 2,000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 1억 2,000만 원 위탁으로 저희들이 전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전체 이것을 위탁한다는 말씀이시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지금 5명 위탁을…… 사단법인 (청취불능)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 연회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위탁해 가지고 군에서는 얼마만큼 그분들이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관계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우리 군 관계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 완도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팀장,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프로그램을 그러면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위탁할 때 아우트라인이 정해집니까? 아니면 그분들에 의해서 정해집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1년 운영계획 안에 1억 2,000만 원은 순수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별도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1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승인하고, 군에서는 어떤 것을 제시는 안 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방향 제시는 합니다.

○ 우성자 위원

방향 제시는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물론 잘 하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업체가 아니고요,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기관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꿈틀이라는 그 사단법인에서 위촉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제 청소년문화의집 1년 성과보고하고 청소년어울림마당에 대해서 어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 청소년들이 다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합니까? 만족을 하는지, 불만이 있는지 어떻게 의견수렴을 하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 1년…… 어제 성과보고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1년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완도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완도읍하고 노화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위탁이 원칙인데 노화 같은 경우는 위탁하는 기관이 없어서 우리 군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완도읍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해보실 때 위탁하는 것하고 군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애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인 것아..... 공무원이 직영할 때는 수시로 업무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요. 위탁을 주면 청소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서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증액이 됐네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한 16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 김양훈 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에서 약 5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그리고 차량임차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장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약 150만 원 정도 늘어서 16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보니까 관장 외 2명의 인건비가 5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굳이 늘어난..... 관장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 부분에서 정액 부분이 상승됩니다. 호봉수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세 사람에게 대해서.

○ 김양훈 위원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같이..... 호봉수가 올라간다고 전부 다 올라갑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러니까 정부지침에 의해서 근무연수에 따라 호봉, 직급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저는 인건비 증액보다는 진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쪽에.....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쪽에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증액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구요.

차량임차비는 감이 됐는데 뭐 예년보다 차량..... 차가 새로 들어왔습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아닙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여기에..... 금년에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더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전체 반영하지 못해서 여기에 빠진 부분들이 지금..... 전기요금 등 그런 공공요금은 추경에 세우려고 일단 1억 2,000만 원 정도에 맞춰서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부족분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어떤 부분이 4,000이예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전체 3층을 관리하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금액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전기요금이 당초 완도군 자산관리팀에서 일괄..... 금년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면 1,8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해당부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든가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에 추가로 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요.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현재 관장 급여 외 수당들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급식비라든가 방과후아카데미를 추가로 3명이 더 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은 기본 인건비 외에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혀 빠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4,000만 원 소요될 부분들이 공공운영비 한 1,800만 원 정도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사물놀이 북치기 운영하고 그다음에 드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해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김양훈 위원

드론도 가서 체험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청석에서 “체험정보다는 정기적으로 해서 자격증 관련부분까지도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성과라든가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돈이 국비하고 군비인데, 이것하고 꿈틀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은 별도로 청소년문화의집에 이것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를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운영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인건비 같은 것은 없고 그냥 프로그램 비용만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5 대 5 매칭 8,500만 원, 이것만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렇습니다. 운영비 외의 프로그램은 별도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전기료가…… 그 위에 드림스타트가 거기에 있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청소년상담센터까지, 3층 전체 건물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재산담당에서 공공건물이니까……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 다 전기료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전기요금 문제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뭘니까, 7대 의회 때도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통합편성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자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국장인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전기요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한전에서는 전기…… 계약을 하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무회계과로 오면 세무회계과에서는…… 공공시설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다. 수백 개가 되는데, 읍면 가로등까지 다 합치면, 그것을 세무회계과에서 일일이 검토를 못합니다. 이 가로등은 고장이 났고 안 쓰고 있

는데 왜 전기요금이나왔는지. 또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쪽 드림스타트 사무실,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을 그 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면 전기요금이 절약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세무회계과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통합요금관리 안 된다. 각 부서별로 담당해서 철저히 체크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각 관리운영부서에다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구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그랬으면 보니까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그런 예산 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본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우려고 안 세운 것입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당초 국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각 과로 분리하지는 않고요. 일반 공공건물에 대한 요금은 세무회계과에서 기존대로 하고, 가로등 부분은,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분……

○ 박인철 위원

아, 그래서요. 국장님의 말씀과 예산서가 다르기 때문에.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전면시행은 못하고요.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 별도로 하고 올해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옛날 7대 때도 청소년 그 꿈들 때문에 문제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의회까지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열악합니다.

○ 박인철 위원

열악하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열악……

○ 박인철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업무가요, 일반위탁을 한다고 하면…… 업무가 시군구 같은 데에 내가 한 번씩 가서 보면 업무가 꽤 많더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군청 직원들, 뭐 공무원들과 비교할 것은 못되지만 원체 인건비가 열악하던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좀 해주고 그분들이 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해주고, 현실화를 시켜주고 더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 추경에 정부지침에 권장하는 그런 각종 수당을 100% 반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 시군에 맞춰서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내가 저번에 따로 인건비 내역서를 받았습니 다마는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 그 정도로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데 그분들 경력들이 거의 다 7~8년, 10년 이렇게 되고, 또 보니까 경력직들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직을……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직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그런 것을 좀 현실화시켜 주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다음은 274페이지 하단부에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본예산 설명 때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일단 내년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신규이장이 몇 명인가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요. 내년도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침을 읍면에 시달할 때 내후년 부분에 대한 계획 부분은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이것 내년 상반기 때 미리 짜서요. 이장단 들한테 하반기 때 바로 시달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된 다음에 어떤 것을 시행해야지. 우리가 먼저 정해 버리고 이래 버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꼭 잘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내년도에 이장님들이…… 본예산에 요구한 이장님 수보다 증액되면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고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여성아동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 작년까지는 무조건 여성이장한테 이렇게 1,000만 원씩 주다가 과장님이 오셔서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이장님들은 남성이장님대로 난리입

니다. 똑같은 이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냐. 그것도 자꾸 행정에서 양성평등…… 조례 하나를 하더라도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세심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됩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뭐 신규이장이라고 했는데 신규이장이라고 이렇게 10명이나 이렇게 필요 없어요. 5개 1억만 세워놔도 충분합니다. 신규이장으로 한다고 하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 것도 염려하십시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남성이장 분들한테 그 말을 많이 들어서 방금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 가지고.

정확한 틀을 잡아놓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1,000만 원씩 해서 한 해만 2,000만 원을 주고, 또 신규한테만 준다. 그것을 매년 또…… 여성이장한테는 계속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맞고, 서로 혼동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틀을 정해놓은 다음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상반기까지 의원들한테 말해서 확정을 지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11개 읍면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네 가정에 대해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간담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내년도에 대폭 늘렸습니다. 24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읍면 부모교육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500만 원을 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여기 한국에 시집을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남편과의 대화, 또 문화적인 부분, 고부간의 갈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편과 그런 부모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 대부분의 읍면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전문가를 초청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심도 있는 교육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중국과 베트남.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다문화가정 자녀코칭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간담회 때 부모가 한국 말을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갈 아이들이 한글…… 말을 익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치원에 다니면서 언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언어교육하고 정서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이 부분은 원래 도비사업으로…… 밑에 보면 1,080만 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다문화가정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출산을 계획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출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부담금만 가지고 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해서요, 순군비로 더 늘려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려고 순군비로 이 부분에 4,400만 원을 편성했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통번역서비스요, 지금 다문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가정이 390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은 곳이 베트남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이 부분을…… 실제 한글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도…… 베트남하고 중국 통번역을 저희들이 배석시켜서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가서 원어로 상담을 하면 고충을 듣고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문화센터에 보고하고, 군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개입하고 그 부분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요, 그 방법이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중국하고 베트남만 이렇게 와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이 민자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 결혼이민자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이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중국하고 베트남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그 말이고요.

산모도우미는 세대당 218만 원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산모한테…… 가정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임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 박인철 위원

완도대성병원에 산후조리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있어도 150만 원 그리고 좀 그런 분들은,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주민복지과

에서 하는데…… 아니, 뭘니까. 의료원에서 하는데 한 70만 원이면 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으로 생각해서 산모도우미를…… 218만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낳으면 옛날에…… 이것이 처음에 약산에서 외국인여성 친정어머님 되어 주기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위원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 분들이 그러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산모도우미를 해줄까 아니면 시간제로 해줄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시간제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요즘에는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거의……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이 예산이 이 정도면…… 이 예산이면 20세대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산후조리원에만, 거기에만 안 내해 주더라도 훨씬 많은 세대들이…… 도비까지 하면 5,000만 원인데.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요, 이주여성들과 결혼한 남성은……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수준보다는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이나 그런 데를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보통 산후조리원은 2주면 퇴원을 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산모도우미가 집에 가서 아기를 돌봐주고, 수발해 주고 하는 그런…… 작년에 보니까 생일면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았는데 누가 돌봐주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요.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꼭 도비사업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전라남도에서 세 자녀 이상 다 자녀로 우리가 3위인가, 4위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이면 더 많은 세대들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 이범성 위원이 아들을 낳았으면 인근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모도우미를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그렇죠, 그 산모도우미……

○ 박인철 위원

친정어머나가 되어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사업들인데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산은 시간피크타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꼭 20세대가 아니고 더 할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말한 거예요.

다문화읍면에 한국어교실이 있고, 또 위에 부모교육이 있고, 자녀코칭, 이것은 뭘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부분이 지금…… 다문화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언어……

○ 박인철 위원

언어발달입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언어발달 문제와 정서발달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대일 매칭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그런 선생을 파견해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3,400만 원 들어있는데. 각 읍면에 선생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도 여기 성광교회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나갑니까?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문화센터에서 젊은 사람을 채용해서, 파견해서 일대일 매칭을 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허궁희 부의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읍면 외국인들 교실처럼 그 지역에서 학교와 유관기관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야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여기에서 출퇴근하면서…… 아이들 수업하고 어찌다 보면 방과후에나 될 텐데, 이 예산이 뭐 적다, 많다, 잘못됐다가 아니고요, 방법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고민 좀 해보라는 그 말입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감사합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청년센터는 공모사업이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 부분 전체 건축비는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고요, 2019년도에 완공된 시군은 강진군과 진도……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개소 예정인 곳이 나주와 화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상정되어 있는 청년기본법이 발의되면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행안부에서 시군에서 이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상 사업부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사업, 주차장사업 그 옆에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필지가 전체적으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별도로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도 없고 또 기존의 남향시장이 주차장부지로 매각된 다음에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두 자매 분이 토지매입…… 매도 의사가 있어서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위치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만 짓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가족센터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건강가정다문화센터를 민간단체나 거기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완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문화센터가 특정 종교시설에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들이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있고, 그래서 가족센터까지 염두에 두고 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팸플릿을 보니까 전부 다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토지매입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요?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이 균특사업이 기존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에 한해서만 여기에다가 사업비를, 건축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마땅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우리 군 소유 건물이 마땅치 않고, 또 이 땅에 대한 접근성이나 향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또 가족센터까지 계획했을 때 이 땅은 군이 매입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아니, 순군비로 매입하니까 8억이라는 예산이 더 세워져 있어서요, 왜 사업비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것은 신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가정이 지금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공부지로 이렇게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입니다. 군민행복민원실 조성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무실 공간 확보를 통한 직원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방문이 편리한 환경조성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때 경험하는 민원실의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 군민행복민원실을 인증하는 대군민 민원행정서비스 제고정책을 완도군에 도입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민원창구 책상 높이가 높아서 민원서류를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발생하여 책상 높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사무 공간 뒷면으로 온 사방에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 캐비닛을 정리하여 내부의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화장실 입구가 실내에 있어 환경적으로 불결하고 또 창고와 함께 위치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화장실 출입구를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바닥 정비, 자동문 설치, 창문 재설치 및 각종 민원 편의물품 및 부대시설 통신장비 재정비로 동선을 고려하여 재배치할 계획으로 동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 리모델링사업이 아주 시급한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했죠, 민원실 리모델링을?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실 리모델링이 한두 번 올라온 것이 아닌 것 같은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에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부분적인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화장실을 민원실 내부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출장소가 여기에 있는데요,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가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은 외벽을 다시 쌓고 민원실을 확장해서 화장실을 여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만들려고 합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직원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창구민원 테이블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해 하고 그래서 민원인 위

주로 책상을 낮추는 그런 큰 안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그 정도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것이 외벽이라면 외벽에서 3M 정도를 띄어 가지고 외벽을 설치해서 화장실 공간을 이용하고, 또 민원실에 막 들어가는 공간, 여기를 더 넓게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문서고가 이쪽…… 지적서고가 이쪽에 있는데 캐비닛 뒤쪽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이쪽으로, 문서고 쪽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민원실을 더 확장시켜서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동선도 확보할 겸 민원인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좋은데, 그러면 처음에 할 때부터…… 그 당시에 할 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이, 그러면 그때 무슨 사업을 했는가, 제 기억에는 그때도 화장실에서, 실내에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도 리모델링사업이 올라왔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때 그랬어요, 그때도.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부분적으로 창문 정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꾸려고 합니다. 폐쇄해 버리고 밖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게요.

○ 박인철 위원

특히…… 아주 막 시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언젠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앞의 광장도 없어져 버리는데.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아니, 광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앞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

는……

○ 박인철 위원

그것 화단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없애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다음은 312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고금면 세동1지구, 완도읍 대야2지구 조정금 8,0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금면 세동1지구, 2018년 완도읍 대야2지구 사업완료에 따른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에 따른 단가 산출 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고금면 세동1지구 토지소유자협회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단가산출 요구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결정할 사안으로, 완도읍 대야2지구는 토지소유자협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강제평가에 따른 단가 산출을 할 예정이며, 고금 세동1지구와 동일하게 예산은 약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측량을 하나까 땅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아니,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 허궁희 위원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 민원봉사과장 권혁

증되고…… 늘어나고 줄고 그렇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 늘어나고 줄면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맞추면 될 것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런데 이제……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왜 군비가 들어가느냐고.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런데 거기가 일부 도로로 편입되거나 (청취 불능) 있다든가 해서 증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가한 지주가 내놓을 돈이 감소된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보전해 준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도로를 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안 받고 도로를 났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권혁

종전에는 그렇게 지적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많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허궁희 위원

아니,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개거가 생겼다면 그때 당시에 농지정리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이…… 몇 % 감소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도로 내에 개거가 생기는 이런 부분을,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우리 군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이런 지구가…… 꼭 이 두 지구에만 있을 리도 없고.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렇다면 왜 이 두 지구만 보상해 주는 것인지.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원하는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증되고 감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 증된 곳에서 빼서 감소된 곳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더블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큰 8,0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 민원봉사과장 권혁

그러니까 이 부분은 8,000만 원이 꼭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된 지주가 그 금액을 우리 군으로 이렇게 입금하게 되면 증된 부분하고 감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산하게 되면 이 8,000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이 똑같을 수도 있고, 또 부족하면 이 금액에서 일부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우리 군으로 내려옵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 허궁희 위원

그런데 금년에만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서.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아니, 계속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계속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이것을 매년 한다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농지정리를 하는 데에서 발생된 사항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아, 아닙니다.

○ 김재홍 위원

이것 그러면……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사업목적 그대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 김재홍 위원

지적재조사.

○ 민원봉사과장 권혁

예, 이것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적공부하고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경계 불일치로 인해서 재산권 관련해서 분쟁의 소지가……

○ 김재홍 위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내용을 보면 한 30년이 지난 내용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연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얘기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지적재조사라고 했는데, 대야하고 새동지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저번에 질문 답변할 때 박현식 부군수님이랑 차주경 부군수님이 계실 때 7대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다 토지보상비로 주고 우리 군으로 다 편입을 시키는데, 그런 땅들은 다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지주들한테 땅들이, 도로에 편입되고 그런 것들이 공공시설물로 다 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에 내가 봐보니까 2002년도인가 2004년도에 도에서도 22개 시군에 그것을 내렸다가 도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도에서도 다시 그것을 없던 것으로 했던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귀농, 귀어하시는 분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기존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땅들이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편입된 줄로 아는데, 이제 측량을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말뚝을 박아 가지고 진입도 못하게 하는 이런 실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 보니까 순군비를 가지고 하다 보면 1년 우리 순군비를 가지고도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보상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분쟁이 발생하는 곳만 차별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땅 보상비를 주고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 국비로 해가지고 이것 지적재조사가 된다고 하지만 이 관계로 앞으로 어떤 복안이 있는가, 이것은 고금하고 대야리,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군비가 소요될 것인데 그런 복안들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더……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지구를 국가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곳을?

○ 민원봉사과장 권혁

우리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선정해 가지고.

○ 박인철 위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알았을 때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알게 되면 너 나 없이 우리 지역도…… 내 땅도 해주라는 이런 것들이 봇물 터지듯이 민원이 터질 텐데, 그때 내가 질문할 때도…… 내 기억에는 차주경 부군수님 같은데, 이것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관련된 여러 과장님들과 부군수님까지 오서 가지고 제발 좀 본회의 질문에서 내려주라고 해서 내가 질문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한정된다면 문제가 틀려지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데도 벌써 시내에서는 우리 관련 부분 예산이 됐니, 안 됐니, 뭐 예산이 빠졌니, 또 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느냐. 군수를 찾아가려고 한다, 쫓아가려고 한다. 대모하려고 한다,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제자리걸음인데 민원인들은 벌써 열 걸음, 백 걸음 앞을 뛰어가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 세심하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권혁

이 사업에 대해서……

○ 박인철 위원

진짜 세심하게……

○ 민원봉사과장 권혁

신중하게 검토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각별히 접근해야 될 사업입니다. 군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접근을 조심히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설명 요한 부분에 대해……

328쪽입니다. 328쪽, 상단부분 공공운영비, 작은영화관 수선 유지비 500만 원입니다. 작은영화관은 완도 빙그레시네마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 작은영화관 건물이 완도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혹시 수리, 수선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수선하기 위해서 예비로 세우는 돈인데요, 지금 현재 작은영화관 빙그레시네마 그 홀이 매표하고, 또 팝콘도 튀기고 하는데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환기시설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벽 안쪽 내벽이 좀 단열이 안 되고 춥다고 해서 그 내벽 부분을 좀 수리하고 팝콘 냄새나 이런 냄새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계상해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그 부분하고 밑에 그것하고 같이 설명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 건하고요, 그리고 영상장비 워런터 비용 1,056만 원인데, 영상장비는 작은영화관 안에 1관, 2관 2개의 관이 있습니다. 안에 영상장비가 2대 있는데 2대가 계속 상영을 합니다. 그 장비 부분이 1년 동안 중간에 수리보수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1년 동안 정비해야 될 수선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도 완도군 시설물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이 부분하고 작은영화관 수선비를 같이 연구도 하고 해서 수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영화관에서 이익금이 발생되죠? (예)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에서 이런 수리비나 유지보수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은영화관 협동조합하고 우리 군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수입금은 우리 군비로 들어오는 데, 협약 당시에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말 그대로 협약내용에다가 결산잉여금에서 이런 부분도 상계처리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있으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협약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순수하게 결산해서 수익금의 3 대 7로 배분해서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그래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이 내년 3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재계약할 때, 이를 테면 거기하고 재계약할지 다른 데하고 재계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계약할 때 그 협약서에다가 그것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협약서 내용에 군이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익금은 상계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익금은 순수하게 나눠먹고…… 앞으로 이것이 노후화될 것 아닙니까. 노후화되면 시설유지비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된 계약서가 아닌가. 협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참고하십시오. (예)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배당금을 3 대 7로 한다고 했었죠? (예)

그러면 처음에 협약할 때 이런 부분에서 7을 영화관 위탁자한테 주고 3을 군에서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작은영화관 협동조합하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만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총수입하고 지출비용을 다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잉여금을 가지고 그 돈을…… 3이 완도군으로 그리고 7이 업체가 가져가도록 이익 배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3 대 7로 되어 있고, 1년간, 연간 결산해 보면 평균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 3,000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7,000이 그 업체로……

○ 김양훈 위원

저희들도 어디에 가서 계약하고, 해보면 동업……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감가상각까지 다 계산해서…… 앞으로 감가상각까지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협약할 때 감가상각은 전혀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비용을 군에다가 전부 부담시킨다고 하면 실상 군이 3이 아니라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형식적으로만 3을 이익금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만약 소득사업이 아니고 이익사업이 아니면 군민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분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3을 가져온 전부 다 이익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여기 재투자로 들어가는데.

계속 물어보면 이제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그런 협약조건을 봐서, 꼭 계약 때가 아니더라도,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제도를 바꿨어야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년 전에 계약할 때 아마 그렇게 계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때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업체를……

○ 김양훈 위원

내년 3월이라면 2020년 3월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내년 3월입니다.

○ 김양훈 위원

2020년 3월이면, 그러면 이것 1년치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치 예산이면, 내년 3월이면 3월 안으로…… 우선 급한 것이 아니니까 내년 3월에 계약을 다시 하고 협약을 넣어서요, 그때 넣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월에 협약을…… 쌍방과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쌍방과 협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이에요. 우리 군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절충돼서 맞아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안맞아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 3월에 협약할 때……

○ 김양훈 위원

내년 3월이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월에……

○ 김양훈 위원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삭감했다가 3월에 다시 협약하고, 계약하고 나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중간에…… 예를 들면 1~2월에 영사장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갈 텐데, 혹시…… 그러면 그 비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세워놓고 3월에 재협약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계가 고장이 안 나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 쓰죠, 안 쓰고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3월에 재협약하고 할 때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3월이면 한 3개월 남은 것 같은데, 이것 협약을 다시 할 때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영사장비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익금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3 대 7이라는데 실제 3 대 7 배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만 3 대 7이지.

이것 좀 심도 있게 하시고요, 내년에 협약조건…… 협약이 열릴 때, 다시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넣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337쪽입니다. 337쪽 중간 부분에 군취업 우수선수 지원입니다. 이윤리 선수 관련해서 세워놓은 돈인데,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취업 우수선수 육성 및 조례에 대한…… 저희들이 조례안을 이전 의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 금액이 과하다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조례 별표 1, 2 기준표 자료를 수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이윤리 선수 지원현황 이것은 생략하고요, 중간 부분에 선수수당 지원을 위한 점수계산표인데 등급 기준표를 저희들이 이전에 조례를 제출할 때는 특급부터 C등급까지 해서 40점, 30점, 20점, 10점을 점수를 대폭 올려 가지고 특급점수가 잘 안 나오게끔 60점, 50점, 40점, 30점 이렇게 등급을 설정하고요, 점수계산표를 빨간 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각종 국제대회를 35점에서 30점, 2위를 30점에서 25점, 3위를 25점에서 20점, 그리고 전국체전 같은 경우 30점을 20점, 그리고 2위 같은 경우는 25점을 15점, 이런 식으로 쪽 점수표를…… 가점 기준점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점수…… 이런 부분도 좀 낮추고요.

오른쪽에 조례 제정 시 금액도 수당 부분 명칭을 조정해서 장려금 형태로 명칭을 바꾸면서 특급부터 C등급까지 금액 조정을 월 270에서 240으로 쪽 조정해 오면서…… A급은 240에서 220, B등급은 210에서 200, C등급은 180 그대로인데. 이런 내용들, 또 그 밑에 포상금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하향도 좀 하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을……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조례할 때 문제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지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야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 점수를 환산해 보니까요. 저희들이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했을 때는 한 70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특급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월 270 정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270으로 해서 선수수당, 훈련용품,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한 B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월 2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군취업 우수선수 관련 기타보상금이…… 지금 선수수당이 270에서 한 200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하면 840만 원 정도가…… 3,240에서 한 2,400 정도로 해서 한 840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자꾸 해봤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조례나 이 근거조항이 없다 보니까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이 세워진 돈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저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 부분은 조문표대로 수정해서 금액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예, 과장님. 조례 얘기는 아니고요.

이윤리 선수가 우리 군 취업 우수선수로 협약이 안 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보면 우리 군 취업선수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취업선수가 아닌데 취업선수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일반운동 선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운동선수인데, 일반운동선수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지원해줄 근거를 만들어 보자고 조례부터 시작한 것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일반 취업선수들한테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다. 타 시군을 비교해도, 역도선수들하고 비교해 보면 역도선수들은 우리 군 취업선수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수들이 진짜 이 예산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안 하냐고 거기에서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수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애인팀들은 점수 따기가 편합니다. 국내에서 편해요. 시합도 많고 선수들도 없어요. 솔직히 가면 금메달이요, 우스갯 이야기로 (칭취불능) 금메달입니다. 역기 하나도 없이…… 선수층이 그렇게 없어요. 이렇게 점수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수당이나 이런 것도 너무 과해요. 진도 같은 곳을 보면 체육선수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따다고 해도 월 1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정식으로 체육선수 10개월 계약을 해요. 1년 단위, 10개월 단위로, 훈련비, 포상금을 안 줍니다. 자기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원돼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

니다. 뭐 조례가 당연히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겠지만 아직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여기가 우리 군 말고 다른 데에서도 지원받고 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연 400 정도 지원 받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 허궁희 위원

연 400이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10개월치만 줍니다. 월 40만 원으로 10개월만 해서 400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우리들도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들어보면 어디에서 조금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 말고는……

○ 허궁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확인을 못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방금 과장님, 허궁희 부의장이 이야기한 것이 40만 원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연 400.

○ 김재홍 위원

연 400이요. 그러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4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그러면 방금 김양훈 위원의 얘기처럼 완도군 소속도 아닌데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먼저 그 400만 원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조금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한 봤을 때 특정 개인한테……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연 400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연례 반복적으로……

○ 김재홍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봐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급을 한다거나…… 그것이 원칙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 김재홍 위원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빼야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23일에 의결해 주시면 내년……

○ 김재홍 위원

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안 맞습니다마는 이전에 부결되어서 이 부분을…… 23일에 의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수정 적용표를 만들어서 제시한 것입니다.

○ 김재홍 위원

내가 봐서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완도선수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완도선수…… 한 사람을 팀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완도군 소속으로 하려면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잘 알았습니다.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344쪽입니다. 344쪽, 하단부분에 기타 보상금 수영장 운영 프로그램 강사료입니다. 2,880만 원. 이 돈은…… 수영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나면 강사, 수영장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유형, 접형, 평형 이런 수영이고요, 생존수영 이런 것, 방학특강 관련해서 지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 프로그램은 아쿠아로빅 그리고 아쿠아 체중관리,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강사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기존에 강사가 수영장에 두 분 있습니까? 기존 강사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요?

○ 박인철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저희들이 별도로 강사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 박인철 위원

아니, 아니. 기존에 직원으로 채용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그 강사들은 지금 수영……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도하는……

○ 박인철 위원

그 관계는 놔놓고,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 위원장 최정욱

몇 사람이냐고, 강사가.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뭐 다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 두 명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반을 지도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가지고는 이것을 해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휴직 중이거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수영장 안에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수영장 안에서.

○ 박인철 위원

계단형 수영장도 아니고 25M 수영장에서 할 때…… 수영을 안 할 때 금방 과장님이 말했던 아쿠아를 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시간대가 나뉘져 있는데……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두 강사들을 차라리 우리가 직원으로…… 정식 공무원이 됐든 어떤 직렬이 됐든, 직위가 됐든 간에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데, 그 직원들을 교육시키면 그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자격증을 해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 30회를 하는데 2,8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그

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리 강사들은……

○ 박인철 위원

강사들을 채용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면, 자격증이 필요하면 그 자격증을 따게끔 하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강사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면 인센티브로 얼마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더…… 과장님의 말씀처럼 강사 두 분이 있고, 한 분은 계약직으로 있고 세 분까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강사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위원님, 전문프로그램이라 그 해당 프로그램…… 이를 보면 에어로빅 강사라면 에어로빅 자격증이 있어야 지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수영강사는 그 에어로빅 자격증이 없어요. 일반 수영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된 그런……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그 자격증을 따라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죠, 간단하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따면 좋겠죠.

○ 박인철 위원

무슨 예산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전문적으로 나뉘지니까.

○ 박인철 위원

대단한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을 지도받고 있는 군민들이 이쿠아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요. 이 프로그램 반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가지고……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강사를 채용할 때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로 한 분 채용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영장 문을 열 때 여기저기 다……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수영장을 열면 뭐가 필요하다고 예측이 되어 있었는데, 강사가 세 분이면 한 분은 그런 강사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이데 한 분이 휴직에 들어가서 한 분이 대체……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분을 대체하니까 부득이……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은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모집할 때 모집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345쪽,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1,500만 원입니다. 보충자료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군민회관 1층 화장실 입구 천정하고 2층 복도 천정에 비가 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 비닐도 바쳐놓고 저 밑에다가 대야도 바쳐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하려고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올해 군민회관 방수공사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금년에 3,500을 들여 가지고……

○ 박인철 위원

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1층 로비하고 옥상……

○ 박인철 위원

어찌됐든 옥상방수는 했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거기 1층 로비만 좀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어찌됐든 방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뿔니까. 그것하고 똑같은데 완도 복합문화센터, 이것 할 것이죠? (예)
그러면 완도 군민회관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해버리면 될 것인데……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여기 천정까지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면 안을 다 리모델링하고, 그림 조감도가 처음에 보고한 것하고 좀 달라졌는데, 조감도가……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체육사업소를 한다고 하는데, 체육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든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거기는 2단계사업으로 내년에 공모해서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처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50억짜리 프로젝트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국비 지원이 최고 10억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로 나눠서요. 1단계는 군민회관 안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는 체육진흥과 사무실을 만드는 그쪽 부분으로 새로 신축

을…… 올릴 것입니다. 건물을. 2단계 공모사업으로 내년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내놓지 말든가. 뭐 옥상정원을 한다, 뭐 한다고 그렇게 내놓고. 그러면 같이 거기에서 21억이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방수까지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올해 방수도 했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또…… 액수는 1,500만 원이라서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에…… 그러면 그런 방수도 안 하고 옥상에다가 뭐 정원을 만들고 뭐하고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니요,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흔들며)

그러면 여기에 왜 이렇게 나왔냐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5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옥상정원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가지고…… 따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기존에 그러면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방수, 그것이면 다 된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면 어디 일부분이 안 났다고 그레 버리고. 그러면 어디를 방수했다는 거예요. 방수라는 것은 전체를 다 잡아야 방수가 되는 것인데. 전혀 아닌 것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따지는 거예요. 일을. 돈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금년에 3,500을 가지고 방수를…… 1층 로비 옥상 부분을 해서 물이 새는 부분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하기에 3,500을 가지고는 돈이 부족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50억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손보려고 했는데, 국비 10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1, 2단계로 사업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2단계사업을 할 때 별도로 사무실 신축이 들어가고. 지금 1단계사업은 군민회관 내부 리모델링하고……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아까 그것은 들었으니까.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자료도 거기에 맞춰서 좀 이 자료를 놓고…… 뭘니까, 이 밑에 아직 거기에 안 들어왔는데. 군민회관 복합문화센터, 이것. 이것을 내가 재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애 당초 간담회 때 와서 설명했던 것하고 액수도 차이가 나고, 규모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물어보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위에 방수도 있고, 방수도 올해 했고.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 전체 실내공간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 가지고, 돈이 많이 안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까지 같이 가야지. 그것을 하면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목들을 다 따로 잡는가.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됩니까만은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물세는 곳은 그대로 놔두고 밑에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도는 이 안에 전부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 위원장 최정욱

또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계속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음은 34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금일 공공도서관 물탱크. 보충자료로 사진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현재 있는 물탱크가 21년이 됐습니다. 금일 공공도서관을 1996년 4월에 준공을 했는데. 그때 설치할 때 설치해 놓은 물탱크입니다. 21년이 되었는데 물탱크가 좀 새고 밸브도 녹이 슬고, 새고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물탱크를 오

른쪽에 있는 SMC 스테인리스 (청취불능) 물탱크로 바꾸고요. 그리고 배관, 그리고 모터까지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사진을 가져오니가 좀 이해는 됩니다. 나는 물탱크를 바꾼다고 그러니까..... 20년이 된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몰랐습니다. 밑에 목욕탕이 생겨서 물 양이 필요해 가지고 물탱크를 크게 넓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요. 과다하게 2,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자료를 좀 더 물어볼 것이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오른쪽 것은 몇 톤이고 왼쪽 것은 몇 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한 10톤 정도 됩니다.

○ 이범성 위원

오른쪽 것은..... 2개 다 똑같은 톤수입니까? (예)

10톤을 하는데 일단 재질을 스테인리스로 했을 때는 앞으로 끝까지 쓰겠지만 스테인리스로 하다 보니까 2,000만 원의 견적이 나온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배관하고 모터하고 1식 가능합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데 물탱크를 21년 사용했다고 하나까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내가 어떤 사항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부족해서 재설명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하나하나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351쪽, 완도군립도서관 리모델링..... 아니, 351쪽 밑에 중간부분 시설비 작은도서관 1억 7,200하고 그 아래쪽에 복합문화센터 21억하고 합쳐져서 22억 7,200만 원의 사업비 보충자료가 테이블에 놓아져 있습니다. 완도 복합문화센터 추진계획입니다. 이 안에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 SOC 복합화사업 공모사업인데요. 군민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안에 작은도서관 1억 7,000이 들어가고 생활문화센터 21억이 들어가서 총 22억 7,2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이 노후화되고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이.....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이 군민회관을 비롯한 앞에 체육시설탐하고 생활지회 그 건물을 헐고 앞부분은 신축을 하고 군민회관 내부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해서 50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당초에 올렸다가 최대 국비 지원이 10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 2단계로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복합문화센터 그 자료 내용처럼 안에다가 작은도서관을 넣고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형태로 해서 2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안에 의자하고 무대, 방송장비를 일체 다 갖고, 안에 작은 도서관을 넣고 새롭게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아우트라인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이 시설할 때 군민의 의견도 반영하고 그리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오늘은 재설명 그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그 자료와 더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삭감으로 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하지 말라고, 다음 기회를 한번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요. 실과장들의 설명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마는…… 특히 체육사업이 저희들이 보기에 굵은 덩어리가 있는데, 특히 군특회계라든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 한 2~3건이 삭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맡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건입니다.

362페이지, 시설비로서 금일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비는 소안고등학교, 금년에 취득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83년도에 준공을 해서 35년이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밀 안전점검을 해보고 이 건물이 사용 가능하겠는지 한번 점검한 후에 내진성능평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정밀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8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은 사용이 좀 어렵겠다고 그러면 내진성능평가는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

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정밀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한 1,600에서 1,800 정도. 건물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한 금액을 한번 산출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8페이지, 완도읍 향동리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성당 뒤편에 있는 곳인데요. 평상시에 보면 그쪽에 차량들이 양 옆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향동리 마을회관을 거기에서 신축하게 되어 있는…… 그 앞 주택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최정욱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셔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다음은 390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비 4,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용역해서 실시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같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고요,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보시면 용역 과업지시서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과거에 매년 벽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5,200만 원을 확보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인부임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업체가 교통량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1개 군이 우리하고 같이 재정지원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것을 했는데 작년과 뭐가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작년 것, 기존 것으로 운영해서 하면 안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작년 같이 그러면 교통조사 인부임으로 하게 되면 4,000만 원이 더…… 1,200이 더 추가돼서 5,200만 원으로……

○ 김양훈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작년 것을…… 그러니까 올해 것이겠죠, 올해 것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용역을 같이 활용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교통량조사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했을 때 승객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그 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교통량조사를 안 했어요, 이전에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이 용역비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교통량조사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양훈 위원

크게 뭐 차이가 있어서 매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 매년 안 하면 안돼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탑승객, 승객들이 해마다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그 탑승객은 버스기사가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런데 그 업체 측의 운전기사는 자기들이 손실보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래도 매년 한다고 하면 어려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매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연구용역이 아니라고 하면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확보해서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 김양훈 위원

우리가 사람을 사서 해버리면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것이 인부임으로……

○ 김양훈 위원

아니, 전부 다 용역을 맡겨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큰돈까지 들여가면서…… 나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무튼 매년……

○ 김양훈 위원

매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들 수는 있겠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갈수록 승객은 부족들은 적다, 부족해진다고 봐야 맞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앞으로도 계속한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내년에 한번 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비교를 해

서 큰 차이가 안 나면 한 2~3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김양훈 위원님이 방금 얘기했는데요. 4,000만 원 용역을 줘가지고 재정지원하는 것을 빼고, 또 만약에 안 했을 때는 5,200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사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작년에 했다면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쓰지 말고 차라리 한 2,000만 원 더 줘버리고 2,000만 원을 아끼십시오. 그리고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더 해버리든가.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렸고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재정손실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안 쓰고요, 작년에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에 500만 원만 더 주면 오케이 사인만 하고 끝내버리고 안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다든가. 우리가 장사꾼들이 하는 방법으로 한번 선택해도 되지 않겠느냐.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9개 운수업체가 있어서요. 한 군데라면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9개 운수업체라……

○ 이범성 위원

아니, 한 군데에 하면 다른 업체도 다 따라가게 되고 작년의 근거가 나와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냥…… 차라리 그런 돈을……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완도에 9개 업체인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어디, 어디 9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완도교통, 신지여객, 고금교통밖에 안 보이던데. 생일 하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생일도.....

○ 박인철 위원

생일하고 금당은 공영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공영제로 하고 있는 곳은 금당입니다. 금당만 공영제고요.

○ 박인철 위원

생일은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생일은 저희들이 재정손실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제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 다 해줬는데, 보조를 싹 해줬는데.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본인 부담도 하고 해서 버스 구입을 할 때는.....

○ 박인철 위원

금당에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금당은 공영제입니다. 생일이 아닙니다.

○ 박인철 위원

생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 청산이나 생일이나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의석에서) 봉고차. 생일은 봉고차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완전히 공영제로 해버리는 것이 안 나아요, 처음부터.

아니, 지금 완도교통도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영제로 자꾸 완도교통.....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달마다 올려주라고 하니까, 공영제로 하자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생일 같은 데는 이제 새롭게 봉고차에서 버스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 또 거기에서 새로 모집을 하고 있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완전 공영제로 가버려야지. 뭐 준공영제로 간다고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거기는 공영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할 모델은.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는 것은,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집자 선정이 끝났을 것 아닙니까, 생일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청산도 마을버스.

○ 박인철 위원

마을버스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청산여객이 있고, 마을버스는 별도로 있고.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마을버스 허가를 내준 것처럼 슬로시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해야 할 것을…… 택시로 하다가 갑자기 순환버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과장님 이전의 업무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은 데에서부터 전부 다 공영제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도 작년 상반기 때 나온 용역이 아니고 거의 중반, 하반기에 나온 용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이 1년도 안 돼서 폐기되어 버리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 인구 과밀도가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승객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것을 가지고 해년마다 이것을 뭐…… 용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에 뭐 다른 이슈가 있어 가지고 승객이 갑자기…… 이것은 승객이 감소하면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객이 뭐 많이 올라가면 그러는데……

그런데 완도 인구로 해가지고 갑자기 승객이 뭐…… 하루에 100명 타던 사람이 10명으로 줄어들 일도 없고, 80명으로 줄어들 일도 없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런 용역들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

또 아까 과장님이 말했던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해년마다 해야 되는가. 2년마다 해도…… 2년, 3년마다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하지 않고 지급을 했다가 완도교통에서 왜 우리한테 줄 것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느냐. 개인이 소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

다.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갖춰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 박인철 위원

그 모 업체 사장님은 까딱하면 차를 세운다는 것이 18번 아닙니까, 까딱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으니까 우리가 초기예산으로 좀 들어가더라도…… 뭐 완전공영이나 준공영이나 차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차를 사는 것이라 보험료가 더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는…… 오히려 우리가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 그 돈이면 아마 남을 것입니다. 기사들 처우도 훨씬 좋아지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용역을 하면서도 인수할 비용이 얼마 정도까지인지, 그것까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대응을 잘해 가지고 올해 차를 세운다는 것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너무 그쪽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않은가. 그 회사에서, 모 회사에서. 우리 군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여차하면 기사들 월급을 늦게 줘버리고 기사들한테 대모하라고 그러고, 내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분하기도 하고요. 저도 완도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줄 것을 다 주면서도…… 너무 분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영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올해 언제 왔습니까, 팀장님? 이전 결과가 몇월에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팀장 조봉흠

(좌석에서) 10월에 나왔습니다.

○ 박인철 위원

10월에 나왔는데 또 다시 이제야 이렇게 한다는 것은, 2개월도 안 됐는데 한다는 것은, 내년엔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한 해 해저리는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요, 내년 하반기에 용역결과가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올 10월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또 다시 내년에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서요, 굳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잡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재설명 대상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8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1억 2,000만 원은 금년 전액 지출 소진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1억 2,000만 원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축제 등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0명 이상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완도, 군위, 신지, 고금, 약산면을 방문하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는 1인당 9,000원, 그 외 도시는 1인당 1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0명 이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완도, 군위, 신지, 고금, 약산을 방문하는 경우 1인당 1만 원, 그 외의 도시는 1인당 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축제와 행사에 방문하는 30명 이상의 내국인이 1박 2일 동안 방문 시 수도권과 강원도권, 경상권은 60만 원을 여행사에 지원하고 그밖에 지역은 40만 원을, 그리고 외국인은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아니, 하나하나씩.

과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 이것은 내가 했으니까요, 그것하고 그 밑에……

뒤를 알고 싶어서 했냐면, 단체관광객 유치 이것은 부족하다는 것 압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상품하고 그 밑에 관광상품 개발에 따른 여행사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하고 어떤 성격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질문으로 던져놨는데,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1억 2,000만 원은 관광진흥법에서 방금 말씀하신 육지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5,000만 원은 주로 관광객이 적은 금일, 생일, 노화, 소안, 보길 섬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비슷한 성격인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잠깐만요.

이것을 작년에도 했는데, 그러면 작년의 성과는 어떻게습니까?

왜 꼭 굳이 구분을 하는가, 여기 자료에 되어 있던데, 우리보다 더한 목포시 같은 데에서도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이분들이 완도에 와가지고 쓰는 비용,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많은 돈은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을 더 잡더라도…… 굳이 여기에다가 다시, 똑같은 비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도 방식이 똑같구면

요. 단지 액수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더 준다는 것뿐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담당팀장님이 대답해도 좋은데, 작년에 그러면 5,000만 원 다 했습니까? 여기에 사유가 금일면, 소안면 이렇게 다 했는데.

○ 관광마케팅팀장 추교상

(좌석에서) 관광마케팅팀장 추교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섬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작년도에 5,000만 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떠한 거예요. 돈만 소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길면 같은 데는 거의 땅끝에서 많이 들어가 버리는데, 그분들도 주는 것입니까, 땅끝에서 들어가는 그런 차량들도?

○ 관광마케팅팀장 추교상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는 땅끝에 들어가구요, 한 40% 정도는 보길에 갔다가 또 완도로 나와서 청산까지 가는 그런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여행사는 육지나 섬이나……

이런 것은 그냥 통으로 묶어 가지고 액수를 더 잡으십시오, 다른 시군보다. 관광객이 안 온다고…… 군수님이 뭐 500만 관광시대라고 그러는데, 500만은커녕 100만도 안 오는데 무슨 500만 온다고 그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다른 예산들은 몰라도 이런 예산들은…… 방금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좀 많이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뵈니까, 해남 같은 곳은 2억 5,000 얼마씩 이렇게 하는데, 완도는 좀 적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려고 목을 이렇게 자꾸 찢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단시키지 말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오히려 그냥 통합해 가지고 더 요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똑같은 것인데 용어

만 잠깐 다르게 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사업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여행사 인센티브 부분을 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좀 많이 보였어요. 전부 다 주려고 그러면 관광버스 하나 들어올 때마다 주면 돈 다 금방 주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다 첨부하게 되어 있었죠. 합성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관리감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것이 부족한지는 알지만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더라, 관리감독이.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관광사에서, 여행사에서 “자, 우리 왔으니까 주십시오.” 라고 하면 돈을 쥐버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까? (예)

항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지출했더라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다는 얘기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사진도 중요한 자료고 그다음에 식당에서 몇 명이 먹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철저히 좀 하십시오. 그때도 합성된 사진이 여러 장이더라고요. 한 여행사에서 많이 가져가던데. 한 여행사에서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 여행사가 여기에 연고도 없는데 자주 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있어요. 잘 좀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완도타워 배경하고 전혀 안 맞는 것들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부분을 더 확실히 검토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제출할 때 진짜 세금이 허투루 안 나가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소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버스 오는 것마다 다 주면 소진되어 버리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서울 관광여행사에 가서 저희들이 완도로 오라고 그러면 “완도에서 무엇을 줍니까?” 라고 보통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도 전부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고요.

완도는 좀 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약간 강화시켜서요,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해남에 들러서 그 돈을 받아가고, 또 완도에 살짝 들렀다가 고급으로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전혀 뭐 혜택 하나도 없이, 이렇게 유치하려는 이유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보고 또 완도 관광상품을 더 많이,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이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남으로 놀러갔다가 돌아와서 그냥 나가서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거기에서 밥을 먹고 올라가면…… 완도대교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하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이 진행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을 철저히 받고 있고요. 완도군에 있는 소재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지 그 영수증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 들린 버스가 좀 체류하다 갈 수 있는, 그런 버스에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시고요. 나머지 허위로 조작된 이런 문서들은 잘 관리하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양훈 위원님과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과거의 틀에 잡혀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인철 위원도 예산이 많다고,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수없이 온다고, 뭐 몇 백만이 온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지 않는데,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백여행사가 왜 좋은지 알아요? 자주 오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타먹을지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 군데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서울이나 아니면 다른 타 시도도 연결고리를 갖춰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새로운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새롭게 만드십시오. 꼭 옛날 틀에 박혀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 부분만 하지 말고요. 새롭게 왔을 때 차우개선을 어떻게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데리고 저녁에 특별한 밥을 대접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여행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꼭 해주실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없죠.

410번까지 했거든요, 같이 묶어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어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체류형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최고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복잡이, 개매기, 갯벌체험 등 농어촌체험행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관내 읍면 어촌계, 새마을회, 교육면허증이 등록된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완도읍 망남리 전복체험, 노화 북고리 개매기 체험, 군외면 달도 갯벌 체험, 약산 구석리 개매기 체험, 청산면 개매기 체험 등 5개 단체에서 신청했으나 단체 및 마을 사정상 2개 단체에서 포기해서 3개 단체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참고로 청산은……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내부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고요. 약산 구석리에서는 개매기 체험을 신청한 후에 바지락 체험으로 변경했으나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납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완도읍 망남리 전복 체험 또 노화 북고리 개매기, 군외면 달도 갯벌체험, 청산 푸른섬밴드 공연, 보길 여항리 바지락 체험을 문의해 왔으므로 보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산정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것이 체험…… 관광체험인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실제 관광객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라는 외부에서 이것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라고 정확히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라는 일부 관광객들이 개매기 체험이나…… 또 망남리 전복 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성과를 얘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또 관내에서 군민들이 참여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상권이 있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1인당 몇 만 원, 뭐 4~5만 원을 썼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계산해 왔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분석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많이, 조금 미미한 것이 아니고 많이 미미하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관광객들 10%도 안 오는 것 같아요. 다면민들 자체…… 동네 어촌계 자체 행사지. 다른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계속 최고 1,000만 원까지…… 전부 다 1,000만 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 전부 자체 행사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동네에서도 받고 이쪽, 저쪽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갯벌 체험을 하면서…… 다른 데는 행사…… 입장비도 받고 하던데. 지금 입장비를 받는 곳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없죠.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소수액이라도 내고 가져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왜 없냐고 그러니까 자체 행사라는 얘기에요, 동네 자체 행사. 관광객이 없는, 우리 지역민들만 가지고 하는 행사. 저는 이것은 안 맞다 판단이 듭니다.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 행사 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지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SNS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해서요, 이 행사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 검토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진짜 성과가 없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이 많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요, 체험이라면 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부 일회성 아닙니까. 거의 당일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당일행사인데 관광객들 누가 거기에 와서 잠깐 있다가…… 그것을 보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실효성이 없는 행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보니까 잘되는 곳이 있고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군외는 상당히 잘되는 것으로……

○ 김재홍 위원

보충설명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요,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부락에 원래는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도 김양훈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달도 개매기 체험 같은 경우 그쪽 지역 사람까지 포함해서 광주, 전남권에…… 거기는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달도에 대해서 입장료를…… 제가 지난번에 참석했는데…… 아, 맞습니다. 입장료를 받았습시다.

○ 김재홍 위원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아프리카 그것 때문에 취소됐고.

그래요, 지금 보면 사실 전면적인 부분을 보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외 지역 달도에서 하는 행사는 굉장히 호응도가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실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달도……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어서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산도 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문과 영문으로 각 1만부씩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안에는 중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문하고 영문입니다. 관내 모 업체에서 장보고 한상 수상자인 중국 상위그룹 회장과 연계해서요. 내년에 한 1만 명 정도 관광객을 3월부터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최근에 중국 홍보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도 글로벌시대에 영문 홍보물이 없으므로 외국인 관광객 방문 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할게요. 상품 홍보물하고 그 앞장에 보면, 408페이지에 보면 종합관광안내지도라고 해가지고 한글, 중문, 영문이 있는데 이것하고 다른 점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도를 보면 완도지도가 관광홍보지도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지도가 있어야 그 지도에 중문, 영문, 한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동소이한데 또 다시 이렇게……

상품이라면 어떤 상품을 말합니까. 지도에 나와 있는 상품일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완도 전체 관광안내지도에는 12개 읍면의 관광지가 조그마한 사전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식당이라든가 관광안내소에 가면 접이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글, 중문, 영문으로 다 되어가지고 그 지도 안에 관광지가 다 표시되어 가지

고 있는데, 또 뭐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만 부…… 여기 책자에는 2만부로 나와 있습니다. 2만부로 해가지고 또 다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제작하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는 말씀하신 대로 접이식으로 이렇게 펼치면 12개 읍면이 나옵니다. 완도 전체 지도가 나오면 어떻게 좀 요약해서 주요 관광지만 해놓은 것이고요. 또 청산도나 이런 데를 보면 청산도 전체 지도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도를 방문하거나 또 관광객들이 보길도나 이런 데를 방문하고 그러면…… 또 별도로 자세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처럼 그러면 12개 읍면을 다 따로 제작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하고 관계 없이 관광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완도군이 12개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2개 읍면을 전체 따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 금방 과장님의 말씀처럼 청산만 이렇게 특정지역으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관광지로서……

○ 박인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예산은 안 맞아요.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2만부로 해가지고 우리가 12개 읍면을 전부하면 1만 2,000부인데 그것 누구 손에 갖다 바칠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좀 부수가 적기는 합니다, 사실.

○ 박인철 위원

전혀 과장님의 말씀처럼…… 제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세히…… 완도읍 이라면 완도읍 지도를 놓고 상세히 다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전혀 이 예산하고 과장님이 말씀한 것하고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러니까 완도 전체 지도는 12개 읍면의 지도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안내지도는 청산도가 있어 가지고 42,195 느낌길, 이것을 자세히 표로 이렇게 그려놓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전체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에 2만부라고 했는데요, 청산, 보길도 아니면 가고 싶은 섬 생일, 소안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12개 읍면을 다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방금 말씀하신 12개 읍면이 아니고, 가고 싶은 섬은 별도로 있고요, 각자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금당 같은 데는 만듭니까, 그러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금당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왜 그런데는 안 만들어요?

우리 관광이…… 금당 같은 곳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관광으로서, 완도군이 활용을 못하니까 고흥군이 다, 장흥군이 다 우리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안 하면서 이런 쪽에다가 예산을 잡으면 되냐는 이 말이에요, 차라리 하려면 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 잡아서 제대로 해야지, 특정지역에다가만……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특정지역에다가 몰빵한다는 이 말이에요, 오는 데에만 몰빵한다는 이 말이에요, 새로운 관광지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 현재 방문객을 보면 읍면 방문객이 사실 1만 명이 안 됩니다. 청산 같은 데에서는 30만 명씩 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자세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청산은 30만 명이고 읍면은 1만 명이 안 된다면…… 완도읍이나 12개 읍면 다 특색이 있잖아요, 각 읍면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에서 개발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지금 청산 슬로시티도 연도가 가면 갈수록 관광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도…… 지금 완도읍을 유일하게 통과하는 곳은 청산하고 소안인데, 그러다 보니까 완도읍 상가들이 다 아 우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도 좀 개발해서 완도읍을 경유해 가지고 고급도로 가고 어디 다른 데, 뭐 청산도 들어가는 이런 상품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기존에 조금되는 곳에다가만 이렇게 몰빵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도 지도가 다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데에 예산을 더 몰아 가지고, 12개 읍면을 좀 더 세밀하게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전복판촉 6시 내고향 특별생방송입니다. KBS 6시 내고향은 가장 대중적이고 시청률이 평균 10%를 넘나드는 공중파 프로그램으로 방송시간은 60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 원으로 올 초 방송으로 전복 및 광어, 매생이 판매에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시 내고향에 어떻게 나가요, 방송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것이 풀타임으로 하면 굉장하……

○ 위원장 최정욱

간단히 말하면 6시 내고향할 때 방송에 나갈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역방송으로 7분 내지 10분 정도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최정욱

완도전복에 대해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전복……

○ 위원장 최정욱

6시 내고향을 할 때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한번 나가는데 7에서 10분정도로 간혹 한번씩 6시 내고향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도 이것밖에 아닌데, 우리 광고 다 합쳐서 하면 충분하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전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광고가 나가면, 이것 전국방송이잖아요, 6시 내고향은.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KBS.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요, 전국방송이잖아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큰 방송으로 1시간짜리 방송을 4번

했거든요, KBS 6시 내고향은 한 번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60분 동안 완도를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가세를 포함해서 보통 8,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때 방송국에 가지고 5,000만 원에 했고요. 또 이외에, 이것 말고도 전복하고 광어, 매생이를 가지고 한 7번 정도 그것은 무료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원할 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방송국을 불렀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런 전국방송은 이 돈을 가지고도 되는데…… 지금 하도 광고가 많이 나가는데요, 전국 방송 이런 곳에 해서 되겠어요? 돈 얼마 안 가지고도 하구면, 이전 예산만 봐도 24억이나 되는데, 이 돈이면 전국방송으로 충분히…… 계획을 잘 짜면 충분히 그 돈을 가지고도……

예, 뭐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가고 싶은 섬 생일도 특집방송 제작지원입니다. 예산액은 8,000만 원으로 일반적인 60분짜리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과 2018년 소안도, 생일도, 여서도가 전라남도에서 선정하는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인 콘텐츠를 갖춘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 없어서 대외적으로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섬을 여기 생일도라고 했습니다마는 묶어서 특집방송을 제작함으로써 가고 싶은 섬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KBS 광주방송과 협약을 통해서 전국방송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남도스페셜 공동제작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으로 남도스페셜은 KBS 광주총국이 주관하는 방송입니다. (칭취불능) 10개 시군이

공동참여해서 지역의 문화 및 특산물을 정보프로 그램, 그러니까 방송시간을 30분으로 진행하고 요, 한 달간 캠페인방송을 한 번 나가는데 1분씩 약 30회 방송에 송출함으로써 우리 군의 관광자원과 특산물, 축제 등을 소개해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특산물 판촉에 기여하는 방송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도스페셜은 남도만 하나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남 쪽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 전남 쪽만 하는 이유는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아무래도 kbs광주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광주 방송은 경상도 쪽으로 송출이 좀…… 상당히 그 지역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서 전남지역으로 해서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금방 부산 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부산은 여기에 없고요, 부산은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대구방송이라든가 KNN 경남방송 이쪽으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해조류 홍보를 위한 전국시대 생방송입니다.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전국 MBC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소비자에게 광어와 전복을 비롯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전달해서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시청률이 있는 방송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금방 설명하신 것이 해조류 홍보를 위한 전국시대 방송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홍보라고 그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수산물 홍보와 같이 겹친 것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해조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조류일 수도 있고 해조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약간 재미를 더해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반 고기…… 완도에 있는 어떤 생선,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부각한다든가, 주로 전복이나 광어 이런 것을 강조해서요, 해조류를 강조해 달라고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해조류 홍보하고, 해양치유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해조류 홍보가 많이 되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런 것은 좀 많이 겹치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에서 참 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간대가 참…… 저도 사실 몇 번 못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하는 시간대를 찾아서 일부러 보지 않는 한, 잠깐 몇 분이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침에 홍보를 보면,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보면 타 시군들은 아침에 잘 나옵니다. 7~8시쯤에 타 시군들은 잘 나오는데, 완도 것은 진짜 드물게 한 번씩 봅니다. 아침에 거의 뉴스를 보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를 보면 한 가지만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짜 맞추기를 잘해 놔더라고요. 군에 있는 특성이나 특산물, 모든 특산품들을 한 군데에 진열해서 짜임새 있게 홍보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한 쪽에만 치우쳐 있고 다른 한 쪽은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따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홍보하실 때는 예산서에 해조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에 나오는 특산물 전체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맞춰서 홍보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6시 내고향 전복 판촉하고 남도스페셜하고 해조류 홍보하고 어영차바다 이런 네 가지가 여기 전부 다 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부 일회성이죠? 어영차바다 빼고는 다 일회성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한번 방송하는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효과 같은 것이 얼마나 나올지.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홍보비하고 영상 이 비용으로 하면……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이 답을 달립니다. 제가 전체 22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홍보예산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이 예산하고 합쳐보면

답을 달리는데요. 나오는 빈도는 최하위입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빈도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좀 쪼개 가지고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다 스페셜이 아니면 다큐처럼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나 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임과장이 했을 때도 무슨 다큐, 무슨 다큐라고 해가지고 이보다 더 예산을 잡아서요. 눈을 씻고 봐도 방송에서 볼 수도 없고 물어보면 또 안 됐다고 그래 버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도군에 오면 완도 해조류를 먹습니다. 특색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니까 타 시군들에 대해서 방송이 빈번하게 나오더라고요. 충청도 쪽이나 전라도 쪽이나 어느 시군마다. 우리 군은 이렇게 예산들은 세워져 있지만 한 목당 가버리니까요, 예산들이…… 전혀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마지막이 가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해맞이, 해돋이행사나 한 커트 보 이러나. 그렇지만 다른 시군들은 전체적으로 홍보가 나오는 것을 보면, 괴산군이나 이런 곳을 봐보면 그 군에서 전체적으로 생산된 물품이나 관광지가 한 커트 안에 뭐 30초가 됐든 15초가 됐든 그 커트 안에 들어가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송국 자기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데에 대주는 것이 1억이나 되어 버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전환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꾸 노출되게 만들어야 만이 완도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신비감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냥 어디 프로그램 하나에 딱 딱 1억씩, 5,000만 원씩, 뭐 8,000만 원씩 이렇게 떼어주고, 또 그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누가 재방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완도군이 방송에 노출되게끔. 그리고 15초 광고도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일도 가고 싶은 섬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가 가지고 생일도에 방송 한번 보고 1,000명, 2,000명이 오면 뭐할 것입니까. 생일도에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막말로 SOC사업들이 하나도 안 되

어 있는데, 기존 자원은 좋으나 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얼른 노출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렇게 하면 노출이 안 될 수밖에 없다니깐요. 예산은 많이 가나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니까요. 그것이 뭐 계속 재방되는 것도 아니고 한방에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 뭐 10분, 20분, 30분 한다고 해가지고 한방에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뭐 10초 단위, 15초 단위로 나눠 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수산물, 광어나 전복도 여기 홍보에 들어간다고 했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저희들이 시기별로 계속……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요, 그런데 바로 밑에 5,000만 원 수산물 홍보가 또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를 들면……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 돈하고 수산물 돈하고 뭐가 다르냐고, 여기에 또 있다고요, 수산물 홍보가. 방금 전에 광어나 뭐 말을 했는데 수산물 홍보가 또 있다고 5,000만 원이.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러니까 한번 제작하면 그 수산물 안에 야까 말씀드린 대로 해조류도 있고 그다음에 광어도 있고 전복도 있고 돔도 있고 그렇게 나옵시다마는 그것이 한번 방송을 타면……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이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왜 두 가지로 나누느냐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뒤에 보시면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것 뒤에 보시면……

○ **위원장 최정욱**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뒤쪽에 방송표 유치현황을 보고 말씀하시라는 것이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뒤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프로그램 유치현황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것이니까. 유치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70 몇 군데? 77군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77.

○ **김양훈 위원**

여기에서 전복 관련된 것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 김양훈 위원

반절입니다, 반절.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전북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양훈 위원

35개의 반절. 그리고 2019년도 거기도 반절이에요. 거기도 30개가 넘습니다, 62개니까.

보면 전북요리..... 이것 다 형식적으로 그냥 언론사, 매스컴에다가 주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전북양식장 및 요리 소개, 전북양식장 및 요리소개.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프로그램에다가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하나만 더빙하면 다 하는 거예요, 채널이 다르니까. 2019년도를 한번 봐요. 10번, 12번. 어영차 바다야, 모닝와이드..... 다 똑같아요, 제목이. 이것이 무슨 홍보고 프로그램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담당자에게 한번 직접.....

○ 위원장 최정욱

예, 담당자가 일어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여기를 보시면요, 전국에서 완도군이 가장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야까 노출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특별방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여기 방송프로그램 유치현황을 보시면 전부..... 여기는 방송시간이 안 나왔는데 대부분 꼭지프로라고 해가지고 10분에서 13분 정도 되는 방송을 저희들이 작가들과 PD들한테 연결해 가지고 무료로 전부 유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북을 특히 많이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전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 전북만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다른 것도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 돈을 주고 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꼭지방방송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꼭지방방송이 됐든 아니든 완도에..... 그래도 수산물이라고 그러면 전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해조류부터 시작해서 뭐 한두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타 시군처럼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 김양훈 위원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몰아붙이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같은 날짜에 똑같이 나가는 것도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전북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특산품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 좀 골고루..... 어느 정도 (청취불능) 그 철에 나오는 것은 철에 맞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맞춰서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전부 다 “왜 완도는 전북밖에 없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어영차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어영차까지 넘기고 다음 41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CF 모델료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는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축제기간 한 달간 약 8만 5,000에서 9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축제입니다. 청산도는 최초로 11년 전에 추진할 때 1년 관광객이 약 7,000~8,000여명 났습니다마는 지금 한 달..... 1년에 7만 명, 8만 명이 났습니다마는 축제기간 동안에 그만큼 들어오고요, 연중 한 30만 명 들

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산도를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명예군민이자 청산도 홍보대사인 인기 탤런트 손현주 씨가 지난 10여 년간 완도를 상당히 많이 도와 왔습니다.

그러나 축제 이미지와 어울리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해서, 그래서 4,000만 원의 모델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탤런트들은 한번 출연할 때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모델로 해서 슬로시티축제 CF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그 후에 환경변화를 조사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행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이어서 추가로…… 조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본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지로 지정

되어서 2010년부터 착공된 사업으로, 노후화되고 (청취불능) 대체방안 및 침체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항구적인 야외 물놀이시설 계획이라든가, 기타 시설 건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다가 양수기로 물을 펌핑해서 수로를 쪽 만드는 거예요. 수로를 쪽 만들고 거기에서 벤치나 이런 그늘막도 좀 설치하고 중간 중간 쪽 그렇게 해서…… 요즘 아무리 관광지라고 해도 바다에 들어가서 직접 물에 담그는 사람 드뭅니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즐길 거리를 만들어 줘야지.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해 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쪽 해가지고 거기에서 발도 담그고 어린이들이 수영도 하게끔, 중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음식도 배달해서 거기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야지. 무조건 옛날에 하던 식으로 되지도 않는 예산이나 낭비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그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수욕장 전문팀도 개발…… 뭐냐, 새로 내년부터 개설된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구상을 하게끔 연구나 용역을 하십시오. 그런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바닷물을 펌핑해서 물을 담그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음은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구단위변경 용역, 여기가 끝난지 얼마 안 됐죠? 이것은 팀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엇그저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정욱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김용석 팀장님이 세종시에……

○ 박인철 위원

예, 주무부서에서……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담당입니다.

○ 주무관 박성환

(좌석에서) 관광정책과 박성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지구단위변경은 2017년도에 한번 경미한 변경을 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각 지구별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400실 규모로 콘도를 한다고 해양치유 뒤에, 그쪽에 땅까지 했는데. 그때 안봉일 담당 관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지구단위변경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구단위 안에다가 그때 콘도를 한다고 넣어주라고 해도 신지면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반영해 주지 않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지구단위변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년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하고 지구단위변경 용역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필요에 의하면 해마다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도 주기별로 합니까?

○ 주무관 박성환

(좌석에서) 법을 보면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당시 직원들은, 박성환 주무관 앞에 있었던 직원들은 나한테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뭐 도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주무관 박성환

(좌석에서) 아, 그 부분은 조성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 단위에서 관광지구 전체를…… 명사십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랑 같이……

○ 박인철 위원

그 당시 명사십리 여기를 용역을 했다는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호텔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호텔부지 있죠, 그 안에?

○ 주무관 박성환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해양치유도 그래서 그 안에 용도 변경이…… 그 당시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조성공사로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특별하게 여기를 개발할 것이 있어서 이런 용역이 들어온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정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군에서 명사장에 무슨 다른 계획, 금방 허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개발을…… 뭐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경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주무관 박성환

(좌석에서) 예산 1억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가지구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지구에 대한 대체방안을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시설이 현재 명사십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서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상가지구라는 것은 맞구조 철거한 것을 어느 한쪽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느 상가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가가 어디에 있어요, 전부 기존에 하고 있는데, 맞구조를 철거했으니까 그것을 다른 한 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맞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변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물놀이시설이 없어 가지고 외부업체에서 한 달 동안 하는데 한번에 1억에서 2억 이렇게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영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변경계획을 세워서……

○ 박인철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는 이 말이죠, 다른 개인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다음은 노화 건강테마촌 조정 및 가로등 보수 공사입니다. 현재 건강테마촌 조정사업 및 가로등은 2013년에 완료되어서 현재 그 시설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이것이 아무래도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마다…… 뭐 풍수해라든가 또 올해 기간이 지남으로써 노후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테마촌으로 활용하고 있는 10개 단체 또 지역축제, 주민들의 어떤 행사장으로서, 산책코스로서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 및 가로등, 누전과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면 해마다 노화 건강테마촌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조정수와 가로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마십시오,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 넓은 땅에다가 어떤 조정수를 심고 뭐를 할 것입니까? 차라리 다른 예산을…… 대단위로 확보해서요, 다른 사업은 좀 안 하더라도 대단위로 확보해 가지고 조정을 하면…… 거기가 넓지 않습니까, 조정다운 조정을 해야지, 작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도…… 해마다 노화 건강테마촌 예산이 꼭 2,000, 3,000으로 간질간질하게 올라와요, 차라리 2~3억씩 투자해 가지고 한 번에 좀 하지, 이렇게 하면 티도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전부 다 필요 없는 예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데는 진짜 과장님이 화산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진짜 건강테마촌이면 테마촌 답게 가꾸십시오, 기존 건물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 지역에, 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좋아요,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제대로 가꾸려면 가꾸십시오, 3,000만 원을 가지고 가로등 몇 개 좀 고치고 조정도 꽃 한두 송이 심으면…… 그 돈을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티도 안 나는 것.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됩니다.

○ 박인철 위원

현상유지도 안돼요, 지금. 왜냐하면 죽어가는 나무도 있고……

(휴대폰을 들며)

이 카메라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건강테마촌

사진을 맨날 찍고 그러는데요. 참 안 할 사업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흥물스럽게 저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노화주민들이, 사회단체들이 활용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변 조건이나 환경이라도 좋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이면 풀베기를 하는 것도…… 이 풀베기도 노화읍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면 거기 1년에 한 2, 3번 풀베기하면 끝나 버린다니까요, 이 사업은.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런 사업은 많이 잡아 가지고 진짜 제대로 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밑에 두 가지 숙박과 음식점, 두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일반음식점 6개소와 숙박업소 8개소로 총 14개소를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공고를 통해 1개소에 최대 500만 원과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은 노후화된 영업장,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입식테이블. 요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까지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박업소는 트윈 베드 큰 것으로, 그리고 도배와 장판 등 사업을 추진해서 위생업소 환경정비를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관내 노후된 음식점 및 숙박업소가 많아서 사실 이렇게 보조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엄두내지도 않고 하려고도 안 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것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음식점, 숙박업소가 완도읍으로만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12개 읍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대부분 거의 음식점이 완도로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완도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신청에 의해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읍면도 신청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어쩌다 가끔 한 번씩 들어옵니다.

○ 이범성 위원

아니, 주로 하는 것이 완도읍 쪽으로 하는데요. 읍 쪽도 이런 시설자금을 줌으로써 뭔가 관광객들이 오면 음식물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십시오. 사업에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 비싸게 받아버리고, 음식도 10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14만 원, 15만 원, 20만 원 받아 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과 관계되어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는 뭔가 색다르게 그런 음식문화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숙박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 숙박업이면 민박도 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민박은 아닙니다. 민박은 제가 알기로는 농업 쪽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일반 숙박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이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차 삭감대상조서에 따른 18개 단위사업에 대한 추가 보충설명을 한 건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6페이지, 민간이전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운영비 지원 2,26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도 서낙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어린이집은 금당 예꼬어린이집과 노화 넉도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교재 개발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 냉난방비까지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두 군데 어린이집에서 사용한 다음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금액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40페이지, 아래 부분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1억 2,6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친환경농업으로 벼를 재배하는데 제초…… 잡초를 제거하는데 가장 우수한 농법이라고 해서 전라남도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쌀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100% 지원하고 일반농가는 70% 보조합니다.

전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살포시기라든지 업체에서 공모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요,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우리가 권장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친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새끼우렁이가 잡초를 제거해 주고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가 있는데요, 일부 몇 사람들에게 한해서…… 과장님, 그런 내용을 들으셨죠? (예)

그런 부분을 우렁이 재배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확실히 주지를 시켜 가지고 적기에 공급하고요, 그분들이 안 버리고 논에 살포할 수 있도록, 버리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도록 특별히 관리하셔서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하십시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적은 합니까마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신다면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철저히 행정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우렁이 납품업체가 두 군데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완도읍하고 고금면 두 군데에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납품업체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겠는데요, 가서 적정시기에 납품해줘야 이것 사용이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의 적정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같이, 너나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고 시기와 때가 그때 같이 몰려있다 보니까요, 그런 납품업체가 납품을 하는데 적정성을 유지해 줘야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 버리니까 다른 고랑에다가 부어 버리고 그래서 말썽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너무 적었고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데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42페이지, 아래 부분 농축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사업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라든지 포도, 유자 공판장에 싣고 화물차로 간다든지, 아니면 소안도 감귤 같은 경우 택배로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개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택배비하고 화물차 운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영수증에 의해서 50%를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세 가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다음 아래 부분, 완도 자연그대로 통합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귤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비파라든지 그 박스를…… 봄동이라든지, 그런 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부분, 완도 자연그대로 농산물 관광상품 판매장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라는 이것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완도는 농업 세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에 대해서도 열심히 해서…… 굉장히 선도 농업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외 비파…… 올라가다 보면 거기 한군데에 판매장을 개설했습니다. 거기하고 완도읍에 모링가 두 군대를 선도농업인으로 해서 판매장 인테리어를 한번……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고금 주도장도 (청취불능) 접해 있습니다라는 거기도 올해 판매대하고 간판, 그리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포토존 같은 것도 설치해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통합포장재 1억 2,500만 원, 이것 분야별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포장재 디자인사업으로 해서요, 올해도 1억 50만 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요, 내역이 있습니다. 마는 보면 총 44개 농가를 지원했었습니다. 거기

를 보면 쌀, 비파, 포도, 유자, 목이버섯, 비파즙, 배추, 블루베리, 모링가, 노니, 방울토마토, 키위, 봄동, 참다래, 고구마 등으로 해가지고요. 농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군외라든지 완도읍, 신지, 고금. 거의 읍면별로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면 완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품에 대한 포장재는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이 2,500만 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유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도 약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유자라든지 박스 포장재…… 저희가 디자인사업도 병행해서 소안 감축하고 방울토마토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요가 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농업을 주로 하는 농가한테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앞에 물류비, 제가 추관호 전문위원 남하고 군외면 딸기하고 몇 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을 만나봤는데 물류비가 적다고, 그리고 물류비를 타는데 서류가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물류비도……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그런 소지도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아마 실제 납품했던 영수증이라든지, 실제 완도에서 물건을 가락동에 가져다 줬다면 가락동에 갔다 왔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물류비도 어차피 장거리 운송을 하다 보면 농가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비 사업도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 2,000만 원 정도면 몇 농가에게 지원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금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13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 박인철 위원

13농가면 거의 군외면 딸기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13농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금 유자하고 봄동, 방울토마토가 4건, 또 유자, 버섯, 모링가, 블루베리 그렇게 해서 총 16개 농가하고 법인에 2,435만 1,000원이 올해 집행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봄동을 가지고 완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봄동 같은 것은 군외면에서 많이 하고 노화 구목리 이쪽으로 봄동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전부 발떼기에서 하는 것인데 발떼기를 하시는 분들이 와도 우리가 물류비를 지원해 줍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봄동은……

○ 박인철 위원

봄동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

그러면 하시는 발떼기하시는 분들한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 박인철 위원

그러면요? 거의 발떼기로 다 넘기는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발떼기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노화나 청산, 소안은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하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것은 금당에 xxx 씨고요.

○ 박인철 위원

아, 금당에서도 봄동을 많이 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금당도 많이 합니다. 금당 거기만, 관내 농민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판매장 지원이라고 해놨는데요. 왜 모링가나 비파…… 모링가가 뭔지 나는 모르겠고, 대야리에서 하는 차 그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비파는 우리가 6차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른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까는 전년도도 이런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5 대 5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각 농가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 농가들에서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저희가 지원할……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2개 농가네요. 아시다시피 완도에 소위 말하자면 농업으로 돈을 버는 법인이라든지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그 두 업체가 어떻게 보면 완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젊으신……

○ 박인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금도 같은 곳은 귀농해 가지고 버섯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두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발굴을 해야 돼요, 농업축산과에서. 버섯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판매하고 물량이 부족할 정도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포장재나 이런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포장재 지원도 좀 미비한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과 담당실무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고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버섯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요, 또 버섯을 귀농해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섯 같은 것들도, 그리고 소안도

감굴도 감굴작목반이라고 해가지고 신일곱 분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거기에 열명인가, 열몇 명인가 더 감굴작목반에 들어오고 하고 있던데, 그런 곳에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데는 자체재원을 가지고 라도,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발굴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물류비 지원이요, 그 농산판매장까지, 가락동 이런 데까지 가는 것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다른 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품목마다 운송차가 다 다릅니다. 광주 각화동으로 납품할 수도 있고 또 서울 가락동, 또 부산…… 그러니까 이 업체마다 양하고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액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 김양훈 위원

가락동이나 광주 이렇게 농산물유통센터 쪽으로 가는 것만 지원되는 거예요. 따로 옆 동네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포장재 지원,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섯 때문에, 버섯 포장재 때문에, 버섯을 사러 가면 아이스박스에다가 책보로 묶어서 줘니다, 사러 오신 분들한테요. 왜 그렇게 하냐고 하니까 포장재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버섯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판로가 막히고, 비싸다 보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군에다가 이야기를 안 해봤냐고 하니까 전혀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것이 정 시급하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고 제가 스티커라도 사서 좀 붙여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이 좀 됐습니까, 안 됐죠? (예)

제가 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번 에 판매하는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고, 어저께 귀농하시는…… 저도 잘 몰랐는데 고급에서 버섯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장도 하나 만들어서 해봐라.” 고 하니까 “이것 뭐 얼마나 나온다고 판매장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그런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렵게 생활해 나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정말 열성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죠. 잘 홍보하고 검토해서,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45페이지 상단,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동당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50%인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7,500만 원을 가지고요. 사업량은 25동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군비사업으로 추경 때 확보해서 100동에 3억 정도 보급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도비사업으로 25동의 물량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왜 소형저온저장고는 농

민들의 수요가 많은데 갑자기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 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실령이 13억 됩니다. 그런데 농업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도 (청취불능) 그 13억의 범위 내에서 어느 것이 농민한테 소득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도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 실령이 13억이라고 하면 처음 설명했던 새끼우렁이 같은 것은 도비 1,400만 원에 군비가 1억 1,200만 원인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농가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별로 크게, 새끼우렁이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그리고 이것은 원래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새끼우렁이 농법을 했습니다. 말이 돌아갑시다마는 이것은 실패한 농법인데 자꾸 과장님하고 실무부서 팀장님은 좋은 농법이라고 우기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이런 소형저온저장고는…… 2017년도에도 보니까 본예산에 잡아놓고 추경에도 군수납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5억으로 잡아 가지고 갑자기 늘려놔 버리니까 그 뒤로 농민들은 그다음부터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뭐 2019년도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7,500만 원을 가지고 뭐할 거예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이런 예산들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예, 예산팀장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때 실령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그 자체재원으로 이것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령은 자체재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도적용을 받고요. 이 전재원에 대해서는 한도적용을 안 받거든요. 지

금 여기에 있는 소형저장고라든지 새끼우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비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체재원에 대해서만 실링 적용을 받는데 이것이 전산에서 누락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에서 미처 한 3억 정도 되는 군비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울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전재원인데, 이것하고, 위원장님이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그 밑에 2020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회의실에서 국도비를 뺀 나머지……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농협에 대한 자부담을 줄 이자고 4억인가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다 빠져 버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밑에 것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의원들하고 의장님이 주재한 회의에서 의원 9명 전체가 모여서 자체재원으로 해가지고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농민을 위한…… 뭘니까, 벼 건조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소형저온저장고도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팀장님, 이것 추경에 다 잡을 것입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어차피 지방보조금은 예산에…… 저희가 실링을 각 국별로 드렸거든요. 80%만 우리 본예산에 요구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추경에 재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0%만 올라왔기 때문에 나머지 20%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편성을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꼭 예산팀장님도 기억해 났다가 소형저온저장고 이런 것 꼭 좀 해주세요. 진짜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최정욱

445페이지 같이 이것……

○ 박인철 위원

했어요.

○ 위원장 최정욱

했죠?

○ 박인철 위원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잡아 가지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사업인데 국도비 매칭사업만 해놓고 자체사업은 안 실어나 버렸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그러니까 꼭 과장님, 그것은 약속하십시오.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해주게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447페이지부터 하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47페이지 아랫부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계상액은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종자, 그러니까 우량한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축협 위탁사업으로 해서 행정에서 50%, 축협에서 50% 이렇게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료 한 두당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제가 이것도 해놓은 것인데, 예산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재설명을 듣고자 한 이유는 예산이 적다고……

전년도에는 1,800두를 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왜냐하면 한우를 키우는 분들에게 이것이 제일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인공수정료가.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두세 번도 해야 되니까 이 예산도 축산 농가들한테 만만치 않은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건은 대폭 늘려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산 과 실링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5 대 5인데 좀 많이 늘려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인공수정료가.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러니까 재원만 있으면 저희들도 많이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그런 재원…… 어떻게 여기를 많이 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으니까 예산계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실링을 떠나서 선택적으로 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어느 한사람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고 전체 축산농가들한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잡아 가지고요. 아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예산계에 가서 세워줄 때까지 옆에 앉아 있으면 되죠. 왜 실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추경 때…… 매년 보면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아까 소형저온저장고라든지 PLS사업이라든지 축산부문을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농민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인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 추경 때라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많이 잡아 가지고요. 어느 특정한한테 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고루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공수정하게 되면 인공수정 그 액이 있죠? (예)

그것 가격이 다 틀리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가격은 종류, 품종에 따라서……

○ 김양훈 위원

예, 수정사한테 물어보니까 5,000원짜리, 7,000원짜리, 1만 원짜리 그런 식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두당 2만 5,000원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것 수정사들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거기에다가 농가에서 여유가 있으면 자기 부담을 더 해가지고……

○ 김양훈 위원

제가 봤을 때 1만 원짜리를 해도 2만 5,000원이면 충분해요. 가능하면 우량종자 것을 가져다가 인공수정을 해야지. 인공수정을 하시는 분들이 싼 것 갖다가 해주고 비싼 것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종자가 안 나오죠. 이 부분도 가서 이야기를 잘하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농민들이 소외를 받지 않게 필요한 것은 좀 잘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52페이지 뒷부분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한우…… 그 배합사료를 먹이다 보면 배합사료가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 등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축산농가 사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저희 관내에 16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 16개의

경영체가 농가하고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사료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그래서 제조하게 되는 (청취불능) 제조하게 되면 저희가 톤당 5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다음은 453페이지 아랫부분 축산농가 생균제 구입비 4,800만 원

○ 위원장 최정욱

이것 같이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유용 미생물 구입비 200만 원입니다. 윗부분 생균제 구입은 소하고 한우, 돼지 사육농가에 생균제를 주게 되면, 아시다시피 소가 냄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됩니다. 생균제를 먹게 되면 냄새도 덜 나고 또 소화를 도와서 어떻게 보면 생장이 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유용미생물 200만 원, 이것은 양돈 돼지사육농가에다가…… 돼지는 아시다시피 숫기가 많아 가지고 소보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돼지 양돈 농가에다가 이엠을 뿌리면 냄새도 덜 나고 돼지 (청취불능) 저항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양돈 14농가에서 2,400두를 키웁니다마는 거기에 이엠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두 개 다 생균제…… 두 개 다 다 이엠형식이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이엠은 관내에서 구입하고요, 생균제는 별도 약품 형태로 이렇게……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것은 축산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팀장님.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축산팀장 김동균입니다.

생균제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엠은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엠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10일입니다. 생산일로부터 10일이기 때문에 이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바로 뿌릴 수 있게 조치하고요, 그다음에 생균제 같은 경우는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데 먹이는 것이고, 이엠은 바닥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달 구매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생균제 분말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은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사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생균제하고 이엠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생균제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던 것 같은데, 생균제 5만 5,000원 이렇게 비쌌니까? 이것 kg당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5kg입니다.

○ 김양훈 위원

5kg 단위입니까.

그러면 생균제를 먹었을 때 효능과 효과를 아까 이야기했는데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위험소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먹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으면 인증항목에 생균제를 먹이고 있는가의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축산 관련 인증에서도 반드시 생균제를 먹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생균제 같은 경우, 반추동물 같은 경우 위속에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들의 활성화나 그다음에 소화 촉진이라든가 (청취불능) 개선을 위해 생균제를 먹이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각종 연구자료를 보면 생균제를 먹었을 때 개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수입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 김양훈 위원

그 생균제요, 이것이 혹시…… 그러면 생균제가 두 군데로 나온다고 했는데 두 군데 것을 다 사용합니까, 아니면 한 군데 것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번갈아가면서요.

혹시 검사해 보셨습니까, 생균제 검사?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생균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청취불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분말 형태 말고 사료 같이 섞여서 먹이는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우협회장께서 급여를 하셨는데 오히려 살이 빠진다고 하셔서 가지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우협회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사려고 하다가 분말제로 다시 바꿨습니다.

○ 김양훈 위원

분말이요, 그러면 위에 조달청 것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검사는 안 해봤네요, 생균제 검사를?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그것은 허가된 제품이기 때문에.

○ 김양훈 위원

허가된 제품이어도 이것 기간이 넘으면 생균이 다 죽어요. 그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통기간 안에 있는 생균하고, 또 왔을 때 생균하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죽은 생균을 갖다가 생균제라고 줬잖아 큰 의미가 없거든요. 원래 생균제라는 것은 (청취불능) 7회, 7승, 8승 이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실상 검사해 보면 그것이 안 나옵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없더라고요. 생균제가 다 죽어버리고,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에서 이것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햇빛이나 아니면 엉뚱하게 관리가 잘 안 되면 생균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생균이 아닌 밀가루를 먹이는 것이거든요. 기본만 남은 것입니다. 기본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성분표를 따로……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생균이 얼마만큼 들었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생균이 살아있는지.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갖다놔야지. 한꺼번에 다 지원해 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생균이 다 죽고 없는 것만 먹이게 되거든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금년도에는 그래서 1년에 2번으로 나눠서 공급했고요. 전년도에도 나눠서 공급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분말제 형태는 기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냉장 보관 형태가 아니고 그늘에만 보관하면 2년 동안은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실상 검사해 보면 그 생균 개체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로…… 이것 돈이 드는 것 아닙니다. 제약회사에다가 맡기면…… 아니면 거의 보면 그 기체가 있습니다. 생균이 모니터로 보면 개체수가 다 나와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래된 것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왕 지원해 줄 것이면 생균을 좋은 것으로 먹여야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또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니까 성분검사를 해보십시오.

○ 위원장 최정욱

저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축산농가 생균제 구입으로 해가지고 1,920만 원 우리 축산농가가 그렇게 많은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까…… 돼지가 24농가 되고요. 아니, 돼지가 한 200…… 소가 한 500여 농가 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1,920만 원으로 되어 있구먼.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그것은 염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 염소도……

○ 위원장 최정욱

전체 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다음은 454페이지 3건을 일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MR 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5,0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TMR 사료라는 것은 영문으로 total mixed r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배합사료입니다. 그래서 축협 TMR 사료공장이 강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TMR 사료는 수입산 배합사료 10%하고 뭐 (청취불능) 청보리 같은 조사료 50%를 혼합해서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해서 축협에 50%, 우리 군에서 50% 포대당 약 1,600원으로 이렇게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유통비 지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관내 16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에서 조사료 이런 것을 제조해 가지고 강진 공장까지 운반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 포장재 지원사업은 고금하고 완도읍에 축협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판매하게 되면 고기를 절단해 가지고 비닐에 싸주는데요. 그것은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에 갈 때는 아이스박스하고 손잡이가 있는 종이박스를 한번 제작해서요, 축협에다가 이렇게 50% 지원으로 5 대 5로 해서 경상보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이라고 했죠. 축협이나 고급이라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나 먼저 바꾸라고 하십시오. 지금도 녹색한우예요. 녹색한우하고 자연그대로는 다르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브랜드가.....

○ 김양훈 위원

브랜드가 많이 다르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법인으로 되어 있고.....

○ 김양훈 위원

그런데 간판도 안 바꾸고 계속 녹색한우로 가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원을 못 해주죠, 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간판을 신고해서 저희가 몇 번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이 되고.....

○ 김양훈 위원

안 되면 축협에서도, 옛날 축협이..... 완도그대로가 나오기 전에 축협에서 만든 것이 녹색한우였는데, 축협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요. 안 되면 자기를 일이나 거기에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자기들이 예산을 따든 간판을 바꿔야지. 녹색한우하고 자연그대로는 전혀 안 맞는 성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을 것 같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축산팀장의 보충.....

○ 김양훈 위원

예.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고급지점하고 완도지점은..... 완도자연그대로 한우전문판매점, 축산전문판매점으

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해서 현재 간판을 걸었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급도에서 식당하시는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간판을 바꿔보려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소요하지 못했습니다.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하여간 그것은 브랜드에 맞게 해서 집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녹색한우라고 그러면요. 전부 다 녹색한우, 녹색한우..... 다른 데에 가보면 전부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마지막으로 456페이지 윗부분, 논타작물 기계 장비 지원사업. 이것은 (청취불능)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료 경영제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트랙터 한 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타작물 재배나 이런 것은 쌀이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쌀을, 타작물을 유도합니다. 사료를 재배해서 축산..... 콩을 키운다든지.

그래서 타작물 기계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쌀 생산량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시책, 국가정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 농기계 임대에서는 이런 기계가 없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 위원장 최정욱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이 기계가 없냐고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 기계. 농기계 임대사업에서요. 이것은 말 그대로 쌀을 제조하고…… 거기를 임대하게 되면 그것은…… 임대 농기계는 여러 농민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농기계로만 배치되어 있어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심의결과 재설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4건입니다.

535쪽,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입니다. 본사업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현장 대응 출동수당으로 지급대상 의용소방대원은 668명이며 재난재해 발생 시 수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출동수당 지급은 연인원 563명에 총 지급액은 2,537만 원입니다. 앞으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재해 수습을 위하여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설명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해 시 이런 것도,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수당을 받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자기들 경비도 하고, 다 소방대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도군 소방

대의 현실이…… 소방대 예산, 저는 전부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출동수당만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대장이 잘못해서…… 물론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소방대장이 잘못해도 해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완도소방대원들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지금 반절로 쪼개져 있어도 자기들이 행사를 잘 치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소방대장이 한없이 밍고, 어떻게 보면 완도군을 우세시키기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제 생각은 전체 삭감해 놓고, 나중에 세워주는 한이 있어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서 하시고요, 반드시 소방대 출동수당은 줘야 되지만 서로 상호간 화합을 하려면 뭔가 큰 타격을 줘야 된단든지, 어떤 중요한 혁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53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부지매입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사무실이 없는 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9년 의용소방대 혁신전진대회에서 도지사님께 약속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소방본부에서 시군별 5개년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완도군은 총 4개소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완도군 2020년도 후보지는 2개소로 생일면 유서리하고 약산면 군유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약산면 장용리는 사유지라서 매입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남 소방본부에서 개소당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무실을 신축할 예정이며 부지는 시군에서 확보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완도군 12개 읍면 전체 의용소방대원 사무실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지금 완도읍 같은 경우는 소방센터가 있고요.

○ 박인철 위원

완도에 없습니다. 거기는 연합대가 쓰는 것이지, 완도소방대가 쓰는, 남녀 의용소방대가 쓰는 사무실은 아닙니다. 전에 내가 알기로는 소방 차고지를, 보길면사무소 위에 소방 차고지는 만들어 줬는데요, 차고지가 겨울에 동파된다고 해가지고 차고지는 만들어 줬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청산면 식으로 그렇게……

○ 박인철 위원

거기는 119센터 형식으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약산, 고금도에 119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119센터도 아니고 이것이 119센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과장님이 고생하셔서 가지고 의용소방…… 완도소방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 소방파출소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무실도 이제 유일무이하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에 합숙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이 될 텐데, 약산면에 이렇게 신축 부지로 해가지고 신축이 된다면 너 나 없이 읍면에서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 김재홍 위원

(의석에서) 아니, 군외에는 의용소방대 사무

실이 있어요.

(방청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최정옥

예.

(방청석에서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시군별로 5개년 계획을 도지사님이 약속해서 작성해 놅습니다. 그래서 완도는 전체 다가 아니고 50%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소방서가 없는 곳은……

(방청석에서 “우선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계획이 나오겠죠,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6,0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6,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방청석에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안 만들 고요. 어차피 읍면에 회원들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생일이나 완도읍도 남녀 의용소방대가 안 많아요. 소방서에 30명인가 35명. 옛날에는 숫자와 관계없이 했는데 지금은 숫자에 목을 박아 버려요,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완도도 남녀 해봤자 완도가 다른 읍면보다 숫자가 조금 많은데 70명인가밖에 안 돼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향 출신인 도지사님께서 약속한 사항으로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협조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아니, 약산은 고금하고 같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회의하고 그럴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가.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도에서 알

아서 하나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 김양훈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다 해주려고 하면…… 아까 50%만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누구는 해주는데 누구는 안 해주겠어요? 하게 되면 다 해야 되고, 지금 남대, 여대가 있는데 하다 보면 남대, 여대 다 분리해 주라고 할 것이고.

아까 6,000만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몇 평짜리를 6,000만 원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오케이 떨어지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 계획은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으로 시군 협조사항입니다. 부지만 제공해 주라는 그런 얘기에요.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그러면 부지를 좀 더…… 읍면에 없는 데를 다 해주고, 일식으로 다 해주라고 하면 안돼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우선 5개년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 계획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 박재선 위원

(의석에서) 아니, 2021년하고 2022년은 없지 않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다른 시군도 배정을 했겠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배를 하다 보니까.

○ 김양훈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저는 이렇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뛰어오지 않습니다. (청취불능) 먼저 절대 안 뛰어옵니다. 예전에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불이 나거나 그러면 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일부 문자를 안 보내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청취불능) 소방대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문자는 줄이고 삭제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산불이 나고 뭐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절대 먼저 안 뛰어와요. 실상 뛰어오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 아까 뭐 수당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쳐다보고 가고 수당을 타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 우성자 위원

(의석에서) 소방대원들이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 김양훈 위원

그분들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의용소방대니까 나와서 대장이 쳐다보고 있고, 나머지는 다 곳을 보다가 “아따, 우리 고생했다.”라고 그리고 가는 것이지. 실상 고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사무실 부지를 다 매입해 준다.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감당하시겠어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제가 사심 없이 말씀드리다면 생일면 같은 경우는 균유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약산면은 균유지가 없어서 사유지 매입으로 1,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사기진작……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 김양훈 위원

진짜 의용소방대가 열심히 해가지고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더구먼, 자기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는 매입하고 안 되면 5 대 5 매칭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전체적으로 다 해줘라. 그러면 건물은 지어주겠다.” 라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됐죠, 김양훈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54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청취불능) 지역의 미정비된 농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군특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군 자율편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서상에는 순수 군비로 나타나 있지만 향후 3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실상 매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기계화경작물 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지 수요를 조사하였으며, 내년도에 노화구석지구와 군외 불목지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설명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54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유지보수비입니다. 현재까지 완도군에서 추진하였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 6개의 권역으로 완도 청해진 권역 2011년, 금일 다시마권역 2012년, 군외 첫마을권역 2009년, 신지 명사십리권역 2010년, 고금 청학권역 2011년, 약산권역 2007년에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설된 도농교류센터 및 소득사업 시설물은 소유권이 완도군으로 되어 있으나

지침상 소득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권역들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 시설물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고 매월 부담하는 전기료조차도 납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농산농촌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 2019년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 동안 권역별 점검한 결과, 권역별 사업이 5년 이상 경과된 권역의 경우 건축물 및 체험장에 결함이 발생되어 추진위원회의 유지보수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에 비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농산농촌 유지관리 지침에 의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군비로 지원 가능함에 따라 이를 보수하여 권역별 보수비용을 덜어주고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권역별 추진위원회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 본예산으로 군외 첫마을권역 카라반 노후화로 인해 가동되지 않는 에어컨 및 냉장고 교체와 다슬기 체험장 수문 교체비 등으로 3,000만 원, 신지 명사십리권역 정자 보수 및 화장실 타일 보수, 칸막이 도색 등으로 2,000만 원, 고금 청학권역 회의실 식당 내부 화장실 타일 교체비용으로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로 3개 지역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보충자료를 놔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농촌…… 원동 첫마을권역으로 첫 삽을 떠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탐장님을 하실 때 이 사업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우리 원래의 취지대로 가는 사업이 하나도 없거든요, 권역별로 소득증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의 그 권역에서 직영하는 곳은 전혀 없고 다 위탁해 가지고 얼마씩 받아 가지고

하고, 군외면 첫마을권역도 어떻게 보면 개인사 유화가 되어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돈을 잡아먹는 하마가 될 것인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애당초 첫 취지대로 그 권역에 속하는 소득중대, 뭐 그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이 사업은 팀장으로 있을 때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의 사례를 찾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농촌을 살을 찌우게 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했으나, 사실상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여도 하고 그랬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추진위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봐도 중앙정부가 또 다른 지침을 만들어서 획기적인 무슨 전환점을 만들어야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죽청리 권역도 보니까 3개 마을이 됐는데요, 나머지 SOC사업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건물이, 거기도 보니까 전기세도 못내 가지고..... 또 여름철에 민박시설도 해놨던데 마을형편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신지도 보면 위에 전부하고 나서도 여러 차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여기 설명서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그러고, 한여름철에 잘만 운영하면 나름대로 관장을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올해는 6,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여섯 군데에 해년마다 다 들어갈 것인데.

이 문제점이에요, 올해 당장 6,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이 다른 방법을..... 중앙부처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을 것이고, 이런 데에, 더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말 것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현재까지 묘안은 없고요,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한 관계 (청취불능)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고요, 또 이번 차제에 이것을 보수하지 않게 되면 중기가 더 커져서 더 많은 치료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초동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카라반 같은 것은 우리 군 재산입니까, 아니면 여기 재산입니까?

(방청석에서 “군의 카라반 같은 경우는 4대를 군에서 매입했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4대를 더 추가 설치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 재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완도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전체 군에서 해가지고..... 그것은 어렵죠, 땅 같은 부지는 우리 군 것이 아니니까요.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땅은 우리 군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해 가지고 직영하는 쪽은 어떻습니까? 관광지와 다 접근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곳은 놔두더라도 안 되는 곳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직접 운영은 사실상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올지 한번 타당성을 따져보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있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만약에 수익성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군외면 첫마을 권역은 하고 있는 분하고 이 마을하고 어느 정도 계약을..... 계약서 그런 관계는 알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지금 군외 카라반 같은 경우는.....”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카라반은 놔두고.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카라반 말고.

○ 박인철 위원

군외 첫마을권역 판매장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데는 만약 운영하는 사람이 마을하고 어떤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청석에서 “판매자는 농촌마을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방청석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 안전건설과에서 안 했습니까?

(방청석에서 “농촌개발종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별도예산으로 그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별도예산으로 했는데 첫마을권역으로 해가지고 같이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통째로, 그 계약 조건을 알고 있냐는 이 말이에요, 건설과에서는.

(방청석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돈의 쓰임도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흑자는 안 됐으나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방청석에서 “예,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심각하게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오후 5시20분까지 정회하

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주도 앞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주도 앞에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승강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도블록,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이 가미된 환경으로 개선해서 주도 앞 자체를, 그 공간 자체를 관광객과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예쁜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용역을 했을 때 용역팀에서 주도 앞 그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한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지역개발과장님의 생각은 좋으나 이번에 관광정책과에서 주도 앞을 전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용역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은 관광정책과에서 최종용역이 끝나고 나서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추경이라도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지역개발과에서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린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데크시설로 해가지고 주도로 돌리고..... 지역개발과는 그 앞 일부분만 하는데 관광정책과에서는 수십억짜리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거기에 묻혀 버린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은 계획이나 관광정책과가 끝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하고 이중으로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위원님의 생각이 옳으실 수도 있지만 관광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으로, 주도 앞을 예쁘게 꾸미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한 60~70억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되려면 최소 3년, 4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선 주도 앞이 너무 지저분해서, 주도가 명물인데 너무 지저분 해서요, 그 앞을 포토관으로 꾸밀 수 있는 예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지 않겠냐, 1억이면 큰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냥 지저분한 것 다 철거해 버리고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2~3년이 걸리겠지만 그 계획에 없으면 1억이 아니고 더…… 과장님의 말씀처럼 포토존을 잡아 가지고 더 하는 것이 좋겠으나 1억이라도 해놓고 나면 바로 뒤따라서 관광정책과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것까지 다 잡아먹어야 되는 데, 관광정책과에서 이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림상으로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가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참고로 관광과에서 지금 용역을 해놓은 것은 공공디자인 용역내용을 참고해서 만든 디자인안일 뿐일 것입니다.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주도 앞 그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앞의 공간을 우선 시범거리로…… 또 행안부의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으로 그 앞에 건물 윗면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배려해 주신다면 건물과 바닥, 보도까지 같이 합쳐서 예쁘게 꾸민다면

사업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십시오,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계속해서 511페이지, 다도해일출공원 데크계단 미끄럼방지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완도타워에서 내려가는……

(자료를 들며)

이 사진에서 보시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모노레일 승강장에서 올라오는 길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해맞이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미끄럽고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이어서요, 그것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의 데크시설 끝부분에 이런 (청취불능) 시설들을 입혀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로 4,5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기존에 미끄럼방지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미끄럼방지시설이라기 보다는 페인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이 물건이 특허입니까, 아니면 입찰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것은 아직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항간에는 누가 군수님을 만나 가지고 뭐라 했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소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어느 업체에서, 미끄럼방지 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타일식으로 가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데코타일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가, 앞에다가 천만 붙여버린 것인데, 뭐 그런 소설은 아니겠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은 사업시행부서고 그런 부분들은 계약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맞다,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저희는 사업이 필요해서 요구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 귀에는 들려요, 누가 이야기해서 누가 뭐했다고, 진짜인지, 소설인지, 희극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한 거예요,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러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위원님. 그런데 현장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사고 위험도 상당히 있고요.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사고위험예방시설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물건을 관급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뭐 해가지고 하면 소설대로 되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차피 이것 바닥…… 똑같은 내용이던데, 바닥 교체공사, 이것도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도……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511페이지를 보면 완도타워 주변 바닥 교체공사가 있는데, 완도타워 바로 안에 그 바닥입니다. 그 바닥 쪽이 깨져 가지고, 저쪽 봉수대를 올라가는 쪽까지 깨져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뭐 질문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이야기를 할게요, 바닥이 깨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유리창 공사를 하는데 크레인 큰 것이 올라갔는데요, 여기를 돌로 해놨는데 안 깨질 리 없죠.

과장님이 해조류사무국장을 할 때 바닥을 교체했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해조류센터를 말하시는 것이죠?

○ 박인철 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제가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하고 똑같아요, 차들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재질로 하면 또 깨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진

입해도 안 깨지는 재질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석재로 하면 그 무거운 차들이 와서 크레인 같은 것 다리를 내려서…… 아무리 밑에 다가 나무를 받친다고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만 해도 우습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재질을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계속해서 513페이지, 빙그레공원 신포포 방수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구포포 방수 공사를 3,000만 원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데 신포포도 2009년도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꾸 누수가 생겨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수공사를 해야 돼서 3,0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513페이지 같이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리고 빙그레공원 만남의 광장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빙그레공원 그린폴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원을 꾸미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을 다 철거하다 보니까 공원만 2억 5,000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 앞부분은 그냥 놔두면 공원과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이왕 공원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앞부분까지 넓은 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비 1억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폭포도…… 아니, 이전에 분명히 예산서에 폭포 방수가 올라왔었는데 올해 또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위치가 달라요.

○ 박인철 위원

구폭포도 있고 신포포도 있고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저수조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것은 기존에 만들었던 폭포, 지금 폭포를 두 군데 만들었거든요, 기존 폭포의 방수고, 이번은 신포포 이렇게……

○ 위원장 최정욱

이번에 하는 것은 신포포구면,
(장내 웃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저수조가 그렇게 생겨 가지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신포포, 구폭포라고 이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수조가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 위원장 최정욱

훌륭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희들이 만든 용어입니다마는……

○ 박인철 위원

뭐 폭포 방수가 들어와 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 박인철 위원

이전에도 한번……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 박인철 위원

올해도 했고 그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신평포, 구포포라고 이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만남의 광장, 사석에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가 무슨 넓은 장소도 아니고, 거기 공사가 끝나고 가림막을 뜯어보면 아는데, 제가 거기 앞에서 차를 마시면서 자주 봤어요, 뛰어들어다니는 것도 봤고, 암반이라든가 낙석, 이런 것을 다 끄집어낸 것도 봤는데, 여기예다가 만남의 광장 뭐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방금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도로 폭 자체가, 보행도로가 6M 정도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현재는 도로가 윗길, 아랫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설치해 놓고 주민들이 윗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랫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 뜯게 생겼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공원은 예쁘게 만들었는데 앞에 6M 폭의 그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거기를 뭔가 예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KT 케이블선 이만한 것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을 암반석으로 집어넣으려고, 밑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밑으로 못 내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50cm 정도 높여야 될 상황인데 50cm로 높이려면, 그것을 높여버리면 계단이 50cm이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광장을 좀 예쁘게 만들면 좋겠다고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고민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보면 그앞에서 어르신들이 편히 그냥…… 그것 지금 몇 번 고친 것입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신평포 단장이 과장님 자리에 있을 때 손을 몇 번 댔고, 데크도 댔다가, 돌로 댔다가 뒀다가……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 자리가.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을 다 했는데도 다 뜯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위험 때문에, 낙석 위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거기를 보면 그 큰 나무들은 철거를 안 했더구먼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것은 살릴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늘 같은 데에서 여름에 편하게 그냥…… 전체가 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하게 만남의 공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요. 거기에다가 특별하게, 아주 특별하게 뭐를 만들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보기 싫어서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거기에다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봄에는 개나리가 피고 여름에는 폭포가 내려오고, 가을과 겨울은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에다가 사계절을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넣는다고 하면 100번, 1,000번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것은 위원님,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공원은 둘째고요. 그 위에서 물이 지금 계속 흐르다 보니까 돌이 계속 깨져 가지고 돌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청취불능) 비석거리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안전망 그런 것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

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이것을 넣어 가지고 특별한 무슨 공원이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복구해서 통행도 되고 편히 그냥 앉아서 쉬고, 왜냐하면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한 6M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 박인철 위원

6M 공간이…… 6M로 무슨 공원을 하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공원이 아니고요, 공원은 앞에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경계석, 자연석까지가 공원이고요, 그 경계석부터 도로 끝선까지 6M 폭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들을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가, 그러니까 공원은 저희들이 공모 사업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완성을 시키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돈으로 하고 그 앞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미끄럼방지 밑에 인도도 있고 그러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것은 이미 떨어버렸습니다.

○ 박인철 위원

하다 보니까 떨어었는데 원상복구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1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 박인철 위원

6M…… 공원이라고 합시다.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데 만남의 광장이나 공원이냐…… 바로 몇 M 안 가면 장터입구에 뿔니까, 쉼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공원과 연계하려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경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완도읍 시가지에 여러 가지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암리에 몰빵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왕 할 것이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게끔 사업을 해야지, 찢끔찢끔해서는 안 된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려면 돈을 더 해가지고 사계를 넣으니까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삼계까지 들어갑니다.

○ 박인철 위원

사계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삼계까지 들어갑니다, 삼계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성한 내용을 보면 추운 겨울 외에는 삼계절까지는 충분히 공원으로써 가치가 있게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봄밖에 없는 것 같던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닙니다.

○ 박인철 위원

가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번에 하는 것에 가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가을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조성하는 식재에 따라서, 수목이라든지 초화라든지 그 식재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까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겨울까지 넣으십시오, 차라리. 여기에다가 만남의 광장을 하지 말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경관팀에서 이왕 한 김에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본다고 하니까 예쁘게 봐주십시오. 우리가 뭐 돈을 무의미하게 쓴다거나 다른 데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 박인철 위원

나도 완도읍 출신인데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 만 6M에다가…… 넓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폭은 6M에다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면 예산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거기에다가 뭐를 집어넣느냐는 이 말이에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하려면, 진짜 하려면 멋있게 해야 되는데. 위치상 그렇게 땅 용도가 협소하다는 이 말이에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러면 조금만 삭감하고 세워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솔직히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관팀이 올해 새로 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모사업만 해도 11건, 뭐 9억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과거의 경관팀하고 시각 자체가 다릅니다. 완도읍에 대한 어떤 경관들을 새롭게 꾸며보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다니까요. 좋으니까 어디 위

치를 진짜…… 위치상 이 장소가 너무……

기존 그것도 좋아요, 있는 그대로 기존의 것도. 그런데 위에 낙석 때문에 공원을 재정비하는 데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이 끝나갑니까는 저기 경도빌딩입니까? (예)

이것도 얼마나 의회에서 조인호 의장님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시내에서 말이 참 많이 나왔잖아요. 안전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그러는데, 그런 맥락에서요.

왜냐하면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할 데에다가 하는 것이…… 돈 1억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공간이 되면 10억이 들어도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면요. 지금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원을 꾸미는데 원상복구를 할 예산…… 그러니까 어설프게 원상복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항 자체가. 그러니까 공원을 꾸며놓고 그 앞을 영성하게 놔두면 이것은 모양이 빠진다.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상복구까지 계산하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서 했는데요.

위원님, 이왕 모양이 빠지는 것보다 좀 더 예쁘게 꾸미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쁘면 좋다니까요. 그것은 100번, 1,000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런 것을 한 번 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경관팀에서 예쁘게 꾸민다고 하니까 좀 해주시고요.

517페이지에 있는 청산 범바위 데크시설 정비

는 기존에…… 그 전망대 앞에 있는 테크시설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테크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테크 일부를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관광정책과에서 범바위 디자인 조성사업이 있죠? (예)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 싶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제가 그것을 확인했더니 그것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사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쪽 범바위 자체적으로…… 용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는데, 왜 또 그 부분만 빠집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관광과 사업비를 정확하게 못 봤는데요. 아까 통화로만 했을 때는 거기에 시설사업…… 그 개보수사업 안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보수가 시급해서 본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용역책자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호랑이도 만들어 놓고 아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같이 맞춰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 내년 초에. 그래서 2,000만 원입니

다.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좀 큰 액수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요.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2,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예)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 김양훈 위원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거기에 뭐 조성사업을 한다고 뒤집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예산만 날아가는 것이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 김양훈 위원

다시 한 번 관광정책과하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니, 아까 추교상 탐장하고 정광민 과장하고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 서류, 용역책을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마지막으로 514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2월이고 약 166억 정도의 예산으로 공모를 신청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쪽에 장터에서…… 그러니까 구원도 심거리죠. 5일 장터에서 들어오는 일방통행도로 그쪽에서부터 토방식당까지 그 거리가 원도심거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 공모를 하려면 과거와 달리 군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

이…… 재할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지표 점수가 다릅니다. 특히 이번에 평가할 때는 100점 만점 중에 30점이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느냐. 군이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 재생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느냐.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평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원도심 주민들을 일일이 접촉해서 건물을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사진에서 본 2개의 건물이 매입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왼쪽 건물이 1억 8,000, 오른쪽 건물이 1억 5,000 이렇게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주거이전은 빼놓고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 설명대로 꼭 두 물건들이 있어야 가산점이 이렇게 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너무 시기가 그렇지 않느냐. 올해부터 이것을 하고 있죠, 공모사업?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올해는 우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요. (청취불능) 내년 2월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데 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가 빠르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있어야 점수 100점 중에서 30점을 받는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또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계속해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470쪽입니다. 장보고공원 펜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장보고공원 옆에 주차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설치해 놨거든요. 청해진달빛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미관상 펜스를 철거하고 저희들이 (청취불능) 나무를 울타리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다가 무슨 펜스를 설치하느냐. 그러면 여기를 펜스 설치공사라고 하지 말고 나무 식재로 목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펜스라고 해놔서 무슨 공원에다가 펜스를 설치하나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무 식재라는 말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울타리에 나무를……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목을 변경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다음은 예산서 471쪽, 장보고공원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1,000만 원입니다. 장보고 내에 청해사하고 장보고항상이 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가 옛날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변이 아니라 상왕봉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고 해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30억 들거든요. 2021년도에 그 예산을 요구하려면, 문화재청에 요구하려면 기본계획용역으로 해가지고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장보고공원에 전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재청에 이 용역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30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까? 장보고공원 전면 재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그림에 나와 있는 사당하고 흉상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청해사 같은 경우는, 사당 같은 경우는 9평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작고……

○ 박인철 위원

공원이 있고…… 여기 장섬에 장보고사당이 있잖아요, 장좌리 당제를 지내는 곳.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서……

○ 박인철 위원

거기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사당을 또…… 공원에다가 사당을 다시 하는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사당이 아니고요, 장좌리에서 (청취불능) 사당으로 이렇게……

○ 박인철 위원

장보고공원에다가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요, 아니요. 기존 장도에 있는 사당은 연구해서…… 그렇게 그쪽으로 설명을 하더라도요.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좌리에 당제를 지내는 거기에 가서 초상화를 하나 뒀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공원에다가 무슨 사당을 한다고 이러니까 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용도가 확실히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말이지요, 다른 것은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다음은 예산서 744쪽, AR 연동 로봇물고기 수족관 설치 2,000만 원입니다. 설치장소는 해양생태전시관 로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보면 볼거리가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해양과 로봇기술을 융합해 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족관 4대, 로봇물고기 10대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소장님? 어촌민속전시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예,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 2월 초까지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도 2월 초까지입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콘텐츠는 다들 옛날 것 그대로 놔놓고 하나도 바뀌지는 것 없이 거기예다가 그냥…… 아무리 4차산업 혁명 시대라고 하지만 AR 로봇만 로비에다가 놔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이 나……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 장좌리 해양생태전시관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장좌리 해양생태전시관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집어넣었습니까, 거기예다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그런데 건립해 놓고, 전시관을 개관해 놓고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래서 건축비 따로…… 안에 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것이 전시실 중에 인기 있는 수족관입니다. 로봇물고기가.

○ 박인철 위원

아니, 로봇물고기 10대 해가지고, 수족관이 4개 인데 10대 해가지고 무엇을 전시할 것입니까? 차라리 2억으로 해가지고 진짜 대단위로…… 이것만 보더라도 1시간 넘게 끌 수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그래서 로봇물고기는 다음에 저희들이 더 구입해서 추가로……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장보고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28쪽입니다. 토종자원 코끼리마늘 단지 조성 시범사업 8,400만 원입니다. 청산도에서 마늘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재배 같은 경우 농협에서 구매하는 가격이 상품으로 해서 3년 평균 한 3,000원 정도 됩니다, kg당. 그러나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약재배로 할 경우 kg당 한 6,000원 정도로 해서 거의 100% 이상 그렇게…… 고가로 계약재배를 하고요. 또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이거니와 코끼리마늘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경관조성까지. 그렇게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는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소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코끼리마늘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별마늘 같이 이렇게 벌어진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일반…… 샘플이……

○ 김재홍 위원

샘플이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샘플은 없습니다마는 일반마늘하고 크기가 틀립니다. 일반마늘은……

○ 김재홍 위원

아니,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별마늘 같이 벌어진 것……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것이 막 수확했을 때는 벌어지지 않는데 건조과정에서 벌어지면서 한쪽이 일반마늘 한 통 같이 그렇게 큼니다. 굉장히 쪽이 큼니다.

○ 김재홍 위원

완도 말로 다마가 크다는 이야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렇죠, 그렇죠.

○ 김재홍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방금 경관작물 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채소는 경관작물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요.

기술센터소장님, 마늘은 어떻습니까. 채소라고 합니까, 과일이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채소요.

○ 김재홍 위원

채소죠,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을 보면 경관작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부수적으로 꽃…… 우리가 경관작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 김재홍 위원

방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이것이죠.

○ 김재홍 위원

농가소득이 될 수 있으면 변정을 좀 해보라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예,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일반마늘보다 소득이 배로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말할 때는 마늘종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소장님의 말씀처럼 이것 소득이 좋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생식으로, 생미늘로 섭취했을 때는 마늘하고 양파의 중간 맛이 납니다.

○ 박인철 위원

전혀 맛이 없던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래서 생식으로 먹기에는 맛이 덜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약 재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계약했던 그 회사에서 전부 다 흑마늘 내지는 마늘엑기스를 추출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재배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맛도 없고 소비도 안 되고 또 판로도 없고 그렇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말씀처럼 좋은 단가에 판매되고 그렇다면……

3헥타르 이렇게 해가지고 8,400만 원인데 이것은 종자 가격입니까? (예)

그러면 100% 지원입니까, 종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지금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3헥타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액 계약재배입니까, 그냥 전량 구매됩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하고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달라서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고자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소장님, 이것 주로 어디에서 계약재배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청산에서 마늘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주생산지는 청산이기 때문에 청산에다가 집중적으로……

○ 우성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주 사 가시는 분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유통회사 쪽에서 계약을…… 유통회사하고 같이 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이죠, 올해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계약재배를……

○ 우성자 위원

계약재배를 처음하시는 것이라고요. 아니, 그것을 소량으로 몇 개 심어봤더니 진짜 맛도 없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래서 양마늘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무슨 소득이 생길까, 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꽃은 예쁘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궁금하기도 궁금했는데, 흑마늘이 좋다고 해서 한번 구매해서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마늘통이 굉장히 크니까 흑마늘로서는 굉장히 상품성이 있고 그래서요. 아마 회사에서도 그런 가공을 위해서 계약 재배로 해서……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군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재배하게끔 종자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어떤 작목 전환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재료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종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를 들어 올해 성공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일단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득이 된다면 군이 농가 자부담으로 해서 밀고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관련 재배해 보고 성과물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보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리 이것…… 약은 된다고 말은 하는데 뭐 맛도 없고 어디에 쓸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시면……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소장님. 일단 잘 들었습니다.

가져갈 사람들과 계약재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가지고 간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안 가지고 가버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 가지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자하고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 이범성 위원

아, 업자하고 말로만 했느냐. 아니면 계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산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죠, 농가들을 선정해 가지고.

○ 이범성 위원

그 부분은 확고하게 뭐 한 톨도 없이 다 가져가는 부분이 되겠다는 이것이지요. 그것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이거예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확답해 주시면 중자비라도 해가지고 재료비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생각하했는데, 그 부분들이…… 가가지고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님이 책임을 다 지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따져 묻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 부분은 하여간 예산이 성립되어 가지고 농가가 확정되면 농가 개인별로 전부 다…… 개개인별로 계약하게끔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겠

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중간 역할을 하고, 만약에 가져가는 집은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집은 안 가져가고, 누구는 마늘이 크니, 누구는 마늘이 작니 여러 가지로…… 코끼리마늘도 큰 것은 크고 작은 것은 작더라고요. 코끼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나는 코끼리마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다음은 631쪽입니다. 치유기능성 색깔보리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1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면적이 100헥타르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단위가 크게 보인다는…… 실질적으로 300평 단위로 끊는다면 300평에 10만 평 지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통해 가지고 전량 계약회사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 고금, 약산, 노화, 신지로 해서 5개 단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이 시범이죠? (예)

시범인데 이렇게 100헥타르 정도로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섯 군데가 아니라 먼저 한 군데라도 해보고 이것이 진정하게 되면 그때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금년에 실은 조생종하고 이모작하고 해서…… 보리하고 벼 이모작하고 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화를 해놔야 만이 차후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는 그런 상황에서……

○ 김양훈 위원

소장님,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학습단체하고 시범사업, 연구 이런 것이 주업무고요. 여기에서 성공하면 축산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시범단지에서 성공해서 잘 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확정된다고 그러면 축산과로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쪽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왔으면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상에서 나머지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뭐 의미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대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추진흐름은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요. 거기에서 성과가 좋았을 때 자체적으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성과물이 우리 지역에서 도출될 때 그때 행정…… 농업축산과로 이팔을 해가지고, 저희가 알려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단지화를 더 하느냐면요, 실질적으로 한두 농가가 재배해 가지고는 이 회사하고 계약재배를 못합니다. 그러면 계약재배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가격폭락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재배농가들의 생산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지화를……

○ 김양훈 위원

소장님, 다 좋습니다. 이렇게 (청취불능) 하고 계약할 때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1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1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니고.

또 1억이라는 돈은, 시범적으로 1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보면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는데 농민들한테 가서 진짜로 이것이 큰 사업

이 되고 소득사업으로 다른 타작물보다 크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시범적으로 이렇게 단지조성을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를 먼저 해버리고 거기에 20헥타르, 30헥타르로 한번 해보고 거기가 성공하면 점차 늘려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5개 지역에서 자기들도……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올해 한번 해가지고 수확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올해…… 작년에 해가지고 일부 최종단지로 해서 수확해 가지고 종자형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격이 보장되니까 농가들도……

○ 김양훈 위원

종자형으로만 했다면 그러면 판매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종자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우리가 할 때…… 올 가을에 파종을 했죠.

○ 식량작물팀장 배천호

(좌석에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배천호입니다.

작년에 17헥타르를 2018년도에 재배해 가지고 총 50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중에…… 110헥타르 파종계획으로 해가지고, 22톤을 제외한 나머지 28톤에 대해서는 판매를 했습니다.

일반보리는 40톤에 한 2만 8,000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색깔보리는 40에 4만……

○ 김양훈 위원

아니, 수익성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경우 밀이나 보리가 전부 다 수입 아닙니까. 당연히 잘되면 농가들한테

는 엄청나게 파급적인 효과가 와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기는 사업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범사업을 하면서 너무 크게 한다는 얘지요. 일부 더 해보고……

아까 뭐 해봤다고 하는데 그때는 양이 얼마 안 나와서 (청취불능) 있었지만 추후 대량으로 갔을 때는 가격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뭐 많이 나오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한 50헥타르로 줄여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된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한 번 더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산에만 50헥타르를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른 읍면에서도 자꾸 면적을 확대해 주라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청맥하고 계약을…… 구두로 확정된 면적이요, 70헥타르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해남에 있는 회사와 30헥타르를 계약해서 전량 100헥타르를…… 전량 계약 재배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옛날에는 이런 단지화가 없어 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900평, 뭐 1,500평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어 가지고요. 단지화를 하면 기본 50헥타르, 100헥타르가 기본입니다. 면적이 그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면적과 단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지고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을 가져오기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국비라든가 도비라는 것은 쉽게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국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얘기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그렇죠. 가능하다면 국비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를 가져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색깔보리라고 했는데 색깔이 몇 가지나 나오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현재 확실하게 말한다면 3색 정도로 나오고요. 저희들이 일반 색깔 없는 것하고…… 그래서 최종목표는 5색 정도로 해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 다섯 가지 색깔로요. 그러면 색깔에 차이점이 있어요, 성분이나 이런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성분을 보면 색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죠.

○ 김양훈 위원

보리 다섯 가지 색깔이면 색깔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거의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김양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 없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가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632쪽, 고품질 친환경쌀 잡곡 등 수출생산단지 육성시범입니다.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쌀을 일부 미국하고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 수출하는 데에 힘을 입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컬러보리, 그것도 수출 쪽으로 연계시켜서 하기 위해서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633쪽입니다. 드론활용 비행공직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농촌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령화로 인해서 영농을 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드론을 구입해서 파종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할 수 있게끔, 드론을 구입해서 직파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이 예산은 드론 구입 예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주로 드론 구입. 3개소에 3대.

○ 이범성 위원

아, 3대를 사는데 이 정도밖에……

그러면 3대로 주로 해야 될 것은 농약 살포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중자 파종부터 그다음에 비료 살포, 농약 살포까지.

○ 이범성 위원

세 가지를 한다는 이거예요? (예)

한 대…… 아니, 드론 값이 꽤 비싸던데. 이것도 싼 것을 갔다가 금방 고장이 나버리면……

그러면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니요, 농가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요. 농가에다가, 단지에다가……

○ 이범성 위원

그러면 3개소인데, 이 3개소라는 것이 그냥 개인한테 줘버린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개인이 아니고 마을이면 마을, 면이면 면, 일단 개소당 목표가 10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회에다가 저화들이……

○ 이범성 위원

그것을 부락별로 한다든가 (청취불능) 그 부분을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일단 도비가 얼마 되지도 않고 군비가 많아서 여쭙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것 3개소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아닙니다, 단지 결정…… 결성한 그 단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화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적절한 단지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이 드론인데 드론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동네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화들도 드론자격증을 계속 취득하게끔 독려하고 있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도 나중에 없다고 해서 공기관에…… 농협이나 축협에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다음은 636쪽입니다.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아열대작목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소득개발과 소비자 선호 수입과일 소비 증가에 대응하는 아열대작목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이 아열대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만감류라든가 비파 이외에는 거의 아열대작목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선뜻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고요.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추진해 보고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전에도 설명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항상 과수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고액이고 빨리 수확이 안 나오다 보니까 꼭 하다가 자금만 받고 나중에 폐쇄를 시켜 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진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니면 중도포기를 할 분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 자체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차원에서 해주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요구하기 전에 농가하고 충분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농가도 틈나는 대로 해남하고 강진을 오가면서 재배기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터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에서는 해남에 2개소, 그 다음에 강진에 한 농가, 총 세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간 농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전에 비파하우스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보조도 하고 해주셨죠, 시범사업으로? (예)

지금 남은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시설…… 하우스로 한 농가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지에서 재배했던 농가들이 바람이…… 특히나 냉해 같은 것을 입어 가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소장님은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까운 데에서 봤는데 이미 하우스를 싹 철거해 버렸어요. 나무도 돈을 받고 기간이 지나니까 다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하계끔 해주십시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차 삭감대상조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6페이지,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원이 끝나는 사람들이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술들은 약 30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

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당 1회에 한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것 삭감하려고 재설명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임부부가. 그런데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그렇죠, 올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55명 지원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항상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00만 원으로 4명밖에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시키고 더 요구해서 좀 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하십시오, 이런 것은.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김양훈 위원

예.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7회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서 거기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니까 끝나고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예산을 600만 원밖에 안 해놔서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계속 시도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다음은 69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포충기 구입입니다. 이 예산은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2019년도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포충기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74개를 해주라고 각 읍면에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예산에 50개 정도 분량밖에 안 돼서 나머지 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놔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문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작년에 100대를 신청했는데, 그쪽하고 또 의료원에서도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하고 다름니까, 똑같은 것이죠?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지역개발과의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취약지, 모기가 많은 지역에……

○ 김양훈 위원

작년에 지역개발과에서 100대 하면서 동네마다 하나씩 한다고……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그런데 보건의료원에서는 모기 서식지, 취약지, 거기에다가 하는 것이고요, 지역개발과는 마을회관, 그런 데에 설치하는……

○ 김양훈 위원

복잡하네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기계인 것 같던데.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모기 개체수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포충기를 많이 해놓는 것도 예방이 좋습니다, 방역에.

○ 김양훈 위원

저는 지역개발과하고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이것어. 똑같은 사업이 중복된 줄 알고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못 물어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없으시죠?

보건의료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저희 사업소 총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5페이지, 노화읍 이목 하수관로 불명수 저감대책사업비 2억 9,784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목 하수관로를 이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읍 전체에 비가 오면 불명수가 한 500톤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오버돼서 처리장이 범람하고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용역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 1년간 추적해야 됩니다. 맨홀을 전부 뒤집어서 유량을 체크하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장님, 불명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노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나서 바로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소장님이 팀장이었습니까, 어렸습니까. 그래 가지고 조광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요, 거기도 기존 불명수 처리가 부족하니까 밖으로 배출해 가지고 방송까지 타고, 저도 현장까지 가봤습니다마는…… 또 다시 저류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니, 저류조는 아니고 여과시설을 하나……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명수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불명수로 뭐 한다고 하는데요, 애당초 처음 공사했던 분들의 하자관리가 있을 것인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냥 우리 군에서 전액 100% 우리 군비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하자보 증금을 거는데 그 원청회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원청회사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불명수라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골칫덩어리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불명수가 생기는데요, 이유는 아닙니다마는 작년과 재작년에 불명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완도읍을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유통하는 업체, 유통, 해수탕 주로 이런 데에서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실공사, 이것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부실공사다.” 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콧아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요, 원인이 분석되면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하자기간은 지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났으면 우리가 회사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면 전액 우리 군비로 해야 된다는 이 말이구먼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당시 허정수 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요, 국장님하고 담당직원하고 와가지고 건강테마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것을 다 확인해 가지고요, 저류조, 편하게 저류조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만들라고 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 행정은 뭐를 했는가. 그 당시에 조사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끝나버리고 이제 하려고 하면 전혀 원청회사에는 책임소지가 없겠네요, 다 끝났으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때도 이렇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청취 불능) 연막조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옥상에서 나오는 빗물을 전부 연결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 박인철 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장좌리 같은 데도 전임소장이 있을 때 비만 오면 장보고 장섬 그런 데에서 나와서 저도 비옷을 입고, 직원들도 비옷을 입고 아침에 와서 다 확인해 가지고요, 연막으로 해가지고 그냥 생활용수가 들어가서 그런다고 해 가지고 잠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관에서 유입되어 가지고 그랬다면 이것은…… 현장이 준공된 뒤부터 막 했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그 당시에 원청과 머리를 맞대서 하자라든가 그런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렸구먼요.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부실공사가 됐다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이 시기에도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전혀 안 들어옵니다. 비가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비가 오기만 하면 들어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렇습니다. 부실공사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 박인철 위원

그러면 3억 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조사만 됩니까, 아니면 보수까지 다 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보수까지 같이……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노화 이목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이것이 몇 개 마을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것이 4개 마을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들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자보증기간도 끝나버렸다고 하니까요, 노화 주민들의 민원이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두 번째 721페이지, 오폐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6,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하수도법 20조에 보면 기술진단을 매 5년마다 공공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야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엔 추가로 다시 기술진단을 해야

될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세 번째 721페이지, 완도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비 9억 9,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소방서 옆 중계펌프장에서 악취가 가끔씩 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시설물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여기가…… 하수 중계펌프장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죠, 악취 때문에?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일부 한번……

○ 박인철 위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알기로는 서정국 팀장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보니까 아침에, 봄철에 기압이 그럴 때 많이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면…… 뭐 진단은 나왔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일단 원인분석은 됐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떤……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상수도팀장님이 계십니까라는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여수하고 통영까

지 갔다 왔거든요. 왜냐하면 완도군과 식생활 그리고 바다를 낀 곳, 그런 데는 생활오폐수 냄새가 나는지 해서 여수와 통영까지 갔다가 나오고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입장에서…… 어떤 데는 밀폐를 시켰더라고요, 냄새가 나가지 않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10억의 돈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되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18억입니다. 1차적으로 (청취불능) 전체적으로 18억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뭐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반영됩니다.

○ 박인철 위원

기존 건물도 다 밀어내고 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니, 그것은 아니고 교반기 배관설치, 그다음에 중계펌프장, 탈수기실, 공간 포집설비 신설, 뭐 본처리장, 중계펌프장…… 대대적으로 악취와 관련된 시설을 다시 하는 것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건물은 그대로 놔놓고.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네 번째 726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58

억 2,284만 4,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일 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밑에, 또 734페이지에 위탁운영 대가가 55억 1,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수 도관리단하고 30년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비는 인 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등 위탁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왔던 금액 수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라고 해서 전출금이라고 했는데, 58억. 이 전출금 안에서 상수도통합위탁 운영 대가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 대략 한 3억 정도…… 그런 데 이 3억이 어디에 쓰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주로 다른 개선…… 세출 쪽에 있습니다마는 개선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도 이쪽에다가, 지방상수도에다가 해가지고 위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아니요, 그것은……

○ 박인철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자체사업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금방 30년이라고 했는데 매 5년마다 여기하고 계약을 다시하게 되어 있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정산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집행했던 것을 저희들이 정산 검토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래서 계약금을 다시 한 번…… 옛날에 MOU를 체결한 협약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그때 뭐 5년마다 정산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계약에 대해…… 여기에서 불성실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불성실하게 되면 금액은 감액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만 합니까, 계약하고 관계 없이?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안 되면 재계약은 할 수 없고요.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차수별로, 연도별로 집행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만 합니까? (예)

아니, 단가가 서로…… 내부전출금인데 여기하고 서로 안 맞으니까 비용이 어디에 소요되는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09시30분 개의)

○ 위원장 최정옥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안번호 제2557호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해양정책과 본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역줄기 수매사업

입니다. 동사업은 해조류양식어장에서 (청취불능) 미역귀를 생산하고 바다에 버려지는 미역줄기를 수거하여 친환경농업 퇴비와 미역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미역줄기 수매에 따른 장비 임차비 1,656만 원, 미역줄기 수매 2,344만 원, 마대 구입 200만 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미역줄기 수매사업은 kg당 40원씩 수매합니다. 그래서 585톤을 수매해서 약산 화가 들녘이 한 5만 2,000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살포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미역줄기를 수매한 이 토양에 대해서 토양을 분석할 때 생산된 해조류쌀 성분 분석을 실시하고요, 추후 이러한 효과분석과 더불어서 효과를 분석한 후에 내년도도 계속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반복된 사업이었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것 없었죠, 지금까지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을 최초로 할 때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었거든요.

○ 박인철 위원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이라서 그냥 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런데 최초로 실시할 때 토양분석과 쌀 성분 분석을 한 번 했었거든요. 했는데, 약간 성분 분석에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해왔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제가 약산 화가 들녘에 한번 가서 농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얘기로는 농약도 적게 하고, 쌀도 몇 천 원 비싸게 판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부분까지 취합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이 뭐 한두 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어서 막 들어왔을 때부터 이 예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런 성과분석이 한 번도 없고, 지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위원님, 저희들도 최초로 한번 했는데요, 그 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 번도 성과분석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하고요.

약산 화가 들녘에 있는 농민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요, 그 분들은 “계속하자, 계속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년도까지 추가로 올렸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미역줄기 같은 것은 어디에서 구매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거의 약산에서.

○ 박인철 위원

공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민들한테 직수매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로 현장에서 구매합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주민들 공동체 그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공동체는 아니고 농가들이, 논주인들이……

○ 허궁희 위원

아니, 논주인들이 그 미역줄기를 개별로 산다는 이 말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죠, 사는 것은 행정에서 삽니다.

○ 허궁희 위원

아, 행정에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행정에서 구매해서……

○ 허궁희 위원

그리고 보급을 한다.

정책과에서 직접 구매합니까? (예)

그래요. 아니, 그것이 개인…… 단체가 구입하는 것인지, 개인이 궁금한 것인지 나는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가 직접 구매해서, 우리가 매일 가서……

○ 허궁희 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줄기 구매할 때 어민들이 잘해 오던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가서 가져오면……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바다에 안 버리고 잘 가지고 오냐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잘 가지고 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이어서 559페이지입니다. 전복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사업입니다. 동사업은 해조류를 수매한 뒤에 저장했다가 전복먹이 부족 시기에 어민들에게 전복먹이용으로 공급해서 어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수협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전복협회 아니면 수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사업은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입니다만 지난

해 의회에서 예산 설명 시 지적되어 가지고요, 예산을 부기별로 현실화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비사업을 현실화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전복협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협으로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금일 쪽에는…… 나중에 먹이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전복어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 소안 쪽이나 노화, 보길 쪽이 안 돼서…… 그쪽 때문에 성립된 예산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뭐 그런 요인도 있지만 실제 보면 전복 이런 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또 가을철이 되면 전복 먹이가 부족하고 그래서 해양환경도 보전하고 전복먹이도 공급해 주는 그런 다목적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부기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군정 업무보고를 받고 그럴 때 좀 명확히 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성립될 때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원이 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야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희에게 신청은 들어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협이 들어오든 단체가 들어오든 들어오면 우리가 받아주는데, 사업…… 부

기상 보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가능한 이 부분은 단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렇죠, 생산자 단체가 됐든지…… 생산자 단체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공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또 부족한 곳은 부족하고, 그리고 먹이가 없을 때는 전복이 너무 아워서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공급하고 소비가 안 맞아서 단가 변동이 있고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에 먹이공급이 원활하게 됨으로써 연중 전복가격이 동일하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초적인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꼭 사업비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도…… 좋은 사업들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채워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목이 공기관에서 민간정상으로 바뀌었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위탁할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전복협회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해년마다 해왔는데 정산한 것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년마다 한 것이 아니고 여태껏 공기관으로 하다가 경상……

○ 박인철 위원

아니, 공기관으로 했는데, 그것도 방법만 공기관이지, 수협에서 해가지고 전복협회에서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협이 됐든 전복협회

가 됐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이것에 대한…… 저번에 금일 다시마처럼 이것도 정산한 것이 있냐는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받은 것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년도는 받았고 `19년도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금일하고 소안하고 지원해 줬던 부분의 자료는 정산을 받아서요, 세입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세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전복어가들한테 전복먹이를 준다면 이것은 좋은 취지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수협이나 전복협회의 장사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차단해야죠.

○ 박인철 위원

방법을 차단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혀 안 하다가 내가 본회의장에 서인가 왜 세입을 안 하나, 세입을 안 넣느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산해 가지고 넣게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정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정산은 당연히…… 공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냉동비 빼고, 제외경비 빼고 나머지 이익은 우리 군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그 돈까지 플러스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는…… 이번에도 수협을 통해서 들어갈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번에 세워진 2억 5,000 말씀이십니까?

○ 박인철 위원

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은 경상보조니까 수협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복협회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 박인철 위원

전복협회로 가게 된다고 하면 방금 이범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동북하고 남북하고, 남산면하고 구분 없이 필요한 어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요. 수협이 두 군데로 나뉘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일수협에 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금일수협에 지원해 줄 때 완도군 전체 어민들한테 지원해 줘야…… 해조류 부산물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일수협에서는 자기들 업무 구역이 이쪽, 완도에서 남산면을 제외한 이쪽 권역이니까 자기 조합원들한테만 주겠다고 그래서요. “아니, 이것이 말이 맞느냐. 우리 군에서 줄 때는 전체 군민들한테 주기로 한 것이지, 조합원들만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총회 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자기들이……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자기들 수협 일이고, 그러면 그 예산을 완도금일수협하고 소안수협하고 반절씩 나눠가지든지 그렇게 해야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안수협에서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양에 따라서 구분해서 수협별로 나눠서 줘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

니다.

○ 박인철 위원

이 사업은 완도금일수협한테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어민 누구나 차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이쪽 조합원이니까 되고, 저쪽 조합원이니까 안 되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국비사업은 나눠서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전복협회에다가 주는 것은 완도군 전체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최근 해양 오염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인한 갯녹음 확산에 따라 바닷속에 감태와 곰피 등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을 목적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한 전남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올해에는 6억 원의 사업비로 금일 10개소, 신지 10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산 10개소는 다음주에 발주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마을어장에 해조류를 이식하여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 어떤 식으로, 작년에도…… 아니, 올해 했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올해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시도를 했었나요? (예)
내년에 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어땠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해는 저희들이 6월에…… 올해 처음 시도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조류는 수온이 높아 버리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5월 이전에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좀 늦어서 6월에 발주해서 7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거든요. 준공해서 8인치 블록에다가 곰피를 말아서 마을어장에다가 일정한 암석지대에 살포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살포한 후에 해조류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한 달 후에 다이버를 넣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잘 살아 있어서 그다음에 추진했던 것이…… 신지하고 청산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마을어장에 수심 5M~10M 어장에 해조류가 많이 감소되고 그래서 우리 마을 앞이나 도로에 숲을 조성하듯이 바다의 숲을 조성하자. 그렇게 해서 산란장도 조성하고 먹이 공급 장소도 만들자,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군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잘 성장하고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6억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이 바닷속 깊이가 아니고 물밑에다가 하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어장이니까 간조 시 평균 수심 5M 이내 해역에다가 전부 이렇게……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이것이 잘 된다고요? (예)
확실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이 다년성 해조류거든요. (청취불능) 해조류가 아닌 감태나 곰피 위주로 해서 수온이 좀 올라가더라도 녹지 않는 이런 해조류로, 우리 군 여건상 수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태로 해볼까 그렇게……

○ 위원장 최정욱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좀 해서요. 안 될 것이라는 말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좀 해서 직접 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 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지금 감태와 곰피로 한다고 얘기를 계속…… 책자에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연산 식용 물이랄까, 그런 것. 그런 것의 서식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업성이 많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한다든가. 또 요즘에 없어졌던 잘피랄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종묘로 해서 감아 가지고 확산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데, 서식지, 그런 분야를 잘 파악해 가지고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에 했던 부분은 여름철에 해서 다년성 해조류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바로 발주를 해서 5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원하는 단년성 해조류로 미역이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렇게 품종을 다양화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품종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뭐 갯녹음 예방이랄까, 바다숲 조성. 바다숲이 조성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꼭 감태, 곰피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곰피도 잘…… 종묘 생산도 많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종류로 돌려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해조류를 이식하는 부분은 이러한 해조류가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살아서 (청취불능) 하여금 연안에 있는 어장을…… 거기에서 해조류가 서식하고 정착하는 이런 사업으로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조류 종류를 더 다양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면 갯녹음 예방, 또 바다환경 개선에 특별한 효과가 올 것 같고, 또 도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완도군 전체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 가지고요. 몇 년도에는 어디 부락, 또 어떤 어촌계 아니면 어떤 면단위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파악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것이 다년생이면 올해 했던 것 내년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내년에 우리가 이식해 놔던 것이 또 다시 살아있는가, 이런 것.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은 내년에 봐야 알겠네요. 그래야 올해 했던 것이 내년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65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후배인력 관리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조직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도 단위 대회로 제10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지원행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비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참여인원은 2,000명 내외가 참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평판에도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9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대회는 순천 팔마운동장에서 2018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가을빛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상생콘서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2억 5,000, 2억 6,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수산경영인이라고 해도 1박 2일 하는데 2,000명이 오는데 2억씩이나……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 1박 2일 하는데 1,000만 원으로 2,000명이 넘게 와요. 그 사람들 다 여름에 1박씩 다 하고 가요. 탁구대회를 해도 500만 원으로 1박 2일 하는데 1,000명이 넘게 옵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0만 원, 1,000만 원인데도, 그런데 수산경영인이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박 2일로 2,000명이 오는데 2억 원이라는 돈을 가감 없이 이렇게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을……

○ 박인철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2억을 했던 4억을 했던 그것은 그 시군의 문제고요, 우리 군은 우리 군 대로 과장님이 가지고 가가지. 타시군에서 2억으로 했다고 우리 군도 그냥 막무가내로 2억을 해 주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관례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룰에서…… 이것이 한 2억씩 지원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 박인철 위원

관례, 관례 그러는데, 관례는 없어지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례는?

실무부서에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실무부서에서 누구입니까, 이것 담당이? 그러면 수산경영인협회에게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그냥 계획서도 없이…… 내가 청년회장할 때도 단돈 500만 원, 100만 원만 받으려고 해도 각 실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던데, 그러면 2억에 대한 계획서는 받았습니까?

(방청석에서 “2020년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계획서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보면 제9회……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은 제9회고, 그리고 내년엔 하면 제10회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주니까 거기한테 너희가 2억을 주라고 하는데, 요구하는데…… 2억에 대한 예산서는 가지고 와야죠, 어떻게, 어떻게 쓴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 지금 어떻습니까, 각 단체들? 다 전에 갔죠, 내년도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리 군한테 요구하면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공모사업 외에는 전부 다 산출내역서를 받아서……

○ 박인철 위원

다 받죠.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보조금 심의……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합니까?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왜 담당에서는 없다고 합니까?

그러면 담당도 모르는 보조금 산출이 나오는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니,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이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과다합니다, 우리 실정에. 3일, 4일 동안 하는 가을빛축제도 2억 5,000인데, 2억 8,000인가 2억 5,000인데, 1박 2일 동안 2,000명이 와서 하는 것에 2억은…… 저는 과다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왔네요,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개최할 때 한 2억 정도 관례적으로……

○ 위원장 최정옥

그러니까 그 관례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2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이 부분은.

○ 위원장 최정옥

과장님, 그것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67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청년고용 지원사업입니다. 동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수산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어업분야전공 졸업예정자를 고용하는 양식업체에 1인당 매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지침상 지원대상은 수산계 고등학교 대학교 어업분야 졸업예정자라고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지침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1차 추경 때 삭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아니, 1차 때 하지 말고요.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전혀 못 썼죠, 없어서? (예)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삭감해 버리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요,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신청이 없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뭘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개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도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다고, 개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개정해 준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 관하…… 전액 도비라면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지침도 개정했는데 삭감시키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다시 잡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삭감을 시켰다가 어떻게 다시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실 것은 살려주시고요.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렇게 살리고 죽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군비 6,000만 원인데. 전혀 활용하지 못한 군비가 그대로 사장된다는 이 말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히 잘라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이용만 된다고 하면 더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전혀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하여튼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개정해 주기로 해서요. 일단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이것 추경에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삭감시킨 것은 다시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69페이지입니다. 적조피해 대비 어류양식 환경개선물질 공급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조 재발생, 장기화, 유독화로 인한 적조생물 발생 시 긴급어류양식 환경개선으로 적조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급한 물질은 아쿠아닥터, 피쉬세이프, 오존닥터 세 종류의 약품을 공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허궁희 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만 공급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

양어가에서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사실은 잘하고 있고, 적조가 왔을 때는 상당히 효과를 봤지 않습니까, 약산 쪽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약산 쪽에 적조가 심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한 득을 봤고, 적조가 안 왔을 때는 다른 소득재용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이 부분은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70페이지, 이동식감용기 운영입니다.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는 해양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이동식감용기 차량 2대, 소각기 차량 1대를 제작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선료 (청취불능) 처리에 따른 500만 원, 감용기 유류비와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수리비 관련해서는 전자밸브나 뭐 구리스, 요소수, 엔진오일 등과 관련된 수리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차량 2대를 운행했는데 유류대하고 이런 소모품과 관련해서 보니까 현재 한 3,600 정도 소모됐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감용기차량을 금년 말에 1대가 들어옵니다. 마는 들어온다면 유류대를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아마 이것은 제가 한 것 같아서요.

수리비가…… 올해는 우리가 수리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그 작업일지도 봤지만 거의 십 며칠간 수리하고 그러던데, 작년에 비해서 그랬다면 올해도 그 수리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이대로 세워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수리비는요, 전부 AS 차원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수리비, 그것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고친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안 맞다든지 그랬을 때 전부 AS 차원에서 전부 받아서 수리했던 부분들이고, 또 사용하다가 작동 불량으로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AS를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AS를 받아서 처리했고요. 주로 보니까 전자밸브나 구리스, 요소수, 엔진오일 이런 것을 계속 가공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주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요. 대당으로 하나까 한 1,200~1,300만 원 정도, 유류비가 그렇게 소요되더라고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1,200~1,300만 원이면 유류비랑 도

선비를 합하면 1,700 정도 되구먼. 그렇죠? (예)
그러면 2,300이…… 아니, 3,000? 300?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량 한 대에 한 1,300 이쪽저쪽 유류비가 들어갑시다. 차량 한 대. 지금 차량 2대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최정옥

자꾸 이 기계가 고장률이 높다는 소문도 많고, 저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제가 들어본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죠, 고장률이 아니죠.

○ 위원장 최정옥

그 기계에 대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수리비.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같이 묶어 뵈었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정옥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유류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본 거예요. 정말 감용기로 인해서 경비와 효율성이 그렇게 있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은 자신하는데 저는 신뢰가 안 가. 내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돈이 더 들고, 더 크게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지. 자꾸 고장이 나서 일을 못하고 끌고 다니고, 조금 그것을 처리하면서 경비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시행 첫째거든요, 첫째인데. 연중 쓰레기 위탁 처리…… 지금 최종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대충 정리해 보니까 1년에 한 1만 루베 정도 저희들이 쓰레기를 위탁 처리했거든요. 현재 감용기 처리량으로 보면 7,500 정도 이쪽저쪽 위탁…… 처리량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결과 보고는 최

종보고를 하겠습니까마는……

○ 위원장 최정옥

과장님, 그런 것은 저번에도 다 들어서 아는데. 감용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쓰레기를 쌓아놔야 되고, 그렇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요, 쓰레기가 아니고 스티로폼만.

○ 위원장 최정옥

아, 스티로폼. 거기 스티로폼이 쌓여있는 곳을 가봤어요? 민원이고 뭐고…… 과장님은 못 갔어도 저는 3번 갔다니까요, 의원이. 그것이 뭐냐면 주민들은 감용기가 아니었으면 위탁 처리를 했을 것이니까 편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감용기가 아니었으면, 바로 처리해 버렸으면 거기가 깨끗하죠. 그런데 감용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모아서 해변가에 쌓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용기가 와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감용기가 그것을 다 처리하느냐, 다 못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고, 또 재활용한다고 그것을 쌓아놓으면 바람에 날려서 바다 위에 날아다니고, 이런 악순환이…… 환경이 뭐예요. 바로 그때그때 처리하지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또 감용기 역시 현장에 가서 바로 처리해 버리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뭔가를 하려면 기계를 더 투자하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스티로폼을 감용해 보니까 이것이 오래된 스티로폼은 감용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 위원장 최정옥

다 들어서 알아요, 우리도 조사를 해봤고, 스티로폼을 감용기에 넣었을 때 이물질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는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 취지가 뭐예요, 현장에 바로 가서 바로바로 처리하자고 감용기를 한 것 아니예요. 쓰레기를 바로 현장에서,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쌓아놓게 되고 쌓아

놔서 다 처리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만 처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 인건비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현장에서 처리가 안 되고, 기계가 가서 기다릴 때까지 (청취불능) 다시 또 바다로 날아가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날마다 가서 그것을 관리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무조건 된다고 그러면 안 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개선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각기 구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노후가 된 스티로폼,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소각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리고 과감하게 기계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것으로…… 정품으로 제작하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누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지금 감용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소각기 부분의 얘기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소각기가 뭐…… 시간당 얼마만큼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소각기를 제작해서 시간당 100km로 처리하거든요.

○ 이범성 위원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올렸는데 이것을 무게를…… 당초에는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고정식으로 하려고 하면 효율이 적을 것 같아서 이것을 차량에다가 올려서, 소각기를 차량에 올려서요. 저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차량에다가 올리자. 그런데 차량에 올리니까 무게가 10톤이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5톤 차에 올렸는데 무게가 좀 하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중을 보강해 가지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아, 그것은 허가상으로 소각기를 차량에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인증까지 다 받고……

○ 이범성 위원

그러면 발주가 다 들어가서 금방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봐야죠. 준공하려다가 무게가 많이 나와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감용기 2대하고 소각기 차량하고 해서 3대가 가면 그때그때 다 정리하고 태울 것은 태우고, 감용 처리할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된다는 말이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렇게 소리가 많이 안 나오겠네요? (예)

그때 또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소리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수없이 해온 소리고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전에는 소각기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이제는 소각기가 들어오니까…… 현장을 1년 운영해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서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각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 직을 걸어놓고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71페이지입니다. 무인도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서지역에 어선을 이용해서 해양별 쓰레기 및 페스티로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무인도서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서 주로 어선을 이용하는 어선연합회와 통발자율관리공동체, 낭장망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낭장망협회하고 통발협회를 동원해서 청산(청취불능)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아니, 왜 이것을 재설명을 요구했느냐면 어떤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들어서요.

통발협회나…… 주로 이쪽에다가 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가서 수거해 온 것을 확인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입회를 해서……

○ 이범성 위원

같이 갑니까? (예)

그러면 행정에서 몇 명이나 가는데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행정은 주무팀에서 정화선하고 같이 가세요. 수거한 쓰레기는 일반어선에 싣고 오기 위험하니까 수거한 쓰레기는 정화선으로 싣고 가세요. 여기에서 위탁 처리하는 위탁처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단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면 1년에 1회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한 1~2회씩 정도로 각 단체별로……

○ 이범성 위원

3개 단체가 2회를 한다면 한 6번을 간다는 이것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2개 단체만 했거든요, 통발하고 낭장망하고 했는데, 우선 연합회도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상향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작년에는 2,000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더 한 것은, 작년에는 2개소에서 했고 올해는 3개소에서 한다는 이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잘 처리하셔야 이런 부분, 환경 관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573페이지, 바닷가지킴이 365기동대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 선포로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어업인 홍보를 위해 한국수산업경영인 완도연합회와 각 읍면지회를 중심으로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를 운영해서 12개 읍면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수거실적은 스티로폼 1,000루베에 해양쓰레기 50톤을 수거했으며 2019년도 사업정산,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실적을 이야기했는데 바다지킴이 365기동대하고 바다지킴이 운영하고,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국도비랑 도비까지 포함되었는데,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다 같은 사업 같은데. 말만 다르지. 그리고 도비하고 국비가 플러스가 됐다는 그것만 있지. 다 같은 사업인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365기동대……

○ 박인철 위원

굳이 바다지킴이 365기동대라고 해가지고 1억 이것을 할 필요 없이…… 그 밑에 도비 매칭사업 바다지킴이하고 쪽 밑에 574페이지에 국비 매칭사업 3억 5,1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이것 뭐 다 같은 것인데.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것을 다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 박인철 위원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지킴이 보면 각 읍면에 2명씩, 3명씩 읍면사무소에서 아침 8시인가 9시인가 가서 하는 그것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전남도에서 해양쓰레기 제로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바다지킴이 운영은 도비로 해가지고 도비와 군비로 해서 사업을 2018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2018년도에 시작해서 추진해 왔었고요.

이쪽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해수부에서 해양쓰레기가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인건비라도 지원해 주라는, 국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라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018년도에 해서 전남도에서 실시를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과 중복되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전남도에서는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은가, 고민 중에…… 국비 지원이 된다면 도비사업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바다환경지킴이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차원은 왜 그랬냐면 육지에서 읍면 환경미화원과 같이 매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듯이 바닷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2018년도에 저희들이 해수부에게 건의했던 내용이기도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그 얘기도 맞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이분들이 연중 처리할 수 있도록 상시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이 됐는데요. 내년에는 도비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아마 일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로 아마 묶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지킴이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이 부분은 경영인 한 4,000명 정도를 완도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쓰레기 수

거도 눈에 보이는 이런 곳은 어업인들이 하지만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 투입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경영인들이 나서서 솔루션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완도군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이런 봉사활동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경영인들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5월인가요, 시가지에서 한번 실시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홍보활동도 병행하는 이런 쌍둥이마차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있으니까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그 실적 한번 내주십시오. 작년에도 망남리에서 한 것,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합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각 읍면마다 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그것 사진 첨부되어 있습니까? (예)
돈이 나갈 때..... 사진대지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18년, `19년도 것을 가져다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19년도는 정산을 받고 있고 `18년도 것을.....

○ 박인철 위원

아니, 지금 `19년도 연말인데 정산을 다..... 행사할 때마다 돈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정산.....

○ 박인철 위원

아니, 5월에 행사를 했으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바로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각 읍면별로 하나씩, 각 읍면별로 끝나야 저희들이 정산을 받거든요. 읍면별로 따로 따

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사진대지하고 몇 명이 왔고 누가 했고, 또 어느 면에 했는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외주십시오.

저도 완도 청정바다수도라고 해가지고 365기동대를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장보고 축제 때 청정바다수도 선포식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임명장도 줬는데.

제가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도 좀..... 어떻습니까, 이것? 아니, 우리가 끼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돈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짜 이 분들이 바다지킴이를 하고 또 쓰레기를 진짜 모두 수거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나 일회성으로 사진을 찍고 말아버리고, 그런 것도 있거니와 또 똑같은 목으로..... 물론, 도비 매칭이지만 밑에 바다지킴이 운영도 똑같은 것이고, 그 밑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도 국비사업인데, 국비 매칭사업인데 똑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3개나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군비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까 바닷가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를 보면 읍면별로 2~3명으로 해서 상시체제를 갖춘 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예산이 다 끝나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팀장님이 이것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죠. 한번이라도 바다지킴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 확인해 봤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읍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을 받고, 읍면사무

소에 가서 확인 도장을 받고, 그러면 몇 시에 끝
납니까, 그 일이?

(방청석에서 “8시간.”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왜 내가 확인한 것하고 과장님이 확인
한 것하고 틀립니까? 제대로 하는 것 봤습니까?
내가 무슨 사진인가 해가지고 일부러 지금……
완도읍사무소 어디 육지로 된 몇몇 면사무소를
내가 다 다녀봤는데, 여기에서는 속기록에 남으
니까 무슨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냥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 하도 관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이니
까…… 제가 섬에만 못 들어갔지, 육지로 된 데
는 다 들어가 봤다니까요. 이 사업이 어떻게 되
는 것인가. 읍면사무소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처
럼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그
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
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만 돈들이 내려가고 이
런…… 우리가 자주 감용기도 하고 오늘도 보니
까 “남도 해양쓰레기 제로” 라고 뉴스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도지사도 남도 쓰레기 제로사
업으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사
업들이 되면 제대로 시행되게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봐서는 100이라고 그러면 20도 안
되고 있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굳이 순군비
로 해가지고 바다지킴이 365기동대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이것이 끝나고 나면 365기동대 2년치
얼른 가져오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573, 574 바다지킴
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이것이 비슷
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지킴이하고 바다환경지킴이요? 같은 사업
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렇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환경지킴이 계속 설명해 드릴까요?

○ 위원장 최정욱

아니, 아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생략하고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여객선 야간운항을 위한 연구용
역입니다. 우리 군의 해상교통은 5개 항로에 4개
선사, 10척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야간운항과 관련해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현재
까지 3회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야
간운항 손실보전과 관련해서 5개 항로에 대한 전
문기관의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 용역은 저희들이 가능한 일찍 마무리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토론을 했죠? (예)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팀장님이 저한테 잘못된
정보를 줬는데, 소회의실에서.

이것 금일 권역만 하지 말고 소안도도 한다고
합니다. 동부권도 같이 용역을 넣으십시오.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더라도 같이 하게끔. 그리고 선사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데. 제가 소안 농협조합장님한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한다고 자기들도. 그래서 약산 당목 일 정항만 아니고 화흥포에 있는 동천항까지 또 소 안도까지. 이것도 같이 요구하기 위해서 재설명을 넣었으니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일단 용역은 저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항로에 대해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꼭 그래 가지고 나중에 추정……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하는 선사가 있을 때는 꼭 같이 해서 해주십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어서 57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해서 청정해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시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각 읍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업비는 읍면에 수시 배정해서 신속히 수거 처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 박인철 위원

이 돈도 부족하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좀 부족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돈도 부족해요.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던…… 어선협화들이 들어오면서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해상에 띄어놓는, 거기에다가 버리고 들어오겠다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선상집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완도항탐하고 조율을 한번 했고요. 또 보니까 어선 노조가 있더라고요. 어선 노조로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냐, 아니면 해상에다가 만드는 것이 좋냐.

○ 위원장 최정욱

해상을 말하더라도.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 위원장 최정욱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 어민들이. 바다에 안 버리고 직접 가지고 오겠다.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는 못 가져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가 투자를 해야지.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더블이 되고, 지킴이 이런 효율성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선원 노조위원장입니다. 선원 노조위원장이 xxx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말을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요, 그러면 바다가 좋은지 육지가 좋은지 자기들끼리 협의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바다쓰레기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요, 합치면, 효율성 있게 가야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바다 관련해서 선상집하장,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완도항 담당하고 저희들이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치유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설명 자료인 약산권역 해양치유 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2018년도 10월 27일에 도지사님이 완도군을 방문했을 때 군수님께서 해양치유와 산림치유가 공존하는 체험센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 국고 건의사업으로 관리해 오면서 기본계획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의원간담회 대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변경해서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짓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2000년도 해양관광시설 사업비로 인해서 1억이 감해진 상황입니다. 전라남도의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자율편성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

비 약 6,000만 원하고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전혀 중복이 안 되게끔.

○ 이범성 위원

그것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해양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사업이 연계해 가지고 같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쭙본 부분인데요, 토지매입비 설명 자료랄까, 그런 부분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그것은 별개로……

○ 이범성 위원

별개죠.

체험센터, 이 부분은 지금 사진에 나온 세 가지를 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 이미지는 예시로 들어놓은 것이고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수차례 다녀오고 용역사에…… 그 현장에 다녀 왔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 사업하고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요. 또 단지 여기에다가만 전체적인 사업 구상을 하지 말고 동부권역이나 서부권역으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향후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주로 할 곳은 거의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그쪽들과 같이 복합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산림치유 콘텐츠가 많고요. 저희들은 바닷가와 해안가하고 연결되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하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당목에 가면 언덕 배기 있는 그쪽이 주로 전망지, 이런 위치가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뉘앙스가 나오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 당목에서 가사리까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서부 권역, 노화와 보길 권역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사업비로 해가지고 금액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약산 권역만이 아니라 소안, 노화, 보길 그쪽도 같이 병행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당초 이 사업 명칭이 그때 건의할 때 체험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산 권역이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 대상지역을 전역으로 확대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요구가 그때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소외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들이..... 소외받고 있는 지역들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약산 권역이라고 앞에 붙여 놓으니까 약산에다가만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쪽, 저쪽 뭐 청산, 소안, 노화, 보길, 그쪽 부분 신지는 여러 가지..... 신지는 주로 치유센터랄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이런 체험센터 조성사업에 같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산 권역이라고 해가지고 약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산면 쪽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성할 수 있는 위치랄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이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 검토가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 20억을 가지고 어디를 분산한다는 말이에요? 20억을 가지고 약산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금방 이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산할 돈 액수가 안 되는데. 의회 보고자료라고 가져왔는데 기본 해수사우나 하나만 하더라도 20억을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해수사우나는 잘못된..... 밑에 해수풀 이미지,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데크하고 해수풀, 이것만 가지고도 20억은 훌쩍 넘어가 버리겠구먼. 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훌쩍 넘어가 버리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분산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기도 약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백..... 처음에는 해양치유과는 아닙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서 동백치유 뭐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환경산림과에서 해양으로 바뀌진 것 같은데. 꼭지가 그렇게 바뀌진 것 같은데. 여기도 부족하죠, 이 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내년에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요.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과장님, 이 돈 20억을 가지고 뭐 분산한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20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약산 권역 해양치유 이렇게 뭐 체험 센터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겠는데 무슨 답변을…… 따로 남산면도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실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설계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런 일반체험센터라든가 시설물을 짓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20억을 거기에다가 투자해서는 저희들도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약산 권역에다가 콘텐츠를 구성하고요, 나머지 잔액은 일반…… 또 남은 사업비로는 여러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데크 같은 것은 몇 개 정도로 할 것입니까? 해동리에서 가사리까지 간다면 해안가를…… 그 미터 길이가 상당한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위원님, 이것은 전체적인 해안가를 두르는 그런 데크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현재 입도로 치유도로로 해놓은 데에서 접근하게끔, 내려가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는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제대로 가지고 와야지, 해수풀 이것만 한다고 해도 몇 미터 규격인지는 모르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만 해도 한 5억 이상 들어가겠는데, 공사비가.

그리고 데크하고 전망대는 봐두더라도, 기존에 그 근방에…… 박업수 의장님이 할 때 안전건설과에서인가 남의 사유지에다가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다 한 적이 있어요. 환경산림과에서 한 곳 이…… 한번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던데, 또 환경산림과에서 이번에 그 공사는…… 퇴직했습니다마는 xxx 환경산림과장이 할 때 예산 5억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도비 전체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의회에서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비도 엄청 들어갔는데, 거기하고 다 다른데, 다르다고 하는데,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은 것이 이 사업이에요. 치유숲, 환경산림과에서 한 치유숲, 그것하고 이것하고 크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분배……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을, 형평을 맞춰 가지고요, 약산이 아니라 금일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신지라든가 아니면 군외면이라든가 아니면 노화, 보길 이런 데에다가 좀 이렇게 분산을 해야 되는데, 왜 꼭 기존에 해왔던 곳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좀…… 아니, 과장님도 아니라고 그러고 환경산림과장님도 전혀 다르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하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해양치유라고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해양치유에 전혀…… 전국에 없는 시설을 여기에다가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시설들은 어느 지역에나 다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도 의논을 하고 분배, 그것도…… 그런데 과장님이 시안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환경산림과에서 내놓은 시안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는데요, 해수풀 하나, 이것이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예요, 이것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약산을 빼고 다른 지역을 좀…… 이것 꼭 약산이라고 목을 박은 것은 아니죠, 도에서 사업을 받아들 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사업장 위치를 당초에 건의할 때 약산권역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해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 변경하고 그러면 그 돈이 안 내려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 조금이라도 이 권역에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어서 해양치유센터 건립 진입로 토지매입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여드린 도면을 보면 조감도, 해양치유센터 조감도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뒤에 빨간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지 새마을회 부지가 필요합니다. 이 부지 870평 정도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파란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일반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앞으로 진입로가 현재 일차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센터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차선 도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이 노란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형식으로, 여기도 (청취불능) 땅입니다마는 180평 정도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신지 새마을회하고는 이야기가 잘됐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바로 지금……

○ 허궁희 위원

임대로 사용한다는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전체 임야는 그렇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앞으로 일반인에게 매각되지 않은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임대를 차라리 우리 군에서…… 매입비용 보다는 임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군도 이익일 것 같고 마을에서도 앞으로 재산 소유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해당된 개인들하고도 다 이야기는 됐는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접촉하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일반인 토지를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 잘하십시오. (예)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두가지 한꺼번에 해주세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치유투자유치설명회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1~2월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지금 수도권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회를 한 번씩 개최할 경우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사에 2,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했고요. 그 외 부족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밑에 자료를 보시면 3,000만 원이 쓰이는 용도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청취불능) 투자의향 기업 일대일 매칭 투자 상담을 하게 되면 전담인력 한 10명 정도가 배치됩니다. 그다음에 상담요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요, 상담을 하려면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다음에 투자협약체결행사 준비라든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한 500만 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홍보부스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비라든가 판넬 제작이라든가 (청취불능)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설명회를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광고비 형식으로 해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약 5,000만 원의 규모로 해서 수도권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전할 것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동영상도 같이 하시죠.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홍보영상은 우리가 현재 아웃도어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 것은 올해 저희들이 체험계획을 유치하면서 소개를 필요로 해서요. 저희들이 종이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유치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전남소방공무원들도 유치를 해야 되고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지방공무원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사진이라든가 종이홍보물을 가지?” 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라고. 사진이라든가 종이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요.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활

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편집을 하고 전문성우를 고용해서 내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그러면 583쪽 밑에 쪽 해양기후치유 체험 홍보 동영상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홍보물을 보내기 위해서 CG나 이런 쪽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USB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USB를 보내주고 그렇게 홍보를……

○ 허궁희 위원

사진이 아닌 실제로 영상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홍보비다.

그러면 설명회는 계속하고 있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투자유치설명회 말씀이십니까?

○ 허궁희 위원

그 부분도 그럴 것이고, 해양치유 관련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투자유치설명회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안 하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내년에……

○ 허궁희 위원

뭐가 없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는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내년에…… 올해 다 받고 내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투자유치설명회는 LA에서 한번 한 적 있고요, 국내는 수도권에서 내년 한 3월경에 대대적으로 한번 전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안 했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아직 용역결과가……

○ 허궁희 위원

그런 것이 소홀한 거예요, 저희들은. 왜냐하면 행사장이나 어디에 가면 군수님이 계속 그것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설명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이 아홉 사람인데 알게 되면…… 아홉 사람이 같이 홍보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굉장히.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선뜻 받아들이겠습니까? 아쉽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저희들이 좀……

○ 허궁희 위원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어디를 임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며칠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당일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부스 설치하

고 뭐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의도 전경련회관을 빌려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면 투자설명회를 할 때 광고를 내서 오신분들을 위해서만 투자설명회를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을 오게끔 해서 투자설명회를 하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사전에 한 200명 정도에게 미리 연락을 드려서 섭외해 가지고요. 투자할 만한 대상자들을 찾아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해서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어차피 미리 다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재차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예, 일단 재력이 분들이라든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전에……

○ 위원장 최정욱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설명회를 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했는데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틀 동안 수도권에서 투자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물론 다르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비가 다르겠죠. 방금 말한 대로 이미 한 200명을 1차 섭외해서 장소에 와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냐고. 밥을 먹이고 그런 것이 있나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부대시설이라든가 오찬도……

○ 위원장 최정욱

당일이죠, 당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당일입니다.

그다음에 전담인력 10명 정도를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요,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능력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다음에 동영상이요, 동영상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보면 체험 홍보 동영상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체험을 특별히 한 것이 뭐가 있는데 체험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올해 봄부터 가을까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83회 운영해서 8,000명 정도가 참여한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내년에는 전부 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내년에 유치할,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체험한 것을 동영상에 담아서 했다는 얘기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어서 하면 퀄리티가 낮고, 또 일반 전문 성우라든가, 이런 성우를 고용해 가지고 내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무엇을 체험했는지, 방금 허궁희 위원이 말한 것처럼 뭘 체험했는지 우리는 본 것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해양기후치유 홍보 동영상 2,000만 원이랑 쪽 밑에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제작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왜냐하면 짜깁기해서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따로 짰어 봤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은 위원님들께서……

○ 박인철 위원

해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 하고 행사장에 가서 보면 영상이 바뀌지고, 바뀌지고 그랬던데.

아니, 그 밑에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4,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제작할 때 액기스만 뽑아 가지고 하면 위에 2,000만 원은 필요가 없겠구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님,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활동모습을 소개해야 될 그런 사항이……

○ 박인철 위원

해양치유산업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한 단락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한 쪽지 정도는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ですよ.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일단 거기에다가 전반적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 박인철 위원

도대체 해양기후치유가 뭐예요? 해양기후치유, 기후치유, 노르딕워킹. 노르딕워킹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저도 직접 체험을 많이……

○ 박인철 위원

명사장에서 하는 것이 노르딕워킹이 맞습니까? 한번 학술책을 봐보세요. 두 발이 떨어질 때

평길에서 하는 것이 노르딕워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노르딕워킹은 평길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모래밭에서도 할 수 있고요.

○ 박인철 위원

경사가 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책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이랑 같이 가면 되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투자설명회라든가 용역사가 되면…… 용역사, 이 경비로만 하면 되지. 거기애다가 뭐하는데 순군비 3,000만 원을 대려고 그래요. 거기 용역사, 위에 전부 다 그대로 나와 있구면, 하는 것이 전부 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저희들이 용역사에 부담하는 것은 부대시설이라든지, 오찬비용이라든지.

○ 박인철 위원

아니, 용역에서 투자설명회도 다…… 용역을 맡겼을 때 다 들어갔으니까 용역사 경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으로 우리 완도군을 위해서 용역비에서 2,000만 원을 떼어 가지고 투자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업지시를 내렸을 때는 용역사한테 내렸으니까 이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만큼의 비용은 좀 부담하게끔 저희들이 했고요. 부족한……

○ 박인철 위원

그것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 뭐…… 용역사에서 사은품까지 다 나와 있구면, 과업지시서에도 짝 나와 있는데.

이것 한번 과장님, 설명은 둘째치고라도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상하고 그 밑에 홍보 영상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따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약 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9,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금일 권역하고 노화, 보길 권역에도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운영비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행사운영비에 한도액이 있어서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욱

같이 설명을 한 번에 다 하시라고.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그다음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초급지도사 양성과정인데요.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64명에 대해 초급지도사를 양성했습니다. 이러한 초급지도사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화과정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요. 양성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퇴보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교육해서 향후 지도사로 투입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영상지도사를 상하반기로 해서 약 40명 정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해양치유 초급지도사들이 올해 45회에서 138명 정도 축제라든가 팸투어라든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치유초급지도사 양성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염지하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염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세공을 개발했는데요. 기반시설 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면 3호 공에…… 쉽게 이야기하면 이벤트광장 쪽에 시공해 가지고 거기에서 염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지하수를 해양치유센터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데크 다리를 이용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사십리 경관상 그것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요, 밑에 흐르고 있는 배수로를 횡단해서 타 파기 작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저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필요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염지하수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런……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안정상 우려가 되고요, 또 전기시설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글루 형식, 거북이등 모양 형식의 이런 조형이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먼저 할까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계속 해왔지 않은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런데 이번에 새로 또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필라테스나 노르딕워킹 강사 64명을 양성했는데요, 이 분들을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변화하는 이런 해양치유산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요.

새롭게 내년에 명상지도사를 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명상지도사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위탁 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이것 운영비네요. 해양치유프로그램 교육비네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교육기관에다가……

○ 위원장 최정욱

7,000만 원, 이것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니, 그 7,000만 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 위원장 최정욱

행사면 어떤 행사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치유 프로그램,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 뭐 여름철이라든가 봄, 가을철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7,000만 원이어서 7,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밑에 프로그램 초급지도사 양성과정은 기존에 양성해 놓은 초급지도사들을 계속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새롭게 명상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위탁교육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양성과정 교육비구먼요. 그렇죠, 4,000만 원은? (예)

7,0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네요, 노르딕워킹이 됐든, 그런 것을 하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인건비라든가 꽃차라든가 해조류 음식 같은 것. 또 다시마포장을 여름철에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시설비라든가 장비 구입, 이렇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박인철 위원님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홍보 동영상 영상제작 4,000짜리 있잖아요, 2,000만 원 그것 한 것도 교육과정에…… 다른 데에 가서 홍보할 때 그것을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잖아요. 홍보 동영상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야지. 어디에 가서 홍보해서 치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한 번에 와 닿게끔 어떤 설명이 되어야지. 일부분 그것만 가지고 가서 모래밭을 걷는다. 이런 것을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와

당했어요? 정말 왜 해양치유가 필요한가부터, 그래서 우리 완도가 왜 적지인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이것이야요, 4,000짜리가.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위원장님, 4,000은 2017년도에 처음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이 모델들은 거의 외국인 모델이었고 또한 수차례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 위원장 최정욱

아니, 그러니까요, 새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에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거기에다가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촬영해서 편집하게 되는데,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은 약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홍보자료…… 아니, 교육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교육 자료를 이 자료로 쓰면 좋지 않겠냐는 얘기에요. 훨씬 낫죠, 이것이.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이것은 거기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최정욱

교육장에 가서 단순하게 체험하는 것을 틀어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뭘…… 여기에다가 이것을 잠깐 그것을 넣어서 같이 해야 맞지.

○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

(좌석에서)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홍보 동영상, 해양기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동영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방공무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싶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되는지 알고 싶다.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향후에도 앞으로 완도의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참

여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타지역도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해양치유산업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졌던 동영상을 보내면, 기존 동영상은 우리가 하고 있는 기후치유 프로그램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1초, 2~3초 내에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데, 교육자료로 썼을 때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4,000짜리는 예전에 외국인으로 했어 가지고 다시 한국인으로 제작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

(좌석에서) 이것은 물론 교육자료로도 쓸 수 있겠지만 주목적은 교육자료가 아니고……

○ 위원장 최정욱

그것은 아는데, 기왕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적어도 완도가 왜 필요하며 왜 해양치유를 하게 되었는지 이어져서 여기에서 말하는 기후치유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교육자료가 훨씬 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

(좌석에서) 이 동영상을 3분에서 5분으로 짧게 제작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면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주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후치유 프로그램 진행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은 이것이 주포인트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래도 결국은 거기에 가면 틀게 될 것인데, 이것을 빼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

○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

(좌석에서) 아니요, 그렇게 되면 2개 다 틀게

되겠죠.

○ 위원장 최정욱

결국은 2개를 틀게 돼요.

○ 해양의료지원팀장 김현주

(좌석에서) 예,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 갑니다. 단순히 기후치유라고 해서 해변가에서 하는 노르딕워킹이나 필라테스나 명상이나 이런 아웃도어 프로그램 이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꽃차시음, 꽃차시음이나 해양치유음식 시식이 있고 또 해수찜이 진행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기후치유 프로그램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알았어요.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이어서 해조류전시관 리모델링사업 2017년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부터 (청취불능) 해조류관 건립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교부세 5억과 군비 14억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하지 않아서 건립하지 못하고 군비 14억은 불용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특교세를……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해조류박람회 주재관으로 활용했던 해조류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같이 해주세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계속해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국비 6억 2,000, 도비 1억 8,600, 군비 4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내년에 총 6개 사업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추진할 계획이고요, 세부사항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특별교부세 있죠. 이것을 해조류전시관 리모델링할 때만 이렇게 써야 되는 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2018년 해조류박람회 끝나고 나서 워터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군비를 불용시키고 남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박람회 주메인도 리모델링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몇 차례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돈의 성격이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승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주재관에 2021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주재관 콘텐츠를 다시 한 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 돈을 가지고 주재관 콘텐츠는 부족하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 돈을…… 이 돈은 예전에 건물을 짓자고 받아온 것인데, 서길수 여성아동과장이 해조류박람회사무국에 있을 때 받아온 돈이에요. 장보고동상인가 어디에 짓자, 청해진 (청취불능) 짓자고 했는데 부지가 의회에서 안 맞다 해서 다 부결시켰는데,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데에 쓸 수 있냐는 이 말이에요.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예산팀 이인석입니다.

특별교부세 관련해 가지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 특별교부세팀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소가 똑같은지 아니면

무조건 해조류와 관련한 시설에만, 그리고 시설을 신축하든 리모델링하든 이런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먼저 장보고기념관 리모델링이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아직 기초적인 여러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장보고기념관 그것은 부결하고, 그러면 장소는 같은 장보고기념관을 포기하고, 해조류전시관을, 해조류센터를 그러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보니까요. 마침 해조류센터에서 리모델링 수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거기밖에 못쓴다는 것이죠?

○ 주무관 이인석

(좌석에서) 예, 다른 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그 밑에 과장님, 이 용역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용역,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나는 여기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는데.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블루존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 해양치유블루존TF팀장 윤세환

해양치유블루존TF팀장 윤세환입니다.

2020년도에 용역진행을 총 6건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은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 개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개인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건강기후치수 개발은 해양기후치유 대상지역의 기후 특성과 개인 건강정보가 융합된 특화된 건강기후치수 제공을 위해서 (청취불능)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완도 건강지수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맥반석과 해산물의 영양적 관계 여부

는 맥반석하고 해산물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상관관계를 과학적 근거로 찾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조류산업관광 프로그램은 해조류양식하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양한 해조류 산업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요. 향후에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체험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윤세환 팀장님이…… 웰컴입니까, 웰컴입니까? 거기에 줬던 그런 용역과제들과 옛 비슷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 과제들이.

과제가 6개의 과제라고 했습니까?

○ 해양치유블루존TF팀장 윤세환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윤세환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과제들을 우리가 처음에 해양치유라고 해가지고 쪽 웰컴에다가 용역을 줬던…… 그런 과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과제에? 설명서에는 없는데, 추가 설명에는.

○ 해양치유블루존TF팀장 윤세환

(좌석에서) 어떻게 보면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포괄적인 계획이었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서 수용하게 될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절차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끝나고 한번 갖다 주십시오. 6개의 과제가 어떤 과제고 어떻게 진행되는가. 예산이 통과되어야 용역사들도 할 것 아닙니까?

○ 해양치유블루존TF팀장 윤세환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과 지역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유통하는 시설을 건립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도비 30%, 군비 30%, 60% 총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매년 연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매년 3개소씩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완도항 배후부지에 건립으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으로 수출상품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 및 저비용 고품질의 생산능률 구축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수출주도품목 개발, 안정적인 수출물류기능 확보, 해외소비패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홍보영상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 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물 수급안정과 (청취불능) 지속 가능한 수출산업 육성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완도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외벽에 LED 홍보영상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군 친환경수산물의 우수성과 수산물을 이용한 해양치유산업 홍보영상 등을 주야간에 방영함으로써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군을 알리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전광판 설치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592페이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요, 이것 어떠한 시설들입니까? 김공장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완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전체 김이든 어패류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통상적으로 매년 해온 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사업들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는 주로 해조류와 전복가공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이범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 전복가공사업을 대창리에서 신청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사업이어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와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 이범성 위원

포기해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받은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서 다시 추가 사업으로 해미원에 사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전복가공을……

○ 이범성 위원

전복가공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김가공공장, 약산에 있는 김가공 공장.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1차로 그것이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황칠전복으로 해가지고 전복장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아마 사업이 선정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할 때 도중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미원에서 다시 제2차 사업비를 가지고요, 해미원에서 다시 그것을 신청해 가지고 아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수산물산지가공, 이 시설사업은 어떤 것으로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정해진 요건이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박인철 위원님, 됐습니까?

○ 박인철 위원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홍보물…… 물류센터 전광판 설치는 위치상 거기가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거기에다가 그 큰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보는데,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겠어요? 저는 위치상 절대 안 맞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시점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면 그쪽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허궁희 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관문이나 있다든가 그런다면 들어오면서 보고, 또 나가면서도 본다고 하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영상물에 글씨 몇 자……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치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앞을 내다보면 서 해야 되지 않느냐.

○ 허궁희 위원

앞을 아무리 내다봐도 그 앞에 바다를 다 메꾸지 않는 한, 거기에 무슨 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저는 꼭 그 부분을…… 제 생각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출물류센터가 50억 아납니까, 그 50억 중에 벌써 10억을 전광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삭감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위치 선정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삭감 쪽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산지가공사업이요,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 위원장 최정욱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닙니다. 1월에 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593페이지입니다. 사료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완도명품광어의 명성을 지속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저장보관시설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위생적인 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할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25% 5억 원, 군비 25% 5억 원, 자담 50% 10억 원으로 총 20억 원의 사업으로 보조금 가내시되어서 1차적으로 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가내시 이후에 본예산 과정에서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5%에서 40%로 변경되어 가지고 8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군비도 25%에서 40%로 변경되어서 8억 원으로 다만, 자담이 50%에서 20%로 낮춰져서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8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억 원은 2021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선거회 가공공장 신축사업입니다. 광어 생산량 증가 및 활유통 한계로 소비가 부진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이에 선거회 소비시장 확대와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광어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 또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개

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0억 원 중 도비 25% 5억 원, 군비 25% 5억 원, 자담 50% 10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으로 보조금 10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본예산 과정에서 사업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군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원도 도비 25%에서 30%로 상향되고 군비도 25%에서 30% 상향되었습니다. 자담은 50%에서 40%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또한 내년 예산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2021년에 나머지 도비 4억 원,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회 가공공장 사업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30억 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남도와 내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적어도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93페이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선거회요, 이것 개인한테 준다는 얘기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개인한테는 가급적 주지 않고요. 생산자 단체 내지 수협을 통해 가지고 해야 수혜사업인 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선거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해 돼요, 상상하다는 것을. 썰어서 오는 것은…… 초밥은 보편화가 되어 갑니다마는 어디에서 썰어서 오는 것은 이렇게 권장하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것을 해서 많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들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방금 말한 대로 적어도 우리 군이 아니면 수협이 한다는 얘 기예요. 인지도가 있어야 만이 신뢰가 쌓이고, 소비자도 그나마 믿고 먹어볼만한…… 가까이 가 보려고 그러지. 민간이라면 아예 안 한다고, 믿 지 못하기 때문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 습니다.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의 성공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업 수협 또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수협에서 자기들이 해야 맞죠. 이런 것이라도 선도적으로 해서 하고, 또 이익이 아닌 어민들을 위해서 하고, 개인이 하면 이익을 봐야 되지만 수협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개인 은 내가 봤을 때 절대 어렵습니다. 괜히 우리 군 비만 날리게 됩니다. 이것 군비가 9억 들어가더 구면.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리고 민간자본 저온저장시설, 그것은 어 떤 사람한테 갑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도 완도 명품광어를 양식하는 어업인들한테 사료를 공급하는……

○ 위원장 최정욱

아, 그 광어축양장의 사료저장시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저장해 가지고 사료를 공급하는……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594페이지에 감태, 우뚝가사리 시험양 식사업입니다. 해조류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태, 우뚝가사리 시험양식기술 확보 및 고부가 가치 해조류 생산을 통한 유망양식품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은 전 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에 위탁을 줘가 지고 시험양식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으로, 본예 산에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한 감태 시험양식을 또한 양식기술 확보로 기존 의 단순양식 가공처리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년기 건강을 위한 노후화 관련 기능성식품 등 최근 사회가 추 구하고 있는 웰빙현상 및 바이오산업에 대비하고 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594페이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부터 누차해 온 사업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감태와 우뚝가사리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 다.

○ 이범성 위원

이번에 시도하는 사업이지만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들 중에 품목만 다르다는 뜻이 아닙 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과학원종자연구소, 지금 이런 해조류 부분 에서 사업은 거기밖에 안 쫓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해조류 부분은……

○ 이범성 위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연구는 한다고 하면서 잘하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을 얻

은 적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딱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역하고 소안 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험양식 중에 있습니다. 종자 개발로 해가지고요.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 그런…… 사업비가 들더라도 꼭 해야 할 부분인데요,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다음에 생산까지, 그런 부분들의 연속성이라는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취지가 아니라 좋은 사업일수록 뭔가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로까지 계속 신경을 써가지고요.

만약에 이 종자가 다음에 나왔으면 어민들이 그 종자를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결과물이 잘 나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596페이지,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입니다. 미래 수산양식산업의 선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지원으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종 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15%, 군비 35% 총 2,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올해도 고품종 종묘를 일부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

을 진행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음은 597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경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 사업은 해조류 이양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당 1,000만 원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25대를 공급하고자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저는 잘 알겠는데요, 해조류이양기라는 것에 설명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과거에는 거의 수공으로 해가지고 종묘를 잘라 가지고 손으로 일일이 끼웠습니다마는 지금은 해조류이양기…… 종묘를 기기가 자동적으로 뽑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동력이 절감되고 어업인들의 어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 이범성 위원

지금 이 기계가 다시마 종자나 아니면 종묘나 미역종묘 꼬지를 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이 사업이 어촌계 단위로 선정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 단위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메꿔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못 받은 데는 다시 주고, 또 새롭게 어촌계가 못 받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4년간에 걸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총 104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마을에는 김채취기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김채취기는 지양하고 해조류 이양기 쪽으로 돌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런데 꼬지를 하는 데는 주로 금일이나 신지 부분들. 다시마 꼬지랄까 미역 꼬지랄까 말리는…… 건다시마나 건미역을 하는 데로 주로 치중되어 있고, 또 이쪽 남산면 쪽에 꼬지를 안 하는 곳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쪽 어촌계는 그냥 감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주로, 서부권은 주로 김채취기로 공급을 하고……

○ 이범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조류이양기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년에는 해조류이양기로만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내년에는 해조류이양기인데…… 지금 104대가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하면 거즘 다 안 끝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종묘 꼬지 시기가 있어서 짧은 기간 내에 그 많은 물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기계가 부족하다고 많이 요구를……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한 대를 가지고 열다섯 집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한 대를 가지고 삼십 집, 오십 집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원을 더 요청해 가지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갈 수 있게끔 하고요. 말을 잘하는 어촌계는 2대, 3대까지 가지고 있는 어촌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AS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활용은 참 잘하고 있는데……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 업체가 어디인가요?

(방청석에서 “업체는 광주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광주인데, 문제는, 왜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고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가…… 장기간 쓰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써요. 그런데 하필 그때 AS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광주로 신고 올라가고 뭐 맡겨 놓고 오고 그런 것에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는 높습니다. 높은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598페이지, 두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598페이지,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사업입니다. 항생제 오남용 방지 및 어류양식 안정성 확보로 고품격 어류 생산에 따른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국비 30%, 군비 30%, 자담 40%로 진행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12억 7,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담 본예산에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8페이지, 폐사어처리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폐사어가 증가함에 따라 폐사어 처리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스템이 노후되어 이를 보강, 폐사어 물량이 적치되지 않고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예산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 예산에 1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는 올 예산 1억 원 외 부족분에 대한 1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제가 했으니까 하려고 합니다. 뭐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백신이 공기관에 대한 것입니까, 민간 이전입니까? 내가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또 민간이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류양식수협에서 감사에 걸려 가지고 해경조사도 받고 검찰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목이? 이것 또 이렇게 되면 어류양식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할 것이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사업의 자격은 어업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군에서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올 지침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 지침

을 아마 개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어류양식수협 같은 품종별 수협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려고 예측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민간이전을 한다고 하면 어류양식수협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해년마다 어류양식수협에서 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데…… 그래서 공기관으로 내려 가지고 보조가 나가야 되는데 목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저번에 광어협회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직접 하는데 군은 인력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사어, 이것도 어류양식수협에다가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상품어를 하는 데에도 돈을 주고, 폐사어를 하는 데에도 돈을 주고, 최소한 기계 정도는……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거름을 만들죠, 퇴비를. 그러면 자기들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을…… 작년도 올해 예산에 1억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부족분은 나머지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또 다시 여기에서 1억 4,000으로 해가지고, 방금 뭐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부담을…… 6,000만 원 나머지 그런 기계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광어어가들을 위해서 비상품어…… 아니, 폐사어를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수거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기초적인 기계 정도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기계까지 우리 군에서 군비로…… 순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수협에서 폐사어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사어 액비 공급을…… 만들어 가지고 액비를 공급하고요, 그에 따른 이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윤 중에서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합원들한테 출자를 증좌해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부 환원하고 있는……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조합원들의 문제고요. 출자 증좌가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기계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1억……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1억 4,000이나 더 잡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 지적사항……

○ 박인철 위원

증좌하기 전에, 조합원들한테 증좌하기 전에 기계설비 같은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폐사어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폐사어 처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로 끼치는 영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상품에 광어어가들을 위해서 폐사어 수급까지 하고, 그것들을 다 자기들이 믹서기에 넣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거름으로 퇴비로 해가지고 액비로 만들어서 고단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산하고 상관없이…… 백신접종하고요,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항체검사 자료를 다 가지고 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받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 잘 나와요? (예)

항체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접종해 놓고 수협에서 하든 (청취불능) 접종해 놓고 보면 항체가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접종을 하나 마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나오면 다시 재접종을…… 그 분들이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어가에서 돈을 내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체가 안 오면 그 약이 안 좋다는, 백신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한 달 뒤에 항체검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저번에도 얼마 전에 완도 관내 질병관리원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같이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점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대응을 잘 안 하면 그쪽에 대한 페널티를 주십시오, 그 업체한테는. 그렇게라도 해서 항체가 잘 나오고 진짜 좋은 백신을 접종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계속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ASC 인증어가 부표표피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국제인증 ASC 신청 어가에 부표표피 교체 지원을 통하여 ASC 인증 취득 및 청정바다수도 완도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50% 부담, 군비 50%로 해서 총 50어가에 대해서 가두리 백합에 대한 부표표피 교체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복가두리 부표가 붉은색으로 비닐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부표 비닐막이 다 벗겨져 가지고 하얗게…… 그러면 ASC 인증 심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악재조건으로 나타나서요.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친환경 부표사업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당초에 전복가두리 부표 지원사업도 당초에 고밀도 부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표는 너무 단가가 비싸 가지고 어업인들이 그 부표는 잘 쓰지 않고요. 현재 스티로폼 부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로폼부표에 빨간 비닐막이 벗겨지면서 하얗게 드러나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ASC 인증 심사과정에서도 상당히 저해요인이 돼서……

○ 김양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친환경부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이 사업도 있고 그래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 친환경부표 지원사업은 주로 김하고 해조류양식어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것은 그쪽으로만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가져올 수 없는 사업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전복가두리 부표 고밀도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그것 수용 어업인이 없어 가지고 중간에 그 사업이 없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ASC 어가들을 만났어요. 어제도 만나고 이전에 신지에 가서도 간담회에서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것을 엄청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증을 받을 때, 이번에 14어가인가도 더 신청했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5 대 5 매칭사업도 좋으니까 이렇게 많이 해주십시오.” 라고 그러던데, 이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첫 시작하는 사업으로 현재 2기 14어가가 진행 중이고요. 또 이어서 3기 어가가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양훈 위원

이 돈을 가지고는 터무니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해서 ASC 어가들한테 100%는 못 채워주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조금 더 해가지고요.

이것이 전부 다 옛날 스티로폼은 페스티로폼이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그런 부분도 있고 친환경 인증을 받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 때 에나 좀 더 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되돌아가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방금 김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부표 그것은 말씀 잘 해주셔야지. 그것은 일명 꼬마망입니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알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는…… 그리고 이것은 친환경 ASC어가에 부표를 해준다는 꿈피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야 금방 이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1기, 2기까지 심사가 다 끝난 것 아니죠? (예)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분들한테는, 2기는…… 심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기는 심사비만 지원했습니다.

○ 박재선 위원

1기, 2기를 받을 것인데 해마다 다시 새로 받는지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러니까 1기, 2기도 심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매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법규가 벗어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선 위원

저는 1기입니다. 그런데 2기를 심사하는 과정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3,000여 칸을 교체했더라고요. 그것을 자기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것이 한 8,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2기생 14개 어가가 받는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쪽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기, 2기는 (청취불능) 청산바다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군 차원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부표표피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뭘 씌우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기존에 빨간 비닐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니까……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청취불능) 바꾸는 것은 아니네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고 표피만 바꾸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친환경 그것은 통을 다 바꾸는 것이

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양식어장 부표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똑같은 페이지니까 그냥 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00페이지, 고부가 텀 갯지렁이 시험양식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복사업 위기에 따라 대체양식을 통한 고수의 품종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시험사업입니다. 갯지렁이 시험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 지원사업입니다.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를 공급하여 조류소통 원활 및 어업인들의 노동력 절감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물세척기 지원사업 15대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복출하용기 단일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복산업 위기에 따라 전복출하용기 단일화를 통하여 전복가격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복용기 약 8만 9,000여 통에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갯지렁이요, 시범사업. 이것 실현가능합니까? 제가 보서는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까지 다 실패를 했고, 또 시범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무의미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보길도 백도에서 한 어업인이 시험

적으로 부경대학교 xxx 교수로부터 종묘를 공급 받아 가지고 한 분이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그랬는데요, 갯지렁이가 상당히 생존율이 괜찮고 서식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이 이것을 너무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생존율이 좋아서요, 이것 또한 너무 확대시켜 버리면 너도 나도 전부 양식하게 되면 가격이 너무 하락되지 않겠냐는 이런 실정이구요, 제한적으로, 갯지렁이 양식산업 일정부문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지금까지 갯지렁이를 양식해서 전부 다 실패한 것 아니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육상에서 해가지고 다 실패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돈이 되는 집은 진도에 계시는 한 분만 있습니다. 부화한 집. 그 양반이 부화를 해가지고 고단가…… 뭐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앞으로 낚시하면 이런 사업이 없다. 거기에서 부화해 가지고 완도 쪽에 양식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참 여러 어가들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전부 폐사되고, 전부 다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띄운다고 하는데 갯지렁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거의 모래밭이나 벌 밭에서 살아요. 부경대 교수들이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옵니다. 부경대에서 모든 것을 다 연구하고, 그런데 실상 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실패입니다, 와서 보면.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어디 연구소에 있다가 정년을 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지원한다. 그런데 제가 보서는 이것도 거의 사업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복가두리양식장 밑에 설치해 가지고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

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시험양식을 정리해 가지고요, 앞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시험양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전복양식장 그물 세척기 지원사업이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은 전복가두리양식장 가두리에 평상시 이 물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조류소통에 저해되고, 그로 인해 폐사가 생기고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물세척기를 공급해 가지고 그물……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 김양훈 위원

고압세척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고압세척기는 어가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모든 양식장에 가면 다 고압세척기를 사용합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면 이것 한 대를 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15대를 가지고 열다섯 집만 해준다는 얘기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겠어요? 나중에 이것 계속 해주라고 하면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장에 진짜 필요한 세척기이기 때문에 그물 관리할 때나 전부 다 자기 세척기를 가지고…… 2대, 3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육상양식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좀 더……

○ 김양훈 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히……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 대 4의 비율로 해 가지고 자부담 60%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무리 해도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필수품인데, 필수품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복양식어가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 전복양식어가만 해주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데도 해주라고 하면 다 해주어야죠, 다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 양식어가들이 몇 군데입니까?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은 고려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최근에 전복산업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업인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것은 고려해 보시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전복출하용기요, 지금 노화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노화요?

○ 박재선 위원

예, 출하용기요, 광주리 때문에 전복생산자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냐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일정 부분 생산자협회에서 같이 하기로 해 가지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2,800원씩이라고 했는데 한 개당 2,8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8만 9,000개를 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1개당.

○ 박재선 위원

개당이요, 그러면 현재 3,050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2,800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닙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40%만 지원하고 자부담 50%.

○ 박재선 위원

2,800원에서요? (예)

그러면 단가가 더 비싼 가격에 대해서는…… 그것하고 2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장에서 나온 생산 단가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공장에서 나온 단가입니다.

○ 박재선 위원

현재 팔고 있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단일화된 용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 완도읍도 제가 알기로는 2,000…… 완도읍이 좀 더 싸고 노화읍이 좀 더 비싸고, 또 일부 2개 업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업자는 좀 더 싸게 하니까 거기에서 또 단가를 떨어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민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이 어민들을 대표해서 봉사하겠다고 생산자협회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이윤을 남기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산자협회 회장님들하고 자리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조해 주고 나면 이 보조금을 그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어민들이 그 가격을 이만큼 다운시켜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사기는 것하고 엇비슷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가격은 완도생산자협회하고 제작업체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 박재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니까 어민들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방청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한 것은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고요, 2,800은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요, 지금 현재 전복판매하고 유통업자하고 다 계약되어 있는 것 아니죠. 생산자협회하고?

(방청석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협회하고 거기하고 다 계약을 맺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광주리가 아니면 유통에서 전복을 안 가져가요, 그러면 그 업자한테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이,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에요.

시행할 것 아닙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통과되면, 그런데 해운하고 주영하고 회사가 두 군데 있어요, 그 회사가 아니면 유통업자가 생산자한테 전복 광주리를 다른 광주리면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진하면 이것이 생산자협회로 그 회사에 그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다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당연히 보조금은 업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협회로만 들어가 가지고 실제 어민들

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데요, 제 말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용기를 단일화시키면 어민들이 1광주리당 0.4kg의 전복 덩을 덜 주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수익이 어업인들한테 돌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굵은 전복은 이익이 나와요, 광주리 값이 나와요. 굵은 전복을 판매했을 경우에. 그런데 보편적으로 70%에서 80%는 다 1년 반짜리 전복을 판매해요. 잘잘한 전복을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주리를 한번 판매하려면 일반 어민들이 50에서 60만 원 정도 자기 돈을 주고 광주리 값을 사야 돼요, 현재.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인데요, 그리고 그 kg 수가 안 나오면 상인이 절대 안 가져갑니다. 거기에 또 약정을 해버렸어요, 유통하고 생산자 협회하고. 그러니까 어민들만 당하는 거예요, 계속.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용기무게 자체를 과거에는 13.8kg 정도 달았는데 이것을 단일화하면 13.7kg를 달고요. 안에 전복이 들어가는 양을 과거에는 12kg를 달았는데 지금은 11.6kg로 낮춰서 전복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0.4kg를 어업인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을 하나도 못보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완도군 전복산업발전협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 박재선 위원

어민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차피 생산자협회 회원들이 다 어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

서……

○ 박재선 위원

저는 수시로 듣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도 사실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599쪽이요. ASC 어가 부표표피 교체 사업,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복 1기를 하고 2기를 준비하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이 표피사업을 하면 1기한테만 줘니까, 2기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1기는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요. 그것을 매후 사후관리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표피가 벗겨졌을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계속 그것을 매년 해줄 수는 없고요. 한번 지원해 주면 그 이후로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수산경영과에서 고밀도 부자라고 합니까? (예)

이런 것도 지원해 주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과거에는 전복가두리용 부자로 해가지고 고밀도 부자를 지원했습니다라는 어업인들이 전부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단가가 비싸서 그렇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지금은 공급하지 않고, 해조류라든가 김에 대해서는 친환경양식 부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일반부표하고 그 부자, 고밀도 부자하고는?

(방청석에서 “배 이상으로, 많은 것은 3배 정도까지 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FRP 그런 부자…… 플라스틱이라고 합니까, 뭘니까? 그런 부자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그런 것이 대부분 친환경부자……” 하는 직원 있음)

친환경 부자로 해가지고…… 단가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차피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과장님께 드리는냐면 표피사업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ASC 어가들을 인증하게끔 우리 군에서 용역도 하고 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이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부자하고 차이가 나요. 나머지 친환경 부자로 했을 때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점차 지원해 나가면 어떤가, 예산을 더 해서라도.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부표가 소요되고 그에 따른 가격단가가 크기 때문에.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물론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해양수산부에서도 친환경, 친환경 미세플라스틱이라고 그러니까 국비라도…… 노력해서서 국비라도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해 가지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방청석에서 “지금 친환경 부자는 국비…… 군특입니다. 군특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비싸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그것이 도로 지방이양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비 사업입니다. 친환경 부자 자체가요.

아니, 국비를 지원해 줘도 비싸서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 단가 자체가 비싸서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나머지 차액은 비싼 만큼 우리 군비를 대서라도 해주면 어떤가. 그리고 이 표피사업이 8,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 5 대 5 사업입니까, 어가하고?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지원액이 미미하지 않나. 내가 엇그저께도 ASC 2기 어가 분들과 간담회를 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가들이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어서 600페이지, 김 육상 채묘 및 냉동망시설 사업입니다. 기존 김양식시설을 자연해상 채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여건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초기 (청취불능) 발생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정적인 채묘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육상 채묘 및 냉동망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김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억 원 사업계획으로 지원이 80%, 자담이 20%로 해서 본예산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어디어디에다가 할 것입니까?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 관내에서 군외 지역하고 금일지역 두 개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군외 당인리에는 예전에 채묘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거기 냉동실하고 육상채묘장이…… 거기 10년이 넘었죠, 이것을 한지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육상채묘장을 일부 시설했는데, 냉동망하고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요.

○ 박인철 위원

그 옆이 냉동실이 아닙니까, 지어진 것은? 당인리에 있는 것이요.

(방청석에서 “예, 냉동창고가 맞는데요, 그 때 같은 경우는……” 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 해조류양식팀장 방현수

(좌석에서) 아, 예, 죄송합니다.

해조류양식팀장 방현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정도가 훨씬 지나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업 자체가 어촌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냉동망을 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사후관리 기간도 지나 가지고 시설이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를 공모해서 할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02페이지, 양식어장 재배치사업입니다.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적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추진을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관내 전복양식어장의 폐사율이 계속 증가됨에 따라서 대체어장을 개발, 이설하는 사업으로서 진행했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전복가두리양식어장의 폐사율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이 사업을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자부담이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매칭사항으로 내려와서 총 22억 8,571만 4,000원의 사업계획에서 국비 35%, 군비 35% 그래서 총 16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녹색 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으로서 이중…… 이 사업 또한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다 어떻습니까. 안 되면 계속 이것을 불용시킬 것이죠? (예)
이것 이월사업으로 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월사업……

○ 박인철 위원

사업을 했을 때는 이월할 것 아닙니까, 잔액이…… 집행하고 남았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에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이 두 과목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 어장 재배치사업을 일부 하고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현재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월되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정부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로 해서 사업물량을 배정했습니다마는 거의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서 다시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판단은…… 태양광도 전년도에 있었지만 전혀 없고요, 순군비만 이렇게 잡아놓은 실정이 되니까요, 과장님의 판단은 이 두가지를 다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본예산에는 삭감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만약 다음에 혹시 사업물량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해서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제가 말을 했으니까. 지나간 것인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료저장시설하고 선어회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것 연차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비율도 잘못되고 다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국비만 놔놓고 군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 같이 세우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예산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올해 당장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내년도까지 와야 되는 것이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그리고 매칭비율도 다 달라지고 그랬으니까.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그 설명을 듣고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 사업비만 가지고라도 우선 사업자를 선정해서 올해 교부되고 내년에는…… 어차피 2개년도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사업비만 주면, 가능하다면 관계없는데. 사업자 모집도 안 되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틀어졌잖아요, 총사업비 비율부터.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다 달라져 버렸어요.

○ 예산팀장 최영미

(좌석에서) 그러니까 삭감하고 추경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그것은 주무과에서, 일단 주무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요.

○ 박인철 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제 생각은 사료저온저장시설 부분은 이대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요, 선어회 가공공장 부분은……

○ 박인철 위원

삭감해도……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가급적 크게……

○ 박인철 위원

매칭비율도 다 달라지고 예산도 다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관은 없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선어회는 왜 그렇습니까, 또 사료는? 사료도 다 그렇던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선어회보다 사업진행 속도가 나올 것 같다는 예측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올해 선정해 놓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선어회는 삭감해 가지고 내년도 매칭 비율로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죠? (예)

1차, 올해는 삭감해 놓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04페이지, 어장관리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양식어장 압수물 철거 및 폐기하는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김양식어장 철거를…… 노화방축지구 김양식어장 338척을 철거하는데 위탁처리만 해도 2,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또 무기산, 염산 단속 폐기하는 데에만 해도 1,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대집행 이후 압수물에 대한 처리비가 많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06페이지, 어선어업 미끼 지원사업입니다.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동부권 어업인들이 마량 등 타지역 위판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선어위판장에 대해서 대통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자부담 70%, 군비 30%로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예방 및 사회적비용을 감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공급하고 있는 장비는 (청취불능) 무선전화기와 자동소화시스템, 구명조끼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2,333만 3,000원입니다. 이중 60%를 지원하기 때문에 1억 3,4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어선어업미끼 지원사업이요.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도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다 실시가 끝났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완도금일수협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완도금일수협에서 대응해서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완도금일수협에서 어느 정도 대응투자를 해줬는데, 올해는 전혀 안 해줬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금 특별한……

○ 박인철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완도 금일수협에서는 대응투자가 없습니까? 그냥 대응만 하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담당팀장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왜 하다가 안 해줬는가, 금일수협에서, 그 이유를 한번 대주십시오.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좌석에서) 어업지도팀장 김수호입니다.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조합장님하고 한번 전화통화를 해보고요, xxx 이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게끔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보려고 한다는 그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우리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수협에서, 조합에서도 벌써 이사회가 다…… 내년도 자기들 세입세출로 해가지고 이사회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좀 어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뭐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니까 같이 얼마 많은…… 수협에서 얼마 했습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까?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좌석에서) 6,300만 원.

○ 박인철 위원

6,300이요.

○ 어업지도팀장 김수호

(좌석에서) 예, 10%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올해 수협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준비까지 해서 하고, 이 밑에도 보니까 또 다시마 뭐로 해가지고 이 밑에도 4억 5,000입니까, 2억 4,000입니까. 동부권 다시마로 해가지고 또 2억 4,000이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주는데 왜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그런 것을 안 해주는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조업을 해가지고 완도수협에다가 위판을 하면 위판도 올리고 다 자기들이 하는데……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미끼사업도 예산을 좀 더 해가지고 매칭부담을 우리 군에서…… 다만 10%라도 더 넣어서 추경이라도 확보해 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 박재선 위원

과장님, 구명조끼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쭙볼게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 박재선 위원

구명조끼요, 안전장비 보급, 이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되어 가지고 어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나는 얘기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시행하는 해가 여러 해가 되어서 어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명조끼나 이런 것은 일반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사업 구명조끼는 단가가 높고요, 사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끼입니다.

○ 박재선 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면 이것 다 소진되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다 소진되지 않고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 박재선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을 보면 배를 새로 짓고 뭐하고 그러면 구명조끼라든가 (청취불

능) 전부 다 받아야 될 것인데, 개인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보다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해마다 이 사업비가 남아서 일부를 조금 반납하려는……

○ 박재선 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이야기해 가지고요, 수산과에 홍보를 좀 해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고장이 나거나 부서지면 다시 교체하면서 자부담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 박재선 위원

예, 그렇게 홍보 좀 잘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최정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이것 시행령에 어선어업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 시행령을 바꾸십시오. 바꾸면 제가 봤을 때 구명조끼나 안정장치 이런 보급이 원활하게…… 잘 지급될 것 같아요. 시행령 때문에 어선어업만 해준다고 하니까 어선어업하는 배들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테두리 안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많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위에 해수부나 이렇게 건의해서 어선어업이 아닌 다른 일반어선도 보급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선어업 시행령에 있어 가지고 보급하지 못하고 매일 불용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계속해서 608페이지 전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08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판매 지원입니다. TV 광고, 지하철, KTX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미디어방송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완도수산물의 지속적인 노출을 통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수산물의 소비를 향상시키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판매지원비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도특산물 택배화물차 홍보용 시트지 제작 및 신규 부착입니다. 관외를 이동하는 택배 화물차 수화물 칸에 완도군 홍보 시트지를 부착하여 타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완도군 특산물 홍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특산물 광고디자인 시안입니다. 완도특산물 버스맵핑 홍보광고와 연계하여 버스 옆면에 부착형 스탠드형 배너, 대형 전광판용 등의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도수산물 버스맵핑 홍보 광고입니다. 고속버스 및 수도권 버스에 완도수산물 홍보 배너를 제작, 부착하여 완도군 특산품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버스 운송업체에 지급할 비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하나 또 있는데요. 60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죄송합니다.

완도 동부권 건다시마 보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동부권 다시마 생산량 증가로 인해 위판 재고물량이 늘어 상대적으로 노천, 노상 적재량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실내 보관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노천, 노상 격지로 인한 건다시마의 도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제품의 변질로 인한 저급화를 방지하여 완도다시마의 명성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이중 군비 60%, 수협 자체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시행되면 총 건다시마 380톤 정도는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보관시설이 약 3개소 있습니다. 보관용량은 한 2,800톤 정도로 보관하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건다시마 생산량은…… 4,258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부는 보관하고 이월재고량을 포함해 가지고 2,642톤이 저장고가 없어 가지고 보관을…… 노상, 노천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시설이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총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비촉진 홍보, 판매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TV도 하고요. 지하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택배 차량에다가 시트지를 제작해서 붙여 가지고……

○ 박인철 위원

그것은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요.

1억 2,000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이…… 관광정책과에 봐보면 수산물 홍보 예산이 4억이 넘어가거든요. 4억이 넘어가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또 이쪽 홍보가 만만치 않은데, 어떤 홍보를 하고 누구한테 판매 지원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뭐 특별하게 다른 행사를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 너무나 중복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TV 광고도 있을뿐더러 대도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 활어차를 임대한다든가 또 장소를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많이 소진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런 예산들은 따로따로 나중에 행사할 때마다…… 뭐 전복데이나 미역데이를 할 때 보면 따로따로 행사비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관광정책과를 봐보면 전복6시에 1억, 수산물, 다큐, 남도…… 해조류 홍보, 어영차바다 뭐 거의 다 이렇게 홍보영상으로 나온 것이 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어떻게 되어 가는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내년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지역특산물판매장에 입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요. 또 부산 백스코 등 국내외 대규모 행사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데에 홍보관을 개설하고 그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데에 대부분이 사업비가 다 소요됩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백스코에 나도 가봤습시다마는 홍보할 때 가보고 다 했습시다마는 확실하게 뭐를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빠를 것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동부권 다시마 이것을 했는데. 처음에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금일 옛날 수협창고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시마, 이것이 없다면 금일은 금일에서 직접 하면 되니까. 또 신지나 약산은 완도 여기로 오면 됩니다.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생일 같은 데는 다시마를 많이 하는데요. 생일은 진짜 배를 타고 (청취불능)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데에다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까마는 금일 거기에다가 다시마…… 금일 다시마보관창고를 우리 군에서 몇 번 지원해 줬습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제가 2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또 뭘니까, FPC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우리 군비를 소요해 가지고 하는 것, 어민들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시다마는 진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핑계를 대면서 안 해줘 버리고.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 입장에서는……

○ 박인철 위원

내가 뭐 소안수협을 두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소안수협에서도 지원이…… 어떤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 건이 왔는데요. 그것은 과에서 했는지 예산계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빠져 버리고, 올라왔죠, 소안수협에서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올라온 것으로……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계에 안 갔으면 과에서 했을 텐데. 이런 것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다시마 보관시설이라든가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대부분은 자부담이 동반된 사업으로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부지 확보가……

○ 박인철 위원

이런 것은…… 왜냐하면 금일수협이 올 10월 질문답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2개의 흑자 수협이예요. 그 정도 흑자를 냈으면 어떤 것을 했든, 금융사업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흑자사업을 했으면 이 정도는 자기들이 직

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는, 40억도 아니고 4억인데, 이 정도는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지으면 진짜 필요한 데에다가 지어야..... 아니, 생일에다가 짓는다든가. 아니면 군외나 신지 사람들을 위해서 중간지점 그런 데에다가 한다든지 해야지. 왜 금일에다가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 금일만 다시마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다시마, 거기도 두 번이나..... 내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마는 2번이나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2번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꼭 이것은 금일로 목을 박아버렸습니까. 수협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건물이 있다고 거기에다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완도수산물 버스맵핑 홍보 광고, 과거에도 이것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니까 영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저기 경기도 지역이나 서울 쪽 큰 곳에서 놀 수 있게끔, 그런 데에서 붙이고 다녔을 때 “아, 서울에 가니까 버스에 이런 것을 붙이고 다니더라.”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추진하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수도권 버스에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때 당시에 전라도 버스, 광주에다가 해놓으니까 섬 쪽으로만 다니고, 고흥, 여수 이런 쪽에 붙이고 다니니까요. 붙여봤자 필요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박인철 위원이 내가 오기 전에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런 사업을 주려고 했을 때는 미끼 지원사업 그것 얼마돈이 되지도 않은데 그것 하나도 안 해줘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어요? 같이 서로 소통하고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못하면 다른 팀장들을 시켜서라도 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어서 600페이지, 온라인마케팅 지원입니다. 온라인쇼핑몰 홍보 광고입니다. 완도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활동을 위해서 완도군 이숍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따른 관리 및 마케팅 광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완도군 이숍 상품 사진촬영입니다. 관내 농수특산가공품 사진 촬영을 통해 관내에 어떠한 가공상품이 제조, 유통되고 있는지를 품목 확인 및 업체상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촬영전문가가 제대로 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카탈로그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형오픈마켓 홍보 광고비입니다. 대형오픈마켓에 완도특산물의 집중홍보 광고로 소비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 판매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케팅 광고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이것은 팀장님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완도군 이숍 어떻습니까?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완도군 이숍을 2003년도에 개설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비한 사항도 많고 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해 보려고 4차산업과 연계한 온오프라인과 연계해서 하는 이숍 온라인쇼핑몰을 해보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것이 어떤 방향성이 잡혀지면 이것을 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쪽에 여론이 많이 있어서요. 우선 방향을 잡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올해하고 전년도는 전혀 뭐가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2003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예.

○ 박인철 위원

그때의 소비문화와 지금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왜냐하면 전혀 실적도 없는데, 이것을 계속 잡고만 있어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몇 차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도 크게 뭐 그런 것도 없고.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위원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소비 트렌드가 간편한 즉석식품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지면서요.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구입하는 추세가 대세입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완도군 이숍이 제 역할

을, 거기에 걸맞게 역할을 해오고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냥 멍맥만 이어오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저조하니까……

○ 박인철 위원

이것 전략산업과에 있다가 흘러, 흘러 흘러서 왜 수산경영과로 갔는가.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이 부분이 안 되면, 시대적인 흐름에 뒤처지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전년도 예산에 3,500만 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6,5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인데요. 1억이 아니라 얼마를 더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금방 정경석 팀장이 말한 그런 트렌드가 맞아요. 트렌드는, 그런데 거기에 못 따라간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바로 뭘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뤄주고 할 텐데. 일반사업자들이 하듯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완도군 이숍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숍을 시행한지 오래되고 시대의 흐름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용역비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홍보활동도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군 자체 직원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진짜 책임 하에 한 사람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력구조상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그것까지 포함한 부분을……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위탁으로…… 전문가에 위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위탁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그것을 구상해야 되고, 해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가면서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팀장님,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니까?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지금……

○ 박인철 위원

진즉 오래된 것 같은데.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예, 좀 늦어져서 이월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까지로는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어차피 용역에 의해서 위탁할 것인가, 아직 결정은 안 된 것 아닙니까?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예, 아직 최종결정은 아닙니다마는……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은 미래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을…… 추경에 해도 되죠? 되나요, 안 되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 위원장 최정욱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추경에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본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추경에는 왜 안돼요?

○ 수산유통팀장 정경석

(좌석에서) 어떤 부분?

○ 위원장 최정욱

이 예산을…… 왜 그러냐면 위탁하게 되면요, 온라인 이것 나도 돈을 많이 없애본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위탁하게 되면 위탁자의 생각이 또 달라요. 그때 가서 우리가 돈이 더 들더라도 더 해서요. 위탁자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잘 살려볼 것인지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세밀하게 짜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도 이 부분은 중단해서는 안 되고요.

○ 위원장 최정욱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그 용역이 나온 것에 의해서 위탁자가 나오고, 그 위탁자가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요. 위탁자의 생각이 또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청취불능) 전반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게, 그때 추경에 다시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떠한 얘기예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완도군 이숍은 잘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인지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

히 여기에서 중단해 버린다면 이 예산들이…… 여기에서 보면 완도군 이숍을…… 우리가 인터넷을 클릭했을 때 얼마나 고객들이 빨리 완도군 이숍 그 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직원 있음)

아니, 팀장님. 이것은 해도, 이 예산을 쥐도 용역이 나오기 전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청석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안 해버린다면 이숍에 입점된 70개 업체들이……”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청석에서 “예,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관리해 가지 않는다면 이 완도군 이숍이……” 하는 직원 있음)

이 돈을 쓰고 다시 용역을 해서 나오면 또 다시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방청석에서 “용역을 했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줌……”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 예산하고…… 또 다시 할 수 있겠네요, 이 예산은?

(방청석에서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들어요. 그러면 예산은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쓰고 또 용역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쪼는 얘기인가요?” 하는 직원 있음)

(방청석에서 “용역이 나오면 민간위탁비를…… 올해 반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다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몇 개월 안 남겨두고 사진 촬영을 다 해놓고…… 위탁자가 생각하는 것이 또 틀려요, 사진 촬영을.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돼.

(방청석에서 “상품사진 촬영은 꼭 이숍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든 간에…… 그 다음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 홍보를 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전문가들이 찍어 가지고요, 고객들이 이왕이면 보기도 좋고……”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것은 나도 알아요. 아는데, 위탁자가 보는 자기들의 마인드가 있어요. 나도 해봐서 안다고, 그 위탁자의 마인드에 맞는, 자기들이 원하는 사진은…… 김과 미역을 여기에 놓고 저기에 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쪽, 저쪽 배경을

다르게 놓고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들어간다는 얘데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아니, 위탁자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결과……

○ 위원장 최정욱

그러니까 용역과 관계없이 더 예산을 쓰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알았어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611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위생포장 지원사업으로 관내 수산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수산물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사업은 완도은빛 멸치 포장재사업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신안 김박스가 완도 관내에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빛멸치박스도 지원하겠지만 김박스 부분도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제작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그 사항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김박스가, 신안 김박스가 완도에 한 50%는 점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들에 지원됐을 때 김박스 부분도…… 뭐 멸치도 끊어버려서는 안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김박스하고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김박스 부분 같은 경우도 완도에 진짜 김 브랜드를 찾아 가지고요. 뭔가 지원할 때 계속 맥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완도군 마른김협회 활동이 저조하고 단합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 소안지역과 완도지역에서 마른 김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의 뜻이 하나가 되고 있어서요. 큰 틀에서 완도 김 명성을 다시 찾고 상당히 의기투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박스도 완도 김박스로 디자인을 새롭게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축조심사는 재설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에 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셨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기록중지)

(17시00분 기록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자치행정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 군민 참여행사 지원 및 관리에 대형 태극기계양대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0년도에 소안에 근무할 때 태극기 거리를 처음에 계획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만세운동 100주년행사를 계획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태극기 계양을 너무 안 하고 있어서 그런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완도군이 국내에서 항일운동 3대 성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완도에 와서…… 소안이나 신지, 고금, 약산에 가지 않고서는 항일운동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현재 신지대교 휴게소 부분으로 저희들이 한 50M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양대를 설치하면 완도읍에서 조망은 물론이고 신지, 고금, 약산, 군외 동부권에서도 충분히 조망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와서 대형 태극기계양대를 보면서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완도가 이렇게 항일운동의 성지였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기선양 운동으로 하면서 완도의 야경경관까지,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람이나 풍속이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같이 하세요. 그 밑에.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그리고 205페이지입니다. 신규자 바로알기 부모초청 팸투어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자가 63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규자들이 거의 완도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거주하는데 보통 섬지역으로 먼저 배치되는데요. 그에 따라 완도를 전혀 모르는 부모들 입장에서 섬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식에 대한 걱정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또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부모들을 하루씩 초청해서 신규자들과 일박을 하면서 완도의 명소를 알 수 있고, 또 완도 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부모초청 팸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 무상급식 해조류식품비, 21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완도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완도산 해조류를 학생들에게 보급함으로써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신체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해조류 소비촉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책으로 했었습니다. 사업초기에는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학생들이 해조류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버리고 잔반 처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영양사 선생님들과 몇 번 회의도 갖고 또 저희들이 레시피도 개발해서 전부 나눠주고 하면서 7월 이후에도 영양사 선생님들이 원물이 아닌 가공품하고 또 계란말이나 이런…… 분쇄를 해가지고 학생들 눈에 크게 보이지 않도록 재료를 섞어 가지고 요리법을 많이 개발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조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조금 높아졌고요. 기존에는 선호도 자체가…… 학생들이 해조류 자체를 멀리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음식을 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아졌습니다. 일부 영양사 선생님들과 최근 11월에 회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양사 대표로 계시는 분이 고급초등학교 xxx 선생님입니다. 그 분이 영양사 회의에 가실 때마다 완도군에서 해조류를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해조류 소비촉진에도 큰 영향력이 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기 발육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수산물, 해조류…… 아니, 전복이나 광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그런 제품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 이범성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태극기 부분에…… 태극기가 앞으로 그 쪽에다가 시설됐다고 했을 때는 태극기…… 소안

도가 고향이다 보니까 많이 찢겨지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손색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상이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예, 태극기를 일반 천이 아닌 특수 천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특수 천으로 제작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년에 5회 정도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3~4일…… 바람의 영향, 이런 부분으로 고려해서 5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달랑 국기 봉에다가 뭐 태극기만 휘날리고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가…… 주위에서 보는 관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덜 하니까.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랄까 그런 부분들, 또 주위 환경이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신경을……

○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지역에…… 거기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소개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이범성 위원

예, 그런 부분들까지 병행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329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완도 생활문화체육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5,000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문

화예술의 전당 제일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예술의 전당 아래쪽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저희들이 문화동 1층에 빈 공간을…… 약 118평 정도 되는데, 390제곱미터, 12억 5,000을 들여 가지고요, 소규모 발표공간,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의 전당이 만들어져 있지만 그 안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을 하는 것 외에 별도 소규모로 발표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요, 현실사까지 와서 그분들이 현장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설계할 때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주변에 완도고와 완도수고가 있는데요, 학생들 소규모 동아리활동이나 무대활동 공간, 또 그와 더불어서 계단…… 사진 아래쪽을 보시면 광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편의시설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야외공간도, 야외광장을 정비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예산이 세워지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다음은 340쪽 하단부분에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30억 3,400만 원, 이 부분인데요, 뒤에 유인물을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시설하려고 군특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들 계획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 없는 읍면을 일순위로 해서 선정해 볼까 하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이 따르면 군비가 또 들어가니까요, 군유지가 확보되고, 또 군유지가 확보된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지금 3개소…… 1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제일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현재 군의 게이트볼장 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이런 식은 금일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한 6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금당게이트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당게이트볼장 이 사업은 8억짜리입니다. 8억짜리인데, 이것 또한 8억 5,000이나 9억 정도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8억으로 합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설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금당게이트볼장처럼 건물담게, 실용성 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10억까지 안 들어갑시다마는 그래도 한 9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7억 5,000 정도의 선으로 맞춰서 세 군데가 아닌 네 군데로, 세 군데가 아닌 네 군데로, 7억 5,000에서 네 군데로 하면 한 3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예산을 어렵게 따왔는데, 물론, 군비 부담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정도…… 네 군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선 세 군데는 없는, 시설이 없는 읍면, 그리고 군유지가 확보된 읍면을 통해서 한 세 군데를 하고, 그리고 한 군데 정도는 꼭 군이 이 시설이 없는 읍면도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타읍면에 시설이 꼭 더 필요하다고 하면 한 군데를 더 생각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해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방금 잠깐 계산해 봤더니만 노화, 약산, 청산, 보길, 생일, 다섯 군데를 하면 6억이 나오더구먼요, 6억 680만 원이 나오더구먼요, 다섯 군데를 다 한다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다섯 군데를 한다면 어렵습니다.

○ 박인철 위원

왜 어려워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물가상승……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전경이 금당 전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군외 전천후게이트볼장입니까? 이렇게 하고……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 군테는 땅이 있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땅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지금 노화하고 약산하고 보길은 군유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청산하고 생일은 현재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금년에 야외 게이트볼장을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서요, 야외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줍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야외게이트볼장을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하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이제 그 위애다가 다시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되고, 뭐 청산은 부지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군비를 넣어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군특을 받아 왔으니까 청산 같은 데는 땅값이 크게 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군유지가 없다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지. 운동경기장인데 이 건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만약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6억 6,800만 원씩 드는구먼요, 다섯 군대를 한다면, 그러면 금일도 6억 5,00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정도로 지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해주신다면……

○ 박인철 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게이트볼장도 하고 읍면 행사 때, 악천후 때…… 그렇게 저는 과장님한테 역으로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삭감하자고 생각하지 말고요, 없는 게이트볼장. 과장님의 말씀처럼 있는데를 또 지어주면 안 되니까 다섯 군데 전체를…… 그냥 편안하게 6억 6,80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안 하더라도 있으면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위원장님,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는데요,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 위원장 최정욱

그것은……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쉬운 부분이……

○ 위원장 최정욱

됐어요.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먼저 보충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379페이지, 연근해 조업선단 전용부두 확보를 위한 경비보조사업 설치공사에 대해서 부연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전용 부두 현황입니다.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고 국유지 해양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96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해경으로 이전 상황은 유류바지선과 경비함정 이동이 완료되어 있고, 향후 신설부두 시설건축공사계획은 2022년까지 평택과 부안, 완도 순으로 해서요. 우선 순위를 정했는데 완도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비구조대원 구전용부두가 이전하지 않고 있어서 부지가 (청취불능)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고, 타지자체에서도 연근해 조업선단 유치활동을 적극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후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조업선단을 유치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단에서는 접안시설 확충과 하역시설, 선별시설, 급랭시설, 가공시설 등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구해경부두 매입 절차입니다. 경비구조대 이전 후에 완도해경에서 해양경찰청에 재산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용도폐지한 후 기획재정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자산 관리공사에 관리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비구조대를 이전시키기 위해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의 보충설명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도 불용됐죠? 2,000인가 3,000으로 해가지고.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2억인데, 우리가 완전

건물을 지어준다고 생각하고, 한 5,000 정도로 잡아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컨테이너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군민들이 봤을 때도 합당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제 생각은 약간이라도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위원님들께서 그러신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만 더……

○ 박인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부두도 중요하지만 해경 건물을 우리 군비로 지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은…… 우리가 투자를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8,000만 원 정도.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정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느린섬 여행학교 철거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본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석면조사 등 위험물에 대한 외부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직자들이 건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고 또 용역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소요되

는 용역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정욱

예,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요, 바로 축조심사에 들어가게요.

(17시47분 기록중지)

(18시33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37건에 금액은 48억 3,733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에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 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원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되는 심의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최정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희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세무회계과
- o 기획예산담당관
- 자치행정과
- 주민복지과
- 여성아동과
- 민원봉사과
- 문화체육과
- 경제교통과
- 관광정책과
- 농업축산과
- 환경산림과
- 지역개발과
- 안전건설과

(11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범성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5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11월 8일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경상일반재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결과 일정률을 적립하며, 기존 기금의 존속기한은 관련법상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연말까지로 하고 기한연장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195억 993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조성된 기금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기금의 사용은 일반회계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 긴급한 대규모 사업시행이 필요할 때, 그밖에 기금관리 운영이 필요한 경비지출에 사용하게 되며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19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93억 7,034만 1,000원, 이자수입, 1억 3,559만 2,000원으로 총 195억 523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액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자금수지 총괄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타금 명세서입니다. 3회 추경 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하여 바로 세입 조치 후, 예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1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 그리고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9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을 반영하고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비는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지방세 12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이 9억 6,600만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가 46억 2,300만 원,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한파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600만 원 등 총 46억 3,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2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된 7억 900만 원을 반영하여 교부세와 보조금 등의존수입 반영액은 53억 4,800만 원입니다. 또한 내부거래로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에서 완도해양생물특화단지 부지 매각대금 28억 6,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8억 1,0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총 11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 27억 8,2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분 2,600만 원 등 총 2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제3회 추경 총 세입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5,701억 원 대비 140억 원이 증가한 5,841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63%, 재정자주도는 55.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8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413억 2,400만 원으로 113억 100만 원, 특별회계는 428억 5,000만 원으로 27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1,903억 4,200만 원으로 7억 1,900만 원이, 국도비보조 군비 부담금은 981억 7,400만 원으로 18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74억 4,300만 원으로 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총 3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군비 자체사업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경상경

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총 11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가 세입액과 감액 편성한 예산 193억 7,000만 원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연말까지 소요될 인건비를 추계하여 초고근무수당,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기본급 보수 38억 3,2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 경비 1,600만 원과 성과상여금 5,5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1,900만 원은 부서 요청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와 불용액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26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낙찰차액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삭감 조치하는 등 총 18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 때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841억 7,460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46%인 140억 3,93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413억 2,447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3%인 113억 1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414억 2,428억 5,013만 3,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6.83%인 27억 3,81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71억 3,5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균등분 1,800만 원, 재산세 3억 원,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분 4억 원, 자동차 주행분 1억 1,000만 원, 지방소득세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3억 5,750만 9,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6,59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재산임대수입인 세무회계과 공유재산임대료 2,550만 원, 농업기술센터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350만 원, 사용료수입인 문화체육과 수영장 이용료 1억 5,000만 원, 관광정책과 관광지투어패스 입장료수입 350만 원, 수수료수입인 보건의료원 진료 청구수입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진료수입 6,896만 4,000원, 보건지소 예방접종수입 6,303만 6,000원, 보건진료소 예방접종수입 400만 원, 이자수입인 세무회계과 저축성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인 기획예산담당관 `19년 정부합동 평가결과 인센티브 5,750만 원, 여성아동과 `18년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집행잔액 529만 2,000원, 세무회계과 지방소비세 5억 원, 보건의료원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예약금 환급 6,7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3,926만 3,000원이 증가한 2,606

억 488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특별교부세인 주민복지과 향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789만 원, 안전건설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79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46억 2,34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46억 6,85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94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7,598만 3,000원이 감소한 1,566억 5,3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219만 2,000원이 증가한 415억 9,510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2억 5,034만 7,000원이 증가한 50억 7,3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억 8,544만 6,000원이 증가한 280억 1,53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70페이지부터 17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인 경제교통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28억 6,812만 1,000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전입금 8억 2,04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조광웅

다음은 257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중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독촉장 발송 수수료 600만 원.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물품 지원,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본청 소규모 보수공사 2,000만 원, 약산면사무소 외벽도장 및 울타리

정비 2,000만 원. 청산면사무소 주차장 보강공사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관사관리 시설비에서 읍면 관사 보수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청산면사무소 주차장 공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니까? 돈이 부족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이제 세운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먼저 빨리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6억 3,717만 3,000원 대비 164억 5,393만 6,000원 증액된 260억 9,11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188쪽, 201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18년 실적우수 시군 인센티브 포상금 750만 원

189쪽입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2,000만 원.

19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93억 7,1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저희 실에 2건이 있습니다. 마는 부서지원 총괄 용역비로 농업축산과와 해양정책과에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사무관리비, 영상에 유튜브…… 유튜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데 이것도 홍보해야 됩니까, 돈을 들여 가지고?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요,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해야 됩니다.

○ 박인철 위원

유튜브에 무슨 용역을 세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 유튜브 프로그램……

○ 박인철 위원

아니, 개인들이 자유스럽게 그날그날, 그때그때 했던 것을 올리는 것이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나운서라든지 그런 사람 두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요,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또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을 자연스럽게 방청으로 송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 박인철 위원

영상콘텐츠라고 해놓지, 유튜브라고 해놓으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유투브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서서히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빠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빨리 해서 지적하려다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병가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을 못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식

안녕하십니까? 서무팀장 김용식입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진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5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514만 5,000원이 감액된 246억 9,497만 2,000원입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 직원 업무일지 구입으로 표지와 내지 구입에 따른 1,800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소송 위임변호사 승소사례금 1억 2,000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자치행정과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역 지능형 ICT 타워 조성 20억에 대해서, 사업비 지연…… 사

업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해서 용역 설계진행 중이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01페이지, 일반운영비. 갑자기 위임변호사 승소사례금으로 1억 2,000이나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식

말에 보시면 배상금에서 1억 2,000을 손해배상금으로 저희들이…… 당초 2억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승소…… 당초에는 패소할 것으로 해가지고 패소사례금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소송한 것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승소했기 때문에 승소사례금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총 17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 건에 대해 이기면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요?

○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 소송에 대해서요.

○ 박인철 위원

별도로 이렇게 하면…… 건당 얼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해도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이요?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팀장 고수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송은 건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소송으로 이월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따른 승소사례금은 100%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330만 원으로 하고요, 또 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패소하기도 하는데, 승소

하게 되면 100% 주고 있고요. 특히 구도~연도 교 간접비라든가 금일 하수관거 그 간접비, 그다음에 노화 간접비 이 부분 금액이 커서요.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1억 2,000 정도 책정을 했었습니다마는 고금염전 김동식 사건 외에 나머지는 다 승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고 승소사례금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 807억 9,579만 원에서 22억 3,512만 7,000원이 감액된 785억 6,0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4억 2,137만 4,000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1억 3,9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보훈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향일 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 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취불능) 정비하고 약산면 소안사립학교 조명시설 등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아래 부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신규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13개소에 대해서 공기

청정기 보급 2,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맨 윗부분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납도광역추모공원 조성 분담금 1억 4,994만 5,000원. 참고로 해남군 50%인데 29억 9,000만 원, 완도군은 14억 6,000, 진도군 1억 4,900만 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권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노인목욕비 지원금액을 당초 8억 8,416만 원에서 7,584만 원이 증액된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납,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8년 시니어 창단 운영사업,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대하여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4건에 7억 6,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약산 향일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4억인데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3필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필지가 갑자기 압류가 잡혀 있어서 그것을 푸느라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12월 초순에는 매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비입니다. 2억 1,2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경로당사업을 하다 보면 금일 (청취불능) 경로당복지센터하고 신지면 노인분회, 약산분회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월시켰습니다마는 12월 말쯤에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증축입니다. 소안분회는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11월 중순쯤에 집행할 것으로……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사업…… 사업보조입니다. 도비인데 2,000만 원 이월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당면 노인분회 환경정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볼장 이전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약간 이월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길수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204억 5,1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약 4억 9,273만 1,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이 증감요인은 국비가 2,900만 원, 기금이 1,700만 원, 도비가 2억 1,8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이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치우개 선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신규종목에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이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사이월 일반회계에 청년 역량강화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2,000만 원, 그리고 이에 따른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200만 원 등 2,200만 원을 명사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11월 중에 도비가 내려와서요. 이 부분은 부득이 내년으로 명사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여성아동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성아동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예요. 명사이월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한 가지씩, 또 정확하게 보고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장 권혁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권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액 18억 6,790만 2,000원에서 1억 8,194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8,5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으로는 국비가 1억 3,798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1,300만 원, 도비가 8,100만 원, 군비가 14억 5,396만 8,000원입니다. 명사이월사업으로는 2019년도 농어촌마을 경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당면 옥동마을 경관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제외한 1억 800만 원을 명사이월하였습니다. 명사이월 사유로는 2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여러 차례 설명회 개최를 거친 결과, 지연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금년 말까지 최선을 다하여 완공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 안태호입니다.

금년도 제3회 정기추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9,400여만 원 대비 5억 6,700여만 원이 늘어난 263억 2,200여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은 생략하고요.

249쪽, 중간에 203 행사운영비,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성립전인데요. 이것은 한국문화예술 연합회 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876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부분 402 민간자본사업보조 신흥사 대웅전 정비. 이 관계가 1억 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 2억, 2억 해서 4억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1억을 늘렸습니다. 신흥사를 해체, 보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252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군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의 사업 중에서도, 국비 10억 원은 이전 1회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군비 매칭 15억은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군 민간 체육회장 선거 운영지원 1,520만 원, 그리고 공정선거감시단 활동비하고 선거관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심장세동기 구입입니다. 540만 원인데요. 지금 공설운동장하고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각각 1대씩 세동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254페이지, 반환금 300만 원, 작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2018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870만 6,000원. 그다음에 도비 잔액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 도비 집행잔액 373만 8,000원.

이상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2쪽입니다. 122쪽, 제일 상단부분 Adieu 2019 해양치유 송년라이프 콘서트 7,34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12월 30일에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31일까지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처리했고요, 신흥사 대웅전 정비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공간이 조성되는데요. 집행이 덜 되고 그래서 이부분을 이월 처리했고요, 공설운동장 외벽디자인 시설사업 관련해서 1억 5,000, 수영장 건립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3억 원 계상했는데요, 수영장 건너편에 (청취불능) 그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남은 돈입니다. 추가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주변 부지가 빈 가옥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면 추가로 시설을 확보하려고…… 남은 잔액입니다. 완도테니스장 아크릴 포장 보수공사 3억 4,900만 원. 중간에 각종 대회가 열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좀 딜

레이되어서 돈을 12월말까지…… 가급적이면 공사를 준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사사업을 하는데 돌발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월 처리를 해놨습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고물상 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말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공사 추진과정에 또 다른 변수가 생겨서 혹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이월 처리해 놨습니다. 농어민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은 어제 탁구대회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사진행관계상 농어민체육센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사가 재개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1월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이것은 9억이 생일하고 금당 전천후…… 생일은 야외 게이트볼장이고 금당은 전천후게이트볼장인데, 생일은 준공되었고요, 금당 전천후게이트볼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2월에 준공될 예정인데요. 사업비 7억 9,200을 이월 처리했고요, 체육인교육센터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대상 부지가 금년 안에는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될 것 같은데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 처리했습니다. 민간체육회장 선거 관련 경비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는 2월 10일에 완도군이 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기는 1월 16일에 임기가 (청취불능) 되는데 공명선거감시단하고 선거관리위원수당 그 돈이 내려왔는데요. 1월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1,520만 원을 이월 처리했습니다. 군외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을 이월 처리했고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군외하고 보길 작은도서관은 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1억 4,000만 원씩 이월 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현재 보면 군외 같은 경우 중심화사업하고 이것이 중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되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중복되면요, 다른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 김재홍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중복되면 둘 중에 하나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재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참 이것이 애매모호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우선 그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지금 중심화사업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 있죠? (예)

이런 부분이 중복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공설운동장 외벽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계획수립 중이라고 해놨는데,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그것은 디자인 공모를 해서요, 그것이 나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그것이 스탠드 보수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스탠드 보수사업이 9월에 최종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연달아 이어져야 되는데, 각기 구분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대충 페인트칠하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조금…… 군 실정에 맞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은 좋은데, 이 사업들이 언제 나왔던 사업인데, 올 5월에 장보고 축제가 끝나고 나면 의자는 하고, 그때까지는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외벽 같은 것은 업무보고 때인가 어떤 때에 물어보니까요, 담당담당님한테도…… 문송태 팀장님이 오기 전부터 물어봤는데요, 바로 시작할 것처럼 해놨는데 이제 공모를 한다고 하면 말아…… 같은 실과에서 말이 나오는 것인데 왜 말이 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지금 보기 싫게 일부분을 시멘트로 발라놔서 구면, 발라놓은 것이 지금 몇 개월인데, 기존에 외벽을 시멘트로 발라놓고,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고, 그 운동장에서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진즉 다 끝나야 되는…… 아직도 그러면 그 시안이 안 나왔다는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정리해하고요, 지금 서류는 넘겨놨는데 11월 중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이랑 밑에 테니스장 앞, 이것은 또 금방…… 테니스 동계훈련을 많이 오는데, 금방 동계훈련을 할 텐데, 이 공사를 언제 할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아,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 박인철 위원

된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거의 다 댔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가 안 댔다는 이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준공 처리는 아직 안 했는데요. 뒷마무리가 조금 남았는데 12월 초나 12월 중순이면 이것이 다 처리돼서 돈이 나갈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고물상은 지금 철거를 하고 있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그것도 다……

○ 박인철 위원

전천후, 금당에 했던 곳 부지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부지 현재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금당에?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균유지 땅이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균유지 땅이 없어 가지고 금당사람들한테 엇 그저께 물어보니까 땅을 사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일부 균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유지를 군으로 등기이전까지는…… 등기 이전 댔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것도 다 1회 본예산에 나간 것들 아닙니까, 지금. 체육인교육인센터, 이것은 안 되면 다시 불용시키기로 했으니까 놔둔 것이고.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하여튼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

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금방 해버릴 것 같이 그러더니만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는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예산을 떠나서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금방금방 될 것처럼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렇게 시안도 안 잡았다고 그러면…… 이것도 내년까지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놔요면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담당팀장이나 주무부서의 주무관이 와가지고 물어보면 금방 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데에 와서는 아직 시안도 안 나왔다면…… 공사가 1년 정도 지연되고, 또 지연 되면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훼손되더라도 그대로 놔놓지. 전체 운동장을 뱅 둘러 가지고 전부 (청취불능) 처리해 버리고 이 상태로…… 나는 금방 일을 할 줄 알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안도 안 나왔다면…… 지금 아주 보기 싫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건립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여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집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얘기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 보상……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수영장 관계는 돈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영장 건너편에 광림월드아파트 앞에 주차장 25면을 조성해 놔습니다. 거기를 조성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2억 정도 들었고 한 1억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남은 돈은 주변에 빈가옥이나 노후된 주택공간,

이런 부분을 매입해서 주변 일대를 주차장으로 확충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철거하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아니, 1억 695만 1,000원인가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이렇게 성립되어 가지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하면 누가 집을 팔려고 하는가, 어떤가. 아니면 빈가옥이라도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향동리마을 이장님하고 같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이것을 집행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세탁소하고 일부 건물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화하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감정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보상요구가의 차가 심해서 매입하지 못하고, 하여튼 주변과 최대한 협의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것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이장들한테만 맡겨놓고, 이장들한테만 접촉을 시키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무자들이 가든지, 과장님이 한번 챙겨 가지고 서로 그런…… 부족하니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감정평가가 되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범위로 갖춰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릴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예,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신경을 써가지고요. 거기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좋은 수영장을 만들어놓고 주차장은 없고 그러면 부대시설이 그만큼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305억 2,02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억 3,9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입니다. 완도 5일시장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부스 설치 900만 원, 완도 5일시장 상가 사계절 가림막시설 1억 원.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3,3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 1,000만 원, 농어촌버스 환승시스템 설치지원 1억 9,980만 원,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 760만 원, 농어촌 교통모델 운영지원 6억 원, 완도읍 동방리 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장비 지원사업 3,368만 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인건비 등 지원 2억 4,638만 7,000원

다음 장입니다. 2019년 405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1,920만 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5,000만 원,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 7억 원, 도서관도 자가발전시설 유지보수공사 1억 9,528만 8,000원, 완도사랑상품권 인센티브제도 운영 5억 2,300만 원, 완도 5일시장상 상가 사계절 가림막 시설 1억 원은 이월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농공단지 오수관로 정비사업 등 3억 6,700만 원을 이월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위원장님, 설명할 때 명시이월을 건건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는지 설명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래야 자세히 보고 알 수도 있고.

○ 위원장 이범성

아니, 숫자만 읽어버리고,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막 읽어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은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시켰고요, 농어촌버스 환승 시스템 설치지원은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환승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버스에 기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말기를 설치한 업체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줄 수 있게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서, 국고보조 지원사업인데요, 이 신청이 저조합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홍보를 더 실시해서 내년도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 운영 지원관계는 금일과 생일 부분인데 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거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동망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행기간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

로 프로젝트 인건비 등 사업은 청년근로자의 참여가 저조해서요,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하반기에 선정된 사업으로 내년 10월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컨설팅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 일정이 협의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부득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LED 등기구 교체는 10개 읍면에 1,000여 세대가 해당됩니다. 설계가 10월말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도 자기발전시설 유지보수공사는 금년 11월 초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상품권 판매대행점의 월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군은 7월부터 발행해서요, 상반기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불용 처리할 수 없고 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완도 5일시장 사계절 가람막시설은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65쪽이요, 민간이전 이자보조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이유 있어요? 이자보조금, 대출 이자 소상공인.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 이것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놓은 사항이라 남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당시에는 이정도면 남을까, 말까 한다고 설

명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몇 명이나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제가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도 잡을 때 부족하면 예산을 더 잡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1억 4,500이나 남아버리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때 당초에는 5,000만 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지원된 것은 3,000만 원.

○ 박인철 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내년도에는 금년에 한 수준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 정도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 5,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할 것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요, 5,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3,000만 원, 기존대로 운영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것 한번 담당팀장님이 전남신용보증재단가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몇 명이나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경제정책팀장 우흥래

(좌석에서) 예, 확인해 보고 제가.....

○ 박인철 위원

예, 확인해 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2회 추경에서 했던 것, 해경 부두 이것은 다 잘라나간 거예요? 삭감한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었는데요. 수익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반영해 뒀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내년도.....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본예산에 요구해 뒀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6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버스회사들은 다들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지급되지 않고 이렇게 남은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 6억은.....

○ 박인철 위원

뭐 협의가 지연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농촌형 모델 버스는 생일 마을버스를.....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해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 고요, 수익금은 전체 우리 군으로 주고 인건비만 지급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모델입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생일만 하는데 6억 들어갑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생일하고요, 금일도 이제..... 해상버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고급여객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6억으로 잡아놓고…… 생일은 아직 선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잡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닙니다.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 박인철 위원

명시이월로 넘겼습니까.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이것도 균특하고 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요.

뭘니까, 잘 안 뭘니까. 청년 일자리나 마을 일자리, 이런 것들이?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아니,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 박인철 위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희망일자리 이런 것들이 거의 대다수 이월되어 가지고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청년들이 일을 하다가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비를 줌…… 경제교통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지역신문 같은 데에 홍보를 해가지고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다 국도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납할 것인데 반납되지 않게 다 쓰게끔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26페이지,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입항 인센티브 지원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아서 진행되는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실질적으로 요청…… 지급하고 요청한 금액은 전부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이분들의 요청이 덜 들어온 사항은 아니고 예산은 있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이범성

배가 덜 들어왔다는 거예요?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에 산정해 놓은 것보다 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배가 덜 들어온 것인지,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역 크레인 비용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이범성

크레인 비용은 이미…… 완도항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배가 한 척이라도 들어왔을 때는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배들이 옴으로써 완도 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이윤을 보태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

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숫자만 읽고 가서 모르는 사항들이 많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요. 명시이월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왜 이월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본예산 157억 8,277만 원에서 1억 424만 7,000원이 감액된 156억 2,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사업비 증액이 없어 이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입니다. 2회추경입니다. 전문성 있는 지역 (청취불능) 마케팅을 위한 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인데요,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이므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부 선금을 금년 내에 지급해서 잔금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 분석 솔루션 이용료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용역대행업체인 KT에서 제공하는 관광통계데이터가 12월분의 경우 2020년 1월 중에 데이터 생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19년도 통계 분석..... 완결 분석을 위해서 사업비 2,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지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본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금당면 (청취불능) 일원 노약자 편의를 위해 계단, 데크, 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3,750만 원 정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설계비용, 공사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11월 중에 완료..... 계약을 완료하고 일부 선금을 지급하여 잔금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음식 무료시식체험 행사운영비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전복음식 무료시식체험은 장보고수산물 및 가을빛여행 축제 진행 시 작년 이월분과 올해 예산 일부를 사용하였고 2,02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축제 시에 시식체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가 아니고 시군 역량 균특사업이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불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거리 명소화 및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선정 컨설팅 용역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전복거리 명소화 및 우수 외식업 선도지구 컨설팅용역을 지난 7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2020년도에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가 마칠 때 용역이 끝나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확공모형 지역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예비계획 수립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준공 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당8경 명품길 개발용역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2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저희가 기본계획용역 부족분을 내년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내년 1월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부득이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급대교 관문 상징물 설치공사로서 그동안 디자인 선정이 다소 지연되어서 12월 공사 발주 후 2020년 6월에 준공 예정이므로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본예산입니다. 디자인 선정 지연으로 다소 지연되었구요, 읍면에서 1억 원 외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그런 사업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소 지연되었지만 현재 디자인을 서로 소통해서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 중에 준공계획이 있어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도로유실 복구공사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태풍 피해로 5,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 1월 준공 계획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본예산입니다. 금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용역은 1년간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므로 내년 4월에 준공계획이 있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노화 북고리 호안도로 시설공사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10주년 공모 선정된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지역

개발사업 진입도로 공사로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차 공사가 끝났고 2차 공사를 합니다. (청취불능) 3억 2,700만 원을 내년 1월 준공 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향 토문화전시관 절개지 유실 복구입니다. 이 사업 역시 2회 추경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서 10일 중에 공사를 발주하였고 내년 2월에 준공계획이 있어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길 공룡알 해변 관광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실시설계 중 토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젓갈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동안 상당히 줄…… 토지사용 매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발주 후 내년 3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일 남도 명품길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준공시기가 내년까지…… 2019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므로 입찰차액 4억 98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다음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연구용역입니다. 2회 추경입니다. 현재 12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2021년 4월까지 국제인증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그 안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관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86페이지요,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섬 여행등대 추진단 이것은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섬 여행등대……

○ 박인철 위원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680만 원인데 한 폰도

안 쓰고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 또 이 예산이 세워집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섬 여행등대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담당팀장님이 누구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추교상 팀장이 오늘 나오지 못해서. 담당자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박인철 위원

아니, 이것은 전혀…… 1,680만 원인가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대로 다 삭감인데, 전액.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파악해 보고요. 이것 해년마다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봐보고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밑에 아래쪽에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는데, 금당8경 명품길이라고 해서요. 이것 내년도에 4,000만 원이 더 올라오죠,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용역비인데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연구용역비인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광시설팀장 김용석**

(좌석에서)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설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 **박인철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이전에 용역 보고할 때, 심사할 때 용역비로 4,000만 원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무슨 시설비예요?

○ **관광시설팀장 김용석**

(좌석에서) 당초 용역으로 세웠는데.

○ **박인철 위원**

연구용역비.

○ **관광시설팀장 김용석**

(좌석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다시 목을 변경해서요. 내년에도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것을 시설비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을 할 때 연구용역비에 4,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4,000만 원이 또 올라왔더라는 이 말이에요, 용역비로. 그래서 용역심사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왜 여기는 갑자기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박 위원님의 말씀처럼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박 위원님이 그 당시에 참석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용역비로 세웠는데 사업성격상 시설비로 추진해야 할 그런 성격이어서 부득이 바꿨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고요, 명사이월사업에서 언제까지, 고금도하고 보길도는 언제까지…… 1년 내내 디자인만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동안에……

○ **박인철 위원**

그리고 디자인 시안이 안 나왔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나왔습니다.

○ **박인철 위원**

나왔으면 의회에다가 한번이라도…… 이 예산 7억하고 6억이 통과될 때도, 이 예산이 통과될 때도 의회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통과되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줬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발주하지 못해 가지고 바로…… 이번 회기 중에 바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런 돈들이 본예산에 통과되어 가지고 뭐 어떤 시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 내내 시안만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라고 할 때는 예산을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해가지고 예산을 주고 나면 다 이렇게 계속비사업도 아니고 명사이월로 다 넘겨 버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는데 그러면 보길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보길도는 주민들이 더 많은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보길도는 그동안 1억을 세웠는데 1억 내에서 저희들이 조형물을 만들라고 그랬는데요. 보길도에서 자꾸 도로를 가로질러서…… 사업비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해달라고 그래서요. 그동안 이렇게 된다면 읍면마다 전부 상징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말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1억의 사업비 내에서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가로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금일에서도 조형물이 와가지고 예산에 용역비가 잘라졌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일 것 조형물도 올라와 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은 좋은데, 1년 동안 어떤 디자인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내가 듣기로는 진즉부터 디자인업체는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니까.

잠깐만요. 노화 북고리 이것은 2회 추경에 했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오감학교는 그러면 계속 비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안 올라와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지금……

○ 박인철 위원

전북오감학교는 계속비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 계속비사업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국제블루플래그 인증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또 뭘…… 무슨 용역비인지 궁금하네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블루플래그 인증은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까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블루플래그는 ASC처럼 중요한 인증이라 한번 받으면 그것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허궁희 위원

해마다 받아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계속 용역을 한다면 지역에 그만큼 이득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받은 만큼?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예, 해수욕장을 평가할 때도 블루플래그가 상당히 작용해 가지고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최종 후보까지 올랐는데 블루플래그 친환경 안전한 해수욕장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해수욕장이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친환경 해수욕장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인증이라고 봅니다.

○ 허궁희 위원

그것을 해마다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만 맡으면 계속 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는 것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블루플래그도 저희들이 중간에…… 예를 들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환경교육재단에서 와서 확인했을 때 시설물이 잘 안 되고 있다든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럴 때는 깃발을 내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면 얘기하고 벗어난 얘기가 됩니까는 처음에 이분들이 실사를 나왔을 때도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와서 안됩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 시설물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꼭 철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처음에 그것 실사를 왔을 때 지적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있는데 그것을 인증해 줬다는 것은…… 지적해 놓고 인증해 줬다는 것은…… 뭔가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래서 저희들이……

○ 허궁희 위원

과장님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얼마나 이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받는 과정에서 지적을 당하는 일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았는데 다시 또 블루플래그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현지에 옵니까, 안 옵니까?

○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그분들이 내년에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저것을 철거해서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드시 철거해서 인증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고생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도 저도…… 주위에서 보기에 답답해서요, 이런 기구가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용역비가 지출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서 유지가 잘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관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자세하게, 명시이월은 어떠한 사항인지까지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업축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아래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농촌 체험마을 홍보관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국제농업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기타보상금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입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로니아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물량 폐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민간이전, 농작물 재해보로 지원입니다. 3,676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비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0억 6,9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위쪽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동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우유급식 지원 5,934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 위쪽, 기타보상금 살처분 보상금 지원 4,403만 6,000원 증액된 8억 7,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통제 및 거점시설 입간판 제작 900만 원, 차량소독기 설치 및 해체용역비 1,200만 원, 전기설비 설치비 수리용역 240만 원, 차량통제차단기 설치 및 해체용역 110만 원, 통제 및 거점소독시설 집기 구입 300만 원, 방역차량 및 이동식 분무기 수리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통제초소 CCTV 설치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통제초소 운영지원 인건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통제초소 U자형 소독기 수리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석회, 염화칼슘, 소독약품 각 600만 원, 300만 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통제초소 비가림시

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인소독기 구입 600만 원, 컨테이너 구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1,568만 원이 증액된 1억 7,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맨 아래 부분 사료작물 종자 지원사업 1,194만 6,000원이 증액된 6,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마치고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명시이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사업에서 3,685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건은 감귤농가 지원사업인데요. 당초에 2개 농가가 신청했다가 1개 농가가 최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 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완도자연그대로 감귤 명품화사업 묘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주에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묘목 일부가 공급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 봄에 식재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은 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완도자연그대로 품목 단체 표장 등록 용역입니다. 9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이 건하고 그 밑에 바로 있는 완도…… 이것은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관원에서 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개최한 다음에 등록을 최종 완료하게 됩니다. 농관원의 심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그 밑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학교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학교에 급식이 납품된 다음에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분은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비, 유통물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성으로 굴하고 방울토마토 물류

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하고 밑에 부분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272만 7,000원하고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건은 도비 보조사업을 한 동이 최근 사업물량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물량에 대해서 연초에 새로 신규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3,000만 원은…… 이것이 설치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완료되면 내년 1월까지 전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해외 시장 개척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완도 (청취불능) 쌀 수출을 계속 타생 중에 있고 고금 쪽에서 유기농 유지를 수출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하 구들장논 정비사업 및 구들장논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정 수립, 구들장논 보수정비. 이 건은 아까 인건비, 연구개발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용역기간이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농업식품부 보조사업으로 농업식품부 사업 승인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각각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차량무선 설치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2회 추경에 계상했던 사업으로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장비 개발 전원장치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업완료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사업하고 연계해서 관내 한우축산 농가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후에 그 위의 사항과 같이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1,800만 원, 4,257만 4,00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꿀벌산업 한봉 육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3회 추경 때 계상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이월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국비과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 대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사소독기

지원사업 1,2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독려해서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각각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이…… 농가가 사업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독려해서 연초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금액은 245만 원과 1,0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이범성

농업축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서요, 이것을 봄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포기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이 사업을 놔두고, 부족해서 없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설명 좀 다시 하시죠.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명시이월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하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272만 7,000원은 최근 한 동의 포기물량이 되겠고요, 나머지 3,000만 원, 자체 군비사업 3,000만 원은……

(방청석에서 “지금 사실상 저온저장고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엇그제 고금에서 한 동만 포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즉시 고금에서 자체 대체해서…… 저온저장고가 거의 준공돼서 정산서류만 받으면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우성자 위원

아니요, 3,000만 원을 지금 명시이월했잖아요?

(방청석에서 “그때 자료를 드릴 때는 약간 연도 부분은 여유를 뒀습니다. 혹시 중간에 자부

담 때문에 포기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여유를 두고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서류가 좀…… 말이 안 맞다 생각하는 데.

(방청석에서 “정산서가 덜 들어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차이가 나게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듣기가 그렇고요, 소형저장,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없어서 못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서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못해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포기자가 생기면 빨리 빨리 처리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재홍 위원님.

○ 김재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꿀벌산업 육성 있죠, 298쪽에 보면 이것이 됩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이고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한봉 그 꿀…… 통하고…… 구체적인 설명은 축산팀장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꿀벌산업은 양봉하고 한봉으로 나눠 가지고 지원되고 있고요, 한봉 같은 경우에는 벌꿀 관련 기자재들, 그다음에 토종벌 개체 공급 이랑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국도비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 집행…… 미뤄졌습니다.

○ 김재홍 위원

이것을 그러면 완도에서 지금 완도군 자체로…… 완도 내에서 육성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아닙니다. 이것이 국도비사업하

고…… 시행된 지는 4~5년이 됐고요. 한봉 농가들이 군외면하고 그다음에 토종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육성하는데 청산 쪽에도 있고요. 토종별들, 한봉들은 나름대로 농가들이 50농가에서 60농가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방금 군외면 얘기를 하니깐 그러는데요. 올 여름에 토종별이 많이 폐사된 것 알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그런 내용도 있는데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축산사에서 보고를 받았죠, 그런 내용일?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예.

○ 김재홍 위원

그러면 다른 것하고는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살처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책이라든가 이런 것 없죠?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지금 그것은 없는 상태고요. 내성별 사업비 신청을 내년도에 공급하겠다고 도에다가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계상되면 토종별 개체 공급사업에는 이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고요. 기자재 위주로 현재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위원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사고가 나서 이러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육성을 한다. 기르고 있을 때 보고 조치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좋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승미클럽이 완도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군외 불목리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위원

한 개소인가요. 그런데 (청취불능) 1억 7,300이 지원돼요?

○ 축산팀장 김동균

(좌석에서) 학생마다 별개로……

○ 김재홍 위원

아니, 활용이 되는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1회에 32만 5,000원으로 해가지고 10회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3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 김재홍 위원

학생 530명 정도면 가능해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완도 관내 전체 학생 초중고……

○ 김재홍 위원

예를 들어 32만 원이면, 월임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연.

○ 김재홍 위원

1년에 531명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29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귀농인 정착장려금, 몇 세대나 해줬습니까? 6,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당초에 저희가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거든요.

○ 박인철 위원

애당초 15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혀 없는 것이죠, 거의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고 297쪽, 기타보상금.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 이것은 우리가 아로니아 음료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해줬죠, 아로니아?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 음료 개발로……

○ 박인철 위원

해양바이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거기에서 연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다음 12월 7일경에 생산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제 생산한다고요?

(방청석에서 “예, 중간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하면 완도에서 생산된 아로니아는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오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음료하고 젤리 부분은 개발했기 때문에. 일단 개발되면 저희들이 개발 소스를 재배농가에게 보급합니다. 그러면 재배농가에서 외부에서 OEM 방식으로 제조해서 자가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식품회사하고 OEM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준 예산, 그것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센터에 제품개발 용역비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포장지하고 뭐 그런 것에 쓴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아니요, 실행분만 일부 쓰구요. 연구개발비로 한 200만 원 쓰고 디자인 개발비 300 정도로 해서요. 4,000은 다 못쓰고요. 3,000 정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실질적으로 그러면 농가들한테 간 것은 아무 것도 없구먼요, 그것에서.

(방청석에서 “이제 그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기본적으로 아로니아 제품들이 싹 나와 있는데. 해양바이오센터를 또 배불러줬구먼, 거기.

(방청석에서 “거기는 800만 원만……”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내년도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 예산도?

(방청석에서 “한 잡았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어찌자는 거예요. 농가가 OEM 방식으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어느 농가가, 어느 공장을 잡아 가지고 OEM 방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도움이 농가들한테 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어느 농가가, 어느 식품회사를 잡아 가지고 OEM 방식으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답답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줘야지. 그래야 그런 것들이 판로도 개척되고 그런 것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먹노린재 방제 지원. 왜 이렇게 1억 500만 원이나 된 거예요. 다들 난리예요. 올 가을에 먹노린재로 해가지고 난리던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잡은 것 같던데 다 소진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1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이 면적…… 이 계산을 산출할 때 먹노린재 전체 발생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100% 보조사업으로 했을 때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먹노린재 방제를 할 때 30% 자담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농가들한테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 때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예산을 줄 때는 자담이 없었잖아요. 자담이 있었어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50% 자담이 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5 대 5로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는데도 농가들이 못 받았다는 이것이죠?

(방청석에서 “50% 자부담을 하신 농가들이……” 하는 직원 있음)

아니, 먹노린재 예산이 통과될 때 늦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자체가 2회 추경으로 해가지고 먹노린재를 전부 방제하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방청석에서 “그 이후에 방제하신 분들에게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당시 그 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방제단을 있잖아요.

(방청석에서 “방제단…… 50% 자부담한 곳만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방제단에서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그 먹노린재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지금 올렸나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 사항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최정욱 위원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예)

내년에도 제 시기에, 이런 것은 적기에 해야 되잖아요. 올해 같이 이미 시기가 지나서 늦게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병한 것이잖아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무관계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재정 조기 집행 문제도 있어서요. 어차피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원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민원이 많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챙겨봐야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민원이 많은 사항을 갖다가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넘겨 버리면 안 되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298쪽, 기타보상금이고요, 살처분보상금 지원, 그것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십시오.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이것이 이번에 돼지……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웬만하면 폐사를 합니다. 그 폐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 이 사항 4,000만 원은 고금 (청취불능)

결핵하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폐사 11두 그 사업의 보상 건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그쪽에서도 폐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 도 계속 검사 중인가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거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 김양훈 위원

완료됐어요? (예)

그러면 그 한 집 것아…… 1식이라고 해놔서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구체적으로 소결핵으로 폐사가 고금에 8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폐사가 11두. 그래서 총 19두, 19마리 폐사에 따른 살처분보상 처분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19두에 대해서 8억 7,000인 거예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예. 아니, 4,400입니다. 8억 7,000, 이것은 당초에 고금 결핵 86두. 보상금액이 8억 7,000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8억 7,200이라고 그래서 1식이라고 해놔서요. 그 집 1식이라고 그러면 한 집 것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한 집에 왜 4,400이나 더 들어가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19두요, 19두는 별개 예산이구먼요.

○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액한 4,400, 19두……

○ 김양훈 위원

그러면 1식이 아니죠? (예)

1식이라고 하니까 헛갈리죠.

(방청석에서 “두수별로 평가금액……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두수로 계산하기가 애매한 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식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9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4,400이 나온 것입니까?

(방청석에서 “예, 그것을 보상금 평가기준으로 해서 전국 가축시장 평균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청취불능) 연령, 그다음에 중량별로 다 다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송아지하고 젖소하고 어미 소하고 다 다르죠?

(방청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기준을 잡아서 19두에 4,400이 나온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금평가서를 전라남도도 제출하고요. 전라남도에서 보상금 평가서를 보고 적정 금액이 산출되면 그쪽의 교부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그렇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 세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2회 추경예산은 263억 60만 3,000원이며 이번 3회 추경 시 1억 8,835만 2,000원을 감액하여 261억 1,225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8쪽입니다. 불법시설비입니

다. 이 시설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비 1억 5,7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대통령 특별지시 대한민국 전체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연례 처리를 목표로 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명사이월사업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연구용역비입니다. 1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신청서 작성 용역 1억 6,000만 원 중 4,8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그 내용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 중이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사업비인데요, 세계유산 등재 전략방안 연구용역비 1억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내용도 2019년 5월에……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폐기물 처리사업, 시설비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비 1억 5,778만 5,000원이 이월되는데 방금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 11월에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산 치유의 숲 시설비에 약산 해양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8억 7,608만 5,000원 중 8억 7,15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사업으로 (청취불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업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바, 완공되면 집행 가능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감리비 또한 2,391만 5,000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12월 준공 시 감리비로서 공사가 완공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특화사업 시설비, 이것은 본예산입니다. 완도 황칠, 동백 약디활성 및 안정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중 1,350만 원이 이월되는데요, 이 사업 또한 2019년 4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기간 도래 시 준공금을 지급하면 목표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도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 1회 추경사업비,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음식물처리기 준설 교체공사 14억 9,460만 원 중 7억 2,760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 부분도 선금금이 나갔고, 2019년 10월 16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당초에는 내년 2월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이었으나 계약이 늦어진 관계로 내년 4월 전까지 추진을 완료해서 명사이월

비가 전액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민간개방형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2,000만 원을 명사이월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연말까지 민간인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에는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 있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이번 3회 추경 때 5억 4,316만 6,000원이 늘어난, 증액된 549억 5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에 경관관리 정비에 시설비, 용암리 공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에 3,600만 원, 용암리 사랑방 부지매입 1,7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올해 공모사업인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용암리 사업 중에 사랑방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폐건물을 매입해서 그 대처 사업으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 9,000만 원, 해변공원 물품보관 컨테이너 구입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화 지원 소규모 재생사업은 총 4억 원으로 국비 2억, 도비 4,000, 군비 1억 6,000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국토부에 중앙마을 대상으로 소규모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행사운영비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축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부기를 정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축제뿐만 아니라 청년 취·창업교육과 공동브랜드 등 역량교육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주민협의체 거점공간 및 청년거리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 등 배상금입니다. 노화~구도 연도교 가설공사 지체상금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연에 따른 보상비 5,000만 원. 완도 신기 마을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일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다음은 약산 마을단위 거점개발사업, 그리고 다음 장, 진산과 동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에서 남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 시설비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2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 1억 2,000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요, 공모사업을 할 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남은 예산 4,67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에 완도읍 해양치유 해수욕장시설 설치공사가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완도읍 중앙길 도심 포켓공원 조성공사는 경도빌딩을 정리하고 그 공간에 포켓공원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의 건물주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혹시 1월까지 늦춰지면 예산집행 사항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은 당초 저희들이 11월에 발주해서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켰고요, 완도읍 향동리 새뜰마을사업 공모용역도 2회 추경에 해서 11월에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 2월에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중에 향동지구는 총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향동지구 저희들이 마을카페하고 일반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완도타워…… 아니, 모노레일 앞으로 카페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카페 부지에 대한 민원해결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다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완도타워 전망층 유리 교체공사는 당초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부분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분 교체를 해가지고는 결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4,000만 원을 확보해 가지고 총 9,000만 원으로 전면 유리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도군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은 작년 부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고 총 용역비는 약 1억 8,500만 원의 사업인데, 이번…… 내년 2월까지가 용역기간이다 보니까 1차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미지급분 4,200만 원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공원 그린폴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 조성사업 위에 하수정화조가 우선 철거되어야 되다 보니까 하수 철거사업비가 2회 추경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을 추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도 빙그레공원 위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공민디자인단 운영과 더불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청취불능)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이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마을 홍보책자라든지,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 거점공간 청년거리 조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 4억 원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3회 추경 반영으로 내년까지 집행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종합개발사업 중에 약 15억을 이월했습니다마는 현재 청산슬로시티와 관련하여 사업발주가 좀 늦어졌고, 또 소안 연도교사업이라든지, 실시설계사업비들이 내년까지 집행해야 할 상황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노화 산양진항 대합실 부지매입은 자산관리공사한테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내년 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백도 방파제

응급복구사업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마는 공유수면 협의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산 상득암 선착장 계단 및 파도막이 사업도 2회 추경에 공유수면 협의로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외 삼두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마을 민원소지가 있어서 사업구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길 물양장 정비사업도 공유수면 협의 진행 절차를 밟고 있어서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노화 넓도 위험도로 개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사업구간을 현재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노화 마안도 접안장 정비도 사석 침하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정도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도 마을 민원으로 사업구간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소안 동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도 지역주민들 수요가 달라서 사업구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고금 장풍 선착장 확장사업도 사석 침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약산 넓고 선착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완도 향동마을회관 매입 관계도 현재 토지소유자 하고 매입관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야 완료될 것 같습니다. 소안1교 항로표지 공사도 현재는 발주되어 있습니다마는 10일 안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안 당사항 방파제 연장공사도 마을민원으로 공사구간의 변경을 협의 중에 있고요. 노화 어룡 물양장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공사는 공유수면 협의 및 민원에 의해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길 예작 선착장 재해복구사업과 금일 우도 외 방파제 재해복구사업, 소안 구도 사면 보수보강사업, 노화 미라향 해수소통구 시설사업, 이 사업들이 대부분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과 내용이 좀 달라서요. 공사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공유수면 협의절차에 이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길 중리항과 생일 유촌항 퇴적 예방사업은 공유수면 협의라든지 민원 발생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마는 현재 계약 의뢰된 상태로 내년 3월 중이면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은 약산 화가 물양장 시설공사는 연약지반 침하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금일 동백항과 화전항이 (청취불능)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또 완도읍 망남리와 소안 미라리 사업들이 공기를 연장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금일 소프트웨어 사업은 디자인 협의 등 사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금일 일정리와 척치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도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18페이지요, 시설비. 완도타워 1층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 박인철 위원

318페이지.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318페이지요. 아, 예. 이것 완도타워 1층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내부를 정비하려고 했는데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효과가 떨어지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 번 균특사업 예산으로 신청하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용역비를 삭감해 버렸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공사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3,000만 원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서요. 올해 예산을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319페이지요, 배상금. 지체상금이라고 했는데. 가설공사, 이것이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이 포스코하고 두 개 회사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지체상금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이 붙은 상황인데요. 우리 군이 2014년도에 1차 구간, 구도하고 공사가 끝나면서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공사를 지연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부과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행정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우리 군이 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상해야 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 박인철 위원

마지막까지 안 가요, 그러면?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실이익이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도하고 어디하고 해 가지고 이겼다고 한 것 같은데 배상금이 올라오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금하고 다른 건이 하나 더…… 소송이 2건 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우리 군이 명백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요인이 아닌데……

○ 박인철 위원

부과했던 돈을 재판에 저서 다시 반납한다는 이 말이죠?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공사 준공금에서 지체상금을 빼고 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재판에서 준다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여기도 이겼다고 그러던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간접비가요, 간접보상비가요?

○ 박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월에서 왜 이렇게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이 부진해요. 이유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유를 봐보면 그 이유가 그 이유인데요. 소규모 어항시설사업들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 액수도 많고 그런데…… 이런 이유 말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라고 하면 이유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위원들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서요. 제가 와서 보니까 어항 쪽에 사업 지연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또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들을 엄청 많이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정리했는데요. 올해 쓸 수 있는 것은 썼는데, 내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다른 실과에서는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뭐 사업장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와 비슷하게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것보다는 적게 잡혀 있고요.

○ 박인철 위원

적든 많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정도 액수를…… 이 액수도 십몇 억이 넘어버리는데, 이제 11월, 12월인

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해
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미리미리 직원이 부
족하면 직원을 좀…… 지원부서와 이야기해 가지
고 직원을 더 받더라도, 안 그러면 파견을 받든
어찌든 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준공을 아직 못한 사업도 있
고, 아직 계약을 못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 재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 박인철 위원

담당과장님이 지원부서하고…… 협업부서 아
닙니까. 지원부서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력을
충원하십시오, 일하게끔. (예)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서요. 어항
쪽에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일 처리하는 데에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 인력부서에 어항 쪽 인력
을 이번 인사 때 보완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
태입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317페이지요. 용암리 본가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요. 이것은 공가가 흉물스러워서 하
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랑방 부지매입이
라고 해서 사랑방으로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쓸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공공디
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총
10억 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인데요.

○ 우성자 위원

공모사업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런데 주민사랑방을 만들려고 하는데 용
암리 자체가 건물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년마다 민원이 생겼는데요. 건물
이 기울어지고 있거든요,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가
인데 건물이 기울어져서요. 옆 건물이 위험하겠
다는 이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에 주인을 찾고 찾아서 그 주인하고 협의한 다음
에 저희들이 군비로 건물을 철거하고, 매입도 군
비로 하고요. 나머지 건물을 올리는 것은 공모사
업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면 사랑방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쓰실 것
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일단 거기 용암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하나
만 있고 현재 마을회관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은 마을카페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마을카페하고 주민사랑방으로 해서 마을
회관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고 있습
니다.

○ 우성자 위원

아, 마을회관 겸해서 카페까지요? (예)
여기가 어디인데, 용암리가 어디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비석거리……

○ 우성자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지금까지 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도 있나 보네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쪽, 시설비요. 원동항 보행로 그 부기를 정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당초에 계선주와 보행로 설치공사를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로 그 사업을 우선했구요. 원동항이 제일 심각한 것이 도교하고 부잔교가 다…… 저번에 김재홍 위원장님이 질문 때 화면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예산이 필요해서 목을, 부기를 변경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 김양훈 위원

부잔교하고 도교는 해양정책과에서 안 해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여기는 여객선 접안시설이구요. 또 거기는 지방어항으로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도 7,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한 사항이어서요. 올해 7,000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도에 도비도 좀 해서 합쳐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양훈 위원

지역개발과는 보니까 명시이월도 제일 많던데 또 이월시켜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이 사업은……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삭감하고 나중에 새로 예산을 세로 받지, 한꺼번에, 여기에서 또 이월시켜버려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이 예산은 7,000만 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두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도교만 할 것인지. 지금 도교를 하기 위해서는…… 부잔교가 완전히 썩어 있어서 부잔교만 하기에는

7,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이 7,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도교만 할 것인지, 아니면 부잔교만 할 것인지. 그것을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잘 결정 좀 해주시고요.

320쪽, 제일 상단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군비 집행잔액 반납이 한 7,1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역행복생활권은…… 고흥하고 금당입니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이 부분은 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생활권 반납한 것이요, 320쪽에.

○ 김양훈 위원

제일 상단.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국비 집행잔액 반납금.

○ 어항개발팀장 우관홍

(좌석에서) 어항개발팀장입니다.

이 관계는 장흥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대합실 신축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아, 그러면 대합실을 신축하고 돈이 남아서 그냥 반납한 것입니까?

○ 어항개발팀장 우관홍

(좌석에서) 예.

○ 김양훈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는 못써요?

○ 어항개발팀장 우관홍

(좌석에서) 거의 한 4년이 지난 사업비입니다.

○ 김양훈 위원

4년 정도 됐으면……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것

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 **여항개발팀장 우관홍**

(좌석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양훈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항상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다고 넘어가면 맨날 다 반납시켜야 되고, 그러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죠.

앞으로는 잘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여항개발팀장 우관홍**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양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할 말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19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완도 1부두 침수 개선사업비 9,900만 원을 다 삭감해 버렸는데 이것은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아, 이것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1부두 앞에 한일슈퍼 그쪽 앞이 자꾸 침수가 된다고 그래 가지고 1차 민원이 생겨서 도비를 내려 가지고 일부 승상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로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것이 그 승상을 한 것 가지고는 거의 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당초에는 거기가 앞에 문비,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을 교체하고 배수로 쪽만 보완하면 되겠다고 그래서요, 그 예산이 1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한 다섯 차례 현장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현장을 봤더니 수문이 문제가 아

니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용벽을 쌓으면서 사석으로 물이 들어온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요, 도저히 이것은 1억을 가지고 해봐야 예산 낭비요 인박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려면 펌핑장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펌핑장을 하려면 최소 30억 이상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된다고 그래서요, 이 부분은 1억을 가지고 괜히 생색내기 사업을 해봐야 주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고요, 장기적 대책으로 용역사와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승상을 하고 그 앞에 그라우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라우팅을 한 이전과 이후 차이점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올해는 도로 쪽에 침수된 사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4m 25까지 수위가 올라갔었는데, 아마 작년 수준 같았으면 이미 물이 도로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넘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도로는 안 넘어오더라도 한일슈퍼 같은 곳 밑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밑으로 들어와서 가게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올해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 해변공원 옆에, 음악단 옆에다가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배수펌프장.

○ **박인철 위원**

거기하고는 관로 연결을 못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그래서 저희들이 맑은물사업소에다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거기를 포함시켜서 넘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에서는…… 환경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바닷물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사업하고 연관을 짓지 마라. 그래서 아마 호안을 못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1억 정도의 예산이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를 국비를 좀 받아오더라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1억짜리 사업을 해가지고 괜히 예산이 낭비되면 안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삭감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의석에서) 빨리 고만을 하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위원님들 없으시죠?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12개이며 계속비사업의 총사업비는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7,1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변경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 금년도 사업비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30억 3,200만 원입니다.

112쪽입니다. 고금 가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8,171만 5,000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 8,571만 5,000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소 중 노화, 소화도청 등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3,4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 15억 1,300만 원이며 구목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 위원장 이범성

과장님, 계속비사업은 저희들이 다 훑어봤으니까 일단 안전건설과 사업하고 명시이월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감사합니다.

32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3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467만 8,000원이 증액된 385억 5,72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배수개선사업,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4억이 증액된 30억 3,200만 원.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노화 도청리 배수 감문 정비 2,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

업, 시설비에 청산 국화 농배수로 정비 2,000만 원, 청산 부흥 농배수로 정비 2,000만 원, 견실 시공 사무관리비에 도로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비 6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로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지방도 830호선 폐도부지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약산면 우두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면적은 3,200평방미터이며 활용계획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28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축산용 방역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독장비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시설비입니다.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85억 9,723만 6,000원, 2020년도에 명시이월한 금액은 103억 8,099만 4,000원이며 총 82개의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견실시공 사무관리비입니다.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도로 응급복구 및 제설장비 임차비 600만 원을 내년하계 원활하게 제설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견실시공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제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지 군도 5호선 동고지구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12건의 사업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3억 5,849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연구용역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 타당성 조사용역이 2020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3억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입니다. 보상관계로 일부 구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금년도 준공이 어려운 금일 농도 102호선 선형 개선공사에 5건의 사업에 대해 14억 3,956만 원 중 8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지연으

로 금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운 완도 군도 1호선 도암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 2억 9,784만 원 중에 2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예산입니다. 공사추진 중 민원인 건의사항 수용 등 사업추진 장애로 금년도까지 준공이 어려운 완도 망석 농어촌도로 선형개선에 2건의 사업인 6억 9,496만 원 중 4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소안 농도 101호선 암거 교체공사 외 1건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6,9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1회, 2회 추경예산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보조 시설비입니다. 2회 추경예산으로 고금면 관광해안도로 개설공사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도로시설 개선 시설비입니다. 3회 추경예산입니다. 지방도 803호선 폐도부지 정비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 반영 등의 사유로 공사 소요기간까지 처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8,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편성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1건의 사업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외 1건의 사업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일부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6억 8,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완도읍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공사 일부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시설비입니다. 본예산 사업으로 약산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일부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일부 구간이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방위 운영 시설비입니다. 소방서부지 조성사업 외 1건의 사업이 행정절차…… 사전절차 지연에 따른 13억 5,000만 원

중 12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화 예비군 증대본부 신축사업 외 1건의 공사추진 중 상수도 연결 및 기반조성 장애로 2억 8,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방위 운영 시설비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금당 소방차고 증축사업비 3,000만 원은 내년도 해남소방서와 사업을 연계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시설비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공모 중에 있으며,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도 4월 말 준공예정으로 금년도까지 집행이 어려워 1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입니다. 군외 중리 세천 복개사업 외 1건의 사업이 민원 발생에 따른 설계 변경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3억 4,7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커힐 인근 재난위험구역 정비공사 외 6건의 사업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8,6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입니다. 재난예방대비 시설비입니다. 제2회 추경사업으로 폭염대비 항구대책 시범사업 설치기간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후 추진 중이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재난예방대비 시설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관리사업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준공 이후 드론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하반기에 집행 예정으로 8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시설비입니다. 관내 금일 감목, 동백, 노화 이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안 비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내년도 2월에 집행될 예정으로 4억 5,000만 원 중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사업입니다. 재난재해복구 지원 시설비입니다. 예비비로 승인된 사업으로 각종 자연재난 응급복구 동원장비 외 1건은 제설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7,640만 원 중 4,02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재난복구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비비로 승인받은 사업으로 청산 동부

천 재해복구공사 외 4건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4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시설비입니다. 제1회 추경사업으로 노화 등산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추진 중 농번기에 따른 공사 일시중단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인프라사업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6억 9,485만 7,000원 중 1억 3,615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사업 시설비, 본예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상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를 위한 1,904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원도읍 죽청리 용수로 정비공사 외 4건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3억 4,324만 1,000원 중 3억 516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태풍 다나스 피해 농어촌 가로등 재해복구사업 외 2건의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3,97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으로 노화 포전 배수로 정비사업도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나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만 7,000원을…… 2,01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용역비 2,000만 원이 그대로 삭감됐는데요. 서남해안권 해안관광도로 대응연구용역,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그것은 당초에 서남해 7개 시군이 연합해 가지고 이것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목포시에서 우리 군은 부담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배수펌프장, 안전대행수수료 빼고 다 빠졌는데 이것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방청석에서 “재무과에서 별도로 한꺼번에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도 위에 공공운영비까지 전부 다…… 지진가속계측기 보수공사, 이런 것은 안전건설과에서 안 해요? 그런 것도 다 그대로 빠져 나갔는데, 삭감됐는데.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지진감속계측기 보수공사.

○ 박인철 위원

재해예경보 정비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도 세무회계과에서 합니까?

(방청석에서 “아, 저희들이 하는데요, 올해는 보수내용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져 나가서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요.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범성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식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민원봉사과장	권 혁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농업축산과장	이기석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5회 완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 해양정책과
- 해양치유산업과
- 수산경영과
- o 농업기술센터
- o 보건의료원
- o 맑은물관리사업소
-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의회사무과

(09시59분 개의)

○ 위원장 이범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해양정책과 2019년도 제3차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기정액은 212억 9,548만 1,000원으로 금번 3차 추경에 3억 6,451만 8,000원이 증액된 216억 5,9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사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귀어·귀촌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으로 1억 8,08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올 하반기 해수부 공모가 확정되고 그래서 11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기 때문에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위쪽에서 네 번째, 2019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업무 착오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이월금액이 상호 간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2019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4,458만 7,000원, 2019년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2,88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이월 사용을 해수부에 요청하였고, 2019년도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2억 9,500만 원은 국비가 10월 말 교부 결정된 예산으로 3회 추경 편성 후 이월하고자 하며 2019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6,600만 원,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지원 1억 7,000만 원, 바다지킴이 운영 5,100만 원은 10월 말 잔액기준으로 이월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도 유해생물 구제사업 1억 5,689만 4,000원은 올해 적조 미발생으로 해수부 승인 후에 적조 방제장비 물품 구입비로 이월 하겠으며,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은…… 안전쉼터 조성 1억 4,000만 원은 사업지구가 다 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당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해상국립공원으로서 쉼터 조성이 어렵다고 그래서 사업지구를 재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자체사업 3억 원은 2회 추경예산 확보로 사업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8,780만 원

139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4,600만 원은 입찰 잔액으로 11월 사업자 선정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4,920만 원은 국비가 11월 추가 교부돼서 3회 추경 편성 후에 이월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 1억 원은 금년부터 직불제시스템 전면 개편으로 인한 일부 미지급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4,0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1,000만

원,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발 2,000만 원, 환경관리 2,000만 원,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대나무 지주대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총 7건 3억 원은 사전준비 절차를 완료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현재 사업계획 미승인으로 이월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에 대해서요, 예산이 처음에…… 거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명사이월이 많이 되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1억만, 1억만 이월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1억이면 많지 않은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금년도부터 해수부에서 직불제 관련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버렸거든요, 전면 개편했는데, 이 예산 집행을 언제쯤 하도록 승인해 줘야면요, 12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개인별로 전부 다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연말이 되어 가지고 입금을 시키다 보면 통장 오류가 나온다든지 입금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끔 나오거든요, 매년 보면,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는 발생할 것이다. 1억까지는 안 되지만 보통 관례적으로 7,000~8,000 정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그래서요, 특히나 올해는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 정도는 최소한 이월시켜놔야 되겠다 싶어서 추정금액으로 올렸습니다.

○ 우성자 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편되었는데 직불금이…… 예산을 못하게 되었나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종전에 해수부 프로그램이 연동되지 않았습다. 쉽게 얘기하면 농업직불제를 주는데 농업직불제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우리 군이 모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료보험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해 새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수부에도 자꾸 건의하는데요. 이것까지 11월에 정산을 해서 12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계속 건의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 수산직불금이라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예)

어느 마을에 누구 누구 이렇게 직불금을 타는 분들이…… 그런데 이월되어 가지고 못 받는다는 것은 좀 그래요. 어떻게 하시든지 이 직불금 같은 경우는 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제시기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제도적으로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명시이월하지 않고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이 확실히 1억 9,000이면…… 9,900만 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 1억을 명시이월했다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344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적조방제 황토 살포 장비 임차료, 철부선아랑 굴삭기라고 해가지고 800만 원을 썼는데 그 밑에는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반납했다는 말입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어디……

○ 박인철 위원

344페이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사무관리비에……

○ 박인철 위원

이번에 적조가 들어왔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적조가 좀 발생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철부선하고 굴삭기를 임대하는데 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여기에 써져 있는데요. 그 밑에는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그러면 이 장비는 뭐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우리가 하는 것은 거의 머드스톤으로 많이 썼거든요. 머드스톤을 주로 썼는데, 머드스톤을 방제창고에 보관해 뒀는데요. 그것을 사람들이 들 수 없습니다. 장비로, 중장비로 정화선에 실어서 방제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기타장비나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굴착기만 저희들이 임차해서 금년에는 정화선 위주로 해서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 밑에 335페이지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적조 인부임 같은데. 이것도 1,600

만 원을 그대로 다 불용시켰는데. 이것만 8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것이 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비만 올해 저희들이 우리 정화선으로 해서 머드스톤…… 금년도에 신물 질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방제작업을 실시했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어디 지역이었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주로 금당에서부터 동부권역, 신지권역까지 해서 동부권역을 위주로 해서 방제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용 처리했는데 그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월에서요, 명시이월에서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바다환경지킴이, 바닷가 지킴이. 지금 11월 인데, 10월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 박인철 위원

10월 말인데, 이제 두 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버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러니까 이 잔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남아 있는 금액이…… 일단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11월 말이 되면 저희들이 정산하거든요. 그런데 11월에 얼마 집행되지 몰라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월을 올렸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두 달 남았는데…… 바다 환경지킴이로 해가지고 그 절반 돈이 남았는데

요. 이것 뭐 두 달 만에 다 쓸 거예요, 환경지킴이 1억 7,000을? 그다음에 바닷가지킴이도 1억 2,000에서 거의 반절 남아 버리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도 지금 다들 아우성이고. 이번에 질문 답변에서도 청정바다 수도라고 해가지고 바닷가 쓰레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저도 의아스러워서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기는 했는데 읍면에서…… 우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집행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12월 10일 이쪽저쪽으로 정산을 하거든요, 정산을 하는데. 거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예산을…… 뭐죠, 집행한 것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키기 좀 어렵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고 일부는 남은 것입니다. 남았는데, 이 예산을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월로 잡아 놔놨습니다마는 남아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보조사업이죠? (예)

보조사업은 반납하면 안 되죠. 올해에는, 당해 연도에는 다 소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것은 당해 연도에 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을 보면 봄철, 여름철, 가을철 태풍기간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남아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에도 가보면 전부다…… 제일 먼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해양쓰레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질문답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닷가에 가보면 쓰레기가 천지

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는 이것이 거의 집행은 다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총 잔액이 얼마 될지 몰라서 10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 박인철 위원

10월 말 기준인데, 앞으로 과장님, 두 달 남지 않습니다. 두 달 동안 1억 7,000을 쓰고 또 6억 5,100만 원이 써지겠어요, 두 달 동안?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이 사업비가 금년에는..... 한 5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라서, 늦게 발주해서.....

○ 박인철 위원

아니, 바다환경지킴이 이런 사업들은 진즉 된 사업들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죠, 이것 금년에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 박인철 위원

바다지킴이 이것도 된 사업들 아닙니까. 처음 이 됐든 두 번째가 됐든 간에 너무 잔액들이 많이 남았다는 이 말이에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전체적으로 다 남아버린 예산은 됩니까. 국가중요어업 뭐 홍보물부터 해가지고 대나무 지주대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월시켜버린 것은?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연차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늦게 내려왔거든요, 늦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서 해수부에다가 사업계획을 얼른 승인해 주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거든요,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매일, 이틀이 멀다하고 전화를 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올라가겠다고 하니깐 올라오지 말라고 승인해 주려고 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일 한번 가서 (청취불능) 오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해수부하고 전혀 해결이 안 됐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니, 해준다고는 합니다.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해주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내일 올라가서 최종..... 이월시키면 되겠느냐, 이것을 신속 집행하라고 난리인데, 저희들이 (청취불능) 오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보니까 예산 목들이 전부 어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 포장재나 이런 것들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는데요, 대나무 지주대,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해수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부담을 넣겠다. 이것을 승인해 주라.” 라고 하면 “승인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현지까지 왔다 갔습니다.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안 해주는 거예요.

○ 박인철 위원

대나무 지주대, 이런 데는 그러면 고금 어디..... 그런 데에 들어갑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김 지주식을 하는 그런 데에.

○ 박인철 위원

지주식을 하는 곳으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저희들이 차질 없이……

○ 박인철 위원

이런 예산들은…… 내일 모레 김도 생산되고 있는데요. 어민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지원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하면 승인해 준다고 해도 내년도애나 쓸 것 아닙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어업인들한테…… 금년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체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줄은 아는데요,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주민들한테 투자될 수 있도록 해주시시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334페이지요, 고수온 전복양식어장 차광막 그것 있죠, 1억에서 1,600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떤가요, 이 차광막 설치사업이?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차광막 설치사업이…… 연구소나 이런 지도기관에서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지원해서 했는데, 올해는 금년 수온이 안 높아서 그렸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올해 이것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넣었습니까,

올해 예산에?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국비사업으로……

○ 최정욱 위원

내년에? (예)

들어왔어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최정욱 위원

그런데 올해 수온이 높지 않아서 차광막이 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일단 지원해 줬는데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영구적으로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최정욱 위원

일부 이것에 대해 말이 좀 많이 들려서요,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소애다가 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있는데 연구소의 입장은 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읍면에 자꾸 홍보했던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하여튼 예산이 올라올 때 다시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에 섬 주민 생필품 지원, 이것 올해 사업…… 예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도 집행이 안 됐네요, 다시.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읍면에다가 사전에 교부해 주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이 일부는 올라갔다, 일부는 내려갔다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약간 금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갭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에 포장재요. 이것을 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발 이것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몇 페이지입니까?

○ 최정욱 위원

명시이월인데 페이지가…… 용역에서요.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아, 중요어업유산. 중요어업유산 포장재는 김 지주식이 국가중요어업유산 5호로 기재가……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보자. 브랜드를 개발하려면 연구용역을 맡겨봐야 됩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최정욱 위원

김이요? (예)
김 어떤 브랜드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지주식 김. 청학리에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김하고…… 지주식 김이니까 차별화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차별화를 하도록 하자.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해수부에서 승인해 줘야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최정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다른……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적조 미발생으로 인해서 1억 5,600만 원, 이것은 물품 구매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물품으로 구매를 해서 대비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일단 적조가 발생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시키는데, 이것을 뭐 머드스톤이라든지 아니면 어류양식 구제물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액상탱크를 할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수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후에 추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허궁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치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치유산업과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안녕하십니까?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존 125억 2,354만 5,000원에서 증액 없이 감액 3,761만 4,000원을 감액해서 총 124억 8,5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명시이월된 것 없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 명시이월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산업 육성 관련해서 해양치유 완도 BI 상표 출원에 따른 등록 440만 원입니다. 본 예산은 지난 6월에 해양치유 완도 BI 상표를 출원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심사기간이 약 6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연구용역비 해양치유산업 투자유치 용역 1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확보해서 3월까지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4월 초에 발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유찰이 있어 가지고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재공고를 하고 3개월에 거쳐서 8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약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해양치유산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41페이지,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해양치유 국제세미나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째로 빼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올해 국제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우선 프랑스 같은 데를 다녀와서 협의하고 나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결론이 있어 가지고 올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장보고축제 때 제주도에서 했던 세미나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그것은 해조류박람회…… 국제조류학회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서 홍보만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통째로 날렸다고요?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예, 내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것이면 이월시켜야지. 불용을 시키고 내년에 또 예산을……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별도로……

○ 박인철 위원

액수가 더 커져서 그렇습니까?

○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아닙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월을 안 시켰네요. 새로 잡는다는 이 말이죠, 본예산에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해양치유산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경영과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김일광입니다.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2회 추경예산 367억 8,747만 9,000원에서 984만 4,000원이 증액된 367억 9,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가 111억 9,439만 6,000원, 군특이 29억 8,000만 원, 소방안전세가 700만 원, 도비가 19억 7,876만 1,000원, 군비가 206억 3,716만 6,000원입니다.

348쪽입니다. 연근해 어선감척 기타보상금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보상금으로 올해 4척 대상

감정평가 결과, 폐선 보상금이 부족하여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은 4개소로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 이후 9~10월경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나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4억 8,000만 원의 예산 중 4억 5,0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연산 해조류 등 건조기 지원사업은 23개소로 사업지구가 많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1억 5,000만 원의 예산 중 8,900만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3개소로 이 사업도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이후 9~10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사업도 자부담금 12억 원을 선집행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 18억 원을 이월,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장소가 51개소로 거의 2개 업체가 시공하고 있고 도서에 사업장이 전부 있어 설계 및 시공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사업장이 착공했습니다마는 연말 안에 공사를 준공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금 선집행과 연례에 준공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부득이 3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감리비입니다.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이 완료되어야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8,400만 원 중 8,367만 6,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연초부터 위판장 내 입주업자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위판장 변경 및 위판 시간 등을 감안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부담금 집행 후 보조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 부득이 6억 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속동결장치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공사 연계사업으로 본사업 준공 후에 본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또한 20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기존 업체에 대한 기계 성능의 신뢰성이 없고 표준화된 정수 모델이 없어 일반 입찰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

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달라고 해수부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아직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방향은 조달청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시공사 선정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고자 26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도군 이송 소평물 개선 활성화 컨설팅 용역비 3,000만 원은 컨설팅 업체 선정 및 자문 교수의 모집 지연으로 인해 사업을 이월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장 판로 개척 홍보 및 마케팅사업 1,000만 원은 중국 선양시 16 플러스 1 프로젝트에 따른 완도 특산물 홍보코너가 11월에 개설될 예정이었으나 선양시 정부하고 전시관 부지 협상이 지연되어 내년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망양식품종 종자 공급사업 감태하고 고품 지원사업입니다. 16개 어촌계가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금년 종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시기가 2월, 3월로 조기에 시설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6개소는 완료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13개소는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본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2월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개 우수 자율관리 공동체에 대한 10개월 치 도우미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달 지급될 인건비입니다. 12월과 내년 1월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1,080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량종묘 공급사업입니다. 김, 미역 종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9개 어촌계가 사업대상자입니다. 현재 미역, 다시마 종묘시설 시기로 종묘 공급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산과정에서 내년 1월에 모든 것이 집행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사어 처리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비는 1억 원으로 사업추진이 1억 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례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1억 원을 이월시킨 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복산업 장단기 대응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비 1,900만 원입니다. 치패 입식시기에 맞춰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제 용역사업이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원가분석을 해

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복합열 히트펌프 사업으로 사업자를 수차례 모집하였습시다. 사업자가 아직…… 신청자가 없습니다. 내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사업자를 재모집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입니다. 3개 지구사업으로 1개 지구 금당 가학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산 지리와 신지 동고지구는 잦은 태풍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6억 원 중 4억 1,60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조사 및 재배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차 사업으로 노화 방축리 김 양식어장에 대한 재배치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업대상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사업비 3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획어업 어장 재배치사업 6억 원입니다. 본사업은 (청취불능) 어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연내에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1~2월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6억 원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주로 구명조끼라든가 어선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7차까지 사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6차까지 신청이 있어서요, 6차 신청한 사업자를…… 사업진행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 이것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해 가지고, 3,650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경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전복치패 양식어장에다가 하는 사업으로 1억 1,880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복치패 양식어장에 치패가 출하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치패 출하가 아직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 새우 양식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잦은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월내에 어떻게 하든지 준공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금 지연되면 연례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2억 3,329만 원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 1월 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22개 사업 205억 9,480만 원 중 102억 1,75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소관 2019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범성

과장님, 마지막 두 가지가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나중에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제일 뒤쪽에 있습니까? (예)

○ 위원장 이범성

그런 사항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도 책을 본다고 봤습시다.는 햇갈려서 물어봤습니다.

수산경영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궁희 위원님.

○ 허궁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을게요.

자연산해조류 건조기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본사업은 주로 톳, 청각 이런 해조류를 도로변에 많이 자연건조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그래서요, 이것을 기계화해서 건조기를 설치해 가지고 위생적으로 건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23개소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예, 자연산해조류라고 해서 어떤 품목인지 궁금해서 부탁을 했고요.

한 가지 궁금한 내용은 유망양식품종 종자공급 감태하고 곰피에 대해서 이월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느 종자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생산업체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사업자는 어촌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공급은 생산업체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감태하고 곰피가 주로 2월경에 시설에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산사업 신청…… 사업규정상 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2월에 현지조사하고, 3월에 사업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태하고 곰피의 시설 시기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올 사업비를 이월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어차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내용은요, 2월에 감태…… 뭘니까, 곰피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는 소득에 도움이 안돼요. 이 내용이 너무나 잘못돼서 제가 궁금해서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곰피나 감태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종자가 많이 죽어 가지고 공급이 어려워져요.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줘야 됩니다. 전국 어디를 뒤져서라도, 왜, 적재적소에 공급이 되어야지. 철 지난 지원인데 무슨 혜택이 오겠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래서 12월하고 1월, 2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허궁희 위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 설명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미역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지 쪽에서는 거의……” 하는 직원 있음)

생미역하고,

(방청석에서 “그것이 아니고요, 감태…… 곰피가 다른 종류입니다. 생미역이 아니고.” 하는 직원 있음)

어느……

(방청석에서 “전복먹이용으로 사용하는 것인

데, 진도 쪽이라든가, 시험양식을 청산이라든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미역은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약간 다시마하고 비슷한 품종입니다.

○ 허궁희 위원

그러니까요, 완도 쪽에서 말하는 그런 곰피를 이야기한 것이지. 학술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별이 안돼요. 우리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생미역은 아닙니다.

○ 허궁희 위원

생미역은 아니고? (예)

그러면 사료먹이용으로 공급한다는 그 말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요.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해조류 ASC 인증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을 불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2,000만 원은 당초에 해조류 ASC 국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어가를 수요조사해서 96어가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ASC 전문가를 채용하고 하반기에 교육 실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라는 어업인들이 참여할 의사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어업인들을 설득하고…… 저희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요. 교육이 끝나고 심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 연내에는 사실상 어려워서 2,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번에 신지에서 해조류를 하시는 분이 ASC 이것을 했죠,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그러면 이것을 왜 이월시키고 않고 불용시켜 버립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요구해 뒀습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웁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년에는 그래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어디를 가나 “ASC, ASC.” 라고, 아니면 뭐 해조류나 전복, 광어 이야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가는가.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심사비를 보니까 6,6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쓰고 4,600만 원은 불용시켰는데.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제2기 전복 ASC 어가 심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2기 ASC 신청어가가 당초에는 35개 어가였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16개 어가가 중도포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 14개 어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한 어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남아서 감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를 넣을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하다가 불용 처리를 해 버리면…… 이런 것은 이월이 안 됩니까?

(방청석에서 “전복하고 내년에는 해조류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기존에는 따로 따로 구분했었는데 한꺼번에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것은 그렇게 하고.

34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보면 전체 다 날려버렸거든요. 불용 처리해 버렸거든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까지 해가지고 양식장 모니터링하고 전복 우량종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업무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전체 불용 처리한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업무는 당초에 킹전복 부분에 대해서 양식장 종묘를 양식장에 입식해서요, 그 부분을 모니터링 좀 해가지고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당초에 이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킹전복 종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진행을……

○ 박인철 위원

완도에 킹전복을 입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시험양식으로 종자연구소에서……

○ 박인철 위원

방송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전부 폐사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현장하고 언론에서…… 아니, 집행하는 데에서 다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불용되어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349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완도군 이송 운영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전체 다 날려버렸는데.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 수산물 글로벌 판매 판로 개척 물류비 지원도 전체 싹 날려버리고. 왜냐하면 군수님하고 다 역행되는…… 군수가 어디에 가서 축하하고 뭐하고 그러던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개척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만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도 안 쓰고, 어디에다 했는지 모르겠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물류비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국제 규정상 WTO 위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진행한 부분이. 그래서 이것이 국제협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징계가 따를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예산이……

○ 박인철 위원

저번에 군수님이 이야기하던데 WTO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광어 물류비를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WTO 뭐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그래서……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완도군 이송은 용역도 하고 있는데 이 월되었는데요. 이것도 전체 2,000만 원이…… 실적은 어떻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사업은 실제로 완도군 이송하고 4차 산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고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는 이 부분도 사실상 연내에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이라고 하지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통으로 불용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는 생각이…… 용역을 해가지고 활성화 방향을……” 하는 직원 있음)

이것 해년마다 해왔던 사업이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올해 추경에……” 하는 직원 있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올해 추경에……

(방청석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송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용역으로 해가지

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이월액이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전체 그런 이유입니까? 우량종묘나……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 민자본사업이고 자부담인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규정상 자부담으로 선집행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수산경영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사업장소만 해도 수백 개의 지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있게 되면 중도포기를 하는 어업인들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았고요.

폐사어처리시스템 기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1억이었는데 이것은 뭐예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사실상 폐사어 처리시스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2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 박인철 위원

그러면 전체 보조입니까, 아니면 자체부담이 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자체부담을 일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 박인철 위원

이것 어류양식수협에다가 해준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100% 군비로 한다는 이

말이에요? 한 5대 5로 가야지, 보조금이.

(방청석에서 “자부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부담 몇 %입니까?

(방청석에서 “자부담 30%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하고 1억으로 해가지고 돈이 부족하다고 이월시켜서 또 본예산에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기계만 구입하는데 3억이……”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3억이었으면 3억을 요구해야 되는데 왜 1억만 요구해 가지고……

(방청석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하는 직원 있음)

기계가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까. 원스톱으로 들어가야지.

그런 것이 있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친환경 (청취불능) 해가지고 히트펌프를 하는데, 지금 노화 같은 데는 전복어가 이런 데에서 히트펌프를 안 준다고 난리고 그러던데, 이것 사업자를 신청하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것이 히트펌프 중에서…… 이것은 복합열히트펌프입니다. 당초에 어민들이 이 복합열히트펌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막상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복합열이란 공기열하고 해수열하고 같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사업 자체가 한 5,000만원 더 비쌉니다.

○ 박인철 위원

이것 개당 1억짜리인가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1억 5,000, 이것은 1억 5,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막상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면 어민들이 사업 신청을 안 합니다.

○ 박인철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히트펌프라고 하면 8,000

보조에 자담 2,000으로 해가지고 1억짜리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1억 5,000이라고…… 그러면 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까? 1억짜리로 안 하고 이렇게 1억 5,000짜리로?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이 복합열 히트펌프 단가 자체가 비싼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해수부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히트펌프는 1억인데 왜 복합열로 신청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어민들이 원해서 복합열로 했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예, 당초에는 원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갖다 놓으니까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제가 한 가지만……

복합열 이것 앞으로 모집되겠어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아니,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내년 초까지만 한 번 더 모집해 보고요, 내년 1월에 내년도 사업을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이 부분이 처음에는 선호했었다고 제가 알

고 있는데요.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허궁희 위원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 위원장 이범성

예,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십시오.

○ 허궁희 위원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면 복합열 1호를 들인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사용하지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단가가 1.5배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들을 때는 똑같은 가격대였어요. 조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민들한테 부담되지 않습니까. 즉 1억에 공급되어야 되는데 1억 5,000이라고 하니까 자부담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하고 싶은데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열 교환기…… 히트펌프 이것이 계속 물에서 열을 빼는 기계가 있고요. 이 복합이라는 것은 공기에서 열을 빼는 거예요.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민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년부터 돌려볼 계획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이용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동하면 저희 집으로 방법을 구경하러 오라고 하십시오, 활용방법을.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범성

예,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소형저장고에 대해서요. 소형저장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이 되고…… 처음부터 자부담을 안 받습니까? 자부담을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받고 시작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나요? 51개소를 시설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났나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현재 거의 전 사업장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업체가 많지 않고 두 개 업체가 각 섬의 어민들을 찾아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에 착공해 가지고 전부 시공하고 있습니다라는 연내에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 우성자 위원

아니, 이것은 보통 연초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희들이 3월에 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 우성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요즘 소형저장고 시설을 얼마나 간단하게 조립해 가지고 와서 세워 버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51개소라면서 2개 업체만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가 왜 그렇게 됩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시공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별로 안 되고 낙도에 돌아다니면서 시설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개 업체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준공이 어렵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을 못해 가지고…… 하고 싶어서 막 줄을 서있어요. 부탁하고 그러거든요,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런데 이렇게 51개소를 지정해 놓고 이렇게 연말이 될 때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

리 섬으로 한다고 해도 요즘은 간편하게 해버리더라고요, 와서 하는 데를 보니까. 그런데 돈을…… 완공한 사람 그 몇 개 안 되잖아요, 1억도 못썼으니까.

하여튼 이것 빨리 좀 해가지고요. 지금 내 주위에도 저온저장시설을 못해 가지고 줄을 서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으로 처음부터 딱 넣고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까지 완공을 못한다는 것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최대한 연내에 완공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우성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김공장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가 안 들어와서 조달청에 입찰해 버리면 자기들이 필요한 기계가 오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저번에 도에서 해수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야기 관련해서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이 사업을 전부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도에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다시피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그 방법이 아니면 어민들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상 해수부에서 그런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월해 놓고 될 수 있는 대로 어업인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범성

지금 공장들에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맞죠? (예)

이런 부분들을 타 군과 아니면 지자체들과 협심해 가지고 어민…… 가공하는 공장에 필요한 기계를 넣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26억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돌려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십시오.

○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어떻게 하든지 소안지역은 용수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예, 수산경영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를중)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7억 9,354만 1,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4,23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비로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꽃차산업 재료비로 꽃차산업 식용장미꽃 생산 시범사업 재료비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없으면

그 이월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저희들이 꽃차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입 종묘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1차로 상반기 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로 저희들이 요구한 그런 종묘가 없어 가지고 수입을 의뢰했는데요, 지금 12월 초에나 온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에 농가에 보급했을 경우 동해 피해가 염려되어 가지고요, 내년 봄에 인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장미는 꼭 수입해야 됩니까, 그것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국내에서는 식용장미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수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러면 내년 봄에 사업이 정확하게 추진되는데는 이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뭐 수입한다고 하니까 국산은 식용이 없나 해서 여쭙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원장님께서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하셨는데 보건의료원 의회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이번 정례회부터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의회 보고 때마다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제3회 추경예산 총괄액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액은 130억 6,300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2,7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보건기관 운영지원 포상금입니다. 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321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건의료원 민원대기실 의자 구입비로 358만 2,000원.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사회보장 적수혜금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일시금으로 9,600만 원. 완도군 출산장려양육비 분할금으로 7,800만 원. 완도군 출산장려 돌맞이 축하금으로 1,000만 원. 완도군 출산장려 출산전 준비금으로 1,000만 원.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결핵실 채담부스 구입비로 1,800만 원.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인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 지원, 시설비입니다. 취약지 헬기착륙장 시설비로 1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이 헬기착륙장은 지난 10월 말에 공문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의료원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 없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헬기착륙장 시설비가 10월 31일자로 공문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 김양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매안심센터 집기류 및 기본장비 구입 전부 다 불용했는데, 장비가 다 있어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이 부분은 국비로…… 사업비가 운영비로 내려온 것인데요, 예산 성격상 운영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인건비로, 인건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지출하려고 과목을 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양훈 위원

인건비로요? (예)
어떤 인건비로?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치매안심…… 그 직원들 인건비를 국비로 주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양훈 위원

거기에 있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밑에 프로그램 구입비도 마찬가지로 인가요? 바로 밑에, 장비 구입 바로 밑에 쪽이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363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프로그램……

○ 김양훈 위원

도구 구입비도……
363페이지, 바로 얘기한 종목에 있는 것이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인건비로 넘기나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국비를 과목만 바꿔서 국비로 그 사업에 지출하려고 그렇습니다.

○ 김양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불용 처리하고 나중에 인건비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정정해서……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바로 과목만 바꿔서 지출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김양훈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헬기착륙장 취약지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이번에 시설하려고 하는 헬기착륙장은 생일면 덕우도, 거기 주민들이 헬기착륙장이 필요해 가지고 작년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도를 거쳐서 건의해 왔고요, 이번에 아마 인근 신안군에서도 헬기착륙장 국비를 받아보려고 했는데 완도군만 되어 가지고요, 생일도, 덕우도에다가 착륙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1억 3,550만 원인데요, 이월된 금액이. 한 곳을 시설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방금 얘기하기로는 한 세 곳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한 곳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 위원장 이범성

한 곳에 사용되는 금액이 1억 3,500 정도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 최정욱 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269페이지에 1억 1,200. 이렇게 많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국고보조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사업이 있고 또 분만취약지 사업, 그런 사업들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을 절차에 따라서 반환하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 최정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신 것인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사업을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데,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하다 보면 부족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국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동안 성실하게 추진했는데 남은 금액을

○ 최정욱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은 어떤가요, 그만큼 예측해서 하는 것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예, 그만큼 읍니다.

○ 최정욱 위원

내년에 또 남겠네요, 예산이?

○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최대한 저희가 군비보다 국비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국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사실 많이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있을 때는 좀 더 들어가고 중간에 직원들이 그만 두거나 그랬을 때 국비가 남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최정욱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61억 6,644만 7,000원으로 2019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63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상수도 유지관리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토도 신규급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배상금 등 노화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간접비 3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완도읍 성내리 오수관로 시설공사 2억 5,000만 원, 완도읍 성내리 하수도 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3,000만 원입니다. 완도읍 외곽마을 오수관 정비공사 1억 9,856만 원, 완도읍 하수도 준설사업 1억 2,000만 원, 완도읍 군내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계획수립 용역 1,900만 원.

142페이지입니다. 완도읍 용암리 비탈면 오수관 정비공사 4,500만 원, 완도읍 재택관로 연결공사 2억 8,000만 원,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9,757만 4,000원

○ 위원장 이범성

과장님,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냥 숫자만 읽지 말고 어떠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그러면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이범성

예, 그 부분까지 왜 이월이 됐는가. 어떻게 추진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완도읍 성내리 오수관로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은 10월에 공사가 발주됐고요, 기공승낙이 지연돼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완도읍 성내리 하수도공사 편입토지 보상금 3,000만 원. 위에 성내리 하능정원 공사에 포함된 토지 사용입니다. 편입토지(청취불능) 감정평가 실시 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완도 외곽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1억 9,850만 원, 이것도 편입토지 승낙이 지연되고 실시설계 중이어서 사업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완도읍 하수도 준설사업 1억 2,000만 원, 이것은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되고 사업대상지가 선정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중앙시장 일원 하수관로 준설 용역으로 해서 입찰 중에 있어서 이월합니다. 군 내지구 중점 침수예방사업 용역비 2,000만 원, 이월에 10월에 용역이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월하였습니다. 완도군 용암리 비탈면 오수관로 정비공사 4,500만 원 이것도 금년 10월에……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완도읍 재택관로 연결공사, 이것도 연중……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고 그래서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9,757만 4,000원, 이것은 내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습니다. 완도읍 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교체공사 6,556만 원, 이것은 사업비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월하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동시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완도군 분뇨처리시설 악취포집설비 개선공사는 사업이 발주돼서 준공기한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불가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완도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 용역비 역시 내년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상수도 개선사업 5억 6,180만 2000원, 이 금액은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

에, 공사가 진행 중이고 민원 처리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청산 대모도 9억 1,067만 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하고 부대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공사가 내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소안 횡간도 23억 9,98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해저관로사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사업 금일 총도 2억, 이것도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또한 해저관로사업으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외 고마도 1억 4,500만 원, 군외 사후도 15억 9,000만 원, 이 또한 해저관로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추가자료, 보충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영산강유역환경청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 지연에 따라서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총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결과, 다소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섬도, 생일 덕우도 8억 5,900만 원에서 5억 3,100만 원으로 변경. 고금 녘도 5억 3,100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변경. 군외 양도 2억 8,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 청산 소모도 5억 2,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 고금(청취불능) 소안도 5억 9,1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 금일 장도 2억 8,3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금일 다량도 4억 9,600만 원에서 3억 2,600만 원으로 변경. 군외 흑일도 5억 1,700만 원에서 3,100만 원으로 변경. 군외 서화도 5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으로 변경. 금일(청취불능) 2억 8,300만 원에서 1억 100만 원으로 변경. 청산 여서도 5억 5,3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변경. 소안 구도 6억 원에서 5억 7,700만 원으로 변경. 금일 총도 25억 원에서 50억 9,000만 원으로 변경. 군외 고마도 26억에서 47억으로 변경. 군외 토도 18억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변경. 금당 비전도 15억에서 27억으로 변경. 노화 노록도 20억에서 18억으로 변경. 금일 신도 25억에서 23억으로 변경.

이상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가 명시이월이 많죠?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맞습니다.

○ 박인철 위원

너무 많은데, 내가 한번 쪽 훑어보니까 애당초 설계를 했다가, 용역을 했다가, 뒤를 했다가 이런 것 빼고요, 체크해 보니까 10원짜리 한 장 안 쓴 목이 22개나 나옵니다. 10원짜리 한 장, 이 예산이 1회 본예산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간에 최소한 행위 자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유가…… 이월에 대한 원인별 이런 분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원인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액수 중에서 맑은물사업소의 예산이 꽤 많이 되는데, 12월이…… 연도가 도래되는데요, 내가 체크해 보니까 22가지 사업은 아예 10원짜리 한 장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방금 소장님이 말씀했던 사업 변경도 되고 액수도 가감되고, 이렇게 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맑은물사업소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 가지고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번엔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제외하고 넘겨야 되는데, 공사 진행 중인 부분에 증액이 예상되고 토지보상금이 승인되지 않아서…… 사실은 예산에 그대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2월 말에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집행된 금액

은 제외하고 조서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보니까요, 원래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민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다 보면 최소한 설계 정도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빠져야 되는데, 설계비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예산만 많이 확보해 놓고 손도 못 댄 것이 22가지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명시이월 중에서 22가지나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번엔 명시이월을 처음 봐봤는데 맑은물사업소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예산도 많거니와 이월사업도 제일 많아요, 조금 더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연도 말에는 사실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맑은물사업소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맑은물사업소가 일을 빨리빨리 해주면 주민들의 생활이 그만큼 윤택하고 편리해 집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잘 정리되도록 하고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2월이면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되는데 그전까지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갖다가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19년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이 변경됐는데요, 어떻게 봤을 때는 41억이 5,000으로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당초 사업비를 잘못 선정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모르고 한 것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최초에 도서별로 단위사업비를 결정할 때, 하역튼 표준안이라고 환경부에서 제시했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때 저도 따져 봤습니다마는 최초 단가를 과하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해 보니 금액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나도 한도 있게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느닷없이 몇 십억이 몇 천만 원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요. 우리 자체사업 계획을 짤 때 잘못 짜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 맞습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국비예산 편성할 때요, 다시 말씀드리면 단가를…… 표준단가가 아마 과하게 뒀고요. 해저관로사업비가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해서 가설계 내용결과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그리고 구도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6억에서 5억 7,700만 원인데. 다리로 연결한 금액입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예, 연결해서 발주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이 부분은 언제쯤 추진이 가능합니까?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저기가.

○ 위원장 이범성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내년 6월까지기는 가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이범성

그 부분을 신경 좀 써가지고요. 해수담수화랄까, 물 관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 아마 구도인 것 같습니다. 물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어쩐다고 하니

까. 그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특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62만 5,000원이 감소된 20억 4,042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증액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이월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장보고동상 어린이테마놀이공원 조성사업 5억 원, 어촌민속전시관 활성화 연구용역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소장님, 이 재료비 이것 왜 전부 다 불용 처리해 버렸습니까? 383페이지, 전시관 생물(어류, 패류 등) 구입 재료비가 전부……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전시관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안 해서 감 뒀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것은 그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화단정비 및 잡초 제거, 이것도 거의 안 쓰고 다 반납해 버렸는데, 장보고사업소를 보면 봄철부터 가을까지…… 이 돈이 부족할 것

인데, 왜냐하면 관할 구역이 넓어 가지고 풀 같은 것을 베고 잡초를 제거하려면…… 오히려 이런 돈이 부족할 텐데 다 남겨버렸네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화단하고 잡초 제거는 자주 했고요. 남은 금액을……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85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썼던데, 이 돈도 부족할 것인데, 부족해야 맞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더 충분하게 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다가 보면 이런 예산은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라도 하고, 또 더 청구해야 될 판인데 남아 있어서요. 그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동상 이것은 용역도 안 했습니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업자와 계약까지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런데 왜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번에 계약해 가지고요.

○ **박인철 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 본예산에 된 것 같은데.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아니, 추경에 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예)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 **박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돈을 다 쓰십시오. 장보고사업소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을 7,000만 원이나 남겨놓으면…… 거기도 돈을 쓸 곳이 많이 나올 텐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회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770만 4,000원이 감된 9억 3,4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감 뺐습니다. 청사운영입니다. 공공요금 979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성자 위원님.

○ **우성자 위원**

왜 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의회에서 지역에서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세 미나를 개최해 보려고 했었으나 그동안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 시켰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던 예산입니다마는 그런……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 시켰습니다.

○ 우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범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1건에 4,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중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517호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본위원회가 운영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 출석위원(8인)

이범성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최정욱	

○ 출석공무원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치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행정과장	황승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5회 완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우 성 자		
의 원	이 범 성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제27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7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 의 록

개회식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오후 14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5. 폐식

(사회 : 의사팀장 이양일)

(14시00분 개식)

○ 의사팀장 이양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제27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
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제27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4분 폐식)

제27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본 회의 의 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오후 14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개의)

○ 의장 조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3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05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2월 23일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9년 12월 23일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허궁희 의원과 최정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상임위원회 조례 심사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 상정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안전을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정된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1분)

○ 의장 조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20년도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우리 군 공무원 정원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조직개편 시 변경되는 부서명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안전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결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 의장 조인호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재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선

감사합니다.

○ 의장 조인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76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9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을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열한 차례에 거친 80일 간의 의회 총 회의 일정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고, 또한 일본정부의 경제정보에 대한 규탄결의안과 5.18 망언에 대

한 규탄성명서 채택 및 국립난대수목원 완도군 유치에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과 완도군의 백년대계를 모색하는 등 완도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2020년도 제8대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귀담아 듣고 군민의 뜻에 따라 완도군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2019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라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조인호	허궁희	우성자
박재선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군수	신우철
부군수	정석호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경제산업국장	서현중
주민복지과장	고영상
여성아동과장	서길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세무회계과장	조광용
경제교통과장	안환옥
관광정책과장	정광민
환경산림과장	정성조
지역개발과장	한희석
안전건설과장	정광선
해양정책과장	양응열
해양자유산업과장	이송현
수산경영과장	김일광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
보건의료원장	김선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차재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추교훈

○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천종실
의사팀장	이양일
속기공무원	정홍비

제276회 완도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3일(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재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9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6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복지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7기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자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단장을 폐지하고 국장, 담당관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국의 설치기준 2개 국에서 3개 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부군수 직속으로 기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해양치유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복지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 소관 과도 5개 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경제산업국의 소관 과도 5개 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제8조 미래해양사업단을 폐지하고 해양문화관광국으로 개정과 함께 소관 과도 5개 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 맑은물관리사업소의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로 개정하고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각 국의 분장사무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집행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7호의 서류

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조직역량 강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721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708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의회 소회의실에서 보고하고 그럴 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의회에 정원을 1명 추가해 주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렸네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하거든요, 직원이. 그래서 1명을 충원해 줬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국장님? 정원 추가를…… 지금 721명에서 1명을 늘리더라도 의회에 1명 7급 정도로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직원 정원을 조정했는데 26명이 늘어났습니다. 기존 695명에서 726명으로요. 그러면 이 직원들을 어떻게 다 충원할 것이냐의 문제는 26명을 연말까지 해서…… 며칠 전에 경력직 채용에 15명을 뽑은 것까지 합해서 26명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 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정원으로 도에다가 18명을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승인이 떨어져 봐야 알겠지만 18명이 다 승인되더라도 그것도 부족해서 15명 내지 16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 파견조직은, 그래서 군 본청도 박람회조직위 사무국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1월 2일부터는 바로…… 결과적으로 그 박람회로 파견된 직원 수만큼 16명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람회가 끝날 때까지는, 그래서 읍면과 각 실과소에서 1명씩 뽑아서 조직위로 파견시켜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회사무과뿐만 아니라 타과나 읍면도 직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26명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봐서 더 필요하다면…… 의회의 업무 특성상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보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를 넘겨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정원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조류박람회를 하면 정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합니다.

○ 박인철 위원

별도 정원입니까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별도 정원.

○ 박인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오늘 당장 이것이 안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꼭 한 명이 더 정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약속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통과되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보면 읍면에도 인원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해조류박람회에 파견해 가지고……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명씩 거기에 불러서 파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읍면이 돌아가겠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항상 인력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해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선

차라리 읍면에…… 과만 늘려놓고 인원은 그대로인데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저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읍면에서는 일하는데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인원만 많다고 해서 다 잘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역량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감찰활동과 지도를 해가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원칙을 파킹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더욱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능력만 되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읍면에 계시요. 그러다 보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지금 순환보직을 하고 있죠. 승진하면 읍면으로 가고 또 차례가 되면 올라오고.

○ 위원장 박재선

그것을 제대로…… 인사하실 때 좀 보시고요. 그래야 읍면에서도 인원수가 부족하더라도 일을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실 때 잘 고려해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의 과 명칭

과 사업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상하수 도시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성아동과를 여성가족과로,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6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의 체육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체육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완도군의 스포츠 군 이미지를 마련하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목적, 제4조에 지원사업, 제5조에 지원대상, 제6조에 신청절차 및 선수의 선발방법, 제11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령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및 보호와 육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고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26조 보조금 및 관리방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의안번호 제 2569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출신의 우수선수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49쪽에 별표2 포상금 지급기준 중 하단부 당구장 표시에 첫 번째,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은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 우수선수로 선발된 자는 장려금 형식의 수당, 훈련용품비, 전지훈련비 또는 대외출전경비까지 지급되고 있는 포상금을 입상종목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상 종목별로 지급하지 말고 최고 상위법과 관련하여 지급함이 형평성의 원칙에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선수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이윤리 선수에게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이윤리 선수가 전혀 소속 없이

그러니까요, 우리 역도선수처럼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윤리를 완도군 소속으로 해가지고 운동선수들은…… 국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공무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래서……

○ 박인철 위원

우리 군하고 상관없이 지원됐고, 또 그 특정한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역도팀처럼 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1인 선수로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윤리 선수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완도군 소속으로 1인 선수…… 팀은 아니지만 완도군 소속으로 해놓으면 우리 군에서 팀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 박인철 위원

예산의 범위는 그 이후의 문제고요, 차라리 그 선수가…… 우리 군 로고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나가는데, 체육복에다가……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한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하고 의회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선수……

지금 국장님, 다른 시군도 보니까 팀으로 안 이루어져 있고 자기 자치단체 소속으로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역도팀은 아니어도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런 사례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렇게 해서요. 어차피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것들도 과에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하면 체육과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해가지고 그런 안도 한번 해보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갖다 주니까 처음, 기존의 것을 변경해 봤자……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뭐 400만 원 정도밖에 삭감된 것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월정액만 이렇게 한 400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돈, 액수를 떠나서 차라리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 군 취업선수로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꼭 이윤리만 아니고 노화에도 있습니다. 국장님. 마라톤 백 누구 선수인가. 그 선수는 더 두각을 뽐는데 누구한테 지원을 받지 못해서 참 안타깝거든요, 그런 선수도, 그러니까 지역인재 발굴 차원에서 그런 선수들한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가지고, 그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윤리 선수 때문에…… 이윤리 선수를 지원해 왔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지원해 와서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살펴보니 이윤리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회하고도 대화를 한 번 한 적 있습니다만 이런 선수들이 이윤리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또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도 이 조례만 제정된다면 지원해 줘야 할 선수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타시군의 우수선수 지원현황을 살펴봤더니, 화성시와 평택시, 제주 서귀포시와 양구군 이렇게 4개 시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이윤리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국한되는 조례가 아니라 다른 우수한 선수들…… 다른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선수에게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인철 위원

그래서 타시군에 이렇게 왔는데. 거기를 보면 화성시 같은 데는 8억 5,000으로 120명한테 하는데 최고 금액이 1,000만 원, 최저 100만 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밑에 양구군도 보니까 3,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여기는 학생들한테 주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인을 떠나서 우리 지역 사람으로서 두각을 나타내면 지역인재 육성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물론, 주무과에서 변경도 시켰습니다만 거의 특징인으로 해서 그러는데요. 이 조례로 하면 거의 지역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 조례로 하면.

그래서 한번은 동료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심도 있게 한 번…… 아직 당장 예산을 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의회와 집행부의 과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전문위원 추관호

위원님들, 참고로 50쪽하고 51쪽을 보면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 신청서라고 되어 있고, 서약서에 보면, 별지 2호 서약서에 보면 모든 용어가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가 아니라 완도군 우수선수로 생각해서 검토하다 보니까요. 일반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와 협의를 했더니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한다면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대로 등록신청을 하고 서약서를 쓸 때 완도군청 우수선수로 자기가 인증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종의 우리 군 소속 취업선수로도 볼 수 있다. 단, 우리 군 취업선수로 봤을 때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인사파트에 문의하니까 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의 조례대로 시행해도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점수를 집행부에서…… 48쪽에 보면 등급을 상당히 올렸습니다. 등급을 올리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선수수당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잘 하면, 어찌면 7조 2항 아니면 3항 정도에 적용되지 않겠느냐. 점수를 올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미달하면 받는 금액도 낮아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과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현재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박인철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처럼 말씀하신대로 다 좋은데,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지원범위가 제 생각에는 벗어나는 것 같아요. 우수한 성적을 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당연히 연마다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또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소지한 총 같은 것도 뭐 800만 원 정도 한데 우리 군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야 뭐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러니까……

○ 전문위원 추관호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줘야 할 사항이 50쪽과 51쪽의 서약서하고 우수선수(청취불능) 용어입니다.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인지, 완도군 우수선수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려 가지고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이 말씀하신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고 그냥 완도군 우수선수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 적용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냥 완도군 우수선수로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적용 항목을 줄여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도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 2년간 계약을 할지라도 차후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김양훈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전지훈련비하고 대회출전비 10만 원씩 2회로 잡아놨는데, 장애인사격연맹에서 참가비를 대주고 있고요,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대회출전비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중복 지원되는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완도군청 소속, 완도군 소속, 이것이 참 말 한마디, 글씨 하나를 가지고 법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애깃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서약서 3번을 보면, 완도군청 소속으로 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지원기간이 2년간이다. 그러면 한 번하면 2년간 계속 해준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2년간 해주면 노동법상 무조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군청 소속은. 그래서 거의 보면 10개월로 잡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하거든요. 그런데 2년간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완도군청 소속은 훈련비고 뭐고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체육선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 소속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조례안…… 뭘니까, 설명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뽑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태호 체육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재선

예, 설명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계약은 2년간으로 하고요, 그 선수에게 지급될 경비는 매년 평가하도록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2년으로 하되, 매년 평가를 해서 그 전년도 실적으로 다음 연도에 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놨고요.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한번 부의했다가 오늘 또 다시 재상정을 했는데요, 이전에 상정한 표를 대비해서 A3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전 조례표대로 적용하게 되면 특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과하고 다른 지원도 받고 하는데 지원액이 많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수등급기준표하고 점수계산표, 또 장려금을 주는 그런 금액들을 전부 다 강화해서 낮췄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윤리 선수가 이전 조례의 적용표대로 하면 특급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변경된 적용표를 적용하

게 되면 B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직금은 한번 계약하면…… 어차피 그 선수를 재계약하지 않는 이상 만약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요. 퇴직금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정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도실업팀 같은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 재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산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윤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 우수선수로 계약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줘야 됩니다.

○ 김양훈 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윤리 선수는 우리 군청 소속이 아닙니다. 역도군은 소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윤리 선수는 우리 군청 소속 팀이 아니에요, 실업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격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개월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체육회의 체육선수들을 보면 다 10개월로 계약을 합니다. 인부들도 마찬가지로요. 전부 다 10개월로 계약해요,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지금 취업선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수선수 지원이지. 그런데 완도군청 소속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년간 해서 뭐 퇴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청소속이예요, 그 선수는. 그 근거 자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0개월로 합니다, 전부 계약을. 1년 내내 시험을 뛰는 것도 아니고, 뭐 1년 내내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팀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군은 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지원이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장학금과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은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군으로, 군청 소속으로, 이 조례 내용상으로 체육…… 체육이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완도군청 소속 우수선수로 등록되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 운영하면서요. 중간에, 2년 후에 재계약이 안 났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퇴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 김양훈 위원

그래서 10개월로 하자는 얘기에요. 10개월로……

○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10개월 단위로, 10개월만 계약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해 볼 부분입니다.

○ 김양훈 위원

정확하게 완도군청 소속이라고 그러면 우리 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2년도 맞고 3년도 맞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알겠습니다. 군청 소속으로 이렇게 신청서 자체가 들어와서, 서약서까지…… 군청 소속으로 받게 되면 말 그대로 완도군 마크를 달고 뛰어야 되고 우리 군과 계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재선

예,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서약서도 잘못되었어요. 서약서 6항, 7항을 봐보면 군수는 동의 없이 타시군 소속 경기에 (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군 소속으로 되어 버리고, 그리고 7항에도 완도군청 소속으로 출전하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전부 다 용어가 잘못되었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을 만약 해준다면 신청서도 완도군 소속, 그거나 이거나 그런데, 완도군청이라고 전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서약서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손을…… 차라리 처음 조례처럼 완도군 우수선수로, 그러면 폭넓게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이윤리 선수가 아니더라도 지원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 등급신청서에도 완도군으로 해가지고, 또 서약서에도 보면 많은 조항

들이 전체 다 완도군청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 7항에는 완도군청 소속으로 출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전라남도 장애인협회로 출전해서 서약서를 위반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죠. 그런 것들이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안 맞는데.

○ 전문위원 추관호

예, 그러니까요.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이 부분을 부결하고요.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에……

○ 박인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본예산에는 삭감됐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5~6월에 하나요? 이 목들이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전에 서로 수정해서요.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아직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다달이 계속 상임위는 여기요.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내년 추경 전에 조례안을 다시 다듬어서요. 그런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절차적으로……

○ 위원장 박재선

여기에서 바로 답을 내릴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집행부와 저희가 계속 머리를 맞대서 상의해 가지고 제대로 만든 다음에, 추경 전에 통과시켜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그렇습니다. 저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급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 박인철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할게요. 꼭 조례를 심의할 때 하지 말고 의원간담회를 할 때 다시 한번 그런 것까지 다듬어 가지고 한번…… 간담회에서 조례를 바로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재선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예.

○ 위원장 박재선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선

복지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헌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헌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6호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7호 완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8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9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69호 완도군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박재선	허궁희	우성자
김재홍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복지행정국장	허정수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 전문위원 : 추관호

○ 속기공무원 : 정홍비

제276회 완도군의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도군의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24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개의)

○ 위원장 김재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2570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미래해양사업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안녕하십니까?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입니

다.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야간운항에 따른 손실보전 등 여객선 대체선 건조비, 부속도서 및 운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 기존 야간운항을 야간 (청취불능) 신규 운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2에서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 조문을 신설하며, 안 제12조의 2에서 낙도 등에 대한 특례적용으로 부속도서 및 여객선 운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해운법, 그리고 부서 및 도선 사업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9년 10월 2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명신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자치조례로서 조례명 및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나, 조례안 제4조의 2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3항 2호,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7호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법의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어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의 조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 박인철 위원

단장님한테 말고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고수영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의회에 올라오는 조례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까?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철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들을 안 거치

고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는…… 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인데. 왜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거쳐야 하는 것들을 안 거치는가. 그리고 법무통계에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의회로 넘기는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것을 거꾸로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가. 물론 법무통계에서 돈사나 태양광,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이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담당에서 다 됐다고 해도 거꾸로 법무통계에서 그 절차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절차 없이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신영균 단장님도 멍하니…… 올라왔으니까 의회에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법적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알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도 처음부터 못 올리게 했는데, 본청에서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이 회의를 거쳐서 부결시켜야 해서 할 수 없이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철 위원

그리고 철저하게요. 업무부서의 말만 듣지 말고 법무통계팀에서 다시 한 번 역으로 확인하십시오.

○ 법무통계팀장 고수영

(좌석에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인철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 적법절차를…… 본청에서, 집행부에서 안 거쳤기 때문에 부결하고 1월이나 2월 중에 다시 올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재홍

제가 봐도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미래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사업단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마

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이 수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0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김재홍	허공희	우성자
박재선	박인철	김양훈
이범성	최정욱	

○ 출석공무원

미래해양사업단장	신영균

○ 전문위원 : 최명신

○ 속기공무원 : 정홍비

회의록서명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7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의 장	조 인 호		
의 원	최 정 욱		
의 원	허 궁 희		
의회사무과장	천 종 실		

2019年度 莞島郡議會 會議錄

2020. 08. . 인쇄

2020. 09. . 발행

발행 : 완도군의회

인쇄 : 완도신문사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TEL. 061)550-5900 FAX. 061)550-8853

비매품

